

# 襄陽郡誌

上卷

翼嶺縣本高勾麗翼峴縣文一云伊新羅景  
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  
縣今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  
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  
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  
別號襄山有東海神祠屬縣一  
洞山縣本高勾麗穴山縣新羅景德王  
改今名爲溟州領縣顯宗九年來屬

襄陽郡誌編纂委員會





# 襄陽郡誌

上卷



襄陽郡誌編纂委員會









## 발간사



본 양양군지는 우리군의 향토사를 집대성한 사료집으로서 선조들의 발자취일 뿐 아니라 선조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기록입니다. 이제 20년 전에 발간됐던 『양주지』가 『양양군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을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은 8천년 전 신석기 선사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향토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역사의 단절을 가져온 암흑기인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38선으로 인한 남북분단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사료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데 최근에는 자연의 혹독한 천재지변과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 귀중한 고서, 각종 문서와 기록물, 옛 사진 등 많은 사료(史料)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셨다가 기꺼이 기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료들이 없었다면 가치가 있고 귀중한 향토사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향토사는 남의 눈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노력으로 향토사를 찾아서 올바르게 정립하여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향토애를 북돋아 나가야 합니다. 향토사란 어느 특정한 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향토사의 주체이며 주인공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하여 새로운 향토사를 창조해 나감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양군지가 후손들이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군지의 편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진호 양양군수님과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편찬 작업에 임하여 주신 편찬위원님 집필위원님 그리고 편집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양양군의 무궁한 발전과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1월

양양군지편찬위원장  
양 양 문 화 원 장

양 동 창

## 축간사



양양지를 모태로 근 2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오늘 양양군지가 새롭게 귀한 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의 감수에서 집필, 편집, 고증에 이르기까지 고된 작업에 정성을 다해주신 양동창 문화원장님 이하 편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권의 군지에 담겨진 근·현대 양양군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 전반의 무게를 가늠할 때, 앞으로 우리는 이 군지를 펼칠때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그 자체로 대단히 소중한, 그것을 더듬어 기록으로 남겨가는 과정 또한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란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고대 신석기 문화의 태동에서부터 중세 및 근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문화적 정체성이 확고한 고장입니다.

금번 발간되는 양양군지를 통해 우리에게 내재된 이러한 풍부한 문화적 자긍심을 재확인하고 내일의 창조와 발전을 위해 귀한 지침으로 활용할줄 아는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양군지의 발간을 마음깊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역량을 통해 역사적 사료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양양군수 이 진 호



## 축간사



양양군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신 편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건전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바쁜 가운데, 오늘의 역사적 작업을 이끌어 내신 양동창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양양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주지 이후, 20년 만에 발간되는 양양군지는 향토사에 대한 역사와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 지역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성이 누차 제기되어 왔던 터라 그 반가움이 더 큼니다. 이번 군지는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며, 지역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양양군의 백과사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양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토애를 고취시켜줄 훌륭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하여, 옛 것이 존중되지 못하는 세태에 지역 향토사 보존을 위한 군지의 편찬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의 업적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고장 양양을 알리는 책이 한 권이 엮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에는 양양의 삶과 문화, 나아가 양양의 역사가 재조명되어 새로 건설되어지는 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군지가 양양의 올바른 향토사 정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국회, 전국 자치단체와 각급 대학 도서관 등을 통해 양양군을 알리는 홍보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양군지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양양군의회회장 오 세 만

## 축간사



양양군은 진산인 설악산과 넓푸른 동해, 그리고 연어의 모천인 남대천이 있는 지역으로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곳 양양군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모든 것은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것들로서 우리 또한 다음세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양양군’의 뿌리와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년간 양양군지의 역할을 해온 양주지가 증·보되어 “양양군지”로 새롭게 편찬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양양군민들에게 선보이게 될 “양양군지”가 역사, 문화, 행정,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양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시대의 창”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양양군지”가 발간되기 까지 수고해 주신 양양군청 및 양양문화원 관계자분들과 편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국회의원 송 훈 석



### ○ 심볼마크 | Symbol Mark



밝고 깨끗한 양양의 태양, 자연, 바다를 형상화하였으며 양양의 '오'를 겹치게 표현하여 세계 속의 교통, 관광, 문화를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단순하게 이미지화 하였다.

태양의 붉은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기원하고 바다의 청색은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 녹색은 양양의 자연과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밝고 힘찬 전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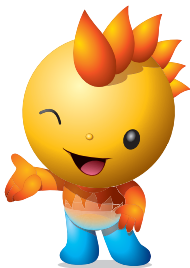
### ○ 엠블렘 | Emblem



양양군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주로 상장, 임명장, 각종 행사시 가슴에 패용하는 리본 등에 사용함.

전용 엠블렘은 Full Color, 금색, 은색, 엠보싱(Embossing)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됨

### ○ 캐릭터 **해해키** | Character



양의 찬란한 일출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머리의 여섯 개의 불꽃은 양양군 6개 읍면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고, 얼굴과 몸의 붉은황금색은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번영을 나타내며 배와 다리부분의 청색은 양양의 푸른 자연과 군민의 화합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캐릭터 네임 로고는 해(태양, 바다)+Kid(아이)의 조합으로 양양군의 찬란한 태양과 밝고 깨끗한 바다를 형상화하여 자연을 담은 친근하고 귀여운 아이를 의미한다.

### ○ 도시브랜드 | Brand



양양군의 슬로건인 '오래오래'의 첫 번째 의미는 94년 월드컵 주제가였던 '오래오래(Ole Ole)'가 연상되는 네이밍으로 'Ole Ole'는 스페인어로 '힘내라, 힘내라'는 뜻과 함께 일종의 감탄사로 브라보, 지화자의 뜻이 있어 '브라보 양양'의 뜻이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말 그대로 '오래오래'의 뜻으로 선사시대부터 시작되는 양양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동시에 관광 1번지 양양에 오래 오래 머물러 줄 것을 권하는 'long long time'의 의미가 담겨있다.

세 번째 의미는 '맞이할 오(晤), 올 래(來), 밝을 오(昨), 올 래(來)'로 '오는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면 밝음(태양)이 온다'는 뜻을 포함하는 'Welcome'의 의미로 양양에 많은 손님들이 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 ○ 군목 | 소나무



- 사시사철 푸른 잎과 곧은 줄기는 변하지 않는 충절과 깨끗한 양양인의 기상 상징
- 척박한 땅에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은 양양의 오랜 역사와 군민의 장수를 상징

## ○ 군화 | 해당화



- 해풍과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군락을 형성하는 응집력은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
- 열매속의 씨앗은 군민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의미
- 가시로 무장한 붉은 꽃은 그리움으로 피어난 여심(고향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

## ○ 군조 | 백로



- 흰색에 대한 경외감은 불멸과 영원, 행운을 상징
- 백로가 찾아오는 곳은 먹이가 풍부한 길지로 농사와 사람살기에 좋은 양양땅을 의미
- 청초하고 깨끗한 자태는 학문과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선비의 고귀한 기풍으로 양양의 얼을 상징

## ○ 군어 | 연어



- 모천으로 회귀하는 본능은 양양인이 간직한 고향에 대한 수구초심과 향토애의 상징.
-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은 부모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상징
- 오호츠크해부터 이어지는 대장정은 은근과 끈기를, 상류로 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은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

박익훈 작사

황규렴 작곡

경쾌하게



시곡 대선 용택 최길

산 높고 물 맑은 양 - 양 - 이 라 네  
 들 기 높고 들 색 맑은 양 - 양 - 이 라 네  
 우 리 자 영이 평 - 경 - 이 로 다  
 우 리 자 영이 평 - 경 - 이 로 다  
 염 기 원 동 해 안 위 올 연 - 계 - 안 - 산  
 염 기 원 동 해 안 위 올 연 - 계 - 안 - 산  
 해 안 평 계 고 도 드 낙 - 산 - 사 로 다  
 평 간 평 바 라 보 의 - 상 - 대 로 다  
 에 헤 에 - 중 구 중 - 다  
 평 경 이 로 구 - 나 -



## 행정지도



축척 = 1 : 70,000

연세 : 2000. 10 발행 : 2000. 10  왕산군



**양양군**은 강원도 영동지방 중북부에 위치하며, 기원은 20만~7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 구석기에 속하는 ‘아슐리앙’ 계통의 주먹도끼와 1천여 점의 떼석기가 출토되어 양양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손양면 오산리에서도 8천 년 전의 신석기 유적이 발굴 되었다. 그 외 군내 여러 곳에서 청동기, 초기철기문화유적이 발견됨으로서 신석기시대 이후 사람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 호수 주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127년 이전에는 성읍국가형태인 예국(濊國)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불리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에 익령(翼嶺)이라 고쳐서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5도양계제 실시에 따라 현령이 파견되고 동계(東界)에 속했다. 이때 동산현(洞山縣)을 속현으로 병합했다. 고종 8년(1221년)에 양주(襄州)로 승격했으나 1253년에 양주현, 고종 44년(1257년)에 덕녕현(德寧縣)으로 강등되어 감무가 파견되었다. 원종 원년(1260년)에 덕녕현에서 다시 양주로 회복되고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다.

조선왕조 태조 6년(1397년)에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1413년) 군현제(郡縣制)개편 때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바뀌었다.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개칭(改稱)되면서 오늘날까지 양양(襄陽)이라 부른다. 1618~1622, 1688~1696, 1783~1791년 3차례나 현(縣)으로 강등(降等)되었다가 부(府)로 회복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6년에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1914년 12개 면 중, 서면·현북면·현남면은 그대로, 부내면·부남면·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남면이 손양면으로, 강선면·사현면이 강현면으로, 도문면·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통합되어 7개면으로 재편되었다. 1919년 토성면·죽왕면이 양양군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됨으로써 38°선 이남인 현남면과 현북면 서면 남쪽 일부가 강릉군(江陵郡)에 속하였고 이북인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과 서면 현북면의 대부분이 공산치하에 들어갔다. 1951년에 군 전역이 수복되고, 1954년 수복지구임시조치법(收復地區臨時措置法)에 따라 현남면이 명주군(溟州郡)에 편입되고 현북면과 서면 일부는 다시 본군에 환속되었다. 1963년 속초읍(束草邑)이 시(市)로 승격 분리되고 죽왕면(竹旺面) 토성면(土城面)이 고성군(高城郡)에 편입되는 반면 명주군(溟州郡) 현남면(縣南面)이 본군(本郡)에 환원되었다. 1979년에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750년대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다.

양양부 : 태조 6년(1397년)에 府로 승격되었으며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강원도 양양군 일대와 속초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양양읍 군항리가 그 중심지가 된다. 지도 위쪽의 所川面과 道門面이 현재의 속초시에 해당하며 지도 아래쪽의 洞山縣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양양에 포함된 땅으로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다.

靑草湖, 雙湖등의 瀉湖가 발달한 지역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왼쪽위는 설악산 일대이며 五色峯, 朴達峯, 阻枕峯, 九龍峯, 등의 고개는 양구, 인제, 춘천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東海廟(東海神祠, 양양읍 조산리)는 나라에서 봄가을에 잡과 祝을 내리어 東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洛山寺(강현면 전진리)를 비롯하여 神興寺, 靈穴寺, 開雲寺, 明珠庵 등의 사찰이 있었다.



## 청구도(靑邱圖)



순조34년(1834년)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조선 지도책. 전국을 남북 29층, 동서 22판으로 나눈 방안지도(方眼地圖)로서, 방안의 실제거리는 남북이 100리, 동서가 70리이다.

지도의 내용으로 읍치 산천 군현경계 도로 면(面) 창고 서원 향교 누정 역 고개 교량 봉수 도서 진 시장 등이 그려져 있는 전국지도로서 <대동여지도> 제작의 바탕이 된 지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양양을 중심한 일부분만 복사 수록한 것이다.



## 대동여지도(大同輿地圖)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철종 12년(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의 대축적 지도.

대동여지도는 순조 34년(1834년)에 김정호 자신이 제작한 <청구도 靑邱圖>를 27년후에 증보 수정한 대축적지도로 분첩 절첩식(分帖折疊式) 지도첩이다. 우리나라의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끊어 19 판으로 구분했다. 동서방향은 구획된 판을 접어서 연결시켜 1첩으로 만들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동서의 방향을 연결시킨 각첩을 펼쳐서 순서대로 이어 대면 연속된 남북을 볼 수 있도록 한 전국지도이다. 양양을 중심한 일부분만 복사 수록하였다.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관동읍지』(1871년)의「선생안」에 군수의 도이임(到移任)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성책(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과 간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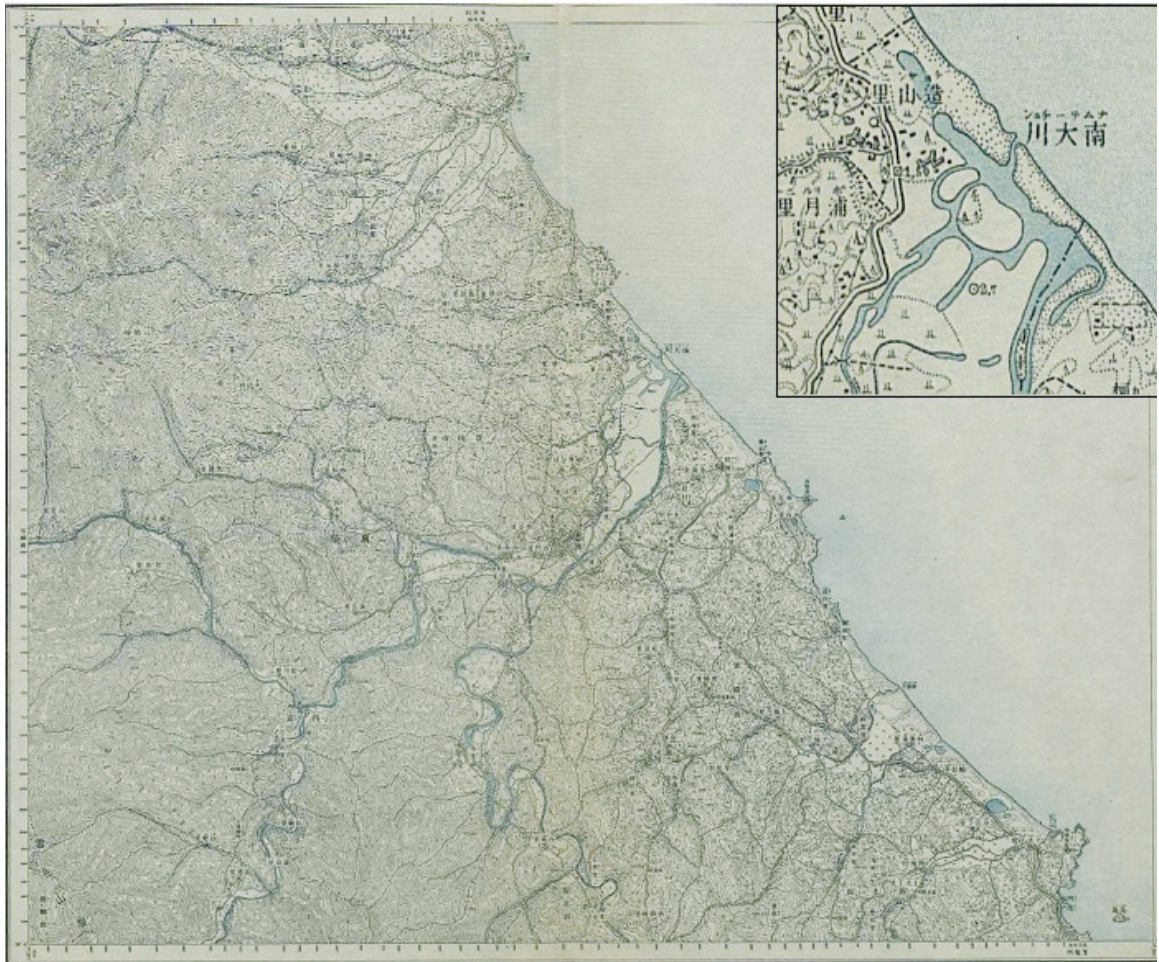




1872년의 지방지도(총 459매)는 병인(丙寅) 신미(辛未)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은 후,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읍치(邑治)의 관청 건물과 각면의 소속 동리와 같은 행정적 요소, 倉庫, 場市, 驛院, 道路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 祭壇, 樓亭, 書院, 古蹟과 같은 문화적 요소 등이 망라되어 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동해신묘의 규모와 낙산사, 관음굴, 의상대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 한국근대지도(양양지도)



한국근대지도 [양양지도]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1916년부터 1927년에 걸쳐 발행한 1/50,000 축척 지도이다. 이 지도는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전국 59개 권역의 633도엽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를 확대하여 보면 남대천 하류의 지형이 변한 형태를 실감하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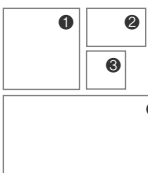
# 양양의 유물과 유적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 선인(先人)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양양사람들의 미래를 밝히는 밝은 등불입니다.





양양의 유물과 유적    손양면 도화리 구석기 유물



- ① 주먹도끼
- ② 찌개
- ③ 주먹도끼
- ④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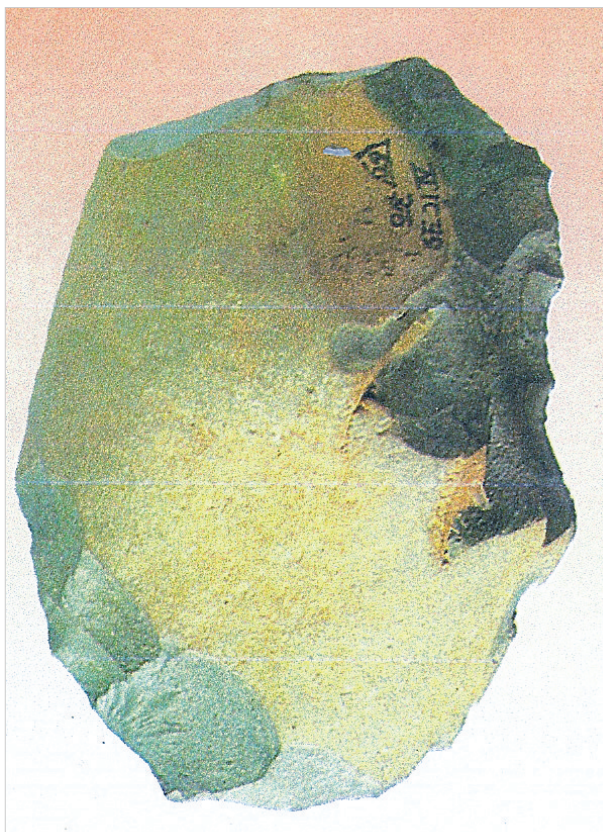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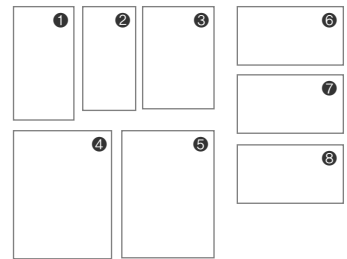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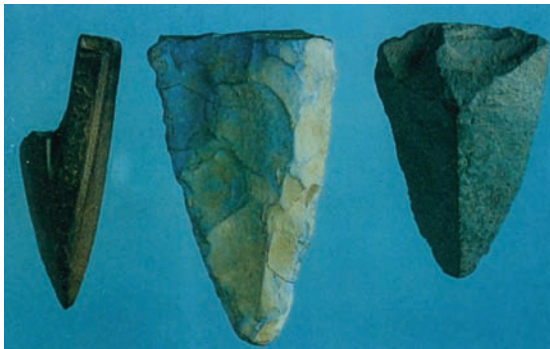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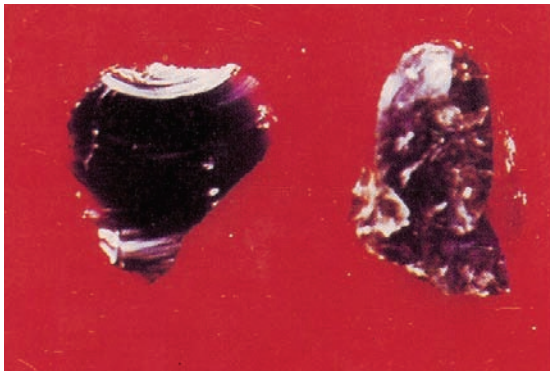


1	2
3	4
5	

- 1 오산리출토 토제인면상
- 2 오산리 출토 민무늬토기 쌍잡이단지
- 3 오산리 출토 옹기문토기
- 4 오산리 출토 납작바닥토기
- 5 양양 지경리 빗살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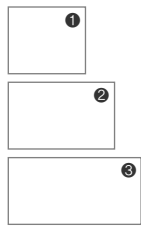




- ① 오산리 출토 마제돌도끼
- ② 오산리 출토 돌톱
- ③ 오산리 출토 빗살무늬토기
- ④ 오산리 출토 조립식 어구
- ⑤ 오산리 출토 굽개
- ⑥ 오산리 출토 타제돌도끼
- ⑦ 오산리 출토 흑요석
- ⑧ 오산리 출토 작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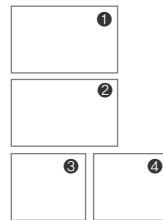
양양의 유물과 유적 청동기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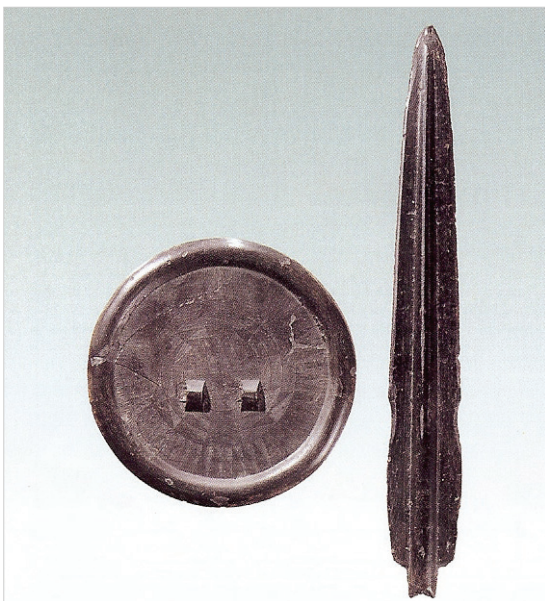
- ① 손양면 송전리 돌도끼
- ② 서면 범부리 고인돌
- ③ 손양면 수여리 고인돌







- ❶ 가평리 출토 토기
- ❷ 가평리 출토 공렬토기편
- ❸ 양양 정암리 청동거울과 동검
- ❹ 양양 포월리 금동관고리







①

②

① 선림원지부도(보물 제4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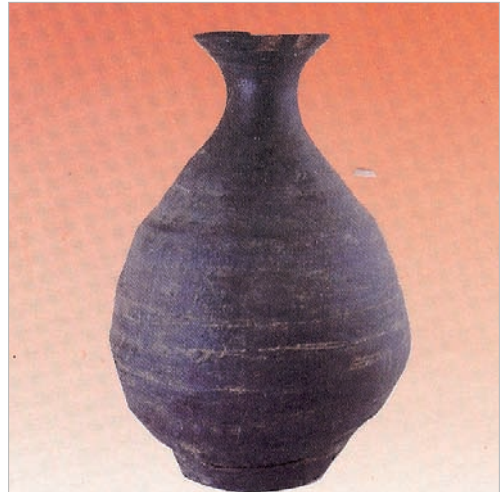
②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 제1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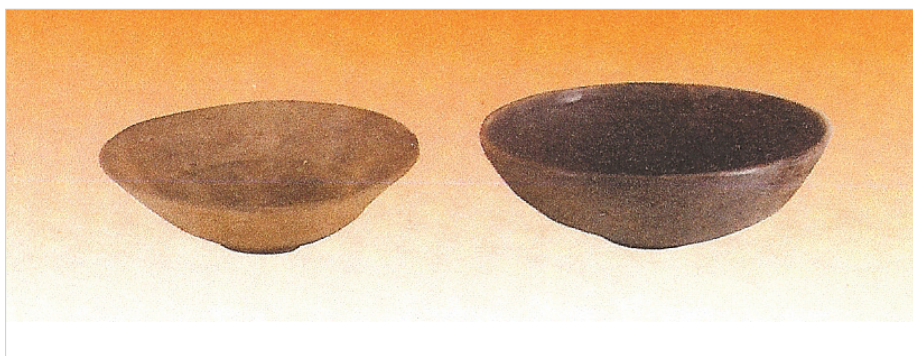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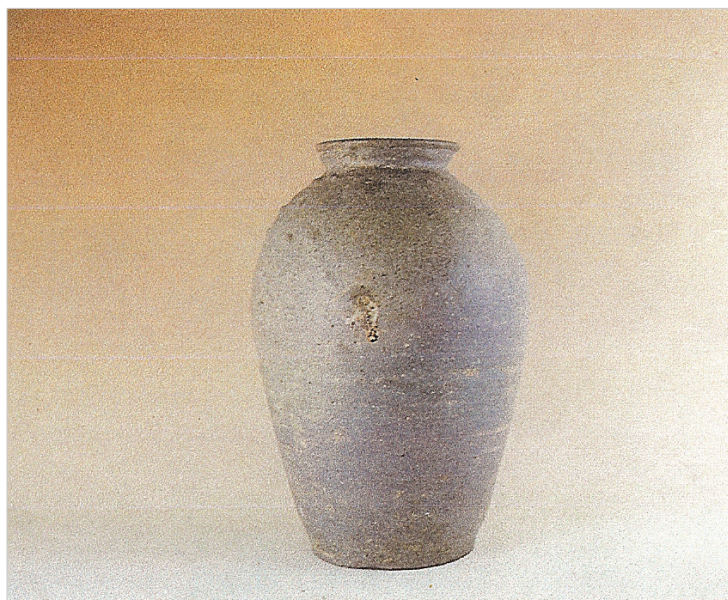
- ① 선림원지 석등(보물 제445호)
- ② 선림원지출토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
- ③ 선림원지 3층 석탑(보물 제444호)

①	②
	③



- |   |   |          |
|---|---|----------|
| ① | ② | ① 청동완    |
|   |   | ② 산수인물릉경 |
|   |   | ③ 청자상감대접 |
| ⑤ | ④ | ④ 토기병    |





- ① 토기호
- ② 청자접시
- ③ 청자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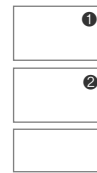
 ①

 ②

 ③



양양의 유물과 유적 조선시대



- ① 금제여래좌상
- ② 토기호
- ③ 백자접시



- ① 낙산사 흥예문
- ② 명주사 범종
- ③ 낙산사 사리탑

	①
②	③



양양의 유물과 유적 사찰



①

① 진전사 적광보전

② 낙산사 원통보전





- ① 영월사 극락보전
- ② 명주사 극락전

①
②



양양의 유물과 유적 사적



①



②

① 동해신묘

② 향교





- ① 보타전
- ② 동명서원

①
②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 양양의 특산물

깊은 산과 너른 들, 그리고 동해바다가 어우러지는 양양에서는 질 좋고 풍성한 특산품이 많이 생산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인 다양한 특산물 송이, 연어, 꿀, 숙 등 몸에 이로운 양양의 특산물을 소개합니다.





양양의 특산물

특산물



	①
	②
	③

- ① 송이
- ② 낙산배
- ③ 활어회





- ①
- ②

① 토종꿀  
② 인진쑥





Tour de Korea 2010

START

속초  
Sokcho  
낙산도립공원  
Naksan Prov Pk

강릉  
Gangneung  
하조대  
Hajodae

강원여객  
9  
시



#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어려웠던 양양의 과거, 몰라 볼 만큼 변화된 양양의 오늘. 수해와 산불을 이겨내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양양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양양읍 전경(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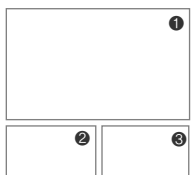


양양읍 항공사진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 |   |                |
|---|----------------|
| ① | ① 양양읍 전경(1967) |
| ② | ② 양양읍 전경(1990) |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청사



- ① 양양군청
- ② 양양읍사무소
- ③ 서면사무소



청사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 ① 손양면사무소
- ② 현북면사무소
- ③ 현남면사무소
- ④ 강현면사무소

①	②
③	④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사회기반시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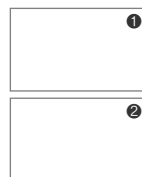
① 양수발전소 준공식

② 양수발전소 하부댐





- ① 양양국제공항
- ② 양양국제공항 개항식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사회기반시설



①		
②	③	④

- ① 낙산대교
- ② 양양교
- ③ 약수교
- ④ 오색2교











해수욕장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 ① 낙산해수욕장
- ② 하조대해수욕장
- ③ 정암해수욕장

	①	②
		③

## 일러두기

### 1. 편찬목적

- 본 책의 편찬목적은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각 분야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양군민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양양군의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편찬하였다.

### 2. 서술원칙

- 본 책은 선사시대에서 최근까지 양양군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담하였다.
- 총2권 11편으로 상권(제1편~제6편), 하권(제7편~제11편)이며, 문장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간결하고 평이하게 서술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주와 집필자명, 참고문헌은 원고 말미에 일괄 제시하였다.
- 사료(史料) 중 오색령과 같이 고문헌에 확실한 근거가 수록되어 면면히 이어온 경우 사실대로 표기하였고, 지역 특성상 역사적 근거가 미흡한 분야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하였다.
- 어의(語義)가 혼란을 가져올 경우(지명, 인명 등)는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하고 숫자의 표기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다. 서술 내용에 관계되는 사진, 도표, 지도, 고증내용 등 풍부한 보조 자료를 삽입하였다.
- 한문이나 영문 등 외국문의 원전(原典)이 있는 내용은 반드시 국역하고 원문은 괄호 안에 넣었다. 그 외에 정하지 않은 표기방법이나 집필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랐다.

### 3. 교열 및 감수

- 교열 및 감수는 5차례에 걸쳐 서술내용의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
- 학술용어는 집필자마다 용어 사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집필자의 견해를 존중하되, 원고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감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삭제하였다.



양양의  
명품송(名品松)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에 있으며 2010년 10월 28일 명품송으로 지정됨.



# 襄陽郡誌

## 上卷 Contents



### 제1편 | 역사

- 발간사 · 4
- 축간사 · 5
- 양양의 상징 · 8
- 양양의 노래 · 10
- 양양팔경가 · 11
- 행정지도 · 12
- 연혁 · 13
- 양양의 고지도 · 14
- 양양의 유물과 유적 · 20
- 양양의 특산물 · 40
- 사진으로 보는 양양군 · 44
- 일러두기 · 56
- 양양의 명품송 · 57

- I. 선사시대 · 67
  - 1. 선사문화의 형성배경과 주민의 정착
  - 2. 선사유적·유물의 분포 현황
- II. 오산리선사유적 · 98
  - 1. 머리말
  - 2.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 3. 최근 발굴된 오산리유적
  - 4. 오산리유적의 보존과 활용
  - 5. 맺음말
- III.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 129
  - 1. 양양지방의 고대사
  - 2. 양양지방의 중세사
  - 3. 양양지방의 근세사
  - 4. 양양지방의 근대사
- IV. 3·1운동과 근현대사 · 214
  - 1. 항일의병운동
  - 2.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 3. 공산치하에서의 반공활동
  - 4. 6·25 한국전쟁
  - 5. 미군정 시기
- V. 근현대 인물사 · 314
  - 1. 잊혀진 근·현대 인물을 다시 복원하며
  - 2. 만세운동 의로운 죽음 - 함흥기, 김학구 열사
  - 3.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림대표 - 이석범
  - 4. 양양교회 담임목사 김영학의 독립운동
  - 5. 양양의 사회주의 운동가 - 김대봉, 이건호
  - 6. 봉건 억압을 거부한 여성운동가 - 조원숙
  - 7. 6·10 만세운동주도 - 조두원
  - 8. 항일 양양농민조합운동과 인물들
  - 9. 잊혀진 인텔리 사회주의자 - 최용달
  - 10. 양양 출신 아나키즘 독립운동가 - 이동순
  - 11. 반민족행위 고등경찰 - 김덕기
  - 12. 광주 항쟁 때 발포를 거부한 인권경찰 - 안병하





## 제2편 | 자연 · 인문환경

- I. 지리 환경 · 379
  1. 양양군의 위치
  2. 지형과 지질
  3. 양양 지방의 기후
- II. 동식물 · 412
  1. 서식환경
  2. 동물
  3. 식물
- III. 남대천 · 435
  1. 개요
  2. 남대천의 역사문화적 배경
  3. 남대천의 지리학적 가치
  4. 생태계
  5. 어류의 증식 사업
  6. 수계의 보
  7. 수계의 오염원
  8. 양양남대천의 보존 활동
- IV. 인문환경 · 465
  1. 개설(概說)
  2. 가구와 인구수의 변화
  3. 인구밀도와 인구분포
  4. 인구 구성과 변화
  5. 인구동태와 인구이동

## 제3편 | 정치 · 행정

- I. 양양군의 전국선거 · 477
  1. 대통령 선거
  2. 부통령 선거
  3. 국회의원 선거
  4. 참의원선거
  5. 국민투표
  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7.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 II. 양양군의 지방선거 · 503
  1. 개 요
  2. 우리 군의 지방자치 역사
  3. 기초의회(군의원) 선거
  4.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5.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6.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7.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 III. 행정 · 535
  1. 개설
  2. 양양군의 행정구역
  3. 자치행정
  4. 양양군 재정 규모
- IV. 사법 · 581
  1. 재판기관과 검찰

# 襄陽郡誌

## 上卷 Contents



### 제4편 | 교육 · 종교

- I. 교육 · 585
  1.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2. 근대교육
  3. 일제시대의 교육
  4. 양양의 현대교육
  5. 주요교육제도의 변화
  6. 양양의 장학회 운영
  7. 교육기관
- II. 불교 · 659
  1. 머리말
  2. 문헌에 보이는 옛 사찰
  3. 삼국시대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근 · 현대
  8. 근 · 현대의 창건사찰
  9. 맺는말
- III. 유교 · 735
  1. 들어가는 말
  2. 양양향교
  3. 동명서원(東溟書院)
  4. 맺음말
- IV. 기독교 · 764
  1. 본질(本質)
  2. 전래약사(傳來略史)
  3. 양양의 교회 역사 및 현황
  4. 기 타(其 他)
- V. 천주교 · 777
  1. 천주교의 전래와 박해
  2. 양양천주교회의 설립과 발전
  3. 양양천주교회의 회고와 전망

### 제5편 | 산업 · 경제

- I. 산업 · 789
  1. 개황(概況)
  2. 고려의 토지제도
  3. 조선의 토지제도
- II. 농업 · 794
  1. 개설(概說)
  2. 농업생산기반
  3. 농업생산
  4. 농업 관련 조직
- III. 임업 · 823
  1. 총설
  2. 양양지역 산림 사업의 변천
  3. 임업의 개황
  4. 임산자원
  5. 조림 및 사방사업
  6. 임산자원 보호
  7. 임정기관 및 조합
- IV. 수산 · 849
  1. 어가 및 어가인구수
  2. 수산물 어획량
  3. 어선 보유 현황
  4. 어업기반 시설 현황
  5. 어항의 위치 및 특징
  6. 양식 사업 현황 및 증 · 양식업 등록 수
  7.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8. 종묘 방류사업 현황
  9. 수산물 가공 공장 및 주요 가공품 현황
  10. 어업인 단체 현황
  11. 어촌 체험 마을
  12. 회 센터
  13.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성공사례
  14. 대표 회귀 어종 언어





## 제6편 | 관광 · 체육

### ○ V. 광업 · 877

1. 광종별 광구 현황
2. 광산물 생산실적
3. 광업사업체
4. 양양 철광
5. 구룡광산
6. 규사

### ○ VI. 경제 · 886

1. 조세제도
2. 상업
3. 금융업
4. 제조업
5. 수출입 현황

### ○ I. 관광 · 911

1. 관광의 특성 및 개황
2.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광지 지정현황
3. 주요관광권역 및 테마별 관광 · 레저
4. 연도별 관광객
5. 특산물
6. 양양군의 향토음식
7. 관광개발계획

### ○ II. 축제 · 957

1. 현산문화제
2. 송이축제
3. 연어축제
4. 해맞이축제
5. 마을단위축제

### ○ III. 체육 · 968

1. 체육의 발자취
2. 양양군체육회
3. 양양군생활체육회
4. 양양군장애인체육회
5. 양양군체육시설
6. 양양 사이클의 반세기
7. 양양 사이클 국제대회 출전전적
8.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 襄陽郡誌

## 下卷 Contents



- 양양의 자연경관
- 양양의 축제
- 양양의 과거생활모습
- 일러두기
- 양양의 명품송

### 제7편 | 민속 · 문학 · 예술

- I. 민속문화
  - 1. 세시풍속
  - 2. 일생의례
  - 3. 민속놀이
  - 4. 구비문학
- II. 양양의 언어
  - 1. 언어의 지역적 특성
  - 2. 영동과 영서의 언어 분화
  - 3. 음운 체계 및 음운 현상
  - 4. 어휘
  - 5. 문법
  - 6. 종합
- III. 민속신앙
  - 1. 개 설
  - 2. 개인신앙
  - 3. 집단신앙
  - 4. 무속신앙
- IV. 의생활
  - 1. 개설(概說)

- 2. 의복의 구분
- 3. 의복의 종류

#### ○ V. 식생활

- 1. 서론
- 2. 주식류
- 3. 찬류
- 4. 장(醬)류
- 5. 떡류
- 6. 과점류
- 7. 음점류 및 주류
- 8. 의례음식
- 9. 특산물

#### ○ VI. 주생활

- 1. 선사시대 주거지
- 2. 주택의 구조
- 3. 주거내의 생활상
- 4. 주거공간의 변화
- 5. 맺음말

#### ○ VII. 현대문학의 양상

- 1. 역사적 배경
- 2. 강원지역 동인지와 양양문학의 출범
- 3. 전통문화와 양양문학의 현상
- 4. 양양문학의 미래와 인식의 변형

#### ○ VIII. 한문학

- 1. 서론
- 2. 삼국시대
- 3. 고려시대
- 4. 조선시대
- 5. 결론

#### ○ IX. 사진

- 1. 서언
- 2. 사진 활동
- 3. 기록사진으로 본 양양사진의 변모
- 4.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제8편 | 문화재 · 지명유래

- I. 유형문화재
  1. 개념(概念)
  2. 국가지정문화재
  3. 강원도 지정문화재
- II. 명승(名勝)
  1. 설악산
  2. 기타명소
- III. 고적(古蹟)
- IV. 금석문
  1. 개관
  2. 선정비(善政碑)
  3. 흥학비(興學碑)
  4. 기념비(紀念碑)
- V. 지명유래
  1. 양양의 명칭(名稱)
  2. 양양읍의 유래
  3. 서면의 유래
  4. 손양면의 유래
  5. 현북면의 유래
  6. 현남면의 유래
  7. 강현면의 유래



## 제9편 | 건설 · 교통, 재난 · 재해

- I. 사회기반시설
  1.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2. 수자원 및 하천정비
  3. 상수도
  4. 양양 양수발전소 하부댐
  5. 내수배제시설
  6.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재활용 시설
  7. 양양공설묘지
- II. 도로 · 교통
  1. 도로체계
  2. 생활교통
  3. 새주소 사업
- III. 양양산불
  1. 개황
  2. 조선왕조실록의 산불
  3. 1960~1980년대 산불
  4. 2000년대 산불
- IV. 재난 · 재해
  1. 산불
  2. 태풍
  3. 지진(地震)
  4. 해일(海溢)
  5. 가뭄(旱魃)
  6. 폭설(暴雪)

# 襄陽郡誌

## 下卷 Contents



### 제10편 | 보건·복지·기관 단체

- I. 보건행정
  1. 양양보건소 연혁
  2. 기구
  3. 분야별 담당업무
  4. 인력 현황
  5. 보건서비스 현황
- II. 복지행정
  1. 조직의 변천
  2.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3. 사회복지시설 현황
  4.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
  5. 가정복지
- III. 기관 및 사회단체

### 제11편 | 성씨·인물

- I. 성씨(姓氏)
  1. 성씨의 기원
  2. 성씨와 본관(本貫·貫鄉·本鄉)
  3. 우리나라의 성씨
  4. 양양(襄陽)을 관향(貫鄉)으로 한 성씨
  5. 양양의 세거(世居) 성씨
- II. 인물
  1. 불교와 인연한 인물
  2. 충의
  3. 효자·효부·열녀
  4. 명관·사관직(名官·仕官秩)
  5. 역대부사·현감·군수(歷代府使·縣監·郡守)
  6.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행정수복이후)
  7. 명사(名士)

### 부록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근재집謹齋集  
동사강목東史綱目  
구암유고久庵遺稿·구암집久庵集  
옥동집玉洞集(유한계록(遊寒溪錄))  
기언記言  
양주읍지襄州邑誌  
강원도지江原道誌



# 제 1 편

## 역사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tylized flowers and swirling vine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 제1편 역사

- I. 선사시대
- II. 오산리선사유적
- III.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 IV. 3·1운동과 근현대사
- V. 근현대 인물사





## I. 선사시대

### 1. 선사문화의 형성 배경과 주민의 정착

#### 1) 자연환경적 배경

영동지방 중북부에 위치하는 양양지역은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은 인제군과 홍천군, 남쪽은 강릉시와 평창군, 북쪽은 속초시와 접하고 있다.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8° 24' 17" ~ 128° 48' 34", 북위 37° 51' 44" ~ 38° 09' 41"이며, 동서간 길이가 31km, 남북간 길이는 34km이다. 해안선은 44.5km이다.

이 지역의 지세는 서쪽에 화채봉(華彩峰 : 1,328m) · 설악산(雪嶽山 : 1,708m) · 점봉산(點鳳山 : 1,426m) · 조봉(祖峰 : 1,183m) · 암산(巖山 : 1,153m) · 약수산(藥水山 : 1,306m) · 응복산(鷹伏山 : 1,360m)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어 동해로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해안산맥이 곳곳으로 뻗어 있어 암석해안이 많으며, 그 사이에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암석해안은 대개 해안단구(海岸段丘 : 해안선을 따라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지형) 또는 해식애(海蝕崖 :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이고, 사빈해안은 화강편마암지대로부터 운반 · 퇴적된 모래밭이다.

암석분포를 보면, 해안은 대부분 화강암이고, 태백산맥에 접한 산간지대는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



양양 남대천과 주변지역(위성사진)

으며, 서면 장승리 일대는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편마암, 섬장암, 거정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오대산 두로봉이 발원지인 대표적 하천인 남대천(南大川)은 현북면 법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 양양읍의 중앙을 북동류하여 동해로 유입되며, 갈전곡봉·약수산·응복산과 오색령·설악산 등지에서 발원한 계류들을 합류한 후천(後川)이 양양읍 임천리에서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또한 쌍천(雙川)·물치천(沓溜川)·포월천(浦月川)·거마천(車馬川)·동명천(東明川)·상운천(祥雲川)·광정천(光丁川)·해송천(海松川)·화상천(和尚川) 등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대부분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하천 유역에는 소규모의 충적평야와 나지막한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안에는 해식작용(파도에 의한 지표의 변환)에 의한 수문굴·장존굴 등의 해식동굴과 사빈해안이 발달해 있으며, 해안선 부근에는 동해사면의 하천으로부터 유수(流水)를 받아들여 다시 동해로 배수하는 지형학적으로 석호(潟湖)로 불리는 호수가 형성되어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양양 오산리의 쌍호(雙湖)와 현남면의 포매리의 매호(梅湖)가 대표적이다.

기후는 태백산맥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동해에 난류가 흘러 같은 위도상의 내륙이나 서해안지역보다 기후가 온난하다. 연평균 기온 13.0℃ 내외, 1월 평균기온 0.7℃ 내외, 8월 평균기온 24.9℃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신석기시대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변했고 청동기시대에는 다시 고온다습한 기후로 변했다가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조한 기후로 환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후빙기 이후의 기후변동은 선사시대 주민들의 주거 입지조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문화환경적 배경

영동지방은 지형상으로 볼 때 동해안의 해안선을 동북 및 동남지방과 연결되고, 중부지방과는 태백산맥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나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물줄기와 태백산맥의 곳곳에 안부(鞍部)를 이루고 있는 백봉령, 대관령, 구룡령, 오색령, 진부령 등을 통하여



연결된다. 이 지역의 선사문화는 이러한 자연적 지형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이래 영동지방의 선사문화의 형성과 변천은 동북계 선사문화의 밀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동북계 문화가 영흥만 일원의 동해안지방으로 진출한 서북계 문화와 합류하여 형성된 복합문화가 영동지방으로 유입되었음이 최근의 고고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동남부지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영흥만에서 영동지방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지역에서 형성된 무문토기문화가 중부지방을 포함한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동지방에서 발견·조사된 선사유적들의 분포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사유적들은 주로 동해바다와 인접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사구지대와 낮은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석기시대 유적들은 주로 해안단구의 평탄면에서 주로 발견되며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성 단구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요하천의 하류역과 호수 주변의 사구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하천 주변의 나지막한 구릉상에서도 발견된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하천과 호수주변의 낮은 구릉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철기시대 유적은 신석기시대와 같은 입지를 갖는 사구지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렇듯 영동지방에서 발견되는 선사유적들의 자연적 입지조건은 시기마다 대체로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당시 사람들의 주된 생업의 차이, 즉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어로이고,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조건을 달리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철기시대 유적이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해변의 사구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의 입지조건을 단순한 생업과 결부시키기보다는 해수면변동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이 선사문화의 환경적 배경에서 볼 때, 양양지역의 선사시대의 각 문화상은 영동지방의 다른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주민의 정착

선사문화 기원은 수십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구석기에 속하는 ‘아슬리양’ 계통의 주먹도끼와 1,000여 점의 편석기가 출토되어 양양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동해안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구석기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편석기가 출토되는 구석기유적들은 주로 동해안에 접한 해안단구나 주요 하천변의 구릉에서 발견되고 있는 입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구석기인들의 주요 생활터전이 해안단구(海岸段丘)나 하천변의 구릉지대(丘陵地帶)였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식량 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수혈주거(竪穴住居)]을 짓고 마을[취락(聚落)]을 형성하여 정착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81~1987년 오산리유적, 1994~1996년 가평리유적, 1995년 지경리유적, 2002년 용호리유적, 2006년 송전리유적, 2006~2007년 오산리유적 등 일련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석기주민들이 이곳을 활동무대로 삼아 삶을 영위했음을 잘 알 수 있다.



후기구석기시대 살림살이 모습



신석기시대 움집과 살림살이 모습

199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동지방 곳곳에서 발견·조사된 비교적 많은 수의 신석기유적들이 대부분 하천이나 호수가 동해바다와 만나는 사구지대(砂丘地帶)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후기나 말기단계에 와서는 부분적으로 사구지대에서 하천변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로 옮기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동지방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 양양지역도 남대천, 동명천, 화상천 등 주요 하천유역 및 석호 주변의 사구지대를 중심으로 신석기주민들이 어로와 원시적인 농경을 하며 정착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구석기인의 혈통이 신석기시대까지 계승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나, 신석기시대의 주민들이 이 땅에서 다양하게 적응한 구석기인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도 신석기시대를 뒤이어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발견·조사된 다수의 생활유적과 고인들의 분포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양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방에서 발견·조사된 유적의 입지조건과 매우 부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하천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하천 주변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는 청동기시대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이용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형성되어 본격적인 농경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동지방에서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에 이르는 다수의 주거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그 문화적 계통은 동북이나 서북 등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개양상도 이와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무문토기(無文土器)]를 남긴 주민들이 신석기시대 이래 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온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주민들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 2. 선사유적·유물의 분포 현황

### 1)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유인원(類人猿)에서 진화하여 도구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농경이나 목축 또는 토기의 제작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문화단계로 고인류(古人類)가 등장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말한다.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홍적세(洪績世)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뎀석기[타제석기(打製石器)]가 가장 중요한 도구였으며, 석기의 전체 형태나 가공기술의 정도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 석기 이외에도 고인류의 화석이나 지층구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뿐 아니라 당시의 기후와 생활상을 복원·추정할 수 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수렵과 채집 그리고 어로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집은 나무열매류, 견과성식물류, 뿌리성식물류, 기타 수확물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또한 강가나 해안에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로생활도 하였다. 수렵은 동물을 사냥하는 것으로 다소 간의 무리를 이루어 생활을 해야 효과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으므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으며, 아울러 식량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이동생활을 하였다.

양양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에 인류가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1984년 도화리에서 뎀석기가 발견됨으로써 선사문화의 기원은 수십만 년 전인 전기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구석기유적으로는 도화리유적이 있다.

#### (1) 도화리유적(桃花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도화리 산71-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오산리 신석기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600m쯤 떨어진 동해안과 인접한 해안단구 지대에 속하는 해발 23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에 해당된다. 1984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의 지표조사에 의해 양양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유적으로, 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슐리앙’ 계통의 주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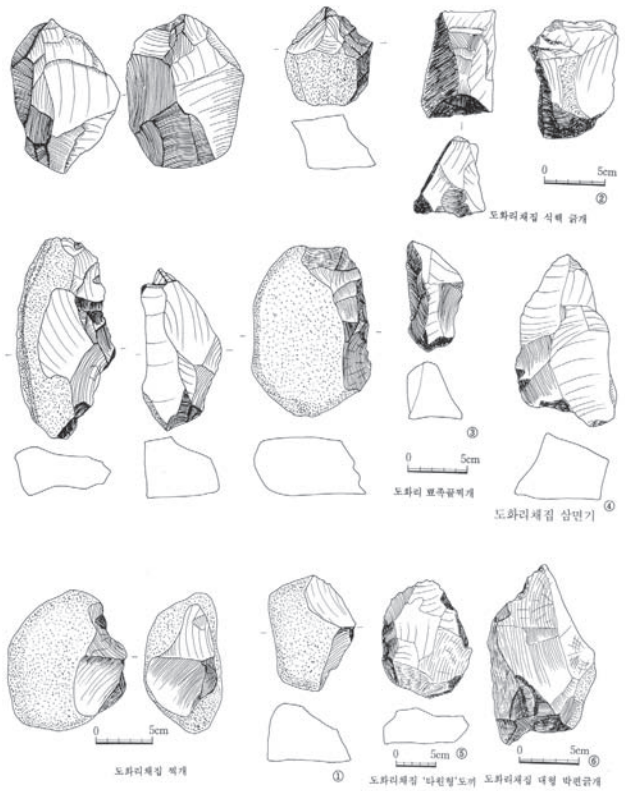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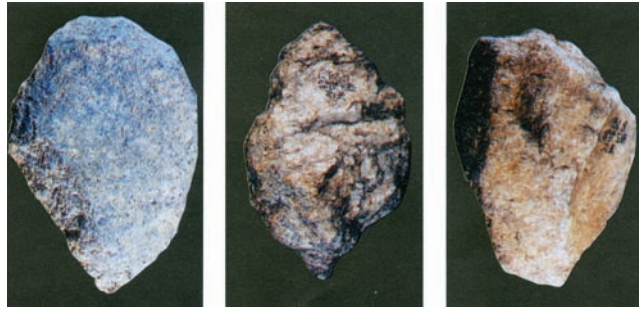
도끼를 포함하여 가로날도끼, 자르개, 긁개, 찌개 등 석기 1천여 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출토된 주먹도끼는 타원형, 삼각형, 창끝형, 하트형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양면석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유적 중 최고 최대의 유적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 되면,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다습하게 되어 양극지방의 두꺼운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듯 변화한 자연환경 속에서 인류는 구석기시대의 저급한 수렵, 채집

경제를 벗어나 정착생활을 하면서 원시농경과 목축에 의한 식량생산을 하고, 흙을 빚어 구운 토기[덧무늬토기와 빗살무늬토기]로 요리와 저장의 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돌을 갈아 만든 다양한 간석기[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고 직조(織造)기술을 개발하는 등 인류문화 발달사의 혁명적인 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 시기를 신석기시대라고 한다.



도화리유적 출토 뎌석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식량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 그리고 호수 주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수혈주거(竪穴住居)]을 짓고 살았다. 움집의 보편적인 형태는 원형(圓形)으로, 집의 바닥에는 진흙을 펴서 다지고 풀이나 짐승 가죽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화덕시설[노지(爐址)]을 설치하고 지붕은 주위에 서까래를 걸치고 다른 한 쪽 끝이 중앙에 모이게 하여 뼈대를 형성한 후 나뭇가지나 갈대 등의 풀을 덮어 만들었는데, 대개 원추형(圓錐形)의 모습을 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계단이나 경사면을 만들어 출입구 시설을 하기도 하고 밑이 잘린 토기를 거꾸로 묻어 만든 저장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주요한 생계수단은 사냥과 고기잡이, 야생식물의 채집이었으나 신석기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원시적인 농업이 시작되어 조·피·수수·기장 같은 곡물 일부가 재배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용호리, 조산리, 가평리, 송전리, 오산리, 남양리, 기정리, 하광정리, 원포리, 입암리, 임호정리 등 많은 곳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중 용호리유적, 오산리유적, 가평리유적, 송전리유적, 지경리유적 일부가 정식으로 발굴되어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양양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양상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남대천 하류역에 위치한 가평리, 송전리, 오산리 일대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동일한 사구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동지방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유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용호리유적(龍湖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일원으로서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해발 25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해안사구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의 동쪽으로 약 100m쯤에 설악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쪽으로 50m 거리에 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동해 바다로 흘러들고, 북쪽 구릉너머에는 작은 늪지가 있어 선사인들이 살기에는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0기, 소토유구 2기, 용기문토기 출토유구 1곳 등이 확인되었으며, 용기문토





용호리유적 야외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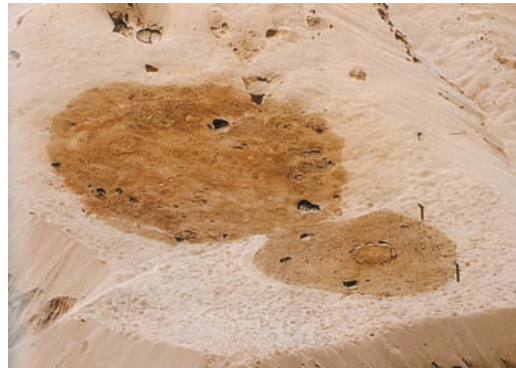


용호리유적 출토 유물

기와 조합식어구, 어망추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전기~중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오산리유적(鰲山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오산리 6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석호인 쌍호를 매립하여 농지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981년부터 198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조사단에 의해 A·B지구가 발굴되었다. 조사결과, 사구지대에서 11기의 원형 집자리[주거지(住居址)]와 야외노지로 추정되



오산리유적 주거지(1980년대)

는 돌무지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복원 가능한 납작밑발형토기 20여 점과 많은 양의 빗살무늬토기 조각, 결합식낚시바늘, 돌톱, 흑요석, 마제석기 등 석기 300여 점, 점토제얼굴상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층위는 크게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이 유적은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약 4500년간 존속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최고의 연대를 보이고 있는 유적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흑요석에 대한 형광X선 분석

결과, 원산지가 백두산으로 밝혀져 선사시대 원재료의 교역에 관한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1997년 4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94호로 지정되었다.



오산리유적 출토 덧무늬토기



오산리유적 출토 석기류

한편, 2006~2007년에 걸쳐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오산리유적 A지구에서 동쪽으로 약 70m쯤 떨어진 C지구가 발굴되면서, 신석기조기~중기에 이르는 주거지 6기와 야외노지 2기가 조사되었으며, 용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습지유적과 함께 용기문 및 오산리식토기에 선행하는 신석기시대 초기의 한데유적이 조사되었다. 특히 신석기 초기문화층은 사구층 아래의 갯신세층으로 추정되는 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제주 고산리유적의 초창기토기 다음으로 오래된 문화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문화층에서 무문양토기와 구연부에 압날점열문을 시문한 적색마연토기 등과 함께 석부, 결합식낚시, 석촉 등의 간석기 그리고 줍돌날, 줍돌날몸돌 등 소량의 펜석기가 출토되어 이 단계까지 후기구석기 말기의 세석기(細石器)의 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 (3) 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가평리 산25-2번지 일원의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4~1996년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3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형태이며, 단사선문의 횡주어골문, 중주어골문, 사격자문, 능형집선문, 점열집선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



기[줄문토기(櫛文土器)]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와 야외노지에 남아 있던 탄화목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된 결과, B.C.3000~B.C.2000년경의 연대치가 나와 대체로 신석기 중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평리유적 주거지



가평리유적 야외노지

#### (4) 송전리유적(松田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송전리 산14-1, 1-5임 일원으로서 가평리유적과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송전리 23-1번지 주택신축부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종주어골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능격문, 격자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와 석부, 석촉, 어망추, 갈판·갈돌 등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이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미루어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신석기시대 중



송전리유적 2호 주거지



송전리유적 1호 주거지

기에 해당되며, 동일한 사구지대로서 북쪽으로 연결되어 인접한 가평리유적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5) 지경리유적(地境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지경리 5-7, 5-1임 일대로서 화상천(和尚川) 하구 남쪽에 형성된 해발 7~9m의 퇴적사빈지형의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신석기시대 집자리 10기, 야외노지 3기, 소할석유구 1기 등이 발굴되었다.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주변 교란층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빗살무늬토기



지경리유적 주거지

10여 점과 빗살무늬토기 조각 수백 점, 석부 12점, 석촉 17점, 석창 2점, 석도 4점, 돌그물추 331점, 갈판 10여 점, 숫돌 3점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약간의 시기차를 두고 조성되었는데, 지경리 I 기와 II 기로 크게 구분된다. I 기는 첨저계(尖底系) 즐문토기 문화단계로 황해도 지탑리유적과 서울 암사동유적 등 중서부지역에 연결되며, II 기는 태선문계(太線文系) 즐문토기 문화단계로 동남부지역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이 유적은 방사성탄소측정 결과, B.C.3355~B.C.3035년경의



지경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연대치가 나와 신석기시대 중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역간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상대편년과 문화교류 관계 및 신석기시대 중기 집자리의 형태와 가옥구조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지경리유적 출토 금강식토기



지경리유적 출토 석기류

### 3)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간석기 대신에 구리에 비소, 주석을 합금하여 만든 청동기(靑銅器)의 사용으로 인류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녕지역,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토기가 앞선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약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시대로 넘어간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으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가 본격화 된다. 고인돌[지석묘(支石墓)]도 이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 시대에 청동기가 생산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나, 청동기는 신분상징적인 존재로 소수의 유력자들에 한정되어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다. 생활도구로는 주로 간석기나 목기, 골각기가 이용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은 주로 강과 하천에 가까운 평야나 야산 구릉지대에서 취락을 이루며, 주변 골짜기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네모꼴[방형(方形)]이나 긴네모꼴[장방형(長方形)]의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은 신석기시대보다 움이 낮아진 반움집으로 규모가 더 커졌으며, 움집 내부의 바닥에는 돌을 돌리거나 바닥을 약간 파서 화덕을 만들었고, 집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화덕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 와서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이전부터 사용하던 간석기가 더욱 다양해졌다. 간석기에는 벌목이나 나무 가공에 사용된 돌도끼, 홈자귀, 돌대패날, 돌끌 등이 있고,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사용된 반달돌칼, 돌낫이 있으며, 땅을 파거나 밭을 일구는데 사용된 돌보습과 돌괭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곡물 가공에 쓰인 갈판과 갈돌이 있으며, 무기와 사냥도구로는 돌화살촉, 돌창, 돌칼, 바퀴날도끼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토기[민무늬토기 : 무문토기(無文土器)]는 이전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굵은 모래나 활석 등을 섞은 진흙으로 빚어 구운 납작한 토기로, 대개 그릇표면에 무늬가 없으며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일상용의 민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교체되면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릇의 형태나 색,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초반 감곡리 유물산포지와 범부리 고인돌이 확인된 이래 최근까지 포월리, 수여리, 학포리, 상양혈리, 하광정리, 조산리, 사천리, 강선리, 기정리, 밀양리, 포매리, 원포리, 지리, 임호정리, 입암리 등 비교적 많은 곳에서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많은 주민들이 주요하천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음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토착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 포월리유적, 밀양리유적, 임호정리유적, 지리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최근 영동지방 최초로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인 송전리토광묘 1기가 새로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거지(住居址) 및 유물산포지 등의 생활유적(生活遺蹟)과 고인돌과 같은 분묘유적(墳墓遺蹟)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요 유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포월리고인돌(浦月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양양읍 포월리 산59번지 일원의 나지막한 구릉상에 3기가 위치한다. 1992년 포월리 농공단지 조성지역내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강



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인접한 남쪽 구릉 정상부에 1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호 고인돌은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만 남아 있었다. 석곽의 바닥은 아무런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했고, 면이 고른 할석을 안쪽으로 향하여 2~4단 높이로 쌓았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165



포월리 1호 고인돌

cm, 너비 62cm, 깊이 62cm이다. 출토유물은 없었으며 발굴조사 당시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매립처리 되었다.

2호 고인돌은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만 조사되었다. 석곽은 장벽은 3~4단으로 쌓았으며, 단벽은 1매 또는 2매의 판석을 세워 마감하였다. 바닥은 장벽에 쌓은 돌과 같은 크기의 할석을 사용해 전면에 깔았다. 출토유물은 없었으며 발굴조사 당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매립하게 되었으므로 유물의 보존과 후세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릉시립박물관으로 이전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시 중이다.



포월리 2호 고인돌



포월리 3호 고인돌

3호 고인돌은 이미 도굴되어 남쪽에 도굴갱이 뚫려 있고 덮개돌은 돌로 갈라진 상태로 놓여 있다. 덮개돌의 주변은 작은 냇돌들이 폭 1m 내외로 덮개돌 중간부까지 쌓여 있고, 덮개돌 밑으로 받침돌들이 보인다. 덮개돌의 방향은 남-북향이며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7m, 두께 20cm이다.

## (2) 범부리고인돌(凡阜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서면 범부리 산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면 소재지에서 남대천을 건너면 범부리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서 남대천의 남쪽 기슭을 따라 남서쪽 약 1.8km쯤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 남북으로 약 20m 거리를 두고 2기가 나란히 소재하고 있다.

1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장방형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m, 너비 0.83~1.45m, 두께 40cm이다. 덮개돌 밑에는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하부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하부구조의 석실은 동벽은 2매, 서벽은 1매의 판석이고, 남벽과 북벽은 결실되었다. 바닥은 1매의 판석을 깔았다.



범부리 1호 고인돌



범부리 2호 고인돌

2호 고인돌은 덮개돌이 둘로 갈라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06m, 너비 0.77m, 두께 40cm이다.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1호와 마찬가지로 판석으로 구성된 석관형의 석실이다. 석실의 장축인 동벽과 서벽, 그리고 단벽인 북벽은 각각 1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도 1매의 판석을 깔았다. 석실 내부의 크기는 길이 1.47m, 너비 0.6m, 높이 47cm이고, 둘레에는 직경 6m 정도의 할석을 덮개돌 밑까지 깔았다.

## (3) 수여리고인돌 I (水餘里支石墓 I)

이 고인돌은 손양면 수여리 전3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오산리 방향으로 진입하여 냉수성어류연구센터 앞에서 수여리 마을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



가면 마을의 동쪽 끝 낮은 능선부에 소재하고 있다. 이 고인돌은 마을에서 ‘칠성바위’로 불리고 있으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제를 올렸다고 한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계란 모양으로 잘 다듬은 판석이며, 동편에 직경 약 20cm의 구멍이 뚫려 있어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장축은 동-서향으로 길이

3.1m, 너비 2.35m, 두께 30~40cm이다. 덮개돌의 사방으로 약 1~1.4m 거리에 둘레돌 모양의 판석들이 세워져 있고, 둘레돌과 덮개돌 사이에는 주먹크기의 넷돌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수여리고인돌 I

#### (4) 수여리고인돌 II (水餘里支石墓 II)

이 고인돌은 손양면 금강리 고인돌로 알려져 왔으나 손양면 수여리 산4-2번지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오산리 방향으로 약 2.1km쯤 들어가다 두 번째 고갯길 왼쪽 구릉의 정상부에 도로방향과 나란히 놓여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장방형의 판석으로 크기는 길이 2.5m, 너비 1.8m, 두께 40

cm이다. 하부구조는 동편에 받침돌 1개가 있고, 북쪽 즉 정상부의 노출되지 않은 지점에 길이 80cm, 두께 30cm 크기의 장대석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여리고인돌 II

### (5) 기정리고인돌(基丁里支石墓)

이 고인돌은 양양읍 포월리 48번지 일대에 소재한다. 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좌측 포월리 마을 뒤쪽 낮은 구릉의 북서편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장축모서리에는 정 자국이 있으며, 길이 2m, 너비 60cm, 두께 50cm이다.



기정리고인돌

### (6) 송전리토광묘(松田里土壙墓)

이 토광묘는 손양면 송전리 23-1번지에 위치한다.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주택신축부지 내 신석기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2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동-서향에 가깝다. 1호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암황갈색 모래층을 일부 파괴하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내부에는 점질 함량이 높은 황갈색 모래가 채워져 있었으며, 황갈색 모래층 내에서 즐문토기편 소량이 출토되었다. 토광묘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청동기시대의 삼각만입형 석촉 9점이 포개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토광묘 유구의 규모는 길이 180cm, 너비



송전리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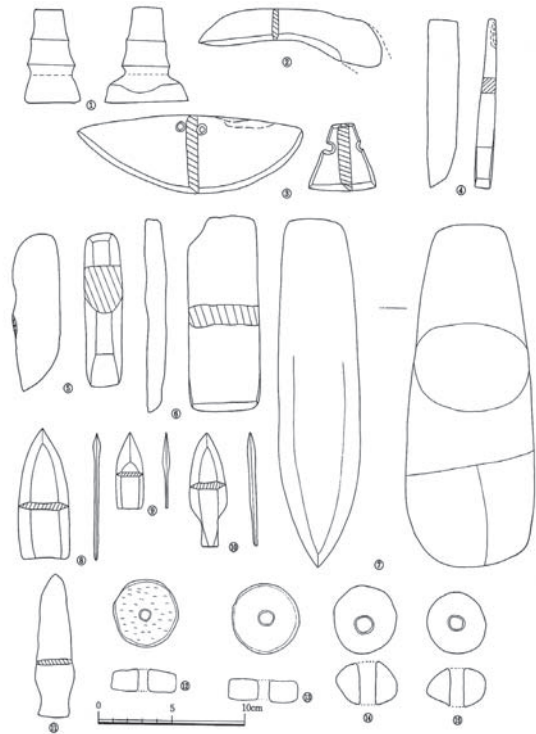
송전리 토광묘 출토유물



70cm, 깊이 25cm이다. 최근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구릉이 아닌 사구 지대에서 간간히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범위를 사구지대까지 확장시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 (7) 강선리유적(降仙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강선리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1985년 동우대학의 전영수 학생이 1981년 마을 뒷산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의 각종 석기류 등의 유물을 발견하여 대학에 기증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유물 출토지는 물치천을 바로 지나 북서편의 설악산에서 동-서로 길게 뻗어 내린 해발 56~58m의 구릉 정상부 일대에 해당된다. 이 구릉일대의 북쪽에는 쌍천, 남쪽으로는 물치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어 선사인들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춘 지역 중의 하나이다.



강선리유적 출토 유물

1994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지표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들이 주변에서 다수 수습되었다. 지금까지의 출토유물의 양상과 자연 지리적 위치 및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강선리 구릉일대에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집단취락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검파두식, 돌낫, 반달돌칼, 돌끌, 돌대패, 돌도끼, 홈자귀, 돌화살촉, 가락바퀴, 점토대토기편 등이 있다.

## (8) 포월리유적(浦月里遺蹟)

이 유적은 양양읍 포월리 산52번지 일대의 해발 약 22m 높이의 동-서로 길게 뻗은 나지막한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포월리 농공단지 지정구역내 포월리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 13기가 조



포월리유적 주거지

사되었으며, 지석묘 2기와 신라시대 고분 3기 등이 함께 확인되었다.

포월리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고 조성하였고, 바닥은 평탄하게 고른 다음 점토를 깔아 다졌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벽체에 판자를 세웠던 흔적과 어깨 밑에 벽선을 따라 홈이 파여진 벽구시설도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거의 대부분 장방형을 띠며, 집자리의 방향은 동-서향이 7기, 남-북향이 3기, 남서-북동향이 2기, 남동-북서향이 1기이다. 집자리 규모는 10평 이상이 3기, 9평~5평 사이가 4기, 5평 이하가 1기로서, 대부분 5평 이상의 집자리가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류는 거의 대부분 구멍무늬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석기류는 돌도끼, 돌대패, 돌화살촉, 돌검, 돌창, 그물추, 갈돌 및 갈판 등이 있다. 이 유적은 당시 조사된 집자리 유구와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의 후반경인 B.C.8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월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류



석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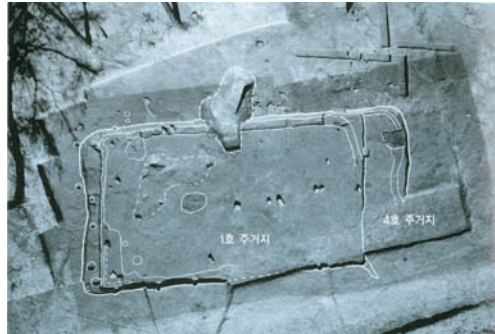


## (9) 임호정리유적(臨湖亭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임호정리 화상천 남쪽 주변의 구릉일대에 위치한다. 2005~2007년 걸쳐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구역내 청동기시대 유적 B·C지구 발굴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와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 22m 높이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능선과 평행하거나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말각 방형을 띤다. 주거지의 길이가 10m 넘는 대형 주거지로는 B-1호와 B-3호가 있는데, 이중 B-1호 주거지는 그 면적이 90㎡에 이른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벽구, 선반, 저장공, 노지, 배수구 등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둥구멍은 모든 주거지에 설치되었는데, 주로 벽 안쪽에 시설된 벽구나 단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으며, 간혹 벽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바닥은 점토를 깔고 불다짐을 하거나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이중구연토기 및 공렬토기 등 무문토기와 함께 석검, 석부, 석창, 석도, 석촉, 지석, 석제방추차, 어망추, 갈판 및 갈돌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이중구연토기 및 공렬토기를 공반하는 유물의 조합상을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임호정리유적 주거지



임호정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류



임호정리유적 출토 석기류

## (10) 지리유적(池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16-2번지 일대로서 지리마을의 발우봉(鉢盂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상에 위치한다. 2000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동해고속도로 건설공사구역 내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능선을 따라 동-서향으로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서 마련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모서리의 각을 죽인 말각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폭 420cm이며, 잔존하는 동-서 길이는 540cm 정도이다. 서벽의 수혈깊이는 20cm 정도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평탄하게 고른 후 약 4~5cm의 두께로 진흙을 깔은 다음 불에 구워 단단하게 하였다. 가옥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기둥은 서벽에서 2개 북벽과 남벽에서 각각 1개씩 노출되었다. 서벽기둥의 지름은 2개 모두 약 15cm 정도이며, 북벽과 남벽의 지름은 각각 10cm와 22cm이고 기둥간의 거리는 약 1m 정도이다. 또한 주거지 벽에는 횡보로 보이는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판자를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은 주거지의 서남벽 모서리에서 무경식 화살촉 3점, 유경식 화살촉 2점, 석창 1점, 돌대패 1점, 돌자귀 1점, 고석 2점, 숫돌 1점이 서로 세트를 이루며 출토되었고, 서쪽으로 약 20cm 떨어져 반월형 석도 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점토대 토기 구연부편 2점과 무문토기 동체부편 약간만이 바닥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강릉 송림리유적과 더불어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원형 점토대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로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물의 조합상을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인 B.C.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리유적 주거지



지리유적 출토 석기류



### (11) 북평리유적(北坪里遺蹟)

이 유적은 서면 북평리 산15번지 일대로서 남대천과 후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중간부에 해당하는 해발 60m 내외의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2010년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예맥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 장방형 주거지 2기, 방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고, 무문토기, 점토대토기, 석촉, 검파두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358~420cm, 너비 185~320cm, 깊이 16~30cm이며, 주공과 초석으로 추정되는 강돌 등을 제외하고는 노지 등의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양지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강선리, 기정리, 송전리, 오산리, 범부리유적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전개양상을 밝히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된다.



북평리 주거지



북평리 주거지 출토 토기류



북평리 주거지 출토 석기류

### (12) 범부리유적(凡阜里遺蹟)

이 유적은 서면 범부리 산22-1번지 일대로서 북평리유적의 남서쪽에 형성된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2010년 주문진-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예맥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평면 장방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고, 원형점토대토기

1개체분을 비롯하여 토기저부 및 파수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530cm, 너비 400cm, 깊이 34cm이며, 추정 노지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양양지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강선리, 기정리, 송전리, 오산리, 북평리유적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전개양상을 밝히는데 추가적인 자료이다.



범부리 주거지



범부리 주거지 출토유물

#### 4) 철기시대(鐵器時代)

한반도에서 청동기의 제작이 본격화된 기원전 3세기말경 중국 북방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즉 철기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철기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기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후 300년까지의 약 600년간에 해당되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와 겹치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전 · 후까지를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로, 기원전 · 후부터 기원후 300년까지를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철제품이 들어오면서 철기의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로, 단단하고 예리한 철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 농공구류가 만들어졌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대규모의 농경을 가능케 하여 생산력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철의 제조 공정을 수행하는 전문집단이 발생하고 철이 부(富)의 척도가 되는 등 사회적 계급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철제 무기의 출현과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철기문화는 중국에 가까운 북부지방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중국의 한(漢)문화의 유입이었다. 원삼국시대는 문헌상의 삼한시대(三韓時代), 한국사(韓國史)에서의 부족국가(部族國家), 성읍국가(城邑國家), 연맹왕국(聯盟王國)시대에 해당되며, 삼국이 고대국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된 시기이다.

철기시대의 주거생활은 청동기시대 주민들이 주로 평야나 하천과 가까운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취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과는 달리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큰 강가와 하천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움집의 기본형태는 긴네모꼴로서 청동기시대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입구가 돌출된 철(凸)자형의 움집과 큰 방에 입구시설인 작은방이 딸린 여(呂)자형의 움집이 보편적으로 만들어졌다. 집 내부에는 기존의 화덕 대신에 부뚜막과 구들을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내부의 생활 공간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무덤으로는 널무덤[목관묘(木棺墓)], 덧널무덤[목곽묘(木槨墓)], 독무덤[옹관묘(甕棺墓)], 돌무지무덤[적석총(積石塚)] 등이 유행하였다.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의 전통위에 중국의 영향과 새로운 토기제작의 기술의 보급으로 검은간토기[흑도(黑陶)]와 덧띠토기[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경질민무늬토기[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두드림무늬토기[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등이 만들어졌으며, 한국식동검·청동거울·청동방울 등의 청동기류와 쇠갈·쇠고리갈·쇠화살촉·쇠창 등의 철제무기류, 쇠도끼·쇠삽·쇠낫 등의 철제농공구류가 활발하게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양양지역은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이르러 함경도 해안지대와 영동지역 그리고 경북 동해안의 일부지역과 함께 동예(東濊)에 속해 있었으며, 예족(濊族)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보면, 동예에 속한 예 종족의 거주영역에는 물질문화의 공통성이 드러난다. 즉 충적대지나 해안의 사구지대에서 이른바 여자형(呂字形), 혹은 철자형(凸字形)의 평면형을 지닌 수혈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분포하며, 예족의 주민들이 사용한 토기는 중도식토기로 불리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단경호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물질문화의 공통성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에

보이는 예종족의 습속들과 함께 문화적인 정체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동해안지역의 강릉과 삼척일대에는 예국(濊國)과 실직국(悉直國)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강릉의 예국고성(濊國古城)은 정치체로서 예국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국고성의 축조 및 사용 시기는 기원전후의 시기부터 기원후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초반경까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릉지역과 동해·삼척지역은 대체로 기원후 4세기후반~5세기초반 무렵에 신라화(新羅化)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양지역이 동예의 어느 정치집단에 속해 있었는지와 고구려 혹은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문화적 전개양상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다.

1966년 정암리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동경(銅鏡)과 동검(銅劍)이 발견되고, 1983년 가평리 주거지유적이 처음으로 조사된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암리, 용호리, 조산리, 가평리, 송전리, 여운포리, 동호리, 지경리 등에서 다수의 철기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평리유적, 용호리유적, 지경리유적이 부분적으로 발굴조사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양양지역의 철기시대 유적은 모두 해안 사구지대에 입지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 소하천과 늪지, 사구와 석호, 그리고 잔구성의 나지막한 구릉이 교대되는 저지대의 환경을 이루는 곳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양양지역의 철기시대 취락의 분포양상과 주거지 구조를 미루어 보면, 대체로 동예의 영역에 속한 거주집단의 취락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한 규모의 예의 토착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철기시대 주요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암리 출토유물(釘岩里 出土遺物)

1966년 강현면 정암리 일원에서 청동거울[銅鏡] 1점과 청동검[銅劍] 1점이 발견되어 당국에 신고되어 알려졌으며, 1967년 김원룡에 의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청동거울은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이고, 청동검은 세형동검(細形銅劍)이다. 유물의 출토경위는 자



정암리 출토 동경 및 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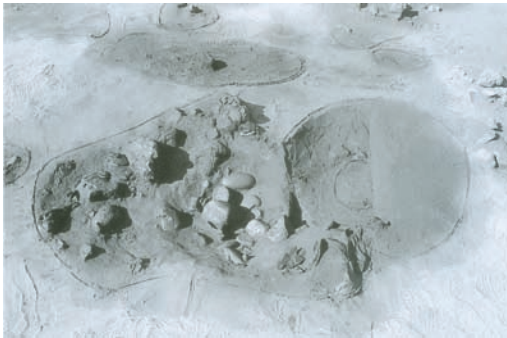


세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3~2세기경에 제작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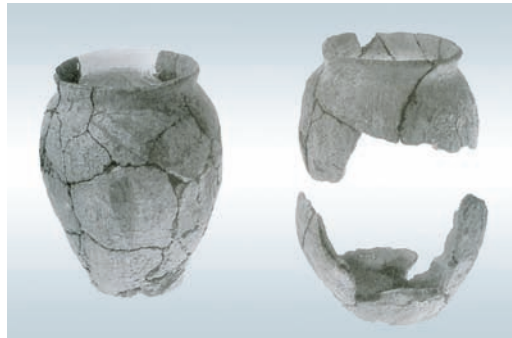
## (2) 용호리유적(龍湖里遺蹟)

이 유적은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태백산맥에서 뺨어 내린 해발 25m 내외의 낮은 구릉과 해안사구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의 동쪽으로 약 100m쯤에 설악해수욕장이 있으며, 남쪽으로 50m 쯤에 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동해바다로 흘러들고, 북쪽 구릉너머에는 작은 능지가 있어 선사인들이 정착생활을 하기에는 비교적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여관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0기와 철기시대 추정 야외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대 유구인 추정 야외노지는 평면형태가 부정형으로 크기는 동-서 2m, 남-북 0.8m이다.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항아리 2점과 토기편 소량이 출토되었다.



용호리유적 추정 야외노지



용호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 (3) 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

이 유적은 손양면 가평리 산25-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7번국도변에서 수산리쪽으로 약 3.5km 진입하면 KBS송신소와 강원대학교 수련원이 있고, 송신소 뒤편 북쪽으로 약 500m쯤 올라가면 저습지에 도달하는데, 이 저습지의 북쪽에 있는 해발 5m 미만의



가평리유적 몸자형 주거지



가평리유적 출토  
타날문토기



가평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가평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모래언덕 일대가 철기시대의 집자리 유적이 위치한 지역이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남대천 하류역으로,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서쪽은 태백산맥이 지맥이 이곳까지 도달하여 유적의 배면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유적이 위치한 남대천 하류역 일대는 하천, 해안, 호수, 산림 등의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가평리유적은 1983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하여 초기철기시대 철자형(凸字形) 집자리 2기가 확인되었고, 많은 양의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와 소량의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집자리는 수혈움집으로 바닥은 모두 점토를 펴서 단단하게 다졌다. 1호 집자리는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기가 길이 7.5m, 너비 7.1m이고, 면적은 53.25㎡(약 16평)이다. 2호 집자리는 길이 4.6m, 너비 4.3m이고, 면적은 19.78㎡(약 6평)이며, 불탄 숯기둥이 확인되었다. 숯기둥은 모두 진흙바닥의 가장자리



에서 약 30~50cm 안쪽에 위치하여 초석 없이 세워져 있다. 집자리의 동북쪽 모서리 진흙더미 속에 불먹은 진흙과 길이 20~30cm, 두께 5cm 정도의 네모진 불맞은 돌들이 흩어져 있어 화덕자리 내지는 부뚜막시설로 보여진다. 기원전후~A.D.2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6년 가평리 ‘쿵쿵산’으로 불리는 주변의 사구지대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철기시대 여자형(呂字形) 집자리 1기와 파괴된 집자리 2기가 발굴되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흑색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도자, 철촉 등의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당시 조사된 여자형 집자리는 작은 방을 통해서 큰방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닥은 점토를 다졌으며, 기둥자리와 화덕, 저장시설 등을 갖추었다. 기둥자리는 내부기둥과 외곽기둥의 이중 구조로 설치되었는데, 움집의 상부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옥의 구조는 주거입지가 해양성기후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며, 토양이 모래이기 때문에 지붕은 상당히 넓게 만들어서 처마가 지표에 가깝게 하여 비나 눈에 의해 주거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저장용 대형토기와 화덕자리 부근의 토기 안에서 다량의 탄화곡물(콩과 보리)이 출토되어 당시 주민들의 식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집자리의 전체 규모는 길이 10.5m, 너비 5.5m, 움깊이 50~65cm이다. B.C.2세기~1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지경리유적(地境里遺蹟)

이 유적은 현남면 지경리 임5-7번지 일원으로서 화상천(和尚川) 하구와 남쪽으로 접한 사구지대에 위치한다. 1994년 도로공사중에 발견되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995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주문진-양양 간 7번국도 확장공사 구역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철기시대 집자리 7기가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된 집자리는 평면형태가 철자형(凸字形) 6기, 장방형(長方形) 1기이다. 장방형 1호 주거지는 길이 28.2m, 너비 8m, 움깊이 30cm이고, 면적은 약 225㎡(약

68평)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조사된 선사시대 주거지중 가장 규모가 큰 것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철자형 주거지는 바닥에 진흙을 깔아 고르게 다졌으며, 화덕자리는 주로 주거지의 북쪽에 치우쳐 시설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다수가 출토되었다.



지경리유적 1호 주거지



지경리유적 2호 주거지



타날문토기



지경리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집필 : 이상수



## 참고문헌

- 김원룡, 1967, 「韓國 江原道 襄陽郡 出土 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史林』50-2.
- 백흥기, 1982, 「江原道 東海岸地方의 支石墓」『考古美術』156, 한국미술사학회.
- 백흥기, 1984, 《襄陽郡 柯坪里 住居址 發掘調査報告(1)》강릉대학 박물관.
- 장문철, 1988, 「襄陽郡 降仙里 出土 先史時代 遺物에 대하여」『嶺東文化』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 이선복, 1989,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양군, 1990, 「襄陽地方의 先史時代」『襄州誌』
- 백흥기·지현병, 1994, 「襄陽郡의 先史考古遺蹟」『襄陽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강릉대학교 박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襄陽 柯坪里》
-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발굴유적유물도록』
-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1, 『襄陽 池里 住居址』
-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襄陽 浦月里 住居址』
-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襄陽 地境里 住居址』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3, 『文化遺蹟 分布地圖-襄陽郡-』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여관신축부지 문화유적 긴급발굴조사 보고서」『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 국립춘천박물관, 2004, 『강원 고고학의 발자취』(특별전 도록)
- 박영구, 2004, 「嶺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江原考古學報』3, 강원고고학회.
- 고동순, 2007, 「양양 오산리 C유적」『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제31회 한국고고학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7, 『양양 낙산골프리조트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8, 『양양 현남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襄陽 臨湖亭里 遺蹟-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건설 구간내 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襄陽 松田里遺蹟-양양 송전리 23-1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II. 오산리 선사유적

### 1. 머리말

인류사는 흔히 문자의 사용여부에 따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어지며, 사용한 도구의 재료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석기시대는 다시 펜 석기를 사용한 구석기시대와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시대로 나뉘어진다.

신석기시대는 연대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인 약 1만년 전 무렵부터를 일컫는다. 흔히 신석기문화는 식량생산, 정착 생활, 토기의 제작, 간석기의 등장과 유행으로 정의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농경이 없는 신석기문화도 있으며, 토기가 없는 신석기문화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지역에서는 토기의 출현부터를 신석기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석기문화는 지금부터 약 8000년 전(B.C.6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가장 대표되는 유적이 오산리에 위치한 사적 제394호 ‘오산리 신석기유적’이다.<sup>1)</sup> 그러나 최근에는 섬지역인 제주도 고산리에서 육지부 보다 이른 시기의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전국적으로 약 400여 개소에 이르며, 대부분 물과 식량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강가나 바닷가, 가까운 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들은 동해안에서 대부분 하천이나 석호가 해안과 만나는 사구지대(砂丘地帶)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에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나지막한 구릉 위에서도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성과로 인하여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早期) 및 전기(前期)유적으로 양양 오산리유적, 동해 망상동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sup>2)</sup> 등이 조사되었고, 중기유적으로는 양양 송전리유적과 지경리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이, 후기유적으로는 강릉 지변동유적, 초당동유적, 고성 철통리유적 등이 조사되어 유적간의 비교를 통하여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sup>3)</sup>

동해안 지방은 태백산맥이 동해바다 가까이에서 동해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강과 퇴적평야는 없으나 군소하천들이 발달되어 이들 군소하천이 바닷가와 만나는 부분에는 사구지대와 저습지가 발달하였고, 이러한 지형적 여건과 당시의 자연환경 속에서 신석기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sup>4)</sup>

## 2.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 1) 조사경위

오산리유적(鰲山里遺蹟)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있다. 양양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의 하구 남쪽 3km 지점에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약 300m 내륙쪽으로 떨어진 쌍호(雙湖)라고 불리는 자연호수의 동북쪽 모서리 사구(砂丘)위에 위치한다. 현재는 양분된 사



발굴조사 당시전경(1982년)

구의 사이로 상류의 학포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관개용수가 흐르고 있는데, 편의상 동쪽의 사구 잔류분을 오산리 A구역, 서쪽에 위치한 사구를 오산리 B구역으로 명명하여 부르고자 한다.<sup>5)</sup>

이 유적은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농토 확장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1977년 봄 이곳의 흙을 채취하여 인근의 쌍호를 매립하여 농지로 전용하기 위한 토사채취 작업 중 흙에서 다량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범위는 전체 약 6,000㎡로 추정되는데 그 중 600㎡를 발굴하였으며, 신석기 시대 유적의 원형 집자리와 복원 가능한 평저(平底, 납작밑)완형토기 20여 점을 포함하여 토기편 3,000여 점, 결합식낚시[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 돌톱, 흑요석 등 석기 300여 점, 흙으로 빚은 얼굴조각상 1점 등이 확인되었다.<sup>6)</sup>

〈표2-1〉 오산리유적 발굴기간 및 조사유적·출토유물

구 분	발 굴 기 간	조 사 유 적	출토유물(점)
1차	'81. 3.26.~ 4.11.	집자리 1(A구역)	23
2차	'82. 4.19.~ 5.10.	집자리 1(A구역)	81
3차	'83. 4. 9.~ 5. 5.	집자리 4(A구역)	63
4차	'84. 9.13.~ 9.30.	집자리 2(A), 적석유구 1(B)	46
5차	'85.11.20.~12.13.	소할석유구1(A), 집자리2(B), 소할석유구2(B), 적석유구3(B)	59
6차	'87.11.17.~12. 6.	집자리 1(A구역)	78

## 2) 유적의 층위

오산리유적의 층위는 현 지표로부터 생토층까지는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4.5m의 두께로서 위로부터 6개의 층위가 나타났다. 극히 유적의 일부 지점에서만 나타나는 I 층(점토층, 청동기시대층)을 제외한 II 층에서 VI 층까지는 가는 모래(細沙)로 이루어진 신석기시대층이다. 이 중 IV 층



주거지 조사 광경(1982년)

은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유물 포함층이고 VI 층은 생토층(生土層)이다. II 층 이하는 신석기시대 문화층인데 II 층을 신석기시대 상층, III 층을 신석기시대 중층, V 층을 신석기



시대 하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V층은 다시 7개의 소층위로 세분되지만 출토유물이나 C<sup>14</sup>연대측정결과 이들 층간의 현저한 시간차는 보이지 않는다.<sup>7)</sup>

### (1) 하층

하층(V층, 제1문화층)에서는 여러기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직경 6m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집자리의 바닥면은 약 5cm의 두께로 점토를 깔고, 그 위에 불을 놓아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약 110cm×70cm 크기의 방형 화덕자리를 중앙에 1~2개 설치하였다. 집자리 바닥면과 그 바깥쪽과는 높낮이의 차이가 거의 없고 당시의 지반이 모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주거형태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보편적인 수혈(竪穴, 움집)주거지와는 달리 모래땅 위에 점토를 깔고 불다짐을 하여 단단하게 한 다음 가구(架構)를 설치한 일종의 지상가옥 형태로 추정된다.<sup>8)</sup>

집자리의 내부 및 주변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모두 납작 밑토기만 출토되었고, 이들 토기는 좁은 바닥에 아가리가 넓은 발형(鉢形)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토기의 표면은 문질러서 광택이 나며 색은 주로 적갈색이나 흑갈색을 띠고 있다. 토기의 문양은 아가리 쪽에만 국한하여 시문하였으나, 무늬가 없는 무문양(無文樣)토기도 상당수에 이른다. 시문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점열문(點列文)이나 손톱무늬[조문(爪文)] 등의 눌러 새긴무늬와 종주평행단사선문(縱走平行短斜線文) 위주의 새긴무늬, 그리고 이들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이 있다. 그밖에 하층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덧무늬토기[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가 함께 출토되었다.

하층에서 출토된 석기로는 결합식낚시, 돌칼, 돌창, 추형석기(錘形石器), 마제석부(磨製石斧), 연석, 석구(石球), 팽이, 규암제 타제석기(찍개와 굽개), 돌톱, 돌끌, 숫돌 등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는데, 어로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특히, 결합식낚시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혈암을 마연하여 만든 축으로 골각제(骨角製) 침을 결합시켜 낚싯바늘로 사용한 것이며, 돌칼은 단면이 렌즈형으로 날이 무더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중층

중층(Ⅲ층, 제2문화층)은 하층과는 Ⅳ층의 무유물포함층을 사이에 두고 그 윗층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납작밑토기류만 출토되었다. 이들을 하층토기와 비교하여 볼 때 유경호(有頸壺)류가 증가하고, 몸체에 비하여 저부(底部)가 넓어진 안정된 것이 많다. 바탕흙[태토(胎土)]에는 굵은 사립(沙粒)이 혼입(混入)된 것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표면은 마연(磨研)조정된 것도 있으나 매우 거친 편이다. 점과 선을 배합하여 상반부에만 국한하여 시문한 토기류와 함께 문양이 없는 토기들도 출토되었는데 후자가 수적 우위를 차지한다. 저부에는 활엽수의 나뭇잎 모양이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이 많다. 이처럼 토기 저부에 나뭇잎이 찍힌 것은 세계의 신석기시대 토기 중 시베리아·연해주 및 일본열도 등 동아시아 태평양에 면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주목된다.<sup>9)</sup>

## (3) 상층

상층(Ⅱ층, 제3문화층)은 유적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표상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후세의 교란이 심한 편이다. 토기는 직립구연(直立口緣)에 밑이 뾰족한 첨저형(尖底形)토기이며, 문양은 구연부(아가리)와 기복부(몸통)에 시문된 것이 많은데, 구연부에 평행밀집단사선문(平行密集短



유적의 층위

斜線文)·사격자문(斜格字文)·띠무늬와 기복부에 어골문(魚骨文)을 시문한 것과, 구연부 및 기복부에 어골문으로만 시문한 것이 있으며, 이 중에는 태토에 석면(石綿)을 혼입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첨저의 기형, 시문방법, 문양, 태토에 석면혼입 등은 서해안 지역의 첨저형 빗살무늬토기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상층에서는 어망추가 많이 발견되었을 뿐, 하층과 중층에서 나온 결합식납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sup>10)</sup>

이밖에 발굴지점과 약 50m 떨어진 오산리 B지구를 발굴한 결과, 지표면에는 첨저형 토기류가 산재되어 있고, 최하층에서는 용기선문(隆起線文)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토기는 구연부를 용기선문으로 장식한 갈색계통의 토기이다. 또한, 붕괴된 퇴적층에서는 저부가 좁은 평저형에 구연부에만 용기선으로 장식한 토기도 채집되었다. 이는 부산시 동삼동유적이거나 일본 대마도 고시다카[월고(越高)]유적의 토기와 유사점이 있다.<sup>11)</sup>

### 3) 출토유물과 유구의 검토

#### (1) 토기

오산리유적 A·B구역 하층과 중층은 오산리형 평저토기문화로 명명될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sup>12)</sup> 오산리식 토기의 특징을 그릇 형태와 문양으로 나누어보면, 우선 그릇의 형태는 발형(鉢形), 웅형(甕形), 호형(壺形), 완형(碗形)토기가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웅형토기이며, 그 다음으로 발형토기가 많아 오산리식 토기의 특징적인 양상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발형토기와 웅형토기 모두 구연부 안쪽을 비스듬하게 처리하여 단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평저(납작밑)형이며, 웅형토기에는 손잡이가 달리거나 목이 있는 토기들도 많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주로 구연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며, 시문기법으로는 주로 자돌(刺突)기법이 이용되었다. 이런 기법으로 시문한 문양은 시문구 선단부의 형태와 시문각도에 따라 다양하다. 입술 가까이부터 무늬를 3~4줄 눌러 찍은 종류가 많은데, 평행으로 된 점무늬와 짧은 빗금무늬 및 손톱무늬가 가장 많고, 이런 무늬를 합해 만든 문양대를 기복부까지 확대한 것도 있으며, 그 외 침선문(沈線文)과 구순각목(口脣刻目)이 시문된 것도 있다. 또 토기 겉면에 덧입힘을 하거나 공들여 문질러서 광택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도 남해안 지방의 토기들과 유사성이 있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를 섞은 찰흙이 주로 쓰였으며, 집자리나 분묘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적 수도 많지 않고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지역성이 강한 토기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오산리식 토기에 대한 연대는 C구역<sup>14)</sup> 오산리식 토기의 출토 층위가 덧무늬토기 아래층에서 확인되고 오산리유적 A구역의 오산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하층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치와 오산리유적 C구역 덧무늬토기 문화층의 하층에서 출토된 오산리식 토기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에서 최고치가 모두 B.C.5200년을 넘지 못하고 B.C.5200~4610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50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sup>15)</sup>

오산리유적을 대표하는 상징적 유물 중 하나가 덧무늬(隆起文)토기이다. 덧무늬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인 초기(早期)로 편년되는 토기로 그릇의 표면에 점토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덧무늬는 점토띠의 굵기나 점토띠 상부에 누름문(刻目文)의 유무에 따라 태선용기문토기(太線隆起文土器)와 세선용기문토기(細線隆起文土器), 혹은 용기대문(隆起帶文)과 용기선문(隆起線文)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 외에도 점토 알갱이를 규칙적으로 붙인 용기점열문(隆起點列文), 혹은 두립문(豆粒文)이 있다. 과거 용기대문토기와 용기선문토기의 선후관계를 두고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이들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일성격의 유적이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덧무늬토기(隆起文, 높이 16.0cm)



남작밑바리(平底鉢, 높이 30.0cm)



빗살무늬토기(櫛文, 높이 42.0cm)



결합식 낚시



돌칼(길이 18.0cm)



토제인편상(높이 5.1cm)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대표적 유물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고 있는 남해안지역의 경우 유적별로 기형(器形)이나 문양구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형식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형은 저부의 형태에 따라 평저(平底)와 원저(圓底)로 구분되며, 평저 심발형(平底深鉢形)토기의 경우 저부가 아주 좁아 마치 팽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들이 남해안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sup>16)</sup>

## (2) 석기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가장 특색있는 석기유물은 결합식납시이다.<sup>17)</sup> 이것은 돌로 된 납시촉과 뼈를 깎아 만든 납시바늘의 결합으로 납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납시촉은 길이 10cm 정도의 석제로서 윗부분에는 줄을 맬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고, 바늘을 접합하기 위한 부분은 편평하게 갈아 놓았다. 여기에 접합되는 납시바늘은 1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축(軸)부분에 사슴뿔, 멧돼지의 이빨, 짐승의 뼈 등을 깎아 바늘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합식납시[결합식조침(結合式釣針)]는 면결합을 하는 오산리형, 연대도형, 송도형과 축의 일부와 바늘의 일부가 겹쳐서 결합하는 상노대도형으로 대별된다. 오산리형의 북한계는 동해안에서는 함북 송평동이고, 서해안에서는 전북 노래섬 조개더미이며, 집중분포지는 남해안지방이다. 남해안지방에서는 신석기 전기~중기 동안의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후기의 구평리·농소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되어 신석기 전기간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결합에 있어서는 송도형이 전기에 나타난다. 중기가 되면 축과 바늘을 일부 겹쳐서 결합하는 상노대도형이 나타나고, 면결합을 하는 연대도형은 상노대도형의 재질에 오산리형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다.<sup>18)</sup>

그밖에 석제 생활도구로서 장방형의 석도, 석촉, 타제석부, 돌톱, 흑요석 등 모두 16종 242점이 출토되었다. 석도의 경우에는 날[인부(刃部)]이 예리하지 않아 절단용이라기보다는 물고기의 비늘을 벗겨내기 위한 조리 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돌톱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혈암으로 만든 것으로서 길이 24cm, 폭 6cm 크기인데, 이러한 큰 돌톱이 발견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렵다. 그 외 연수정제 치레

거리 1점이 출토되었다.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 중 특이할 만한 유물은 흑요석이다. 흑요석[黑曜石 : obsidian]은 용암의 급속한 냉각에 의해 생성되는 유리질의 화산암으로 주로 흑색, 회색, 적색, 갈색을 띤다. 흑요석이 만들어지는 화산 분출지는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 지질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흑요석의 화학적 구성 성분도 각 지역에 내재해 있는 암석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유적에서 출토되는 흑요석의 성분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추정하고 그것을 통해 선사인의 이동경로와 이동범위, 교역 등 생활상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흑요석을 X형광선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흑요석 원산지는 백두산계로 분류되었다.

### (3) 기타유물

신석기시대는 보통 규모가 작고 아주 단순한 기술과 경제에 의존했던 원시단계의 사회로 여겨지나, 당시에도 그저 의식주 해결만을 위해 급급한 일상생활만을 유지하였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물론 삶과 직결되는 의식주해결을 위한 사고나 행동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나 문화 전체 속에서 신비성과 영성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사고와 행동도 뒤따랐다.

원시사회에서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사고는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토착적 신앙 또는 의례에 의해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 의례를 통해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심어주고 사회구성집단의 질서를 유지·강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신석기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유물로는 점토제인 면상 1점(길이 4.4cm, 폭 4cm)이 채집되었다. 이것은 반죽한 점토 덩어리를 얼굴 형태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두 눈과 입은 깊게, 그리고 볼 부분은 덜 깊게 눌러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으로 희화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토제품은 자연의 변화에 좌우되는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신석기인들의 자연에 대한 두려움, 갈망 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유물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일본보다는 더 안정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출토된 9.5cm 크기의 뼈로 만든 입상(立像)을 들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깎은 머리부분에는 모두 세 개의 점으로 두 눈과 입을 표현하고 있고, 긴 무처럼 생긴 몸체부분에는 팔과 다리가 아예 생략 되어버린 단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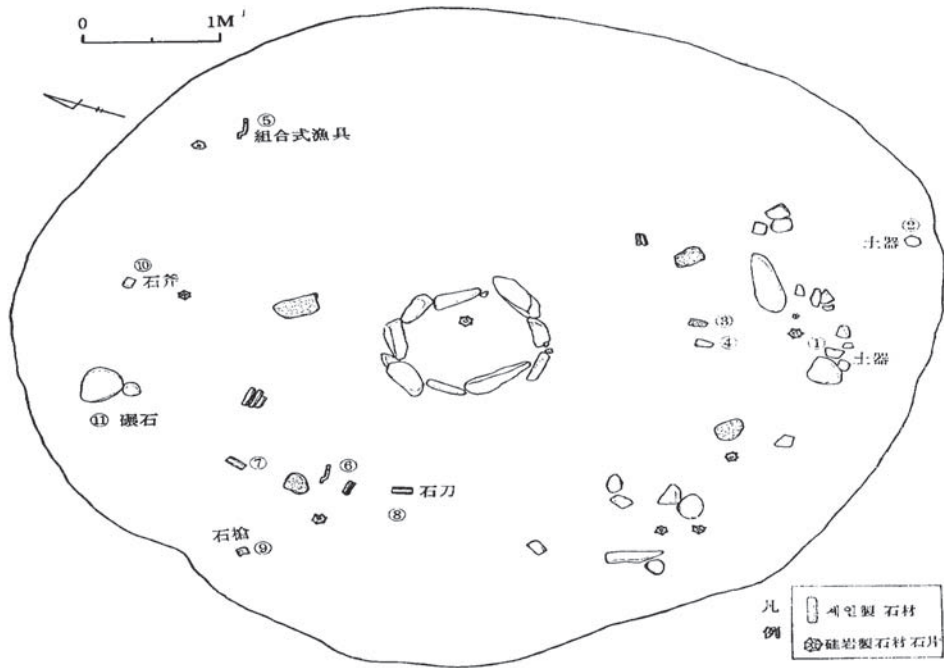
이 몸체의 중앙부분에는 중심점과 그것을 둘러싼 일곱 개의 점이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시 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가리비조개 위에 두 눈과 입을 파서 만든 사람 얼굴모습을 나타낸 것이 출토되어 이채롭다. 조개 위에 이런 방식으로 얼굴모습을 나타낸 것은 현해탄을 마주보고 있는 일본 신석기유적에서도 흔히 보인다. 이것은 얼굴만이 강조된 일종의 신상(神像)으로 여겨진다.<sup>19)</sup>

#### (4) 유구

모두 6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 A지구 제1문화층에서 주거지 9기와 야외노지로 보이는 적석유구 2기, 석열과 할석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에 가까운 지상가옥이며, 바닥은 3~10cm 두께로 석립이 섞인 점토를 여러 겹 다져 만들었다. 천석이나 할석을 돌려서 만든 노지는 대부분 주거지 중앙에 한 개씩 자리잡고 있으나 2호와 3호 주거지에서는 각각 2개의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2호 주거지의 경우 유일하게 기둥 구멍이 발견되었다.

9호 주거지의 경우, 다른 주거지와 달리 점토다짐이 없어 소토면으로 주거지 윤곽을 추정하였는데, 중앙을 향해 마치 기둥이 쓰러진 듯한 모양으로 길게 뻗은 검은색의 소토흔적이 나타나 원추형의 주거지 자취를 보여 주었다. B구역에서는 최하층에서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돌을 쌓아 놓은 유구들이 여러기 조사되었다.<sup>20)</sup>

이밖에 약 30cm 크기의 하천석을 원형으로 둘러놓은 석렬(石列)이 확인되었는데, 이 석렬은 직경 약 4m 정도로 당시 차양천막을 쳤을 때 그 괴임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야외노지의 대부분의 돌들은 모두 오랫동안 불을 맞아서 깨어지거나



오산리유적(A구역, 4호) 집자리 평면도

갈라진 채로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일종의 공동 취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의 형태는 대부분 1.5~3.4m의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바닥을 깊이 20~30cm가량의 토광을 파고 그 위에 여러 겹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

신석기인들의 주거형태는 주로 움집과 동굴이었다. 움집의 경우, 바닥은 원형이나 방형이며 중앙에 취사나 난방용 화덕이 위치하고 있는데, 간단한 음식물의 조리뿐만 아니라 실내를 따뜻하게 하거나 밝게 하는데 이용되었을 것이다. 화덕 곁에는 조그마한 구덩이들이 발견되는데, 이 구덩이 안에는 간혹 모래를 깔고 그 안에 곡물이나 석기가 놓여 있어 저장용 구덩이임을 알 수 있다. 움집의 형태는 둥글거나 혹은 네 모서리를 줄인 네모꼴이 대부분이다. 크기는 지름 또는 한 변의 길이가 대체로 5~6m이고, 깊이는 50~100cm 정도이다. 이로 보아 움집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20~30㎡ 정도였으며, 대략 4~5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움집터는 오산리유적을 비롯하여 서울 암사동, 충북 청원 쌍청리, 부산 동삼동, 황해도 봉산 지탑리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 움집터는 한 유적에서 몇 개씩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



고 그 중에는 서로 겹쳐있는 예도 있어, 한 마을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8호)내부 노지(1984)



야외노지 전경(1985)

〈표2-2〉 오산리유적 주거지 일람표(A, B구역)<sup>21)</sup>

구분 호수	주거지 형태	주거지 크기(m)				화덕자리(cm)				바닥	비고
		길이	넓이	깊이	면적(m <sup>2</sup> )	형태	길이	넓이	깊이		
1호	원 형	.	.	지상 (?)	67.0 (20평)	긴네모꼴	.	.	.	진흙 다짐	.
2호	타원형	7.2	5.9	"	31.3 (9.5평)	사다리꼴	.	.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3호	타원형	6.8	5.5	"	31.9 (9.6평)	긴네모꼴	60 70	95 70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4호	원 형	7.0		"	33.6 (10평)	둥근모양	100		.	자갈, 진흙 다짐	.
6호	원 형	3.8		"	10.9 (3.3평)	둥근모양	.	.	.	진흙 다짐	.
7호	원 형	4.0		"	12.5 (3.8평)	타원모양 (부정)	70	50	.	진흙 다짐	.
8호	타원형	4.1	3.4	"	10.1 (3.1평)	타원모양 (부정)	95	85	.	진흙 다짐	돌을 돌림

#### 4) 오산리유적의 중요성

오산리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유적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를 잇는 중간지대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런 발굴로 거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던 동해안지역의 선사문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이다.

둘째, 당시 발굴조사 결과, 오산리유적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시기 신석기 유적지 하나로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기원 규명에 유력한 단서가 제시되었다. 오산리유적 신석기하층의  $C^{14}$ 연대의 하한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으로 나와 한반도 육지부 신석기유적 중 최고(最古)의 연대를 보여주었다. 이 연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기원지로 생각되어 온 연해주보다 1000~2000년 선행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두만강지역의 신석기 문화에 새로운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셋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 대동강이나 한강유역의 뽕죽밀빚살무늬토기문화와는 구분되는 납작밀토기문화가 변성하고 있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오산리유적 납작밀 토기 문화층이 서해안식의 뽕죽밀빚살무늬토기 문화층보다 아랫층에서 나와 오산리 토기가 서해안 뽕죽밀토기에 선행함을 알아낸 점이다. 또한, 석기면에 있어서도 결합식낚시, 돌톱 등 특색있는 석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태백산맥 이동(以東)인 동해안과 서해안 신석기문화의 특성을 통한 심도있는 신석기문화의 지역적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오산리유적의 상한(上限)을 B.C.6000년으로 잡을 때, 이는 현재 북한의 시기구분과 근접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신석기시대의 상한을 B.C.600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유적과 더불어 북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 유적의 하나로 꼽히는 서포항유적과 오산리유적과의 문화적 유사성은 진작부터 지적되어 오던 바이다.<sup>22)</sup>

다섯째, 선사문화의 전파와 교역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단서가 제시되었다. 당시까지 선사시대의 문화전파나 교역문제는 주로 토기의 유사성(類似性)이나 석기 제작기술의



상사성(相似性) 여하에 따라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산리 출토 흑요석의 형광X선 분석결과 원산지가 백두산으로 밝혀져, 당시 신석기인들의 원재료 교역과 문화전파에 대한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여섯째, 신석기시대의 정신적인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신석기문화 연구의 중심 자료는 토기나 석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점토제 인면상은 신석기인의 사유 및 종교관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 3. 최근 발굴된 오산리유적<sup>23)</sup>

#### 1) 조사경위 및 주변환경

양양군은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양양국제공항의 접근망을 개선하고, 해안도로 연결로 낙산도립공원과 연계,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송전리간 총 7.1km의 구간을 폭 18.5m로 확·포장하는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유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현재 쌍호는 해안에서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약 600m 들어온 농경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쌍호로 유입되는 하천 유역분지의 분수계는 사방 30~110m 내외의 낮은 구릉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 위치한 해발 125m의 노고봉이 유역 분지를 경계짓는 분수계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쌍호의 남쪽 분수계에서 발원한 하천은 북쪽으로 흘러 남서쪽에서 흘러 내려온 동명천과 합류되어 오산봉 바로 아래 남쪽에서 동해로 유입된다.

조사지역의 남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 도화리 구석기유적에서는 주먹도끼 등의 편석기가 확인된 바 있고, 조사지역의 북쪽으로는 동명천을 사이에 두고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송전리 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약 600m 떨어진 사구지대에는 송전리 신석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리 23-1번지(송포초

등학교 앞 밭 경작지)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각장방형의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북쪽 약 1km 지점에는 송전리 신석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와 연결되어 가평리 신석기·철기시대 유적이 위치하며, 1983년 강릉대학교박물관이 철기시대 주거지 2기를 발굴 조사하였고 1994~1996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3차에 걸쳐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야외노지 3기, 철기시대 주거지 2기를 발굴조사한 바 있다. 한편 쌍호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학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다.

## 2) 출토유물과 유구

오산리유적 C구역은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한 A·B구역의 동쪽 7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C구역은 A·B구역과는 달리 해발 4~5m 높이에 황갈색점토층(갱신세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황갈색점토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구에서 3개의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상층은 침선문(沈線文)토기를 공반하는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층, 중층은 용기문(뎃무늬)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 최하층은 용기문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신석기시대 초기문화층이다. 또한 용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인 중층은 상·하의 2개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초기 및 전기주거지 5기와 중기주거지 1기 등 모두 6기의 주거지와 야외노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사구지대 남쪽에서는 저습지유적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 중 1~4호 주거지는 용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초기 또는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모두 사구 위에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황갈색점토층 또는 사구를 굴착한 후 바닥에 점토다짐을 하고 가운데에 돌을 이용하여 수혈위 석식노지를 시설하였다. 북쪽 사구지역에 위치한 5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이 없었으나 층위상 1~4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주거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거지로 보인다. 또한 6호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지역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선문토기를 포함하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으로



로 확인되었다.

C구역 조사에서 확인된 용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상부 문화층의 주거지의 면적은 1호가 48㎡, 2호가 53㎡, 3호가 38㎡로 평균 46㎡ 정도이며 신석기시대 주거지로는 대형의 수혈식(竪穴式)주거지에 해당된다. 1·2호 주거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용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 중 그 형태가 가장 잘 남아 있다. 1호 주거지 내에서는 순수 용기문토기, 주철+용기문, 무문토기호 등의 토기류와 갈돌, 갈판, 숯돌, 어망추, 결합식납시, 모루, 망치돌, 격지 등의 석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에서는 구연부에 용기선문을 3열 배열한 발형토기류와 무문양의 발형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1·2·4호 주거지와 달리 하부의 황갈색점토층까지 굴착한 후 주거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주거지 중 수혈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아래에서 오산리식토기들이 확인되어 용기문토기 보다는 오산리식 토기가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구 퇴적층 아래의 황갈색점토층 상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오산리식토기 보다 앞서는 신석기시대 초기의 순수무문양토기, 압날점열구획문(押捺點列區劃文)토기와 함께 어망추, 결합식납시, 뎨석기 등의 석기류가 많이 수습되었다.

특히,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점토층 상면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 문화층으로, 무문양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압날점열구획문토기도 함께 출토되었고, 석기로는 석부류, 결합식납시, 석촉류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 몸돌, 격지 등이 주로 출토되는 가운데 소량이지만 줍돌날, 줍돌날 몸돌도 출토되어 후기 구석기의 석기제작 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구지역 남쪽 곡간부의 현 지표하 4m 아래에서는 현재의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1m 내외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저습지 유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회청색(灰青色) 사질토층에서 용기문 및 압날문토기편 등의 토기류, 결합식납시 및 어망추 등의 석기류, 말목과 판재 등 당시 사용하였던 목기류를 비롯하여 솔방울, 잣, 도토리 등의 씨앗 및 갈대, 나뭇가지 등이 출토되었다.<sup>24)</sup>

## (1) 주거지

1호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하여 남쪽으로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3호와 4호 주거지는 모두 2호 주거지의 동쪽과 서쪽에 걸쳐 중복되어 있다. 현재 구릉성 사구 상면에 위치한 주거지의 선후 관계는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1호 및 2호 주거지는 거의 동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며, 서로 중복된 2·3·4호 주거지의 선후 관계는 4호→2호, 3호→2호의 순서로 축조되었으며, 4호와 3호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구릉성 사구에 위치한 주거지 중 1·2·4호 주거지는 사구 상면에 점토바닥면을 마련하여 축조한 반면, 3호 주거지는 모래층 하부의 점토층을 약 30~50cm 가량 굴착하여 점토층 내부에 바닥면을 마련한 후 벽면에 점토다짐을 하였다.

북쪽 사구지대에 분포한 5호 주거지는 해발 4m 내외의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토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주거지의 형태 및 층위상 현재까지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구릉 남단에 위치한 6호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으로 해발 4m 내외의 점토층을 파고 조성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 가. 1호 주거지

바닥에는 5~8cm 내외의 점토다짐을 하였으며, 주거지의 중심에는 60×50cm 규모의 방형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는 수혈식으로 네 면에 모두 천석(川石)을 너비 방향으로 세웠으며, 깊이는 20cm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호, 주칠+용기문토기, 죽관문(竹管文)을 압날 시문한 발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서편에는 모루 및 망치돌과 함께 지석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변으로 석영제 격지 등이 흩어져 있어 주거지 내에서의 석기 제작행위를 엿볼 수 있다. 출토 석기는 소량의 결합석낚시 등의 간석기와 석기제작중의 부산물인 몸돌 및 격지와 더불어 굽개, 뚜르개 등의 뎀석기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돌감은 사암, 석영, 수정(결정질 석영), 점판암, 혼헬스, 반암, 편마암, 부석 등의 다양한 암질을 사용하였다.



오산리 C구역 유구노출 [주거지(적색)와 야외노지(노란색)]

#### 나. 2호 주거지

주거지의 남쪽 일대는 조선시대 굴뚝 및 수혈로 인하여 교란된 상태이며, 바닥은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5~8cm 내외의 점토다짐을 하였다. 평면의 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장축 7.8cm, 잔존단축 6.8cm, 수혈은 최대 50cm이다.

내부시설로는 모난 자갈돌을 이용하여 오각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다. 시설된 노지의 최대 너비는 70cm 내외이며, 깊이는 20cm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발형의 용기문 토기 및 무문토기와 함께 결정질 석영(수정)편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내부 퇴적토에서는 귀달린 호형토기의 구연부에 황으로 용기선문을 4열 배치한 토기가 확인되었는데, 출토된 용기문과 무문양토기 등의 외면에는 기벽(器壁) 정면흔(整面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저부의 내면과 외면에 활엽수 잎을 받친 흔적들이 관찰되는 토기류도 일부 확인되었다.

#### 다. 3호 주거지

1·2호 주거지와는 달리 점토층(갱신세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굴착시 나온 점토로 주거지의 남쪽 벽에 점토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시설로는 직경 50cm 내외의



원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으며, 깊이는 23cm 내외이다. 주거지 상부 문화층에서 무문 및 압날 시문된 발형토기가 수습되었으며, 주거지 내에서는 무문양토기, 용기문토기편, 끌 등이 출토되었다.

#### 라. 4호 주거지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주거지의 중심에는 장방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의 규모는 장축 150cm, 단축 50cm 내외로 서쪽으로 치우쳐 격벽시설을 하였다.

#### 마. 5호 주거지

침식이 이루어진 구릉에 인접하여 형성된 해발 4m 내외의 사구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3.6m 내외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심에는 천석(川石 : 물돌)을 이용하여 50×50cm의 원형 노지를 시설하였다. 노지는 1~4호 주거지와는 다른 반 수혈식이다. 주거지의 북서쪽은 바람에 의해 결실된 상태이고, 주거지내에서는 반입 석재만이 수습되었으며, 토기류는 출토되지 않았다.

〈표2-3〉 오산리유적 C구역 유구조사 현황<sup>25)</sup>

구분 호수	시기	주거지 형태	주거지 크기(m)				화덕자리(cm)				바닥	비 고
			길이	넓이	깊이	면적(㎡)	형태	길이	넓이	깊이		
1호	전기	말각 방형	7.0	6.9	0.5	48.30 (15평)	방형 수혈	60	50	20	진흙 다짐	용기문토기, 석기류
2호	전기	말각 방형	7.8	6.8	0.5	53.00 (17평)	오각형 수혈	70	40	20	진흙 다짐	용기문토기, 석기류
3호	전기	원형	7.1	-	0.5	38.46 (12평)	방형 수혈	60	50	23	점토층 굴착	용기문토기, 석기류
4호	전기	말각 방형	4.7	4.2	-	19.74 (6평)	장방형 수혈	150	50	15	진흙 다짐	무문양토기, 석기류
5호	조기	원형	3.6	-	-	10.17 (3평)	원형	50	50	지상	진흙 다짐	
6호	중기	말각 방형	잔존 4.9	잔존 4.0	0.78	-	방형	93	82	지상	점토층 굴착	침선문토기, 석기류

### 바. 6호 주거지

이 일대는 이미 근세의 민가 및 도로시설로 인해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며, 이후 나무 굴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곳이 교란된 상태이다. 주거지는 구릉성 사구의 남쪽 접경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서쪽은 현재의 도로로 인하여 절반가량이 결실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점토층을 일부 굴착한 후 조성되었다. 규모는 잔존장축 4.9m, 잔존단축 4m이고, 최대 수혈깊이는 78cm이다. 내부시설은 중심부에 위석식(圍石式) 노지 1기를 시설하였으며, 북동쪽 모서리에는 직경 50cm, 깊이 20cm 내외의 원형 저장공이 위치하고 있다. 노지는 길이 25~50cm, 너비 20cm, 두께 10cm 내외의 납작한 할석을 옆으로 세워 시설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을 띠고 있다. 노지의 전체 규모는 93×82cm이고, 내부는 65×65cm이다. 노지 뒤편으로 는 잔 할석을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주거지의 북벽에는 직경 20cm 내외의 주공(柱孔)이 55~75cm의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깊이는 15cm 내외이며, 동북쪽 모서리에는 깊이 30cm 내외의 깊은 주공을 배치하였다.



주거지(2호)



야외노지(2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어골문, 단사집선문 등이 시문된 침선문 계통의 빗살무늬토기편과 함께 소량의 용기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침선문 계통의 토기편 내면에는 기벽(器壁) 정면흔(整面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바닥 상부 10cm 내외 지점에서 출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소량의 용기문토기편도 관찰되고 있다. 이들 용기문토기편은 주거지 폐기 후, 경사면을 따라 이루어진 재퇴적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2) 야외노지

야외노지는 2기가 조사되었으며, 북쪽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1호 야외노지는 북쪽 사구지대에서 해발 4m 내외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2호 야외노지는 1호 야외노지의 남쪽 약 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은 3m 내외이다. 2기 모두 출토유물은 없으나 층위상으로 2호 야외노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문화층과, 1호 야외노지는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층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 가. 1호 야외노지

내부에는 30×21×12cm 내외의 천석으로 시설하였으며, 불의 영향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숯의 함량이 높아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혈은 25cm 내외로 오산리 B구역에서 발굴조사된 야외노지와 그 규모 및 구성요소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2호 야외노지

규모는 장축 1.6m, 단축 1.3m 내외의 원형으로 내부에는 숯과 함께 천석으로 채워져 있다. 수혈은 30cm 내외로 노지 상면은 심한 침식현상이 관찰되며, 하부는 숯의 함량이 높아 흑색을 띠고 있다. 1호와 마찬가지로 출토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sup>26)</sup>



무문양토기(높이 24.3cm)



용기문토기(높이 14.5cm)



압날문토기(높이 33.7cm)

오산리유적(C구역)출토 토기



### (3) 출토유물

#### 가. 토기류(土器類)

6호 주거지와 구릉 정상부의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층에서는 구연부에 단사집선문(短斜集線文)을 시문한 후 동체부에 태선침선문(太線沈線文)식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을 시문한 토기편과 능형집선문(菱形集線文)이 시문된 침선문 계통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상부의 중기 문화층을 제외하고 하부의 전기 및 초기 문화층에서는 모두 평저토기류만 확인되었다. 특히, 최하층인 황갈색점토층 상면에서 출토된 무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점토층 상면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의 문화층으로 제주 고산리유적의 초창기토기 다음으로 오래된 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로 볼 수 있다.



곰모양 토우(C구역 출토)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시문구를 이용하여 구연부에서 1cm 정도의 공백을 둔 후 횡방향으로 2열 또는 3열씩 압날시문한 후 밑으로 바로 연결하여 방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다시 삼각형이나 방형을 또다시 구획하는 시문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토기편들은 모두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완만하게 내경하여 오르다 바로 직립한 구연과 둥근 입술을 만들었다. 기벽의 내·외면에는 모두 매끈하게 적색마연을 하였으며, 태토는 오산리식토기나 용기문토기와는 달리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고 모래 크기보다 작은 석영조각도 극히 일부만 관찰되며 속심의 색깔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sup>27)</sup>

조기문화층 출토 토기류는 반입 자갈돌 등과 혼재되어 모두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무문양토기의 경우 기벽에서 정면흔이 관찰되었다. 이밖에 곰 모양을 형상화한 토우 등의 예술품도 소량 출토되었다.

### 나. 석기류(石器類)

석기류는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층에서 석영제 굽개 등이 수습되었으며, 신석기시대 전기의 용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지 내에서도 석기 제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모루, 망치, 지석 등과 더불어 결합식납시, 뚜르개,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초기문화층 출토 석기류는 석부, 결합식납시, 석촉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 새기개, 몸돌, 격지 등의 뎅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석기 중 석부는 편인석부(偏刃石斧)만 출토되었으며, 단면의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을 취하고 있고 날의 형태는 직선날[직인(直刃)]이다.

결합식납시는 상부 용기문토기 문화층에 비하여 매우 소형의 것으로, 너비 0.5cm 내외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돌감은 상부 문화층의 출토유물과 같은 점판암제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고성 문암리유적이나 오산리식토기 출토유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아, 가장 큰 특징은 두께가 너비에 비하여 얇은 납작한 형태이며 두부(頭部)의 너비가 좁은 반면, 결합부로 가면서 점차 두꺼워진다. 문암리유적과 오산리유적 A·B구역에서 출토된 결합식납시의 형태가 두부에서 결합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J자형인데 반하여, 이곳에서 출토된 결합식납시는 완만한 곡률을 가지고 있는 C자형이다. C자형은 오산리식토기 문화층이나 용기문토기 문화층 출토 결합식납시에 비하여 소형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결합식납시의 형태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겠다.<sup>28)</sup>



결합식납시



돌도끼



어망추

오산리유적(C구역)출토 석기류

어망추는 장축 5cm 미만, 무게 40g 미만의 소형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망추를 제외한 뎅석기류는 상부 용기문토기 문화층에서도 많은 양이 수습되었다. 돌감은 모두 석영, 결정질 석영(수정), 혼헬스 등을 사용하여 돌감의 구성 및 제작기법의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상부 용기문토기 문화층에 비하여 수정(결정질 석영)제 펜석기의 출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량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서 제주 고산리유적 외에는 출토된 예가 없는 줍돌날과 줍돌날 몸돌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후기구석기의 제작전통이 이 시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구역 최하층에서 출토된 석기는 잘 마연된 석부, 결합식낚시, 석촉, 끌 등의 마제석기와 줍돌날, 수정제 석기 등의 타제석기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목기류(木器類)

목기류는 조사지역의 남쪽 곡부(曲部)에 형성된 습지유적에서 용기문토기편 및 압날 문토기편 등과 함께 소량 수습되었다. 공반된 토기류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문화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유물은 거친 판재류와 노(櫓)의 형태로 가공된 목기를 비롯하여, 말목, 통나무의 내부를 쪼아낸 흔적이 관찰되는 것 등이 있다.

### 3) 조사성과

조사된 6기의 주거지 중 6호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것이며, 1~4호 주거지는 용기문토기를 공반하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것으로 판단되고, 북쪽 사구에서 확인된 5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의 판명이 어려우나 주거지의 형태 및 층위 양상으로 보아 현재 용기문토기를 포함하는 1~4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오산리 최하층은 고성 문암리 유적의 최하층과 비교하였을 때, 오산리식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압날점열구획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공반되는 석기 등으로 볼 때 문암리 최하층문화 보다 이른 시기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 곰모양을 형상화한 토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예술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습지는 회청색 사질 점토층으로 1m 내외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으며, 용기문토기편과 함께 목기편 등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습지 내에서는 솔방울, 잣, 도토리, 갈대 등과 함께 많은 양의 나뭇가지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과학적 분석이 뒷



받침되면 유적 형성시기의 식생 및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리유적 C구역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기문화의 발전단계는 순수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주칠토기(B.C.6000년) → 오산리식토기(B.C.5200년) → 용기문토기(B.C.4700년) → 침선문토기(B.C.3600년) 순으로 변천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sup>29)</sup>

특히, 용기문토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오산리식토기보다 빠른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오산리유적 C구역 발굴조사 결과 용기문토기가 오산리식토기보다 상층에서 조사되었고, 탄소연대 측정에서도 오산리식토기 출토 주거지가 용기문토기 출토 주거지보다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sup>30)</sup>

#### 4. 오산리유적의 보존과 활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오산리선사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오산리유적 야외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까지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2,200㎡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30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3호)로 관리되어 오던 오산리유적이 1997년 4월 18일자로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어 정부차원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오산리유적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국내외적으로 유적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고고학분야의 학술적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양양문화원이 주관한 오산리선사유적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7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2001년 11월부터 추진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2005년 9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내부전시 시설공사를 거쳐 2007년 7월 26일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전체 3,200㎡면적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세미나실, 학예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움집과 토기제작, 사냥, 어

로 등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디오라마 형태로 전시되고 있으며, 제2전시실은 오산리유적을 포함하여 강릉 초당동유적과 고성 문암리유적 등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에서 출토된 500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개관이후 하루 평균 2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1단계 야외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유적지내에 신석기시대 움집 6동을 복원하였고, 야외체험장과 탐방데크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마무리하여 2009년 6월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유적지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옆에 자리한 쌍호의 갈대군락지는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오산리유적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다.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물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국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체험장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리유적 등 특정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하는 유적박물관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외없이 공립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본질적으로 강력한 지역성을 표방하게 되는 유적박물관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기본목적은 물론 지역정체성의 고취,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지역

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치창출을 꾀하면서 유적과 박물관 자료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경우도 향토유적의 답사와 강좌중심의 교육,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박물관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조사, 연구, 전시의 기존 기능에서 체험과 교육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이 지역 내에서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문화, 예술, 과학, 환경을 탐구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곳이며 인간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박물관 교육은 인간이 남긴 족적을 되새겨 보는 곳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전경



오산리유적(A구역)에 복원된 움집

오산리유적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유적지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유적으로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람객 흡인력이 기대된다. 둘째, 낙산사와 진전사, 하조대, 설악산 등 주변에 위치한 양양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관람객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면면히 살펴 정성껏 해설하며 안내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은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체험형 박물관을 지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400여 개소에 이른다. 이들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주로 대동강·한강 유역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 낙동강 유역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 그리고 두만강 유역을 포함한 동북해안 지역 등 크게 3개 지역에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간의 토기 양상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서해안 지역에서는 뽕족밧토기, 남해안 지역에서는 덧무늬토기,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납작밧토기 등이 각각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지역 내에 있어서 토기의 변천상이나 각 지역 간의 문화적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다. 이는 신석기 토기 상호간의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층위를 이룬 유적의 발굴 예가 적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이들 지역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 하였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한 오산리유적의 발굴은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만큼 층서(層序)가 뚜렷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 각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가 망라되고 있어 동해안 선사문화의 구명(究明)뿐 아니라 한국 신석기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1)</sup>

우리나라 신석기유적의 분포상황을 볼 때, 중서부지방과 서북·동북지방에서는 큰 강을 중심으로 장기간 점유된 유적들이 많고, 서해안의 도서지방에서는 주거유적들이 아닌 패총이나 야외노지 등과 같은 단기간 점유된 유적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최근 확인되고 있는 영종도와 같은 큰 섬의 경우, 신석기시대의 취락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해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북해안과 남해안지역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여 비교적 안정된 정착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로가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해안이나 큰 강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시대 전기의 유적들과 달리 신석기시대 후기가 되면 내륙지방에 어로의 비중이 크지 않는 신석기유적들이 나타난다. 1980년대부터 구제 발굴조사가 많아지자 전혀 예

상하지 못하였던 충청도 및 남부 내륙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적의 분포적 특성을 살펴볼 때, 앞으로는 해안 및 강안 유적을 중심으로 그 곳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문화와 깊숙한 내륙의 환경에 적응한 신석기문화의 심도 깊은 비교연구가 기대된다.<sup>32)</sup>

오산리유적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신석기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 보고, 최근에 조사된 오산리유적의 발굴성과를 통해 주거지 형태, 토기양상의 선후관계와 층서문제 등 오산리유적에 대한 고고학분야의 학술적 평가보다는 유적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토대로 연구된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양양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남대천 하구 일대는 구석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각 시대에 걸친 유적들이 밀집 분포된 곳으로, 그 가운데 오산리 신석기유적은 3천여 점의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신석기문화의 초기 단계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더구나 이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 청동기, 원삼국시대의 각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양군 역사의 변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적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재현하고 출토된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해 놓은 오산리 선사유적지와 박물관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으로 양양군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오산리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을 재현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산교육장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양양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 1) 오산리 신석기유적은 1990년 5월 31일 강원도기념물 제62호 '양양 오산리선사유적(16,051㎡)'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4월 1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394호로 승격되었다. 전체 지정면적은 135,614㎡로 이중 지정구역은 16,087㎡이고, 보호구역은 119,527㎡이다.
- 2)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8년부터 2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2월 5일자로 54,438㎡이 사적 426호로 지정되었다. 문암리에서는 독특한 양식의 덧무늬토기와 함께 오산리유적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누른무늬토기와 결합식 낚싯바늘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문화와 비교연구 및 전파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3) 고동순,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 패총전시관 학술총서 제Ⅳ권, 2009, 149쪽.
- 4) 고동순, 위의 책, 2009, 150쪽.
- 5) 서울대학교박물관, 『오산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오산리유적』, 1984, 3쪽.
- 6) 임효재, 『오산리유적』,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도록』, 2008, 24쪽.
- 7)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1997, 23쪽.
- 8) 2006~2007년에 걸쳐 예맥문화재연구원이 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 유적을 발굴조사(오산리유적 C구역)한 결과, 6기의 주거지가 모두 수혈주거 형태이며 오산리유적과 같은 시기인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지경리 신석기유적에서도 수혈주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주거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9) 임효재, 위의 책, 2008, 24쪽.
- 1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양양 오산리선사유적), 계문사, 1996, 13쪽.
- 11) 임효재, 두더지고고학, 집문당, 2006, 51쪽.
- 12) 고동순, 위의 책, 2009, 154쪽.
- 13) 동삼동패총전시관,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Ⅰ』, 한글그라픽스, 2004, 132쪽.
- 14) (재)예맥문화재연구원이 양양군의 의뢰를 받아 2006~2007년 발굴조사한 도로부지유적으로, 오산리유적 A구역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 유적은 원래 A구역과 연결된 사구였으나 도로개설로 인해 양분된 것으로 오산리유적의 전체적인 혼선을 피하고자 편의상 C구역으로 구분하였다.
- 15) 고동순, 위의 책, 2009, 164쪽.
- 16)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284~285쪽.
- 17) 결합식낚시는 조합식어구(組合式漁具), 결합식낚시도구(結合式釣竿), 오산리형 이음낚시 등으로도 불리운다.
-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1, 181쪽.
- 19) 임효재, 위의 책, 2008, 27쪽.
- 20) 고동순, 위의 책, 2009, 153쪽.
- 21) 고동순, 위의 책, 2009, 158쪽.
-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1, 882쪽.
- 23) (재)예맥문화재연구원이 2006~2007년간 발굴조사한 도로부지 유적으로 약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다.(주석14 참조)
- 24) 예맥문화재연구원, 『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7~21쪽.
- 25) 고동순, 위의 책, 2009, 158쪽.
- 26) 예맥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07, 22~32쪽.
- 27) 고동순, 위의 책, 2009, 159쪽.
- 28) 고동순, 위의 책, 2009, 162쪽.
- 29) 예맥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07, 40쪽.
- 30) 고동순, 위의 책, 2009, 184쪽.
- 31) 임효재, 위의 책, 2006, 46쪽.
- 32) 임효재, 위의 책, 2008, 23쪽.



## 참고문헌

- 오산리유적 I · II · III,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1985, 1988.
- 임효재, 한국 신석기문화, 집문당, 2002.
- 서울대학교박물관도록,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 예맥문화재연구원, 「양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양양군, 양주지,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
- 임효재, 두더지 고고학, 집문당, 2006.
- 양양의 역사와 문화유적, 양양군 · 강릉대학교박물관, 학연문화사, 1994.
- 이상균,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신동향, 학연문화사, 2005.
- 임효재, 한국 신석기문화의 전개, 학연문화사, 2005.
- 문화재(사적)지정 조사보고서(양양 오산리선사유적), 문화재관리국, 1996.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2001.
- 양양군문화시설관리사업소, 양양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조성공사 준공 보고서, 양양군, 2009.
- 김건수, 한국 원시 · 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1999.
- 동삼동패총전시관,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 I, 한글 그래픽스, 2004.
- 고동순,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 패총전시관 학술총서 제IV권, 2009.
- 국립춘천박물관, 강원고고학의 발자취, 통천문화사, 2004.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도록, 양양군, 2008.

### Ⅲ.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 1. 양양지방의 고대사

##### 1) 동예시대의 양양

청동기 · 철기시대에 접어들어 생산력이 발전하고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초기국가들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국가는 고조선이다. 그러나 고조선은 한(漢)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하였고, 그 후 한나라는 동방정책의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과거 고조선의 세력권 안에 4군(郡)을 설치하게 된다. 즉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 · 진번군 · 임둔군을 설치하였고, 이어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을 설치하였다.

한군현이 설치되었을 때, 영동지방은 처음에 임둔군의 통치를 받았으나, 기원전 82년에 임둔군이 폐치(廢置)되자 일시적으로 현도군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그 뒤 현도군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자 영동지방은 낙랑동부도위(樂浪東部都尉)가 관할하게 되는 동이(東眭) · 불이(不而) · 잠대(蠶臺) · 화려(華麗) · 사두매(邪頭昧) · 전막(前莫) · 부조(夫租) 등 영동 7현에 속하게 되지만, 기원전 30년에 한나라는 토착세력에 밀려 영동 7현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영동지방은 중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치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영동지방에는 동예(東濊)와 실직국(悉直國)이 있었다.

동예에 대한 기록은 3세기 후반 진수[(陳壽), 233~297년]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예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

로 큰 바다[大海]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동예의 위치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강원도의 영동 지방에 걸치는 한반도 동해안 일대로 비정(比定)하고 있다. 지금의 양양은 동예(東濊)에 속해 있었다.

동예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회의 기본단위는 읍락(邑落)이었다. 동예의 읍락들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는 등, 읍락의 개별성과 폐쇄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주목되는 자료는 『삼국지』 동이전 예조의 다음 기사이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는데,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산천각유부분(山川各有部分)]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읍락을 서로 침범하면 벌로서 생구(生口)와 우마(牛馬)를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責禍)라 한다.

여기서 “산과 내마다 각기 부분이 있어[산천각유부분(山川各有部分)]”에 보이는 부분이란 읍락이 입지한 곳으로 이해된다. 읍락은 읍락민의 생업과 관련한 활동공간으로서 그 안에는 주거지, 농경지, 천변(川邊) 및 산곡(山谷)을 포함하는 생활영역을 갖고 있었다. 이 읍락을 침범했을 시에는 생구(生口, 노비)와 우마(牛馬)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즉 동예의 읍락들은 산천을 경계로 각기 일정한 생존영역을 유지하면서 각 읍락단위로 독자적인 공동체적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상호간 그 영역을 침범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책화’라는 읍락단위의 배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동예는 개개 읍락을 정치적·경제적 기저단위로 하는 여러 정치체들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동예사회가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 후진사회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많다. 가령 “보전(步戰)에 능했다”고 한 것이라든지, “주옥(珠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한 것이 그것이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고 한 것은 동예사회에서 씨족공동체적 생활양식이 존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예인들이 시간측정과 역(曆)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한 별자리를 관찰하여 농사에 있어 풍흉을 예언하였다는 점과 누예를 쳐서 명주실을 뽑아내고 마포(麻布)를 짰다는 점 등은 당시 이들의 농업관리



역량과 직조기술 수준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동예에서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하였다. 이때에는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주야음주가무(晝夜飲酒歌舞)]”고 한다. 이러한 축제는 삼한에도 있었다. 삼한에서는 5월에 파종을 마친 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주야로 술 마시기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에 추는 춤은 수십 인이 같이 일어나 서로 따르며 땅을 발로 밟았다가 올리며 손과 발이 서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10월에 농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제천행사의 존재는 당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예인들은 농사 이외에도 수공업, 수산업, 수렵에도 종사하였다. 이는 동예의 특산물로서 거론되는 낙랑단궁(樂浪檀弓)·반어피(班魚皮)·문표(文豹) 및 과하마(果下馬)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의하면 동예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제사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제호이위신(祭虎以爲神)]고 하였다. 이 기사는 호신(虎神)숭배를 전하는 최초의 것으로서, 한국에서 호랑이를 산신(山神)으로 숭배하는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산신은 산에 살면서 산을 맡고 있는 신이다. 그러나 산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 마을공동체의 모든 길흉화복을 주재하며 또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신이다. 산신숭배가 마을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신을 모시는 동제에서는 산신에게 여러 가지를 기원하는데, 동제의 축문(祝文)을 분석해보면 풍년의 기원이 가장 많다.

호랑이 자체가 산신이란 관념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방언에서 호랑이를 산의 임자, 산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의 ‘산군’(山君)·‘산왕(山王)’·‘산지킴’·‘산주인’·‘산찌킴이’로 부르는 것이라든지, 무당 산신도(山神圖)에서 호랑이만을 그려놓고 산신령이라 한 것, 그리고 민담에서 딸의 혼인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호랑이가 딸을 물어다가 남자에게 데려다주자 산신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하여 딸의 혼사를 승낙했다는 것 등에서 찾아진다.

동예사회에서 호랑이 산신은 읍락의 초자연적 지배자이며, 따라서 읍락은 읍락인들

의 생활권인 동시에 산신의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외부인이 다른 읍락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그 읍락을 지배하는 산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며, 여기서 다른 산신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들어갈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관념이 성립될 수 있다. 동예사회에서 읍락단위의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데에는 이러한 산신숭배가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 2) 삼국시대의 양양

삼국이 형성되면서부터 영동지방은 신라·고구려의 영향을 차례로 받기 시작한다. 신라는 일찍부터 영동지방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하였다. 문헌상으로 신라의 영향력이 영동지방에 최초로 미치는 것은 2세기 무렵이다. 『삼국사기』 파사왕 23년(102년) 8월 기사에 따르면, 실직국(悉直國)과 음즙벌국(音汁伐國)이 경계 다툼이 일어나 파사왕에게 와서 이를 판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왕은 이를 판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며 ‘금관국(金官國) 수로왕(首露王)은 연로하고 지식이 많으므로 그를 불러서 판결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에 수로왕은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그 분쟁지역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했다. 그러나 신라 6부(部) 내의 갈등에 음즙벌국이 연관되어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항복하자 이에 실직국도 항복하였다고 한다.

신라는 실직·음즙벌국을 복속한 후에 동해안 북쪽으로는 개척을 계속 진행하였다. 강릉일대가 언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시기는 내물왕 42년(397년) 이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북변의 하슬라(何瑟羅, 강릉)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이 죄수들을 놓아주고 1년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sup>1)</sup>고 한다. 이는 강릉이 신라의 영역으로 확정되었음을 말해준다.

내물왕대(356~402년)에 신라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신라가 377년에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한 것이라든가, 381년에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위두(衛頭)를 파견한 것,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실성(實聖)을 볼모로 보낸 것은 이를 말해준다. 400년에 왜병이 신라 왕경을 침범해왔을 때에는 광개토왕이 보병·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해주기도 하였다.<sup>2)</sup> 그러나 눌지왕대(417~458년)

에 들어와 장수왕의 남진정책과 이에 대비한 나제동맹의 체결 이후 양국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눌지왕 34년(450년, 장수왕 38년) 7월에 하슬라성주(何瑟羅城主) 삼직(三直)이 고구려의 변장을 실직(悉直) 들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신라왕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sup>3)</sup> 그 후 자비왕 7년(464년, 장수왕 52년)에 신라군이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인 100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sup>4)</sup>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는 장수왕 56년(468년)에 말갈 군사와 함께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장수왕 69년(481년, 소지왕 3년)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동해안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통일신라 때 명주를 구성한 간성 · 고성 · 영덕 · 흥해 · 울진 · 청하 등 동해안 지역과 임하 · 영월 등 영서의 일부 지역들이 본래 고구려의 군현(郡縣)이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양양은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하였고, 동산(洞山)은 혈산현(穴山縣)이라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동해안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6세기 초의 지증왕 때와서이다. 지증왕은 고구려가 북쪽의 위(魏)와 양(梁)나라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하여 국력을 신장시켰다. 6세기 초에 즉위한 지증왕은 국호(國號)와 왕호(王號)를 확정하고, 우경(牛耕) 장려, 순장(殉葬) 금지법, 상복법 시행 등 왕실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sup>5)</sup> 이와 함께 변방의 중요 지역에 12성(城)을 쌓고, 지증왕 6년(505년)에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실직주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라에서 가장 명망하는 인물인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파견하였고, 7년 후에는 실직보다 북쪽에 위치한 하슬라주(강릉) 군주로 파견하였다. 이는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동해안 지역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진흥왕 17년(556년)에는 비열홀주(比列忽州, 안변)를 설치하고, 사찬(沙湌) 성종(成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 이는 신라의 동북변의 군사중심지가 하슬라에서 비열홀로 이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열홀주가 설치된 지 12년 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달홀주(達忽州, 고성)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변방지역의 전진과 후퇴에 따라 주(州)가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남북국시대의 양양

‘남북국시대’란 발해사를 한국사의 한줄기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한국사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통일신라시대라는 용어 대신 신라와 발해를 묶어서 ‘남북국시대’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유득공이 『발해고』 서문에서 처음 제기하였다. 김정호도 자신이 집필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발해가 고구려 옛 땅을 이어받아 신라와 더불어 200여 년간 남북국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 때의 역사학자였던 장도빈·권덕규 등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계승되어 ‘남북국’ 또는 ‘남북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광복 이후 북한학계에서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나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 남한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 이우성 교수가 적극적으로 ‘남북국시대론’을 제기<sup>6)</sup>한 후 많은 개설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열왕 때부터 시작된 신라의 통일전쟁은 문무왕 때에 이르러 원산만과 대동강을 잇는 그 이남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영토 모두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영토와 인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라의 중대 왕실은 ‘삼한을 일통하였다[일통삼한(一統三韓)]’는 의식을 표방하면서 신문왕대에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정비하였다.

〈표3-1〉 통일신라 9주의 편성

구 분	주 이름
원신라지역	사벌주(尙州) · 삼랑주(良州) · 청 주(康州)
옛 고구려지역	한산주(漢州) · 수약주(朔州) · 하서주(溟州)
옛 백제지역	웅천주(熊州) · 완산주(完州) · 무진주(武州)

〈표3-2〉 통일신라 9주의 편성

溟州	(고구려 河西良(何瑟羅), 경덕왕 溟州, 고려 溟州)
	旌善縣(고구려 仍買縣, 경덕왕 旌善, 고려 旌善縣)
	棟隄縣(고구려 東吐縣, 경덕왕 棟隄, 고려 未詳)
	連谷縣(고구려 支山縣, 경덕왕 支山, 고려 連谷縣)
	洞山縣(고구려 穴山縣, 경덕왕 洞山, 고려 洞山縣)
曲城郡	(고구려 屈火郡, 경덕왕 曲城, 고려 臨河郡)
	緣武縣(고구려 伊火兮縣, 경덕왕 緣武, 고려 安德縣)
野城郡	(고구려 也尸忽郡, 경덕왕 野城, 고려 盈德郡)
	眞安縣(고구려 助攪縣, 경덕왕 眞安, 고려 甫城府)
積善縣	(고구려 靑已縣, 경덕왕 積善, 고려 靑靑縣)
有隣郡	(고구려 于尸郡, 경덕왕 有隣, 고려 禮州)
	海阿縣(고구려 阿兮縣, 경덕왕 海阿, 고려 淸河縣)
蔚珍郡	(고구려 于珍也縣, 경덕왕 蔚珍, 고려 蔚珍郡)
	海曲縣(고구려 波且縣, 경덕왕 海曲, 고려 未詳)
奈城郡	(고구려 奈生郡, 경덕왕 奈城, 고려 寧越郡)
	子春縣(고구려 乙阿旦縣, 경덕왕 子春, 고려 永春縣)
白鳥縣	(고구려 郁鳥縣, 경덕왕 白鳥, 고려 平昌縣)
酒泉縣	(고구려 酒湫縣, 경덕왕 酒泉, 고려 酒泉縣)
三陟郡	(悉直國, 경덕왕 三陟, 고려 三陟郡)
	竹嶺縣(고구려 竹峴縣, 경덕왕 竹嶺, 고려 未詳)
	萬卿縣(고구려 萬若縣, 경덕왕 滿卿, 고려 未詳)
	羽谿縣(고구려 羽谷縣, 경덕왕 羽谿, 고려 羽谿縣)
	海利縣(고구려 波利縣, 경덕왕 海利, 고려 未詳)
守城郡	(고구려 遼城郡, 경덕왕 守城, 고려 杆城縣)
	童山縣(고구려 僧山縣, 경덕왕 童山, 고려 烈山縣)
	翼嶺縣(고구려 翼峴縣, 경덕왕 翼嶺, 고려 翼嶺縣)
高城郡	(고구려 達忽, 경덕왕 高城, 고려 高城郡)
	叅狻縣(고구려 猪遼穴縣, 경덕왕 叅狻, 고려 叅狻縣)
	偏嶮縣(고구려 平珍峴縣, 경덕왕 偏嶮, 고려 雲巖縣)
金壤郡	고구려 休壤郡, 경덕왕 金壤, 고려 金壤郡)
	習谿縣(고구려 習比谷縣, 경덕왕 習谿, 고려 歙谷縣)
	隄上縣(고구려 吐上縣, 경덕왕 隄上, 고려 碧山縣)
	臨道縣(고구려 道臨縣, 경덕왕 臨道, 고려 臨道縣)
	派川縣(고구려 改湫縣, 경덕왕 派川, 고려 派川縣)
	鶴浦縣(고구려 鵠浦縣, 경덕왕 鶴浦, 고려 鶴浦縣)

9주의 분포를 보면, 옛 고구려 땅에 3개 주, 옛 백제 땅에 3개 주, 소백산맥 이남 원래의 신라 땅에 3개 주를 두었다. 오늘날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에 속해 있었는데, 영동지방은 명주에 속해 있었다. 당시 명주의 관할 군현은 군(郡)이 9곳, 현(縣)이 25곳이었다.

명주는 강릉을 주치(州治)로 한 직할지와 곡성군·야성군·유린군·울진군·내성군·삼척군·수성군·고성군·금양군 등 9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영동지방 대부분과 평창군·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북부의 해안 쪽 대부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지금의 양양은 익령현(翼嶺縣)으로 편제되었으나 독립된 현이 아니라 수성군(守城郡)의 속현이었다. 수성군은 관할 영역은 오늘날 고성군에서 양양군까지로 추정된다.

신라의 서북경은 분명하게 되어 있지만, 동북경에 대하여는 『신당서』 발해전에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와 접해 있는데, 니하(泥河)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발해남접신라 이니하위계(渤海南接新羅 以泥河爲界)]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니하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몇 개의 학설이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학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원산만부근설과 강릉부근설로 나눌 수 있다.

원산만부근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 동북경 최북단의 행정구역이 천정군(泉井郡, 현 덕원)이었다는 점, 동사전조(同祀典條)에서 동북지방 최북단의 소사(小祀)로 상악(霜岳, 고성 금강산)과 설악(雪岳, 양양 설악산)이 설정되어 있는 점, 성덕왕 20년(721년) 7월에 “하슬라도(강릉)의 정부(丁夫) 2천명을 징발하여 북변에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것 등이다. 강릉부근설은 정약용이 그의 『강역고』에서, “니하는 강릉 북쪽에 있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약용은 니하를 강릉 북쪽의 이천수로 보고 양양 이북이 발해의 땅이었다가 756년경에 신라 영토가 되었다고 기록한 사실을 근거로 발해 남변은 신라와의 세력관계에 따라 발해와 신라의 대외교통로인 신라도(新羅道)는 시기별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이 발해의 남쪽 경계인 니하를 어디로 비정하는가에 따라 발해의 영역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니하의 위치 즉 신라의 남쪽 경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일치된 견해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발해의 남쪽 경계는 양양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비록 덕원 이남의 지역이 일



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쳤다 할지라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발해가 이용했을 신라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경우 양양 이남까지 확장할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에는 국도인 상경(上京)을 중심으로 하여 각 방면에 이르는 교통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조공도(朝貢道) · 영주도(營州道) · 일본도(日本道) · 거란도(契丹道) · 신라도(新羅道)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발해사와 영동지방을 연결함에 있어 당시 발해의 수도인 상경용천부에서 남경남해부를 거쳐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가 명시되어 있음이 주목된다.<sup>8)</sup>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에서 동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청해토성이 발견되면서 현재는 신창이 유력하다. 따라서 신라도는 자연히 동해안 경로를 택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인용된 가탐(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발해국의 남해(南海) · 압록(鴨綠) · 부여(扶餘) · 책성(柵城)의 4부(府)가 모두 고구려의 옛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까지 39개의 역이 있다고 하였다. 신라 천정군은 함경남도 덕원에 해당하고 발해 책성부는 중국 길림성 훈춘현에 있는 팔련성(八連城)에 해당하므로 두 지역 사이에 북청토성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경로가 바로 신라도에 해당한다. 참고로 당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30리마다 1개의 역을 두었으므로 천정군에서 책성부까지 1,170리로서 현재의 단위로 하면 약 521km가 된다고 한다. 아무튼 신라의 국경도시인 천정군에서 발해 5경의 하나인 책성부까지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상설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바로 양국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준다.

신라도의 설치시기는 양국 간의 상설적인 교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고금군국지』에 신라 천정군이라 표기하였는데 천청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경덕왕 16년(757년)에 정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이전까지이므로 757년 이전에 이미 양국 사이에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측으로 보면 3대 왕인 문왕 시기 전반에 해당한다. 결국 신라도는 721년에서 757년 사이에 개설되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아마도 발해 문왕대 즉 신라 경덕왕대에 들어

와서 양국의 교섭 통로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교섭 통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아직 상설적인 교류가 행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발해 대조영 후반에서부터 문왕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무력정복이 활발히 벌어지던 시기로 이것이 신라에 위협이 되었을 것이므로 양국 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뒤 문왕이 정복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치(內治)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신라도는 보다 빈번히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기 위해 757년에 이르러 721년에 쌓은 장성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아 양국의 교섭통로로 삼았던 것 같다. 탄항관문은 바로 신라도가 통과하는 양국 국경지대의 관문이었다. 발해에서 출발하여 탄항관문을 지남으로써 마침내 신라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동해안로를 따라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가 동해안로를 여는 시기는 소지왕 9년(487년)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관도(官道)를 수리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통일 이후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로를 새로이 정비하였는데, 5통과 5문역이 바로 그것이다.<sup>9)</sup> 5통은 북해통(北海通)·염지통(鹽池通)·동해통(東海通)·해남통(海南通)·북요통(北徭通)이고, 5문역은 건문역(乾門驛)·곤문역(坤門驛)·감문역(坎門驛)·간문역(艮門驛)·태문역(兌門驛)이다.

5통은 통일 이후 지방통치조직이 9주 5소경으로 정비되면서 9주에 10정·만보당(萬步幢) 등 여러 군사조직을 배치하면서 지방통치조직과 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재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조직은 신문왕 2년(681년)에 완산주(지금의 전주)와 청주(靑州, 지금의 진주)를 설치함으로써 완비되었다. 따라서 5통은 신문왕대에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5통은 왕도를 중심으로 하여 9주의 주치(州治)나 소경(小京)으로 통하는 행정통로임과 동시에 군사도로인 5개의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다.

5통 가운데 북해통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동해안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교통로라 파악된다. 북해통의 출발점은 경주의 간문역이었고 종점은 천정군이었다. 수도 경주에서 천정군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형산강을 따라 가다가 안강현을 지나면 의창군에 이르게 된다. 의창군에 이른 후 북해통의 길은 계속 북상하게 된다. 그 길을 『삼국사기』 지리지의 명주 관내의 군현과 연결시켜 보면, 의창군(포항시 흥해읍)·청하현(포항

시 청하면 고헌리) · 야성군(영덕군 영덕읍) · 유린군(영덕군 영해읍) · 해곡현(울진군 덕신리) · 울진군(울진군 울진읍) · 해리현(삼척시 옥원리) · 만경현(삼척시 원덕면) · 삼척군(삼척시) · 우계현(강릉시 옥계면) · 명주(강릉시) · 지산현(강릉시 연곡면) · 동산현(현남면) · 익령현(양양읍) · 수성현(간성읍) · 고성군(고성읍) · 환하현(양진리) · 편협현(양진리) · 임도현(가염성리) · 금양군(통천면) · 습계현(송전면) · 파천현(시천리) · 학포현(학고리) · 천정군(덕원군 문천면)으로 연결된다.

신라와 발해는 신라도를 이용하여 사신 왕래나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고 본다. 신라도는 대체로 8세기 전반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국이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자주 교류한 것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이다. 현존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신라도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은 당나라 사신 한조채(韓朝彩)로서 그는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가 764년에 발해에서 신라로 직접 갔다고 하는데, 이 때 이 경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원성왕 6년(790년)에 일길찬 백어(伯魚)와 헌덕왕 4년(812년)에 이찬 숭정(崇正)을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때도 이 경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신라 사신이 발해로 갈 때에는 신라도를 이용하였다고 본다. 신라도는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로로도 사용되었는데, 777년 발해 사신이 토호포(吐號蒲)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고 한다.

#### 4) 후삼국시대의 양양

7세기 후반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는 신문왕대(681~692년)의 체제정비를 거치면서 전제왕권을 수립하게 되었고, 성덕왕대(702~737년)에 와서는 안정된 전제왕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대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쇠망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 4년(768년)에 일어난 대공(大恭)의 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공의 반란은 전국의 96각간이 3개월 동안 서로 싸웠다고 전할 정도로 일찍이 보지 못한 대란이었다. 이는 신라 중대 왕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싸움의 양상은 현 집권자인 혜공왕파와 반(反)혜공왕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지정(金志貞)이었고, 후자의 대표적 인물이 김양상(金良相) · 김경신



(金敬信)이었다. 여기에서 반해공왕파가 승리하고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37대 선덕왕(780~785년)이다. 선덕왕은 무열왕계가 아니라 내물왕 10세손이었다. 이러한 방계 출신인 선덕왕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를 계승하던 중대는 종언을 고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하대에 들어 150여 년 사이에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대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의 정치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과 사원은 권력·고리대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장(田莊)이라 불리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당서』에는 “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천명이나 되고 갑병(甲兵)과 소·말·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유민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성여왕 3년(889년)에 조세독촉을 계기로 전국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사벌주(沙伐州, 지금의 상주)를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시 농민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왕명을 받고 출동한 영기(令奇)는 그 위세에 놀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농민봉기는 삼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틈을 타 각처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세력의 구심점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 죽주(竹州, 안성)의 기훤(箕萱), 완산(完山, 전주)의 견훤(甄萱), 명주(溟州)의 김순식(金順式) 등이다. 그러다가 중국에는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어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그리고 종래의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9세기말 명주는 궁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궁예는 한 때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영토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명주는 궁예가 세력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된 곳이기도 하다. 궁예가 명주에 들어올 때의 군사는 600여 명이었으나 명주에 도착한 후에 3,500명으로 불어났다. 즉 궁예는 명주 땅에서 명주호족과 농민, 승려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원래 그의 군사보다 5배나 늘어났던 것이다. 궁예

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양을 거쳐 저족(猪足, 인제) · 성천(狴川, 화천) · 부악(夫若, 김화) · 금성(金城, 김화) · 철원(鐵圓, 철원) 등을 정복하였고, 얼마 후 왕건 부자와 패서(溟西, 평양 이남 예성강 이북) 일대의 호족세력의 귀부(歸附)를 받아 서쪽과 남쪽 방면으로 진출하여 공주에서 영주를 잇는 선의 이북 지역을 거의 차지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궁예는 사졸(士卒)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상벌을 공평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제적이고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신라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에서 오는 자를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자 지식인과 호족들이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사회의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궁예 휘하에서 동궁기실(東宮記室)까지 지냈던 박유(朴儒)는 산속으로 숨어버렸으며, 장주(掌奏)의 직책에 있던 최응(崔凝)은 궁예가 왕건에게 모반 혐의를 뒤집어씌울 때 왕건을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궁예는 결국 왕위를 왕건에게 내주게 되었다.

918년에 궁예의 세력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왕건 앞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왕건이 즉위한 5일째 되던 날 혁명 내부세력 가운데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反)혁명 사건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궁예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청주지역 호족들이 모반을 꾀하여 왕건에 저항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은 즉위한 후에 궁예를 지지하고 있던 각 지역 호족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호족세력들이 후백제로 기울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백제 영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명주장군 김순식도 왕건이 즉위한 후에 불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 포섭하는 일이었다. 이에 왕건은 제도(諸道)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회유 · 포섭하였다. 그러자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歸附)해 왔다. 이렇게 해서 귀부해 오는 호

족에게는 토지와 저택을 주기도 하고 관계(官階)를 수여해주면서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건이 호족의 딸들과 정략결혼을 통해 집권은 물론,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정권의 안정은 이루지만 왕건 사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호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씨 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부해 왔다. 왕건은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김순식의 귀부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태조 5년(922년) 7월에 왕건이 순식의 아버지 허월을 보내어 타이르니, 순식은 그의 장자 수원(守元)을 보내어 1차 귀부하였다. 이 때 왕건은 수원에게 왕성(王姓)을 하사하고 전택(田宅)을 주었다. 그러나 순식의 이러한 귀부는 왕건에게는 매우 소극적이고 불만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왕건은 순식 자신의 완전한 귀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을 것이다. 1차 귀부를 한 지 5년이 지난 태조 10년(927년) 8월에 순식은 다시 아들 장명(長命)과 군사 600인을 보내서 고려 궁궐을 숙위하게 하였다. 이에 태조는 순식의 소장(小將) 관경(官景)에게 왕성(王姓)과 관계(官階)를 수여하고, 그 아들 장명에게는 염(廉)이란 이름과 원보(元甫)<sup>10)</sup>라는 관계를 주었다. 김순식 본인이 몸소 휘하 세력을 이끌고 왕건에게 완전히 귀부하는 것은 태조 11년(928년)에 들어와서이다. 이때 왕건은 순식에게 왕성을 하사하고 대광(大匡)<sup>11)</sup>이라는 관계를 주었다. 대광은 ‘크게 나라 일을 바로잡을 만한 위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광은 살아있는 인물에게 주었던 관계 중 최고위였다. 태조대에 대광의 관계를 수여한 예는 재경세력(在京勢力) 중에는 몇몇 있었으나, 지방세력 중에서는 순식이 최초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당시 김순식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명주호족 김예(金乂)도 왕씨 성을 하사받았다. 김예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왕씨 성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본 관경이 김순식의 아들 장명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역시 김순식의 귀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명주호족 세력으로서 왕씨 성을 받은 사람은 김순식의 3부자와 관경, 김예 등이었다.

왕건은 명주호족 김순식과 김예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아 태조 12년(929년) 12월부



터 시작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10여 성이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의 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김순식과 김예는 태조 19년(936년)에 후백제를 공멸(功滅)할 때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순식은 얼마 안 가서 중앙정계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태조 19년(936년) 이후부터 순식에 관해 전혀 자료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의 가문이 그 후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도태되었거나, 아니면 광종의 호족억압책으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김예 계열은 건재하였다. 그는 왕건의 공신이 됨과 동시에 내사령(內史令)을 역임하였고, 그의 딸은 태조 왕건의 14비 대명주원부인(大溟州院夫人)<sup>12)</sup>이 되었다. 그의 후손은 그 후에도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현손 왕국모(王國髦)가 현종 때 역신(逆臣) 이자의(李資義)를 제거한 공로로 참지정사(參知政事) 및 수사도(守使徒) 등을 역임한 것이라든지, 왕백(王伯)이 충렬왕 때 급제 출사한 것에서 확인된다.

## 2. 양양지방의 중세사

### 1) 고려전기의 양양

고려의 군현제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출발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신라말 이래 강력한 지방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초기에는 한동안 지방세력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했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의사를 지방에 직접적으로 관철 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초에는 다만 서경[(西京), 개경]을 비롯한 몇몇 요지에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관리를 파견하였고, 조세수취를 위해 금유(今有) · 조장(租藏)과 전운사(轉運使) 등으로 불린 비상주 관원을 파견하였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50년 가까이 지난 성종 원년(982년) 6월에 주요 거점지역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12목은 양주 · 광주 · 충주 · 청주 · 공주 · 해주 · 진주 · 상주 · 전주 · 나주 · 승주 · 황주였다.

12목 설치의 계기가 된 최승로의 상소에서는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태조가 통일한 뒤에 지방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이를 실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지방토호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방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비록 한꺼번에 다 파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10여 주현을 아울러 한 명의 지방관을 설치하고 그 지방관마다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시오.”라 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성종대에 12목에 목사를 파견한 것은 민정적(民政的) 지방행정관 파견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이는 지방 호족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당시 강원도 지역은 12목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지방호족의 세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 14년(995년)에는 처음으로 전국을 10도로 편성하였다.<sup>13)</sup> 그리고 12목이 설치되었던 큰 주에 절도사(節度使)를 두고, 이보다 작은 주에 도단련사(都團練使)·단련사(團練使)·자사(刺使)·방어사(防禦使)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목종 8년(1005년)에 절도사만 남고 양계지방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단련사·단련사·자사는 혁파되었다. 10도제가 실시되면서 양양은 익령현으로 삭방도(朔方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현종 9년(1018년)에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을 위시하여 군(郡)·현(縣)·진(鎭)에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형태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현종 9년의 지방제도는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려 지방제도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 지리지에 현종 9년의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고려의 지방지배는 지역별로 지배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크게 보면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와 북방변경지대인 양계, 그리고 나머지 5도의 지배방식이 각기 달랐다. 행정적으로 볼 때 경기는 개성부사가 관할하고, 양계는 병마사 예하의 방어주진으로 편성되었으며, 5도는 안찰사가 관할했다. 그것은 수도 인근 지역과 민사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그리고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전국을 3원적으로 통치했음을 의미한다.

5도의 위치와 관할지역 범위는 양광도가 지금의 경기도 ·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의 남부지역 일부를 포함하며, 경상도가 지금의 경상남북도, 전라도가 지금의 전라 남북도, 교주도가 지금의 강원도의 영동지방을 제외한 영서지방의 대부분 지역, 서해도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었다. 양계 중 북계(北界)의 관할 범위는 천리장성 이남의 평안 남북도 지역이었고, 동계(東界)<sup>14)</sup>의 관할 범위는 지금의 영동지방 대부분과 함경남도 정평(定平) 이남 지역이었다. 동계의 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표3-3〉 동계의 해당구역

구 분	소 속 군 현
안변도호부	서곡현(瑞谷縣), 문산현(汶山縣), 위산현(衛山縣), 익곡현(翼谷縣), 고산현(孤山縣), 학포현(鶴浦縣), 상음현(霜陰縣) 화주(和州), 고주(高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장주(長州), 정주(定州), 예주(豫州),
순(純)동계 지역	덕주(德州), 원흥진(元興鎭), 영인진(寧仁鎭), 요덕진(耀德鎭), 진명현(鎭溟縣), 장평진(長平鎭), 용진진(龍津鎭), 영흥진(永興鎭), 정변진(靜邊鎭), 운림진(雲林鎭), 영풍진(永豐鎭), 애수진(隘守鎭)
준(準)남도 지역	금양현(金壤縣, 속현3 : 臨道 · 雲岩 · 碧山), 흙곡현(歙谷縣), 고성현(高城縣, 속현2 : 獐猴 · 安昌), 간성현(杆城縣, 속현1 : 烈山), 익령현(翼嶺縣, 속현1 : 洞山), 명주(溟州, 속현3 : 羽溪 · 旌善 · 連谷), 삼척현(三陟縣), 울진현(蔚珍縣)

동계의 해당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안변도호부에서 상음현까지로 안변도호부와 그 속현들로 구성되었고, 둘째는 화주에서 애수진까지로 순동계(純東界) 지역의 군현들로 구성되었으며, 셋째는 금양현에서 울진현까지로 준남도(淮南道) 지역의 주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sup>15)</sup> 동계의 관할 하에는 1도호부(都護府) · 9방어군(防禦郡) · 10진(鎭) · 25현(縣)이 있었는데, 25현은 주현이 8곳이고 속현이 17곳이었다. 익령현(양양)은 동계의 행정구역 가운데 준남도지역에 속해 있었다. 동산현은 본래 고려 혈산현(穴山縣)이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때 동산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속현으로 하였던 것인데, 현종 9년(1018년)에 익령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군사제도는 중앙에 2군 6위가 있었고, 각 도와 양계에 주현군(州縣軍)과 주진군(州鎭軍)이 있었다. 지방군 가운데 주진군은 국경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는데,



지금의 영동지방에 주둔한 주진군의 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계에서 주진군의 핵심이 되는 상비부대는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이 있었고, 그밖에 수성(守城)의 임무를 담당한 영색군(寧塞軍)이 있었다. 이들 제(諸)부대는 25명의 행군(行軍)으로 구성되는 대(隊)가 최하의 기본단위부대였고, 그 장(長)이 대정(隊正)이었다. 그런데 대체로 대정 2명에 교위(校尉) 1명의 비례인 것으로 보아 50명 단위의 부대조직이 예상되며, 그 장이 교위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 별장(別將)의 수가 교위의 약 반인 것을 보면, 100명 단위의 부대조직과 그 장인 별장을 생각할 수 있다. 양양에는 별장 3인, 교위 3인, 대정 9인, 행군 225인, 초군 4인과 좌군 2대, 우군 4대, 영색군 1대가 배치되었다.

〈표3-4〉 영동지방의 주진군 배치표

부대 지명	별장 (別將) (人)	교위 (校尉) (人)	대정 (隊正) (人)	행군 (行軍) (人)	초군 (抄軍) (人)	좌군 (左軍) (隊)	우군 (右軍) (隊)	영색 (寧塞) (隊)	공장 (工匠) (梗)	비 고
금 양	2	4	10	250	4	3	3	1	-	통천
고 성	1	4	9	225	1	1	3	2	-	
간 성	1	5	10	250	4	4	2	1	-	
익 령	3	3	9	225	4	2	4	1	-	양양
명 주	5	10	23	575	8	8	8	4	1	강릉
삼 척	1	8	16	400	4	4	9	1	1	
울 진	1	3	8	200	2	2	3	1	-	
계	14	37	85	2,125	27	24	32	11	2	

## 2) 이민족의 침입과 양양

고려시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특징은 중국 한족(漢族) 주변에 복속되어 있던 북방민족인 거란·여진·몽골 등이 대두하여 중원의 한족을 압박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중국의 역대왕조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으나, 북방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정책을 취했다. 고려 전·후기의 대외관계는 주로 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고려말에는 왜구가 침입해 옴으로써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 (1) 여진족의 침입

고려시대 여진족은 크게 만주 길림성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생여진(生女眞)과 그 서남에 거주하는 숙여진(熟女眞)의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자는 대개 거란의 지배권 밖에서 산만한 부락생활을 하였으며, 후자는 대체적으로 거란에 복속되어 있었다. 나말여초에 이르러 이들은 함경도 일대와 서북으로 압록강 남안(南岸) 및 평북 일대까지 흩어져 살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동북 방면의 여진을 동여진 혹은 동번(東蕃), 서북방면의 여진을 서여진 혹은 서번(西蕃)이라 불렀다.

서여진은 고려와 거란의 양대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가 고려측의 강동 6주 확보로 일 단락되었지만, 동여진은 대개 생여진 계통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려와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진의 침구는 서여진보다 동여진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동여진의 해구(海寇)는 제2차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의 파상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동북변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더욱 빈번히 침략하였다. 이 해구는 대개 함흥의 해안지방을 비롯하여 골면(骨面, 홍원) · 삼산(三山, 북청)의 해안에 산거하던 여진족으로 화내(化內) · 화외(化外)를 막론하고 때로는 바다로 나와 동해안 지방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러한 동여진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현종초부터 진명구(鎭溟口, 원산)에 과선(戈船) 75척을 건조하여 해구를 대비하기도 하였고, 각지에 도부서(都部署)<sup>16)</sup>를 설치하여 동여진의 해구에 대해 강력한 무력적 토벌을 가하였다.

동여진의 해구는 현종 2년(1011년) 8월에 100여 척의 배를 타고 경주에 쳐들어 온 것이 기록에 나타난 최초라 할 수 있다. 양양에는 현종 20년(1029년) 5월에 동여진 400여인이 동산현을 침구(侵寇)하였다. 같은 해 7월 동여진의 해구는 삭방도의 등주(登州)와 명주 관할 내의 삼척, 상음, 학포, 파천, 협곡, 금양, 벽산, 임도, 운암, 환가, 고성, 안창, 열산, 간성, 익령, 동산, 연곡, 우계 등 19개 현(縣)을 침범하였는데, 국가에서는 이들 군현의 주민들이 해구의 소란을 겪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sup>17)</sup> 동여진의 해구는 숙종 2년(1097년)에 이르기까지 20여 회에 걸쳐 침범하였는데, 그 피해지역은 문천 · 덕원 · 안변 · 통천 · 고성 · 간성 · 양양 · 강릉 · 삼척 · 평해 · 홍해 · 청하 · 영일 · 경주 등 동해연안 일대였다.

이들 해구는 우리나라 동해안 뿐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일기도(一岐島)와 북구주(北九州) 연안에까지 출몰하였다. 동여진의 해적선단은 때로는 100여 척 혹은 50여 척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동여진의 침탈 상황의 실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참조된다.

○ 적선(敵船)의 길이가 혹 12십(尋, 1尋은 8尺) 혹은 8~9십(尋)이 되며, 한 배의 노(楫)는 3~40개나 된다. 배에 탔던 5~60인 또는 2~30인이 힘을 뿜내며 뛰어 오르면, 그 다음에는 궁시(弓矢)를 들고 방패를 진자가 7~80명 가량 서로 따르는데, 이런 것이 1~20대(隊)나 된다. 이들은 산에 오르고 들을 건너 소와 말·개를 잡아먹으며, 노인과 어린 아이는 모두 베어 버리고 장건한 남자는 몰아서 배에 실은 것이 4~500명이나 된다. 곡식 쌀을 운반해 간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조야군제(朝野群載)』卷20, 〈태제부해(太宰府解)〉 언상도이국 적도혹격취혹충각장심(言上刀伊國賊徒或擊取或充却狀尋)]

○ 전투할 때는 각자가 방패(干)를 지닌다. 앞에 진(陣)에 있는 자는 창(槍)을 갖고, 다음 진(陣)의 자는 큰 칼을 가지며, 그 다음 진의 자는 활과 화살을 가진다. 화살의 길이가 1척여(尺餘)나 되고, 쏘는 힘이 매우 맹렬하여 방패를 뚫고 사람을 맞춘다.『소우기(小右記)』, 관인(寬仁) 3년 4월 25일 임자조)

위의 자료는 여진 해구(海寇)의 병선 규모와 그들의 잔학상, 그리고 그들의 전진법(戰陣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지방에 침입한 여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거란족의 침입

거란은 태조 25년(942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교빙을 요청했으나, 태조는 이를 거절했고 나아가 〈훈요10조(訓要十條)〉에서도 거란을 ‘금수(禽獸)의 나라’로 단정하여 경계하도록 했다. 그 후 역대왕은 이러한 태조의 반거란 정책을 계승했다. 정종(定宗)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의 광군(光軍)을 조직했고, 광종(光宗)은 서북지역에 여러 성을 쌓아 거란에 대한 경계를 엄하게 했다. 또한 이 무렵 발해의 유민들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정안국(定安國)을 세우고 송 · 고려 등과 통교하면서 거란을 적대시했고,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협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큰 위협을 느낀 거란은 배후의 강력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성종 5년(986년)에 먼저 압록강 중류 지역의 정안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동왕 10년(991년)에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을 경략한 후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거란과의 전쟁은 성종 12년(993년)에 거란이 소손녕(蕭遜寧)을 장수로 삼아 고려에 침입하여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현종 원년(1010년)과 현종 9년(1018년)에 또 침입해 왔으나, 강원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강원도와 거란족이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된 것은 몽골과의 전쟁이 있기 직전인 고종 때였다. 원래 이들은 금나라 말에 혼란한 틈을 타 일어난 오합지중(烏合之衆)으로 고종 3년(1216년)에 ‘대요수국’(大遼收國)이라 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에게 공격을 당하여 형세가 불리해진 거란족은 압록강을 건너 저항이 약한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다.

거란군의 한 갈래는 장단 · 적성지방을 거쳐 동주(東州, 철원)를 함락하고 다시 남하할 기세를 보였다. 그때에 최충헌은 국왕에게 아뢰어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 최원세(崔元世)를 중군병마사(中軍兵馬使)에, 상장군(上將軍) 김취려(金就礪)를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에 임명하여 진격케 하였다. 동으로 향하던 거란군이 양평을 거쳐 원주로 진입하자 이곳 지방민이 합세하여 적을 물리쳤다. 적은 일단 횡성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원주를 공격하였다. 오랫동안 대치하며 9번이나 힘써 싸웠지만 원주성은 마침내 함락되었다. 원주에는 양평 방면에서 내려온 거란군들까지 모여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주에 머물던 거란군은 김취려가 이끄는 관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김취려는 이들을 원주와 충주 사이에 있는 법천사(法泉寺)까지 추격하여 300여 급을 참획하였고, 제천 박달재에서 또 크게 이겼다. 제천 박달재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평창을 거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을 점령하였다.

당시 영동지방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강릉에 들어온 거란군은 수개월에 걸쳐 노략질하면서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을 마구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증수 임영지』에 의하면, 강릉부민(江陵府民) 중에는 산성(山城)에 피난했다가 거란군의 방화로 죽기도 하였고, 문벌이 높던 집안사람들은 약탈에 못 건디어 배를 타고 무릉도(武陵島, 울릉도) 방

면으로 가다가 뱃길에 익숙하지 못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선에 가서 굴속에 피했다가 모두 굶어 죽기도 하였다.

거란군은 강릉에서 북쪽으로 말을 몰아 등주(登州, 안변)까지 이르렀는데, 양양에서부터 금양군(金壤郡, 통천)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남아난 짐승이 없었고 유혈이 천리를 뒤덮었다고 한다. 그러나 양양을 비롯한 영동지방 일대에서 거란군을 격퇴했다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는다. 조충(趙冲)·김취려(金就礪)가 지휘하는 고려군이 고종 5년(1218년)에 그들을 쫓아 평양 동쪽에 있는 강동성(江東城)에 그 주력부대를 몰아넣고 몽골군 및 동진군과 힘을 합쳐 성을 함락함으로써 거란군이 완전히 소탕되었다.

### (3) 몽골의 침입

고려가 몽골과 최초로 접촉하게 된 것은 몽골에게 쫓겨오는 거란인을 함께 협공하면서부터다. 이러한 일이 있는 이후 몽골은 고려에 대한 은인으로 자처하고 매년 고려로부터 공물(貢物)을 취하여 갔다. 그런데 그 요구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sup>18)</sup> 고려가 이에 불응하자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과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몽골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고려로부터 귀국하는 도중에 살해된 일을 구실로 드디어 고종 18년(1231년)에 제1차 침입을 하여 오게 되었다. 몽골은 전후 30년 동안 6차례의 침입을 해왔다.

몽골 침입 때 영동지방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제4차 침입 때의 일이었다. 몽골은 고종 40년(1253년) 7월 야굴(也窟)을 원정군의 원수로 임명하고 아무간과 홍복원을 부장으로 삼아 고려를 침공해 왔다. 당시 고려는 동계와 북계를 비롯하여 거의 각지가 병란을 입었다. 몽골군은 고려의 청야작전(靑野作戰)으로 말미암아 무인지경이 되다시피한 서북계의 남로를 통해 7월 15일에 서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부대를 동군(東軍)과 서군(西軍)으로 나누어 몽케간의 동생인 술지우트[송주(松柱)]가 지휘하는 동군은 서경에서 동북계의 화주-안변-동주-춘주-광주를 잇는 통로를 따라 고려 영내의 동부 내륙지역을, 원수 야굴이 직접 지휘하는 몽골군 본대인 서군은 서경에서 황주-봉주-평주-개경을 잇는 통로를 따라 고려 서북계로부터 서북 내륙 일대에 이르는 지역을 중

단하면서 유린하려고 하였다.

몽골군의 일부는 춘주성(春州城, 춘천)에 진격하였는데, 당시 춘주성에는 안찰사 박천기(朴天器)와 문학 조효립(曹孝立)이 춘주와 인근 제읍의 군민을 거느리고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몽골군은 춘주성 주변에 2중의 목책(木柵)을 구축하고, 목책 둘레에 한 길이 넘는 참호를 파서 성내의 고려군이 불시에 성밖으로 출진하여 반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몽골군의 포위공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물이 모두 말라 마실 물이 고갈되자 소와 말을 잡아 피를 마시는 형편이었다. 안찰사 박천기는 9월 중순에 60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몽골군의 포위를 돌파하려 했으나 몽골군이 파놓은 참호 때문에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춘주성을 함락한 몽골군은 최후까지 저항하는 성내의 군민 300여 명을 살육하였다.

한편 동북면에서 남하한 술지우트[송주(松柱)]의 동군은 9월에 등주(登州, 안변)를 포위 · 공격하고, 10월에는 금양성(金壤城, 통천) 방면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다. 당시 양주(襄州, 양양)의 부병(府兵)과 부민(府民)들은 결사 항쟁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10월 22일 양주성은 함락되었고, 부병과 부민은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양양 사람들 중에는 권금성(權金城)<sup>19)</sup>과 같은 천험의 요새에 피난하기도 하였다. 이때 양주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나 국가에서는 전쟁에 패했다고 고종 44년(1257년) 읍호를 격하하여 덕녕(德寧)이라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다시 양주로 읍호를 복구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다.

#### (4) 왜구의 침입

왜구의 침입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종 10년(1223년)에 “왜가 금주(金州, 김해)를 노략질하였다”는 기사이다. 왜구는 충정왕대(1349~1351년)부터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여 공민왕대(1351~1374년)를 거치면서 점차 침략 횟수가 빈번해졌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 횟수는 고종 10년(1223년)부터 공양왕 4년(1392년)까지 169년간 519회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왜구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충정왕 2년(1357년)부터 42년 동안은 506회로 연평균 12회에 달한다. 우왕 연간에는 연평균 27회의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극심하였던 우왕 9년(1383년)에는 50회에 달하여 월 평균 4회를 넘고 있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에는 20척, 많을 때는 500여 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이루고 침입하였다. 왜구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공민왕 13년(1387년) 5월에 왜적 3,000명을 진해현에서 대파한 기록이 있고, 우왕 5년(1379년) 5월에 기병 700명과 보병 2,000명의 침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왜구는 단순한 해적의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 배후에 유력한 토호가 있어 직접 조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조종자가 대마도주 종씨(宗氏)와 일기도주(壹岐島主) 지좌씨(志佐氏), 서부일본의 거추(巨酋) 주방(主防)의 대내씨(大内氏), 구주 풍후(豊後)의 대우씨(大友氏) 등이었다.

당시 왜구가 약탈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미곡(米穀)이었다. 왜구가 주로 세미(稅米)를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과 이를 보관하는 조창(漕倉)을 습격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왜구는 배를 타고 다니며 조운선을 습격하였고, 해상에서 약탈이 어려울 때에는 해안의 조창을 습격하여 미곡을 약탈했다. 왜구는 곡물뿐만 아니라 고려의 민인들을 노략해 가기도 하였다. 왜구들이 민인을 노략한 것은 우선 그들을 노비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노예로 팔거나 고려정부로부터 적당한 몸값을 지불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 외에도 노를 젓는 일이나 배의 잡역에 동원하려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왜구 침입의 피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연해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 백리 내륙지방으로 도피하여 산다’거나 혹은 ‘수 천리에 달하는 비옥한 들이 왜구의 약탈이 시작된 후 방치되어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국토는 어염(魚鹽)과 목축, 농산의 이익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처음에 왜구는 남해안 일대를 주로 침입해 왔으나 14세기 중엽 충정왕대에 이르러서는 그 활동범위를 서해안까지 확대하여 갔다. 공민왕 21년(1372년)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더욱 극심해지자 고려 조정에서는 전라도의 조운을 폐지하고 육운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왜구들은 서남해안에서 더 이상 조운선의 탈취가 불가능해지자 동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하였다. 왜구는 4월 15일에 동해안의 진명창(鎭溟倉)을 약탈하였고, 6월 6일에 강릉부와 영덕·덕원을 침범했다. 이때 이춘부(李春富)의 아들 이옥

(李沃)이 이춘부가 신돈의 일당으로 처단된 후 그 죄로 인해 강릉부 관노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이옥이 용감히 싸워 왜구를 격퇴함으로써 강릉일대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냈다.

왜구는 북상을 계속하여 6월 26일에 동계의 안변 등지를 침범하여 부녀자를 잡아가고 창고의 미곡 1만여 석을 약탈해 갔다. 왜구가 공민왕 23년(1374년) 6월 양양에 침범했을 때에는 아군이 적 100여 명을 베었다. 이와 같이 공민왕 21년(1372년) 이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진 것은 이전에는 왜구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침입하여 조운선을 탈취하거나 연해 지역을 약탈하면서 개경으로 접근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가 조운을 폐지하고 조세운송을 육운으로 전환함에 따라 식량의 탈취가 어려워지자, 왜구들이 서해안과 동해안 양방면으로 분산하여 직접 연해의 고을이나 내륙으로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왜구는 우왕 7년(1381년) 2월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영해부를 불살랐고, 3월에 강릉도(江陵道)에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첨서밀직 남좌시(南佐時)와 밀직부사 권현룡(權玄龍)을 현지로 보내 왜구를 격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 강릉도에 크게 흉년이 들어 왜구 방어에 어려움이 많자, 고려 조정에서는 동지밀직 이숭(李崇)으로 하여금 교주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작전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왜구는 동해안의 송생(松生)·울진·삼척·평해·영해·영덕 등지에 침입하여 삼척현을 불질렀다. 이에 강릉도부원수 남좌시는 조정에 “왜구가 삼척·울진에 침입하여 오근(吾斤)과 답곡(答谷)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탈취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들을 징집하여 이곳을 방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얼마간의 양곡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기 바랍니다”고 보고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강릉도조전원수(江陵道助戰元帥)는 조정에 “교주도에서 선발한 병사들은 모두 허약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보병은 이미 다 보내 버렸습니다. 연호군(烟戶軍)을 제외하고 먼저 한산관(閑散官)을 선발하며 또 삭방도의 기병(騎兵) 200명을 파견케 하여 돕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동해안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왕 8년(1382년) 3월에 왜구가 삼척·울진·우계(羽溪, 강릉) 등 동해안 일대를 침입해 왔으나 강릉도 상원수 조인벽(趙仁璧)과 부원수 권현룡(權玄龍)이

왜구와 싸워 적 30명을 베었다. 5월에도 왜구는 영춘현과 회양부 등지를 침입해 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왜구는 동해안 일대에서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우왕 9년(1383년)부터 다시 대규모 선단을 동원하여 먼저 남해안 일대를 공격한 뒤에 서해안으로 북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지(鄭地, 1347~1391년)가 이끄는 고려 선단 47척에 의해 우왕 9년 5월 관음포에서 왜선 17척이 침몰당하고 왜구 2,400여 명이 섬멸됨으로써 왜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관음포 전투 이후에 왜구는 침입의 양상을 바꾸어 내륙지방으로의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6월부터 단양·제천·주천·평창·횡천·영주·순흥 등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주변의 마을을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은王安德(王安德)을 양광도조전원수(楊廣道助戰元帥)로 임명하여 내륙으로 침투하는 왜구를 대적하게 하고 전의령(典儀令) 우하(禹夏)를 독찰사(督察使)로 경상도에 파견하여 왜구를 격파하도록 하였다.

고려정부는 왜구에 대한 강공작전을 통하여 해안지대와 내륙 각지에 대규모로 침입해 오는 그들의 기세를 꺾는 데에는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규모의 선단으로 불시에 출몰하는 왜구의 침입을 근절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에 고려는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말살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창왕 원년(1389년)에 경상도원수 박위(朴葦)가 병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직접 정벌하여 적선 300척과 가옥을 불태우고 붙잡혀간 우리나라 사람 100여 명을 구하여 돌아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 3) 고려말 매향(埋香)과 양양

고려 말엽을 전후한 시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 중의 하나이다. 이 ‘전환기’라는 인식이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당시에 이루어진 역사발전을 차분하게 파악함으로써 얻은 결론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제 상황은 커다란 민족사적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맞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가 얹혀 있어서 간단치 않다.

고려는 40여 년 동안의 몽고와의 전쟁 끝에 원종 11년(1270년) 고려와 원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고 원(元)의 요구에 따라 출륙환도(出陸還都)했다. 이는 고려가 원제국의 일



부로 포섭되어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갖가지 영향과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고려의 지배체제는 원의 군사 · 정치적 지원 아래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집권세력의 창출이나 사회 경제의 여러 측면에도 원(元)이라는 외세가 크든 작든, 직 ·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고려의 지배층들은 권력이 원실(元室)과의 강한 정치적 결속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원제국을 완성시킨 세조의 외손자로서, 또 무종(武宗) 옹립의 공신이 되어 부왕(충렬왕)과 그 측근세력을 누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충선왕이 원 간섭기 동안의 고려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원의 정치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려의 왕실을 비롯하여 지배층들은 상당 기간 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였다. 정부나 지배층은 이러한 재정 수요를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 강화로 해결하고 있었다. 부세 수취에서는 조(租) · 포(布) · 역(役)의 3세 외에 상요(常徭) · 잡공(雜貢)이 부과되었고, 그 외에 과렴(科斂), 공물의 선납(先納) · 대납(代納) 등으로 민의 부세 부담이 과중되었다.

게다가 14세기 이후 고려정부는 원과의 전쟁으로 인해 황폐된 토지를 개간한다는 명분과 국가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해 공신들이나 관료들에게 사패(賜牌)를 지급하여 한지(閑地)나 진전(陳田)을 개간하도록 한 사급전제(賜給田制)를 시행하였다. 사급전제는 당시 국왕들이 측근정치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였던 정치세력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세기 이래의 대토지 집적현상인 농장(農莊)이 이때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들은 한지나 진전의 개간뿐만 아니라 일반 민의 소유토지를 탈점하는 방식으로 토지집적을 가속화하였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 민의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민(流民)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대규모의 유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대원(對元)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파행과 그로 인한 농민 수탈의 가중, 부세수취의 구조와 그 운영에서 오는 수탈 심화, 대토지 소유의 발달과 그로 인한 농민경리의 영세화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세사회에서 고향의 토지에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규모로 유망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기였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미륵신앙에 몰입하게 되

고, 천년 후의 극락세계를 염원하며 포구에 향을 묻는 매향(埋香)의식이 확산되었다.

매향을 매개로 미륵과 연결되기를 발원하고 있는 매향의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불교의식이다. 매향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충선왕 원년(1309년)에 건립된 「삼일포매향비」이다. 원래 이 비는 삼일포의 남쪽 호반에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비석이 없어져 찾아볼 수 없고 비문의 탁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비의 앞면에는 강릉도존무사·지강릉부사·강릉부판관과 동해안 8개 군현의 부사(副使)·현령(縣令)·현위(縣尉)·감무(監務)가 그 지역의 승려·주민과 함께 발원하고 1,500개의 향나무를 묻었다는 내용이, 뒷면에는 매향한 9개 지역의 명칭과 묻은 향나무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매향한 지역과 숫자는 평해현 해안사(海岸寺) 동구(洞口)에 100조, 삼척현 맹방촌정(孟方村汀)에 150조, 울진현 두정(豆汀)에 200조, 양주(양양) 덕망산(德望山)에 100조, 강릉 정동촌정(正東村汀)에 310조, 동산현 문사정(文泗汀)에 200조, 간성현 공수진(公須津)에 110조, 함곡현 구말을(樞末乙)에 210조, 압송현 학포(鶴浦)에 120조를 묻었다고 하였다. 이들 지역은 불가(佛家)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천수와 해수가 만나는 매향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황제와 국왕의 복수(福壽)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 황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가 원나라 간섭기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왕만을 언급하거나 국왕조차 언급하지 않은 후대의 매향비와는 다른 현상이다.

매향의 주체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동해안에서의 매향사례는 지방수령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후 시대 흐름에 따라 민중적 발원형태로 전환되는 매향의 전반적 추이에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가령 강릉도존무사 이하 인근의 9개 지방 수령들이 매향에 동원되었다는 것과 전담의 시납(施納)까지 지방관이 출연(出捐)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 이유는 불교계의 퇴락에도 있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 동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sup>20)</sup>

양양지방에는 양양부 북쪽 36리에 있는 덕망산에 100조, 양양부 남쪽 45리에 있는 동산현 문사정에 200조의 향나무를 묻었다. 이들 지역이야말로 불가(佛家)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천수와 해수가 만나는 매향의 최적지라고 하겠다.

### 3. 양양지방의 근세사

#### 1) 조선전기의 양양

##### (1) 조선왕조의 성립과 양양

조선시대 군현제 정비는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고려의 다분히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 · 소 · 부곡 등 임내(任內)의 정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토지와 인구의 규모에 따라 주 · 부 · 군 · 현으로 구획되었고, 거기에 대응하여 부윤(종2품) · 대도호부사(정3품) · 목사(정3품) · 부사(종3품) · 군수(종4품) · 현령(종5품) ·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양양은 태조 6년(1397년)에 태조 이성계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종3품의 읍격(邑格)인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잇고 있다. 광해군 10년(1618년)에 역난(逆亂)에 연루되어 양양현으로 강등되었고, 인조 원년(1623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으나 숙종 14년(1688년)에 역난으로 재차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숙종 23년(1697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정조 7년(1783년)에 역적 이경래(李京來)가 양양 임천리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라 하여 양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정조 16년(1792년)에 양양도호부로 복구되었다.

강원도의 도명은 태조 4년(1395년)에 도내의 거읍(巨邑)인 강릉의 ‘강(江)’자와 원주의 ‘원(原)’자를 취하여 명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강릉과 원주의 읍호 승강(昇降)에 따라 도명이 무려 10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반복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불효(不孝) · 패륜(悖倫) · 역모(逆謀) 등 강상(綱常)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 죄인 뿐 아니라 그 지방 군현의 등급까지 강등하였기 때문이다.

현종 8년(1667년)에 강릉지방에서 박귀남(朴貴男)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걸리자 그의 처와 딸, 사위가 공모하여 그를 산곡(山谷)에 생매장한 일이 발각되어 딸과 사위는



처형되었으며, 부사는 파직되고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는 강릉의 ‘강’ 자를 빼고 대신 양양의 ‘양’ 자를 취하여 원양도로 개칭되었다가, 9년 후인 숙종 2년(1676년)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숙종 9년(1683년)에는 원주에서 강상죄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강원에서 ‘원’ 자를 빼고 양양의 ‘양’ 자를 취하여 강양도로 개칭되었으나 동왕 14년(1688년)에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鄉)이라고 해서 ‘양’ 자를 빼고 춘천의 ‘춘’ 자를 넣어서 강춘도로 개명되었다가, 동왕 19년(1693년)에 이르러 강원도로 복구되었다. 이 같은 읍호(邑號)의 승강(昇降)으로 도명의 개칭은 있었지만, 도명은 대개 10년 이내에 복구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양도호부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닷가까지 12리, 남쪽으로 강릉부 경계까지 65리, 서쪽으로 인제현 경계까지 55리, 북쪽으로 간성부 경계까지 45리라고 하였다. 즉 양양은 동서로 67리, 남북으로 110리에 달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국방체제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초기의 지방군제를 보면 국초에는 각 도의 변경·해안 등의 요충지에 진(鎭)을 두었다. 그러나 세조가 즉위하면서 지방군제는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즉 세조 원년(1455년)에 이때까지 북방(평안·영안도)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2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로 통일하였다. 이는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 고을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이 2년 뒤에는 다시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 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때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이러한 진관조직을 갖추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의 진관편성은 다음과 같다.

&lt;표3-5&gt; 강원도 진관 편성표

병마절도사 및 수군절도사 : 관찰사 겸임(감영=원주)				
	진 관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육군	강릉진관	강릉대도호부사	삼척 · 양양부사, 평해 · 간성 · 고성 · 통천군수	강릉판관, 울진 · 흡곡현령
	원주진관	원주목사	춘천부사, 정선 · 영월 · 평창군수	원주판관, 인제 · 횡성 · 홍천현감
	회양진관	회양부사	철원부사	양구 · 낭천 · 이천 · 평강 · 김화 · 안협현감, 금성현령
수군	진 관	첨절제사	만 호	
	삼척포진관	삼척포첨사	안인포 · 대포 · 고성포 · 울진포 · 월송포 만호	

강원도에서 육군은 강릉 · 원주 · 회양 3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각 진 밑에는 부 · 군 · 현에 지방군을 배치하였다. 육군진관은 수령이 겸직하는 첨절제사가 통할하였다. 영동지방은 거진인 강릉에 총사령부격인 첨절제사를 두고 그 아래 삼척 · 양양 · 평해 · 간성 · 고성 · 통천에 기지를 설치하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 수군진관은 삼척에 삼척포첨사가 겸직하는 첨절제사를 두고 그 아래 강릉의 안인포, 고성의 고성포, 울진의 울진포, 평해의 월송포를 두어 만호로 하여금 통할하게 하였다. 성종 21년(1490년) 안인포의 포구가 알아지자 이를 양양부 대포[大浦, 조산]로 이전하였다.

조선전기 진관체제는 국가 방어체제의 근간이었으나 전국적 방위망으로서 그 성립기반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 규모에 비해 실제 방어에 당하여서는 오히려 무력감을 드러내게 되고 점차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휘계통을 개편하고, 유사시의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규군사가 아닌 충까지 동원하여 전쟁에 임하는 이른바 ‘제승방략(制勝方略)’의 응급적인 분군법(分軍法)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유사시에 각 지방의 군사를 제도상 군사직을 겸한 소관수령(所管守令)이 동원 가능한 병력을 인솔하여 미리 할당된 방어지에 가서 대기하되,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원수(都元帥) · 순변사(巡邊使) · 방어사(防禦使) · 조방장(助防將) 등의 경장(京將)과 본도(本道)의 병수사(兵水使)가 각기 그 지휘관이 되는 체제이나 지휘계통의 혼선을 일으키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 (2) 양양도호부의 물산

조선시대 양양지방의 생산물은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6〉 조선시대 양양지방의 물산내역

구 분	항목	물 산 종 류
세종 실록 지리지	토의	오곡, 뽕나무, 삼[마(麻)], 왕골, 감, 배, 밤, 닥나무, 옷[칠(漆)]
	토공	꿀[봉밀(蜂蜜)], 밀[황랍(黃蠟)], 잣[송자(松子)], 호도, 지초(芝草), 북나무충영[오배자(五倍子)], 석용(石茸), 여우가죽[호피(狐皮)], 삿갓이갓죽[이피(狸皮)], 노루가죽[장피(獐皮)], 대구, 문어, 상어[沙魚], 연어, 전복, 홍합, 송어, 상박(常藿), 자리[석(席)], 시우쇠[정철(正鐵)]
	약재	인삼, 오미자(五味子), 당귀, 복령(茯苓), 북나무진[안식향(安息香)], 쥐꼬리망초뿌리[진규(蓼莪)], 궁궁이[궁궁(芎藭)], 산무애뱀[백화사(白花蛇)], 웅담(熊膽), 병풍나물[방풍(防風)], 다린송진[백교향(白膠香)], 대왕풀[백급(白芨)], 모란뿌리껍질[목단피(牡丹皮)]
	토산	가는 대[소(篠)]
동국 여지 승람	토산 (土產)	모시[저(苧)], 철(鐵), 대살[죽전(竹箭)], 잣[해송자(海松子)], 오미자, 지치[자초(紫草)], 인삼, 지황(地黃), 복령(茯苓), 산무애뱀[백화사(白花蛇)], 꿀, 김[해의(海衣)], 미역[팍(藿)], 전복, 홍합, 문어, 대구[대구어(大口魚)], 송어, 연어, 은어[은구어(銀口魚)], 황어(黃魚), 방어, 고등어[고도어(古刀魚)], 광어, 농어[노어(鱸魚)], 송어[수어(水魚)], 쌍족어(雙足魚), 해삼, 송이[송심(松藷)]
여지 도서	토산 (土產)	모시[저(苧)], 철, 대살[죽전(竹箭)], 잣[해송자(海松子)], 인삼, 오미자, 지치[자초(紫草)], 지황, 복령, 꿀[봉밀(蜂蜜)], 백화사(白花蛇), 김[해의(海衣)], 말린미역[조팍(早藿)], 생전복[생복(生鰓)], 홍합, 문어, 대구[대구어(大口魚)], 송어, 연어, 은어[은구어(銀口魚)], 황어(黃魚), 고등어(古刀魚), 광어, 농어, 송어[수어(秀魚)], 쌍족어, 해삼, 송이

양양지방의 물산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산(土產)·토공(土貢)·약재(藥材)·토의(土宜) 항목에, 『동국여지승람』에는 토산 항목에, 『여지도서』에는 물산 항목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토의는 해당 지역의 경종(耕種)에 적합한 작물을, 토산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가리킨다. 약재항목 또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기



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토의 · 약재 · 토산은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류라 할 수 있다. 토공항목은 각 군현에서 중앙각사에 납부하는 공물(貢物)을 기록한 것이다.

양양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곡물은 오곡(쌀 · 보리 · 콩 · 조 · 기장)이었고, 바다에서는 문어 · 대구 · 송어 · 연어 · 은어(銀魚) · 황어 · 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송어 · 쌍족어 등의 어류, 홍합 · 전복 등의 패류, 김 · 미역 · 해삼 등의 해산물이 어획되었다.

양양지방의 물산은 곡물류, 수피류, 과실류, 수산물, 수공업품 및 원료, 약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산림천택(山林川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렵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이를 가공한 수공업품과 약간의 농업생산물이었다. 이것의 용도는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품들이었다.

이상의 물산은 국가에서 공물의 형태로 수취하였다. 조선전기의 공물은 국가재정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이들 공물은 관에서 비납(備納)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각관(各官)의 민호로부터 수취 · 상납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 그리고 민호(民戶) 중에서 종사하는 생업에 따라 특정한 물자의 규정된 양을 생산 · 포획 · 제조하여 상납하는 정역호(定役戶)를 통해 조달하였다.

관비공물 중 과실과 지지(紙地) · 전칠(全漆) · 지율(芝栗)은 각 군현에서 과원(菓園)을 두어 지방관부의 경비와 공납에 충당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재식(栽植) 조항은 각 군현에서 공물상납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관비공물과 정역호가 담당하던 공물은 시대의 추이와 함께 점차 일반 민호에게 전가되었다.

대부분의 공물은 각 군현의 민호(民戶)에서 수취하였다. 그런데 공물은 각 민호에 일률적으로 분정된 것이 아니라 호의 등급에 따라 분정하였다. 호등의 기준은 점차 인정(人丁)에서 전지(田地)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였다. 소경전(所耕田)의 다과에 따른 5등호제의 원칙이 마련된 것은 세종 17년(1435년)이었다. 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물도 이에 준거하여 분정한다는 원칙이 제정되었다.

조선초기 강원도 지역에서의 호별 경작규모 상황을 전해주는 『세종실록』 소재 기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7〉 강원도의 호별 경영규모의 현황

호등(戶等)	경영규모	호수(戶數)	비율(%)	호등별 추정규모	비율(%)
대 호(大 戶)	50결 이상	10	0.1	$75 \times 10 = 750$ 결	1.18
중 호(中 戶)	20결 이상	71	0.6	$35 \times 71 = 2,485$ 결	3.91
소 호(小 戶)	10결 이상	1,641	14.2	$15 \times 1,641 = 24,615$ 결	38.70
잔 호(殘 戶)	6결 이상	2,043	17.7	$8 \times 2,043 = 16,344$ 결	25.70
잔잔호(殘殘戶)	5결 이하	7,773	67.4	$2.5 \times 7,773 = 19,433$ 결	30.70
계		11,538	100.0	63,627결	10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호별 경작규모를 보면, 총 11,538호 가운데 50결 이상의 대호가 0.1%인 10호, 20결 이상 50결 미만의 중호가 0.6%인 71호, 10결 이상 20결 미만의 소호가 14.2%인 1,641호, 6결 이상 10결 미만의 잔호가 17.7%인 2,043호, 5결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잔잔호가 67.4%인 7,773호를 차지하고 있다. 즉 10결 이상을 소유한 가호는 전체 가호 가운데 1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결 이하의 잔잔호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잔잔호야말로 일반 농민층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이 시기 전형적인 소경영 농민 체제로서의 양민 자영농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잔잔호층 가운데에서도 이 시기의 사회편제에서 기준적 농민층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은 1·2결 정도를 소유 경작하는 양민 자영농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것은 이 시기의 노동생산력 수준만으로 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호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호의 인구수는 평균 4.5명 내지 5.5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은 호주(戶主) 부부를 중심으로 그 자식 부부와 사위 부부 등 3~4명의 장정(壯丁)을 포함한 혈연가족으로 구성된 가호(家戶)로서, 자체의 노동력으로써 자기 소유지를 경영하는 자영농으로서 하나의 단위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모양과 크기가 천차만별한 전국의 전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파악의 기본단위를 5결(結) 1자정(字丁)으로 파악 운영하였다. 5결 1자정은 양전(量田) 뿐만 아니라 수취의 기초단위로 기능하였다. 공물 수취에서도 5결 1자정을 단위로 하여 부과하였다. 물론 5결 이상을 소유한 호(대호~잔호)는 하나의 자연호 단위

로 편성되었겠지만, 5결 이하를 소유한 잔잔호의 경우 2가(家) 혹은 3가 이상을 5결로 묶어 하나의 호로 편제하였다.

그런데 5등호제에 준거하여 공물을 분정한 것은 대체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임은 틀림없지만, 호의 대소에 따른 각호의 공물 부담액이라든가 부과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군현의 관리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함부로 횡탈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컸었다. 그리고 공물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설사 호의 대소에 준거하여 공물을 분정한다 하더라도 균일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다. 이것이 5등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이자 결함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8결 단위로 묶어 공물을 분정하는 ‘8결작공제(八結作貢制)’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 (3) 교통과 통신

#### 가. 도로와 편의 시설

도로는 예로부터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으로나 정치적·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중에서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고려시대에는 도로의 등급을 대로·중로·소로의 3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대로·중로·소로의 분류 기준, 도로의 현황 등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도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로·중로·소로 3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더 세분하여 대로는 1·2·3등로, 중로는 4·5·6등로, 소로는 7·8·9등로로 각각 나누었다. 전국의 도로망은 모두 서울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로는 서울~개성, 서울~죽산, 서울~직산, 서울~포천에 이르는 4개 도로이고, 중로는 이 4대로와 연결된 개성~중화, 죽산~상주·진천, 직산~공주·전주, 포천~회양, 서울~양근간이고, 소로는 이들과 연결된 외방의 각종 도로이다.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돌무지를 쌓고 장승을 세워 도로의 리수와 지명을 기록한 도로표지가 있었고, 주요도로에는 얇은 돌판을 깔거나 작은 돌, 모래, 황토 등으로 포장을 했다. 그러나 자세한 사향은 지방마다 지형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로의 거리 표시는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으로 하였다. 도성 내에서의 거리의 기준점은 궁궐문으로 하였고, 각 지방과의 거리 기준점은 성문을 기점으로 하였다. 예컨대 4대문인 숭례문·홍인문·돈의문까지는 경복궁의 광화문 또는 창덕궁의 돈화문이 그 기점이었고, 전국 각 지방으로 뻗은 의주로(한양~의주)·우로(右路, 한양~해남)·중로(한양~통영)와 강화로 이어지는 교통로는 숭례문이 기점이었으며, 관북로(한양~경흥)·관동로(한양~평해)·좌로(左路, 한양~봉화, 한양~동래) 등은 홍인문이 기점이었다.

강원도는 전국의 9개 도로 중 2개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한양에서 다락원(樓院)~만세교~김화~금성~회양~철령을 거쳐 함경도로 가는 제2로이고, 다른 하나는 한양에서 망우리~평구역~양근~지평~원주~안흥역~방림역~진부역~횡계역~대관령~강릉~삼척~울진~평해에 이르는 제3로이다. 양양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소동라령(所冬羅嶺)을 넘어서 서울로 갔었는데 험준하여 폐하고, 그후에는 양양부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서울로 들어갔으며, 구룡령(九龍嶺)을 경유하여 홍천 송치(松峙)를 지나 서울에 들어가거나 혹은 조침령(阻枕嶺)을 경유하여 춘천의 기린과 홍천 송치를 지나 서울로 들어갔다. 오늘날에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왕복 20여 일이 소요되었다.

전국의 각 도로망에는 곳곳에 원[(院) 혹은 원우(院宇)]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래 원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일반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이것은 각 군현 내의 관(館)과는 구별된다. 고려시대에는 원이 사원(寺院)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동일시되기도 했다. 물론 개인이 지은 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는 사원이 숙박처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하루 정도 걸리는 지점에 원을 세우고 사원의 이름을 따서 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인 태조 원년(1392년) 9월에 배극렴·조준 등은 조선왕조의 기본정책들을 제시한 시무책 22조를 올리는 가운데 “여행자들이 오고 가는데 민가에서 자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각도(各道) 각주(各州)에 거리를 헤아려 원관(院館)을 수리하여 행려(行旅)를 편하게 하자”는 상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려시대 이래 사적으

로 운영되던 모든 원은 국가가 관장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원은 고려시대의 사원을 원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소유의 주택 또는 누정을 개조한 것이 많았다. 그밖에 관가 또는 개인이 주관해 원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은 대체로 30리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원은 대개 역(驛)이나 참(站) 부근, 도(渡) · 진(津)의 기슭 및 교량부근, 산고개 및 산밑 계곡 입구, 온천 주변 등에 있었다. 원은 대부분 상인이나 여행자의 숙식소로 존재하였으나, 각도 관찰사가 도내의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 원에서 점심을 먹거나 마필을 교체하고, 신 · 구 감사가 도계(道界) 부근의 원에서 교대하기도 했으며, 국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나 피난길에 묵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길 떠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원은 공적인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이용하던 역에 비해 민간인들이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훨씬 많았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성종대에는 전국에 1,263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중종대에는 약 1,310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분포를 보면 경기(117)를 비롯하여 충청도(212), 경상도(468), 전라도(245)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원도에는 성종대에 59개소, 중종대에 64개소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초기 이래 전국에 걸쳐 많이 설치되어 있던 원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그 기능을 상실해 쇠퇴해 갔고, 그 대신 민간에서 운영하는 점사(店舍)가 점차 그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중종대 64개소에 달하던 원이 18세기 중엽에 와서는 23개소, 19세기 20세기 초에 와서는 20여 개소로 줄어들었다.

점사는 역의 인근에 위치하여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사설 요식업과 여인숙을 겸한 곳이었다. 이것을 보통 ‘주막(酒幕)’이라 속칭하였다. 주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교통의 요지나 지방관아의 소재지, 또는 역과 역 사이의 인가가 없는 외딴 곳 등 도처에 설치되었다. 양양지역 안에 얼마나 많은 주막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수많은 주막이 산재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주는 교량도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었다. 여행자에게 교통의 자연적 장애물이 된 것으로는 강과 하천, 그리고 산고개가 있다. 산고개가 여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장애가 되기도 하였지만, 전자에 비해 인명의 손실은 적은 편이었다. 산봉우리와 산봉우리의 허리를 통과하게 되고, 경사가 급한 곳에는 잔도(淺島) 사닥다리 돌

길]를 가설하여 내왕에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천에는 징검다리 혹은 외나무다리·돌다리 등을 설치하여 교통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양양에는 남대천(南大川), 광정천(廣汀川), 물치천(勿淄川), 강선천(降仙川), 화상암천(和尚巖川), 광천관(廣遷坂), 굴호관(屈湖坂), 덕기원(德耆院)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가 일시에 많이 내리거나 장마철에는 가설된 다리들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김으로써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 (4) 통신 체계

조선왕조에서 통신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역(驛)과 봉수(烽燧)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의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임무는 행정적인 면에서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고 지방의 사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었고, 군사적인 면에서 변방의 군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 가. 역(驛)

역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에 왕명 등 행정 명령을 전달하고, 공물·진상 등의 관물(官物)을 운송하며, 국내외의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를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제는 문헌기록상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다. 당시의 역은 군사 명령의 전달, 물품의 수송 등과 같은 통신 및 교통시설로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제가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된 것은 고려시대였다. 고려시대의 역제는 전국의 약 525개에 달하는 역의 관리를 22개 역도(驛道)로 편제되어 있었다. 고려시대 양양은 명주도(溟州道)에 포함되어 있었다. 명주도는 강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양양까지, 서쪽으로 대관령을 넘어 평창-횡성까지, 남쪽으로 삼척-울진-평해까지 이어지는 역도로서 관할 역은 28개였다.

조선시대의 역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되 군현제도의 개편과 함께 새로 정비되었다. 태종대에 와서 고려의 5도 양계 체제를 8도체제로 개편하면서 그에 맞추어 새로이



역을 신설하거나 역도를 재편성하였다. 태종 15년(1415년) 12월에는 이식제(里息制)에 의한 각 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6척(尺)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이라 하고, 10리마다 작은 표식을, 30리마다 큰 표식을 세우며, 30리마다 역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산이 높고 험한 지형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가까운 경우에는 대개 위의 규정에 준하여 역을 증설하거나 옮기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선시대의 역로는 역도(驛道)·속역(屬驛)체제로 조직되어 있었다. 역도는 지금의 국도를 예상하면 된다. 역도라는 것은 도로의 상태와 중요도 및 산천의 거리에 따라 수 개 내지 수십여 개의 역을 하나로 묶어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sup>21)</sup>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에 산재한 538개의 역이 44개의 역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강원도 지방의 역도-속역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8〉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속역체계

역도(驛道)	속역(屬驛)
보안도 (21)	보안(춘천), 인남(춘천), 부창(춘천), 원창(춘천), 연봉(홍천), 천감(홍천),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여량(정선), 창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벽탄(정선), 호선(정선), 안흥(횡성), 유원(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단구(원주), 신림(원주)
대창도 (28)	대창(강릉), 안인(강릉), 진부(강릉), 구산(강릉), 황계(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목계(강릉), 고단(강릉), 대강(고성), 고잠(고성), 등로(통천), 낙풍(강릉), 임계(강릉), 동덕(강릉), 인구(양양), 상운(양양), 연창(양양), 강선(양양), 청간(간성), 죽포(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거풍(통천), 진덕(흡곡)
평릉도 (9)	평릉(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호(평해)
기 타 (19)	은계(회양), 신안(회양), 화친(회양), 직목(금성), 서운(금성), 창도(금성), 신화(김화), 생창(평강), 임단(평강), 건천(이천), 방천(낭천), 원천(낭천), 산양(낭천), 수인(양수), 함춘(양구), 부림(인제), 마노(인제), 임천(인제), 남교(인제)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체계는 보안도(保安道), 대창도(大昌道), 평릉도(平陵道)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역은 모두 77개였다. 강원도에는 1개 찰방과 3개 역승이 관할하는 4개의 역도가 있었다. 역도체계의 중심도시로는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삼척, 양양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군사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도호부 이상의 군현이었다. 그리고 역로의 입지는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한 하천계곡이나 하천 중상류의 침식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세종대의 역도체계는 세조대에 이르러 대폭 개편되었다. 세조대의 역도 개편은 세조 3년(1457년), 세조 6년(1460년), 세조 8년(146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개편은 주로 기존의 역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강원도의 역로가 피폐하고 역승의 관품이 낮아 역무를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하여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여 대창도라 칭하고 찰방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2·3차 개편은 역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재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때는 은계도(찰방), 보안도(찰방), 평릉도(역승), 상운도(역승) 등 4개 역로로 개편되었고, 이때 정비된 역로는 『경국대전』에 이르러 4역도 78역으로 확립되었다.

〈표3-9〉 『경국대전』의 강원도 역도-속역체계

역도(驛道)	속역(屬驛)
은계도 (19) 회 양	풍전(철원), 생창(김화), 직목(금성), 창도(금성), 신안(회양), 용담(철원), 임단(평강), 옥동(평강), 건천(이천), 서운(금성), 산양(낭천), 원천(낭천), 방천(낭천), 함춘(양구), 수인(양구), 마노(인제), 부림(인제), 남교(인제), 임천(인제)
보안도 (29) 춘 천	보안(춘천), 천감(홍천), 인랍(춘천), 원창(춘천), 부창(춘천), 연봉(홍천), 창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안흥(횡성), 단구(원주), 유원(원주), 안창(원주), 신림(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벽탄(정선), 호선(정선), 여량(정선), 임계(강릉), 고단(강릉), 횡계(강릉), 진부(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평릉도 (15) 삼 척	동덕(강릉), 대창(강릉), 구산(강릉), 목계(강릉), 안인(강릉), 낙풍(강릉), 신흥(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호(평해)
상운도 (15) 양 양	연창(양양), 오색(양양), 강선(양양), 인구(양양), 죽포(간성), 청간(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대강(고성), 고잠(고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등로(통천), 거풍(통천), 정덕(흡곡)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원주~대관령~강릉~울진~평해까지 연결되는 관동로로 불리는 제3로를 중심으로 많은 지선(支線)들이 모여 하나의 역도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양의 상운도 소관역은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

로였다. 양양도호부에서 관할하던 역은 상운역, 연창역, 오색역, 강선역, 인구역이었다. 뒤에 미시파령(彌時波嶺) 길을 개착함으로써 오색역은 간성 원암역에 이속되었다. 상운도 소관역들은 모두 소로(小路)에 속해 있었다. 이 역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마(驛馬)였다. 역마는 주로 전국의 목장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항상 부족하여 때로는 주인이 없는 말, 몰수한 난신(亂臣)의 말, 민가의 말을 징발하여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들 역마는 용도에 따라 승마용 기마(騎馬)와 운반용 태마[(馱馬), 卜馬라고도 함]로 구분되었고, 크기에 따라 대마 · 중마 · 소마 또는 상등마 · 중등마 · 하등마로 구별하여 지급되었다. 그리고 역의 등급에 따라 마필수 및 등급의 배속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40개 역도 535개 역에 5,380필의 말이 있었다. 각 역에는 정해진 수의 말이 있었다. 전국의 역은 9등급으로 나누어져 1등로는 대마(大馬) 8필 · 중마(中馬) 13필 · 소마(小馬) 15필 등 도합 36필을, 2등로는 32필을, 3등로는 28필을, 4등로는 24필을, 5등로는 20필을, 6등로는 16필을 구비하여야 했다. 또한 7등로는 대마 2필 · 중마 4필 · 소마 6필 등 도합 12필을, 8등로는 대마 1필 · 중마 3필 · 소마 4필 등 도합 8필을, 9등로는 대마 1필 · 중마 1필 · 소마 2필 등 도합 4필을 구비하였다. 역의 대부분은 7~9등로에 속하였다. 양양도호부의 역마수는 『여지도서』 역원조(驛院條)에 의하면, 상운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연창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강선역에 대마 2필 · 복마 4필, 인구역에 대마 2필 · 복마 3필이었다.

이들 말은 이용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되었다. 가령 대군(大君) · 의정(議政)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3필 · 태마(馱馬) 3필을, 정2품 이상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3필 · 태마 2필을, 종2품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2필 · 태마 2필을, 3품 이상 당상관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2필 · 태마 1필을, 6품 이상 관료에게는 중등마 1필 · 하등마 1필 · 태마 1필을, 9품 이상의 관인에게는 중등마 1필 · 태마 2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경사신(赴京使臣)과 부사(副使)에게는 상등마 1필과 태마 2필을, 서장관(書狀官)에게는 중등마 1필과 태마 1필을, 종사관(從事官)에게는 중등마 1필과 2명당 태마 1필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 어사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1필 · 태마 1필을,



관찰사와 절도사의 명령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등마를 지급하였다.

공무로 출장가는 관인이 역마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역에서 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인 마패(馬牌)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둥근 모양의 마패 한 면에는 사용자의 품계에 따라 이용한 가능한 마필의 수만큼 말을 새겨 넣었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주조된 연월(年月)과 ‘상서원인’ (尙瑞院印)을 새겨 넣었다. 다만 왕족이 사용하는 마패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둥근 패로서, 한쪽은 마필수를 새기고 다른 한쪽은 ‘마(馬)’만 새겨 넣었다. 마패는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하였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즉 중앙에서는 출장관원의 품계에 따라 병조가 문첩(文帖)을 발급하면 상서원이 마패를 내주었지만,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마패를 항상 지니고 있다가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거나 진상(進上)을 올릴 때 수시로 발급하였다.

역마의 이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일 3식(90리, 1식은 30리)을 여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긴 자나 남승(濫乘)·남급(濫給)한 자에게는 장 100·유 3천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마를 반환하지 않는 자는 장 300·도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경비가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 역에는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역마 충당을 위해 마전(馬田)이 지급되었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諸田條)의 마전 지급내용을 보면, ‘대마(大馬)는 7결, 중마(中馬)는 5결 50부, 소마(小馬)는 4결이었다. 긴로(緊路), 교통량이 많은 역로]이면 급주(急走)에게 50부를 더 주었고, 대마는 1결을 더 주며, 중·소마는 각 50부를 더 준다.’고 되어 있다. 또 각 역에는 역리(驛吏)와 역노(驛奴)·역비(驛婢)가 있었다. 양양도호부에는 상운역에 역리 154명·역노 30명·역비 29명, 연창역에 역리 270명·역노 130명·역비 70명, 강선역에 역리 192명·역노 7명·역비 8명, 인구역에 역리 70명·역노 81명·역비 61명이 있었다.

#### 나. 봉수(烽燧)

봉수는 변경지방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진영(鎭營)에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주로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에 거화(擧火) · 봉현(烽峴) · 봉산(烽山) · 봉산성(烽山城) 등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삼국시대에 봉화에 의한 통신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사용하여 소식을 알렸는데, 세종 원년(1419년)에 5구분법으로 체계화하였다. 즉 무사시에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1개의 화를 올렸고, 해안의 경우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면 2개의 화,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화, 우리 병선과 접전시에는 4개의 화, 왜적이 상륙할 때는 5개의 화를 올렸으며,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개의 화,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개의 화,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화,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개의 화를 올리도록 했다. 그후 『경국대전』에 이르러 육상적과 해상적의 구별 없이 무사시에는 1개의 화, 적이 나타나면 2화, 경계에 접근하면 3화, 경계를 범하면 4화, 접전하면 5화를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적이 침입했을 때 안개 · 구름 · 비바람으로 인하여 봉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포(火砲)나 각성(角聲) 또는 기(旗)로써 알리거나 봉화대에 상주하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 다음 봉수에 알리도록 했다.

봉수에는 경봉수 · 연변봉수 · 내지(內地)봉수 3종류가 있었다. 경봉수는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 목멱산(木覓山), 남산에 위치하여 목멱산봉수 또는 남산봉수라고도 불렀다. 연변봉수는 해륙(海陸)변경의 제일선에 설치되었으며,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각 봉수대의 거리는 산세와 운무(雲霧) 등 자연조건에 의해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변봉수[연대(烟臺)]는 10~15리, 내지(中間)의 주수(晝燧)지역은 20~30리, 야화(夜火)지역은 40~50리 정도가 기준이었다.

전국 봉수망은 5대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제1로는 영안도 경흥으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아차산에 이르러 서울 목멱산 제1봉에, 제2로는 경상도 동래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광주 천림산에 이르러 서울 목멱산 제2봉에, 제3로는 평안도 강계로부터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서울 무악동봉에 이르러 목멱산 제3봉에, 제4로는 평안도 의주로부터 해안을 거쳐 서울 무악서봉에 이르러 목멱산 제4봉에, 제5로는 전라도 순천으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천 개화산에 이르러 목멱산 제5봉에 각각 응하는 것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전기 전국의 총 봉수대 수는 약 610개소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강원도의 봉수대는 48개 처가 있었다. 강원도에는 함경도 경흥으로 연결되는 본선과 동해안 지대에 간선이 있었다. 강원도 봉수의 본선은 함경도 안변의 철령을 통해 전해오는 봉수를 회양~평강을 통하여 경상도 영해의 대소산(大所山)으로 연결되어 청송을 경유, 안동에 이르러 동래본선에 연결되었다. 간선망에 위치한 양양의 봉수대는 수산(水山), 부 동쪽 10리], 덕산(德山), 부 북쪽 15리], 초진산(草津山), 부 남쪽 29리], 양야산(陽野山), 부 남쪽 40리]에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경흥으로 이어지는 본선에 속한 평강·회양·철원·금성의 봉수대만 존속하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간선망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는 조선초기에는 왜구가 동해안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에서 유지되었던 것이나 임진왜란 이후 국방정책의 관심이 수도와 서북변경지역에 집중되고 동해안에서의 왜구의 출몰이라든가 기타의 사변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 세조의 낙산사 행차와 중창

낙산사는 세조가 세자(뒷날 예종)의 자복(資福)을 위해 중창한 원찰(願刹)이었다. 세조 12년(1466년) 3월부터 윤 3월 사이 중궁·왕세자를 데리고 금강산의 장안사·정양사·표훈사 등을 순행(巡行)하고, 양양에 이르러 동해신(東海神)에게 제사하게 한 후에 낙산사에 들렀다. 세조는 낙산사를 출발한 다음날에 강릉 연곡리에 머물렀다. 세조는 농가(農歌)를 잘하는 자를 모아서 장막(帳幕) 안에서 노래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官奴)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하였다. 세조는 동구리를 악공(樂工)의 예(例)로 수가(隨駕)하게 하고, 또 유의(儒衣) 1령(領)을 하사하였다.

세조가 낙산사에 들렀을 때 낙산사는 전사(殿舍)가 비루(鄙陋)하였는데, 세조는 학열로 하여금 이를 중창하게 하였다. 낙산사 중창은 세조 13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착수하여 예종초까지 계속 되었다. 중창을 보게 된 낙산사는 왕실로부터 돈독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sup>22)</sup> 세조는 낙산사를 세자의 원찰로 명명한 후에 간경도감의 미포(米布)를 공양(供養) 보시(布施)하였고, 낙산사 방근(傍近)에 위치하고 있던 비옥한 수전 30여 석의



‘가종지지(可種之地)’를 사급하여 이를 승도들로 하여금 경식(耕食)케 하였다. 예종 즉위 후에는 왕실원당인 낙산사에 노비 · 전민 등을 사급하였다. 예종 원년에는 역모사건에 연루된 남이(南怡)의 의령전(宜寧田) 외에 삼가전(三嘉田) · 청도전(淸道田)을 낙산사에 사급하였고, 성종은 경상도의 삼가전 200결의 수조지를 낙산사에 사급하였다. 그런데 이 낙산사에는 소재지에 있는 수조지를 지급하지 않고 경상도 혹은 각도의 전지를 지급하고 있다.

계다가 낙산사는 이곳의 전지(田地)에서 전세로서 포물(布物) · 면화(綿花)를 거두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원래 전세의 경우 수전에서는 미(米)로, 한전에서는 두(豆)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수경(輸京)의 어려움 때문에 편의상 미곡 대신에 저포(苧布) · 면주(綿紬) · 목면(木棉) · 마포(麻布) · 유밀(油蜜) 등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전세공물(田稅貢物)이라 한다. 경상도의 경우 조세 수납의 운송이 타도에 비해 어려웠기 때문에 고려시기부터 산군(山郡)지역에서는 그 지방의 편의에 따라 미곡 대신 주포(紬布) · 면서(綿絮)를 전세로 수납하여 왔다. 이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태조 원년(1392년)에 공부(貢賦)를 상정할 때 경상도 상도(上道)의 여러 군현은 미곡 대신에 포화(布貨)를 배정하여 육로로 운반 상납하게 하였고, 연변에 위치한 군현들은 해로를 통해 미곡을 바치도록 하였다. 낙산사에서 의령 · 삼가 · 청도전에서 거둔 포물 · 면화는 전세 공물이었다.

낙산사는 이곳에서 거둔 포물 · 면화를 해마다 팔아 거승(居僧)의 경비가 두루 풍족하였으나, 상원사는 포물 · 면화가 나지 않는 강릉 땅을 절수(折受)하였기에 승려의 경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성종은 낙산사에서 매년 거두어들이는 포물 · 면화를 영세토록 상원사에 반분(半分)하도록 내수사(內需司)에 하달하였던 것이다. 낙산사에 대한 특혜는 전지에 국한되지 않고 성종 때에는 매년 경창미(京倉米) 100석을 사급하였고,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는 사패(賜牌)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산사는 절 앞 해안의 10리까지의 구역에 대한 포어권(捕漁權)을 독점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낙산사 소속 노비들로 하여금 해산물 채취와 고기잡이를 하게 하여 그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치부(致富)하기도 하였다.

### 3) 임진왜란과 양양

선조 25년(1592년)부터 31년(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조선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은 1차의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이라 부르고, 2차의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이라 하는데, 임진왜란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란까지를 포함하여 말한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은 아니었다. 발발 이전에 꽤 오랫동안의 교섭이 있었다. 도요도미가 전국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대마도주(對馬島主)와는 제한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선조 20년(1587년) 도요도미는 대마도주를 통해서 조선과 교섭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국왕을 일본에 입조(入朝)하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명나라에 대해서까지 일본에 조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리 없을 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 관례상 너무나 격에 벗어난 요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마도주는 이러한 도요도미의 요구를 숨기고 단지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해 줄 것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일본에서는 국사(國使)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때 일본사신들이 ‘조선이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였으므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조선정부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상정하게 되었다. 그 뒤 일본이 자진해서 조선인을 송환하자 선조 23년(1590년) 조선정부는 결국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본 내에서 전쟁을 반대하던 대마도주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통신사 파견이 곧 조선이 항복한 것을 의미한다고 도요도미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도요도미는 조선 통신사에게 명나라를 정벌할테니 조선이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듬해에 돌아온 통신사의 각기 다른 보고에 대해 논란을 벌이던 중, 그해 3월 일본 사신으로부터 “1년 뒤에 길을 빌어 명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조선정부는 비로소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조선정부는 남부 하삼도의 관찰사를 새로 임명하여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병기(兵器)를 수리하게끔 독려하였다. 또한 남해 연안의 국방요지에도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배

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를 능가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선정부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규모의 왜구가 약탈을 목적으로 침입할 것이라는 정도로 사태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도요도미는 중앙집권적인 군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병력동원체제와 전투부대를 재편하였다. 일본은 왜란 직전 이미 1천여 척의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출정부대의 군량을 확보하고, 총 병력 33만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이때의 일본군은 조총을 비롯한 개인무기 뿐 아니라 오랫동안의 전투경험을 아울러 갖춘 병력이었다. 반면 조선군은 전쟁 준비부터 지고 있었다. 수군의 경우 488척의 전선과 약 5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였다. 게다가 육군은 명부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무력한 대역인(代役人)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군은 9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4월 13일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군은 700여 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오전 8시에 오우라항(大浦港)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일본군이 부산진성을 공격하였는데, 이곳을 사수하던 부산진첨사 정발(鄭發)은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성민과 함께 전사했다. 이튿날 동래성을 지키던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도 군민과 더불어 항전했으나 전사했다.

대마도에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의 후속부대는 제1대가 부산상륙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계속 상륙해 왔다. 19일에는 가토가 이끄는 제2대 병력이 부산에, 구로다가 이끄는 제3대 병력이 다대포를 거쳐 김해에 각각 상륙하였다. 4~5월에 걸쳐 제4~9대에 이르는 후속부대가 상륙하였다. 이 중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크게 3갈래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불과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영동지방에 침입한 일본군은 부산 상륙시 제4대였던 삼길성(森吉成) 부대였다. 이 제4대는 삼길성 휘하에 2천명, 도진의홍(島津義弘) 휘하에 1만명, 도진의홍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고교원종(高橋元種) 휘하에 1천명, 추월종장(秋月種長)·이등우병(伊藤祐兵)·도진충풍(島津忠豊) 휘하에 1천명 등 총 1만 4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삼길성 부대는 철원·김화·금성군을 거쳐 동북 방향으로 진격한 다음 6월 5일 회양



부를 함락하고, 그 길로 북상하여 6월 15일에는 함경도 남병사(咸鏡道南兵使) 이휘(李揮)가 진을 치고 있던 철령을 넘어 6월 17일에는 안변부에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같이 입성(入城)하였다. 가토오 기요마사는 함경도를 담당하였기에 여기서 북진하고, 삼길성은 안변에서 흠곡을 거쳐 그 길로 동해안을 남하하여 통천, 고성, 간성, 양양을 함락하였다. 삼길성의 일부 부대는 양양에서 설악산을 우회하여 오색령을 넘어 인제로 쳐들어갔고, 주력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여 7월 12일 전후에 강릉에 쳐들어갔다가 다시 삼척으로 내려가 두타산성을 함락하였다.

삼길성 부대는 7개월간 강원도에 주둔하면서 문묘(文廟)·공해(公廨)를 방화 약탈하였다.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김화군은 임란이 끝난 다음해인 선조 32년(1599년)에 폐읍(廢邑)을 논의할 정도로 일본군의 수탈이 심하였다. 일본군은 진격한 지역에서 명을 침략하기 위한 군수물자의 조달량을 채우기 위해 가혹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수탈은 단지 주력군의 이동 경로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주둔지나 경유지를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에 걸쳐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 4) 조선후기의 양양

##### (1) 조선후기의 면리제와 양양

조선왕조의 지방행정 체계가 왕(중앙정부)→감사→수령→면리임(面里任)으로 이어져 있듯이, 행정구역은 크게 도→주·부·군·현→면→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세조 때의 오가작통법과 결합하여 외방은 5호를 1통으로 하고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었으며, 통에는 통주(統主),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면리제는 촌락단위가 아니라 군현 내부를 읍치(邑治)와 동서남북의 4면으로 나누는 방위면(方位面)의 편제였다. 그리고 때때로 촌(村)이라는 명칭과 혼용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점차적으로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이 발전하고 당시 광역리 밑에 있던 자연촌락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권력이 ‘국가재조’(國家再造)의 방침아래 수취제도 개편, 호구과

악 등 촌락재편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촌락단위의 편제가 일반화되었다. 여기에는 조선 후기 내내 계속된 생산력 발전에 편승한 자연촌락의 성장이라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다. 숙종 원년(1675년)에 반포된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에서는 이를 소리(小里 : 5~10통) · 중리(中里 : 11~20통) · 대리(大里 : 21~30통)로 구분, 이의 규모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어 이전의 ‘5통 1리’라는 편의적인 편제기준은 사라지고 자연적 촌락 그대로를 리로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산거적(散居的)인 촌락을 집촌화(集村化)해서 독자적인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고 통 단위의 기능을 리 단위로 확대시키며 농업경영, 국가수취, 향약적 교화와 관련하여 리의 독자적인 기능을 규정해놓았다. 하지만 정조대까지만 해도 아직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면리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촌락을 단위로 리가 편제되면서 독립할 수 없는 소촌(小村)은 대개 대촌(大村)에 부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부지방에서는 면을 몇 지역으로 분할해서 ‘1리 · 2리’ 식으로 편제하거나 자연명칭의 리이지만 남부지방의 리와는 달리 여러 개의 촌을 하나로 묶어 규모가 큰 형태로 만들었다.

강원도의 면리제의 규모는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의 방리조에 의하면 26개 관읍에서 225개 면과 1,441개 리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서 원주목과 강릉부가 21개 면과 20개 면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춘천현과 양양부, 삼척부 순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리수에서는 평강현이 116개, 춘천현이 114개, 삼척부가 102개 리로 가장 잘 분화되어 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양양부에는 종3품 부사 1명을 비롯하여 좌수 1명, 별감 3명, 군관 15명, 아전 27명, 지인 16명, 사령 19명, 관노 25명, 관비 25명 등 총 132명의 관리와 관속이 있었고, 면리별 호구수는 다음과 같다.

〈표3-10〉 18세기말 양양부의 면리(面里)와 호구현황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부내면 (府內面)	남문리(南門里)	29	63	69	132
	성내리(城內里)	50	102	108	210
	구향교동리(舊鄕校洞里)	50	88	78	166
	청곡리(靑谷里)	26	36	28	64
	연창역리(連倉驛里)	134	299	320	619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동 면 (東 面)	고송개리(古送介里)	10	27	26	53
	금강리(金剛里)	14	32	32	64
	송전리(松田里)	10	21	15	36
	불성리(佛城里)	21	38	34	72
	수산진리(水山津里)	15	27	24	51
	굴포진리(屈浦津里)	34	42	54	96
부남면 (部南面)	서문리(西門里)	16	46	50	96
	문선왕리(文宣王里)	13	32	38	70
	목일리(木日里)	10	26	26	52
	거말리(巨末里)	10	26	20	46
	임천리(林泉里)	49	106	108	214
	영혈사(靈穴寺)	8	17	-	17
서 면 (西 面)	공수전리(公須田里)	15	23	33	56
	영덕리(盈德里)	18	33	38	71
	서림리(西林里)	53	92	126	218
	청대리(靑臺里)	7	27	23	50
	오색리(五色里)	57	84	145	229
	상평리(上平里)	23	52	49	101
	장생리(長牲里)	6	11	15	26
	수동리(水洞里)	10	25	13	38
	웅전리(熊田里)	43	95	76	171
남 면 (南 面)	신존리(神存里)	19	36	45	81
	와동리(瓦洞里)	10	16	24	40
	양혈리(陽穴里)	20	38	50	88
	판교리(板橋里)	21	38	43	81
	여운포리(如雲浦里)	29	38	67	105
	상운역리(祥雲驛里)	88	182	174	356
현북면 (縣北面)	도동리(陶洞里)	9	16	17	33
	말곡리(末谷里)	35	49	74	123
	광정리(廣汀里)	40	47	89	136
	대치리(大峙里)	40	43	72	115
	어성리(魚城里)	24	39	47	86
	원일전리(元日田里)	13	15	20	35
	면비치리(綿飛峙里)	15	27	29	56
	법수치리(法水峙里)	37	46	65	111



면 (12)	리(里)	호(戶)	인구(人口)		
			남(男)	여(女)	계(計)
현북면 (縣北面)	초진리(草津里)	15	63	56	119
	명주사(明珠寺)	6	24	-	24
현남면 (縣南面)	월내리(月乃里)	25	32	58	90
	견불리(見佛里)	33	48	67	115
	원당리(元堂里)	24	43	52	95
	북분리(北盆里)	56	85	104	189
	양아진리(陽也津里)	79	114	129	243
	인구역리(獐丘驛里)	90	196	157	353
위산면 (位山面)	감동리(甘洞里)	15	24	27	51
	진수동리(眞水洞里)	6	10	13	23
	옹월리(涌月里)	14	15	26	41
	토천리(土川里)	37	77	75	152
사현면 (沙峴面)	소근교리(小斤橋里)	15	24	23	47
	북동리(北洞里)	29	56	69	125
	물감리(勿甘里)	10	13	15	28
	노동리(魯洞里)	7	10	11	21
	장산리(長山里)	15	18	33	51
	침교리(砧橋里)	39	50	69	119
	북진리(北津里)	26	42	32	74
강선면 (降仙面)	낙산사(洛山寺)	21	28	-	28
	둔전동리(屯田洞里)	29	31	63	94
	상복동리(上福洞里)	15	23	31	54
	석교리(石橋里)	11	49	74	123
도문면 (道門面)	물치진리(勿縑津里)	109	242	228	470
	상도문리(上道門里)	20	33	33	66
	하도문리(下道門里)	35	44	82	126
	물치리(勿縑里)	18	19	33	52
	대포리(大浦里)	34	35	69	104
	옹진리(甕津里)	78	107	131	238
소천면 (所川面)	신흥사(神興寺)	20	49	-	49
	논산리(論山里)	20	39	58	97
	부월포리(扶月浦里)	18	48	38	86
	속초리(束草里)	86	90	182	272
12면(面)	동진리(東津里)	58	79	96	175
	74리(里)	2,243	3,960	4,498	8,458

양양부는 12면 74리를 관할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북면이 10개 리, 서면이 9개 리, 사현면이 8개 리, 동면·부남면·남면·현남면·도문면이 6개 리, 부내면이 5개 리, 위산면·강선면·소천면이 2개의 리로 되어 있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양부의 총 호수는 2,243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3,960명, 여자가 4,498명으로 총 8,45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38명이 많았다.

〈표3-11〉 조선후기 강원도의 군사편제

군사 중심지	영(營)	관 할 지 역
강원도관찰사 (원 주)	防禦營(철원)	특수 임무
	左營(춘천)	이천, 철원, 회양, 김화, 평강, 안협, 금성, 양구, 남천
	中營(횡성)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홍천, 인제
	右營(삼척)	삼척, 강릉, 양양, 간성, 통천, 흡곡, 울진, 평해, 월송진

한편 조선후기 군사제도의 개편은 임진왜란 중에 전쟁을 수행해가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을 근간으로 중앙의 5군영과 지방의 속오군(東伍軍)이 조선후기 핵심적인 군대로 등장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훈련도감은 처음 기민구제(飢民救濟)와 정병양성(精兵養成)이란 목표 아래 국가가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용병적인 장번 급료병으로 등장하였다. 훈련도감의 설치를 계기로 하여 중앙에는 숙종초까지 충융청·수어청·어영청·금위영 등의 군영이 설치되어 이른바 5군영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런데 5군영체제는 어떠한 계획 아래 편제된 것이 아니라 양란을 겪으면서 그때 그때의 편의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군영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그 경제기반이라든가 조직편제 등이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지방군은 진관체제 대신 속오군이 등장하였다. 속오군은 선조 27년(1594년)에 유성룡의 건의를 계기로 처음에는 황해도 지역에 설치되었고, 지방방어체계인 진관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전국으로 편성되어 갔다. 속오군의 편성은 기본적으로 대(隊)·기(旗)·초(哨)·사(司)·영(營)으로 조직되었는데, 대개 1대가 11인, 3대가 1기,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으로 편제되었다. 1영의 인원은 원칙적으로 2,500명으로 편성되었다. 그 지휘권은 종전의 진관에 해당하는 영장(營將)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장은 중앙의 충융청·수어청·진무영(鎭撫營) 등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병영에 속한 것의 두

계통이 있었다. 모두가 겸직이었으며, 중앙 소속은 판관 · 중군 및 인근 주목(州牧)의 부사 · 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 소속은 주 · 군을 적당한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진영을 설치하고 그 지방의 부윤 · 부사 · 목사 · 현감 등이 겸하였다. 첨사 · 만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원도는 원주를 군사 중심지로 삼아 관찰사로 하여금 총괄케 하였고, 그 밑에 철원 · 춘천 · 횡성 · 삼척에 군영을 설치하여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의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양양은 우영인 삼척영장의 관할 하에 있었다.

정묘호란 직후인 인조 5년(1627년)에는 속오군의 조직과 훈련을 위해 전담영장제가 실시되었다. 전담영장은 겨울철 농한기에 속오군을 소집하여 무예와 진법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담영장제가 실시되면서 그 이전까지 지방 수령이 장악하고 있었던 행정권과 군사권이 분리되었다. 즉 수령은 속오군의 소집과 동원만을 담당하고 군사훈련은 영장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반발과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효종대 이후 전담영장제를 폐지하고 지방 수령들이 병력의 관리와 훈련을 모두 맡는 겸영장 체제로 전환하였다. 수군의 경우 수군절제사는 관찰사가 겸하고, 첨절제사(종3품) 1인을 삼척보진에 두되 영장이 겸임하며, 만호(종4품) 1인을 삼척보진의 월송포에 두되 안인포 · 고성포 · 울진포는 모두 폐지하였다.

## (2)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양양

### 가. 사회변동의 요인

조선시대 양양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곡물은 오곡(쌀 · 보리 · 콩 · 조 · 기장)이었다. 조선초기 전국의 농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하였는데, 논이 80% 정도는 경기와 하삼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논농사 지대는 경기와 하삼도에 편중되어 있었고, 강원도를 비롯한 북부지방은 대부분 밭농사 지대였다.

양양부의 토지결수는 조선초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양양도호부는 땅이 메마르며, 개간된 땅[간전(墾田)]이 1,833결로 논이 2/5가 넘는다’고 하였고, 영조 33년(1757년)에서 영조 41년(1765년)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한전(旱田)이 185



결(結) 46부(負) 7속(束)이고, 수전(水田)이 387결 27부 1속(束)으로 모두 573결이라고 하였다. 18세기 무렵 양양부의 토지결수는 15세기경보다 2/3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 그리고 조선초기에 비해 논농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릉부의 농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67.5%,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32.5%에 달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 양양부의 토지결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지대장에서 빠진 은결(隱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안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전은 인력·경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대사업이라 규정대로는 실시하지 못하여 수십 년, 혹은 백 년이 더 지난 뒤에 실시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양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은결이 크게 증가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와서 양양의 토지결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흔히 역사발전의 지표로 농업생산력을 말한다. 역사의 전 과정은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이 발전했지만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농경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시대 후기, 철제농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던 철기시대, 소를 이용해 농사짓고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4~6세기, 휴한농법을 극복하고 상경연작농업을 가능케 한 고려말 등의 시기를 들 수 있다. 특히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초기 벼 재배 방법에는 물을 채운 논에 미리 밭아시킨 법씨를 파종하는 직파법(直播法), 비료성분을 묻힌 법씨를 물이 없는 논에 파종하는 건경법(乾耕法), 못자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워 전체 논으로 옮겨심는 이앙법(移秧法)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법씨를 뿌려 그대로 경작하는 직파법이 일반적이었다.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경상도의 일부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시도되던 이앙법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선초기까지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였다. 직파법으로 벼를 재배하게 되면 농부들은 이른 봄철 쟁기를 이용하여 논을 한두 차례 갈아 두었다가 4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씨레를 이용하여 논을 고른 다음, 미리 밭아시켜 둔 법씨를 파종했다. 이후 약 한달 가량 지난 후부터 호미를 이용하여 김매기를 시작했는데, 추수 때까지 4~5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양법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농민들은 이른 봄철 쟁기를 사용하여 한두 차례 논을 갈아 두었다가, 그 가운데 대략 1할 정도의 면적에 4월 하순경에서 5월 초순에 못자리를 설치 하였다. 모가 모판에서 자라는 동안 떡갈나무의 잎, 연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사용하여 만든 거름을 모낼 곳에 뿌려 주었다. 벼씨를 뿌리고 약 한달이 지난 6월 초순경부터 모 내기를 하였는데, 한 그루는 어린 모 4~5포기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그루와 그루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남겨 두었다. 김매기는 모낸 후 약 20일이 지나서부터 시작하여 추수 때까지 모두 2~3차례 실시하였다. 16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이양법은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보급이 점차 증대되어 강원도 지방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sup>23)</sup>

17세기 이후 이양법을 실시하면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양법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서유구는 ‘이양을 실시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모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부실한 모를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모를 심는 땅과 본 논에 옮겨 심는 땅의 지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그 이익이 크다.’<sup>24)</sup>며 이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밭에서는 보리, 조, 콩, 기장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었다. 적지 않은 농부들은 이미 15세기에 보리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기도 하였다. 이같이 같은 밭에서 1년 동안 보리와 콩을 교대로 경작하는 방식을 그루같이[근경법(根耕法)]라고 하였다. 물론 모든 콩이 그루같이로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콩은 종류에 따라 봄철에 파종을 해야만 잘 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초여름에 심는 것도 있었다. 보리, 콩과 달리 조는 모두 봄에 심었다. 봄철 밭에서 보리, 콩, 조가 동시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을 같은 밭에서 섞어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밭작물의 김매기에도 적지 않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5세기에는 농지가 적은 농민들에 의해서만 섞어짓기[간종법(間種法)]이 조금씩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밭고랑과 밭이랑을 만들어 밭고랑에다 곡식을 파종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토지이용방식이 조선전기의 1년 1작에서 2년 3작 내지 2년 4작식의 윤작체제로 바뀌어 감으로써 생산력이 높아졌다.

조선후기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농업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화를 잘 이용하는 농민이나 지주들은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절감된 노동력을 경영규모의 확대에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농산물의 상품화가 널리 이루어져서 농산물을 장시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농민 중에는 부농으로 성장하거나 지주로 전신(轉身)하는 계층도 생겨났다. 이들 농민들은 자기 가족만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농촌의 임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재산을 축적하면 먼저 농토를 매입했는데, 그 많은 땅에 농사짓는 일을 자기 가족들만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주와 부농이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많은 토지를 경작하게 되자 가난한 농민층은 점차 토지경영으로부터 배제되어 갔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변동은 지주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도 활발해져서 지주·부농·상인들이 토지를 크게 늘려 갔다. 경제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한 영세농민은 부세 부담, 고리대 부담, 관혼상제 비용에 농사의 흉작까지 겹쳐 혈값에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지주·상인·부농층은 이를 틈타 이것을 매입해 늘려감으로써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졌다.

몰락농민의 다수는 다시 지주전호관계의 전호로 전락되기도 하였지만,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농업고용인으로서 지주 또는 부농의 농업경영에 고용되거나 광산 또는 수공업 촌락의 임노동자로 전화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도시로 가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되었다. 반면에 부농들은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인삼·담배·면화·채소·과일·약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업작물을 재배하여 장시에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나. 장시의 발달과 상권의 형성

조선전기 상인은 크게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던 좌상(坐商)과 육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던 육상(陸商), 그리고 배를 이용하여 교역활동을 하던 선상(船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좌상은 대개 시전상인(市廛商人)을 말하고, 육상과 선상은 전국을 무대로 교역활동을 하던 행상(行商)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억상책(抑商策)의 일환으로 상인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행상에게는 일종의 영업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행장(行狀)을 발급하였고, 이 행장이 없는 상인의 상업활동은 금지시켰다. 이후 행상에 대한 수세(收稅) 규정은 몇 차례 변화가 있었고, 『경국대전』에는 매월 저화 8장을 수세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육



상은 육로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대개 가볍거나 크기가 작은 초립(草笠)·유기(鋤器)·가죽신·갓·빗·바늘·분(粉) 등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의(襦衣)·면서(綿絮)·농기구를 취급하였다. 선상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곡물이었다. 15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인 차원의 곡물유통망이 갖추어짐에 따라 선상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선상들은 곡물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어물·미역 등을 지역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들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다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장시(場市)는 농민·수공업자 등 직접 생산자가 생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이유역무(以有易無)’·‘유무상천(有無相遷)’ 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의 정기시를 말한다. 장시는 15세기말 농업의 선진지역이었던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설되었는데, 성종 원년(1470년) 흥년을 계기로 이 지역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시포(市鋪)를 열고 장문이라고 부른 것에서 처음 나타난다. 15세기말부터 유통을 위한 장시가 출현한 것은 여말선초에 농업경영 방식이 휴한농법(休閑農法)에서 상경연작법(常耕連作法)으로 바뀌면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것에 기인한다. 장시는 장문(場門) 또는 향시(鄕市)·허시(墟市)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전기에는 주로 장문으로 일컬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일부 관원들 중에는 각 주현(州縣)에 시장을 열어 화폐의 유통 및 교역을 촉진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었다. 세종 15년(1433년) 예조판서 신상(申商)은 중국의 경우 작은 현(縣)이라 하더라도 모두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없어 화폐가 있어도 쓸모가 없게 되므로 지방마다 시장을 열어 전화(錢貨)가 자연스럽게 유통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개설의 제의는 이 시기 농업과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 분업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물화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업활동에 대해 지배층이 갖고 있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즉 상업이 발달하면 상인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놀고먹는 백성이 많아지며 그 결과 농촌이 황폐해진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폐단은 곧바로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상인이 증가하게 되는 배경인 장시의 발달을 초기부터 금압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상

업을 적극 통제·독점하기 위해 장시를 폐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잉여 물자가 늘고 유통이 활발해지는 한편 일부 농민이 흉년으로 몰락하여 장시에 몰려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금지하거나 조종할 수 없었다. 그래서 16세기 전반에는 ‘제도(諸道)에 모두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 라거나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 고 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 확산되어 있었다.

〈표3-12〉 18세기 이후 영동지방의 군현별 장시수

군현 \ 시기	1770년대 『동국문헌비고』	1830년 『임원십육지』	1853~1856년 『여도비지』
강릉	6	4	6
양양	5	2	4
삼척	4	3	4
평해	2	2	2
통천	2	2	2
고성	2	1	2
간성	2	1	2
울진	3	3	3
흡곡	1	2	1
총계	27	21	26

조선전기 양양지방의 장시개설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의 미비로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16세기 전반에 전국에 걸쳐 장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양양지방에도 장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되어 18세 중엽에 이르러 조사된 숫자만 1,000여 개소를 넘고 있었다. 강원도의 장시수는 1770년대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에 68개로 나타난다. 당시 강원도의 군현수가 26개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군현당 평균 2.6개 정도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강원도 영동 9읍의 장시수를 〈표3-12〉로 나타내었다.

〈표3-12〉는 영동 9읍의 장시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군현별 개설되어 있는 장시수는 평균 3개 정도에 달한다. 장시가 가장 많이 개설된 곳은 강릉이었고, 그 다음이 양양이었다. 『동국문헌비고』에 의하면, 양양부에는 읍내장, 물치장, 동산장(洞山場), 부동장(府東場), 상운장(祥雲場)이 개설되어 있었다.

장시 성립초기의 개시일수는 1개월에 2차례 개시하는 15일장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1개월에 3차례 개시하는 곳도 증가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10일장도 생겨났다. 물론 10일장이 개설되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들이었다. 17세기 초에는 1개월에 6차례 개시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흔히 5일장이었다. 5일장은 군마다 보통 3개소에서 많으면 4~5개소로 서로 다른 날짜에 번갈아 열렸으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상설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보통 30~40리 거리를 표준으로 하여 산재된 장시의 망을 이루어 상인 즉 행상이 각 장시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기에 알맞았다. 양양부의 장시 개시일은 읍내장이 4·9일, 인구장과 물치장이 5·10일이었다.

조선후기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은 쌀·콩·보리·조·기장·메밀 등의 곡물류, 면포·면화·삼베·모시·비단 등의 직물류, 농기구·왕골자리·삿자리·초립(草笠)·유기(鋤器)·가죽신·의복·신발·갓끈·빗·바늘·분(粉) 등의 수공업 제품, 조기·청어·준치·민어·굴 등의 수산물, 소·말·돼지·닭 등의 축산물, 감·밤·대추·배·사과 등의 과일, 배추·파·마늘·무우·오이·참외 등의 채소류였다. 이 외에도 호랑이·사슴·노루가죽 등의 피물(皮物)이 유통되었다.

그러면 영동지방의 장시에서는 어떤 물품이 유통되었을까. 『임원경제지』에는 각 장시에서 교역된 물품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영동지방의 각 장시별로 유통된 품목수를 살펴보면, 강릉 읍내장이 8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양양 읍내장이 7개, 평해 읍내장이 5개 순으로 나타난다.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은 쌀, 면포, 면화, 마포, 명주, 어염, 우독(송아지), 종이, 과일 등이 거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거래된 물품은 면포(8곳)이고, 그 다음이 마포(7곳), 어염(6곳) 순이다. 특히 면포는 전국 325개 군현 중 253개 군현에서 거래될 정도로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26개 군현 중 24개 군현에서 거래되었다. 쌀은 영동 9개 군현 중 강릉·양양·평해 3곳에서만 거래되었고, 명주와 종이는 강릉과 양양에서만 거래되었다.



〈표3-13〉 영동지방의 장시에서 유통된 물품

구분 군현	장시명	쌀	면포 (綿布)	면화 (綿花)	마포 (麻布)	명주 (明紬)	어염 (魚鹽)	우독 (牛犢)	종이	과일	담배	철물 (鐵物)	토기 (土器)	계
강령		○	○	○	○	○	○	○		○				8
양양	府內	○	○		○		○	○	○	○				7
삼척	府內府				○		○	○						3
평해	府內府	○	○		○		○	○						5
통천	府內府		○	○										2
고성	府內府		○		○		○							3
간성	府內庫		○		○									2
울진	底		○		○		○							3
흡곡			○	○										2
계		3	8	3	7	1	6	4	1	2	0	0	0	21
강원도(26)		11	24	6	21	8	20	11	3	6	4	2	1	117

#### 4. 양양지방의 근대사

조선은 1876년의 개항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한 고리로 편입되었고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비교적 일국사적 발전을 계속해 왔던 조선은 개항을 분기점으로 하여 더 이상 세계사의 조류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국제사회에의 편입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선에 부여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예측적·종속적이었다는 것이다. 불평등조약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위치는 조선의 국권을 침해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족의 각 성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앞에 제약받고 있는 조선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근대화를 이룩하여 세계무대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각 사회집단은 다양하고 상이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집단이 처해 있었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및 그에 따른 근대화에 관한 전망의 상이(相異)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 1) 동학농민전쟁과 양양

동학은 심화되고 있던 봉건체제의 모순과 열강의 침략 위기 속에서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동학은 유·불·선 등 이전의 여러 사상을 집약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집약에 체계성이 있고 또 세련성을 갖추었으므로 저급한 수준의 민간 신앙이 아닌 종교의 단계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동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이었다. 당시의 양반신분제도 아래에서 소외되고 억압받으며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평등을 의미하는 이 말은 대단한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자연히 사람들은 동학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은 동학을 사교(邪敎)로 지목하고 고종 원년(1864년) 교조인 최제우를 ‘혹세무민’(惑世誣民)했다는 죄로 사형에 처했다. 이와 함께 동학도에 대한 탄압도 심화되자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은 산 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포교를 하였다.

최시형이 동학에 입교한 시기는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해인 철종 12년(1861년) 6월경이다. 그는 동학에 입교한 이래 광무 2년(1898년) 4월 5일에 체포되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교단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최제우가 처형된 이후 사실상 동학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동학 교리의 체계화, 교단조직의 재건 및 지역적 기반의 확대,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의례의 확립,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 양성 등 동학 교단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강원도 지역에 동학이 전래되는 계기는 철종 14년(1863년) 3월경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李慶化)가 영월 소밀원(小密原)으로 유배되면서이다. 이경화는 유배지인 소밀원에서 원주사람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포교하였다. 고종 7년(1870년) 10월경에는 최제우의 가족(부인, 두 아들, 세 딸)이 양양교도 공생(孔生)의 주선으로 영양(英陽) 용화동에서 소밀원으로 이주해 왔다. 한편 최시형은 1871년 3월 이필제(李弼濟)와 함께 경상도 각 지방의 동학교도들을 동원하여 영해에서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을 일으킨 직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관병의 집요한 추격을 받는 몸이 되자, 동학조직 재건 활동의 중심지였던 영양 용화동에 은신해 있다가 영월 소밀원으로 일시 피신해 왔다.

이로써 영월지방은 1870년대 동학의 재건과정에서 대표적인 비밀포교지가 되었던 것이다.

정선지방의 동학 비밀포교지로는 무은담과 갈래산 적조암 등이 있다. 무은담이 동학 교단과 연관을 맺는 계기는 영해 교조신원운동과 같은 해인 8월 이필제의 문경작변의 실패로 인해 경상도 북부지방의 동학조직이 와해되고 동학 지도부에 대한 관의 지목과 체포령이 내려지자 단양, 영월 등지로 피해 다니던 최시형과 소수의 동학교도들이 1872년 4월 정선접주 유시헌(劉時憲)<sup>25)</sup>의 집으로 피해 오면서이다. 그리하여 무은담은 1870년대 이래 동학 교단의 주요 비밀 포교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동학의 새로운 종교 의식인 설법제(說法祭), 구성제(九星祭), 개접례(開接禮)가 행해졌다.

적조암은 현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정암사의 부속암자를 가리킨다. 이곳은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 영월·정선·단양 접경지역으로 피신해 온 최시형이 1872년 10월 몇몇 교도들과 입산하여 49일 수련을 한 뒤 동학 교단의 중요한 수련장소이자 비밀 포교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곳은 1880년대에 들어와 동학교문의 중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다.

양양에 동학이 전해진 것은 1869년 이전으로 보인다. 양양지방에 동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최시형이 강원도에 오기 전에 이미 양양 교도 공생(孔生)이란 사람이 입도하여 포덕(布德)<sup>26)</sup>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은 주문만 외울 뿐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고종 6년(1869년) 2월에 양양 사람 최혜근(崔惠根)·김경서(金慶瑞)가 최시형을 찾아가서 비로소 동학교에 대한 교리와 의식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이 최시형에게 양양 포덕을 역설하자 그 곳에 오래 전부터 뜻을 두고 있던 최시형은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에 이르러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양양의 산중에 은거하면서 포교하였다.<sup>27)</sup> 당시 최시형이 지내던 곳이 어딘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최시형은 그 후 양양·인제·홍천 등지를 순회하면서 많은 신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열성교인도 많았다.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貞)은 영월, 양양, 인제 등지로 피신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교인들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심해지자 양양 김덕중(金德中) 집에 피신해 있던 세정은 1870년 10월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위해 첩첩산중



의 인제 귀둔리로 거처를 옮겼다. 귀둔리에서 세정은 그의 처와 둘째 여동생과 함께 장춘보(張春甫)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귀둔리는 현재 교통의 발달로 인제와 생활권이 가깝지만 당시에는 오색령, 점봉산을 두고 양양과 인접해 있어 인제보다 양양이 더 가깝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귀둔리 사람들은 주로 양양장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양양장을 가려면 곤배골을 지나 강선리와 양양군의 북암리와 송천리를 거쳐 양양으로 갔는데 대략 80리 거리였다. 최시형에 의해 포덕된 양양의 교인들은 귀둔리 교인들과 왕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양양 관아에서는 김덕중으로부터 이를 탐지하고 귀둔리까지 추적하여 세정을 체포하여 양양옥에 수감하였다. 세정의 처와 여동생은 인제옥에 수감하였다. 세정은 양양 감옥에 갇히었다가 고문 끝에 1872년 5월 12일(음) 장사(杖死)되었다. 당시 양양 감옥은 현재 양양군청이 들어서 있다.

1870년대 양양 · 인제 · 영월 · 정선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포교활동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최시형은 1880년 6월 인제에서 『동경대전(東經大典)』을 간행하여 동학교문에게 경전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시형이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1890년대 초에 이르면 동학의 포교조직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그 세력이 신장되었다. 이러한 세력 신장을 바탕으로 동학교도들은 억울하게 죽은 최제우의 죄를 벗기기 위한 제1차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교도 40여 명이 고종 30년(1893년) 3월 서울에서 북합상소(伏閣上疏)로써 항거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

두 차례에 걸쳐 신원운동을 벌였던 동학교도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893년 봄에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금구의 원평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보은집회는 교단 중심의 북접이, 원평집회는 전봉준 계열의 남접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월에 열린 보은집회에서는 교조신원의 구호를 넘어 탐관오리의 축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한다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구호까지 등장하였으나, 지도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봉기를 일으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교단 중심의 북접 온건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해산되었다. 원평 집회에 모여 보은의 동정을 관망하다가 봉기를 적극 주도하려 했던 남접 강경파들도 결

국 북접이 보은집회를 해산시키자 이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다음 시기를 기약한다는 뜻에서 일단 해산하였다.

농민들의 불만은 1894년 1월 고부민란(古阜民亂)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농민전쟁으로 전개되었다. 고부민란이 일어난 원인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은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탐학한 이서배를 징치하고, 양곡을 몰수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무기고를 격파하여 농민군의 무장을 강화하였다. 농민군의 기세에 놀란 정부는 책임을 물어 조병갑을 체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고, 대신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하여 이들을 설득·회유하였다. 그리고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농민군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용태는 농민봉기의 원인을 올바르게 규명하여 수습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고, 게다가 무고한 백성을 동학교도로 몰아 재물을 약탈하고 목숨을 빼앗는 등 갖은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민심은 다시 극도로 흉흉해졌다.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1894년 4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봉기하라는 통문을 발하자, 고부일대의 각 군에서는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재차 봉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동학농민전쟁이다.

농민군이 백산에 대규모로 모이자 정부는 우선 전주감영 군사로 하여금 진압하도록 하는 한편,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800여 명의 경군(京軍)을 이끌고 출동하도록 하였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監營軍)을 격파한 데 이어서, 장성에서는 홍계훈의 경군도 격파하고 마침내 전주에 무혈입성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전쟁을 둘러싼 주변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자력으로 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한 정부는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날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하였고, 이어 5월 5일에 청군이 아산만에, 5월 6일에 일본군이 인천에 각각 상륙하여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은 5월 8일 정부와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게 되었다.

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주성 철수의 조건으로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국왕에게 아뢰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후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집강소의 활동이

기존 수령의 활동과 다른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선후기의 가장 큰 모순이었던 양반신분제를 타파하는데 앞장선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려고 했던 점이다.

그러면 집강소 활동을 하던 농민군이 왜 또 다시 2차 봉기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당시 전개되던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청 · 일(淸 · 日) 양군이 조선에 출병하자 농민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은 다음 집강소 활동에 치중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도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고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며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6월 21일 새벽,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앞세워 새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을 ‘경복궁쿠데타’ 또는 ‘갑오왜란(甲午倭亂)’이라 한다. 이어 성립된 새 정권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한편 쿠데타 직후인 6월 23일 일본 해군은 아산만 풍도에 있던 청군 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은 농민군으로 하여금 심각한 민족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 농민군은 이런 변화에 따라 6월말부터 재무장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군에 대승을 거두고 나서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해오자 9월 12일 삼례에서 2차 봉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차 봉기가 반봉건투쟁의 성격이 강했다면, 2차 봉기는 반외세 ·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강원도에서 농민전쟁이 전개된 것은 제2차 농민전쟁이 시작되는 1894년 9월에 들어서이다. 동학농민전쟁보다 30여 년 앞서 1862년에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2개 군현에서 반봉건 농민항쟁이 일어났을 때 강원도에서는 농민항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채 잠잠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사회모순이 깊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1884년부터 1894년까지 크고 작은 민란이 8개 지역에서 30여 회 이상이나 일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봉건적 모순이 극한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민란으로 다듬어진 강원도 농민들의 반봉건의식은 일찍부



터 전파된 동학교의 조직과 합세하여 농민전쟁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후일 강원도 농민군의 총수령이 된 차기석이 최시형의 영향 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북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도 동학농민군은 봉기과정 중 북접의 교단과 직접적인 연결점은 찾아볼 수 없다. 삼남지방의 2차 봉기가 9월 중순에 이르러 전개되는 반면, 강원도 농민군은 이미 9월 4일에 봉기하여 강릉부를 점령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농민군은 북접 교단과는 독자적으로 봉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원도에서의 농민전쟁은 평창, 정선, 영월, 강릉, 삼척, 홍천, 원주, 횡성, 양양, 간성, 인제, 춘천, 김화, 금성 등지에서 일어났는데, 농민전쟁은 크게 두 세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하나는 충청도 제천·청주세력과 연합하여 활동한 정선·평창·영월·원주 등의 영서 남부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석을 중심으로 홍천군 일대에서 활동한 중부 내륙세력이었다. 이 가운데 투쟁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영서 남부세력이었다. 1천여 명이 넘는 농민군 부대는 9월 3일 대관령을 넘어 구산역(丘山驛)에서 하룻밤을 자고, 9월 4일 별 저항을 받지 않고 강릉부를 점령하였다. 농민군은 강릉부에 4~5일 머무르는 동안 강릉부 관아 동문에 ‘삼정(三政)의 폐단을 뜯어고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룩한다.’는 방문을 내걸었다. 그리고 삼정을 임의로 삭감하고 요호(饒戶)를 잡아들여 토지와 재산, 전답문서를 빼앗고 이서(吏胥)들을 잡아 족쳤으며, 민간의 송사를 마음대로 처결하였다.

한편 강원도 동학 농민군을 토벌한 부대의 주축세력은 원주에 있던 순군영에서 파견된 순중군과 각 지역의 유림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보군(民堡軍)이었다. 삼남지방에서는 일본군이 모두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당시 강원도에서의 농민군 토벌의 지휘권은 순군영에서 파견된 순중군이 장악하였다. 그러나 관군은 삼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상태였다. 당시 반(反)농민군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각 향촌사회의 기반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지배층이었다.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에 의하면 당시 양양지방에서는 김익재(金翼齋)·노정수(盧鼎秀)·장혁주(張赫周)·김준수(金僤秀)·최주하(崔舟河) 등이 활약하였다고 한다.

## 2) 대한제국기의 양양

임오군란(1882년) 이래 조선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청국은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패함으로써 그 지위를 일본이 이어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요동반도를 획득함으로써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 · 프랑스 · 독일의 삼국간섭을 받아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했다.(1895년 5월)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일본의 지원 하에 개혁(갑오 · 을미개혁)을 추진해오던 온건개화와 내각이 동요하는 반면, 명성황후의 지지를 받는 보수파 인물들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는 배일 · 친러적 경향을 띠어갔다. 일본은 퇴세(退勢)를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사건 뒤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온 고종은 1896년 2월 배일 친러파와 은밀히 추진하여 왕세자와 함께 궁궐을 탈출하여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성공하였다. 아관파천은 삼국간섭 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과 고종이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가능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이미 남만주에 구축한 세력을 발판으로 조선으로 남하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공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러시아는 이를 발판으로 조선 정부에 대하여 군사 · 정치 ·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며 제국주의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그들은 조선 정부 안의 배일 친러세력을 앞장세워 서울에 러시아어 학교를 세우고, 러시아 장교 10여 명을 동원하여 조선 군인을 훈련시키는 한편, 당시 재정 고문이던 영국인 브라운을 해고시키고 러시아 대장성 관리 알렉세예프를 그 자리에 들어 앉혔다.

이처럼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문명개화와 자강 운동을 벌이던 독립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였다. 독립협회는 삼국간섭 뒤 이루어진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이 어느 한 나라의 영향력 강화로 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1년 가까이 머무는 상황에 대해 위로는 조

정 대신에서 아래로는 시전 상인에 이르기까지 고종의 환궁과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언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러한 안팎의 여론을 등에 업고 고종은 마침내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어 8월에는 황제 즉위를 준비하였다. 그 해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고 이튿날 ‘대한제국’의 성립을 나라 안팎에 선포하였다. 동시에 연호를 ‘광무’로 고쳐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았다.

광무정권은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옛 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옛 법과 새로운 법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개혁 사업의 원칙을 정하였다. 즉 ‘옛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 그것이다. 갑오·을미개혁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는 데서 출발한 광무개혁은 사실상 1896년부터 시작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

광무정권은 우선 갑오정권이 종래 8도의 지방행정구역을 23부로 바꾼 것을 도제(道制)로 환원하고 각종 향사(享祠)와 음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단발령을 철폐하였다. 이것은 갑오정권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과 함께, 갑오개혁으로 이반된 양반 유생의 반발과 흩어진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고종은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101호>를 반포하여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府制)를 실시한 바 있다. 그것은 전국을 23개의 행정구역으로 하여 23부 337군으로 하고 종래의 도·부·대도호부·도호부·군·현 등의 지방행정체제를 부·군제로 통일하였다. 당시 지방제도의 개혁은 8도의 각 감영과 안무영(按撫營) 및 개성·강화·광주(廣州)·춘천 등지의 유수부(留守府)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도의 관찰사와 안무사(按撫使) 및 각 부의 유수 이하의 지방관을 모두 폐지하였다. 그 대신 소지역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군·현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폐합하여 군으로 획일화하여 23개의 부 밑에 분속시켰다.<sup>28)</sup>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져 영동지방은 강릉부에, 영서지방은 춘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강릉부는 강릉군·울진군·평해군·삼척군·고성군·간성군·통천군·흡곡군·양양군의 9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춘천부는 춘천군·양

구군 · 홍천군 · 인제군 · 횡성군 · 철원군 · 평강군 · 김화군 · 낭천군 · 회양군 · 금성군 · 양근군 · 지평군의 13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현 양양군은 강릉부에 속해 있었다.

23부제의 실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편이라기보다는 지방관의 봉건적 절대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임 23명의 관찰사 혹은 안무사 중에서 개편된 지방관제의 관찰사에 임명된 자가 2명이고, 해당 읍의 지방관 중에서 관찰사로 승인(昇任)된 자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명이 모두 경질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23부제는 외견상으로는 획일적이고 간편하여 상당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소지역주의에 입각한 과대분할로 실제 행정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종래의 8도제를 무시한 인위적인 획정이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과 현실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3부의 지방제도는 불과 1년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다가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를 반포하여 13도가 시행되었다. 이때의 13도제는 종래의 8도를 기반으로 경기 · 강원 · 황해도를 제외한 충청 · 전라 · 경상 · 평안 · 함경도를 남북으로 분할한 것이었다. 13도 밑에는 부 · 목 · 군을 두었는데, 수도인 한성부만은 정부 직할하에 두어 도와 격을 같게 하였다. 한성부를 제외한 일반 부(府)는 광주 · 개성 · 강화 · 인천 등 경기도 관할하의 4부와 경상남도의 동래, 함경남도 덕원, 함경북도의 경흥 등 모두 7곳이었고, 목은 제주 1곳이었으며, 군은 23부제 실시 당시의 336개 군에서 약간의 통폐합을 거쳐 331개 군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들 부 · 목 · 군은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근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23부제 하에서도 인구 · 토지 등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 오던 것이었다. 부와 목은 당연히 1등급으로 취급하였지만, 군은 5등급을 대폭 축소하여 86개 군에서 단 2개 군으로 줄인 대신 4등급을 확대하여 109개 군에서 214개 군으로 늘린 점이 이전과 달랐다. 당시 강원도 26개 군은 모두 4등급에 속하였다. 그러나 23부제는 다음해 폐지되고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강릉부 양양군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개칭되었다.



### 3) 의병항쟁과 양양

의병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을 말한다. 한말의 의병 활동은 크게 보아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해 갔다. 첫 단계는 1895년 일어난 을미의병이고, 두 번째 단계는 1905년 이후의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이다.

#### (1) 을미의병

한말 의병항쟁의 효시는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으로 소급된다. 을미의병의 발단은 단발령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단발의 경우 그 자체만 본다면 근대화의 상징적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활동상 건강상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짧은 머리 모양을 할 때 근대적인 정신이 그 안에 깃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 하여 이를 조금도 훼손(毀傷)하지 않음이 효의 시초라고 배워왔던 성리학자나 그 세례를 받고 살아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단발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894년에 일본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인 ‘경복궁쿠데타’와 한 나라의 왕비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인 ‘을미사변’을 계기로 의병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초기 의병전쟁의 성격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국가와 민족이 걸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의식이나 민족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경복궁쿠데타와 을미사변이 주었던 자극은 비록 즉각적인 반발은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틈엔가 저변에서 민족의식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을미의병의 계기가 단발령이었다고 해도 그 저변에는 민족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병은 일본에 대한 대항보다도 정부에 대한 대항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김홍집 내각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공포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일본인은 무관하다고 선언해서 우리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그래서 당시의 내각은 의병항쟁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정권에서 반포한 단발령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을미의병에서는 보수적인 양반유생들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보수적인 양반유생들은 그 대부분이 동학 농민군 토벌에 참여했던 민보군(民堡軍)을 기반으로 창 의하였다. 이들은 향촌사회의 보수적인 지배층으로서 사회 · 경제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학문적 · 지연적 · 혈연적인 재지적 기반이 공고한 사족가문 출신의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조선후기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른바 위정척사사상의 전통 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 논리에 따라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반유생들은 학문적 기반과 지연 및 혈통에 기초한 치주망(綴蛛網)처럼 얽힌 연계관계 위에서 조직적인 동원이 가능하였고, 이서층의 경우에도 사회 · 경제적 성장 기반 위에서 창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을미의병 당시 영동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은 민용호(閔龍鎬)의 관동창의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29)</sup> 민용호는 고종 32년(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경기도 여주에서 거 의(擧義)한 뒤 병력을 이끌고 이듬해 1월 15일 원주의 남쪽 30여리 떨어진 신림(神林)에서 이병채 · 송형순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대장에 추대되었다. 민용호는 1월 17일 원주를 떠나 1월 29일 강릉진입을 눈앞에 두고 대관령에서 의병진의 진용을 갖추었다. 의병장은 민용호, 좌군장은 김원섭, 우군장은 이병채, 전군장은 강우서, 후군장은 박한옥(朴漢玉, 일명 朴雲瑞)이었다.

민용호는 강릉에 진입하여 강릉의 토착세력을 포섭하고 경무관보 고준식을 처단하였으며, 강릉의 선비 권인규를 초빙하여 각종 포고문을 작성하여 의병의 뜻을 널리 전파하였다. 육지와 해안에 봉수장(烽燧將)과 망해장(望海將)을 두었으며, 무사청과 예빈소를 설치하였다. 민용호는 1896년 3월 초순 원산공략에 나선 때까지 한달 동안에 우선 영동의 제군(諸郡)을 통괄하는 ‘관동구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여 주변세력을 규합하고 의병[산포수]을 소모(召募) 하는 등 전력강화에 전력하였다. 민용호가 원산공략에 나선 것은 원산이 강화도조약에 따라 설치된 개항장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들에 의해 군사 및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민용호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관동에서 준비한 병력으로 관북방면에 들어가 그곳 의병들과 합세하고, 다시 서북지방의 의병들과 연합하여 서울로 진공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이에 민용호는 원산공격을 위한 북진계획을 서둘러 2월 7일 북으로 함경남도에서 남으로 경상북도에 이르기까지 의병의 소모사를 파견하였다. 즉 오영도 총독(五營都 摠督) 권익현(權益顯)을 북각읍소모사(北各邑召募使)로 삼아 원산항의 정세를 정탐하면서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안변 6읍의 군사를, 권명수(權明洙)를 영외북각읍소모사(嶺外北各邑召募使)로 삼아 인제·양구·화천·회양·평강·김화·금성 7읍의 군사를, 이경환(李景煥)과 김윤희(金允熙)를 정선·삼척·울진·평해·홍해 5읍의 소모사로 삼아 군사를 모으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튿날(2월 8일)에는 진사 김형윤(金亨倫)을 경상도연해소모사로 삼아 의병소모와 일본군 방어의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그리고 민용호는 전군장(前軍將) 강우서(姜禹瑞)를 삼척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생 김헌경(金憲卿)에게 보내 합류를 설득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고 얼마 후 삼척 유진장(留陳將)으로 삼았다. 또 진사 이우열(李佑烈)을 양양 유진장에, 이명렬(李明烈)을 양양 수성장(守城將)에, 진사 최용각(崔龍珏)을 간성 유진장에 각각 임명했다.

민용호가 이끄는 2천여 명의 강릉의병은 원산의 일본인거류지 공격을 계획하였다. 당시 원산에는 일본인 1,400여 명이 거류하고 있었으니 공격의 주목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민용호부대가 북정(北征)을 떠난 것은 1896년 3월 4일로 강릉입성 두 달 후였다. 이때 강릉에는 이병채(李秉琛)와 민동식(閔東植)이 유진장(留陣將)과 수성장(守城將)으로 각각 남아 그들의 근거지 수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출진(出陣)에 앞서 오영도 총독 겸 북각읍소모사 권익현을 선발대장으로 하여 안변 일대를 점거하고 원산항의 적정을 탐지하도록 했다.

민용호부대는 3월 11일에 통천에 도착하였으며, 3월 17일에 원산의 길목인 선평(仙坪)에 진을 쳤다.<sup>30)</sup> 이 무렵 선평에 집결한 별도 예하부대 병력으로는 춘천에서 온 의병 170명, 고성·간성 지방에서 온 병력 240명 및 기병 30여 명, 그 외 원주·횡성·회양·양양 등지에서 모여들었고, 관북의병 300여 명이 합세하여 새로운 편제까지 마련하고 있었다.<sup>31)</sup> 민용호는 먼저 소규모의 선발대를 원산에 잠입시켜 원산시가의 곳곳

에 방화케 하여 민심을 교란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방화초기에 이를 신속히 진화함으로써, 원산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하려 했던 민용호부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민용호부대의 본진은 선발대의 실패 이후에도 해안선을 따라 북상을 계속하여 양양(3월 5일)·간성(3월 8일)을 지나 3월 9일에 고성에 도착하였고, 이를 후에 고성을 떠나 당일 저녁 무렵에 통천에 도착하였다. 민용호부대의 본진이 안변 선평에 도착한 것은 3월 17일이었다. 원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후(咽喉)가 되는 안변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당시 1,700여 명이 참여한 민용호부대는 일기불순으로 안변 선평에 유진해 있는 동안, 원산수비대장 중천우수(中川祐須) 소좌는 정찰병과 한인정보원을 파견하여 의병의 동태를 살폈다. 이어서 중천 소좌는 17일에 40명, 18일에 25명의 수비대 병력을 연안 가도를 타고 선평으로 출동시켰다. 일본 대본영에서는 의병이 원산을 내습하기 위해 이동한다는 급보를 전달받고 곧바로 육전대(陸戰隊) 병력을 실은 군함 고웅호(高雄號)를 파견하여 3월 16일 원산항에 입항하게 하였다. 의병이 선평에 주둔해 있다는 첩보를 받고 3월 17일 오전에 수병 1개 소대와 야포대를 상륙시켰다.

민용호부대와 일본군과의 전투는 3월 19일 선평장에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갑자기 내리는 진눈깨비로 화승총을 쏠 수 없는 악천후를 이용하여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원산수비대와 군함 고웅호에서 파견한 육전대 등 도합 150여 명 정도로 이들이 천여 명의 의병과 격전하였다. 기습을 받은 의병은 결사의 향전을 벌였으나, 일기불순으로 의병들이 가진 화승총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될수록 전황이 의병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민용호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원산항을 뒤로 한 채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32)</sup> 이날의 전투에서 의병측은 군사 박동이가 전사하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단 통천으로 퇴각한 민용호부대는 회양과 양구를 거쳐 3월 29일 오색령을 넘어 양양에 도착했다. 이때 민용호는 고성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없앨 생각으로 별영장(別營將) 김연상(金演常)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급파하였다. 민용호부대는 4월 3일 일단 강릉 연곡에 유진(留陣)하였다가 다음날 강릉으로 회군하던 중 뜻밖에 민용호부대의 핵심인물인 강릉유진장 이병채의 모반사건이 발생하



여 강릉입성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민용호는 곧바로 강릉부중(江陵府中)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병채는 ‘패군의 장수는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며 민용호의 입성을 거부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때 부중(府中)의 유생들이 주축이 되어 동문(東門) 안에 별도의 의병소(義兵所)를 세우고, 관찰사 이위(李暉)를 축출하고 공금 7천금을 탈취하여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던 이병채와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심이 불리함을 깨달은 이병채가 스스로 민용호에게 투항해 옴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민용호는 대진을 이끌고 원산공략을 위해 북정(北征)길에 오른 지 꼭 한달 만에 강릉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후 민용호는 강릉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하였다.

민용호부대의 원산 공략계획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대일 항쟁의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민용호부대는 이때부터 5월 24일 관군의 공격으로 강릉을 물러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병력을 다시 모아 의진(義陣)의 전열을 수습하는 한편, 영남 각 지역에 격문을 보내어 그 동안의 원산진공계획의 전말을 밝히면서 의병부대들과의 연합작전을 호소하였다.<sup>33)</sup>

민용호는 4월 영남 각읍에 격문을 보내어 상호 연합할 것을 호소한 후, 5월에는 소모사 이호성(李虎成)으로 하여금 영남의 김도현(金道鉉) 의병장에게 보내어 합진(合陣)을 요청하였다. 이에 안동의진에서 중군장(中軍將)을 역임한 김도현은 의병 60여 명을 이끌고 평해·울진·삼척을 지나 5월 초순경 민용호부대에 합세해 왔고, 민용호는 그를 선봉장으로 중용하였다. 이와 같이 민용호부대와 영남의 김도현의병부대가 제휴하여 군세가 강화되고 있을 무렵인 5월 13일경 적의 공격을 받은 민용호부대는 대관령 동쪽 기슭의 보현산성에서 공방전을 벌인 끝에 관군(경군)에게 타격을 입혔다.

한편 강릉부의 신임 관찰사 서정규(徐廷圭)가 참서관 조희봉(趙義鳳), 친위대 제2대대 중대장 정위(正尉) 김홍권(金鴻權) 등과 함께 맹일호(孟一鎬, 전 강릉부 주사), 이석범(李錫範, 민용호부대의 좌군장 역임) 등을 앞세워 관군을 이끌고 강릉을 향해 홍천까지 왔다는 소식에 접하자, 민용호는 선봉장 강우서(姜禹瑞)·신무섭(申懋燮) 등을 급파하여 강릉진입의 요로인 속사리(평창군 진부면)와 몰잇재(沒夷峙, 대화면 노근리)를 수비토록 하는 한편, 김안수(金安洙)에게 북읍(北邑)의 의병을 동원해 관군의 대관령 진입을 차단하도록 아울러 조치하였다. 또 그는 관찰사 서정규와 중대장 김홍권 이하 경병에게 각

각 효유문(曉諭文)을 보내 의병을 공격하는 것이 의리에 배치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관찰사 일행은 오색령을 넘어 양양으로 들어와 민용호부대와 전투를 벌였고, 이어 강릉외곽의 연곡으로 진출한 뒤 5월 24일 새벽 강릉부중의 의병본진으로 공격하여 왔다. 민용호부대는 이들을 맞아 김안수 · 권인하 · 강우서 · 신무섭 등의 지휘 아래 수성전(守城戰)을 벌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패하여 강릉을 버리고 산간협지인 임계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어 민용호부대는 임계를 떠나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백봉령(白鳳嶺)을 넘어 동해안의 북평에 도착한 후 삼척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는 이미 삼척 출신의 김헌경이 민용호부대의 휘하에 들어와 유진장으로 활약하면서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놓은 상태였다.

이때 관군은 강릉에서의 승세를 몰아 화비령(강릉시 강동면 소재)을 넘어 5월 31일 새벽 삼척에 이르렀다. 이에 민용호는 삼척출신 유진장 김헌경과 선봉장 김도현과의 합동작전으로 관군의 접근에 대비하였다. 관군의 공격개시와 동시에 시작된 이날의 전투는 05시부터 17시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민용호부대는 관군의 공격이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서 신속히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였다. 영남의 김도현 의병장은 민용호부대에서 20여 일간 머물렀다가 5월 31일 삼척전투에서 패한 끝에 민용호부대와 결별하고 잔여 10여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영양으로 남하하였다. 민용호부대는 삼척전투 이후 황지령을 넘어 정선—임계를 지나 다시 강릉으로 들어갔다.

한편 춘천의병의 별동부대인 성익현(成益鉉)의병이 민용호부대와 합세하고자 동해안의 통천을 지나 고성방면으로 내려왔다. 그는 친일관료인 고성군수 홍종헌(洪鍾憲)과 양양군수 양명학(楊命學)을 차례로 처단한 뒤 양양 속초리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성익현부대는 친위대 중대장 김홍권이 이끄는 관군의 공격을 받고 부득이 간성 건봉사로 퇴각하여 유진하였다. 이에 민용호부대는 성익현의병과 연합하기 위해 연곡 · 양양방면으로 나아갔다.

이때 김홍권이 이끄는 관군은 강화도 관군 500여 명 등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500~600명의 예수교도들이 가세하여 간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에 민용호부대는 6월 12일 간성의 관군과 일대교전을 벌여 그 예봉을 꺾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패배하여 순포(巡浦)로 퇴군하였다. 간성전투의 전과는 의병측이 30여 명의 관군을 포로로 잡은

데 비해 60~70여 명의 의병이 부상당하였다. 관군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자기포(自起砲)를 믿고 우천(雨天)을 틈타” 또다시 순포에 유진 중인 의병을 공격하였다. 이때 의병은 그들을 맞아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관군측의 사상자와 피포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뜻밖의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민용호부대는 정부에서 더욱 의병해산을 종용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용호는 고종에게 다시금 의거의 정당성과 의병을 해산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밝히었다. 민용호부대는 이같은 어려운 형세에서도 항전의 결의를 늦추지 않았다. 6월 24일경, 양양에 주둔해 있는 관군에 대한 공략작전을 편 결과 중대장 김홍권 이하 80여명의 관군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양양전투는 실로 민용호부대가 거둔 최후의 승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곧이어 벌어진 연곡전투에서 중군장 최중봉이 전사함으로써 민용호부대의 전력은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중봉의 전사소식을 듣자 민용호는 군중에 3일 동안 복을 입게 하고, ‘유유한 하늘이시여, 어찌 달포가 넘도록 비를 계속 내리시는가.’라고 탄식하면서 삼척으로 물러났다. 7월 하순까지 장마는 계속되었고 의병들은 그동안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가 극도로 쌓여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8월 초순 민용호는 마침내 북행대장정(北行大長征)을 결심하게 된다. 민용호가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10월 5일이었다. 민용호는 휘하 의병을 이양희에게 맡겨놓은 채 청나라의 원조를 기대하고 서간도 통화현(通化縣)을 지나 심양(瀋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민용호는 1896년 1월 중순 원주에서 거의한 지 약 10여 개월에 걸친 항전 끝에 사실상 의병을 해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2)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1905년 ‘을사조약’이 계기가 되어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을사의병은 을미의병과는 달리 국권침탈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했다. 일본은 조선을 ‘보호’하여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었지만, 그 실상은 일본의 침투를 막는 전통사회의 제도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일본의 제도를 갖다 심

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취약한 일본 자본가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조선의 토착자본가에게는 궤멸적 타격을 줄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철도 · 통신 · 화폐제도는 근대화의 상징일지는 모르지만 조선인들에게는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유생의병장들의 사고방식도 단순히 봉건체제나 윤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당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에 동감하는 농민층 · 상인층의 호응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이 시기의 의병봉기 역시 최익현(崔益鉉) · 기정진(奇正鎭) · 허위(許薦) 등 저명 유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화서 이항로의 제자로 당시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최익현은 전북 태인에서 기의(起義)하였으나, ‘일본군이면 모르되 국왕이 보낸 군사와는 싸울 수 없다’고 하며 항복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아직도 봉건적인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1906년 3월경 삼척에서 전 도사(都事) 김하규(金夏奎, 河奎)가 의병을 일으키고, 이에 황청일(黃淸一)이 가담하여 더욱 의세(義勢)를 떨쳤다. 강릉출신인 전 현감 황청일은 일찍이 민용호의 관동의진에 참가하였고, 삼척의 김하규 의병부대와 영해에서 재기한 신돌석(申堧石) 의병부대에 호응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기도 하였다.<sup>34)</sup> 그러나 당시 양양에서 직접적으로 의병에 나서 활동한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 (3)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헤이그 밀사사건, 고종의 강제퇴위, 정미 7조약, 군대해산 등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고종의 퇴위는 군주를 외세가 마음대로 갈아치웠다는 점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군대해산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그때까지 전혀 군사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움직여지고 현대식무기의 보급이 없었던 의병진영의 전력을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의병들의 투쟁은 전쟁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정미의병 단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선 의병의 지도부는



양반유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다수의 평민도 의병장이 되었다. 의병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 약 25%만 양반이었고, 나머지는 상민·군인출신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항 이후 급격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몰락하여 행상으로 연명하거나 화적(火賊)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의병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 이전의 의병은 학통을 중심으로 일어나 지역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났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면 각 지역 간의 연합전선, 대규모부대에 의한 연합작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미의병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 및 의병부대는 민공호 의병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지용기 의병부대, 유홍석 의병부대, 이인영·이은찬 의병부대, 허위 의병부대, 왕회중·김주묵 의병부대, 그리고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의 의맥을 이어간 유인석 의병장이 있다.<sup>35)</sup> 이 가운데 양양지방에서 의병항쟁을 전개한 것은 이강년과 지용기부대였다.

을미·을사의병에 참여한 바 있는 이강년은 제천 북쪽 10km 거리에 있는 배향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7월 2일(음력)에 원주진위대가 봉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로 직행하여 진위대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챙겨 배향산에다 진영을 구축하였다. 이강년은 민공호 의병부대와 함께 제천을 양면공격하여 일본수비대를 급습하여 승전하였다. 그리고 영월 주천에서 40여 의진의 회맹으로 이강년은 도창의대장(都倡義大將)으로 추대되었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북상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충청·강원·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07년 겨울 13도창의군의 전국연합부대가 창설되자 이강년은 관동창의대장 이인영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으로 집결하라는 통문을 받고 이듬해 1월 8일(음력)에 천신만고 끝에 경기도 용소동[가평 서북쪽 18km] 부근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인 양주지역으로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그것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오랜 행군을 한 탓에 병력이 피로한데다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들이 양주로 이동하는 길목을 가로막음으로써 용소동 일대에서 한 달 이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서창의대장으로서 의병을 총동원할 임무를 맡은 이강년은 예정된 날짜에 병력을 집결시키지 못하여 결국에는 서울진공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강년부대는 경기도에서 2개월 여 동안 자

주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는데, 2월 17일 용소동전투를 비롯하여 2월 26일 갈기동전투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강년 의병부대가 강원도 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온 것은 1908년 4월경이었다. 이강년 의병부대는 1908년 4월 6일 인제 서면을 거쳐 다음날 오색리로 행군한 후 4월 10일 설악산 백담사에 주둔하였다. 백담사에서 우군선봉 최동백(崔東白)이 군사 수십 명을 모집해 왔으므로 병력이 다소 보강되어 200여 명의 전열을 정비하던 중 4월 13일 일본군 추격대 500여 명이 백담사로 접근해오자, 이강년 의병부대는 이들을 맞아 만나 절 동안이나 격전을 벌여 일대 승첩을 올렸다.<sup>36)</sup> 다음날 부대를 신흥사로 옮겼다가 오세암을 경유하여 양양, 강릉으로 내려갔다. 4월 29일 강릉 사방사(四方寺) 부근에서 일본군을 만나 지구전을 전개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자, 다음날 하시동으로 내려가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1일 강릉에서 설악산 봉정암으로 행군하여 양양 서면을 거쳐 5월 2일 홍천 북면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이 양양 쪽에서 추격해 오자 이강년 의병부대는 반격하여 일본군을 퇴각시켰다. 5월 3일 밤에 현남면 해변가 백사장에 의진(義陣)을 치고 있을 때, 일본군이 습격해 오자 하한서(河漢瑞)가 정예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퇴각시켰고, 다음날 강릉 연곡으로 이동하여 군사들을 휴식케 하였다.<sup>37)</sup>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에는 5월 4일 이강년 · 이준명 · 정원팔 등 260명이 오세암에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한 『폭도사편찬자료(暴徒史編纂資料)』에는 5월 9일 이강년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양양분견대 및 주재 순사와의 5시간 동안 전투 끝에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강원지역의 양양 · 홍천 · 인제 · 강릉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강년은 자신이 지리를 잘 아는 경상도로 내려가 항전을 계속할 생각으로 태백산 줄기를 따라 남하하여 영월 상동의 운기리(雲基里)에 도착하였다. 이때 마침 백남규(白南奎) · 권용일(權用僞)이 그동안 모집한 의병을 거느리고 본진에 합류하였고, 삼척의병장 성익현(成益賢)이 또한 5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합세하여 이강년 의병부대는 일시에 대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sup>38)</sup>

이강년은 새로운 활동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안동 서벽(西壁)으로 남하하였다.

이강년은 소백산·일월산 일대에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거두었으나, 7월 2일 청풍 까치성[작성(鵲城)]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일본군 제천수비대에 체포되었다. 7월 8일 서울의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압송되었다가 평리원으로 옮겨 9월 22일에 교수형을 선고받고 10월 13일에 생을 마감하였다.

양양 출신의 지용기(池龍起, ?~1908년)는 1907년 9월 이언용(李彦用)·이완채(李完蔡)·이인재(李寅在)·신창호(申昌鎬) 등과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의병 600여 명을 지휘하여 양양, 충청북도 청주·쌍호, 경상북도 송면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 및 헌병대와 싸워 큰 타격을 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의병 250여 명을 이끌고 낭천(狼川)에서 동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곳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 뒤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으나 1908년 11월 적군과 교전하던 중 순국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의병투쟁이 있었기에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작업 자체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우리의 국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저항의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어서도 민족해방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의병전쟁의 정신과 경험이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4) 애국계몽운동과 양양

애국계몽운동이란 을사조약을 계기로 전개된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을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이다.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운동은 개항 이후 근대적 자본주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해 온 개화자강파 계열의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각종단체를 조직하고 계몽강연·언론활동·정치운동·교육구국운동·민족산업진흥운동·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계몽운동은 갑신정변·갑오개혁 등을 거치면서 심화된 개화파의 개혁이념과 독립협회의 조직적인 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수많은 학회를 설립하고, 신문과 학회지를 발행하여 여기에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했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은 이들이 발간하여 애국계몽운동의 주장을 발표한 대표적 신문들이었다. 당시 강릉사람들 사이에서 『황성신문』이 읽혀진 것으로 보아 양양지방 또한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잡지 · 신문에는 다양한 논조의 글들이 실렸는데, 그 기초는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자강론(自強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을 통해 들어온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우승열패 ·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약한 조선이 강한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것,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강자가 되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실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름 아닌 ‘교육’과 ‘식산(殖産)’이었다.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은식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은 것은 일찍 신지식을 배워서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신교육을 진흥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파하였다.

교육의 진흥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신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해 실력배양과 민족의식의 고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무수한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일제의 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한때 거의 5천 개에 달하였고, 학생수는 20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1개 군에 20개에 가까운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던 것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근대화로 나아가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사립학교는 인가를 받은 학교가 1909년 당시 53개교, 1910년 당시에는 43개교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수의 비인가학교가 있었다. 양양지방에는 현산학교(峴山學校)가 있었다.

현산학교의 설립자는 근대의 대표적인 개화파 지식인인 남궁 억(南宮 億)이다. 그는 고종 21년(1884년) 영어학교인 동문학(同文學)을 수료하였고, 1889년 궁내부별군직(宮內府別軍職)을 거쳐 고종 31년(1894년) 갑오경장 내각에 내부토목국장으로 중용되어 서울 종로와 정동 일대 및 육조 앞과 남대문 사이의 도로를 정비하고 파고다공원을 세웠다. 고종 33년(1896년) 7월 서재필 ·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창립, 중앙위원 · 서



기·사법위원·평의원 등에 선출되는 등 고위급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고종 35년(1898년) 9월 나수연·유근 등과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 국민 계몽과 독립협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1905년 3월 고종의 간곡한 요구로 다시 관직을 맡아 성주목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으나, 그 해 11월 일본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통분을 참지 못하고 사임한 뒤 귀경하였다. 1906년 2월 다시 양양군수에 임명되자 애국계몽운동에 참가하여 1906년 7월 양양의 동헌 뒷산에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구국교육을 실시하였다.

중등 수준의 현산학교는 처음에 주민들의 신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군수의 직책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학생을 등교시키고 7월 20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학생수는 200여 명이었다. 개교 당시의 교사와 교과목은 군수이자 교장이었던 남궁 억이 영어와 음악을, 정우용(鄭禹鎔)이 산수와 역사를, 김홍식(金洪植)이 일본어와 체조를, 이홍영(李鴻榮)이 국문과 한문을 각각 가르쳤다. 수업료는 없었고 공책과 연필은 무료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를 깨끗하게 사용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었고, 이를 다음 학생에게 물려주었다. 현산학교는 ‘국권갱생(國權更生)의 길은 오직 하나인 교육 밖에 없다’라는 교육 정신을 내걸어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일제의 강요로 ‘정미 7조약’이 체결되자 남궁 억은 군수를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처음 학교를 설립할 때 적극 반대하였던 지방 유림학자인 정현동(鄭顯東)에게 교장의 일을 맡기면서 학교 운영을 부탁하였다. 이 학교는 오늘날 양양초등학교와 양양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3·1운동 당시 조직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 각주

- 1) 『(奈勿王)42年 秋七月 北邊何瑟羅旱蝗 年荒民飢 曲赦囚徒 復一年租調』(『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 2) 광개토왕은 왜병을 격퇴한 후 그 군대의 일부를 신라 영토 내에 계속 주둔시켜서 왕위계승과 같은 신라의 내정에까지 간섭하였다.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인 幢主가 주둔하며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우선정, 2000 『麻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 『慶北史學』23, 114쪽).
- 3)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왕 34년 7월조.
- 4) 『일본서기』권8, 雄略天皇 8년조.
- 5) 전덕재, 1990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 6) 이우성, 1975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 비평』10-4, 창작과 비평사.
- 7) 서병국, 1981 『신당서 발해전 소재 니하의 재검토』 『동국사학』15 · 16; 조이욱, 1999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 『백산학보』52.
- 8) 송기호, 1989 『동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 市民講座』, 일조각 ; 한규철, 2005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 9) 서영일, 1999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52(申澐植博士 回甲紀念論叢).
- 10) 고려시대 관인과 구별되는 특별 부류에게 수여한 직. 태조 2년(919년)에 처음 두었고, 태조 19년(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등급 중 제8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4품이었다.
- 11) 문무관에게 수여된 관계 중 최고의 관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뒤 관계를 재정비할 때 16등급 중 제3위에 해당되었으며 품계는 종1품이었다.
- 12)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거느렸는데, 후비들의 출생지를 보면 황해도 9명, 경기도 4명, 충청도 3명, 강원도 3명, 전라도 2명, 경상도 6명, 출생지 미상이 2명으로 나타난다.
- 13) 10도는 본래 唐의 10도제를 모방한 것으로, 그 명칭도 대개 唐의 도명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었다. 행정구획으로서의 10도 명칭은 關內道 · 中原道 · 河南道 · 江南道 · 嶺南道 · 嶺東道 · 山南道 · 海陽道 · 朔方道 · 涇西道였다.
- 14) 동계는 문종 원년(1047년)에 동북면, 명종 8년(1178년)에 연해주도, 원종 4년(1263년)에 강릉도, 공민왕 5년(1356년)에 강릉삭방도, 공민왕 9년(1360년)에 삭방강릉도라고 불렀다(『고려사』권58, 지리지3).
- 15) 순양계 지역에는 속현이 없으나, 준남도 지역에는 남도 지역과 같이 속현이 두어지고 있다.
- 16) 고려전기 수군과 병선을 맡아보던 관청. 여진과 일본 해적이 자주 출몰하자 이를 방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라고도 불렀다.
- 17) 『고려사』권80, 식화지3 賑恤 災免之制.
- 18) 고종 8년(1121년)에 8월 몽골 황태제(皇太弟)가 저고여(著古與) 등을 보내와서 수달피 가죽 1만 명(領), 가는 명주 3천필, 가는 모시 2천필, 설면자 1만근, 용단 먹(龍團墨) 1천 정(丁), 붓 200관(管), 종이 10만 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 · 남순(藍筍) ·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紫黃) · 광칠(光漆) · 오동나무기름 각 10근 등을 요구하였다(『고려사절요』권15).
- 19) 속초시 설악동 남쪽에 있는 석축산성(石築山城). 일명 설악산성이라고도 한다. 둘레는 약 3,500m이고, 현재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터만 남아 있다. 이 산성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 때 권 · 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난리를 피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리고 『낙산사기(洛山寺記)』에는 고려말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성을 쌓고 피난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고려말 이전부터 존속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 20) 이해준, 1983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金哲堉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 21) 조선시대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외관직. 조선초기에는 역승(종9품)과 찰방(종6품)이 병존했으나, 중종 30년(1535년)에 역승을 폐지하고 찰방으로 일원화하였다.
- 22) 박도식, 『조선초기 上院寺 立案文書 연구』 『임영문학』26, 강릉문화원, 2003 참조.
- 23) 『중종실록』권15, 7년 5월 정사조.
- 24) 서유구, 『임원경제지』 本利志(上) 稻類.
- 25) 유시현의 본명은 유인상(劉寅常)으로 1872년부터 최시형을 도와 활동하는 점으로 보아 1871년 3월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 피신해 온 최시형을 만나 동학에 입교한 것으로 추측된다.
- 26) 천도교에서 한울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뜻으로 전도를 일컬음.
- 27)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 28) 『고종실록』권33, 32년(1895) 5월 26일(병신).
- 29) 이에 대해서는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참조.
- 30) 국사편찬위원회, 『관동창의록』, 1984, 7~8쪽.

## 각주

-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88, 18~19쪽.
- 32) 민용호는 이날의 날씨에 대해 “아, 원통하다. 하늘이 국가를 부흥시키지 않으려는 것일까, 義士를 돕지 않으려는 것일까. 이미 위태로운 경우와 해탈 징조를 가지고 있는지라 하늘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일까” 라고 탄식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巢隱倡義錄』 『독립운동사자료집』3, 1984, 269쪽).
-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1, 230~231쪽.
-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東遊錄』, 『獨立運動史資料集』1, 558~559, 575~576쪽.
- 35) 강원도의회연구회 편, 1987 『강원의병운동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 36)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 276쪽. 이 백담사 전투는 안동 서벽전투, 봉화 내성전투, 안동 재산전투 등과 함께 이강년이 의병항전 중 거둔 승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 37) 『운강선생창의일록』, 102쪽.
- 38) 백남규는 이강년이 경기도로 복상하기 전에 그로부터 호남창의장(湖南倡義將)의 직함을 받아 권용일과 함께 그 동안 경상, 충청 일대에서 4천명의 의병을 소모해 안동 서벽에 주둔해 있던 중, 이강년이 운기리에 당도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해 왔다고 한다(『운강선생창의일록』, 102~103쪽).

## 참고문헌

## ■자료

- 『三國志』(경인문화사, 1977).  
 『삼국사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일본서기』(일지사, 1997).  
 『고려사』(아세아문화사, 1983).  
 『고려사절요』(아세아문화사, 1973).  
 『세종실록』, 『중종실록』(국사편찬위원회, 1958)  
 『고종 · 순종실록』(탐구당,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아세아문화사, 1983).  
 『여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 1979).  
 『증보문헌비고』(국학자료원, 1993).  
 『임원십육지』(서유구, 보경문화사, 2005).  
 『輿圖備志』(한국인문과학원, 1998).

## 참고문헌

- 『경국대전』(『朝鮮王朝法典集』所收, 경인문화사, 1972).
- 『임원경제지』(서유구, 보경문화사, 1983)
- 『東遊錄』, 『독립운동사자료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巢隱倡義錄』, 『독립운동사자료집』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 『관동창의록』(국사편찬위원회, 1984).
- 『駐韓日本公使館記錄』5(국사편찬위원회, 1988).
- 朴貞洙 편, 『雲崗先生倡義日錄』, 국립중앙도서관 古2159-25.
- ▣ 저서 및 논문
- 강원도의병사연구회 편, 『강원의병운동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 박도식, 「조선초기 上院寺 立案文書 연구」 『임영문화』 26, 강릉문화원, 2003.
- 박도식, 『강릉의 역사와 문화』, 눈빛한소리, 2005.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
- 박용운, 『고려시대사(수정 증보판)』, 일지사, 2008.
- 서병국, 「신당서 발해전 소재 泥河의 재검토」 『동국사학』 15 · 16, 동국사학회, 1981.
- 서영일, 「新羅 五通考」 『白山學報』 52(申潁植博士 回甲紀念論叢), 백산학회, 1999.
- 송기호, 「동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 市民講座』, 일조각, 1989.
- 우선정, 「麻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 『慶北史學』 23, 경북사학회, 2000.
-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경인문화사, 1970.
-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창작과 비평』10-4, 창작과 비평사, 1975.
- 이해준, 「埋香信仰과 그 主導集團의 性格」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 『역사와 현실』 4, 한국역사연구회, 1990.
- 조이옥, 「신라와 발해의 국경문제」 『백산학보』 52, 1999.
-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2005.





## IV.3 · 1운동과 근현대사

### 1. 항일 의병운동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895년에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인 을미사변과 단발령 등을 내린 을미개혁을 도화선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1896년 당시 영동지방의 의병 대장격인 민궁호(閔肯鎬)가 지휘하던 의병들이 강릉에서 원산으로 북진하던 중 양양지방을 경유하면서 산발적인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1897년 5월에 관찰사 서정규가 관군을 거느리고 양양면에 진입하면서 민궁호가 이끄는 의병들과 충돌하여 양양면소재지에서 임천리까지 싸움터가 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관군의 증원으로 의병들이 퇴각하였다. 이 결과 민가 30여 호가 소실되었다.

본격적인 항일 의병운동은 1905년의 을사조약이 체결과, 1907년에 군대 해산 이후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1907년 8월 19일에 의병 대장 우수길(禹秀吉)이 부하 약 200여 명을 거느리고 인제군 내면에서 양양면으로 공격하여 현산학교에서 돈 2천환을 강탈하였으며, 그 외 우편물취급소, 순사주재소 등을 파괴하고 명주사 부근의 산으로 피신하였다.

동년(同年) 11월 3일에는 민궁호가 박채남(朴萃南), 주광석(朱光錫) 등과 함께 약 4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양양면을 공격하여 현산학교 및 민가 2동을 불태우고 순사주재소를 파괴하여 순사와 읍민의 사재를 약탈한 뒤 피신하였다.

1908년 5월 6일에는 이강년(李康年)이 부하 3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면을 공격하여 양양면 뒷산에서 5시간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의병들의 항전이 이 지방에서 전개되었는데 주요활동 일지는 <표4-1>과 같다.

양양군에서 의병 활동일지와 의병들의 피해는 <표4-2>와 같다.

〈표4-1〉 항일의병 활동 상황<sup>1)</sup>

성 명	주 요 활 동 내 용
박화남(朴華南) (70세)	충청도 제천에서 봉기하여 부하 80여 명을 거느리고 원주, 양양, 고성 각지를 다니면서 활동.
주광석(朱光錫) (40세)	간성군에서 봉기하여 100여 명을 거느리고 간성, 양양, 고성 등지에서 활동. 부상 후 행방불명.
어득수(魚得水) (47세)	정선군 창촌에서 봉기하여 부하 7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간성, 강릉 등지에서 활동
윤기영(尹起英) (53세)	충청도 파평군 사람으로 원주에서 봉기하여 7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강릉지역에서 활동하다 전사.
성인호(成仁浩) (58세)	경상도 성주 사람으로 양양군에서 봉기하여, 부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양양, 정선, 강릉 등지에서 활약.

〈표4-2〉 의병활동 일지

년 월 일	활 동 내 용	의병 피해
1907. 4. 2.	손양면 상운리 부근에서 접전	사망 1명, 부상자 10여 명
1907. 4.20.~22.	월천리와 어성전리 부근에서 접전	사망 2명
1907. 5. 9.	양양면 부근에서 전투	사망 5명, 부상자 10명
1907.11. 6.	의병 약 500여 명이 양양 부근에서 접전	사망 2명, 부상자 20여 명
1907.12. 1.	의병 약 80명이 양양 서쪽 산에서 접전	
1908. 6.22.	의병 약 40명이 양양 서쪽 30리에서 교전	
1908. 7. 4.	의병 13명이 양양 서쪽 40리에서 교전	
1908. 9.25.	의병 약 30여 명이 양양 서쪽 약 50리에서 교전	
1910. 8.10.	의병 약 13명이 토성면 동북방 30리에서 교전	

자료 : 양주지, 1990

양양 출신의 의병으로서는 이강년과 함께 싸우다 명주군 연곡리에서 전사한 김성서(金聖瑞)와 인제군에서 사망한 이교하(李敎夏)가 있다. 양양에서 이와 같이 항일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첫째, 초기의 의병활동은 주로 위정척사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봉기하였는데 양양지방에는 유림세력들이 당시 이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에는 포수(砲手)가 많았기 때문에 의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셋째로는 산악이 많은 이곳은 의병들의 유격전 활동에 지리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의병들의 활동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 2.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 1) 3·1만세운동

#### (1) 3·1운동 당시의 양양지방의 사회 모습

일제의 만행은 1908년 6월 17일 한낮에 손양면 송전리 쌍호<sup>2)</sup>에 오리사냥을 온 일본 순사가 송전리 고씨의 집안에서 베를 짜는 부인을 보고 희롱하자, 당시 이 마을 서당 오산제에서 훈장을 하던 고익주가 분개하여 일본인을 꾸짖고 추방하려고 하자 이에 무참하게 총살시켰으며, 이를 목격한 고혁주와 고광하가 항의하자 역시 차례로 흉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자, 헌병경찰제를 통하여 무력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하면서 1910년대 초기에는 산림령, 광산령, 어업령 등을 내려 이 지방에서의 산업 침탈을 하였으며,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내려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전국 농토의 40%를 약탈하여 농민들은 생활이 곤란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양양군은 대한제국(大韓帝國) 광무(光武) 5년(1901년) 당시에는 강릉진관(鎭管) 소속 양양군으로 편성되어 12개 면(面)으로 되어 있었는데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부내면과 부남면, 위산면이 양양면으로, 동면과 남면이 손양면으로,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사현면과 강선면이 강현면으로 개편되었으며, 서면과 현북면, 현남면은 그대로 두어 7개 면(面)으로 편성되었다. 도천면은 지금의 속초인데 당시에는 한가로운 어촌이었다.

당시 양양 상업의 중심지는 양양시장과 강현면 물치시장이었다. 동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신작로가 이즈음에 준공되었으나 아직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강릉이나 고성군과의 교류는 미약하였으며, 영서지방과의 왕래는 서면의 오색리나(오색령 옛길) 갈천리의(구룡령 옛길) 산길을 도보로 넘어 들어 활발하였다. 이에 양양시장은 영서지방의 물화(物貨)를 교류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이곳의 문호(門戶)는 대포항구였다. 이곳에서 바닷길을 이용해 원산으로, 이어 경원선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로 갔

었다. 또한 뱃길이 소련의 연해주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대포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부근의 물치시장이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이 지방의 성격은 보수와 개화세력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 가. 보수 세력의 동향(動向)

양양은 향교를 중심으로 한 유학의 고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학문중은 양양면 임천리의 함평이씨(咸平李氏)와 조산리의 강릉최씨(江陵崔氏), 손양면 수여리의 전주이씨(全州李氏), 현남면의 한양조씨(漢陽趙氏) 등이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교적 보수 세력은 동학운동 당시, 반동학군(反東學軍)을 조직하여 활동한 함평이씨 이석범(李錫範)이었다. 그는 1859년 11월 25일에 출생하여 자는 사일(士一), 호(號)는 설초(雪樵)로 성격은 사교적이면서도 호방하여 1894년에 동학군이 영월, 정선, 평창 등지에서 들어오자, 그는 양양지방의 유림들을 규합하여 토비군(討匪軍)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토벌하였다는 기록이「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과 「동학당정토인록<sup>3)</sup>(東學黨征討人錄)」에 있으며, 그 후 군부주사(軍部主事)를 거쳐 고종 때 중추원(中樞院) 의관(義官)의 벼슬을 받았다. 도천면 중도문리에 살면서 쌍천학교(雙川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남궁억(南宮 億) 군수의 신문화운동에 대응하기도하였다. 3·1운동 직전에는 도천면장도 역임했으며, 1927년 2월에 서울에서 신간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자, 그해 4월에는 양양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던 인물로 당시 군수와 경찰서장 등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인물이었다.

그 외 이 지방의 반동학(反東學) 지도자들로는 이국범(李國範, 이석범의 동생), 김익제(金翼劑), 최주하(崔舟河), 김준수(金儁秀), 장혁주(張赫周), 노정수(盧鼎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대표적인 보수 세력이었다.

#### 나. 개화 세력의 신문화 운동

양양 지방 출신의 개화 신문화운동의 선구자는 이동식(李東植)이었다. 그는 한말(韓末) 순회판사(巡廻判事)를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개화의 선구자이며,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金玉均(金玉均)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신문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구한말 개화운동의 선구자로서 독립협회의 총무, 황성신문(皇城新聞)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남궁억이 1906년에 양양군수로 부임하여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근대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학교를 통하여 신교육을 실시하고 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년회(靑年會)를 중심으로 신문화의 조류가 널리 퍼져 있었다. 때문에 일제(日帝) 초기에는 학구열이 왕성하여 양양보통학교와 대포보통학교 학생들은 곧바로 대포항구를 통하여 원산으로, 다시 개성과 서울 등으로 진학하였다. 이러한 신문화운동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혁신적인 풍토가 마련되었다.

또 다른 개화 세력인 개신교는 감리교회로서 양양면 성내리의 교회<sup>4)</sup>와 강현면 물치리와 현북면 상광정리교회가 있었다. 1919년 당시 양양감리교회는 전도사 조영순에 의하여 전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양양보통학교 졸업생의 상당수가 교인으로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에 비하여 대포에 이웃하고 상업 중심지인 물치리교회와 3·1운동 당시 9명의 피살자와 20여 명의 부상자를 내어 참상이 가장 심하였던 상광정리 교회는 초창기 활동으로 양양감리교회에 비하여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영순(趙英淳)전도사는 양구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양양감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활동을 하면서, 양양 지방 근대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는 이 지방 3·1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한 조화벽(趙和璧)의 아버지이며, 조화벽 여사는 유관순의사의 오빠 유우석(柳禹錫)의 부인이다. 때문에 3·1운동 직후 유우석 가족은 이 곳 양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고모 유정숙(柳貞淑)여사는 양양면 사천리에서 여생(餘生)을 보냈다.

양양교회 청년지도층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옛 도호부의 이속(吏屬)인 경주김씨와 경주이씨의 후손으로서 이 시기의 전반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보수적 체제에 반발하는 심리적 동기가 교회를 찾게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문화 물결이 감리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근대사상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 사상은 3·1운동의 소지(素地)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보수 세력의 전통적인 왕도사상(王道思想)에서 나온 항일사상과 연결되었으며, 이 지방 만세운동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였다.

## (2) 3·1만세운동

### 가. 독립선언서의 입수(入手)

강원도 영서지방에 독립선언서의 배부는 3월 2일 천도교의 안상덕(安相德)이 비밀리에 강원도와 함경도에 전달하고자, 경원선으로 원산에 가던 중 이날 평강(平康)에 내려 이곳 천도교구에 선언서 1부를 전하므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sup>5)</sup>.

그러나 양양지방의 독립선언서는 두 갈래로 독립선언서가 입수되었는데, 하나는 유교적 보수 세력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감리교 개화 세력에 의해서 들어왔다.

가) 1919년 1월 21일에 고종(高宗) 황제(皇帝)가 일본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2월에 이곳에 전해지자, 2월 20일 저녁에 현산공원(峴山公園)에 이종만(李鐘萬)을 비롯한 유림(儒林) 20여 명이 모여 한성(漢城)쪽을 향하여 ‘망곡(望哭)’을 한 후 임천리 이교완(李敎完)의 집에 모여 ‘국상(國喪)의 예(禮)는 복상(服喪)으로 조의(弔意)를 표하는 것이 도리(道理)’이라며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할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협의한 결과, 이석범을 비롯한 10여 명을 상경(上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월 25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유림들이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에 올라갔다<sup>6)</sup>. 이때 나이 61세였던 이석범이 한성에 가서 서울의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양양의 만세운동을 위하여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등의 자료를 몸에 숨겨 오던 중 일본군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검문소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버선 속에 숨겨 무사히 일행과 함께 3월 20일에 귀향하였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이석범은 고향에 돌아온 그날 동생 이국범과 논의하여 자기의 아들 이능렬(李能烈)을 앞장세우고, 도천면에는 중도문리의 김영경(金永經)을, 강현면에는 적은리의 장세환(張世煥) 등을 책임자로 정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나) 서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 도사의 딸 조화벽은 개성소재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3월 3일 개성의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휴교령을 내리자, 독립선언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경원선 열차를 이용하여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뱃길을 이용하여 대포항에 도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조화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학교(호수돈여학교)에서 만세시위를 한 후 학생들이 지방으로 분산하였다. 내가 대포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소지물을 전부 압수하고 나를 경찰서장 관사로 끌고가 심문을 하였다. 그러나 가방의 버선목 솜속에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는 발각되지 않아 그것을 교회 청년 김필선에게 전달했다.

이후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인계하여 청년지도자들과 중심이 되어 은밀히 만세운동을 추진하던 중 양양보통학교 선배인 임천리의 최인식과 연락이 되어, 보수적 유교 세력과 연합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양양에는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천면 대포리 주재소는 도천면과 강현면을 관할하였고, 현북면의 기사문리 주재소는 현남면과 현북면을 관할하였다. 손양면과 서면 오색리에 각각 주재소가 있었는데 면소재지가 아닌 오색리에 있었던 서면 주재소는 3·1운동 이후 철수하였다<sup>7)</sup>.

## 나. 지역별 계획

양양지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개 면으로 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현남면을 제외하고 6개 면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는데, 각 면의 만세운동을 위한 조직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양양면 만세운동 계획

양양면에서의 만세운동 계획은 유교와 감리교회 세력이,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연합적인 계획이 전개되었다.

#### 판결문 ①

이름 : 최인식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林泉里)	직업 : 대목직(목공)	나이 : 28세
이름 : 김재귀(金在龜)		
주소 :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南門里)	직업 : 농업	나이 : 20세
이름 : 김규용(金奎容)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서문리(西門里)	직업 : 농업	나이 : 19세
이름 : 김필선(金弼善)		
주소 :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직업 : 면사무소 급사	나이 : 17세
이름 : 김계호(金啓鎬)		
주소 : 양양군 양양면 청곡리(靑谷里)	직업 : 등기소 고용원	나이 : 18세

#### 주 문

피고 인식, 필선, 재귀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귀용을 징역 1년에, 피고 계호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물건은 전부 몰수 한다.

#### 이 유

피고 인식, 필선, 재귀, 규용은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고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피고 등이 살던 양양면 장날에 모이는 군중을 선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하에 서로 함께 안녕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고 군중에게 배부하여 기세를 올리기 위하여 구한국기(舊韓國旗, 태극기)를 많이 작성할 것을 공모하고 동월(同月) 3일 피고 재귀는 옥양목 및 백지를 구입하여 피고 필선과 모의하고 구한국기를 인쇄하기로 하고 옥양목 및 백지를 동 피고에게 교부하매 동 피고는 양양면사무소에서 등사관을 사용하여 그 백지 중 2백매에 대한독립만세, 양양군의 문자, 태극모양 등을 인쇄하여 이를 휴대하고 도중에 만난 피고 재귀, 규용과 함께 피고 인식을 방문하여 서로 제휴하고 동인이 사는 마을의 이교정(李敎貞)집에 이르러 전시(前示)의 옥양목을 원료로 하고 구한국기를, 또 용지에 인쇄한 국기와 같은 것을 묘사(描寫) 중 피고 계호는 이에 응하였으므로 이상의 피고 등은 위 작업에 종사 중 군수 이동혁(李東赫)이 와서 전시의 인쇄기(증 제3호), 천으로 만든 기(증 제2호) 묘사한 종이로 만든 기의 일부(증 제4호)를 빼앗고 그 부주의한 마음가짐을 타이트르므로 위 피고 등은 계획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여 잔여의 묘사지(증 제1호)를 휴대하고 동면 거마리(車馬里)로 달려가 동리(同里) 김종태(金鐘台)의 집에서 일박(一泊)하고 다음 아침 동소(同所)를 출발하여 김종태는 천으로 만든 기를 휘두르고 선두에 서서 전진하고 피고 등은 이를 따라 도중에서 시장으로 가는 자에게 전시의 계획을 설명하고 권



고하여 위중 제1호의 기를 배부하고 이를 휘두르게 하여 동일(同日) 11:00경 양양면 시장에 이르러 피고 인식이 먼저 조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기타의 피고는 이에 화창(和唱)하여 모여든 군중 50여 명으로 하여금 화창케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sup>8)</sup>.  
 …… 이하 중략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이 양양면에서의 만세운동계획은 최인식, 김필선 등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계획을 추진한 이석범은 그의 고향인 임천리의 이교완(李敎完)의 집<sup>9)</sup>을 거점지로 하여 전례(前例)와 같이 주로 30세 전후의 청장년들을 규합하고자 최인식을 계획에 참여시켰다. 최인식은 양양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보통학교 출신들과 동문(同文)으로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직업이 목수로서 군관내의 대·소규모의 토목사업은 거의 도맡아 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신분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의 주모자들을 모집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시기에 양양감리교회에서는 3월말 조화벽이 가지고 내려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교회 청년지도자이며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사무소 고용인이었던 김필선과 등기소 고용인 김계호, 김주호 등에게 인계되어 비밀리에 계획이 진행되었다.

양양보통학교 출신인 최인식과 김필선 등이 선후배 관계로 서로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서, 유교와 감리교 세력은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어 연합 세력을 형성하여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에 3월 27일 19:00에 삼진날 ‘율계(律契)’를 계기로 이교완의 집에 추진세력들이 모여 계획을 논의하여 독립선언서 인쇄 및 태극기 제작 책임자와 각 면의 연락책임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에 독립선언서 등사 책임자는 김필선이 태극기 제작은 성내리의 김두선(金斗善)과 거마리의 김중태 및 각 면의 책임자에게 맡겨졌다. 이리하여 이석범과 이교완은 양양의 유교사회를 중심으로, 최인식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서민층의 참여를 통한 만세운동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각 면의 책임자와 연락원은 <표4-3>과 같다.

〈표4-3〉 각 면의 책임자와 연락원

면	책 임 자 및 연 락 원
양 양 면	최인식, 김필선, 김명기
강 현 면	장세환, 김원식
손 양 면	신세묵(辛世默), 김종택(金鍾澤)
현 북 면	박규병(朴奎秉), 이성윤(李聖允), 오세옥(吳世玉)
도 천 면	이능렬, 김영경
서 면	노용수, 박춘실

이렇게 추진된 양양면 마을마다의 책임자들을 보면 감곡리는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道), 이원희(李源喜)의 삼부자가 맡았고, 거마리는 최인식의 처남 김명기(金明基)와 김종태가 앞장섰고, 임천리는 총본부로써 최인식 이외에도 최항식(崔亢植), 안광수(安光洙)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조산리는 최영덕(崔永德), 최영직(崔永直)형제, 청곡리는 김계호, 서문리는 김주열(金周烈), 김규용(金圭容) 부자, 남문리는 김재구(金在龜), 김주호(金周鎬), 김필선, 김봉운(金鳳運), 사천리의 이정희(李貞熙)가 각자 자기 마을을 맡고 있었다. 최영덕, 이관진 등은 이석범 혹은 그의 동생 이국범이나 이교완 등과 친분관계에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경우는 최인식과 그의 처남 김명기의 활약 또는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에 이석범이 양양의 대표적인 유교세력이었다면, 기능인들 사이에서는 최인식과 김명기가 으뜸이었다고 전해지며, 또한 보통학교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립선언서는 면사무소 교용원인 김필선과 김주호, 김계호 등이 면사무소 창고에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등사한 뒤 새벽에 김필선이 밀봉하여 임천리 본부에 전달하였고, 태극기는 김두선이 중심이 되어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김재구, 이원희, 이두형, 김규용 등이 4월 1일 19:00부터 성내리 뒷산 곳집(상여보관소)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3일간 5천여 매의 태극기를 수기(手旗)로 만들었으며, 한편 임천리에서는 이교정과 이건충(李建忠)의 집에서 이현철(李鉉喆), 김형진(金衡鎭) 등이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태극기를 만들다가 4월 3일 이교정의 집에서 만들던 사실이 군속(郡屬 : 군청의 직함) 심운택에게 발견되어 당시 양양군수 이동혁과 같이 와서 태극기 374매 및 재료 등을 압수<sup>10)</sup>하고 주모급 22명을 잡아 갔으며, 다음날 장날인 양양시장을 철시(撤市)하였다<sup>11)</sup>. 또한 감곡

리 이상온(李相璫)은 자기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청곡리, 기정리, 강현면의 금풍리, 사교리, 방축리, 물갑리, 둔전리, 간곡리 등을 다니며 군중을 동원하였다.

#### 나) 강현면과 도천면의 만세운동 계획

이곳은 이석범을 중심으로 유교세력과 물치리의 감리교회 세력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판결문 ②

이름 : 이능렬

주소 :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직업 : 농업,                      나이 : 32세

이름 : 김원식(金元植)

주소 :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직업 : 농업,                      나이 : 24세

이름 : 이형우(李炯雨)

주소 :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                      직업 : 농업,                      나이 : 26세

####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능렬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 원식, 형우를 각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 이 유

피고 능렬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할 의사가 계속되어 1919년 4월 4일 밤 양양군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국(李鍾國)의 방에서 차압된 태극기 2폭을 작성하고 동(同)이민(里民) 수명에 대하여 명 5일 동군(同郡) 강현면 물치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겠으니 여기 참가 하라고 선동하고, 다음 5일 정오경 물치시장에서 선동에 응하여 모여드는 군중 수백 명을 지휘하여,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다시 위 군중을 거느리고 약 20정(町) 거리인 도천면 대포경찰관 주재소 부근에 이르러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 군중에 대하여 양양경찰서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약속한 것은 불법이다. 명 6일은 양양면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고, 또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도록 요구할 터인데 ‘일동(一同)도 와서 참가하라’는 취지를 말하고 선동하여 다음 6일 16:00경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양양면 시장에서 전시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며, 피고 원식, 형우는 같은 정

치의 변혁을 목적하는 의사를 계속하여 피고 능력의 전시행동에 가입하고 물치시장 및 양양면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이능렬의 당 공정에서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밤 이민(里民) 수명에 대하여 선동한 점을 제한 위의 사실을 자백, 사법 경찰의 동피고 신문조서 중 '대정 8년 4월 4일 밤 이민 수명에 대해 선동한 사실의 자백 기재, 피고 원식의 당 공정에서 자백, 사법경찰관의 피고 형우 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 압수된 태극기 2쪽의 현존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sup>12)</sup>... 중략

강현면에서는 이석범의 아들 이능렬과 동생 이국범이 앞장서서, 도천면에는 중도문리의 김영경을, 강현면에는 적은리의 장세환을 책임자로 하여, 4월 3일(음력 3월 3일 삼짇날) 중도문리 이종황(李鍾黃)의 집에서 친목계를 가장(假裝)하여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도천면에서는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 부월리의 이종순(李鍾淳)이 합세하여 주역에 나섰고, 강현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마을을 담당하였는데, 장세환을 주축으로 물치리에는 김두영(金斗榮), 박제범(朴齊範), 김대선(金大先)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계획에 참가하였고, 강선리에는 전달원(全達元),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북리에는 이철우(李喆雨), 이형우, 중북리에는 김창렬(金昌烈), 심한준(沈漢俊), 간곡리에는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에는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朴鳳來), 침교리의 김원식, 김진선(金振璇), 적은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주청리의 김경도(金敬道) 등이 각자의 마을을 맡아서 추진하였다.

위의 열거한 사람들 중에서 김두영과 전달원은 당시 감리교회 교인이었으며, 그 외는 대부분 마을의 현직 이장(里長)이거나 과거 지냈던 사람이었다. 김철기는 서당 훈장이었다.

#### 다) 서면의 만세운동 계획

이곳은 임천리의 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임천리의 이교완의 집을 본부로 한 이석범계열의 만세운동 계획은 이웃한 서면으로 확산되어 북평리 노용수(盧龍秀)를 중심으로 용천리의 이장 노병우(盧炳禹)와 최명옥(崔明玉)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상평리도 임천리에 이웃한 곳이어서 임천리와 직접 연결되었다. 특히 상평리에서의 만세운동은 박춘실(朴春實)의 활동이 컸는데, 그는 원래 인제 사람으로 한말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일제시대 상평리에 피신하여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임천리에서 만든 종이 태극



기를 이교학(李敎學)을 통해 받아 자기 집에서 수기(手旗)를 만들었다.

라) 손양면 만세운동 계획

이곳의 계획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채 7번국도를 중심으로 노하(路下)와 노상(路上)으로 나뉘어져 전개되었다. 이유는 가평리 주민들이 4월 4일 만세운동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판결문 ③

이름 : 최한두(崔漢斗)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주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41세

이름 : 김진열(金振烈)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38세

이름 : 김종택(金鍾澤)

주소 :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직업 : 농업, 이장      나이 : 45세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최한두, 김진열, 김종택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제1. 피고 최한두는 양양군 손양면 주리 이장인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이 운동을 할 것을 기도하여 1919년 4월 5일 09:00경 피고의 선동으로 그 취지를 찬동한 이민(里民) 약 40여 명을 인솔하고 구한국기를 세우고 양양면 시장에 이르러 피고 김진열의 일당과 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하고,

제2. 피고 김진열은 동군 동면 우암리 이장인데,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운동을 하기로 기도할 취지로 이민을 선동하고 동이민 약 30여 명을 인솔하고 전시와 같은 시일, 장소에서 피고 최한두의 일당과 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하고,

제3. 피고 김종택은 상왕도리 이장으로서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이 운동을 할 것을 기도할 취지로 이민을 선동하고 동월 6일 이민 약 20여 명을 인솔하고 구한국기에 ‘조선독립’ 이라고 쓴 것 2쪽을 세우고 양양면으로 들어와 면입구 남대천 다리 앞에 이르렀는데 경찰 관헌에게 저지 되었으므로 동소에서 인솔한 이민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동군 동면 연창리에서 동군 도천면 면민 등이 집합해 있다는 것을 듣고 동소로 달려

가 합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sup>13)</sup>. …… 이하 중략

손양면은 이전의 동면과 남면이 통합된 면으로 오늘날 보통 노하(路下)로 불리는 옛날 동면은 유교적 양반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었으며, 가평리와 송전리의 제주고씨 등이 계획에 참가하였다. 가평리의 계획은 옛 이장이었던 신세묵과 당시 구장이었던 함흥기(咸鴻基)가 담당하였다. 양양 3·1운동에서 가장 장열(壯熱)한 죽음을 한 함흥기는 현산학교와 양양보통학교 출신으로 양양면의 동창들과 연락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북면 상광정리의 오세옥등의 친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평리의 만세 군중을 동원하는 데는 신세묵의 역할이 컸다<sup>14)</sup>.

오늘날 노상(路上)으로 불리우는 옛날 남면 지방에서는 상왕도리의 김종택, 주리의 최한두, 우암리의 김진열 등 당시의 이장들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에서 양양면과 연락을 취하고 있던 김종택은 현재 손양면 경찰지소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지방의 학문과 도덕의 중심이던 삼익서당(三益書堂) 훈도의 손자였다. 출옥 후에도 일제의 학정에 못 이겨 1940년에 자결하였다.

손양면의 만세계획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다. 그것은 양양군에서 계획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하는 마을은 모두 자기 마을에서 수기를 만들었는데, 손양면의 만세 군중은 비록 다른 곳과 같이 매호당 한 사람씩은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왕도리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획이 단시간에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농악대를 앞세운 점은 특이하면서도 농민들의 반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마) 현북면 만세 계획

이곳의 만세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졌고 시위도 별도로 추진되었다.

판결문④

이름 : 박규병(朴奎秉)

주소 :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직업 : 농업, 나이 : 31

##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 박규병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 박규병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포제 국기 1폭을 몰수하고 기여는 차출인에게 환부한다.

## 이유

피고는 1919년 3월 초순 이래 조선 내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행해져, 그 방법으로 조선 독립만세를 부른다는 것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자기 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에 나아가 독립운동에 이바지하려 하고 있던 차에, 4월 중 실제 아모(동생 박병원)가 손병희 외 32명의 명의로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를 소지한 혐의로 양양경찰서에 구속이 되었으므로 이 기회를 타서 다수 군중을 선동하고, 한쪽으로는 그 기세를 믿고 실제(實弟)를 석방할 것을 청원하기로 기도하고, 동년 4월 6일 마을의 가마(釜) 제조장에서 모여든 약 40명의 군중에 대하여 전시의 기도를 고하고 그 찬동을 얻고 명 7일 아침 동면 장동<sup>15)</sup>(獐洞), 이현(里峴)에 집합하고 구 한국기를 세우고 함께 양양면내로 쇄도할 것을 약속하고 이날 밤 자택에서 원심 상 피고 박용규(朴容圭)와 함께 구 한국기 1폭을 제작하여 다음 7일 아침 앞서 기약한 대로 위 장동, 이현에서 모여오는 민중 100여 명의 선도자가 되어 구 한국기를 세우고 양양면내로 향해서 행진하던 도중 동읍 서단(西端) 임천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어 용천리에서 만난 동 서원에 대하여 조선독립 운동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힐문(詰問<sup>16)</sup>)하여서 치안상 방해를 하였다.<sup>17)</sup>

위 판결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하나는 4월 4일 양양장날의 만세운동에 자극되어 현북면 원일전리의 박규병이 주동하고 장리에서 이곳과 도리의 학동(學童)들을 모아 한학을 가르치고 있던 이성윤이 합세하여 계획하였다.

다음의 또 하나는 양양지방 만세운동 중에서 가장 참욕한 기록을 남긴 소위 ‘기사문리 사건’의 계획인데, 이곳은 원래 기사문리 주재소의 습격을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양양면에 가서 시위할 계획이었던 것을 4월 9일인 당일에 변경하여 ‘기사문리 사건’을 일으켰다.

## 판결문⑤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구장) 김창환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구장) 권광식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구장) 김종성, 황선극, 한윤성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구장) 김익렬, 오세옥, 김종대, 이회원, 오정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구장) 김우근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문종석, 윤명종

양양군 현북면 도리(구장) 김재한

#### 주 문

위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재한을 징역 1년 2월에 처하고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을 8월에 피고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을 6월에 처한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을 불구류 25일에 처한다. 피고 김재한, 김창환, 권광식, 김종대, 오정현,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김우근, 김익렬, 문종석에 대해서 미결구류일수 180일을 본형에 삽입한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에 대해서 미결구류일 집행 본형에 삽입한다. 피고 오세옥은 무죄.

#### 중 략

피고 김재한은 1919년 3월부터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행하는 것에 찬동하고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 대해 동 운동을 행하도록 선동하여 동년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사무소 앞에 다다르게 하여 전시 운동케 하였다. 피고 김익렬, 문종석, 김창환, 권광식, 김종성, 한윤성, 이회원, 오정현, 김우근 등이 동소에 모여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독립만세를 소리쳐 부르게 했고, 피고 김종대도 같은 곳에 모여 가담한 탓으로 피고 11명은 범인 이외의 사람에게 종으로 만든 태극기 작은 것 34기, 큰 것 1기를 주어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황선극, 윤명종은 같은 날 같은 곳인 도로에서까지 만세를 고창 선동 시켰다.

기사문리 사건의 계획이 당초에 시작된 것은 상광정리에 있던 감리교회의 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오세옥이 주동이였다. 광정교회는 교회간의 연락으로 만세운동의 정보를 입수하였고, 또 오세옥과 친척관계인 손양면 가평리의 함흥기와 연락이 되어 있었다. 오세옥은 상광정리의 호족인 해주 오씨로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오정현을 참여시켰다. 오정현은 면서기의 경력을 가졌고 학문에 밝아서 그는 여러 곳에 보내는 통문(通文)을 담당하였다. 이 계획은 확대되어 현북면의 유학자들인 임병익(林秉翼)과 박원병(朴元秉), 김재한(金在漢) 등이 만세운동 계획에 참여하였다. 이에 각 마을에서는 마



을 이장들이 책임을 맡고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계획이 확대된 것은 상광정리에 살던 포수(砲手) 김종대(金鍾大)와, 이응렬(李應烈) 권사의 활동이 컸었다.

당시 계획에 참가했던 마을의 이장은 다음과 같다. 상광정리 김익열, 중광정리 김우근(金禹根), 하광정리 김진혁(金振赫), 명지리 권광식(權廣植), 대치리 김종성(金鍾聲), 말곡리 김창환(金昌煥), 원일전리 박용기(朴容琦), 도리 김재한(金在漢), 어성전리 김두칠(金斗七) 등이다. 양양지역의 만세운동의 중요세력 및 각면의 책임자와 연락원은 <표 4-4> 및 <표 4-5>과 같다.

〈표4-4〉 만세운동 계획의 중요 세력

유교 세력(보수 세력)		감리교(개화 세력)	
이석범	이교완	조영순	조화벽
최인식과 양양보통학교 출신들의 역할로 연결(이교완의 집 본부)			

〈표4-5〉 각 면의 책임자 및 연락원

면	책임자 및 연락원	비 고
양양면	이교완, 이관진	유교
	김두선, 김필선, 김주호, 김계호, 김규용, 김재구	감리교, 보통학교 출신
	최인식, 김명기	기능인, 보통학교 출신
도천면	이능렬, 김영경	쌍천학교, 유교
강현면	김철기, 장세환	유교
	김두영, 전달원	감리교
손양면	신세묵, 김종택, 최한두, 함흥기	마을 이장
현북면	오정현, 박규병, 이성윤, 김재한	유교
	오세옥, 이응렬	감리교

#### 나. 만세운동의 전개

앞에서 지역별 조직화에 대한 설명은 양양군의 면별로, 또 그 계획의 연결 관계를 따라 살펴보았다. 그러나 만세운동이 실제 전개 과정은 사전에 군수 및 일본경찰의 감시와 탄압으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날짜별로 살펴본다.

## 가) 4월 3일

이날은 만세운동이 없었으나 운동 계획이 발각되어 임천리에서 몇 사람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일어났다. 내일 양양 장날에 대규모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양양면, 서면, 손양면의 가평리 등에서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가 한창이었다. 특히 양양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양감리교회 청년회 지도자들이 성내리 뒷산의 곳집(상엿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고, 임천리에서는 이교정, 이견충의 집에서 4월 1일부터 옥양목과 백지로 태극기 1,100여 개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중 이교정의 집에서 만들던 사실이 군속 심윤택이 눈치 채고 고발하여, 군수 이동혁이 출동하여 태극기 374매 및 제작 도구인 등사기 등을 빼앗기고, 이석범을 비롯한 주모(主謀)급 22명이 붙잡혀 갔으며, 다음날 장날인 양양시장을 철시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江原道長官)<sup>18)</sup>이 조선 총독부의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일(本日) 양양군(襄陽郡)에서 10~13명의 청년 집합(靑年 集合)하여 태극기 3백70매(三百七十枚)를 제(製)하고 있음을 발견(發見) 압수(押收)하다. 명일(明日)의 시일(市日<sup>19)</sup>)을 이용(利用)하여 사(事)를 양(揚)코져 한 계획(計劃)임과 여(如)하여 내(內) 유력(有力)한 면장(面長)<sup>20)</sup>도 가(加)하고 있는지 의심(疑心)있기로 경찰(警察)과 협의(協議) 경계(警戒) 중(中)<sup>21)</sup>」... 이하생략

이와 같이 임천리 계획의 일부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여 최인식, 김종태, 이원도 등은 거마리 김종옥의 집 뒤의 곳집으로 옮겨 계속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성내리 뒷산의 곳집과, 감곡리의 이상온이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날을 이용한 전체 계획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 나) 4월 4일

이날의 만세운동계획은 4월 1일 각 면의 연락원이 이교완의 집에 모여 결정하였다. 이날은 음력 3월 4일로 양양 장날이었다. 아침부터 각 면 마을에서 장꾼으로 가장한 만세 군중들이 양양장터로 모여들었다. 당시 경찰의 힘으로 장날의 수천 군중을 수색하거

나 막을 길이 없었다. 태극기도 두루마기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만세군중을 일일이 수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총을 겨눌 뿐이었다.

양양면에는 동면 부근 마을의 만세 군중이 먼저 들어와 시장(市場)과 군청,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 모여 최인식, 김재구, 김필선, 김계호 등과 만세를 불러 분위기를 돋우었다. 동쪽에서는 최영덕, 최영직이 인솔하는 조산리의 군중, 이정희가 인솔하는 사천리의 군중들이 청곡리 군중들과 합세하여 양양 시내로 들어오다가, 연창리 대미소 밑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최영원 등 다수가 체포되었으나 군중은 경찰저지를 뿌리치고 계속 들어왔다. 남쪽에서는 손양면 각리에서 동원된 군중이 들어오다 남대천 동운교(東雲橋) 앞에서 저지하는 일경과 대치하다가, 다리 상·하류로 흩어져 남대천을 건너 들어왔다. 서쪽에서는 용천리 방면 군중들이 태극기를 높이든 노병례, 최선옥, 최선극 등을 선두로 하여 용천리와 북평리 사이 다리를 건너 들어왔다. 그리고 임천리와 거마리 군중들은 서문밖 고개로 거마리 김종태가 앞장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장꾼들에게 만세운동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들어왔다. 북쪽에서는 감곡리 군중들이 북문을 넘어 들어오다가 포시(浦市)<sup>22)</sup>집 앞에서 일경의 저지로 대치하다가 앞장섰던 이관진, 이원도, 이원희 3부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도 계속 돌파하여 들어왔다. 이리하여, 양양면에 모여든 만세군중과 철시가 된 줄도 모르고 장 보러온 사람들도 모두 만세를 불러 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고 한다.

점심때를 전후해서는 만세소리와 태극기의 물결이 장터와 경찰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군청주변의 취산루(醉山樓)를 메우고 흡사 독립을 쟁취한 듯한 만족스러운 분위기가운데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3일 임천리에서 연행된 22명의 석방운동이 실패하고, 만세군중에서 체포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늦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져 만세군중들이 일본인 집에 돌을 던지자 일본인들은 쫓겨 경찰서로 피신하였으며, 먼 곳의 각 면리의 군중들이 모여들어 수천 명의 군중이 양양면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체포자의 석방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을 던지자<sup>23)</sup>, 이에 일본경찰은 발포(空砲)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격분한 군중들은 더욱 돌을 던지며 격렬히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전신문(電信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5일 오전 0:30 접수

본일(本日) 편(扁)히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락(部落)으로부터 야소교도(耶蘇敎徒)를 중심으로 한 수백명(數百名)의 일단(一團)이 읍내(邑內)로 진입(進入)하려 함을 저지(沮止)함에 읍내(邑內) 배회자(徘徊者) 수백명(數百名)과 호응(呼應)하여 만세(萬歲)를 창(唱)하다. 주모자(主謀者)를 검거(檢擧)하고 해산(解散)시켰으나 상(尙)불온(不穩)의 상태(狀態)이다<sup>24)</sup>.」

※ 4월 5일 오전 10:00 접수

작야(昨夜) 다시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 부근(附近) 인민(人民) 약(約)육백(六百) 읍내(邑內)로 내습(來襲), 읍내민(邑內民) 약(約)오백(五百) 차(此)에 화(和)하여 소요(騷擾)를 극(極)하며 특(特)히 유치인(留置人)탈감(脫監)을 위하여 경찰서(警察署)에 침입(侵入) 약탈(掠奪)을 극(極)함으로서 무기(武器)를 사용(使用)하여 일단(一旦) 진압(鎮壓)하였으나 형세(形勢)불온(不穩), 폭민(暴民)사상(死傷) 있었다<sup>25)</sup>.」

이와 같이 군중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가운데 손양면 가평리에서 만세군중을 이끌고 온 가평리 구장 함흥기(당시 22세)는 경찰서장실로 뛰어 들어가 일본 사타쿠(舍澤：사택)서장에게 서장실에 있던 화로(火爐)를 들어 던지려 할 때, 일본 경찰 아끼야마(荻郡秋山：찰군추산)와 오오이시(大石：대석) 두 명의 칼(일본도)에 양팔이 잘린 후 목을 찢려 죽었다. 이에 뒤따라 뛰어 들어가 또다시 화로를 던지려던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당시 22세)도 일본도에 목을 맞아 쓰러졌다. 이에 군중들이 격분한 가운데 상평리의 김학구(金學九)가 군중 속에 있다가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다가 일경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는데, 이 때 사용한 총은 엽총이었다. 이때에 총에 맞은 부상자는 오후 늦게 참가한 용천리의 이흥달(李興達：머슴으로 반병어리였음), 노병우, 박의병(朴義秉), 한원일(韓元一), 남순극(南淳極), 박경화(朴京化), 이두하(李斗夏), 노병택(盧炳澤), 남성극(南成極), 최명옥(崔明玉), 김경숙(金敬淑) 등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북평리의 용조원(龍照輦), 가평리의 신영묵(辛永默) 등 13명이었다. 그러나 부상자는 이외에도 더 많았다.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일본경찰에 의해 주동, 또는 가담 등이 밝혀지면 감옥이나 태형(笞刑)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겼기 때문이다<sup>26)</sup>.

경찰서장에 덤벼들다 죽음을 당한 함흥기의 시신은 경찰서 내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다가 10여 일 후 가족에게 인계되어 마을민이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으나, 하관(下棺)직후 일본경찰이 파헤치고 관을 깨버렸다. 이유는 장례식 때 동네 전 주민이 모여서 울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손양면 간리에서 객지살이 하던 권병연의 가족은 그 이후 행방을 감추었다. 함흥기와 권병연의 충혼비는 손양면 간리 7번국도 길가에 있다가 손양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7번국도변으로 옮겨졌다.

이날 시위로 옥고를 치른 복역자는 최인식, 김재구, 김필선, 김주열, 김봉운, 이원도, 이원희, 김주호, 김규용, 최항식, 김계호, 최영덕, 김종태, 김명기, 노승우, 신세묵 등 16명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고(獄苦)를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함흥지방법원이나 강릉지청의 판결문이 현재 없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한 사람의 것도 일부만 남아있으며, 일제시대에는 옥고를 치른 것을 스스로 감춰야 일제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으며, 그 후 26년이 지난 1945년에 광복이 되었으니 흘러간 시간 속에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원도는 석방된 후 국외로 망명하여 행방불명이며, 또 남문리의 김필선은 출감 후 1920·30년대 청년운동과 농민조합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한 뒤,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사하였다고 한다. 임천리의 이석범은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갑부였던 이교완도 복역치 않은 것은 일본이 회유, 분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날 시위로 산림간수 1명도 부상당하였다<sup>27)</sup>.

#### 다) 4월 5일

이날은 양양면을 비롯하여 손양면, 그리고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담당하였다.

손양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김종택이 주도한 왕도리 주민과, 최한두, 김진열이 앞장선 주리, 우암리의 주민들이 제각기 자기 마을의 이장을 앞세우고 양양면내로 향하였다. 이때 왕도리에서는 커다란 태극기를 앞세우고 갔지만, 서로 이웃 마을인 주리와 우암리 주민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뒤에는 농악을 울리며 따랐으니 징과 팽과리 등 어떻게 생각하면 흥겹고 평화적인 행진이었다. 그러나 이

들이 양양면으로 들어갈 때는 만세를 부르며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 상황을 알리는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19년 4월 6일 오전 7시 50분

「오일(五日)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양반(兩班)을 중심(中心)으로 한 군중(群衆) 삼백명(三百名),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 읍내(邑內)를 통과(通過)하려 함으로 진무(鎭撫) 해산(解散)시키다.<sup>28)</sup>」

그러나 양양면까지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읍에 들어오려다 남대천에서 완강한 경찰 제지 때문에 돌아갔다. 그 후 이날의 만세 시위를 주동한 김종택, 김진열, 최한두 등은 붙잡혀 원산 감옥에서 1년의 옥살이를 했고, 주리의 장두용(張斗容)은 태형을 받았다.

다음에 강현면의 운동 상황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양양군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한 6개 면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평화적 만세 운동을 한 강현면의 운동은, 장세환, 김두용, 김원식 등이 중심이 되어 각 마을마다 책임자가 되어 세 갈래로 전개되었다.

첫번째는 물치 장터에 집결하여 만세를 불렀던 것이며, 두번째는 그들의 관할 경찰인 대포주재소 주변에서의 만세운동을 한 것이고, 세번째는 양양에 가서 시위한 것인데, 이 운동은 4월 6일에 있었던 일이다.

5일은 이곳 물치리의 장날이었다. 물치장은 평소에도 양양장 이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큰 장이었으며 전날 양양 운동의 영향으로 경찰의 사전 대비책도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였다. 경찰이외의 그들의 가족과 일본인은 모두 대포 항구의 배에 실어 바다에서 피신시키고, 무장 경찰만이 육지에 남아 있었다.

과거 강선면의 북부 지역의 군중은 물치 장터로 직접 모여 들었으나, 남부 옛 사현면의 주민들은 장터로 오다가 도중에서 당시 강현면사무소 소재지였던 장산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고, 강현면사무소 서기 김남훈(金南薰)도 군중의 요구로 만세를 불렀다<sup>29)</sup>.

이후 물치 시장에는 각 마을에서 모여든 군중들은 큰 저지없이 시장의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세워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이때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군(同郡) 강현면(降峴面) 시장(市場)에 폭민(暴民) 약(約) 오백(五百)집합(集合) 점차(漸次) 증가(增加)의 형세(形勢)이다. 금야(今夜) 대포(大浦)또는 읍내(邑內)를 습(襲)할 계획(計劃) 있음에 엄중(嚴重) 경계(警戒) 중(中)」<sup>30)</sup>

물치 장터의 만세운동에는 물치리의 계획을 담당하였던 김두영(金斗榮)과 박제범(朴濟範), 김대선의 활동이 컸었다. 김두영은 원래 도천면 대포리에 살고 있었는데, 경찰주재소가 설치되면서 집을 빼앗긴 후 물치리로 이사하여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박제범과 김대선은 나이 어린 감리고인이었다. 이 날의 운동을 지휘한 사람은 장세환, 김원식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은 오후 늦게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이동하여 도천면의 군중들과 만나 만세운동을 벌였다.

도천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석범의 뜻을 받은 그의 아들 이능렬이 도천면과 강현면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이능렬과 손을 잡은 도천면 중도문리의 김영경은 물론, 부월리의 이종순(李鍾純)과 대포리의 박사집(朴士集)의 활약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왔다. 이에 도천면의 시위 군중은 강현면의 군중과 함께 대포리에 모여 만세운동을 하였다. 당시의 대포주재소 수석(首席)은 이시다[석전삼랑(石田三郎)]이었는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찰이 아닌 일본인은 모두 배에 태워 바다에 피신시켜 두었고, 일본경찰의 물리가겠다는 회유 설명을 듣고, 날이 저물도록 도천면과 강현면의 천여명의 만세 군중은 내일 양양에 가서 독립 만세운동을 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하였다.

라) 4월 6일

이 날의 만세 운동은 세 곳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도천면과 강현면의 군중이 양양면에서 시위한 것이고, 다음은 양양면에서 양양보통학교 4학년 생도가 시위 군중에 섞여 만세를 불렀는데 나이 어린 보통학교 학생이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세번째 사실은 4일 경찰서 앞에서 일경의 총탄에 숨진 김학구의

장례식이 있었다.

5일의 약속대로 강현면과 도천면의 군중들이 장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으로 걸어와 운동을 벌였는데, 당시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이 4월 7일 보고한 전문(電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 대포(大浦)를 습(襲)하려 한 8백명의 군중(群衆) 작(作) 6일에 지(至)하여 천이삼 백명에 달하여 읍내(邑內)를 습(襲)하였으나 병력(兵力)을 공(恐)하여 폭행(暴行)한 불온(不穩) 주모자(主謀者) 7명을 인치(引致)함에 차(此)의 인치건(引致件)을 경찰서장(警察署長)에게 청원(請援)하였으므로 간유(懇諭) 퇴산(退散)케 하다. 상(尙) 동군(同郡) 현북(縣北) 현남(縣南)의 양면(兩面) 민심(民心) 동요(動搖) 불온(不穩)의 조(兆)있음<sup>31)</sup>」

위의 보고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은 전날 물치시장, 대포주재소 앞에서 만세 시위를 하었는데, 이 날은 이능렬, 김영경, 이국범, 장세환, 김원식, 김두영 등 전날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양양면으로 진출하였다.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집어넣고, 어떤 이는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이는 독립이 된 줄 알고 양양에 가 일본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갔다<sup>32)</sup>. 이것은 전날에 대포주재소로 만세군중이 갔을 때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미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나타냈으며 사기는 충천하여 더욱 높았고, 경찰들은 만세군중들에게 ‘우리는 돌아 갈 것이니 조용히 만세만 불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물론 주모급 인사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반 만세군중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을 어느 정도 믿었기에 독립을 눈앞에 둔 것 같은 흥겨운 기세는 능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삼베주머니에 도시락을 준비하여 15km 이상 되는 양양까지 걸어서 왔다.

그러나 당시 양양면의 사정은 달랐다. 4월 5일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본국에서 증강한 군대와 강릉의 수비대를 합한 6개 대대병력이 양양면에 주둔하였다<sup>33)</sup>. 도천면과 강현면의 시위 군중 특히 김원식 등이 이끄는 강현면 군중들이 조산리를 지나 연창리에 이르렀을 때 수비대의 군인들은 새끼줄로 길을 가로 질러놓고 일반인의 통과를 막고 있었다. 이에 시위 군중들은 그곳에서 한참 대치하다가 수비대의 포진(鋪陳)에도 불구하고 새끼줄을 끊어버리고 만세를 부르며 양양면으로 들어가, 먼저 만세운동을



하던 500여 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다시 경찰서 주변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일본 수비대의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만세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이능렬과 김원식은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군중의 대표로서 서장과 군수에게 “양양에서 떠나라”고 요구했고, 바깥의 군중들은 이동혁 군수를 욕하며 소리쳤다.

지방의 만세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지도자들의 수준이 비교적 높고, 또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행동한 군중이었기에, 장날에 궁중 심리를 이용하여 갑자기 일어난 만세군중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날의 일본 경찰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취하며 군중의 대표와 군중에 대하여 ‘자기들 일본 사람은 돌아 갈 테니 군중도 돌아가라’고 간유<sup>34)</sup>(懇諭)하였다. 이리하여 만세 군중은 오후 늦게 각 면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도천면과 강현면의 만세 군중이 양양면에서 운동을 할 때 경찰서 뒤 군행리 언덕에서 양양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반 생도가 모여 만세를 불렀다. 휴교 중에 4학년 졸업반인 김억준(金億俊), 이창식(李昌植)이 주동하고, 비밀리에 약 10여 명이 참가하여 경찰서 뒤 현산까지 와서 만세를 부르고 헤어졌다. 이 사건으로 김억준은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까지 끌려갔다가 나이가 어려서 풀려 나왔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한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의 장례식에 있었던 만세시위를 살펴본다. 김학구는 원래 강현면 침교리의 사람이었는데, 서면 상평리의 권성심(權聖心)에게 데릴사위로 갔다. 지난 4일 경찰서 앞 시위에서 피살당한 유혈이 낭자한 시신을 경찰서 뒷마당에 옮겨놓자, 노용수가 “끌고 가자”라고 소리치자, 이형우(李炯雨)가 업어 자기 집 뒷마루 밑에 명석으로 덮어 안치했다가 다음날 가족이 찾아가 3일장으로 장례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를 메고 서면사무소까지 갔으나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와 있던 1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사무소 일부가 파괴되었고, 면장과 면직원들은 도망쳐 버렸다. 서면 조개리<sup>35)</sup>의 지석화(池石化)는 만세를 부르는 군중이 먹을 음식 100여 명분을 준비하여 상평리로 운반하여 합세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었다<sup>36)</sup>.

그러나 ‘조선독립만세’를 울부짖는 김학구의 상여는 상평리 면사무소를 떠나 산길을

따라 30여리 되는 침교리로 가던 중 강현면 물갑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강현면 침교리에서도 상여를 메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관(棺)은 서면의 상여에서 강현면의 상여로 옮겨져 침교리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그 후 일본 경찰은 사설묘지라 하여 파내어 공동묘지로 옮겼다. 서면 상평리의 주민들은 김학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격분한 감정으로 7일 다시 만세운동을 하였다.

4월 5, 6일 양일간의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도 많았지만 잡혀가 태형을 받은 이는 더욱 많았다. 시위 후에 도망하였다고 해도 경찰이 그들의 가족을 괴롭혔고, 또 못자리 설치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수하여 태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도천면 중도문리 이종인, 이정렬, 이재환(李載煥) 등은 자수하여 60대(2개월의 자유형 몫)의 태형을 받았다. 이때 원산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은 도천면 도문리의 이능렬, 이종국, 이춘재(李春載), 김영경, 김정식(金鼎式), 이동열(李東烈) 등과 부월리의 이종범, 대포리의 박사집, 강현면 물치리의 김두영, 박제범, 김대선, 강선리의 전달원, 윤순범(尹順範), 이종엽(李鍾燁), 하북리의 이철우(李喆雨), 이형우, 종북리의 김창렬, 심한준(沈漢俊), 사교리의 김철기(金鐵起), 김환기(金桓起), 침교리의 김원식, 김진선(金振璇) 등과 간곡리의 추병원(秋秉元), 장산리의 양익환(梁益煥), 회룡리의 박봉래, 적은리의 장세환, 주청리의 김경도 등 28명이었다. 이 중에서 박제범과 김대선은 미성년자로 함흥 유치감(幼稚監)에서 옥고를 치렀고 박제범은 출감(出監) 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김두영과 전달원은 감리교인이었고 김철기는 서당 훈도로 김두영 등은 그의 제자였다. 장세환, 이종순, 박사집, 이능렬은 쌍천학교 출신의 청장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시 리장으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참고로 사교리의 김철기가 1946년 3·1절 기념식 때 지은 한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桓疆舊城建新機(환강구성건신기) 陷死後生今日是(함사후생금일시)  
 既着念頭時不遠(기착념두시불원) 要舉先毀去年非(요거선훼거년비)  
 着吾白髮秋何在(착오백발추하재) 中途幾人舍怨逝(중도기인사원서)  
 挽彼黃河運復歸(만피황하운복귀) 表哀追悼淚點衣(표애추도루점의)

마) 4월 7일

현북면의 원래 계획은 4월 9일 양양장날에 만세운동을 할 목적으로 원일전리의 박병원이 독립선언서를 복사하려다가 가지고 있던 독립선언서가 발각되어 체포되자 그의 형 박규병은 현북면의 계획에서 독립하여 박용규와 장리에서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던 이성원(李聖元)과 뜻을 같이하여 6일 원일전리에 모여 내일의 계획을 설명하고 찬성을 얻어 7일 아침에 원일전리, 장리, 도리의 200여 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대천을 따라 양양면에 내려왔으나, 일본 군경의 남대천 건지산 및 두물뚝에 미리 대기하고 있어 얼마동안 대치하다가 임천리에 건너가 만세를 부르고, 용천으로 되돌아오다가, 용천리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곳은 지난 4일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용천리 주민의 피해가 많았다고 위로하는 뜻에서 만세를 불렀다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만세를 ‘위로만세(慰勞萬歲)’라고 부른다. 당시의 주모자 이성원은 그 후 은신하였고, 박규병은 1년 2개월의 옥고를 치렀음은 앞의 판결문 ④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전신 보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襄陽郡) 읍내(邑內)에 7일(日) 오후(午後) 2시(時) 군중(群衆) 약(約) 2백명(百名)이 습(襲)하므로 군수급(郡守及) 경찰서장(警察署長) 등(等) 설유(說諭) 해산(解散)케 하다<sup>38)</sup>.」

양양면에서는 14:00 반경에 천도교를 비롯한 300여 명의 주민들이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다. 당시의 보고문 1919년 4월 8일 고제(高第) 10568호 극비 독립운동(極秘 獨立運動)에 관한건 제41호는 다음과 같다.

「양양군(襄陽郡) 7일 오후 2시반 천도교도(七日 午後 二時半 天道教徒)를 중심(中心)으로 약 3백명(約 三百名)의 군중(群衆)이 운동(運動)을 개시(開始)하여 양양읍내(襄陽邑內)에 압기(押奇)하여 부수모자 4명(付首謀者 四名)을 체포(逮捕)하여 해산(解散)시켰다.<sup>39)</sup>」

서면 상평리 주민들이 앞에서 말한 김학구의 죽음 및 장례식에서의 처절한 광경이 울분으로 폭발하여 7일 저녁에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창문을 깨고 시위하였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전언(電言)은 다음과 같다.

「7일야 양양군 서면사무소(七日夜 襄陽郡 西面事務所)에 약 백명(約 百名)의 폭민 내습(暴民 來襲)하여 창문(窓門)을 파괴(破壞)하고 면 직원(職員)에 대(對)하여 폭행(暴行)을 가(加)하다, 그런데 동요서류(重要書類)는 팔일중 군청보관(八日中 郡廳保管)을 탁(托)하여 1시 면사무(一時 面事務)를 중지(中止)하다.<sup>40)</sup>」

그 후 4월 11일 강원도장관의 보고를 보면 사흘 동안 면사무가 중지되었다. 이때 유리창을 깨고 면서기를 폭행하였던 주모급 김동섭(金東燮)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외 이날 낙산사(洛山寺) 승려들이 19:00에 바라소리와 더불어 전 승려들이 등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으며, 각 면에서는 산위에서 봉화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다.

#### 바) 4월 8일

이날은 도천면 논산리에서 약간의 시위가 있었다. 4월 4일부터 계속 만세 시위가 일어나 논산리에서도 만세운동에 대한 명분론이 일어났다. 원래 이 마을에는 중심인물이 될만한 김주혁(金周赫)이 당시 강원도청 주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는 없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온 군민이 만세시위에 참가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당시의 이장 김주철(金周哲 : 김주혁의 종형), 고광화(高光華), 황명찬(黃明燦), 박명원(朴明元), 고을주(高乙柱) 등이 주동하여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있던 대포리를 목적지로 하여 큰길로 나아갔다. 큰길은 부월리를 거쳐 대포리로 이어졌는데 부월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이미 도천면사무소 회계서기 김우규(金宇圭)가 와서 대기하면서 만류하여 대포리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모두 해산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김주철, 고광화, 황명찬, 박명원, 고을주 등은 검거되어 양양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은 후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김주철을 제외한 4명이 90대의 태형을 받았다<sup>41)</sup>. 태형을 맞은 4명은 상처가 심하여 거적으로 만든 들것에 얹드리 이틀동안 집으로 와서 일년동안 엉덩이 상처에서 구더기를 파내며 치료하였다고 한다.



사) 4월 9일

양양 3·1운동의 마지막 만세운동이었고 가장 참상(慘狀)을 기록한 소위 ‘기사문리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앞에서 만세운동의 계획을 설명할 때 말한 것과 같이 오세옥, 이응렬의 상광정리 감리교회와, 오익환(吳翼煥), 김재한, 박원병, 오정현 같은 한학자, 김중대 등의 젊은 청년, 그리고 현북면 각 마을의 이장들이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sup>42)</sup>. 각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되어 장날인 양양면으로 갈 계획으로 하광정리에 있는 현북면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에 어떤 집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참가하고, 가까운 마을에서는 하광정리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른, 아이들이 모여 군중은 일본 측 기록으로는 600여 명(당시의 참가자들은 천여명)의 인원이 모였다. 일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줄’ 잘못알고 참가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마을마다 이장들이 선두에 섰고, 현북면에서 신망이 있는 임병익, 박원병 등과 감리교인 오세옥 등이 앞장선 이 모임은 면민대회(面民大會)와 같은 분위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강원도장관의 보고 전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월 9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 주재소(四月 九日 襄陽郡 縣北面 其士門 駐在所)를 습(襲)한 폭민(暴民)은 면장(面長)을 협박(脅迫)하기를 심(甚)히 하여 면장(面長)은 부득이 일시 사무(不得已 一時 事務)를 중지(中止)하고 피난중(避難中)이다<sup>43)</sup>.」

위의 보고문 중 기사문 주재소는 면사무소를 잘못 보고하였으며, 현북면사무소는 중요 서류를 이미 감추어 버렸고, 면장과 면직원은 모두 도망하였다. 군중은 면사무소 주변에 모여서 기세 높게 만세를 부른 후 면장을 앞세우고 양양면으로 가려고 먼저 면장을 찾았다. 그러나 면장은 하광정리 이장이었던 김진혁의 집에 3일간 숨어 있었다. 김진혁은 만세운동의 지도자이며 자신이 태극기도 만들고 군중도 동원하였다. 그러나 면장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자기 집에 숨겼고, 면사무소의 서류도 자기 집에 보관하여 놓고 비밀을 지켰던 반면, 기사문리 경찰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선창하는 이중적 행동을 하여 그 뒤, 모든 마을의 이장들이 징역을 살았는데 김진혁은 징역을 면하였다.

현북면의 군중이 면사무소의 주변에서 만세를 부르고 양양면으로 갈려고 할 때 양양

군 남부(南部)에서 신망이 높던 김익제<sup>44)</sup>(金翼濟)가 양양면으로 가려던 군중을 저지시켰다. 그는 손양면 동호리의 사람으로 그가 하광정리에 온 이유는 양양면에 수비대가 주둔하여 그곳으로 간다면 인명 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만류하러 왔다고 하였다.

이에 계획을 바꾸어, 군중은 그곳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사문리 경찰주재소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하광정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해발 5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고개<sup>45)</sup>가 있는데, 하광정리에 모인 군중, 장꾼, 구경나온 어린아이들은 모두 만세 군중이 되어 만세를 부르며 고개를 올라가던 중, 때마침 신작로에 가로수를 심고 지주(支柱)를 바쳐놓고 있을 때여서 일부 군중들은 지주를 뽑아들고 고개를 넘어갔다. 당시의 상황을 4월 10일 10:00 강원도장관이 전화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사소교도(襄陽郡 縣北面 下光丁里 耶蘇教徒)를 중심(中心)으로 한 600명 4월 9일 오전 10시(限 600名 四月 九日 午前 10時) 지개 봉(棒)을 휴(携)하고 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면서 기사문경찰관주재소(其士門警察官駐在所)를 습(襲)하여 폭행(暴行)하다 때마침 강릉수비대(江陵守備隊)로부터 래(來)한 보병 5명(步兵 五名)과 공력(共力)하여 발포진압(發砲鎮壓)에 노역 폭민사자 9명(努力 暴民 死者 九名)을 출(出)함 외(外)에 부상자 약간(負傷者 若干) 있는 모양(模樣)이나 불명(不明)<sup>46)</sup>」

기사문리 경찰주재소에는 며칠 전부터 현북 일대의 만세시위 분위기를 짐작하고 강릉수비대가 도착하여 있었다. 군중이 주재소 전방의 다리부근에 이르렀을 때 주재소 순사 이흥근이 나와 선두를 막았다. 한참동안 군중과 경찰이 대치하여 옥신각신하다가, 하광정리 이장 김진혁의 선창(先唱)으로 만세를 불렀고 이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군중들의 만세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자, 주재소 옆 개울 언덕에 숨어 있던 5명의 수비대와 경찰이 발포하였다. 앞의 전화보고 내용의 나무 받침대를 곤봉으로 시위군중이 주재소를 습격,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그들이 발포하여 9명이 사망한 사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허위 보고였다. 즉 이 때 시위 참가자들은 전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참상은 가혹하였으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4월 5일 대포주재소 앞 사건 및 오색리주재소 철수, 산림간수의 1명 부상 등의 사건들이 일본경찰의 심리적 동요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의 피해 상황은 확실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피살자는 전원거(全元擧, 하광정리), 임병익(凌炳翼, 중광정리), 홍필삼(洪必三, 어성전리), 김석희(金錫熙, 어성전리), 고대선(高大先, 어성전리), 황응상(黃應相, 어성전리), 문종상(文鍾祥 : 아명 승학, 어성전리), 진원팔(陳元八, 어성전리), 이학봉<sup>47)</sup>(李學奉, 명지리) 등 모두 9명이었다. 부상자도 당시 일본의 탄압 때문에 숨겨져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20여 명의 부상자 중 확인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종우(李鍾雨, 하광정리), 김응옥(金應玉, 하광정리), 오세빈(吳世賓, 상광정리), 오문환(吳文煥, 상광정리), 오세풍(吳世豐, 상광정리), 황중칠(黃中七, 대치리) 함병원(咸秉元, 어성전리), 강춘실(姜春實, 어성전리), 정홍엽(鄭泓燁, 어성전리), 홍금석(洪金石, 말곡리), 김봉구(金奉九, 어성전리) 등이다. 위의 기록에 문종상은 오기였으니 그의 형 문종희(文鍾熙 : 말곡리)로 바로잡아야한다.

그리고 이날의 만세시위 후 검거되어 태형을 받은 사람을 전부 찾아낼 수도 없지만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당시에 일본 순사가 만세 참가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살살이 찾아 체포하여 태형을 가하였으니 말이다. 당시 복역자 명단은 <표4-6>와 같다.

〈표4-6〉 복역자 명단

이름	지역	직업, 종교	이름	지역	직업, 종교
오세옥	상광정리	감리교인	김창환	말곡리	이 장
김익열	상광정리	이 장	문종석	말곡리	
오정현	상광정리	한학자	김재한	도 리	한학자
김종대	상광정리	포 수	박원병	원일전리	서당훈도
김우근	중광정리	이 장	박용기	원일전리	이 장
이응렬	명지리	감리교인	김두칠	어성전리	이 장
권광식	명지리	이 장	이형규	어성전리	
김종성	대치리	이 장	우흥수	어성전리	
한윤성	대치리	농 업	이원규	어성전리	
황 주	대치리				

#### 아) 그 외의 만세운동

양양군 7개 면 중에서 현남면만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곳은 양양면에서 약 50여리 떨어져 있어 가장 멀어 양양면까지 도보로 5시간 이상 걸어야 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계획 도중 기사문사건이 너무 놀라운 참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획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기사문사건 이후의 만세시위로는 일본 군경의 삼엄하고 철통같은 경계 아래에서도 4월 16일 300여 명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전개<sup>48)</sup>하였으며, 5월 9일 10:00 및 14:00경 양양면 남대천 앞산에서 37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sup>49)</sup>

3·1운동 당시 유공(有功)자 및 수형(受刑)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4-7〉 유공자 명단

구 분	성 명	년령	당시주소	유공사항	비 고
순국	함홍기(咸鴻基)	22	손양면 가평리	왜적에게 총살	양양경찰서
의사	권병연(權炳淵)	22	손양면 간리	총탄에 사살	양양경찰서
의사	김학구(金學九)	미상	서면 상평리	총탄에 사살	양양경찰서
의사	전원거(全元舉)	35	현북면 하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임병익(林秉翼)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홍필삼(洪必三)	24	현북면 중광정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고대선(高大先)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황응상(黃應相)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김석희(金錫熙)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문종희(文鍾熙)	미상	현북면 말곡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진원팔(陳元八)	미상	현북면 어성전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의사	이학봉(李學奉)	미상	현북면 명지리	총탄에 사살	현북면 기사문리

〈표4-8〉 수형자 명단

면	이 름
양양면	최인식(崔寅植), 이원희(李源熙), 최항식(崔亢植), 김필선(金弼善), 김명기(金明基), 김종태(金鍾台), 최영덕(崔永德), 김계호(金啓鎬), 이관진(李寬鎭), 이원도(李源燾), 김규용(金圭容), 김재구(金在龜), 김주호(金周鎬), 김봉운(金鳳運), 김주열(金周烈)
손양면	김창환(金昌煥), 김진열(金振烈), 최한두(崔漢斗), 김종석(金鍾澤), 신세묵(辛世默)
현북면	오정현(吳鼎鉉), 김재한(金在漢), 오세옥(吳世玉), 박용기(朴容基), 권광식(權廣植), 김종대(金鍾大), 이종은(李鍾殷), 황응상(黃應相), 이선제(李善濟), 김우근(金禹根), 윤명중(尹明鍾), 박원병(朴元秉), 김종성(金鍾聲), 한윤성(韓允聲), 김두칠(金斗七), 이원규(李元圭), 우흥수(禹興遂), 이형규(李亨奎), 박용기(朴容琦), 김익열(金益烈), 문종석(文鍾錫)



면	이 름
강현면	김철기(金鐵起), 김원식(金元植), 장세환(張世煥), 김경도(金敬道), 이종업(李鍾燁), 김두영(金斗榮), 윤순범(尹順範), 전달원(全達元), 이형우(李炯雨), 이철우(李喆雨), 김창열(金昌烈), 박봉래(朴鳳來), 추병원(秋秉元), 양익환(梁益煥), 박제범(朴濟範), 김대선(金大先), 심한준(沈漢俊), 김환기(金桓起), 김진선(金振璇)
도천면	이종순(李鍾淳), 박사집(朴士集), 이동열(李東烈), 김영경(金英經), 이종국(李鍾國), 이춘재(李春在), 김정식(金鼎式), 이재훈(李載勳), 이능열(李能烈)
서 면	김동섭(金東燮), 노용수(盧龍秀)

수형자 중 73명은 형기(刑期) 3년 이내 8개월 이상 복역, 총탄을 맞고 부상한 사람 20여 명 이상이 기사문리 만세운동에서 왜적 총탄에 맞고 부상, 10여 명 이상이 양양면 시위에서 부상하였으며, 태형자와 부상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람도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국가 유공자 명단은 <표4-9>과 같다.

<표4-9> 유공자 국가 표창 내역

이 름	표창 내용	표창 연도	비 고
함흥기	대통령 표창	1977	순 국
이학봉	대통령 표창	1977	순 국
김창열	대통령 표창	1980	
최인식	독립유공표창	1982	
이재훈	대통령 표창	1982	
조화벽	대통령 표창	1982	
임병익	독립유공표창	1982	
김재한	대통령 표창	1983	
김종택	대통령 표창	1983	

## 2) 양양신청년동맹(襄陽新靑年同盟)

### (1) 조직

3·1만세운동 이후 양양지역의 항일 민족운동은 약화되는 듯하였으나 1920년대 초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

운데, 이곳 양양에서도 1920년 이래 현산청년회와 양양신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오용영(吳龍泳), 김대봉<sup>50)</sup>(金大鳳), 김동환(金東煥), 최우집(崔禹集) 등에 의하여 1923년 물치노농동맹(物池勞農同盟)이 조직되었다<sup>51)</sup>. 이후 물치노농동맹은 1923년 8월 28일 조선노동연맹회(朝鮮勞動聯盟會)에 가맹하고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자 조인순(趙仁淳), 김대봉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1924년 광복운동의 신사조(新思潮)가 전파되면서 최우집, 김대봉 박정양(朴鼎陽) 등 28명에 의하여 양양신청년동맹이 창립되었다.<sup>52)</sup>

## (2) 활동

양양신청년동맹은 우선 무산계급 의식을 각성하게 할 만한 수양기관의 설치, 무산 계급운동에 필요한 언론 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강연·강습·연구·운동·토론·연극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의 가입 자격은 만 17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하였고, 의지가 견고하고 동맹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했으며, 그 후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여 회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웠다. 양양신청년동맹의 선언과 강령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sup>53)</sup>.

### 선언(宣言)

사람이 절대인 것을 안 우리 청년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공평, 불합리를 부정하고 절대진리인 세계 민중해방운동에 공헌하기 위하여 2대 강령을 세우고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노라.

### 강령

1. 본 동맹은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新社會)를 건설할 역군 양성을 기함
2. 본 동맹은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하며 당면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투쟁에 힘씀

### 집행위원

서무부 : 김유선(金有善), 김대봉(金大鳳)

교양부 : 이건호(李建鎬), 최용대(崔容大)

경리부 : 김명기(金明基), 김달규(金達圭)

1925년 10월 30일, 제2회 정기대회를 열어 새로 집행부를 선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 집행위원

사무부 : 박정양(朴鼎陽), 김남한(金南翰)

교양부 : 최용대(崔容大), 오일영(吳日泳)

경리부 : 방재규(方在明), 김달규(金達圭)

#### 결의사항

1. 소작운동에 관한 건
2. 순회강좌 개최의 건
3. 노동연합대회 개최의 건

그리고 1925년 11월 2일에는 동아일보 양양지국의 후원으로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을 초청하여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양양신청년동맹은 현산청년회 · 양양신청년회 · 일혁청년회 등과 함께 양양군의 청년운동을 통일할 목적으로 합동정우회를 조직하고, 통합을 꾀한 결과 동화청년회(同化青年會)를 조직하였다. 동화청년회는 1927년 3월 20일 전양양사회운동단체연합간친회(全襄陽社會運動團體聯合懇親會)를 주최하였다. 이 간친회에는 우리수양단(修養團), 물치농민조합, 설악청년회, 차부조합(車夫組合), 조산농민조합, 형평사, 현서청년회, 금강농민조합, 손양청년회의 대표와 개인 참가자를 합한 8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1. 청년운동에 관한 건

9개의 면(面)의 청년단체를 망라하여 군연맹(郡聯盟) 조직을 촉진시킨다.

#### 2. 노동운동에 관한 건

노동단체가 없는 곳에는 창립을 촉진시켜서 단체적으로 훈련하고 시대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서 위원을 선거하여 순회강좌(巡廻講座)를 개최한다.

3. 소년운동에 관한 건

전군소년연맹(全郡少年聯盟)을 촉진시켜서 시대의 적의(適宜)한 훈련과 교양을 받게 한다

4. 여성운동에 관한 건

각 동에 부녀야학(婦女夜學)을 설립하게 한다

5. 형평운동에 관한 건

시간 있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 집회(會集)하게 하여 시대적 의식을 투철히 각오하도록 교양, 지도한다

6. 어민운동에 관한 건

각 어진(漁津)의 어민단체의 창립을 촉진시킨다.

7. 운동자 교양에 관한 건

8. 양양운동단체심사의 건

각 단체를 심사한 결과 금강조합, 차부조합은 아직까지 가치가 선명치 못함으로 일정 기간에 보류한다.

9. 조선운동방향전환(朝鮮運動方向轉換)에 관한 건

- 사상단체 해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
- 정치운동에 대하여는 종래의 운동에서 비약하여 정치운동으로 전환한다.
- 신간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원조한다.

10. 공회당(公會堂)문제에 관한 건

년래(年來)의 숙제인 대공회당문제로 4월 3일에 군민대회(郡民大會)를 개최한다.

11. 도평의원(道評議員) 선거 부정투표에 관한 건

위의 전양양사회운동단체연합간친회는 결국 양양지역의 사회운동 전반에 관해 협의하여, 이 자리에서 결의된 청년연맹의 촉진, 신간회 원조, 어민단체의 촉진 등은 실천에 옮겨졌다. 그리고 정우회<sup>54)</sup>의 방향전환론이 채택되어 운동의 방향 전환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양양청년동맹, 신간회 양양지회, 어민조합 등이 조직되었던 것이다.

1927년 6월 3일 양양읍 남문리 동화청년회관에서 양양군청년연맹의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단오회(端午會)에 흥행할 곳은 미신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외 2개항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사회운동자대회의 참가, 이류단체(異類團體)처리, 청총(靑總)가맹 등을 결의하였다.



1927년 8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의 규약에 의거하여, 양양청년동맹으로 발전적인 해소를 하고,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할 것과 강원연맹 혁신 그리고 세포 단체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도천면, 강현면, 서면, 손양면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물치차부조합, 물치농민조합, 조산농민조합을 지부로 하였다.

당시 양양청년동맹 지부 현황은 <표4-10>과 같다.

<표4-10> 양양지역 청년동맹지부 현황<sup>55)</sup>

지 역	사무소	회원수(명)	지부장
도천면 지부	도천면 대포리	50	정충근
강현면 지부	강현면 물치리	25	오일영
서 면 지부	서 면 상평리	24	강장주
손양면 지부	손양면 금강리	26	이양섭

### (3) 활동 내용

<표4-11>의 양양청년동맹의 활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체 조직의 정비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면 단위의 지부 설치, 리(里) 단위의 반(班) 설치, 그리고 각 지부의 활동 점검, 회비의 징수, 교양 방침의 수립, 미조직 민중에 대한 조직 방침, 연령 제한, 문고 설치 등에 관련된 활동들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지역 사회의 여러 부문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인근 지역의 청년동맹 창설에 대한 지원 활동이라든지, 같은 양양지역의 농민조합, 신간회 등의 설립에 대한 지원 활동, 소년운동에 대한 후원활동 등이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4-11> 양양청년동맹 활동 내용

일 시	장 소	사 회	결의 내용
1927. 10.26.	구속성학교사 (舊速成學校舍)	최용대	신간회 양양지부 설치 후원의 건, 군농민조합 조작 축성의 건, 회관건축에 관한 건, 인군청년동맹 조직 축성에 관한 건
1927. 12. 7.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반 설치에 관한 건, 양양면지부 설치에 관한 건 - 노병례(盧炳禮)를 집행위원에 선출
1928. 1. 8.	양양청맹회관	최용대	회비 및 의무금에 관한 건, 토의 및 양양지부 설치에 관한 건, 재만동포옹호동맹 축진에 관한 건

일 시	장 소	사 회	결의 내용
1928. 2.20.	양양청맹회관	최용대	회비 및 의무금에 관한 건, 퇴회 및 제명에 관한 건, 각지부 순회의 건, 문고 설치의 건, 청춘 해금운동에 관한 건, 신간전국대회금지대책에 관한 건, 농민운동 후원에 관한 건, 소년운동 지도에 관한 건
1928. 4.25.	구속성학교사	최용대	교양방침에 관한 건, 미조직민증 교양에 관한 건, 각부 ○○에 관한 건, 연령 제한에 관한 건, 운동선○화에 관한 건, 회관건축에 관한 건, 향교재산에 관한 건, 三總집회금지에 관한 건, 신간 및 근우회 지지건, 강청대회(江靑大會)대의(원)선거에 관한 건, 경성청년회성명서에 관한 건, 재만동포옹호동맹지지에 관한 건, 일본노동농민당해산에 관한 건, 미신타파에 관한 건, 지방언론기관에 관한 건, 조혼 및 강제결혼 폐지에 관한 건 - 집행위원장 김두선 외 위원18인, 감사위원장 최용대, 위원 김필선, 오일영
1928. 6.27.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의무금에 관한 건, 창립 1주년 기념에 관한 건, 유학생 환영에 관한 건, 소년연맹 집회금지에 관한 건
1928. 7.26.	양양청맹회관	김두선	제명수리의 건, 각지부 위원회 수리의 건, 유학생 환영회 주최의 건, 본동맹 창립 1주년 기념에 관한 건

셋째로는 양양지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청년총동맹의 해금 운동, 신간회 전국대회 금지에 대한 대책 회의, 재만동포옹호동맹<sup>56)</sup>(在滿同胞擁護同盟)에 대한 지지, 일본노동농민당(日本勞動農民黨) 해산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이 그 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양양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이던 최창원(崔昌源), 오일영, 추교철(秋敎哲), 조상엽(趙相燁) 등 4명이 1929년 9월 경 삼척에서 열린 강원도청년연맹대회에 보낸 축문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검속(檢束)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의 제시와 실천 활동을 하여, 향교재산에 관한 문제 제기, 미신타파에 대한 문제 제기, 지방 언론에 관한 문제 제기 등을 하였다.

#### (4) 각 지부 조직과 활동 내용

양양면지부는 1928년 1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후 1928년 9월 22일에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음의 내용을 토의하였다.

- 의무금 징수방안에 관한 건
- 자체 교양에 관한 건
- 부문 확립에 관한 건
- 전양양 사회운동 통계표 작성에 관한 건

1930년 3월 30일 도천면지부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소년운동 절대지지 후원과 미신타과 등 6개의 의안을 토의하고 위원을 개선하였는데, 위원장에 우세열(禹世烈), 서무 김현풍(金顯豐), 김금수(金錦洙), 교양 O충근(O忠根), 황근(黃槿), 선전 최O화(崔O和), 소년 은학수(殷學洙), 여자 O명순(O明順), 후보 김석기(金石基), 황창흠(黃昌洽) 등이 선출되었다. 1930년 10월 30일에는 신간회 양양지회 도천면 분회, 양양군소년연맹 도천면 소년회, 대포노동조합, 대포어민조합 등과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3) 신간회지회 활동

#### (1) 조직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배타적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합하여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는 창립 이후 계급과 계층의 구분 없이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였다. 양양의 경우도 신간회 중앙조직 창립 직후 양양지회 조직 움직임이 태동하였다. 지회의 조직에는 양양청년동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양양청년동맹은 앞에서 보았듯이 1927년 10월 26일 제1회 정기대회에서 신간회 양양지회 설치 후원, 농민조합 축성 등 4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이와 같이 양양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1927년 11월 20일 신간회 양양지회가 조직되었다.

회장에는 이석범(李錫範), 부회장에는 김현환(金顯桓), 서무재정부 총무 함하선(咸河璿), 상무 김두선(金斗善), 간사 이찬우(李璨雨), 이규한(李圭漢) 정치문화부는 총무 최용대(崔容大), 상무 김서봉(金瑞鳳), 간사 김달규(金達圭), 박정양(朴鼎陽), 조사연구부에는 총무 김병환(金炳煥), 상무 김필선(金弼善), 간사 이양섭(李陽燮), 이달충(李達忠), 선전조직부에는 총무 최완집(崔完集), 상무 오일영(吳日泳), 간사 김종철(金鍾喆), 마기

영(馬冀永) 등이 선출되었다. 조직 후 신간회 양양지회는 1927년 12월 7일 총무간사회를 열어 신입회원 37명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 (2) 활동

1927년 12월 21일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모집, 통계 수집, 조직체 변경, 재만동포 피압박 대책, 본부대회 출석 대의원 선거, 본부대회 건의한 작성위원 선거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고 1928년 1월 18일 제2회 총무간사회에서는 신입회원 12명의 심사 수리,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지부대회 시일, 지방열단체 박멸, 본부기관지 발행 건의, 본부대회 건의안 작성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1928년 2월 19일에는 총무간사회를 열어 중국재류동포옹호동맹(中國在留同胞擁護同盟)과 대포공진소년회(大浦共進少年會)에 관한 방침 등 6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특히 대포공진소년회에 관한 토의 안건은 대포공립보통학교의 교장 다나까(田中:전중)가 1928년 1월 9일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자신의 학교 학생 2명에게 「‘일한합병’은 두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대포에는 공진소년회라는 것이 있어 너희 24명이 입회하여 있는 즉 오늘 전부 탈퇴하되, 만약 탈퇴하지 않으면 주재소에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sup>57)</sup>. 이에 공진소년회에서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양양청년동맹 소년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양양청년동맹, 신간회 양양지회까지 관여하게 되어 양양지역의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1928년 7월 27일에 총무간사회에서는 입회원 승인 및 유학생 환영회 개최의 안건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유학생 환영회 개최 준비에는 양양지역의 사회단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행사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1930년 4월 18일 제4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도지회연합회(道支會聯合會) 설치 촉진 이외 7개의 안건을 토의하고, 아래와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위원장 : 김현환

위 원 : 이종명(李鍾溟), 김형기(金亨起), 김병환, 김동기(金東起), 최용봉(崔容鳳),  
김병익(金炳益), 김유희(金有熙), 함재덕(咸在惠), 최완집, 채O충(蔡O忠),  
이규한, 김현우(金顯杓), 장재근(張在根), 함하선, 최종길(崔鍾吉), 이원희(李  
元熙), 이상봉(李商鳳), 오일영, 진상길(陳湘吉), 김동환(金東桓)

후 보 : 우순복(禹順福), 이양섭, 최영달(崔永達), 김종철, 김달규(金達圭)

검사위원 : 최욱(崔旭), 이찬우, 김대희(金大熙), 진형찬(陣炯燦), 이학규(李學奎)

본부대회 대의원 : 김현환, 이규한

후 보 : 최환집, 함하선

이어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집행부를 선정하였다.

서 기 장 : 이종명 회계 김형기

서무부장 : 이종명 부원 함하선

재정부장 : 김형기 부원 노병례

교육부장 : 최완집 부원 김동기

도조부장 : 장재근 부원 오일영

조사부장 : 이규한 부원 박정양

상무위원 : 김현환, 이종명, 최완집, 장재근, 김병환, 하기선, 김동기, 함재덕, 이충O

1930년 5월 9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분회(分會) 및 반(班) 순회 등 5개의 안건을 토의하였다. 그런데 분회는 반 조직이 활성화되면 승격되는 것이었으므로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금지하는 등 방해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부원이었던 김동기가 신간회 해소(解消 : 신간회 해산)대회 시 신간회 중앙본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양지회는 신간회 해소(解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 (3) 활동 의의

신간회 양양지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양양지회는 신간회가 추구했던 민족협동전선

(民族協同戰線)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1927년 신간회 양양지회가 창립되면서부터 1930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신간회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은 이석범과 김현환의 두 명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이석범은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김현환은 보천교<sup>58)</sup>(普天敎) 신자로서 양양지역 사회주의운동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특히 1930년에 개편된 집행부의 각 부장을 역임한 인물들도 역시 사회주의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반면에 3·1운동에 어린 학생으로 참여하였던 노병례, 함하선, 김동기, 오일영, 박정양 등은 양양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간회 양양지회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적극적 사회주의 운동과는 다르게, 지역의 명망가들과 실천력을 갖춘 인물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어민운동

##### (1) 조직

1910년에 일제는 어업령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근·연해에까지 일본 어선들이 진출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었다. 당시, 동해안의 주요 항구였던 대포항은 해상 교통과 어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1928년 1월 19일 조합원 34명으로 대포어민조합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대포어민조합은 창립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어 활동이 여의치 않아 서면(書面)대회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학규(李學奎)는 어민조합의 쟁의부장, 교양부장,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그가 이와 같이 어민운동에 투신하게 된 데에는 1922년부터 김대봉과 친분을 갖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김대봉(金大鳳)과 교유하면서 『조선지광(朝鮮之光)』, 『비판(批判)』, 『사회주의학설대요(社會主義學說大要)』, 『이념투쟁(理念鬭爭)』, 『러시아혁명소사(革命小史)』 등의 서적을 탐독한 결과 공산주의에 공명(公明)하

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의 의식을 어민대중에게 주입시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도모할 목적으로 어민 조합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 (2) 활동

어민조합의 조직 후 이학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양활동에 주력하였다. 즉 그는 1929년 6월 조합원인 정주화(鄭周和)에게 “우리 어민들은 사력을 다해 출어(出漁)하여도 그 이득은 자본주에게 착취당해 당시 생활이 곤궁함은 현재의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단결하여 이 계급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31년 4월경에는 대포리의 김대학(金大學)의 집에서 어민조합원인 이성백(李成伯)에게 “조합원은 단결이 절대 중요하다. 그대들의 단결의 관념이 빈약함은 대단히 유감이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빈부의 구별이 없이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강력히 단결하면 장래는 필(必)히 빈부의 구별이 없는 평등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1931년 6월에는 조합원인 박봉길(朴鳳吉)에 대하여 월연금을 잘 납부하도록 ‘월연금은 무산어민이 자본주의와 투쟁할 때 군량이므로 잘 납부하라. 일단 유사시는 싸워서 자본주의와 하등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포어민조합은 어민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31년 6월 23일부터 온유박(鱸油粕)<sup>59)</sup> 가격 문제로 대포리와 물치리의 어선 70여 척과 100여 명이 파업(罷業)을 감행하였다. 이들 중 40여 명은 경찰서에 몰려가 검속(檢束)된 두 명의 검속 이유와 멸치 가격 협의회 금지 이유, 조합문서를 압수한 이유 등에 대해 항의하였다.

## 5) 양양 농민조합 운동

### (1) 배경 및 조직

일제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경작권마저도 상실한 채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활동은 1923년 물치노농동맹이 조직되면서 점차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농민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년운동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양양지역 청년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치노농동맹은 농민단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26년 3월 5일 ‘조선노농총동맹 발 제23호’ 공문에 의거하여 오용영(吳龍泳)이 명칭을 물치농민조합으로 바꾸었다. 이어 1927년 3월에는 양양농민협회(襄陽農民協會)가 창립되었고, 1927년 12월 4일에는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비조합, 문맹퇴치, 동아일보 양양지국 유지의 건 등을 토론했다.

물치농민조합의 창립 이후 리(里)단위의 농민조합이 조직되어, 조산리, 노리(蘆里), 용천리, 정손(丁巽)리, 소야(所野)리, 서림리의 6개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농민조합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양양에서도 농민조합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양농민협회가 조직되었고 이어서 전양양농민조합연합회로, 나아가 양양군농민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양양농민조합은 다른 지역의 농민조합의 성립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양양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조직되었는데, 이와 같이 청년동맹의 도움에 의해 농민조합이 조직되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양양의 반일(反日)적인 지역정서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의 반일 전통은 그 원인을 동학농민운동시기까지 소급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신문화의 유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한 청년층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운동이 지역사회에서 동질성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양지역의 경우에는 3·1운동을 거치면서 신지식을 수용한 청년층이 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 참



여하여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성원으로서는 청년들은 곧 농민청년이었으며, 따라서 이점은 이들과 지역민 사이에 동질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들은 지역민들과 생활하는 공간이 동일하였으므로 지역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으며, 또한 그 때문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들의 투쟁에 반영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이들과 지역민들 사이에 동질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양양농민조합은 1927년 9월 강원도 청년혁신대회를 계기로 군 농조조직운동이 활발해지자 같은 해 12월 초 조산리 보응(普應)학원에서 창립준비위원 오용영 이하 28명을 선출하고, 12월 30일에는 청곡리 최영동(崔永東)의 집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집행위원장에 김병환, 집행위원에 오용영 외 30명을 선출한 후 다음 사항을 토의하였다.

#### 토의사항

- 교양에 관한 건
  - 조직농민 훈련에 관한 건
  - 미조직 농민 교양에 관한 건
- 저곡(貯穀) 저금(貯金)에 관한 건
- 도일(渡日) 노동자 저지 반대의 건
- 일본 노동농민당 지지 및 조선인(?) 설치 XX(지지 - 인용자)의 건 외 3항.

그리고 양양농민조합은 다음의 4개항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정신으로 한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에 입각하여 과학적 지식을 보급시킬 것.
- 법률에 관한 지식을 주어 현시의 정치 기구 내지 공작이 무산농민에 대해 어떠한 손익이 있는가를 비판할 것.
- 유물사관에 관한 지식을 주어 무산농민의 사회적 지위 및 역사적 사명(사회혁명)에 대한 자각을 환기시킬 것.
- 현하(現下) 세계의 추세에서 장래 농민을 획득할 것.

한편 양양농민조합은 이상과 같이 중앙조직을 수립하면서 이미 조직되어 있던 물치·조산·용천·정손·소야·서림농민조합 등을 지부로 흡수하고, 월리, 포월리, 상평리, 노리(蘆里)·강선리, 정암리 등 각 리에 지부를 조직하였는데, 각 지부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4-12〉 각 지부의 책임자

지 부	책 임 자	지부	책 임 자
조 산	최용복(崔容復), 최창원(崔昌源)	용 천	노병례(盧炳禮)
월 리	김극선(金極善), 김동환(金東桓)	소 야	진형찬(陣炯瓚)
정 손	김성규(金聖圭), 김찬규(金燦圭) 외 1명	서 림	김동신(金東臣), 이근수(李根壽)
정 암	김사만(金思晩), 박용구(朴容九)	물 치	김동환(金東煥)
상 평	함재풍(咸在豊), 양세진(梁世鎭)	포 월	최동섭(崔東燮), 이창엽(李昌燁)
사 천	최용갑(崔容甲)		

〈표4-13〉 양양농민조합사건 관계자 일람표

성 명	나이	직 업	관 련 단 체	기 타
김병환(金炳煥)	45	어업,농업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신간회 강원지부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조공 양양야체이카 책임자, 조공 3차대회를 자택에서 개최
오용영(吳龍泳)	35	농업	신간회 양양지회	일명 오일영, 조공 양양야체이카 선전부원
최우집(崔禹集)	38	농업	조선노동대회준비위원, 신간회양양지회	일명 최욱, 1929년 양양농조 집행위원장, 원산제네스트에 동정금 송부, 양양야체이카사건에 관련
최용복(崔容復)	28	농업	조선농민총동맹	광복 직전 강릉에서 강릉의 박기돈의 도움으로 환일백화점 경영
김동기(金東起)	33	농업	신간회 해소대회시 중앙집행위원	원산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감
최용대(崔容大)		면서기	양양청년동맹 검사위원장	조공 양양야체이카사건 관련
박정양(朴鼎陽)			신간회 양양지회	신흥사의 승려
이학규(李鶴奎)		이발소	대포어민조합 집행위원장	
김동환(金東煥)	51	농업, 정미소관리인	신간회 양양지회	
최용운(崔容運)	25	농업		최용달의 실제
최동섭(崔東燮)	25			일명 최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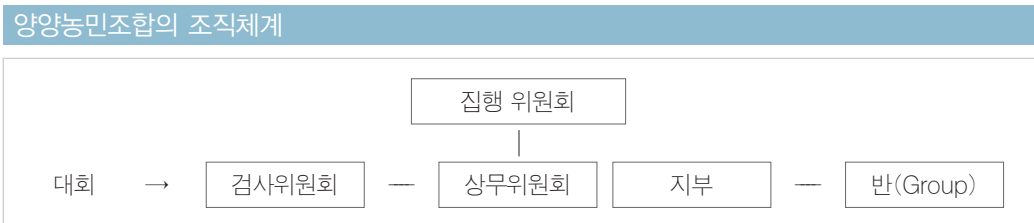
성명	나이	직업	관련단체	기타
진형찬(陣炯瓚)	38	농업		
김극선(金極善)	39	농업		
함재진(咸在鎭)	33	농업		
최종길(崔鍾吉)	39	농업		
이겸열(李謙烈)	31	농업		
최연집(崔淵集)	31	농업		
최용선(崔容善)	31	농업		
김성규(金聖圭)	21	농업		
김종현(金鍾賢)	26	농업		
김동환(金東桓)	48	농업		
양세진(梁世鎭)	24	농업		
김정기(金貞起)	34	농업		
김진행(金振?)	38	농업		
김창렬(金昌烈)	40	농업		
이창엽(李昌燁)	38	농업		
최용철(崔容喆)	32	농업		
노병례(盧炳禮)	27	농업		
최영달(崔永達)	41	농업		
최창원(崔昌源)	29	농업, 목면		
최상교(崔相敎)	27			
김병익(金炳益)	51			
김병설(金炳尙)	30			
김달규(金達圭)	34			
최용갑(崔容甲)	31			
최용호(崔容虎)	27			
김동신(金東臣)	31			
박용구(朴容九)	37			
김사만(金思晩)	44			
정연철(鄭然徹)				
박문병(朴文秉)				
김찬규(金燦圭)				
이근수(李根壽)				

자료 : 『양양농민조합사건 판결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표4-13〉을 보면, 양양농민조합의 주요 구성원인 김병환, 최우집, 김동기는 중앙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오용영과 최용대, 김병환 등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에 관계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영농 형태별로 분류하면 운동을 지도하던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최용복 등과 최용운, 장용국은 중농으로, 지부장인 김동신, 김사만, 박용구와 김동환은 빈농으로, 김종현, 노병례과 양양농민조합이 궤멸된 후 강환식과 함께 ‘양양적색노농협의회’를 조직했던 추교철은 부농이었다. 그리고 박정양은 신흥사의 승려 신분이었고, 이학규는 이발소를 경영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인 김병환, 오용영, 최우집 등은 남궁 역이 세운 현산학교 출신이며 3·1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외에 3·1운동에 참가한 인물로는 노병례, 김동환, 진형찬, 김극선, 김병익, 박용구, 김사만, 김동환, 김진연, 김창렬, 이창엽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양양농민조합의 주요한 구성원들은 현산학교를 졸업한 인물들을 지도자로 하여 3·1운동에 참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기는 1929년 원산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를 다시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50대가 2명, 40대가 5명, 30대가 19명(35세 이상 8명, 35세 미만 11명), 20대가 10명(25세 이상 8명, 25세 미만 2명)으로서 운동의 중심인물이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당시 『동아일보』는 “운동의 중심 인물은 대개 40세 이상인 자로서 근래 운동의 한 이채(異彩)”라고 하였던 것이다. 즉 양양농민조합은 다른 지역에서는 농민운동과는 달리,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의 물적·인적 기반을 지닌 인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이며, 이들 가운데는 김병환, 오용영, 최용대 등과 같이 조선공산주의운동에 관계한 인물들도 있었다.

양양농민조합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 (2) 활동

양양농민조합은 운동의 주안점을 농민에 대한 교양활동과 일상이익의 확보에 두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은 주로 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의 본부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행위원장 김병환은 1928년 2월 22일 12개 지부 위원장에게 조합원의 교양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할 것을 지시’ 하면서 납세 거부, 채권 소멸, 수업료 면제, 묘목 배부 등의 현실 행정에 대한 과격한 비판 연설로써 조합원들에게 당시 농민들의 당면문제에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김병환의 지시는 같은 해 3월 4일 집행위원회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본부 집행위원 및 지부 조합원 중 장래 조합의 지도자로서 괄목되는 자를 각 2명씩 선발하여 3월 5일부터 월 6회 소야·포월·물치·용천지부에 있는 피선발원을 소집하여 조합 본부에서 파견한 강사로 앞의 ‘교양 방책’의 취지에 따라 사회과학·자연과학·정치·법률·역사 등을 강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서림지부에 대하여는 강사를 파견하여 강연하였다.

양양농민조합은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독서회·야학<sup>60)</sup>·연구회·신문 강좌 등의 조직을 통해 농민들에 대한 대중적 교양 지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1928년 4월 26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조직농민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재를 선택하여 일정한 과정 하에 독서회를 개최하거나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수시 연구회를 개최할 것을 정하였다. 그리고 가답하지 않은 농민에 대하여는 야학을 열어 농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한편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일제가 토지 없는 자에게 묘목을 강제로 배포함은 산업 장려라는 미명하에 묘목 생산자 본위의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인 상업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농민조합원은 이 기만정책을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강제 배포된 것은 모두 반환하고 군 또는 면에 항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가난한 아동에 대한 수업료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1년 3월 30일 제5회 정기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농민의 일상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농민대회·소작대회·시위운동 등의 운동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대회에서 사용할 구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일체의 채무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 잡세를 철폐하라.
- 토지는 농민에게
- 노동자의 단결을 강고히 하자.
-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철쇄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사회이다.
- 현 계급은 부르주아민주주의 전취 과정에 있다.
- 민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한편 양양농민조합은 당시 전국의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산총파업<sup>61)</sup>단에 격려전문을 보내고 동정금 10원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김동기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때문에 집행위원장 최육과 간부 오일영이 검거되었으며, 각 회관을 수색당하여 많은 문서를 압수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집회가 모두 금지 당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은 중앙 본부가 정책을 결정한 후 지부에서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상평리지부는 1928년 1월 30일 조직되었으며, 2월 28일 제2회 지부위원회를 열어 도서 구입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1930년 3월 12일에는 제3년 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게 김동휘(金東輝)를 선출한 후, 허레타파에 관한 건 등 3개항을 토의하였다.

조산리의 경우에는 이미 1925년 12월 30일에 농우회가 조직되어 농민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일제가 “사회주의를 선전할 위험이 보인다”고 하여 강제로 해산시킨 바가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조산리는 비교적 농민운동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양양농민조합 조산지부가 조직된 후에 최용복, 최창원을 지도자로 하여 1928년 2월부터 1930년 12월경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회과학 강좌를 개최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해설, 비판하는 한편 신문강좌를 실시하여 신문기사 중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기사를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특히 조산지부와 사천지부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른 지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제부(共濟部)가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양양농민조합이 조합원의 당면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적

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용천지부의 경우도 1928년 2월 24일 지부위원회를 열어 인동(隣洞) 미조직(未組職)농민조직축성의 건 등 5개항을 논의하였다.

진형찬을 지도자로 하는 소야지부는 1928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1월까지, 1930년 1월부터 1931년 1월경까지 3차례에 사회과학강좌를 개최하여 『마르크스입문(入門)』, 『프롤레타리아의 사명(使命)』, 『사회주의대요(社會主義大要)』 등의 서적을 강독하는 한편 신문강좌를 개최하였다.

노병례를 지도자로 하는 용천지부에서는 1928년 12월부터 1929년 1월경까지 『노동독본』, 『사회주의대의』 등의 서적을 강독하는 사회과학강좌와 신문강좌를 개최하였다.

포월지부는 1928년 9월 28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현하 각 농촌에서 임금제도는 자본가에게 헛되게 강제당하여 착취당하고 자본가의 회(懷)를 살피우고 노동자·농민은 빈궁한 심연(深淵)에서 방황하는 현상으로서, 포월지부의 구역 내에서는 춘하(春夏)의 임금은 일률적으로 백미 3승(升)으로 하고, 추수기(秋收記)의 임금은 백미 5승의 임금으로 한정하고, 그것의 실행 방법은 군농민조합본부에 건의하고 전 양양군내에서 실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정손, 서림, 율리, 상평, 강선, 사천지부에서도 사회과학강좌와 신문강좌가 개설되었다.

### (3) 해산

이상과 같은 지부를 중심으로 한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에 대해 일제 경찰은 해당 지역의 구장과 면장을 동원하여 농민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즉 양양군 서면 상평리의 김동휘는 수재에 의하여 집이 유실되어 구제를 받아야 했는데, 면장 김우제(金宇濟)가 농민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양양농민조합은 비공식 상무위원회를 열어 최연집 등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김우제의 협박에 대응하였다. 또한 일제는 양양농민조합 정암지부가 회원이 20명 미만이므로 지부를 해산하고 반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앞의 김동휘는 상평리 지부의 위원장으로서 양양농민조합의 중간 간부였다. 이로 보아 일제는 농조의 중간 간부 이하의 농민층을 회유하여 농민조합운동의 기반을 붕괴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

부의 검속과 집회 금지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1932년 3월 ‘야학생 격문사건’을 계기로 검거되기 시작하여 궤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노병례는 1932년 단오날(5월 5일)을 기해 일제히 시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단오 날 시위 시 사용할 전단이 5월 1일 그의 집 천장에서 발각되면서 조합원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우리는 무주공산의 오작의 밥이 되더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내가 빼앗기고 돌려달라는 애국 청년을 놈들이 뽀뽀히도 감금했다.

때려 부쉬라 검은 철창 검은 감옥을. 이천만 동포들이여 호응하라.』

결국 양양농민조합원들은 1932년 6월 검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청년동맹과 어민조합·노동조합에까지 일제의 단속이 미쳐 총검거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되어, 연무장을 유치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이들의 공판은 1934년 5월 25일 개최되었는데, 오용영 등은 농민조합에서 주로 「노동독본」과 「한글」 등을 가르치고 소작쟁의 이야기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판부는 1934년 6월 8일 재판에서 “피고 전부의 운동이 합법적 운동이고 범죄를 구성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고심하던 재판장도 이 사건의 처결에 매우 곤란을 느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렇듯 양양농민조합의 활동은 재판장도 인정할 만큼 합법성을 최대한 활용한 단체였으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피고인들의 범행인 결사협약선전 선동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빈약은 하나 증거와 여러 가지로 보아 무죄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양농민조합이 붕괴되자, 강릉지역의 최선규(崔善珪)와 관계를 갖고 있던 강환식(姜煥植)이 중심이 되어 이수형(李秀涸), 추교철, 장기원(張基源), 김필선 등과 함께 적색농민조합과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양양적색노동협의회(襄陽赤色勞動協議會)’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환식이 ‘조선공산당강릉공작위원회’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어 실패하였다.



### 3. 공산치하에서의 반공활동

#### 1) 서북 청년회(西北 青年會)

##### (1) 조직

1946년 7월 21일에 주문진에서 월남한 반공청년들이 친목의 명목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회장 유낙춘(6·25한국전쟁 때 낙동강에서 사망)을 중심으로 24명이 참가하여 조직하였다. 1946년 7월 21일에 서북청년회를 조직하고 총본부를 서울에 두고 본부장에는 문봉석(文鳳錫), 초대 단장에는 유낙춘이 되었다. 2대 단장은 최병용(崔秉溶), 3대는 백의곤(白義坤)이었다. 주문진에 본거지를 두고 다시 6개 분단(分團)을 주문진에 2, 3, 7분단, 서림, 인구, 연곡에 각 분단을 두었다. 서북청년회의 2,070명 중에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이 70명이었다.

1946년 7월 29일 당시의 서북청년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낙춘(柳樂春), 유동신(劉東燾), 장기수(張基守), 김장운(金長雲), 고연재(高淵在), 김영수(金榮洙), 김인영(金仁泳), 한범구(韓範九), 성요근(成堯根), 최방출(崔芳出), 박명선(朴秉宣), 김종호(金鍾鎬), 김중우(金鍾禹), 김태권(金泰權), 최창갑(崔昌甲), 김욱기(金旭起), 김원옥(金元玉), 김종익(金鍾翊), 홍해운(洪海雲), 전운영(全云英), 김현재(金顯在), 김영록(金永祿), 고광학(高光學), 김철수(金哲洙), 이종철(李鍾喆)

##### (2) 임무 및 활동

서북청년회는 군사·경찰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영동지방의 공산분자 및 38°선 이북에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침투 월남하는 간첩을 색출하여 응징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며, 또한 이북에 있는 반공청년들을 지휘하여 동해안일대의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 공산당 전복을 기도하였다. 김세환(金世煥)은 북한에서 경제혼란을 목적으로 지폐를 위조했다.

## 2) 민일당(民一黨) 사건

### (1) 조직

1946년 6월 13일 서문리 천도교회당에서 조직하였다. 지하조직책으로는 김석진(金錫振 : 만주군 출신), 김문수(金文洙), 박희순(朴熙洵), 정종명(鄭鍾鳴), 김형열(金滢烈), 엄의용(嚴義勇), 윤재균(尹在均), 이상협(李相協), 윤석갑(尹錫甲), 오승환(吳承煥) 등이 었다.

### (2) 활동

반공의식과 민주사상이 투철하고 결사적 투쟁력을 가진 청년을 포섭하여 공산당타도, 무기탈취 및 반공투쟁, 당세 확장을 위해 자당(自黨 : 통천에 있는 청년조직)과 속초 부월리의 노장파와 협조하였다. 나아가 공산세력 전복(顛覆)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단체로 활동하였다. 군표(軍票 : 군인용 수표)를 대량 반입 살포하고 후방인에 사용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 (3) 검거 및 옥고

1947년 5월 18일 비밀이 탄로(綻露)되어 전원 검거되었다. 당시 윤석갑은 북한 보안부 대원과 싸워 임천다리에 떨어뜨리고 남하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원들은 교화장에 유치되어 햇빛도 못보고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5개월을 보내다가,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는 거짓 혈서를 쓴 뒤, 1947년 10월 22일에 북조선정치에 적극적 협조하라는 소련 검찰관취조를 받고, 인민재판에서 혈서를 쓴 것이 효과가 있어 집행유예 4년에서 5년의 언도(言渡)를 받고 전원 석방되었다. 그 후 1947년 12월까지 전원 남하하여 교원(敎員)이나, 경찰관 경비대에 입대하여 반공투쟁을 계속하였다.

### 3) 반공의거사건

#### (1) 조직

1947년에서 1949년에 사이에 북한 공산치하에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자 반공 의식이 나날이 높아져 북한 당국의 무서운 감시와 감독을 피하면서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양양읍 군행리의 김양진(金良鎭)과 서면의 최병주(崔秉周)가 주모자로 활약하였다. 김동근(金東根), 김문학(金文學), 서면 범부리의 신동만(申東萬), 이상복(李相復), 이귀용(李貴龍), 이형우(李炯雨), 우암리의 장진팔(長鎭八), 김여영(金여泳), 김문건(金文乾), 김을성(金乙星), 김현주(金鉉柱) 등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 (2) 활동 및 결과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자유를 위하여 괴뢰정권의 파괴 공작을 암암리에 계획하기 위하여, 북한의 각 기관의 활동을 탐지하여 남한의 서북청년회와 기타 군당국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배후의 조종으로 반공의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조직을 통하여 반공의거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반동분자’라는 죄명으로 징역 3년에서 무기까지 받은 자가 50여 명에 달하였다. 대부분 원산 형무소와 아오지 탄광 등지로 끌려갔다.

신동만과 윤규백(尹奎白)은 원산 형무소에서 복역 중 옥사(獄死)하였다. 대개는 복역, 노역하다가 6·25한국전쟁시 국군이 북진하자 방공호 속에 넣고 총살하였다고 한다. 이운영(李雲榮)은 체포 당시 탈출하였고, 김문학, 천봉득(千奉得)은 군국 진격시 감시망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귀향하였다.

### 4) 양양 건건장(乾蔞場) 방화사건

양양면 서문리 소재의 건건장<sup>62)</sup>을 손양면에 사는 최지선(崔祉鮮)이 공산치하에서 경제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1948년 봄에 방화하였는데 발각 체포되어 복역 중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 5) 학생의거 사건

1947년 12월 악독한 공산당의 만행에 의분을 금치 못하고 있던 양양고급중학교(교장 : 金鍾聲)에 재학 중이던 고재철(高在喆), 안재승(安在昇), 임세삼(林世森), 이창규(李昌圭), 이상조(李相詔), 남상중(南相重) 등이 앞장서 월남하여 서북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김주철(金周哲)과 무기 탈취를 모의(謀議)하고 소련군 창고에서 권총 5자루와 화약 3상자를 탈취(奪取)하였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와 소련군 정보부(콘트라지백크) 간부를 살해할 의거를 김복기(金福基)학생 집에서 계획하다가 탄로되어, 당시 양양고급중학교 김운봉(金雲奉)교사 집에 은신하던 중 동년 12월 31일 전원이 체포되어 원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강원도 인민재판소 부소장 윤두병(尹斗炳 : 광복당시 양양군청 내무과 촉탁, 손양면 하양혈리 거주)의 판결로 고재철 20년, 안재승 18년, 그 외 학생은 15년형의 언도를 받았다. 고재철은 함흥형무소서 1950년 4월 13일 부친 고광익(高光翼)과 마지막 면회를 하였으나 국군 진격시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 안재승도 함흥 형무소로 이감(移監)되었다가 1950년 8월 20일경 옥사하였다는 통지가 가족에게 전해졌다. 임재삼과 이창규는 청진형무소, 김주철(당시 18세)은 신의주형무소, 노복현, 김복기, 박을병 등은 원산형무소에서 각각 복역하였다. 교사 김운봉은 학생 은익불고지죄로 처형되었다.

## 6) 중학생집단 월남사건

38°선 이북에서는 소련식 공산주의체제를 홍보하고 강화하고자 어린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었고, 자아비판 등을 통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 이런 교육체제에 불만을 갖은 학생들이 못마땅함을 표현하자, 학교당국은 이 학생들을 무지막지하게 체벌(體罰)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현북중학교 윤석진(尹錫振)을 중심으로 박용호(朴龍鎬), 장원식(張元植), 박상진(朴相鎭), 윤석근(尹錫根), 윤석빈(尹錫斌) 등은 1948년 6월에 집단 월남하였다. 그러나 남한 당국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학



생들을 어떤 임무를 띠고 남하한줄 잘못 알았고, 또한 어린 학생들이므로 부모에게 되돌아가 공부하라고 38° 선에 데리고 가 공산군에게 인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잔인한 북괴들은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였다 하여 반동분자로 몰아세워, 1949년 3월 12일 재판에서 4년에서 5년의 형을 받고 원산형무소에서 있다가 함흥, 청진형무소 등에 이감 복역하였다.

6·25한국전쟁 이전에 박상진은 영양실조로 쇠약하여 죽고, 윤석규, 윤석중, 박상진은 아오지탄광에 끌려갔다. 전쟁에서 불리하여지자 5년 이상의 정치범은 모두 총살 집행하고, 4년 이하는 만주로 수송 중 폭격이 심하므로 개마고원에 있는 사수국민학교에 감금하고 문에 못을 박고 외부출입을 못하게 한 뒤 감시원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탈출하였다. 윤석빈는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고, 6명 중 유일한 생존자 윤석진은 천신만고 끝에 생감자로 20일간 연명하다가 다행히 유엔군에 발견되어, 함경도 신흥군 하기천면의 이정명(치안대장)의 집에서 은신하던 중 1·4후퇴 때 함흥 감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현북으로 돌아왔다.

## 7) 김일성초상 소각사건

소련군이 양양국민학교에 주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실이 사방에 산재하였다. 시내 분교실에도 김일성의 초상화가 역시 걸려있다. 평소부터 공산주의 교육체제에 불만이 많았던 양양고급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상중(南相重 : 양양중학교장 남라석의 아들)은 1948년 7월 어느 날 청소하던 중 김일성의 초상화를 뜯어 소각하여 버리고 그길로 월남하였다. 그 뒤 다시 돌아와 정보활동을 하려다 잡히고 말았다. 얼마 동안 고초(苦草)를 당하다 학생의 신분이고 또 평소 온후하였던 남교장의 아들이라 하여 석방되었다. 그 후 학생의용군으로 끌려간 뒤 행방을 알 수 없다.

## 8) 호림유격대(虎林遊擊隊) 제5·6대대사건

### (1) 창설

1948년 남·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본격적인 충돌은 1948년 11월 4일 180여 명의 북한 인민유격대가 오대산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패주 중인 여순반란사건 패잔병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둘러 남파된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도 부실했기 때문에 출동한 군경에 의해 쉽게 토벌되었다.

그러나 1949년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평양 인근의 강동정치학원에서 월북자들을 대상으로 남파유격대원을 훈련시켜, 6월 1일에 400여 명의 대규모 인민유격대를 백두대간을 통해 남파시켰다. 국군 8사단이 급히 출동해서 토벌에 나섰지만 100여 명은 끝내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다. 남파 목적은 지역 공비들과 합류해 산간 오지의 주민들을 모아 해방구를 설치하고 장기투쟁을 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위조지폐는 도시에도 침투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남한 경제를 교란할 목적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전의 우발적인 침투와는 차원이 다른 남파였다.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책도 필요하였다.

호림부대는 서북청년단을 주축으로 국방부 산하 유격부대로 창설됐다. 서북청년단은 공산당의 학정을 피해 월남한 평안도 청년들이 구성한 단체인데, 흔히 평안도 사람들의 기질을 맹호출림(猛虎出林)이라고 하는 데서 부대의 명칭을 호림부대로 정했다고 한다.

호림부대는 1947년 7월에 서북청년단 영동지구본부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계림공작대(鷄林工作隊)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부 제4국 소속 동해특별대(東海特別隊)로 개편됐다. 사실 군사단체에서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준군사단체로 승격한 것이다. 당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동해공작대에 큰 기대를 걸고 대원 150여 명을 선발해 3개월간 특수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남과 북의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미 군사고문단의 압력으로 국방부 제4국이 해체되면서 동해특별대도 함께 해체되었다.

1949년 2월 25에 군 당국은 동해공작대의 소속을 국방부에서 육군으로 이관시키고 명칭도 호림부대로 바꿨다. 마침내 월남청년들의 사실 군사단체가 국방부 관련단체를 거쳐 대한민국 육군 소속 북파공작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소속이 육군으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호림부대는 정식으로 육군에 편제된 부대는 아니었다. 호림부대원들은 대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하면 그때 정식 군인이 되는 조건부 신분이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생환한 호림부대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었다.

## (2) 활동

1949년 2월 28일에 대구로 이동한 호림부대원들은 18연대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다. 지휘관은 정보국 특무과장 한왕룡 소령. 그곳에서 기본 훈련을 끝낸 호림부대원들은 수원의 육군수색학교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유격교육을 받았다. 당시 교관은 이희성<sup>63)</sup> 소위였다. 훈련을 마친 호림부대원들은 경상남도 거제도와 경상북도로 이동해 그곳 지방 게릴라 토벌에 투입됐다. 일종의 실전경험이었던 셈이다. 호림부대는 5월 25일 서울로 귀환해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의 사열을 받았다. 당시 신문들은 국방부 제2국 소속의 호림부대 대원 557명<sup>64)</sup>이 총리의 사열을 받았는데 이들의 지휘계통은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을 거쳐 정보과 5과장 한왕룡 소령으로 이어진다고 신문에 보도했다<sup>65)</sup>.

북파된 호림부대원의 총인원은 동해특별대를 모체로 하는 5대대와 오대산유격대를 모체로 하는 6대대를 합쳐 25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호림부대에는 이들 5대대와 6대대 외에 2대대와 3대대의 두 개 대대가 더 있었다. 2대대는 서부전선을 맡고 있었고, 3대대는 5대대와 6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호림부대 5대대와 6대대 대원들은 1949년 6월 23일에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횡성을 거쳐 동부전선에 도착했다.

6월 29일 마침내 비장한 각오로 250여 명에 달하는 호림부대원들이 북한 인민군 북장에 일본군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어둠 속을 조심스레 전진하여 38° 선

을 너머 300m 지점에 있는 고산봉에 도착하였다. 이후, 부대원들은 점봉산과 오색리를 지나 대청봉을 거쳐 7월 1일에 봉정암을 정복하였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묻으며 생무덤을 만들어 결사의 의지를 다지고, 5대대는 동해안을 타고 북상해 함경남도로, 6대대는 내륙으로 침투해 평안남도로 진출하기로 작전을 계획하였다.

호림부대의 목표는 원산과 평양을 잇는 평원선을 차단해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는 것이다. 원산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소련 군수물자로 인해 북의 군사력은 남을 크게 압도하고 있었다. 빨리 저지하지 못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고, 북측은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호림부대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북파된 것이었다.

험한 산지를 통과하는 평원선에는 터널이 여러 곳 있다. 5대대는 함경남도 고원으로, 6대대는 평안남도 양덕으로 진출해 터널을 폭파하고 철로를 파괴해서 군사물자 수송을 저지할 계획이었다. 군 수뇌부는 평원선을 교란하면 북한의 남침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의 반공인사들을 포섭해 장기 주둔할 예정이었으므로 호림부대는 남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 가. 제2차 기사문리 전투

1949년 7월 4일 막 자정을 넘긴 시각에 동부전선 및 해안일대의 경비를 담당한 강릉 8사단 10연대 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호림부대의 활동을 돕기 위한 양동작전을 위하여 기사문리 공격을 계획 실행하였다.

당시는 기사문리에는 북한의 해군기지가 있어서, 대한민국 육군 10연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던 곳으로 당연히 충돌이 잦았다. 1949년 2월에는 인민군 2개 중대가 38° 선을 넘어 잔교리까지 내려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돌아갔다. 이에 10연대장 백남권 중령은 즉각 보복공격을 명령했고, 105mm 곡사포 5발을 기사문리의 북한 해군기지를 향해 발사했다. 포격은 총격과는 달라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크다. 미 군사고문단은 놀라 재발방지를 이유로 대포 조준경을 회수해 가버렸다. 이때의 충돌을 두고 제1차 기사문리 전투라고 불렀다.

대대장 고백규 소령의 명령을 받은 중대장 원선경 중위는 즉시 중대원을 인솔하고 38° 선을 넘었다. 정규군 중대병력이 38° 선을 넘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38° 선이라고 해봐야 표지판 하나 썰렁하게 서 있을 뿐 철책선 같은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근 주민들은 눈치를 보며 가끔 오가기도 했다. 하정광리와 상정광리를 거쳐서 기사문리에 이를 때까지 북한군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일찍 잠이 깬 어부들만이 놀란 눈으로 국군을 쳐다보았다.

북측 해군기지에는 보초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채 경비가 허술하였다. 10연대 장병들은 기습을 단행했고 놀란 북한군들이 도망가면서 해군기지는 싱겁게 점령하였다. 그러나 오후 늦게 비로소 북한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자, 고작 중대 병력으로 적지 한복판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어 철수를 하였다. 이를 2차 기사문리 전투라고 한다.

#### 나. 6대대의 활동

오대산유격대를 이끌며 태백준령을 넘나들던 김현주 대대장이 지휘한 6대대는 봉정암을 출발하여 백담사에 도착하여, 인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체포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7월 4일에는 용대리 내무소를 기습해 내무서원 3명을 사살한 뒤 소비조합에서 식량을 노획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위치가 파악되고 말았다. 곧 38경비여단과 인근 부대로 편성된 토벌대가 추격에 나섰다. 잠시 용대리 뒷산으로 철수했던 6대대는 토벌대의 규모가 연대 병력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뒤, 교전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7월 7일에 인제군 서화리 가마골로 이동하여 북한군 연대병력과 교전하였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김현주 대대장은 전사하였고, 이영주 제1소대장 등 일부만 생존하여 탈출하였다.

#### 다. 5대대의 활동

과거 동해특별대를 이끌었던 5대대장 백익곤 대대장이 지휘하는 5대대원 120여 명은 군장을 정비하고 행군하여 7월 5일에 예정대로 화채봉에 도착하였으나, 현지 정보원<sup>66)</sup>을 통하여 이미 이 지역일대에 경계령이 펼쳐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식량을 보충<sup>67)</sup>하면서 북한군의 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여, 7월 8일 새벽 4시에 강현면 상북리 핏골(皮谷)<sup>68)</sup>에 도착하여 김종모(金鍾模)와 김정배(金正培)의 집에 4일간 나주어 거주하면서 앞으로의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로를 회복한 5대대원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핏골 내무서 공격에 성공하여,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인민위원장과 보안대원 6명도 처단한데다, 신형 무기를 노획한 것은 대단한 전과였다. 당시에 이범구<sup>69)</sup>(李範九)의 신고로 한차례의 교전이 있었고, 속초애국동지회에 침투해 있던 공산당원<sup>70)</sup>의 정보누설로 5대대의 행보가 북한군에 예상보다 빨리 발각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속초에 출정 채비를 마친 북한 제3병단<sup>71)</sup>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5대대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렇지만 5대대는 쉽게 뒤를 잡히지 않았다. 치고 빠지며 북상을 계속해 7월 9일에는 신선봉에 진격하였으며, 12일에는 마산리에서 처음으로 토벌대와 조우했지만 1개 소대 병력의 북한군은 정예 호림부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교전 끝에 북한군은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향로봉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교량 2곳을 파괴하고 트럭을 기습해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7월 15일, 소양강의 발원지인 삼치령 전투에서 전력의 열세로 패한 뒤, 해발 1385m의 국사봉 삼각고지에 재집결하여 북한군 추격대와 용감히 싸웠으나, 대대장 백의군이 7월 16일에 그곳에서 전사했다. 252명의 대원 가운데 38° 선을 넘어 무사히 귀환한 대원은 5대대 23명, 6대대 12명 등 도합 35명뿐이었다.

북한은 호림부대원 106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호림부대가 주민 11명을 납치하고 29명을 살해했으며 가옥 11채를 파괴하고 소 15마리를 죽였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38° 선 인근 전답 1만 1,859평에서 농사가 방해받았고 4,800평에서 제초를 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덧붙였다.

포로가 된 호림부대원들은 1949년 8월 28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재판을 받았고 모두 사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9월 11일 형이 집행되었다.

무사히 생환한 대원들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좌절과 실망뿐이었다. 정식 군인이 아닌 데다 부대의 창설도 6·25한국전쟁 이전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며, 북파 20여 년 만에 호림부대 생존자들이 국방부로부터 정식으로 동료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았다<sup>72)</sup>. 전적비를 세우는 일조차 순탄치 못했다. 북침의 증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당국에서 만류하고

나섰던 것이다. 생존 호림부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노력한 결과, 37년 만에 그들의 원혼을 달래줄 호림부대 전적비가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1986년 9월에 건립되었다.

### (3) 당시 상복리의 투옥자 명단과 형기는 다음과 같다.

김종림(金鍾林, 사형), 김근수(金根洙, 10년), 김중우(金鍾禹, 17년), 김학배(金學培, 10년), 김성훈(金成勳, 10년), 김성룡(金成龍, 5년), 조만순(趙萬順, 7년), 김성태(金成泰, 7년), 김종모(金鍾模, 17년), 김종학(金鍾學, 17년), 양영길(梁永吉, 10년), 김우배(金佑培, 10년), 김옥배(金玉培, 7년), 김종탁(金鍾卓, 7년), 이몽순(李夢淳, 10년), 이몽춘(李夢春, 7년), 김종찬(金鍾瓚, 7년), 김종호(金鍾浩, 3년), 최동수(崔東洙, 3년), 박용준(朴容俊, 13년), 박용선(朴容善, 13년), 권오룡(權五龍, 13년), 추병식(秋秉植, 13년), 최서구(崔瑞龜, 13년), 김환기(金桓起, 8년), 김종학(金鍾學)은 18세의 소년으로 정보연락의 책임을 맡았다.

### (4) 호림부대의 전과(戰果)

#### 가. 당시 생존자

김종익(金鍾翊, 강릉), 이종억(李鍾億, 속초), 김하섭(金夏燮, 토성면 아야진리), 김재수(金在洙, 서면 수상리), 이상은(李相殷, 속초), 김종성(金鍾聲, 설악동)

#### 나. 당시 전사자

김남홍(金南洪, 금풍리), 박춘근(朴春根, 남문리), 이계화(李啓和, 서문리), 최복길(崔福吉, 속초 영랑), 박용학(朴容學, 용천리), 김명중(金鳴鍾, 도리), 윤정병(尹貞炳, 영덕리), 이상옥(李相玉, 영덕리), 이상만(李相萬, 영덕리), 이효충(李孝忠, 영덕리), 이광우(李光佑, 속초 중앙동), 김사열(金士烈, 영덕리), 김정수(金貞洙, 영덕리), 김혁배(金赫培, 상복리)

## (5) 후문

가. 김환기가 원산형무소에서 폐렴(肺炎)으로 중태 시 이상권에게 호림부대의 양양 공격시 실패는 위조군표사실이 탄로나고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패하였다.

나. 6·25한국전쟁직후 귀순한 당시 인민군보위부 중좌였던 염동호(廉東浩)의 증언에 의하면(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근무) 다음과 같다.

가) 1949년 7월경 호림부대 2개 대대병력이 중부지구에 침투하여 일대경동(一大驚動)을 일으켜 공산당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었다.

나) 1949년 7월에 호림부대 포로 40여 명을 귀순용사라는 명목으로 자동차에 현수막을 달고 포로를 탑승시키고 각 주요도시 및 각 군부대를 순회 선전했다.

다) 40여 명의 호림부대원은 평양, 함흥, 원산, 등지에 5,6명씩 분산 수용되어 중상자를 치료하는 한편 세뇌공작을 하였다.

라) 1949년 9월에 호림부대 40여 명에 대한 심판을 평양최고재판소에서 열고 최고 간부급 및 각처의 지도계층과 언론계 등을 동시 참여케 하여 재판을 하였는데, 이때 재판정에서 호림부대 강모중위가 고함과 욕설을 하여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 후 강중위를 비롯해 6명의 호림부대의 간부급을 모란봉에서 김일성이 참관하는 가운데 총살형으로 집행했다고 한다.

마) 1949년 6월 호림부대 침투직후 비상령을 선포하고 10월말 경에 해제한 것이며 호림부대토벌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3개 사단 병력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



## 9) 도리 반공청년 비밀공작사건

### (1) 조직

도리는 38° 선 이남인 장리로부터 2km 북쪽에 위치하여 서북청년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반공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이에 손양면의 민주당 총책인 이기호(李起虎)를 중심으로 공산당을 타도하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비밀결사의 행동대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의 총책은 이기호(李起虎)이고 행동대원은 이종운(李鍾允), 이종명(李鍾鳴), 이종현(李鍾鉉), 노재봉(盧在鳳), 이종운(李鍾雲), 김정수(金正洙), 양인석(梁仁錫), 이종천(李鍾天), 이종선(李鍾善), 양재일(梁在逸), 이종원(李鍾遠), 이종성(李鍾聲), 이종열(李鍾烈), 양재진(梁在振), 이종복(李鍾福), 이봉래(李鳳來), 안봉도(安奉道) 등이었다. 연락책임은 이종천과 노재봉이었다.

### (2) 활동

이들은 이쪽 정보를 장리지서를 통하여 이남의 서북청년회와 호림부대공작대에 전달하고 또 그들로부터 정보와 무기를 공급받았으며, 또 남북간의 물물을 교류하여 필요한 공작자금을 마련하여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되던 1947년 7월 7일에 공산당총회 개최시에 회의장을 폭파하고 적색분자들을 피살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때 공산당사와 훈련장은 도리인민학교였다. 그러나 도리인민학교장인 안봉도(이기호의 대원이면서 공산당 정보원)의 고발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전원이 양양내무서장에게 체포되었다. 도리청년들 대부분이 체포되어 양양재판소에서 즉결 판결을 다음과 같이 언도를 받고 원산형무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였다.

이기호(무기), 이종운(15년), 이종명(7년), 노재봉(7년), 이종운(7년), 김정수(7년), 양인석(8년), 이종천(12년), 이종선(7년), 양재일(7년)

그 후 이종현은 체포전에 월남하여 부모와 처자를 인솔하려고 입북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다. 또한 이기호는 복역 중 중노동에 영양실조로 옥사하였다. 그 외

북역자들은 1949년 2월 6일에 배에 실려 바다에 넣어 수장(水葬)하여 버렸다. 이 사건 후 도리주민은 모두 분산 이주되었다.

### (3) 이후 활동

가. 대원(隊員)중 사전에 월남하여 국군에 편입한 뒤 6·25한국전쟁 때 전투에 참가한 북진용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종원(주리) 장리대한청년단장	이종성(도리) 학림부대공작대원
이종열(서울) 학림부대공작대원	심상진(강릉) 학림부대공작대원

나. 민주당(民主黨) 양양지부 활동

지부장 이근화(李根化) 총무부장 이기호(李起虎) 조직선전부장 김태영(金泰泳)

다. 서북청년호림부대에서 활동

윤석기(尹錫基, 수리), 김병열(金炳烈, 서림리), 김지봉(金知奉, 수리), 김선배(金善培, 수리), 김종순(金鍾順, 수리), 김인환(金仁煥, 수리), 김한배(金漢培, 수리), 이대우(李大雨, 서림리), 김세환(金世煥, 서림리)

그 후 도리인민학교장 안봉도는 도리사건공로자로 김일성의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 10) 장리 지서원(支署員) 납치사건

현북면 장리는 강을 경계로 이남인 까닭에 장리에 지서가 설치되어 38°선 상의 국토 방위의 전초기지이며, 아랫마을 도리는 강 남쪽의 산머리까지가 38°선이어서 북한의 치안대와 소련군이 주둔하여 38°선 상에서 서로 총격하는 분규가 자주 일어났으며, 또 납치사건이 빈번이 일어나 사상자가 많았다. 부소치가 월남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 소위 '루트'가 되었기에 북한의 감시망의 초점이 되었다. 도리는 지형상 양 계곡사이에

끼어있어 경계가 삼엄하였다. 그러나 부소치 사람과 장리 사람들은 남대천 강물에서 서로 목욕도 같이 하며 담소하기도 하였다. 밤에 주로 월남자가 많았다. 양쪽 경비원이 38° 선의 경계로 시비로 남한 측은 강의 중심이라 하고 북한은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다. “당신네는 강중심이라 하나 우리 지도를 보고 38° 선을 확실하게 정하자”고 북한에서 제의하기에 이것이 유인책인 줄 모르고 이에 응답하고, 1949년 11월 20일에 경찰관 2명(지서주 임 박문수와 이상열(李相烈) 순경)과 한청원(韓靑員) 3명이 도리에 갔다. 도리에 도착하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 내무서원과 소련군이 포위하고 “손들어”하고 모두 납치하여 양양으로 끌고 갔다. 한청원의 신현복은 끌려갈 때 ‘소피’(소변)를 보겠다하고 한 뒤 어둠을 틈타 도망하였다. 그 후 끌려간 사람들의 생사도 모르고 그들의 처리 관계도 알 수 없다. 이상열 순경은 1949년 11월 20일 전사로 되고 그 가족은 원호가족으로 보호 받고 있다.

### 11) 반공유격대 및 특공대 활동과 전과

김려수(金麗水)는 1946년에 월남하여 반공청년들과 계림(桂林)유격대를 조직하고 동해지구 38° 선의 파견대장으로 계림라 작전과 고노골 기습공격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고, 6·25한국전쟁 당시는 육군 3사단 정보수색대장으로 북진시에 양양을 선두로 진격하여 현산공원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당시 양양에는 노약자만 남고 애국청년들은 행방을 감췄다. 당시 북괴군이 군민(郡民)들을 후퇴하도록 명령하여 일부는 후퇴하였으나 애국청년들은 산중(山中)에 피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애국청년전원을 구출할 것에 전념하던 중, 주문진에 반공청년들이 다수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100여 명의 청년을 인솔하고 다음날 양양에 도착하여, 산중에 피신했던 반공 청년들을 군청소재지인 남문리에 집결시켜 놓고 육군 제1군단 헌병부장의 승인을 얻어 양양자치방위 특공대를 조직하였다. 대장은 김여수, 부대장은 대포리 이홍석(李弘錫), 작전참모는 김현학(金顯學)이 맡아 북괴군 패잔병 소탕작전 때에 그 공적이 컸으며, 특히 북괴군 패잔병 1개 여단이 북상시 속초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우리 특공대원도 5명이 전사하였다. 그 유골은 속초 보광사 뒷산에 안장하였다. 지금은 위령탑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12) 공비만행과 소탕

### (1) 오대산지구 남침공비소탕

제주도 4·3사건과 여·순반란 10·19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국군과 경찰병력이 후방으로 투입된 상황을 파악한 북괴는 남한 내의 치안을 교란하고 각지에서 폭동 반란을 일으켜 공산화를 이룩할 목적으로 좌익 계열에 지령을 내려 붕괴된 지하당조직의 재건 및 야산(野山)유격대를 편성하여 무장봉기들을 꾀하였다. 북괴는 소위 해방산(解放山)이라고 부르던 오대산 일대를 무대로 남한에 있는 공비에게 무기 공급 및 병력보충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양양인민유격대훈련소’에서 유격전에 대한 훈련을 받은 남로당 출신 약 180명을 선발하여 괴뢰군복과 일제 99식 장총으로 무장시켜,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에서 38°선을 넘어 비밀리에 월남 침투시켰다. 이들 남침공비는 험준한 백두대간의 산줄기를 타고 오대산과 흥정산(興亭山)을 거쳐 1948년 11월 15일에는 흥천, 평창, 횡성의 3군 접경에 있는 태기산(泰崎山)에 이르러 계속 남하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원주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8연대는 즉시 일부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과 합동으로 공비의 남하루트를 차단하고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우리 군경의 태기산 포위작전에 걸려든 남침공비는 수많은 사상자를 나타나자 사기가 저하되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 흥정산, 보래악, 매봉산을 우회하여 다시 남하를 계속하였다.

우리 군경은 이러한 무장공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11월 17일에는 지휘본부를 간고개(間峙)로 이동한 후 계속적으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수색·추격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11월 20일에는 지휘본부를 평창경찰서로 이동시켜 공비가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봉쇄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경의 봉쇄망을 교묘히 탈출한 공비의 주력은 서울~강릉간 도로를 건너질러 가리왕산, 치악산, 백덕산 방향으로 계속 남하하여 분산된 병력을 규합한 다음 영월지역으로 들어가 마차 탄광 지역에 침투했다.



## (2) 태백산지구 남침공비소탕

경북 보현산지구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의 포위망에 발이 묶여 섬멸 직전에 놓인 김달삼 부대를 구출하고자 북괴는 전에 강력한 정예부대 700명을 월남 침투시켰다. 김상호 및 김무현이 각각 반(半)을 인솔한 이들 극렬분자로만 편성된 소위 인민유격대는 선발대로 김상호가 약 300명을 이끌고 1950년 3월 24일 05:00를 기하여 주문진 경찰서 관내인 기교, 대치리, 명지리, 장리, 서림리 등 38°선 경비대가 우리측 전초 참호 진지에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고 38°선 이남의 각 고지에 불법 남침하므로 우리측 국군 병력이 각 고지에 집결한 틈을 이용하여 정족산·벽실령을 넘고 오대산의 산줄기를 타고 남하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 검토한 제8사단은 주문진 주둔 1개 대대의 병력을 출동시켜 경찰의 협조하에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아군은 공비들을 노인봉에서부터 청계동계곡으로 유인하여 일제히 공격하여 공비침투 23일 만인 1950년 4월 17일 두목 김상호 이하 176명을 사살하고 36명을 생포 12명의 귀순포로를 잡은 외에 박격포 5문, 중기관총 3정, 기타 장비 다수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무현이 이끄는 나머지 350명의 무장공비는 인제에서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치전동에서 월경하여 방대산을 거쳐 남하하였다.

## (3) 기타 공비토벌상황

### 가. 1948년 11월 14일

여·순반란사건으로 군경의 주력이 호남 및 영남지역에 집결되어 남한의 치안상태가 혼란에 빠진 시기를 포착, 1948년 11월 14일 강동정치학원 제1차 수료생 약 100명을 양양에서 오대산지구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오대산 산줄기를 타고 태기산까지 남하하였으나 아군이 포착됨으로써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 공비는 충북 제천방면으로 도주하였다.

#### 나. 1949년 9월 28일

7차례에 걸쳐 침투에 모조리 실패한 북괴는 1949년 9월 28일 39경비여단 예하 일부 병력의 엄호하에 약 50명의 유격대를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군 제8사단에 의하여 격퇴되어 분산 월북하였다.

#### 다. 1949년 11월 6일

8차에 걸친 침투에 계속 실패한 북괴는 육로에 의한 침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1949년 11월 6일 약 100명의 유격대를 경북 영일군 솔라면 지경리로 해상 침투시켰는데 이들은 보현산으로 입산하여 동해여단의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였다.

### 4. 6 · 25한국전쟁

#### 1) 남침 준비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남조선 노동당 지도자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민주 기지론(소련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이 혁명을 위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한에서 먼저 혁명을 하여 민주 기지로 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하겠다는 이론)를 내걸고 남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소련, 중공과 군사 비밀협정을 맺어,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등 최신무기를 도입하고, 중공으로부터는 중국군에 참여하였던 조선 의용군 2~3만 명을 지원 받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 (1) 북한군의 이동과 부대배치

북한군 제5사단은 함경남도 나남에서 동해북부선 기차를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이후 양양을 중심으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을 경비하면서, 당시 양양에 있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 5사단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중공군에서 편입된 사단으로서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이었다.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는 상륙부대로서 총참모부의 직접 통제하에 운용되는 부대였다. 제945육전대는 원산에서 기차로 이동해 23일 양양에 도착하였으며,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간성을 거쳐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제766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 출신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주 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삼척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데 있었으며, 제945부대는 강릉 정동진 일대에 상륙하기로 계획되어 24일 양양을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12 MTSP연대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양양으로 이동시켰다. 기마병대는 양양중고등학교에 주둔하였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일대는 이미 주둔하고 있었던 38경비 제1여단 등 도합 3개 사단과 1개 유격부대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완료하였다.

당시 북한군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4-14〉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이동 상황(1950. 6.)

부 대	주둔지	도착지	부 대	주둔지	도착지
제1군단	금 천		제2군단	화 천	
제6사단	사리원	계 정	제2사단	원 산	화 천
제14연대	남천점	해주 · 죽천	제12사단	원 산	양 구
제1사단	남 포	구화리	제5사단	나 남	양 양
제4사단	경 강	연 천	제15사단	회 령	화 천
제3사단	시능주	운 천	독립전차연대	나 남	인 제
제13사단	평 양	금 천	제12MTSP연대	길 주	양 양
제105전차연대	평 양	연 천	제766부대	회 령	원산 · 간성
제203전차연대	평 양	남 천	제549부대	갑 산	성 진

제10사단은 군 예비로 숙천에 주둔

## (2) 북한군 전투력

북한군의 전투력은 제1경비여단이 약 8,000명, 제5사단 예하병력이 약 3,000명,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가 약 3,000명 등 14,000명 정도였으며, 화력으로는 122mm 곡사포 4문, 76mm 견인포 24문, 76mm 자주포 4문, 45mm 대전차포 20문, 120mm 박격포 14문, 82mm 박격포 36문, 60mm 대전차로켓포 200여 문 등을 보유하였다.

이밖에도 우마차를 동원하여 보급물자를 추진하고 전투 간에 노무자를 강제로 징용하여 각종 보급품을 운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선무공작대가 후속하며 활동하는가 하면 편의대를 운영하여 첩보를 수집하였다. 북한군 5사단은 양양-강릉의 해안도로 측선에 주력을 투입하여 북쪽에서 국군 제10연대를 정면 공격하고 제766유격부대와 제549육전대를 임원진과 정동진으로 상륙시켜 제21연대의 중원을 차단함으로써 2개 연대를 각각 격파하고 강릉을 남북으로 협공하려 하였다.

## (3) 국군 현황

동해안 지역을 담당한 제8사단(사단장 : 대령 이성가(李成佳)은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제6사단 예하 제10연대와 제5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기간으로 강릉 비행장에 창설되었다. 2개 연대로 편성되어 제10연대의 38°선 책임 경계지역은 현북면 기사문리에서 진흥동(인제)까지 26km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1연대는 예비대로 삼척에 배치되어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0연대 1대대는 광원리에 대대본부를 두고 책임 경계구역은 정족산(鼎足山, 869m)에서 서림리-쇠나드리(우탄리)-진흥동에 이르는 12km이었다. 연대의 우측 부대인 제2대대는 대대본부를 주문진에 두고 잔교리에서 대치리-명지리-장리-연화동-정족산을 연결하는 14km를 경비하였다. 제3대대는 예비대대로 제1대대와 교대할 계획이었다.

사단 포병인 제18포병대대는 장병 대부분이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교육수준과 반공수준이 높은 대대로서 105mm M-3포h 15문을 장비하고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GAT 사법(射法) 교육을 위해 포대장 및 선임하사관급이 대부분 포병학교에 파견 중이었고 대대



장도 육군본부에 출장 중이었다. 공병대대는 창설이래로 지역 내의 작전도로 및 교량설치 보수와 경비를 담당하는 한편 게릴라 침투 예상로와 38°선 경계진지 북쪽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주요 지역에 교통호와 진지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자재와 예산부족으로 3월경에 중단되었다.

제8사단의 병력은 6,866명이었으며, 장비는 105mm 야포 15문, 57mm 대전차포 12문, 81mm 박격포 24문, 60mm 박격포 38문, 2.36mm 로켓포 128문, 각종 차량 156대 등이었다.

## 2) 6·25남침과 전투 상황

북한군의 양양에서 남침은 2갈래로 이루어졌다. 북한군 제1경비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제대는 경비여단 소속 7개 보병대대로 편성하고, 제2제대는 제5사단 제10연대로 편성되었다. 경비여단 7개 대대는 제1, 제2, 제3보병대대는 귀둔리, 공수전리, 내현리 선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7보병대대가 기사문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제대인 제5사단 10연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받고 양양 부근에 집결해 있었다. 즉 6월 25일 04:00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주공격(主攻擊)부대가 현북면에서 기사문리의 38°선을 돌파하여 주문진으로 진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격(助攻擊)부대는 양양 영덕리에서 서림리 지역을 공격하여 원일전리를 거쳐 남대천을 거슬러 강릉 소금강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 (1) 잔교리-연화동지역의 전투

국군 제2대대가 담당한 이 지역은 24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경계진지 주변의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다. 188고지(잔교리 서남쪽 2km)에 고요를 깨고 낙하한 일발의 포격을 신호로 동해안에서 연화동에 이르는 일대에는 포탄이 비 오듯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적은 곧이어 포 사격을 계속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 우측 앞에서 동해안일대를 경계하던 제2대대의 제5, 제6, 제7중대는 적의 맹렬

한 포격을 받고 전열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순식간의 급습에 의해 혼전의 회오리 속으로 말려들었다. 제2대대 본부에는 04:35에 북분리의 제7중대장 강응설 중위로부터 “적이 공격을 개시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대는 물론 중대에서조차 이러한 적의 행동이 지금까지 자주 있어 왔던 게릴라 침투를 위한 공격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제5, 제6중대장으로부터 급박한 전황보고가 잇따르자 제2대대장은 적의 공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명지리-장리-연화동 일대를 경계하던 제5, 제6중대도 제7중대와 마찬가지로 진지선이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제10중대에게 286고지(북분리 남쪽 2.5km)를 확보하여 제5, 제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며 반격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연대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져 후퇴하였다. 제10중대는 제7중대의 엄호하에 동해가도를 따라 축차(逐次: 차례로) 철수하면서 인구리 주민의 피난을 돕고 응호(鷹湖: 매호) 동쪽의 교량을 파괴한 다음 임호리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제7중대는 제8중대의 기관총소대와 81mm 박격포의 지원하에 적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향호리 북쪽에 진지를 확보하였다. 제5중대와 제6중대는 어성전리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뒤 제5중대는 통신이 두절된 채 철갑령을 넘어 후퇴하였으며, 제6중대는 대대 주저항선에 진입하였다.

## (2) 정족산 - 진흥동의 전투

이 지역은 국군 10연대 제1대대가 경계하던 곳으로 북한군 제1경비단 제2보병대대가 서림의 제9중대 정면을 돌파해 산간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급진하였다. 당시 제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제2소대를 우측에, 제1소대를 정면에, 제3소대를 좌측에 배치하여 정족산정면에, 제3소대를 경계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아 제3소대와 화기소대가 중대장의 지휘아래 적과 교전 중 중대장이 중상을 입고, 적의 직사포 공격이 집중되면서 포위당하자 분산된 채 철수하였다. 제2소대는 제2대대 제6중대의 경계진지가 무너질 때 이미 분산되어 철수하였고, 제1소대는 지형상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나 자신들만이 고립된 것을 알고 16:00에 진부리로 철수하였다.

제11중대는 본부를 우탄리에 두고 구룡령 서북쪽 일대를 경계하였으나 통신이 두절되어 제9중대와 연락도 안 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제9중대를 공격한 뒤 오대산 쪽으로 남하하여 그대로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 (3) 당시 38°선 일대 국군 지휘관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가. 인구리일대(당시 제8사단 제10연대 제2대대장 조원영(趙原英) 소령의 증언)

6·25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지역의 지뢰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것이 남침을 위한 장애물 제거였던 모양이었다. 6월 22일에 북한병사 1명이 해안선으로 침투하여 귀순하였는데 적의 병력이 계속 남하 중에 있고 8월 15일까지 해방시키겠다고 떠든다는 것이다. 그 병사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군의 편제장비 준비 상태를 알고 전투력이 녹녹치 않은데 새삼 놀랐다. 6월 25일 새벽에 나는 그 간에 대대에 배속되었던 제10중대가 부대 교대차 서림리에서 광원리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대에 가서 신고를 받고 훈시를 막 하려는데 일선 중대에서 남침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대가 보유한 2대의 트럭으로 인구리로 출동하였는데 2~3회를 왕복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정면의 제7중대와 통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유무선이 두절되어 전황을 파악할 길 없었으나 적의 움직임으로 보아 진지는 이탈되고 분산후퇴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는 특히 제7중대의 좌정면인 188고지 일대를 적이 점령하여 제5, 제6 양중대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이 고지를 탈취하여 각 중대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사단으로부터 사단 전면에 대한 남침이니 사단 계획에 따라 지연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고지의 적은 흰수건을 흔들며 “우리는 물러선다”며 정말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무렵에 여성전리의 제5중대장 김동증 대위로부터 중대정면을 돌파한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남쪽으로 침투하여 자취를 감추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나는 적이 동해가도를 따라 그 주공을 지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중지시켜 인구리-북분리 도로를 따라 배치시킨 다음 후퇴중인 제7중대의 분산 병력을 흡수하여 인구 남쪽의 71고지를 확보하게 한 다음 제5, 제6중대는 주문진 북쪽의 임호리 341고지 유여리를 따라 사단 전초 진지선으로 즉각 진입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 적의 직사포 2문이 나타나 포격을 시작하였다. 나는 집중사격과 아울러 81mm 박격포로서 그 가운데 1문을 파괴하였으나 71고지를 점령한 제7중대로부터 적침보고가 있었

다.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기에 이른 나는 대대 주저항선으로의 철수를 명령하고 기관총 반을 지휘하며 제10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주문진으로 철수하였다. ... 이하중략

(당시 제8사단 제1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최창주 소위 증언)

6·25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대본부는 주문진에 있었고 우리 중대는 인구리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대가 38°선 경비를 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서부터 대치리라고 있는데 그곳에서서 38°선 경비를 했습니다. 그곳이 오대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죽 막아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2개 소대씩 38°선 경비를 교대로 나가곤 했는데, ...중략

바로 25일 아침에 인구리 초소에 가만히 있는데 나팔소리가 들려와서 이상하게 생각되어 초소, OP(작전상감시초소)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안보여요, 20m 정도 보이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초에다 전화를 거니까 순간적으로 38°선 앞까지 적이 접근을 했어요, 나팔소리가 들리자마자 들어온 것이지요, 당시 진지 축성 상태는 아주 미약했고, 철조망은 바로 진지 앞에 조금 있었고, 지뢰도 약간 매설되어 있었으며, 탄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60mm 박격포가 1개 반이 나와 있어서 박격포가 있었고 소총 탄도 비상용으로 좀 있었는데 하루 교전을 할 수 있는 양도 안 됩니다. 1개 소대가 실지 경계배치 구역은 정면이 1km는 됐어요. ... 중략

중대본부도 저녁때까지는 지탱을 했어요, 그때 적의 전차는 양양쪽에서 내려오고 보병은 오대산을 타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고지에서 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적은 오대산 능선을 타고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 밤에 주문진 방면을 다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적이 대병력이 밀려와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천 남방으로 철수했어요 ... 이하 중략

나. 명지리 일대(제8사단 제10연대 제5중대 소대장 이흥진 중위의 증언)

우리 소대는 명지리 북쪽 고지일대를 담당하였는데 적의 주요 접근 예상로여서 인지 비교적 진지공사가 잘되어 우리 소대에는 견고한 화력거점(토치카)이 2개 있었으며, 일대에는 지뢰와 철조망이 부설되어 있었다. 6월 25일 04:00경에 나는 명지리 마을의 소초본부(소대본부)에서 자고 있는데 포격에 놀라 깨었더니 282고지에 있는 제2화력거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포탄이 전후좌우로 비 오듯 쏟아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투태세로 즉각 돌입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번에는 133고지의 제1화력거점으로부터 적이 새까맣



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증강된 1개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명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즉각 비상을 걸어 133고지로 출동하면서 어성전에 위치한 중대장 김동증 대위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때 우리중대의 배치 상황은 내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우일선으로서 명지리 정면을 담당하고 제3소대가 장리 정면을 담당하였으며 제1소대는 중대예비로서 어성전리에 위치하였다. ...중략

05:00경으로 기억한다. 이때 적은 133고지의 화력거점을 탈취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출동하는 우리를 발견하자 2정의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병사들로 하여금 적을 저격토록 하여 이들을 사살하는 즉시 교통호로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때 비가 약간 오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적은 모두 술이 취해있는 듯하여 살금살금 접근하다가 안개가 바람에 날려 시계가 트이는 순간에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이리하여 30분간을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렸는데 실탄이 거의 바닥이나자 어찌할 길이 없어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장리 일대를 담당한 제3소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중대장이 걱정하였는데 그 소대는 나중에 어성전리에서 합세했는데 소대장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몇 일후에 복귀한 것으로 안다. ...이하 중략

다. 구룡령일대(제8사단 제10연대 제3대대 제11중대 제3소대장 정진화 소위 증언)

제10연대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서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다가 1950년 6월 22일경에 진흥동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의 진지를 인수했다. 이때 제11중대는 제1대대의 좌일선 진지를 인수하고 제9중대는 우일선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대대본부는 강릉비행장에 제12중대와 같이 주둔하고 있었고 제10중대는 주문진에서 제2대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9, 제11중대는 광원리에 본부를 둔 제1대대의 작전 지휘하에 있었다. 즉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교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받은 것이다. 당시 부대 배치는 중대본부는 쇠나드리, 제1소대는 좌일선, 제2소대는 예비로 쇠나드리, 제3소대는 우일선으로 859고지에 배치되었다. 우리 소대의 소초본부는 859고지의 정상에 있었으며, 고지 북사면에 분대 단위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방어지지는 허술했고 경비지역은 2km 정도였고 진지는 군데군데에 유개호가 있었고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었다. 3소대의 병력은 36명(100%)이었으며, 통신장비로는 T/S-10가 있었는데, 인접소대와 횡적인 통신망은 없고 중대본부 경유 통화가 가능하였다. ... 중략

보급 상황은 정상이었으나, 비상식량은 중대 본부에 비축하고 일선 소대는 개인당 건빵 3~4개 봉지씩 지급되어 있었다. (진지교대 몇 일전에 북한군 하사관 1명 귀순했는데, 그

자는 “북쪽에서는 건빵 1주일분이 각자에게 지급하고, 철원에는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탄약은 1기수 당 160발이 있었다.(진지를 인수한 날부터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새벽사이엔 적의 습격도 받고 우리가 적 초소를 기습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자고 밤에 근무했다.) …중략

6월 25일 이른 새벽에는 짙은 안개가 끼여 시계가 제한되고 있었다(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이날 새벽 우리 소대 정면 박격포탄이 집중되고 소총사격도 가해졌다. 그 당시까지 한번도 이러한 적의 사격을 받아 보지 못한 까닭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우리 소대는 사격으로 저항하여 적을 격퇴했다. 아침 해가 뜰 무렵부터 859고지 일대에 비가 내렸다. 얼마 후(오전) 적의 주력부대는 우측 제9중대 지역의 웃용소골-서림리로 남하하고 우리중대 정면은 잠잠해졌다.(적의 일부가 우리 소대를 견제하고 주력은 우측으로 포위) 나는 38°선 진지에서 1~2시간 방어하다가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쇠나드리로 철수했다. 그러나 좌일선 소대와 우인접 제9중대와와는 통신이 두절되었다. 우리 중대는 적정도 아군 상황도 모르는 속에서 쇠나드리에 집결하여 있다가 이날 어두워질 무렵 철수를 개시하여 갈천리-구봉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재편성한 후 2~3일간 남하하여 영월에 도착하였다. …이하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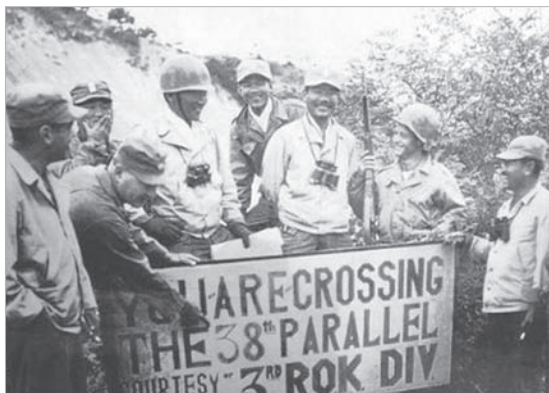
### 3) 38°선 돌파

38°선 돌파문제는 1950년 8월 30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는 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이후 북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통일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어 침략자를 격멸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할 한국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다음날 29일 모든 부대에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했다. 이에 국군도 38°선에 정지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38°선을 돌파해 북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유엔군과의 지휘체계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워커 장군에게 동해안 전선의 국군이 전술적인 상황하에서 38°선 바로 북쪽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 동의를 얻었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1950년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

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 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30일 제3사단 제22연대는 강릉을 탈환하였고, 제3사단 제26연대는 삼척에서 LST로 출항하여 주문진에 집결 중이었다. 38° 선 돌파를 앞둔 이날 제3사단이 북진 준비를 완료하였을 때, 수도사단 제18연대는 38° 선 남쪽 2km 지점 서림리로 진출하여 서림~양양가도를 따라 양양의 서측방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10월 1일 05:00경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봉으로 역사적인 38° 선 이북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양양 38° 선 지역에서 북한 인민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그날 10시경 38° 선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38° 선을 돌파한 것이었다. 38° 선을 넘는 순간



38° 선 돌파당시의 모습

주민들은 구겨진 태극기를 펴들고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북진하는 국군에 환호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1956년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sup>73)</sup>로 정하였다.

10월 2일 양양군민은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는 읍면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치안대장은 김영제가 추대되었다가, 11월 22일에 김민하로 교체되었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주하는 북한군을 속초 논산앞에서 격퇴하였다.

#### 4) 1·4 후퇴 시 양양사수 작전

1950년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10월 27일 전선에 개입하고, 북한군은 징집을 통해 40%이상의 신병을 충원하여 다시 남침을 하였다. 이에 국군 제1군단(사단장 : 김백일)은 흥남에서 선박으로 철수하여 12월 18일 묵호(수도사단)와 울진(제1군단)에 상륙하여, 12월 23일에 강릉으로 이동한 후 지휘소를 설치한 후 수도사단을 주문진에 배치시켜 적의 남침에 대비하게 하였다. 일부는 현리(懸里, 인제군), 오대산지구에서 적을 방

어하다가 밀려 1951년 1월 3일 영월로 철수하면서, 동해안 지역 38° 선 상에 설치된 “C 방어선상”에서 저지한 후 인접한 제3군단과 호응하여 黃牛線(삼척~영월선)으로 계속 철수하면서 일대 반격할 계획이었다.

양양에서는 이보다 앞서 현리에서 양양에 이르는 선상에 육본직할부대의 제28연대를 관대리(冠垓里)지방에서 현리 남방까지, 제29연대는 구하골에서 서림까지, 제30연대는 양양 서북방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각각 중점으로 배치하여 이 일대에 잠입하고 있는 적 길원팔(吉元八)유격대와 금강산방면에서 남하한 수미상(數未詳)의 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12월 24일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1연대(한신 대령)를 양양에 진출시켜 제9사단 제30연대의 진지를 인수케 하였다. 그 주저항선은 수여리에서 장승리와 금풍리에 이르는 선상이었고 기갑연대는 서림 동방인 어성전리 북방과 하광정리에 배치하여 예비진지를 구축하고 제26연대를 사단예비대로 하여 주문진에 두어 방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남진방책을 해안선을 피하여 아군의 방어력이 취약한 산악지역을 택하여 유격부대 침투에 주력하였다. 더구나 아군 제9사단 대부분의 이동으로 공백이 생긴 서림서방지역의 공간을 이용하여 오대산일대로 잠입하려는 계획을 세워, 12월 24일 제29연대의 주력부대가 완전 철수하고 극소수의 병력으로 잔무 정리 중인 서림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적에게 다시 38° 선이 다시 돌파 당하였다. 이에 25일 양양 서림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9사단을 현리와 창촌으로 이동시켜 북한군 제2사단을 방어하게 하였다. 이에 수도사단장은 전주력 부대에 진지 보강을 속행하게 하면서 김동수대령이 지휘하는 기갑연대를 방어력이 약화된 서림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12월 25일에 군단 예비진지에서 철수시켜 26일에 제1대대를 현진지에 두고 제2대대를 서림에서 조침령과 황이리 일대로, 제3대대를 면옥치리에서 정족산 일대에 재배치하고 연대지휘소를 서림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양양북방에서 약간 철수하여 기갑연대와 연결되는 영덕리에서 양양남방을 중심으로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배치하고 적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9사단이 방어하던 현리와 창촌 지역의 전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제3군단장(김백일)의 지시에 따라 수도군단의 기갑연대는 주력인 제2, 제3대대로 하여금 29일 04:00



시에 서림에서 하치전(下雉田)남방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또한 주문진에서 송천으로 이주한 제26연대 제3대대는 29일 06:00시에 제9사단 제30연대의 전투지역과 연결을 위하여 갈전곡봉(葛田谷峰)남방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적의 침입이 주로 인제와 평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림 서북방에 배치되어 있는 수도사단은 접적(接敵)없이 현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인제 평창지역의 전세가 더욱 악화되자, 1951년 1월 3일 육본 작전명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서림지역에 있던 수도사단 주력부대를 송천에 있는 제26연대로 하여금 엄호부대로 하고 각 연대별로 철수들 단행하여 4일 04:00시에 제1연대를 주문지서 남방 삼교리에서 하진부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양양 38° 선 이북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1차 피난을, 이남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차 피난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북한군은 강릉 초당리에 사령부 둔 민족보위성직할(民族保衛省直轄) 제4군단 제69여단은 예하 6개 대대의 병력으로 강릉 일대에 배치하여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태세 갖추고 이후 남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수도사단 제26연대가 중심이 되어 2월 3일부터 시작된 강릉 탈환 작전은 2월 6일에 성공하여 초당리에 있던 북한군 69여단을 격퇴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오대산 일대도 소탕하였다. 당시 양양에는 후방지역을 소탕하고 있었던 경장비(輕裝備)의 제2경비대대가(독립대대 당시 1,200명) 남이 있어 최전방부대가 되었다. 이에 급거 재진격한 수도사단에 의해 진지가 교대되어 영월로 이동하였다.

## 5) 38° 선 재탈환 작전

1·4후퇴 이후 1951년 3월 이후 국군의 반격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국군 제1, 제3군단은 경강국도(서울-강릉간)에서 양양-현리(인제)를 연결하는 ‘카이로선’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무렵 험준한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던 인민군 패잔병들이 양군단의 후방지역으로 접근하자 먼저 이들을 소탕하였다.

3월 18일 제1군단장은 양양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도사단에 18일부터 연곡천 북쪽지

역에 대한 강력한 수색정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군단 정면에 인민군 제69여단도 북으로 철수한 제10사단의 일부를 증원받아 양양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악으로 연결된 하월천리-만월산-명지리 축선에 축차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국군 수도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수색에 나선 제1연대는 동해안에 배치된 미 함정의 화력 엄호아래 적의 축차전지를 격파하고 양양 남쪽의 어성전리-명지리 선으로 진출하였다.

적은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극력 저항하였으나 미 함정의 집중적인 함포사격에 의한 병력손실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급진전되자 수도사단장은 제26연대가 방어 중인 경강국도변의 진지를 9사단에 인계하고, 연대를 주문진을 경유하여 양양 인구리로,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도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이동시켰다.

제1군단과 왼쪽으로 인접한 제3군단이 위력수색작전에 주력하고 있을 무렵, 3월 25일 08:00에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동부전선의 국군으로 하여금 신속히 카이로선으로 진출하게 하자”는 요청을 받은 육군본부는 작전지시 제10호 “제1군단 및 제3군단은 3월 25~26일 양일간에 공격을 실시하여 책임 지역내 카이로선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카이로선의 양양을 점령하고, 제9사단은 수도사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차례대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3월 26일 좌전방에 제1연대, 우전방에 제26연대로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양양을 고수하기 위하여 남대천 남쪽의 우암리-노고봉선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단은 전화력(全火力)을 집중한 후 돌격하여 적의 최후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적은 방어선이 돌파되자 남대천을 도하하여 양양북쪽의 고성군과 한계리-인제로 통하는 설악산 입구로 철수하였고, 사단은 27일 남대천을 건너 양양으로 진출하여 양양-인제, 양양-서림리 간의 차단진지를 점령하였다. 당시 양양-속초 간의 인민군은 동해안에서 지원되는 함포사격에 방어진지 편성은 물론 철수도 불가능하게 되자, 인제-설악산 간의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도로변에 거점을 확보하고 저항하면서, 설악산 입구의 387고지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였다. 이 고지는 적 제2군단의 철수로 양양-오색령-

원통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므로 일전을 준비하는 듯하였다. 수도사단이 387고지에 집중사격을 실시한 후 제1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공격에 실패하였다. 사단이 포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안 제1연대는 전열을 재정비하여 30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의 화력이 387고지의 후방으로 계속되자 적은 1개 중대 규모의 잔류부대만 두고 주력은 오색리를 경유하여 설악산으로 퇴각하였다.

한편 제3군단은 3월 25일 후방지역의 패잔병 소탕작전을 제7사단에 전담시키고 제3사단으로 하여금 경강국도에서 카이로선인 현리-서림 도로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사단은 제18연대를 주공으로, 제23연대를 조공으로, 제22연대를 예비로 하여 26일 08: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는 오대산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악 능선을 따라 공격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27일 카이로선상에서 서림리를 확보하였고, 제23연대도 27일 월정동을 지나 30일 조개리(홍천군 내면)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 제3군단은 현리-서림과 동해안의 전술적 요충인 양양을 확보하였다.

## 6) 설악산지구 전투

1951년 3월 양양지역을 재탈환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월에 들어서면서 한국 전쟁사에서 매우 빛나는 전투이며, 현재의 휴전선이 서부전선보다 위로 올라가 고성지역까지 북상할 수 있는 계기의 전투였던 설악산지구 전투를 전개한다.

당시 북한군은 제6사단과 예하의 제1연대, 제5연대, 제15연대와 제12사단의 제2연대가 설악산 일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하는 동시에 120mm, 82mm 박격포, 중기 경기, 무반동총 등 다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후방과의 연락과 보급이 원활이 이루어져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가운데, 아군의 후방이나 보급 차량 등을 기습 공격하여 북진 및 전투력 약화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국군은 제1군단 1951년 5월 1일 주문진 장가동(長街洞 : 현재 교황리)에 군단사령부를 두고 예하 수도사단과, 보병 제11사단을 중심으로 설악산 일대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작전 기간 중의 날씨는 비교적 청명하였으나, 야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어 관측에 어려움이 있었다. 잔설이 남아

있는 지역도 있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 (1) 수도 사단 : 설악산 남부지역 전투

#### 가. 적의 상황

대승령과 우와리(牛臥里 : 인제군) 및 가리봉 부근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6사단 주력과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방어력을 강화하고, 아군의 진격을 지연 저지하는 한편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여 가리봉 일대에서 공격하여 남하하고자 하였다.

#### 나. 부대 이동 상황

5월 1일에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지휘소를 양양에 두고 제1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오색리에서 가라피로 이동 설치한 뒤 각 대대를 이동 배치하였다. 기갑연대는 장승리에, 제26연대는 공수전리에 각각 지휘소를 설치하고, 사단 전차 공격대대는 양양을 경계하게 하고 포병 제20대대는 마산리에 지휘소를 두고 마산리와 오색리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다.

5월 3일에는 제1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가라피리에서 마산리로 이동하는 한편 주력은 오색령~금표암 일대를 확보 중이며, 제2대대는 제3군단 예하 제18연대 제1대대와 대하여 필레일대의 진지에 투입되었다. 제3대대 주력은 점봉산 일대로부터 북진하여 망대암산에서 지산봉에 배치되고 제10중대는 계속 광여리에 남아있었다. 기갑연대는 장승리에서 가라피로 이동하고, 제1대대는 사단간 전투지경선 변경으로 다른 담당지 경내에서 철수하기 위하여 제20연대 제2대대에 관모봉 서사면 일대 진지를 교대 인계하고 가라피리에 집결하였다. 제2대대는 장승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제1연대 제1대대진지를 교대 인수함으로써 금표암 일대의 진지에 투입되었다. 제26연대는 공수전리에서 서립으로 이동하였다.

5월 4일에 제1연대는 전일의 진지를 계속 확보 중이었으며, 기갑연대 주력은 송천리에 집결 중이었으며, 제2중대는 설악산에 진출하여 전초 진지를 적과의 교전 없이 확보하였으며, 제5중대는 약수리에서 대기 중이었다.



5월 5일에는 대부분의 부대가 7일의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동 없이 전일의 진지를 확보 중이었다.

5월 6일에는 제26연대 전투지휘소가 서림에서 약수리로 이동하였고, 기갑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가라피리에서 설악산으로 이동하여 7일에 각 대대를 분산 배치하였으며, 사단 전차공격대는 가라피리로 이동하였다.

#### 다. 제1연대의 5월 7일 이후 전투 상황

5월 7일에 제2대대 주력은 가리봉과 대승령 일대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약수리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을 하였다.

8일에 제2대대는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진출 중 가리봉 일대에서 강력히 저항하는 적 약 2개 중대와 3시간에 걸쳐 교전 후 적을 체포 섬멸하고 가리봉을 점령 확보하였다. 제3대대 주력은 대승령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자양전 서남방 지점에서 적 1개 중대와 조우 격전을 벌려 적을 섬멸한 뒤 대승령 서남방의 능선일대를 확보하였다.

9일에 수도사단은 지휘소를 양양에서 가라피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가리봉 북방으로 패주하고 산재된 적을 추격하여 가리봉 서북 능선을 점령하였다.

10일에 제2중대는 진지를 출발하여 가리봉에 도착하여 제7중대와 진지를 교대하는 중 적 약 1개 중대의 기습공격으로 한때 상황이 불리하였으나, 3차에 걸쳐 돌격탈전(突擊奪戰)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야간을 이용하여 가리봉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서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대승폭포 서남방 1km지점에서 약 1개 중대로 추정되는 적과 2시간의 교전으로 적을 격퇴하고 원진지에서 야간배치에 임하였다.

11일에 제1대대는 연대예비대대로서 가리봉 동측 간의지역을 점령 배치중이며, 제2대대는 진공 중 11:00경에 제5중대 정면 자양전 북방 고지와 제7중대 정면 지점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 약 2개 중대를 제7중대의 좌측으로 위회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하여 완전 체포 섬멸하였다. 제3대대는 1,210고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 약 1개 중대를 추격하여 섬멸하고 안산(鞍山, 인제군)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였다.

12일에 2대대는 대승폭포 서남방 능선에서 적 약 1개 중대와 조우전이 전개되었으나 긴밀한 화력지원과 아군의 육박전으로 격퇴시켰다.

13일에 제1, 제2대대는 접적(接敵)없이 계속 현진지를 확보중이며, 제3대대는 1,210고지에 내습한 숫자 미상의 적과 1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격퇴시키고 진지를 강화하였다.

#### 라. 기갑연대의 5월 7일 이후 전투 상황

기갑 연대는 설악산 서남방 능선의 안산을 중심으로 5월 7일 이후 9일까지 적과 대치하면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10일에 제1대대는 진지를 출발하여 157.2고지 주변에 결집하고 안산 일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고, 제2, 제3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제1연대를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11일에 제1대대는 미명을 기하여 현 집결지를 출발하여 1,356고지를 공격하여 수미상의 적과 싸워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적 약 1개 중대와 소규모 전을 전개하였다. 제3대대는 노동부근의 계곡일대를 점령하고 적의 전초 중대와 소규모 전을 전개하였다.

12일에 제1대대는 적의 강력한 역습으로 대승폭포 부근의 능선으로 철수하여 적의 침투를 저지하고 제2, 제3대대는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였다.

13일에 제1대대는 08:00경에 현진지를 철수하여 설악산 서사면 일대에 연대 전초대로서 배치되었으며, 제2대대는 설악산 전사면에, 제3대대는 제2대대 서측능선에 재배치되어 차후 작전에 대비하였다.

### (2) 제11사단의 전투 : 설악산 동북부지역 전투

#### 가. 부대 이동 상황

제1군단 예하의 제11사단은 동해안의 요충인 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5월 1일 지휘본부를 하왕도리에 두고 전방 전투 지휘소를 낙산사에 두었다. 제9연대 역시 지휘소를 낙산사에 두고 제1대대는 물갑리에서 정산(釘山)사이에, 제2대대 주력은 상북리에서 내물치리 사이에 주진지를 확보케 하였으며, 제5중대는 청대산에서 부월리 사이에 전초진지를 확보, 제3대대 주력은 송암산에서 상북리사이의 주진지를 각각 확보케 하였다.

제20연대는 지휘소를 임천리에 두고 제1대대는 무명고지에서 송암산 사이에, 제2대

대는 월리에, 제3대대는 거마리에 각각 집결 대기시켰다. 제13연대는 지휘소를 북분리에 두고 군단예비대로서 주력이 북분리에 집결 대기하였다. 포병 제20대대는 지휘소를 주청리에 두고 A중대는 거마리에 B·C 중대는 주청리에 각 배치하였다.

3일에 제2대대는 월리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제1대대와 진지를 교대 인수하여 제1대대 좌측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제3대대는 4일에는 거마리를 출발하여 가라피리로 이동하였고 5일에는 다시 가라피리에서 상평리로 이동하였다.

6일에 제13연대는 지휘소를 북분리에서 하왕도리로 이동하고 제1대대를 북분리에서 주문진으로 이동하였다.

7일에는 본격적 공격을 위하여 제20연대는 송암산에서 화채봉 일대로 진출하여 동서로 배치되었고, 제9연대의 제1대대는 척산리로, 제2대대는 물치리에서 봉포리와 학사평 일대로, 제3대대는 학사리 고지 일대에 진출하였다. 제13연대는 전투지휘소를 하왕도리에서 상복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송현리에서 상복리로 이동하였으며, 제3대대는 상복리 북방일대에 배치되었다.

8일에 제20연대 제3대대는 임천리에서 서북방 지역의 무명고지로 이동하였고, 제1대대는 화채봉 일대에서 진격하여 이동하였고, 제2대대도 서북지역으로 전진 이동하였다. 제5연대는 지휘소를 낙산사에서 부월리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봉포리와 학사평간 진지에서 패진리고지로 진출하였다.

#### 나. 5월 9일 이후 전투 상황

##### 가) 제1대대

제1중대는 9일 화채봉 일대에서 출발하여 신흥사를 지나 서방 1km지점 진출한 뒤, 11일 12:00에 출발 전진 중 전 약 2개 중대와 약 5시간의 거처 교전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12일 01:00에 적 2개 중대 병력이 내습하여 03:00부터 05:00까지 교전하였으나, 신탄이 떨어져 신흥사를 경유하여 13일 24:00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제2중대는 9일 06:00에 화채봉 부근에서 출발하여 설악산 비전대 일대의 무명고지에서 10일 11:00경에 적 약 2개 중대와 조우(遭遇)하여 악전고투 끝에 적을 물리친 후 경계하였다. 11일에 적이 내습하였으나 격퇴시켰다. 12일 02:00에 적 약 1개 중대가 내습하여

교전하던 중 실탄이 떨어져 신흥사를 경유하여 13일 24: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제3중대도 9일 06:00 출발하여 적 약 2개 소대와 조우하여 약 30분간의 전투끝에 미시령일대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12일 적 약 2개 중대가 내습하여 응전 끝에 탄약이 두절되어 신흥사를 거쳐 13일 21: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 나) 제2대대

제5, 제6, 제7중대는 봉포리와 학사평일대에서 적과 약 31시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교전한 결과 각 중대는 탄약과 식량의 보급 두절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은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제2대대의 각 중대는 수차례에 걸쳐 육박전을 감행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진이 좌절되자, 제7중대의 지원사격으로 18:00에 대대지휘소와 제8중대가 철수하고, 제6, 제7, 제8중대의 지원사격으로 19:00에 마지막으로 제5중대가 철수하여 신흥사로, 제6, 제7, 제8중대와 대대지휘소는 봉정암으로 집결하여, 13일 07:00에 설악산을 출발하여 20:00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 다) 제3대대

이대대는 예비대대로서 연대와 같이 저항을 받으므로 제9중대는 5월 10일 05:00에 오세암을 출발하여 저항령으로 전진하던 중 적 약 1개 대대를 발견하여 13:00경부터 교전이 전개되었으나 적의 화력이 강하여 전진이 어려워 암석사이에서 야간을 기다렸다. 중대장은 1,092고지를 점령하고자 2개 소대의 결사대를 편성하여 야음을 이용하여 적진을 파괴하고 적병을 살상시켰다. 제10중대는 11일 미명에 제2차적으로 동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2개 소대의 결사대를 편성하고 육박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하여 적진에 돌입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철수하였다. 제9중대는 12일 01:00에 제3차로 공격을 감행하여 제1소대로 육박공격을 하였으며, 암벽을 타고 돌입한 아군은 다수의 적을 살상한 후 철수하였다. 제11중대는 연대관측소를 경계하면서 제10중대를 지원하였다. 제12중대는 대대 후방에서 포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중대의 지원을 면밀히 하였다. 3대대는 13일 작전 명령에 의거 마등령에서 적 제13연대와 교전후 진지를 출발하여 17:00경에 여운포리에 도착하였다.



## 7) 6·25한국전쟁 시기의 반공 활동

### (1) 김창수(金昌洙) 이선영의 죽음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강현면 하북리에서는 좌익계 청년들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종상(李鍾詳)은 왜정(倭政)에 반대하고 소련에 망명하여 고아원장으로 공산주의자가 되어 해방되어 돌아오니 그 문중의 청년들은 민청, 부녀동맹의 중견(中堅) 공산분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모스크바 축소판’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에 반공 청년들과는 서로 대립되어 사사건건, 암투하고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자아비판 시키고 심하면 매질까지 하여 못살게 굴고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반동으로 몰아부쳐 공산당화를 위하여 가진 악랄한 수법을 다하였다. 반공 청년들의 반발심은 더욱 가중되어 반공 활동에 열을 가하였다.

그중에서도 김창수 이선영의 활동은 돋보였다. 1950년 10월에 국군의 진격하여오자,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많은 반공청년들과 함께 주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며 대대적으로 환영한 뒤, 공산분자들을 동사(洞舍)에 모아놓고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매질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1·4후퇴 때에 김창수와 이선영이 월남하고자 하였으나 벌써 38°선이 막혀 피난 못하고 돌아왔다. 1·4후퇴 이후 도피하였던 공산분자들이 돌아와 김창수가 한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김창수, 이선영을 동사에다 철사로 손발을 묶어 놓고 죽도록 매질을 하여 반죽음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전세(戰勢) 불리하게 되자 다시 김창수 이선영을 창수네 옆집에 몰아넣고 수십 명의 극열분자들이 혹독하게 매질하여 유혈이 낭자하고 피바다가 되었다. 김창수의 부친은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고 외쳤으나 인정사정없이 계속 때려 두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었다. 수일 후 국군반격으로 북진하게 되자 운신부동인 두 사람을 방공호 속에 처넣고 총살하였다. 그 후 김종환(金鍾煥 : 김창수의 父)은 아들의 매질 당하던 모습의 충격으로 조사(早死)하고 말았다.

## (2) 강선리 이근우(李瑾雨)의 죽음

1950년 10월 2일 국군의 38°선 돌파이후 김무정의 북괴군이 후퇴하면서 강선리 인민위원회에 와서 모든 주민들을 간성읍까지 피난할 것을 명령하여, 주민들 거의가 북으로 피난하였으나 반공 청년들은 산중에 피신하였다가, 10월 3일에 국군이 남대천을 건너 북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3일 17:00에 하산 귀가하였다. 이날 이근우는 주동자 김장연(金長演), 김흥기(金興起), 이상호(李相浩), 손동인(孫東麟), 신귀남(辛貴南) 외 3명은 동지들과 동사에 집합하여 국군 입성을 환영하고자 태극기를 만들고 부락자치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북한 패잔병 4병이 08:00경에 출현하여 동민들의 후퇴를 강요하였다. 이에 모인 반공 청년들은 태극기 제작 등의 모의사실을 숨기고 침착하게 대처하였다. 반면 이상호로 하여금 북한 패잔병 출현사실을 국군 백골부대에 신고하여, 1개 분대가 출동하여 반공청년들과 패잔병이 모인 동사를 포위하고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반공청년 이근우는 총탄에 맞아 즉사하고, 신귀남은 부상당하였으며 신원미상의 30세가량 되는 청년도 사살되었다. 야간 전투로 피아(彼我)의 구분이 안 되어 주로 반공 청년들만 희생되었다. 다음날 이근우는 강선리에서 장례를 치렀다.

## (3) 적은리의 김남형과 김학래 부자(父子)의 죽음

김남형은 양양 강릉지역에서 뛰어난 문인으로 성격이 온후하였고 인공(人共)치하에서 공산정치를 반대하여 전가산(全家產)을 몰수당하는 등 수난을 겪었으며, 6·25한국전쟁으로 국군이 진격하자 장남 김학래는 마을 리장과 강현면 한청단장을 맡아 반공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1·4후퇴 때 부자가 미처 피난을 못가고 은신하던 중 인민군이 적은리에 주둔하면서 인근부락의 공산당원이 밀고하여 부자를 끌어다가 부락 창고에서 인근 동리주민들을 모아놓고 인민군 중령이 주재하는 인민재판을 하는데 극렬 세력들이 달려들어 곤봉 등으로 난타하여 김남형은 1951년 음력 2월 7일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아들 김학래는 속초까지 끌려가서 동명동 방공호에 감금하고 음력 2월 7일부터 18

일까지 매일같이 구타하고 고문하여 사경(死境)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논산에 있는 외가에서 듣고 찾아가 면회를 청하니 집으로 데려가라 하여 거적으로 만든 들것에 실어 집에 돌아와 2일(1951년 음력 2월 20일) 만에 사망하였다.

#### (4) 면옥치리 공비토벌

1952년 3월 19일 15:00경에 공비 10여 명이 면옥치리 산간에 출현하였다는 정보가 어성전지서에서 입수하였다. 이 정보에 접한 지서장 한용겸(韓龍謙)은 순경 김정운(金正雲) 전호길(全浩吉)에게 한청원(韓靑員)을 대동하고 즉각 출동할 것을 명하였다. 두 순경은 한청원 20명을 소집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출동하였다. 한청원들은 방한(防寒) 장비와 식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입은 옷 그대로 총을 메고 순경의 뒤를 따라 면옥치리 현장에 도착하였다. 한청원들은 면옥치리, 어성전리, 법수치리에 살고 있어 지형 지리에는 익숙하였다. 그러나 공비를 찾아 매봉산 일대를 헤매는 사이에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흐리기 시작하고 지척을 분별치 못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며 눈보라까지 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배고픔과 추위는 떨어야 했다. 후속지원은 고사하고 후방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경찰을 비롯한 한청원 등 21명은 2척(尺)이 넘는 눈 속에 쪼그려 앉아 쓰러져 모두 ‘물레방아 골’에서 순사하였다. 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청원은 19세의 조준기뿐이었다.

3월 20일에 지역 주민들이 출동하여 1m에 가까운 눈 속에서 시체를 찾아 동사 앞에서 영구(靈柩)를 모시고 초혼(招魂)하고 장례(葬禮)를 치렀다. 순직경찰관 김정운 김호길은 경찰장으로 하고 그 묘소(비석 1개)는 어성전 산기슭에 있다. 전호길의 묘소는 현 남면 동산리선영 옆에 모셨다.

단원 서장열외 18명은 순경으로 추서(追叙)하였고 서정열은 유가족에게 운구되어 서림리에 장사지냈으며 김옥기 김석기 두 형제는 함께 순사하였으며 유족에게는 원호 가족이 되었다. 생존자 조준기는 당시의 충격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얼마 후 사망하였다.

### (5) 영덕리 공비 토벌 개황

1953년 11월 15일 강원지구 연락총책 공비 2명이 서림지서에 자수하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변안전을 받기 위하여 38°선에서 정족산까지의 연락조원이 지금 영덕리 외딴 빈집에 잠입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왔다. 서림지서장 권영열(權寧烈)경사는 순경 한병열 김호규 두 사람에게 명(命)하여 토벌작전에 임하였다. 두 순경은 한청원 소속의 김연수, 김성기, 정연식, 이경수, 윤봉래, 이대영과 자수한 공비 1명을 인솔하여 현지에 도착하여 빈집을 포위하고 상황을 살펴본즉 마침 흰눈이 깔린 우물길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해갔다. 마침 방안에서는 공비 2명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대영 대원이 생포하려고 공포를 쏘면서 “손들어”하고 소리쳤더니 공비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소지하였던 M1소총과 M2칼빈 총으로 응사하였다. “완전포위 되었으니 자수하라”하고 권고하였으나 끝내 반항함으로 그 중 1명은 사살되었고, 다른 1명은 부엌쪽으로 도주하면서 김연수 대원에게 사격해 전사했고 추적에 나선 대원들은 논둑 밑에서 최후 발악하는 나머지 1명을 사살하였다. 그들 주머니에서 암호 연락문이 나와 공비토벌 작전에 크게 활용하였다.

## 5. 미군정 시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는 미군정기가 있었다. 흔히 말하는 미군정이라 하면 1945년 광복부터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전까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2번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두번째 미군정은 한국전쟁기에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일시 점령하던 시기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대략 45일간 실시되었다. 세번째의 미군정은 다른 아닌 양양군에서 6·25한국전쟁 중인 1951년 8월부터 휴전 후 1954년 5월 국군이 인수하기까지 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남한의 국회의원도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의 동의를 있어야만 방문이 가능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지역은 강원도 7개 군(양양군만 완전 점령



되었고 금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분단되었다.), 경기도 2개 군(연천군, 북포천군)이었다. 점령한 9개 군 가운데 양양군을 제외하고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 전까지 모든 지역은 비상계엄 상태에 놓였고, 원주민은 모두 소개·피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의 접근도 금지되었다. 점령 후부터 휴전 전까지 민간인 거주를 허용한 유일한 곳은 유엔군(미군)이 완전 점령한 양양군뿐이었고, 이에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 1) 군정의 필요성

미군정이 실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이 군사·전략적 거점의 중요성이며, 둘째는 과거 공산주의 지역의 사회주의 요소제거 및 재건 문제였다.

첫째 군사·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은 수많은 인구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군정의 실시를 필요로 했다. 속초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해 전선에는 미8군 제10군단을 비롯한 국군 1군단, HID(첩보부대)동해사령부, 해병대, 커크랜드(Kirkland) 특수임무부대나 아벤리(Avanlee)부대 등과 같은 첩보부대와 미군이나 국군 유격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심지어 속초 앞바다에는 대만의 장제스군이 이끄는 첩보부대도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적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급작스럽게 배치됨으로써 군부대를 지원할 여러 종류의 민간인 군노무자가 필요했다.

속초<sup>74)</sup>에는 제100여단 군노무단부대<sup>75)</sup>가 창설되어 몇 천 명이 복역하다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9월에야 해산되었다. 미10군단의 용역하청회사인 ‘상호운수주식회사’가 설립 운영되었으며, 국군 1군단도 ‘군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임의로 고용했다. 고용한 이유는 군부대의 어류나 채소 등의 부식추진, 원산앞바다의 여도 등의 도서나 함북의 성진앞바다 양도 등에 주둔해 있던 국군이나, 유격대, 첩보부대 등에 군수 물자 보급, 첩보원들의 북한지역 침투나 작전수행 후 귀대 시 배로 실어주는 일 등을 담당케 하려고 하였다. 민간인은 주로 원주민을 고용을 원칙<sup>76)</sup>으로 하였으나, 다수의 월남민도 포함되었다. 군부대와 속초 시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회사와 화력발전소가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1군단 내에서 제작되어 전황을 알리는 종군신문인 <동

해일보)가 제작되어 지역 주민에게 중앙 소식과 지역 내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복된 양양지역 특히 속초가 군사전략적 거점으로 부상되면서 급격하게 수많은 군부대와 군인, 군속, 민간인들이 요구되었고 또 그들이 몰려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질서와 통제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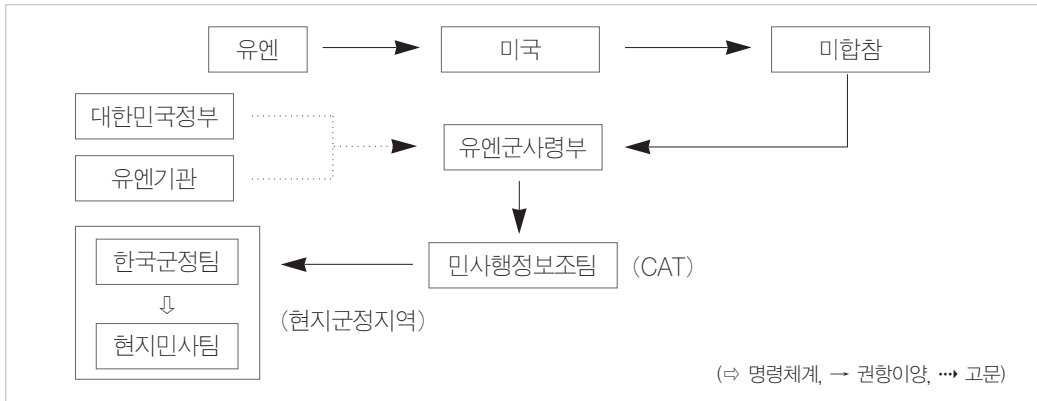
둘째, 종래 공산주의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적성(赤性)을 제거하고 순화(純化)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기획은 군정을 요구하였다. 유엔군이 점령한 38°선 이북지역은 5년간 사회주의 북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민주개혁)’을 경유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맞던 중 한국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46년 토지개혁을 통해 5정보 이상 지주의 토지는 무상 몰수되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점수에 따라 무상 분배되었다. 또한 한인 소유의 중·소규모 상업이나 수공업의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허용되지만, 일본인이 소유했던 산업의 경우에는 국유화되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또한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들은 숙청되었고 그들 중 다수는 38°선 이남으로 월남했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과거 일제와 봉건의 잔재가 청산되어나갔다. 또한 어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1948년말부터 ‘수산합작사운동’을 전개하여 낮은 수준에서나마 협동회를 시작했다. 그 결과 1949년경 속초면의 부월리는 모범부락으로 선정이 고려될 만큼 사회주의적 개혁이 진전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일부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북한 영토를 점령하고자 희망하였던 유엔군이나 이승만정부로서는 점령지역 주민을 어떻게 순화시켜 체제내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지역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요소와 적성을 배제하고, 체제내화(體制內化)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군정을 실시하였다.

## 2) 군정의 운영체계

한국전쟁 당시 군정의 골격에 관해서는 1950년 10월경 논란을 겪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부각되지 않으므로 양양군의 미군정은 1950년 10월 합의를 토대로 운영되었다.

## 한국전쟁 당시 미군정 통치구조



군정의 최종 결정권이자 통치권 또는 행정권은 유엔군 총사령부에 있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 내 민사행정정보조팀(Civil Assistant Team)이 군정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CAT는 현지 군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되 국군 군정팀에 집행권을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는 고문역을 담당하여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정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1군단 군정사령부였다. 군정사령부는 민사처를 통해 민정을 실시했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은 현지 민사팀, 양양군수(군민정관), 읍장(읍민정관) 등이었다. 그 밑에는 읍, 면장 밑에는 구장(이장)과 치안대,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등 여러 자치기구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현지 민사팀은 양양군 군정사령부가 인정한 지방정권으로서 대개 1950년 이전 38°선 이남으로 월남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들어가 치안대 및 반공단체를 만들고 주도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 후 1·4후퇴인 1950년 12월 이후,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총퇴각할 때 그들은 군과 함께 남하했다가 1951년 6월 이후 남한이 재점령할 때 그들도 양양군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대개 치안대와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국민회 등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민사팀의 활동은 1951년 초기 군정 당시에는 좌익색출사업전개하면서, 점차 모든 지방정권기관이나 각 제도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방식을 바꾸거나 대한민국식으로 순화시키는 활동을 위하여 구호행정을 실시하였다. 1군단 민사처는 부정기적으로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 동해사령부에서 구호물자를 직접 인수하여 각 민정관들과 주무부처 직원,

구장, 피난민 반장 등을 소집하여 구호물자를 분배·지급하면 그들은 현지에 내려가 일정한 양을 배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호물자로는 모포나 의류, 식료품, 피혁, 일용품, 소금, 천막 및 농업용 도구를 지급받았고, 구호양곡으로는 외미(안남미)와 소맥, 대맥, 고량미, 수수 등을 배급받았다. 그 외에도 어선용 전나무나 주택용 자재,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1950년 10월 이후부터 미8군이 미군정을 실시하다가 국군 1군단에게 해당 지역 행정권을 넘겨준 1954년 8월, 다시 1군단이 대한민국 정부에 민정이양을 한 것은 1954년 11월 15일이다. 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38°선 이북 점령지역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군정의 허가 없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군정의 권한은 막강했다. 이승만 정부는 간헐적으로 이 지역에 국회조사단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군정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지역이나 군정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거의 미칠 수 없었다.

### 3) 행정권 이양

수복지구 행정권 이양은 유엔군의 유보적인 태도로 인하여 휴전 조인 후 1년이 지난 1954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8월 12일 유엔 한국위원회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이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8월 28일 수복지구 행정인수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어 10월 3일에는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에 수복지구 행정권을 인수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모든 인수 절차를 끝냈다. 국회는 이에 발맞추어 1954년 9월 29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동 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10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4일 수복지구 행정권인수식을 거쳐, 11월 15일에는 철원, 김화, 11월 17일에는 양양,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에 대한 행정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일반 행정 및 교육행정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수복지구는 공산치하에 있었고, 전란으로 황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쟁 이재민으로서 구호대상자라는 점을 감안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①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② 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군수가 교육감이나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일반 행정 및 교육·세무행정 등을 관장하게 하여 일원화를 기했다.

강원도는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 즉시 군수를 임명하여 행정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점적인 지원 시책을 서둘렀다. 양양군 초대 군수에는 김주혁(金周赫)이 임명되었다<sup>77)</sup>. 김군수는 군정 때인 1953년 11월부터 이미 양양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다. 김군수는 수복지구행정에 역점을 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행정 재건과 주민제도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군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학교 공공건물 등을 복구하고 행정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1954년 11월 수복된 양양군이 대한민국의 관할이 되면서 해방 후 38°선으로 분단되었던 양양군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1군단사령부가 주둔하였던 속초는 광복 후 한국전쟁까지는 면이었으나, 군정기를 통하여 급성장하여 1951년 8월 군정이 실시된 이후 읍으로 되었으며, 1963년 전국에서는 29번째, 강원도에서는 네번째로, 38°선 이북지역에서 시로 승격되어 양양군에서 분리되었다.

## 각주

- 1) 朝鮮總督府, 『暴徒史 編輯資料』, 강원도편.
- 2) 현재 오산리 유적 박물관 부근
- 3) 『동학란 기록 하』, 국사편찬위원회, 620-622쪽, 720쪽.
- 4) 1901년 미국인 선교사 Dr. Ra, Hardie가 창설.
- 5) 『韓國獨立運動史Ⅱ』, 國史編纂委員會, 1966.
- 6) 『朝鮮憲兵隊司令部 報告文』, 1919년 3월 10일자, 高 警 제 6334호.
- 7) 『朝鮮憲兵隊司令部編』, 『朝鮮騷擾事件狀況』, (昭和 44년 9월 20일), 극동연구소 출판사 북간본, 125-129쪽.
- 8)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4-975쪽.
- 9) 당시 함평이씨 문중의 거부(巨富)
- 10) 앞의 판결문② 참조.
- 11)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6집, 667쪽.
- 12) 『獨立運動史資料集 5집』, 「3·1운동 裁判記錄」, 1984, 975~976쪽.
- 13)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6-977쪽.
- 14) 함흥기도 신세목의 권유에 의하여 만세운동에 참가 하였다.
- 15) 오늘날 현북면 장리(獐里)를 뜻함.
- 16) 트집을 잡아 따져 물음.
- 17) 앞의 책 독립운동사 자료집 5집, 973-974쪽.
- 18) 현재의 강원도지사
- 19) 4월 4일 장날을 의미함.
- 20) 당시 면장은 이석범을 뜻함.
- 21) 金正明면, 『朝鮮獨立運動Ⅰ』, 民族主義運動篇, 原書 房, 1967, 507쪽.
- 22) 일본인 상점
- 23) 양양문화원, 『岷山文化』, 〈양양의 항일운동〉, 1989, 41쪽.
- 24) 『韓國獨立運動史Ⅱ』, 국사편찬위원회, 713-714쪽.
- 25) 앞의 책 「조선 3·1운동소요사건」, 105쪽.
- 26) 만세운동 참가자는 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았다. 형식 상으로는 1개월에 자유형을 대신하는 것이 30회의 태형을, 3개월분 90회의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 「조선 태형령」(1912. 3.18일 공포), 태형을 당한 사람 중 일부는 당시 의약품이 부족, 여름철에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영당이 상처에 구더기가 생겨 고생한 사람도 많았다고 함.
- 27)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4쪽.
- 2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4쪽.
- 29) 당시 강원현장 김동석(金東錫)은 만세준동이 왔을 때 도망하였음.
- 30)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4쪽.
- 31)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5쪽.
- 32) 앞의 판결문 ① 참조.
- 33) 강원도에는 원래 수비대가 철원 평가에만 있었는데, 3·1운동직후 춘천에 1개 중대, 고성에 1개 소대가 주둔했다. 그 후 4월 5일에 1개 대대가 증강되어 춘천을 대대본부로 각처에 주둔하게 하였다. 김정명, 「조선독립운동Ⅰ」, 354쪽 및 510쪽 참조.
- 34) 간유(정성을 다하여 회유하였다)의 표현으로 보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35) 1973년 7월에 흥천군 내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됨.
- 36) 태형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부락민 10여 명이 들 것에 실어 밤새도록 돌아갔음, 현산문화, 42쪽
- 37) 김철기는 서당 한문선생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많아 그의 제자 김두영이 기념식에서 시를 읊었다.
- 3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5쪽.
- 39) 앞의 책 「조선독립운동사Ⅰ」, 545쪽.
- 40)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7쪽.
- 41) 김주철은 당시 이장으로 다른 예를 보아 징역이 확실한데 주민들이 김주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여 태형을 받지 않고 징역도 살지 않음.
- 42) 태극기는 각기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이장의 집이 아니면 서당에서 만들었고 상광정리 경우에는 김종대의 집에서 만들었음.
- 43)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17쪽.
- 44) 대한제국의 주사(主事)로 동학운동 때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활약함, 『동학란기록 하』, 621쪽.
- 45) 현재 만세고개라 부름. 1985년에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짐.
- 46)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Ⅰ」, 716쪽. 앞의 책 「조선독립운동Ⅰ」, 547쪽 및 590쪽 참조.
- 47) 이학봉이 殉死한 후 그의 부인은 기정리로 재가한 뒤 일제의 후한이 두려워 李國補로 개명함.
- 48)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Ⅰ」, 607쪽.
- 49) 앞의 책 「한국독립운동사Ⅱ」, 766쪽.
- 50) 김대봉은 1901년 양양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修學하였으며, 서울 중동학교 야학부를 중퇴하였다. 1922년 9월 양양현산기독교청년회 총무가 되었다. 1923년 봄 서울에서 토요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양양에서 물치노동동맹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4년 1월 양양신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1924년에 조직되는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25년 화요회에서 추진하였던 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는 양양을 대표하여 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제2차 조선공산당의 제7야체이카의 조직원이었고, 제2차 고려공산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6년에는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강달영과 제2차 고려공산청년회 비서 권오설의 추천에 의하여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28년 6월에 졸업하였다. 그 해에 귀국하여 사회주의운동에 참가하다가 1929년 1월 일본

## 각주

- 경찰의 검거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1930년 12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귀국하여 적색노동조합 조직 활동을 하는 한편 공산대학 유학생을 선발 하기도 하였으며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팜플렛을 작성, 배포하기도 하였다.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국의 파견원으로 조선공산당 강원도당 간부를 재편하고 청원인민정치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 51) 『동아일보』, 1923. 7. 13일자.  
 52) 『시대일보』1925. 1. 22일자.  
 53) 『시대일보』1925. 1. 22일자.  
 54) 1926년 11월에 사회주의인 정우회가 배타적민족주의 세력과 제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서.  
 55) 『동아일보』, 1927. 9. 6일자.  
 56) 군벌 장직림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 동삼성(東三省) 거주 백만 재만동포들이 연말까지 중국 귀환수속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퇴거명령을 내리겠다는 중국관헌의 폭압으로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신간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1927년 12월 9일 조선교육협회 회관에 모여 상설기관으로 재만동포 옹호동맹을 창립하고 위원장에 안재홍을 선출하였다.  
 57) 조선일보 1928년 2월 2일 기사, 소년회에 들었다고 위협하는 대포공보 교장의 실태(失態)  
 양양군 대포 공립보통학교 교장 전중모(田中某)는 공진소년회(共進少年會)에 입회하여 있는 자기학교 생도 24명을 지난 9일에 불러다 놓고『일한합방』은 두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런데 대포에는 공진소년회라는 것이 있어 너희들 24명이 입회하여 있는 즉 오늘 전부 퇴회(退會)하되 만약 퇴회를 아니하면 주재소에 넘겨버리겠다는 기막히는 소리로 순진한 어린 학생들을 함부로 위협하여 퇴회를 강권하였으나 학생들은 하나도 퇴회하지 아니하고 소년회에 자세한 보고를 한 결과 소년회에서는 모 교사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청년동맹 소년부에 보고하고 방금 그 대책을 강구 중이었는데 일방에는『리○○』이란 교원이 동교 6학년 학생 두 사람을 불러서 소년회를 총독부지정부랑자간판(總督府指定浮浪者看板)이라고 한 일까지 있다하여 일반은 극도로 분개하는 동시에 문제는 더욱 확대될 모양이라더라.  
 58) 1911년 차경석(車京石)이 정읍시에서 창시한 증산교 계통의 신종교. 차경석은 원래 동학교도였다.  
 59) 정어리기를 찌꺼기.  
 60) 당시 양양의 각 리에는 야학이 조직되어 주로 한글 교재 없이 한글만을 가르친.  
 61)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전 노동조합원이 벌인 최대 규모의 항일적인 총파업.  
 62) 일제시대에 누에고치를 건조하기 위하여 목조물로 건축하였다가, 인공(북한체제)시대에 벽돌 건물로 개축하였다. 6·25한국전쟁 때 대부분 파손되고 일부 건물이 농협의 창고로 개조되어 사용하다가 현재는 개인 창고로 사용.  
 63)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64) 2, 3세대원까지 포함된 인원이다.  
 65) 선전효과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고 매스컴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는 기밀을 엄수해야 할 북파공작대에는 큰 패착이었고, 정부와 군 수뇌부의 단일한 판단에 의해 호림부대의 정보가 북한 측에 알려지게 되어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66) 당시 정보원은 서문리의 이계화(李啓和)로 인민군의 병력배치상황 정보 탐색을 위해 금풍리에서 연락원을 양양읍에 파견하였으나, 위조군표 사용이 발각되어 인민군이 군풍리를 급습 포위하여 사격하여 전세가 불리하자 자폭하고, 김항기(金恒起)는 ‘게릴라 은익죄’로 체포되었다.  
 67) 양양지방의 반공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다.  
 68) 현재 설악산 C지구로 당시에는 깊은 산중이었다.  
 69) 김정배의 조카딸 남편  
 70) 공산당 정보원 김흥수는 밤중에 연락 도중 호림부대에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71) 제주도 4·3사건을 주도하였고, 이후 남파 인민유격대를 이끌었던 김달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72) 『동아일보』 1970년 7월25일자  
 73) 잔교리와 기사문리 사이에는 동해로 흘러드는 광정천이 있다. 이 하천 위에는 ‘광정교’ 다리가 있었는데, 이날 3사단이 38° 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했다고 하여 이 다리는 ‘돌파교’라 하였다. 돌파교 남쪽에 38° 선 휴계소가 만들어졌다. 이날 수도사단도 창촌리에서 38° 선을 돌파해 북진에 들어갔다. 그 후 국방부는 1956년에 이날을 기려 국군의 날을 10월1일로 정했다.  
 74) 당시에는 양양군 속초면이었다.  
 75) 1951년 6월 군노무단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총 3개 사단 및 2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운용된 준군사적 군단규모의 특수한 조직체로서 기능했다. 노무단 창설 이후 징용된 노무단 노무자의 공식 통계는 9만 3,154명이었다.  
 76) 타 지역민은 진입 통제 및 무연고자 추방하였다.  
 77) 1953년 11월부터 군민정관을 군수로, 읍·면민정관을 읍·면장으로 개칭하였다.

## 참고문헌

- 『韓國獨立運動史Ⅱ』 국사편찬위원회, 1966.
- 『朝鮮獨立運動Ⅰ』 김정명편(민족주의운동편), 원서방, 소화42년, 1967.
-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국사편찬위원회, 1969.
- 『3·1運動 50周年記念論集』 동아일보사, 1970.
- 『獨立運動史資料集』 4, 5, 6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韓國獨立運動史料』 (3·1運動編 其一), 국회도서관, 1977.
- 『獨立運動史資料集』 국가보훈처, 1980.
- 『獨立運動史』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 『韓國獨立運動史』 1, 2, 3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襄陽邑誌』 光武5년, 1901.
- 『襄陽靈像』 金鍾極, 문왕출판사, 1985.
- 『峴山文化』 양양문화원, 1989.
- 『襄州誌』 양양군, 1990.
- 『(6·25전쟁) 육군전사 제5권』, 육군본부, 1954.
-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조성훈저,』, 국방부군사편찬소편, 2003.
-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이종관, 국방부군사편찬소, 2003.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소, 2005.
- 『(알아봅시다)6.25전쟁사 제2권』 국방부 군사편찬소, 2005.
-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통권 제46호)
- 조성운(趙成雲),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해안, 2002.
- 조동걸(趙東杰), 「3.1運動때 지방민의 참여문제」, 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9집, 1971.
- 이철휘(李喆輝), 「襄陽地方 3·1萬歲運動의 研究」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최양섭, 「일제하 양양지방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창환(金昌煥), 「일제하 양양지방 농민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동아 통권 608호 논픽션 다큐멘터리, 2010. 5





## V. 근현대 인물사

### 1. 잊혀진 근·현대 인물을 다시 복원하며

해마다 4월이 오면 우리는 1919년 양양의 기미만세운동을 기억한다. 4월 4일 장날 양양읍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군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양양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만세운동 6일째인 4월 9일 계속된 만세운동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경찰과 군대는 기사문리 고개에서 1천여 명 시위 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포해 9명을 현장에서 학살하고서야 만세운동을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다. 총 참가인원만 6천명 이상이며, 학살된 군민만 12명, 8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사람만 70명이었으며, 태형을 받은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렀고, 이중의 다수는 후유증으로 생을 달리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겁에 질려 모두 배를 타고 바다로 피신할 정도로 운동은 위력적이었다. 양양의 만세운동은 전국에서도 그 규모와 치열함이 세 번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운동과 관련한 독립유공자가 40명이며, 해마다 열사들을 추모하고 만세운동의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기사문리 만세고개와 강현면 물치에서 열리고 있다.

만세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림과 기독교계는 더 이상 저항운동의 동력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당시 새롭게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농민과 노동자 등 무산계급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의 뜻을 이어나갔다. 만세운동 당시 양양군민이 보여준 치열함과 일제 만행에 대한 공분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동력이 되어 양양은 전국에서도 대중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들은 만세운동의 실패를 거울삼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층 민중이 스스로 자각하고 조직적으로 뭉쳐서 일제

의 탄압과 수탈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문맹자를 위한 야학을 개설하고, 독서회와 강연회를 조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제의 탄압과 수탈정책에 조직적으로 대항했다. 몇몇 양양의 청년들은 러시아로 가서 몇 년씩 사회주의를 배워와 국내에서 항일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아울러 지역출신의 대학생들은 방학 때면 고향으로 내려와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강연을 조직하고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대학생 중에는 이후에 사상가로 사회운동가로 걸출한 활동을 벌인 인물들도 다수 있다. 아울러 일찍이 봉건억압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여성해방의 길로 매진한 양양 출신 여성도 있는 반면, 광복 후 반민특위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친일고등경찰도 있다.

1920년대 양양의 사회운동은 강원도의 청년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제에 저항한 최고의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는 원산총파업 노동운동조직과도 조직적 연대를 같이 했다. 양양농민조합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민운동 조직이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검거선봉으로 조직원을 잡아들여 농민조합을 와해시켰다.

1920년대 이후 왕성했던 청년·농민·노동운동은 치열했던 양양만세운동을 계승하여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미년 양양만세운동만 기억될 뿐이며, 만세운동을 계승한 대중운동은 모두 잊혀져 버렸다. 남북분단의 상황에도가 수복지구라는 설악권의 지역적 특수성이 중첩되다 보니, 지역의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우리 향토사에서 대부분 배제된 것이다.

이미 일제하의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모두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어 주요 운동가들은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양양농민조합운동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 향토사에서는 이 시기 운동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크게 없으며, 당시 운동을 기념하는 상징기념물도 하나 없는 실정이다.

양양의 근현대 인물에 대한 서술은 지역인물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당시의 기록과 연구에 기초하여 잊혀져 있던 인물을 다시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물의 복원을 통해 누락된 양양의 근현대 역사의 한 장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굴절된 현대사 때문에 잊혀졌던 인물인 안병하 씨를 다시 양양의 인물로 복원하였다.

4월이 되면 자랑스러운 양양만세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만세운동을 계승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운동, 농민운동이 양양의 역사로 제대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양양만세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내는 길이라 생각한다.

## 2. 만세운동 의로운 죽음 - 함홍기 · 김학구 열사

두 죽음, 전 군민 분노 · 항거 결정적 기폭제

함홍기, 경찰서장에 화로 들고 항의 순국

김학구, 고향 가는 장례 행렬 울음바다

### 1) 격렬했던 양양의 만세운동

기미년(1919년) 만세운동은 그 참가 인원과 격렬함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운동이었으며, 전국에서도 손가락 꼽는 치열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특히 양양지방에서의 3·1 만세운동은 지역 내 유림 세력과 기독교계, 천도교계와 농민, 현산학교 등 보통학교 졸업생과 학생 등 남녀노소와 계층을 뛰어넘는 전 군민의 운동이었다. 일제 기록에 의하면 양양만세운동은 1919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 동안 군내 7개 면 132리 중 6개 면 82개 리에서 4천6백여 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는 1만 5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sup>1)</sup> 사상자는 총칼에 쓰러진 12명의 열사를 비롯해 43명, 체포 인원은 142명, 옥살이를 한 사람은 73명이다. 시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인식(崔寅植)은 법정 투쟁으로 형이 늘어나 총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혹독한 태형(볼기)을 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 『신한민보』 1919년 5월 31일자 「내지독립단 소식」에서  
4월 6일(四月 六日)에 양양군 읍내에서 다슈한 군중이 모여 대한 독립 시위 운동을 니르  
키는 고로 왜 슈비병과 크게 충돌되여 다슈한 살상이 잇었다 하며

- 1923년 12월 1일 『개벽』 제42호, 「영서8군(嶺西八郡)과 영동4군(嶺東四郡)」 중 양양군  
(襄陽郡) 소개내용 중에서  
기미년 민족운동시(己未年 民族運動時)에 강원도(江原道)로는 양양(襄陽)이 제일 격렬  
하였다. 안이 강원도(江原道)뿐 안이라 조선에 땃재 안이갓섰다. 약(約) 1주일을 연속하  
야 만세(萬歲)를 부르고 검거(檢擧)된 者가 2,000여 명 수형자 백여 명 즉사자가 10명 중  
상자(重傷者) 40여 人에 지(至)하였다.

- 1927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순회탐방 ‘양양군편 4-사회단체」에서  
반도강상(半島江上)을 뒤흔들든 기미운동(己未運動)에 십수(十數)의 인명(人命)을 희  
생(犧牲)하고 수천동포(數千同胞)로 하야곰 혹(惑)은 철창(鐵窓)에 신음(呻吟)하며 惑  
은 사람으로는 견대지 못할 가혹(苛酷)한 태형(答刑)에 자못 경내(境內)가 살풍경(殺風景)  
을 일우어 피화(被禍)가 전조선(全朝鮮)에 제삼위(第三位)라는 논평(論評)을 받게  
되었었다. 당시(當時)에 극도(極度)로 팽창(膨脹)되었든 사조(思潮)는 일반청년(一般靑  
年)들노 하야곰 대동단결(大同團結)의 필요(必要)를 절실(切實)히 늦기게 되야 ….

## 2) 조직적 항일 저항운동 발전

양양군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돌아온 이석범(李錫範)  
과 이에 부응한 이교완(李敎完)과 최인식(崔寅植),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생으로〈독  
립선언서〉를 몰래 갖고 낙향한 조화벽(趙和璧) 등이 주도적 인물로 손꼽힌다. 그러나  
양양의 만세운동은 몇몇 인물의 자기헌신적인 투쟁만이 아니라 시위에 참가한 모두가  
열렬한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전 군민의 대중 투쟁이었다.

만세운동 후 양양지방은 극렬한 만세운동의 고장이라는 내외의 인정과 금지 속에서  
도 일제의 가혹한 감시와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만세운동이 비조직적인 운동으로 실패  
했다는 반성은 양양 지역의 청년·농민 조직 운동으로 이어져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제는 1932년 양양농민조합 사건으로 367명을 체포하고 이 중 36



여 명을 구속하는, 사상 유례없는 탄압으로 양양의 독립운동을 무참히 짓밟았다.

양양지방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 군민의 분노와 항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함홍기(咸鴻基)와 김학구(金鶴九) 등이 의로운 죽음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 3) 의로운 죽음 - 함홍기 열사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이장이었던 함홍기는 기미만세운동에서 가장 의로운 죽음으로 일제의 폭력에 항거한 열사이다.

함홍기는 1919년 4월 4일 양양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에 손양면 사람들을 추동(推動)해 함께 참여했다. 장터에는 수천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선언서>가 거리마다 뿌려졌다. 이날 낮부터 일부 지방유지들이 전 날 시위를 준비하다 체포된 22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와 군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감금되어 나오지를 못했다. 이를 알게 된 군중들은 경찰서와 군청으로 몰려들었고, 다시 몇 사람이 경찰서장에게 항의했다.

함홍기는 경찰서장실에서 항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로를 들어 경찰서장에게 던져들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범주임이라는 자가 칼을 빼어 그의 팔을 자르고 허리를 찔렀다. 팔을 잃고 피를 흘리며 넘어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꾸짖다가 끝내 순국하고 말았다.<sup>2)</sup> 조선인의 기개를 떨쳐 보여준 의로운 죽음이었다. 함홍기의 죽음은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던 군중을 자극하여 격렬한 무력시위로 발전하게 했다.



일본인 경찰서장 앞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조선인의 기개를 떨쳐 보여준 함홍기 열사의 묘, 고향 가평리 마을의 평화로운 솔밭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촬영 엄경선, 2007년.



1963년 손양면 출신의 만세운동 열사 함홍기, 권병연을 추모하는 비가 손양면 간리 언덕에 세워졌다. 사진촬영 엄경선,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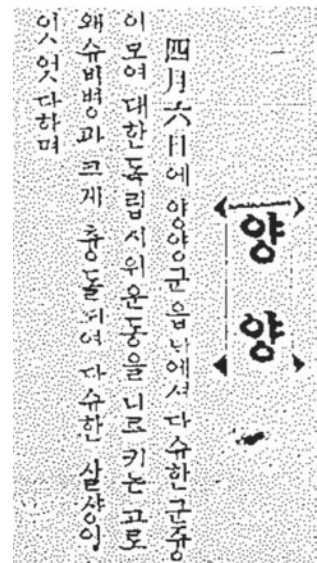
경찰서 복도에 가마니로 덮어 놓았던 시신은 열흘 후에나 가족에게 인도되었으며, 일본 경찰은 함흥기의 장례 때도 동네 주민이 하관하여 시체를 묻으려고 할 때 관을 꺼내서 깨어버리며 행패를 부렸다고 전한다.

#### 4) 통곡의 행렬 - 김학구 열사의 죽음

김학구는 강현면 침교리 사람으로 서면 상평리 권성심의 데릴사위로 있다가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4월 4일 양양장터 만세운동에서 함흥기가 왜정의 칼에 무참하게 살해되자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격분해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돌과 몽둥이를 잡히는 대로 쥐고 군청과 경찰서를 때려 부수었다. 시위 진압에 앞장서며 군민을 탄압한 군수 이동혁을 죽이라고 외쳐댔다. 이에 경찰서로 쫓겨 들어간 일경은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시작했다. 이때 상평리 김학구(金鶴九)와 간리 권병연(權炳淵)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4월 6일 김학구의 장례식이 열린 상평리는 온통 통곡의 행렬이었다. 상여 행렬은 “대한독립만세!”와 상여곡을 번갈아 부르며 원통한 영혼을 위로했다. 면사무소는 돌에 맞아 우리가 깨지고 직원들은 모두 도망갔다. 상평리에서 출발하여 김학구의 고향인 강현면 침교리로 향한 상여는 물갑리 고개에서 김학구의 고향 마을에서 온 빈 상여에 시신을 인계했다. 물갑리 고개에서 상여행렬은 마침 양양경찰서로 진입하는 강현면과 도천면의 시위대와 마주쳐 김학구의 시신 인계 현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전한다.<sup>3)</sup>

이렇듯 처절한 장례를 치른 김학구의 묘는 일경의 혹독한 탄압으로 며칠 후 다시 시체를 파내어 옮겨야 했다고 전한다.



1919년 5월 31일자 신한민보(재미교포 신문) 2면 내지독립단 소식에 실린 양양의 만세운동 소식. (출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09년 11월 확인)

### 3.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림 대표 - 이석범

양양 유림의 대표적 인물, 신간회 양양지회장

1913년 쌍천서숙 설립

만세운동 쌍천서숙 출신 등이 주도

#### 1) 양양의 유림을 규합해 반동학군 조직

이석범(1859~1932년)은 함평 이씨로 조선 인종 원년에 양양부사를 지낸 이춘령의 후손이다.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이다. 양양 임천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부모를 따라 도천면 중도문리(지금의 속초시 설악동)에 이주하여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익혀 1884년 25세의 나이에 초시에 급제했다.

이석범이 양양 유림의 대표 인물로 부각된 것은 갑오년(1894년) 10월 2차 동학농민전쟁 때 강원도에서 발기한 동학농민군에 맞서 동생 이국범과 함께 양양의 유림을 규합해 민보군을 조직, 홍천 내면 일대에서 동학군을 패퇴시키는 등의 공을 세워 『갑오군공록』<sup>4)</sup>과 『동학당정토인록』<sup>5)</sup>에 이름이 올랐다. 『동비토론(東匪討論)』과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에는 이석범과 동생 이국범의 행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초기에 그 수가 수천에 이르러 강릉관아를 점령하는 등 세력이 대단했으나 결국 관군과 민보군의 포위 공격에 진압되고 말았다.

1919년 양양군의 기미만세운동을 기록한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사』에서 원로 사학자 조동걸 교수는 “양양(襄陽)은 극단적인 보수성과 극단적인 혁신성이 병존하는 고장”이라며, “극단적이라는 공통성이 보수든 혁신이든 항일운동이라는 공동 목표에 집약되어 치열한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양은 당시 유교와 기독교 세력이 공존해 있었으며, 구한말부터 신문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자리잡은 기독교 세력이 크게 활성화된 지역이며, 유림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고장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기미년 양양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설초(雪樵) 이석범(李錫範)이다.

## 2) 유학 계통의 쌍천서숙 설립 및 후학 양성

이후 이석범은 광무 2년(1898년) 중추원 3급 의관에 임명되고, 광무 8년(1904년)에 군기창 기수에 임관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이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고 전한다. 특히 개화파의 선구자인 남궁억(南宮棼)이 양양군수로 재직하던 1906년에 현산학교를 세워 신문화운동 세력이 커지자 1913년경 유학 계통의 학교인 '쌍천서숙'을 설립해 정통 사상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도문에 위치했다는 쌍천서숙(일명 쌍천학교)은 1940년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를 비롯해 많은 지역 인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9년 기미만세운동에도 도천면과 강현면 일대에서는 김영경, 장세환 등 쌍천서숙 출신이 운동을 주동하고 참가했다.



설초(雪樵) 이석범은 한국독립운동사에 일획을 그는 기미년 양양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양양 유림의 항일운동을 대표한다.(사진제공, 속초문화원)

1919년에 작성한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이석범은 도천면장(道川面長)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sup> 그 후에 작성한 왜정인물사료에는 기미만세운동 이전에 양양 현산학교장, 양양금융조합장, 도천면장을 거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이석범은 양양 유림을 대표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의 도천면장이나 금융조합장의 직책은 일제의 통치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 3) 기미년 양양만세운동 주동

기미년(1919년) 3월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풍문이 나돌아 민족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돌아온 이석범은 버선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도천면과 강현면 일대는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능렬, 쌍천서숙 출신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함평 이씨 문중이 있는 임천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동(推動)했다.

그러나 양양읍 장날 만세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919년 4월 3일, 이석범은 만



세운동에 쓸 태극기를 만들던 사람들과 함께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다음날 강원도 장관의 양양만세운동에 대한 전화보고문에서도 “유력한 면장도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면장 출신인 이석범의 독립운동 주도는 일제로서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양양경찰서장인 왜인은 이석범에게 함평 이씨 문중의 독립운동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석범이 이를 무시하고 만세운동을 직접 주도했다고 화를 냈다는 뒷이야기도 전해 온다.

3·1운동 후 일제의 인물 기록<sup>7)</sup>에는 “배일사상을 품고 1919년 4월 양양에서 일어났던 만세 사건에 주모자로 관계하여 원산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결과 무죄가 됨”이라고 전한다. 이석범은 비록 형은 면했다 하나 몇 개월의 구금생활과 가혹한 일경의 취조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 4) 신간회 양양지회 회장으로 활동

이석범은 일경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26년 6월 순종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1927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도한 민족협동전선운동인 신간회 운동에 참여하여 1927년 11월 20일 창립된 신간회 양양지회의 초대회장을 맡는다. 신간회 양양지회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었으며, 미신 타파와 조혼 금지, 단연과 아편 흡연 추방 등 계몽운동과 생활, 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 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 반일운동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양양 지역의 신간회 활동은 다른 지역의 신간회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제는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해 책동에 나섰다. 양양의 신간회는 청년운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양양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활발히 펼쳐



신간회 양양지회의 창립을 보도한 1927년 11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석범이 회장을 맡았다.

지면서 상대적으로 정체에 빠지게 된다.

이석범은 1932년 9월 향년 74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쌍천서숙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고, 기미년 양양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양양 유림의 대표적 인물로 항일운동에 바친 그의 헌신적 노력은 후대의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기록과 참가자들의 증언으로 충분히 고증됨에도 그의 만세운동 주동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만세운동 전 양양금융조합장과 도천면장을 지낸 경력도 그의 공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실형을 살았던 그의 동생과 아들이 모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아직도 독립유공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다.

#### 4. 양양교회 담임목사 김영학의 독립운동

양양만세운동 행진 주도로 옥살이...

감리교회 목사로 임시정부 지원 비밀결사 활동

연해주 신한촌에서 선교 활동 중 옥사

##### 1) 양양 만세운동 당시 대중연설과 행진 주도

김영학(金永鶴) 목사는 1933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촌에서 포교 활동 중 러시아 당국의 탄압으로 옥사해, 선교 활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우리나라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양양 지역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기록이 거의 없다.

양양의 만세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던 김영학 목사의 행적은 기미년 만세운동 다음 해인 1920년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국내 비밀결사조직인 ‘대한독립애국단(속칭 철원 애국단)’의 양양단장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것에서 확인된다.

양양 지역은 이미 1901년 성내리교회(지금의 양양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서고 1908년 조산리교회, 1910년경 물치교회(물치리 소재)와 광정교회(상광정리 소재)가 들어서면

서 하나의 교회 구역을 형성해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기미년 만세운동 당시 양양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남감리교회 간성구역장으로 양양교회를 담임하고 물치·조산·광정교회를 순행하며 목회 활동을 한 김영학(金永鶴) 목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77년 황해도 금천군 조포동에서 출생하여 1907년 세례를 받고 서울 광희문 교회, 수표교 교회를 거쳐 1918년 양양교회 목사를 맡았다.

부인 안원정 씨에 따르면 김영학 목사는 순회 강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애국애족사를 고취시켰다. 아울러 만세운동 당시 시위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을 지도하다가 순경에게 잡혀가 무수히 매를 맞고 서대문감옥에서 6개월을 보내고 출옥했다.<sup>8)</sup> 양양만세운동은 조화벽, 김필선, 김재구 등 감리교회 청년들의 개인적인 거사가 아니라 담임목사를 포함해 양양의 감리교회 전체가 나선 조직적인 거사라는 의견이다.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한 최양섭 씨는 석사 학위 논문(1997년) ‘일제하 양양 지방의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양양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교회 측의 기록이 잘못되거나 양양교회의 김영학 목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유일한 조직력과 다소의 민족의식 성향을 지녔던 교회의 조직적인 참여를 다루지 못하고 개인적인 참여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논문에서는 양양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대한독립애국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영학 목사에게 대해 부인 안원정씨의 증언과 당시의 기록 등을 근거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 2) 대한독립애국단 양양군단장 활동

김영학 목사는 그 해 10월 같은 고향 출신이면서 절친한 사이인 조종대로부터 대한독립애국단의 설립 취지를 듣고 이에 동의해 그 지부인 양양군단(襄陽郡團)을 결성하고 군단장을 맡았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 등이 주도해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설치했는데, 양양군단은 이러한 강원도단의 산하 조직이었다. 특히 철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단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해

대한독립애국단은 속칭 철원애국단으로 통한다. 강원도에는 철원과 강릉, 양양, 평창에 지단을 구성했다. 애국단은 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재정자금을 모집했으며, 국내의 비밀조직망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양양군단 결성 이후 그는 김형석(金亨錫)과 이근옥(李根玉), 이석규(李錫圭), 김연수(金延洙) 등 당시 양양군에 포함된 토성면 소속 지인들을 애국단에 가입시키는 등 조직 확대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애국단의 취지에 동감하는 젊은 청년을 모집해 상해가정부(상해임시정부)에 보내어 독립운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희망자는 상해로 건너가는 일을 거들어줄 비밀조직원에게 보내는 소개장까지 써줬다. 1919년 10월 김영학의 권유를 받은 이근옥과 김연수, 이석규, 문명섭은 상해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로 올라가 대한독립애국단 본부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본부 단원들이 도피 중이던 상황이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1920년 1월 강원도단 조직이 발각되어 일경에 피검된 김목사는 그해 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서대문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sup>9)</sup>

이러한 연이은 항일운동의 경력으로 김영학 목사는 일제의 사찰 기록인 용의조선인 명부<sup>10)</sup>에 ‘민족절대독립주의, 배일사상 소유자’로 기록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됐다.

### 3) 러시아 선교와 독립운동 중 해외서 옥사

출옥 후 가평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교회 본부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한촌에 교회 설립과 책임목사일을 맡을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 연해주로 넘어가게 된다. 이곳에서 선교 활동은 물론이며, 만주 지방의 독립투사들과 연락하며 왕래를 했고, 교회 헌금으로 독립투사들을 원조하는 데 애를 썼다고 전한다.

러시아혁명 이후 공산국가가 된 시베리아 일대에서의 선교 활동은 1930년대부터 중단되기에 이른다. 탄압에 못 이겨 다른 목사들과 교인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1931년 강제노동형 10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북쪽 유동감옥에서 영하 40~50°의 혹한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중 사망했다.



## 4) 양양지역 김영학 목사의 영향

기미년 만세운동과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으로 이어지는 항일운동은 이후에도 양양 지역의 기독교 세력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3·1운동을 주도한 다수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1920년대 계몽운동적 성격이 강한 지역 청년운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영학 목사의 순교를 알리는 동아일보 1933년 10월 31일자 기사.

1921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양양웹엠택년회’ 창립 기사가 게재되었다. 웹엠택년회는 전국적인 기독교 청년 단체로 구한말 서재필, 윤치호 등이 주도했으며, 김구도 진남포 웹엠택년회 출신이다. 양양웹엠택년회는 1921년 2월 18일 14:00에 양양군 예배당 내에서 김형식(金亨植), 최우집(崔禹集), 최인식(崔寅植), 장세환(張世煥) 등 10여 명의 유지와 청년들의 발기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은 70여 명에 달하고, 회장은 박종명(朴鐘溟), 부회장 장세환(張世煥), 서기 최인식(崔寅植), 서기 이원희(李源熙), 종교부장 오현영(吳顯泳), 사교부장 최희국(崔熙國), 문학부장 박상희(朴祥喜), 자선부장 최우집(崔禹集)이 피선되었다.

양양웹엠택년회는 청년 유학 지원, 전도 사업 노력,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사업으로 삼았다. 이후에 웹엠택년회는 관동학우회의 순회 강연단 활동을 지원했으나 일제로부터 허가 없이 금품을 모집했다고 벌금을 처분받는 등 탄압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웹엠택년회에 사상적으로 좌·우 경향의 청년들이 함께 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부회장 장세환과 문학부장 박상희는 이후에 강현면장과 도천면장을 지냈으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최인식은 사업가로 변신했다. 최우집은 양양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전파한 인물이다.

1920년대 양양의 청년사회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계열이 주도하지만, 만세운동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청년사회운동 단체가 기독교 관련 단체였다는 점은 큰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 5. 양양의 사회주의 운동가 - 김대봉 · 이건호

김대봉,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 창립 주도

김대봉과 이건호, 조공재건운동으로 투옥

양양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들

### 1)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함께 법정에 섬

1920년대와 1930년대 양양의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한 역사를 기록했음에도 지역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바로 김대봉과 이건호이다.

1934년 9월 17일 비공개로 열린 경성지방법원 재판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꾀한 김대봉에게 징역 4년, 이건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두 사람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국내로 들어와 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각지에서 활동하다 검거되었다.

1919년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국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급격히 약해진 상황에서 1924년 최초로 결성된 조선공산당이 탄압 속에도 4차례나 재건되었으나 1928년 대규모 검거와 탄압으로 다시 와해되고 말았다. 1920년대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1926년 6·10만세운동과 1928년 원산총파업, 1929년 광주학생운동 등 일제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 조직 와해 이후 사회주의 운동은 모든 힘을 쏟아 재건운동에 나섰는데, 일제의 탄압도 극렬하여 조선공산당 재건 관련 조직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던 시점이었다.

김대봉과 이건호, 이 두 사람은 와해된 조선공산당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노동조합 건설 등 대중조직 건설을 꾀하다가 1931년에 이건호가 먼저 체포되고, 1932년에 김대봉이 체포되어 함께 법정에 출정하게 됐다. 김대봉과 이건호는 동향 출신으로, 한 살 더 많은 김대봉은 강현면 물치리 출신이며, 이건호는 도천면 중도문리(지금의 속초시 도문



1932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김대봉(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 단행본 450p.)

동 중도문리) 출신이다. 두 사람은 출생지가 이웃 마을일 뿐만 아니라 학교도 서울 중동 학교를 다녔으며, 1925년에 창립된 양양신청년동맹의 초대 집행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약칭 共大) 출신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도 함께 활동했다.

## 2) 교사출신 사회주의 운동 전개 - 이건호

이건호는 1902년 도천면 중도문리 596에서 출생하여 1920년 서울 중동학교 중등과에 입학, 1923년 고등과 2부를 졸업한 후 1부에 입학했다가 곧 중퇴했다. 1924년 6월에 강원도 화천에서 광동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그해 말 양양에서 중등학교 입학 과정 강습소를 설치했다. 1925년 9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11월경 상해로 넘어가 고려공청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했다.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의 노력중앙연구소에서 3개월간의 실습 과정을 거쳤다. 1929년 12월경에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입국한 후 인천에서 활동했다. 1931년 4월 이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과 관련해 팸플릿을 작성하는 한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조직운동을 전개했다. 11월경에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9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3) 노동·청년운동 전개 - 김대봉

1901년 강현면 물치리 32번지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에서 8년간 한문을 배웠다. 그 후 서울 중동학교 야학부를 다니다가 중퇴했다. 1922년 9월 양양 호산(湖山)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었다. 1923년 오룡영과 김동환, 최우집(일명 최육) 등과 함께 물치노동동맹을 결성했으며,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자 양양 지역의 대표로 파견되기도 했다. 다음해에 중앙집행위원장까지 맡게 된다. 당시 중앙집행위원에는 강달영과 권오설 등 국내 주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1925년 1월 양양신청년동맹 창립을 주도했으며, 2월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집회가 불

허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양양 지역 준비위원으로 참가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이후 양양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축세력이 되었는데 무산청년의 계급의식 각성을 위한 수양기관과 언론기관 설치, 강연회와 연구활동, 연극, 토론활동 등을 펼쳤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 양양지국 기자로 재직했다.

양양신청년동맹은 1925년 11월 9일에는 한용운의 강연을, 11월 21일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송봉우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특히 당시 신문지국과 기자들도 지역청년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신문에는 이들의 활동이 비교적 상세히 전국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의 용의조선인명부 자료<sup>11)</sup>에 의하면 김대봉은 1923년 8월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등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녀교육이 최고”라며 노동야학의 필요성을 고취했다고 한다. 아울러 항상 노동자를 모아 노동문제와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어 정치범죄 전과자와 은밀히 만나 일을 도모할 위험이 있다며 요시찰 인물로 주목했다.

1925년에는 군수 관사 건축비용 등 징수에 관한 군민대회에서 군수가 납세의 선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군수에게 “조선인이 생활 곤란에 빠져 있을 때의 납세선전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며, “납세 활동이 극도로 저조한 것은 납세제도가 쓸모없고 관청의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 4)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투옥

김대봉은 청년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1923년 봄 서울에서 사회주의 조직인 토요회에 가입했으며, 1925년에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1926년 12월에 강달영과 권오설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28년 6월에 졸업했다.

그해 9월 귀국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하다가 1929년 1월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했다. 1930년 12월 코민테른 동양부로부터 공산당 재건운동을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1932년 검거되었다.

출옥 후에는 1940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아일보 양양지국을 운영했다. 김대봉에게 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김대봉의 모습. 1934년 9월 11일자 조선중앙일보에 게시된 사진(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기는 변절의 시기였다.

1939년 6월 1일자 『조선일보』는 양양의 사상 전향자 11명과 지방유지 12명이 사상보국연맹 함흥지부에서 보조금 5백 원을 얻어 동경과 대관 등 선진국을 시찰하고 궁성 각 신사에 참배하고 강원신사 확장 공사에 근로보국을 하고 귀향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이 사상 전향 시찰단의 대표로 김대봉이 거명되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사회운동가들을 전향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으며, 특히 기미년 만세운동 이후 치열하게 일제 체제를 위협했던 양양의 사회운동가 전향에 많은 공을 들였다. 김대봉은 사상 전

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제 체제에 협력하였다.

김대봉은 광복 후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파견원으로 강원도당 간부를 재편하고 철원인민정치대학 교장이 되었다.

김대봉의 동생 김대선(金大先)은 1919년 4월 5일 강현면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 물치리 주동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sup>12)</sup> 그리고 1923년 20세의 나이에 학생신분으로 동아공산당 사건의 주동자로 6년형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1927년에 출옥했다. 김대선은 만주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온 황돈과 함께 동아공산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권총과 경고문, 사형선고문을 갖고 서울의 부호 집에 침입해 금전을 강탈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김대선의 활동은 조직적인 사회주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아나키스트적인 활동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 5) 그 외 공대(共大) 출신 운동가들

양양 지역은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 공대 출신 사회운동가들이 많다. 김대봉과 이건호 이외에도 노상렬, 최공집, 조두원 등도 공대(共大) 출신이다.

노상렬(盧想烈, 1904~?)은 2004년 보훈처가 제출한 사회주의 계열 서훈 보류자 113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노상렬은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조선공산당의 전남총책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6·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 (총책임자 권오설)를 설치하고, 당원 및 인쇄직공 조합원들은 격문 5만여 매를 인쇄하고, 전국 58개 지역을 잇는 조직 연락망을 완성하였다. 6·10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공산당 조직 색출과 파괴에 열을 올렸다. 노상렬은 강달영 등과 함께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었다.

노상렬은 양양 출신으로 원산, 청진, 북간도에서 생활하다 러시아로 이주, 1923년 12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하였다. 1925년 12월 귀국하여 조선일보 광주지국 기사를 지내면서 고려공청 전남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6월 일본 경찰에 수배되어 가택 수색을 당했으나 도주했으며, 8월 '통일고려공청'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서울에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대(共大) 출신인 최공집(崔公集, 1912~?)은 양양 청곡리 출신으로 양양에서 보통학교를 5년간 수학했다. 1927년 4월 서울 보성고보에 입학해 1930년 9월 동맹휴교를 주도하여 퇴학당했다. 1932년 서울에서 가구점의 목공으로 일하다가 11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속성과에 입학해 다음 해인 1933년 9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귀국하여 평양에서 목공으로 일했다. 1934년 3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검거되어 10월 평양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확대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13)</sup>

## 6. 봉건 억압을 거부한 여성운동가 - 조원숙

조선동우회 · 근우회 등 여성운동가로 활동

15세에 포매리에서 야간 도주, 상경 유학

사회주의자와 결혼, 험난한 인생

### 1) 조선동우회 · 근우회 등 여성운동가로 활동

1920년대 일제 치하의 조선 여성은 이중 삼중의 억압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의 착취와 수탈에 덧붙여, 가부장적인 사회의 봉건적 억압으로 교육과 취업에서의 불평등은 물론이며,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봉건적 억압을 과감하게 떨치고, 식민지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여성운동의 한길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양양의 조원숙(趙元淑, 1906~?)이다. 조원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현남면 포매리가 고향인 조원숙은 1924년 우리나라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시초가 된 조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7년에 결성된 여성운동 단일 조직인 ‘근우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조원숙은 같은 여성운동가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봉건적 삶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여성운동의 길로 나섰다는 점에서 당시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15살에 야간 도주, 상경 유학〉

“나의 시골집은 강원도의 작은 읍인 양양입니다.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집안도 구식 가정으로 행세나 하는 가정인 까닭에 남자의 유학도 잘 허락하지 않거든 어찌 여자의 유학이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서울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이 봄불 타오르듯 하여 자나깨나 밤낮으로 공부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며칠씩 밥도 잘 안 먹고 심지어 병까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다섯 살 되던 해 5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죽기까지 결심하고 도망가는 과부모양으로 봇짐을 싸가지고 부모도 친척도 동네사람들도 다 모르는 중에 교군(驍軍, 가마꾼) 하나를 잡아타고 표연히 집을 떠나

양양과 강릉의 접경지 되는 지경리까지 와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때는 마침 춥지도 덥지도 않은 첫여름의 보름밤이라 중천의 둥근달은 초롱같이 밝고 만산의 무르녹는 새 녹음은 그림의 족자와 같은데 나의 시원하고 상쾌한 마음이야 어찌 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옥중에 있던 죄수가 옥문을 나오고 통 속에 있던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1927년 8월 17일 잡지 『별건곤』기사 재정리.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06년 현남면 포매리에서 태어난 조원숙은 15세에 서울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 가출을 했다. 그의 고향인 포매리는 한양 조씨 집성촌으로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감히 여자가 신학문을 하겠다고 엄두를 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 가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집안에서 강제로 결혼을 정해 놓아 혼례 전날 밤에 시집가기 싫다고 서울로 도주하여 온 통쾌한 여성”이라고 하기도 했다.

## 2)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 결성 주도

고향을 등지고 가출하며 서울에서 근화학원(덕성여대의 전신)을 다녔다. 그러나 2학년을 다니다가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퇴학을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에 나서게 된다.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굴레를 상징하는 삼단머리를 잘라내어 단발여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24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인 조

선여성동우회 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 6월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찰에 검속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당시 그의 오빠인 조두원(趙斗元)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중국 북경으로 피신하였으나 여동생 조옥화와 부친 조석구는 조원숙과 함께 체포되었다.



일제하 여성운동사상 가장 큰 단일조직으로 출범한 권우회 창립소식을 실은 1927년 5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독립기념관 DB자료). 권우회의 창립멤버의 한 사람인 조원숙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되었다.



1927년 4월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통합 조직인 중앙여자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을 맡았으며, 5월에는 기독교 계열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힘을 합친 ‘근우회’ (항일 여성운동단체) 결성에 나서 집행위원 및 서무부원을 맡았다.

그녀는 김활란(광복 후 이화여대 총장 재직), 황신덕(추계예술대학교 설립자) 등과 함께 근우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창립대회 준비를 위해 전 조선의 단체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는 공문작성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5월 27일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21명의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열린 근우회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무부 책임자가 되었으며, 7명의 상무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근우회는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야학 실시, 문맹 퇴치 및 여공 파업 진상 조사, 항일학생운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근우회는 전국에 70여 개의 지부를 두었으며, 회비를 내는 회원수만 2천9백여 명에 이르렀다. 근우회는 일제의 탄압과 좌우분열 등으로 해소되었지만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서 획기적인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 3) 미모와 활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

근우회 활동으로 사회에 알려져 언론의 관심은 각별했다.

- 「사랑이 잡아간 女人群」, 『별건곤』, 1932년 11월 1일자.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우회에서 미인이 누구냐 하면 그를 가르쳤고 또 충실한 일꾼이 누구냐 하면 역시 그를 가르쳤다. 그러나 풍염한 얼굴과 어글어글한 눈, 단발의 미, 좋은 체격 등 모든 조건은 이성의 사람을 끌기에 너무 충족하여 일하는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 『삼천리』, 1932년 7월 1일자.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여성동우회 당시에 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하든 그는 … 그리하여 근우회의 집행위원으로 어디를 가든지 대모테안경에 기름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곳이 없더니….

당시 서울에는 4미인(四美人)이 있었다고 한다. 주세죽(朱世竹), 허정숙(許貞淑), 심은숙(沈恩淑), 조원숙(趙元淑). 이 중 주세죽은 박헌영의 부인이 되었으며, 허정숙은 변호사 허헌의 딸로 후에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오른 인물이다. 이들 4명의 여성은 당시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원숙은 다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그러하듯 사상적 동지를 남편으로 맞았다. 조원숙은 경남 통영 거제도 출신으로 북경대학을 나온 양명(梁明)과 결혼했다. 양명은 고려공청 책임비서를 지냈으며, 결혼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지냈다. 1928년 초 양명이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에 연루되어 북경으로 망명하자 조원숙도 따라갔다. 중국 상해에서 딸아이를 낳고 양명과 계속 지내기 어려워 귀국해 시집인 통영과 친정인 양양에서 지냈다. 근우회의 맹장이라고 했던 조원숙의 변한 모습에 모두들 놀랐다.

- 『삼천리』 1932년 7월 1일.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지난 4월 말에 우연히 京城驛에 나갔다가 머리는 흩어지고 어린아이는 등에 업고 고무 신에 낀 치마, 그리고 치마 안으로 보이는 돈주머니, 그 초초한 행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인에 모양내기로 유명한 그가 이제 웬일일까?

#### 4) 광복 후 조선부녀총동맹 활동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일제강점기에 근우회에서 활동하던 여성활동가들이 주를 이루고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 여성 지식인들이 모두 참여해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했다. 여기서 집행위원을 맡았다. 건국부녀동맹은 그해 12월 조선부녀총동맹(약칭 부총)으로 개편되었는데 대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1946년 1월 17일자 자유신문에 부녀동맹의 대표 자격으로 “38°선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민족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달부터 열리고 있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전국에 80만 명의 회원을 두게 된 부총은 남녀평등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과 자주성 확립, 남녀 임금 차별제 폐지, 모자보호법 제정, 봉건적 결혼제 철폐를 내걸고 운동을 벌였다.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부총은 활발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고 미군정의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말았으며,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맥이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7. 6·10만세운동 주도 - 조두원

### 1) 연희전문 출신으로 6·10만세운동 주도

연희전문 때 6·10만세운동 주도로 쫓겨

대화숙 참여 친일파로 전향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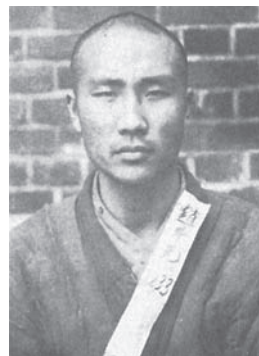
남로당 중책, 박헌영 간첩사건 증언자로 나서

양양 출신의 최용달과 함께 일제시대의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조두원(趙斗元, 1903~1955?, 일명 조일명)을 들 수 있다. 현남면 포매리 출신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조원숙의 오빠이다. 남매가 모두 사회주의 운동가로 역사에 기록된 드문 경우이다.

일제하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조두원은 광복 후 정국에서 박헌영의 비서 격으로 남로당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월북했으나 1953년 북한정권으로부터 미제 간첩 및 반역 행위의 혐의로 이승엽 등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회주의자로 해방정국의 좌익 정치인으로 근현대사의 한 장을 기록한 그의 삶이지만, 남한에서는 친일 전향 공산주의자로, 북한에서는 미제 간첩 반역행위자로 지목되어 그의 행적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원은 현남면 후포매리 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다



1930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조두원의 모습(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8, 단행본 43p.)

났고 양양학생친목회 집행위원, 조선학생총연합회 집행위원, 조선학생회 집행위원을 지냈다. 1925년 사회주의 학생운동 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권오설의 권유로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다. 1925년 12월 10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서울 운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열었다.

1926년 3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그해 6월 조선공산당 산하 6·10만세운동 투쟁지도특별위원회가 와해되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들과 함께 태극기, 독립만세기, 격문 등을 준비해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6·10만세운동 주도와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에 대한 일제의 검거를 피해 러시아로 망명,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동생 조원숙과 조옥화, 부친 조석구도 조두원의 행방을 추궁하는 일정에 함께 체포되기도 했다.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929년 6월 코민테른으로부터 김단야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조직의 명을 받고 귀국하여 한 동안 원산에서 이주하와 함께 활동하였다.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중앙고보교 생도 맹휴사건을 선동했으며, 비밀문서를 작성해 전국적인 학생 동맹휴업 등을 조직하려고 활동하다 동대문 밖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 당시 그의 부친도 고향 양양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으며 당시 신문에서 ‘공산대학 출신 조두원사건’으로 크게 다루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공산당 재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리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 “민족해방투쟁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추가되었다.



서울 중앙고보생 맹휴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조두원 공판사건을 다룬 1930년 3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 2) 일제 말기에 적극적인 친일 행적

1933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고 ‘공산주의 운동은 환경에 따라 그만둘 수 있다’라며 전향문을 발표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1938년 서울로 올라온 그는 1940년에는 중석 채굴을 하던 삼각상회의 사무원으로 일을 했으며, 한때는 술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때 적극적인 친일 행적이 확인된다. 1938년 12월 14일 부민관에서 열린 시국 유지 원탁회의에서 내선일체의 지도원리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수와 주요한, 조병옥 등 좌우익을 막라한 친일전향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나는 로시아(露西亞)에서 공산대학(共產大學)을 다녔는데 학문의 기초라든가 개념의 취급(取扱)이 전연 다르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조선(朝鮮)의 실정과 적합되는 개념이 될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조선(朝鮮)이나 일본내지(日本内地)의 국민적 특수성을 기초(基調)로 해서 시대에 적응된 새로운 지도원리(指導原理)를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만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sup>14)</sup>

아울러 1944년 1월에는 내선일체의 강화 및 선도, 전향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대화숙(大和塾)의 야간학교에서 3개월 동안 일본어 교사로 종사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였다. 이 친일 행적은 해방정국 이후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전향 친일파라는 꼬리표로 붙어 다니게 되었다.

## 3) 미제간첩으로 사형선고, 박헌영 재판 증언

1945년 8·15광복 다음날 서울 장안빌딩에서 서울계와 자신의 계보인 화요회계와 함께 장안파 조선공산당을 발족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당 조직 재편에 앞장섰다. 한때 이승만 암살기도 혐의로 미군정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조일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1947년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과 기관지 『노력인민』 주필로 활동하다가 그해 12

월에 월북했다. 당시 이우적, 정태식과 함께 조선공산당 3대 이론가로 손꼽혔다.

월북 후 남로당 출신들이 모여 있던 해주 제1인쇄소에서 출판을 담당했고 1949년 조선노동당 중앙본부 서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 계획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에 조선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 부주필, 문화선전성 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북한의 특별군사법정에서 미 제국주의를 위한 간첩 행위와 공화국 정권 전복을 위한 무장 폭동 행위 등의 혐의로 이승엽, 임화 등 다른 남로당 출신 9명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의 간첩 행위와 무장 폭동 혐의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북한의 재판 기록에 근거해 그를 출세를 위해 친일과 친미 활동을 하며 변절을 거듭한 기회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남로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비참한 말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53년 사형선고를 언도받았지만 그는 1955년 진행된 박헌영에 대한 특별재판에서 이강국과 함께 증인으로 출정하여 자신과 정치적 행로를 같이 해온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이 박헌영 등 남로당 계열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조두원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협조를 하게 되었다.

박헌영 재판의 증언 이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고향인 현남면 포매리에는 1980년대에 구소련에 살아 있다는 엽서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양양군 포매리에는 남과 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조두원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 8. 항일 양양농민조합운동과 인물들

일제의 사회운동 말살 책동으로 367명 체포, 36명 실형

낙산사에서 1천여 명 넘는 대중집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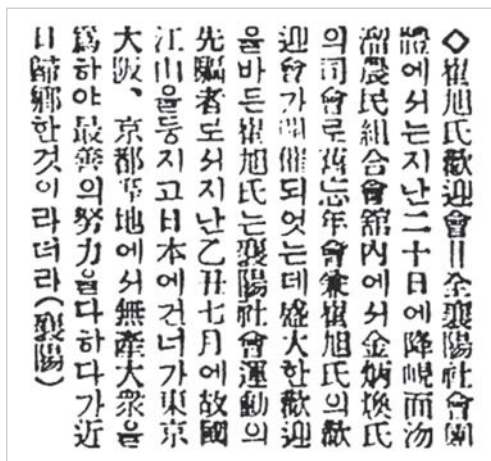
소작쟁의, 농업정책, 농민교육문제 등 거론

지도부 다수가 사회주의 운동, 일부는 기독교인

### 1) 만세운동 이후

많은 희생자를 냈던 1919년 양양의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지역의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

1921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기사에 따르면 1921년 2월 18일 오후 2시 양양군 예배당에서 양양웹엠택년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양양웹엠택년회 임원에는 만세운동을 함께 했던 최인식(崔寅植), 장세환(張世煥)과 이후 양양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가 된 최우집(崔禹集), 이후에 도천면



1928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양양사회운동의 선구자 최옥(최우집)씨 환영회 소식이 실렸다.

장을 지낸 박상희도 포함되어 있다. 장세환은 이후에 강현면장을 지냈다.

양양웹엠택년회는 청년 유학 지원, 전도 사업, 토론 및 강연회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으나 일제의 집요한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1938년 12월 강원도의 치안 상황을 기록한 일본 경찰의 문서<sup>15)</sup>에 따르면, 대정 11년(1922년) 7월 경성 방면에 거주하던 화요계 공산주의자 김대봉(金大鳳)이 귀향하여 오일영(吳日泳), 장세환(張世煥), 박상희(朴祥喜) 등을 규합하여 한구청년회(한구청년회(韓口青年會), 이후 호사청년회(湖山青年會) 또는 호산기독교청년회(湖山基督青年會))를 조직해 공산주의 운동에 착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를 강원도

에서의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주목하고 있다.

웹엠택년회나 한구청년회(호산청년회)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청년운동 조직은 아니었지만 이후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모태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만세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기독교 청년단체를 통해 활동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20년대 강원도 사회운동은 양양군과 인근 간성군 청년들이 주도하게 되며, 양양의 청년운동은 이후 농민·노동조합 운동과 좌우합작의 신간회 운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1922년을 전후로 설악권에서는 김대봉, 오일영 등이 살던 물치리에서 물치노동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농민·노동 운동 단체라 할 수 있다.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강원도에서도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양양의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기미운동에 십수(十數)의 인명을 희생하고 수천 동포로 하여금 혹은 철창에 신음하며 혹은 사람으로 견디지 못할 가혹한 태형에 자못 경내가 살풍경(殺風景)을 이루어 피화(被禍)가 전 조선에 제3위라는 논평을 받았다.

당시에 극도로 팽창되었던 사조는 일반 청년들로 하여금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전 군(郡)을 망라한 호산청년회(湖山靑年會)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같은 주의(主義) 같은 보조 하에 신청년동맹과 일혁청년회(一革靑年會)가 병진하다가 4개 단체 합동 정우회가 탄생된 이후로 그들도 파전(派戰)을 일소하고 합동의 환성을 외치게 되어 동화청년회(同化靑年會)가 탄생되었다.

청년운동이 이와 같이 발전된 동시에 농민노동운동도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 노도(怒濤)같은 풍조(風潮)가 점차 수입됨에 따라 각지에 청년·농민·소년 단체가 우후죽순의 세(勢)로 봉기되어 그 추세가 일사천리이었음으로 운동이 상당히 근거가 잡혀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그 격렬함이 전 조선적으로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제 중요 단체를 소개하면

▷ 조선청년총동맹 양양군청년동맹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군 청년운동은 역사가 깊은 것인데 그간 붉은 손 붉은 주먹으로 비난과 싸우며 압박과 다투어 고행, 참담한 가운데



백절불굴의 정신과 칠전팔기의 용력으로 지방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였다. 지난 4월에 각 면별로 조직되어 있던 5개 세포 단체, 즉 앞에서 기술한 동화(同化), 도천면 대포리에 있던 흥악(興岳), 강현면 물치리에 있던 설악(雪嶽), 서면 상평리에 있던 현서(峴西), 손양면 금강리에 있던 손양(巽陽) 청년회를 연맹체로 창립시켜 청총(靑總)에 가맹하였다가 방향 전환기인 지금에 있어 조직체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8월10일에 이를 해체시키고 청총 규정에 의하여 동맹체를 창립시켰다. 그리고 즉시 청총에 가입하고 전 연맹체의 세포 단체를 해체시키고 지부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지부는 도천면지부(25명), 강현면지부(25명), 서면지부(24명), 손양면지부(26명)이다.

▷ 물치차부(車夫)조합 본 군에는 아직 노동자 수효가 적은 것이 산업상으로 보아 면치 못할 일이다. 다만 번성한 부락에만 얼마씩 있는데 개중 대포항은 본 郡의 문호로 정기항로의 기항지임으로 백물(百物)이 폭주한다 함은 전기(前記)한 바인데 변화한 만큼 노동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난해 6월 13일에 이곳에 노동조합이 창립되어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하여 활동 중이었는데 경찰의 신경이 그만큼 과민되어 엄중 감시하던 바 예의 불온(不穩)으로 실로 간부를 구속하는 등 강제로 익월 중순에 해체를 당하고 오직 지난해 오월에 창립된 물치차부조합이 있어 노동운동을 보일 뿐이다. 현 회원이 20명이요 사무소를 물치리에 두었다.

▷ 물치농조(農組) 본래 노농동맹으로 농민·노동 운동에 힘써오다가 계해(癸亥, 1923년) 1월 26일에 농민조합으로 변경시켰다는데 역사가 유원한 만큼 공헌이 있었다. 현재 회원 53인.

▷ 조산농조(農組) 재작년 12월 12일에 농우회를 창립하여 일반 농민 교양에 많은 활동을 하여 오던 바 경찰당국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선전할 위험성이 보인다.”고 해체를 당한 후 다시 지난해 8월 7일에 농민조합으로 변경하였다. 현 회원이 43명이다.

(양양 - 記者)

- 『동아일보』 1927년 9월 5일자 4면 ‘순회탐방 양양 4, 사회단체’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타베이스)

## 2) 1920년대 양양지방의 청년운동

양양에서 농민조합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다음은 양양의 대표적인 청년운동 단체인 신청년동맹의 창립 소식을 실은 기사이다.

### 양양 신청년동맹 창립

[양양]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삼일운동 당시에 다수한 희생자를 낸 후로는 사상계는 점점 쇠미하여 보천교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작년 이후부터는 해방운동의 신사조가 전파되자 청년계에서는 진리를 각오하고 무산계급운동에 봉사코자 하는 자가 많아지더니 지난 11일 오후부터 무산계급을 대표할 만한 청년 28인이 양양면 조산리 보은학원에 모여 양양신청년동맹을 창립하게 되었다. (중략) 기타 실행 사업은 먼저 무산청년의 계급의식을 각성케 할 만한 수양기관과 무산계급운동에 필요한 언론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수시로 강연, 강습, 연구, 운동, 토론, 연극 등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타 모든 사업은 집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사무소는 양양읍 남문리 『조선일보』지국으로 정한 후 폐회하였다. 다시 이날 오후 8시경에 집행위원회를 낙산사에서 개최하였다. (생략)

- 1925년 1월 22일 『시대일보』2면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1925년 1월 창립한 양양신청년동맹은 그해 11월 9일에는 한용운의 강연을, 11월 21일에는 사회주의 운동가 송봉우의 강연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양양 지역에서 청년운동단체와 신간회지부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자, 이들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소년회를 일본 경찰과 학교당국이 극렬하게 탄압하였다. 1928년 4월에는 양양소년회동맹 주최로 소년소녀현상옹변대회가 있었는데 이날 연사들이 불온한 언사를 했다고 소년회의 회합을 일체 금지시키고 간부 8명을 경찰서에 불러 취조하였다. 또한 경찰은 1930년 5월에 양양면소년회 소속 회원 10여 명을 가택수사하고 간부들을 불러 취조하였다. 일부 간부는 구금되었다가 뒤늦게 석방되기도 했다.

한편 1928년 2월에는 대포공립보통학교 일본인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들을 강제로 탈퇴 종용하여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양양의 청년동맹과 신간회지부 등 사회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일본인 교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 3) 1927년 통합농민조합 출범

1923년에 양양에서는 물치노동동맹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소작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산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 농민조합운동은 야학 활동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당시 양양에는 14개 리에 야학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7년 12월 물치와 조산, 용천, 정손, 소야, 서림 등 6개 지역의 조합이 군농민조합으로 통합되어 양양농민조합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 의장에 속초리 출신의 김병환, 부의장에 물치리 출신의 오일영(오룡영)이 선출되었다. 양양농민조합은 양양과 강현, 손양, 도천, 서면 지역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양양농민조합은 조합원 정기대회를 통해 소작제도의 개선, 무산아동 수업료 면제, 화전민 문제, 묘목 강제 배분 반대, 미신 타파와 조혼 강제 결혼 폐지, 집회 및 결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기했다. 특히 각 지부별로 교양 훈련에 힘써 활동가를 집중 양성했으며, 소작쟁의 지도 활동과 일제의 농업정책 반대, 문화운동 등을 펼쳤다.

1932년 검거 당시 12개 지부(조산, 서림, 용천, 정손, 소야, 노리, 물치, 정암, 월리, 강선, 임천, 포월)에서 360명의 조합원이 활동했으며, 구성원들도 소작농과 자작농은 물론 부농까지도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양양의 대표적인 농민조직이 되었다. 신간회와 청년동맹 등 지역 조직이 있었지만 간부들은 검직을 하였으며, 실제 활동은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일본 경찰은 해당 지역의 구장과 면장을 동원하여 농조 탈퇴 종용, 농조지회 해산 협박, 간부진의 검속과 집회금지 조치, 집회 방청금지 등 탄압을 노골화했다.

갈수록 궁핍해져 가는 양양 농촌지역에서 절박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된다. 양양 지역은 전년도부터 시작된 극심한 흉년으로 1932년 봄 춘궁기에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펼쳐졌다. 양양의 11개 리를 살살이 답사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가난한 소작인과 화전민, 결식을 위해 떠도는 유랑민의 처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기아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농민의 현실적 요구를 대변하는 조합의 존재는 일제로서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는 1932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양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인근서의 경찰 70여 명

과 강릉지청 검사까지 가세하여 양양 전 지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놓고 조합원과 관련자 367명을 체포, 구금했다. 양양의 농민조합원뿐만 아니라 어민조합, 노동조합, 청년운동단체 조직원까지 검거하였다. 유치장이 부족해 숙직실, 연무장에도 검거한 사람들을 수용한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일제의 계획된 탄압으로 지탄할 정도였다. 당시 언론에서 단천농민조합사건 다음으로 큰 농민조합 사건이라 했던 이 사건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취조 끝에 주동자 36명이 공판에 회부되어 2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살았다.

일제가 무장경관 수십 명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거 선풍으로 양양농민조합을 궤멸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언론은 이 검거 선풍은 양양의 사회운동을 말살하려는 계획된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양양군은 강원도에서도 1919년 만세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일제의 요시찰 지역이었다. 1923년부터 시작된 양양 지역의 농민운동은 소규모의 조직들이 통합된 양양농민조합이 결성되면서 그 활동이 일제의 통제를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1928년 4월 26일 낙산사에서 개최된 양양농조 제2회 정기대회는 조합원 320명과 방청객 1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일제는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대회 이후에 일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농조를 탄압하였다.

#### 4) 강현면 농잠사건과 야학생 격문사건

일제의 검거에 앞서 이를 예견하는 전조가 있었다. 검거 선풍이 있기 몇 개월 전인 1931년 12월 강현면에서는 농잠학교(農蠶學校) 설치를 반대하고 구장(區長)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조합원 14명이 검거되어 이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양양군에서 농잠학교 설치를 다년간 요구하여 강현면에 설치할 것을 인가받았는데, 군과 면 당국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담을 강현면민에게만 떠맡기자 면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의하여 대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대회는 아무런 결론도 없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면 당국에서 학교 공사를 강행하고 각 마을에 부역과 공역을 강제로 할당시키자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결국 강현면 적은리에서 농민조합원들이



동리구장에게 “면민대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강행하냐”며 동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구장이 이를 거부해, 농민들이 격분하여 구장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선 1931년 6월에는 대포어민 조합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정어리 기름깻묵’ 가격 문제로 대포리와 물치리

어선 70여 척과 100여 명이 파업을 감행하였으며, 이 중 40여 명이 경찰서로 몰려가 조합원 2명을 검속한 이유와 멸치 가격 협의회 금지 이유, 조합 문서를 압수한 이유 등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농민조합원 검거 선풍은 1932년 장산리에서 있었던 야학생 격문사건에서 비롯된다. 농조 검거 선풍을 다룬 당시 신문에 의하면, 1월 강현면 장산리 농민 야학생 모씨가 강현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은한 격문을 첨부함을 단서로 잡아 야학교사와 학생 6명을 검거 취조한 결과 농민조합에서 주의선전과 불온사상을 고취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양양농민조합에 관여한 노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1932년 5월 5일 단오날에 항일시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살포할 전단이 5월 1일 그의 집 천장에서 발각되면서 검거가 시작된 것으로 밝혔다. 그 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6)</sup>

“무찌르자 강도 일본제국을, 반대하자 조선총독 폭압정치를. 우리는 무주공산의 오작의 밥이 되더라도 강도 왜적 섬멸에 총궐기하자. 내가 빼앗기고 돌려달라는 애국 청년을 놈들이 뻔뻔히도 감금했다. 때려 부쉬라 검은 철장 검은 감옥을. 이천만 동포들이여 호응하라.”

체포된 사람만 367명에 취조 기간만 장장 1년 8개월이 걸린 이 사건에 대해 일제는 “농민조합이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했다.”는 내용으로 검거된 조합원 중 36명을 기소했다. 이에 검거가 시작된 지 만 23개월 만인 1934년 5월 25일 처음으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용영 등은 공소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각 지부의



1932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농잠학교 반대로 양양농민조합 조합원 1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 사건은 대규모 농민조합 검거선풍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교양부 책임자인 최용복, 최창원, 노병례, 김동기 등은 비밀결사조직을 만들고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했다는 내용을 극구 부인했다. 다만 노동독본과 한글을 가르치고, 소작쟁의 이야기를 김병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6월 22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36명 전원에 대해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일제는 검거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만이 아니라 어민조합원, 다른 사회단체 회원까지도 함께 검거하였으며, 36명의 핵심인물을 2년 동안이나 구금했다가 재판에 회부하는 등 철저히 양양의 사회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양양농조사건’이라 호칭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양 적농사건(赤農事件)’이라 개칭하여 합법적인 농민조합운동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조직사건으로 몰아붙였다.

양양농민조합사건은 설악권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항일조직운동 사건으로 기록된다. 1930년대 양양을 대표하는 항일민족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적색 농민조합운동’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사건 발발 60년이 다 지난 1990년에서야 사건의 주동자인 김필선, 노병례, 김사만, 김종현이 기미년 만세운동과 농민조합 활동으로 독립유공 애족장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농민조합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부족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족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 5) 양양농민조합운동을 이끈 인물들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주동자 중 다수가 양양의 기미년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양농민조합운동이 민족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 농민조합 운동과 청년운동을 주동했던 김병환과 오용영, 최우집을 비롯해 노병례, 김사만, 김극선, 김두선, 김필선 등은 기미년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인물들이다.

당시 농조 집행위원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극선(金極善)과 청년동맹 활동을 주도한 김두선(金斗善), 신간회 부회장을 지낸 김필선(金弼善)은 양양읍 남문리 출신의 친형제로 모두 기미년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고 한다.

김두선은 1919년 4월 4일 양양장날 양양읍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지도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27년 양양청년동맹의 서무부장, 강원도청년연맹의 집행위원을 지내며 양양청년동맹의 실질적인 주동자로 활동했다.

김필선은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인 조화벽이 몰래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면사무소의 등사판으로 복사하고 교회청년들을 추동해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양양읍 장날 시위를 앞장서서 지도했다. 그는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양양보통학교 8회 졸업생으로 당시 면사무소 급사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1927년 강원도청년연맹의 집행위원, 조선청년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29년 12월 고려공산당사건과 관련해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1930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병례(盧炳禮)는 서면 용천리 출신으로 1919년 4월 4일 양양장터의 독립만세운동에 15세의 나이로 참가해 일경에 체포되었다 어린 학생이라 석방되었지만 이로 인해 보통학교에서 퇴학당했다. 1927년 신간회 활동에 참가하고, 양양농민조합 용천지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사만(金思晩)은 강현면 정암리 출신으로 1919년 4월 5일 물치장터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곤장 180대를 맞고 2개월간 취조 끝에 석방되었다. 양양농민조합 정암리지부의 책임자로 1932년 일경에 체포되어 25개월간의 구금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6) 지도부 다수가 사회주의 운동에 관련

양양농민조합을 이끈 지도급 중 다수가 당시 시대적인 조류였던 사회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조합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김병환과 오용영, 최우집, 김동환 등은 비밀리에 사회주의 활동을 함께 한 인물들로 평가된다.

농조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병환(金炳漢)은 도천면 속초리 출신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1930년에는 『중외일보』 양양지국을 운영했다. 조선공산당 양양야체이카 책임자로 알려졌으며, 1930년 4월 김철수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다

가 일본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1932년 농민조합 탄압으로 검거되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병환은 신간회 강원지부장과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

양양농민조합의 전신이라 할 물치노농동맹을 이끌었던 지도부의 한 명인 오용영(吳龍泳 일명 吳日泳)은 강현면 물치리 출신이다. 1920년 10월부터 양양신청년회 참여를 시작으로 양양의 청년·농민 운동을 주도했다. 양양농민조합 부의장을 지냈으며, 조선 공산당 양양야체가 선전부원으로 알려졌다. 1929년에는 원산총파업 관련 혐의로 한 때 검속되었으며, 1932년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우집(崔禹集, 일명 최욱(崔旭))은 양양에 사회주의를 가장 먼저 전파한 인물로 당시 언론에서 양양 사회운동의 선구자로 불린 인물이다. 사회주의 운동 이전에 1921년 양양웹엡청년회를 민족주의 인사들과 함께 구성해 지역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산리 최씨 문중의 사람으로 3·1운동 이후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배워온 것으로 알려



1932년 9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농민조합 검거관련 기사. 신문에서는 검거선봉이 농민조합 등 각 단체를 해산시키는 동시에 탄압적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져 있는데, 구속된 농민조합의 간부 중 조산리 최씨 문중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최우집은 1929년 양양농조 집행위원장으로 원산총파업에 동정금을 송부했으며, 양양야체가 사건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집은 최욱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잡지인 『대중공론』에 “조선 현실에 있어 어떤 청년을 요구하는가? - 농민의 벗으로 자처하는 청년”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으며<sup>17)</sup>,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과 상무위원을 지냈다.

대포어민조합의 조합장이며, 양양신간회 간부였던 이학규(李鶴奎)는 농민조합 검거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함께 구속되어 고초를 당하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학규는 1926년 7월에도 대포노동조합의 강령이 불온하다고 간부 박정양과 함께 끌려가 6개월간 고초를 당하고 무죄 방면된 바 있었다. 1932년 구속된 이학규에게 재판부는 “사회운동가의 선배인 김대봉과 교우하여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받



고 무산운동에 투신하였으며,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 의식을 어민 대중에게 주입시켜 공산제도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대포어민조합과 대포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7) 원산총파업과 양양농민조합의 연대

특이하게도 양양농민조합사건 관련자 중 몇몇은 원산총파업에 가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일제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만여 노동자 가족이 일치단결하여 장장 84일간의 파업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원산총파업은 일제하 노동운동의 최대 사건이었다. 1929년 2월 양양농민조합은 원산총파업단에 격려전문을 보내고 동정금 10원을 기부하였다. 그리고 양양농민조합의 집행위원 김동기(金東起)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집행위원장 최우집과 간부 오일영이 검거되었으며, 각 회관을 수색당하여 많은 문서를 압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부의 집회가 모두 금지당하기도 했다.

원산총파업에 대한 양양농민조합의 지지, 연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양과 원산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원산총파업을 주도했던 지도그룹의 인맥이 양양농민조합의 지도부와 맞닿아 있었다. 이미 1925년 강원도 청년운동 단체들의 대중집회인 관동청년혁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양의 최우집과 김대봉, 고성박태선과 함연호, 한명찬이 함께 했다. 이 중 박태선은 고성에서 청년운동을 하다가 원산으로 이주하여 원산총파업을 주도한 원산노동연합회의 간부로 활동했다. 박태선과 최우집의 이러한 관계는 원산총파업에 대한 양양농민조합의 적극적인 지지 연대로 표현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산총파업에 참가한 김동기는 1927년 양양농민조합 결성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고 이듬해 포월지부 책임자가 되었다. 1929년 3월 원산총파업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후 신간회 양양지회 위원과 양양청년동맹 위원장을 하다가 1930년 김병환과 함께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32년 농조의 탄압으로 다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양양농민조합과 원산총파업의 연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김창렬(金昌烈)이다. 강현면 중북리 출신인 김창렬은 1919년 4월 5일 물치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만세운동에 중북리 마을책임자로 참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1927년 창립한 양양농민조합의 감사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농민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1929년 2월 하순 원산총파업 당시 김경식 등 원산노동연합회 위원장과 간부들이 다수 구속되자 박태선과 함께 원산노동연합회 상무로 선출되어 2기 파업지도부로 활동했다. 원산노동연합회 집행위원으로 파업을 지도하던 그는 그해 4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다시 1932년 양양농조 탄압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3·1운동에서 농민조합운동, 원산총파업 지도부로 이어지는 그의 행적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의 ‘포상자 공적조서’로 확인되나, 이채로운 행적의 기록은 더 자세히 찾지 못했다. 광복 전인 1944년 12월에 작고했으며, 독립유공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 8) 기독교인들의 농조운동 참여 규명 필요

기미년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양양의 기독교인들도 사회주의 경향을 보인 양양의 사회운동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필선이 대표 인물이며, 1934년 농조의 지도부로 김병환과 함께 징역 4년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최영규(崔永逵)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정경 분리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경향을 내세워 사회운동에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양양의 경우 양양교회의 담임목사로 지내며 만세운동과 대한독립애국단 활동에 참가했던 김영학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북면 기사문리 출신으로 1930년대 감리교 양양구역장과 물치교회 담임을 맡았던 이풍운 목사는 민족교회의 입장을 내세우고 무산자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여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이러한 영향



양양농민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병환. 1932년 농민조합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4년 재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사진은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무대형무소에 복역 중에 찍은 수감사진이다.(자료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2, 단행본 44p.)

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젊은 기독교인들이 양양의 청년운동, 농민운동에 함께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농민조합운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새롭게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양양농민조합 운동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농민조합운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제의 기록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일제의 관심사는 농민조합의 대중적 활동보다는 당시 비합법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계를 확정지으려는 데 있었으며, 모든 기록의 초점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양양농민조합사건을 양양적색농민조합사건으로 명칭조차 바꾸었으며, 양양농민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와 동참을 폄하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일제의 기록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양양농민조합운동의 실체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시 양양농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왜 양양농민조합운동이 농민대중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각종 풍수해와 한발 등으로 굶주리기 시작하였으며, 일제의 수탈과 자본주의의 침투로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 농민조합운동이 위력을 발휘했으며, 일제는 급기야 전례 없는 대탄압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교양 학습보다도 강현면 농잠사건이나 농촌 기근에 대한 농민조합의 대응과 실천, 일제의 정어리 가격 통제로 인한 어민의 대응 등이 보다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당시 농민과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농민조합운동을 새롭게 주목하고 그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9. 잊혀진 인텔리 사회주의자 - 최용달

경성제대 법학부 졸업

해방 후 북조선 대표 정치인 활동

남한에선 ‘공산주의자’, 북한에선 ‘숙청된 자’

### 1) 양양출신으로 경성제대 입학한 수재

한국 근현대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될 만한 인물임에도 지역에서 까맣게 잊혀진 인물이 있다. 지역에서 그의 존재는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시대에 공식적인 확인조차 안 되어 그냥 이야기로만 떠도는 유명과 같은 존재였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양 출신의 거물급 공산주의자가 있었다는 막연한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거물급 인사가 북한 정권 수립 시절 북한군 총사령관을 지낸 최용건이라는 이야기로 잘못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높은 자리를 했다던 그 사람 때문에 출신 마을은 냉전시대에 요시찰 지역이 되었다는 이야기만 무성했던 것이다.

그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지 50년이 넘는 지금도 지역에서 그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여 거명이 금기시되고, 북한에서는 남로당 계열로 숙청된 자라 하여 그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KBS에서 방영된 <서울 1945>의 주인공 최운혁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이강국과 인생의 행로를 같이 했던 인물이다. 최용달과 이강국은 경성제대 시절 서클활동을 시작으로, 월북 후 북한 정권으로부터 숙청되기까지 정치적 행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비극적인 인텔리 사회주의 운동의 주인공들이다.

광복 후의 소련 군정 문서<sup>18)</su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전한다.

- 1946년 3월 27일 여운형과 김일성의 개인비서 황병옥과의 대담 중 일부.

“황병옥이 북조선에서 누가 후보자가 될 것이냐고 묻자, 여운형은 김일성, 김두봉, 무정,



최용달을 뽑았다. 대통령직에는 누구를 후보자로 생각하는가 묻자, 여운형은 미국 측에 서는 이승만, 김구, 조만식과 자신을 천거하고 있다고 답했다.”

1948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양 및 유럽의 공산당 지휘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 중 조선은 6명으로 최용달, 최용건, 김일성, 김무정, 김두봉, 박헌영이 명부에 올랐다.

최용달은 1903년생으로 양양 출신이다. 본적이 양양읍 임천리로 기록되어 있으나 양양읍 조산리 강릉 최씨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집은 조산리 근처인 사천리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양양농민조합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다가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용운(崔容運)이 그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1925년 3월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2기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예과에서 본과로 진학할 때에 법학부를 지원하였다. 당시 경성제대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 경성제대는 민족차별이 심해 한 해의 학생 정원 150명 중 조선인 학생 정원은 47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성제대에 변방 지역이라 할 만한 양양에서 진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고향 양양과 관련된 행적은 대학시절 향우회 활동으로 확인된다. 1927년 5월 경성 종로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낸 경찰 조사 문서 ‘재경양양학생친목회 정기총회’ 조사자료에 친목회 모임의 위원으로 거명되었다. 재경양양학생친목회가 여름 방학 때 고향의 부모와 자매, 기타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 운동회와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해 6월에는 강원도 학생들의 모임인 관동학우회 집행위원회에서 서무부 일을 맡게 되었다고 전한다. 일제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모임조차도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했으며, 고향에서의 관동학우회 행사를 금지할 정도로 대학생들의 귀향 활동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귀향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등 불온한 사상이 전파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27년 이강국, 박문규 등과 함께 경성제대 교내 서클인 경제연구회에 가입해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식민지시대 조선 실정에 대해 공부하였고, 1929년에는 원산부두노동

자 파업 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연구회 대표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경제연구회는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일본인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1898~?)의 지도를 받았다. 1934년 소위 ‘三宅鹿之助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적화 공작사건’에 연루되어 최용달도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성제대 제1기로 최용달과 이강국 등과 함께 경제연구회에서 활동했으나 전향해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고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유진오 박사는 “이강국은 수재형이고 최용달은 노력형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단군의 존재를 부활시키고 2005년에 타개한 대한민국 학술원 최태영 박사는 “최용달은 열심으로 공산당하고 법학 연구도 했다. 고학한 사람으로 도무지 호강이란 걸 몰랐지만 학문을 취미같이 열심히 했다. 공부 많이 하는 최용달과 내가 서로 통했다”고 회고했다.

경제연구회의 주축인 최용달과 이강국, 박문규는 이후에 ‘경성제대 삼총사’라 불렸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은 ‘성대파’로 불렸다. 이들은 경제연구회 회원이 조선공산당 재건사건에 연루되어 학교당국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자, 1930년 9월 ‘조선사회사정연구회’를 만들어 조선의 사회 실정을 연구 조사하고 근로 대중의 조직에도 힘썼다. 이들은 각자 분담하여 각 분야의 사회운동을 집대성해 『조선사회운동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경성제대 삼총사는 경제연구회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함께 참여했다. 조선사회사정연구회 등 사회주의 활동을 비롯해 노동운동, 여운형의 건국동맹 참여, 광복 후 남로당 활동과 월북, 북한에서의 고위직 정치활동 참여까지 궤를 같이 했다. 하지만 이 셋 중 정치적 감각이 앞섰다고 평을 받던 이강국과 최용달은 한국전쟁 이후 숙청되고, 박문규만 북한정권에서 고위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아무튼 일제 치하에서 경성제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그에게는 조선 최고학부 졸업생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특권과 동시에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고민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인생행로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 2) 북한 헌법제정 참여…박헌영그룹 지목받아 숙청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한 최용달은 사법연구실 조수가 되었으며,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신흥(新興)』발간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2년 3월 조수직을 그만두고, 4월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1935년 8월 1일자로 발간된 잡지 『삼천리』에서는 「경성제대 출신 청년학사는 어데 갖는가」라는 기사에서 교육 분야에서 가장 먼저 최용달을 소개했다.

주로 교육방면에서 힘쓰시는 분을 차례차례 적어보면, 먼저 최용달씨(崔容達氏)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씨(氏)는 일찍이 강원도 양양(江原道 襄陽)에서 출생하셔서 함흥고등보통학교(咸興高等普通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성대(城大)에 입학하여 법학과에서 많은 연구를 쌓으면서, 더불어 예리하고 진보적인 붓대를 휘둘러, 최상해(崔尙海)라는 펜네임으로 《대중공론(大衆公論)》, 《조선지광(朝鮮之光)》 등 월간잡지에 꾸준히 경제논문, 정치논문 등을 발표하여 사회에 큰 여론을 일으킨 분이다. 아마 그는 진보적 인테리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서 민법과 상법을 가르치며 당년(當年) 33세의 '선비'이다. 전에 한동안 성대 법학부 조수(城大 法學部 助手)로도 있었다.

최용달은 최상해라는 이름으로 1930년 『대중공론』에 「조직화된 자본주의 이론과 정치적 의미」, 「부인운동과 계급운동」, 「부하린의 대립」 등을 썼다.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1936년 동아일보에 실린 상아탑 탐방기 '법률없는 사회는 언제오나-최용달씨를 찾아서' 기사



보성전문학교 교수시절인 193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의지의 법률철학'에 대한 비판서론' 9회 연재분.

된 이후 1935년에는 최용달 본명으로 『동아일보』에 「의지의 법률철학에 대한 비판서론」을 9회에 걸쳐 기고했으며, 1937년에는 11회에 걸쳐 「제주도 중형관」이라는 제주도 종합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외에도 1936년 『동아일보』의 상아탑 탐방기 「법률 없는 사회는 언제 오나 - 최용달 씨를 찾아서」 등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보성전문학교 교수 최용달은 당시 조선 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인텔리이며, 진보적인 대표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것이다.

### 3) 대학교수로 비합법 사회주의운동

최용달은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비합법 운동을 계속 이어왔다.

1933년 4월 서대문경찰서와 종로경찰서, 5월 평양경찰서에 끌려가 사회주의 운동 관련 혐의로 취조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934년 5월에는 이재유 그룹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933년 보성전문학교 졸업앨범 교직원란에 실린 최용달 사진.

1936년 7월 원산 공산주의 그룹의 지도자 이주하를 만나 자금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1937년 6월에는 서울에서 이강국, 이주하와 함께 사회주의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했다. 이 조직에서 이주하는 조직을, 최용달과 이강국은 운동자금 및 좌익 문헌 입수를 맡아 운동자금으로 2천 수백 원을 이주하에게 교부하였다고 한다.

이주하는 원산에서 적색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자 신문을 발행했다. 1938년 10월 최용달은 이강국과 함께 ‘적색노동조합원산좌익위원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4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민족해방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전국의 노동조직을 하나로 묶고, 만주사변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1944년 봄에는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하려다가 검거되어 6개월의 취조





1934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승인 일본인 미야케 교수의 적화공작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최용달의 모습. (자료출처 : 한민족독립운동 사자료집 별집8, 단행본 507p.)

를 받고 풀려났다.

최용달은 이주하, 이강국과 함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벌인 원산그룹으로 불린다. 1929년 총파업을 벌였던 원산은 1930년대에 총 4차례에 걸친 태평양노조사건 등 적색노조운동이 가장 활발해 당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 고향 양양이 원산과 가깝고, 인근 함흥에서 학교를 다녔던 경력뿐만 아니라 경성제대 재학 시절 서클 대표로 원산파업 진상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기반으로 최용달은 원산의 적색노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참여했다.

일제 말기까지도 조직 사건으로 투옥을 반복하다가 일제가 만든 사상전향자 단체인 ‘대화숙’에 참여한다. 대화숙은 일제가 사상전향자를 모아 내선일체와 천황에 대한 충성 등 일제의 논리를 전파하는 강연회, 좌담회 등에 동원한 조직이었다.

대화숙 참여로 최용달은 이승엽과 조두원, 임화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로서 사상 전향을 하고 친일을 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를 친일파로 보지 않는 의견도 있다. 1948년 민족정경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되어 최초의 친일파에 대한 기록서가 된 『친일파군상』에 “최용달, 백남운 등은 대화숙 일을 돕는다고 각기 유혹과 위협을 당하면서 국민총력연맹 부과장 등의 지위를 단호히 배척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최용달을 “친일 단체의 간부나 강연회 연사 등으로 발표하였으나 거부하기 곤란하여 이름만 걸어두었거나 부득이 출석은 하였으나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강국과 함께 1944년 8월 여운형이 조직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연합 비밀 결사조직인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한다. 이 건국동맹은 광복 후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강국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로 건준에 참여해 선전부장, 치안부장을 맡았다.

#### 4) 광복 후 월북, 북한의 사법체계 수립 역할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몸을 담을 당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재건에 합류한다.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인공에서 보안부장을 맡았으며, 주석으로 추대한 이승만을 직접 만나 인공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최용달은 1945년 9월 백남운을 위원장으로 한조선학술원 상임위원을 역임하다가 월북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남로당 인사들과 달리 상당히 일찍 월북한 편인데, 북한에서 토지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에서 토지 전문가 박문규가 초청했다고 한다. 경성제대 출신으로 사회주의 활동도 함께 해온 박문규와 격이 없는 막역한 사이였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서 정권 수립 시기에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 전략을 펼쳤으며, 학계에서는 최용달의 영향으로 제자들 다수를 포함해 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월북했다고 전한다. 어쨌든 당시 국내 최고 인텔리 사회주의자로서 활동은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 초기 사법 체제를 수립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된다. 토지개혁을 위해 법적 체제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장, 1947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사법국장, 1948년 8월에는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었다. 북한의 헌법제정위원회 위원으로 헌법 제정에도 참여했다.

#### 5) 남로당 박헌영 그룹으로 숙청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 중책을 맡았다가 결국 북로당과 남로당 사이 갈등으로 권력 실세에서 멀어진다. 1948년 3월 북로당대회에서 소련파로부터 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내각 구성에서 남로당 계열로부터 초대 사법상으로 추천받지만 북로당 계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권력의 핵심에서 점점 멀어진 남로당파는 김일성으로부터 종파분자로 몰려 자아비판을 강제받기도 했다. 특히 김일성은 종파분자의 온상으로 원산 지역을 지목

했는데 이곳은 남로당 계열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주하, 최용달, 이강국이 1930년대 후반 적색노동조합운동,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했던 곳이며, 국내파 공산주의 운동의 대중적 거점이었다. 양양에서 태어나 함흥고보를 졸업하고, 대학시절부터 원산의 노동운동에 관여해 온 최용달에게 원산은 제2의 고향이나 다름 없었다.

1949년 7월호 북한의 정부기관지 『인민』에는 「남조선 토지개혁은 반인민적인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10월, 11월호에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새 국가 체제의 성격」이라는 헌법 관련 글을 연재했다. 이후 그의 행적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 『한국사회주의 인명사전』 498쪽.

1953년 1월 산업성 산하 일반 제품 수입상사 사장으로 재직 중 박헌영 그룹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숙청되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의 행적이다. 박헌영 그룹의 최고 이론가이며, 박헌영과 함께 미제의 간첩으로 주목받은 이강국과 둘도 없는 친구요 동지지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수재이며 법학자요,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으로 민족광복을 꿈꾸었던 인텔리.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희망으로 여겼던 그는 자신이 만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권에 떠밀려 역사의 뒤편길로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 10. 양양 출신 아나키즘 독립운동가 - 이동순

아나키스트 기관지 『흑색신문』 발행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옥고 치러

우리는 아나키스트라면 무정부주의자라고 번역하여 정부가 없는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조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본래 아나키즘은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일제 당시 우리나라의 아나키즘은 조선 민중에

의한 혁명과 독립을 지향하되 러시아 혁명의 볼셰비키 독재를 비판하였으며, 일제에 맞서 요인 암살과 무장투쟁 등 폭력적 의열투쟁을 수단으로 삼았다.

일제시대의 아나키즘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3대 주축 세력이었으나 광복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양측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운동가로는 단재 신채호와 이회영, 천황 암살기도사건의 박열과 그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의열단의 김원봉과 유자명 등이 알려져 있다.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에는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사상과 실천이 잘 드러나 있다.

양양군 거마리 출신의 이동순(李東淳, 1909~1977년)은 1930년대 일본에서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기관지인 『흑색신문』을 발행하는 등 우리나라 아나키즘 운동사에 기록되는 인물이다.

이동순은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한인 아나키스트 조직인 흑우연맹(黑友聯盟)과 조선동흥노동동맹(朝鮮東興勞動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4년 1월 『흑색신문(黑色新聞)』의 발행을 담당하면서 수차례 검거와 구류를 당하였으며, 상해의 남화한인청년연맹 간부인 이달과 양자추 등과 연락하고, 1935년 3월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등이 주도한 상해 주중일본공사 암살 미수사건(육삼정의거)에 관한 기사와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운동 개황 등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1935년 3월경 양자추로부터 투사의 파견을 의뢰받고 7월 이종봉을 상해로 파견하였고, 9월 상해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발행한 뉴스를 송부받아 배포하였다. 1935년 일본 무정부공산당에 입당하여 한인 조직의 통일을 위해 수차례 회합하고 재일 유학생 대책과 해외 한인 연락 등을 일본 동지들과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11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반년의 옥고를 치렀다.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sup>19)</sup>



이동순이 발행에 참가한 흑색신문. 아나키스트는 권력의 집종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조선의 독립사회를 추구했다. (자료출처 독립기념관)



## 11. 반민족 행위 고등경찰 - 김덕기

친일 행적으로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사형 선고

양양경찰서 순사보에서 고등경찰로 승진

독립투사와 사상범 1천 명 송치

### 1) 친일행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역사의 교훈은 자랑스럽고 당당한 기록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교훈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행적을 통해서도 함께 비롯된다. 기미년 만세운동과 이후의 청년운동, 농민조합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양양군은 강원도에서도 대표적인 항일투쟁의 고장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양양군에서 일제침략기의 친일 고등계 경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9년 7월 1일,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입법된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 김덕기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제헌국회에서 반민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친일행위자에게 사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조선신문』 1949년 7월 2일자 보도 기사 내용

재판장은 “피고는 14년간 고등경찰로서 최고 직위까지 지냈으며, 재직 중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소탕시켜 민족정신을 말살케 한 극악한 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정신을 살리고 수많은 선열의 영을 위로하고, 외국으로부터 돌아오신 애국투사들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자못 엄숙한 태도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중략) 한편 사형언도를 받고 형무관에 이끌려 나가던 김덕기는 기자의 소감 질문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땅만 보고 창백한 얼굴로 재판소 내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반민특위 활동이 친일파 경찰 세력을 옹호하는 이승만 정권 등의 방해 공작으로 유야무야되면서 김덕기는 친일행위자로서는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 되고 말

았다.

김덕기(金惠基, 1890~1950년)는 1890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출생했으며, 1913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순사보가 되어 5월 말에 양양경찰서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다.<sup>20)</sup> 양양에서의 그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17년 순사로 승진한 이후에 경부보, 경부로 승진했다. 이후 평안북도에서만 20여 년 동안 경찰로 복무하였으며, 1927년에는 평안북도 고등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34년 경찰에서 물러나 전라북도 이사관, 평안북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 평안북도 참여관 겸 농상부장 등 고위행정직에 재직했다. 광복 전에 경상남도 참여관 겸 산업부장을 맡아 농민을 수탈하는 일제의 미곡 공출에 앞장섰다. 경상남도 농상부장을 지내며 광복을 맞았으며, 이후에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총 23년 동안 경찰에 재직했으며, 최말단직인 순사보에서 출발하여 도 고등과장을 지내는 등 일반 경찰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일제의 경찰공로기장을 받았으며, 경찰을 그만두고 고위행정관료가 된 후에도 친일 공로가 인정되어 칙임관(勅任官) 훈4등까지 받았다.



광복 후 반민특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김덕기 관련 기사. 1949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 2) 독립투사를 직접 사살, 1천명 사상범 송치

반민특위 조사과정에서 김덕기는 스스로의 진술을 통해, 16년간 자기 손을 거쳐 송치한 사상범이 무려 1천 명에 달했으며, 그중 사형이 1할, 무기징역이 1할, 그리고 10년 이상의 체형을 받은 사람이 1할 정도 되었다고 밝혔다. 반민특위 조사로 밝혀진 그의 반민족적 죄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덕기에 의해 체포, 투옥 또는 사살당한 독립운동가는 광복군 총영장 출신인 오동진을 비롯하여 창의단 단장 편강렬, 낭림단 단장 장창현, 정의부 이진무, 김형출, 의열단원 김시현, 조선공산당 박헌영과 홍증식, 조봉암 등 쟁쟁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특히 그는 1927년 밀정을 통하여 광산재벌 최창학으로 하여금 군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오동진에게 거짓 제의 공작을 펴서 이에 속아 유인된 오동진을 체포해 투옥시켰다. 김좌진 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계의 3대 맹장으로 불리던 오동진은 결국 오랜 투옥으로 1934년 옥사를 하고 말았다.

또한 낭림단 단장 장창헌을 현장에서 엽총으로 직접 사살하기도 했으며, 정의부의 김형출 등 독립투사들을 무장 경찰을 시켜 사살했다고 한다. 일제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인 경찰보다도 더 악랄한 일을 저지른 일본 고등계 경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의열단원 체포로 공을 세워 일제 40년 동안 20명 밖에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경찰공로기장’을 받았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으로 사상무장을 한 김원봉의 의열단은 1922년 가을 국내의 일제 주요 관공서를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폭탄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거사를 도모한 의열단원 김시현과 황옥 등이 김덕기의 사전 내사로 계획이 노출돼 모두 체포되고 말았다.

광복 후인 1949년 2월 8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반민특위가 파견한 특경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체포 후 자기 죄상을 일체 자백하지 않다가 25일 만에 자백을 시작했다. 그 죄상은 실로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해 7월 1일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바로 며칠 전인 1949년 6월 26일 민족지도자인 김구가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져 온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국이었다.

사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감형을 받아 출옥하고 말았다. 친일파 사형수 감형 출옥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비호로 친일파, 민족반역자 척결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역사계에서는 평가한다. 출옥 후 6·25한국전쟁 직전에 정릉 근처의 산에 갔다 추락해 죽었다고 전한다.<sup>21)</sup>

### 3) 향토사에서는 민족의 인물로 소개

한편 2006년도에 속초시에서 발간한 《속초시지》에는 김덕기(金惠基)를 다음과 같이 향토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金惠基(人號堅 1890년생) 속초시 조양동(부월리)에서 출생. 第七在軍司正公의 후손으로서 한말 증추원 의관을 지낸 문관 사권(思權)의 二子이며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하여 수재의 稱을 받았으며 일찍이 文觀膝下에서 한학을 전공하여 학문에 뛰어났으며 성장 과정이 한일합병의 시기라 개방의 물결을 타고 신학문에 뜻을 두어 독학으로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이때 탁월한 재질과 명석한 판단력에 감복한 日人首級에 의하여 특별히 발탁되어 官契에 투신하게 되었다. 한일합병 초기 흥분된 국민의 민족감정을 완화하려는 일본의 정략으로 공을 치안직에 전보케 하여 평안북도 의주(경철부)를 피임케 하였다. 그 후 소청으로 일반행정에 전보되어 함경남도 전라북도 상공부장 경상남도 참여관을 역임하였다. 8·15 해방을 맞아 퇴관했다.

성품이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공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성인수시야로 직분을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조선인이라는 긍지 하에 민족정신이 투철하여 끝내 창씨에 불응하였다. 해방과 더불어 일시 반민특위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如斯한 고증과 함께 많은 민족 포용 행적이 입증되어 동정을 받은 바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로 경기도 양천군 마석에서 영농, 遁世하다. 6·25사변 당시 피난 도중 61세로 병사했다.

비단 《속초시지》만이 아니라 그 후에 발간된 지역향토사에도 김덕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김덕기란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김덕기는 독립투사를 직접 사살하고 일제 체제에 저항하는 사상범 1천여 명을 잡아넣은 일본 고등경찰이다. 그래서 반민특위에서도 유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지역 향토사에서는 지역 출신 유명인사라는 이유 때문인지 ‘조선인이라는 긍지 하에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가 지역에서 어떻게 민족인사로 둔갑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12. 광주 항쟁 때 발포 거부한 인권경찰 - 안병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 거부한 의인

전남도경국장서 강제 사직 후 보안사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

“시민군이 적이 아닌 이상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청렴한 생활 탓 재산 없어 고통스러운 말년 보내

### 1) 27년만에 명예회복...국립현충원 안장

1980년대는 광주의 시대였다. 1980년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2·12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지만, 항쟁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1980, 199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2007년 영화 <화려한 휴가>에 쏟아진 뜨거운 국민적 관심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난 27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었다.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사진제공, 전임순)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그날의 일들이 폭도들의 난동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열망을 실은 민주화운동이었음을 인정받기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듯이,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의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는 데는 장장 2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 2006년 8월 서울지방보훈청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거부하여 직무 유기를 이유로 해임되고 이후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을 순직경찰로 등록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1월 24일 경찰청은 과거 사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병하 전 국장의 순직 사실을 확인하고 유해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시켰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지금의 전남도경찰청장)을 지낸 안병하(당시 52세)는 1980년 5월 18일 이전에 전남대학교 박관현 총학생회장과 면담하여 대학생의 평



화시위를 보장하고 시위를 평화롭고 질서있게 종결지었다. 그러나 5월 18일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여론이 악화되고 사태가 악화되자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과 강경 진압을 거부하고 시민과의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우려하여 시위 진압 경찰관의 총기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안국장은 지휘권 포기를 이유로 강제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광주청문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1997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병하 국장은 5·18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0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순직경찰로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 인권경찰의 표상이라고 결론짓고 명예회복과 함께 동상 건립, 경찰 60년사에 모범경찰로 기록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 2) 양양 남문리 출신, 속초중 강당에서 결혼

안병하는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출신으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내는 등 강원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1978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 「신팔도기(新八道紀)-속초·양양(束草·襄陽)」에 속초·양양 지역 출신 인사로 ‘치안본부 경비과장 안병하(安炳夏 : 50세)’의 이름이 올라가



육군 중령 시절(안병하씨의 가족사진)

있을 뿐이다. 일찍이 고향을 떠난 안병하를 기억하는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어 설악권에서는 잊혀진 인물이다. 이에 미망인 전임순씨(74세,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와의 인터뷰, 신문자료 등을 근거로 안병하 전 국장의 삶의 궤적을 찾아보았다.<sup>22)</sup>

안병하(安炳夏, 1928~1988년)는 1928년 7월 1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 178번지에서 순흥(順興) 안씨 집안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양양공립보통학교(지금

의 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제국중학교(?)를 다녔다. 부친은 광복 전에 원산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광복 후에는 충남으로 월남하였다.

광복 후 서울의 대동상고를 졸업하고 1948년 11월 육사 8기로 입학하여 6개월 후인



동해안 어선통제소를 순시하는 안병하 경찰국장(아야진어선통제소, 1975년)(사진제공, 전임순)

1949년 5월 23일 임관하여 6·25 한국전쟁에 일선장교로 투입되었다. 육사 8기는 국군이 창설된 이후 최초의 사관학교 입소자이며, 6·25한국전쟁 당시 일선장교들로 활약한 기수였다. 이들 중 김종필, 김형욱 등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으며, 황영시, 차규현

등은 전두환과 함께 12·12 쿠데타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6·25한국전쟁 초기, 춘천의 6사단 포병부대 소위였던 안병하는 소양강전투에서 전사한 심일 중위와 함께 춘천 사수를 위해 끈질긴 전투를 벌여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춘천시민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전투 참여의 유공으로 안병하는 1951년 5월 7일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한국전사』 공훈자 편에도 공훈이 기록되어 있다. 6·25한국전쟁 참전 중에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중공군의 투입으로 가랑 앞 속에서 3일간 숨어 있다가 후퇴했다고 한다.

청년 장교였던 안병하는 6·25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봄, 다섯 살 아래인 전임순 씨와 속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15사단 감찰장교로 지내던 안병하는 부대가 고성군 간성읍에 있고, 이모가 천진에 살고 있어 가까운 속초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다. 전쟁 중으로 변변한 예식장도 없던 시절이라 속초중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속초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도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 3) 74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경찰국장 재직

안병하 부부는 결혼 후 고성군 천진에 일제 때 중학교 관사로 사용했던 술밭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몇 개월 만에 부대가 이동하면서 화천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고향에서 살던 기억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 후로 안병하는 공직을 따라 계속 떠도는 생활을 한 것이다.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난 안병하는 자주 남대천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고 부인 전임순 씨는 전한다. 젊은 시절에는 양양 남대천을 찾아 지인들과 함께 어항으로 고기를 잡아 죽을 끓여 먹곤 하였으며, 어렸을 적 친구들이 다수 있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두 남동생은 속초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작고하였으며, 속초 장사동에 큰 이모가 살고 있었는데 속초수협장 출신 박씨 집안이라고 한다.

감찰장교에서 사단 감찰참모, 대대장과 부연대장을 지내고는 1962년 11월 2일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한 다음날인 11월 3일 총경으로 채용되었다. 총경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다. 군에서 감찰장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정보 계통인 내무부 치안국 정보계장으로 경찰 근무를 시작했으며, 1980년 6월 2일 강제 사임되기 전까지 17년 7개월을 경찰에서 근무하였다. 부산경찰서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내무부 치안국 방위과장, 강원도 경찰국장, 경기도 경찰국장, 전남도 경찰국장을 지냈다. 특히 1974년 10월부터 1976년 4월까지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내며 강원도와 더욱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1976년 4월 경기도 경찰국장, 1977년 7월 치안본부 제2부 경비과장을 지내며 평탄한 공직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1979년 2월 20일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결국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다.



설악산 폭설로 등반대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구조작업 순시를 위해 설악산을 방문한 안병하 경찰국장(76년 2월 19일)(사진제공, 전임순)



강원도경찰국장 시절 설악산 폭설로 등반대 조난사고가 발생, 현지를 방문하여 구조대원을 격려하는 안병하(1976년 2월 19일)(사진제공, 전임순)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기 1년 전 권농일을 맞아 모내기 지원을 나온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1979년 5월 25일)(사진제공, 전임순)

#### 4) 광주시민들 경찰과는 무력충돌 없어

1980년 5월, 광주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처럼 민주화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 12·12쿠데타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사실상 권력을 탈취하고 등장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종말로 새롭게 시작된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 5월 들어 대학생들은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등 유신 잔당 퇴진’, ‘정부 개헌 중단’ 등을 내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는 5월 14일 대학생 7만 명이 서울역에 모였으며, 다음날 시위군중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전국 대도시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요구 시위가 일어났으나 신군부의 개입을 우려한 학생들은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광주에서도 5월 14일 시위를 시작으로 16일에는 학생과 시민, 민주인사 등 5만여 명이 모여 민족민주화성회를 열고 햇불행진을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끝났고 군중과 경찰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다. 학생들도 더 이상의 시위는 하지 않는다는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안병하 전남도경찰장은 5월 14일 도청 분수대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학생 대표와 만났다. 평화적인 집회와 질서 유지를 요구하고, 시위 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 11명을 보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16일에도 박관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면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야간 햇불 시위 요구를 허락했다. 당시 경찰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시

위대는 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며 질서 유지 활동을 펼쳤다. 만약 계엄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1980년 5월의 광주에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 없이 끝날 수 있었다.

후에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안병하는 자신의 비망록에 당시의 데모 저지 방침으로 “경찰 희생자가 있더라도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고, 교내서 연행을 금지한다.”,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 욕설을 엄금한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 5)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민주화 요구와 야당의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 등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 신군부는 사회 혼란을 빌미로 5월 17일 자정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학생들과 김대중 등 주요 정치인사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학교를 폐쇄했다. 광주에서도 전남대와 조선대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싸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계엄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안병하는 결단을 해야 했다. 명령에 따를 것인지 소신 있는 항명을 할 것인지. 항명의 결과는 어떨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의로운 항명을 선택했다. 훗날 그는 지인에게 “부마 사태 때 김주열의 머리에 박힌 최루탄이 연상되어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무장을 하자 그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를 회수해 시 외곽으로 소개했다. 당시 경찰봉만 소지했던 경찰은 계엄군에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갈아입히는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안병하는 훗날 비망록에서 ‘경찰 및 예비군 무기 탈취’에 대해 “지서의 한두 명 경찰 인원으로 무장한 시민군 몇 백명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민군이 적이 아닌 이상 무기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사격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위대도 경찰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



려 계엄군이 시민편을 든다는 이유로 경찰을 구타하기도 했다. 시민군이 광주를 장악했을 때 시민군은 경찰서에 보초를 세우고 경찰 시설을 보호했으며, 경찰이 철수한 도경 경찰국장실도 일체의 훼손이 없었다고 한다.

## 6) 고문후유증 치료차 양양 낙산에 머물러



1980년 5월 27일자 서울신문, 1면「계엄군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기사 아래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이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광주민중항쟁의 마지막 진압이 펼쳐지던 5월 26일 신군부는 도청 진압작전에 경찰이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강제 진압과 발포 명령을 내렸다. 안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계엄사령부는 그날로 그를 직위 해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연행하였다. 1980년 5월 27일자 일간신문의 1면에는 계엄군의 광주 진압 기사 아래에 안병하 국장의 연행 소식이 함께 실렸다. 헬기로 서울 동빙고의 보안사로 끌려가 11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강제 사직당했다. 육체적인 고문 후유증뿐만 아니라, 육사 8기 출신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후배들에게 받은 정신적 모멸감이 너무나 컸다고 한다. 고문후유증으로 망가진 몸을 요양하기 위해 고향인 양양 낙산에 머물기도 했는데, 12·12 쿠데타 때 신군부에 체포되었던 정승화 전 참모총장도 이곳에 찾아

오기도 했다. 신부전증 등 병마에 시달리던 안병하는 광주청문회가 있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10일, 광주비망록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평생을 청렴한 경찰로 근무한 탓에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 신장 이식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으며, 유가족은 치료비 등으로 가산이 모두 바닥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미망인 전임순 씨는 그동안 집도 없이 전전하다가 간신히 2006년에야 막내아들이 마련해준 서울 후암동의 작은 빌라에 안착하였다.

명예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993년 7월 부인 전임순 씨는 남편 안병하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경찰관이고 당

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1995년 5·18 희생자 가족으로 판정받았으며, 2002년 11월에는 남편의 민주화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살아 생전 소원이라고 했던 국립 현충원 경찰묘지에 안장된 것은 2005년 11월 24일이며, 정식으로 순직 경찰로 인정된 것은 2006년으로 그가 사망한 지 18년 만의 일이었다.

광주의 5·18 시민단체에서는 “신군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온건 진압 지침으로 유혈 사태의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이 계엄군의 협박에 굴복해 시위대에 총을 쏘았다면 시민들이 대거 희생되었을 것이며, 4·19 때처럼 경찰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후배 경찰들도 그의 ‘고매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어린 시절 모천에서 떠난 연어가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오는 남대천, 비록 육신은 멀리 현충원 묘역에 묻혔어도 안병하의 고결한 영혼은 그의 어린 시절 남대천의 추억과 함께 설악의 향기로 길이 남을 것이다.

집필 : 엄경선

## 각주

- 1) 『한국독립운동사 II』 252쪽 참조.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27쪽에서 재인용.
- 2)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15쪽.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조 재구성.
- 3)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622쪽.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참조 재구성.
- 4) 『甲午軍功錄』下 720쪽에 ‘襄陽幼學李錫範奮義募旅 嶺東賴安’으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 5) 『東學黨征討人錄』下622쪽 「義旅」편에 ‘李錫範 襄陽義旅 崔舟河 襄陽義旅’으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 6) 『직원록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 7) 『왜정인물 3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왜정시대 인물사료』에서 2009년 12월 검색. 이석범이 양양 현산학교장을 거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오기로 추정되며, 주변 지인과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현산학교장이 아니라 쌍천학교장으로 확인됨.
- 8) 김영학 목사의 만세운동 연루 복역 사실은 목원대 신학대학원 최양섭의 석사학위논문 “일제하 양양지방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50쪽 내용 중 부인 안원정씨가 1977년 작성한 “김영학 목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에 근거하였음. 복역에 관한 판결 기록은 찾지 못함.
- 9) 김영학 목사의 대한독립애국단 활동 행적은 1920년 10월 30일자 경성지방법원 “애국단사건예심종결결정”(매일신보 1920.12.19~22 수록,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0)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2009년 12월 검색.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im\\_101\\_10771](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im_101_10771)
- 11) 『왜정인물 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왜정시대 인물사료』에서 2009년 12월 검색. 일제의 인물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 양양의 인물 중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일제의 묘사할 인물로 주목됨.
- 12) 김대선의 만세운동 참여사실과 복역 사실은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의 연도판결(매일신보 1919년 5월 3일자 게재)로 확인되며, 나이는 1923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 「황돈 등의 판결」(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에서 20세로 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만세운동 참가 당시의 나이를 추정함.
- 13) 공대 출신의 김대봉과 이건호, 노상렬, 최공집은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 · 성대경역음, 1996, 창작과비평사)의 인물 정보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 14) 시국 유지 원탁회의, 『삼천리 제11권 제1호』, 1939년 1월 1일 발행,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15) 『社會主義運動 - 共產主義運動』, 『治安狀況(昭和 13年, 江原道)』, 1938년 12월.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ha\\_d\\_173\\_0090](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ha_d_173_0090)
- 16) 최홍준, 「1930년대 강릉지역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北岳史論』3383쪽, 조성은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2002년, 도서출판 해안) 67쪽에서 재인용.
- 17) 『대중공론 제2권 제5호』, 1930년 6월 1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목만 확인.
- 18) 1946년 3월 28일 작성된 구두정보 보고. 러시아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1, 문서철 12, 20~28쪽.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ts\\_006\\_0010\\_0050](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ts_006_0010_0050)
- 19) 이동순에 대한 기록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포상자공적조서』 내용을 참조함.
- 20) 김덕기가 양양읍 남문리 출신으로 순사보를 양양경찰서에서 시작했다는 기록은 일제의 기록 『인사흥신』 150쪽(출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을 참조하였음. 한편 이와 달리 속초지역의 일부 원로는 김덕기가 속초시 조양동 부월리 출신이라고 증언하고 있음.
- 21) 김덕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1994년 발간된 반민족문제연구소 저 『친일파 99인 2』의 「김덕기 : 반민자 최초로 사형언도 받은 친일경찰」(이수리 글), 신문자료와 일제의 인물 기록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 22) 전임순씨와의 인터뷰는 2007년 10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자택에서 진행했음.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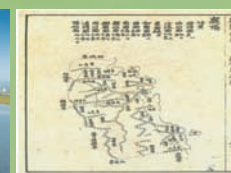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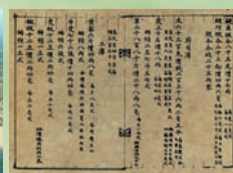
- 양주지, 양양군, 1990.
- 속초시지, 속초시, 1991.
- 강만길 · 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해안, 2002.
- 『일제 강점기 사회 · 사상운동자료 해제 I』, 국사편찬위원회, 2007.
-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인물로 보는 남북현대사』, 역사비평사, 2008.
-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 국가보훈처.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독립기념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100.nate.com/minbaek>),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 뉴스 DB(<http://www.kinds.or.kr>).
- 동아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신한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중외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시대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 경향신문,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 개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삼천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별건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최양섭, 「일제하 양양지방의 독립운동과 기독교인의 역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정환, 「일제하 양양지역 농민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수리, 「김덕기 : 반민자 최초로 사형언도 받은 친일경찰」, 『친일파 99인-2권』, 반민족문제연구소, 1994.





# 제 2 편

## 자연 인문환경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wirling vines and small flowers, positioned behind the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 제2편

# 자연·인문환경

I. 지리 환경

II. 동식물

III. 남대천

IV. 인문환경

## I. 지리 환경

### 1. 양양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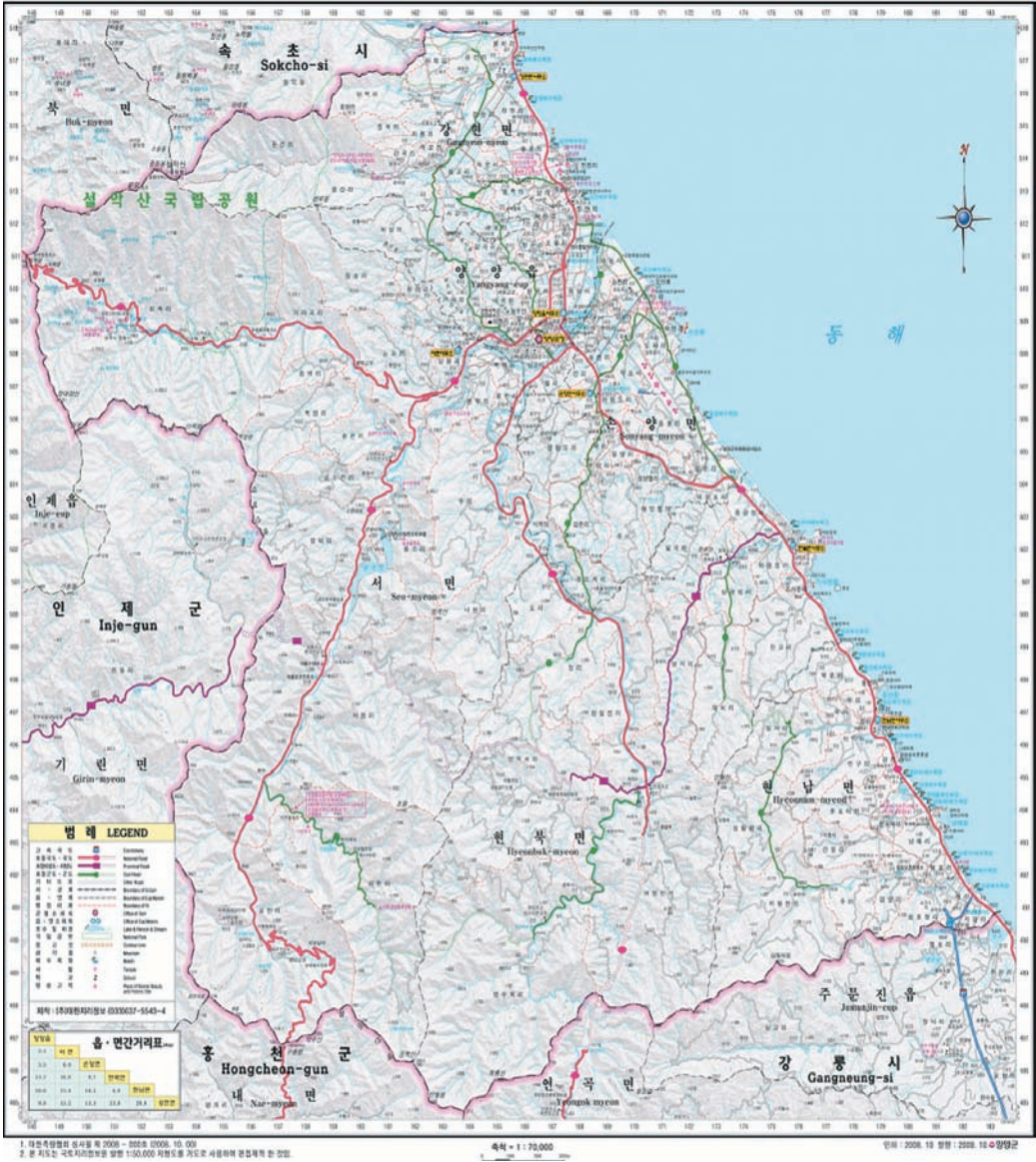
양양군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태백산맥)의 북쪽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에 동측, 동경 128° 24' 17" ~ 48' 34", 북위 37° 51' 44" ~ 38° 09' 41"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속초시 설악동과 도문동, 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인제군 인제읍, 북면, 기린면과 홍천군 내면, 남쪽으로는 강릉시 주문진읍과 연곡면에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하고 있다. 또한 동해에 3개의 무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양양군은 동서간 31km, 남북간 34km의 연장거리를 갖으며, 면적은 628.90km<sup>2</sup>로 강원도 전체 면적 16,874.60km<sup>2</sup>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양양군은 산악지형으로서 약 74%가 표고 100~1,360m를 형성하고, 시가지 및 취락은 100m이하에서 형성되어 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을 축으로 서쪽지역을 내설악 동쪽을 외설악이라 한다. 대청봉에서 오색령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동쪽으로 관모봉으로 이어지는 관모능선 남쪽지역을 남설악이라고도 부르며, 양양군 면적의 12.0%인 75.69km<sup>2</sup>가 설악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양양군은 7번 일반국도에 의해 북쪽의 속초시, 남쪽의 강릉시, 44번 일반국도에 의해 인제군, 56번 일반국도에 의해 홍천군, 59번 일반국도에 의해 강릉시를 거쳐 평창군과 연결되며, 설악산과는 44번 일반국도에 의해 남설악 오색지역, 7번 일반국도에 의해 외설악 설악동지역과 연결된다. 또한 제65호 및 제60호선 고속국도에 의해 동해, 인천, 서울과 연결된다. 오색령을 경유하였을 때 수도인 서울과는 198km, 도청 소재지인 춘천과는 136km, 휴전선과는 71km의 거리에 위치한다.

〈표1-1〉양양군의 지리적 위치

구 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 거리
	지 명	극 점	
동 단	현남면 지경리	동경 128° 48′ 34″	동서간 31km
서 단	서면 오색리	동경 128° 24′ 17″	
남 단	현북면 범수치리	북위 37° 51′ 44″	남북간 34km
북 단	강현면 강선리	북위 38° 09′ 41″	



양양 지역도

## 2. 지형과 지질

### 1) 양양군의 지형

#### (1) 산 계

태백산맥은 대체로 남북으로 뻗으며 한반도의 동해안쪽으로 치우쳐있다. 양양군의 서측 경계에 해당되는 태백산맥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에서 약 200km이고, 동해안에서 약 15km로 이 두 거리의 비는 약 13 : 1이며 따라서 태백산맥의 서측 산지는 저 각도로 완만하게 기울어졌고 동측 산지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백산맥의 분수계로부터 동해 쪽으로 급격하게 고도가 낮아지면서 급경사의 능선들이 연속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양양군의 주요 능선으로는 백두대간(태백산맥)의 대청봉(1,708m)을 기점으로 하여 서남서로 연장되어 1,461m봉, 1,456m봉, 1,401m봉을 지나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오색령(920m), 망대암산(1,247m)을 거쳐 점봉산(1,426m)에 이르며, 점봉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단목령을 지나 북암령에 이르며,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조침령, 갈전곡봉(1,196m), 구룡령(1,013m), 응복산(1,360m), 만월봉(1,281m)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대청봉에서 동방으로 연장된 능선은 약 5km 지점의 관모봉(해발 877m)을 지나 9km에서 동해에 이른다. 태백산맥의 응복산에서 북쪽으로 조봉(1,183m) 동쪽 1,157m봉을 지나 정족산(869m)을 거쳐 범부리에 이르는 능선이 있다.

태백산맥의 오대산 두로봉과 동대산 사이의 1,262m봉에서 북서쪽으로 만월지맥을 뻗는다. 만월지맥은 전후치, 철갑령(1,012m), 망령치(540m), 만월산(628m), 한천산(326m), 부소치, 삼발이재, 고성고개를 거쳐 낙산대교에 이른다.

#### (2) 수 계

양양군의 수계에는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흐르는 양양 남대천과 여러 개의 소하천이 있다.



양양군은 쌍천을 경계로 속초시와 접한다. 쌍천은 동해안의 물치리 부근에서 신흥사에 이르는 하천으로 신흥사 부근에서 3개의 지류로 갈라진다. 첫째는 내원암을 지나 내원골에 이르고 황철봉 북동쪽 능선에 도달하는 북지류이고, 둘째는 저항령에 이르는 거의 직선적인 서지류이고, 셋째는 비선대를 지나 대청봉에 이르는 남지류이다. 남지류에는 여러 개의 작은 지류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들 서지류와 공룡능선 사이의 산지에는 용기에 따른 급격한 계류의 하각작용으로 깊은 골짜기와 절벽 그리고 곳곳에 폭포가 만들어져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공원 부근에서 남쪽으로 토왕골을 지나 화채봉에 이르는 남지류가 있어 토왕성폭포와 비룡폭포를 만들고 있다.

물치천은 그 상지류가 대청봉의 동측 사면을 가르고 있으나 길이가 짧고 규모가 아주 작다. 양양 남대천은 오대산 두로봉에서 발원하여 강릉시 연곡면 삼산3리 부연동계곡을 지나 북으로 흘러,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고 서면 용천리에서 구룡령에서 발원한 후천과 합류한다.

후천은 서면 송천리에서 상지류인 오색천을 분지한다. 오색천은 설악산 남사면과 점봉산 북사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남대천의 상지류인 오색천에서 북쪽으로 오색령에서 대청봉을 지나 관모봉에 이르는 능선을 향하여 갈라진 작은 지류가 여러 개 있으며, 오색과 오색령 사이의 계류는 단층으로 된 것으로서 오색석사 부근에서는 단층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700m 치우쳐 흐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색령에서 서쪽으로 장수대까지의 상황과 비슷하다.

양양군을 지나는 태백산맥은 동해안에서 15km내외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태백산맥 서측의 준평원은 하천의 상지류들에 의해 심한 두부침식을 받아 능선의 위치가 급속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태백산맥의 동측 계곡의 기울기는 대단히 급하나 태백산맥의 서측 계곡의 기울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태백산맥의 동측 산지는 험준하게 개척되어가고 있다.

태백산맥 동측의 계곡은 해발 400m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가 2,000~4,000m인데 비하여 산맥 서측의 계곡은 해발 400m 지점에 도달하는 거리가 3,800~15,000m에 달하고 기울기는 산맥 동측이  $8^{\circ} \sim 18^{\circ} 30'$  이고  $18^{\circ} 30'$  의 기울기가 대부분이다. 산맥 서측은  $1^{\circ} 25' \sim 3^{\circ} 20'$  도이다. 이는 동측 사면에서 하계의 두부침식이 심함을 나타낸다.

대청봉에서 서쪽으로 폭 500~1,000m로 잔존하는 준평원이 남대천의 상지류에 의하여 급격히 침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백두대간 동서사면을 흐르는 계류의 기울기

계 곡		능선의 고도 (m)	능선에서 해발 400m 까지의 수평 거리(m)	평균 경사
동측	물치천의 상류(대청봉~둔전리)	1,708	3,900	약 18° 30′
	오색리의 북측 계곡	1,708	3,850	약 18° 30′
	오색령의 동측 계곡	930	3,900	약 8°
서측	오색령 서측 계곡	930	9,000	약 3° 20′
	단목령 남측 진동리 계곡	843	13,750	약 1° 25′

### (3) 경 관

설악산은 대청봉 부근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에는 화강암의 분포가 적지 않은데 그 관입 시대는 크게 3분할 수 있다. 화강암 중 시대적으로 오랜 것을 트라이아스기(Trias-紀)의 것인데 이 시대의 것은 평안북도에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오랜 것은 쥐라기의 화강암으로서 그 분포 면적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뻗은 줄기, 충남 서산에서 원주를 지나 강릉에 이르는 폭 넓은 줄기, 전남 영광에서 대전, 충북 청주를 지나 영주에 이르는 단속되는 화강암 지대 및 이 밖의 화강암 분포지 중에는 쥐라기의 화강암은 대보화강암이라고도 한다. 대보화강암이 관입한 시대는 대체로 2억 년 전에서 1억5천만 년 전 사이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화강암은 백악기의 화강암인데 불국사화강암이라고도 한다. 이 화강암은 강원도의 간성, 속초, 인제, 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였고 같은 불국사화강암은 금강산과 그 주위에 분포하여 금강산의 주체를 이루었다. 이밖에 광주, 금성, 해남을 연결하는 지대, 속리산과 문경, 제천 사이에 단속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가장 표준이 되는 곳은 경북의 경주 부근이고 여기에서 불국사화강암이라는 명칭이 유래되고 같은 화강암은 경남에서도 점점으로 분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모두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화강암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특징은 저지대를 형성하는 특징이다. 서울은 대보화강암 저지로 변해 있는 가장 좋은 보기이다. 이밖에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데 모두 화강암이 풍화작용에 약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둘째 특징이 화강암이 고지대를 이룬다는 상반적 특징이다. 이는 대규모인 경우에는 반대로 높이 솟는 것이 화강암의 속성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북동~남서로 달리는 큰 산맥으로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화강암이 주체를 이룬다. 설악산은 차령산맥의 북쪽 가지에, 금강산은 광주산맥의 북동쪽 끝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설악산과 금강산을 구성한 암석의 대부분이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이고 차령산맥과 광주산맥은 쥐라기의 대보화강암인 것이 다르다.

설악산의 경관을 만든 원인의 하나는 설악산, 금강산 및 태백산맥을 높이 들어 올린 힘이다. 화강암은 지하 수  $\square$ km 이상 되는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에서 굳어져 만들어 졌거나 다른 암석이 녹아서 화강암으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러므로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악산맥이 해발 1,708m 까지 솟은 것은 지각 또는 지면이 높이 솟아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백산맥은 제3기에 일어난 융기작용(隆起作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악산은 이때에 태백산맥의 일부로 높은 산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맥의 융기와 반대로 동해 쪽은 함락 내지 침강하여 태백산맥의 원형은 동해 쪽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침식(侵蝕)되어 들어갔는데, 이 빠른 침식작용이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형성케 하였는데 이때에 화강암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신기한 산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구조적 특징이 절리(節理)인데 화강암에는 주로 3방향의 절리가 발달하는데 수직절리가 발달하면 설악산의 절경을 이루는 높이 솟은 암산을 형성한다.

설악산의 경관의 특징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의 존재, 이것이 오랜 침식 삭박작용(削剝作用)과 융기로 지표에 노출된 역사, 한반도의 태백산맥 형성으로 태백산 정상부에 높이 솟아오르게 된 일, 동해의 함락으로 동사면이 급격히 침식되고 화강암이 가진 절리의 특징으로 기암절벽을 형성하게 된 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합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 2) 설악산의 지질

### (1) 구성 암석

내설악 지역은 거의가 백악기에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작은 면적의 중생층이 분포하며 대청봉 정상 부근과 그 동부, 서부 및 남부 즉, 외설악의 남부는 시대미상의 변성암(變成岩)류인 화강암질편마암(花崗巖質片麻岩)과 반상변정편마암(斑狀變晶片麻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봉 정상부의 외설악 남부는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로 되어 있고 내설악의 대부분과 외설악의 북부는 백악기의 화강암인 불국사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화강암질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1년의 대한지질도에는 경기기저변성암복합체의 시대를 선캠브리아기로 하였고 그것도 고기로 간주하였다.

#### ○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

편마암은 설악산 남동부의 대청봉 북측 200m지점에서 북으로 약 1km의 폭을 가지며 동서방향으로는 대청봉의 서쪽 및 동쪽으로 각각 3km여씩 전 연장 6km이상에 달하는 분포를 가진다. 본 지역 중북부에서는 마등령 서쪽 2km 부근에서 약 3km의 폭을 가지고 북쪽으로 연장되다가 본 지역 밖에서 그 분포의 폭이 넓어지는 분포지가 있다.

대청봉 부근의 화강편마암은 북측에서 설악산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남측에서는 주로 반상변정편마암과 접한다. 아마도 후자가 화강편마암에 관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북부의 분포지는 그 동측에서 화강반암과 접하며 후자에 의하여 관입되었으며 분포의 서측에서는 각섬석화강암에 관입된 후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용대2교 부근에서는 홍색화강암의 관입을 받았다.

#### ○ 반상변정편마암(斑狀變晶片麻岩)

대청봉의 200m 북방에서 남쪽으로 약 3km의 폭으로 동서 방향으로 연장 분포된 암

체로서 서쪽으로는 오색령 북동방 2.5km 지점에까지 도달하고 동쪽으로는 오색리 북쪽의 이 지역 경계선을 넘어 더 동쪽으로 연장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동북동 방향으로 분포된 반상변정편마암체와는 6km의 간격을 두고 서쪽의 가리봉에서 북쪽으로 2km까지 분포한 편마암이 있는데 이는 원래 대청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체와 같은 덩어리이었던 것이 중간에 관입한 여러 화강암에 의하여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모든 편마암이 선캠브리아기로부터 한국의 기반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청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은 북측의 화강편마암과 접하며 둘 사이의 관계는 불명하다. 다만 화강편마암이 오랜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반상변정편마암이 후에 일어난 화강암화작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양자 간의 관계는 점이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포지의 남측은 설악산화강암에 의하여 서측은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가리봉 부근의 반상변정편마암은 북측에서 한계천변의 홍색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또 각섬석화강암에 의하여 소규모의 관입도 받았다. 반상변정편마암 중에는 화강편마암의 작은 렌즈가 개재하기도 한다.

#### ○ 우백질편마암(優白質片麻岩)

내설악 중앙부의 염동천 남안쪽에 동서 방향의 연장 약 2km, 폭 약 0.5km인 작은 분포지를 차지한다. 이는 분포지의 북측에서 각섬석화강암의 관입을 받았고 분포지의 남측에서는 중생대층인 설악산층과 단층 접촉의 관계에 있으나 설악산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여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부정합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 ○ 설악산층(중생대층)

종래 중생대층으로 부르던 퇴적암층이 1984년 그 일부의 층서가 밝혀졌고 구성 암석과 연대도 알게 되어 설악산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지층은 육성층이며 시대는 중생대로 알려져 있으나 1984년 조사에서 암회색 세일에서 식물화석(*Equisetites* sp.)의 파편이 발견되어 설악산층은 중생대의 백악기에 퇴적된 지층임이 확실해졌고 화산활동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악기 하부에 대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설악산층은 내설악 중앙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렴동계곡 남안의 지계에서 발견되는



지층이다. 작은감투봉(해발 972m)에서 대승령 북서쪽에 이르며 동서 방향으로 연장 분포되고 그 폭은 약 2km가 된다. 설악산층은 분포지대의 북측에서 우백질편마암과 단층(백담사단층)으로 접하나 편마암은 시대가 설악산층보다 훨씬 오랜 것이므로 원래는 설악산층이 편마암을 부정합으로 덮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아직 부정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북서측에서는 흑운모화강암과 단층접촉으로 접하여 있다. 백담계곡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이 설악산층의 세일(암회색)이 접하여 있는 전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흑운모화강암이 설악산층에 관입한 좋은 증거이나 설악산층 분포의 남측에서는 그 서부에서 설악산화강암과 단층접촉의 관계에 있고 동부에서는 역시 흑운모화강암과 단층접촉이다.

#### ○ 각섬석화강암(角閃石花崗岩)

각섬석화강암은 본 구역의 북서변의 용대리와 가평리의 동남동방 약 1.5km지점에 있는 용대2교 남방 수 100m지점에서 시작하여 백담사계곡 또는 염동천을 거슬러 올라가 백담사 남방 1km되는 곳까지의 곡저와 곡양안에서 관찰된다. 이 하천에 따른 선의 서방으로는 약 4km까지, 동방으로는 약 1.5km까지 평균 폭 1.5~2km로 연속되어 있다. 이밖에 가리봉(1,518m) 북동방 약 1km지점에 작은 분포지가 있다.

#### ○ 설악산화강암(雪嶽山花崗岩)

이 암석은 본 구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여주며 전 지역의 약 40%의 면적을 차지한다. 설악산화강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담홍색 암석으로 홍색화강암에 비하면 색이 연하다. 이 암석은 각섬석화강암 다음으로 오래된 화강암으로 북부 및 남부의 2개 분포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북부의 분포지는 대청봉 북방 1km지점에서 마등령 가까이 까지 약 3.5km 사이의 능선에서 잘 관찰되며 서쪽으로는 약 4km의 폭을 가지고 오색령 북동 2km지점과 그 북쪽 약 2.5km 있는 1,578m고지를 연결한 선까지 분포한다.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의 설악산맥 능선 동사면은 쌍천 상류의 남지계의 개척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보인다. 마등령 신흥사계곡의 남안에 약 2.5km 폭으로 분포한다.

남부의 분포지는 이 지역 서단의 안산에서 오색리를 지나 이 지역 밖으로 연장 분포

되어 있으며 폭을 약 0.5km에서 약 2km까지 팽축(膨縮)하며 연속된다. 북부의 설악산화강암체와 남부의 그것은 원래 1,578m고지 부근에서 연결되었던 것이나 후에 관입한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그것은 절단되었다. 그러나 오색령 북동방에는 소편의 설악산화강암이 포획함으로 2개편이 흑운모화강암중에 잔존하고 1개편은 방상변정편마암에 관입한 것이 남아 있다. 이들 설악산화강암은 지하에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화강암의 북부의 분포지는 남부의 화강편마암과 접하며 후자는 전자의 관입을 받았다. 오색리의 남부화강암은 그 산쪽의 반상변정편마암을 관입 접촉하였고 내설악 서부에 분포된 중생대층 즉, 설악산층과는 관입 접촉 및 단층 접촉의 관계에 있다. 설악산화강암은 마등령 화채봉 능선 북쪽에서 화강반암 및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을 당하였으며 안산, 오색리선 서남쪽에서는 홍색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 ○ 흑운모화강암(黑雲母花崗岩)

이 화강암은 오색리 북방 1km에서 폭 0.5~1km로 북부서 방향으로 연장되어 오색령 북측, 귀떼기청봉과 그 남측, 1,408m고지에서 북동으로 영시암 부근에 이르나 여기서 작은 폭으로 서쪽으로 굴곡하여 수렴동계곡 변을 따라 백담사에 이르고 폭이 1~2km로 커지며 1,097m 및 1,208m고지를 지나서 은수동계곡(음지골) 좌우안을 덮으며 북천가에 도달한다.

이 화강암은 북서~남동 방향의 분포를 보여주며 북서쪽에서는 그 북측의 각섬석화강암에 관입하였고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에도 관입하였으며 중생대층인 설악산층과는 단층으로 접하거나 관입 관계에 있다. 1,208m고지 남방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귀떼기청봉 부근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여 원래 큰 덩어리였던 북부의 설악산화강암과 남부의 그것을 분리시켰다. 흑운모화강암 분포의 남동쪽 끝 부근에서는 북측의 화강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을 관입하였다. 남측도 역시 남부의 설악산화강암에 관입하였다. 가리봉 부근에서는 그 북방 약 2km까지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 각섬석화강암의 큰 포획암을 함유한다. 백담사 부근과 가리봉 부근에서 양 화강암은 관입 접촉관계에 있으나 경계가 차츰 변하는 경우가 많다.

소청봉에서 오색리 북부 부근에 이르는 분포지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이 조립의 반사변

정편마암과 화강편마암을 관입하였다. 그리고 설악산화강암도 흑운모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었고 전자의 암편이 후자 속에 포획암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 ○ 점봉산화강암(點鳳山花崗岩)

이 화강암은 본 지역 남중부 밖의 망대암산에서 본 지역 남단부의 오색 부근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낸다. 점봉산화강암은 설악산화강암, 망대암산 부근의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였고 홍색화강암에 의하여 관입 당하였다.

#### ○ 홍색화강암(紅色花崗岩)

홍색화강암은 몇 개의 작은 분포지로 이 지역 주변부에 분산 분포되어 있음이 특징이다. 이 지역 북서부 경계선 밖에 있는 백담계곡 하류의 용대2교 부근에 분포한 홍색화강암은 동서 2.5km의 길이로 관입하였으며 그 남측에 분포된 각섬석화강암과 접하고 있다. 이 지역 최서단 외곽에서 오색령에 거의 근접 분포한 홍색화강암은 한계천을 따라 약 2km의 폭으로 분포하며 오색령의 서북서방 2km지점에 도달한다. 이는 분포지의 동 및 북측에서 각각 흑운모 화강암 및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오색령 남쪽과 동남쪽 1km지점에서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다. 백담계곡의 상류인 수렴동계곡과 귀떼기청봉 사이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연장 약 3km인 렌즈상의 분포지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였고 섬록암의 관입을 받았다. 이 지역 북동방의 쌍천 증류에서 신흥사를 지나 내원암의 북서 2km지점까지 연장된 홍색화강암의 분포지가 있으며, 남측의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고 서측의 화강반암에 의하여 관입 당하였다.

#### ○ 울산화강암(蔚山花崗岩)

설악산의 북동 경계선에 걸쳐 북서~남동으로 뻗은 능선이 있다. 이 능선 중 높은 부분은 600~700m로서 주위의 산보다 높은 울산바위를 이루었다. 울산바위의 남서 및 북동측에서는 종래 속초화강암이라 부르던 것이 있는데 울산화강암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를 묶어서 울산화강암이라 부른다. 이 암석은 남서측에서 홍색화강암과 접하는데 후자는 울산화강암의 관입을 받았다.

## ○ 섬록암(閃綠岩)

내설악 중부의 영시동 남남서방 2km 내외인 곳에 연장 약 1.5km, 폭 300m로 분포된 담록색의 암석이다. 이는 중성암맥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로 작은 분포를 보이는 섬록암이다.

## ○ 마산암(馬山岩)

여기서 마산암이라 부르는 것은 석영입자와 장석 입자의 반정을 포함한 담록색의 암석으로서 반정들 사이의 석기(石基)는 세립 내지 중립의 석영과 각섬석을 산재시킨 것이며 종래의 화강반암과 정고리화강암을 합한 것이다.

마산암은 설악산맥의 마등령과 저항령 사이의 능선 서쪽 약 500m, 동측으로 약 3.5km 합계 약 4km의 폭을 가지고 남북으로 약 6km의 연장을 가진 비교적 큰 암체이다. 이 암석은 이 지역 내에서는 설악산맥의 능선 바로 동측의 급사면을 형성하며 쌍천의 최상 지류의 서지계와 북지계에 까지 분포한다. 그리하여 마산암은 이 지역에서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의 능선 동쪽 급사면 다음으로 험준한 급사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저항령과 1,318m고지 북측에서는 험준의 정도가 낮은 지역을 이루었다. 이 암석은 서측 및 남측에서는 각각 화강편마암 설악산화강암을 관입하였고, 동쪽에서는 홍색화강암을 관입하였다.

마산암이 능선 동측에서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을 이루는 것은 동해쪽에서 서쪽으로 급속도로 개척이 일어난 결과이며 이 때문에 산지의 저하가 계곡의 하각보다 늦어져서 험준한 산지가 형성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마산암의 암질이 견고함인데 여기서 절리가 발달되어 절경을 이루게 된 것이다.

## ○ 반암(班岩)

신흥사 부근에 소편으로 분할 분포되어 있으며 화강암 속에 암맥상으로 관입하였다. 반상조직을 보여주며 백색세립질이다. 반정으로는 장석과 석영이 있으며 1mm내외의 크기이다.

## ○ 암맥(岩脈)

암맥으로는 거정화강암, 석영반암이 있다. 거정화강암은 각섬석화강암 중에 다수 관입하여 있으며 폭 수 cm에서 1m 내외인 것까지 있다. 이는 장석과 석영의 문상조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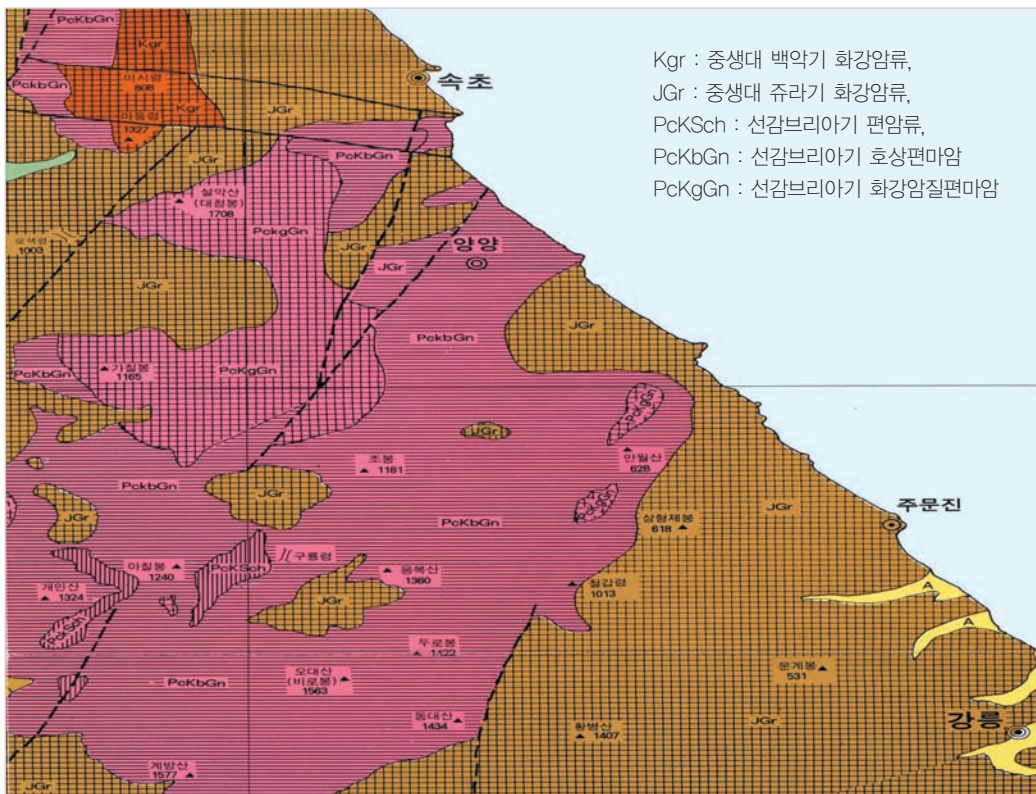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백색이다.

#### ○ 석영반암(石英班岩)

석영의 입자를 뚜렷이 보여주는 담황색 암석으로 백담계 하류에서 여러 곳 발견된다. 두께 수 m로 동서방향의 연장을 가진 것이 많다.

#### ○ 제4기

- 홍적층(洪積層) : 한계천 연안에는 완만한 지면으로 대표되는 암석쇄설물층이 발달된 곳이 있다. 또한 하안단구로 보이는 한 단 높은 지면이 있다. 이들은 일 만년 이상 된 지층일 것이므로 홍적층으로 본다.
- 충적층(沖積層) : 하계천의 바닥, 하계 연안의 낮은 평지로 홍수 때마다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지대는 충적층으로 보이며 이는 모래, 자갈, 점토로 되어 있다.



양양군의 지질도



〈표1-3〉설악산 일대의 지질시대(地質時代)와 암석층(岩石層)

지 질 시 대			지 층 · 암 석	상 호 관 계
신 생 대	제 4 기		충 적 세	부 정 합
			홍 적 세	
중생대	백악기	말기	섬 록 암, 반 암, 맥 암	부 정 합
			울 산 화 강 암	관 입
			마 산 암	관 입
		중기	홍 색 화 강 암	관 입
			점 봉 리 화 강 암	관 입
			흑 운 모 화 강 암	관 입
			설 악 산 화 강 암	관 입
			각 섬 석 화 강 암	관 입
		초기	설 악 산 층	부 정 합 · 단 층
	선캄브리아기		반 상 변 정 편 마 암	관 계 불 명 점 이 적 ?
			화 강 암 질 편 마 암	
			우 백 질 편 마 암	

(2) 지질 구조

양양군을 지나는 백두대간은 남북방향이 대단층으로 잘린 지괴가 그 동변이 상승하고 서변이 침강한 지괴운동에 의해 생성된 능선으로 생각된다. 다만 백두대간 능선 동사면은 단층절벽이 아니고 단층선절벽으로서 단층은 동해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한계단층과 백담사단층이다. 앞의 것은 오색령의 서쪽 및 동쪽으로 연장되는 단층으로서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는 이 단층을 따라 쉽게 개척된 계천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층의 위치가 계류의 약 500m 북측을 지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단층의 위치는 한계천과 남대천 상류 상안의 지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계천으로 뻗어 나온 작은 능선에는 능선이 말안장처럼 오목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곳을 연결하면 한계단층이 그어진다. 한계단층은 홍색화강암과 일부 설악산화강암에 형성되고 있고 이 단층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고개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백담사단층이 내설악 중앙부에서 거의 동서로 달리고 있고 여기에서 흑운모화강암과

설악산층이 접하고 있다. 이 단층은 수직단층이다. 설악산층이 90°내외까지 경사하고 또한 역전하는 곳이 있어 중생대 백악기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을 추측케 한다. 한반도에는 백악기에 그러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작은 지괴의 급경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즉, 편마암류를 부정합으로 덮은 백악기의 설악산층은 한때 약간의 변동은 받았으나 20°~30° 이상의 경사를 가지지 않았다. 백악기 중기 내지 말기에 나타난 채 굳어진 화강암 속에 남아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표에 노출하게 된 것이다.

설악산 지역에서는 절리의 발달이 지형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화강암류가 융기에 의해 지표로 상승하게 되면 암석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 삭박(削剝)되고, 냉각, 프와송 효과(Poisson effect) 및 막효과(membrane effect)에 의해 응력 분포가 변하게 되고 고각도의 경사를 가지는 인장절리(extension joint)가 형성된다. 또한 지표 근처에서는 삭박된 암석의 무게에 의한 수직응력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평응력이 증가하게 되고 지표면에 거의 평행한 판상절리(sheeting joint)가 형성된다. 또한 마그마로부터 심성암이 형성될 때 주변 기반암과의 열에 대한 성질의 차이로 형성된 잔류응력은 심성암체의 표면에 직각으로 작용하여 인장응력을 가지며, 심성암체가 지표로 상승하게 되면 이 잔류응력에 의해 판상절리 또는 박리절리(exfoliation joint)가 지표면에 평행하게 형성하게 된다. 설악산의 능선이나 독립바위는 모두 절리의 방향과 관계 있는 지형을 나타낸다.

### 3) 양양군의 해안 지형

#### (1) 해안지형의 발달

동해안은 융기해안의 특성으로서 해안선이 매우 단조롭다.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것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해안 쪽으로 치우쳐 해안선과 평행하게 위치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오랜 지질시대를 통하여 아주 완만하게 융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빙기의 해면 상승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하곡을 침수시켜 마치 톱

니모양의 해안선을 형성시켰으나, 그 후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하곡에 생긴 만(灣)은 하천의 운반물질로 메워지고 곳(串)은 파도에 깎여 현재와 같은 단조로운 해안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하여 북부와 남부가 지질구조와 지형상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편마암과 고생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 많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沙濱海岸)이 많다. 특히 강원도 남부의 강릉·삼척해안은 용기로 말미암아 해안단구(海岸丹丘)가 발달하여 있으며, 해식(海蝕)작용으로 단애(斷崖)를 이룬 곳이 많다.

강릉 이북은 남부에 비하여 용기량이 적은 것 같으며, 강릉 원산 사이에는 곳곳에 배후지의 화강암산지에서 침식 운반되는 백사가 퇴적하여 연안조류와 파랑작용으로 사주(沙州, barrier island), 사취(砂嘴, spit), 석호(潟湖, lagoon)가 발달하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석호는 북으로부터 광포(함남 정평 13.3km<sup>2</sup>), 소동정호(강원 통천, 4.9km<sup>2</sup>), 천아호(통천, 2.9km<sup>2</sup>), 강동포(통천, 2.8km<sup>2</sup>), 감호(고성, 0.3km<sup>2</sup>), 화진포(고성, 2.06km<sup>2</sup>), 송지호(고성, 0.56km<sup>2</sup>), 광포호(고성, 0.07km<sup>2</sup>), 영랑호(속초, 0.96km<sup>2</sup>), 청초호(속초, 0.89km<sup>2</sup>), 매호(양양, 0.14km<sup>2</sup>), 향호(강릉, 0.32km<sup>2</sup>), 경포(강릉, 0.90km<sup>2</sup>) 등이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나란히 발달하여 있다. 물론 북부에도 암석해안이 있으나 대체로 보아 석호·사빈(砂濱海岸)이 발달한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빈(sandy beach)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해변(海濱, beach)이며, 해변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조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이다. 암석해안에서 해식애(海蝕崖)밑에 발달하는 얇은 해변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모래와 다량의 자갈 또는 암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빈은 해수욕장으로 많이 이용되므로 우리에게 낯익은 지형으로 사빈의 배후에는 해안사구(海岸砂丘, coastal dune)가 발달되어 있다.

사빈해안을 구성하는 모래는 대부분 제4기 또는 제3기의 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암층(砂巖層)에서 공급되는 경우와 해안으로 유입하는 큰 하천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동해안에 사빈이 넓게 나타나는 곳은 주로 큰 하천의 하구 부근의 해안이다.

양양지역 해안은 사빈이 길게 발달되어 있는데,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양양의 남대

천으로 생각된다. 남대천하구의 북쪽 사빈해안은 낙산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원형을 거의 잃었으며, 하구 남쪽의 오산포지역 사빈해안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사구로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형성되어 사구가 해안선에 나란히 배열된 사구열(beach ridge)이 발달한 지형으로 판단되며, 사구열 사이에는 습지(swale)가 만들어져 있어 현재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습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구열이 나타나는 지형은 동해안에서 매우 드문 지형이다.

동해안의 사구는 경사가 완만하고 긴 하천을 가진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과 달리 동해안의 해안은 경사가 강하고 짧은 하천 때문에 입경이 큰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해안사구는 사빈에 쌓인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 쪽으로 이동되어 형성된 지형으로 염생식물(통보리사초, 밀사초, 갯보리 등)이 정착하고 이들이 모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사구의 성장을 돕게 된다.

사구는 농경지를 보호하며 사구의 안쪽으로 담수의 지하수를 만들어 준다. 해일의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안사구에는 농경지를 해풍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곶술(일명 해송)을 심어 송림(松林)이 발달되어 있어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취락(聚落)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

석호의 지형 발달은 지난 빙기와 이후 충적세[Holocene] 해수면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빙기에 140m까지 낮아진 해수면 때문에 깊은 침식곡을 형성하였으나, 충적세 중기의 해면이 상승함에 따라 해안에 침수현상이 일어나 골짜기나 기타 낮은 지대가 깊은 수심을 유지하였고, 이후 해수면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상류는 토사에 의해 매립되고, 인접 하천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모래가 파도와 연안류의 작용에 의해 하류의 입구에 퇴적되어 형성되는 사취 또는 사주에 석호가 형성된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곡에 발달하였는데, 작은 하천의 경우는 토사 운반량이 적기 때문에 석호가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있다. 큰 하천의 하류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호가 생길 수 없었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하여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게 유지되며 좁은 수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된다. 그러나 갈수기

(湧水期)에는 사빈의 확장으로 수로의 입구가 막혀버리며 석호의 수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에만 주기적으로 수로가 열린다. 또한 파랑이 거세어지면 모래의 대량 운반으로 석호의 수로가 막히게 되고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 석호의 대부분은 염분농도가 담수호(淡水湖)에 비하여 높고 해수(海水)보다는 낮은 기수호(汽水湖)이다.

양양군에 소재하는 석호는 북쪽으로부터 가평리습지, 쌍호, 염개호, 궁개호, 매호가 있다. 대부분의 석호가 농경지 확보와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매립되어 원래의 자연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현재 석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호뿐이다.

## (2) 양양지방 석호

### 가. 매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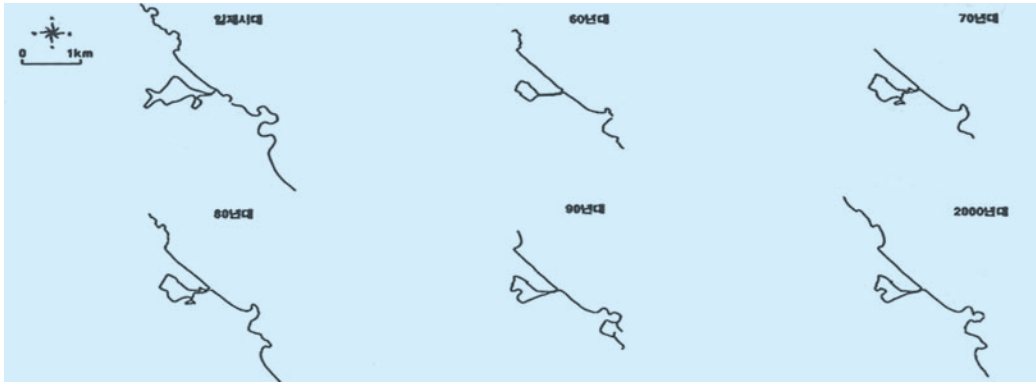
- 위치 :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동경 128° 46', 북위 37° 56' (석호 입구)
- 면적 : 0.14km<sup>2</sup>
- 호안길이 : 2.16km
- 유입하천 : 서쪽 314m고지와 260m고지에서 발원하는 두 개의 소하천으로 주류의 길이는 5.39km이다.
- 유역면적 : 8.77km<sup>2</sup>
- 표층 염분 농도 : 4.10%(0.13~7.20%)

매호는 20세기 동안 호수의 경관이 심하게 변형되고 면적은 0.29km<sup>2</sup>에서 0.14km<sup>2</sup>로 호안길이는 3.75km에서 2.16km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표1-4〉 매호의 변화

	1918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면적(km <sup>2</sup> )	0.29	0.10	0.18	0.18	0.15	0.14
둘레(km)	3.75	1.95	2.76	2.76	2.30	2.16





매호의 변화 과정

#### 나. 쌍호

- 위치 :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동경 128° 39′, 북위 38° 05′
- 면적 : 4,481m<sup>2</sup>(일제강점기 520,000m<sup>2</sup>)
- 유입하천 : 진손재에서 발원하는 소하천
- 표층 염분 농도 : 0.1~0.2‰



쌍호의 변화 과정

#### 다. 염개호

- 위치 :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동경 128° 42′, 북위 38° 02′
- 면적 : 0.004km<sup>2</sup>(일제강점기 0.052km<sup>2</sup>)
- 유입하천 : 없음
- 표층 염분 농도 : 0.2~0.7‰

### 3. 양양 지방의 기후

#### 1) 양양 지방 기후의 특성

양양 지방은 한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중위도지대에 속하여 편서풍(偏西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고 한랭건조(寒冷乾燥)한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양양지방은 해발 1,000m 내외의 백두대간이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동해(東海)와 연접하여 사계절에 걸쳐 변화 많은 기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폭풍(暴風), 대설(大雪), 호우(豪雨), 가뭄 등 갖가지 악기상(惡氣象)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양양 지방의 기후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영서지방[인제]과 판이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해안형인 속초와 강릉의 연평균 기온은 12.1℃, 12.9℃로 내륙형인 인제의 연평균 기온 9.9℃에 비해 보다 온난하고, 연간 강수량이 속초 1,342.4mm, 강릉 1,401.9mm, 인제 1,114.1mm로 양양 인접 지역이 인제보다 220mm이상 강수량이 많고, 연평균 풍속은 속초 3.1m/s, 강릉 2.61m/s로 인제의 1.9m/s보다 바람이 강한 특성이 있는 등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1-4〉 양양 인근 지방의 기후 비교

지 역	기온(℃)			연 간 강수량 (mm)	연 간 증발량 (mm)	연평균 풍 속 (m/sec)	연 평 균 상대습도 (%)	일조율 (%)
	연평균	일최고 연평균	일최저 연평균					
속 초	12.1	15.8	8.5	1,342.4	1243.9	3.1	67.1	49
강 릉	12.9	17.4	8.9	1,401.9	1239.7	2.6	63.4	48
인 제	9.9	16.3	4.4	1,114.1	1114.0	1.9	71.0	51
양양공항	12.6	16.3	8.8	1,517.1	-	3.8	60.0	-

※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입니다.

※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입니다.

## 2) 기온

### (1) 평균기온

양양군에 가장 인접한 속초의 연평균기온은 12.1℃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1971년 이래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9년 13.2℃이고 가장 낮았던 해는 1986년 10.5℃로서 기온의 연 변화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교차를 보여주고 있다. 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서 23.7℃이고 가장 낮은 달은 1월로서 -0.2℃이다.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평균기온과 평균일최저기온은 속초가 -0.2℃와 -3.8℃로 인제의 -5.2℃와 -11.0℃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가장 따뜻한 달인 8월의 평균기온과 평균일최고기온은 속초가 23.7℃와 26.7℃로 인제의 23.1℃와 28.6℃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 속초는 해양성 기후, 인제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혹한이 두드러진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의 관측자료(2004~2009년)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은 12.6℃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4년 13.1℃이고, 가장 낮았던 해는 2005년 11.9℃이었다. 월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로 23.9℃이고,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0.4℃이다.

속초 지방에서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2.7℃이었고, 일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004년 1월 21일과 1986년 1월 5일 두 차례 있었으며 -11.9℃이었다.

〈표1-5〉 평균 기온(℃)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12.1	-0.2	0.9	5.2	11.3	15.9	19.0	22.8	23.7	19.7	14.9	8.6	2.9
강릉	12.9	0.3	1.4	5.9	12.6	17.6	20.6	24.1	24.4	20.1	15.1	9.0	3.3
인제	9.9	-5.2	-2.7	3.2	10.4	15.5	19.8	23.1	23.1	17.8	11.2	4.3	-2.0
양양	12.6	0.4	2.2	6.0	12.1	16.4	19.8	22.9	23.9	19.8	15.8	9.1	2.3

※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입니다.

※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입니다.

〈표1-6〉 일평균기온 최고값(℃)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32.7	32.7	28.6	31.5
	연월일	2004. 7.23.	1994. 8. 7.	2005. 7.22.	2004. 7.22.
2	값	31.9	32.7	28.5	31.5
	연월일	2002. 7.31.	1994. 8. 6.	1994. 7.22.	2004. 7.23.
3	값	31.5	32.6	28.2	31.1
	연월일	1968. 7.23.	1983. 8. 4.	1990. 8. 7.	2008. 7. 6.
4	값	31.5	32.4	28.2	30.8
	연월일	2010. 7.31.	1992. 7.29.	1978. 7.29.	2004. 7.24.
5	값	31.4	32.4	28.1	30.7
	연월일	2004. 7.24.	1983. 8. 3.	2006. 8.15.	2005. 8.14.

〈표1-7〉 일평균기온 최저값(℃)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11.9	-16.1	-18.2	-11.6
	연월일	2004. 1.21.	1931. 1.10.	1981. 1. 5.	2004. 1.21.
2	값	-11.9	-15.7	-18.1	-11.6
	연월일	1986. 1. 5.	1915. 1.13.	1981. 1. 4.	2004. 1.22.
3	값	-11.8	-12.9	-17.6	-6.7
	연월일	2001. 1.15.	1963. 1.23.	2001. 1.15.	2009. 1.24.
4	값	-11.2	-12.8	-17.3	-6.6
	연월일	1981. 2.26.	1927. 1.22.	2001. 1.16.	2004. 1.23.
5	값	-11.0	-12.8	-17.3	-6.2
	연월일	1977. 2.16.	1915. 1.14.	1986. 1. 5.	2005. 1.31.

양양공항에서 일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2일과 2004년 7월 23일 연일 31.5℃이었고, 일 평균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004년 1월 21일과 2004년 1월 22일 연일 -11.6℃이었다.

## (2) 최고기온

속초 지방의 최고기온의 연평균 값은 15.8℃이며, 이는 인제의 16.3℃보다 낮은 값이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6.7℃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7℃이었다.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4년 7월 23일로 37.1℃이었다.

〈표1-8〉 일최고기온(℃)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15.8	3.7	4.7	9.0	15.6	20.1	22.2	25.6	26.7	23.2	19.0	12.6	6.9
강릉	17.4	4.8	5.9	10.5	17.7	22.5	24.7	27.9	28.2	24.5	20.1	13.8	8.0
인제	16.3	0.8	3.6	9.8	17.8	22.8	26.3	28.2	28.6	24.3	18.7	10.8	3.7
양양	16.3	4.0	6.2	10.1	16.4	20.9	23.6	25.9	26.6	23.0	19.5	12.7	5.9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표1-9〉 최고기온 최고값(℃)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37.1	39.4	37.3	36.4
	연월일	2004. 7.23.	1942. 7.25.	1988. 8. 1.	2005. 6.25.
2	값	36.6	39.3	36.5	35.9
	연월일	2002. 7.31.	1994. 7.13.	1988. 8. 2.	2004. 7.23.
3	값	35.9	38.9	36.3	35.2
	연월일	2004. 7.24.	1994. 8. 6.	1994. 7.22.	2004. 7.22.
4	값	35.9	38.5	36.3	34.7
	연월일	1997. 8.23.	1939. 7.20.	1972. 7.29.	2004. 7.21.
5	값	35.8	38.0	36.2	34.4
	연월일	1997. 8.31.	1939. 7.19.	1978. 7.27.	2004. 7. 6.

양양공항에서 최고기온의 연평균 값은 16.3℃이며, 최고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6.6℃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4.0℃이었다. 2004년 이래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005년 6월 25일로 36.4℃이었다.



### (3) 최저기온

속초 지방의 최저기온의 연평균 값은 8.5℃이며, 이는 인제의 4.4℃보다 높은 값이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0.9℃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3.8℃이었다.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1981년 2월 26일로 -16.2℃이었다. 인제와 강릉의 최저기온 최저값 -25.9℃와 -20.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겨울철 동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표1-10〉 일최저기온(℃)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8.5	-3.8	-2.6	1.4	7.1	11.9	16.0	20.1	20.9	16.3	10.7	4.6	-1.0
강릉	8.9	-3.3	-2.3	1.6	7.6	12.7	16.7	21.0	21.2	16.3	10.8	4.9	-0.5
인제	4.4	-11.0	-8.6	-2.7	3.2	8.8	14.4	19.1	19.1	13.1	5.4	-1.1	-7.3
양양	8.8	-2.9	-1.5	1.9	8.0	12.4	16.5	20.4	21.0	16.6	12.1	5.5	-1.1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표1-11〉 최저기온 최저값(℃)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16.2	-20.2	-25.9	-17.2
	연월일	1981. 2.26.	1915. 1.13.	1981. 1. 6.	2004. 1.22.
2	값	-15.6	-19.1	-25.5	-15.1
	연월일	2004. 1.22.	1931. 1.11.	1981. 1. 4.	2004. 1.21.
3	값	-15.6	-18.2	-24.8	-13.8
	연월일	1970. 1. 5.	1931. 1.10.	1981. 1. 5.	2005. 2. 1.
4	값	-14.8	-17.8	-24.8	-12.1
	연월일	2003. 1.29.	1915. 1.14.	2001. 1. 6.	2009.12. 1.
5	값	-14.7	-17.0	-24.5	-11.6
	연월일	1977. 2.16.	1917. 1. 8.	1984. 2. 3.	2008. 2. 6.

양양공항에서 최저기온의 연평균 값은 8.8℃이며, 최저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의 21.0℃이며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2.9℃이었다. 2004년 이래 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004년 1월 22일로 -17.2℃이었다.

### 3) 강수량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속초지방의 연간 강수량은 1,342.4mm로 비교적 많은 양이다. 8월의 강수량이 293.7mm로 가장 많은 비가 오며 특히 여름철인 6, 7, 8월의 강수량이 속초 618.0mm, 인제 655.3mm로서 연평균강수량의 46.0%와 58.8%를 차지하는 하계다우형의 강수 집중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지방의 60%보다는 낮은 편이며, 초가을인 9월에 강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양양공항에서 연간 강수량은 1,517.1mm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7월의 강수량이 425.5m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12〉 월별 강수량(mm)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1,342.4	53.1	56.4	56.2	71.0	87.9	122.9	201.4	293.7	205.4	81.5	71.6	41.3
강릉	1,401.9	65.3	58.7	72.2	77.5	84.4	122.0	196.5	288.2	207.0	104.2	82.4	43.5
인제	1,114.1	14.8	19.4	34.0	67.0	94.7	119.1	262.7	273.5	133.8	37.5	36.8	20.8
양양	1,517.1	41.9	21.7	69.4	63.5	103.6	135.1	425.5	254.2	221.1	76.1	80.8	24.4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년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속초 지역에 하루 동안 비가 가장 많이 온 날은 1984년 9월 2일로 314.2mm이었고 다음이 1984년 9월 1일로 303.6mm이었다. 태풍 루사가 속초 지방을 지나가던 2002년 8월 31일은 295.5mm의 일 강수량으로 세 번째로 비가 많이 온 날이다. 양양공항에서 2004년 이래 가장 비가 많이 온 날은 2006년 7월 15일로 188.2mm이었다.

영동 지방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날은 1969년 2월 21일로 123.8cm이었고, 그 다음이 모두 2월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 이와 같이 영동 지방에 눈이 많이 오며 특히 2월에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평균고도가 해발 900m 이상이 되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측에 치우쳐 있어 영동 지방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와 접해있는 지형적 특성과 만주 동쪽이나 오향크해 부근에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배치 때문이다.

〈표1-13〉 일강수량최다(mm)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314.2	870.5	275.8	188.2
	연월일	1984. 9. 2.	2002. 8.31.	1984. 9. 1.	2006. 7.15.
2	값	303.6	305.1	232.0	186.0
	연월일	1984. 9. 1.	1921. 9.24.	1990. 9.11.	2008. 7.24.
3	값	295.5	297.7	216.5	178.2
	연월일	2002. 8.31.	1936. 9.27.	1999. 8. 2.	2009. 7. 9.
4	값	241.0	297.5	202.0	159.2
	연월일	2004. 7. 4.	1990. 9.11.	2006. 7. 5.	2006.10.23.
5	값	240.8	289.1	200.5	144.4
	연월일	1990. 9.11.	1984. 8. 5.	2009. 8.12.	2006. 7.10.

〈표1-14〉 최심적설(cm)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123.8	138.1	35.6	50.7
	연월일	1969. 2.21.	1990. 2. 1.	1987. 2. 3.	2005. 3. 5.
2	값	113.8	130.2	35.0	47.1
	연월일	1969. 2.20.	1923. 1.27.	1987. 2. 4.	2005. 3. 4.
3	값	102.0	118.0	34.1	39.5
	연월일	1969. 2.22.	1990. 2. 2.	1987. 2. 5.	2010. 3.10.
4	값	88.6	113.7	32.0	38.8
	연월일	1972. 2.11.	1990. 1.31.	1987. 2. 6.	2010. 3. 9.
5	값	87.0	109.7	31.9	36.2
	연월일	1996. 2.18.	1969. 2.21.	1997. 1. 7.	2010. 3. 8.

대륙성고기압의 세력이 시베리아의 동부까지 확장하거나,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발달하여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되면 북동풍이 영동지방으로 불어오게 된다. 동해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습한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상승할 때 엄청난 눈구름을 형성하게 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

#### 4) 습도

습도는 복사냉각(輻射冷却)으로 수증기 응결현상(凝結現象)이 나타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정오를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습도는 내륙 지방보다 해안지방이 높은 것이 특성이지만 지형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속초 지방은 월 평균상대습도는 51.8~83.2%의 분포로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다. 월 평균상대습도가 가장 높은 달은 장마기간으로 잦은 비와 흐린 날이 많은 7월로 83.2%이며, 가장 낮은 달은 12월로 51.8%이다.

양양공항에서 2004년 이래 월 평균상대습도가 가장 높은 달은 7월로 80%이며, 가장 낮은 달은 12월로 44%이다.

〈표1-15〉 월별 상대습도(%)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67.1	53.0	57.7	63.3	63.3	68.5	80.1	83.2	83.0	77.4	66.1	58.2	51.8
강릉	63.4	52.0	55.4	59.6	57.0	60.8	73.5	77.9	79.4	74.9	63.8	56.4	50.4
인제	71.0	68.2	66.2	64.3	59.5	65.6	73.3	79.7	80.3	78.6	74.1	71.5	70.6
양양	60.0	45	46	51	54	63	73	80	77	75	61	52	44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속초 지방에서 최소상대습도의 최저값은 2004년 3월 31일의 5%이다. 속초 지방에서 최소상대습도는 주로 봄철에 나타나는데, 이는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높새바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봄철의 낮은 습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소상대습도가 20% 미만이 되는 날은 연간 속초 14.8일, 강릉 15.6일이며 4월에 속초 2.8일, 강릉 4.0일, 인제 4.6일로 가장 건조한 달임을 나타낸다. 특히 4월은 풍속 또한 연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대형 산불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양양공항에서 2004년 이래 최소상대습도 최저값은 2005년 3월 17일의 3%이며, 2005년 4월 5일에는 양양군 강현면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되기도 하였다.

〈표1-16〉 최소상대습도 최저값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5	5	3	3
	연월일	2004. 3.31.	1994. 1.24.	1989. 4. 2.	2005. 3.17.
2	값	7	5	4	6
	연월일	2005. 5. 3.	2004. 3.28.	1977. 5. 3.	2006. 3.31.
3	값	7	5	5	6
	연월일	2004. 4.30.	2005. 5. 7.	1991. 4.20.	2006. 3.11.
4	값	7	5	5	6
	연월일	2004. 4.28.	2005. 1. 6.	1978. 4.23.	2006. 3.28.
5	값	7	5	5	7
	연월일	2004. 2.19.	2004. 4.18.	1976.10.29.	2005. 3.17.

자료 : 속초기상대 제공

〈표1-17〉 최소습도 20% 미만 일수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2.3	1.3	2.2	2.8	1.5	0.2	-	-	0.0	0.7	1.6	2.2	14.8
강릉	1.5	1.4	2.4	4.0	2.1	0.2	0.0	-	0.1	0.5	1.4	2.0	15.6
인제	0.7	1.1	2.2	4.6	1.6	0.3	0.1	0.0	0.1	0.9	0.6	0.5	12.7
양양	0.8	0.9	0.8	0.8	0.4	0.1	-	-	-	0.1	0.5	0.7	5.1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 5) 바람

바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보다 해안지방에서 강하게 분다. 연평균 풍속은 영동 지방인 속초와 강릉이 3.1m/s와 2.6m/s로 영서의 인제 1.9m/s보다 월등히 강하여 예로부터 양양지풍(襄江之風)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달은 12월로 월 평균 풍속이 속초 4.5m/s, 강릉 3.6m/s이고, 가장 약하게 바람이 부는 달은 7, 8월로 월 평균 풍속이 속초 2.4m/s, 강릉 1.7m/s이다. 특히 상대습도가 낮은 11월부터 5월까지의 강풍 때문에 산화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속초에서 최대순간풍속이 가장 강했던 날은 2006년 10월 23일 63.7m/s로 강원도의 최고 기록이며, 강릉은 1983년 4월 27일 41.6m/s, 인제는 2002년 3월 21일 26.6m/s이었다.

〈표1-18〉 월별 풍속(m/s) 평년값

지역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속초	3.1	3.7	3.5	3.4	3.7	3.3	2.7	2.4	2.4	2.6	2.9	3.4	4.5
강릉	2.6	3.5	3.1	2.8	2.8	2.5	1.8	1.7	1.7	2.0	2.5	3.0	3.6
인제	1.9	1.9	2.0	2.2	2.6	2.2	1.8	1.8	1.6	1.5	1.4	1.7	1.8
양양	3.7	4.7	4.8	4.4	4.2	3.4	2.8	2.6	2.7	2.7	3.4	4.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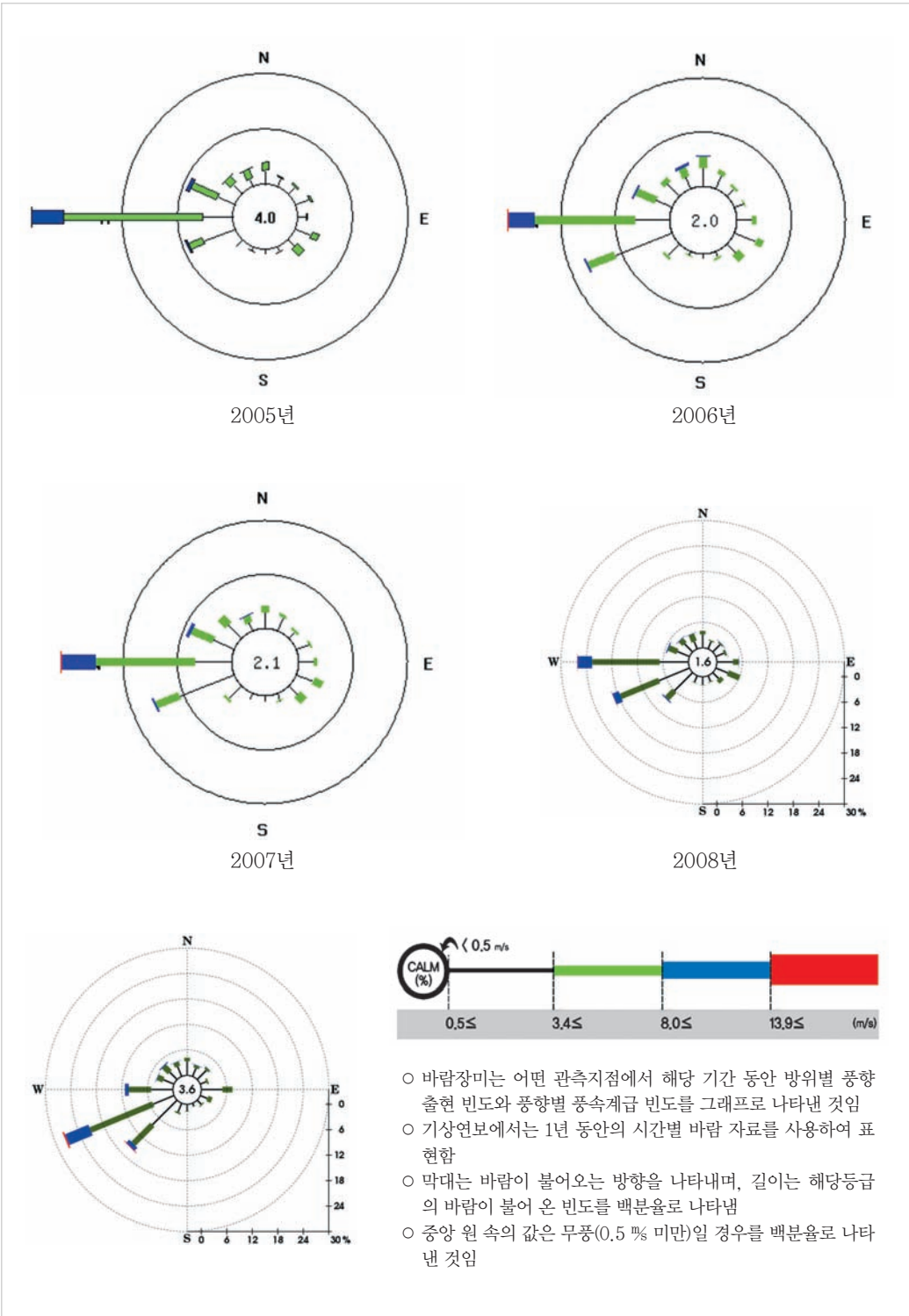
\*기후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평균이다.

\*양양공항 평균값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관측자료의 평균이다.

〈표1-19〉 최대순간풍향풍속(m/s)

순위 \ 지역		속초	강릉	인제	양양공항
1	값	63.7	41.6	26.6	34.5
	풍향	NNW	SSW	E	W
	연월일	2006.10.23.	1983. 4.27.	2002. 3.21.	2009.12. 5.
2	값	46.0	38.0	23.8	32.9
	풍향	SSW	SSW	NNE	N
	연월일	1980. 4.19.	1974. 6. 12.	1992. 7. 2.	2006.10.23.
3	값	46.0	36.2	22.4	31.4
	풍향	SSW	SW	SSW	W
	연월일	1974. 4.22.	1987. 4.21.	1997. 1. 1.	2004. 2.24.
4	값	43.6	36.0	22.1	29.8
	풍향	NW	SW	SSW	W
	연월일	1980. 1.26.	1968.11. 9.	1997. 4.12.	2009. 5.18.
5	값	43.0	33.0	21.2	29.3
	풍향	SW	WSW	SSW	W
	연월일	1983. 4.27.	1982. 5. 4.	2004. 3.10.	2004. 3.10.

양양공항에서 연평균 풍속은 3.7m/s로 비교적 강한편이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달은 12월로 월 평균 풍속이 5.0m/s이고, 가장 약하게 바람이 부는 달은 7월로 2.6m/s이다. 최대순간풍속이 가장 강했던 날은 2009년 12월 5일로 34.5m/s이었다. 양양공항의 바람장미를 보면 최다 풍향은 서풍(W)이었다.



양양공항의 바람장미

## 6) 계절관측

### (1) 서리

속초 지방의 첫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3년 10월 24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1년 2월 5일이었다. 마지막 서리가 가장 빨랐던 해는 1989년 2월 14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었다.

〈표1-20〉 서리 내리는 시기

구분 지역	첫 서리		마지막 서리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가장 빠른날	가장 늦은날
속 초	1981.10.24.	1981. 2. 5.	1989. 2.14.	1984. 4. 8.
강 릉	1969.10.10.	1980. 1.24.	1966. 2.14.	1947. 5.10.
인 제	1982. 9.26.	2000.11. 1.	1972. 4. 2.	1976. 5.14.

자료 : 속초기상대 제공

### (2) 눈

속초 지방의 예년 첫눈은 11월 30일이며, 가장 빨랐던 첫눈은 1980년 10월 25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첫눈은 1994년 12월 31일이었다. 예년의 마지막 눈은 3월 25일이며, 가장 빨랐던 마지막 눈은 2000년 2월 2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마지막 눈은 1992년 4월 15일이었다.

〈표1-21〉 눈 오는 시기

구분 지역	첫 눈			마지막 눈		
	평년	가장 빠른 날	가장 늦은 날	평년	가장 빠른 날	가장 늦은 날
속초	11.30.	'80.10.25.	'94.12.31.	3.25.	'00.2.27.	'92.4.15.
강릉	12. 1.	'76.10.30.	'65.12.30.	3.27.	'00.2.28.	'17.4.28.
인제	11.18.	'81.10.23.	'75.12.21.	3.30.	'98.2.28.	'74.4.22.

### (3) 얼음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얼음은 11월 8일이며, 첫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9년 10월 17일이었고, 첫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71년 11월 28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얼음은 4월 1일이며, 마지막 얼음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59년 3월 9일이었고, 마지막 얼음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84년 4월 20일이었다.

〈표1-22〉 얼음 어는 시기

구분 지역	첫 얼음			마지막 얼음		
	평년	가장 빠른 날	가장 늦은 날	평년	가장 빠른 날	가장 늦은 날
속초	11. 8.	'89.10.17.	'71.11.28.	4. 1.	'59. 3. 9.	'84. 4.20.
강릉	11. 9.	'99.10.17.	'54.12. 2.	4. 3.	'89. 3.18.	'47. 5. 9.
인제	10.17.	'87. 9.27.	'94.10.30.	4.20.	'81. 4. 3.	'76. 5.14.

### (4) 적설

속초 지방의 예년 첫 적설(積雪)은 12월 17일이며, 첫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81년 11월 17일이었고, 가장 늦었던 날은 1968년 2월 10일이었다. 예년 마지막 적설은 3월 20일이며, 마지막 적설이 가장 빨랐던 날은 1994년 2월 18일이었고, 마지막 적설이 가장 늦었던 날은 1992년 4월 16일이었다. 적설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은 1972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50일간이었다. 인제 지방에 비해 적설량은 많으나 적설 기간이 짧은 것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해양성 기후의 속초 지방이 내륙성 기후의 인제 지방보다 높기 때문이다.

〈표1-23〉 적설 시기

구분 지역	첫 적설			마지막 적설			가장 오래 계속된 적설기간		
	평년	가 장 빠른날	가 장 늦은날	평년	가 장 빠른날	가 장 늦은날	시작	끝	일수
속초	12.17.	'81.11.17.	'68. 2.10.	3.20.	'94.2.18.	'92.4.16.	'72. 1.23.	'72.3.12.	50
강릉	12.14.	'81.11.17.	'54. 2.14.	3.19.	'38.2.14.	'47.4.21.	'69. 1.28.	'69.3.22.	54
인제	11.26.	'78.10.29.	'94.12.30.	3.22.	'98.2.15.	'88.4.19.	'80.12.22.	'81.2.13.	54

---

## 참고문헌

- 강원도. 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457pp.
- 강원도교육청. 1993. 강원도의 자연(지질편). 강원도교육청. 380pp.
- 기상청. 2001. 한국기후표(1971~2000). 632pp.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원주지방환경청. 2009. 동해안 석호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연구 및 관리방안(II). 978pp.
-



## II. 동식물

### 1. 서식환경

양양군은 위도상으로는 북위 37° 51' 44"~38° 09' 41", 동경 128° 24' 17"~128° 48' 34" 범위에 위치하는 총 면적 628.90km<sup>2</sup>의 행정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서쪽의 태백산맥 준령으로부터 고도가 낮아지면서 동해바다와 면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산과 하천, 바다 및 기수호(汽水湖) 등 다양한 동식물 서식 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생물다양성 보유지역이다. 또한, 표고 100m~1,360m 이상의 산악지형이 전체면적의 74%로 북쪽으로는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며,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청봉 남서면과 오색지구를 포함하는 설악산, 전국적으로 가장 잘 보존된 하천수계로 전국최대의 연어소상지인 남대천, 그리고 천연기념물 229호로 지정된 포매리의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등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표고 100m 이하 지역에도 우수한 소나무림이 형성된 산야로 구성되어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경지 9%, 기타 면적 6%로 취약형성은 주로 산줄기의 골을 따라 이루어지는 인문환경적 특징도 천혜의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가 비교적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태고적 상태로 보존되어 온 자연환경임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송이축제’, ‘연어축제’, ‘산나물축제’, ‘황어축제’ 등 전국 지자체 중 으뜸으로 다양한 생물자원과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 동물

### 1) 개요

동물 서식현황은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사업 보고서와 1967년 실시된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문교부), 1984년 실시된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강원도), 1987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양양 남대천 유역조사보고서’, 1983년 한국자연보존학회에서 실시한 ‘강원도 점봉산 일대 학술조사보고서’ 등의 학술자료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동물편에서는 포유류, 조류, 어류 및 양서·파충류 등 크기가 크고, 생태계의 주요 포식자 내지 중간포식자로서 생태계의 지표성이 높은 종류들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크기가 작고 종수가 매우 다양한 곤충류 및 수생 무척추동물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 2) 포유동물

남설악-오색지구를 포함한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총 81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08,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7차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양양군 서면에 포함되는 점봉산 일대의 학술조사에서는 총 31종의 포유동물이 목록화된 바 있으며(1983, 강원도 점봉산 일대 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양양군 남대천 유역 자연생태계 조사에서는 총 23종의 포유동물이 목록화된 바 있다(‘8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환경청).

이 가운데 문헌상으로 보고된 종으로 현재 서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종류는 우수리박쥐, 큰수염박쥐, 긴꼬리수염박쥐, 생박쥐 등 4종류의 박쥐류와 늑대, 여우, 곰, 시라소니, 표범, 범(호랑이) 등은 현재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81종의 서식현황, 확인여부 및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법정보호 관련 현황은 <표2-1>과 같다.

〈표2-1〉 포유동물 서식 추정 현황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문헌	청문	목격	흔적	추론	
고슴도치과	Erinaceidae						
고슴도치	<i>Erinaceus amurensis</i>	○	○		○		멸종 취약종
두더지과	Talpidae						
두더지	<i>Mogera wogura</i>	○	○		○		
참서파	Soricidae						
뒤쥐	<i>Sorex caecutiens</i>	○					개체수 극소
작은땃쥐	<i>Crocidura suaveolens</i>	○					
땃쥐	<i>Crocidura lasiura</i>	○		○			
관박쥐과	Rhinolophidae						
관박쥐	<i>Rhinolophus ferrumequinum</i>	○				○	
작은박쥐과	Vespertilionidae						
우수리박쥐	<i>Myotis daubentoni</i>	○					
큰수염박쥐	<i>Myotis brandti</i>	○					
긴꼬리수염박쥐	<i>Myotis frater</i>	○					
멧박쥐	<i>Nyctalus aviator</i>	○				○	
집박쥐	<i>Pipistrellus javanicus</i>	○				○	
생박쥐	<i>Eptesicus nilssoni</i>	○					
큰귀박쥐과	Molossidae						
큰귀박쥐	<i>Tadarida teniotis</i>	○					
개과	Canidae						
늑대	<i>Canis lupus</i>	○	?				멸종 위기종
여우	<i>Vulpes vulpes</i>	○					멸종 위기종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ides</i>	○	○	○	○		
개	<i>Canis familiaris</i>		○	○			생태계 위협
곰과	Ursidae						
곰	<i>Ursus thibetanus</i>	○					천연기념물
족제비과	Mustelidae						
무쇠산족제비	<i>Mustela nivalis</i>	○			○		
대륙족제비	<i>Mustela sibirica</i>	○	○	○	○		
담비	<i>Martes flavigula</i>	○	○		○		멸종 취약종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문헌	청문	목격	흔적	추론	
오소리	<i>Meles meles</i>	○	○	○	○		개체수 감소
수달	<i>Lutra lutra</i>	○	○	○	○		천연기념물
고양이과	Felidae						
살	<i>Prionailurus bengalensis</i>	○	○		○		국제보호종
시라소니	<i>Lynx lynx</i>	○				e	국제보호종
범(호랑이)	<i>Panthera tigris</i>	○				?	국제보호종
표범	<i>Panthera pardus</i>	○				?	국제보호종
고양이	<i>Felis catus</i>		○	○	○		생태계 위협
멧돼지과	Suidae						
멧돼지	<i>Sus scrofa</i>	○	○	○	○		수렵종
사슴과	Cervidae						
사향노루	<i>Moschus moschiferus</i>	○	○				국제보호종/천연기념물
노루	<i>Capreolus pygargus</i>	○	○		○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	○	○	○		국제적 취약종
소과	Bovidae						
산양	<i>Nemorhaedus caudatus</i>						국제보호종/천연기념물
염소	<i>Capra hircus</i>						생태계 위협
토끼과	Leporidae						
멧토끼	<i>Lepus coreanus</i>	○	○	○	○		개체수 감소
다람쥐과	Sciuridae						
청설모	<i>Sciurus vulgaris</i>	○	○	○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	○	○			
하늘다람쥐	<i>Pteromys volans</i>	○	○	○	○		천연기념물
쥐과	Muridae						
집쥐	<i>Rattus norvegicus</i>	○	○				
애굽쥐	<i>Rattus rattus</i>	○					
생쥐	<i>Mus musculus</i>	○	○	○			
등줄쥐	<i>Apodemus agrarius</i>	○	○	○			
흰넓적다리붉은쥐	<i>Apodemus peninsulae</i>	○		○			
멧밭쥐	<i>Micromys minutus</i>	○	○	○			
대륙밭쥐	<i>Clethrionomys rufocanus</i>	○	○	○			

\*e, 서식가능성 높음, \*?, 서식 가능성 매우 낮음.

## 3) 새

조류는 이동성이 강한 특성을 고려하여 문헌상 학술조사 자료로 1967년 ‘설악산 학술조사보고서’ (문교부), 1984년 ‘설악산 학술조사보고서’ (강원도), 1987년 ‘양양군 남대천 유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 (환경청), 2002~2008년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1~7차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기초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주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조류로서 해안 및 석호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철새류에 대한 자료는 2005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와 6, 8, 12월 3회 조사된 2008년 ‘동해안 석호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원주지방환경청) 등의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그에 따른 조류 분석결과는 다음 <표2-2>와 <표2-3>과 같다.

&lt;표2-2&gt; 산악지역에 서식하는 조류현황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67	'84	'87	'08	
백로과	Ardeidae					
검은댕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us</i>	○	○	○	○	
오리과	Anatidae					
원앙이	<i>Aix galericulata</i>			○	○	천연기념물
수리과	Accipitridae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	○	○	○	천연기념물
새매	<i>Accipiter nisus</i>	○			○	천연기념물
말뚝가리	<i>Buteo buteo</i>	○			○	위기종Ⅲ급
매과	Falconidae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		○	○	천연기념물
새호리기	<i>Falco subbuteo</i>				○	위기종Ⅲ급
들꿩과	Tetraonidae					
들꿩	<i>Bonasa bonasia</i>	○	○	○	○	특산종
꿩과	Phasianidae					
꿩	<i>Phasianus colchicus</i>	○		○	○	
비둘기과	Columbidae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	○	○	○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67	'84	'87	'08	
뺨꾸기과	Cuculidae					
검은등뺨꾸기	<i>Cuculus micropterus</i>	○	○	○	○	
뺨꾸기	<i>Cuculus canorus</i>	○	○	○	○	
범어리뺨꾸기	<i>Cuculus saturatus</i>	○	○	○	○	
두견이	<i>Cuculus poliocephalus</i>	○	○		○	
올빼미과	Strigidae					
수리부엉이	<i>Bubo bubo</i>				○	천연, II급
올빼미	<i>Strix aluco</i>				○	천연, II급
소쩍새	<i>Otus scops</i>	○	○		○	천연, 특산종
큰소쩍새	<i>Otus lempiji</i>	○			○	천연, 특산종
쏙독새과	Caprimulgidae					
쏙독새	<i>Caprimulgus indicus</i>	○	○		○	특산종
물총새과	Alcedinidae					
청호반새	<i>Halcyon pileata</i>	○			○	특산종
호반새	<i>Halcyon coromanda</i>	○	○	○	○	특산종
물총새	<i>Alcedo atthis</i>	○	○	○	○	특산종
파랑새과	Coraciidae					
파랑새	<i>Eurystomus orientalis</i>	○			○	특산종
후투티과	Upupidae					
후투티	<i>Upupa epops</i>	○			○	
딱따구리과	Picidae					
까막딱다구리	<i>Drycopus martius</i>	○	○		○	천연, II급
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major</i>	○	○	○	○	특산종
큰오색딱다구리	<i>Dendrocopos leucotos</i>	○	○		○	특산종
쇠딱다구리	<i>Dendrocopos kizuki</i>	○	○	○	○	
청딱다구리	<i>Picus canus</i>	○		○	○	특산종
할미새과	Motacillidae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	○	○	○	
알락할미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	○	○	○	
검은등할미새	<i>Motacilla grandis</i>	○			○	
물레새	<i>Dendronanthus indicus</i>	○			○	특산종
밭종다리	<i>Anthus rubescens</i>				○	
직박구리과	Pycnonotidae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67	'84	'87	'08	
직박구리	<i>Hypsipetes amaurotis</i>	○	○		○	
때까치과	Laniidae					
때까치	<i>Lanius bucephalus</i>	○	○	○	○	
노랑때까치	<i>Laninus cristatus lucionensis</i>	○		○		
물까마귀과	Cinclidae					
물까마귀	<i>Cinclus pallasii</i>	○	○	○	○	
굴뚝새과	Troglodytidae					
굴뚝새	<i>Troglodytes troglodytes</i>	○	○		○	
바위종다리과	Prunellidae					
멧종다리	<i>Prunella montanella</i>				○	
지빠귀과	Turdidae					
쇠유리새	<i>Erithacus cyane</i>	○			○	
삼광조	<i>Terpsiophon atrocaudata</i>	○		○		위기Ⅱ급
울새	<i>Erithacus sibilans</i>				○	
유리딱새	<i>Tarsiger cyanurus</i>				○	
딱새	<i>Phoenicurus aureus</i>	○	○	○	○	
검은딱새	<i>Saxicola torquata</i>	○			○	특산종
호랑지빠귀	<i>Turdus dauma</i>	○			○	
되지빠귀	<i>Turdus hortulorum</i>				○	특산종
흰배지빠귀	<i>Turdus pallidus</i>			○	○	
노랑지빠귀	<i>Trudus naumanni naumanni</i>	○			○	
흰눈썹지빠귀	<i>Trudus sibiricus</i>	○	○		○	
개똥지빠귀	<i>Trudus naumanni</i>	○	○		○	
휘파람새과	Sylviidae					
숲새	<i>Urosphena squameiceps</i>	○	○	○	○	
휘파람새	<i>Cettia diphone</i>	○	○	○	○	
상모술새	<i>Regulus regulus</i>				○	
노랑허리술새	<i>Phylloscopus proregulus</i>				○	
노랑눈썹술새	<i>Phylloscopus inornatus</i>	○			○	
쇠술새	<i>Phylloscopus borealis</i>	○			○	
되술새	<i>Phylloscopus tenellipes</i>				○	
산술새	<i>Phylloscopus occipitalis</i>	○	○	○	○	
딱새과	Muscicapidae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67	'84	'87	'08	
흰눈썹황금새	<i>Ficedula zanthopygia</i>	○			○	특산종
노랑딱새	<i>Ficedula mugimaki</i>				○	
큰유리새	<i>Cyanoptila cyanomelana</i>			○	○	
붉은머리오목눈이과	Panunidae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us</i>	○		○	○	
오목눈이과	Aegithalidae					
오목눈이	<i>Aegithalos caudatus</i>	○	○		○	
박새과	Paridae					
쇠박새	<i>Parus palustris</i>	○	○	○	○	
진박새	<i>Parus aster</i>	○	○	○	○	
곤줄박이	<i>Parus varius</i>	○	○	○	○	
박새	<i>Parus major</i>	○		○	○	
동고비과	Sittidae					
동고비	<i>Sitta europaea</i>	○	○		○	
나무발발이과	Certhiidae					
나무발발이	<i>Certhia familiaris</i>	○		○	○	
멧새과	Emberizidae					
멧새	<i>Emberiza cioides</i>	○	○		○	
붉은뺨멧새	<i>Emberiza fuscata</i>	○		○		
흰배멧새	<i>Emberiza tristrami</i>	○	○		○	
쑥새	<i>Emberiza rustica</i>	○	○		○	
노랑턱멧새	<i>Emberiza elegans</i>	○	○	○	○	
꼬까참새	<i>Emberiza rutila</i>	○			○	
족새	<i>Emberiza spodocephala</i>	○	○		○	
되새과	Fringillidae					
방울새	<i>Carduelis sinica ussuriensis</i>	○		○	○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s spinus</i>			○	○	
양진이	<i>Carpodacus roseus</i>	○			○	
긴꼬리홍양진이	<i>Uragus sibiricus</i>	○			○	
밀화부리	<i>Eophona migratoria</i>	○			○	특산종
솔жат새	<i>Loxia curvirostra japonica</i>	○				
참새과	Ploceidae					
참새	<i>Passer montanus</i>	○		○	○	

국 명	학 명	서 식 현 황				비 고
		'67	'84	'87	'08	
찌르레기과	Sturnidae					
찌르레기	<i>Sturnus cineraceus</i>			○	○	
피꼬리과	Oriolidae					
피꼬리	<i>Oriolus chinensis</i>	○	○	○	○	특산종
까마귀과	Corvidae					
어치	<i>Garrulus glandarius</i>	○	○	○	○	
물까치	<i>Cyanopica cyana</i>	○	○	○	○	
까치	<i>Pica pica</i>	○	○	○	○	
까마귀	<i>Corvus corone</i>	○	○		○	
큰부리까마귀	<i>Corvus macrorhynchos</i>	○			○	
잣까마귀	<i>Nucifraga caryocatactes</i>	○				

〈표2-3〉 해안가 및 석호지대 서식 조류현황

국 명	학 명	기수호(매호)			해 안	비 고
		6월	8월	12월		
아비과	Gavidae					
큰회색머리아비	<i>Gavia arctica viridigularis</i>				○	
논병아리과	Podicipedae					
논병아리	<i>Podiceps ruficollis</i>			○	○	
뿔논병아리	<i>Podiceps cristatus cristatus</i>				○	
검은목논병아리	<i>Podiceps nigricollis nigricollis</i>				○	
가마우지과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	<i>Phalacrocorax filamentosus</i>				○	
백로과	Ardeidae					
왜가리	<i>Ardea cinerea</i>	○	○	○	○	
중대백로	<i>Egretta alba modesta</i>	○	○	○		
쇠백로	<i>Egretta garzetta garzetta</i>	○	○	○		
황로	<i>Bubulcus ibis coromandus</i>	○				
오리과	Anatidae					
큰고니	<i>Cygnus cygnus</i>				○	천연, II급
알락오리	<i>Anas strepera strepera</i>				○	
쇠오리	<i>Anas crecca</i>			○	○	

국 명	학 명	기수호(매호)			해 안	비 고
		6월	8월	12월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	○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	○	○	○	
흰뺨오리	<i>Bucephala clangula</i>				○	
바다비오리	<i>Mergus serrator</i>				○	
고방오리	<i>Anas acuta</i>			○		
매과	Falconidae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		천연기념물
수리과	Accipitridae					
흰 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	위기종급
말뚝가리	<i>Buteo buteo</i>			○	○	위기종급
뜸부기과	Rallidae					
물닭	<i>Fulica atra atra</i>			○	○	
물떼새과	Charadriidae					
꼬마물떼새	<i>Charadrius dubius curonicus</i>	○	○			
도요새과	Scolopacidae					
세가락도요	<i>Crocethia alba</i>				○	
갈매기과	Laridae					
재갈매기	<i>Larus argentatus vegae</i>			○	○	
큰재갈매기	<i>Larus schistisagus</i>				○	
갈매기	<i>Larus canus kamtschatschensis</i>				○	
팽이갈매기	<i>Larus crassirostris</i>				○	
뺨꾸기과	Cuculidae					
뺨꾸기	<i>Cuculus canorus</i>	○	○			
딱따구리과	Picidae					
큰오색딱따구리	<i>Dendrocopus leucotos</i>				○	특산종
제비과	Hirundinidae					
제비	<i>Hirundo rustica gutturalis</i>	○				
할미새과	Motacillidae					
알락할미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	○			
딱새과	Muscicapidae					
개개비	<i>Acrocephalus arundinaceus orientalis</i>	○				
오목눈이과	Aegithalidae					
오목눈이	<i>Aegithalos caudatus</i>					



국 명	학 명	기수호(매호)			해 안	비 고
		6월	8월	12월		
박새과	Paridae		○			
쇠박새	<i>Parus palustris</i>		○			
진박새	<i>Parus aster</i>		○			
박새	<i>Parus major</i>		○			
되새과	Fringillidae					
방울새	<i>Carduelis sinica ussuriensis</i>		○			
참새과	Ploceidae					
참새	<i>Passer montanus</i>	○	○			
까마귀과	Corvidae					
까치	<i>Pica pica</i>	○	○			

#### 4) 양서·파충류

양서·파충류는 양서류 11종, 파충류 13종 등 총 24종류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멸종위기 I급 종인 먹구렁이(구렁이)와 멸종위기 II급 표지장지뱀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양서·파충류 대부분의 종류는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며, 남대천, 설악산 및 매호에서 조사된 결과를 요약하면 <표2-4>와 같다.

<표2-4> 양서·파충류 서식현황

국 명	학 명	남대천 1987	설악산 2008	매호 2008	비 고
도롱뇽과	Hynobiidae				
도롱뇽	<i>Hynobius leechii</i>	○	○		
꼬리치레도롱뇽	<i>Onychodactylus fischeri</i>	○	○		
무당개구리과	Bombinatoridae				
무당개구리	<i>Bombina orientalis</i>	○	○		
두꺼비과	Buфонidae				
두꺼비	<i>Bufo bufo gargarizans</i>	○	○		
물두꺼비	<i>Bufo stejnegeri</i>	○	○		
청개구리과	Hylidae				
청개구리	<i>Hyla japonica</i>	○	○	○	

국 명	학 명	남대천 1987	설악산 2008	매호 2008	비 고
개구리과	Ranidae				
한국산개구리	<i>Rana coreana</i>		○	○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	○		
계곡산개구리	<i>Rana huanrensis</i>		○		
참개구리	<i>Rana nigromaculata</i>	○	○	○	
옴개구리	<i>Rana rugosa</i>	○	○		
장지뱀과	Lacertidae				
아무르장지뱀	<i>Takydromus amurensis</i>	○	○		
표범장지뱀	<i>Eremias argus</i>		○		위기종II급
도마뱀과	Scincidae				
도마뱀	<i>Scincella vendenburghi</i>		○		
뱀과	Colubridae				
대륙유혈목이	<i>Amphiesma vibakari ruthveni</i>	○	○		
실뱀	<i>Coluber spinalis</i>	○			
먹구렁이	<i>Elaphe schrenckii</i>	○	○		위기종II급
누룩뱀	<i>Elaphe dione</i>	○	○		
무자치	<i>Elaphe rufodorsata</i>	○	○	○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i>	○	○		
유혈목이	<i>Rhobdophis tigrina tigrina</i>	○	○	○	
살모사과	Viperidae				
살모사	<i>Glyodius brevicaudus</i>	○	○		
까치살모사	<i>Glyodius saxatilis</i>	○	○		보호종
쇠살모사	<i>Glyodius ussuriensis</i>	○	○		

## 5) 어류

관내에는 남대천, 오색천 등 매우 양호한 하천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로부터 어족이 풍부한 고향으로 알려져 ‘어성전’ 등의 마을 이름이 유래되기도 하였다. 담수 어류상은 주로 남대천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1967년 ‘설악산 학술조사보고서’(문교부), 1987년도 ‘자연생태계 전국조사’(환경청), 2004~2005년에 걸쳐 조사된 김치홍 등의 학술논문인 ‘양양남대천의 어류상과 어류군집’(국립수산과학연구보고

18권: 112~118), 그리고 설악산 오색지구를 대상으로 2002~2008년까지 조사된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 1~7차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하천의 서식 어류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안의 어류상은 2008년 ‘동해안 석호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원주지방환경청) 보고서의 매호의 어류상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표2-5> 어류상 (남대천, 오색천, 매호)

국 명	학 명	남대천			오색지구	매호	비 고
		'67년	'87년	'06년			
칠성장어과	Petromyzontidae						
칠성장어	<i>Lampetra japonica</i>	○	○				
뱀장어과	Anguillidae						
뱀장어	<i>Anguilla japonica</i>	○					불확실
청어과	Clupeidae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	○			○	
잉어과	Cyprinidae						
잉어	<i>Cyprinus carpio</i>	○		○			
붕어	<i>Carassius auratus</i>	○		○		○	
떡붕어	<i>Carassius cuvieri</i>					○	
돌고기	<i>Pungtungia herzi</i>			○			
금강모치	<i>Rhynchocypris kumgangensis</i>			○	○		1급수어종
버들개	<i>Rhynchocypris steindachneri</i>	○	○	○	○		
피라미	<i>Zacco platypus</i>		○	○			
참갈겨니	<i>Zacco koreanus</i>			○			1급수어종
황어	<i>Tribolodon hakonensis</i>		○	○		○	
왜몰개	<i>Aphyocypris chinensis</i>					○	
미꾸리과	Cobitidae						
종개	<i>Orthrias nudus</i>	○	○	○	○		
쌀미꾸리	<i>Lefua costata</i>	○	○				
미꾸리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		○			
미꾸라지	<i>Misgurnus mizolepis</i>		○	○		○	
북방종개	<i>Cobitis melanoleuca</i>	○	○	○			
참종개	<i>Iksookimia koreensis</i>			○			
동자개과	Bagridae						

국 명	학 명	남대천			오색 지구	매 호	비 고
		'67년	'87년	'06년			
동자개	<i>Pseudobagrus fulvidraco</i>			○			
메기과	Siluridae						
메기	<i>Silurus asotus</i>			○			
미유기	<i>Silurus microdorsalis</i>	○	○	○		○	
통가리과	Amblycipitidae						
통가리	<i>Liobagrus andersoni</i>					○	
자가사리	<i>Liabagrus mediadiposalis</i>			○			
바다빙어과	○smeridae			-			
빙어	<i>Hypomesus olidus</i>		○	○		○	
은어	<i>Plecoglossus altivelis</i>	○	○	○			
뱅어과	Salangidae						
뱅어	<i>Salangichthys microdon</i>	○					
연어과	Salmonidae						
연어	<i>○nchorhynchus keta</i>		○	○			
산천어(시마연어)	<i>○nchorhynchus masou masou</i>		○	○		○	1급수어종
무지개송어	<i>○nchorhynchus mykiss</i>		○				
송어과	Mugilidae						
송어	<i>Mugil cephalus</i>	○	○	○			
가송어	<i>Liza haematocheila</i>					○	
송사리과	Adrianichthyidae						
송사리	<i>○ryzias latipes</i>	○		○		○	
큰가시고기과	Gasterosteidae						
큰가시고기	<i>Gasterosteus aculeatus</i>	○	○	○		○	
가시고기	<i>Pungitius sinensis</i>			○		○	
잔가시고기	<i>Punigitius kaibarae</i>			○		○	
도미과	Sparidae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					○	
살벤자리과	Teraponidae						
줄벤자리	<i>Rhyncopelates oxyrhynchus</i>					○	
꺼지과	Centropomidae						
꺼지	<i>Coreoperca herizi</i>		○	○	○		
망둑어과	Gobiidae						
밀어	<i>Rhinogobius brunneus</i>	○	○	○		○	

국 명	학 명	남대천			오색지구	매호	비 고
		'67년	'87년	'06년			
민물검둥망둑	<i>Tridentiger brevispinis</i>			○			
검둥망둑	<i>Tridentiger obscurus</i>		○	○		○	
꼭저구	<i>Chaenogobius urotaenius</i>	○	○	○		○	
날망둑	<i>Chaenogobius castaneus</i>		○	○		○	
흰발망둑	<i>Acanthogobius lactipes</i>			○		○	
문절망둑	<i>Acanthogobius flavimanus</i>					○	
민물두줄망둑	<i>Tridentiger bifasciatus</i>					○	
날개망둑	<i>Favonigobius gymnauchen</i>					○	
독중개과	Cottidae						
한독중개	<i>Cottus hangiongensis</i>	○	○				
가물치과	Channidae						
가물치	<i>Channa arga</i>					○	
참복과	Tetraodontidae						
복섬	<i>Takifugu niphobles</i>	○		○			
쥐노래미과	Hexagrammidae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			

### 3. 식물

#### 1) 식물상과 주요종

식물의 정확한 종수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설악산의 관속식물 전체 종수는 112과 484속 1,305종류(1,050종 215변종, 40품종)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아(홍문표, 2004: 설악산 삼림식생의 생태학적 연구) 관내 산지에도 이 정도의 식물 종류들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물상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설악산 지역의 식물상을 분석하면 양치식물 11과 26속 63종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고유식물은 2속(모데미풀속, 금강초롱속) 56종, 28변종, 9품종, 1교잡종 등 모두 94종류로 밝혀져 지리산의 107종류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



다. 또한, 1998년 환경부에서 자연보호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 6종과 보호 대상식물 52종 중 설악산에는 멸종위기식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법정보호 대상식물 10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산의 6종, 치악산의 3종에 비해 가장 많은 법정보호식 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한편 산림청에서 1997년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17종과 후보종 42종 중 설악산에는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9종과 후보종 3종 등 총 72종이 서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문표, 2004). 설악산을 포함 관내에 서식하는 관 속식물 주요종에 대하여는 <표2-6>과 같다.

<표2-6> 설악산 및 점봉산 일원에 서식하는 주요 식물

과 명	종명 및 중요사항
면마과	설설고사리(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주목과	설악눈주목(설악산 특산)
측백나무과	눈측백나무(동북아지역 특산종의 분포 남방 한계)
	눈향나무(고산성 희귀종)
소나무과	금강소나무(본 지역 특산품종)
사초과	애기감동사초(우리나라 특산종)
	지리대사초(우리나라 특산종의 분포 북방 한계)
	난사초(분포 남한지로서 희귀종)
	작은황새풀(분포 남한지로서 희귀종)
백합과	여우꼬리풀(우리나라 특산종)
	두메부추(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희귀종)
	산마늘(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희귀종)
	솔나리(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희귀종)
	말나리(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희귀종)
	큰연령초(북방계로 멸종 위기 선상에 놓여 있는 희귀종)
붓꽃과	꽃창포(생육지의 파피로서 사라져 가는 희귀종)
	노랑붓꽃(생육지의 소실로써 사라져 가는 희귀종)
	각시붓꽃(생육지의 소실로써 사라져 가는 희귀종)
	난장이붓꽃(고산성 특수 입지에서 자라는 분포 남방 한계 희귀종)
버드나무과	떡버들(우리나라 특산종)
	긴잎떡버들(우리나라 특산변종)
	호랑버들(북방계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종)

과 명	증명 및 중요사항
버드나무과	좀호랑버들(기본종보다 북쪽에서 자람)
	쪽버들(북방계로 설악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희귀종으로 취급)
	새양버들(북방계 종으로 분포 남방 한계이며 극히 드묾)
자작나무과	덤불오리나무(북방계 종으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석죽과	가는다리장구채(북방계 종으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끈끈이장구채(북방계 종으로 분포 남방 한계 지역으로 중요)
미나리아재비과	백부자(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한라돌쩌귀(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바이칼바람꽃(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홀아비바람꽃(본 지역의 특산종)
	요강나물(본 지역은 특산종)
	할미밀망(우리나라 특산종)
미나리아재비과	너도바람꽃(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나도바람꽃(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모데미풀(우리나라 특산속)
	연잎꿩의다리(우리나라 특산종)
	금꿩의다리(우리나라 특산변종)
	백작약(멸종 위기 식물)
매자나무과	매자나무(우리나라 특산종)
	한계령풀(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새모래덩굴과	털새모래덩굴(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십자화과	꽃황새냉이(우리나라 특산종)
	노랑장땀(희귀종)
범의귀과	참바위취(우리나라 특산종)
	툽바위취(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매화말발도리(우리나라 특산종)
	지라말발도리(우리나라 특산변종)
장미과	이노리나무(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희귀종)
	터리풀(우리나라 특산종)
	금강배나무(우리나라 특산변종의 분포 남방 한계)
	백운배나무(우리나라 특산변종)
	좁양지꽃(고산성 다년초이며 드묾)
	인가목(고산성 관목이며 드묾)

과 명	증명 및 중요사항
장미과	흰인가목(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붉은인가목(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설악아구장나무(본 지역 특산변종)
	나도양지꽃(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콩과	주엽나무(우리나라 특산종)
	풀싸리(우리나라 특산종)
	흰싸리(희귀품종)
	꽃나비나물(고산식물이며 분포가 좁음)
	광릉갈퀴(우리나라 특산종)
	노랑갈퀴(우리나라 특산종)
쥐손이풀과	산쥐손이(고산성 희귀식물)
	털쥐손이(고산성 희귀식물)
대극과	사람주나무(분포의 북한 자생지)
단풍나무과	털고로쇠(설악동 이외에서는 드뭄)
갈매나무과	털갈매나무(우리나라 특산종)
피나무과	염주나무(설악산 지역의 특산종)
	털피나무(우리나라 특산종)
	뽕잎피나무(우리나라 특산종)
제비꽃과	금강제비꽃(우리나라 특산종)
두릅나무과	지이오갈피(우리나라 특산종)
	땃두릅(우리나라 특산 고산식물)
산형과	참당귀(멸종 위기에 처한 종)
	등대시호(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개회향(환경의 파괴로 줄어들기 시작한 종류)
진달래과	홍월굴(북방 고산식물의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노랑만병초(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만병초(고산성 희귀식물)
	산앵도(우리나라 특산종)
	들쭉(고산식물, 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앵초과	금강봄맞이(설악산 이북에서 자라는 특산종)
물푸레나무과	만리화(외설악에 자라는 특산종)
용담과	큰용담(우리나라 특산종)
	칼잎용담(희귀종)

과 명	증명 및 중요사항
가지과	미치광이풀(멸종위기 식물)
꿀풀과	참배암차즈기(우리나라 특산종)
현삼과	만주송이풀(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새머느리밥풀(희귀 변종)
	구름송이풀(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봉래꼬리풀(우리나라 특산종)
	산꼬리풀(우리나라 특산종)
	큰산꼬리풀(우리나라 특산종)
	토현삼(우리나라 특산종)
박과	산외(희귀종)
꼭두서니과	갈퀴아재비(우리나라 특산종)
인동과	길마가지나무(우리나라 특산종)
	흰등피불나무(우리나라 특산종)
	병꽃나무(우리나라 특산종)
마타리과	금마타리(우리나라 특산종)
산토끼꽃과	체꽃(우리나라 특산종)
초롱꽃과	도라지모싯대(우리나라 특산종)
	흰도라지모싯대(우리나라 특산종)
	두메잔대(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흰두메잔대(본 지역 특산품종)
	금강초롱(우리나라 특산속)
	흰금강초롱
	설악금강초롱(설악산 특산품종)
	오색금강초롱
	붉은금강초롱
국화과	정영영경귀(우리나라 특산종)
	숨다리(설악산 특산종)
	금강분취(우리나라 특산종)
	긴잎금강분취(우리나라 특산변종)
	당분취(우리나라 특산종)
	두메분취(희귀종)
	덤불취(북방계로 분포 남방 한계지역으로 중요)
	국화방망이(우리나라 특산종)

## 2) 법정보호 식물

남설악 지구 및 점봉산 등 우수한 환경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동물, 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이중 이동성이 없는 식물의 법정보호종은 10종류가 서식하며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가시오갈피나무(두릅나무과)

*Eleutherococcus senticosus* (Rupr. et Maxim.) Maxim. (Araliaceae)

가시오갈피나무는 북방계식물로 농가에서는 중국, 러시아 및 일본산을 재배하기도 하며, 약용식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면 무차별적으로 채취, 남별로 인하여 국내 여러 지역에서 이미 절멸되고 있는 종류이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6년 보호식물로 선정된 바 있고,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2) 기생꽃(앵초과)

*Trientalis europaea* L. (Primulaceae)

북방계 고산식물로서 국내에서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분포지 중 설악산을 제외하고는 개체수가 많지 않으며, 모두 탐방로 근처에 분포하여 훼손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희귀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3) 갯깁이풀(매자나무과)

*Jeffersonia dubia* (Maxim.) Benth. et Hook. fil. ex Baker et S. Moore (Berberidaceae)

제주도, 남부 도서지역 및 울릉도를 제외한 비교적 전국 산지의 고도가 낮은 지역의



산지 수림 내에 다수의 개체가 군락을 이루어 생육하며, 화려한 꽃 때문에 불법 채취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멸종위기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4) 노랑만병초(진달래과)

*Rhododendron aureum* Georgi (Ericaceae)

북방계식물로 설악산을 포함한 강원도 북부지역에만 한정하여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설악산이 분포 남방한계선에 해당된다. 현재 설악산 내에 일부 자생지가 잔존하고 있으나 자연도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종류이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5) 솔나리(백합과)

*Lilium cernuum* Kom. (Liliaceae)

북방계식물로 멸종위기야생식물 중 분포역이 비교적 넓은 분류군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1,000m 이상의 산지 능선부의 수림 하에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며 서식한다. 원예자원으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남획되어 야생상태에서는 절멸 위기에 놓여있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89년 환경청 특정야생식물,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희귀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6) 연잎쟁의다리(미나리아재비과)

*Thalictrum coreanum* H. Lé'v. (Ranunculaceae)

북방계 한국특산식물로 주로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지만 충청북도의 북부와 경상북도의 북부까지도 남하하여 분포한다. 설악산 지역에서 삼지구엽초로 오인하여 무분별 채

취된 적이 있으며, 잎이 방패모양으로 연꽃잎을 닮았고, 꽃도 아름다운 편이어서 원예 자원으로서 가치도 높은 종류이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감소 추세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7) 자주솜대(백합과)

*Smilacina bicolor* Nakai (Liliaceae)

대부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북방계 한국특산식물로 지리산 반야봉에서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신종으로 발표된 이후 국내 여러 높은 산지의 능선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설악산에서는 대규모 군락이 아직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이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한국특산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8) 털복주머니란(난초과)

*Cypripedium guttatum* Sw. var. *koreanum* Nakai (Orchidaceae)

남한에서 자생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식물로서 처음에 발견되었던 함백산의 자생지는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과거에 설악산 내에서 수 개체가 발견된 바 있으나, 현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희귀식물로 알려져 있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9) 한계령풀(매자나무과)

*Gymnospermium microrhynchum* (S. Moore) Takht. (Berberidaceae)

보통 큰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덩이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생지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절멸될 위험은 비교적 적은 종류이다. 그러나 다른 매자나무과 식물들

처럼 세계적인 희귀식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관리 법정식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종류이다.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1989년 환경청 특정야생식물,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희귀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 (10) 홍월굴(진달래과)

*Arctous ruber* (Rehder et E. H. Wilson) Nakai (Ericaceae)

대표적인 북방계식물로서 현재 소수 개체만 설악산 정상부에 자라고 있는 종류로 알려져 있으며,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채취·남획될 위험이 크며 설악산이 본종의 분포 남방한계선에 해당된다.

[법정보호종 지정 현황] 1989년 환경청 특정야생식물, 1993년 환경처 특정야생식물(희귀종), 1998년 환경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고, 현재 환경부(2005년)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집필 : 김형섭

### Ⅲ. 남대천

#### 1. 개요

양양남대천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잇는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본류와 지류로 나뉘어 흐르는 물줄기로 양양서문지역에서 합류 동해로 유입되는 청정하천이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 문명을 일컬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기록하였듯이 양양은 “남대천의 선물이다.”라 할 수 있다. 일찍이 20~70만 년 전에 선사시대 문화가 남대천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고고학계에 의해 발견·발굴된 구석기시대유물과 신석기유물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현재까지 수질 1등급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대천자체가 경동지괴(傾動地塊)의 지형적 영향으로 유속이 빠르며, 환경적으로는 강의 주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도 중요요인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양군민의 남대천 보전의지가 여타 시·군의 그것보다도 열정적으로 강한 점이라 하겠다.

남대천의 본천과 후천의 실태를 보면, 본천은 유로연장 54km, 유역면적567.3km<sup>2</sup>이며 동해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하천 중 가장 크고 길며 오대산(1,565m), 두로봉(1,422m)에서 발원하여 부연동·범수치어성전을 거쳐 면옥치천(5.6km)·어성전천(8.6km)과 합류한다. 양양군에 약 18,000톤/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후천은 유정이 34.2km로 구룡령에서 발원하



남대천 전경

여 황이·서림리를 거치며 미천골·벽실골·계류와 합류, 송천을 지나 점봉산(1,426m), 오색령(920m)에서 발원한 오색천(18.7km)과 합류한다. 수상리에서 장승천(8.5km)과 만나 임천리·서문리에 이르고 거마천(9.6km)과 합류, 남대천 본류에 유입한다. 유역면적은 242.1km<sup>2</sup>이다.

남대천의 1일 평균 유수량은 30만톤 대이며 갈수기 때에는 10만톤 대의 유량이 흐르고, 풍수기 때에는 700만~800만톤 대의 유량이 흐르나, 2002년도 태풍 루사 시에는 1억 톤이 넘는 물이 흘러 범람함으로써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수온은 여름철에 20℃를 상회하고 있어 계류와 하천에 많은 피서객들을 불러들이고, 겨울철에는 대부분 결빙되나 하구 중심부는 잘 얼지 않고 삼각주와 사구가 발달하여 갈매기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볼 때 전수역이 1급수로 나타나나 갈수기 때 하류는 2급수로 떨어진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으로 보면 중·하류 수역이 2급수로 나타나고 갈수기 때에는 3급수로 떨어진다. 부영양화의 주원인이 되는 총인(TP)과 총질소(TN)는 3·4급수를 넘나들고 있어 점차적으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중 생물은 상류는 날도래류가 우점종을 이루고, 하류는 깔따구류가 우점종을 이룬다. 후천 중류는 다슬기가 우점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양양양수발전소에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 하류에 다슬기를 대량 살포한 결과이다.

어류는 1·2차 담수어를 비롯하여 주연성 어류까지 총 20과 44종이 출현한다. 봄철에는 황어가 소상하고, 뒤 이어 은어, 밀어, 꾸구리, 꺾저구, 독중개, 송어, 연어가 연이어 가을까지 소상하여 낚시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여름 피서철에는 남대천 강변에 천렵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한다.

황어는 산란 할 때 자갈 여울에 떼로 모여들어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을 남기기도 한다.

특히 연어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 1980년도부터 증식사업을 실시하여오고 있는데, 남대천의 친어 포획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동해안 전체 하천의 90%를 상회하며 연어 수확량을 높여가고 있다.





## 2. 남대천의 역사문화적 배경

### 1) 남대천의 역사성 관찰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가운데 가장 길다. 그러므로 큰 하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大’자의 고대어 ‘훈’을 사용하여 속칭 ‘한수(漢水)’, ‘한천(漢川)’, ‘오백한수’ 등으로 불렸다. 《현산지》에는 ‘한수’라 칭하고 소위 남대천이라 부른다 하였다. 조선 숙종 26년(1700년)에 부사 남치훈이 창건하고 채팽윤이 현판 글씨를 쓴 동쪽 성문의 이름이 ‘한수루’(漢水樓)였다.

양양지역에는 19개의 하천이 있으며 그 길이는 무려 160.69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대천은 동해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하천 가운데 가장 길고 크다. 하루 평균 유하량이 30만t/d 정도로 계절에 따라 소상하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맑은 물 1급수가 흐르는 청정하천이다. 그러므로 양양 남대천은 전국 제일의 연어회귀 하천으로 1984년부터 양양내수면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백현 이경석(李景奭, 1595~1671년)이 양양 태평루 상량문에 쓴 글에는 “관동도호 대관령 좌측의 요충지로 하늘은 설악산에 걸려 있으며, 상서로운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다. 육지는 푸른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동해신묘 제단의 향불이 높이 피어오른다. 시냇물은 굽이굽이 오대산에서 흘러오고, 섬들이 휘감고 있으며, 사면에 푸른 대나무가 빙 둘러 자라고 있다. 아마도 하늘과 땅의 청숙(淸淑)한 기운이 이곳을 감싸 지키고 있는 듯하다.(관동도호령좌요충천지설악서무요어강만지접창명향화승어단유천류굴곡근벽옥어오대도세영회환록균어사면개건곤청숙지기차언 : 關東都護嶺左要衝天地雪嶽瑞霧繞於崗巒地接滄溟香火崇於壇壝川流屈曲根碧玉於五臺島勢縈廻環祿筠於四面盖乾坤淸淑之氣此焉)”고 하였다. 시냇물 굽이굽이 양양을 감싸고 흐르는 이곳에 대한 지리지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대천은 부 남쪽 2리에 있다. 강릉부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라령의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신증동국여지승람)

“남대천은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리 거리에 있으며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소동라령의 물과 합쳐 부를 경유하여 바다에 들어간다. 속칭 한천이라 한다.”(여지도서)

“남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가 소동라령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합쳐 읍 남쪽을 지나 동해에 든다.”(대동지지)

“남대천 관문에서 남쪽 2리 거리에 있다.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라수와 함께 합쳐서 부를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 속칭 한수(漢水)라 말하기도 한다.”(관동지)

“관문으로부터 남쪽 2리 거리에 오대산에서 나오는 물과 소동라령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 바다에 드는데 속칭 한천(漢川)이라고 한다.”(관동읍지)

“한수(漢水), 부 남쪽 수 백무(畝) 거리에 있는데 소위 남대천이다. 겨울에는 다리를 이용하고, 여름에는 배를 사용한다.”(양주읍지)

“일명 한수라고 하며, 군의 남쪽에 있다. 수원(水源)은 강릉군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라수(所冬羅水)와 더불어 합류하여 군을 경유하여 바다에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다리를 이용하고, 여름에는 배를 이용한다.”(강원도지)

“일명 한수(一名 漢水), 오대산과 오색령, 구룡령에서 흘러나리는 하천으로 수류(水流) 일백사십리의 길이를 가진 양양 제일의 장류(長流)로 본군 유수(有數)의 도평 평야(島坪 平野 : 三角洲)를 관통하고 있다.(향토지, 양양군교육청, 1968)

## 2) 남대천의 문화적 배경

### (1) 문학과 경관

『여지도서』(1760년)에 의하면 “문학을 숭상하고 예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강희맹(1424~1483년)의 시에는 “큰 들녘 동쪽 끝에 바다 해를 보고, 긴 숲 일면에 강 하늘이 보인다.”고 하였다. 1397년 하륜(河崐)과 함께 경제육편을 편찬한 하조대 명명의



주인공 조준(趙浚, 1346~1405년)의 시에는 “새는 나무에 해 그림자 세 발 남았을 때 돌아오고, 사람은 어촌에 끼인 한 줄기 연기 속에서 말하네”라 하였다. 이와 같이 동해와 남대천을 끼고 있는 양양은 문학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김극기의 시에는 “만 가지 풍경이 시(詩)를 따라 새롭다. 산성의 달은 단풍나무 위에 가렸고, 물가 정자는 구름이 마름 가에 드리웠다.”고 하였다.

남대천은 양양 팔경에 첫째로 들어가는데, 대청봉, 오색령, 오색주전골, 하조대, 죽도정, 양양남애항, 낙산사 의상대 등이다. 남대천 상류인 어성천에는 어성 십경(漁城十景)이 전한다. 팔경에 이경을 더한 십경은 남대천 경관을 말하기도 한다. 산은 성처럼 둘러싸고, 물 깊어 고기 잡을 수 있다는 뜻인 ‘산환여성 수심가어(山環如城 水深可漁)’에서 나온 말로 이에 따라 마을명을 어성전(漁城田)이라고 했다. 또는 물고기 밭을 이를 정도로 많아서 이를 성(城)을 써서 어성전(漁城田)이라고도 한다. 어성십경은 다음과 같다.<sup>1)</sup> 이 가운데 냇가 바위들의 아름다움, 낚시하며 듣는 피리소리, 맑은 물속에서 떼 지어 노는 물고기를 보는 세 가지 경치가 십경에 들어갈 정도다.

제1경 화등낙조(花登落照)	진달래가 한 창일 때 낙조의 아름다움
제2경 운문천석(雲門川石)	운문 냇가에 솟은 바위들의 아름다움
제3경 노봉명월(爐峰明月)	노봉 산위에 비치는 저녁달의 아름다움
제4경 모암어적(帽巖漁笛)	모암에 앉아 낚시하며 듣는 피리소리
제5경 고적부운(高積浮雲)	높은 산 겹겹이 쌓인 구름의 아름다움
제6경 내천유어(柵川遊魚)	맑은 물속에서 떼 지어 노는 물고기들
제7경 은담폭포(銀潭瀑布)	마을 서북방에 있는 은빛 나는 폭포물
제8경 용소명탄(龍沼鳴灘)	용소 주변에 흐르는 물소리의 아름다움
제9경 산사모종(山寺暮鐘)	명주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제10경 오현연수(烏峴煙樹)	오현으로 퍼져 나가는 노을 물든 풍경

## (2) 생태와 어로

『관동읍지』(1871년) 양양부에 의하면 연어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 선고(膳庫)는 반찬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양양부에서 춘추 등의 시기에 관급으로 사용하는 어가(魚價)에 대한 자료다. 연어는 한 마리당 2전씩 하였고, 연어알도 한 부당 2전씩이며 9월 25일부터 동지까지 올랐다. 따라서 이 시기가 연어포획기임을 알 수 있다.

연어(鱒魚)의 대략 85마리 가격은 17냥이다. [매 마리가 2전씩이고 매일 1마리씩이다]. 연어알[鱒魚卵]은 대략 23마리 분량의 가격은 4냥 6전이다[매 부(분량)는 2전씩이며 매일 반부씩 9월 일부터 동지일까지다.]

Item (Fish Name)	Price
鱒魚 (Trout)	每尾二錢
鱒魚卵 (Trout Eggs)	每部二錢
黃魚 (Yellow Perch)	每斤八錢
松魚 (Mudminnow)	每斤五錢
銀口魚 (Silvermouth)	每斤四錢
其他魚類 (Other Fish)	Various prices listed in columns

자료 : 『관동읍지』, 1871, 양양부

『현산지』에 의하면 진공(進貢) 품목으로 민물에서 나는 은구어(銀口魚), 생연어(生鱒魚), 송어(松魚)가 있었다. 진공으로 경공(京貢)은 서울의 중앙 관아에 공물로 바치는 일이나 그 공물을 말한다. 대동법이 실시되어 각종의 지방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을 폐지하고 전결(田結)을 단위로 쌀, 무명 등을 받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물산조에는 민물고기로서 송어, 연어(鱒魚), 은구어, 황어(黃魚)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관동지』진공물목에도 연어, 연어알, 송어가 들어 있다. 양양 남대천에는 3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일생동안 민물에서만 사는 순수담수어(1차 담수어)로 바다에 내려가지 않는 종, 바닷물과 민물을 드나드는 종인 2차 담수어가 있다. 2차 담수어에는 일생동안 대부분 민물에서 살면서 생식시기에만 바다로 내려가는 강해성 어류와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에서 산란하는 소하성 어류가 있다. 또 순수한 해산어이지만 어느 시기에 영양물질이 많은 담수 구역으로 침입하는 주연성 어류가 있다.



- ◇ 1차담수어 10종 ① 잉어과 : 버들개 · 피라미 · 잉어 · 붕어 ② 미꾸리과 : 미꾸리 · 북방  
종개 · 종개 · 쌀미꾸리 ③ 메기과 : 미유기 ④ 송사리과 : 송사리,
- ◇ 2차담수어 15종 ① 뱀장어과 : 뱀장어 ② 칠성장어과 : 칠성장어 ③ 연어과 : 송어 · 산  
천어 · 연어 · 황어 · 무지개송어 · 은연어 ④ 농어과 : 농어 · 농어 · 농어 · 농어 · 농어 ⑤ 은어과 : 은어 ⑥ 바  
다빙어과 : 빙어 ⑦ 뱀어과 : 뱀어 ⑧ 큰가시고기과 : 큰가시고기 · 가시고기
- ◇ 주연성어류 10종 ① 학공치과 : 학공치 ② 독종개과 : 한독종개 ③ 송어과 : 송어 ④  
망둥어과 : 검정망둥 · 밀어 · 날개망둥 · 꼭저구 · 날망둥 ⑤ 참복과 : 복섬 ⑥ 전어과  
: 전어

### (3) 천렵과 민속

『여지도서』에 의하면 양양인은 유연(遊宴)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즉 놀기 좋아하고 잔치 베풀기를 좋아하여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천렵놀이를 하였다. 뚜거리 잡이, 은어잡이, 입쌀고기(밀어)잡이, 연어잡이, 황어잡이, 민물게잡이, 남대천에 용왕 제 지내기, 정월대보름날 어부습하기 등 다양한 민속이 전한다.

## 3. 남대천의 지리학적 가치

### 1) 사행천(蛇行川)

구불구불 흰 상태로 흐르는 지형 또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곡류(曲流)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장년기 이후의 하천, 즉 경사가 완만하고 수량이 많아질 때 수로가 굽어있는 곳에서는 물의 흐름이 바깥쪽이 더 빠르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물의 흐름이 바깥쪽을 침식시키고 깎인 퇴적물은 물의 흐름이 느린 안쪽에 쌓이게 되어 굴곡은 더욱 심해진다. 곡류가 더욱 심해지면 어느 순간 휘어지는 부분에 지름길이 생기면서 이전의 하천을 버리고 새로운 물의 흐름을 만드는데 여기서 버려진 하천의 일부는 호수가 되어 우각호(牛角湖)라 한다.

남대천은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행천을 이루며 하류를 흐르며 크고 작은 우각호를 만들어 낸다. 서면 내현리 일원을 중심으로 사행천이 발달해 있다.

## 2) 배후습지

범람원이나 삼각주에 발달한 자연제방의 배후에 생긴 습지를 말하며, 이곳에는 홍수 때에 물이 괴면 배수가 좋지 않아 높이 습지를 형성한다. 하천은 홍수 때에 유로(流路)의 양쪽에 마찰에 의하여 유속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모래나 흙을 그 양안에 좁고 긴 제방으로 퇴적시켜 자연제방을 형성한다. 그 바깥쪽에는 점토·실트(silt)·이탄(泥炭) 등과 같은 세립물질로 된 배수가 잘 안 되는 저평(低平)한 땅이 생긴다.

이곳에는 홍수 때에 물이 괴면 배수가 좋지 않으므로 높이 습지를 형성하며 모기 등이 번식하게 된다. 특히 홍수 때에는 자연제방이 끊어져 물이 괴면 장시간에 걸쳐 관수(冠水)하게 된다. 남대천 하구 송이조각공원 인근지역은 자연제방 지역에서는 고건(高乾)하여 취락·밭[뽕밭·과수원] 등이 생기고, 배후습지는 논으로 조성된다.

## 3) 삼각주(三角洲)

물의 흐름이 빠른 하천의 상류나 중류에서는 퇴적물이 쉽게 운반되지만 점점 하류에 이룰수록 속도가 줄어들어 물이 토사를 충분히 머금지 못하게 된다. 특히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 바닷물의 염분이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미세물질을 가라앉히므로 평평한 퇴적물이 바다에 거의 잠길 정도로



남대천 하구 삼각주

퇴적지형이 형성된다. 남대천의 물이 바다에 닿는 경우 끝에서 여러 갈래의 작은 강으로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며 미로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며 퍼진다. 이렇게 퇴적된 지형

을 하늘에서 본 모양이 삼각형에 가까워 삼각주라고 불려진다.

동해안의 경우 퇴적물이 풍부한 하천이 적고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기 때문에 삼각주가 발달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남대천은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사진은 낙산대교에서 남대천 상류로 바라본 삼각주의 지형이다.

#### 4) 범람원(汎濫原)

범람원은 하천 중·하류에서 홍수시 운반 물질이 하천 양안에 퇴적되어 형성된 낮고 평탄한 지형을 말하며 홍합지(洪涵地)라고도 한다. 범람원은 자연 제방, 배후 습지, 우각호 등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평야의 하천 양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구성 물질은 고운 모래, 실트(silt), 진흙(clay)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 형태는 자유 곡류천을 이룬다. 또한, 하천 양쪽에 분포하는 낮은 땅으로서, 하도(河道)가 범람 때마다 변화함으로써 넓은 범람원을 형성한다. 장년기 이후의 지형에서 특히 넓어지고, 그 안에 자연제방이나 배후습지(背後濕地)가 생기며 강은 자유롭게 곡류한다. 충적평야(沖積平野)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지로 이용 된다.

### 4. 생태계

#### 1) 수질

2006년부터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에 저수가 시작되면서 호우로 인한 상류의 흙탕물 유입 및 양수발전으로 인한 하부지내 담수지 교란으로 하부댐에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항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부댐에 도달하여 하부댐이 대형침사지 역할로 흙탕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부댐 수질은 중충부의 부유물질(SS)이 호소기준 “매우 좋음”보다 낮은 “약간 좋음”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부담 하루 하천(용소골)바닥 자갈에 부유성물질들이 퇴적되어 하천생태계 기능이 상실되어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에 양양양수댐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07년도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로 양수발전소 수질오염저감대책 사업을 2009~2010년(2년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표3-1〉 하천수질분석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부 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균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 ~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 ~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 ~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 ~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 ~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 ~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 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 수은(Hg), 시안(CN), 폴리크로리네이트디비페닐(PCB), 유기인 ○ 중금속 기준 : 카드뮴(Cd) : 0.005 이하, 비소(As) : 0.05이하, 납(Pb) : 0.05이하 6가크롬(Cr6+) 0.05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벤젠 : 0.01 이하, 클로로포름 :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안티몬 : 0.02 이하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 (1) 남대천 주요구간 2009년 수질분석 현황

〈표3-2〉 BOD (단위 : mg/l )

지점 월별	주관기관	지정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천교	보건환경	국가지정	0.8	0.5	0.9	0.5	0.3	0.3	0.3	0.3	0.5	0.3	0.3	0.4
양양교	원주지방청	국가지정	0.4	0.5	0.3	0.5	0.4	0.4	0.5	0.5	0.8	0.5	1.8	0.3
낙산대교	양양군	양양군지정	-	0.6	-	0.7	-	1	-	0.9	-	0.4	-	0.6

〈표3-3〉 SS (단위 : mg/l )

지점 월별	주관기관	지정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천교	보건환경	국가지정	0.8	0.2	1.4	1.2	3.4	1.8	6.6	14.6	0.2	0.4	0.8	1.4
양양교	원주지방청	국가지정	0.9	1.8	0.7	0.6	9.1	2.2	10.8	0.9	1.1	0.5	3.9	0.2
낙산대교	양양군	양양군지정	-	2.2	-	2.0	-	3.8	-	5.0	-	1.2	-	1

〈표3-4〉 T-P (단위 : mg/l )

지점 월별	주관기관	지정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천교	보건환경	국가지정	0.01	0.01	0.01	0.02	0.02	0.01	0	0.03	0.01	0.01	0.01	0.01
양양교	원주지방청	국가지정	0.01	0.01	0.01	0.01	0	0.01	0.04	0.01	0.02	0	0.01	0.01
낙산대교	양양군	양양군지정	-	0.04	-	0.02	-	0.02	-	0.06	-	0	-	0.07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양양 남대천의 수질분석현황은 상류·하류지역의 평균 하천수질농도가 하천수질등급상 매우 좋음(I a)으로 유지되고 있는 청정하천이다.

## 2) 서식 어류

(1) 어류의 생태<sup>2)</sup>

담수에 사는 물고기를 통틀어 담수어, 또는 민물고기라 하며 담수어에는 일생동안 민물에서만 사는 순수담수어(1차 담수어)로 바다에 내려가지 않는 종과, 바닷물과 민물에 드나드는 종인 2차 담수어가 있다. 다시 2차 담수어에는 일생 동안의 대부분을 민물에서



살면서 생식 시기에만 바다로 내려가는 강해성(降海性) 어류와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에서 산란을 하는 소하성(溯河性) 어류가 있다. 또 순수한 해산어이지만 어느 시기에는 영양물질이 많은 담수 구역에 침입하는 종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연성(周緣性) 어류라 한다. 양양남대천에는 총 20과 44종의 어류가 출현하고 있으며 그 생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칠성장어 (칠성장어과)** 원구류로 입은 빨판이고 턱이 없으며 콧구멍은 하나이고 아가미구멍은 7쌍이다. 가슴, 배지느러미가 없고 등 쪽은 담청색을 띤 흑색이다. 바다에서 성장한 뒤 5~6월에 강으로 올라와서 여름에 산란하며 4년간 유생으로 있다가 바다로 내려가 2년간 자란다. 비타민 A가 다량으로 있고 칠성장어, 칠성뱀장어, 칠성고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밤에 섭식활동을 하며 전장 40~50cm까지 자란다.

○ **뱀장어(뱀장어과)** 몸은 가늘고 원통형이며 배지느러미는 없고 등, 꼬리, 뒷지느러미는 연결되고 등은 암갈색, 배는 은백색으로 온난한 물을 좋아한다. 식성은 육식성으로 낮에는 돌밑, 굴속에 숨고 주로 밤에 나와 섭식활동을 한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 대만의 동부, 필리핀의 북부 등지로 내려가 산란을 하며 부화된 유생은 실뱀장어가 되어 강에 오르는데 장어라 부르기도 한다. 전장 50~60cm까지 자란다.

○ **전어(전어과)** 옆면이 평편하며 주둥이 윗턱이 아래턱의 끝보다 조금 나와 있다. 등은 푸른빛이 짙으며 갈색의 반점들로 이루어진 세로줄이 여러 개 있고 등지느러미 뒤 끝의 가시가 유난히 길다. 잔가시가 많으나 가을 전어는 맛이 있으며 산란기는 3월 중순에서 6월경이다. 근해성 물고기로서 10~3월에 기수역에 침입하며 전장 15~31cm까지 자란다.

○ **잉어(잉어과)** 입수염이 두 쌍 있으며 비늘이 크고 등은 녹색을 띤 암갈색이고 옆면과 배는 황갈색이며 하천의 중류와 하류의 잡초가 많고 바닥에 진흙이 깔린 깊은 곳에 산다. 잡식성이고 먹이를 찾아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 흙탕물을 지우기도 한다. 산란기는 수온이 18~22℃ 되는 5~6월경이며 35~100cm까지 자란다.

- 붕어(잉어과) 입수염이 없으며 몸의 색은 사는 곳에 따라 흐르는 물에서는 청갈색, 괴인 물에서는 황갈색이며 잡식성이고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산란기는 수온 18℃ 내외가 되는 4~7월이며 5~20cm까지 자란다.
  
- 황어(잉어과) 등은 암청갈색이거나 황갈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며 수컷은 3줄의 혼인색을 띄고 잡식성이다. 4여 년 동안 바다에서 보내다 수온이 11~17℃ 되는 3~4월에 강물에 올라와 자갈밭 여울에 산란을 하고 일생을 마친다. 바다에 내려가지 않고 강물에서만 사는 것도 있다. 전장 10~45cm까지 자란다.
  
- 버들개(잉어과) 몸은 가늘고 길며 황갈색이 바탕을 이루나 등쪽은 암갈색이며 배쪽은 옅다. 산란은 5~6월이고 산소 함량이 풍부한 산간 계류 맑은 물에 사는 잡식성으로 버들치, 버들가지와는 다른 종이다. 전장 10~15cm까지 자란다.
  
- 버들가지(잉어과) 몸은 비교적 긴 편이며 짙은 갈색이고 배쪽은 옅다. 눈이 크고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는 기점이 거의 없으며 꼬리자루가 짧고 꼬리지느러미가 얇게 갈라져 있다. 하천 상류 맑은 물에 서식하며 잡식성이고 산란기는 4~5월이며 7~12cm까지 자란다.
  
- 금강모치(잉어과) 몸은 비교적 가늘고 길며 주둥이는 뾰족하고 눈은 큰 편이다. 배지느러미의 기점은 등지느러미보다 훨씬 앞쪽에 있다. 등은 황갈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며 몸의 옆면에 두 줄의 주황색 세로띠가 있다. 물이 많고 맑으며 수온이 낮은 산간 계류의 자갈과 바위가 있는 곳에 서식하며 수서 곤충이나 소형 갑각류를 주식으로 한다. 산란기는 4~8월이며 한반도 고유어종으로 10~12cm까지 자란다.
  
- 피라미(잉어과) 몸은 은백색, 등은 청갈색이며 옆면에는 불규칙한 담홍색 가로무늬가 있고 붉은 혼인색을 띤다. 하천의 중·하류에 우점종으로 서식하며 부착조류를 주식으로 하지만 잡식성으로 산란기는 5~8월이다. 개리, 불거지, 부러지, 불개리

등의 방언이 있으며 수질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영서에서 유입된 종으로 전장 8~11cm까지 자란다,

○ **돌고기(잉어과)** 몸이 길고 앞부분은 옆으로 납작하며 몸통은 원통형이다. 입가에 한 쌍의 입수염이 있으며 옆줄은 중앙부에 직선으로 나 있다. 등쪽은 암갈색이고 배 쪽은 옅다. 물이 맑고 바닥에 암석이 깔린 하천의 유속이 느린 곳에 서식하며 부착 조류, 수서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잡식성이다. 산란기는 5~6월이며 돌 밑이나 바위 틈에 산란하며 10~15cm까지 자란다.

○ **갈겨니(잉어과)**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길며 날씬하다. 입수염은 없고 머리와 눈이 크고 뒷지느러미는 길다 등쪽은 녹갈색이고 배 쪽은 은백색이며 옆면에는 암색 세로띠가 있다. 수컷은 혼인색을 띄며 머리 밑은 적갈색이고 배쪽은 녹황색, 또는 주황색으로 화려하며 산란기는 6~8월이다. 물이 깨끗한 중·상류에서 즐겨 살며 수면에 낙하하는 육상곤충이나 수서곤충류를 주식으로 하며 15~18cm까지 자란다.

○ **참갈겨니(잉어과)**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길며 주둥이는 뭉툭하다. 눈은 갈겨니 보다 크며 갈겨니는 눈 상부에 붉은 반점이 있는 반면 참갈겨니는 없다. 갈겨니는 등지느러미에 검은 반점이 하나가 나타나지만 참갈겨니는 검은 반점 위에 노란빛의 흰 반점이 나타난다. 등지느러미 앞에는 밝은 갈색의 줄이 머리 가까이까지 나 있다. 중·상류 지역의 물살이 느린 맑은 물에 서식하며 수서 곤충, 부착 조류 등을 먹고 살며 산란기는 6~8월이고 15~20cm까지 자란다.

○ **참종개(기름종개과)**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며 입은 작고 주둥이 아래쪽에 있으며 입수염은 짧은 것이 3쌍이 있다. 눈 밑에는 끝이 둘로 갈라지고 곧게 세울 수 있는 가시가 있다. 수컷의 가슴지느러미는 뾰족하고 암컷은 둥글다. 몸의 바탕은 담황색으로 등 쪽은 짙고 배쪽은 백색에 가깝다. 몸의 옆면에 역삼각형의 암갈색 반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있고 하천 중·상류의 유속이 빠르고 물이 맑으며 자갈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 잡식성이지만 주로 수서 곤충류를 주식으로 하며 산란기는 5~7월경이고 7~11cm까지 자란다.

○ 북방종개(기름종개과) 몸은 길고 원통형이며 뒤로 갈수록 가늘어 진다. 참종개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입은 작고 말굽모양이다. 3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통 옆면 가운데에 큰 검은 반점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몸의 바탕은 옅은 노란색이고 등은 짙고 배는 연하다. 하천의 중·하류의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서 살며 잡식성이고 산란기는 4~6월이며 6~7cm까지 자란다. 강원도 중부 이북에 분포한다.

○ 종개(기름종개과) 몸은 가늘고 길며 뒤 쪽은 옆으로 납작하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입수염 3쌍이 윗입술에 붙어 있다. 옆줄은 중앙부에 곧게 나 있으며 몸은 적황갈색 바탕에 등쪽은 암갈색 반점이 있다. 하천의 모래와 자갈이 깔려있는 여울의 돌 밑에서 수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산다. 산란기는 4~5월이고 10~22cm까지 자란다.

○ 줄종(기름종개과)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한 막대모양이다.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고 입수염은 3쌍이다. 눈 아래에는 한 쌍의 가시가 있고 등 가운데에는 삼각형 모양의 등지느러미가 있다. 몸은 연노랑색 바탕에 등은 진한 갈색이고 옆에는 3개의 검은 줄무늬가 있다. 하천의 중류 물이 맑은 곳의 모래바닥에 살며 주로 수서 곤충을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6~8월이며 한국에만 분포하는 고유어종으로 전장 6~10cm까지 자란다.

○ 빙어(바다빙어과)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고 반투명하다. 등쪽은 황갈색, 또는 암청회색이며 옆면에는 폭넓은 은백색 세로줄이 있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온몸이 흑갈색으로 변한다. 연안이나 하구에 주로 살고 있으나 육봉형(陸封型: 바닷물에 주로 사는 물고기가 민물에 적응하여 대대로 사는 것)이 되기도 한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하고 산란기는 2~4월이며 강에 올라 물풀에 알을 낳는다. 전장 10~13cm까지 자란다.

- 뱀어(바다빙어과) 몸 빛깔은 흰색이며 반투명하고 배를 따라 작고 검은 점이 흩어져 있다. 해안가 가까운 민물이나 기수에도 분포하며 산란기는 4~5월경으로 기수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서 물풀에 알을 붙여 놓는다. 어린 새끼는 봄까지 살다가 여름에 연안과 기수호 등으로 이동한다. 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성숙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며 10cm 내외로 자란다.
- 은어(은어과) 등은 푸른 황색이고 배는 선명한 백색이며 눈 위는 누런색, 위턱은 흰색, 아래턱은 녹색이다. 어릴 때에는 바다 연안에서 살다가 이른 봄에 강을 거슬러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라다 1m<sup>2</sup>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부착성 조류를 주식으로 한다. 전장 20~30cm까지 자라고 9~10월에 산란과 방정을 하고 죽는데 생식활동을 하지 못한 은어는 소에서 월동을 하기도 한다. 이를 되살이 은이라 부르기도 한다.
- 연어(연어과) 등은 흑청색이고 배는 은백색으로 전장 70~90cm에 달하는 대형 어종이다. 치어 때는 1개월여 동안 강물에서 지내다 북태평양 멀리 알류산열도와 오츠크해까지 진출하여 3~4년 동안 성숙된 후 9~11월에 고향인 모천으로 회귀하여 산란한 후 죽는 소하성 어류이다. 국립수산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는 채란한 후 부화하여 방류하는 증식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 송어(연어과) 등은 암청색으로 흑점이 흩어져 있으며 배는 은백색이다. 산란기는 9~10월로 암수가 강으로 올라와 물이 맑고 자갈이 깔린 여울에 산란하고 죽는다. 부화된 송어는 다음 해 4~5월에 바다에 내려가 2년 반쯤 성장한 후에 강에 오르는 소하성 어류이다. 바다에 내려가지 않고 강에 남아서 육봉형(陸封型)이 된 것을 산천어(시마연어)라 한다. 전장 40~50cm 정도까지 자란다.
- 미유기(연어과) 영동지역에서는 메기와 구별하지 않고 같이 부르나 메기에 비하면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살이 메기는 다섯인데 셋이다. 입수염이 2쌍이고 등은 암청



갈색, 배는 황백색으로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깔린 중·상류에서 산다. 육식성으로 산란기는 5월이고 30~35cm까지 자라며 한국 특산 어종이다.

○ **메기(메기과)** 몸은 길고 원통형에 가까우며 후반부는 옆으로 납작하고 얇으며 비늘은 없다. 입수염이 2쌍이며 옆줄은 중앙에 직선으로 나 있고 등쪽은 암갈색, 녹황갈색에 불규칙한 구름 모양의 반점이 있으며 배쪽은 담황색이거나 황백색이다. 유속이 완만한 하천이나 호수 늪에서 서식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육식성으로 탐식성이며 어린 물고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5~7월경이며 수로나 지류에 모여들어 청록색 알을 수초나 자갈에 붙이거나 바닥에 낳는다. 전장 20~60cm까지 자란다.

○ **학공치(학공치과)** 몸은 가늘고 길며 등은 청록색, 배는 은백색으로 주둥이가 유난히 길고 아래턱 밑은 주황색으로 기수역까지 침입하지만 담수역까지 올라오지 않으며 떼를 지어 플랑크톤을 섭취하며 5~6월에 산란한다. 전장 40cm 내외로 자란다.

○ **송사리(송사리과)** 등은 담갈색이고 배는 담색이며 수심이 얇은 늪, 농수로에 살고 온도, 염도, 산소, 수질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내성이 강하고 산란기는 5~7월로 잡식성이다. 전장 3cm내외로 수명은 보통 1년이고 눈발데기, 눈발때기라고도 하나 간혹 잉어과 어류들의 치어들을 통틀어 부르기도 한다.

○ **큰가시고기(큰가시고기과)** 몸은 방추형이고 옆줄은 뚜렷하며 등지느러미 가시는 3개이다. 등은 빛나는 회록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며 수컷은 황홍색을 가지고 있다. 바다에서 살다 봄에 하천을 따라 올라 5~6월에 산란한다. 잡식성이고 수명은 1년으로 전장 10cm내외로 자란다.

○ **가시고기(큰가시고기과)** 몸의 바탕은 회록색이고 등은 암록색, 배는 은백색으로 등지느러미 가시는 6~10개이다. 육식성이며 산란기는 4~7월이고 수컷은 등지를 지

어 암컷을 유인하여 알을 낳게 한 후 지키며 전장 5~6cm까지 자란다.

- **독중개(독중개과)** 몸길이 5cm 가량으로 길쭉하고 비늘이 없다. 입은 크고 머리가 넓적하며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등지느러미는 2개이고 몸은 어두운 회색 빛을 띤다. 머리와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고 피부는 사마귀가 난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작은 해양생물을 먹고살며 식욕이 왕성하나 살이 별로 없다. 때에 따라 강의 하구나 기수호에 침입한다.
- **한독중개(독중개과)** 몸은 회갈색이고 등은 짙고 배 쪽은 연하며 연안이나 바닥의 자갈, 모래가 깔린 하천 하류에 들어와 산다. 수서 곤충을 주식으로 하며 산란기는 3~6월로 큰 돌밑에 알을 붙이고 수컷은 알을 보호한다. 전장 10cm 내외로 뚝바우, 뚝배기, 뚝저구라 하기도 한다.
- **걱지(농어과)**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체고는 높다. 비늘은 배 쪽으로 갈수록 작으며 뺨과 아가미 뚜껑에도 있다. 몸의 바탕은 회갈색으로 등 쪽은 짙고 배 쪽은 연하다. 아가미 뚜껑에는 눈과 비슷한 모양의 청록색 무늬가 있어 특징적이며, 몸의 옆면에 흑색의 가로무늬가 7~8개 있다. 하천 상류의 물이 맑은 곳에 서식하며 돌 밑에 잘 숨는다. 육식성으로 어린 물고기나 갑각류, 수서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5~6월이고 15~20cm까지도 자란다. 한국 고유어종으로 외지에서 도입된 어종이다.
- **송어(송어과)** 몸은 원통형이며 눈은 기름까풀로 덮여 있고 꼬리지느러미는 갈라져 있다. 성어는 떼지어 생활하며 여름에는 연안, 겨울에는 바다로 이동하며 해캄 등의 조류를 주식으로 한다. 산란기는 10~11월로 30~50cm까지 자란다. 때로는 하구나 기수호에 침입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먹는다.
- **감성돔(도미과)** 어릴 때에는 무리지어 생활하지만 성어가 되면 개별 또는 작은 무리로 갈라진다. 곤충의 유충, 극피동물, 조개류 따위를 먹고살며 경계심이 강하고

성전환을 하는 특징이 있다. 모래바닥, 암초 지역에 서식하지만 때로는 기수에까지 올라온다. 산란기는 4~6월이며 40~50cm까지 자란다.

○ **미꾸리(미꾸리과)** 몸은 가늘고 길며 머리는 원추형이고 입수염은 5쌍이나 미꾸라지보다 짧다. 꼬리지느러미의 등 쪽에는 눈과 같은 크기의 검은 점이 1개 있다. 색은 사는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하나 일반적으로 등은 암청갈색이고 배는 담황색이다. 호소나 논·논의 진흙이 깔린 곳에서 살며 산소 부족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장호흡을 한다. 잡식성으로 부착조류나 유기물 조각, 실지렁이 등을 먹으며 어두워지면 먹이활동을 활발히 한다. 4~7월이 산란기이며 12~16cm까지 자란다. 보통 미꾸라지라 부르나 미꾸리는 종이 다르다.

○ **쌀미꾸리(미꾸리과)** 몸의 길이는 10cm 정도이며 머리, 옆, 등 쪽에 흑색 반점이 많다. 입수염은 4쌍이고 연못, 논, 개울 따위에 살며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샘터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샘터에 잘 모인다. 곤충의 유충, 물벼룩 따위를 잡아먹으며 산란기는 4~6월이고 웅고지, 용고지, 용곡지라 부르기도 한다.

○ **검정망둑(망둑어과)** 몸은 원통형이고 머리는 납작하며 배지느러미는 빨판을 형성하여 둥글다. 등은 암갈색이고 배는 담갈색으로 전장 1cm 전후에 강을 거슬러 오른다. 식성은 잡식성이고 산란기는 5~8월로 돌 밑에 알을 낳는다. 부화 후 바다에 내려가 3개월 지내다 다시 올라와 저서 생활로 들어간다. 개꼭저구, 퐁고, 뚜거리, 먹뚜거리라 부르기도 한다. 전장 10~12cm로 자란다.

○ **밀어(망둑어과)** 몸은 원통형이고 담황갈색이며 배에는 원형의 빨판이 있다. 여름의 돌밑에 숨어살며 수서 곤충과 부착성 조류를 주식으로 한다. 산란기는 5~8월로 돌 밑에 알을 붙인다. 비단꼭저구, 비단뚜거리, 꼭저구로 부르기도 하며 몸은 작으나 맛이 좋다. 4~5월에 바다에서 뽁뽁하게 몰려온다하여 밀어라 부르며 4~12cm까지 자란다.

- **꼭저구(망둑어과)** 몸의 바탕은 담황갈색이며 옆면 중앙부에는 7~9개의 흑색 반점이 줄지어 있다. 기수지역에 살면서 때로는 강의 중류까지도 거슬러 오르며 육식성이다. 5~7월에 돌 밑에 산란한다. 꼭저구, 똑저구, 뚜거리라 부르기도 하며 전장 7~9cm까지 자란다.
  
- **날망둑(망둑어과)** 전장 7cm를 넘지 못하는 소형 물고기로 몸은 담황갈색이며 구름 모양의 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6~7월에 전장 2cm 정도의 새끼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와 자라는데 잡식성으로 4~7월에 알을 낳는다. 꼭저구, 뚜거리라 하기도 한다.
  
- **흰발망둑(망둑어과)** 전장이 9cm정도이며 등은 푸른 갈색이고 배는 은백색이다. 옆구리와 등에 갈색 무늬가 흩어져 있고 흰 가로띠가 3줄 있다. 잡식성으로 성어가 되면 민물이나 기수역에 올라와 5~7월에 산란한다. 부화된 치어들은 곧바로 바다로 내려간다.
  
- **민물검정망둑(망둑어과)** 전장 10cm 내외로 머리는 크고 주둥이는 뭉툭하며 몸 앞 쪽은 굽고 뒤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방망이 모양이다. 배지느러미는 둥근 빨판형이며 꼬리지느러미는 둥글다. 물 속에서는 검은 색을 띄지만 물 밖으로 꺼내면 연한 갈색으로 변한다. 머리와 등에는 밝은 색의 반점들이 많다. 강 하구의 자갈과 돌이 많은 바닥에서 생활하며 잡식성으로 작은 어류나 곤충, 부착 조류를 먹고 산다. 5~7월에 산란하며 수컷은 알과 새끼들이 일정 크기로 자랄 때까지 돌보는 부성애를 가졌다.
  
- **동자개(동자개과)** 머리가 위 아래로 납작한 편이며 뒤 쪽으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진다. 잿빛 갈색 바탕에 검고 큰 반점이 있다. 가슴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고 입가에 4쌍의 수염이 있으며 비늘이 없다. 물살이 느린 강이나 호수 바닥에 서식하며 야행성으로 곤충이나 갑각류, 어린 물고기, 알을 먹고 산다. 10~20cm 정도까지 자라며 5~6월 산란기가 돌아오면 수컷은 가슴지느러미의 가시로 진흙을 파내서 알을 낳는 장소를 만들고 암컷을 기다린다. 암컷이 산란하면 수컷은 방정을 하

고 알과 새끼를 보호한다. 빠가사리, 자가사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 통가리(통가리과) 머리는 아래로 납작하고 꼬리는 옆으로 심하게 납작하며 비늘이 없다. 입수염은 4쌍으로 2쌍은 머리 길이와 같고 2쌍은 짧다. 가슴지느러미의 안쪽에 1~3개의 톱니가 나 있다. 몸은 주황색으로 등 쪽은 짙고 배 쪽은 옅다. 물이 맑은 하천의 중·상류에서 자갈과 암석이 깔려있는 여울에 살며 돌 밑에 잘 숨고 밤에 활동한다. 육식성으로 주로 수서곤충을 잡아먹고 6~10cm까지 자란다. 산란기는 4~6월이며 암컷은 돌 밑에 산란하고 이들을 지킨다.

○ 자가사리(통가리과) 몸은 길쭉하고 옆으로 조금 납작하다. 비늘이 없고 등지느러미의 뒤 쪽에는 기름지느러미자 길게 발달해 있다. 입수염은 4쌍인데 2쌍은 길고 2쌍은 짧으며 몸은 적황갈색으로 등쪽은 짙고 배쪽은 옅다. 물이 맑고 자갈이 깔려 있는 하천의 상류 여울에서 자라며 주로 밤에 활동하고 육식성으로 수서 곤충을 잡아먹는다. 전장 10~12cm까지 자라며 산란기는 5~6월이고 돌 밑에 알을 낳은 다음 암컷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

## 5. 어류의 증식 사업

### 1) 양양내수면연구소의 활동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는 1983년도에 양양에 설립되어 연어 자원증강과 어업개발, 냉수성어류양식기술개발, 기술지도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다. <표3-5>에 의한 연어친어 및 치어 방류실태를 보면 양양지역은 1983년에 1,491마리 포획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추세며 2009년도에는 15,590마리가 포획되었다. 치어방류는 센터 설립 연도에 1,000천 마리를 실시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 고성지역의 연어소상하천은 2곳이며 북천의 경우 1982년도에



친어포획 28마리를 시작으로 1998년에 1,168 마리포획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91마리를 포획하였다. 치어방류사업도 1985년에 200천 마리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방류량은 일정하지 않다. 명파천도 친어포획은 1985년에 74마리를 시작으로, 매년 포획량은 북천과 비슷하다. 치어방류도 1995년도(1,000천 마리 방류)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북천과 같은 수준이다. 강릉연곡천은 1994년 처음으로 638마리를 포획하였고, 치어방류는 1995년에 1,000천 마리를 시작으로 고성지역과 같은 량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도 공동 부화장을 설립하여 남북 공동 수산 자원증대를 기하고자 하고 있다.

&lt;표3-5&gt; 연어 친어 포획 및 치어 방류 실태

(친어 : 마리, 방류량 : 천마리)

하천명	양양 남대천		고성 북천		고성 명파천		강릉 연곡천	
연도\구분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1980	153	-	-	-	-	-	-	-
1981	469	136	-	-	-	-	-	-
1982	830	500	28	-	-	-	-	-
1983	1,491	1,000	32	-	-	-	-	-
1984	2,570	1,000	46	-	-	-	-	-
1985	3,090	1,930	119	200	74	-	-	-
1986	4,296	3,650	263	300	87	-	-	-
1987	5,231	3,975	272	300	197	-	-	-
1988	7,715	4,510	495	300	710	-	-	-
1989	10,060	5,190	1,082	400	1,647	-	-	-
1990	14,426	5,840	837	450	1,164	-	-	-
1991	7,225	6,000	612	500	403	-	-	-
1992	11,700	5,130	455	400	1,169	-	-	-
1993	12,988	9,000	342	800	449	-	-	-
1994	11,047	9,000	646	1,000	504	-	638	-
1995	15,029	9,000	593	1,000	1,876	1,000	1,021	1,000
1996	12,166	9,000	723	1,000	1,380	1,000	1,068	1,000
1997	16,250	9,000	828	1,000	1,194	1,000	1,098	1,000
1998	24,610	10,000	1,168	1,000	539	1,000	1,404	1,000

하천명	양양 남대천		고성 북천		고성 명파천		강릉 연곡천	
연도\구분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친어포획	치어방류량
1999	12,940	11,150	439	1,000	634	1,000	966	1,000
2000	3,310	9,700	98	1,000	65	900	309	900
2001	11,123	1,950	275	100	261	100	672	100
2002	11,104	5,400	86	400	369	400	395	400
2003	8,206	7,885	234	600	227	0	495	0
2004	7,299	6,350	223	400	206	500	571	500
2005	7,992	6,010	571	200	97	300	342	300
2006	17,380	3,940	594	250	565	250	121	250
2007	22,031	8,190	696	500	1,256	500	2,785	500
2008	12,277	10,086	614	500	884	500	402	500
2009	15,590	2,230	91	200	201	200	2	200

자료 : 국립수산물연구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 제공

## 6. 수계의 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양 남대천에 설치한 보는 총25개이다. 이중 본 천에는 14개, 후천에 11개 설치되어 있다. 보에는 어도가 1~3개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어류가 소상하는데 적절한 구조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양양양수댐에 저수가 시작되면서 오염 물질이 축적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하부댐 직하류의 수질은 부영양화의 주원인이 되는 총인[TP]과 총질소[TN]가 4~5급수를 넘나들고 있다. 하천 바닥 자갈에는 녹조류가 끼고 혼탁해져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용소골 주민의 생계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수질 개선을 위하여 2006년도에 양양양수댐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07~2009년도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개선책을 강구해 가고 있다. 수질 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유입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남대천보의 현황은 <표3-6>과 같다.

〈표3-6〉 보의 현황

하천면	번호	보 명	높 이(m)			어 도 (개)	길 이 (m)	위 치
			1 단	2 단	3 단			
본천	❶	용천보	0.50	-		없음	130	서면 용천리 용천교
	❷	문서루보	0.40	0.70	-	3	132	서면 용천리 한남초교
	❸	돌고지보	1.20	-	-	2	140	서면 용천리 돌고지
	❹	산재당보	0.50	-	-	2	150	서면 용천리 산재당
	❺	수리보	1.30	-	-	2	134	서면 수리 본들
	❻	가둔지보	1.00	-	-	1	126	서면 수리 가둔지
	❼	삼바리보	1.10	0.70	-	2	140	서면 내현리 삼발이
	❽	자랑소보	1.10	-	-	1	102	서면 내현리 자랑소
	❾	도리석개보	0.40	0.50	1.00	2	100	현북면 도리 남천초교
	❿	원일전하보	0.50	0.80	-	1	145	현북면 원일전리
	⓫	원일전상보	0.70	-	-	1	40	현북면 원일전리
	⓬	우보	0.60	-	-	1	80	현북면 어성전리
	⓭	입구지보	1.00	0.50	-	없음	70	현북면 어성전리
	⓮	노랑나구보	0.30	-	-	없음	60	현북면 어성전리
후천	①	임천보	0.30	1.40	-	2	180	양양읍 임천리
	②	북평보	0.50	1.20	0.60	1	160	서면 수상리
	③	범부보	3.20	-	-	1	80	서면 범부리
	④	제공보	0.90	1.10	-	1	120	서면 상평리
	⑤	공수전들보	0.70	0.80	-	1	70	서면 공수전리
	⑥	용소보	1.00	-	-	없음	50	서면 하용소다리
	⑦	용소잠소보	1.00	-	-	없음	40	서면 상용소잠수교
	⑧	양수하부댐	47.50	-	-	1	135	서면 영덕리
	⑨	서림하보	0.50	0.80	-	2	50	서면 서림리 1반
	⑩	서림상보	1.30	1.10	-	없음	30	서면 서림리 3반
	⑪	황이보	1.20	1.30	0.50	없음	50	서면 황이리 1반

보에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류가 소상하는데 적절한 구조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의 위치도

## 7. 수계의 오염원

남대천은 양양군에 약 2만톤/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1급수 상수원이다. 상수원수계의 생활용수, 축산폐수, 식당 등 점오염원(点汚染源)과 농경지, 산림지역, 도로에서 유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으로 남대천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 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도 기준으로 조사된 남대천 유역의 오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3-10>의 생활계 오염원의 총인구는 16,399명으로 시가지 인구가 11,463명이며 비시가지 인구는 4,935명이다. 축산계 오염원은 <표3-11>과 같이 총 가축수는 3,282마리로 돼지가 1,364마리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개, 한우, 가금순으로 사육하고 있다. 토지오염원은 <표3-12>와 같이 임야가 9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 2.7%, 답 2.3%, 대지 1.7%, 기타 2.9%순으로 조사 되었다. 환경 기초시설현황은 <표3-13>과 같이 총14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9,000m<sup>3</sup>/일, 마을하수도 13개소 1,461 m<sup>3</sup>/일, 각각 처리한다.

### 1) 오염원 발생 부하량

<표3-7>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 부하량

(단위 : g/인/일)

구 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 질 소(T-N)	총 인(T-P)
발생부하량	시 가	50.7	10.6	1.24
	비시가	48.6	13.0	1.45

자료 : 환경부 수계오염 총량관리 기술지침(2004)

<표3-8> 한우분뇨 발생 부하량

(단위 : g/두/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 질 소(T-N)			총 인(T-P)		
합계	폐수	고형물	합계	폐수	고형물	합계	폐수	고형물
528	67	461	116.8	40.0	76.8	36.1	3.5	32.6

자료 : 위의 지침



〈표3-9〉 토지계 연평균 발생 부하 (단위 : kg/km<sup>2</sup>/일)

지 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 질 소(T-N)	총 인(T-P)
전	1.590	9.440	0.240
답	2.300	6.560	0.610
임 야	0.930	2.20	0.140
대 지	85.900	13.600	2.100
기 타	0.960	0.759	0.027

자료 : 위의 지침

## 2) 오염원

〈표3-10〉 생활계 오염원

행정구역	면적 (km <sup>2</sup> )	총인구	인구 분포(명)					
			시가지 인구			비시가지 인구		
			소계	하수처리	미처리	소계	하수처리	미처리
양양군	435.9	16,161	11,225	11,225	0	4,935	0	4,935

자료 : 관동대·강릉대, 「양양양수댐 수질환경조사」, 양양양수발전소, 2009, 168-169쪽

〈표3-11〉 축산계 오염원

행정구역	가축 분포(마리)					
	젖 소	한 우	가 금	돼 지	사슴	개
합 계	56	591	466	1,364	83	722
강릉시	0	0	0	0	0	0
양양군	56	591	466	1,364	83	722

자료 : 앞의 책 169-170쪽

〈표3-12〉 토지계 오염원

행정구역	토지 이용 현황(km <sup>2</sup> )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합 계	472.8	13.0	11.1	430.1	7.9	13.6
강릉시	36.9	0.4	0.2	35.7	0.2	0.4
양양군	435.9	12.6	10.9	394.4	7.7	134.2

자료 : 앞의 책 170쪽

&lt;표3-13&gt; 환경 기초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 용량(m <sup>3</sup> /일)
하수종말처리장	양양하수종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9,000
마을하수도	양양포월농공단지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900
	임천리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20
	수리	양양군 서면 수리	48
	내현리	양양군 서면 내현리	20
	용천리	양양군 서면 용천리	70
	송천리	양양군 서면 송천리	30
	공수전리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50
	장승리	양양군 서면 장승리	48
	논화리	양양군 서면 상평리	30
	도리	양양군 현북면 도리	40
마을하수도	어성전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60
	원일전리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25
	어성전1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20

자료 : 앞의 책 171쪽

## 8. 양양남대천의 보존 활동

양양군의 상수원인 양양남대천의 수질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한 시민단체인 양양남대천보존회가 결성되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명칭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제37호 등록) 양양남대천보존회로 하고 창립일은 1989년 4월 11일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 보호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으며, 2006~2009년 양양양수댐수질보전협의회 구성,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였다. 학술 활동으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학술 강연회(1990.11.30. 강원대 조규송 교수)와 양양남대천 보존을 위한 주제 발표회(1991.12. 4. 원주지방환경청 윤덕희.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소장 임주열. 보존회 학술부장 김성영), 양양남대천 보존과 개발에 관한 세미나(1992.11.11. 강원대임재명 · 김병문교수), 학술지『襄陽南大川』을 발간하였다.(1994.12.25.)

집필 : 김성영

---

## 각주

- 1) 향토지, 양양문화원, 1976, 149쪽.
- 2) 양양남대천보존회, 『襄陽南大川』, 양양남대천보존회, 1994, 28-35쪽과 전자자료 백과사전에서 보완

---

## 참고문헌

관동대·강릉대, 『양양양수댐 수질환경조사』, 양양양수발전소, 2009.  
양양남대천보존회, 『襄陽南大川』, 양양남대천보존회, 1994.  
전자자료 백과사전.  
양양군 언어테마 콘텐츠 기본계획 학술용역 조사자료(연구책임 장정룡교수)2010.

---

## IV. 인문환경

### 1. 개설(概說)

인문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지표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등에 관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 옛 부터 인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살아왔다고 한다.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지역의 선사문화 기원은 20~7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서 전기 구석기에 속하는 ‘아슬리양’ 계통의 주먹도끼와 1천여 점의 편석기가 출토되어 양양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손양면 오산리에서도 8천 년 전의 신석기 유적이 발굴 되었고 그 외 군내 여러 곳에서 청동기, 초기철기문화 유적이 발견됨으로서 신석기시대이후 사람들은 주로 식량 자원이 풍부한 큰 강가 또는 하천 그리고 호수 주변의 대지나 해안가의 모래언덕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127년 이전에는 성읍국가형태인 예국(濊國)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후의 변천내용은 양양군의 연혁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생략한다.

1963년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 현남면이 명주군에서 본군에 환원되었다. 1979년 양양읍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양양군의 행정구역명은 양양읍·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이며 1개 읍 5개 면 124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에 관해서는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 『양주지』, 1990, 『양양통계연보』 2009에 의거 작성하였다.

## 2. 가구와 인구수의 변화

### 1) 조선시대후반 추이(1759년)

영조 35년(1759년)의 『여지도서』 양양부편에 수록된 행정구역은 12개 면 74개리이며 가구는 2,243가구, 인구수는 8,458명(남자 3,960명, 여자 4,498명)이다. 이를 면별로 살펴보면 부내면은 5개리 289가구, 1,191명, 동면은 6개리, 104가구, 372명, 부남면은 6개리 106가구, 495명, 서면은 9개리 232가구, 960명, 남면은 6개리 187가구, 751명, 현북면은 10개리 234가구, 838명, 현남면은 6개리 306가구, 1,085명, 위산면은 4개리 72가구, 267명, 사현면은 8개리 162가구, 493명, 강선면은 4개리 164가구, 741명, 도문면은 6개리 205가구, 635명, 소천면은 4개리 182가구, 630명이다. 12개 면 중 부내면이 가구수 289가구, 인구는 1,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산면은 72가구 267명으로 가장 작은 면이다. 문헌상으로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249년 전의 순수 양양부의 가구 856가구, 인구 7,193명을 2008년도 현재의 가구 12,227가구, 인구 28,346명으로 단순 비교한 결과 가구는 11,371가구(1,328%), 인구는 21,153명(294%)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1〉 1759년도 양양부의 가구 및 인구 현황

(단위 : 里, 戶, 名)

면 별	리 별	거 리	호 수	계	남	여
합 계	74	-	2,243	8,458	3,960	4,498
부내면	5	-	289	1,191	588	603
동 면	6	-	104	372	187	185
부남면	6	-	106	495	253	242
서 면	9	-	232	960	442	518
남 면	6	-	187	751	348	403
현북면	10	-	234	838	369	469
현남면	6	-	306	1,085	518	567
위산면	4	-	72	267	126	141
사현면	8	-	162	493	241	252
강선면	4	-	164	741	345	396



면 별	리 별	거 리	호 수	계	남	여
도문면	6	-	205	635	287	348
소천면	4	-	182	630	256	374

자료 : 여지도서(양양부 편)

## 2) 연도별 추이(1944~2008년)

한국 최대의 자철광산인 양양광산이 1956년부터 재개발되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1970년 4만 6,304명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유출지역이다. 1980년대 이후의 연도별 인구변화를 보면 1980년 4만 2,243명, 1985년 3만 6,512명, 1990년 3만 5,640명, 1995년 3만 1,081명, 2008년 2만 8,346명으로 현재에 이른다. 인구는 1995~2008년간 8.8%가 감소했다. 가구수는 1995년 9,310가구에서 2008년 1만 2,227가구로 24%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이촌향도에 따른 인구감소와 함께 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행정교통상업의 중심지인 양양읍과 동해와 접해 있는 강현면 현남면 등에 상주인구율이 높다. 취락은 주로 해안가 하천유역 산록 등에 밀집해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펜션(pension) 등 관광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양양읍 서문리와 내곡리, 청곡2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2008년 현재 주택 보급률 118.4%, 상수도보급률 77.2%, 하수도보급률 41.9%이다.

〈표4-2〉 연도별 세대 및 인구수(1944~2008년)

연도	읍면별	1944	1954	1959	1967	1973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세대수	6,086	5,094	5,829	8,803	8,458	8,811	8,632	8,558	9,057	9,296
	인구수	29,948	26,615	31,105	49,133	45,332	44,023	43,885	43,514	44,803	44,191
양양읍	세대수	1,503	1,506	1,689	1,960	2,043	2,261	2,171	2,149	2,279	2,428
	인구수	7,297	7,474	8,588	10,601	10,589	10,630	10,718	10,703	11,015	11,073
서면	세대수	1,046	522	1,073	1,736	1,501	1,585	1,581	1,561	1,579	1,553
	인구수	4,736	3,231	5,743	9,620	8,028	7,964	8,099	7,882	7,881	7,611
손양면	세대수	1,224	1,272	992	1,155	996	994	990	984	984	964
	인구수	6,925	6,695	5,551	6,537	5,707	5,449	5,341	5,156	5,189	4,974
현북면	세대수	932	473	904	1,048	1,023	1,040	1,028	1,004	1,068	1,099
	인구수	4,197	2,276	4,977	5,986	5,555	5,316	5,236	5,208	5,216	5,110
현남면	세대수				1,625	1,554	1,541	1,473	1,458	1,470	1,490
	인구수	미상	미상	미상	9,285	8,399	7,761	7,477	7,462	7,385	7,084
강현면	세대수	1,381	1,321	1,171	1,279	1,341	1,390	1,389	1,402	1,677	1,762
	인구수	6,793	6,939	6,246	7,104	7,054	6,903	7,014	7,103	8,117	8,339

연도	읍면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세대수	9,240	9,198	9,191	8,824	8,735	8,881	8,836	8,751	8,819	8,818
	인구수	42,243	42,896	42,256	40,011	39,219	36,512	37,124	36,064	36,323	36,447
양양읍	세대수	2,443	2,411	2,392	2,440	2,414	2,582	2,708	2,708	2,809	2,855
	인구수	11,015	11,009	11,001	11,119	11,010	10,625	11,237	11,129	11,470	11,739
서면	세대수	1,545	1,532	1,534	1,525	1,490	1,471	1,436	1,391	1,369	1,309
	인구수	7,226	7,323	7,099	6,979	6,879	6,135	6,077	6,005	5,851	5,542
손양면	세대수	934	919	927	921	920	903	896	878	861	855
	인구수	4,621	4,678	4,641	4,443	4,314	3,920	3,934	3,680	3,656	3,664
현북면	세대수	1,065	1,058	1,043	1,021	1,049	1,091	1,006	1,003	1,016	1,012
	인구수	4,709	4,696	4,497	4,375	4,475	4,259	4,196	4,040	4,053	4,069
현남면	세대수	1,486	1,477	1,488	1,484	1,465	1,449	1,435	1,416	1,389	1,390
	인구수	6,784	6,957	6,903	6,631	6,387	5,850	5,919	5,702	5,774	5,787
강현면	세대수	1,767	1,801	1,807	1,433	1,397	1,385	1,377	1,355	1,375	1,397
	인구수	7,888	8,233	8,115	6,464	6,154	5,723	5,761	5,508	5,519	5,646

연도	읍면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세대수	8,724	8,698	8,826	9,037	9,103	9,310	9,625	9,967	10,263	10,412
	인구수	35,640	33,014	32,299	31,934	31,317	31,081	30,944	30,956	31,134	30,976
양양읍	세대수	2,874	2,791	2,931	3,061	3,167	3,324	3,505	3,722	3,848	3,899
	인구수	11,416	10,677	10,713	10,900	11,082	11,375	11,593	11,901	12,092	12,066
서면	세대수	1,290	1,247	1,249	1,289	1,262	1,250	1,258	1,284	1,304	1,306
	인구수	5,428	4,899	4,667	4,593	4,352	4,138	4,004	3,927	3,882	3,791
손양면	세대수	841	867	854	853	845	851	868	907	914	997
	인구수	3,636	3,411	3,306	3,165	3,050	2,983	2,910	2,910	2,849	2,957
현북면	세대수	984	950	943	942	966	1,002	1,046	1,058	1,077	1,073
	인구수	3,984	3,676	3,491	3,347	3,266	3,224	3,225	3,181	3,198	3,140
현남면	세대수	1,347	1,413	1,394	1,409	1,381	1,393	1,417	1,454	1,568	1,563
	인구수	5,596	5,118	4,938	4,762	4,512	4,410	4,297	4,214	4,320	4,227
강현면	세대수	1,388	1,430	1,455	1,483	1,482	1,490	1,531	1,542	1,552	1,574
	인구수	5,580	5,233	5,184	5,167	5,055	4,951	4,915	4,823	4,793	4,795

연도	읍면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세대수	10,494	10,772	11,098	11,242	11,427	11,723	11,904	12,122	12,227
	인구수	30,194	30,276	30,173	29,744	29,187	29,132	28,917	28,699	28,346
양양읍	세대수	3,920	3,968	4,206	4,276	4,304	4,481	4,596	4,657	4,737
	인구수	11,819	11,735	12,058	11,934	11,711	11,852	11,830	11,891	11,808
서면	세대수	1,318	1,357	1,346	1,379	1,405	1,421	1,445	1,410	1,455
	인구수	3,703	3,749	3,582	3,612	3,533	3,484	3,423	3,303	3,299
손양면	세대수	1,034	1,078	1,095	1,102	1,090	1,051	1,076	1,105	1,083
	인구수	2,927	2,964	2,893	2,812	2,744	2,581	2,566	2,572	2,473
현북면	세대수	1,068	1,137	1,196	1,198	1,209	1,227	1,234	1,403	1,384
	인구수	3,042	3,109	3,097	3,012	2,991	2,918	2,939	3,001	2,912
현남면	세대수	1,576	1,595	1,606	1,584	1,638	1,649	1,632	1,610	1,603
	인구수	4,093	4,060	4,003	3,809	3,731	3,720	3,624	3,499	3,452
강현면	세대수	1,578	1,637	1,649	1,703	1,781	1,894	1,921	1,937	1,965
	인구수	4,610	4,659	4,540	4,565	4,477	4,577	4,535	4,433	4,402

자료 : 양주시, 1990, 315p.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3. 인구밀도와 인구분포

인구분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밀도이다. 인구밀도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면적에 대한 사람 수의 비율을 말하며, 지역 간의 인구분포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추출한 하나의 지표이다. 지역 간의 불균등한 인구분포 패턴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통계적 인구밀도이다.

통계적 인구밀도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인구수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 지역의 인구밀도를 보면 1963년은 68.1/km<sup>2</sup>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45.1/km<sup>2</sup>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인구분포를 보면 양양읍이 41.7%(11,808명)로 가장 높고 서면11.6(3,299명) 손양면 8.70%(2,473명) 현북면 10.3%(2,912명) 현남면 12.2%(3,452명) 강현면 15.5%(4,402명)로 손양면을 제외하면 각 면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3〉 양양군 가구 및 인구

(2008.12.31. 현재)

구 분	가 구 수		인 구 수			인구분포 비율	인구밀도	가구별 평균가족수
	가구	%	계	남	여			
계	12,227	100	28,346	14,382	13,964	100	45.1	2.32
양양읍	4,737	39	11,808	5,994	5,814	41.7	365	2.49
서 면	1,455	12	3,299	1,679	1,620	11.6	12.3	2.26
손양면	1,083	9	2,473	1,253	1,220	8.70	52.3	2.28
현북면	1,384	11	2,912	1,474	1,438	10.3	17.7	2.10
현남면	1,603	13	3,452	1,740	1,712	12.2	53.6	2.15
강현면	1,965	16	4,402	2,242	2,160	15.5	83.4	2.24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4. 인구 구성과 변화

### 1)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성별 인구구조는 인구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성별 구조는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구특징의 하나이다.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출생시 성비, 남·여별 사망률의 차이, 그리고 성별 인구가동률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구조는 성비(性比)로 나타내는데,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표시한다. 즉  $\text{성비} = (\text{남자의 수} / \text{여자의 수}) \times 100$ 이다. 성비가 100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가 같다는 것이며, 100이상일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100미만일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양양군의 성별인구를 보면 2008년 남자는 14,382명이고 여자는 13,964명으로 남자가 418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에도 남자가 15,138명 여자가 14,606명으로 나타나 남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아 선호사상 등이 구습에 의해 잔존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2003년에 20~24세 인구가 양양군 총인구의 8.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5~49세의 연령층이 7.9%, 40~44세 연령층이 7.8%, 60~64세 연령층이 7.5%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8년에는 50~54세 연령층이 8.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45~49세 연령층이 8.45%, 65~69세 연령층이 7.44%순으로 청소년 연령층의 인구구성비는 낮아지고 장년(長年)층의 인구구성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15세미만의 유·소년층 인구가 15%, 15~65세이하 생산연령인구는 70.1%,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8%이었으나, 2008년에는 15~65세 이하 생산연령인구가 67.6%로 2003년도 보다 2.5%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65이상의 노인인구는 19.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양양군이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를 넘어 20%이상인 초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알려 준다.



## 2) 교육정도별 인구 구성비

교육정도별 인구구성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25.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이 19.4%, 대학이상 졸업이 15.4%, 중학교 졸업이 13.1%순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5~39세까지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고, 60세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50~60년대의 살기 어려웠던 때는 생활고로 학열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4〉교육정도별 인구 구성비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수료	졸업
합계	1,764	263	4,967	932	219	3,365	984	161	6,479	2,134	253	107	3,939
%	6.9	1	19.4	4.0	0.8	13.1	3.8	0.6	25.3	8.3	1	0.4	15.4
6~9	947	-	-	-	-	-	-	-	-	-	-	-	-
10~14	813	1	4	723	1	5	2	-	-	-	-	-	-
15~19	-	-	3	209	1	4	980	12	70	325	2	-	4
20~24	-	1	3	-	-	22	2	9	319	1,434	36	8	387
25~29	4	1	8	-	4	25	-	9	474	285	48	25	891
30~34	-	2	24	-	6	74	-	9	874	41	22	18	734
35~39	-	5	69	-	6	121	-	17	1,020	22	32	11	642
40~44	-	6	172	-	21	385	-	13	1,015	11	18	8	455
45~49	-	5	434	-	18	664	-	17	995	12	27	10	322
50~54	-	9	634	-	21	616	-	11	626	2	22	7	173
55~59	-	14	679	-	24	484	-	9	399	2	10	10	128
60이상	-	219	2,937	-	117	965	-	55	687	-	36	10	203
미상	-	-	-	-	-	-	-	-	-	-	-	-	-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5. 인구동태와 인구이동

### 1) 인구동태

2008년 인구동태를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생과 사망에서 군 평균 출생률은 0.6%이고, 사망률은 0.9%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표4-5〉 양양군의 인구동태

(단위 : 명, %)

구 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출생자수	%	사망자수	%		
계	168	0.6	274	0.9	116	66
양양읍	97	0.3	85	0.3	-	-
서 면	17	0.05	31	0.1	-	-
손양면	14	0.04	30	0.1	-	-
현북면	13	0.04	27	0.09	-	-
현남면	15	0.05	30	0.1	-	-
강현면	12	0.04	71	0.2	-	-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2) 인구이동

사람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다. 대부분의 이동 동기는 전출지와 전입지의 조건에 놓여 있는데, 대체로 전출지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전입지의 조건이 좋아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이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을 떠나 좀 더 바람직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적고, 주택가격이 싸고, 위락, 교통 등 제반 시설이 좋은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유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또한 교육시설이 더 좋다든지, 그 외에 사회적, 위

락적인 면에서 자기의 요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셋째, 이동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이동은 연령, 성별, 교육,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인구 이동은 지역의 인구구성의 자연적 형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008년 양양군의 총인구이동률은 25.5%로 이 가운데 전입률은 12.3%, 전출률은 13.2%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이동률은 -0.94%로 나타났다.

〈표4-6〉양양군의 인구이동

(단위 : 명, %)

구 분	총이동				시·군간 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전입	%	전출	%	이동	%	전입	%	전출	%	이동	%
계	3,447	12.2	3,712	13.2	2,607	9.2	1,577	5.61	1,727	6.14	-265	-0.94
양양읍	1444	12.3	1544	13.2	1,064	3.7	627	2.23	756	2.69	-100	-0.85
서 면	378	11.5	360	10.9	222	0.7	159	0.57	143	0.51	18	0.55
손양면	251	10.3	345	14.1	171	0.6	116	0.41	130	0.46	-94	-3.85
현북면	377	13.1	448	15.5	219	0.7	233	0.83	268	0.95	-71	-2.46
현남면	357	10.4	385	11.2	335	1.2	179	0.64	177	0.63	-28	-0.82
강현면	640	14.7	630	14.4	596	2.1	263	0.94	253	0.90	-10	0.23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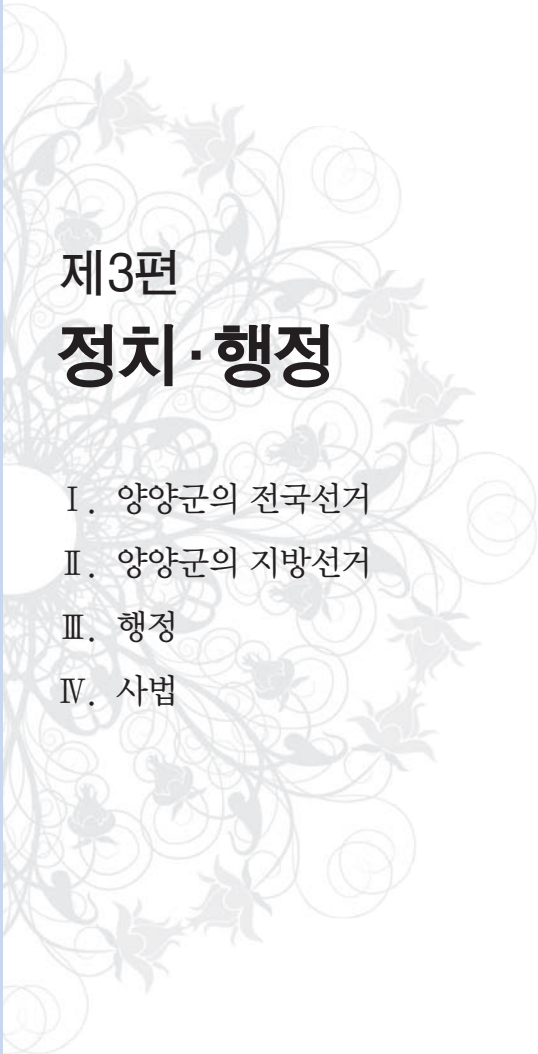
집필 : 이규환

## 참고문헌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부편.  
 양양군, 양주지, 1990.  
 양양군, 양양군통계연보, 2009.  
<http://www.yangyang.go.kr>

# 정치 행정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tylized flowers and swirling vines, positioned behind the title text.

## 제3편 정치·행정

- I. 양양군의 전국선거
- II. 양양군의 지방선거
- III. 행정
- IV. 사법



## I. 양양군의 전국선거

## 1. 대통령 선거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거 12회, 간접선거 5회를 포함하여 총 17회에 걸쳐 대통령을 선출, 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기록을 남겼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50여 년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 1) 제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본 군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었으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다양한 분야로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초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실시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1〉 제1대 초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간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대촉국	무소속	무소속	계		
			이승만	김구	안재홍			
전국	198	197	180	13	2	195	2	1

자료 : 『양주시』, 양양군, 1990, 384~38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2) 제2대 대통령 선거

제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우리 군에 관한 기록을 찾기 어려워 전국적인 통계를 수록하였다.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

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2〉 제2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계		
			조봉암	이승만	이시영	신희우			
전국	8,259,428	7,275,883	797,504	5,238,769	764,715	219,696	7,020,684	255,199	983,545
본도	-	-	366,583	10,516	13,378	6,305	396,782	-	-

자료 : 위의 책 384쪽, 위의 홈페이지.

### 3) 제3대 대통령 선거

제3대 대통령 선거는 1956년 5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3〉 제3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무소속	민주당	자유당	계		
			조봉암	신익희	이승만			
전 국	9,606,870	9,067,063	2,163,808	(사망)	5,046,437	7,210,245	1,856,818	539,807
양양군	43,483	43,397	358	-	33,876	34,234	105	58

자료 : 위의 책 384쪽, 위의 홈페이지.

### 4) 3·15 정·부통령 선거(동시선거)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선출하였다.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직전에 사망하여 자유당 이승만 후보 단독으로 출마하였는데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는 당시의 국민의 선거의식의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4〉 제4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자유당	민주당	계		
			이승만	조병옥			
전 국	11,196,490	10,862,272	9,633,376	(사망)	9,633,376	1,228,896	334,218
양양군	43,303	43,029	40,897	-	40,897	2,132	274

자료 : 위의 책 385쪽, 위의 홈페이지.

## 5) 제4대 대통령 선거

제4대 대통령 선거는 1960년 8월 12일에 자유당 정권의 하야 후에 국회 양원 합동선거로 간접선거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표1-5〉 제4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분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윤보선	김창숙	백낙준	변영태	허 정	김도연	기타	계	
합계	259	208	29	3	3	2	2	6	253	6

자료 : 위의 책 385쪽, 위의 홈페이지.

## 6) 제5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직접선거로 실시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실시된 선거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우리 군에서도 투표인수 22,285인의 39.0%인 8,704인이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였다.

〈표1-6〉 제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신흥당	민주공화당	추풍회	민정당	정민회	계		
			장이석	박정희	오재영	윤보선	변영태			
전국	12,985,015	11,036,175	198,837	4,702,640	408,664	4,546,614	224,443	10,081,198	954,977	1,948,840
양양	23,508	22,285	835	8,704	857	8,707	714	19,817	2,468	1,223

자료 : 위의 책 385쪽, 위의 홈페이지.

7) 제6대 대통령 선거

제6대 대통령 선거는 1967년 5월 3일에 직접선거에 의하여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 군에서도 투표인수 23,808인 중 50.6%인 12,063인이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였다.

〈표1-7〉 제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분	민주공화당	통한당	정의당	한국독립당	신민당	민중당	계
	박정희	오재영	이세진	전진한	윤보선	김준연	
전 국	5,688,666	564,533	98,433	232,179	4,526,541	248,369	11,358,721
양양군	12,063	595	141	313	8,268	382	21,762

구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전국	13,935,093	11,645,215	586,494	2,289,878	92.1
양양군	25,842	23,808	2,046	2,034	83.6

자료 : 위의 책 386쪽, 위의 홈페이지.

8) 제7대 대통령 선거

제7대 대통령 선거는 1971년 4월 27일에 직접선거에 의하여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신민당 김대중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되었다. 우리 군에서도 투표인수 22,237인의 59.1%인 13,161인이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였다.

〈표1-8〉 제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자민당	정의당	계		
			박정희	김대중	박기출	이종윤	진복기			
전국	15,510,316	12,417,816	6,342,828	5,395,900	43,753	17,823	122,914	11,923,218	494,598	3,092,500
양양군	25,579	22,237	13,161	7,944	69	33	202	21,409	828	3,342

자료 : 위의 책 386쪽, 위의 홈페이지.

## 9) 제8대 대통령 선거

제8대 대통령 선거는 1972년 12월 23일에 실시하였다.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되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단독으로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표1-9〉 제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계		
			박정희			
합계	2,359	2,359	2,357	2,357	2	-

자료 : 위의 책 387쪽, 위의 홈페이지.

## 10) 제9대 대통령 선거

제9대 대통령 선거는 1978년 7월 6일에 실시하였다. 제8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1-10〉 제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간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계		
			박정희			
합계	-	-	2,577	2,577	1	-

자료 : 위의 책 387쪽, 위의 홈페이지.

## 11) 제10대 대통령 선거

제10대 대통령 선거는 1979년 12월 6일에 실시하였다.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민주공화당 최규하 후보가 신군부의 정권수호의 정면에 서서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표1-11〉 제1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간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무소속	계		
			최규하			
합계	2,549	2,549	2,465	2,465	84	-

자료 : 위의 책 387쪽.

## 12) 제11대 대통령 선거

제11대 대통령 선거는 1980년 8월 27일에 실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실시하였다.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표1-12〉 제1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간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정의당	계		
			전두환			
합계	2,540	2,525	2,524	2,524	1	-

자료 : 위의 책 387쪽, 위의 홈페이지.

## 13) 제12대 대통령 선거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1981년 2월 25일에 실시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하여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하였는데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표1-13〉 제12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간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국국민당	민권당	민주한국당	민주정의당	계		
			김종철	김의택	류치송	전두환			
전국	5,277	5,271	85	26	404	4,755	5,270	1	6
강원	299	299	3	-	4	292	299	-	-

자료 : 위의 책 388쪽, 위의 홈페이지.

## 14) 제13대 대통령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하였다.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선언에서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표1-14〉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국	25,127,158	23,066,419	8,282,738	6,337,581	6,113,375
양양군	23,351	22,754	13,377	4,733	1,582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공화당	한국당	계		
김종필	신정일			
1,823,067	46,650	22,603,411	463,008	2,060,739
1,195	73	21,557	597	1,197

자료 : 위의 책 388쪽, 위의 홈페이지.

## 15)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에 직접선거로 실시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야당지도자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각각 출마하였다. 집권당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는 여당과 야당 2개 당을 포함하여 3당이 합당하여 합당대표로 출마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투표인수 18,519인의 38.0%인 7,050표를 득표하였으며, 국민당 정주영 후보도 35.7%의 득표를 보여 이채롭다.

〈표1-15〉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새한국당	신정당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종찬	박찬종
전 국	29,422,658	24,095,170	9,977,332	8,041,284	3,880,067	-	1,516,047
양양군	21,839	18,519	7,050	3,067	6,626	-	977
양양읍	7,086	5,731	2,033	882	2,303	-	349
서 면	3,618	2,576	1,053	438	823	-	159
손양면	2,306	2,708	811	516	946	-	160
현북면	2,328	1,889	830	352	566	-	71
현남면	3,439	2,710	1,180	402	928	-	90
강현면	3,512	2,905	1,143	477	1,060	-	148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대한정의당	무소속	무소속	계		
	이병호	김옥선	백기완			
전 국	35,739	86,292	238,648	23,775,409	319,761	5,327,488
양양군	75	90	203	18,088	431	3,320
양양읍	20	24	48	5,659	72	1,094
서 면	14	15	29	32,531	45	363
손양면	9	18	72	2,532	176	550
현북면	7	8	17	1,851	38	349
현남면	16	18	18	2,652	58	630
강현면	9	7	19	2,863	42	334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16) 제15대 대통령 선거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12월 18일에 직접선거로 실시하였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접전 끝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 군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투표인수 18,249인의 40.6%인 7,417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당선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25.9%를 획득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표1-16〉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신한국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전 국	32,290,416	26,042,633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양양군	22,568	18,249	7,417	4,567	5,493	141
양양읍	8,631	7,107	3,106	1,700	2,077	64
서 면	2,913	2,324	842	575	797	12
손양면	2,129	1,741	594	508	555	15
현북면	2,275	1,832	659	470	605	13
현남면	3,155	2,449	1,103	560	639	18
강현면	3,465	2,796	1,113	754	820	18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공화당	바른나라정치연합	통일한국당	계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전 국	39,055	48,717	61,056	25,642,438	400,195	6,247,783
양양군	61	46	121	17,846	403	4,319
양양읍	15	19	21	7,002	105	1,524
서 면	11	5	15	2,257	67	589
손양면	10	3	15	1,700	41	388
현북면	7	6	23	1,783	49	443
현남면	10	7	22	2,359	90	706
강현면	8	6	26	2,745	51	669

자료 : 위 홈페이지.

## 17)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02년 12월 19일에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각축을 벌인 결과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투표인수 16,857인의 51.7%인 8,718표를 득표하고 노무현 후보가 41.3%인 6,972표를 득표하여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1-17〉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하나로국민연합	민주노동당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전 국	34,991,529	24,784,963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양양군	23,295	16,857	8,718	6,972	75	710
부재자	601	536	177	297	1	26
양양읍	8,512	6,001	3,243	2,366	22	288
서 면	2,805	2,143	1,072	905	17	90
손양면	2,281	1,716	840	757	6	76
현북면	2,391	1,703	857	719	10	73
현남면	3,242	2,267	1,311	814	6	63
강현면	3,463	2,491	1,218	1,114	13	94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사회당	호국당	계		
	김영규	김길수			
전 국	22,063	51,104	24,561,916	223,047	10,206,566
양양군	23	69	16,567	290	6,438
부재자	2	8	511	25	65
양양읍	11	11	5,941	60	2,511
서 면	4	8	2,096	47	662
손양면	0	9	1,688	28	565
현북면	4	8	1,671	32	688
현남면	0	14	2,208	59	975
강현면	2	11	2,452	39	972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18)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년 12월 19일에 있었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정착시켜나가고자 함에 있었다.

선거인수 23,327인 중 15,507인의 66.4%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52.4%인 8,138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9.2%인 2,985표 순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1-18〉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전 국	37,653,518	23,732,854	6,174,681	11,492,389	712,121	160,708	1,375,498
양양군	23,327	15,507	2,985	8,133	540	153	694
부재자	687	627	107	285	26	11	55
양양읍	8,762	5,609	1,039	2,996	177	47	270
서 면	2,660	1,889	346	959	81	25	75
손양면	2,111	1,453	282	729	57	13	73
현북면	2,505	1,597	377	739	65	20	70
현남면	2,985	2,018	405	1,143	59	11	60
강현면	3,616	2,314	429	1,282	75	26	91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참주인연합	경제공화당	새시대통합연합	한국사회당	무소속	계		
	정근모	허경영	전관	금민	이희창			
전 국	15,380	96,756	7,161	18,223	3,559,963	23,612,880	119,974	13,920,664
양양군	13	118	7	16	2,691	15,350	157	7,820
부재자	3	4	0	2	118	611	16	60
양양읍	2	56	0	4	983	5,574	35	3,153
서 면	1	18	2	3	352	1,862	27	771
손양면	0	9	2	2	276	1,443	10	658
현북면	0	5	2	3	299	1,580	17	908
현남면	3	12	1	2	293	1,989	29	967
강현면	4	14	0	0	370	2,291	23	1,302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2. 부통령 선거

### 1) 초대 부통령 선거(당시 본군 미수복지구)

초대 부통령 선거는 1948년 7월 20일 국회 간접선거에 의하여 이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본군은 미수복지구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1차 투표에서 이시영 후보가 113표, 김구 후보가 65표, 조만식 후보가 10표, 오세창 후보가 5표, 장택상 후보가 3표, 서상일 후보가 1표였다. 2차 투표에서는 이시영 후보가 133표, 김구 후보가 62표, 이구수 후보가 1표, 무효 1표였다.

### 2) 제2대 부통령 선거(당시 본군 미수복지구)

제2대 부통령 선거는 1951년 5월 16일 국회 간접선거에 의하여 김성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본 군은 미수복지구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김성수 후보는 1차 투표 66표, 2차 투표 68표, 결선 투표 78표, 무효 1표를 득표하였다. 이갑성 후보는 1차 투표 53표, 2차 투표 65표, 결선투표 73표를 득표하였으며 함태영 후보는 1차 투표 17표, 2차 투표 10표, 장택상 후보 1차 투표 11표, 2차 투표 5표, 지청천 후보는 1차 투표 2표, 2차 투표 2표, 김창숙 후보는 1차 투표 1표, 2차 투표 1표를 각각 득표하였다.

### 3) 제3대 부통령 선거(당시 본군 미수복지구)

제3대 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의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본군은 미수복지구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1-19〉 제3대 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직접선거)

구 분	합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자유당	자유당	민주국민당	조선민주당	여자국민당	대한노총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범석	이갑성	조병옥	이윤영	임영신	전진한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
전국	7,133,297	1,815,692	500,972	575,260	458,583	190,211	302,471	2,943,813	181,388	164,907
강원	401,766	129,704	9,427	5,962	11,555	4,424	10,675	223,534	2,811	3,674

자료 : 『양주지』, 양양군, 1990, 390쪽.

## 4) 제4대 부통령 선거

제4대 부통령 선거는 1956년 5월 15일 직접선거에 의하여 민주당 장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1-20〉 제4대 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합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기권수	무효수
		자유당	민주당	조선민민당	대한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이기붕	장 면	이윤영	윤치영	이범석	백성욱		
전국	8,642,494	3,805,502	4,012,654	34,926	241,278	317,579	230,555	542,676	421,700
강원	33,648	28,935	2,899	22	183	408	201	58	691

자료 : 위의 책 390쪽.

## 5) 3·15 정·부통령 선거(동시선거)

3·15 정·부통령 선거는 1960년 3월 15일 동시선거 방식으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1-21〉 3·15 정·부통령 동시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직접선거)

구 분	합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기권수	무효수
		자유당	통일당	여자국민당	민주당		
		이기붕	김준연	임영신	장 면		
전국	10,527,445	8,337,059	249,095	97,533	1,843,758	934,917	334,128
강원	40,975	37,770	340	108	2,757	274	2,054

자료 : 위의 책 391쪽.

3. 국회의원 선거

제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 : 양주지, 정치편, 1990, 384~388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1) 제1대 국회의원 : 미수복지구로 미 실시(양양군) 1948. 5.10.
- 2) 제2대 국회의원 : 미수복지구로 미 실시(양양군) 1950. 5.30.
- 3) 제3대 국회의원 : 미수복지구로 미 실시(양양군) 1954. 5.20.
- 4) 제4대 국회의원 : 선거일 1958. 5. 2.(당선자 : 이동근)

〈표1-22〉 제4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소속	국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최 정	이준택	함종빈	진승국	최기선
17선거구	38,153	36,130	4,113	2,676	7,796	3,633	1,133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계		
	이동근	전덕민	김구형	김창열			
17선거구	10,366	1,001	590	3,642	34,950	1,180	2,023

자료 : 위의 책 391쪽.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60. 7.29. 당선자 : 함종빈)

〈표1-23〉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한청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최기선	신효순	강즉모	함종빈	박희선	박태송
17선거구	48,463	44,255	2,468	5,871	573	12,480	2,312	2,202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사회대중당	자유당	계		
	서남용	이흥영	최 정	김중덕	이재춘	이동근			
17선거구	683	4,198	5,531	1,012	638	3,716	41,684	2,571	4,208

자료 : 위의 책 392쪽.

##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63.11.26. 당선자 : 김종호)

〈표1-24〉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보수당	민주당	민정당	민주공화당	계		
			최순원	함종빈	신호순	최정식	김두열	김종호			
7지역구	80,405	64,043	732	3,738	6,883	17,315	4,284	23,684	56,636	7,407	16,362

자료 : 위의 책 393쪽.

##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67. 6. 8. 당선자 : 김종호)

〈표1-25〉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자유당	민중당	정의당	대중당	신민당
			김응조	양환석	-	오태성	함종빈
7지역구	88,678	72,428	2,766	336	489	1,788	30,382
양양군	25,677	21,307	308	111	178	330	9,151

구 분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한독당	자민당	통일사회당	민주당	계		
	김종호	-	-	-	-			
7지역구	31,407	1,259	596	894	394	70,311	1,528	16,839
양양군	9,321	204	367	454	350	20,774	533	4,370

자료 : 위의 책 393쪽.

##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71. 5.25. 당선자 : 한병기)

〈표1-26〉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	대중당	통일사회당	민중당	계		
			한병기	함종빈	이성일	이참수	김응삼	-			
4지역구	87,378	72,008	38,957	30,508	137	457	349	433	70,842	1,166	15,370
양양군	24,105	19,310	9,906	8,547	45	272	117	199	19,086	224	4,795

자료 : 위의 책 394쪽.



##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73. 2.27. 당선자 : 정일권, 김인기)

〈표1-27〉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계		
			정일권	김종호	김인기			
4지역구	107,266	92,327	57,994	14,086	18,491	90,571	1,756	14,939
양양군	22,640	18,935	11,014	2,810	4,810	18,634	301	3,705

자료 : 위의 책 394쪽.

##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78.12.12. 당선자 : 정일권, 함종빈)

〈표1-28〉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계		
			정일권	허경구	김기환	박경원	이참수	함종빈			
4지역구	109,642	97,777	58,251	10,258	1,551	10,789	3,991	11,779	96,619	1,158	11,865
양양군	23,654	20,541	9,436	1,467	551	1,693	1,690	5,404	20,241	230	3,113

자료 : 위의 책 395쪽.

##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81.3.25. 당선자 : 이범준, 이봉모)

〈표1-29〉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정의당	한국국민당	민주한국당	계		
			이범준	이봉모	최선규			
4지역구	131,467	115,171	62,759	32,036	19,271	114,066	1,105	16,296
양양군	23,499	20,401	10,730	5,652	3,818	20,200	201	3,098

자료 : 위의 책 396쪽.

##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85. 2.12. 당선자 : 이범준, 이봉모)

〈표1-30〉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정당	신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계		
			이범준	김기현	김필기	이봉모			
4지역구	146,691	130,389	62,522	12,654	23,052	29,828	128,056	2,333	16,302
양양군	23,490	20,377	11,299	2,816	2,127	3,718	19,960	417	3,113

자료 : 위의 책 396쪽.

##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88. 4.16. 당선자 : 김문기)

〈표1-31〉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계		
			김문기	함종빈	정인수	최옥철			
양양,명주	73,327	61,048	29,082	10,590	5,903	14,573	60,148	900	12,279
양양군	22,587	20,333	8,609	7,432	1,088	2,856	19,985	348	2,254

자료 : 위의 책 397쪽.

##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92. 3.24. 당선자 : 김문기)

〈표1-3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국민당	신정당	무소속	계		
			김문기	최옥철	최각길	김시환	함양주			
양양,명주	69,116	55,646	19,992	13,167	18,562	1,014	2,099	54,834	812	13,470
양양군	21,765	18,493	6,515	3,924	6914	792	656	18,171	322	3,272
부재자	1,155	986	354	218	138	111	76	897	89	169
양양읍	6,722	5,499	1,737	896	2,345	252	199	5,429	70	1223
서 면	2,948	2,613	1,038	386	930	117	86	2,577	36	335
손양면	2,205	1,872	552	327	824	71	73	1,847	25	333
현북면	2,280	1,927	253	128	388	14	28	1,893	34	343
현남면	3,312	2,759	999	731	912	23	51	2,716	43	553
강현면	3,513	2,837	1,164	439	926	190	93	2,812	25	316

자료 : 위의 책 398쪽.

##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1996. 4.11. 당선자 : 송훈석)

〈표1-33〉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계		
			송훈석	최정식	조영두	한병기	정광벽	황돈태			
속초,고성,양양	129,340	89,076	29,544	9,519	7,709	22,880	6,667	10,248	86,567	2,509	40,264
부재자	3,834	3,492	-	-	-	-	-	-	-	-	-
양양군	22,242	16,068	4,155	966	2,524	4,489	312	3,055	15,501	567	6,174
양양읍	8,310	5,912	1,517	415	1,097	1,688	151	884	5,752	160	2,398
서 면	2,951	2,181	564	135	340	678	26	346	2,089	92	770
손양면	2,163	1,593	325	100	494	383	21	219	1,542	51	570
현북면	2,222	1,605	527	97	217	422	22	248	1,533	72	617
현남면	3,166	2,191	705	108	249	824	35	170	2,091	100	975
강현면	3,430	2,586	517	111	127	494	57	1,188	2,494	92	844

자료 : 위 홈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2000. 4.13. 당선자 : 송훈석)

〈표1-3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계		
			정재철	송훈석	이참수	허경구			
고성,속초,양양	135,756	85,730	32,212	35,576	12,581	3,889	84,258	1,472	50,026
양양군	23,044	15,823	4,328	5,636	4,877	647	15,488	335	7,221
부재자	681	617	128	221	165	58	572	45	64
양양읍	8,265	5,324	1,543	1,733	1,760	198	5,234	90	2,941
서 면	2,877	2,090	542	708	715	81	2,046	44	787
손양면	2,219	1,629	349	525	666	54	1594	35	590
현북면	2,280	1,630	392	682	424	85	1,583	47	650
현남면	3,242	2,179	652	853	564	71	2,140	39	1,063
강현면	3,480	2,354	722	914	583	100	2,319	35	1,126

자료 : 위 홈페이지.

##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2004. 4.15. 당선자 : 정문헌)

〈표1-3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무소속	계		
			정문헌	송훈석	이동기	장종수	함범희			
축,괘,양	112,701	66,336	23,369	14,087	17,147	5,763	4,931	65,297	1,039	46,365
양양군	23,101	14,795	4,753	2,175	3,677	1,213	2,660	14,478	317	8,306
부재자	614	521	83	123	154	42	77	479	42	93
양양읍	8,487	5,294	1,604	779	1,166	411	1,253	5,213	81	3,193
서 면	2,800	1,937	611	262	469	138	409	1,889	48	863
손양면	2,210	1,461	402	201	366	113	349	1,431	30	749
현북면	2,379	1,553	490	242	408	169	208	1,517	36	826
현남면	3,075	1,865	850	207	495	169	102	1,823	42	1,210
강현면	3,536	2,162	712	361	619	171	262	2,125	37	1,374

자료 : 위 홈페이지.

## 1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일 : 2008. 4. 9. 당선자 : 송훈석)

〈표1-3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당	무소속	계		
			이동기	조동용	황정기	이성국	최효섭	송훈석			
괘초,양	112,343	59,724	9,808	21,944	1,060	1,370	728	24,239	59,149	575	52,619
양양군	23,172	13,034	2,318	5,193	289	284	234	4,570	12,888	146	10,138
부재자	609	549	114	159	23	23	8	211	538	11	60
양양읍	8,758	4,608	811	1,696	95	99	77	1,786	4,564	44	4,150
서 면	2,711	1,662	243	743	44	41	25	543	1,639	23	1,049
손양면	2,076	1,223	323	423	29	24	20	394	1,213	10	853
현북면	2,470	1,382	217	564	41	22	26	495	1,365	17	1,088
현남면	2,939	1,630	281	780	27	31	36	453	1,608	22	1,309
강현면	3,609	1,980	329	828	30	44	42	688	1,961	19	1,629

자료 : 위 홈페이지.

## 4. 참의원선거

초대 참의원 선거는 1960년 7월 29일 강원도 단위 의원 정수 4인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12인이 출마하여 1부에서는 정순응, 김대식 후보가 2부에선 김병로, 김진구 후보가 당선되었다.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37〉 초대 참의원 투표상황

구분	기준인구	선거인수	투 표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 투표율
			유효	무효	계			
합계	76,519	48,463	42,846	1,320	44,166	4,297	91.1	97.0

자료 : 「양주지」, 양양군, 1990. 398쪽.

〈표1-38〉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	후보자	득 표 수	소속정당	후보자	득 표 수
무소속	홍범희	4,033(93,960)	민주당	정순응	2,426(132,592)
민주당	심상대	7,109(103,009)	무소속	김대식	9,288(127,434)
무소속	최규옥	4,336(83,771)	무소속	박광수	2,364(43,087)
민주당	김진구	8,840(110,793)	무소속	함인섭	2,728(50,231)
민주당	김병노	7,702(114,976)	무소속	고백규	2,562(56,840)
무소속	김우종	2,824(48,625)	무소속	홍승업	7,207(100,416)
합계	12인	61,419(1,065,734)			

자료 : 자료 : 위의 책, 398쪽. ( ) 는 도단위 득표수

## 5. 국민투표

### 1) 헌법개정(1962.12.17. 시행)

1962년 12월 17일 시행한 헌법개정을 위하여 1962년 11월 5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962년 12월 6일 국민투표 실시를 공고하였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2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39〉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12,412,798	10,585,998	8,339,333	2,008,801	10,348,134	237,864	1,826,800	85.3
강원도	951,610	847,775	687,811	140,083	827,894	19,881	103,835	89.1
양양군	51,593	48,270	42,552	4,704	47,256	1,014	3,323	93.6

자료 : 위의 책, 399쪽

## 2) 헌법개정(1969.10.17. 시행)

1969년 10월 17일 시행한 헌법 개정을 위하여 1969년 10월 8일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공고하였으며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0〉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11,190,024	414,014	3,444,887	77.1
양양군	24,881	21,206	15,151	5,438	20,589	617	3,675	85.2
양양면	5,508	4,436	2,871	1,504	4,375	61	1,072	80.5
서 면	4,446	3,731	2,896	754	3,560	81	715	83.9
손양면	3,405	2,888	2,097	721	2,818	70	517	84.8
현북면	2,977	*3,458	2,549	781	3,330	128	481	*116.1
현남면	4,697	3,637	2,660	817	3,477	160	1,060	77.4
강현면	3,848	3,056	2,078	861	2,939	117	792	79.4

자료 : 위의 책, 399-400쪽, \* 부재자 포함

## 3) 헌법개정(1972.11.21. 시행)

1972년 11월 21일 시행한 헌법 개정을 위하여 1972년 10월 27일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공고하였으며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1〉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15,676,395	14,410,714	13,186,559	1,106,143	14,292,702	118,012	1,265,681	91.9
양양군	22,736	22,447	21,851	576	22,427	20	1,565	98.7
양양면	5,359	4,980	4,763	211	4,974	6	379	92.9
서 면	4,031	*4,651	4,583	15	4,648	3	638	*115.8
손양면	3,011	2,907	2,864	43	2,907	-	104	96.5
현북면	2,703	2,608	2,753	33	2,608	-	95	96.4
현남면	4,254	4,063	3,942	119	4,061	2	191	95.5
강현면	3,396	3,238	3,124	105	3,229	9	158	95.3

자료 : 위의 책, 400쪽, \* 부재자 포함

## 4) 헌법개정(1975. 2.12. 시행) - 유신헌법

1975년 2월 12일 시행한 헌법 개정을 위하여 1975년 2월 5일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공고하였으며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2〉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효 투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16,788,839	13,404,245	9,800,201	3,370,085	13,170,285	233,959	3,384,594	79.8
양양군	22,909	21,698	18,530	2,905	21,435	263	1,211	94.7
양양면	5,419	4,792	3,784	951	4,735	57	627	88.8
서 면	3,916	*5,010	4,092	325	4,417	46	*547	94.4
손양면	2,911	2,744	2,404	306	2,710	34	167	94.2
현북면	2,754	2,567	2,253	287	2,540	27	187	93.2
현남면	4,225	3,805	3,200	541	3,741	64	420	90.3
강현면	3,684	3,327	2,797	495	3,292	35	357	90.3

자료 : 위의 책, 401쪽, \* 부재자 포함

### 5) 헌법개정(1980.10.22. 시행) - 제5공화국 헌법

1980년 10월 22일 시행한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하여 1980년 9월 29일 국민투표를 공고하였으며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3〉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 효 투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19,187,027	266,899	919,943	95.5
양양군	23,209	23,080	22,050	689	22,737	343	129	99.4
양양면	6,093	5,814	5,529	225	5,753	61	279	95.4
서 면	3,848	*4,495	4,330	104	4,434	61	647	*116.8
손양면	2,582	2,505	2,419	62	2,481	24	77	97.0
현북면	2,639	2,530	2,411	70	2,481	49	109	95.9
현남면	3,881	3,746	3,540	108	3,648	98	135	96.5
강현면	4,166	3,990	3,822	118	3,940	50	176	95.8

자료 : 위의 책, 401-402쪽. \* 부재자 포함

### 6) 헌법개정(1987.10.27. 시행) - 제6공화국 헌법

제6공화국 헌법개정 투민투표로 1987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공고하였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헌법개정 투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4〉 헌법개정 국민투표 상황

구 분	투표인수	투표수	유 효 투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찬성	반대	계			
전 국	25,619,648	29,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강원도	1,042,573	905,700	841,597	51,245	892,842	12,858	136,873	86.9
양양군	23,223	21,865	20,445	1,129	21,574	291	1,358	94.1
양양면	6,919	6,670	6,289	302	6,591	79	249	96.4
서 면	3,677	3,496	3,269	184	3,453	43	181	95.1
손양면	2,467	2,281	2,099	154	2,253	28	186	92.5
현북면	2,699	2,468	2,293	126	2,419	49	231	91.4
현남면	3,889	3,582	3,333	199	3,532	50	307	92.1
강현면	3,572	3,368	3,162	164	3,326	42	204	94.3

자료 : 위의 책, 402-403쪽.

## 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1)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8대 대통령 선거를 간접선거로 실시함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회 통일주체 대의원선거를 1972년 11월 27일 선거를 공고하고 1972년 12월 15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면별 당선자는 양양면 김남호 후보, 서면 이영운 후보, 손양면 김주악 후보, 현북면 김흥기 후보, 현남면 김석만 후보, 강현면 김준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5〉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소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합 계	22,976	19,721					19,184	537	3,255	85.8
양양면	5,249	4,508	최병규	김원전	김남호	최홍제	4,451	57	741	85.9
			1,296	1,084	1,936	135				
서 면	3,991	3,606	이병시	이영운	김시혁	김현길	3,553	53	385	90.4
			392	1,216	953	992				
손양면	3,057	2,632	김주악	고경재	윤병구	-	2,580	52	425	86.1
			1,127	657	2,580	-				
현북면	2,717	2,369	함종원	김흥기	-	-	2,238	131	348	87.2
			1,035	1,203	-	-				
현남면	4,346	3,609	권혁주	김석만	홍대열	홍연표	3,544	65	737	83.0
			624	1,018	967	935				
강현면	3,316	2,997	최식대	이준영	김학춘	-	2,818	179	619	82.9
			1,002	1,230	586	-				

자료 : 위의 책, 403쪽.

###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 간접선거 실시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회 통일주체 대의원선거를 1978년 4월 29일 선거를 공고하고 1978년 5월 18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면별 당선

자는 양양면 최병규 후보, 서면 권영대 후보, 손양면 윤병구 후보, 현북면 김흥기 후보, 현남면 김주철 후보, 강현면 김진각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6〉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소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합 계	23,721	21,281	-				20,743	538	1,890	91.8
양양면	6,051	5,474	김남호	최병규	-	-	5,334	140	577	90.5
			2,657	2,677	-	-				
서 면	4,029	3,800	김시혁	권영대	김종부	이정인	3,728	72	229	94.3
			780	1,282	389	1,277				
손양면	2,634	2,468	김주악	윤병구	고경재	-	2,406	62	156	94.1
			653	1,009	744	-				
현북면	2,695	2,520	이상록	김흥기	함종한	-	2,434	86	175	93.5
			822	837	775	-				
현남면	4,115	3,685	김석만	김주철	-	-	3,605	80	430	89.6
			1,602	2,003	-	-				
강현면	3,657	3,334	이준영	김진각	김학춘	-	3,236	98	323	91.2
			1,092	1,167	977	-				

자료 : 위의 책, 404쪽.

## 7.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일을 1980년 1월 24일 공고하고 1980년 2월 11일 선거를 실시하였다. 읍면별로 각 2인을 선출하였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47〉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소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합 계	23,427	21,600	-				21,258	342	1,827	92.2
양양면	6,131	5,558	박용길	최성호	김윤래	-	5,485	73	573	90.7
			*1,840	*2,548	1,097	-				
서 면	3,903	3,624	정현숙	김호열	택봉원	-	3,543	81	279	97.8
			688	*1,558	*1,297	-				
손양면	2,572	2,414	이인재	윤병구	고광혁	이진형	2,378	36	158	98.5
			368	*637	*749	624				
현북면	2,677	2,538	김만영	이경일	함종한	-	2,488	139	139	98.0
			*980	753	*755	-				
현남면	4,004	3,707	홍대열	유화실	김규민	권혁주	3,659	48	297	98.7
			*1,399	647	686	*927				
강현면	4,140	3,759	김하수	문동재	김학춘	조종만	3,705	54	381	98.6
			*1,001	563	*1,323	818				

자료 : 위의 책, 405쪽. \* 는 당선자.



## II. 양양군의 지방선거

### 1. 개 요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외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편제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바탕 위에 지방의회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임명 규정만 덧붙인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제는 명목적인 장식물일 뿐이었다.

다음은 이승만 정권시대의 자치제도로, 1949년 12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국내적 불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보류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백에 대응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선거 실시를 보류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역시 이승만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으로서 당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야당 혹은 이승만의 정치적 반대파의 주도하에 있던 상황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승만은 따라서 기존 국회의 무력화를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시행된 것이 그동안 국내정세의 불안과 치안유지를 구실로 실시가 유보되던 지방의회 선거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1952년 초대지방의회가 생긴지 3년도 채 못 되어 이승만 정권은 지방자치법의 제2차 개정을 모색했는데 그 까닭은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단체장들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음은 물론, 단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청탁이나 이권거

래가 성행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56년 2월 2차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5개월 만에 이승만 정권은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야당계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12월 24일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유명무실화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1) 민주주의 이행초기의 지방자치제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는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요구에 뒤따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1960년 4월~1961년 5월 사이이다. 이 때,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다음으로 5·16군사정변 이후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인데, 60년대 초 도입된 지방자치제 또한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정변에 의해 단명하고 말았다. 5·16군사정변은 학생을 통해 표출되었던 시민사회의 역량발화를 군부중심의 국가영역이 무력으로 진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도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군사정변 세력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일시에 해산하고 각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1962년 4월 21일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하향적 임면원칙을 제도화시켰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였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였음에도(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 제96조, 제97조) 실제로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5·16이후 우리나라는 전면관치의 초중앙집권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권 시대는 안보와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의존관계는 심화되어갔고,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권위주의적 지도력을 선호했다. 또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이었다. 강력한 국가적 지도력을 위해 정치적 분권화보다는 행정적 일원화논리가 지배적이었고, 지방은 중앙권력 기관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에 불과했다. 독재권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철저히 박탈당하는 동안 권력과 자본의 지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들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박정희시대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암흑기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

## 2) 민주주의 이행시기의 지방자치제

먼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말기인 19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1985년 2월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통일당이 대약진에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으로 시민사회의 계급성 신장,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발, 노동자계급의 양적·질적 성장,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국력신장으로 안보부담의 축소, 동서냉전체제의 약화, 80년대 말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 부와 권력의 중앙 집중이 자원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국내외적,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제는 정치권의 주요현안으로 대두하였다.

1987년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전면구성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를 발표하였으며 나머지 정당들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지지하였다. 노태우 정권(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제13대 대통령선거에

서 노태우가 당선되고부터 그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와 관련 여야 간에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민주정의당은 1988년 3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을 단독으로 변칙 처리했다. 같은 해 4월 6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하면 시·군·구의회는 1989년 4월 30일까지, 시·도의회는 1991년 4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이른바 ‘여소야대’로 인하여 야권 3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야권 3당은 지방자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공조체제를 마련했고, 1989년 3월 4일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을 성안하여 3월 15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도, 당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던 지방자치제 관련 현행 법률, 곧 1989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한다는 법률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비판으로 여야 4당은 지방자치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재협상하기로 하고 마침내 1989년 12월 19일 새로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시행만이 남은 듯 보였던 지방자치문제는 1990년 1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른바 3당 통합을 결행함으로써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대 집권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은 1989년 12월에 합의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끝에 1990년 12월 31일 제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3) 민주주의 정착시기의 지방자치제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 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선거 캠페인에서 1995년 단체장선거 실시를 공약했었다. 그 후 1994년 3월 4일에 마침내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제4대 지방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 2. 우리 군의 지방자치 역사

1952년 실시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동년 5월 10일에 실시한 도의원 선거는 6·25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선에 접한 서울, 경기, 강원지방 및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지방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양군은 당시 제3군단의 군정하에 있었으므로 더욱 불가능 하였다. 1956년 8월 5일 시·읍·면장,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에 관한 통계는 없고(지방의회론 : 대영문화사 1991발행 p.32) 더욱이 본 군은 군정 실시, 행정수복 및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선거에 대한 통계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그 자료도 찾아볼 길이 없다. 1956년 8월 13일 실시한 도의회 의원선거는 ‘수복지역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하여 강원도 7개 군(철원, 금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처음부터 선거지역에서 제외 되었다.

1960년 11월 1일 법 제563호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는 먼저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동년 11월

19일에 시·읍·면장 선거는 동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동년 12월 29일에 각각 실시하였는데 양양군은 당시 행정권은 수복되었으나 38°선 이북지역은 선거를 유보하여 도지사 선거에는 참여치 못했고, 기타 선거관련 통계 및 자료는 현재 보관되지 못하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관치지방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말에 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이란 한 세대의 휴면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4,304인의 시·군 및 자치구 의원을 선출하였고, 4월 15일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일제히 개원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실질적인 개막을 하게 되었다.

### 3. 기초의회(군의원) 선거

#### 1) 제1대(1991. 3.~1995. 5.30.)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양양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읍·면별로 1선거구로 조정하여 의원의 정수는 양양읍 2인, 5개 면은 각각 1인으로 총 7인이었다. 모두 20인이 출마하여 평균 2.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구 33,506인 중 선거인 21,933인(65.6%)으로 이중 남자가 10,751인(49%), 여자가 11,182인(51%)이었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중 84.6%에 해당하는 18,561인이 투표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 제1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읍면	투표구	선거 인수	투표 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양양	-	-	-	노재창	안태현	김남호	권순노	이상민	-	33	30
	부재자	241	211	4	44	46	44	40	178	33	30
	계	6,963	5,670	76	1,231	1,928	617	1,709	5,561	109	1,293
서면	-	-	-	이정인	신명섭	-	-	-	소계	-	-
	부재자	222	173	72	73	-	-	-	145	28	49
	계	3,241	2,915	1,406	1,423	-	-	-	2,829	86	326
손양	-	-	-	최종천	고광혁	함상순	-	-	소계	-	-
	부재자	127	102	19	26	43	-	-	88	14	25
	계	2,322	1,985	494	568	880	-	-	1,942	43	337
현북	-	-	-	박상갑	김렬	이경일	-	-	소계	-	-
	부재자	114	93	37	21	24	-	-	82	11	21
	계	2,451	2,071	770	543	706	-	-	2,019	52	380
현남	-	-	-	황봉울	이상원	-	-	-	소계	-	-
	부재자	96	91	43	35	-	-	-	78	13	5
	계	3,470	2,871	1,923	885	-	-	-	2,808	63	599
강현	-	-	-	이상돈	김남필	김하수	김성환	김학춘	소계	-	-
	부재자	259	183	42	24	20	39	31	156	27	76
	계	3,486	3,049	888	433	331	628	698	2,978	71	437

■ 당선자 : 김남호, 신명섭, 함상순, 박상갑, 황봉울, 이상돈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1) 보궐선거(손양면선거구)

손양면 선거구 함상순 의원이 지병으로 1991년 10월 6일 사망하여 1991년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사항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선거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손양면 선거구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는 1991년 11월 26일 실시하였으며 총 선거인수 2,329인 중 1,725인이 투표하고 604인이 기권하여 74.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해 3월 26일 실시한 선거의 85.5%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 제1대 기초의원(군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 상황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최종천	고광혁	이종권			
합 계	2,329	1,725	463	675	570	17	604	74.1
부재자	42	13	-	2	8	3	29	-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2) 의정활동

### 가. 초대의회 원구성(1991. 4.15.)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1991년 4월 9일 양양군수가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군의회가 개원되었다. 4월 15일 10시에 개최된 제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함상순(손양면 선거구)의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제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어 제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제2차 투표결과 김남호 의원이 2표, 함상순 의원이 5표를 각각 획득하여 초대 군의회 의장으로 함상순 의원이 선출되었다. 곧 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남호 의원 1표, 이상돈 의원 1표, 신명섭 의원이 5표를 획득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명섭(서면 선거구)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군의회의 원구성을 마쳤다.

### 나. 사무기구 현황

군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의회사무과의 주요사무는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 의안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의정보도(홍보)자료 수집 및 발간,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청원과 진정의 처리와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임무가 있다.

## 2) 제2대(1995. 7.~1998. 6.)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4년이 지나 1995년 6월 27일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2대 양양군의회 선거가 있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양양군의회의원 선거에 확정된 선거인 수는 22,156인으로 전체 인구의 70.9%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10,884인(49%), 여자가 11,272인(51%)이었다. 6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7인(양양읍 2, 5개 면 각 1)으로 후보자 등록은 양양읍 5, 서면 2, 손양면 3, 현북면 5, 현남면 2인으로 모두 19인이 등록하였으며 후보자 중 사퇴자 및 등록무효자는 없어 본 군에서는 무투표구가 없었다.

투표상황은 총 선거인수 22,156인 중 3,811인이 기권, 1,848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강원도 투표율 74.8% 보다 상회하는 82.8%로서 이는 전국의 투표율로 우리 군민의 높은 주권의식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3〉 제2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구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양양	-	-	-	김남호	이건필	이상민	안태현	권순노	소계	-	-
	부재자	307	285	52	26	83	61	41	263	22	22
	계	7,673	6,357	1,248	748	1,860	1,328	957	6,141	216	1,316
서면	-	-	-	박철수	김호열	-	-	-	소계	-	-
	부재자	124	117	40	62	-	-	-	102	15	7
	계	3,095	2,550	1,358	1,099	-	-	-	2,457	93	545
손양	-	-	-	이종권	김준식	고용달	-	-	소계	-	-
	부재자	121	96	23	24	35	-	-	82	14	25
	계	2,240	1,862	260	487	1,019	-	-	1,766	96	378
현북	-	-	-	이근천	박상갑	오세만	김돈일	최덕집	소계	-	-
	부재자	85	78	7	14	14	11	14	61	17	7
	계	2,308	1,951	226	286	290	348	703	1,853	98	357
현남	-	-	-	이상원	황봉율	-	-	-	소계	-	-
	부재자	97	90	33	41	-	-	-	74	16	7
	계	3,283	2,693	1,362	1,176	-	-	-	2,538	155	590
강현	-	-	-	이상돈	김성환	-	-	-	소계	-	-
	부재자	147	126	65	46	-	-	-	111	15	21
	계	3,557	2,935	1,294	1,529	-	-	-	2,823	112	622

■ 당선자 : 김남호, 이상민, 신명섭, 함상순, 박상갑, 황봉율, 이상돈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3) 제3대(1998. 7. 1.~2002. 6.30.)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군의회 의원 선거에 확정된 선거인수는 22,861인으로 전체 인구의 73.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11,291인(49%), 여자가 11,590인(51%)이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6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7인(양양읍 2, 5개 면 각 1)으로 양양읍 3, 서면 2, 손양면 1, 현북면 2, 현남면 2, 강현면 2인으로 모두 12명이 등록하였다. 투표율은 총선거인수 22,861인 중 17,756인이 투표하여 77.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손양면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으로 고용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4〉 제3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 권
양양읍	-	-	-	박상형	이건필	김충래	계	-	-
	부재자	293	278	89	86	90	265	13	15
	계	8,415	6,364	1,869	2,626	1,684	6,199	165	2,051
서 면	-	-	-	박철수	여기연	-	-	-	-
	부재자	90	81	49	28	-	77	4	9
	계	3,022	2,365	1,219	1,083	-	2,302	63	657
현북면	-	-	-	최덕집	김돈일	-	-	-	-
	부재자	114	103	54	43	-	97	6	11
	계	2,345	1,901	819	1,026	-	1,845	56	444
현남면	-	-	-	황봉율	이상원	-	-	-	-
	부재자	115	109	73	28	-	101	8	6
	계	3,309	2,686	1,599	1,012	-	2,611	75	623
강현면	-	-	-	김성환	김주혁	-	-	-	-
	부재자	135	131	61	60	-	121	10	4
	계	3,552	2,709	1,148	1,498	-	2,646	63	843

■ 당선자 : 이건필, 박상형, 박철수, 고용달, 김돈일, 황봉율, 김주혁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4) 제4대(2002. 7. 1.~2006. 6.30.)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23,171인으로 전체 인구의 77.2%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남자가 11,573인(49.7%), 여자가 11,634인(50.3%)이었다. 확정된 부재자수는 739인으로 이 중 남자가 492인(66.5%), 여자가 247인(33.4%)이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5〉 제4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양양읍	8,431	6,315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6,105	210	2,116
			김시범	박태석	이건필	김용래	박상형			
			1,211	1,579	1,270	746	1,299			
서면	2,970	2,401	무소속	무소속	-	-	-	2,329	72	569
			김현수	박철수	-	-	-			
			1,291	1,038	-	-	-			
손양면	2,400	1,912	무소속	무소속	-	-	-	1,852	60	488
			이정하	김준식	-	-	-			
			867	985	-	-	-			
현북면	2,446	1,892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	-	1,830	62	554
			오세만	함영규	김주혁	-	-			
			968	746	116	-	-			
현남면	3,347	2,626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	2,556	70	721
			김우섭	유종번	홍우표	이운형	-			
			841	475	610	630	-			
강현면	3,577	2,698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	-	1,628	70	879
			김주혁	손호재	김일수	-	-			
			1,535	114	979	-	-			

■ 당선자 : 박태석, 박상형, 김현수, 김준식, 오세만, 김우섭, 김주혁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5) 제5대(2006. 7. 1.~2010. 6.30.)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련된 “돈 안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번 선거는 물론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역사 이래 최초로 6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모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허용,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기초의원 제도 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문제 개선,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연고주의 등 그릇된 선거폐습을 타파하고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선거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던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책임정치 구현을 시도하였으며,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및 선거구를 광역화하고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의 보수를 유급화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의 이유로 기초 자치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당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및 공천권의 지방이양, 당내 경선 실시 및 경선불복 금지, 당내경선 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의 국가부담 등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원 경선을 실시한 정당에서는 당비대납 문제가, 공천심사기구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에서는 공천헌금 문제가 드러나는 등 민주적 경선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이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지역·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정책경쟁을 통한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하여 ‘매니페스토(manifesto : 참공약 선택하기)운동’이 시민단체·언론의 주도로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과거의 낙천·낙선운동 등 네거티브운동 대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하는 정당 간의 과열경쟁과 지방의원 유급화, 정당추천제의 전면 허용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 시비 빈발, 금품·향응 제공, 관전선거 등 또다시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았으나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인상과 함께 50배 과태료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였고, 선거 초기 정치·선거부패의 근원인 5대 중범죄를 선정·공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8,685 → 5,914건).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40%), 비방·흑색전선(△52%) 등 중대 선거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련된 공명선거 기초가 더욱 유지·발전되었다. 그러나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막판 금품 살포 등의 돈 선거 폐습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잔존하였고, 과잉·편파단속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인구의 증가로 선거를 거둬할수록 인터넷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가고, 그에 비례해서 시공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예·인신공격을 차단하여 사이버 공간을 선거운동의 유용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유권자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60여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3년 이상의 영주체류 외국인 6,700여 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거소에 관계없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교부, E-mail 발송, 홍보물 발송 등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정치신인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에서도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 광고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확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을 항목별 산정방법에서 총액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여 후보자 등이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하여 진정한 선거고영제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확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과열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대규모 청중 동원이 예상되는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연설회를 대담·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로 전환시켜 건전한 선거운동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6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조합장 등 위탁선거관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업무량이 가중되었으나 정치관계 법규의 조기 개정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대과없이 선거를 관리하였다. 특히 E-선거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신고·신청업무를 접수·처리하여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재자투표 실시, 후보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 위치 게재, 인주내장형 기표용구 전면 도입, 외국인선거권자용 투표안내문 발송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행정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시행함에 따라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가 성명의 가다나순으로 배정되어 앞순위 기호를 부여 받은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2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함으로써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20.1→42.9%)되었으며, 6개 동시선거 실시로 후보자 수가 너무 많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투표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의한 선택보다는 정당선택도에 따른 선택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6년부터 선거일은 공고주의에서 선거일 법정주의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거 선거일 공고주의 채택시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자의적으로 조절한 병폐를 시정하고자 한 산



물이다. 선거일을 법정화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선거관계 주요 일정을 미리 알 수 있어 그만큼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2-6〉 제5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가선거구 (양양읍 서면 강현면)	15,707	10,965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449		4,742
			김찬기	이건필	김일수	김현수	박상혁	김동일			
			753	1,061	1,651	1,914	1,327	594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소계			
			김성환	김용래	김호열	박태석	최종한				
나선거구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7,875	5,937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181		1,938
			전양병	김우섭	오세만	이정하	김의성	김준식			
			837	1,385	1,320	702	282	847			
			무소속	소계	-	-	-	-			
			원명구		-	-	-	-			
			383	5,756	-	-	-	-			

■ 당선자 : 김현수, 김일수, 박상혁, 김우섭, 오세만, 김준식, 전정남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선거일 법정주의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선거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비례대표는 무투표로 전정남 의원이 당선되었다.

#### 4) 제6대(2010. 7. 1.~2014. 6.30.)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다. 확정된 선거인수는 23,195인으로 16,947인이 투표하여 73.0%의 투표율을 보였다. 가선거구(양양읍, 서면, 강현면)에서는 김현수, 김일수, 김택철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으며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7〉 제6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가선거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가선거구	15,701	11,277	김현수	김일수	김택철	박두영	박상혁
소 계			2,205	1,929	1,782	297	1,708
부재자	1,017	923	125	214	211	31	123
양양읍	8,695	525	774	318	1,316	164	1,247
서 면	2,611	1,954	1,110	64	122	50	171
강현면	3,378	283	196	1,333	133	52	167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비 고
가선거구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합 계	-	-	-
	이건필	전정남	김시범				
소 계	1,393	1,238	380	10,932	345	4,424	-
부재자	93	68	22	887	36	94	-
양양읍	949	883	252	5,903	170	2,622	-
서 면	157	150	60	1,884	70	657	-
강현면	194	137	46	2,258	69	1,051	-

■ 당선자 : 김현수, 김일수, 김택철

〈표2-8〉 제6대 기초의원(군의원) 선거 나선거구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나선거구	7,494	5,670	김우섭	김준식	오세만	최홍규	김의성
소 계			833	761	871	1,294	765
부재자	354	317	53	63	91	41	34
손양면	2,017	1,560	87	603	39	42	631
현북면	2,297	1,637	93	52	662	57	50
강현면	2,826	2,156	600	43	79	1,154	50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비 고
가선거구	무소속	무소속	-	합 계	-	-	-
	김광식	고제철	-				
소 계	248	701	-	5,473	197	1,824	-
부재자	9	17	-	308	9	37	-
손양면	55	46	-	1,503	57	457	-
현북면	138	532	-	1,584	53	660	-
강현면	46	106	-	2,078	78	670	-

■ 당선자 : 김우섭, 오세만, 최홍규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 4.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 1) 제1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제1대 민선 양양군수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역사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주민이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투표결과 당선자인 오인택 후보는 총 투표인수 18,845인의 31.4%인 5,925표의 득표에서 보듯이 각 후보자 간에 치열한 접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1대 초대 민선군수로 오인택 후보가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9〉 제1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계		
			정명시	신명섭	손용만	오인택			
양양군	22,156	18,345	5,739	5,361	654	5,925	17,679	666	3,811
부재자	881	792	241	208	49	196	694	98	89
양양읍	7,366	6,071	1,918	1,706	143	2,177	5,944	127	1,295
서 면	2,971	2,433	510	1,149	65	632	2,356	77	538
손양면	2,119	1,766	481	596	72	538	1,687	79	353
현북면	2,223	1,873	371	336	53	1,054	1,814	59	350
현남면	3,186	2,603	1,545	454	80	399	2,478	125	583
강현면	3,410	2,807	673	912	192	929	2,706	101	603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2)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제2대 민선군수의 선거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한나라당의 오인택 후보가 총 투표인수 17,755인의 33.1%인 5,885표를 득표하였다. 무소속의 정상철 후보 보다 98표를 더 획득하여 제1대에 이어 제2대 민선 양양군수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0〉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국민회의	무소속	계		
			오인택	이상민	정상철			
양양군	22,861	17,755	5,885	5,781	5,737	17,403	352	5,106
부재자	837	782	297	245	191	733	49	55
양양읍	8,122	6,086	2,189	2,250	1,564	6,003	83	2,036
서 면	2,932	2,284	711	908	614	2,233	51	648
손양면	2,128	1,652	496	641	485	1,622	30	476
현북면	2,231	1,798	826	386	553	1,765	33	433
현남면	3,194	2,576	421	394	1,698	2,513	63	618
강현면	3,417	2,577	945	957	632	2,534	43	840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3) 제3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제3대 민선 양양군수의 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한나라당의 이진호 후보가 총 투표인수 17,839인의 43.2%인 7,722표를 획득하여 5,497표를 획득한 무소속의 양동창 후보를 누르고 제3대 민선군수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1〉 제3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계		
			이진호	안석현	양동창			
양양군	23,171	17,839	7,722	4,282	5,497	17,501	338	5,332
부재자	739	636	251	134	174	559	77	103
양양읍	8,215	6,125	2,711	1,508	1,839	6,058	67	2,090
서 면	2,833	2,287	1,042	512	699	2,253	34	546
손양면	2,311	1,840	827	400	582	1,809	31	471
현북면	2,355	1,808	824	436	513	1,773	35	547
현남면	3,276	2,561	1,023	623	870	2,516	45	715
강현면	3,442	2,582	1,044	669	820	2,533	49	860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4) 제4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제4대 민선군수의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한나라당의 이진호 후보가 총 투표인수 16,901인의 58.3%인 9,861표를 획득하여 무소속의 정상철 후보를 누르고 제4대 민선군수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2〉 제4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무소속	계		
			김남웅	이진호	정상철			
양양군	23,582	16,901	2,641	9,861	4,124	16,626	275	6,681
부재자	1,119	991	146	616	179	941	50	128
양양읍	8,628	5,815	986	3,346	1,417	5,749	66	2,813
서 면	2,717	2,040	299	1,322	379	2,000	40	677
손양면	2,099	1,585	228	1,033	301	1,562	23	514
현북면	2,303	1,693	239	969	459	1,667	26	610
현남면	3,125	2,344	235	1,079	989	2,303	40	781
강현면	3,591	2,433	508	1,495	400	2,403	30	1,158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5) 제5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선거

제5대 민선군수의 선거는 2010년 6월 2일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이한 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비례대표 도의원을 병행하여 직접선거로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한나라당의 이진호 후보가 총 투표인수 16,947인의 32.9%인 5,466표를 획득하여 무소속의 김관호 후보를 누르고 제5대 민선군수에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3〉 제5대 기초자치단체장(군수)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무소속	계		
			이진호	김남웅	김관호	정상철			
양양군	23,195	16,947	5,466	2,267	5,078	3,820	16,631	315	6,248
부재자	1,371	1,240	501	171	325	195	1,192	48	131
양양읍	8,695	6,073	1,830	843	2,281	1,041	5,995	74	2,622
서 면	2,611	1,954	706	271	611	303	1,891	64	657
손양면	2,017	1,560	429	161	660	275	1,525	34	457
현북면	2,297	1,637	519	182	391	517	1,609	27	660
현남면	2,826	2,156	607	157	219	1,135	2,118	38	670
강현면	3,378	2,327	872	482	590	353	2,297	30	1,051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 5.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1956년부터 실시하였으나 양양지역은 지방자치제 중단기가 지난 1991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되었다.

### 1) 제3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3대 광역자치단체의회(도의원) 선거일은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도의원 선거에는 제1선거구(양양읍, 서면, 강현면)와 제2선거구(손양면, 현북면, 현남면)로 구분하여 각각 1인씩 선출하였다. 제1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안석현 후보가 6,592표로 당선되었으나 결원사항이 발생하여 재선거 결과 김주혁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2-14〉 제3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1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무소속	계		
			박응길	안석현			
합 계	13,668	11,474	4,554	6,592	11,146	328	2,194
부재자	714	576	209	291	500	76	138
양양읍	6,762	5,460	2,156	3,167	5,323	137	1,302
서 면	3,006	2,669	1,123	1,485	2,608	61	337
강현면	3,186	2,769	1,066	1,649	2,715	54	417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제2선거구에서는 정상철 후보가 2,913표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5〉 제3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2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무소속	무소속	계		
			정상철	이종영	박세각			
합 계	8,251	6,894	2,913	2,707	1,134	6,754	140	1,357
부재자	285	254	87	91	48	226	28	31
손양면	2,248	1,854	378	1,268	183	1,829	25	394
현북면	2,330	1,944	763	734	405	1,902	42	386
현남면	3,388	2,842	1,685	614	498	2,797	45	546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2) 제4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4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진호 후보가 총 투표인수 11,840인의 48.3%인 5,723표를 득표하여 무소속의 김주혁 후보와 민주당의 박춘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2-16〉 제4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1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계		
			이진호	박춘섭	김주혁			
합 계	14,325	11,840	5,723	2,355	3,288	11,366	474	2,485
부재자	578	528	233	106	137	476	52	50
양양읍	7,366	6,071	3,444	1,309	1,125	5,878	193	1,295
서 면	2,971	2,433	1,282	543	502	2,327	106	538
강현면	3,410	2,808	764	397	1,524	2,685	123	602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자유당 정상철 후보가 투표인수 6,505인의 38.0%인 2,494표를 획득하여 무소속의 이종영 후보, 민주당의 함종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7〉 제4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2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무소속	계		
			정상철	함종선	이종영			
합 계	7,831	6,506	2,494	1,634	2,018	6,146	360	1,325
부재자	303	264	76	84	61	221	43	39
손양면	2,119	1,766	310	299	1,067	1,676	90	353
현북면	2,223	1,873	581	489	727	1,797	76	350
현남면	3,186	2,603	1,527	762	163	2,452	151	583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3) 제5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5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선거구에서는 박용길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제2선거구에서는 국민회의 함종선 후보가 투표인수 6,318인의 60.2%인 3,805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제2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8〉 제5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2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민주당	계		
			최종익	함종선			
합 계	7,872	6,318	2,269	3,805	6,074	244	1,554
부재자	319	292	88	181	269	23	27
손양면	2,128	1,652	638	954	1,592	60	476
현북면	2,231	1,798	694	1,044	1,738	60	433
현남면	3,194	2,576	849	1,626	2,475	101	618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4) 제6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6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선선거구에서 한나라당 박용길 후보가 투표자수 11,414인의 54.9%인 6,277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19〉 제6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1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계		
			박용길	이기우			
합 계	14,978	11,414	6,277	4,799	11,076	338	3,564
부재자	488	417	200	166	366	51	71
양양읍	8,215	6,131	3,424	2,581	6,005	126	2,084
서 면	2,833	2,285	1,314	898	2,212	73	548
강현면	3,442	2,581	1,339	1,154	2,493	88	861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김돈일 후보가 투표자수 6,430인의 39.6%인 2,552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0〉 제6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2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무소속	계		
			김돈일	함종선	홍현창			
합 계	8,193	6,430	2,552	2,022	1,638	6,212	218	1,763
부재자	251	219	72	87	30	189	30	32
손양면	2,311	1,841	909	474	397	1,780	61	470
현북면	2,355	1,805	1,048	487	216	1,751	54	550
현남면	3,276	2,559	521	972	994	2,487	72	717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5)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박용길 후보가 6,806표로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1〉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1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계		
			김양수	박용길			
합 계	15,707	10,962	3,828	6,806	10,634	328	4,745
부재자	771	676	197	442	639	37	95
양양읍	8,628	5,814	2,203	3,473	5,676	138	2,814
서 면	2,717	2,040	687	1,269	1,956	84	677
강현면	3,591	2,432	741	1,622	2,363	69	1,159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제4회 동시지방선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박용길 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무소속의 김양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22〉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1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무소속	계		
			박상형	김양수			
합 계	15,583	7,548	3,076	4,426	7,502	46	8,035
부재자	325	278	124	150	274	4	47
양양읍	9,107	4,162	1,665	2,476	4,141	21	4,945
서 면	2,814	1,522	668	838	1,506	16	1,292
강현면	3,662	1,586	619	962	1,581	5	2,076

자료 : 위의 홈페이지.

제2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임용식 후보가 2,007표로 당선되었다.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3〉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제2선거구)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계		
			이용인	임용식	김돈일	이종영	함종선			
합 계	7,875	5,936	913	2,007	938	1,183	783	5,824	112	1,939
부재자	348	315	43	97	58	58	42	298	17	33
손양면	2,099	1,585	160	330	175	757	129	1,551	34	514
현북면	2,303	1,693	161	386	614	303	203	1,667	26	610
현남면	3,125	2,343	549	1,194	91	65	409	2,308	35	782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6) 제8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도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인 도의원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양양군에서는 헌법제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하여 광역의원의 선거구 조정에 따라 종전의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축소 조정되었다. 아울러 최초로 비례대표 도의원도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무소속 김양수 후보가 투표인수 16,947인의 45.5%인 7,726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개표결

과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4〉 제8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도의원) 후보자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무소속	무소속	계		
			임용식	김양수	김정중			
합 계	23,195	16,947	6,554	7,726	2,099	16,379	525	6,248
부재자	1,371	1,240	483	518	196	1,197	-	43
양양읍	8,695	6,073	1,779	3,125	1,010	5,914	159	2,622
서 면	2,611	1,954	643	1,038	198	1,879	75	657
손양면	2,017	1,560	411	915	165	1,491	69	457
현북면	2,297	1,637	850	550	166	1,566	71	660
현남면	2,826	2,156	1,543	378	141	2,062	94	670
강현면	3,378	2,327	845	1,202	223	2,270	57	1,051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표2-25〉 제8대 광역자치단체의회 비례대표의원 정당별 득표 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계		
합 계	23,195	16,947	8,254	5,205	830	612	797	214	14,258	1,032	6,248
부재자	1,371	1,240	531	425	78	24	101	8	1,167	73	131
양양읍	8,695	6,073	2,882	2,006	314	226	271	72	5,771	296	2,622
서 면	2,611	1,954	1,023	542	100	64	64	26	1,819	136	657
손양면	2,017	1,560	652	499	104	77	89	24	1,445	115	457
현북면	2,297	1,637	796	489	76	57	76	27	1,521	115	660
현남면	2,826	2,156	1,127	579	63	73	102	35	1,979	177	670
강현면	3,378	2,327	1,241	665	95	91	94	22	2,208	119	1,051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 6.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의 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것을 1995년 6월 27일 도민이 직접 도정을 이끌어갈 도지사를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 1) 초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초대 도지사 선거는 본 군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1970년 12월 29일 실시되었다.

〈표2-26〉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구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현황						합 계
		황호현	최운철	이창근	정봉교	박영록	안상한	
1개시군 426개소	280,246	61,408	40,762	38,325	11,872	62,147	56,436	271,950

### 2)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선거에는 당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 이상룡 후보와 자유민주연합의 최각규 후보가 출마하여 투표인 788,999인의 63.4%인 500,894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양양군에서는 투표인수 18,845인의 96.2%인 18,144표를 획득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27〉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자민련	계		
			이상룡	최각규			
강원도	1,048,490	783,999	260,004	500,894	760,898	23,101	264,491
양양군	22,156	18,345	4,568	13,144	17,712	633	3,811
부재자	881	792	218	474	692	100	89
양양읍	7,366	6,071	1,541	4,403	5,944	127	1,295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자당	자민련	계		
			이상룡	최각규			
서 면	2,971	2,433	621	1,742	2,363	70	538
손양면	2,119	1,766	393	1,311	1,704	62	353
현북면	2,223	1,873	381	1,429	1,810	63	350
현남면	3,186	2,603	681	1,799	2,480	123	583
강현면	3,410	2,807	733	1,986	2,719	88	603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3)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선거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하였다.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가 투표인수 698,705인의 38.4%인 268,559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8〉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자민련	무소속	계		
			김진선	한호선	이상룡			
강원도	1,087,113	698,705	268,559	231,376	183,775	683,710	14,995	388,408
양양군	22,861	17,755	6,513	5,909	4,819	17,241	514	5,106
부재자	837	782	310	162	258	730	52	55
양양읍	8,122	6,086	2,564	1,694	1,684	5,942	144	2,036
서 면	2,932	2,284	698	1,003	520	2,221	63	648
손양면	2,128	1,652	524	550	522	1,596	56	476
현북면	2,231	1,798	611	754	378	1,743	55	433
현남면	3,194	2,576	929	825	742	2,496	80	618
강현면	3,417	2,577	877	921	715	2,513	64	840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4) 제3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제3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하였다.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가 투표인수 671,242인의 69.8%인 468,987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29〉 제3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계		
			김진선	남동우			
강원도	1,129,859	671,242	468,987	190,451	659,438	11,804	458,617
양양군	23,171	17,835	13,285	4,093	17,378	457	5,336
부재자	739	636	407	148	555	81	103
양양읍	8,215	6,110	4,631	1,385	6,016	94	2,105
서 면	2,833	2,287	1,682	551	2,233	54	546
손양면	2,311	1,837	1,367	418	1,785	52	474
현북면	2,355	1,806	1,391	363	1,754	52	549
현남면	3,276	2,561	1,927	574	2,501	60	715
강현면	3,442	2,579	1,865	650	2,515	64	863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5) 제4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제4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하였다.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가 투표인수 681,633인의 69.1%인 471,613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30〉 제4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계		
			이창복	김진선	유재규	유승규			
강원도	1,160,977	681,633	148,302	471,613	29,028	19,383	668,326	13,307	479,344
양양군	23,582	16,899	2,584	13,324	415	240	16,563	336	6,683
부재자	1,119	991	164	731	31	21	947	44	128
양양읍	8,628	5,813	891	4,635	119	82	5,727	86	2,815
서 면	2,717	2,040	290	1,613	59	30	1,992	48	677
손양면	2,099	1,585	249	1,234	47	18	1,548	37	514
현북면	2,303	1,693	230	1,343	56	32	1,661	32	610
현남면	3,125	2,343	374	1,834	48	39	2,295	48	782
강현면	3,591	2,433	386	1,933	55	18	2,392	41	1,158

자료 : 위의 홈페이지.

## 6) 제5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선거

제5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투표인수 16,947인의 51.8%인 8,295표를 득표하였으나 48.2%를 득표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31〉 제5대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계		
			이계진	이광재			
강원도	1,190,509	741,724	326,111	388,443	714,554	27,170	448,785
양양군	23,195	16,947	8,295	7,722	16,017	929	6,248
부재자	1,371	1,240	543	600	1,143	97	131
양양읍	8,695	6,073	2,813	3,028	5,841	228	2,622
서 면	2,611	1,954	1,018	821	1,839	116	657
손양면	2,017	1,560	711	757	1,468	92	457
현북면	2,297	1,637	841	700	1,541	95	660
현남면	2,826	2,156	1,147	819	1,966	190	670
강현면	3,378	2,327	1,220	997	2,217	110	1,051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 7.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강원도 교육감 및 제5선거구(속초, 고성, 양양) 교육위원을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2-32〉 제1대 민선교육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민병희	권은석	조광희	한장수	계		
강원도	1,190,509	741,762	281,805	96,992	97,003	230,187	705,987	35,775	448,747
양양군	23,195	16,947	5,560	2,823	1,598	5,768	15,749	1,198	6,248
부재자	1,371	1,240	442	232	131	364	1,169	71	131
양양읍	8,695	6,073	2,068	894	597	2,194	5,753	320	2,622
서 면	2,611	1,954	601	334	159	701	1,795	159	657
손양면	2,017	1,560	465	331	143	478	1,417	143	457
현북면	2,297	1,637	476	353	154	526	1,509	128	788
현남면	2,826	2,156	637	361	218	713	1,929	227	897
강현면	3,378	2,327	870	318	196	792	2,176	151	1,202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표2-33〉 제1대 제5선거구 민선교육위원 선거 후보자별 득표현황

구 분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기권수
			김세영	윤중학	계		
강원도	137,980	91,162	46,749	37,533	84,282	6,880	46,818
양양군	23,195	16,947	8,351	6,979	15,330	1,617	6,248
부재자	1,371	1,240	646	504	1,150	90	131
양양읍	8,695	6,073	3,077	2,533	5,610	463	2,622
서 면	2,611	1,954	910	830	1,740	214	657
손양면	2,017	1,560	702	688	1,390	170	627
현북면	2,297	1,637	770	692	1,462	175	660
현남면	2,826	2,156	1,120	722	1,842	314	670
강현면	3,378	2,327	1,126	1,010	2,136	191	1,051

자료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보고서, 양양군.

---

## 참고문헌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회-4회  
연도별 양양군 통계연보  
양양군 의회, 양양군 의회 회의록  
양양군의회, 의정백서  
양양군의회, 의회보

---



### III. 행정

#### 1. 개설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양양지방은 이미 수십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여 왔다. 선사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인류의 조상이고 양양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상고시대에는 고예국지(古濊國地)로 산과 강의 자연적 지세를 부계(部界)로 각 부족이 독자적인 자치제도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령계(新羅領界)로 양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고구려 때 익현현(翼峴縣, 일명 : 伊文縣), 통일신라 때 수성군(守城郡)의 영현으로 되었다가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이르러 지방행정구역을 10도(道)로 분할하면서 삭방도(朔方道)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현종 9년(1018년) 10도를 폐하고 도양계(道兩界)를 둘 때, 동계(영동 및 영남일부)에 속하는 동시에 동산현(洞山縣)을 내속(來屬)시켰다.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비로소 강원도라 칭하고 효종 원년(1650년)에는 원양도(原襄道)라 불렀으나 얼마 안 되어 구칭으로 복칭하였다.

고종 33년(1896년) 칙령 제36호(동년 8월 4일 공포)로 13도제(道制) 실시에 따라 강원도를 26군으로 설치하여 이때에 양양군으로 칭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으로 총독통치시대가 시작됨으로서 망국민의 치욕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14년 4월 1일부터 부제(府制)를 시행하여 일본인교육을 위한 학교조직(法人格)만을 학교조합령에 의해서 별도로 존속시켜 제반사무를 부(府)에서 접수하게 하였다. 1917년 6월 ‘면제’(面制)를 제정하여 면(面)을 단순한 행정구역으로부터 사업경영 및 재정권의 주체로 승격시켰다. 1930년 12월 새로운 “면제”의 개정에 의해서 학교조합 및 학교사무를 부

(府)에서 통합 관장하게 되었다.

8·15광복 후 38° 선으로 인하여 현남면과 서면의 일부가 강릉군에 속하였으며, 본군의 대부분 지역은 불행하게도 북한 치하에서 공산통치를 받아야만 했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다행하게 1953년 휴전되면서 그 후 1954년 10월 29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현남면은 명주군에, 서면·현북면 일부는 본 군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1일 일정구역 개편으로 속초읍이 시(市)로 승격되고, 토성·죽왕면은 고성군에 편입되고, 현남면은 본 군에 환원되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자주 개편함에 따라 행정의 안정기는 5·16군사정변 후 1963년 민정이양과 더불어 제반행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지방행정의 능률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행정 간의 권한재분배’ 등을 이룩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더욱 능률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지방행정에 관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단행하게 되었다.

1976년에 들어서면서 지방행정제도는 국민총화를 강조하는 국정지표에 따라 먼저 공무원 사회에 서정쇄신(庶政刷新)의 기풍을 심화 정착시키고, 주민본의의 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총화를 위한 저변을 구축하여 조국을 보위하고 민족중흥의 과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역사의식 속에서 자주정신 함양과 총력안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시켜왔다. 특히, 본 군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전국에 제일 우수한 새마을사업 실적을 거양한 군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 정착화,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의 이념과 의지가 지방행정에 반영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로 강현면 상북리 일부가 속초시 설악동에 편입되었다.



## 2. 양양군의 행정구역

### 1) 행정구역의 변천

선사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인류의 중심이요 양양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고조선시대의 강원지방은 예맥(濊貊)이라고 불렸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성립하였을 때에는 삼국의 국경지대로서, 백제의 세력이 강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으며, 고구려의 세력이 강하였을 때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당시 영동지방은 예국(濊國)으로, 영서지방은 맥국(貊國)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예국의 수도는 지금의 강릉이고, 맥국의 수도는 지금의 춘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양양지방은 위치적으로 예국에 속하였다고 보나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후 한무제(漢武帝)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국토는 한사군(漢四郡)으로 분할되었다. 그 때 강원도의 서부는 낭랑군, 북부는 임둔군으로 양분되어 고구려가 남하할 때까지 400년간 통치를 받게 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9주(州) 5소경제도(小京制度)를 실시하였다. 이 때 9주(州) 중의 하나가 삭주(朔州 : 춘천), 명주(溟州 : 강릉)이었다. 현재의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삭주와 명주 그리고 북원경 지방이었다. 삭주와 명주에는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하는 총관(總管)을 파견하였으며 행정적인 면 보다는 군사적인 면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C.37~668년까지 고구려 때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 통일신라 때(668~935년)는 수성군(守城郡)의 영현(嶺縣 : 현감), 고려 고종 8년(1221년)에 양주방어사, 고종 44년(1257년)에 덕령현(德寧縣), 원종 원년(1260년)에 양주군(襄州郡)으로 되었다가, 조선 태조6년(1397년)에 목조(穆祖)의 외향(外鄕)이라는 연유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된 후, 곧 양주부(襄州府)로 개칭하였다. 태종 16년(1416년)에 지명을 양양(襄陽)이라 개칭하고 부사를 두었다.

광해군 때 역란을 평정치 못했다는 이유로 1618~1622년(4년간)과 숙종 때 또한 역적에 굴복한 이유로 1688~1696년(8년간) 2회에 걸쳐 총 12년간 현(縣)으로 격하된 때도 있었다. 순조 12년(1812년)에 다시 부(府)로 승격되었다가 고종 32년(1895년)에 양양군으로 되어 군수를 두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4-1〉 조선조 전국행정구역 현황

연 도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	참고문헌
성종 3년 (1472년)	4	4	20	44	82	175	경국대전 (經國大典)
고종 3년 (1866년)	5	5	-	75	27	148	대한회통 (大韓會通)

자료 : 한국인의 족보

1919년 간성군(杆城郡)이 폐지됨에 따라 토성면과 죽왕면이 본 군에 편입되고,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북위 38° 선을 중심으로 국토가 양분되어 현남면과 현북면, 서면 일부가 강릉군에 속하였다가 6·25한국전쟁으로 육군 제1군단 진주와 아울러 본 지방이 수복되어 군정을 실시하던 중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현남면은 명주군(溟州郡)에 편입되고, 현북면과 서면 일부는 다시 본 군에 복귀되었다.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1963년 1월 1일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고, 토성면과 죽왕면이 고성군에 편입되는 반면, 명주군 현남면이 본 군에 환원되어 6개 면(面)으로 되었다.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1973년 7월 1일 서면 명개리(明開里)가 홍천군 내면에, 손양면의 상왕도리 일부가 양양면에 각각 편입되었으며,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 1979년 5월 1일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속초시 설악동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양양군 조례 제1152호로 손양면 가평리, 송현리 일부가 양양읍 송암리에 편입되었다.

〈표4-2〉 수복지구 행정구역 변경

시행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 경 내 용
1954.10.21.	법률 제350호	휴전선 남방 미수복지구 행정구역 확정	양양군 : 속초읍, 양양면, 손양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 서면, 현북면 고성군 :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 수동면 인제군 : 인제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 해안면 양구군 : 양구면, 남면, 동면, 방산면 화천군 : 화천면,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 철원군 : 철원읍, 갈말면, 동송면 김화군 : 김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자료 : 강원도(1975년), 강원총람.

1992년 11월 23일 양양군 조례 제1399호에 의거 양양읍 구교리가 구교1리와 구교2리로 분할되었고, 강현면 전진1리가 전진1리와 주청리로 나뉘었으며, 1996년 1월 9일 양양군 조례 제1516호에 의거 서면 장승2리에 장승3리가 편입되었다. 1997년 12월 15일 양양군 조례 제1614호에 의거 현남면에 신진리가 신설되었으며, 1999년 1월 9일 양양군 조례 제1635호에 의거 현남면 신진리가 인구1리·두창시변리에 편입되어 현재의 1개 읍, 5개 면, 124개 리가 되었다.

〈표4-3〉 양양군의 연혁

시 대	연 대	연 혁
고 대	미 상	동예(東濊)
고구려시대		익현현(翼峴縣) 일명 이문현(伊文縣)
통일신라시대		익령현(翼嶺縣)
고 려 시 대	현종 9년(1018년)	익령현(翼嶺縣)
	고종 8년(1221년)	양주군(襄州郡) 승격
	고종 44년(1257년)	덕령현(德寧縣)
	원종 원년(1260년)	양주군(襄州郡)으로 개칭
조 선 시 대	태조 6년(1397년)	양주부(襄州府) 승격
	태종 13년(1413년)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로 개편
	태종 16년(1416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고종 32년(1895년)	양양군(襄陽郡)으로 개칭
일 제 시 대	1919. 5.	간성군이 폐지됨에 따라 토성면, 죽왕면이 편입

시 대	연 대	연 혁
현 대	1945. 8. 15.	38°선 이남의 현남면과 현북, 서면 남쪽 일부가 강릉군에 편입 38°선 이북인 강현, 양양, 손양면과 현북, 서면 북쪽 일부가 공산 치하
	1953. 7. 27.	수북
	1954. 11. 17.	현남면이 명주군에 편입, 현북면과 서면 일부가 양양군에 복귀 (1개 읍 7개 면)
	1963. 1. 1.	속초읍이 시로 승격 분리, 죽왕면과 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에 환원(6개 읍)
	1973. 7. 1.	서면 명개리가 흥천군 내면에, 손양면 상왕도리 일부가 양양면에 편입
	1979. 5. 1.	양양면이 읍으로 승격
	1983. 2. 15.	강현면 상북리 일부가 속초시에 편입
	1989. 1. 1.	손양면 가평리, 송현리 일부가 양양읍 송암리에 편입
	1992. 11. 23.	양양읍 구교리가 구교1리, 구교2리로 분할 강현면 전진1리가 전진1리, 주청리로 분할
	1996. 1. 9.	서면 장승2리에 장승3리가 편입
	1997. 12. 15.	현남면에 신진리가 신설 (1개 읍, 5개 면, 125개 리)
	1999. 1. 9.	현남면 신진리가 인구1리, 두창시변리에 편입 (1개 읍, 5개 면, 124개 리)

자료 : 강원도(1975년), 강원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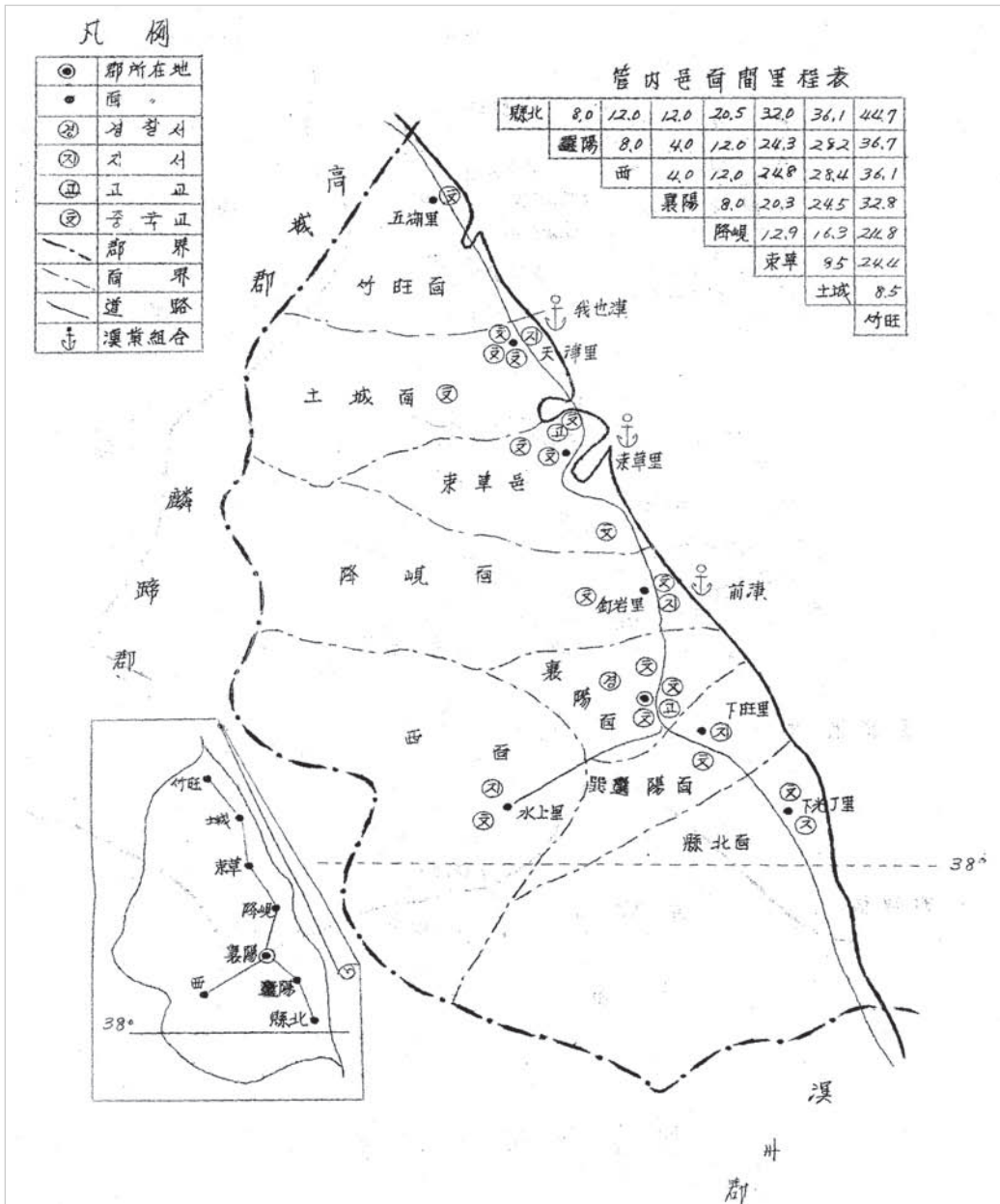
## 2) 구 행정기구(舊官制)

양양군은 역사적으로 영동북부지방의 행정·군사의 수부(首府)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조선초에 부로 승격되어 483년간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수행했던 대도읍으로서 품계 중3품인 도호부사가 봉직되었다(대도호부사 정3품, 군수 중4품, 현령 중5품, 현감 중6품).

조선 효종, 숙종 때에는 지금의 강원도의 명칭을 양양군을 중심으로 하여 원양도(原襄道) 또는 강양도(江襄道)라 칭하는 등 양양군이 옛부터 강원도를 대표될 수 있는 곳으로서 영동북부지방의 수부였다. 이로 인하여 군 전역에는 부사(府使)들의 선정비가 다량 발견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비(碑)가 세워져 있다.

부사일원(府使一員) 고려 원종(1259년) 이후 오문무당상당하삼품교수일원(伍文武堂

上堂下三品敎授一員)은 폐하였다. 상운찰방겸교양관(祥雲察訪兼敎養官)을 두고 영조 17년 신유(1741년)에 문신군수(文臣郡守)를 임명하였다가 고종 병신(1836년)부터 부사를 군수로 개칭하였다. 부사는 삼권을 장악하고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부여하였다(行郡政 警察 裁判).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양양군, 1962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양양군(1961년)



〈표4-4〉 양양부(襄陽府) 행정기구(관제)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방리(坊里)	12개 면 74개 리를 관할
관직(官職)	총 118인(좌수 1인, 별관 3인, 군관 15인, 아전 35인, 지인(知印) 16인, 사령 19인, 관노 23인, 관비 16인)
단묘(壇廟)	사목단(社稷壇), 문묘(文廟) 55칸, 성황단(城隍壇), 러단(廬壇), 성황사(城隍祠), 동해묘(東海廟) 15칸
공해(公廨)	객사(客舍) 55칸, 아사(衙舍) 108칸, 향청(鄉廳) 10칸, 훈련청(訓練廳) 14칸, 군기청(軍器廳) 10칸
진보(鎭堡)	대포영(大浦營, 성 둘레 1,469척, 높이 12척)
군(軍)	총 1,207인(보기병 454인, 어영군 19인, 금위군 37인, 자보(資保) 21인, 관남보 38인, 별파보 5인, 악공보(樂工保) 18인, 악생보(樂生保) 6인, 전설보(典設保 36인, 무학(武學) 13인, 아병(牙兵) 63인, 동오(東伍) 309인, 훈련도감포수보(訓練都監砲手保) 188인)

자료 : 『양주지』, 양양군, 1990, 413쪽

〈표4-5〉 구한말의 관제 및 정원현황

속관부사 (屬官府使)	좌수 (座首)	별관 (別官)	군관 (軍官)	아전 (衙前)	지인 (知印)	사령 (使令)	관노 (官奴)	관비 (官婢)	향리 (鄉吏)	통인 (通引)	가리 (假吏)
1員	1員	3名	15	35	16	19	23	16	17	10	17

자료 : 『양주지』, 양양군, 1990, 413쪽

면(面)에는 존위풍헌(尊位風憲)을 두고(지금의 면장과 같은 관위임) 권농감수하유사(勸農監手下有司) 각 1인을 두었으며, 고종 6년(1869년)에는 각 면의 존위(尊位)를 혁파(革罷)하고 면장으로 하였다.

〈표4-6〉 양양부(襄陽府) 관청의 규모

구 분	규 모
동헌 (東軒)	부사, 군수의 집무청으로서 현 군청터에 있었다. ○ 와유헌(臥遊軒) 즉 외동헌(外東軒) : 영조 6년 경술(1730년) 부사 권부(權孚) 창건 ○ 청연당(淸燕堂) 즉 내동헌(內東軒) : 영조 12년 병진(1736년) 부사 김중희(金重熙) 창건하고 사우(四雨)라 명한 것을 영조 32년 병자(1756년) 부사 임희교(任希敎)가 청연(淸燕)이라 고쳤다.
양양관 (襄陽館)	객사(客舍)라 불렀다. 영조 30년 갑술(1754년) 부사 이성억(李聖億) 중건
태평루 (太平樓)	객관문루(客館門樓)라 하였다. ○ 고려 충선왕(1309년) 이전 처음 창건(원나라 인종 연우년전)

구 분	규 모
태평루 (太平樓)	○ 세종 21년 기미(1439년)에 부사 송목(宋翼)이 재건(정통 4년) ○ 중종 32년 정유(1537년)에 부사 윤사임(尹思任)·정광정(鄭光廷)이 이어서 수리하고(가정 16년) ○ 효종 9년 무술(1658년) 부사 이연(李演)이 입주·부사 한진(韓縝)에 의해 상량(순치15년) ○ 영조 36년 경진(1760년) 부사 이헌경(李獻慶)이 중창하니 큰길에 매우 크고 화려했다.(승정후삼경진) ○ 정조 21년 정사(1797년) 부사 류헌주(柳憲周)가 중수하고 루의 안팎에 ‘太平樓’라 쓴 현판을 걸렀다. 안쪽은 우암 송문정공·바깥쪽은 안평대군이 썼다. ○1921년 완전소실되었다.
취산루 (醉山樓)	부의 문 밖에 영조 31년 을해(1755년) 부사 이성억이 세웠다.
현산정 (峴山亭)	성남문(城南門)이다. 숙종 26년 경진(1700년)에 부사 남치훈이 세움, 영조 24년 무진(1748년)에 부사 박필정 중창, 현판은 부사 채평윤 글씨였다.
한수루 (漢水樓)	동성문(東城門)이다. 숙종 26년 경진(1700년)에 부사 남치훈이 세웠다.
향사당 (鄉射堂)	부 서쪽 섬 머리에 자리함. 풍속대로 향리의 유력한 유생을 차출하여 무과를 대비한 바 부실하여, 영조 32년 병자년(1756년) 부사 임희교가 구역을 관리하는 가운데 정식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군기고 (軍器庫)	객사남방에 두고 감관(監官) 2인이 관리하였다.
훈련청 (訓練廳)	객사서방에 두고 파총(把總) 2인이 관장하였다.
군청 (軍廳)	객관 서쪽에 있었다. 여사(旅師) 1인이 관리하였다.
교위청 (校衛廳)	부문외에 두고 행수군관(行首軍官) 1인과 번군(番軍) 40명을 두었다. 영조 정축년(1757년) 부사 임희교창건(府使 任希敎 勸建) 행수군관 1인, 번군관(番軍官) 40인
상정청 (祥定廳)	부문외에 두고 감관(監官) 1인이 장악하였다. 구명은 대동청(大同廳)이라 하였다. 영조 병진년 1736년 부사 김중희창건(府使 金重熙 勸建) 을해이이금명감관(乙亥易以今名監官) 2인
애련정 (愛蓮亭)	와유헌 남쪽 못 중에 설치, 영조 24년 무진(1748년) 부사 박필정 창건. 지금은 폐하였다.
납호당 (納潏堂)	객사동쪽에 세웠다. 중종 31년 무진(1508년) 부사 홍공찬창건(府使 洪公瓚 勸建)
통원루 (通遠樓)	객관 동편 규원 언덕위에 설치. 남대천을 굽어보는 앞에 산을 대좌했고 안계는 통원하였다. 부사 이맹우가 증수하다 루가 넘어져 여러 명이 압사하여 루는 폐하고 부사는 파직당하였다.
갑팔루 (甲八樓)	영조 6년 경술(1730년) 부사권부가 창건하였다. 지금은 폐하였다.
사창 (司倉)	부문(府門) 서편에 두었다. 영조 16년 경신(1740년) 부사 송징계(宋徵啓)가 화재 당한 것을 새로 지었다.
동산창 (洞山倉)	동산현(洞山縣) 기지(基地)에 두고 감관 1인으로 관장하였다.
강선창 (降仙倉)	부북방(府北方) 20리에 두었다. 영조 경신년(1740년) 부사송징계분설(府使 宋徵啓分設)

※ 아사(衙舍) 108동, 훈련청(訓練廳) 14칸(間), 향청(鄉廳) 10칸(間)  
 자료 : 『양주지』, 양양군, 1990, 412~413쪽.

### 3) 읍·면별 행정구역

#### (1) 양양읍

태종 6년(1405년) 부내면(府內面)이라 칭하여 오다가 고종 32년(1895년) 군내면(郡內面)이라 개칭하고, 1917년에 부남면(部南面)과 위산면(位山面)을 편입함과 동시에 양양면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1945년 8·15광복 후 38°선 이북지역으로 북한 치하에 있다가 1954년 수복되었다.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1973년 7월 7일 손양면 상왕도리 일부(3.14km<sup>2</sup>)가 편입되었으며, 1979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 1979년 5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면적은 32.2km<sup>2</sup>에 법정리 19개 리, 행정리 25개 리, 반 127개이며, 인구는 11,835인에 가구는 4,839가구이다. 영북지방의 교통 중심지이고 군청소재지이다. 낙산해수욕장(조산리)은 강원도가 지정한 시범해수욕장으로 해안선이 길고 모래가 깨끗하며, 물이 맑아 자연환경의 입지적 여건과 낙산사의 경관을 함께 관망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4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영북지방의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이기도 하다.

〈표4-7〉 양양읍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양양읍	32.2	4,839	11,835	6,016	5,819	19(25)	軍餉, 城內, 舊校, 連昌, 松岩, 靑谷, 浦月, 造山, 仕川, 基, 丁巽, 甘谷, 禾日, 車馬, 林泉, 奈谷, 西門, 南門, 月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 (2) 서면

군청소재지에서 4km 서쪽에 위치하여 산악이 전체 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대천 상류는 물이 맑고, 남설악 계곡을 따라 이루어진 마을마다 아름답기가 그지 없다. 북쪽에 위치한 장승리에는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철광산

이 있었으며, 일제시대에는 그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아 생산 현지에서 양양역까지 케이 블카를 설치하여 수송수단으로 이용하다가, 그 생산량이 과다하여 철도를 부설하여 화 물열차로 수송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근로자가 800여 명에 이르렀다. 1994년에 대한 철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광산을 철광석 수입, 매장량 부족 등으로 사업수지가 악 화되어 폐광하였다.

〈표4-8〉 서면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서 면	268.0	1,490	3,321	1,719	1,602	20(23)	上坪, 凡阜, 北坪, 龍泉, 水, 內峴, 西 仙, 長承, 論化, 松川, 公須田, 五色, 加羅皮, 松魚, 龍沼, 北岩, 盈德, 西 林, 米川, 葛川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8·15광복과 함께 5개 리(영덕, 서림, 황이, 갈천, 명개)만이 38°선 이남으로 들어가 강릉군 신서면(新西面)에 속하였다가 1954년 11월 17일 행정이양과 함께 서면에 다시 편입됨과 동시에 신서면은 폐지되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20개 리(里), 행정리 23개 리(里), 반 66개이며, 총면적은 268.0km<sup>2</sup>로 인구는 3,321인에 가구는 1,490가구이다.

또한 국립공원 설악산에서도 그 경관이 뛰어난 주전골, 흘림골, 구룡령, 오색령, 오색약수, 갈천약수 등은 그 산세의 경치와 함께 전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오색약수는 위장병에 특효가 있어 탐방객들이 4계절 찾는다.

### (3) 손양면

동면 또는 남면으로 칭하여 오다가 1914년 2개 면(面)이 통합해 손양면이 되었다. 양양군 중동쪽에 위치하고 8괘 중 정동과 정남의 중앙에서 해가 떠오르는 지역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지로 이름난 곳이다. 동쪽은 동해와 접해 있고 남쪽은 현북면, 서쪽은 설악산 일대인 서면과 접해 있으며, 남대천하류는 양양읍과 접해 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24개 리(里), 행정리 22개 리(里), 반 56개이며, 총면적은 47.3km<sup>2</sup>로 인구는 2,467인에 가구는 1,097가구이다.

〈표4-9〉 손양면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손 양	47.3	1,097	2,467	1,244	1,223	24(22)	松岷, 水余, 金崗, 松田, 柯坪, 鰲山, 鶴浦, 桃花, 水山, 銅湖, 祥雲, 如雲浦, 下陽穴, 上陽穴, 密陽, 舟, 牛岩, 瓦, 石界, 挿存, 扶蘇峙, 上旺道, 下旺道, 間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무편람』, 2009

최근들어 해안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조성되었다. 특히 대명 솔비치콘도·라호텔은 전국 제일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산항은 대규모 요트마리나 시설이 완공되어 2009·2010년에는 제9회·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 (4) 현북면

8·15광복 후 38° 선을 경계로 9개 리(里)는 이남 강릉군에 속하고, 6개 리(里)는 북한 치하 양양군에 속해 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 후 행정이양으로 이남 강릉군에 속했던 9개 리(里)가 다시 양양군에 환원되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4개 리(里), 행정리 15개 리(里), 반 49개이며, 총면적은 164.5km<sup>2</sup>로 인구는 2,852인에 가구는 1,391가구이다.

〈표4-10〉 현북면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현 북	164.5	1,391	2,852	1,457	1,395	14(15)	其士門, 棧橋, 大峙, 末谷, 上光丁, 中光丁, 下光丁, 明池, 漁城田, 法水峙, 綿玉峙, 元日田, 獐, 陶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그리고 양양군에서는 2002년 10월 26일 138억 원을 투자하여 379,972m<sup>2</sup> 규모의 낙산도립공원 내 하조대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였다. 또한 하조대 해수욕장은 양양군의 시범해수욕장으로 4계절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5) 현남면

8·15광복과 동시에 강릉군에 속해 있다가 1954년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명주군에 되었다.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8호에 의거 1963년 1월 1일 명주군에서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표4-11〉 현남면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현 남	64.3	1,602	3,381	1,707	1,674	21(24)	仁邱, 北盆, 銅山, 斗, 昌, 市邊, 竹亭子, 廣津, 前浦梅, 後浦梅, 見佛, 上月川, 下月川, 酒, 笠岩, 臨湖亭, 遠浦, 池, 地境, 南涯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행정구역은 법정리 21개 리(里), 행정리 24개 리(里), 반 74개이며, 총면적은 64.3km<sup>2</sup>로 인구는 3,381인에 가구는 1,602가구이다.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포매호의 ‘백조’와 ‘왜가리’ 서식지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죽도·동산·남애·원포·지경해수욕장의 백사장과 물은 깨끗하기로 유명하다.

### (6) 강현면

구한말 고종 33년(건양 1년, 1896~1908년) 강선면(降仙面)과 사현면(沙峴面)으로 칭하여 오다가, 순종 2년(융희 2년, 1908년) 2개 면(面)이 통합하여 강현면이 되었다. 8·15광복 후 38°선 이북으로 북한 통치하에 있다가 1954년 수복되었다. 1983년 2월 15

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상북리 일부(상북2리)가 속초시에 편입되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22개 리(里), 행정리 24개 리(里), 반 64개이며, 총면적은 52.8km<sup>2</sup>로 인구는 4,340인에 가구는 1,975가구이다.

〈표4-12〉 강현면 행정구역 현황

면 별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 구 수			법정리 (행정리)	관 할 구 역
			계	남	여		
강 현	52.8	1,975	4,340	2,201	2,139	22(24)	釘岩, 沕淄, 降仙, 上福, 中福, 下福, 回龍, 長山, 石橋, 屯田, 勿甲, 沙橋, 金風, 砧橋, 積銀, 防築, 廣石, 沓, 前津, 龍湖, 間谷, 酒廳

자료 : 주민등록인구 통계(2009.12.31기준), 『양양군통계연보』 제47회, 2009  
 나머지 통계 :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편람』, 2006

낙산·설악해수욕장 등은 여름피서지로 유명하며 낙산사와 진전사지 3층 석탑(국보 제122호) 등 명승고적이 많아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 4) 용도별 주거지역 현황

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7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의 81,062천m<sup>2</sup>(12.9%)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규제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관리계획을 세분화하여 2009년 5월에는 ‘양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표4-13〉 용도별 주거지역 현황

구 분	계	도 시 지 역				도시지역 (미지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합계(천m <sup>2</sup> )	629,014	2,258	370	22	7,810	277	93,370	443,845	81,062
비율(%)	100	3.6	0.06	0.003	1.2	0.04	14.8	70.5	12.9

자료 : 양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후(강원도 고시 제2009-177, 2009. 5.15)  
 지형도면고시 (양양군 제2009-58, 2009. 6. 5), 양양군

## 5) 현재의 인구현황

양양군은 1959년 16,998가구에 84,217명으로 대체로 규모가 큰 자치단체였다. 1961년까지는 1읍·7면 행정구역에 19,599가구에 인구는 98,393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였으나, 1963년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8,485가구 47,404명으로 감소하였다.

〈표4-14〉 속초시 승격 이전의 양양군 인구 현황

연도별	읍면별	면적(km <sup>2</sup> )	가구수(세대)	인 구 수 (명)		
				계	남	여
1959	8개 읍면	876	16,998	84,217	41,710	42,507
1960	8개 읍면	876	20,427	102,890	52,538	50,307
1961	합 계	876	19,599	98,395	49,087	49,308
	속초읍	66	8,883	42,258	21,200	21,058
	양양면	30	1,750	9,278	4,488	4,790
	서 면	275	1,542	7,887	4,013	3,874
	손양면	50	1,074	5,825	2,864	2,961
	현북면	185	934	5,192	2,623	2,569
	강현면	94	1,229	6,517	3,166	3,351
	토성면	128	2,674	13,873	6,991	6,882
	죽왕면	48	1,513	7,565	3,742	3,823

자료 : 상주인구조사(1961.12.31기준), 양양군 내무과(서무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과 맞물려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군 차원에서 벌인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과 관광진흥정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가 둔화 또는 현상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부터 30,000명 선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09년 말 현재 28,196명에 이르고 있다.

### 3. 자치행정

#### 1) 행정기구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paradigm : 틀 또는 체계)은 고전주의적 행정의 특징인 소극국가와 야경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적극국가이자 복지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중앙집권주의에 입각한 관치행정에서 지방분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자치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양양군의 자치행정은 광복 후 10여 년간 실시되었다가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 이후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소집하는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하게 규정되어 있어 1991년 4월 9일 양양군수가 소집 공고하여 1991년 4월 15일에 군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7월 1일에는 오인택 군수가 민선군수로 선출·취임하여 완전한 자치행정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행정기구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쇠퇴한 기능은 폐지하고 새롭게 발생된 행정 기능은 보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폐가 불가피하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은 지역발전과 복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나가는 적극행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행정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합리성, 적극성, 대응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광복 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기구에 대한 재편과 지방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그 지역의 인구·면적·사회시설·산업시설·환경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행정조직으로 편성·운영된다.

양양군의 행정기구도 시대의 변화와 여건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2009년 12월말 현재 양양군의 기구 및 직제는 군수·부군수·1개 실·11개 과·1개 의회·2개 직속기관·3개 사업소·1개 읍·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室)에는 기획감사실, 과(課)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군의회에는 의회사무과가 있고,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사업소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 등이 있었다.

1963년부터 군 행정기구는 일부 조정되어 1개 실·4개 과·2개 사업소·6개 면·114개 리·473개 반으로 조정되었다. 건설과가 폐지되면서 건설계가 내무과로, 산림계가 산업과로 이전되고 내무과의 보건사회계는 사회계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동년에 보건소가 신설되었다. 행정구역도 개편되어 1개 읍·7개 면이 6개 면 체제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되었고, 토성면과 죽왕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었으며, 양양군에는 현북면이 새로 설치되었다.

1964년 2월에는 교육자치제의 부활로 군 행정기구에서 교육과는 폐지되어 1개 실·3개 과·2개 소 체제가 되면서 공보실 이하 내무·재무·산업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내무과에 기획예산계와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병사계가 신설되었다.

1965년에는 건설과가 부활되면서 1개 실·4개 과·2개 소·6개 면체제로 회귀하였다. 내무과의 병사계는 병무계로 개칭되었으며, 건설과의 폐지로 타 부서로 이전되었던 건설계와 산림계가 다시 건설과로 이전되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계, 기술계, 지역개발계가 신설되고, 현남지소와 강현지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표4-15〉양양군 행정기구의 변화과정(1960년대)

년도	기구	실·과	계
1961	군수 1실 5과	실 : 감사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읍면 : 속초읍,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	내무과 : 서무계, 행정계, 보건사회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교육과 : 관리계, 장학계, 문화계 산업과 : 농정계, 농산계, 수산계, 잠사계, 축정계 건설과 : 건설계, 산림계
1962	군수 1실 5과 1소	실 : 감사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농촌지도소 읍면 : 속초읍,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토성면, 죽왕면	내무과 : 서무계, 행정계, 보건사회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교육과 : 관리계, 장학계, 문화계 산업과 : 농정계, 농산계, 수산계, 잠사계, 축정계 건설과 : 건설계, 산림계
1963	군수 1실 4과 2소	실 :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교육과, 산업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계, 사회계, 건설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교육과 : 관리계, 장학계, 문화계 산업과 : 농정계, 양정계, 농산계, 수산계, 산림계, 잠사계, 축정계

년도	기구	실 · 과	계
1964	군수 1실 3과 2소	실 :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건설계, 병사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정계, 양정계, 농산계, 수산계, 산림계, 잠사계, 축정계
1965	군수 1실 4과 2소	실 :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병무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정계, 양정계, 농산계, 수산계, 잠사계, 축산계 건설과 : 건설계, 산림계
1968	군수 1실 4과 2소	실 :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공보실 : 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병사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정계, 양정계, 농산계, 축정계, 수산계, 잠사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산림계, 농지개량계
1969	군수 2실 4과 2소	실 : 감사실,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감사실 : 감사계, 조사계 공보실 : 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병사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정계, 농산계, 양정계, 축정계, 잠사계, 수산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산림계, 농지개량계

## (2) 1970년대 행정기구

1970년대 말부터 행정기구는 군수를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군수제를 도입하였고, 농촌진흥을 위한 새마을 사업 관련 부서 및 기타 부서가 확대·신설되었다.

1970년 양양군의 행정기구는 2개 실·4개 과·2개 소 체제로 1969년의 행정기구와 같았다. 1971년 내무



양양군 청사 전경(1975년)

과에는 통계계가 신설되었고, 산업과의 농정계는 농사계로 상공계, 잠사계는 잠업계로 개칭되었으며, 건설과에 도로계가 신설되었고, 산림계는 산업과로 이전되었다.

1972년에는 내무과에 새마을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마을운동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는 감사실을 폐지하여 1개 실·4개 과·2개 소 체제로 회귀하였다. 산업과에 산업행정계가 설치되었고, 건설과는 토목·농지개량계로 축소되었다.

한편, 타 군의 행정조직 개편의 사례로 보아 양양군에도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새마을과와 민방위과가 신설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부군수제는 1975년에 도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1979년 1월 10일부터 직제에 부군수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양양군 행정기구가 확대되어 4개 과에서 8개 과로 증설되었다. 내무·재무·산업·건설과에 새마을·사회·산림·민방위과 등 4개 과가 신설되었다. 한편, 대통령령 제9409호로 양양면이 양양읍으로 승격되어 6개 면에서 1개 읍·5개 면체제로 조정되었다.

〈표4-16〉 양양군 행정기구의 변화과정(1970년대)

년도	기구	실·과	계
1970	군수 2실 4과 2소	실 : 감사실,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감사실 : 감사계, 조사계 공보실 : 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병사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정계, 농산계, 양정계, 축정계, 잠사계, 수산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산림계, 농지개량계
1971	군수 2실 4과 2소	실 : 감사실,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사회계, 병사계, 통계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사계, 산림계, 상공계, 양정계, 축정계, 잠업계, 수산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농지개량계, 도로계
1972	군수 1실 4과 2소	실 : 감사실,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새마을계, 사회계, 병사계, 통계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농사계, 산림계, 상공계, 양정계, 축정계, 잠업계, 수산계 건설과 : 토목계, 농지개량계

년도	기구	실 · 과	계
1973	군수 1실 4과 2소	실 : 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새마을계, 사회계, 병사계, 통계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지적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산림계, 양정계, 축정계, 잠업계, 수산계 건설과 : 토목계, 농지개량계
1979	군수 부군수 1실 8과 2소	실 :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읍,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통계계, 병사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복지계, 부녀아동계, 위생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양정계, 잠업계, 축정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농지개발계, 지역계획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 (3) 1980년대 행정기구

1980년대 양양군의 행정기구는 1970년대 말의 1개 실 · 8개 과 · 2개 소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다. 1980~1981년의 행정기구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거의 비슷한 행정기구가 지속되어 왔다. 1983년에 문화공보실에 관광계와 문화공보계가 신설되었고, 내무과에 병사계는 민방위과의 병무계로 이전되었다. 통계계는 통계서무계로 변경되었다. 새마을과의 주택계는 건설과로 이전되었으며, 산업과의 잠업계가 특작계로 바뀌었고, 건설과의 관리계는 폐지되었다.

1985년에는 새마을과에 국토미화계가 신설되었고, 재무과의 평가계가 폐지되고, 관재계가 신설되었고, 사회과의 부녀아동계가 부녀청소년계로 개칭되었다. 1986년에는 재무과에 평가계가 다시 부활되었고, 사업소에 위민실이 신설되었다.

1988년에는 2개 실 · 8개 과 · 4개 소 체제로 확대되었다. 기획실이 신설되어 기획 · 예산 · 통계계를 설치하였다. 내무과의 기획예산계가 기획실로 분리 이전되었다. 사회과의 복지계는 사회계로, 부녀청소년계는 가정복지계로, 건설과의 지역계획계는 지역

개발계로 변경되었으며, 산업과에는 농어촌개발과 지역경제계가 신설되었다. 한편, 사업소에 독립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수산과가 신설로 어로계와 증식계를 생겼다. 또한 내무과에 통신계, 새마을과에 건전생활계, 재무과에 세무조사계,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소인 위민실은 폐지되었다.

〈표4-17〉 양양군 행정기구의 변천과정(1980년대)

년도	기구	실·과	계
1980 ~ 1982	군 수 부군수 1실 8과 2소	실 :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내무과 : 행정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통계계, 병사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주택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복지계, 부녀아동계, 위생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양정계, 잡업계, 축정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관리계, 토목계, 농지개발계, 지역계획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1983 ~ 1984	군 수 1실 8과 2소	실 :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문화공보실 : 관광계, 문화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통계사무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복지계, 부녀아동계(부녀청소년계), 위생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양정계, 특작계, 축정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목계, 농지개발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1985	군 수 1실 8과 2소	실 :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문화공보실 : 관광계, 문화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통계사무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국토미화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지적계 사회과 : 복지계, 부녀청소년계, 위생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양정계, 특작계, 축정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목계, 농지개발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년도	기구	실·과	계
1986 ~ 1987	군 수 1실 8과 3소	실 :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민실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문화공보실 : 관광계, 문화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통계서무계, 기획예산계, 감사계 새마을과 : 개발계, 국토미화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복지계, 부녀청소년계, 환경위생계 산업과 : 산업행정계, 농사계, 양정계, 특작계, 축정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목계, 농지개발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1988	군 수 부군수 2실 8과 4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재무과, 새마을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민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관광계, 문화공보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국토미화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사회계, 환경위생계, 가정복지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정계, 특작계, 지역경제계, 수산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개발계, 농지개발계, 토목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1989	군 수 부군수 2실 9과 3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공보계, 관광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평가계 세무조사계, 지적계 사회과 :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가정복지계, 의료보장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정계, 특작계, 지역경제계 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개발계, 농지개발계, 토목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 (4) 1990년대 행정기구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군의회에 의사과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부터는 군의회에 전문위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정기구는 더욱 확대되어 1995~1997년에는 행정기구가 12개 과로 증설되기도 하였다.

1990년 군 행정기구는 2개 실·9개 과·3개 소 체제였다. 이전의 행정기구와 유사하며, 다만 재무과는 평가계가 조사평가계로 변경되고 세무조사계가 신설되었고, 건설과는 지역개발계가 지역계획계로 변경되었고 토지관리계가 신설되었다.

1991년은 2개 실·10개 과·3개소 체제로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되었고, 사회과에는 폐기물관리계, 산업과에 상공운수계, 수산과에 어업지도계, 건설과에 수도계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두었다. 1992년에는 기획실의 공보계가 문화공보계로, 새마을과는 폐지되고 사회진흥과가 신설되어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를 두었다. 또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를 두었고, 군의회에 의사과가 신설되어 의사계를 두었다.

1992년에서 1994년까지는 내무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구의 변화는 없는 시기였다. 1995년에는 지적과가 신설되어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를 두었다.

1996년은 2개 실·12개 과·2개 직속기관·1개 소 체제가 되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고 행정기구의 개편이 많았던 해이다. 사회진흥과는 폐지하고 건전생활계를 문화공보실로 이전하였으며, 내무과의 감사계는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는 자치발전계를 신설하였으며, 법무·통계계는 법무통계계로 통합하였다.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문화공보실로 이전하였다. 또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를 만들었다. 건설과에는 공영사업계를 신설하였다. 1997년에는 사회복지과의 위생계를 폐지하였으며, 관광경제과의 상공운수계는 교통행정계로 개칭하였다.

1998~1999년 행정기구는 1개 실·8개 과·2개 직속기관·2개 소 체제로 축소되었다.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였으며 내무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환

경보호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를 설치하였고, 농정과는 농림경제과로, 관광경제과는 관광문화과로, 수산과는 해양수산과로 개칭하였으며, 산림과는 폐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이행과 함께 낙후될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업무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체제를 경험하면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획기적으로 행정기구의 통합 및 폐지가 이루어졌다.

〈표4-18〉 양양군 행정기구의 변천과정(1990년대)

년도	기구	실·과	계
1990	군수 부군수 2실 9과 3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공보계, 관광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 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가정복지계, 의료보장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축정계, 특작계, 지역경제계 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농지 개발계, 토목계, 주택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1991	군수 부군수 2실 10과 3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공보계, 관광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 전산계 새마을과 :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지적계 조사평가계 사회과 : 사회계, 의료보장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폐기물관리계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특작계, 축산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년도	기구	실·과	계
			산림과 : 식수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농지 개발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1992 ~ 1994	군수 부군수 2실 11과 3소 1의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계, 관광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 전산계, 민원처리계(1993년 신설) 사회진흥과 :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사회과 :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농산물유통계, 축산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산림과 : 자원조성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기반조성계, 방재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의사과 : 의사계
1995	군수 부군수 2실 12과 3소 1의회	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 과 :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소 : 보건소, 농촌지도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기획실 :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계, 관광계 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 사회진흥과 :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재무과 : 부과계, 경리계, 관재계, 징수계 지적과 :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사회과 :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산업과 :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농산물유통계, 축산계,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산림과 : 자원조성계, 보호계 건설과 : 지역계획계, 토지관리계, 기반조성계, 방재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 민방위과 :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의사과 : 의사계

년도	기구	실 · 과	계
1996	군수 부군수 2실 12과 2직속 2소 1의회	<p>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p> <p>과 :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p> <p>직속 :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 :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p> <p>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p>	<p>기획실 : 기획계, 자치발전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p> <p>문화공보실 : 공보계, 문화계, 건전생활계</p> <p>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민원처리계, 전산계, 통신계</p> <p>재무과 : 부과계, 경리계, 관재계, 징수계</p> <p>지적과 :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p> <p>사회복지과 :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계, 위생계</p> <p>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미화계</p> <p>농정과 : 농어촌개발계, 농산계, 축산계, 농산물유통계</p> <p>관광경제과 : 관광개발계, 관광지도계, 경제가스계, 상공운수계</p> <p>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p> <p>산림과 : 자원조성계, 보호계</p> <p>건설과 : 지역계획계, 방재계, 공영사업계, 기반조성계, 토목계</p> <p>지역개발과 : 개발계, 도시계, 건축계, 수도계</p> <p>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p> <p>의회사무과 : 의사계</p>
1997	군수 부군수 2실 12과 2직속 2소 1의회	<p>실 : 기획실, 문화공보실</p> <p>과 :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관광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p> <p>직속 :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 :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p> <p>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어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p>	<p>기획실 : 기획계, 자치발전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p> <p>문화공보실 : 공보계, 문화계, 건전생활계</p> <p>내무과 : 행정계, 서무계, 민원처리계, 전산계, 통신계</p> <p>재무과 : 부과계, 경리계, 관재계, 징수계</p> <p>지적과 :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p> <p>사회복지과 :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계</p> <p>환경보호과 :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미화계</p> <p>농정과 : 농어촌개발계, 농산계, 축산계, 농산물유통계</p> <p>관광경제과 : 관광개발계, 관광지도계, 경제가스계, 교통행정계</p> <p>수산과 :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p> <p>산림과 : 자원조성계, 보호계</p> <p>건설과 : 지역계획계, 방재계, 공영사업 기반조성계, 토목계</p> <p>지역개발과 : 개발계, 도시계, 건축계, 수도계</p>



년도	기구	실·과	계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의회사무과 : 의사계
1998 ~ 1999	군수 비서실 부군수 개발기획단 1실 8과 2직속 2소 1의회	단 : 개발기획단 실 : 기획감사 과 :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과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 양양면, 서면(서림출장소), 손양면, 현북면(여성전출장소), 현남면, 강현면	개발기획단 : 지역개발팀, 이벤트기획팀 기획감사실 :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자치발전계, 공보계 자치행정과 : 행정계, 서무계, 민원계, 정보통계계, 민방위병무계 재무과 : 세정계, 경리계, 재산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환경복지과 : 환경관리계, 환경미화계,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농림경제과 : 농정계, 유통계, 축산계, 산림조성계, 산림보호계, 지역경제계, 실업대책반 관광문화과 :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문화예술계, 체육청소년계 지역개발과 : 도시계, 건축계, 수도계, 상하수도계, 교통행정계 건설과 : 건설행정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방재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계, 어업진흥계, 자원개발계 의회사무과 : 전문위원, 의사계

##### (5) 2000년대 행정기구

2000년대는 군수·부군수 아래 1개 실·9개 과·3개 사업소·1개 읍·5개 면 체제가 유지되면서 개발사업단, 주민자치지원단, 투자유치사업단 등을 설치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성장을 모색하였다.

2001~2002년에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주민자치지원단 등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투자유치사업단, 문화시설관리사무소, 현안사업추진단 등이 설치·운영되었다.

2007년부터는 주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중복·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행정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행정기구를 개편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군정의 주요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였다.

2009년 말 현재 양양군의 행정기구는 군수·부군수 아래 1개 실·11개 과·2개 직속기관·3개 사업소로 기획감사실을 주축으로 11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업과가 설치되어 있다. 2개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이며, 3개 사업소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이다. 의회에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표4-19〉 양양군 행정기구의 변천과정(2000년대)

년도	기 구	실 · 과
2000	군수 비서실 부군수 개발기획단 1실 8과 2직속 2사업소 의회	단 : 개발기획단(지역개발팀, 이벤트기획팀)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과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1	군수 비서실 부군수 주민자치지원단 1실 8과 2직속 3소 의회	단 : 주민자치지원단(자치지원)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과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2	군수 비서실 부군수 주민자치지원단 1실 8과 2직속 3소 의회	단 : 주민자치지원단(자치지원)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과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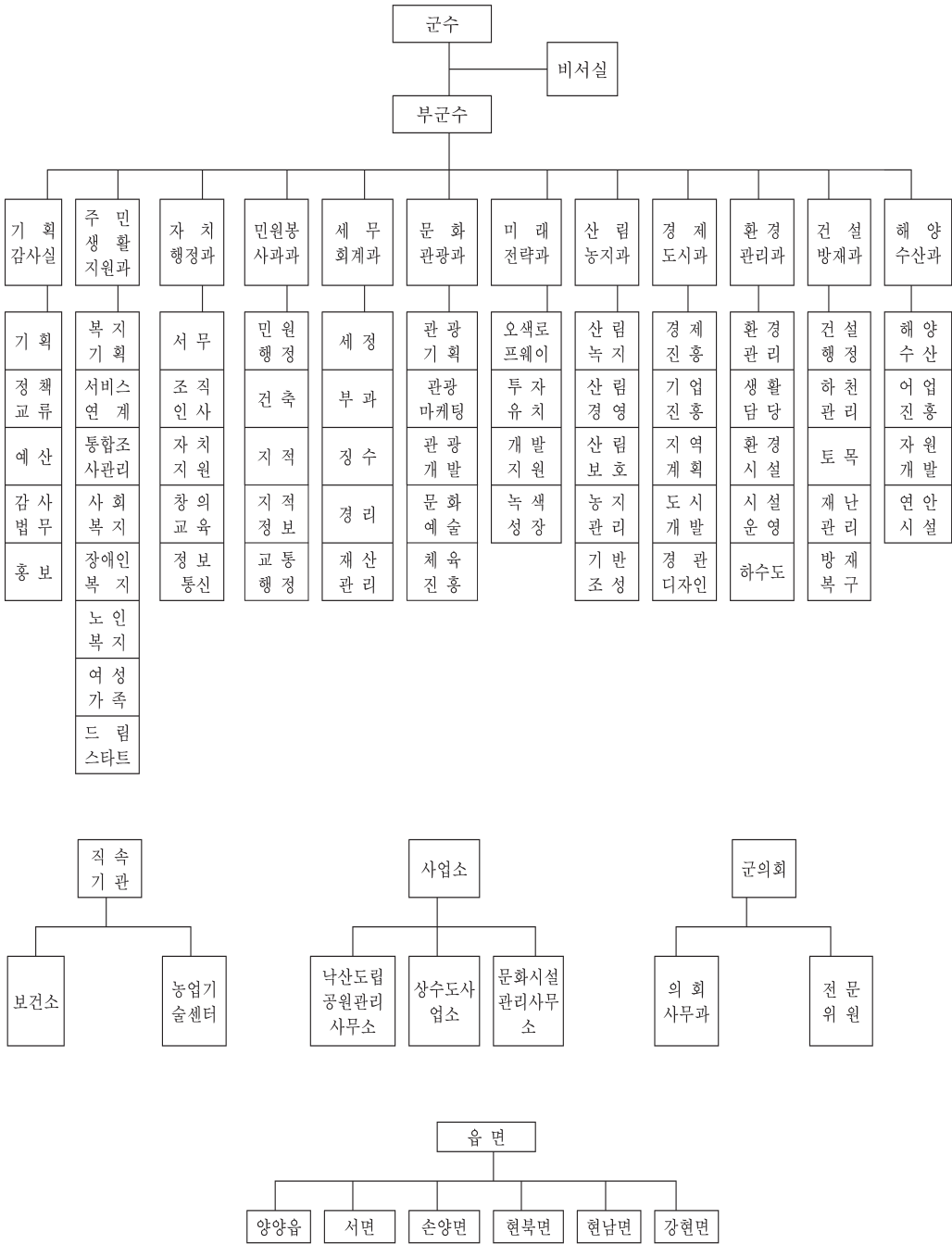
년도	기 구	실 · 과
2003	군수 비서실 부군수 주민자치지원단 1실 8과 2직속 3소 의회	단 : 주민자치지원단(자치지원)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공항개항지원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4	군수 비서실 부군수 1실 9과 2직속 3소 의회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5	군수 비서실 부군수 투자유치사업단 1실 9과 2직속 3소 의회	단 : 투자유치사업단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정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6	군수 비서실 부군수 투자유치사업단 1실 9과 2직속 3소 의회	단 : 투자유치사업단 실 : 기획감사실 과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7	군수 부군수 1실 9과 2직속 3소 의회	실 : 기획감사실 과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업, 의회사무과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무소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년도	기 구	실 · 과
2008	군수 부군수 1실 10과 2직속 3소 의회	실 : 기획감사실 과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무소, (현안사업추진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2009	군수 부군수 1실 11과 2직속 4소(단) 의회	실 : 기획감사실 과 :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미래전략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업 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 :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무소, (현안사업추진단) 읍면 : 양양읍,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의회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2) 군정조정위원회

양양군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 또는 결정을 위하여 조례로 양양군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1981.12.24, 1982. 2.19, 1985. 3.29).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 요시책의 검토시행,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29개 사항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최근 활동상황을 보면 2007년 12회에 걸쳐서 조정위원회가 개최 되어 12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4회, 2009년에는 12회를 개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표4-20〉 양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황

(단위 : 건수)

연 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기 타
2007	12	12	12	-	-	-	-
2008	14	14	14	-	-	-	-
2009	12	12	12	-	-	-	-

자료 : 『양양백서』, 양양군, 2009; 2009양양군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 3) 군정목표 및 군정구호

양양군은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구호 및 군정목표를 설정해 왔다. 1960년 대의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1968년 주민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산림녹화, 봉사행정의 구현 등 5가지를 군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었고, 1969년에는 6개의 군정목표 로 농어민소득증대, 식량증산, 관광개발, 규모 있는 지역사회건설, 주민의 복지증진, 봉사행정의 구현 등을 설정하였다.

1970년대의 군정목표는 농어촌의 발전, 소득증대, 주민화합, 관광지 발굴 및 관광자원 발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정되었다. 1970년의 군정목표는 농어민소득증대, 식량 증산, 관광개발, 건설사업의 확충 등이었으며, 1975년에는 관광지개발, 공항주변정화, 군유재산찾기 등이 있고, 1979년의 군정목표는 지역총화 행정의 구현, 주민복지행정의 확대, 발전 지향적 개발촉진 등이었다.

1980년대에의 군정구호 및 목표는 소득증대, 관광개발, 주민화합, 선진행정의 구현 등이었다. 1980~1981년은 농어민소득증대, 식량증산, 관광개발, 건설사업의 확충 등

이었으며, 1985년은 화합안전의 구축, 생활기반의 증진, 소득기반의 조성, 향토문화의 계발이었고, 1987년에는 새시대 국정시책의 지역책임 완수라는 군정구호 아래 국민성 발양(發揚)으로 화합공동체 실현, 산지자원의 특화작목 개발, 관광개발과 연계소득원 발굴 등의 군정목표를 설정하였다.

〈표4-21〉 양양군 군정구호 및 군정목표(1960~1970년대)

년 도	군 정 구 호	군 정 방 침 (군 정 방 향)	
1968		- 주민소득증대 - 산림녹화 - 봉사행정의 구현	- 지역사회개발 - 관광지개발
1969		- 농어민소득증대 - 관광개발 - 주민의 복지증진	- 식량증산 - 규모 있는 지역사회건설 - 봉사행정의 구현
1970		- 농어민소득증대 - 관광개발	- 식량증산 - 건설사업의 확충
1971	깨끗하고 화목하고 건실한 양양건설	- 합리적인 소득증대 - 자조협동의 주민조직	- 주민총화로 지역개발 - 신뢰받는 책임행정
1973	화전없는 군 나지없는 군	- 치산녹화 - 토산품 개발	- 상수도 시설
1974	버려진 땅 옥토화로 획기적인 식량증산	- 관광개발 - 가경지개발 시범군 조성	
1975		- 관광지개발 - 군유재산찾기	- 공항주변정화
1976		- 주민총화 체제의 확립 - 새마을 운동의 생활화 - 알찬 관광개발	- 완벽한 안보태세
1977		- 주민총화로의 대약진 - 자연보호와 관광개발	- 새마을 운동의 소득화 - 완벽한 안보태세
1978		- 지역총화 행정의 구현 - 발전지향적 개발촉진	- 주민복지행정의 확충
1979		- 지역총화 행정의 구현 - 발전지향적 개발촉진	- 주민복지행정의 확대

1990년대 이후 양양군의 군정을 위한 군정목표와 군정구호를 살펴보면, 먼저 1990~1991년에는 ‘관동을 빛내는 선진양양 건설’이라는 군정구호아래 민생안정, 지역개발, 소득증대, 복지향상, 문화창달이라는 군정목표를 설정하였다. 1992~1994년은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이라는 2가지 군정구호 아래 뜻모아 군민화합, 힘모아 소득증대, 슬기로 지역개발, 골고루 복지증진 등 4개의 군정목표를 세웠다.

〈표4-22〉 양양군 군정 구호 및 군정목표(1980년대)

년 도	군 정 구 호	군 정 방 침 (군 정 방 향)
1980~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민소득증대</li> <li>- 관광개발</li> <li>- 식량증산</li> <li>- 건설사업의 확충</li> </ul>
1982~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합선진행정 구현</li> <li>- 복합소득개발 확대</li> <li>- 관광발전기반 구축</li> <li>- 방위지원체제 강화</li> </ul>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합안전의 구축</li> <li>- 소득기반의 조성</li> <li>- 생활기반의 증진</li> <li>- 향토문화의 계발</li> </ul>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민봉사행정의 실천정착</li> <li>- 완벽한 지역책임행정의 수행</li> <li>- 애향동참·향토수립대조성 분위기의 심화확산</li> </ul>
1987	새시대 국정시책의 지역 책임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성 발양(發揚)으로 화합공동체 실현</li> <li>- 산지자원의 특화작목개발</li> <li>- 관광개발과 연계소득원 발굴</li> </ul>

1995~1996년의 군정구호는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이며, 군정목표는 주민화합의 자치, 지역개발의 촉진, 생활복지의 향상, 향토문화의 창달 등이었다. 1997~2000년의 군정구호는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이며, 군정목표는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발전,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 등 5가지였다.

2001~2008년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이라는 군정구호를 세우고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질 높은 자치구현 등을 군정목표로 설정하였다.

〈표4-23〉 양양군 군정구호 및 군정목표(1990~2000년대)

년 도	군 정 구 호	군정방침 (군정방향)	
1990~1991	관동을 빛내는 선진양양건설	- 민생안정 - 복지향상 - 소득증대	- 지역개발 - 문화창달
1992~1994	신명나는 양양, 살기 좋은 양양	- 뜻모아 군민화합 - 슬기로 지역개발	- 힘모아 소득증대 - 골고루 복지증진
1995~1996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 좋은 양양	- 주민화합의 자치 - 생활복지의 향상	- 지역개발의 촉진 - 향토문화의 창달
1997~2000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	- 신뢰받는 자치행정 - 매력있는 관광개발 - 특색있는 문화창달	- 균형있는 지역발전 - 실속있는 복지실현
2001~2008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	- 활기찬 지역개발 - 풍요한 복지실현 - 질 높은 자치구현	- 독특한 관광진흥 - 찬란한 문화창달

#### 4) 공무원

행정구역과 행정기구라는 조직체를 통하여 행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분류가 필연적인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분류는 지방공무원제도 확립 당시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관리 근거는 지방공무원령과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1950년 2월 10일 제정된 지방공무원령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방공무원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관리되는 공무원(인사관계법령 적용대상 공무원)과 그 이상의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공무원은 시·읍·면장 및 1급 내지 4급 공무원으로 하고, 후자의 공무원은 순수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1962년 8월 23일 8차 개정을 보면, 도지사는 국가 1급 공무원으로, 시장은 국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읍·면장은 다시 일반직(지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963년 11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종전의 일반직과 특수직의 분류에서 특

수직을 별정직으로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조정하였다. 즉 별정직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선거 또는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위촉 또는 선출된 위원과 설치된 위원회의 직원, 비서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읍·면장, 동·리장, 동·리직원,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1981년 4월 20일 지방공무원법 제9차 개정에서는 종전의 별정직으로 분류한 공무원은 인사행정상의 제기준, 즉 실적주의, 신분보장 또는 장기근속여부 등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업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임명에 있어 특수한 기준이나 절차를 요하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하였다.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술직(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나누었으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다른 법령·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비서관, 읍·면장, 시의 동장, 기타 다른 법령·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지방공무원의 분류를 연역적으로 보면 <표4-24>과 같다.

<표4-24> 지방공무원 계급분류

1950. 2.10. 지방공무원령 제정 당시	1961. 7.15. 동령 제6차 개정당시	1963.11. 1. 지방공무원법 제정당시	1981. 4.20. 동법 제9차 개정당시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2급 갑류	2급
3급	3급 갑류	2급 을류	3급
4급	3급 을류	3급 갑류	4급
	4급 갑류	3급 을류	5급
	4급 을류	4급 을류	6급
		5급 갑류	7급
		5급 을류	8급
			9급



2009년 말 현재 양양군 공무원수는 465명으로 1인당 60.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청 공무원 249명(53.5%), 직속기관 86명(18.5%), 의회사무과 공무원 11명(2.4%), 사업소 공무원 30명(6.5%), 읍면사무소 공무원 89명(19.1%)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이전 평균 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공무원 정원이 1997~19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 분야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이 공직사회에도 요동치는 관계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표준정원제 및 총액임금제 실시에 따라 정원의 감소 추세는 심화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수의 증원보다는 적극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과 더불어 엘리트 요원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표4-25〉 공무원 현황(정원)

(단위 : 인)

구분	합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기능직	고용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995	504	1	13	361	1	2	26	96	107	103	27	1		31	95	2
1996	518	1	13	370		2	24	98	117	101	27	1		31	100	2
1997	524	1	12	375		2	25	100	118	103	27	1		31	102	2
1998	456	1	10	331		2	21	86	100	81	41	1		22	88	2
1999	446	1	8	327		2	21	89	100	77	38	1		22	85	2
2000	439	1	8	323		2	22	88	99	76	36	1		22	82	2
2001	424	1	7	314		2	23	85	96	74	34	1		20	79	2
2002	430	1	6	321		2	23	86	97	77	36	1		20	79	2
2003	441	1	6	327			22	86	104	80	33	1		23	81	2
2004	466	1	6	356		2	22	96	110	85	41	1		23	79	
2005	475	1	6	364		2	23	98	112	87	42	3		22	79	
2006	501	1	5	389		2	23	103	122	94	45	3		22	81	
2007	501	1	5	389		2	24	105	121	93	44	3		22	81	
2008	465	1	5	361		3	22	98	114	86	38	3		21	74	
2009	465	1	5	362		3	23	99	114	86	37	3		20	74	
본청	249	1		218		3	10	62	75	50	18	1			29	
의회	11			6			2	1	2	1					5	
직속	86		5	53			2	8	17	17	9	1		20	7	
사업소	30			17			3	4	4	5	1	1			12	
읍면	89			68			6	24	16	13	9				21	

자료 : 양양군 자치행정과

## 5) 역대 군수 및 부군수

### (1) 역대 군수

역대군수는 총 27대로서 그 중 민선은 24대~25대 오인택 군수, 26대~27대 이진호 군수 2인일 뿐 모두 임명제였다. 임명제는 국가 4급 서기관으로 보하였으며 임명제 최장수 군수로는 제21대 정명시 군수로 4년 동안 재임하였으며, 민선제 최장수 재임기간은 이진호 군수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까지 8년 재임을 기록하고 있다. 임명직 중에는 제14대 조성운 군수로 1979년 4월 4일 부터 1979년 7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을 재임하여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친 군수였다.

〈표4-26〉 역대 군수 현황

구 분	성 명	출 생 지	임용별	재 직 기 간	비 고
제1대	김주혁(金周赫)	미 상	임 명	1954.11.11.~1956. 9. 9.	1년 7개월
제2대	박하영(朴夏榮)	강원 영월군	임 명	1956. 9.10.~1959. 7.25.	2년 2개월
제3대	남원수(南元壽)	미 상	임 명	1959. 7.26.~1960. 5.23.	10개월
제4대	김연기(金練起)	강원 고성군	임 명	1960. 5.24.~1960. 9.27.	4개월
제5대	김원진(金遠鎭)	미 상	임 명	1960.12. 3.~1961. 6. 8.	6개월
제6대	지호은(池湖殷)	강원 철원군	임 명	1961. 7.29.~1962. 5.28.	10개월
제7대	김영도(金潁賭)	미 상	임 명	1962. 5.29.~1964. 2. 1.	1년 8개월
제8대	남상명(南相明)	강원 인제군	임 명	1964. 2. 2.~1965. 3.26.	2년 2개월
제9대	이건웅(李建雄)	강원 속초시	임 명	1965. 3.27.~1967.12. 1.	2년 8개월
제10대	최해규(崔海圭)	강원 명주군	임 명	1967.12. 2.~1971. 8.20.	3년 3개월
제11대	지원용(池元鏞)	강원 춘천시	임 명	1971. 8.21.~1973. 8. 3.	1년11개월
제12대	원낙희(元珞喜)	강원 춘천시	임 명	1973. 8.22.~1976.12.25.	3년 4개월
제13대	최계명(崔桂明)	미 상	임 명	1976.12.26.~1979. 4. 3.	2년 3개월
제14대	조성운(趙誠雲)	강원 춘천시	임 명	1979. 4. 4.~1979. 7.31.	4개월
제15대	정준시(鄭俊時)	강원 횡성군	임 명	1979. 8. 1.~1981. 6.30.	2년11개월
제16대	장재현(張在玄)	강원 삼척시	임 명	1981. 7. 6.~1982. 9.17.	1년 2개월
제17대	이종남(李種南)	강원 삼척시	임 명	1982. 9.18.~1986. 3. 7.	3년 5개월
제18대	권영일(權寧一)	강원 강릉시	임 명	1986. 3. 8.~1986.12.23.	9개월
제19대	권혁신(權赫宸)	강원 강릉시	임 명	1986.12.24.~1988. 2.21.	1년 2개월
제20대	이종호(李鍾好)	강원 춘천시	임 명	1988. 2.22.~1989. 3. 7.	1년 1개월

구 분	성 명	출 생 지	임용별	재 직 기 간	비 고
제21대	정명시(鄭溟時)	강원 양양군	임 명	1989. 3. 8.~1993. 3.28.	4년 0개월
제22대	김창수(金昌壽)	강원 춘천시	임 명	1993. 3.29.~1994. 6. 2.	1년 2개월
제23대	은희성(殷熙聖)	전 북	임 명	1994. 6. 3.~1995. 6.30.	1년 1개월
제24대	오인택(吳仁澤)	강원 양양군	민 선	1995. 7. 1.~1998. 6.30.	3년 0개월
제25대	오인택(吳仁澤)	강원 양양군	민 선	1998. 7. 1.~2002. 6.30.	4년 0개월
제26대	이진호(李鎭浩)	강원 양양군	민 선	2002. 7. 1.~2006. 6.30.	4년 0개월
제27대	이진호(李鎭浩)	강원 양양군	민 선	2006. 7. 1.~2010. 6.30.	4년 0개월
제28대	이진호(李鎭浩)	강원 양양군	민 선	2010. 7. 1.~현재	

## (2) 역대 부군수

역대 부군수는 제9대까지 지방 4급 지방서기관으로 임명제로 보하다가 제10~제11대에는 국가직 서기관으로 보하였다. 제12대부터 다시 지방서기관으로 환원하여 임용하였다.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제14대인 정연덕 부군수가 4년 이상으로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있고 특이한 점은 1961년 6월 21일 부군수제가 폐지되었다가 1975년 1월 10일부터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표4-27〉 역대 부군수 현황

구 분	성 명	출 생 지	임용별	재 직 기 간	비 고
제1대	정우철(鄭佑澈)	강원 강릉시	임 용	1975. 1.10.~1978.10.31.	3년10개월
제2대	염석환(廉錫煥)	강원 강릉시	임 용	1978.11. 9.~1979. 3.22.	4개월
제3대	문용익(文龍益)	강원 고성군	임 용	1979. 3.23.~1981. 5. 4.	2년 1개월
제4대	정호돈(鄭鎬敦)	강원 강릉시	임 용	1981. 5.12.~1982. 8.16.	1년 3개월
제5대	정병덕(鄭秉德)	강원 강릉시	임 용	1985. 3.16.~1987. 1.22.	1년10개월
제6대	김준영(金俊泳)	강원 속초시	임 용	1987. 1.23.~1989. 3. 7.	2년 1개월
제7대	이영훈(李英薰)	강원 춘천시	임 용	1989. 3. 8.~1991. 1.15.	1년 9개월
제8대	김원우(金原右)	강원 삼척시	임 용	1991. 1.16.~1992. 1. 6.	11개월
제9대	정국환(鄭國煥)	강원 양양군	임 용	1992. 1. 7.~1995. 6.30.	3년 5개월
제10대	황연인(黃鍊仁)	강원 고성군	임 용	1995. 7.29.~1997.12.31.	2년 5개월
제11대	최승륜(崔乘倫)	강원 강릉시	임 용	1998. 1.22.~1999. 1.12.	11개월
제12대	신현근(申鉉根)	강원 영월군	임 용	1999. 1.13.~2000. 1. 2.	11개월
제13대	양동창(梁東昌)	강원 양양군	임 용	2000. 1. 3.~2002. 1.31.	2년

구 분	성 명	출 생 지	임용별	재 직 기 간	비 고
제14대	정연덕(鄭然惠)	경북 울진군	임 용	2002. 2. 1.~2005.11. 3.	4년10개월
제15대	김두원(金斗元)	강원 양양군	임 용	2005.11. 4.~2007.12.31.	2년 1개월
제16대	전택춘(全澤春)	강원 춘천시	임 용	2008. 1. 1.~2009.12.31.	2년
제17대	이계동(李啓東)	강원 춘천시	임 명	2010. 1. 4.~현재	

## 6) 인사관리

### (1) 신규임용 및 퇴직 현황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직급·개인별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으며, 이를 승진 및 전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공사·계약·인허가·업무담당자의 전보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근무분위기 쇄신과 공직부조리의 사전예방 차원의 순환보직을 적절히 조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신규임용은 2008년 5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 따른 정원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신규임용은 4명으로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이 충원되었다. 한편 퇴직 공무원은 총 7명으로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이 있다. 2008년에는 6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었으며, 퇴직공무원은 7명으로 일반직 4명, 기능직 3명이다.

〈표4-28〉 신규임용 및 퇴직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기 타	비 고
2007	신규임용	4	2	2	-	
	퇴 직	7	6	1	-	
2008	신규임용	6	6	-	-	
	퇴 직	7	4	3	-	
2009	신규임용	5	5	-	-	
	퇴 직	13	9	1	2	

자료: 양양군(2009), 『양양백서』; 양양군, 2009공무원통계조사(양양군)

## (2)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 가. 표창수상

공무원의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를 높이고 군정발전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

양양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44명이 각종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장·포상에 12명, 대통령 표창 2명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표창 8명, 장관 표창 84명, 도지사 표창 218명, 군수 표창 1,220명 등이 수여 받았다.

〈표4-29〉 표창수상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훈장 · 포상	표 창 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도지사	군 수	기 타	계
계	1,544	12	2	8	84	218	1,220	-	-
	공무원	286	10	2	4	56	75	139	-
	군 인	72	-	-	-	-	3	69	-
	민간인	667	-	-	-	8	41	618	-
2007	계	510	5	2	3	38	91	371	-
	공무원	132	5	2	3	30	47	45	-
	군 인	42	-	-	-	-	3	39	-
	민간인	336	-	-	-	8	41	287	-
2008	계	515	5	-	1	26	28	455	-
	공무원	154	5	-	1	26	28	94	-
	군 인	30	-	-	-	-	-	30	-
	민간인	331	-	-	-	-	-	331	-
2009	계	519	2	-	4	20	99	394	-
	공무원	126	2	-	4	20	46	54	-
	군 인	23	-	-	-	-	1	22	-
	민간인	370	-	-	-	-	52	318	-

### 나. 교육훈련 및 국외연수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세계화·국제화 등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 자치행정의 사례를 몸

으로 직접 체험하고 우리의 행정실태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방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이상의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시킨 바 있다. 2007년에는 442명, 2008년에는 774명, 2009년도에는 650명의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

한편, 양양군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143명, 2008년에는 17개국에 126명, 2009년도에는 16개국 48명의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표4-30〉 교육기관별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합 계	442	774	650	
강원도인재개발원	126	135	140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2	8	10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25	30	31	
농업연수원	30	63	51	
법제처	6	9	8	
산림인력개발원	10	12	10	
지방행정연수원	18	23	2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0	42	31	
한국상하수도협회	12	6	8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9	8	8	
한국지역정보개발원(사이버)	-	270	170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원	15	8	10	
기타	149	160	150	



## 4. 양양군 재정 규모

### 1) 재정의 의의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재원을 획득·관리·사용하는 일련의 공경제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지방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데 세입이란 정부가 행하는 모든 수입을 가리킨다. 재정통계에서는 세입을 조세수입, 자본수입, 원조수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세출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한다.

본 예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또한 승인된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는 그 집행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결산이라고 한다.

### 2) 재정관리 조직

양양군의 지방재정기구인 군청내의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그리고 군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예산편성 및 운영, 예비비 관리, 예산 이·전용 및 이체관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및 관리,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관리,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 신고 접수처리, 사업별 예산 업무관리, 지방채 및 기금관리, 재정분석, 재정공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회계과는 세정, 부과, 징수, 경리, 부동산평가, 재산관리 등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세입과 관련된 제반업무, 예컨대 지방세의 부과·징수·조사업무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일과 계약·지출사무와 구매 및 군유재산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양양군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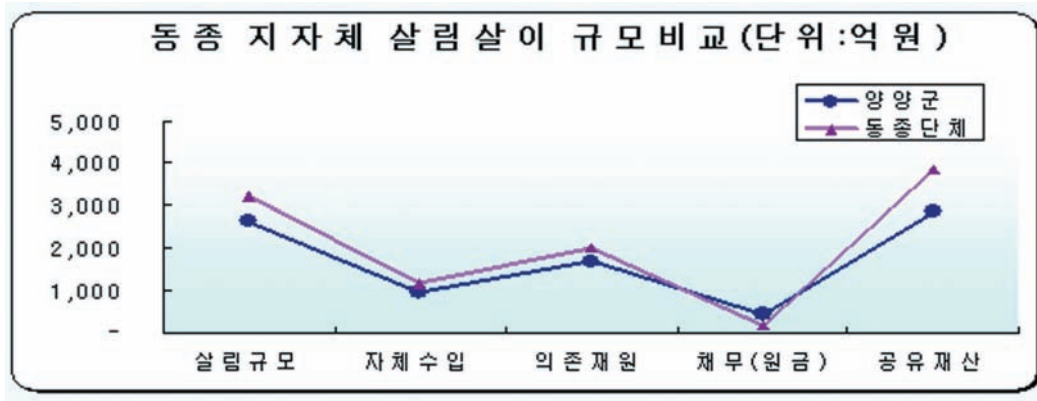
양양군의 2009년 예산은 총 205,820,797천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5,215,961천원이 줄어들었다. 일반회계는 186,564,990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57,56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7,737,338천원이었다. 지방교부세는 80,212,513천원,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155,770천원, 보조금 66,951,844천원, 지방채 7,000,000천원이다.

특별회계는 19,255,807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33,46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71,431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99,147천원,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98,311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16,427천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3,38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03,63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4-31〉 양양군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08년	증 감 륜
총 계			205,820,797	211,036,758	△5,215,961
일반 회계	일 반 회 계		186,564,990	195,843,868	△9,278,878
	지 방 세 수 입		9,149,962	10,252,594	△1,102,632
	세 외 수 입	소 계	21,094,901	22,367,893	△1,272,992
		경 상 적	3,357,563	5,666,187	△2,308,624
		임 시 적	17,737,338	16,701,706	1,035,632
	지 방 교 부 세		80,212,513	96,195,340	△15,982,82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155,770	3,406,382	△1,250,612
	보 조 금	소 계	66,951,844	63,621,659	3,330,185
		국 고	53,849,456	49,478,712	4,370,744
		도 비	13,102,388	14,142,947	△1,040,559
지 방 채		7,000,000	0	7,000,000	
특별 회계	특별회계		19,255,807	15,192,890	4,062,9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33,469	8,190,173	1,743,29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71,431	669,812	1,61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99,147	1,110,789	588,358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298,311	236,675	61,6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16,427	2,676,209	540,218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3,385	148,237	△114,8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03,637	2,160,995	1,242,642



출처 : 양양군(2009), 양양군 재정공시 제2009-1호(2009. 8. 31)

재정규모 비교

집필 : 사득환, 김진하

## 참고문헌

- 강원도, 『강원총람』, 각 년도.
- 사득환, 「지방화가 지역경제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사득환,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대응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 삼성경제연구소 역, Osborne과 Gaebler 저, 『정부혁신의 길』, 1997.
- 양양군, 「양양군 재정공시 제2009-1호」(2009. 8. 31).
- 양양군, 『양양통계연보』, 각 년도.
- 양양군, 『양양군 양양백서』, 각 년도.
- 양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yangyang.go.kr/>
- 양양원화원, 『현산문화』, 각 년도.
-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보』 (서울: 대양출판사, 1995).



## IV. 사법

### 1. 재판기관과 검찰

#### 1) 재판기관

과거 고려·조선조의 사법권이 형조와 의금부에 속하였던 것과 같이 부사를 수반으로 형방에 의하여 모든 재판권이 행사되어 왔으며, 개화기를 맞아 비로소 많은 변혁이 이루어졌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제정 공포한 법률이 그때까지 행정권에 속해 있던 사법권을 독립시키기 위해 공포한 법률로 이법에 의해 근대적인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1심법원으로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가 있고, 이심법원으로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영동지방의 재판기관으로는 1907년 12월 26일 한성지방법재판소 강릉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1910년 6월 4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개편되었다가 8·15광복으로 1945년 10월 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개편된 이래 1948년 합의부지원으로 승격되었으며, 강릉지원은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명주군, 삼척군, 울진군을 관할하였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과 1967년 3월 30일 속초지원의 설치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은 속초지원이 관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양양군은 양양등기소를 두어 경범죄사건이나 소액사건에 대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 2) 검찰

조선조의 형조, 장금부, 장례원은 범죄의 수사감옥의 관장 노복에 대한 문서 및 결송 사헌부가 행한 사찰업무 등 다양했던 행형제도는 중앙기구와 같이 지방관에도 통용되

어 지방관헌 주재로 형방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이 제도는 1895년 4월 15일 감사의 직제제정으로 일반행형과 범죄소추와의 권력을 분장하는 개화적 제도를 확립하였다. 검찰청 역시 법원의 설치경위와 같이 병행설치된 바로 1907년 12월 26일 강릉지청으로 설치된 이래 기구명칭의 변경이 수차례 있었으나 헌정수립으로 법무부로 예속되었다. 즉 3권분립제도 하에서의 행정부로서의 검찰국가의 형사소추권의 행사기관으로, 영동지역에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있다가, 1967년 6월 1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설치되면서 그 관할이 전술한 법원의 관할과 같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양양군은 속초지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경찰 역시 속초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집필 : 사득환

# 제 4 편

## 교육종교

辭令書

李鍾夏

右人以本校의 第二回

卒業生으로서 佐山面二山書堂

授業하기는 証書

隆熙四年二月十九日

私峴山學校長盧悠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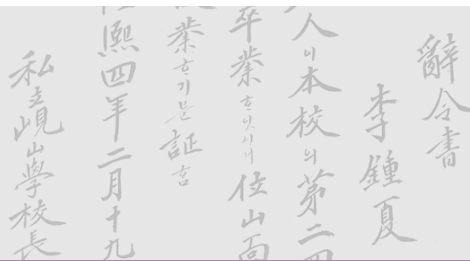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wirling vines and small flowers, positioned behind the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 제4편 교육·종교

- I. 교육
- II. 불교
- III. 유교
- IV. 기독교
- V. 천주교



## I. 교육

### 1.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 1) 삼국~고려 시대

인류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초기의 교육은 일상생활 · 의식행사 등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점차 고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제도화된 교육기관이 설립 ·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고구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형식적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태학(太學)이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일종의 사립학교인 경당(局堂)이 있었다. 그리고 백제에는 교육기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일찍부터 오경박사(五經博士)가 있었던 사실에서 태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라는 삼국통일의 근간이 된 화랑도(花郎道)에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는 국학(國學)을 신문왕대에 설립하였는데 경덕왕대(景德王代)에 이를 태학으로 개칭하였다가 혜공왕대(惠恭王代)에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기원전 6000년 전의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고구려에 속했다가 후기에는 신라에 속했던 양양의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와 신라의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역사적 기록이 없어 당시의 교육기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교육은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구분된다. 관학은 개성의 국자감(國子監)과 동서학당(東西學堂), 오부학당(五部學堂)과 지방에 향교(鄕校) 등이 있었다. 반면에 사학은 12공도(十二公徒)와 서당 · 서사(書社) 등이 있었다. 양양향교는 고려 충숙

왕(忠肅王) 17년(1330년) 5월에 강릉도 존무사(江陵道 存撫使)로 임명된 안축(安軸)에 의해 설립되었다. 안축은 그의 <양양신학기문(襄陽新學記文)>에서 양양지방은 오랑캐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변란을 겪음으로서 향교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간의 방백들이 흥학(興學)에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교의 창건을 역설하였다. 이에 안축은 양양지방의 향로(鄕老)들과 향교의 창건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문선왕동(文宣王洞)이 옛 학교의 터였음을 향로들로부터 전해들은 안축이 그곳을 향교의 건립지로 설정함으로서 향교 창건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었다. 안 존무사는 충숙왕 17년(1330년) 통주수정랑 진군(通州守正郎 陳君)에게 병부(兵符)를 내려 그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이 시기에 정랑 박군(朴君)이 양양태수(襄陽太守)로 부임함으로써 양양향교의 창건은 양자간 협조로 추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오는 군자(君子)에게 제도의 소루(小累)함과 사공(事功)이 모자람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안축선생의 양양신학기문(文)

## 2)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관학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학당, 지방에 향교를 두었다. 조선 중기 이래의 사학 중에서 서원·서당은 주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도(門徒)는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었으며, 서원과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었고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었다.

### (1) 향교

양양지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향교, 서원 그리고 서당을 들 수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설립되어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관심 속에 주·부·군·현의 대부분에 설립하여 지방교육의 부흥을 가져왔다. 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지배이념을 교육을 통하여 보급·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령의 치적 중 흥학(興學)은 향교를 비롯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통한 교화(教化)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향교의 교육관은 교수와 훈도(訓導), 학장(學長 또는 訓長)의 3종이 있었다. 도호부(都護部) 이상에는 모두 교관이 있었으나, 군·현에는 교수 또는 훈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500호 미만의 소읍에는 훈장을 두었다. 교과목은 소학(小學), 사서(四書), 오경(五經) 등을 위주로 삼강행실(三綱行實) 등 예의와 관련된 생활규범을 교과목으로 추가 하였다. 향교는 향음례(鄉飮禮), 향사례(鄉射禮)등을 통한 경로 정신 고취와 예의범절의 실천적인 수행을 포폄(褒貶) 함으로서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기관이었다. 향촌 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 충숙왕(忠肅王) 17년(1330년)에 설립된 양양향교의 변천과정을 보면, 원래는 양양면 구교리에 설립되었으나, 조선 인조 4년(1626년)에 학사(學舍)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확장과 함께 중수하였고, 숙종 8년(1682년)에 양양부사 최상익(崔商翼)과 진사 최상은(崔相殷), 박호(朴灝) 등의 주도로 현재의 위치인 임천리로 이건(移建)하였다. 아울러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 유사(有司) 2인을 두어 직제를 정비하였으며, 교생(校生) 70명을 정액하고 전답 7결을 지급하여 그 운영의 자원으로 삼게 하였다.

이 시기의 양양향교는 대성전(大成殿) 9칸, 동서(東西) 각 6칸, 신문(神門) 7칸, 전사청(奠祀廳) 3칸, 동서재(東西齋) 각 4칸, 명륜당(明倫堂) 14칸, 제기고(祭器庫) 1칸, 서적고(書籍庫) 1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정조 6년(1782년) 양양부사 이진항(李鎭恒)이 둔전동(屯田洞) 주철소(鑄鐵所)를 교궁(校宮)에 두었다.

## (2) 서원(書院)

사립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동명서원(東溟書院)이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해 있다. 동명서원은 조선 인조 6년(1628년)에 건립되었다. 당시 양양도호부사 조위한(趙緯韓)은 흥학(興學)에 뜻을 두고 그 방안을 강구하던 중 대포영의 군용건물이 방치되어 장차 헐리게 될 것을 발견하고 이곳을 학사로 전용토록 하였으며, 이것이 서원이 건립되는 단초가 되었다.

서원 건립을 위해 송모의 상장이 될 선현으로 정언(正言)을 지낸 노경복(盧景福)과 사림(士林) 최정립, 이현일 등이 향론(鄉論)으로 양열공(襄烈公) 조인벽(趙仁璧)을 추천하였으며, 이에 조부사의 협조로 강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충현사라 명명하고 조인벽을 봉향하였으며 동명서원으로 현판하였다. 아울러 부사 조위한은 전답과 소금 굶는 가마와 어선 한척을 지급하여 전속시켜 서원의 운영에 협조하였다.

조인벽은 이 지역의 문향을 열은 인물로 평가되는데 따라 봉사(奉祀) 되게 되었다. 조인벽은 고려말엽에 양양으로 낙향하였다.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하였다고 하는 조원수(趙元壽)의 5세손(世孫)이다. 그는 여말 충목왕(忠穆王)대 이래로 홍건적의 퇴치와 왜구의 격퇴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무관이었으며, 아울러 학문과 덕망을 갖춘 문인이었다. 조인벽은 사도도휘사(四道都揮使)를 거쳐 판의덕부사(判懿德府使)를 역임하였으며, 그의 처남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도 가담하였다. 그의 봉작(封爵)은 순성익위협찬보리공신삼중대광용원부원군(純誠翊衛協贊輔理功臣三重大匡龍源府院君)이었다.

조인벽은 이처럼 고려말 신진세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나 이후 신진세력이 분열하면서 그는 양양으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인벽은 양양으로 낙향한 후 이곳에 매월정(海月亭)을 짓고 산수간을 소요하면서 대자연과 함께 시예(詩藝)로 소일하였으며, 후진을 양성하면서 학문과 도덕을 일깨워 이 지방의 풍속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여러 유생들과 강학을 즐겼으며, 월촌(月村) 정만(鄭慢)과 강해(江海) 이장년(李長年) 그리고 도사(道師) 혜선(慧禪) 등과 시우(詩友)를 지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명서원이 창건된 이후 얼마 안 되어 양열공의 넷째 아들 조사(趙師)가 배향되었다.

조사는 정몽주의 문인으로서 양열공을 따라 낙향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양열공의 사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근처의 원유석과 교유하였다. 조사는 사적으로 이태조의 생질이었던 관계로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僉知中樞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보였으며, 이에 후인의 사표가 되었음으로 배향될 수 있었다.

동명서원은 이후 그 연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소실되었으며, 재력의 부족으로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정조 10년(1786년)에 순흥와란(順興臥蘭)으로 옮겨서 재건되었다. 와란(臥蘭)은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로 당시 봉화의 숭모 상징인 조정(趙貞)이 추배(追配)되었다. 조정은 조인벽의 6세손으로 정암 조광조의 문인이다.

고종 8년(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동명서원은 철폐되었다. 이후 광무 2년(1898년)에 강원도관찰사 조종필(趙鐘弼)이 동명서원을 창건하였던 조산리 옛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고현(古賢)의 유덕을 기리었으나 이마져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훼손(毀撤)되었다. 이에 서원의 구적(舊蹟)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향론(鄉論)을 모은 양양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1974년 동명서원 복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역사를 추진하였다. 재력의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9년 양양지방 유림과 한양 조씨(漢陽 趙氏) 문중이 중심이 되어 복원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역사를 진행하여 1982년에 사당과 강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82년 5월 2일 지방의 유림과 후손들이 위패 봉안 위원회를 조직하여 와란시대(臥蘭時代) 동명서원 구현판을 인수받아 현판하고 양열공 조인벽 선생과 가천재공(嘉川齋公) 조사 선생의 봉안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지금도 매년 3월 둘째 정일(丁日)을 택하여 제례를 봉향하고 매월 삭망에 분향례를 행하고 있다.

현재 서원은 “충현사(忠賢祠)”라는 현판이 게시된 위패를 모신 사당과 그 좌측으로 1982년 성균관 총무처장 박중훈이 식(識)한 “동명서원봉안문(東溟書院奉安文)”과 동년에 후손 중형(中衡)이 찬(撰)한 “동명서원중창기”가 계판된 재실(齋室)이 배열되어 있으며, 전면에 솟을 대문을 중심으로 회벽에 돌로 구성한 담장이 서원을 에워싸고 있다. 서원의 입구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솟을 대문앞 좌측에는 1899년에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趙鐘弼)이 식(識)하고 대구판관(大邱判官) 정학교(丁學敎)가 서(書)한 “동명서원



유허비(東溟書院遺墟碑)와 1982년에 건립한 “동명서원중창기념비(東溟書院重創記念碑)”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동명서원의 생도의 수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5년 4월 4일 발생한 양양 산불로 인해 사당이 화재를 입어 2010년 6월 현재 사당 중건 작업이 완료되고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주변환경 및 조경을 완료하였다.

### (3) 서당(書堂)

서당은 글방, 서방, 책방, 서재 등으로 불리어졌다. 서당은 우리나라의 전통교육기관들 중에서 일반국민에게 가장 친밀성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각 지방의 마을마다 있다시피 하였다. 서당이 국민들에게 친밀성을 가지게 된 것은 서당이 오랫동안 서민들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당은 근대학교가 등장할 때까지 향촌 일반인들을 교육하는데 기반을 두어 촌락을 근거로 꾸준히 교육적 영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당은 특히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지키는 교육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향촌의 부족한 초등교육의 수요를 보완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빈곤한 가정의 초등교육 이후의 일시적인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시기까지 하였다.

양양지방에는 양양읍 서문리에 숙종 17년(1691년) 현수(峴叟) 이휘진[(李彙晉) 동부승지]이 세운 건계서당[(建溪書堂) 서북방 1km 지점]과 1758년(戊寅)에 조산리에 부후이현경(府侯 李獻慶)이 세운 몽산서당[(蒙山書堂) 1759년 명명, 동방 4km 지점], 그리고 손양면 송전리에 있던 한동서당[(漢東書堂) 동남방 4km 지점]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서당이 마을 마다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양양지방의 인재들이 과거시험에 다수 합격한 것을 들 수 있다. 세종 6년(1423년)에 이세문이 계방(桂榜)문과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고종 31년(1893년)에 이석재의 합격까지 22명이 합격하였다. 또 연방(蓮榜) 소과(小科)에도 이세문이 태종 15년(1414년)에 합

격하였고 그 아들 이승복이 합격하는 등 조선시대에 90명의 진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무과(武科)에도 이승조(李承祚) 경상좌병마절도사]를 시작으로 고종 13년(1875년)까지 41명이 호방으로 합격하였다. 특히 김기종(金起宗)은 1615년에 진사가 된 후 1618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인조 2년(1624년) 이괄의 난 때 2등 공신이 되어 이름을 날렸다. 이와 같은 급제자의 배출은 이 지방에서 서원, 향교를 비롯한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이 되는 서당 교육도 활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대의 양양지방 서당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교육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서당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교육내용과 같이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독의 교재는 기초적인 교재인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절요(統監節要)』 및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부교재격인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률(唐律)』 등이었는데 대개는 『통감절요(統監節要)』 정도에서 그쳤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동몽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 서당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제술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고풍, 십팔구시 및 작문 등이 있었는데, 훈장의 자질에 따라 제술이 전혀 제외된 곳도 있었다. 습자는 해서를 위주로 하였으나 학습 정도의 진전에 따라 행, 초서체를 익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훗날 편지글을 익히려는 실용적인 의도에서이다. 첫째, 강독은 한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서당의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었다. 즉 강독은 석음(釋音)과 음독(音讀)을 반복암송 시키고 문장을 혼자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강독의 교재로는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 그리고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소학(小學)』이 핵심교재였으며,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 등 사서삼경(四書三經)이 교재로 쓰였다. 이같은 서당 강독의 교과목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학습순서는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소학』→『대학』→『논어』→『맹자』→『중용』→『시경』→『서경』→『주역』의 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소학』 정도에서 그쳤다. 둘째, 제술은 서(書)·기(記)·발(跋)·제문(祭文)·소첩(訴牒)·시(詩)·부(賦) 등을 저술하는 것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는 주로 시문(詩文)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술 학습의 교재는 『당음(唐音)』·『연주시(聯珠詩)』·『고문진보(古文眞寶)』·『두율(杜律)』 등이었으며, 교재 속의 시문을 낭송하는 한편 실제로 시를 짓는 훈련을 쌓았다. 전체적으로는 오언절구(五言絕句)·칠언절구(七言絕句)·사율(四律)과 고풍(古風)의 십팔구시(十八句詩)·작문(作文) 등이 보통이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서당에서는 전혀 제술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제술은 평소에는 여가를 이용하여 학습하였으나, 주로 여름철에 행해지는 문예수업이 중심이 되었고 이것을 하과(夏課)라고 하였다.

제술을 배우는 단계는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등의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 천고당음(天高唐音) 등의 시문을 배우게 될 때부터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인 행사로서 이루어진 시작(詩作)은 시회(詩會)·기낭송회(記朗誦會)·경시회(競詩會) 등이 있고, 규모가 큰 것으로는 경시대회(競詩大會)·백일장(白日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유학자들은 제술이 성장하는 학생에게 글자를 더 많이 익히고 나아가 그들의 안목을 넓히고 심지를 굳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술활동은 고인(古人)의 시풍(詩風)과 풍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로 근대까지도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 등을 통하여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셋째, 습자는 서당교육의 중요한 과목의 하나였다. 처음에는 해서(楷書)를 많이 연습시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행서(行書), 초서(草書)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당에서의 습자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보다 문자이해를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습자의 평가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시회’에서 평가하였다. 그 횟수는 규모가 큰 전시회는 연 2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1주년 또는 2주년에 한 번씩 작은 전시회를 가진 서당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강독보다 습자시간이 훨씬 적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이 빈약하였기에 강독보다 돈이 많이 드는 습자는 학동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넷째, 기타 교육내용으로 서당에서는 위의 정규적인 과정인 강독, 제술, 습자 이외에 여가로 배우는 것이 있었는데, 육갑(六甲)·구구법(九九法) 산수·고을모듬(지명)·성모듬[(姓)모듬 : 姓氏]·관혼상제·세계(世系)·국호(國號) 등이 그것이다. 서당에서 이러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 봉건사회에서의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성원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여 예절바른 생활을 하도록 교육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2. 근대교육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근대교육의 시작은 개화정책에 따른 외교·통상관계상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였다. 정부는 고종 20년(1883년)에 통역관 양성을 위해 동문관(同文館)과 근대적인 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園)을 고종 23년(1886년)에 각각 설립하였다.

한편 갑오개혁은 근대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정부는 육조(六曹)를 개편하여 아문관제(衙門官制)를 채택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였다. 1895년 2월에는 근대교육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교육조서(教育詔書)”를 반포하였다. 이어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관제”, “중학교관제”, “외국어학교관제”, “의학학교관제” 등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신학제에 의한 근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소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의 심상과와 2~3년의 고등과로 구분되었고 입학자격은 만7세에서 15세까지 8년간이었다. 다만, 공립학교는 지방의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지방관의 판단에 위임하였다.

양양지역의 근대교육 기관으로는 1906년 7월 20일에 개교한 현산학교와 각 마을마다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서당과 개량서당을 들 수 있다.

### 1) 현산학교의 설립

정부에서는 1895년 7월 17일 소학교령을 공포하고 그 이듬해인 1896년에 강원도 춘천, 강릉, 원주에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소학교령을 공포한지 3년 후인 고종 36년(1898년) 무술 신춘에 정부로부터 양양에 공립소학교를 특설하라는 훈령이 내려오자 이를 반대하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또 반대운동이 치열하였고, 재력도 부족하

여 광무 8년 갑진(1904년)에 군내 인사 이교필(李敎弼)이 향교재산으로 소학교를 설립하고자 학부허가를 받으려고 주선하다가 유림들의 반대투쟁으로 이를 중지하고 동년 7월 군내 인사 이항렬(李恒烈), 최영삼(崔永杉) 등 두 사람이 향교소유인 학전(學田)과 기타 재산으로 소학교설립의 청원을 학부에 제출하여 특허로 훈령을 내렸다.

동년 8월에 전 군내 유림들이 향교에서 회동하고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이항렬, 최영삼(崔永杉)을 억지로 동행케 하여 부위[부사가 근무하는 동헌]에 벌하여 줄 것을 소청하였다. 이에 군수 김흥기 역시 자천(恣擅)이 불가능하므로 학교설립 청원자 이항렬에게 허가취소원서에 강제로 날인케 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정현동(鄭顯東), 노병익(盧炳翼), 이두재(李斗在)는 이를 반대하려고 상경하였다.

동년 12월 정현동 외 2인이 의정부에 제소하여 5인을 처벌하고, 출유삭적(出儒削籍)하였다. 이것은 곧 학전을 침식하려는 선비행세를 배반한 것이라 하였다. 이후 광무 9년 을사(1905년) 4월에 학교를 설립하라는 학부훈령이 수차 시달되었으나 근근히 모면하였다.

광무 10년 병오(1906년) 정월에 구관 김흥기는 서거하고 신관 남궁억(南宮億)이 부임하여 2월에 소학교 설립문제를 군민대표들을 소집하여 향회(鄉會)를 개최하고 협의한 결과 반대론과 변재안(辨財案)이 곤란함으로 수향(首鄉)과 통유(通儒)들로 하여금 재정을 조달하려하였으나 통유들이 문제를 거부함으로 유림들이 향교에 모여 대회를 열고 각 종계(宗契)와 각 서당계(書堂契)에서 1,000환(당시 화폐가치)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동년 4월에 9개 면에 거주하는 부요민(富饒民)을 태평루(太平樓)[현 군청사 뒤 고목이 있는 정상에 있었음]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였다. 그리고 연회가 파할 무렵 그 자리에서 소학교 설립 보조금 3,000환(당시 화폐가치)을 모금하였고, 이 때 향장(鄉長)은 폐지하게 되었다. 향청(鄉廳)에 남아 있는 재산을 합하고, 유림들이 번 돈 만량을 합하여 4,000환(당시 화폐 가치)으로 현산학교를 건립하였는데 재력과 그 내용이 충실하여 전 도내에서 제일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양양지역의 유일한 근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1906년 8월 17일에 고관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현산학교작흥하양양인사(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에 의하면 현산학교가 설립된지 두 달이 되지 않아 원근의 학도가 일

시에 운집하여 이미 200여 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는 강릉, 간성, 삼척 등에서 오는 학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연조금이 합하여 3만여 량[당시 화폐로 3천환]이고 향교에서 보내주는 벼가 일백석이고 의연금을 보내주는 자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남궁억은 현산학교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그는 근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려는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한 명씩의 자제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궁억의 노력으로 1906년 7월 20일 현산학교 개교식에는 200명의 학생이 모였다. 현산학교에서는 무상으로 공책과 연필을 공급하였고 교과서를 깨끗이 사용한 학생에게 상을 주어, 다음 학년생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현산학교의 교사는 4명이었으며 교과목은 8과목을 가르쳤다. 즉, 남궁억은 영어와 음악, 정우용이 산수와 역사, 김홍식이 일어와 체조, 이흥영이 국문과 한문을 가르쳤다.

남궁억은 1907년 양양군수직을 사직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는 양양을 떠나면서 현산학교 설립시 반대했던 정현동을 현산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현산학교가 오늘날 양양초등학교와 양양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된다.



남궁억 군수가 수여한 현산학교 수업증서

융희 1년(1907년) 순종 원년(丁未) 4월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민공호, 이강년, 박장호, 주광신, 한갑복 등 의병들이 본부부위[府衛] 현 군청]를 점령하고, 현산학교를 소진시켜 버렸다.

## 2) 신학서당과 서당교육

1919년 3·1운동 이후 근대적 신교육을 도입한 개량서당 또는 신학서당이 크게 대두함으로써 서당교육은 그 형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성격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일제 식민지 교육정책과 근대식 서구 교육의 전개, 그리고 일제에 대한 민족의 반항운동과 민중 교육열 등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의 복잡한 사정 하에서 서



당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옛 형태를 유지하는 재래식인 구식서당과 새로운 시대성을 반영하여 개편된 개량서당으로 대별된다.

그 가운데 개량서당은 당시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량서당은 본질적으로 구식서당과는 다른 것으로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 설정하고, 그 설립목적도 민중교화에 두었으며,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지도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개량서당은 근대적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재래의 구식서당은 그 전통과 보수성을 유지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하였고, 수많은 아동을 교육하여 초등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양양지역에서는 융희 2년(1908년) 무신(戊申) 9월에 최종락이 군수로 부임하여 10월 10일에 현산학교를 다시 건립하고, 각 면 각 촌에 신학서당을 설치하고 각 마을마다 야간학교를 개설하여 현산학교와 같이 한문과 신학문도 가르쳤다. 민족지도자들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신학문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신학서당 또는 개량서숙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한문만 가르치던 서당이 한문 외에 국문, 산술, 체육, 일본어도 가르치고 교과별로 별도의 교사도 있었다. 그러나 1911년에 현산학교가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고 '1면 1교' 정책에 따라 양양, 대포를 비롯하여 인구, 속초, 천진 등에도 보통학교가 증설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신식학교로 가게 됨에 따라 서당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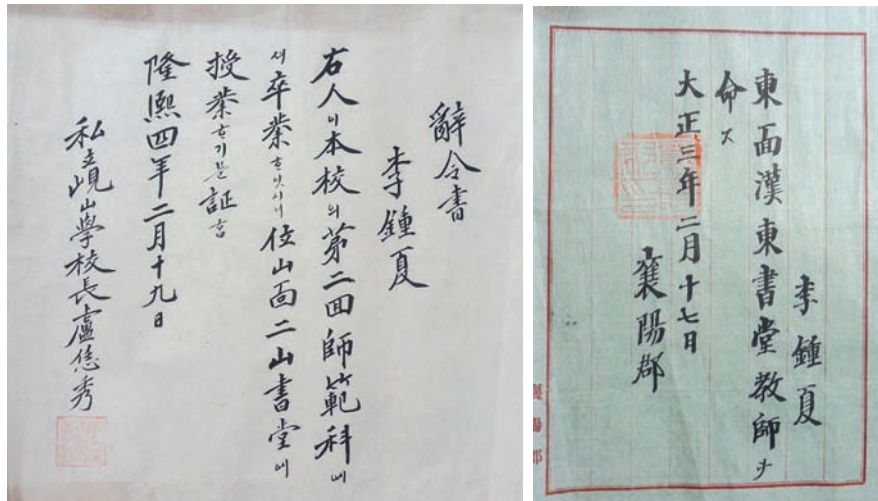
당시 양양지역에 있었던 신학서당은 고려말의 서당과 조선시대의 서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에 남아있는 이들 서당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동네서당

양양군 현남면 죽리에 소재했으며 창설 연도는 알 수 없고 매년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훈장의 임기는 최소한 1년을 보장하였다. 폐설 연도는 1925년경이었다. 폐설 이유는 일본경찰이 서당을 폐쇄하도록 훈장을 협박하였고 학동들도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학동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학동 수는 보통 15~16명이었으며 어린 학동은 7세에서 20세 이상인 남자로 상투를 틀고 장가를 든 성년도 있었다. 훈장을 지낸 사람은 이용규(李容奎)와 최계천(崔係阡) 등이 있었고 수학자로는 정성철 등이 있었다.

## (2) 한동서당(漢東書堂)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에 소재 했으며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920년경에 양양지방에서 일제에 대한 항거운동이 가장 활발할 때 일본 경찰이 강제로 폐쇄시켰다. 수학자로는 김달석과 독립운동가인 노병례(1903~1994년) 등이 있다. 훈장으로는 최재기(崔在箕)와 이종하(李鐘夏) 등이 있었다.



이종하선생 이산·한동서당 훈장 사령장

## (3) 죽정재(竹亭齋)

양양군 현남면 죽정자리에서 학동의 집 사랑방을 빌려 한 달씩 옮겨 가며 운영하였다. 창설연대는 알 수 없으나 폐설 연대는 1929년경이다. 폐설 이유는 일제가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교육기관을 폐쇄하는 정책을 썼으며 학생들이 공립보통학교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수학자로는 정성각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최종렬, 최준식 등이 있었다.

## (4) 석천서당(石泉書堂)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폐설 연도는 1930년경이다. 수학자는 양태석, 최완수, 이종현, 김동욱, 이일재, 김성내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 김용재와 김동우 등이 있었다.

## (5) 금계서당(錦溪書堂)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옛 지명 양양군 부남면 금계리)에 김용주의 조부 김종억이 주동이 되어 중증(문중) 자본으로 1910년경에 설립하여 1930년경에 폐설되었다. 폐설 이유는 일본경찰이 서당을 찾아와 훈장에게 위협을 하였고 면서기들은 학동들에게 양양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도록 종용하여 대부분의 학동들이 공립보통학교로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 (6) 대성학당(大成學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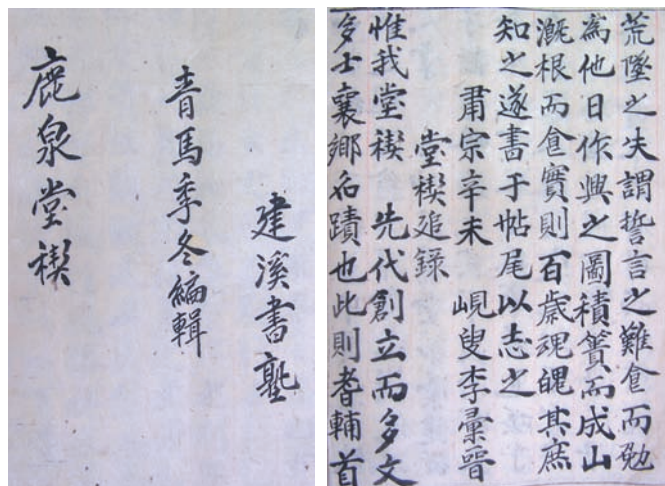
양양군 현북면 상촌마을(현 상광정리 마을 회관부근)에 있었다. 개량서당으로 창설 연대는 1923년경이고 폐설 연대는 1936년경이다. 폐설 이유는 병자년(1936년) 수해 때 서당이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이다. 개량서당 수학자로는 황낙기, 이상록, 이강수, 이상설, 이병재, 이강숙 등이 있다. 특히 이강숙은 여자 학동이었다. 개량서당 훈장으로 이상면(李相冕), 황철정 등이 있었다.

## (7) 잔교리 한문서당

당시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있었다. 창설 연대는 1923년경이고 폐설 연대는 1936년경이다. 그리고 한문서당 수학자로는 김창호, 이상원, 이상록, 김근호, 황낙기 등이 있다. 훈장으로 김동현, 오세직 등이 있었다.

## (8) 건계서숙(建溪書塾)

조선 숙종 신미년(1691년)에 이시행의 7대조 이휘진(李彙晉)이 양양 임천에 설립하였다. 340여 연간 존속하다가 일본의 서당 폐쇄정책에 의해 1940년경에 폐쇄되었다. 서당 수학자들이 녹천 서당계(鹿泉 書堂契)를



이휘진 선생 건계서숙 녹천당계첩

조직하였는데 이 계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 (9) 쌍천서숙(雙川書塾)

양양군 도천면(현 속초시 설악동 중도문 마을 회관자리)에 있었다. 조선초부터 있었으나 창설연대는 미상이며 1937년경에 폐설되었다. 폐설 이유는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배일정신을 가르친다고 하여 일본 순사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 서당이 폐쇄되고 대신 상도문에 「간이학교」가 개설되었다. 여기서 3년을 다니면 공립보통학교 6년 졸업학력을 인정하였다. 이시행 등이 수학하였으며 이종인, 김영경 등의 훈장이 있었다.

#### (10) 안말서당

양양군 서면 상평리 안말에 있었다. 창설연대는 미상이며 현재 건물은 없고 빈터만 남아 있다. 8·15광복직전인 1944년에 폐설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본순사가 와서 서당을 못하도록 계속 협박하였다. 심지어 훈장의 상투를 강제로 자르기도 하였다. 수학자로는 김을제, 전석진, 마세영, 김용성, 전구화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김상필이 있었다.

#### (11) 봉암서당(鳳岩書堂)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 있었으며 동네 앞산의 이름이 봉암산이어서 서당이름을 봉암서당이라 하였다. 창설 연대는 미상이나 1938년도에 폐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훈장 최명식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갔고, 면사무소에서 서당을 폐쇄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수학자로는 최선제, 이종성, 노재희 등이 있었으며 훈장으로는 이교진, 노재철, 최명식 등이 있었다.

#### (12) 건너말 서당

양양군 서면 상평리 건너 마을에 있었으며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35년경 다니던 학동이 대부분 보통학교로 진학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1936년 병자년 수해로 집과 집터까지 휩쓸려 내려가 지금은 서당의 자리가 논이 되었다. 수학자로는 김동우, 김

태환 등이 있으며 훈장으로는 김동환이 있었다.

### (13) 금강서당(金崗書堂)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에 있었으며 서당이 금강고개 밑에 있었기에 금강서당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창설연도는 1926년이고 폐설 연도는 광복직전인 1944년이다. 수학자로는 이상춘, 이곤형, 함근호, 고찬세, 이상은, 고경재 등이 있다. 훈장으로는 이교진이 있었다.

### (14) 복천서당(福泉書堂)

양양군 강현면 하북리에 있었다. 수학자로는 김용직, 김창배 등과 강현면 강선리와 장산리의 수학생들이 있었으며 훈장으로 김종석이 있었다. 창설 연대는 미상이며 1943년경 학동들이 신학교로 진학하여 학동수가 줄게 되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 (15) 송암리 한문서당

양양읍 송암리 기차역 앞에 있고 창설 연도는 1945년이었으며 폐쇄 연도는 1948년도였다. 수학자로는 김봉남이 있고 훈장으로 최석림이 있었다.

### (16) 대골서당

양양군 현남면 죽리에 있었다. 창설 연도는 알 수 없으나 6·25한국전쟁 직전까지 존속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학동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폐설되었다. 수학자로는 김주남이 있고 훈장은 황선생이 있었다.

### (17) 석천서재(石泉書齋)

양양군 도문동(현 속초시 도문동)에 있었으며 육모정(梅谷 선생이 지었다고 함)옆 개울가에 있었다. 서당의 창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폐설 연대는 1966년 말이었다. 폐설 이유는 훈장이 강현면 적은리에 서당을 새로 개설하여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훈장은 김남한이 있었으며 수학자로 박용대가 있었다.

## (18) 가평서당(柯坪書堂)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있었으며 창설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에 휴업을 하였다가 광복 후 다시 재개하였다. 1967년경에 문을 닫을 때까지 7세~22세까지 30여 명의 수학자가 양양에서는 최후의 서당수학자로 짐작되며 훈장은 가산 손봉집(嘉山 孫鳳集) 선생이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한 제자 16명(고몽재, 고석화, 고용달, 권오상, 김익준, 문재한, 박종득, 백남복, 손종환, 엄광선, 이견갑, 이주만, 진원집, 최종학, 함남한, 함문한)이 현재까지 숙우회(塾友會)라고 하는 모임을 2개월에 한 번씩 갖고 있으며 스승님의 기일에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 (19) 서당택 서당

양양군 강현면 중북리 214번지에 있었으며 양양군 향토지와 양주지의 인물난(김종섭 : 金鍾燮)에는 복천서당(福泉書堂)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창설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920년대 중반으로 짐작된다. 1950년대 초반까지 수학을 했다고 하며 훈장은 시문(詩文)과 서도(書道)에 능통한 문장가인 성암 김종섭(醒岩 金鍾燮)이며 수학자는 12세~30세였고 수제자로 인정받은 심창근과 양재홍도 수학하였다고 한다. 훈장 자체인 김관수(金官洙 : 1927년생)가 증언하였다.

당시의 양양지방의 서당교육에 관한 실태를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입학연령은 대부분 6~7세였으며 취학전 교육으로 부모들이 취학시켰으며 수학기간이 2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서당에 입학한 동기는 부모의 권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모의 배일사상 때문에 공립보통학교를 포기하고 서당에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서당을 중단하게 된 동기는 공립보통학교 입학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사유는 일본 경찰이 서당을 폐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당의 학동수가 제일 많은 서당은 쌍천서숙으로 30~40명이었으며 입학연령제한이 없어 연령차가 심했다. 서당의 규모는 대부분 훈장의 사랑방으로 8~9자방 2칸 정도이고 초가지붕이 많았다. 그러나 쌍천서숙은 독립건물로 기와지붕에 교실 2칸, 도서실 1칸, 교무실 1칸, 공동 목욕탕을 갖춘 학교규모와 같은 서당이였다. 서당의 시설로는 대부분 서당의 방안에 훈장의 서상(書箱), 분판(粉板), 출입패, 목침, 붓걸이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성학당(개량서당)은 서당 안에 칠판, 교탁, 학동용 책걸상, 종이 등이 있었다.



서당에서 주로 배운 책은 초급과정에서는 천자문, 계몽편(啓蒙編),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을 배우고, 중급과정에서는 통감(統監), 소학(小學) 등을 학습하였으며, 최고수준에서는 사서와 삼경을 배웠다. 개량서당인 대성학당에서는 국어독본(일본어), 조선어 독본, 산술, 습자, 도안, 창가 등을 가르쳤다. 서당의 교수학습방법은 개별학습과 암기위주로 이루어졌다. 접장(接長)은 학동 중에서 제일 높은 책을 읽고 연령이 많은 자가 하였다. 접장이 하는 일은 주로 초학자들을 가르치거나 서당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하였다.

서당의 훈장은 대부분 같은 마을 사람이나 이웃마을 사람이었으며 외지에서 초청해 오는 훈장도 있었다. 양양군의 서당 운영 형태는 주로 동리공동서당(洞里共同書堂)과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이었으며 동족조합서당(同族組合書堂)으로 금계서당이 있었다. 그리고 서당의 중요한 행사로는 개접(開接), 파접(罷接), 책시세(冊時洗), 백일장(白日場), 화전(花煎)놀이, 복(伏)놀이, 천렵(川獵) 등이 있었다. 서당행사를 특별하게 한 서당으로 대성학당은 원족(소풍), 가을운동회, 학예회를 개최하였으며 쌍천서숙에서는 품평회, 학예회, 체육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당에서의 놀이는 학습형태의 놀이와 운동경기 형태의 놀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형태의 놀이에는 초중중놀이, 승경도(陞卿圖) 놀이 등이 있었으며 운동경기형태의 놀이로는 자치기, 비석치기, 사방치기, 장치기, 팽이치기, 돈치기, 공차기, 제기차기, 강통차기, 굴렁쇠 굴리기, 나무 돌아오기, 말타기, 목침 뺏기 등이 있었다.

### 3. 일제강점기의 교육

일제의 한국식민지 교육정책은 그들의 식민통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인을 일본제국에 신민화 시키려는 반교육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주의 교육을 합리화하고 한국인의 교육을 탄압하였다.

일제에 의한 교육은 법령의 시행과정에 따라 4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 8.22~1922. 2. 4),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 2. 5~1938. 3. 2),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 3. 3~1943. 3.30),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 4. 1~1945. 8.15)이다.

1910년에 부임한 군수 최종락은 소실된 현산학교를 새로 건립하였고, 그 이듬해인 1911년 4월 1일에 기존에 사립이던 현산학교를 4년제의 양양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였다. 1912년 당시에는 4개 학급에 174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다. 그 후 일제의 ‘1면 1교’ 지침에 의거 대포보통학교(1919년), 인구보통학교(1922년), 현북보통학교(1931년), 상평보통학교(1934년), 강현보통학교(1933년), 손양보통학교(1934년), 현성보통학교(1934년), 강현부설 회룡간이학교(1937년), 화일공립국민학교(1940년), 임호간이학교(1941년), 적은공립국민학교(1942년), 현서공립국민학교(1942년), 조산공립국민학교(1944년)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19년에는 양양보통학교가 6년제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중등실업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농업계의 공립실업보습학교인 양양공립농민학교가 1932년 1월에 양양군 강현면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수업 연한이 1년이었으며 일본인 1인과 한국인 2인의 남자 교직원이 근무하였고 학생 수는 30인이었다.

## 4. 양양의 현대교육

### 1) 공산치하의 교육

#### (1) 초등교육

광복 후에 양양은 38° 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에 점령되었고 1945년 10월 28일 5도 행정국에 의하여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였다. 북한은 북조선임시정부 창립 후인 1946년 1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33호’를 발표하여 일제식 교육제도를 고쳐 초등교육의 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때 북한의 학제는 소련식을 모방하여 인민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기술전문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5-3-3-4학제로 결정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결정 제133호’ 제1항에서는 ‘인민학교는 5년제이고 입학연령은 7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

고 이 규정을 수정하여 1947년 6월 28일에 북조선 교육제도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기 위한 8개 조항의 인민위원회 ‘결정 제49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거 구제도하의 1~4학년까지의 학생들은 1947년 9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신 교육제도에 의하여 한 학년씩 진급하게 하였고, 구 교육제도하의 중학교 또는 인민학교에 등록된 5학년과 6학년생은 새 학기부터 중학교 또는 기술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으로 진급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1948년 9월 2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소련식의 공산주의 교육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인민학교 제도는 다시 1953년 7월 11일에 ‘내각 결정 111호’에 의하여 수업연한이 1년 더 단축되어 지금과 같이 4년으로 결정되었다.

광복 전 양양군에 속해 있던 38°선 남쪽의 인구, 임호, 현서, 갈천분교는 강릉군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에 38°선 이북에 있었던 양양인민학교와 상평인민학교의 교육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타 학교도 그 편제와 교육과정은 같았다.

양양인민학교는 광복 전까지는 학년 당 3개 학급이었는데 광복 후에 간이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4학급씩 총 20개 반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0명 내외였다. 입학연령은 7세이며 소련군이 들어와 양양인민학교를 그들의 병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2부제 수업을 하였다. 1시간 수업은 45분이었고, 교과목은 10과목 내외였으며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가르쳤다. 학급별로 방과 후에 자아비판회의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에도 전체 자아비판회의를 하였다. 과외활동으로 소년단이 있었다. 노동절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원이 참여하여 시가행진을 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하였다. 학년은 9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8월말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상평인민학교는 학년당 5개 학급으로 학생수는 50명 내외였다. 광복직후에는 일제 때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1946년 9월 북조선인민공화국 교육국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여 배부하였으며 교과는 공민, 문학, 산수, 리과, 지리, 체육, 음악, 공작 등이었다. 1947년 7월 15일 인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그해 9월에 양양초급중학교에 입학하였다.

## (2) 중등교육

소위 공산치하의 중등교육은 그 당시 재학생이었던 고경재, 김기정, 고향옥 등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양에는 3년제의 남·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각각 1개씩 4개교가 있었다. 양양초급중학교 가운데 남자중학교는 1946년에 현재의 양양중학교 자리인 양양읍 서문리에 설립되었고, 여자중학교는 현 도서관 앞(양양읍 군행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만 다니던 양양서소학교자리)에 설립된 뒤 1년 뒤인 1947년에 양양군 서문리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들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폐교되었다. 3년제로 학급당 인원은 60명 내외였으며 남·녀 학교 각각 3학급이었으며 교과과정은 지리, 역사, 세계사, 수학, 기하, 국어, 영어(1년후 로어), 물상, 화학, 음악, 체육, 미술 등을 가르쳤고 지리나 역사 등의 교과시간에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통합하여 수업하였다.

그리고 양양고급중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어 1950년에 폐교되었다. 남자학교는 군행리(현 도서관 자리)에 있던 2층 건물 중 1층 사용하였고, 여자학교는 군행리(현 도서관 자리)에 있던 2층 건물 중 2층을 사용하다가 약 1년 후에 서문리 현 양양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이사하였다. 남녀 학교 각각 1학급씩이고 학급당 인원은 50여 명이었으며 교과목은 국어, 지리, 역사, 세계사, 수학, 영어(1년 후 로어), 음악, 미술, 체육, 물상, 화학 등이 있었다. 당의 사상교육은 훈육주임이 맡아서 하였다. 남·녀 고급중학교는 양양군에 하나뿐이었으므로 당시 양양군이었던 죽왕면 학생까지 등교하였다. 원거리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차를 이용하여 등교하였다.

## 2) 수복후의 교육

6·25한국전쟁 중에도 양양지방에서는 계속 수업은 하였으나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교사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1950년 8월경에 등교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10월에 수복되고 각급 학교가 개교하였으나 1951년 1·4후퇴 때 많은 학교가 소실되었다. 1951년에 다시 수복 개교하여 1군단 민사처의 지도하에 초등교육이 시작되었다. 1951

년부터 1954년 군정기간 중에 송포(1951년), 한남(1952년), 상운(1953년), 남천(1953년)의 4개 국민학교와 분교가 새로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임시행정 조치법’에 의거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에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 즉, ① 읍·면에 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였다. ② 군수가 교육감, 세무서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 시대에 졸업한 학생부터 대한민국 학제에 의해 제1회부터 3회 졸업생까지 졸업하고 1955년부터 다시 민정 제1회로 졸업하여 각 학교 마다 1~3회 졸업생이 둘씩 이어서 졸업횟수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수복 이후 현재까지의 각급 학교의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아교육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양분되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보육시설은 군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1980년에 농촌지역인 현북국민학교(10월 30일)와 상평국민학교(10월 10일)내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1년에 양양(3월 1일), 조산(3월 1일), 강현(3월 15일), 광정(3월 1일), 상운(3월 5일), 인구(3월 1일) 국민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었고, 1984년에 송포(6월 13일), 손양(8월 14일), 한남(6월 2일), 임호(9월 7일), 남애(6월 2일) 국민학교에 1985년 3월 5일에는 현성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각각 설립되었다.

2009년 현재는 임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 병설유치원이 되어 공립유치원 14개 학급에 학생 수는 134명이고 교원 수는 24명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으로는 1960년에 설립된 양양유치원(1학급 40명)과 1983년경에 설립하여 낙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산지역아동센터(6학급, 127명)가 있다.

그리고 양양지역에는 보육시설로 공립 형태 2개(양양어린이집, 서문어린이집), 법인 형태 3개(청곡어린이집, 디모테오어린이집, 강현어린이집), 개인 형태 1개(현남어린이집), 민간 형태 3개(솔로몬 어린이집, 이솝어린이집, 꿈을 주는 어린이집), 가정형태 1개(재능사랑 어린이집)가 있다.

## (2) 초등교육

양양지역의 초등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현산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일제시대의 공립 보통학교, 인공시절의 인민학교를 거쳐 현재의 초등학교에 이르게 되었다. 양양지역의 초등학교는 1968년에 24개교 5개 분교에 169학급 9,859명이 재학하여 그 수가 정점에 달했고 그 후에는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현재는 본교 14개교에 분교 3개교 총 106학급에 1,56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 및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활발하게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3년 화일본교장, 1994년 장승분교장, 1997년 면옥치분교장, 1999년에는 갈천분교장, 월천분교장, 적은초등학교, 상운초등학교가 폐교되었으며, 2007년에 법수치분교장과 2008년에 남천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2009년 4월 현재 양양지역의 초등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표1-1> 초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양양초	1906. 9. 8.	양양읍 구교리 20	32	926	
조산초	1944. 4. 10.	양양읍 조산리 450-5	6	108	
강현초	1933. 4. 1.	강현면 정암리 510-1	7	78	
회룡초	1936. 4. 1.	강현면 회룡리 190	5	42	
상평초	1934. 10. 10.	서면 상평리 18	6	48	
오색초	1960. 4. 1.	서면 오색1리 307-1	3	14	
한남초	1952. 4. 5.	서면 용천리 505	5	41	
손양초	1934. 4. 1.	손양면 하왕도리 141	6	61	
송포초	1951. 9. 1.	손양면 송전리 22-1	4	29	
현북초	1931. 4. 1.	현북면 상광정리 577	3	16	
광정초	1963. 4. 1.	현북면 하광정리 193	6	49	
현성초	1934. 10. 1.	현북면 어성전리 531	3	20	
인구초	1922. 8. 24.	현남면 인구리 27	7	76	
남애초	1963. 1. 7.	현남면 남애3리 554	4	30	
상평(공수전)	1951. 12. 20.	서면 공수전리 31-4	3	20	1989년 분교로
상평(현서)	1942. 8. 22.	서면 서림리 74-1	3	13	1992년 분교로
인구(임호)	1941. 12. 6.	현남면 임호정리 258-2	3	5	2001년 분교로



### (3) 중등교육

양양의 근대식 중등교육은 한서 남궁억이 1906년에 세운 현산학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이후에는 38°선 이북지역에 있었으므로 공산치하의 양양초급중학교, 양양여자초급중학교, 현북초급중학교, 강현초급중학교와 양양고급중학교, 양양여자고급중학교가 양양지역의 중등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6·25한국전쟁 종전 이후인 1951년과 1953년에 양양중학교와 양양고등학교가 각각 개교함으로써 현대식 중등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양양명륜중학원은 6·25한국전쟁으로 소실(燒失)된 교궁(校宮)을 중수(重修)하여 빈곤으로 인한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양유림이 협의찬동(協議贊同)함에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설립 향교법인을 전당(殿堂)으로 공부자(孔夫子)와 성현(聖賢)을 봉안한 대성전(大成殿) 앞 명륜당(明倫堂)에 학원을 설립하고 중등교육 및 도덕교육으로 윤강회복(倫綱回復)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명륜중학원은 1954년 3월에 초대원장 박세환(朴世煥)이 학생 56명을 모집하여 개교를 하였으며, 1955년 2월 양양명륜중학원에서 정식 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운영난으로 1974년 3월경 18회를 끝으로 이 학교는 폐교되었다.

한편 양양명륜중학교는 폐교이전인 1971년 2월 22일 양양명륜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1979년 8월 31일 폐교되어 양양에는 사립중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현황은 <표1-2>와 <표1-3>과 같다.

〈표1-2〉 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현남중	1953. 4.24.	현남면 광진리 78	11	326	
양양중	1951.10.12.	양양읍 서문리 115	9	284	
양양여중	1954.12.31.	양양읍 서문리 224	3	64	
현북중	1967.10.28.	현북면 상광정리 556-2	3	36	
강현중	1969.10.14.	강현면 정암리 562	3	62	

〈표1-3〉 고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연월일	소 재 지	학급수	학생수	비 고
양양고	1953. 4. 5.	양양읍 서문리 115	12	379	
양양여고	1956. 2.28.	양양읍 서문리 224	12	360	

양양고등학교는 6·25한국전쟁 중인 1953년 4월 5일에 개교하여 1학년과 2학년이 동시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954년 12월 31일에 문교부로부터 6학급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해인 1955년 1월 20일에 강진천 교장이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2009년 2월 12일에 제58회 졸업식을 거행할 때까지 24명의 교장이 부임하였고 총 7,86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하였다. 2009년 현재 12학급에 총 37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양양고등학교는 2006년에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되어 농산어촌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양양지역 인재의 외지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는 기숙형 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의 중등여성교육의 요람이 된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955년 1월 31일에 홍기표 초대 교장이 부임하고 1956년 4월 10일에 개교하였다. 2009년 2월 12일에 제51회 졸업식까지 22명의 교장이 부임하였고 총 5,927명의 지역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다. 2009년 현재는 12학급에 총 36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009년도에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 인성교육, 예절교육 강화, 2) 올바른 기초·기본교육을 통한 학력 제고, 3) 즐겁고 아름다운 학교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 2009 양양여자고등학교의 특색교육

##### 가. 취지

교육에서의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독서 교육이다. 즉, 충실한 지적 능력을 키우고 풍부한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독서교육이며, 정보를 선별하고 창의적으로 가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도 독서 훈련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나. 목적

- 가) ‘디지털 도서관’은 서버에 가상적으로 설치되는 지원센터로이다.
- 나) 학교별 자료관리(대출, 반납, 검색 등), 종합목록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한다.
- 다) 학교 도서관의 정보화를 위해 표준화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 라) 나만의 도서관, 자료검색, 독서길잡이, 정보마당 등의 다양한 독서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마) 검색, 대출/반납, 이용자 관리, 출력·통계 등의 독서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시스템을 제공한다.

### ○ 세부실천계획

구 분	실 천 내 용	담당자	실시시기	적용대상
1. 독서신문 발행	· 필독 및 권장도서를 소개 · 우수 독후감 소개 · 다독자 명단 소개	지도교사	7월 12월	전학년
2. 도서대여 및 반환	· 독서부원은 도서 대여와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한다.	학 급 독서부원	연 중	전학년
3. 독서관련 행사	· 독서 감상문 쓰기-우수 감상문 시상. · 독서 퀴즈대회 · 학년별 지정도서 읽기	담임교사 지도교사	연 중	전학년
4. K-CBRT 독서인증	· 객관식 시험 및 독서감상문 입력 · 학기별 6편 이상, 총 24편 이상으로 독서인증			

## (4) 고등교육

양양지역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인재들이 외지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 인재 유출과 부의 역외 유출로 손실이 컸다. 1990년대의 고등교육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강릉시에 소재를 둔 관동대학교가 1995년 3월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산7번지 일원에 10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양양캠퍼스를 개교하였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1995년 개교 당시 정원 3,880명, 재학인원 3,722명으로 출발했으나 학생 수는 매년 줄어 2000년 정원 3,480명에 재학생 2,486명, 2003년 정원 3,390명에 재학생 2,137명에서 2007년에는 정원 1,792명에 재학생 1,388명으로 급감했다. 2003년 494명이던 신입생이 2005년 178명으로 줄어들자 대학 측은 더 이상 본교 수익으로 양양캠퍼스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며 캠퍼스 폐쇄를 결정했다. 2007학년도부터는 공과대학을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신입생도 뽑지 않았다. 2008년 9월 1일자로 사회복지학과 78명이 강릉 본교로 옮기는 것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그 후 양양군과 관동대학교는 빈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이 캠퍼스는 폐허로 남아 있다.

## 5. 주요교육제도의 변화

### 1) 교육자치제의 도입 및 운영

공산치하에 있었던 양양군은 1951년 수복과 동시에 양양군 자치위원회에 학무계를 두어 오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구 군정체제에서 민정으로 이관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교육감은 당시 김주혁 양양군수가 겸임하고 학무국을 군수 산하에 두었다. 1957년 7월 1일 양양군교육청사가 준공되어 별도의 청사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보게 되었다. 1962년 1월 6일부터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폐지(법률 제955호)되어 양양군청에 교육과를 두고 교육행정을 관장하였다.

1964년 1월 1일을 기하여 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로 양양군 속초읍이 속초시로 승격·분리됨에 따라 속초교육청과 양양교육청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1973년 1월 1일 속초시 교육청과 양양군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개편되어(2과 6계), 중학교의 사무감독권을 이양하고 사회체육계가 학무과 사회체육계로 개편하면서 속초시 국민학교 9개교, 1분교, 중학교 5개교, 양양군 국민학교 21교, 6분교, 중학교 5개교를 관장하였다.

현재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계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가 조속히 실행되어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전의 육성회, 기성회, 사친회 등과는 달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하여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단위학교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열린 운영구조이다.

1995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2월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비율, 위원선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고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정수는 학교규모, 지역특성, 학교급, 계열 등을 고려하여 7~15명의 범위에서 그 구성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인사 10~30%로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절차를 따라서 교원위원은 교원들에 의하여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의 위원들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제도화한 후, 그것을 단위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 학부모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고, 교원위원 선출과정에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1997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었다. 종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면서 심의사항이 확대되었다. 주목할 점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이 심의 사항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였다. 심의사항 확대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심의 결과대로 최대한 시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로 변경한 것이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유와 함께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심의권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셋째, 민주적 참여권을 강화하였다. 1996년 도입 당시에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에는 민주적 대의절차 이외에 또 하나의 기준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규모가 커서 전체 학부모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전체 학교의 시설 여건상 전체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장소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는 직접 투표가 아닌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교원위원은 1996년 제도화 당시에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 개정 시에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교원전체회의가 아니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직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여전히 직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둘째, ‘교사 중에서’를 ‘교원 중에서’로 바꾸어 교감도 교원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감 역시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셋째, 처음에는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위원의 선출 방식 역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가 학교 내부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학교운을 지양해보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며 이 방식은 변화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지역위원의 경우 처음부터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나 기업 활동의 근거지’로 교육행정가나 기업경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역 근거지를 토대로 한 ‘주민 통제의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회 개방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 3)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및 확충

문교부에서는 1950년 6월 1일을 기하여 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한국전쟁으로 그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1969년도부터 중

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양양군 지역의 경우는 1971년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4년 8월 2일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5년 2월 21일에는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중학교 신입생 6만 2천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86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서·벽지 중학교 전학년 학생 24만 9,000명에게 입학급과 수업료를 면제하였다. 이어서 1994년도부터는 읍·면단위 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지역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4) 교육과정의 제정과 개정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의 중핵 내용이 되는 교육과정은 광복 후 미군정기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5~10년 주기로 개정하여 적용하여 왔다. 시기별로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교육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군정하의 교육과 정부수립직후의 교육과정인 교수요목기(1946~1954년)의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을 ‘교과의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라고 보았으며 교육과정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한 애국애족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년)인 교과과정 시기 또는 교과중심교육과정기이다.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로 정의하였다. 교과서는

생활중심을 지향하였으며 교과와 특별활동의 2대 편제였다. 그리고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년)인 생활중심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교육과정기이다.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의 총화’로 정의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반공도덕,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년)인 학문중심교육과정기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정에 있어 처음으로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시안을 확정하고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60년대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중심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의 중시, 자발적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제면에서는 반공·도덕영역이 없어지고 국사, 도덕과목이 신설되면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편제로 되었다.

다섯째,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년)인 인간중심교육과정기이다. 이 때의 교육과정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5공화국의 개혁조치와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개정되었다. 초등학교에 통합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기초연구개발을 주도한 최초의 연구개발형 교육과정이다.

여섯째,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년)이다. 이 때는 어느 한 교육과정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개정의 방침은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에 두고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 점진성,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지방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지역교과서가 개발되었고 통합교육과정 운영체제로 변화되었다.

일곱째,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년)이다. 이 시기에 와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국가수준의 기준),

시·도 및 지역 교육청(교육과정 지침 및 장학자료), 학교(학교수준의 교육과정)로 교육과정개발의 계층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로 다양한 이수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재량시간이 3~6학년에 연 34시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영어가 3~6학년에 연 68시간 도입되면서 3~6학년 학교재량시간은 0~34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학교재량시간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으로 변경되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다.

여덟째,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편제에 교과목군 개념 도입,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강화,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평가체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창의성·정보능력 배양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10학년)과 선택중심교육과정(11~12학년)으로 구분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10개의 교과활동, 특별활동(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그리고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이 포함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에는 교과활동(보통교과, 전문교과)과 특별활동(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이 포함된다.

아홉째,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 수업시간수의 감축,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반영, 고교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주5일 근로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함에 따라 수업시수를 34시간 감축하였다.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자율권을 확대하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으며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에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증감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과학교육 및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국

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고교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교육감 승인 하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개설 허용, 고교선택과목 일원화, 선택과목군 조정,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였다. 기타 개선사항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역 교육청 장학자료 작성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계기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16개 항이던 법교과 학습주제를 35개 항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초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학년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국 어	국어	국어	238	204	204	204
	도 덕	210	238	34	34	34	34
	사 회	수학	수학	102	102	102	102
	수 학	120	136	136	136	136	136
	과 학	바른생활 60	바른생활 68	102	102	102	102
	실 파	즐거로운 생활	즐거로운 생활	-	-	68	68
	체 육	90	102	102	102	102	102
	음 악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68	68	68	68
	미 술	180	204	68	68	68	68
	외국어(영어)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 80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수업시간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감축가능시간수		-	-	34	34	34	34
연간최소수업시간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단 1, 2학년은 감축하지 않음)

〈표1-5〉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 학 교 \ 학 년		중 학 교		
		7	8	9
교 과	국 어	170	136	136
	도 덕	68	68	34
	사 회	102	102	136
	수 학	136	136	102
	과 학	102	136	136
	기술·가정	68	102	102
	체 육	102	102	68
	음 악	68	34	34
	미 술	34	34	68
	외국어(영어)	102	102	136
재량 활동		136	136	136
특별 활동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1,156	1,156	1,156
감축 가능 시간 수		34	34	34
연간 수업 시간 수(변경)		1,122	1,122	1,122

〈표1-6〉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구 분 \ 학 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선택 중심 교육 과정	
		10학년		11학년	12학년
		시간 수	단위 수	단위 수	
교 과	국 어	136	8	선택 과 목(136 단위)	
	도 덕	34	2		
	사 회	170	10		
		(국사 : 68)	(4)		
	수 학	136	8		
	과 학	102	6		
	기술·가정	102	6		
	체 육	68	4		
	음 악	34	2		
	미 술	34	2		
	외국어(영어)	136	8		
	재량 활동	204	12		
특별 활동		68	4	8 단위	
연간 수업 시수		1,224	72	144 단위	
감축 가능 시수		34	2	4 단위	
연간 수업 시수(변경)		1,190	70	140 단위	



〈표1-7〉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구 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인 문 · 사 회 과목군	국어	국어(8)	국어 생활(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도덕	도덕(2)	시민 윤리(4)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회	사회(10) (국사 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과 학 · 기 술 과목군	수학	수학(8)	수학의 활용(6), 수학 I (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 II (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 (4), 화학 I (4), 생물 I (4), 지구과학 I (4) 물리 II (6), 화학 II (6), 생물 II (6), 지구과학 II (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 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예 · 체 능 과목군	체육	체육(4)	체육과 건강(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악	음악(2)	음악과 생활(4)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술	미술(2)	미술과 생활(4)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외국어 과목군	외국어	영어(8)	영어 I (6), 영어 II (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 I (6), 프랑스어 I (6)	독일어 II (6), 프랑스어 II (6)
			스페인어 I (6), 중국어 I (6)	스페인어 II (6), 중국어 II (6)
			일본어 I (6), 러시아어 I (6)	일본어 II (6), 러시아어 II (6)
			아랍어 I (6)	아랍어 II (6)
교 양 과목군	한 문		한문(6)	한문 고전(6)
	교 련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강원의 역사와 문화(4), 기타(4)	
이수 단위		(56)	24단위 이상	112단위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 6. 양양의 장학회 운영

장학제도란 본래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갖춘 자로서 향학열이 높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면학을 장려하고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교육지원제도이다. 그럼으로써 면학을 증진시켜 대학교육목표인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전인격을 갖춘 인재육성과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고 학업에 전심전력하여 학구열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 재단법인 현산장학회

현산장학회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1988년 김남호 이사장 외 6인으로 최초 설립하였다. 그 다음해에는 15명으로 정식 이사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을 시작하였다. 특히 장학기금 조성에는 애항심이 강한 양양지역의 출향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성원에 힘입어 1990년에는 숙원사업이던 현산장학회를 자본금 6천6백만원으로 공식 출범시켰다. 본 장학회 설립 후 2년간 기금조성 및 장학회 운영에 관한 내실을 다진 현산장학회는 지난 1992년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양양지역 중·고·대학생 13명에게 5백30만원을 1차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현산장학회는 고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매년 장학금 지급액수를 늘려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대학생 26명, 고교생 52명 등 총 86명에게 5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997년 제6차 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9명과 고교생 11명에게 1천7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올 3월 9차 장학금까지 모두 7천6백만원을 86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 지급하여 이들의 향학열을 제고 시켰다.

## 〈표1-8〉 현산장학회 법인현황

- |                    |                     |                  |
|--------------------|---------------------|------------------|
| ○ 명 칭 : 재단법인 현산장학회 | ○ 설 립 : 1990. 2.22. |                  |
| ○ 이사장 : 임용식        | ○ 이 사 : 11명         | ○ 감 사 : 김성환, 김옥화 |

## 〈표1-9〉 기금운용현황

- |  |                      |                      |
|--|----------------------|----------------------|
| ○ 수 입 : 765,536,707원                           | ○ 지 출 : 296,698,357원 | ○ 잔 액 : 468,865,350원 |
| ※ 2009. 12.31. 현재 340명(대학생170명, 고등학생170명)지급 함. |                      |                      |

## 2)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6년에 설립발의를 시작으로 동년 7월에 장학재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10월에 개교 제55주년 총동문회 한마음 잔치에서 장학재단 설립발표를 하였다. 2009년 1월에 강원도 교육감 법인 설립 허가(허가제11-155호)를 받았으며 동년 2월에 속초세무서장승인(고유번호227-82-09408)과 더불어 초대 이사장에 추상호를 추대하고 이사 8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재산 2억1천만원, 보통재산으로 정기예금 6,000만원, 보통예금, 11,845,803원이며 재산은 6,000여만원 증가하였고, 장학금으로 2,000여 만원을 지급하였다. 2010년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은 3억원을 설정하고 기금모집 방법은 동문들의 각종 경사스러운 일(입사, 승진, 결혼, 회갑 등)이 있을 때마다 기념으로 장학재단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 본 장학회 취지를 잘 몰라서 기부를 못하신 회원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금액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표1-10〉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현황

- |                         |
|-------------------------|
| ○ 명 칭 : 양양중고등학교 동문회 장학회 |
| ○ 설 립 : 2009. 1.16.     |
| ○ 이사장 : 추상호             |
| ○ 이 사 : 8명              |
| ○ 감 사 : 김중열, 탁동수        |
| ○ 사무국장: 이근만             |

## 〈표1-11〉 기금운용현황

○ 수입 : 301,845,803원    ○ 지출 : 20,000,000원    ○ 잔액 : 281,845,803원  
 (기본자산 : 210,000,000원, 정기예금 : 60,000,000원, 보통예금 : 11,845,803원)

## 3) 서광농협장학회

서광농협장학회의 운용실태를 보면 2003년 5월에 초대 이사장에 김호열 외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설립취지는 서광농협 조합원 자녀의 향학열 고취와 인재육성을 통하여 농촌지역사회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기금운용상황은 총수입 6억4천3백만원 중 장학금(대학생 122명) 1억2천4백만원, 관리비 등 2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다. 현재 잔액은 5억1천8백만원인데 정기예금 5억4백만원, 보통예금 1천4백만원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 〈표1-12〉 서광농협장학회 현황

○ 명 칭 : 서광농협장학회  
 ○ 설 립 : 2003. 5. 9.  
 ○ 이사장 : 김호열  
 ○ 이 사 : 11명  
 ○ 감 사 : 이철형, 양범석

## 〈표1-13〉 기금운용현황

○ 수입 : 643,230,450원[장학기금(출연금)]  
 ○ 지출 : 124,648,600원(대학생 122명)  
 ○ 잔액 : 518,581,850원(정기예금 : 504,000,000원, 보통예금 : 14,581,850원)  
 ※ 기금운용 2010. 6.30.까지임

## 7. 교육기관

###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1) 관할 : 속초시·양양군

(2) 소재지 : 속초시 미시령로 3336(교동 776-1)

(3) 기구 및 규모 : 2과(교육지원·행정지원) 9계

대지면적 : 11,665m<sup>2</sup> / 청사면적 : 3,089m<sup>2</sup>

(4) 연혁

- 1954.11.17.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감을 양양군수가 겸임
- 1957. 7. 1. 양양군 교육청사 준공
- 1962. 1. 6.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폐지(법률 제955호) 양양군에 교육과를 두어 교육행정 관장
- 1964. 1. 1. 도단위 교육자치제 실시(법률 제1435호) 속초시 교육청과 양양군 교육청 발족
- 1968. 4.13. 속초시교육청사 준공
- 1973. 1. 1. 교육법 개정, 속초시 교육청에 양양군 교육청 통합
- 1991. 3.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47호) 제정. 강원도속초교육청
- 1994.12.27. 강원도속초교육청 신축청사준공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694.6m<sup>2</sup>,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2006. 3. 1. 강원도속초교육청에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기관명칭 변경
- 2010. 9.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5) 역대 교육장

○ 양양

제1대 김종극(1964. 3. 4.~1970. 8.31.) 제2대 김인영(1970. 9. 1.~1971. 8.31.)

제3대 김정중(1971. 9. 1.~1972.12.31.)

## ○ 속초

- 제1대 김석년(1964. 1. 1.~1964. 3.19.)      제2대 고연재(1964. 3.20.~1969. 5.15.)  
제3대 박병도(1969. 5.16.~1972. 3. 1.)      제4대 백운화(1972. 3. 2.~1973. 1. 4.)

## ○ 속초(양양통합)

- 제5대 윤동삼(1973. 1. 5.~1974. 8.31.)      제6대 이규택(1974. 9. 1.~1976. 2.28.)  
제7대 유부열(1976. 3. 1.~1978. 8.31.)      제8대 정의곤(1978. 9. 1.~1980. 8.31.)  
제9대 이승근(1980. 9. 1.~1982. 8.31.)      제10대 김영수(1982. 9. 1.~1985. 8.31.)  
제11대 노재춘(1985. 9. 1.~1988. 8.31.)      제12대 김근용(1988. 9. 1.~1991. 2.28.)  
제13대 이인섭(1991. 3. 1.~1992. 8.31.)      제14대 김성기(1992. 9. 1.~1994. 8.31.)  
제15대 최염규(1994. 9. 1.~1996. 8.31.)      제16대 민태식(1996. 9. 1.~2001. 2.28.)  
제17대 김진덕(1999. 9. 1.~2001. 2.28.)      제18대 김영채(2001. 3. 1.~2002. 2.28.)  
제19대 김남옥(2002. 3. 1.~2005. 8.31.)

## ○ 속초양양

- 제20대 박갑수(2005. 9. 1.~2007. 8.31.)      제21대 최현규(2007. 9. 1.~2009. 8.31.)  
제22대 이상집(2009. 9. 1.~현재)

## (6) 학교 현황

## ○ 초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m <sup>2</sup> )	설립 년월일	학급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계		179,470		106	1428	769	659	151	49
양양초등학교	양양읍 구교리 20	17,952	1910. 4. 1.	31	809	443	366	41	6
조산초등학교	양양읍 조산리 450-5	13,262	1944. 4.10.	6	85	42	43	11	5
강현초등학교	강현면 정암리 510-1	17,942	1933. 4. 1.	7	61	33	28	12	3
회룡초등학교	강현면 회룡리 190	11,072	1936. 4. 1.	6	46	28	18	9	2
상평초등학교	서면 상평리 18	13,641	1934.10.10.	6	52	24	28	9	4
공수전분교장	서면 공수전리 31-4	4,146	1946. 5.25.	3	20	14	6	3	1
현서분교장	서면 서림리 74-1	4,767	1942. 9.20.	2	5	5	0	2	1
오색초등학교	서면 오색리	6,862	1961. 4. 1.	3	10	6	4	4	2
한남초등학교	서면 용천리 505	8,343	1952. 4. 1.	6	43	28	15	10	2
손양초등학교	손양면 하왕도리 141	11,749	1934. 4. 1.	6	55	30	25	9	4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	설립 년월일	학급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송포초등학교	손양면 송전리 22-1	8,836	1953. 9.30.	4	31	15	16	5	2
현북초등학교	현북면 상광정리 577	10,915	1931. 4. 4.	3	17	7	10	4	3
광정초등학교	현북면 하광정리 193	8,389	1963. 4. 1.	6	51	31	20	8	3
현성초등학교	현북면 어성전리 531	8,110	1937. 4. 1.	3	29	11	18	4	4
인구초등학교	현남면 인구1리 27	14,640	1922. 8.22.	7	74	34	40	11	3
임호분교장	현남면 임호정리 258-2	10,612	2000. 3. 1.	3	14	3	11	3	2
남애초등학교	현남면 남애리 554	8,232	1963. 1. 7.	4	26	15	11	6	2

## ○ 중학교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교지(㎡)	설립 년월일	학급	학생수			교직원	
					계	남	여	교원	일반
계		45,177		31	709	372	337	74	17
양양중학교	양양읍 서문리 115	-	1953. 4. 5.	11	307	307	0	26	5
양양여자중학교	양양읍 서문리 224	-	1954.12.31.	10	277	0	277	20	6
현남중학교	현남면 광진리 78-1	18,126	1953. 4. 5.	4	42	23	19	10	2
현북중학교	현북면 상광정리 556-2	10,296	1967.10.28.	3	35	18	17	9	2
강현중학교	강현면 정암리 562-5	16,755	1969.10.14.	3	48	24	24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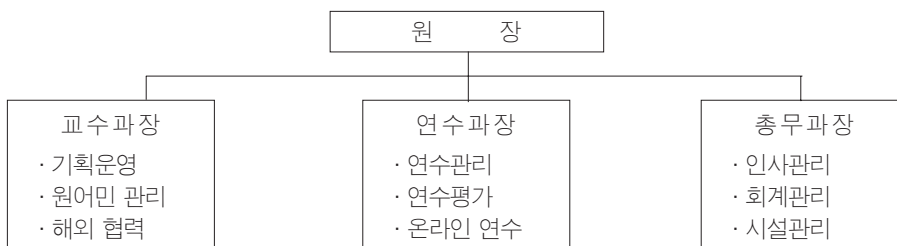
## 2) 강원외국어교육원

(1) 위치 :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123-19, 123-47

(2) 규모 : 대지면적 : 21,624㎡ / 건물면적 : 4,032㎡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3층, 지하1층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 심화연수(6개월, 국외연수2개월포함, 연중2기수)
- 학생 영어체험과정(연중 4박5일 정규과정 14기, 일일체험 15기)
- Priming water(마중물) 체험 직무연수(초·중등 영어교사, 전문직, 일반직대상)
- EPIK TEAM TEACHING 클리닉(강원도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동 연수)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영어체험과정(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체험과정)
- 학생 제2외국어(일본어·중국어) 체험과정(연중 1기씩 운영)
- 전문성 신장을 위한 GILI WIN WIN 프로그램(직장내 한·영 튜터링 동아리 활동)
- GILI ENGLISH BUS 운영(찾아가는 영어체험 교실)

(5) 연혁

- 2001. 4.11. 「강원학생수련원」 개원
- 2005. 5. 9. 「부설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개장
- 2007. 2. 7.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 계획 확정
- 2008.12.26.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제3,298호)
- 2009. 2.28. 2005년도 개장 이후 영어체험학습과정 총 11,458명 교육
- 2009. 3. 1. 「강원도외국어교육원」 개원 및 초대 현종진 원장 취임
- 2009. 3. 2. 제1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 심화연수 개강(6개월)
- 2009. 5.15. 시애틀 대학 MOU 체결
- 2009. 5.16. 미네소타 대학 MOU 체결
- 2009. 7.17. 「강원외국어교육원」 연수관 준공
- 2009. 7.29. 제4회 대한민국 외국어교육산업대상 수상(공교육기관부문)
- 2009. 9. 1. 제2대 유진규 원장 취임
- 2009. 9. 1. 제2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 연수 개강(6개월)
- 2010. 1.27. 제8군단 MOU 체결
- 2010. 3. 2. 제3기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 연수 개강(6개월)

(6) 역대기관(단체)장

○ 강원학생수련원

제1대 이식연 제2대 김영채 제3대 이동진 제4대 현종진

○ 강원외국어교육원

제5대 현종진 제6대 유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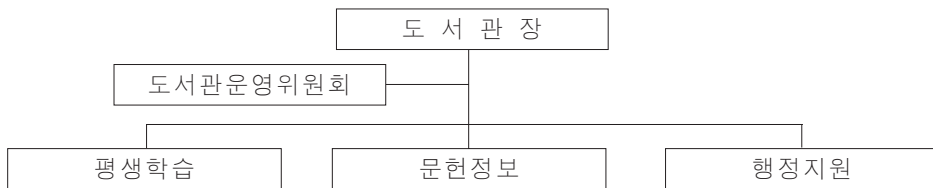
### 3) 양양도서관

(1) 위치 :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13번지

(2) 규모 : 대지면적(m<sup>2</sup>) : 6,667m<sup>2</sup> / 건물면적(m<sup>2</sup>) : 1,264m<sup>2</sup>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지역주민의 정보·문화·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자료
-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서진흥 사업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연혁

- 1989. 6.29. 양양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공시(조례1213호)
- 1991. 2.12. 양양공공도서관 개관
- 1991. 3.26. 양양도서관으로 명칭변경(조례2201호)
- 2000.12.13. 전자정보자료실 및 멀티미디어실 개실
- 2001. 2.20. 지역평생 학습관 지정(강원도교육청)
- 2001.10.31. 북카페 개실
- 2003.12. 1. 디지털자료실 개실

- 2004.11. 1. 지하서고 개실
- 2009. 6.22.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방 개실
- 2009. 9. 9. 148병영도서관 개관식
- 2009.12.11. 1901병영도서관 개관식

(6) 역대 도서관장

제1대 이창호	제2대 조상혁	제3대 이진수	제4대 이달수	제5대 최영식
제6대 최월순	제7대 정무철	제8대 최희선	제9대 탁기남	제10대 김정일
제11대 금기조				

#### 4) 양양고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15
- (2) 교지 : 23,922m<sup>2</sup>
- (3) 교사 : 8,592m<sup>2</sup>
-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5) 연혁
  - 1953. 4. 5. 양양고등학교 개교(1,2학년 동시 입학)
  - 1954.12.31. 양양고등학교 6학급 설립 인가(문교부)
  - 1955. 1.20. 초대 강진천 교장 부임
  - 1959. 7.23. 중·고 병설
  - 1961.10.12. 개교기념일 체육대회에서 실용 자전거경기  
(양양중·고 사이클부 창단의 계기)
  - 1962. 3.10. 사이클부 창단
  - 1968. 8.20. 신교사 3교실 증축
  - 1969.12.31. 신교사 2층 3교실 증축
  - 1974.10.18. 9학급 증설 인가
  - 1975. 5.26. 신교사 5교실 증축(1층 3실, 2층 2실)

- 1980. 8.11. 과학실 1동 신축
- 1980.10.20. 12학급 증설 인가
- 1982. 4.16. 사이클 20대 기증(국회의원 이범준)
- 1982.12. 4. 도서실 1교실 증축(2층)
- 1991.12.27. 사이클 선수 합숙소 1층 증축
- 1993. 8. 1. 양양고 상징탑 건립(자연석 및 화강암, 동문회 후원)
- 1993.12.20. 본관으로 이어지는 교사 증축(6교실)
- 1999. 6.22. 학사(현산학사Ⅱ) 준공
- 2010.12.27. 기숙형고교 학사(현산학사Ⅰ) 준공
- 2010. 2.12. 제56회 졸업식(116명 졸업, 총 7,976명)
- 2010. 3. 2. 2010입학식 거행(신입생 139명 입학)

## (6)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12	18	359	27	22	5	7	4	3	56	5,210

## (7) 역대 교장

제1대 강진천	제2대 허 환	제3대 박한복	제4대 이종세	제5대 최종률
제6대 유창렬	제7대 황 정	제8대 이규택	제9대 유경상	제10대 김영수
제11대 정치규	제12대 이종국	제13대 정호복	제14대 권오일	제15대 김술갑
제16대 최상평	제17대 한기운	제18대 유영환	제19대 조규옥	제20대 이석중
제21대 조규억	제22대 김동길	제23대 함준호	제24대 김충길	제25대 김형식

## 5) 양양여자고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24
- (2) 교지 : 16,438㎡(고·중 공용)
- (3) 교사 : 10,771㎡(고·중 공용) 구조 :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층

## (4) 연혁

- 1956. 2.28. 양양여자고등학교 3학급(정원 150명) 인가
- 1956. 4.10. 개교 및 입학식
- 1959. 2.23. 제1회 졸업식(졸업생 15명)
- 1974. 3.16. 학급 인가
- 1979.10.18. 9학급 인가
- 1981.10.24. 12학급 인가
- 1992. 9.14. 학과 개편인가(보통과 6학급, 상업과 6학급)
- 1997. 9. 1. 학과 개편인가(보통과 6학급, 정보처리과 6학급)
- 1999. 6.22. 목련관 준공식
- 2001. 3. 1. 학과 증설 인가(특수학급 1학급)
- 2008. 2.15. 제50회 졸업식(졸업생 121명 누계 5,927명)
- 2008. 3. 3. 신입생 입학식(신입생 4학급 124명)
- 2009. 3. 1. 제23대 윤무진 교장 취임

## (5) 학교현황

학급수(학급)	교실수(실)	학생수(명)	교원수(명)			계
			교원수	원어민강사	산학인턴교사	
13	13	302	26	1	1	28명

## (6) 역대 교장

제1대 홍기표	제2대 정치규	제3대 박소남	제4대 노운열	제5대 김봉래
제6대 이한상	제7대 김정록	제8대 노광목	제9대 전로수	제10대 이동춘
제11대 이택규	제12대 백운화	제13대 권덕명	제14대 심필섭	제15대 심철수
제16대 양태식	제17대 전중한	제18대 박무화	제19대 김자혜	제20대 김옥자
제21대 이병률	제22대 이만영	제23대 윤무진		



## 6) 강현중학교

(1) 위치 :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562-5

(2) 규모 : 2층 1동, 1층 7동

○ 대지면적 : 19,839m<sup>2</sup>   ○ 건물면적 : 1,971.92m<sup>2</sup>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철골조

(3) 기구(조직, 구성)



(4) 기능 및 사업

○ 공립중학교

○ 국민공통교육과정

(5) 연혁

○ 1969.10.14. 강현중학교 설립인가(6학급)

○ 1970. 3.16. 강현중학교 개교

○ 1973. 2.14. 제1회 졸업식(105명)

○ 2010. 2.10. 제38회 졸업식(9명) 총 3,013명

○ 2010. 3. 1. 제21대 정상재 교장 부임

(6)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3	50	25	25	11	7	4	6	-	6	38	3,013

(7) 역대교장

제1대 김정호	제2대 이택규	제3대 정성면	제4대 김현기	제5대 김학기
제6대 김남수	제7대 박준홍	제8대 박용태	제9대 황세영	제10대 김혁래
제11대 심정식	제12대 조용연	제13대 박영식	제14대 이종익	제15대 이령자

제16대 신원하 제17대 김지권 제18대 윤중현 제19대 김석기 제20대 최건희  
제21대 정상재

## 7) 양양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15  
 (2) 교사 : 1,895㎡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연혁  
 ○ 1951.10.12. 양양중학교 개교  
 ○ 1954.12.31. 양양중학교 12학급 설립인가(문교부)  
 ○ 1959. 7.23. 중·고 병설 인가  
 ○ 2010. 2.10. 제56회 졸업식 97명(총 10,539명)  
 ○ 2010. 3. 1. 제25대 김형식 교장 부임  
 ○ 2010. 3. 2. 2010학년도 입학식 92명 입학  
 (4)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11	22	308	22	11	11	3	1	2	56	97

- (5) 역대 교장 : 양양고등학교와 동일

## 8) 양양여자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224  
 (2) 교지 : 16,438㎡(고·중 공용)  
 (3) 교사 : 10,771㎡(고·중 공용) / 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3층  
 (4) 연혁  
 ○ 1954.12.31. 3학급 인가

- 1955. 2.20. 개교
- 1959. 2.23. 6학급 인가
- 1968.11.23. 9학급 인가
- 1976. 2.19. 12학급 인가
- 1985.11.30. 특수학급 1학급 인가
- 2009. 3. 1. 제24대 윤무진 교장 취임

##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10	10	277	277	20	9	11	13	4	9	56	8,114

## (6) 역대교장

제1대 홍기표	제2대 정치규	제3대 박소남	제4대 노운열	제5대 김봉래
제6대 이한상	제7대 김정록	제8대 노광목	제9대 전로수	제10대 이동춘
제11대 이택규	제12대 백운화	제13대 권덕명	제14대 심필섭	제15대 심철수
제16대 양태식	제17대 전중한	제18대 박무화	제19대 김자혜	제20대 김옥자
제21대 이병률	제22대 이만영	제23대 윤무진		

## 9) 현남중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78-11

(2) 교지 : 20,605m<sup>2</sup>(3) 교사 : 1,567.30m<sup>2</sup> / 연건평 : 2,494.24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규모 : 2층

(4) 연혁

- 1952. 7.24. 주문진 중학교 현남분교 개교
- 1953. 4.24. 현남중학교 6학급 인가
- 1971. 3. 1. 학칙 변경 9학급 인가
- 1985. 1.20. 교사 개축(1동 6교실)

- 1986. 2.12. 제32회 졸업식 거행
- 2003. 3. 1. 3학급 편성
- 2007. 3. 1. 특수학급 1학급 신설
- 2010. 2.11. 제56회 졸업식(졸업생 23명, 누계 5,210명)
- 2010. 3. 1. 제27대 서성균 교장 부임
- 2010. 3. 2. 2010학년도 입학식(15명)

##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8	40	23	17	10	4	6	5	1	4	56	5,210

## (6) 역대교장

제1대 임보광	제2대 전차진	제3대 김원거	제4대 전노수	제5대 김정원
제6대 황세로	제7대 이균열	제8대 강진천	제9대 정성연	제10대 권덕명
제11대 김종수	제12대 권영주	제13대 전영동	제14대 정인수	제15대 정두교
제16대 이용선	제17대 김호기	제18대 조영길	제19대 나명봉	제20대 최신익
제21대 손경선	제22대 이화자	제23대 이용익	제24대 장영철	제25대 홍성민
제26대 김형식	제27대 서성균			

## 10) 현북중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56-2
- (2) 교지 : 10,296㎡
- (3) 교사 : 1,415.73㎡ 연건평 : 1,731.22㎡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4) 연혁
  - 1967.10.28. 현북중학교 설립 인가(3학급)
  - 1968. 3. 5. 입학식 거행(1학급)
  - 1982. 3. 5. 학급증설 인가(9학급)

- 1982. 8. 3. 2교실 개축, 4교실 증축
- 2006.12.14. 급식소 및 4교실 증축
- 2010. 2. 11. 제40회 졸업식(총 2,641명 졸업)
- 2010. 3. 2. 입학식 거행(13명)
- 2010. 9. 1. 제22대 어광일 교장 부임

##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9	32	16	16	9	6	3	4	1	3	40	2,641

## (6) 역대교장

제1대 이영우	제2대 이인석	제3대 이동춘	제4대 노영철	제5대 한영일
제6대 김양수	제7대 안 민	제8대 박승갑	제9대 이문우	제10대 정태교
제11대 최중운	제12대 민태식	제13대 옥현수	제14대 이동찬	제15대 김익선
제16대 이병을	제17대 최찬갑	제18대 박철이	제19대 김충길	제20대 김남섭
제21대 임영훈	제22대 이광일			

## 11) 강현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강현면 정암2리 510-1번지
- (2) 교지 : 16,044㎡
- (3) 교사 : 1,996㎡ / 구조 : 콘크리트, 스라브 2층 / 규모 : 7학급
- (4) 연혁
  - 1933. 4. 1. 강현심상(降峴尋常)소학교(4학급)
  - 1938. 4. 1. 강현공립보통학교(6학급)
  - 1951. 9.29. 수복개교
  - 1996. 3. 1. 강현초등학교로 개칭
  - 2004.10.28. 교실 4칸 신축

- 2009. 9. 4. 급식소 준공
- 2010. 2.11. 제68회 졸업식 거행

##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7	12	64	35	29	13	5	8	3	2	1	68	3,538

## (6) 역대 교장

제1대 이철우	제2대 김주정	제3대 김교국	제4대 안광정(수복후)	
제5대 차홍성	제6대 조규형	제7대 김종극	제8대 김주경	제9대 최승조
제10대 정정일	제11대 최정규	제12대 김택용	제13대 김진무	제14대 최명수
제15대 김 식	제16대 함종환	제17대 최락보	제18대 최문철	제19대 김중영
제20대 전석규	제21대 최복철	제22대 조경현	제23대 양정식	제24대 서종기
제25대 이장수	제26대 조용근	제27대 최종덕	제28대 함영균	

## 12) 광정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93
- (2) 교지 : 9,622m<sup>2</sup>
- (3) 교사 : 1,389.48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 규모 : 6학급
- (4) 연혁
  - 1963. 4. 1. 현북국민학교 광정분교장 설립인가
  - 1967. 3.20. 광정국민학교 개교
  - 1996. 3. 1. 광정초등학교로 개칭
  - 2010. 2. 9. 제42회 졸업식 거행

##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6	6	54	33	21	9	5	4	3	3		42	1,131



## (6) 역대교장

제1대 함중한	제2대 김형열	제3대 최경화	제4대 강태집	제5대 황하근
제6대 박귀학	제7대 김재길	제8대 박영규	제9대 최장집	제10대 김원식
제11대 신인선	제12대 정남교	제13대 최용학	제14대 최종만	제15대 정권철
제16대 조영창	제17대 윤재철			

## 13) 남애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남애3리 554번지

(2) 교지 : 13,265m<sup>2</sup>(3) 건물면적: 2,134m<sup>2</sup> / 규모 : 4학급

## (4) 연혁

- 1963. 1. 7. 임호초등학교 남애분교장 설립
- 1965. 8.19. 남애국민학교로 승격
- 1984. 6. 2. 남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 1996. 3. 1. 남애초등학교로 개칭
- 2010. 2.12. 제42회 졸업식 거행(졸업생총수 1,368명)

##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행정실직원			무기계약직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0	1	4	5	30(4)	18(3)	12(1)	7	3	4	2	1	1	2	-	2

※ ( )의 숫자는 병설유치원 원아수임.

## (6) 역대 교장

제1대 강태집	제2대 정충시	제3대 김두열	제4대 김남제	제5대 송해석
제6대 김윤중	제7대 이영균	제8대 김진태	제9대 양정식	제10대 김진웅
제11대 박상남	제12대 이규환	제13대 전영상		

## 14) 상평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상평리 18번지

(2) 규 모 : 대지면적 : 13,641㎡ / 건물면적 : 1,101.6㎡ / 구조 : 벽돌조 슬라브 2층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유치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34	1	50	6	50	23	27	14	7	7	4	-	4	16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교무부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상평초등학교 행정실	학교 회계 및 시설관리
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교육과정 및 원아 인성교육 및 관리
상평초등학교 공수전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5) 연혁

- 1934.10.10. 상평공립보통학교 개교
- 1961. 9. 1. 장승분교 설립
- 1981.10.27. 병설유치원 개설
- 1989. 3. 1. 공수전 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편입
- 1992. 3. 1. 현서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편입
- 1992. 3. 1. 갈천분교장 편입
- 2005. 3. 4. 6학급 편성
- 2010. 2.11. 제66회 졸업식 거행
- 2010. 3. 1. 제30대 교장 김시권 부임

(6) 역대 기관장

제1대 장우태랑 제2대 하함익태랑 제3대 강두유 제4대 남라석 제5대 서창하  
제6대 박희준 제7대 김명열 제8대 이성항 제9대 이종우 제10대 박유용

제11대 김우영 제12대 최승조 제13대 권혁주 제14대 김기열 제15대 박영성  
 제16대 최종남 제17대 조이현 제18대 최명수 제19대 이진오 제20대 김태환  
 제21대 오세하 제22대 김인영 제23대 조규홍 제24대 최병돈 제25대 권우석  
 제26대 최명길 제27대 전상범 제28대 최명환 제29대 최홍길 제30대 김시권

### 15) 상평초등학교 공수전 분교장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2) 규모 : 대지면적 : 4,146㎡ / 건물면적 : 349.13㎡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46	1	26	3	26	21	5	4	4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공수전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5) 연혁

- 1946. 5.25. 설립
- 1953.12.31. 공수전 국민학교로 승격
- 1970.12.10. 3교실 개축
- 1984. 2.18. 제31회 제 31회 졸업식 거행
- 1989. 3. 1. 상평초등학교 공수전 분교장(편입)

(6) 역대 기관장

제1대 최창하 제2대 박희준 제3대 이정상 제4대 양재선 제5대 김준열  
 제6대 정달인 제7대 김교진 제8대 김석년 제9대 김남희 제10대 최정규  
 제11대 강태집 제12대 이윤기 제13대 박준열 제14대 최운철 제15대 김영록  
 제16대 김진용 제17대 김형열 제18대 장용하(1989. 2.28.)

## 16)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서림리 78-1  
 (2) 규모 : 대지면적 : 4,767㎡ / 건물면적 : 400.8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3) 기구(조직,구성)

연도	공립교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42	1	5	2	5	5		3	2	1	1		1

- (4) 기능 및 사업

기 구	기능 및 사업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학생 교육과정 및 인성교육, 생활교육, 학생관리, 분교관리

- (5) 연혁

- 1942. 9.20. 현서초등학교 개교
- 1956. 9.26. 교실 4개 개축
- 1976. 7.24. 교사 신축
- 1992. 3. 1.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편입
- 2005. 8.17. 현서분교 현 교사 준공
- 2005. 2.17. 현서분교장 57회 졸업

- (6) 역대 기관장

제1대 김주경	제2대 김동시	제3대 안광형	제4대 최창학	제5대 김홍배
제6대 이영모	제7대 정달인	제8대 김준열	제9대 신갑영	제10대 최정규
제11대 강영화	제12대 윤동만	제13대 홍진표	제14대 전영찬	제15대 김남제
제16대 김도석	제17대 김윤중	제18대 심상집		

## 17) 상평초등학교 갈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갈천리

- (2) 교지 : 2,777㎡ / 대지 : 551㎡ / 체육장 : 2,226㎡
- (3) 교사 : 110㎡ / 구조 : 목조 / 규모 : 1학급(복식학급) 3개 학년
- (4) 연혁
  - 1949. 3.31. 개교
  - 1992. 3. 1. 갈천분교장으로 격하
  - 1999. 2.10. 상평초등학교로 통합

#### 18) 상평초등학교 장승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장승리 366
- (2) 대지 : 13,923㎡
- (3) 교사 : 2,478㎡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4) 규모 : 단층 6개 교실, 숙직실 1동, 숙사 2동, 창고 1동(폐교 후 철거됨)
- (5) 연혁
  - 1956. 3. 1. 상평국민학교 장승분실(4학급)
  - 1972. 3. 1. 상평국민학교 장승분교장 인가(4학급)
  - 1973. 3. 1. 장승분교 6학급 인가
  - 1994. 3. 1. 상평초등학교로 통합

#### 19) 손양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141번지
- (2) 교지 : 22,694㎡
- (3) 교사 : 952㎡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층 / 기구 : 6학급
- (4) 연혁
  - 1934. 4. 1. 개교(1,2학년 복식학급)
  - 1952. 6. 5. 송포, 상운분교 개교

- 1954. 1.31. 송포, 상운교 승격분리
- 1996.12.16. 교사 신축
- 2007.11. 4. 교실 2칸 증축
- 2010. 2.11. 제71회 졸업식 거행

## (5)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6	7	55	29	26	10	6	4	4	4		71	2,994

## (6) 역대교장

제1대 소야무	제2대 적벽원지보	제3대 교 장	제4대 정년옥	
제5대 최지영	제6대 박유용	제7대 박희준	제8대 오재정	제9대 장두순
제10대 김주경	제11대 최중현	제12대 김교진	제13대 김재길	제14대 최승조
제15대 최종남	제16대 김남구	제17대 강태집	제18대 김창남	제19대 김무열
제20대 김진을	제21대 최갑규	제22대 홍현일	제23대 조규명	제24대 최윤철
제25대 민홍식	제26대 전영주	제27대 마종학	제28대 전문식	제29대 장종대

## 20) 상운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345번지
- (2) 교지 : 13,047㎡
- (3) 교사 : 516㎡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기구(조직, 구성) : 6학급
- (4) 연혁
  - 1952. 6. 1. 손양국교 상운분교 인가
  - 1953.12.31. 상운국민학교로 승격
  - 1981. 3. 5. 병설유치원 개원
  - 1999. 2.19. 제44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377명)
  - 1999. 8.31. 손양초등학교와 통합



## (5) 역대교장

제1대 장진국	제2대 원봉상	제3대 송해석	제4대 김무길	제5대 최창탁
제6대 최돈기	제7대 권혁용	제8대 박귀학	제9대 선갑영	제10대 심상신
제11대 최연화	제12대 윤동만	제13대 오제정	제14대 이영익	제15대 김창남
제16대 박재원	제17대 전병선	제18대 최원길	제19대 황용한	제20대 최종열

## 21) 송포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2-1

(2) 교지 : 8,836m<sup>2</sup>(3) 교사 : 991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 규모 : 4학급

## (4) 연혁

- 1951. 9. 1. 손양초등학교 송포분교장 설립인가
- 1953. 9.30. 송포초등학교 승격
- 1955. 3.21. 제1회 졸업식 거행
- 2007. 3. 1. 제23대 교장 김진화 부임
- 2007.12.31. 2007 강원도교육활동유공학교 표창장 수상
- 2009.12.15. 제8회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상 수상
- 2010. 2.10. 제56회 졸업식(졸업생총수 1,625명)

##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4	8	32	15	17	6	4	2	2	1	1	56	1,625

## (6) 역대 교장

제1대 한용한	제2대 최병욱	제3대 장계동	제4대 박대균	제5대 최창학
제6대 최 상	제7대 이영모	제8대 장영복	제9대 박준열	제10대 이윤기
제11대 최명수	제12대 조수현	제13대 양정식	제14대 김화기	제15대 김경남

제16대 최두규 제17대 박경원 제18대 김진익 제19대 전영주 제20대 신성만  
제21대 홍렬표 제22대 조운신 제23대 김진화

## 22) 양양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20번지  
(2) 교지 : 43,364m<sup>2</sup>  
(3) 교사 : 45실, 급식소 및 체육관 1,769m<sup>2</sup>  
(4) 구조 : 철근콘트리트 3층, 일부 2층  
(5) 기구 및 규모 : 일반학급- 30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1학급  
(6) 연혁
- 1906. 9. 8. 사립 현산학교 설립
  - 1910. 4. 1. 양양공립보통학교 개교
  - 1951. 9. 1. 수북 양양국민학교로 개교
  - 1993. 3. 1. 화일본교장 통합
  - 1996. 3. 1. 양양초등학교로 개칭
  - 2005. 8.22. 현산관 준공(체육관, 식당)
  - 2006. 9. 8. 백년관 개관 및 백주년 기념식
  - 2007. 9. 1. 제29대 교장 전관홍 취임
  - 2008. 3. 1. 남천초등학교 통합
  - 2010. 2.11. 제88회 졸업식(총 11,193명)
- (7) 학교 현황

(2010. 3. 1. 현재)

구분 \ 학년	1	2	3	4	5	6	특수학급	계	유치원
학급수	4	4	5	6	5	5	1	31	1
남	62	54	77	76	77	96	2	442	16
여	53	45	63	87	61	57	1	366	12
계	115	99	140	163	138	153	3	808	28

## (8) 직원 현황

( )는 부장교사

직급 구분	교 장	교 감	부장 교사	담임 교사	전담 교사	특수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유치 원 교사	보육 교사	영어 체험 장	행정 실장	행정 실	수영 코치	보조 원	조리 종사	계
남	1	1	2	6(1)	1(1)	·	·	·	·	·	1	1	3	·	1	·	15
여	·	·	4	24(2)	4(2)	1	1	1	1	1	3	·	3	1	10	8	57
계	1	1	6	30(3)	5(3)	1	1	1	1	1	4	1	6	1	11	8	72

## (9) 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실)

교 지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교사연구지원시설		기타
총면적	운동장	일반 학급	특수 학급	유치원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교장실	행정실	보건실	방송실	교무실	전담실	급식소 체육관
40,982	2,382	30	1	1.5	2	1	2	1	1	0.5	0.5	1.5	0.5	1,769

## (10) 역대 교장

제1대 남궁억(1906. 9. 8.) 제2대 국수정길(1919. 4. 1.) 제3대 중촌태량(1941. 3.25.)  
 공산치하(1945.~1950.) 제4대 박유룡 제5대 함종악 제6대 최지영  
 제7대 김태선 제8대 최지영 제9대 김종극 제10대 장두순 제11대 김종극  
 제12대 이봉수 제13대 김홍근 제14대 정정일 제15대 김준열 제16대 박영성  
 제17대 김재순 제18대 박익훈 제19대 김인영 제20대 김헌기 제21대 이석기  
 제22대 김태환 제23대 전형표 제24대 최두규 제25대 임만근 제26대 조병률  
 제27대 김성영 제28대 전상범 제29대 전관홍

## 23)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1) 소재지 :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120~2번지

(2) 연혁

- 1940. 4. 1. 양양동심상소학교 화일간이학교 개교
- 1955. 9. 1. 양양국민학교 화일분실
- 1965. 8. 9.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인가

- 1966. 3. 7. 양양초등학교 화일분교장 개교
- 1970. 8.12. 교사 신축 준공(숙직실 1동 포함)
- 1980. 3. 1. 2학급 편성 인가
- 1983.11.15. 교사 1동 신축
- 1993. 3. 1. 양양초등학교에 통합

## 24) 남천초등학교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도리 33번지
- (2) 교지 : 11,055㎡ / 대지1,443㎡ / 체육장8,824㎡  
실습지1,070㎡ 학교림48,906㎡
- (3) 교사 : 492㎡
- (4) 구조 : 벽돌 슬라브 1층
- (5) 연혁
  - 1955. 3.29. 현성초등학교 장리분교 개교
  - 1961. 4. 1. 남천국민학교로 승격 개교
  - 1996. 3. 1. 남천초등학교로 개명
  - 1998.10.27. 교사 개축 준공(614㎡)
  - 2004. 6. 9. 급식소 준공
  - 2008. 2.15. 제47회 졸업식 거행(졸업자수 총 859명)
  - 2008. 3. 1. 양양초등학교에 통합
  - 2008. 3. 1.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남천체험학습장 개장
- (6) 역대 교장
 

제1대 최종남	제2대 김형열	제3대 김태환	제4대 정호선	제5대 구태현
제6대 전영찬	제7대 김순경	제8대 박형식	제9대 이진우	제10대 신익순
제11대 고광진	제12대 어명훈	제13대 장 욱	제14대 조이현	제15대 이종우
제16대 김학근	제17대 최돈운	제18대 김진근		

## 25) 오색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오색1리 307-1

(2) 교지 : 6,862m<sup>2</sup>(3) 교사 : 342.8m<sup>2</sup> 연건평 : 342.8m<sup>2</sup>

(4) 구조 : 벽돌조 스라브

(5) 규모 : 단층 3학급

(6) 연혁

- 1958. 4. 4. 사립학원 설립
- 1960. 4. 1. 공수전 국민학교 분실 지정
- 1961. 4. 1. 공수전초등학교 오색분교장 인가
- 1961.11. 1. 상평초등학교 오색분교장 개편
- 1968. 3. 1. 오색국민학교로 승격
- 1968. 4. 1. 오색초등학교 개교식 거행
- 1983. 3. 1. 오색초등학교 6학급 인가
- 1996. 3. 1. 오색초등학교로 개명

(7) 학교현황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3	4	10	6	4	4	2	2	2	1	1	42	479

(8) 역대 교장

제1대 전규진	제2대 홍양표	제3대 김경호	제4대 최명수	제5대 전석규
제6대 김형열	제7대 최종욱	제8대 박희순	제9대 김진범	제10대 민용기
제11대 김영찬	제12대 김남제	제13대 윤중학	제14대 최선익	제15대 이정식
제16대 최홍영	제17대 최돈균			

## 26) 인구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인구1리 27번지

(2) 교지 : 31,560m<sup>2</sup>

(3) 교사 : 1,165m<sup>2</sup>

(4) 구조 : 벽돌,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

(5) 규 모 : 7학급

(6) 연혁

○ 1922. 8.24. 인구보통학교 설립인가

○ 1923. 5.10. 개교

○ 1924. 3.23. 제1회 졸업식 거행

○ 1981. 3. 1. 병설유치원 개원

○ 2010. 2.13. 제85회 졸업식

(7) 학교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 생 수			교 원 수			일 반 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7	12	73	33	40	13	4	9	3	2	1	85	5,868

(8) 역대교장

제1대 안천민지필 제2대 귀충도성 제3대 상도고차낭 제4대 굴강열삼

제5대 석원도 제6대 수곡영우 제7대 길전풍치 제8대 서천오낭 제9대 송정무

제10대 우강시십낭 제11대 김종오 제12대 이치억 제13대 홍순창

제14대 홍순각 제15대 김주경 제16대 최달규 제17대 손충구 제18대 정정일

제19대 박대균 제20대 권중갑 제21대 최종남 제22대 오세하 제23대 정중훈

제24대 고석주 제25대 김좌기 제26대 최오규 제27대 황부남 제28대 최복길

제29대 최종국 제30대 이종민 제31대 이성환 제32대 정호익 제33대 김학근

제34대 차상덕 제35대 황철수



## 27)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258-2
- (2) 교지 : 11,421m<sup>2</sup>
- (3) 교사 : 637.30m<sup>2</sup>
- (4)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단층
- (5) 규 모 : 3학급
- (6) 연혁
- 1941.12. 8. 인구국민학교 임호간이학교 개교
  - 1943. 6.15. 임호국민학교로 승격 개교
  - 1958. 8.27. 월천분교장 설립인가
  - 1963. 1. 7. 남애분교장 설립인가
  - 1984. 3. 1. 월천분교 4학급 편성
  - 1984. 8.24. 병설유치원개원
  - 2000. 3. 1. 분교장 격하(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 (7)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일반직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1	3	7	14	3	11	3	0	3	2	2		55	2,072

### (8) 역대 교장

제1대 김백순	제2대 김봉익	제3대 홍순각	제4대 서금택	제5대 이덕희
제6대 김재순	제7대 권중갑	제8대 이규천	제9대 고석주	제10대 권혁주
제11대 김운중	제12대 박귀학	제13대 최복길	제14대 최장관	제15대 권중갑
제16대 최정규	제17대 박귀학	제18대 한준호	제19대 조일현	제20대 전재영
제21대 정충시	제22대 이건오	제23대 전동국	제24대 전영찬	제25대 김종성
제26대 강태홍	제27대 김진을	제28대 김이상	제29대 우종숙	제30대 김진국
제31대 최승만	제32대 김진목			

## 28) 임호초등학교 월천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남면 월천리
- (2) 교지 : 4,920㎡
- (3) 교사 : 232㎡
- (4) 구조 : 벽돌 스라브(폐교 후 철거됨)
- (5) 규 모 : 3학급
- (6) 연혁
  - 1985. 8. 27. 임호국민학교 월천분교설립인가
  - 1984. 3. 1. 월천분교 4학급 편성
  - 2000. 3. 1. 임호분교장으로 통합

## 29) 조산초등학교

- (1) 위치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50-5
- (2) 규모 : 대지면적 : 20,953㎡ / 건물면적 : 2,20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기구(조직, 구성)

### ○ 학생현황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유치원
남	5	8	6	9	8	7	43	6
여	4	3	8	10	6	12	43	4
계	9(1)	11(1)	14(1)	19(1)	14(1)	19(1)	86(6)	10

### ○ 교직원 현황

구 분	교 원			행정직		기타직	계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기능직		
남	1	1	2	1	2	-	7
여	-	-	7	-	1	6	14
계	1	1	9	1	3	6	21

(4) 기능 및 사업 : 교육사업

(5) 연혁

- 1944. 4.10. 조산공립초등학교 개교
- 1996. 3. 1. 조산초등학교로 명칭변경
- 1999. 9. 1. 적은분교장 폐교통합
- 2001.12.27. 강원도교육청 선정 새학교문화 최우수학교 표창
- 2003. 9. 1. 제25대 교장 박창섭 부임
- 2004.12.31. 강원도교육청 선정 학교평가 우수교
- 2005.12.29. 우수연구학교 우수상 수상(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 2007.12. 5. 제6회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상 수상(강원도교육감)
- 2008. 1.16. 행복한 학교 가꾸기 강원도교육감표창 수상
- 2009. 2. 4. 조산초등영어체험교실 개관
- 2009.12.21. 2009생활지도 유공학교 강원도교육감 표창
- 2010. 2.10. 제59회 졸업식(총 2,407명)

(6) 역대교장

제1대 김봉만	제2대 김주형	제3대 김동각	제4대 김명열	제5대 최병옥
제6대 김남섭	제7대 김택용	제8대 문명달	제9대 이종하	제10대 백운하
제11대 김헌기	제12대 조병석	제13대 이건오	제14대 정중훈	제15대 김종영
제16대 이강국	제17대 김태환	제18대 김형열	제19대 김규린	제20대 조병률
제21대 김봉남	제22대 김규린	제23대 정호익	제24대 강희명	제25대 박창섭

### 30) 조산초등학교 적은분교장

(1) 소재지 : 양양군 강현면 적은리 84번지

(2) 교지 : 7,092m<sup>2</sup>

(3) 교사 : 438m<sup>2</sup>

(4) 구조 : 벽돌, 슬라브 1층

(5) 규 모 : 5학급, 교사1, 숙직실1, 숙사2, 목욕탕1, 관사1, 화장실1

(6) 연혁

- 1942. 4. 1. 적은국민학교 개교
- 1954. 9. 1. 강현국민학교 금풍분교 개교
- 1952. 4. 1. 적은국민학교 인가(6학급)
- 1981. 8. 1. 교사 개축(7교실)
- 1992. 3. 1. 조산국민학교 적은분교장으로 격하
- 1999. 2.17. 제45회 졸업식 거행
- 1999. 9. 1. 조산초등학교로 통합

(7) 역대교장

제1대 김호경	제2대 조규동	제3대 최영조	제4대 김기형	제5대 황의겸
제6대 고석주	제7대 최진집	제8대 정달인	제9대 김남섭	제10대 김홍배
제11대 강태집	제12대 박형극	제13대 김영순	제14대 김도석	제15대 김영순
제16대 김규인				

### 31) 한남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서면 용천리 505

(2) 대 지 : 8,343㎡

(3) 교사 : 483㎡ 연건평 : 859㎡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2층 슬라브

(5) 규 모 : 교실8실, 관사1동, 숙직실1동, 다목적실1동, 창고1동

(6) 연혁

- 1952. 4. 5. 상평국민학교 용천분교장 설립 인가
- 1953. 4. 1. 한남국민학교 개교
- 1989.10.14. 교실 7동 개축
- 1996. 3. 1. 한남초등학교로 교명 개칭

- 2002. 8.31. 태풍 “루사”로 건물5채완파, 교사1층침수, 물품피해2억원
- 2005.11.23.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완공
- 2008.10. 2. 다목적실 준공
- 2009. 4.27. 학교도서관 개관
- 2010. 2.10. 제53회 졸업식 거행

## (7) 학교현황

연도	선립별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졸업생
2010	공립	6	8	19	25	44	10	4	6	3	1	2	56	1,340

## (8) 역대교장

제1대 김기형	제2대 김준열	제3대 김해룡	제4대 최 상	제5대 김진용
제6대 김진무	제7대 강영화	제8대 김준열	제9대 김태환	제10대 김형렬
제11대 김창남	제12대 김중영	제13대 김진유	제14대 전형표	제15대 김원식
제16대 이규홍	제17대 손각규	제18대 이재풍	제19대 김만기	제20대 이창식
제21대 김영금	제22대 이철수	제23대 김종영	제24대 신재하	

## 32) 현북초등학교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577

(2) 교지 : 47,917m<sup>3</sup>(3) 교사 : 673.62m<sup>3</sup> / 구조 : 시멘트벽돌조슬라브 2층 / 학급편성 : 3학급

## (4) 연혁

- 1931. 4. 1. 현북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 1931. 4.23. 현북공립보통학교 개교
- 1937. 4. 1. 현성간이학교 분리
- 1966.11.11. 광정초등학교 분리
- 1996. 3. 1. 현북초등학교로 명칭 개칭

○ 2007. 9. 1. 제 43대 권혁용 교장 취임

(5) 학교현황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3	13.5	17	5	3	2	5	2	3	64	2,016

(6) 역대교장

제1대 김순석 제2대 천천태랑 제3대 일류무웅 제4대 전구주덕 제5대 영목용웅  
 제6대 구보주차 제7대 안광형 제8대 오세풍 제9대 변종덕 제10대 정경화  
 제11대 신태운 제12대 탁두호 제13대 최용건 제14대 오제정 제15대 김동각  
 제16대 이종우 제17대 박유용 제18대 최창학 제19대 박희준 제20대 김학경  
 제21대 김기형 제22대 최진집 제23대 김완식 제24대 권중갑 제25대 박귀학  
 제26대 최정규 제27대 강영화 제28대 홍무표 제29대 박준열 제30대 구태현  
 제31대 김남제 제32대 황하근 제33대 오제정 제34대 황근각 제35대 조수현  
 제36대 김진학 제37대 황영주 제38대 최돈빈 제39대 최돈창 제40대 최호철  
 제41대 이정식 제42대 윤정태 제43대 권혁용

### 33) 현성초등학교

(1) 소재지: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531번지

(2) 교지 : 21,595m<sup>2</sup>

(3) 교사 : 6,194m<sup>2</sup> / 구조 : 벽돌, 스라브 1층 총 10동 / 규모 : 3학급

(4) 연혁

- 1934.10. 1. 현북공립보통학교 부설 현성간이학교 개교
- 1937. 4. 1. 현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인가 개교
- 1966. 3. 1. 면옥치분교장 설립
- 1973. 3. 1. 범수치분교장 설립
- 1986. 9. 1. 병설유치원 개원



- 1997. 2.28. 면옥치분교장폐교
- 2007. 2.28. 법수치분교장폐교
- 2010. 2.10. 제64회 졸업식 거행(1,220명 졸업)
- 2010. 3. 1. 제33대 교장 김홍열 부임

## (5) 학교 현황

연도	공립교	학급수	교실수	학생수			교원수			기타직원			졸업생수		유치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회수	인원	
2010	1	3	6	36	16	20	5	3	2	6	3	3	64	4	10

## (6) 역대 교장

제1대 장태갑	제2대 김정열	제3대 안광형	제4대 이석수	제5대 이윤기
제6대 권중갑	제7대 신원식	제8대 날현기	제9대 김석년	제10대 임원감
제11대 이영기	제12대 최 상	제13대 추종두	제14대 김기형	제15대 최익환
제16대 박광휘	제17대 김남섭	제18대 최종두	제19대 오세하	제20대 김승호
제21대 오제정	제22대 박형식	제23대 고광진	제24대 김도식	제25대 박재원
제26대 김홍식	제27대 강창우	제28대 강창우	제29대 김덕기	제30대 전세남
제31대 박재근	제32대 김시권	제33대 김홍열		

## 34) 현성초등학교 면옥치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 (2) 교지 : 5,533㎡ 운동장 4,473㎡ 실습지 1,565㎡
- (3) 교사 : 165㎡ / 구조 : 벽돌, 슬라브 / 기구 : 2학급
- (4) 연혁
  - 1966. 3. 1. 면옥치분교 개교
  - 1996. 2.16. 제23회 졸업식 거행(총 75명)
  - 1997. 2.28. 현성초등학교로 통합

### 35) 현성초등학교 법수치분교장

- (1) 소재지 :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 102
- (2) 교지 : 6,423㎡
- (3) 교사 : 882㎡ / 구조 : 벽돌, 슬라브 단층 / 기구 : 2학급
- (4) 연혁
  - 1973. 3. 1. 법수치분교 개교
  - 1973.12.28. 2교실 준공
  - 1999. 2.18. 제19회 졸업식 거행(총56명)
  - 2007. 3. 1. 현성초등학교로 통합

### 36) 회룡초등학교

- (1)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90
- (2) 규모 : 대지면적 : 13,523㎡ / 건물면적 : 1,216㎡ / 구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1층
- (3) 기능 및 사업 : 미래 사회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인성교육실시
- (4) 연혁
  - 1936. 4. 1. 강현공립학교 부설 회룡간이학교 개교
  - 1945. 4. 1. 회룡국민학교 설립인가
  - 1996. 3. 1. 회룡초등학교 개명
  - 2010. 2.11. 제56회 졸업식 거행(총 졸업생 1,680명)
- (5) 역대교장
 

제1대 이영식	제2대 정대규	제3대 김대하	제4대 김교진	제5대 김준열
제6대 최승조	제7대 김종극	제8대 한준호	제9대 김남섭	제10대 윤동만
제11대 김형열	제12대 최태근	제13대 최영옥	제14대 김순경	제15대 박형식
제16대 신두승	제17대 권태경	제18대 장 호	제19대 정권철	제20대 종영창
제21대 김남익	제22대 최헌식			

## 참고문헌

-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도 양양군, 1994,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5책: 289.
- 강원도 교육위원회, 1980, 강원교육사.
- 권오석, 1994, 「서당교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 김억열, 1996, 「양양군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김종철, 1990,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철수, 「양양지방의 초등교육발달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1998.
- 양양군, 2006, 『양양백서』
- 양양군, 2008, 『양양군통계연보』
- 양양군교육청, 1968, 『향토지』
- 양양문화원, 1976, 『향토지』
- 양양문화원, 2000, 남궁억의 계몽운동과 민족교육. 양양문화원.
- 양양여자고등학교, 2009, 2009학년도 양양여고 학교교육계획서.
-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 『襄州誌』, 양양군.
- 이시용·괴정만, 2000, 지방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조성일·신재흠, 2005, 한국교육행정사 발달연구, 서울: 집문당.
- 정원식·박성수편, 1999, 한국교육문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참고자료〉

- 東溟書院奉安文(동명서원봉안문).
- 東溟書院重創記(동명서원중창기).
- 東溟書院遺墟碑文(동명서원유허비문).
- 聞峴山學校作興賀襄陽人士(1906. 8. 17).

### 〈인터넷자료〉

- <http://www.unityinfo.co.kr/bbs.html> · Table=ins\_bbs3&mode=view&uid=33&page=12&section=.
- <http://blog.naver.com/nlboman/68308440>.



## II. 불교

### 1. 머리말

양양군의 지세는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북쪽과 서·남쪽은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한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설악산 연봉으로부터 발원한 남대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하천들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요건들은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으로 다른 지역보다 유구하고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많다. 즉 손양면 도화리의 구석기시대 유적과 오산리·송전리·남양리 등지의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산재하고 신라시대의 고분군이 여러 곳에 있으며 진전사와 그 옛터, 선림원 옛터, 오색석사 옛터, 신흥사, 영혈사, 명주사 등의 고찰(古刹)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고구려에서 소수림왕 2년(372년)에 백제에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신라는 법흥왕 15년(528년)에 이차돈이 순교한 후 공인되었음을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렇듯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4세기 후반부터 불교가 수용되었는데 처음에는 삼국이 그들의 왕도에서 인정 포교되면서 점차 각 지방으로 알려져 교세가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국기 말까지는 대체로 전국토에 불교가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어떠한 곳이든 모든 지역에 불교의 교세가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또는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쉽게 수용된 곳도 있고 어렵게 전파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라에서는 이차돈의 순교가 있어 비로소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양군의 불교를 생각해 볼 때 「양양군」이라기보다는 「양양지역」이라 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삼국 중 어느 나라의 영

역이었던가를 밝히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군계(郡界)를 알 수 없으며 국경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양지역의 불교」 즉, 지금의 양양군역을 중심한 주변 일대의 불교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불교가 넓게 전파된 삼국시대 말엽에는 이곳이 신라의 영역에 속했던 지역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양지역의 불교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고대문헌을 비롯한 근·현대까지의 각종 문헌에 보이는 사찰의 존재와 존속사실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찰들이 각 시대를 거치면서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던가를 최대한 밝혀 보고자 한다.

## 2. 문헌에 보이는 옛 사찰

고대의 문헌들을 비롯하여 근·현대까지의 문헌들에게 양양지역의 사찰관계 내용을 알기 위하여 사찰명(寺刹名)을 열거하려고 한다. 우선 문헌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조당집』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범우고』, 『관동지』, 『대동지지』, 『관동읍지』, 『사찰사료』, 『건봉사본말사적기』, 『한국사찰전서』, 『강원도지』, 『현산지』 등 여러 가지 문헌에 사찰 혹은 불교와 관계된 기록이 있는데 이들 기사에서 개창되었던 사찰만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찰이 양양지역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괄호 안의 내용은 위치와 현재까지의 존속 여부를 밝힌 것임을 부언한다.

낙산사 : 동쪽 15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영혈사 : 서쪽 2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명주사 : 남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신흥사 : 북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내원암 : 신흥사 북쪽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계조암(굴) : 동북쪽 50리에 위치함.(현존 사찰임)

진전사 : 서북쪽 30리에 위치함.(최근에 복원함)

- 도적사 : 서남쪽 40리 정족산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됨)
- 서선사 : 존재만의 기록으로 위치표시가 없음.(폐사됨)
- 사용사 : 북쪽 50리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됨)
- 소림암 : 신흥사 동쪽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원통암 : 명주사 동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보련암 : 명주사 북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개운암 : 남쪽 60리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오색석사 : 오색천 상류 남설악골에 있던 사찰임.(폐사됨)
- 안심암 : 내원암 서쪽 계곡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향노암 : 운문암 위쪽에 있던 암자임.(폐사됨)
- 취원암 : 영혈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백학암 : 영혈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길상암 : 개운사 서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둔전사 : 서북쪽 30리에 있던 사찰임. 진전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현곡사 : 오색천 상류에 있었던 암자라 하였는데 오색석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학소암 : 진전사 북쪽에 위치했던 암자임.(폐사됨)
- 사림사 : 서쪽 40리에 위치했던 사찰인데 선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됨.(폐사됨)
- 서림사 : 서쪽 30리에 위치했던 사찰(폐사되었으나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음)
- 선정사 :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조선 제16대 인조 22년(1644년)에 이전하여 신흥사가 되었다.(신라시대의 3층 석탑이 남아있음)
- 인월암 : 이화정 남쪽 언덕에 있었던 암자(폐사됨)
- 화엄사 : 북쪽 50리에 위치함.(폐사됨)

이상과 같이 문헌에 보이는 사찰들을 열거하여 28개의 사찰의 명칭을 기록하였으나 대부분이 폐사되고 현재까지 법등을 밝히고 있는 사찰은 7개소에 불과하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뒤에 다시 일으키는 중창불사가 어느 시대보다도 어려웠던 때



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런데 양양지역에만 28개소의 사찰이 개창되고 그 중 7개소의 사찰이 오늘날에도 등축을 밝히고 있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의 교세가 일찍부터 강했었으며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양양군내 곳곳에서 법등을 밝히고 목탁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3. 삼국시대

양양지역은 삼국기 이전에 예(濊)나라였으나 고구려 강성기에는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며 5세기 중반 이후에 이르러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다툼으로 격전장이 되기도 하였다. 5세기 말엽부터 6세기에 들면서 신라가 북진정책을 펴나가 양양지역은 신라의 영향력하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불교가 양양지역까지 포용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의문일 것인데 여기에는 자장율사(慈藏律師)와 오대산 월정사 창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산 월정사(月精寺)를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창건 당시에는 임시로 작은 암자를 지어 주석하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유동보살(儒童菩薩)의 화신이라고 전하는 신희거사(信孝居士)가 이 절에 머물렀고 범일국사의 제자였던 신의(信義)는 자장율사가 주석하던 이곳을 찾아와서 암자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다. 한편 낙산사의 사적을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11년(671년)에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의상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이 낙산의 동쪽 바닷가 굴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친견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왔다. 이후 동해의 용이 여의보주(如意宝珠) 한 알을 받치니 의상은 이 보주를 모셔 7일간 재계하고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보았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이르기를 “좌상(座上)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하였다.

의상은 그곳에 금당(金堂)을 짓고 관음상을 조성하여 봉안하고 절 이름을 낙산사(洛山寺)라 하였다. 창건 후에 원효대사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이곳 낙산사를

방문하였다는데 원효가 절에 이르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나게 되었으나 알아보지 못하였고 낙산사에 가셔도 풍량이 심하여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굴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곳의 사찰은 월정사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창건되었고 낙산사가 문무왕 11년(671년)에 개창되었다는 것으로 때는 삼국기 신라 하대로부터 말엽에 이른다. 예컨대 신라의 불교 공인이 법흥왕 15년(528년)이라 하나 기록과 현지의 답사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 때(417~457년)에 낙동강 유역인 일선군(一善郡 :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을 말함) 모례장자(毛禮長者) 집에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와서 기거하였으며 도리사(桃李寺)를 창건하여 일찍부터 불교가 신라의 변경지방에 전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양지역에도 7세기 중반부터 사찰이 두 곳에 창건되었으니 어느 정도의 불교 전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장율사와 의상대사, 원효대사들이 모두 당시의 고승으로 삼국기말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초엽에까지 활동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렇듯 양양지역은 삼국기말부터 불교의 교세가 자리잡고 있어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여러 사찰이 창건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신흥사에 대해서도 현재는 속초시의 관할이나 본래는 양양군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찰의 사적을 살펴볼 때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으며 당시 계조암과 능인암도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 7년(698년)에 능인암과 함께 불에 탔으며 이 자리에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능인암 옛터로 사찰을 옮기어 향성사를 중창하고 절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 이때에 의상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을 조성하여 봉안하였으며 이후 선정사는 오랫동안 번창하였다. 이러한 사적을 보았을 때 신흥사도 그 초창은 삼국기 신라의 하대 후반이 되므로 이 지역의 불교가 삼국기부터 수용되어 포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4. 통일신라시대

7세기 중반인 삼국시대 후반부터 양양지역은 고신라의 영역이 되어 당시 신라불교가 전파되고 있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양양지역에 사찰이 창건되고 불교가 자리잡으며 교세가 떨쳤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의 사찰들이 창건조사(創建祖師)로 자장율사와 의상대사, 원효대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들 3조사는 당시의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제일의 고승이었으므로 어떠한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창건조사를 이 3조사 중의 한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즉 자장율사(진평왕 12년, 590~태종무열왕 5년, 658년)는 7년간 당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와 대국통(大國統)이라는 승려최고의 자리에 임명되었으며 신라 국보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불력(佛力)에 의하여 나라를 지킨다는 신앙심만이 아니라 신라의 수도인 경주 중심부에 거대한 탑을 세움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고자 한 큰 뜻이었으니 과연 자장율사의 위치가 절대적이었음을 곧 알 수 있다. 그리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도 자장율사의 뒤를 이어 통일초기의 불교를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은 당시 최고의 고승대덕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국적으로 사찰의 창건조사를 거론할 때 대부분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은 모든 사찰이 그들의 위상과 법통의 전통성을 자랑하며 높이려는데 있는 것이다.

앞에서 고대로부터 양양지역에 창건되었던 사찰들로 28사를 열거하였으나 존재하였다는 것뿐이지 창건이후의 사적과 관계내용에 관하여는 전해지지 않는 사찰들이 훨씬 많다. 그리하여 현재도 등축을 밝히고 있는 사찰, 옛절터와 사찰명이 정확한 옛절, 절터와 그의 사적, 문헌기록이 일치하는 사찰들만을 선택하여 그 사찰들의 사적을 살펴봄으로써 양양지역의 통일신라시대 불교를 조명하려는 바 이러한 사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낙산사       | 2) 신흥사       | 3) 진전사 | 4) 영혈사        |
| 5) 화엄사       | 6) 내원암       | 7) 계조암 | 8) 오색석사지(현곡사) |
| 9) 선림원지(사림사) | 10) 둔전사(진전사) |        |               |

### 1) 낙산사(강현면 전진리)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위치한 낙산 상봉 가까이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양양읍에서 북쪽으로 약 7km 거리인데 지리적으로 동해와 접하고 있으며 낙산[일명 오봉산이라고도 함]의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경사면의 가장 평탄한 능선 위에 가람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사찰의 주축 방향은 낙산의 산세에 따라 북서쪽에서 남동을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낙산사는 천하 제일의 명당 자리에 세워진 사찰로 전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문무왕 11년(671년)에 통일신라 초기 제일의 고승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한다. 낙산사의 사적에 대해서는 만해 한용운 저술의 『낙산사사적(洛山寺事蹟), 1928』 외에 여러 기록이 있으나 이들 사료는 모두 조선 시대 이후에 편찬된 것이며 창건 후 고려시대까지의 내용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낙산사에 관계된 조선시대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고도 많은 편이며 화재로 소실되고 중창된 사실이 많아 창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340년간 어느 사찰보다도 변화가 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낙산사는 창건 배경과 역사성, 그리고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 등으로 이름났거니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의상대사가 직접 이곳에 와서 낙산사의 위치를 점지하고 창엽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찰이다. 의상대사는 신라 진평왕 47년(625년)에 탄생하여 성덕왕 원년(702년)에 입적한 한국 화엄종의 개조(開祖)로 당시 원효대사와 쌍벽을 이루었던 고승이다. 성은 김씨이고 한신(韓信)의 아들이다. 19세 때 경주 황복사에 출가하였는데 그 후 중국으로 구법하기 위하여 원효대사와 함께 요동으로 갔으나 고구려의 순라꾼에게 잡혀 정탐자로 오인을 받고 수십일동안 감금되었다가 신라로 돌아왔다. 10년 후인 문무왕 원년(661년)에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의 당나라에 도착한 후 처음 양주(揚州)에 갔을 때 주장(州將) 유지인(劉至仁)이 그를 관아에 머무르게 하고 성대히 대접하였다고 한다. 그 후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 가서 지엄(智儼)에게 청하여 화엄공부를 하였는데 당시 지엄은 중국 화엄종의 제2조(第二祖)로 화엄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며 7년 동안 의상에게(38세~44세)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이로써 터득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넓고도 깊이 있는 것이었다. 문무왕 11년(671년)에 신라

에 귀국하였는데 이때 귀국한 동기에 대해서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화엄대교를 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설에 대하여 신라사에서는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창건을 고려하여 당나라의 소식을 본국에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설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즉시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의 발원문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은 그의 관음신앙을 잘 알게 해준다. 그 후 문무왕 16년(676년)에 부석사를 창건하기까지 전국의 산천을 두루 살폈는데 이러한 순방은 화엄사상을 펼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한편 의상은 표훈(表訓), 진정(眞定) 등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전국을 역방하면서 지리산화엄사, 가야산해인사, 계룡산감사, 금정산범어사 등 화엄 10찰을 창건하고 이밖에 불영사, 삼막사, 초암사 등 많은 사찰을 개창토록 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찰이 창건조사를 의상대사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고승이 창건한 낙산사이므로 그의 위상은 대단하였으며 화재나 외침으로 인하여 사찰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중창 혹은 보수하여 오늘에까지 법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낙산사는 이후 원성왕 2년(786년)에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찰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 후 현안왕 2년(858년) 범일국사가 3칸의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상을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듯 낙산사는 화재로 인한 재난을 겪고도 법등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었다.

현재 낙산사에는 창건 당시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유물이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의상대(義湘臺)와 홍련암(紅蓮庵)이 있어 당시의 정경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의상대는 낙산사 중심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 동해 바닷가에 위치하였는데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낙산사에서 홍련암의 관음굴로 가는 해안 언덕에 자리하였는데 멀리 동해를 바라보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할 때 머무르면서 좌선 하였던 곳이며 본래는 암자가 있었다고 하나 한때 폐허가 되었다. 그러므로 1925년에 이 자리에 정자를 짓고 의상대사의 수행처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의상대라 칭하였던 것이다. 평면 6각의 아담한 정자로 주위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낙산사를 거론할 때는 반드시 의상대를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홍련암은 낙산사의 부속 암자로 의상대 북쪽 300m 지점에 위치하였다. 문무왕 11년(671년)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대나무가 솟은 곳에 건축한 불전이라 한다. 일설에는 의상대사가 이곳을 참배할 때 푸른 새를 만났는데 새가 석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자 이상하게 여겨 굴 앞에서 밤낮으로 7일 동안 기도를 하였다. 7일 후 바다 위에 홍련이 솟아 그 가운데 관음보살이 현신하였으므로 이 암자 이름을 홍련암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법당은 바닷가 암석 굴 위에 건축하였는데 법당 마루 밑을 통하여 출렁이는 바닷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상대사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와 같이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구를 짐작케 하는 것은 통일신라 초엽에 창건된 경주 감은사지의 법당인데 감은사법당은 죽어서 용으로 화신(化身)한 문무대왕의 영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역시 법당 밑에 바닷물이 통하도록 하였던 예임을 기록과 현지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건물들은 근·현대의 건축물이며 현재 홍련암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 2) 신흥사(속초시 설악동)

현재의 위치는 속초시 설악동으로 설악산 어구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속초시에 속하나 이곳 일대와 설악산은 본래 양양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양양지역의 불교를 논함에 있어 신흥사는 당연히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사의 사적은 진덕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는데 이때 계조암과 능인암도 함께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 건너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경주 한복판에 9층목탑을 건축하였는데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모시고 온 불사리(佛舍利)를 이 9층목탑에 봉안하였으며 9층목탑의 건립은 신라를 중심한 주위 9나라를 복속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렇듯 고승의 창건 사찰이므로 신흥사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향성사는 효소왕 7년(698년) 능인암과 함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3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다.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자리를 능인암터로 옮겨서 향성사를 중



창하고 절 이름을 선정사(禪定寺)라 개칭하였다. 이때 의상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삼존상을 조성하여 선정사에 봉안하였으며 이후 선정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기까지 크게 번창하였다. 신흥사라는 사찰 명칭은 조선시대에 중창 불사를 일으키면서 개칭한 사찰 명칭이다. 현재 설악동 입구에는 향성사지 3층석탑(보물 제443호)이라는 지정 명칭으로 통일신라시대의 3층석탑 1기가 건립되어 있으며 이곳 일대에서는 신라시대의 건물지 초석들과 장대석이 출토되고 많은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기와, 인동당초 문양의 암막새기와, 여러 가지 문양이 시문된 신라시대의 평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 향성사의 유적을 살필 수 있다.

### 3) 진전사(강현면 둔전리)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진전사 옛터가 남아있고 근년에 새로이 건립한 진전사 법당과 요사체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양양읍에서 속초행 큰길로 약 12km되는 강현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쪽으로 통한 도로로 7km쯤 가면 둔전리이고 이 마을에서 서편 계곡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속칭 탑골[塔谷]이라는 곳인데 현재 둔전리 100번지 발 가운데 3층석탑 1기가 건립되어 있어 주변 일대가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600m 지점에 둔전저수지가 있고 그 동북쪽 산 중턱에 석조부도 1기가 건립되어 있으며 그 서쪽 밑으로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은 대지가 있는데 경작지로 변했었다. 진전사 옛터는 석탑과 부도가 건립되어 있는 일대가 될 것인바 동리에서도 「진저사터」라고 구전되어 온다는데 이 지역에서 진전「陳田」이라 음각된기와편도 수집된바 있어 진전사 옛터임은 틀림없다. 다만 과거 사찰의 존속 여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범우고』 등의 기록에 없는 점으로 보아 폐사된 지는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 오랫동안 사원으로서의 존재는 전해지지 않았고 그 옛터에 남아있는 3층석탑과 석조부도 만이 있어 옛 절터임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6·25 한국전쟁 후 수복지구이어서 일찍이 조사된바 없었으며 1965년도 3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면서부터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후 3층석탑은 국보 제122호로, 석조부도는 보물 제439호로 각각 지정 보호하게 되었다.

진전사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하여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진전사를 말할 때 신라 최초의 선사(禪師)인 도의국사(道義國師)와 관계가 깊었던 사찰이므로 도의국사의 행적과 관련시켜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진전사와 도의국사에 관해서는 『조당집(祖堂集)』,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의 기록과 이밖에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등의 비문에 의하여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도의국사의 정확한 출생과 입적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가 생애였던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도의국사는 신라에 최초로 중국의 남종선(南宗禪)을 전한 신라의 고승이다. 성은 왕(王)씨이고 법호는 명적(明寂)이며 시호는 원적(元寂)이다. 도의는 법명이며 북한군(北漢郡)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임신한지 39개월만에 태어났다고 한다. 선덕왕 5년(784년)에 해로로 당나라에 갔으며 오대산을 찾아가서 공중으로부터 종소리를 듣는 등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고 한다. 그뒤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慧能)을 모신 조사당(祖師堂)을 참배하였는데 조사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한다. 이후 강서의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지장(地藏)에게 법을 물어서 의혹을 풀고 지장의 법맥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뒤 백장산(百丈山)의 회해(懷海)를 찾아가서 법요를 강의 받았는데 회해는 말하기를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승(東國僧)에게 속하게 되었구나”하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며 선법(禪法)을 터득하고 헌덕왕 13년(821년)에 귀국하였다. 도의는 신라에 돌아와 선법을 펴고자 하였으나 당시 불교는 교종으로 사람들이 교학만을 숭상하고 무위법(無爲法)을 즉 선(禪)을 믿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말에 천책(天頤)이 지은 『선문보장록』에 도의가 승통 지원(僧統智遠)에게 한 법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법문에는 그가 법계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한 심인법(心印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도의국사의 선법에 대하여 당시의 불교계는 마어(魔語)라고 하여 비웃으며 비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도의국사는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으로 북으로 향하여 신라 변경에 해당하는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은둔하였던 것이다. 진전사의 장로(長老)로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제자인

염거화상(廉居和尚)에게 남종선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염거화상은 제자 체징화상(體澄和尚)에게 선을 전하니 체징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 기슭에 보림사를 창건하여 가지산파(迦智山派)의 도량으로 크게 선풍을 떨쳤다. 그리하여 도의국사를 선종의 1조(一祖), 염거화상을 2조(二祖), 체징화상을 3조(三祖)로 받들어 도의국사를 가지산파의 개산조사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821년에는 이미 진전사가 자리잡고 있었으니 그 시창은 늦어도 8세기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지에 건립되어 있는 3층석탑의 각부 양식과 기법을 고찰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에 건립된 석탑이므로 이때에 이미 진전사가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도의국사를 모시고 있다. 즉, 조계종의 종헌(宗憲)에 ‘본종(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대사(曹溪慧能大師)의 증법손 서당 지장선사(曾法孫西堂智藏禪師)에게서 심인(心印)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중흥조(中興祖)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淸虛浮休兩法脈)을 계승승한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오늘날의 조계종의 종조 도의국사는 일찍부터 우리나라 선종의 초조(初祖)로서 추앙을 받았으며 이후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엽에 이르기까지 정착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가장 앞섰던 가지산문의 조사로 그 법통을 염거화상에 이어 체징화상에게 계승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진전사를 생각해본다면 신라 선종의 창시자 도의국사가 안좌하고 있으니 진전사를 찾는 법사들이 많았을 것이고 특히 염거화상이 법통을 이어 신라 선종의 제2조, 다음 체징화상이 제3조로 전통을 수립 계승하였으므로 당시의 진전사는 신라 선종의 근본 대도량으로 이로부터 선풍이 전국 각지에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지에 남아있는 3층석탑은 신라시대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는 국보 탑으로 하층기단 면석에 천인상들, 상층기단 면석에 8부신중들, 초층탑신 4면에 사방불을 배치 양각하여 석탑 자체를 생각해 볼 때에도 8세기 후반의 건립으로 가히 국보적인 표면 장식의 특별한 조형임을 느끼게 한다. 과연 선종의 조사인 도의국사가 진좌하여 많은 제자와 학승들이 운집할만한 사찰이고 교세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석조부도는 도의국사의 영탑(靈塔)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부도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선

종의 시발이 도의국사로부터였던 것과 같이 이후 신라의 석조부도 양식이 도의국사의 영탑을 시원 양식으로 모범하고 있으므로 현지의 석탑과 석조부도가 당시 진전사의 위상과 변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진전사는 폐사된 지 수백 년 황무지로 변하거나 때로는 경작지로 활용되



신라선종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영탑

었던 바 1965년 이후 정영호 교수의 꾸준한 현지 답사로 모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된 후 1974~1979년의 6년 동안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연차적인 발굴조사계획에 따라 석탑을 중심으로 경작지 일대를 발굴조사하여 가람의 배치 등을 파악하고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의 평기와를 다량으로 수습하였다. 석조부도가 위치한 경작지 발굴에서는 파손된 3층석탑의 부재들을 수습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임을 알게 되었고 1석으로 조성한 석재가 석비의 이수석(螭首石)임이 밝혀져 곧 도의국사 영탑의 탑비 이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 인동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그려져 있는 평기와들, 토기파편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신라시대의 진전사는 크게 변형하였으며 특히 선종의 총본산으로 불교사는 물론 당시의 사상사를 연구함에 있어 도의국사의 사적과 관련 지어 깊고도 넓은 학문적인 바탕이 되는 곳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 4) 영혈사(양양읍 화일리)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설악산 동남쪽 관모봉 밑에 건립되어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인데 그의 역사는 오래인 것으로 전한다. 즉 원효대사가 설악산에 이르러 처음에는 일출암(日出庵)을 짓고 2년 후인 신문왕 9년(689년)에 영혈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이어서 청련암(靑蓮庵)을 세웠다고 하는데 원효대사가 입적

한 때가 신문왕 6년(686년)이므로 이곳 사찰들의 창건 연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창건 연혁의 연대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승대덕을 창건조사로 모심으로써 각기 사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에 의하면 영혈사가 번영하였을 때 일출암, 청련암, 취원암, 학소암, 백학암 등이 세워졌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모두 폐사되었다. 영혈사에는 사찰의 명칭이 영혈(靈穴)이어서 「영험한 굴」이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는 언제부터인지 영천(靈泉)이라 하여 샘이 솟고 있는 바위가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영천사라고 하였다는데 지금도 이 신령스러운 샘[泉]에서는 깨끗하고도 맛있는 약수가 솟아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신라시대의 유적 유물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다.

### 5) 화엄사(옛 토성면 신평리)

만해 한용운이 지은 『건봉사본말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혜공왕 5년(769년)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설악산의 북쪽 기슭에 화엄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며 이 화엄사 남쪽에는 지장암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사찰의 위치를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라 하였으니 현재는 고성군 지역이 되었으나 신라시대에는 양양지역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이미 낙산사와 신흥사, 진전사, 영혈사 등 큰 사찰이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화엄사의 창건을 무리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6) 내원암(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설악산 신흥사 산내에 대본산 건봉사 말사로 내원암이 있다고 전하며 특히 『범우고』에는 신흥사 북쪽에 있다고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한편 『건봉사본말사사적기』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능인암(能仁庵)이라 칭하였으며 이후 효소왕 7년(698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뒤에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내원암이라 사찰 명칭을 고쳤다고 한다.

## 7) 계조암(속초시 설악동)

현재 신흥사의 부속 암자로 설악산 산속에 위치한 암자이다. 이 암자도 현재는 속초시에 속해있으나 본래는 양양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자장율사 이후 동산(東山), 각지(覺知), 봉정(鳳頂) 등이 주지를 계승하여 주석하였다. 이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대덕들이 계속하여 이곳에서 수도하였으므로 사찰의 명칭이 계조암(繼祖庵)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울산바위 아래에 위치한 석굴사원으로서 그 구조가 특이하다. 오랜동안 자연의 석굴을 이용한 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많은 수도승들이 주목하여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흔들바위와 약수라 일컫는 샘물이 유명하다. 그러므로 수행 승려들의 순방처는 물론 관광객들의 방문처로서도 유명하여 계조암이라 하면 곧 흔들바위를 생각하게 한다.

## 8) 오색석사와 그 옛터(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남설악 골짜기에 경영되었던 사찰이다. 전하건대 신라말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파의 개산조사인 도의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찰의 후원에 한 그루의 이상한 나무가 있어 다섯 가지 색의 꽃이 피었으므로 절의 명칭을 오색사라 하고 이곳의 지명을 오색리라 하였으며 절 어구에 있는 약수도 오색약수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 오색리의 오색약수(五色藥水)는 탄산수로 유명하며 주위의 돌 색깔이 모두 붉은색이다. 그러나 불가(佛家)에서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5색을 정색(正色)으로 삼고 있어 이들 다섯 가지 색에서 절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 이곳 오색석사는 창건 이후 신라시대에 유명했던 선찰(禪刹)이었으니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파(聖住山派)의 개산조 무염선사(無染禪師)가 이 절에서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 옛터에 건립되어 있다)의 비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무염선사는 신라 애장왕 2년(801년)에 출생하여 진성여왕 2년(888년)에 입적한 당시 제일의 고승이었다. 성은 김씨, 호는 무량(無量), 또는 무주(無住)라고도 한다.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며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뛰어나 해동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12세에 출가하여 이곳 오색석사에 들어가 법성(法性)의 제자가 되었다. 이때에 법성대사는 당나라에서 소승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무염에게 한문과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당나라 유학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 후 무염은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가려 했으나 도중 풍랑으로 배가 흑산도에 기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헌덕왕 13년(821년)에 다시 정조사(正朝使)를 따라 당나라에 가서 성남산 지상사(至相寺)의 화엄강석(華嚴講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때 당에서는 이미 선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염도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을 찾아가서 선법을 문의하였다. 무염을 맞이하여 선법을 논한 뒤 여만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와 같은 신라의 젊은이는 본적이 없다. 훗날 중국이 선종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신라로 가서 선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무염은 마곡산의 보철(麻谷山寶徹)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 법맥을 이어받고 중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독한 사람, 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이렇듯 10여 년간 보살행을 실천하니 그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무염을 동방의 대보살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신라 문성왕 5년(845년)에 귀국하였는데 이때에 왕자가 성주사에 머무르기를 간청하였다. 이후 무염은 성주사에 주석하면서 이 절을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40여 년간 교화하였다. 성주사자리에서는 백제시대의 연화문 솟기와 등백제의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어 백제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량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에 이르러 무염선사가 선문의 본산으로 삼을만한 곳이다. 이후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등 6국왕이 모두 그를 존경하며 법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도를 구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때 최고의 고승인 무염이 출가한 역사적인 사찰이 바로 오색석사인 것이다.

현재 오색석사 옛터에는 법당 자리와 많은 초석들, 신라 3층석탑(보물 제497호)이 건

립되어 있고 별도의 석탑재와 석사자, 장대석 등이 남아있으며 신라시대의 연화문 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평기와 등이 수습된 바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법당 1동을 지어 한 때에는 성국사(城國寺)라 하였으나 사찰 규모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3층석탑의 건조양식은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부에 상륜을 장식한 신라식 일반형이다. 이 석탑은 9세기에 이르러 유행된 양식과 기법을 보이고 있어 오색석사가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을 때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른 기록에 현곡사(玄谷寺)가 오색천 상류에 있다고 하였는데 오색석사 옛터 이외에 상류에 올라갈수록 골짜기 좁아졌으며 사찰을 건립할만한 대지가 없으므로 오색석사지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 9) 선림원지(서면 황이리 미천곡)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있었던 사찰로 일명 사림사(沙林寺)라고도 칭하는데 현재는 절터만이 남아있다. 선림원 절터 조사에서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 등이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연대는 신라 애장왕 5년(804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대추정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으나 1948년에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었으며 이 범종의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804년)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절도 이때에 창건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범종은 「정원(貞元) 이십연명동종(二十年銘銅鍾)」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



선림원지(불전들의 옛터)

림원지에서 출토되어 그 후 오대산 월정사로 옮겨져 월정사에서 타종하고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다. 선림원지는 이러한 사실로 알려지게 되었다. 절터의 위치가 38° 선의 접경이므로 이곳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범종만을 옮겨왔을 뿐 전무하였는데 1965년부

터 수복지구의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곳의 유적유물을 발견조사하여 학계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처음 이곳을 답사하여 여러 석조 유물을 조사한 정영호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석물들이 도괴되고 원위치를 이탈한 유물도 있어 이들의 보존책이 강구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도괴된 석재들을 수습하여 3층석탑(보물 제444호)을 필두로 석등(보물 제445호), 선림원지홍각선사탑비(보물 제446호), 홍각선사부도(보물 제447호) 등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원위치에 보존하게 된 것이다.

순응법사가 창건한 사실은 출토된 범종의 명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창건연대도 범종이 주조된 80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건 당시에 이 절은 화엄종의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 경문왕 무렵에 고승 홍각선사(弘覺禪師)가 이 절에 주석하게 되었고 현강왕(875~885년) 때에 크게 중창하여 선종의 도량으로서 많은 교화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각선사는 신라 현강왕 때의 이름난 선사이나 그의 탄생과 입적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홍각선사의 생애와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혀있는 석비가 서면 미천골의 바로 이 절터에 있었으나 파손된 상태로 양양 관아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비제(碑題)는 홍각선사비명(弘覺禪師碑銘)이라 하였는데 비신이 심하게 파손되고 마멸되어서 판독이 어렵다. 그리고 결락부분이 많아 깨진 부분의 명문을 알 수 없어 전체 내용을 판독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그러나 홍각선사가 서사(書史)에 해박하며 불경을 깊이 연구한 뒤 영산(靈山)의 선석(禪席)을 두루 찾아다니며 수행하였고 수양이 깊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법도를 구하였던 당시의 고승이었다는 사실만은 판독하여 알 수 있다. 이 석비는 현강왕 12년(886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철(雲徹)선사가 왕명을 받들어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를 모아 비문을 찬하였다는 것이다. 이 석비는 홍각선사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경내에 건조한 홍각선사부도탑에 따른 석비인 것이다.

선림원이 세워지고 홍각선사가 활동할 9세기 중엽은 도의국사가 진전사 장로로 진좌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교화를 베풀었던 시기이므로 선림원의 불사도 선종의 근본도량이 진전사와 오색석사 등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개창되었던 때이므로 이들과 함께 통일신라 말까지 선종사찰로 크게 번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현지에

남아있는 여러 유적 유물들이 크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즉 선림원 옛터는 미천골에서 제일 넓은 대지에 견고한 석축을 구축하고 가람을 배치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기의 석조건조물이 국가 보물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우선 3층석탑을 살펴보면 2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부를 장식한 신라식 일반형의 석탑이다. 상층기단 각 면에 8부신중을 배치한 표면장식의 특수한 형식일지나 진전사의 3층석탑에 비교하면 훨씬 뒤진 조형이다. 역시 9세기에 이르러 건립한 석탑인 것이다. 한편 석등에 있어서도 간석과 화사석 등에 장식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특수하게 여겨지나 석등의 연화문과 각부의 양식 수법에서 9세기의 조형으로 보인다. 홍각선사탑비는 발견 조사하여 보물로 지정할 당시에는 비신은 결실되고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비신의 결락된 부분은 무명(無銘)으로 평평하게 다듬고 명문을 판독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각자하여 비신석을 세워 놓았다. 이 석비의 건립을 헌강왕 12년(886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귀부의 귀갑문과 용두, 이수의 용틀임과 여러 조각들을 살펴볼 때 신라 하대의 조성을 느끼게 한다. 석조부도는 선림원지부도라는 명칭으로 보물의 지정은 받았으나 명칭에 있어서 홍각선사부도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이 부도는 산중턱으로 올라가는 원위치에서 도괴된 채 산재한 부재들을 모아 산기슭에 기단부만을 건립해 놓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하대석의 복련과 상대석의 양련, 중대석의 용틀임 등은 역시 섬약에 흘러 9세기 중반 이후의 양식으로 보인다. 이곳에 보존되어 있는 4기의 석조 보물들은 선림원이 번성하였던 9세기 중반 후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아 선림원이 신라 시대에 크게 알려져 번영하였던 도량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절터에서는 연화문 수막새, 인동당초문의 암막새,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는 평기와들이 많이 수습되어 모두 신라 하대의 유물로 생각되어 선림원이 번영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이 석탑이 도괴되어 사리공에 봉안했었던 납석제소탑(小塔)들이 상당수 문혀있던 것이 석탑재의 수습과정에서 발견조사되어 현재 몇 곳에 보존되고 있다. 이들 납석제소탑 역시 신라 하대의 양식을 잘 보이고 있어 선림원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유물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림원을 거론할 때 신라의 범종이 출토 수습된 사실을 반드시 부언하게 된다. 이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이 출토된 자리는 법당지 뒤편쪽이 되는데 당시 범종수습 작

업에 참가했던 이곳의 이춘우(李春雨) 이장(里長)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솥을 굽는 사람들이(4명으로 기억함) 참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솥 굽는 구덩이를 파는 도중에 범종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때 범종은 솥을 밑에 깔고 종속에도 솥을 넣고 솥으로 종신을 에워싸듯 했는지 주변에서 솥이 잔뜩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때 솥 굽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솥을 구웠다고, 즉 솥 굽는 옛날자리라고 환호하였으나 이어 큼직한 범종이 발견되자 깜짝 놀라며 이곳의 절[寺刹]이 난리나 화재 혹은 변을 당하게 되자 범종은 무거워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이 땅속에 묻고 피신 혹은 피난 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말은 대단히 뜻있는 말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절터를 발굴 조사할 당시 솥이 많이 나오면 부엌쪽이고 아니면 솥속에서 금속품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일은 솥은 습기를 흡수하는 제습제로 예부터 가정에서도 솥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 선림원지에서의 범종출토는 선림원의 승려들이 변(난리)을 피할 때 무거운 동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음으로 제습제인 솥을 깔고 동종을 묻어 녹이 쏠지 않도록 솥을 가득히 채운 뒤 흙을 덮어 평지조성을 하고 피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정원이십년명범종」은 뜻밖에 발견된 8·15광복 후 최대 최고의 큰 수확이어서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출토사실이 중앙당국에 알려지자 곧 후방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때 이 지역에 근무하고 있었던 국군에 의하여 썰매에 싣고 오대산쪽으로 왔다. 처음 상원사에 들려 종을 현수하여(매달고) 타종하려고 하였으나 이곳에는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신라 성덕왕 24년(725년)]이 이미 걸려 있으므로 범종이 없었던 월정사로 옮기도록하여 월정사는 뜻하지 않았던 신라의 범종을 수장, 타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월정사 범당의 종가(鍾架)에 현수하여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올릴 때면 신라의 종소리가 오대산 골짜기는 물론 멀리 밑의 마을까지 울리어 활기찬 월정사의 정경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희망찬 종소리와 미려(美麗)한 범종의 모습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즉 6·25한국전쟁으로 월정사의 여러 건물이 불타는 불바다 속에서 동종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던 것이다. 이 범종이 출토되어 월정사로 옮겨졌던 당시 이 범종을 실측하며 자세히 조사했던 이흥직박사와 황수영 박사의 낙심과 애통한 심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미인박명, 박명의 신라종」이라 하면서 슬픈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953년 늦가을 오대산지역의 답사를 떠나는데 황수영 박사께서 「월정사에 가서는 반드시 신라종을 찾아보라」는 부탁이 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월정사건물들이 모두 타버렸다는데……신라종이라고 안전했을까? 화재가 났을 때 마당에 굴러 떨어트렸더라면, 기운이 모자라면 발로라도 차서 화염을 피했으면 신라종이 살았을 것인데……” 말씀하며 현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이 글을 쓰면서도 필자 정영호는 그때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것은 신라종에 대한 애착과 집착, 만약에 살아남았을 간절한 실낱같은 바람의 표현이자 애끓는 호소이기도 하였다. 교통불편으로 만이틀[2日間]이나 걸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30리 길을 걸어 월정사에 당도하여 사찰경내에 올라서니 건물은 하나도 없으며 석탑 하나가 서 있고 그 앞에 석조보살좌상이 석탑을 향하여 공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저 석탑이 석재가 아니고 목탑이나 전탑이었다면 이렇듯 온전하게 남아있을까? 석조보살좌상도 석재가 아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물끄러미 석탑을 바라보고 있는데……문득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일까……하며 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어 잣더미를 헤치면서 경내를 이리저리 다녔다. 이때에 월정사 8각 9층석탑을 견학한 계기가 석탑연구에 힘을 쏟게 되었고 석조보살좌상을 친견함으로써 석조미술을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닌가한다.

깨진 기와조각들과 회진된 건물터를 이리저리 작대기로 헤치는데 화염에 조각난 범종의 파편들이 잣더미 속에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도 없는 잣더미의 절터에서 한숨만 쉬면서 많은 파편들을 찾아냈으며 이 범종의 조각난 잔해들을 수습하고 사진촬영과 실측조사 등을 진행해야 할텐데……시간은 오후4시가 되고 여인숙집에서 먹어보라고 준 강원도 감자떡이 맛은 좋았으나 이 떡 5개로는 점심량에 차지 않았다. 산골의 오후는 일찍이 해가 저문다. 시장기가 심해오고 날도 어두워질 것 같아 본격적인 조사는 내일로 미루고 월정사 아랫동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로 내려와 당직선생님의 안내로 이 마을 이장택을 찾아가 보파리를 끌러놓은 때가 5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마을에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이장도 환갑에 가까운 중노인으로 강원도 특유의 친절을 베풀어주어 편안한 하루를 지냈다. 그런데 호롱불 밑에서 이야기 저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월정사를 찾게 된 큰 이유를 말했더니……깜짝 놀래며 “절이 저모양으로 불바다가 되었었으니 아무리 신라시대의 종이라 해도 불길에 남아났겠느냐”는 것이었으며 화재의 원인, 스님들의 상황 등을 물어본즉 “전쟁통에 불이 났고 불끄는 사람이 없고, 스님들은 모두 피난 갔으니 법당에 매달은 종도 불에 타 녹아버린 조각들이 잿더미 속에 묻혀 있겠지요 뭐……”, “그 종이 유명한 것이어 종소리도 좋았대요, 이 마을에서도 새벽녘이면 절의 종소리를 들었었는걸요……”하며 그당시의 일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는 듯 한숨을 쉬곤 하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저 웃집에 와서 사는 사람이 양양쪽에서 피난 나왔는데 ……언젠가 그는 월정사종이 땅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님들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장의 주선으로 양양에서 왔다는 피난민을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원이십년명동종」의 출토당시와 후방으로 옮기게 될 때까지의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 바 그 내용들은 앞에서의 내용과 같았다. 그때의 양양군 서면 황이리의 이춘우 이장이 바로 이 피난민이어서 직접 현지에 있었기에 당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랜 뒤의 일이지만 2004년도에 이 범종이 주조된 지(A.D.804년) 1200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양양문화원(당시의 원장:고경재)에서 이 「신라범종」에 관한 학술회의가 열렸었다. 학술강연에서 황박사께서는 「미인 박명, 박명의 신라종, 광복후 최대의 수확, 신라종의 역사적 의의」 등을 말씀 하셨고 필자도 동종에 관한 강연을 갖기도 하였다. 이때 이 범종의 출토지인 선림원 절터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이리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 때의 이춘우 이장이 이곳에 들어와 또 만났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인연이었다. 그 때 또다시 범종의 출토당시와 후송하게 된 때까지의 상황들을 또한번 듣게 되어 감회가 깊었다. 80세가 되었다는데도 신라종에 대해서는 하도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1953년도 늦가을인데도 한낮은 햇빛이 쨍쨍하여 더위까지 느꼈다. 여러 점의 범종과 편들을 촬영과 실측조사하는데 산판에서 나무일을 하는 중노인과 마을리장께 부탁하여 나의 조사진행을 도와주어 오전 중에 끝났으며 오후에 그곳을 떠났다. 상경 후 범종조각들의 사진을 정리하여 황 박사께 현지의 여러 상황을 보고 드렸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사진은 범종의 하대부분, 요사진은 종신의 당좌부분 등……하나하나 지적하는

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에 명문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불행한 일이나 이 명문이 살아있어서 다소 위안이 되는군”하며 주성(鑄成)연기가 양각된 기명(陽刻紀銘)을 가리키었다. “대개의 경우 종신 표면에 음각하였지만 이 종은 종신 안쪽에 양각으로 명문을 각자(刻字)하였으니 더욱 주목되는 신라종인데 불에 녹아버렸으니 아름다운 형태를 볼 수 없게 되었구려”하며 눈물을 닦으셨다. 오늘에까지 60년 가까이 모시면서 선생님의 눈물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좀 작지만 범종의 모습은 이것뿐이요”하며 사진 1장을 찾아 오셨다. 월정사에서 1950년 초반에 조사할 때 촬영한 기념사진이었다. 사실 선림원 출토 「정원이십년명」신라종의 사진은 이 한 장뿐이다.



선림원지 출토 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

양양 선림원 절터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 현지에 남아있는 석조물과 유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찰내용을 말하지만 이 신라종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언하여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밝혀 놓음으로써 역사의 한 줄로 포함시키고자 적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신라종의 완전한 형태는 볼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범종 각부의 양식과 문양들, 주조법연구 등 양각명문에 의하여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파편잔해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동안 제기된 신라종에 대한 의문되었던 문제들을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 종이 양양지역출토라는 점에서 반드시 거론하게 된다.

여하튼 선림원은 신라시대의 사찰로 많은 석조물과 범종까지 남기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크게 번창하였던 가람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심산유곡의 사찰이나 넓은 도량에 속함으로 많은 선승들이 주거하여 양양지역의 불교가 한층 빛났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 10) 서림사(서면 서림리)

서림사(西林寺)는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들어서기 전 서림리에 있었던 사찰로 ‘서림리’라는 마을이름도 서림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현산지(峴山誌)에 보이는데 서쪽 30리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절터만 남아 넓은 경작지로 변화였고 여기에 있었던 석불좌상과 3층석탑은 현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마당에 옮겨놓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제120호 서림사지삼층석탑의 명칭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이 절터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왓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신라하대의 조성으로 추정되어서 신라시대에 서림사가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절은 선림원으로 가는 도중으로 서림리 골짜기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선림원 도량으로 가기 전 또 하나의 신라사원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절이 고려시대까지는 법등을 밝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삼층석탑이 후대인 고려시대의 건립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주변에서 고려시대의 기왓장편, 고려토기와 청자, 백자편들도 산재하고 있어서 서림사는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등축을 밝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현지 답사에서 수집되는 유물에 의한 것이며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 11) 둔전사(진전사)(강현면 둔전리)

둔전사(屯田寺)는 현산지(峴山誌)에 보이는데 서북쪽 30리에 위치하며 탑이 서 있어 이 탑을 둔전동탑(屯田洞塔)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강현면 둔전리에는 진전사엿터가 있고 이곳에 통일신라시대의 3층석탑이 국보 제12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둔전리의 절터가 통일신라시대의 진전사의 엿터임을 196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38°선 이북지역이어서 알 수가 없었다. 일제시대에도 이곳 둔전리의 절터는 조사한 적이 없었으므로 진전사는 문헌에만 보일뿐이었다. 그리하여 이곳의 진전사는 동리의 명칭이 둔전리이어서 그대로 「둔전사」라 칭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1962년도와 1965년도에 현지를 답사할 때 이 마을의 이장 추종삼(秋鍾

三)씨를 만났고 이곳의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두 「둔전사」엿터라는 것이었다. 역시 「진전사」라는 절 이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곳 일대의 조사 후 신라시대에 창건된 진전사 엿터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일신라시대에 있어서 양양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불교사찰의 창건과 흥법, 신앙유포 등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표준적 근거는 우선 문헌에 보이는 사찰과 현재까지도 등축을 밝히고 있다는 사찰들을 방문하고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번성하였다고 전해지는 옛 절터들을 답사하여 현지 유적 유물들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양양지역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오래이고도 다양한 유적유물이 많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이래 수용된 불교도 이 지역에서는 삼국기 후반부터 흥법되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창건되어 불교문화의 자리가 굳건히 잡혔음을 알 수 있다.

즉 낙산사 신흥사 진전사 오색석사 선림원 등의 큰 사찰들을 비롯하여 영혈사 화엄사 내원암 계조암 서림사 등의 크고 작은 도량들이 이 지역에 많이 세워졌다. 이들 사찰에서는 사회 교화를 비롯하여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창달에서 특히 불교의 포교와 신봉에 따르는 조형미술을 비롯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던 것으로 현재도 옛 절과 절터에는 많은 유적과 유구·유물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불교문화의 기반이 있었고 당시에 불교를 이해하고 전도하는 상황에서 신라의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먼저 선(禪)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양양지역이 화엄종, 화엄사상에서 시작하였으며 이곳에 들어온 선풍(禪風)은 새로운 사상이고 종파였으나 이를 잘 수용할 수 있었던 사회적 교화와 불교문화의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라의 왕도 경주에서는 도의국사가 승통 지원스님에게 한 법문, 즉 선(禪)에 대해 마어(魔語)라고 하여 비방하며 비웃고 있었으니 이러한 상황을 보고 도의국사는 이곳은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깨닫고 북으로 향하여 마침내 양양 진전사에 들어와 주석하며 선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선풍은 신라왕도 보다 오히려 이 곳 양양이 앞섰던 것이다. 도의국사는 선종의 종조로서 진전사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니 염거화상, 보조선사 무염선사 등 고승 선사들이 이곳 양양에서 수행하여 각기 9산선문의 도량을 개창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양지역은 명산(名山) 설악산 동쪽의 비옥하고도 광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서 많은 사찰이 창건되었고 따라서 일찍부터 문화사회가 형성되고 특히 불교문화가 발달된 곳이었다. 이러한 불교문화사회는 곧 고려시대에 계승되었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으로서 그 시발이 바로 양양이고 종조로 도의국사를 추앙하며 모시고 있음은 통일신라시대 양양지역의 불교의 발달과 기반을 가히 알게 한다.

## 5. 고려시대

이 시대는 통일신라시대에 이어 불교국가였다. 즉 태조 왕건의 훈요십계(訓要十戒) 첫머리에 “우리국가의 대업은 제불(諸佛)의 호위하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禪) 교(敎)의 사원(寺院)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분수(焚修)케 하고 각각 그 업(業)을 닦게 하라”고 하여 불교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역대의 제왕은 열성을 다하여 불교의 보호와 융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불교는 호국불교였고 동시에 기복신앙(祈福信仰)이 널리 성행하였다. 특히 신라하대부터 수용된 선종의 파급은 고려 초기에 이르러 9산선문이 성립되고 왕도중심의 교종은 존속하며 9산선문의 큰 도량들이 전국각지에 창건되면서 크게 유행하여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왕도중심의 귀족적인 불교상황이 교종으로부터 선종으로 옮겨져 지방호족들의 비호아래 선종의 선풍이 넓게 날리어 서민불교 대중불교로 지방화 되었다. 따라서 태조 이래 국가와 왕실의 번영과 융성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교행사가 각처에서 성행하였던 것이니 이로서 각 지방적 특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역마다의 독특한 양식과 조형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각종 불교미술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러 특수한 형태과 기법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불교 왕성시대의 양양지역의 불교는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이 이 장에서 살펴보려는 내용인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시대에 번창하였던 사찰들을 중심한 상황,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들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고려시대 양양지역의 불교를 조명해보려는 것이다.

### 1) 낙산사의 상황(강현면 전진리)

통일신라시대의 낙산사는 당대 최고승인 의상대사의 창건이므로 그 위상이 대단하였다. 즉 신라 원성왕 2년(786년)에 화재로 인하여 사찰이 크게 소실되었으나 이후 신라 9산선문중 명주의 한 도량인 사굴산 굴산사의 개산조사 범일국사가 현안왕 2년(858년)에 회진된 낙산사를 일으켜 3칸의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이러한 교세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렀으나 10세기 중반, 고려 초엽에 관음보살상, 정취보살상을 봉안한 불전 외에 사찰 대부분이 소실된 것을 고려 중반인 13세기 초반에 이규보 등이 관음보살상을 보수하고 복장유물을 봉안하였다고 하는데 이렇듯 낙산사는 그 위상만치 복구의 힘이 크고 빨랐던 것이다. 그런데 제23대 고종 41년(1254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거의 전국토가 불바다가 되었을 때 이곳 낙산사도 몽고군의 침입을 받게 되어 관음상과 정취보살을 양주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고려말까지의 사적은 남아 있는 기록이 없으나 법등은 밝히면서 법맥은 여전하였고 이후 조선시대를 맞아 크게 중창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편 고려시대 낙산사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크게 참고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려 초기에 이르러 낙산사는 산불로 인하여 모두 타버렸는데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을 모신 불전만은 화재를 면하였다고 한다. 특히 왕건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직후 봄철과 가을에 낙산사에 사자를 보내어 제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갑령(甲令)으로 삼았다. 그리고 속인들은 이 낙산의 굴 앞에서 예배를 하면 푸른 새[靑鳥]가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런데 제19대 명종 15년(1185년) 당시의 병마사였던 유자량이 굴 앞에서 예배를 하자 푸른 새가 꽃을 물고 날아와 갯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에 유자량이 푸른 새의 영험을 보고 지은 시는 현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어 볼 수 있다. 이후 몽고의 침략으로 이 절이 모두 타버릴 때 두 성상(聖像)을 모신 건물도 불타버렸고 여의주와 수정 염주는 이 절의 노비가 땅에 묻고 도망쳤다가 난이 평정된 뒤 파내어 명주감창사(監倉使)에게 바쳤다. 감창사 이녹수는 제23대 고종 45년(1258년)에 각유(覺猷)에게 어부(御府)에 모시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음상은 이때 화를 당하여 형체만 남았고 복장 속의 보물은 몽고병에게 약탈당



했다. 이때 이규보 등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다시 관음상을 봉안할 때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실·비단주머니 등을 관음상의 복중에 넣고 겹모습도 복구하였다.

## 2) 신흥사의 상황(옛 양양군 도천면 장항리)

신흥사는 자장율사의 창건으로 향성사라 칭하였는데 이후 화재로 소실되어 3년간 폐허가 되었었다. 이후 의상대사가 효소왕 10년(701년)에 자리를 능인암터로 옮겨 향성사를 중창하고 이 때 사찰의 명칭을 선정사라 개명하였고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름났던 도량이다. 신흥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후기에 크게 중창불사를 일으키고 개칭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적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은 없으나 의상대사의 중창 이래 약 천 년 간 번창하였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의 불교가 호국불교요 거족적인 불교였으므로 위상이 높았던 선정사(신흥사)의 법등은 크게 밝았을 것이며 도량도 많은 승려와 불도들로 번창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사찰의 위치가 명산이며 성산(聖山)인 설악산 기슭인 점도 있다.

## 3) 진전사의 상황(강현면 둔전리)

신라 9산선문의 근본대도량이 진전사이며 신라선종(한국의 선종)의 대종조 도의국사가 바로 이곳 진전사에 진좌하여 많은 선승(禪僧) 고승대덕들을 길러 선법을 이어준 선법통(禪法統)의 근원적 도량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의 선풍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크게 날렸으니 그 근본도량인 진전사는 더욱 번창하고 굳건한 기반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중요한 기록에 보이는 진전사와 도의국사 관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 비로사에 건립되어 있는 「비로암진공대사보법탑비(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의 비문에 의하면 진공대사(신라 문성왕 17년~고려 태조 20년, 855~937년)가 진전사에 이르러 도의국사의

유허를 답사하고 그 영탑(靈塔)에 예배한 뒤에 도의국사의 진영(眞影)에 추모하며 영원히 제자의 의식을 펴고서 기뻐했었다고 한다. 여기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당시 진전사에는 도의국사의 「영탑과 진영」이 모셔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영탑」이란 도의국사의 「부도」를 말하며 「진영」이란 도의국사의 「초상화」를 말하는 것이다. 초상화는 비단에 그렸거나 종이에 그렸을 것이므로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오늘에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하겠으나 영탑은 남아있으니 바로 이곳의 석조부도가 영탑인 것이다. 신라 이래 선사(先師)들의 석조부도를 영탑이라 칭하여 「면례지탑(面禮之塔)」 즉 선학스님의 부도에 예를 올렸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공대사가 진전사를 찾아가 답사하면서 영탑에 예배하고 진영에 예를 올려 영원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기뻐했다니 여기의 「영탑」이란 곧 도의국사의 부도인 것이다. 진공대사는 신라 말 고려초의 유명한선승(禪僧)으로 「진전사를 찾아가 도의국사 영탑에 제자의 예를 올렸으며 그곳에서 수도하여 스승없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로 유명하다. 소백산 비로암에 주석할 때 고려 태조가 찾아와 법문을 청하였던바 그 설법에 크게 감화를 받아 후삼국을 통일한 뒤 대사를 초청하였으나 사양하고 비로사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一然)」선사와 진전사와의 관계이다.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인각사(麟角寺)에 보존되어 있는 보각국사탑비(普覺國師塔碑, 보물 제428호) 즉 「고려국의흥화산(高麗國義興花山) 조계종 인각사가지산하보각국존비(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비문에 의하면 일연선사가 14세 때 이곳 설악산 진전사에서 삭발 득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연선사는 제21대 희종 2년(1206년)에 출생하여 9세 때 해양 무량사(無量寺)에서 공부한 뒤 14세 때에 진전장로 대웅(陣田長老太雄)으로부터 체도구를 수취하여 계를 받았다.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니 신라시대에 이미 도의국사에 의하여 선종사찰로 이름난 이곳 진전사에서 일연이 체도수구(剃度受具)하였음은 곧 선사가 선문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가지산 보림사의 개조(開祖)인 도의국사의 법통을 바로 진전사에서 전등(傳燈)하게 되어 도의의 유파(道義流波)가 가지산문(迦智山門)으로 불려짐에 일연스님도 이에 따르게 되었고 「삼국유사」초두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

일연찬(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표기한 것으로 보아 「가지산하」라 하였으며 또 그의 석비명에도 「가지산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일연선사 때까지는 진전사가 선종의 큰 사찰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진전사의 사적을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즉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중대인 8세기말에는 법등을 밝히고 있어서 도의국사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헌덕왕 13년(821년)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이곳의 법통과 등축은 고려 일연선사 때를 거쳐 고려 말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끊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진전사는 선종사찰 중에서도 9산선문에 앞섰던 근본대도량이었던 것이니 신라시대 선종을 크게 일으킨 도의국사가 주석한 곳이 여기요, 또한 일연선사가 법통을 이어받은 선문이 이곳일진대 어찌 근본도량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전사는 8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오랫동안 선종의 중심사찰로 법통을 전등하여 양양지역 불교의 개화를 선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진전사에 대해서는 1962년 이래 지표조사를 몇 차례 실시한 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상·하 두 곳의 옛터를 발굴조사하여 여러 종류의 유물과 유구, 특히 명문있는 기와들이 출토되어 이 기와에 의하여 몇 가지의 사적을 밝힐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상·하 옛 건물지에서 1975년도 발굴조사 때 「천경삼년계사사월일(天慶三年癸巳四月日)」명 평기와의 출토되어 이때 제16대 예종 8년(1113년)에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덕삼년(大德三年)」명 평기와의 출토로 제25대 충렬왕 25년(1299년)에도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역시 13세~14세기의 큰 도량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 4) 영혈사의 상황(양양읍 화일리)

고려시대에 이르러 영혈사의 사적은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창불사가 있었다는 사실, 신라 원효대사의 창건이라는 사찰이어서 등축은 밝히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화엄사의 상황(옛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고려 왕건 태조 24년(941년)에 화엄사의 북쪽에 월영암(月影庵)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암자를 새로 세우고 사세(寺勢)를 떨쳤으므로 불교전성시대였던 고려시대에 있어서 화엄사는 상당히 번창하였으리라 생각된다.

### 6) 내원암과 계조암의 상황

자장율사의 창건이고 심산유곡의 암자이어서 수도승들의 내왕이 많았었던 곳이다.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불교옹호 정책하에서 이들 암자는 더욱 번창하여 항상 등축을 밝히고 있었으며 불도들의 심방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오색석사의 상황

신라 9산선문 중 큰 산문의 도량인 보령 성주사산문의 개산조사 무염선사가 이 절에서 수행하였던 선찰이니 고려시대에도 크게 번창하였던 사찰이었다. 옛터에는 고려시대의 석탑부재와 난간석, 석수, 고려시대의 막새기와와 평기와, 자기 파편들이 산재하여 고려시대에도 성찰이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장대석들은 건물의 부재들로 주목되어 중창불사를 추정케 한다.

### 8) 선림원 상황

명산 설악산의 선종 사찰에서도 이곳 선림원 도량은 크게 번창했던 것이니 오늘날 당시의 우수한 석조물 4기가 국가 보물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절에서 「정원이십년」명 신라법종이 출토된 사실은 선림원을 더욱 평가하게 한다. 신라하대의 중창불사로 큰 도량이 이루어져 여기에 많은 수도승려와 불도들이 운집하였던 바 이 여세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을 것임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미천곡

계곡의 넓은 대지에 경영되어서 산사를 전전하여 불교가 전파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으로 대자연속에서 선을 깨닫는 도량으로는 최상이었으니 고려시대의 사세 역시 광대하였을 것이다.

## 9) 서림사의 상황

선림원으로 가기 전 도중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림원의 변창에 따랐을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서림사 옛터에는 지금도 고려시대의 석탑이 남아있고 주변 경작지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기와와 자기편들을 수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일반형의 이 석탑은 서림사의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석탑의 규모를 보아 작은 도량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10) 명주사의 창건(현북면 어성전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만월산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에 속해있다. 제7대 목종 12년(1009년)에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절을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 한자씩을 따서 명주(明珠)사(寺)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건봉사본말사적」기록에 의하면 이 두 스님이 명주사를 창건하고 「비로자나불상」을 조성 보안하였다고 하나 그동안의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는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 기록에 제17대 인종 원년, 계묘(癸卯, 1123년)에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고려시대에 이르러 현북면을 중심으로 명주사 도량이 창업되고 주변에 암자까지 창건배치 하였었음은 이 시대 이 고장의 불교가 크게 번영하였었음을 알게 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양양지역의 불교가 어느 정도의 교세로, 어떠한 상황의 불교사회였을까 하는 것을 옛기록과 관계 사적기들, 그리고 사찰들의 현지답사에서 남아있는 당시의 유적유물들을 조사하여 종합 고찰해 보았다.

양양지역은 삼국기 불교수용 이후 7세기에 들면서 고승들의 창건사찰이 여기저기에

정초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더욱 많은 도량이 개창되었다. 이후 고려 시대는 불교가 호국불교, 국민불교로서 거족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최성기의 불교사회였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각 사찰별로 각기의 상황을 살펴본 가운데서 대략을 언급하였다. 더욱이 고래로부터 승계된 사찰 이외에 새로운 도량이 개창된다는 사실은 불교의 기운을 크게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 6. 조선시대

불교사에서 「조선시대」라고 하면 가장 컸던 불교의 수난시대였다고 말하게 된다. 즉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국시(國是)로 배불숭유(排佛崇儒)를 내세웠으니 불교의 위축은 국초부터였다. 이번의 장·항목에서는 이렇듯 어려웠던 때의 불교가 양양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소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양양지역의 각 사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찰의 회진, 회철, 폐사에 따르는 중창불사의 실태들을 고찰하여 양양지역의 불교사회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조선시대(1392~1910년) 518년간의 역사속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낙산사의 변화

이 시대의 낙산사관계기록은 여러 문헌에 많이 남아있어 보다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건봉사본말사적」에 조선 태조 원년(1392년) 을해(乙亥, 라고 했으나 태조 원년은 임신 : 壬申이다)에 춘추(春秋)로 사신을 보내어 삼일재(三日齋)를 설행토록 하니 그 후에 매년 규칙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시인 배불숭유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태조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일찍이 잠적해 있을 때부터 무학대사(無學大師)와의 관계와 충주 청용사 보각국사(普覺國師)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태조는 이 두 대사를 왕사(王師)로 모시고 제반사안을 논의하였으며 입적 후에도 국사, 왕사로 추앙토록 하였던 것이며 이밖에도 태조의 불심과 불교옹호의 행적



은 여러 곳에 남아있다.

이후 제7대 세조(世祖:수양대군)때 이르러 국왕의 불교신봉의 뜻에서 왕 12년(1466년)에 직접 낙산사에 행차하여 향폐를 헌상하고 사찰을 중창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왕 14년(1468년)에 학열(學悅)을 중창주로 삼아 낙산사를 중건토록 하였다. 이때 3층석탑을 9층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3층석탑에 관해서는 「건봉사본말사적」에 신라시대 의상조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고 3층석탑을 건조하여 보주(宝珠)를 봉장하고 16나한상을 소조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라의 3층탑을 세조때 이르러 9층으로 크게 개건(改建)하였다는 것인데 현재의 원통보전 앞 석탑은 7층이다. 혹시 기단부까지 합쳐 층수를 정한다면 9층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3층을 9층으로 높고 크게[高大] 고쳤다는 것으로 불교세의 확장과 낙산사의 위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8대 예종 원년 을축(乙丑, 1469년)에 교지를 내려 절의 건물들을 중건하고 큰종[大形梵鍾]을 주조하였으며 경작지와 노비를 내려주어 낙산사는 더욱 사세가 굳건하게 되었다. 이때에 주성한 대종은 종신 표면에 명문이 가득히 각자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국가 보물 제479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었으나 2005년 4월 5일 낙산사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어 그 잔해만이 몇 조각 남아 있다. 제9대 성종은 왕 원년 경인(庚寅, 1470년)에 교지를 내려 전답(田畵)과 노비를 하사하고 노역을 견감하여 일부분을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며 사찰땅을 면세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찰 부근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고 절산[寺山]의 벌목과 방화를 금지시켰다고 하니 역시 낙산사의 역사적 위상과 이에 상응하는 보존대책이 철저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왕 2년(1471년)에는 선학(仙鶴)이 용선전과 영산전, 어제루, 승당 등을 보수하고 단청을 하여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4년 뒤인 왕 6년(1475년)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들이 선학이 복구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었었는데 제14대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침략방화로 관음전과 관음상, 정취전, 금불상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인 제15대 광해군 11년 기미(己未, 1619년)에 관음굴을 중건하였고 제16대 인조 9년 신미(辛未, 1631년)에 낙산사에 또 불이 나 화주(化主) 종밀(宗密)과 학조(學祖) 등 36명이 중심이 되어 마음을 합하여 낙산사를 중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 21년 계미(癸未, 1643년)에 낙산사에 또 화재가 일어났으며 이때에 화주 도원(道源)대

주(大珠) 등 45명이 중심이 되어 사찰을 중건하였다. 이후 제19대 숙종 9년 계해(癸亥, 1683년)에 관음굴의 불상을 개금불사할 때 1과의 명주(明珠)가 공중에서 내려졌는데[落下] 이때 석겸(釋謙)스님이 명주를 보존장엄하기 위하여 탑을 건조하여 왕 9년 그 해에 준공하였다고 한다. 현재 홍련암 관음굴로 가는 길 왼쪽 언덕위에 「공중사리탑」이라 칭하는 석조건조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낙산사사리탑」으로 이때에 건조된 것이다. 이후 왕 20년 갑술(甲戌, 1694년)에 이 공중사리탑에 따르는 「공중사리탑비(空中舍利塔碑)」를 건립하여 현재 홍련암 입구 왼쪽에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왕 23년 정축(丁丑, 1697년)에는 정수(精粹)스님이 인월암(印月庵)을 창건하여 임진왜란으로 폐허된 낙산사는 크게 변모, 번창하게 되었다. 제21대 영조 13년 정사(丁巳, 1737년)에 석겸(釋謙) 등이 사적을 판각(板刻)하여 사찰의 역사를 엮었으며 왕 28년 임신(壬申, 1752년)에 진린(眞麟)스님이 관음굴을 중수하여 낙산사는 더욱 면모를 일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22대 정조 원년(丁酉, 1777년)에 낙산사에 큰 화재가 일어나 원통보전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이 모두 타버렸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왕 2년 무술(戊戌, 1778년)에 운학(雲鶴)등이 화주가 되어 낙산사를 중건하였는 바 이때에 영읍(營邑)의 지휘로 양양의 12면민들을 역사(役事)에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왕 21년 정사(丁巳, 1797년)에는 이 절의 스님 혜민(惠旻)이 관음굴을 중건하여 홍련암의 비중이 컸음을 알게 한다. 한참 후인 제25대 철종 원년 경술(庚戌, 1850년)에는 경봉, 염진, 공념 등이 화주가 되어 원통보전과 용선전을 중수하였는데 제26대 고종 3년 병인(丙寅, 1866년)에 큰장마 비[潦水]로 인하여 홍련암이 도괴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왕 6년 기사(己巳, 1869년)에 의연(義演)이 화주가 되어 홍련암을 중건함으로써 홍련암의 전통성과 귀중한 도량임을 알게 하였다. 왕 25년 무자(戊子, 1888년)에 이 절의 스님인 선학이 빈일루를 중건하고 왕 28년 신묘(辛卯, 1891년)에는 이 절의 스님인 응암과 선학 등이 용선전을 중건하였으며 어실각을 중수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선학과 인파스님이 영산전을 중건하여 붉은 단청을 아름답게 하였으며 왕 32년 을미(乙未, 1895년)에 선학 스님이 승당을 중건하였다. 고종 말엽의 대한제국 광무 9년 을사(乙巳, 1905년)에 경은(敬隱) 스님이 선당(禪堂)과 후각(後閣) 등을 복구하였으며 한편 제27대

순종(純宗) 융희(隆熙)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관음굴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반드시 기록해놓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으니 도량 입구의 천왕문에 안치된 사천왕상과 담장, 홍예문이다. 사천왕상은 조선말기의 명장 김주성이 조성 안치한 것으로 이름이 났었다. 담장은 원통보전의 뒤편을 에워 쌓은 담으로 적토(赤土)로 빚은 기와와 화강암 석재를 배열한 것이며 높이 4m, 둘레 30여m이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 재질의 담장은 희귀한 것이며 낙산사원장(垣牆)이라는 명칭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었다. 홍예문은 낙산사 도량 경내 입구에 쌓은 문으로서 초기에 제7대 세조의 뜻에 따라 각 고을의 군수가 석재를 하나씩 모아서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다. 즉 홍예문은 일반적인 형태의 반월형 문루인데 화강암 석재 26개를 긴 사각형으로 다듬어서 반월형태의 문을 만들은 것이다. 이 26이라는 숫자는 당시 강원지부(江原之部)의 고을 숫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당시 강원도에는 26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 전체의 숫자로 홍예문루를 축조하였음은 강원도 고을 전체, 강원도 도민 전체의 합심에서 낙산사의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낙산사의 사적들을 살펴보았다. 낙산사는 국초부터 국왕들의 주목하던 사찰로 조선 말엽까지 꾸준한 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국왕이 직접 행차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명에 의하여 불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 낙산사의 불사는 소실과 중창, 파손과 중건 등 계속적인 사찰 복구사업이 진행되었었다. 조선시대의 배불숭유 정책하에서 이렇듯 불사가 이루어졌음은 왕실과 당국의 비호가 크게 있었음을 말해준다. 낙산사의 위치가 양양지역으로 이 지역의 불교교세와 신봉의 상황, 승려들의 위치, 위상 등 모든 사안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심이 낙산사였으며 나아가 동해안의 불교중심이 바로 낙산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동해안의 불교중심은 곧 양양지역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신흥사의 변화

고려시대에 번창했던 신흥사의 면모는 조선시대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제14대 선조 25년 임진(壬辰,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9층탑이 파괴되었고 제16대 인조 20

년 임오(壬午, 1642년)에는 화재로 사찰이 완전히 타버렸다. 이후 곧 왕 22년 갑신(甲申, 1644년)에 이 절의 스님인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등이 중창을 발원하던 중 하루는 세 승려가 똑같이 소림암(小林庵)으로부터 나타난 산신이 “이곳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재(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다.”고 일러주는 꿈을 꾸고 선정사 옛터 아래쪽 약 10리 지점에 다시 절을 중창하고 이름을 「신흥사」라 하였다.〔(禪定寺古址下十里地重建神興寺改名)〕 그 후 신흥사는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신흥사라는 절 이름은 임진왜란 이후 제16대 인조 22년에 바뀌어진 것이다. 이때에 큰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사찰의 명칭도 신흥사로 개명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사적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산중에서는 용암대사가 능인암(能仁庵)을 옛자리에 중건하고 내원암(內院庵)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왕 25년 정해(丁亥, 1647년)에 이곳 신흥사의 승려인 영서 연옥 혜원이 발원하여 대웅전을 건립함으로써 신흥사의 면모는 더욱 짜임새 있는 도량이 되었다.

제17대 효종 원년 경인(庚寅, 1650년)에 국왕의 내전(內殿⇒大內)으로부터 향로1좌를 하사받아 보내왔으니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흥사의 위상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제18대 현종 2년 신축(辛丑, 1661년)에는 해장전(海藏殿)을 창건하고 법화경, 중예문, 결수문, 청문등의 판본(板本)을 수장하였다. 제19대 숙종 41년 을미(乙未, 1715년)에 설선당(說禪堂)이 화재로 타버려 왕 43년 정유(丁酉, 1717년)에 이르러 이 절의 스님인 취진(就眞) 익성(益成) 등이 설선당을 중건하였다. 제21대 영조 원년 을사(乙巳, 1725년)에 해장전을 중수하였고 왕 13년 정사(丁巳, 1737년)에는 명부전을 창건하고 지장보살상을 소조로 조성하여 안치하였다. 왕 16년 경신(庚申, 1740년)에 이 절의 스님인 퇴운(雷雲) 퇴응(雷應) 퇴상(雷尙) 등이 사찰 건물들 지붕의 번와불사를 하였고 왕 24년 무진(戊辰, 1748년)에 원각거사가 대종(大鍾)과 중종(中鍾) 금고(金鼓) 각 1좌식을 주성하였다. 다 음해인 왕 25년 기사(己巳, 1749년)에는 이 절의 스님인 각중(覺重)등이 대웅전을 중사 하였으며 왕 37년 신사(辛巳, 1761년)에 홍징(弘徵) 홍운(弘運) 스님 등이 대웅전의 둘째단을 축조하였다. 왕 46년 경인(庚寅, 1770년)에는 대웅전과 보제루를 중수하였고 왕 50년 갑오(甲午, 1774년)에 준용대사가 불상과 보살상을 개금하여 모셨다.

제22대 정조 9년 을사(乙巳, 1785년)에 이 절의 준경 스님이 안양암(安養庵)을 창건

하였으며 왕 12년 무신(戊申, 1788년)에는 화주 홍한(弘漢)이 대종과 금고를 개주하였고 이 절의 인곡(麟谷) 스님이 해장전을 중수하였다. 왕 21년 정사(丁巳, 1797년)에 이 절의 창오(暢悟) 거관(巨寬) 스님이 주선하여 명부전을 중수하였으며 호엽(昊葉) 처기(處琦) 시택(始澤) 의유(毅有) 스님들이 해장전을 단청하였고 왕 22년 무오(戊午, 1798년)에는 10왕상(十王像)을 깨끗이 색채를 개칠하고 지장탱화를 조성하여 신흥사도량이 점차적으로 정비되고 있었다. 제23대 순조 원년 신유(辛酉, 1801년)에 이 절의 벽파(碧波) 창오 스님들이 용선전을 창건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왕 13년 계유(癸酉, 1813년)에는 이 절의 주운(周雲) 철수(喆修) 윤찬(潤贊) 스님들이 불이문(不二門)과 단속문(斷俗門)을 건립하는 한편 벽파 창오 부총 승기 스님 등은 보제루를 중수하였다. 왕 21년 신사(辛巳, 1821년)에 거관 근민 부총 승기 창오 스님들이 발원하여 극락보전을 중수하였다. 왕 27년 정해(丁亥, 1827년)에 극락보전에 단청불사를 하였고 왕 29년 기축(己丑, 1829년)에는 화주 법한(法閑)이 중종 1좌를 주성하였다.

제25대 철종 9년 무오(戊午, 1858년)에 벽하와 명성 스님들이 16나한을 구월산패섭사(九月山貝葉寺)로부터 해장전(海藏殿)에 옮기고[移安] 해장전의 경판을 대웅전으로 옮겼으며 해장전의 명칭을 응진전이라 고치는[改額] 한편 소향각을 건립하였다. 왕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인하여 불타버리매 혜봉(慧峰) 스님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때에 이르러 왕 3년 병인(丙寅, 1866년)에 이 절의 만우(萬愚) 스님이 안양암의 번와불사를 행하였으며 왕 8년 신미(辛未, 1871년)에는 화주 상념(尙念)이 적묵당을 중수하였고 이 절의 설월(雪月) 스님이 적묵당의 후각(後閣)을 건립하였다. 왕 12년 을해(乙亥, 1875년)에 이 절의 보림(普琳) 스님이 안양암의 불상을 개금하였고 왕 19년 임오(壬午, 1882년)에는 경봉(經峯) 스님이 내원암의 독성전(獨聖殿)을 건립하고 신중탱화를 조성하였다. 왕 22년 을유(乙酉, 1885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불타버렸으며 경봉 스님이 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왕 27년 경인(庚寅, 1890년)에 진영각(眞影閣)이 퇴락하므로 진영을 운하 스님雲霞적묵에 옮겨 모셨다. 이때에 응화대사(應化大師)가 계조암의 삼성각(三聖閣)을 창건하였다. 왕 28년 신묘(申卯, 1891년)에 내원암의 후불탱과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29년 임진(壬辰, 1892년)에 진영각이 퇴락 파손되니 이 절의 선악(仙岳)스님이 진영각에서 수습한 재목(材木)으로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동고(東杲)와 연월(蓮月) 두 스님이 모연(募緣)하여 십왕상을 다시 칠하고 진요사건물을 수리하였다. 왕 39년인 대한제국 광무 6년 임인(壬寅, 1902년)에 이 절의 경은 스님이 대웅전과 요사건물의 번와불사를 실시하였고 왕 42년 광무 9년 을사(乙巳, 1905년)에 이 절의 만월 스님이 불상을 개금불사하고 탕화를 채색주수(重彩)하였다. 제27대 순종(純宗) 2년, 즉 대한 융희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동암(東庵)이 계조암을 단청칠하여 정리하고 동구가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안치하였다. 왕 3년 융희 3년 기유(己酉, 1909년)에 용선전이 퇴폐하였고 융희 4년 경술(庚戌, 1910년)에 응진전이 화재로 인하여 크게 불에 탔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신흥사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를 기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설악산 동쪽 산기슭에 자리한 이곳 신흥사가 고려시대의 성찰이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사찰이 전소되었다. 그러나 여러 고승대덕들이 신흥사에 주석하면서 법등을 크게 밝히고 불사를 일으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찰에서 큰 변을 당한다는 것은 화재사건이다. 건물이 부분적으로 퇴락하고 헐어지면 목부를 갈고 새기와를 얹으면 된다. 그러나 화재가 나면 잿더미밖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건물들의 중창과 중건 보수불사가 있게 되는데 모든 일이 신심과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 곧 교세이고 사세(寺勢)와 위상인데 신흥사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각종불사가 끊이지 않았다. 건물에 화재가 나면 곧 중건하고 훼손된 부분은 보수하며 각종 불구(佛具)도 새로이 조성 봉안하였다. 소속암자들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졌고 신흥사 홍융의 길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으며 동해안의 낙산사와 더불어 양양지역의 불교중심, 포교중심의 도량으로 등축이 크게 밝혀졌었던 사찰이었다.

### 3) 진전사의 변화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에도 선종의 근본도량으로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 수행 사찰로 번창한 진전사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국초에는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었으니 이곳에서 발굴조사한 기와 중에 「성화삼년(成化三年)」의 명문이 있는 암막새기와



가 발견되어 제7대 세조 13년(1467년)에 중창과 번와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소실 폐사되었음인지,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서와 모든 문헌에 진전사관계기록은 없으며 이곳의 발굴 유물 중에도 왜란 이후의 관계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현산지』에 「고탑(古塔)」이 있다 하였고 또한 현산지에 「서북쪽 30리에 둔전사(屯田寺)가 있었는데 폐사되었고……고탑(古塔)을 둔전탑(屯田塔)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진전사가 폐사되어 오랫동안 중창·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사지에 다만 석탑1기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폐사된 사찰명을 동리명칭을 인용하여 「둔전사」라 하고 진전사석탑이 오래된 신라시대의 석탑이니 고탑이라 일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진전사지에서 낙산사가 가깝고 신흥사도 멀지 않으나 이 두 사찰에 비하여 산간의 좁은 도량이고 하 여 진전사의 중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는 등축을 밝히지 못하였던 도량이었음을 알겠다.

#### 4) 영혈사의 모습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고려시대 이래의 도량이 유지되었었는데 제19대 숙종 14년 무진(戊辰, 1688년)에 불이나 모두 타버렸다. 왕 16년 경오(庚午, 1690년)에 이 절의 취원(聚遠) 스님이 영혈사를 중건하고 절 명칭을 영천사(靈泉寺)라 개칭하였다. 그 연유는 이 절의 서쪽편에 「영천(靈泉)」이 있어 약수물로 이름이나 이 약수를 마시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운상계(雲上界)에서 넓은 천하를 굽어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만병통치의 약수라는 샘물이 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취원 스님은 영천사 동남쪽에 취원암자를 창건하였다. 왕 42년 병신(丙申, 1716년)에 이 절의 학천(鶴天) 스님이 영천사 북쪽 산기슭 10리 되는 곳에 학소암자를 창건하였다. 제21대 영조(英祖) 40년 갑신(甲申, 1764년)에 이 절의 묘각(妙覺) 스님이 영천사의 서쪽 기슭에 백학암자를 창건하였다. 제23대 순조 26년 병술(丙戌, 1826년)에 이르러 학조암이 폐사되었고 제25대 철종 4년 계축(癸丑, 1853년)에는 백학암이 파괴되었다.

제26대 고종(高宗) 18년 신사(辛巳, 1881년)에 신사(信士) 김중옥(金重昱)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왕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 이 절의 지화(知和)스님과 도윤(道允) 스님이 영천사를 중수하고 영혈사라 옛 절명칭을 복구하였다. 왕 37년, 대한제국 광무 4년 경자(庚子, 1900년)에 신사 김우경(金禹卿)이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광무 7년 계묘(癸卯, 1903년)에 이 절의 보훈(普訓) 스님이 칠성계를 창설하여 계금으로 밭 75두락을 사들여 향자(香資)를 받쳤으며 광무 8년 갑진(甲辰, 1904년)에는 신사 김우경이 사찰을 중수하였다. 한편 이 절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설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이 절에서 낙산사의 홍련암까지 선장(禪杖)으로 샘물줄기를 끌어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설화는 이곳 영혈사에 「영천」이 있어서 일찍부터 신기한 약수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초창기부터 1910년까지의 영혈사 사적을 대략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500년간 화재로 절이 불타면 다시 중건하고 암자를 새로이 창건, 중창, 중수하는 등 꾸준히 법등을 밝히고 있었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현지를 답사해볼 때 조선시대 대덕들의 부도(浮屠)가 여기저기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사찰의 사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양지역에서의 조선시대 불교를 살펴볼 때 영혈사는 꾸준히 등축을 밝히면서 사회교화와 불교포교의 한 면을 차지했었던 사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효대사와 홍련암과의 설화는 영혈사의 위상을 더욱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 5) 화엄사의 변화(옛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3대 태종(太宗) 원년 신사(辛巳, 1401년)에 지장암을 옛터의 동쪽으로 옮겨 세우고 미타암(彌陀庵)이라 암자의 명칭을 고쳤다. 제16대 인조 원년 계해(癸亥, 1623년)에 화엄사에 화재가 일어나 큰 손실을 보았으나 왕 3년 을축(乙丑, 1625년)에 사찰을 중건하였다. 왕 6년 무진(戊辰, 1628년)에 이 절의 광명(廣明) 승휘(勝輝) 스님이 화엄사의 서쪽에 안양암(安養庵)을 창건하였으며 광명 스님이 지장상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13년 을해(乙亥, 1635년)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화엄사가 소실되어 옛터(古址)의 동쪽 20리 되는 곳에 임시로 화엄사를 옮겨 세웠으나 그 후 왕 22년 갑신

(甲申, 1644년)에 화엄사를 본래의 옛터에 중건하였다. 제18대 현종 3년 임인(壬寅, 1662년)에 화엄사가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곧 중건하였다. 제19대 숙종 42년 병신(丙申, 1716년)에 도적들이 불을 놓아 화엄사가 불에 탔으며 다음해에 절터의 동쪽 10리 되는 무릉도(武陵島)에 초가집을 지어서 승도들의 살 곳[居住]을 제공하였다. 제20대 경종 원년 신축(辛丑, 1721년)에 사찰을 옛날 절 자리에 중건하였으며 이 절의 해성스님이 안양암자를 중수하였다. 제21대 영조(英祖) 36년 경진(庚辰, 1760년)에 대웅전과 향각, 승당(僧堂)이 화재로 불에 탔다. 그리하여 다음해 왕 37년(1761년)에 승당을 중건하고 그 다음해인 왕 38년(1762년)에 대웅전과 향각을 중건하였다. 제22대 정조(正祖) 20년 병진(丙辰, 1796년)에 국왕 정조가 미타암의 화응전(華膺殿)을 원당(願堂)으로 정하고 관음상 1위와 어병(御屏, 국왕이 내려주는 병풍)과 련(輦:궁중의 가마)을 하사받고 사찰의 사표(四標:사찰의 경내 또는 영역을 구분 표시하는 것)를 정하였다. 제25대 철종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산불로 인하여 화엄사와 암자들이 모두 불타 버렸다. 그리하여 춘담대사가 절을 중건하였는데 이때 조가(朝家:朝廷:왕실을 말함), 즉 조정에서의 은혜와 은덕[蒙惠:蒙恩]이 많았다. 한편 이 절의 춘담스님이 안양암을 중건하고 수봉스님이 탕화[佛幀]를 조성 봉안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 원년 갑자(甲子, 1864년)에 산불로 인하여 화엄사가 불에 탔으며 왕 5년 무진(戊辰, 1868년)에 지장탱화와 신중탱화, 현왕탱화를 조성하였고 왕 9년 임신(壬申, 1872년)에는 수봉스님이 사찰을 중건하였다. 왕 19년 임오(壬午, 1882년)에는 경허와 선월 두 스님이 철원군(鐵原郡)의 장구사(長久寺)로부터 미타상과 약사상을 옮겨 모셔와 봉안하였다. 왕 30년 계사(癸巳, 1893년)에 물난리[水災]로 인하여 안양암이 파손되었는데 다음해인 왕 31년 갑오(甲午, 1894년)에 축성스님이 안양암을 중수하였다. 제27대 순종(純宗) 3년, 대한제국 융희 3년 기유(己酉, 1909년)에 영운(影雲)이 안양암의 칠성각을 건립하였다.

이와 같이 화엄사의 조선시대 사적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찰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듯이 모두 절에서의 화재, 산불로 인한 화재, 또는 홍수로 물난리에 의한 사찰의 유실과 파손으로 사찰의 흥성과 쇠퇴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화엄사도 이와 똑같은 사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자연재해 속에서도 등축을 밝히면서 도량을 유지해 왔

있으며 더욱이 제22대 정조연간(왕 20년, 1796년)에는 국왕의 원당이 이 사찰에 정해지고 관음상과 병풍, 가마 등을 궁중으로부터 하사받았으며 제25대 철종 연간(왕 11년, 1860년)에 사찰을 중건함에 조정으로부터 많은 은덕이 베풀어졌다함은 화엄사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바라 하겠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배불정책의 조선시대에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법등을 밝혀 양양지역 불교교화에 공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내원암과 계조암의 변화

내원암과 계조암은 신흥사를 본사로 하여 개창하고 등축을 밝히고 있는 암자로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지리서(歷史地理書)인 『여지도서, 범우고, 관동지, 읍지, 강원도지, 현산지』 등에서 관계 기록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신흥사의 관계사적을 고찰할 때 이 두 곳의 암자에 대하여 대략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즉 내원암은 신라 자장을사가 창건한 능인암(能仁庵) 옛자리에 중건하여 암자명을 내원암이라 개칭하였으니 그 때가 제16대 인조 22년 갑신(甲申, 1644년)이었다. 이후 제25대 철종 11년 경신(庚申, 1866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소실되어 해봉 스님이 중건하였고 제26대 고종 19대 임오(壬午, 1882년)에 경봉스님이 내원암에 독성전을 건립하여 산신탕을 조성 봉안하였다. 왕 22년 을유(乙酉, 1885년)에 내원암이 화재로 불탔으며 경봉 스님이 내원암을 중건하였다. 왕 28년 신묘(辛卯, 1891년)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계조암은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오랫동안 고승대덕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의 수행도량으로 등축을 밝혀온 암자로 유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제26대 고종 27년 경인(庚寅, 1890년)에 응화(應化)대사가 계조암에 삼성각(三聖閣)을 창건하였고 제27대 순종 2년, 대한 융희 2년 무신(戊申, 1908년)에 동암(東庵)스님이 계조암을 단청 칠하여 면모를 갖추고 동고(東杲)스님은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내원암과 계조암은 설악산 심산유곡의 작은 암자이나 오랜 세월 불도들의 수도, 수행도량으로 법등을 밝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암자는 선법(禪法)이 한반도

에 정착하면서 많은 선승들을 배출하였고 어느 때나 시류를 타지 않았던 선실, 선방의 특징을 보였던 도량이라 할 것이다.

## 7) 오색석사의 변화

『현산지』에 의하면 「오색천 상류에 현곡사(玄谷寺)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사되었다. 이곳에 탑(塔)이 현존하여 오색석사(五色石寺)로 추정됨」이라 하여 「오색천, 탑, 오색석사」 등의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 내용들에서 오색천 상류의 옛절터로는 신라시대의 오색석사 옛터 뿐이다. 그리고 탑이 현존한다함은 오색석사지의 신라석탑 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모든 점을 미루어 보면 오색석사는 조선시대에 들면서 폐사되었고 오랫동안 이 폐사상태가 계속됨에 따라서 사찰명도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 8) 선림원의 상태

선림원(禪林院)에 관하여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사림사비(沙林寺碑)」라 하여 『여지도서, 관동지, 관동읍지』 등에서 관계기록을 살필 수 있다. 이들 내용에서 「사림사비(沙林寺碑), 서쪽 30리에 있다, 선림원지의 홍각선사비(弘覺禪師碑), 폐사됨」 등의 몇 가지 내용이 주목된다. 즉 선림원 옛터의 상황을 볼 때 위치가 서면 황이리 미천곡으로 사찰의 자리가 선림원지와 같다. 특히 홍각선사비는 현지인 선림원지에 보존되어 있는 석비인 것이다. 그리고 폐사되었다고 하였으니 고려일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후 다시 중창불사가 크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옛 석탑이 서 있고 석등, 석조부도, 석비 등 옛 사찰의 유적유물이 있으므로 승려들이 개인적인 수행도량을 짓고 등축을 밝혔을 것이 아닌가 한다. 현지에서 수습되는 조선시대의 기와, 자기, 토기 등 여러 파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양지역에서 이곳 선림원지는 아주 먼 곳이며 산간오지이다. 가까운 낙산사, 신흥사, 영혈사, 명주사 등 큰 사찰에 비하면 너무나 외딴 곳이어서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생각할 때 조선시대의 역불적인 사회와 정서, 사상 등이 선림원의 중창불사를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다.

## 9) 서림사의 상태

서림사(西林寺)에 관계된 기록은 『현산지』에서 약간 찾아볼 수 있다. 즉 「서쪽 30리에 있으며 폐사되었다. 석불과 석탑이 현존하는데 석불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었다고 함」. 그런데 이와 같은 『현산지』의 내용에서 「폐사되었다, 석불이 임진왜란으로 파손되었다……」하였으니 조선시대 전기까지에는 고려시대 사찰의 면모가 유지되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 폐사된 뒤 다시 중창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서림사의 위치가 양양중심에서는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산간지역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중창의 위치가 어려웠을 것인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선림원의 사정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10) 명주사의 변화(현북면 어성전리)

고려시대 전반에 창건되어 수많은 화재와 수재를 겪으면서 법등을 밝히며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사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양양지역에서도 현북면의 어성전리를 중심으로 일대의 지역에서 이곳 명주사는 사회교화와 신심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명주사에 따르는 암자의 창건을 볼 수 있었으니 제19대 숙종 2년 병진(丙辰, 1676년)에 이 절의 수영(秀瑩)스님이 향노암자를 창건하였고 왕 27년 신사(辛巳, 1701년)에 벽옥루(碧玉樓)를 창건하였으며 제22대 정조(正祖) 5년 신축(辛丑, 1781년)에는 이 절의련파(蓮坡) 스님이 원통암을 창건하고 관음보살상을 조성 봉안하였다. 제24대 현종 15년 기유(己酉, 1849년)에 원통암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에 이내 즉시 중건하였다. 제25대 철종 4년 계축(癸丑, 1853년)에 또다시 원통암에 화재가 일어나 불타버렸으나 다시 중건하였다. 왕 11년 경신(庚申, 1860년)에 명주사 본사와 원통암 청련암 운문암 향로암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이때 이절의 월허(月虛) 스님이 사재(私財)를 기울여 명주사를 중건하였고 다음해인 왕 12년 신유(辛酉, 1861년)에는 이 절의 인허(印虛) 스님이 운문암을 중건하고 만일선회(萬日禪會)를 설치하였으며 향로암을 옛자리[古址]의 서쪽에 옮겨 세워 보련암(寶蓮庵)이라 암자 명칭을 개명하였다.



제26대 고종(高宗) 원년 갑자(甲子, 1864년)에 이 절의 학운(鶴雲) 정원(正原) 스님이 개인재산(私財)을 털어 원통암을 중건하였다. 왕 15년 무인(戊寅, 1878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에 왕 16년 기묘(己卯, 1879년)에 명주사를 중건하였다. 왕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는 이 절의 일봉(日峯) 스님이 용선전(龍船殿)을 건립하였다. 왕 34년 대한제국 광무 원년 정유(丁酉, 1897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으며 이후로는 원통암에서 사찰의 여러 가지 사무(寺務)를 행하게 되었으니 이때의 명주사는 원통암을 칭하였던 것이다. 왕 36년 대한 광무 3년 기해(己亥, 1899년)에 향로전을 중건하였으며 왕 43년 대한 광무 10년 병오(丙午, 1906년)에 원통전을 중건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명주사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어떠한 상황으로 유지되었는가를 기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역시 다른 사찰들과 같이 화재가 종종 일어나 명주사 본사는 물론 소속암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하였었다. 그리하여 사찰이 중창되고 암자의 건물들이 중건되는 등 본사와 암자들의 면모는 그대로 유지되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광무 원년(1897년)에 명주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원통암에서 사무를 보고 제업무를 행하게 됨에 지금의 명주사는 본래 원통암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등축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었으니 명주사는 이 곳 일대의 모든 교화에 진력하였던 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양양지구의 불교가 어떠한가를 대략 살펴보았다. 그런데 배불숭유의 국시로 창업한 조선시대의 양양지구 불교는 뜻밖에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모든 사찰이 큰 화재로 법당 건물을 비롯한 부속건물이 소실되면 곧 중창, 중건하였고 때로는 새로운 전각들도 건립하였다. 그러므로 항상 등축을 밝히는 도량이 많았고 어떠한 사찰은 국왕의 행차가 있었으며 왕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물(儀物)들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예컨대 낙산사는 국초때 태조는 원년(1392년)부터 춘추로 사신을 보내어 삼일재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후 매년 규칙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제7대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향폐를 헌상하고 낙산사를 중창토록 하였다. 제8대 예종은 교지를 내려 절의 건물들을 중건하고 대중을 주조토록 하였으며 경작지와 노비를 내렸다. 제9대 성종도 교지를 내려 전답과 노비를 하사하고 노역을 건감, 사찰땅을 면세토록 하였다. 제17대

효종은 내전으로부터 향로 1좌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제22대 정조는 화엄사의 미타암 화응전을 원당으로 정하고 관음상과 병풍, 궁중의 가마를 하사하며 사찰의 영역을 표시하는 사표(동·서·남·북의 표석)를 정하도록 하였다. 제25대 철종 때 화재로 소실된 화엄사 본사와 암자들을 중건할 때 조정으로부터의 은덕이 많았다.

이와 같이 궁중에서 직접 사은을 받았던 낙산사와 화엄사의 위상과 그 교세, 도량의 광명이 대단하였을 것인바 이밖에 신흥사 영혈사 내원암 계조암 명주사 등 많은 사찰과 암자들이 화재와 수재로 온갖 재난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법당과 부속건물들을 중건 보수하여 법등을 밝히면서 도량의 면모를 갖추었으니 조선시대 양양지역의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면면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7. 근·현대

조선 제27대 순종(純宗) 4년 경술(庚戌,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의 강제합방으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화된 「경술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1945년 8·15광복 때까지 36년간을 일본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해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의 2010년이 일제강점해인 1910년에서 꼭 100년이 된다. 100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었으니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강토가 폐허되다시피 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황폐해졌고 불교계의 종파다툼으로 사·암의 질서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장·절에 있어서는 양양지역을 중심한 일제강점기의 각 사찰의 상황과 변모를 살펴보고 광복 후,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의 여러 가지 사정,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찰들의 변화된 면모 등을 기록과 현지답사에서 밝혀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시대설정을 근대와 현대의 불교라 하여 「근·현대」라 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모든 사찰이 여러 가지 사정, 여건에 따르는 사찰의 변모를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찰별로 검토하려고 한다.

## 1) 낙산사의 변화

1910년 이후 1911년 신해(辛亥) 12월에 김백월(金白月) 스님이 낙산사의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해에 화주 흥운(興雲) 청호(淸湖) 두 스님이 1908년도에 파손된 관음굴을 중건하였다. 1912년 임자(壬子)에 낙산사는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 건봉사에 속하는 사찰)가 되었다. 이해에 이절의 해성(海星)스님이 빈일루를 중건하였다. 1914년 갑인(甲寅)에 이르러 해성 스님이 천왕문을 중건하고 천왕상을 다시 채색하는(改彩)불사를 하였으며 이해 12월에 윤설호(尹雪昊)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여 요사체를 수리하였다. 1918년 무오(戊午) 5월에 이응호(李應湖)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법전과 요사를 칸칸마다 수리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 4월에 김규현(金奎鉉)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여 사찰과 도량 전체를 수리하고 임목(林木)을 더 많이 심도록(增植) 하였다. 다음해인 1925년 을축(乙丑)에 의상대(義湘臺)를 창건하여 1928년 무진(戊辰)에는 낙산사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불사 건축물로 원통전 9칸 영산전 6칸 용선전 6칸 대성문 3칸 음향각 12칸 설선당 49칸 빈일루 8칸 조계문 3칸 천왕문 6칸 범종각 1칸 해우소 4칸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으니 이렇듯 11동의 대·소 불사건물이 가득히 들어서 짜임새 있는 낙산사 도량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 경오(庚午)에 화재로 인하여 사찰 일부가 소실된 것을 1932년 임신(壬申)에 만옹 스님이 중건하여 양양지역 제일의 도량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이후에 더욱 이름난 사찰로 전국에 낙산사 이름을 떨쳤던 바 1950년 경인(庚寅)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사찰 전체가 소실되었다. 6·25 한국전쟁으로 입은 참화를 다 말할 수 없으나 전국 각지의 사찰들을 보았을 때 심산유곡, 깊은 오지에까지도 전화로 소실 파괴되어 어떤 사·암은 폐사지경에 이른 곳도 많다. 특히 낙산사는 평지가람으로 남북한 통로에서도 가장 큰길가로 요충지라 하겠다. 그러므로 낙산사가 폐허화 되었었다함은 이해가 될 것이다.

1953년 4월 당시 이형근 1군단장이 폐허가 된 낙산사 절터에 원통보전과 범종각 등을 복구하여 스님과 신도들이 주석하며 예불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7층석탑도 중수하였다고 전한다. 1972년에는 원철(圓徹) 스님이 중심이 되어 중창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더욱 복구사업이 진행되어 1983년에 고향실, 무설전, 무이당을 해

체 복원하고 1988년 범종각을 신축하였으며 1996년에는 심검당을 새로이 건립하였다. 1999년에는 「근행당」을 건립함으로써 낙산사의 복원불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옛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2005년 4월의 산불 화재로 낙산사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어 잿더미만 남게 되었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화강암으로 치석하여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입상(海水觀音立像)을 조성 봉안하였는데 석재는 전라북도 익산의 채석장에서 반입한 것으로 흔히 「황등돌」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때에 소요된 석재는 750톤이라고 한다. 조각가 권정환에 의하여 1972년 5월에 착수되었으며 5년만인 1977년 11월 6일에 완성 점안하였다. 높이 16m, 둘레 3.3m의 규모이며 대좌의 앞부분은 쌍용상이, 양 옆으로는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한 송이 연꽃으로 된 연봉 위에 관음보살상을 안치하였다. 이 관음입상은 왼손에 감로수병을 받쳐들고 오른손은 천의 자락을 가볍게 잡고 있으며 이마에는 백호가 있어 온누리에 퍼지는 자비의 광명을 상징하고 있다. 거대한 입상이어서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원만한 상호와 정제된 각부의 조각, 균형이 잡힌 동체 각부와 체감 등이 근래에 보기 드문 거룩한 입상이라 하겠다. 이 석조해수관음입상은 2005년 4월의 산불화염에 휩싸이지 않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화재 이후 1년 6개월에 걸친 두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모든 건물의 유구가 잘 나타나서 복원 불사에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인화문 토기편과 고려시대의 막새기와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명문기와 등 인데 낙산사 창건으로부터 1340년간의 중창과 중건불사 등 유구한 낙산사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되고 있다. 발굴조사 이후 금곡정념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낙산사의 중창 불사가 진행되어서 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원통보전, 범종루, 심



낙산사 도량(원통보전과석탑)



낙산사전경(중창복원불사가 한창임)

검당, 취숙헌, 선열당, 홍예문누각, 홍련암연화당. 해우소가 신축되었고 2009년에 이르러는 빈일루, 대성문, 설선당, 근행단, 응향각, 정취전, 송월료, 고향실, 취숙헌, 해우소가 새로이 건립되어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낙산사에는 원통보전 앞마당에 7층석탑(보물 제499호), 원통보전의 주존으로 모시고 있는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2호)을 비롯하여 강원도지방문화재인 홍예문, 의상대, 공중사리탑, 담장, 홍련암 등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낙산사동종도 보물 제479호로 지정 보존되어 조선시대 전기인 제8대 예종 원년(1469년)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법종이었으나 2005년 4월의 화재로 불타버린 잔해만이 남아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편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 「양양낙산사사리탑」은 언제인지는 모르나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으며 필자가 1953년도에 이곳을 답사했을 때에도 기울어져 있어서 당시에는 일찍이 사리장엄 도굴배들의 만행에 의한 피해로 여겼었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산불로 인한 낙산사화재 때 주위의 수목이 모두 소실되어 이 사리탑도 화염에 싸여 큰영향을 받아 각부의 석재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부분들을 과학적 보존작업을 진행하며 또한 서쪽으로 기울어진 사리탑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옥개석을 들었을 때 탑신석 상면의 중앙에서 원형사리공(圓形舍利孔)내에 뜻밖에 사리장엄을 봉안하였음이 원형(原形)대로 발견되었다. 사찰측의 증언에 의하면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사리탑을 해체하던 중 탑신석 상면중앙의 원형사리공(직경 23cm, 깊이 17cm)안에 모든 사리장엄이 봉안되었음을 발견하여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2006년도 4월) 1년전(2005년 4월)의 일로…….

「비운(悲運)의 낙산사」라 할 정도로 큰화재를 당하여 가람전체가 화염에 회진되었는데 이러한 화마속에서도 의연히 사리탑이 건재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모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호 아래 모든 불자와 산문대중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경하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사리장엄의 발견조사로 장엄은 물론 사리탑의 건조연대를 알 수 있고 그 당시 사리봉안의 형식과 의물[形式·儀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여기에 그 대략을 적음으로써 낙산사사리탑에 대한 모든 이해와 위상과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사리장엄은 노란색 비단보자기에 싸여있는 둥근형태의 청동합(靑銅盒)내에 4점의

노란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싸고 연분홍색의 비단 3매로 빈틈없이 에워싼 가운데 원형의 은제합(銀製盒)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은제합안에 2겹의 푸르고 누런 색색의 길상문과 만(卍)자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한 비단으로 싼 원형의 금제합(圓形金製盒)을 안치하고 주변에 4꼭지의 다라니가 보호하고 있다. 금제합 안에는 색동비단 1겹으로 싼 자주색 유리제 원형의 사리호를 받들고 그 안에 불사리 1과를 흰색[白色] 명주솜 보료위에 봉안하였다. 청동제의 외합은 높이 13cm, 직경 16cm 크기로 푸른색의 녹이 덮혀 있다. 은제합은 높이 9cm, 직경 8cm의 크기로 다소 변색되었으나 환한 은색은 분명하다. 금제합은 높이 6cm, 직경 5cm의 크기로 황금색이 찬란하며 당초 그대로의 형태와 금색(金色)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사리 장엄에서 친견한 불사리는 0.8cm×0.6cm의 대형 진신사리(眞身舍利)로 영롱하기 이를 데 없고 유백색(乳白色)으로 서광이 비치며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사리의 매끈한 형태와 빛나는 발색 등 모든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신라시대부터 봉안했던 불사리임이 틀림없다. 청동합 내에는 한지에 글자직경 1.5~2.5cm 크기의 해서체로 주서(朱書)한 연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4매로 이어졌으며 크기는 너비 27.5cm 길이 222cm이다. 종이의 재질은 질기고 얇은 옛 한지로서 이 연기 역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주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康熙三十一年 龍集壬申六月初十日(강희삼십일년 용집임신유월초십일)

奉祝(봉축)

主上殿下 壽萬歲(주상전하 수만세)

王妃殿下 壽齊年(왕비전하수제년)

世子邸下 壽天秋(세자저하수천추)

天下泰平法輪轉(천하태평법륜전)

施主(시주) 崔來泰(최래태)

施主(시주) 芳名于后(방명우후)……

라 하고 다음으로 비구와 각종 장엄조성 봉납 시주자들의 이름을 가득히 적었다. 첫머리에 강희(康熙) 31년이라는 절대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제19대 숙종 18년(1692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강희 31년의 절대연대와 용집(龍集)이라는 옛부터 사용하였던 분명한 연대 표시의 용어, 그리고 국왕을 비롯한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과 국태민안을 기원한 발원이라 하겠다. 이밖에 청동합 내에는 19매의 주서범자한지편(朱書梵字韓紙片)이 함께 보존되었는데 그중 제일 큰 한지에는 첫머리에 산중석덕(山中碩德)이라고 하고 현륜(玄輪)을 비롯한 7인의 비구,姜예선(姜例善)을 비롯한 4인의 처사 이름이 적혀있으며 원이불도(願以佛道)라 막음하였다.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사리장엄의 내용, 봉안방법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사실과 여기에 따른 각종 직조물, 한지 등에 관해서도 시대성을 잘 알 수 있으려니와 특히 이러한 장엄을 봉안한 공중사리탑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리장엄 발견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사리탑은 의상대와 망망동해를 굽어보는 언덕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현재가 원위치인데 높이 3.35m로 2매의 장대석 지대 위에 기단을 구성하고 그 위에 탑신석과 옥개석, 상륜부를 차례로 중첩한 형태이며 신라 이래 전형적 양식으로 건조한 8각원당형의 일반형 석조부도 형식이다.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으며 1석으로 조성한 하대석 8각의 각 면에 2주의 안상 내에 태극문을 조각하고 상면의 각 변과 모서리에 1판씩 도합 16판의 단엽 복련을 장식하였는데 연판의 끝부분을 양쪽에 고사리문으로 장식하였다. 하대석 위의 중대석도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상·하단면에 괴임대와 받침대를 양각하여 마치 액(額)처럼 보인다. 그리고 중대석 각 면의 모서리에는 큼직한 연주(連珠)를 장식한 듯 절목형(節目形)의 기둥을 세우고 각면에는 태선(太線)을 엮어놓은 곡선문을 조각하였다. 그 위에 1석으로 조성한 상대석을 놓았는데 상대석 하면에는 각변과 모서리에 1판씩 도합 16판의 단엽 양련을 돌리고 측면 각 모서리에는 중대석 각 모서리와도 같은 절목문 기둥을 세웠으며 각 면에는 안상 1구씩을 장식한 안에 범자를 1자씩 음각하였다.

탑신석도 1석으로 조성하였으며 평면원형으로 이 사리탑에서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인데 원구형(圓球形)의 탑신석 상·하를 절단하여 각기 상·하 부재를 안정하게 접합하였으며 하단부에는 큼직한 양련형을 돌렸다. 옥개석 하면은 탑신석 위에 놓이는 부분에 낮은 원형의 원호 받침으로 옥개석이 들어맞게 하였고 전각에 이르는 널찍한 처마의 8각에 원호의 선문을 각출하였다. 옥개석도 1석 조성인데 완만한 곡선으로 전각을 이루

있고 낙수면 상단부에는 각 모서리에 큼직한 단엽 1판씩 도합 8판의 복련을 조각하였다. 그 상단부에 큼직한 연주문을 돌리고 상륜부를 받고 있는데 1석으로 이루어진 상륜은 평면이 원형이며 하단에 단엽의 입상형(立狀形) 양련을 돌리고 그 위에 2단의 연주문과 보륜을 장식한 상단에 보주를 조각하였다. 보주에도 입상형 양련을 장식하여 전체적으로 화사한 상륜부임을 느끼게 한다. 이 사리탑은 건조연대가 조선 제19대 숙종18년(1692년)으로 확실하고 각부의 조각들이 주목되며 더욱이 탑신석이 원구형인 것은 신라 이래 고려, 조선시대 초기에 간혹 특수형부도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으로 주의를 끈다고 하겠다. 한편 이 사리탑에서 홍련암으로 갈 때 암자 가까이에 『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海水觀音空中舍利碑銘)』이라 제(題)한 석비 1기가 서있어 사리와 사리탑의 관계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이 석비는 높이 2.15m로 비문내용은 조선 제19대 숙종 9년(1683년) 계해(癸亥)에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모실 때 서기가 가득차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는데 유리와 같이 광채를 냈었다고 한다. 석겸(釋謙)등이 대원을 발하여 탑을 쌓고 구슬(神珠)을 간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리비를 세운 때는 숙종 20년(1694년)이나 사리를 모신 때는 숙종 9년(1683년)이며 사리탑의 건조는 숙종 18년(1692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연대는 불사리 봉안 연기의 내용과 일치하여 더욱 뜻을 깊게 한다. 현재 홍련암 어구에 서 있는 이 사리비의 명문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으로 석비 상단에 횡으로 『海水觀音空中舍利碑銘』이라 전제(篆題)하고 길이로 비문을 해서 음각하였는데 여기의 명문은 조선시대 후기의 여러 금석문(金石文) 관계 자료에 소개되어 있음을 부언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리탑을 일반적으로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이라 칭하는데 바로 이 『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의 석비에 따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사리장엄이 발견안치 된 때는 2006년 4월28일이었는데 낙산사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지에 간 것은 4월30일이며 이때 필자는 향상하고 있는 사리친견의 예의대로 친견조사를 진행하였다. 5월 11일에는 장엄들을 정리하고 5월 18일에 공개친견토록 하였으며 6월 12일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보존문제와 친견법회개최 등을 논의하여 사찰측의 기획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에 봉안했던 사리장엄은 내·외합의 희귀성과 특히 각종기물을 에워싼 비단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성보들이라고 이 방면 연구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의 큰 과제는 사리탑과 사리장

엄의 보존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보자기와 보료 등 비단 견직물들에 대한 깊은 연구와 보존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리장엄의 발견과 친견, 조사 공개발표에 이르기까지 제반 편의와 후원을 주신 낙산사 금곡정념 주지스님과 대공 재무스님의 심려인데 이 방면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깊은 감사를 드릴 뿐이다.

낙산사는 양양지역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유명한 사찰이다. 창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그 위상은 대단하다. 배불승유가 국시였던 조선시대에도 국초부터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관계가 깊었었다. 그리하여 항상 법등을 크고 밝게 비치며 많은 불자가 운집하였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본사도량에 못지않은 불사와 불교행사가 성행하였던바 최근에는 사리탑에서의 사리장엄 친견으로 더욱 불도들이 많이 찾아와 예불을 올리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아 교통이 편리하고 동해안의 명승지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어 관광객들까지 방문성황을 이루는 불교중심사찰이 되고 있다.

## 2) 신흥사의 변화

한국의 모든 사찰이 그러하였듯이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면서 사찰교구제에 따라 본말사(本末寺)가 확연해졌다. 신흥사도 예외일수가 없었으니 1912년 임자(壬子)에 신흥사는 건봉사(乾鳳寺)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홍홍운이 주지스님에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경술치욕해인 1910년에 응진전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뒤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응진전을 1919년 기미(己未)에 중건하였다. 1921년, 신유(辛酉)에 법전(法殿)과 요사건물을 수선하였으며 12월에 이동연(李東衍)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에 설선당후각(說禪堂後閣) 32칸을 중건하였으며 10월에는 이춘성(李春城)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해에 산불로 인하여 산림의 대부분이 불에 탔는데 화목(火木)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논[畓] 14두락을 사들였다.(買入)

이때 신흥사의 속암(屬庵)으로는 계조암·내원암·안양암·동암·백화암 등이 있어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소림암·반야암·동토굴·서토굴·안심암·세진암·선일암 등이 신흥사 초창 때인 향성사의 암자들이었는데 창건과 폐사의 관계내용은 알 수 없다.

극락암·지무암·향노암·상원암 등은 선정사 때의 암자들이었는데 창건과 폐사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동암과 백화암은 신흥사 때의 암자이나 폐사연대는 알 수 없다. 한편 신흥사는 오래인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고승 대덕들의 수행도량으로 이름났던 사찰이어서 수십기의 스님들 사리탑을 모신 부도밭[浮屠群]과 이에 따르는 석비가 많이 건립되어 있다. 특히 많은 명승과 화상(和尚)의 진영이 57축이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달마조사 태고보우 청허휴정 사명유정 등 역대 고승들의 영정도 모셔져 있었다.

8·15광복 후 신흥사는 북한지역이 되었으며 6·25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과거에 이 절의 주지스님이었던 성원(聲源)스님이 여러 건물을 모두 중건 또는 중수하였고 범종도 새로 주조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니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명부전·영산전·보제루·천왕문·일주문·불이문·적묵당·설선당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당우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극락보전인데 이 법당은 조선 제16대 인조 22년(1644년)에 세운 건물로 주앙의 공포와 단청이 매우 아름답다. 유물로는 제17대 효종이 하사한 향노와 완당의 진필, 청동시루, 범종, 그리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인 경판 277매와 사천왕상 등이 보존되어 있다. 청동시루는 제23대 순조의 하사품으로 벽파가 역대왕조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것이다.

경판은 효종 때에 판각된 것으로 한자와 한글, 범어(梵語)가 혼합되어 있어 아주 희귀하며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경판은 은중경(恩重經) 전질과 법화경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범종은 보제루에 보존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을 조선 제21대 영조 24년(1748년)에 원각스님이 개주하였으나 소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왕 34년(1758년)에 홍안스님이 다시 개주하였다고 한다. 6·25전쟁 때 종신에 총상을 입었으며 1963년에 수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사천왕상은 1981년도에 조성 봉안한 것이다. 현재 일주문을 들어서면 오른쪽 편에 거대한 청동대불에 예배할 수 있다. 이 불상은 대좌와 좌상이 모두 청동으로 조성되어 전체높이 18.9m이고 좌상높이 14.5m이며 108톤의 청동이 소요되었다. 이 청동대불상은 1980년대에 해법주지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되어 이후 오현회주스님, 도후주지스님의 원력으로 1997년도에 준공하였는데 황수영, 김정기, 홍윤식, 정영호 자문

위원들의 설계심사화 조성자문으로 작가 김성호 불교미술관장에 의하여 조성 봉안된 것이다. 8각대좌는 상·중·하대로 양·복련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가부좌한 석가여래불로 남향하고 있다. 상호와 동체, 향마촉지인을 결한 수인, 연화문들의 세련된 형태, 보살과 나한 등의 수려한 조각은 가히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불상이라 하겠다. 전고 19m에 가까운 거대한 좌상은 과연 세계 제일이라는 평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

신흥사는 명산 설악산 어구에 자리잡아 설악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방문을 인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신라 이래 고려시대의 성찰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법등은 변함없이 크게 밝히고 있었으며 특히 제17대 효종 때에는 궁중에서 향로를 하사하는 등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니 신흥사의 위상을 가히 알 수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보아 설악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이곳을 경유하며 계조암과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들과 불자들, 비선대 쪽으로 가는 등산객들도 모두 신흥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항상 불도들의 예불, 등산객들의 참관 사찰로 발길이 끊일 사이가 없다. 현재 신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의 본사로 여러 말사들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나 불교 본사의 도량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이름난 대사찰이라 하겠다.



설악산 신흥사전경



신흥사 청동대불



### 3) 진전사의 변화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선종의 근본대도량으로 신라 선종의 창시자인 도의국사가 주석하여 국사의 영탑이 이곳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보배로 보존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전기에까지 법등을 크게 밝히고 있었던 사적도 앞장에서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 폐사된 후 중창을 이루지 못하고 절터만이 남아 있고 도의국사의 영탑과 석탑, 기타 석조물들만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에서 이 절터를 진전사지라 하지 않고 동리의 명칭을 따라 『둔전사』라고도 했던 것이다. 이곳은 8·15광복 후 북한 지역이어서 일찍이 조사된바 없어 진전사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며 1953년 서울수복 후 이 지역은 남한의 수복지구가 되어 답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62년도에는 개인적인 조사로 이곳을 답사하였으나 이후 1965년도부터는 공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게 되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65년 3월에 현지 답사에서 진전사 옛터의 존재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다. 크게 기울어져 곧 쓰러질 듯한 3층석탑의 상황과 석조부도가 완전히 도괴되어 각 부재가 흩어져 쌓여있음을 확인하고 절터와 석조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가지정의 문제를 당국과 논의, 강구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재차의 조사 후 석탑은 국보 제122호, 석조부도는 보물 제439호로 지정되었다. 1968년 4~5월에 석탑은 완전히 해체하여 원위치에 복원하였고 부도는 흩어진 석재들을 모아 원위치에 건립하였는데 상륜부 정상의 보주석 하나가 없어 고심하던 차에 둔전리 이장 추종삼 씨가 계곡에서 발견, 추 씨의 도움으로 올려와 상륜부의 보주까지 완전한 부도가 복원되었다.

다시 강조하려니와 진전사는 곧 신라 선종의 초전 도량으로서 종조인 도의국사가 이곳에서 선법을 전승하였고 열반하였으며 국사의 묘탑이 바로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부도인 것이다. 이렇듯 선문의 근본 대도량이 진전사일진대 이러한 도량을 중창 복원하려면 우선 옛 절의 사적과 규모를 알아야 할 것이므로 매년 2~3회씩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 전해오는 이야기, 유적유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며 앞으로의 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1974~1979년까지 6년간에 걸쳐 여름방학을 이



용하여 단국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단(단장 정영호교수)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앞으로 진전사가 중창 복원될 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세밀한 발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짧은 기간이지만 시굴에서 사찰의 규모와 건물지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발굴조사는 1974년도에 3층석탑이 서 있는 절터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금당지와 부속요사채 등의 건물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75년도에 실시한 석조부도가 위치한 절터의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와 석탑지, 부속건물 자리들이 확인되었다. 이후 1976~1979년도의 기간에는 상·하에 위치한 절터의 각 건물자리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고 나머지 부속건물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사찰의 경내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기대하기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중창복원을 계획하였으나 주춧돌과 주관, 진행 등 모든 문제가 순조롭지 못하였으며 앞으로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역의 보호, 석조물들의 보존은 매년 현지를 답사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사찰의 중창불사를 건의해왔다. 그러나 진전사 중창복원의 참뜻, 즉 진전사가 한국 선종의 초전도량이고 선문의 근본도량이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이신 도의국사가 주석하였던 중찰임은 모두 모르고 있어 논의내용이 허상에 불과할 뿐이어서 모두 일축하



진전사 도량(적광보전)

였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집」에서 무산 조오현 회주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설악산 신흥사 입구의 「청동여래좌상조성불사」때부터 깊은 심인(心印)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라 진전사의 중창 복원문제를 쉽게 풀었으며 서로의 굳은 각오를 재확인하였는데 그때 정휴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과 이용부 종무관이 합석하여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진전사의 중창 복원계획이 구체화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지현병 박사 주관)에서 현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의 배치와 건축물의 설

계도면을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곳 진전사지는 「양양진전사지」의 명칭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52호로 1982년도에 지정하여 신흥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설계도면을 잘 살피고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금당(적광보전)의 건립이 진행되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 지붕 팔작집이 완성되어 가고 서쪽편으로 길게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지붕 맞배집 요사채 건물이 완성 배치되었다.

이 불사에는 신흥사 오현 회주스님의 대원으로 신흥사주지 장공 마근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총찰 설악산진전사 중창복원불사 도감」의 직책을 맡아 큰 원력으로 2005년 5월에 완성을 보았다. 그리하여 2005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전사 금당인 「적광보전」 앞마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을 비롯하여 각 교구 본사의 주지 스님들, 각 산문의 종중 대덕들, 각 기관의 수장, 각 지방에서 도량을 찾아온 많은 불자들의 축하속에서 진전사 복원불사 첫 단계의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때의 불사는 진전사 중창 복원불사를 시작하는 첫 종이 울렸을 뿐, 앞으로의 각종 불사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금당 앞의 석탑, 도의국사의 영정각(조사전), 선실(방), 종루, 일주문 등 여러 부속 건물의 건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르는 불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원(宗正院) 건립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전사가 도의종조께서 주석·열반하여 「영탑」이 봉안되어 있는 종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3층석탑이 위치한 절터의 중창 복원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건물들의 건립도 구상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 나아가 한국의 선종 및 불교사연구가 이곳을 중심으로 보다 깊고 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4) 영혈사의 변화

영혈사는 1910년 경술치욕 후 1912년, 임자(壬子)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박원삼(朴圓三)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1915년, 을묘(乙卯) 5월에 정태호(鄭台皓)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1년 신유(辛酉) 8월에 전응조(全應祚)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축(乙丑) 4월에는 최경훈(崔景熏)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한편 영혈사에 속했던 암자로 일출암, 청련암, 취원암, 학소암, 백학암 등이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모두 폐사되었다. 스님들의 부도는 3기가 안치되어 있다. 6·25 한국전쟁 때에는 치열한 설악산 전투를 겪으면서도 다행히도 전화를 면하였다. 현재 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극락 보전과 산신각 요사채등이 있으며, 극락보전 내에는 주존불로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영혈사에는 예부터 「영천」이란 샘물이 있어 유명하였다.



영혈사 도량(극락보전)

그런데 이 절에서는 「영혈사 샘물에 관한 전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일리 설악산 동남방 관모봉 기슭에 영천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절은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지어준 절이다. 대사가 이곳에 와서 산세를 둘러보니 절터로서는 안성맞춤이나, 물이 없었다. 절 근처와 물이 날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물이 나지 아니하여 식수 때문에 폐사할 형편이었다. 대사는 간절하게 부처님께 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절 근처 한곳을 알려주며 “그곳을 파면 물 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니 거기를 파라 이 샘은 그대의 신심에 감동하여 솟은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저도 이 샘은 항상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샘 줄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치는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팠더니 맑은 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샘은 일정한 이상은 나오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많이 써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장마나 가뭄에서 샘물에 변동이 없어 「영천」이라 이름 짓게 되었고, 이 절을 「영천사」로 부르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절을 이룩한 뒤 낙산사에 가서 한 때 흥련암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암자에 식수가 없어 낙산 본사의 샘물을 길러다 먹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위하여 샘을 하나 찾아야 겠다고 며칠을 두고 물줄을 파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천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바로 그 홍련암에 샘터가 있다”고 알려주고는 “그러나 그 물줄은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샘물이 반으로 줄 것이다”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대사는 알려준 곳을 팔터니 맑은 샘이 나왔다. 반가와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 영천샘물과 물맛이 꼭 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바로 홍련암 옆에 있는 그 샘이라 전하고 있다. 대사는 처음 홍련암 샘을 보고 영천샘과 맛이 같기에 옛날 영천샘을 팔 때 꿈에 나타났던 “이 샘물이 다른데 갈리가면 이 절은 번창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낙산사는 큰 절이니 더 번창하지 아니하여도 좋고 이 홍련암도 식수가 불편하기는 하나 견디면 견딜만하다. 그렇지만 모처럼 세워놓은 영천사가 번창치 않아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련암 샘물을 막아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 막아도 한번 터진 샘은 여전히 흘러나와 할 수 없이 다시 파놓았다. 다음날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줄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영천사에 가보았다. 영천사에 이르니 그곳 중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이 절 중들의 식수를 이어줄 물밖에 안되어 밖에서 나오는 이슬이나 빗물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절이 크게 번창되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샘물이 반으로 줄어있어 뉘우쳐지는바 없지 아니 하나 홍련암에 샘물을 판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그 뒤 영천사는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명줄만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산속에 도량이 있으나 이곳까지는 참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불자들과 등산객들이 많이 탐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구동성으로 「영천」이 약수로 유명하여 이 약수를 마시기 위하여 찾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조선 제19대 숙종 14년 무진(戊辰, 1688년)에 화재를 당하였는데 왕 16년, 경오(庚午, 1690년)에 이 절의 취원 스님이 당우들을 중건하고 절의 명칭을 「영천사(靈泉寺)라 개명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서유영천고(西有靈泉故)라 하여 사찰 서쪽에 「영천」이 솟고 있기 때문에 이 영천을 명소로 생각하여 이 절의 대명사로 「영천사」라 개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6대 고종 24년 정해(丁亥, 1887년)에 영천사를 중수하고 「영혈사」라는 과거의 절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찰에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사찰 서쪽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천」이 있어 몸이 아픈 사람이 마시면 갱생하고 우울한 사람이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였다. 많은 탐방객이 와서 「영천약수」를 찾는데 이러한 유적을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5) 화암사의 변화

화암사의 위치는 현재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36-11이다. 그러나 본래는 양양군 토성면 신평리로 양양군 관할이었는데 6·25 한국전쟁 후 수복지구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에 속하게 되었다. 화암사는 창건부터 천수백 년 간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양양군 관내사찰로 법등을 밝게 비치고 있던 큰 도량이었다. 그러므로 양양군의 불교를 고찰함에는 신흥사와 더불어 화암사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화암사는 1910년 경술치욕 후 1911년 신해(辛亥)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12년 임자(壬子)에는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다. 그리고 사찰의 명칭을 고쳤으니 화엄사(華嚴寺)라 칭했던 것을 화암사(禾岩寺)라 개칭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화엄사로 불려왔으나 1912년에 이르러 건봉사의 말사가 되면서 화암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화암사」란 사명(寺名)은 오래전부터 속칭(俗稱)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쓰여지지 않다가 이때에(1912년) 이르러 화암사(禾岩寺)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된 것이다. 1915년 을묘(乙卯) 9월에 화암사에 화재가 일어났으며 1917년 정사(丁巳)에 사찰을 중건하였다. 1920년 경신(庚申) 6월에 김영찬(金泳燦)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2년 임술(壬戌) 12월에는 김벽천(金璧天)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1924년, 갑자(甲子) 7월에 박응허(朴應虛)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27년 정묘(丁卯) 7월에는 박수근(朴修根)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다. 이때에 화암사에 소속된 암자는 미타암, 안양암, 월영암 등으로 오래인 역사속에서 법등을 밝히고 있었다. 10여기에 달하는 스님들의 부도와 부도탑비가 부도밭을 이루었으며 10여축의 화상(和尚)들 진영(眞影)중에는 진표당, 청허당, 사명당 등 고승들의 진영도 안치되어 있었다.

8·15광복 후 등축은 밝히고 있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고 남한영역으로 수복된 후 불전과 건물들을 중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와 중건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향간에서는 화암사를 「수암사(穗岩寺)」라고도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종 원년(1864년)에 수바위 아래에 옮겨 중건한 후 바위의 이름을 따서 수암사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1912년에 이르러 다시 지금의 「화암사」로 고쳤는데 그때의 수암사 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화암사 도량



화암사 부도밭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1991년 이곳 신평들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주변의 정비 계획에 따라 조선시대에 건조된 석조부도와 석비 계단석들을 제외한 일주문과 대웅전 요사채 등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였다.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천여 명의 불교국가 청소년들이 화암사 법당에서 수계식을 가졌으며 그 후 대회장은 청소년 수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화암사는 금강산 최남단의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건봉사에 소속되었으나 현재는 신흥사의 말사이다. 석조물 이외의 목조건축물은 근년에 세워진 것이어서 화암사의 면모는 현대적인 건축물의 사찰이나 석조물들이 연륜을 보이고 있어 본래는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찰 주변의 곳곳에 금강산 제1봉인 신성봉에서 발원한 신선계곡의 맑은 물이 담소와 폭포를 이루고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절 앞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암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화암폭포가 있으며 수바위와 울산바위 등의 경관이 뛰어나다. 주변에 도덕폭포, 창암계곡, 척산온천, 신흥사, 설악산, 알프스리조트 등의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다.

화암사의 창건이 신라 진표율사에 의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제22대 정조가 하사한 관음보살상 6첩서병과 진표고승의 진영을 비롯한 16점에 달하는 대덕의 진영들이 있었다 함은 이 절의 위상과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창건 당시와 귀중한 유물들은 모두 전화로 없어졌으나 역사를 그리며 주변 절경을 관람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개축하였다는 미타암을 찾는 불신도들이 많으며 토성면 주변에서는



중심되는 화암사로 알려져 있다. 대웅전, 설법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등 많은 당우가 질서있게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설법전은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14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1990년 9월 7일 지정) 도량이 신비성과 주변 경관 등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 6) 내원암과 계조암의 변화

내원암과 계조암은 삼국기 신라의 자장스님이 창건하여 유명하거니와 이후 여러 왕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등축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암자이기 때문에 독실한 불자가 아니면 심방이 어려운 곳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등을 밝히고 있음은 불자가 신도들의 신심에 의함이라 생각된다. 옛 시대에는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을 체험하면서 심신을 닦았으므로 산곡의 암자에서는 수도승들의 족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두 암자도 이러한 자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서는 자연을 찾는 산행자들이 많아 자연히 암자를 방문케 된다. 계조암은 특히 「흔들바위」가 바로 옆에 있어 기묘한 바위의 조화로 찾는 사람이 끊일 사이가 없으며 불자, 불도, 등산객들 또한 즐겨찾는 곳이다.

## 7) 오색석사의 변화

서면 오색리에서 남설악 골짜기로 올라가면 중간쯤에 오색석사의 옛터가 있다. 신라시대 무염선사의 수도처로 유명하나 폐사된 지 오래이므로 신라시대 석탑과 고려시대 석재들이 산재하였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오색석사 옛터임이 밝혀졌고 3층석탑은 수리하여 보물 제497호로 지정 보



오색석사 옛도량

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황운영 스님이 찾아와 사찰 중창 복원을 계획하여 대원의 원력으로 고심 끝에 법당을 건축하는 등 불사에 진력하다가 1999년에 열반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곳을 성국사(城國寺)라고 했었는데 필자가 이 절을 찾아 고증한 뒤 「오색석사」의 사명(寺名)을 쓰도록 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인법당 한 채와 신라시대의 석탑 1기, 금당지와 원좌초석, 고려시대의 석조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한편 절마당 한구석에 석비 1좌가 건립되어 있는데 표면에 「오색석사복원기념(五色石寺復元紀念)」, 「학루당황운영공덕비(鶴樓堂黃雲永功德碑)」라 두줄로 제(題)하고 뒷면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9행 음각되었다.

鶴樓堂黃雲永住持스님은一九四四年江原道에서出生하시어 一九六五年 出家惠岩大禪師의法弟子로서佛法禪學에邁進中一九七二年이곳五色石寺에任하시어新羅武烈王立禪門九山中大本刹이며無染國師의出家處인本寺刹을復元해야겠다는뜻을세워一九七四年부터학수몸소삼별고초를겪어가며돌을쌓아길을닦고터를닦아요사체를建立하셨다.大雄殿은뜻만을세우신체一九九九年享年五十六歲를一期로涅槃하시니그의慈悲로운行跡과功德을이碑에적여기리는바입니다. 一九九九年十一月 謹攄

여기의 주인공 학루당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던 스님이다. 처음 「성국사」복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성주산문(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지)의 개창조사인 무염국사가 바로 이곳 오색석사에서 선법을 닦고 법문을 정했던 역사적인 사찰임을 알게 하였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석비 비문과 현지의 석탑을 비롯한 유적 유물을 고증자료로 제시하였었다. 스님은 곧 이러한 사실을 터득하고 중창 불사를 서둘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불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 8) 선림원의 변화

서면 황이리 미천곡에 선림원 옛터가 남아있어 강원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보존되어 있다. 이 사찰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 절터에서 1948년에 정원(貞元) 20년명(신라 애장왕 5년, 804년) 신라 범종이 출토됨으로서 서기800년대 초에 창건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에 크게 범등을 밝혔으나 언제 폐사되었는지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의 사적은 전혀 알 수가 없다. 현재 3층석탑의 북쪽에 법당자리가 있어 주초석들이 남아 있다. 단탑가람으로 남향사찰이었는데 넓은 절터에는 조사당과 승방, 요사 건물 등으로 추측되는 자리가 있고 주초석이 정연하게 보이는 건물지도 있다. 조사당 자리로 추측되는 곳은 금당의 서북쪽 대지인데 여기에는 석등과 홍각국사비가 남아있다. 현재 선림원지에는 3층석탑(보물 제444호), 석등(보물 제445호), 부도(보물 제447호), 홍각국사탑비(보물 제446호) 등 9세기 후반의 신라석조물들이 모두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신라시대 성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사찰은 없고 옛 절터뿐이나 이곳에는 당시의 건물지와 4점의 보물 문화재가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어 이 방면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탐방객들도 관광 여정에 의하여 이곳까지 와서 견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 9) 서림사의 변화

서면 서림리에 서림사 옛터가 있다. 이곳은 현재 경작지로 변했으나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왓장, 자기편들이 산란하고 주초석들이 보이고 있으며 석탑과 석불이 안치되어 있어 옛 절터임을 알게 한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석탑과 석불은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옮겨놓아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로, 서림사지 3층석탑은 문화재자료 제120호로 지정 보존되어 있다. 석불좌상은 머리부분이 파손되고 동체와 무릎부분에도 손상이 있으나 대좌는 상·중·하대가 잘 남아있는 편이어서 각부 조각들을 잘 살필 수 있다. 3층석탑도 단층기단과 3층의 탑신부가 잘 남아있다. 이곳 절터

는 없어졌으나 여기의 석탑과 석불을 가까운 초등학교 마당에 옮겨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 방면을 연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10) 명주사의 변화

원통암을 중건확장하여 사찰의 면모가 새로워지고 있던 바 1910년 경술치욕 이후 1912년, 임자(壬子)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으며 1월에 홍포룡(洪蒲龍)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다. 1913년, 계축(癸丑) 3월에 김월인(金月印)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묘(乙卯)에 침고(砧庫:절에서 모든 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하였다. 1917



명주사 도량



명주사의 부도밭(浮屠群)

년, 정사(丁巳) 8월에 김백월(金白月)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다음해 1918년, 무오(戊午)에 사찰을 중수하였다. 1920년, 경신(庚申) 8월에 노제봉(盧霽峯)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고 1923년, 계해(癸亥) 7월에 윤설호(尹雪昊) 스님이 주지에 취임하였으며 1925년, 을축(乙丑)년에는 사찰을 수리하였다. 1926년, 병인(丙寅) 7월에 김묵옹(金默翁)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요사건물의 지붕을 번와불사하였다. 명주사의 소속암자로는 청련암, 운문암, 향노암이 있었으나 모두 폐사되었다. 역대 스님들의 부도와 석비가 10여기 보존되어 있으며 진영도 10축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명주사는 폐허가 되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석조건조물로 이루어진 부도밭의 석조부도와 석비들만이 화재에서 살아나고 그 외의 건물과 유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1963년부터 중창 불사가 일어나 법당과 삼성각, 추성각(秋聲閣), 종각, 요사채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사찰 규모는 큰편은 아니며 당우도 적은 편이지만 명주사는 예로부터 이름난 선원(禪院)으로 많은 학승들을 배출한 곳이다. 특이할만한 문화재는 없으나 다만 동종이 양양명주사동종이라는 명칭으로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부도밭의 석조부도들과 석비가 이 사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현재의 절에서 500m정도 되는 아래쪽에 중봉당선사탑(中峯堂禪師塔)이라 칭하는 2.5m 높이의 석조부도가 서 있는데 그 앞에 경작지가 옛 절터라고 전한다. 명주사 뒷산인 만월산에는 문필봉(文筆峯)이라 일컫는 유서깊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절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기도하면 도를 깨친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어 산행하는 이들도 이곳을 찾아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사 도량은 물론 이곳 문필봉도 수도의 도량 삼아 많은 학승들이 찾아 올라간다는 것이다. 명주사가 위치한 현북면 어성전리에는 옛 절로서는 명주사가 유일하며 오랜 역사와 참선도량으로 이름난 곳이어서 오늘날까지도 불자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근·현대에 있어서 양양지역의 사찰들이 어떠한 면모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배불정책하에서도 법등을 밝히고 어떤 사찰들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등축을 살리며 전란을 이겼고 오늘에 이르러는 역사속에서 위상과 전통을 굳게 지켜 큰 도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양지역의 불교는 오랜 전통 위에 도량들이 밝은 법등을 비치고 있어 사회교화의 근원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근·현대의 창건사찰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 후에 새로운 사찰들이 창건되었다고 하나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모두 폐사되었다. 1953년도 수복 후 점차 안정을 기하면서 사암(寺庵)들이 창건되었으니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을 살피고자 한다.



### 1) 강현면 둔전리지역

둔전리에서는 신라 선종의 근본대도량인 진전사의 중창복원불사가 진척되고 있다. 이곳은 명산 설악산주봉인 대청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석간수들이 합수하여 노고천(老姑川)을 이루고 저수지 설악호(雪岳湖) 북쪽 언덕위에 진전사가 자리잡고 있어 골짜기와 마을이 모두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근년에 이르러 둔전리 마을에 「보명선원」, 「법상사」, 「청련암」등 새로운 암자가 창건되어 등축을 밝히고 있다.

### 2) 지장사(양양읍 화일리)

화일리의 영혈사 가는 길로 접어들어 강현면 둔전리로 넘어가는 낮은 고갯길로 향하다가 왼쪽 편에 자리잡은 지장사를 방문할 수 있다. 이 절은 약 30년 전에 창건되어 마당 한가운데 5층석탑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대웅전과 무량수전 법당을 배치하고 서쪽 편에 염불전을 건립해 놓았다. 마



지장사 도량(대웅전)

당에 큼직한 박석을 깔아 고대 사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새로운 사찰일지나 불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교통도 좋은 편이며 금당 이외에 2동의 불전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예불을 올릴 수 있는 사찰이라 하겠다. 당우의 건물은 골기와 지붕에 팔작집과 맞배집을 건립하여 옛 사찰 건축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 3) 망월사(서면 오색리)

오색약수터 바로 위에 위치한 사찰로 창건은 오래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다. 현재 망월사의 연혁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불기 2300년대 고찰을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나 문헌은 유실되고 아름답고 고송(古松)을 보아 수백 년이 된 것 같다. 설악산 정기를 받아 병풍처럼 아담하게 둘러싸인 점봉산 기슭 약초뿌리 우려낸 용궁정(龍宮井) 감로수로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약사여래 명을 받아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산속에서 솟아나는 감로수는 양이요 암반석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음이다. 이 물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영험한 가피로 병을 고친 이후 전국 각처에서 관광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망월사다. 지금은 낡아 폐쇄되었지만 건너편 하얀 건물은 도서관 자리다. 오늘날까지 많은 대덕스님들과 술한 묵객들이 머물다 간 곳이다. 고색창연 한 단청 그대로 우리의 옛 문화를 살려 지극히 소박하고 편안한 고찰이다. 절경이 빼어난 국립공원 남설악에 자리한 10평 남짓한 법당을 옛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참으로 존귀하다 못해 숙연하기만하다. 불기 2545



망월사 도량(대웅전)

년 윤4월에 김광태 보살이 백일기도를 마친 후 건강을 회복하여 약사여래를 모시게 되었다.(망월사)

앞에서 불기2545년은 서기 2001년으로 9년 전의 일이다. 한편 묘사체를 옮겨 세웠는데 여기의 상량문으로 「庚申年庚申月庚申日庚申時姜大公之造作者」라 묵기하였다. 여기의 경신년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80년, 1920년 중의 한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망월사 도량에는 대웅전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 팔작집으로 건축되어 금당으로 자리하고 있다. 주지인 현재 비구니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관음종으로서 서울의 보문사가 본찰이라고 한다. 이곳 망월사 바로 밑에는 「오색약수」라 하여 속칭 오색너럭바위라 칭하는 암반에서 약수가 솟아오르는데 탄산수의 물맛으로 만병통치의 약수라 전해지고 있다. 특히 수질이 산성과 철분이 많아 위장병, 빈혈, 신경통, 신경쇠약, 기생충구제에 특효가 있다하여 망월사에서 보호 보존하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1500년경 성국사의 승려가 반석에서 용출하는 약수의 수맥을 발견한 이후

오늘의 약수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색약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성시를 이루어 바로 윗편에 자리한 망월사에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 4) 불탑사(서면 논화리)

서면 논화리 산골짜기 조용한 대지 위에 불탑사가 위치하였는데 동해사의 연수원으로 교육기관의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도는 없다고 한다. 불탑사 용주선원의 권용주 선원장 증언에 의하면 15년 전에 창건되었고 근본불교 조계종으로 승가대학도 설치하고 있으며 삼신불(三身佛)을 봉안하고 있다. 불교회관과 설법전 앞마당에 5층석탑을 안치하고 뒤편 높은 대지에 대웅전을 건축하였다. 연수원의 기능을 보이는 회관에는 2층 건물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불탑사 도량(당우불전)

#### 5) 동해사(손양면 학포리)

현재 금당으로 대웅전이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그 옆에는 삼성각이 있고 다시 그 옆으로 요사체가 길게 건축되어 있다. 경내에 「甘露法雨聖地東海寺」라 제(題)하고 대한불교삼론종지정 성지 제1호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동해사 도량(대웅전)

본사찰 동해사는 임신년(1993년) 10월 12일 대웅전과 삼성각 사이 약수터에 모셔 놓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사찰에서 12km 떨어진 양양군 서면 논화리 기도원터를 마련하여 옮기던 중 맑은 하늘에서 감로비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불자들이 수없이 물려와 장사진을 이루며 참배는 물론 환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36일간 계속되면서 동년 10월 29일에는 오색무지개가 나타나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무지개는 불탑사 부처님에 연결되고 그 곳에서 다시 쌍무지개가 솟아 설악산 달마봉에 이어졌다.

또한 11월 8일 새벽 4시에는 하늘에서 화우(火雨)가 쏟아져 철야로 기도하던 20여 명의 참배객이 환희에 젖었다. 이러한 소식이 세계 각국에 전해지게 되자 스리랑카, 네팔, 태국에서 앞다투어 부처님의 참사리를 전수하게 되니 그 수가 200여과를 넘어섰다. 현재 성지에는 49과의 참사리를 모셔 적멸보탑을 조성하고 기도원 터에는 108과의 참사리를 모셔 적멸보궁을 세우며 이곳 성지에서 모셔간 부처님은 석굴전에 봉안하였으며 석굴전에는 부처님이 현명하여 점지한 약수가 많은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감로성지 동해사주지 서의륜합장)

동해사의 창건의 역사는 깊지 않으나 대외적인 홍보와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불신도가 모여들고 있다. 연수원도 있고 각종 불교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평지가람으로 교통도 편리하여 탐방객들이 끊일 사이 없다.

## 6) 용화사(현북면 법수치리)

법수치리의 산골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용화사 도랑에 다다른다. 태고종 사찰로 20년 전에 창건하였다고 한다. 금당으로 대웅전이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법당 앞에는 석탑이 건립되었고 대웅전 서쪽의 종각



용화사 도랑(대웅전)

사이에는 높이 7m에 달하는 석조아미타여래입상이 배치되었는데 앞에 서면 거대한 석불에 압도된다. 종각과 범종은 대웅전 건축 당시 함께 건립하였다고 한다.

대웅전 동쪽의 작은 골짜기로 들어서면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맞배집이다. 요사는 그 밑의 사찰어구에 배치하였다. 1년 전에 부임한 주지 법선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산골에 위치하고 아직 역사가 얇은 편이어서 불도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로 보았을 때 조용한 심산유곡에 속하며 도로도 포장된 차도가 개설되어 있어 교통은 편리하다. 도심에 가까운 평지가람도 불공에 좋은 자리지만 이렇듯 산곡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불법을 전수하는 것도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 7) 반야선원(현남면 입암리)

입암리의 넓은 들 한가운데 반야선원을 새로이 건축하고 선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불사가 한창 중이다. 선원의 불전 뒤에는 참선하는 공간으로 여기의 큰직한 굴뚝은 벽돌로 쌓아올려 이색적이어서 주목된다. 창건이 깊지 않아 아직은 불도들의 심방이 많지 않으나 평지가람이고 차도도 잘 개설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야선원 도량(참선실)

## 8) 현불사(현남면 입암리)

현재 창건불사가 한창이다.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골기와지붕의 팔작집이다. 아직 목부에 단청을 칠하지 않았으며 오른쪽 앞쪽에는 큼직한 요사를 배치하였는데 많은 공간을 보이고 있다. 절 마당의 어구에 석비 하나가 서 있는데 「매월암창건주



김계원송덕비(梅月庵創建主金桂園頌德碑)」가 있어 김계원 독지가에 의하여 매월암으로 시창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평지가람으로 차도도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하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람이라 하겠다.



현불사 도량(건설이 한창임)

### 9) 휴휴암(현남면 광진리)

하조대 가까이 해변에 창건된 사찰로 해수면 바위에서 존상(尊像)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불신도들이 모여들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큰길에서 경내까지 차도가 개설되고 주차장도 정비되어 많은 신도와 탐방객이 운집하는 곳인데 법당을 비롯한 여러 당우와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현재도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불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된다.



휴휴암 도량(여러당우)

### 10) 죽도암(현남면 인구리)

이 암자는 죽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죽도암이라 칭하고 있다. 현재 동쪽으로 동해를 바라보면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골기와지붕 팔작집이다. 관음전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법당 내에는 관음보살을 주존으로 봉안



죽도암 도량(관음전)

하고 있다. 그 옆으로 근년에 지은 요사가 있으며 스님이 기거하는데 불자들이 모이고 있으나 한편 탐방객들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불심에 감동되는 관광객도 찾고 있다.

## 9. 맺는말

이상과 같이 양양지역의 불교에 대하여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불교는 반드시 도량을 중심하여 불법을 신봉하고 포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양양지역에서 각 시대별로 법등을 밝혔었던 사찰을 중심으로 교세와 불신도들의 운집 상황을 고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문헌에 보이는 옛 사찰들을 찾아보았는데 특히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각종 고문헌에 보이는 사찰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리하여 삼국기부터 양양지역에서 불교가 포교되어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는 자장율사가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를 창건하였고 신라 문무왕 2년(662년)에는 소림암을 창건하여 불교를 포교하였다.

문무왕 16년(676년)에는 의상조사가 낙산사를 창건하였으니 양양지역의 불교는 7세기 중반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전통을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는 신문왕 9년(689년)에 원효조사가 영혈사를 창건하였고 2년 후에는 청련암을 창건하였다.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조사가 향성사를 증건하여 선정사로 개칭하였고 혜공왕 5년(769년)에는 진표율사가 화엄사를 창건하였으며 현안왕 2년(858년)에는 범일국사가 낙산사에 불전을 건립하였다. 특히 신라하대에 이르러 한반도에 선종이 수용되면서 진전사는 선종의 근본대도량으로 선종의 종조인 도의국사가 주석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이곳에서 열반하여 한국 최초의 석조부도가 현재 진전사지에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라하대의 양양지역은 명실공히 신라 선(禪)불교의 중심지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신흥사, 낙산사, 영혈사, 화엄사, 진전사가 모두 영산(靈山) 설악산의 정기를 받아 불법 포교에 난숙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들 사찰은 더욱 번성하였고 명주사의 창건은 힘을 더해 주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배불승유가 국시였으나 양양지역의 사찰은 낙산사에 태조가 춘추로 사신을 보내 3일제를 설하고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을 중건케 하며 예종과 성종은 교지를 내려 사찰을 중창케 하고 면세하는 등 크게 보호하였다. 신홍사에는 효종이 궁중에서 향로를 보내는 등 크게 배려하였고 화암사에서는 정조가 미타암의 화응전을 원당으로 정하였으며 관음상과 병풍 등을 보내어 보호하였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사찰은 면모를 갖추어 훌륭한 도량에 많은 불자가 모이고 있는데 새로운 사찰들이 많이 창건되어 양양지역은 어느 곳보다 불교가 성행한 고장이라 하겠다. 예컨대 둔전리에 보명선원, 법상사, 청련암 등이 등축을 밝히고 있으며 화일리의 지장사, 오색리의 망월사, 논화리의 불탑사, 학포리의 동해사, 법수치리의 용화사, 입암리의 반야서원과 현불사, 광진리의 휴휴암, 인구리의 죽도암 등 10여 사찰이 법등을 밝히고 있어 불도들이 운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양지역의 불교는 1350여 년간 면면하며 양양지역의 문화와 불교미술의 발달, 사회교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 : 정영호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불교사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국여지지』, 『현산지』  
 『관동지』, 『관동읍지』, 『강원도지』  
 『조당집』, 『조선사찰사료(상·하)』, 『한국사찰전서(상·하)』  
 『범우고』, 『가람고』  
 『건봉사본말사적』

※현지답사를 병행함.



### Ⅲ. 유교

#### 1. 들어가는 말

양양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처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환경과 종교적 전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외래문화가 수용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가 양양지역에 뿌리 내리고 활성화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양양군은 동쪽에는 동해, 서쪽에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해안선까지의 길이도 짧아, 양양 중심부를 길게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이 있기는 하나 농경에 적당한 지역이 많지 않다.

② 험준한 지리적 요건 못지않게 양양지역이 처했던 국제적 입지도 험난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가 국력을 신장하는 369년경 고국원왕(故國原王)부터 409년경 광개토왕(廣開土王), 454년경 장수왕(長壽王) 때에는 신라의 실직주성(悉直州城 : 삼척)이 고구려의 판도 안에 들어가고, 양양도 고구려 영향권 안으로 편입된 듯하다. 양양군 지역을 고구려에서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8년에 고구려가 나당(羅唐)연합군에게 망하자 고구려의 유민인 부여족과 말갈족은 연합하여 신라 성덕왕(聖德王) 46년에 발해국(渤海國)을 세웠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 익현현을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 수성군령현(守城軍領縣)으로 하고 혈산현(穴山縣)을 동산현(洞山縣)으로 고쳐 명주령현(溟州領縣)으로 하였다. 통일신라

의 행정구역은 9주5소경(九州五小京)으로 강원도는 삭주(朔州)와 명주(溟州)로 나누어져 있었다. 삭주는 대체로 영서지방, 명주는 영동지방이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강원도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는데, 삭주와 명주가 바로 국경지역이었기 때문이다.

918년 왕건(王建)에 의해 송도(松都)에 건국한 고려(高麗)시대에도 양양지역은 외침이 잦은 변방으로,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가 파견되어 지방 행정과 군사를 겸해서 다스렸다.

현종 2년(1011년) 거란병 침입, 현종 20년(1029년) 여진족 침입, 고종 8년(1220년)의 거란병 침입, 고종 40년(1253년)에는 몽골군이 침입하여 오봉산성을 함락시키고 낙산사를 약탈했다. 몽골의 고려 침공은 5차례 걸쳐 자행되는데, 고려왕들이 원(元)나라 부마가 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주성(襄州城)은 고종 8년 거란족 침입시 방어한 공이 있다 하여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으나, 몽골군 제4차 침공시 항복한 벌로서 고종 44년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원종(元宗) 원년에야 지양주사(知襄州使)로 회복되었다.

충숙왕 17년(1330년) 동계(東界) 강릉도(江陵道)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 : 1287~1348년)이 통천수(通川守) 정랑(正郎) 진공(陳公)과 당시 양양수령 정랑(正郎) 박공을 독려하여 양양읍 문성왕동에 향교(鄕校)를 세우게 된다. 안축은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에서 산자수명하고 영령의 정기가 깃든 양양에서 100여 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인물이 나오지 아니한 까닭은 예로부터 오랑캐의 변경과 이웃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났고 학교지도(學校之道)가 행하여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려 원종 원년(1260년) 이전에 양양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가 있어 중사(中祀)로서 국토수호와 국가안녕을 위한 제의를 행하여 왔다.(삼국유사)

③ 그동안 양양지역은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의해, 고예국(古濊國)의 후예들이 동진하여 세운 나라로 한나라 소제(昭帝) 시원(始元)(B.C.86~81년)때에 예맥국은 모두 한(漢)의 낙랑군에 소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양양지역의 역사는 고고학의 눈부신 발달과 그 발굴의 성과로 양양지역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아주 폭넓은 층의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구석기·신석기인들과 이른바 동예(東濊)라 불리우는 시대의 양양인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이 지역에 정착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1984년 서울대 고고학과 임효재 교수팀에 의하여 손양면 도화리에서 전기 구석기 유물인 주먹토기와 자르개 등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된 구석기 유물에 속하며 더 나아가 구석기 표준유적이 될 것이라 발굴팀은 전망했다.

1981년에서 1988년까지 서울대 조사팀에 의하여 발굴된 오산리 신석기 유적은 BC 6,000년경으로, 연해주보다 1,2천년 앞선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물 중에 백두산에서만 산출되는 흑요석으로 만든 도구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신석기 시대 양양인들이 어디를 통해 양양지역으로 온 것인지 그 루트를 알아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서면 범부리(凡阜里)의 고인돌이 있다. 초기 철기시대 유물로 손양면 가평리(柯坪里)의 주거지와 무문토기·김해식 토기들이 발굴되었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수륙(水陸) 양로(兩路)가 있다. 그 하나는 육로 코스로 옛 은(殷)나라 기자(箕子)가 일족을 이끌고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그 길과 한나라 초기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제(山東)나라 연(河北)나라의 망민(亡民)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패수(溟水)로 옮겨와 위만조선을 세웠다는 그 길이다. 위만조선은 한무제의 원정군에 의해 멸망하는 B.C.108년 위우거(衛右渠) 왕 때까지 존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산동에서 발해를 건너 황해 연안에 도달하는 수로(水路)이다. 초기 양양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는지는 자세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무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 예조(濊條)와 『위서(魏書)』부여전(扶余傳)의 기록에 의하면, 이른바 동예족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볼 수는 있다. 『후한서』동이전 예조에 의하면, 북쪽은 고구려 옥저와 접하고 남쪽은 진한(辰韓)과 접하였다. 동쪽은 큰 바다로 끝나고 서쪽은 낙랑에 접하고 있다.

예와 옥저와 고구려는 본래 조선 땅이다. 옛날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는 그들에게 예의와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범해서는 안되는 8조의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

그고 자지 않았다. 여자는 정조를 지키고 신의가 있으며 음식은 그릇에 담아 먹었다. 그 뒤 40여 대를 지나서 조선후(朝鮮侯) 준(準) 때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한(漢)나라 초년에 크게 난리가 나자 연·제·조나라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해 간 자가 수만호나 되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준을 쳐서 물리치고 스스로 조선왕이 되어 나라를 이어가서 그의 손자 우거에까지 이르렀다.

한무제 원년에 예의 왕 남려(南閼)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데리고 요동으로 이동하자, 무제는 그 땅을 창해군(蒼海郡)으로 명했다가 몇 해 뒤에 없앴다. 그 뒤 한무제 3년에 조선을 멸하고, 낙랑(樂浪)·임둔(臨屯)·현도(玄菟)·진번(眞番)의 4군을 나누어 두었다.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에 이르러 임둔·진번을 없애고 낙랑과 현도에 소속시켰더니 뒤에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겨 갔다. 그리고 단단대령(單單大嶺)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옥저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예속시켰다.

그러나 그 뒤에 너무 땅이 넓은 관계로 다시 동쪽 땅을 나누어 일곱현[七縣]을 만들어서 낙랑에 동부도위(東部都尉)를 두었다. 여기에 소속된 이후로 그 지방은 풍속이 차츰 박해지고 법률도 60여 조목이나 되었다.

건무 6년에 도위를 없애고 드디어 동쪽 땅은 포기한 채 그 우두머리를 봉하여 현후(縣侯)를 삼았다. 그리고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조공(朝貢)을 받았다. 이곳에는 대군장(大君長)이 없고 벼슬로는 후(侯)와 읍군(邑君)이 있었다.

늙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은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데, 언어와 법률과 풍속이 대개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몹시 어리석고 욕심이 적다. 남녀들은 모두 곡령(曲領)을 입었다.

그곳 풍속은 산천을 소중히 여겨 산천마다 각각 부계(部界)가 있어 이웃 지방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끼리는 것이 많았다. 사람이 혹 중한 병으로 앓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 삼베[麻]를 심을 줄 알고, 누에를 칠 줄 알아서 능히 면포를 짜서 옷으로 입었다.

새벽이면 일어나 별[星宿]의 움직임을 보고 농사일이 풍년들고 흉년들 것을 미리 점쳤다. 또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가 되면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 이것을 무천(舞天)이라고 했다. 또 사당을 지어 범[虎]을 제사 지내고 신으로 삼았다. 마을에서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소나 말을 잡아서 벌주는데 이것을 청화(靑禍)라고 한다.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도둑질 하는 자가 적고 보전(步戰)을 잘해서 창 하나의 길이가 세 길이나 되는데 이것을 혹 몇 사람이 함께 갖기도 했다.

단궁(檀弓)이 그 땅에서 났고, 그곳에는 또 얼룩무늬 표범이 많으며 과하마(果下馬)도 있다. 바다에서는 반어(班魚)가 나는데 이것을 잡아오면 반드시 사신을 통하여 바쳤다고 기술되어 있다.

『위서』부여전(扶余傳)에 보면 부여는 남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동으로는 읍루(挾婁), 서로는 선비(鮮卑), 북으로는 익수(溺水 : 흑룡강)와 접하고 있다. 사방 2천리, 호수는 8만, 사람들은 조대(粗大)하고 강용근후(強勇謹厚)하다. 관명(官名)에는 마가(馬加)우가(牛加) 등 육축의 이름을 붙였다. 각지의 토호가 노비를 지배하고 있다. 은력(殷曆)의 정월(正月)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연일 음식을 먹고 마신다. 옷은 백색을 높인다. ... 전에 한나라 현도군(玄菟郡)에 속해 있었으나, 위(魏)나라 무구검(毋丘儉)이 고구려를 토벌할 때 군량을 제공했다. 부여 왕실에 전해오는 보물 중에 선대가 한나라로부터 받은 예왕지인(滅王之印)이 있다. 부여족의 유노(遺老)는 고대의 망명자가 이곳에 와서 성책을 쌓았다 한다. 생각건대 예·맥의 땅에 어디에선가 온 망명자가 침입해서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닐는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예족의 선조들이 양양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여족이 활약했던 강토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양양지역은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아주 넓은 층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양양지역의 역사는 장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동예(東濊)라 불리워지는 시대의 양양인들이 언제 이 지역으로 정착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은, 삼국시대 이후 고려·조선에 이르는 확실한 역사적 문헌기록을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예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종교와 문화 의식을 이론테면 무천제(舞天祭)가 갖는 의미, 즉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이때에는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지, 또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실은 삼국시대에 산 양양인들의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후 외래사상



인 유(儒)·불(佛)·도(道)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양양지역의 특성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제(舞天祭)의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이른바 선인(仙人) 샤만[무(巫)]들이었다. 이 선도(仙道)는 단군조선 이래로 배달민족·백의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이족(夷族)의 종교였다. 이족의 공통된 토템은 새[鳥]이다. 그러나 이동해가는 지역의 토템과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어 앞으로 학계의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족은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지내고 있다. 대체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역은 여신(女神)문화인데, 양양은 성황신으로 대표되는 산신문화와 여신문화가 접점을 이루는 특이한 곳으로서, 앞으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화랑도의 역할 역시 이 지역의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양양문화의 특성을 고찰할 때에 빼 놓을 수는 없는 것에 불교문화가 있다. 양양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관계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문무왕 11년(671년)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된 낙산사(洛山寺), 통일신라 때 구산선문(九山禪門)을 대표하는 진전사(陳田寺), 804년경에 창건된 선림원(禪林院) 등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를 이어온 불교문화가 양양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④ 유학은 사계절이 분명한 농경사회를 지탱해주는 사상이다. 그러나 양양은 예로부터 농경지가 적고 산악문화와 어촌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근간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효충(孝忠)은 유교윤리의 근본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출발하여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확대시켜 간다. 정치구조도 문무양반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문반이 무반보다 영향력이 큰 사회체제이다. 그러나 양양은 국경지대로 고구려와 신라의 국토 확장 싸움 때에도 그러했지만, 고려시대에도 변경지대로 언제나 무반의 영향권이 큰 곳이었다.

또한 양양은 문화면에 있어서도 동예 이래로 무천제로 대표되는 무교(巫敎)와 산신과 해신이 어울리는 무속과 통일신라 이후에는 불교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지역이었다. 유학은 무속을 거부한다. 그리고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한다. 따라서 문성왕을 모시는

사당이 전부터 있어왔다고는 하나, 양양지역에 향교와 같은 제대로 된 제도와 문물을 통해 유학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고려말을 기다려야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仁), 오륜(五倫),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국립학교인 향교와 사립학교인 서원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고, 양양향교와 동명서원의 건립배경에 한정하여 일별해 보겠다.

## 2. 양양향교

### 1) 서언

유학이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을 삼국(三國)시대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소수림왕 2년(372년)에 태학(太學)을 설치하여 자제들을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284년 백제(百濟)의 아직기(阿直岐)가 일본(日本)에 건너가 일본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또한 285년 왕인(王仁)이 『논어』10권 「천자문」1권을 일본에 전했다는 기록이 「백제본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유학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와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때의 유학의 성격은 공자의 효제충신(孝悌忠信)과 맹자의 오륜(五倫) 그리고 오경중심의 한대(漢代)유학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다. 신라도 신문왕(神文王) 2년(682년) 국학(國學)을 설치하였으나 선(仙)과 불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원성왕(元聖王) 4년(788년)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했으나, 불교의 융성과 골품제(骨品制)의 제약으로 국학은 떨치지 못하였다. 불교를 국가종교로 채택한 고려 초에 국학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물론이나, 다만 광종(光宗) 9년(958년) 과거제(科擧制)를 채택함으로써 유학은 정치와 교육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성종(成宗) 9년(989년)에는 12목(牧)에 경학박사(經學博士)를 파견하였고, 현종(顯宗) 15년(1024년)에는 계수관시(界首官試), 덕종(德宗) 원년(1032년)에는 국자감시(國子監試), 의종(毅宗) 원년(1147년)에는 승보시(升補試)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시험과목에 의지하여 간신히 연명되었던 유학에 새 기운이 움터오는 것은 충렬왕(忠烈王) 때였다. 충렬왕 6

년(1280년) 일경일사(一經一史)에 통달한 자로 하여금 국자(國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1285년 7월 세자(世子)가 국학에 나아가 육경을 강습했다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이라든지, 충렬왕 15년(1289년) 4월 원(元)나라에 가 있던 안향(安珦)을 동국(東國)의 유학제거(儒學提舉)로 삼은 『동국통감(東國通鑑)』의 기록, 그리고 1296년 경사교수도감(經史教授都監)을 설치하여 일경일의(一經一義)에 능통한 자를 발탁하여 쓰고, 진사생도에게는 방술(防戍)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유학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조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충렬왕 30년(1304년) 5월에 국학에 오늘날의 장학금에 해당되는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하고 또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며, 또한 안향이 선성(先聖) 및 70자(七十子)의 상(像)을 그리게 하고, 제기 악기 그리고 육경자사(六經子史)를 구입하도록 하자, 경사를 공부하는 자가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해 6월에 국학에 대성전(大成殿)이 완성되어 왕이 친히 선성에게 배알함에 이르러 유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

인근 강릉에 향교가 화부산(花浮山) 아래 강원도 존무사(存撫使) 김승인(金承印)에 의해 중건되는 것은 충선왕(忠宣王) 5년(1313년)의 일인데, 이것도 역시 중앙의 이러한 유학진흥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강릉향교실기(江陵鄉校實記)」에 의하면 강릉에는 이보다 200여 년 전에도 이미 내외 향교가 있었으나 병화(兵火)로 소실된 채 그동안 폐허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때 향교진흥책에 의하여 전국에 약 220여 개소의 향교가 설치되는데, 당시 관읍(官邑)의 수가 약 340여 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일읍일교(一邑一校)인 셈이 된다. 향교의 기능은 석전을 통해 유학이 존숭하는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선성선사(先聖先師)에게 제향하는 일과, 장래 국가의 동량이 될 학생을 교육시키는 일 그리고 지방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일인데, 이로써 향교는 유학의 기본인 수기치인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강릉의 향교는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양양 향교가 충숙왕 17년(1330년) 강원도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에 의해 건립하게 되었다.

지방의 국립 교육기관인 향교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국립최고

학부에 해당되는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國子監), 조선의 성균관(成均館)이 개설될 당시에 지방에도 향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던 존재 했으리라 본다.

고구려에는 경당(扃堂), 고려에는 관학(官學)인 국자감과 동서학당(東西學堂)과 향교, 사학(私學)으로 12공도(十二公徒)가 있었다. 『고려사』에 인종(仁宗) 5년(1127년)에 제주(諸州)에 향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충하자는 기록이 있고, 인종 20년(1142년) 2월에 지방의 생도들이 계수관(界首官)향교에 모여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고려 충렬왕 때에 강릉안찰사(江陵按察使)인 김승인(金承印)이 향교를 화부산(花浮山) 연적암(硯適巖) 아래 창건하자 각지에서 향교가 이어서 일어났다는 기록이라던가 이곡(李穀)이 원(元)에서 흥학조서(興學詔書)를 가지고 와 여러 지방을 두루 돌고난 후 쓴 기록 가운데, 제군(諸郡)을 두루 살펴보니 향교가 허물어지고 생도들은 글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는데, 거의가 이러하더라는 개탄 어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충렬왕 이후 서서히 조정을 중심으로 원(元)나라에서 왕을 수행하고 돌아온 유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유학부흥운동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은 태조 7년(1398년)에 창설되었으며 문묘(文廟)와 명륜당(明倫堂)이 함께 있어 봉사(奉祀)의 기능과 교육(敎育)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① 시설로는 선성(先聖)을 제향(祭享)하는 대성전(大成殿)과 학생들이 강학하는 명륜당,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서재(東西齋), 도서관에 해당하는 존경각(尊經閣), 식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저장할 양현고(養賢庫) 등이 있다.

향교도 봉사(奉祀)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있으므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성균관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향교 봉사(奉祀)의 기능에는 봄·가을 두 번의 석전제(釋奠祭)가 있고, 삭망분향례(朔望焚香禮)가 있다. 배향인물(配享人物)은 공자(孔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중국 5성(五聖)은 어느 향교나 다르지 않으나, 중국의 10철(十哲) 6현(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다. 인근 강릉향교는 5성·10

철·6현에 동무 58위 서무 57위를 넣고 있으며 동서무 115위 중에는 우리나라의 18현이 들어있다.

양양향교는 5성·공문(孔門) 10철·송조(宋朝) 6현·우리나라 18현 모두 39위를 배향해 왔으나, 수복 후 성균관의 지시에 따라 5성에 송조(宋朝)의 주자(朱子)와 정자(程子)와 우리나라 18현을 합쳐 25위를 배향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39위를 배향하고 있다.

③ 향교의 교육의 기능에는 정규적인 학교교육 기능과 사회교화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향교의 교관(校官)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 때가 되면 안정되는데, 부(府) 이상의 고을에는 6품 이상의 교수관(教授官)이나 7품 이하의 훈도관(訓導官)을 배치했으나, 대부분 군현의 향교에는 예산관계로 정식 교관을 배치하기가 힘들어 그 지방에서 선출한 자를 학장(學長)으로 대치했다. 교관의 임기는 900일로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교관의 임기는 40세에서 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의 입학연령은 『경국대전』에는 17세 이상이라야 정규 교생이 될 수 있다.

교생정원은 모든 향교가 다 일정한 것은 아니고 향교가 있는 고을의 크기와 또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 대도부(大都府) 목(牧)의 향교는 90명, 도호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현(縣)의 향교는 30명으로 조선말까지 거의 지켜졌다.

향교의 운영은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통하여 마련하였고, 교생은 무상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숭덕광업(崇德廣業)이란 유교의 교육목표 하에 개인의 수양과 사회기강의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체로 소학(小學)·사서(四書)·오경(五經)·성리대전(性理大全)·삼강행실(三綱行實)·이륜행실(二倫行實)·효경(孝經)·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통감(通鑑)·송원절요(宋元節要)·향약(鄉約)·가례(家禮) 등이 교육되었다. 이 외에 향교에서 행하여진 행사에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 거접(居接) 등이 있다.

## 2) 양양향교의 설립배경과 연혁

양양향교에 관한 중요자료는 1999년에 발간된 『양양향교지』에 일괄 편집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양양향교의 창건연대와 의견이 분분한 몇 가지 자료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양양향교의 창건시기에 대해 양양향교가 주최하는 공부자(孔夫子) 탄강 2561주년 춘기 석전제(釋奠祭)의 양양향교 연혁에는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 강원도 존무사 안축(安軸)에 의해 문선왕동(文宣王洞)에 창건되었다고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襄陽鄉校誌)』에도 고려 충숙왕 16년(1329년)으로 되어있다. 창건한 사람이 안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 듯하나, 창건 연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설이 분분하였다.

양양향교의 창건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어 버린 현 상황에서 창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안축이 직접 기록한 「양양신학기(襄陽新學記)」이다. 이 「양양신학기」는 『근재선생집(謹齋先生集)』 권1 관동와주(關東瓦注)에 들어 있다. 이 「관동와주」는 안축이 천력(天曆) 3년 5월[1330년 5월]에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로 명을 받고 5월 30일 송경(松京)을 떠나 부임지를 순방하면서 자연경관을 보고 느낀 감흥을 시로 읊기도 하고, 또 각 지역의 민정(民情)에 대해서도 기술한 말하자면 관동기행문이다. 이 기행문이 쓰여지는 기간은 천력(天曆) 3년에서부터 안축이 파임(罷任)되어 송경(松京)으로 돌아가는 지순(至順) 2년 9월[1331년 9월]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안축이 관동에 있었던 기간은 1330년 5월 이후 1331년 9월 이전이 되게 된다. 따라서 양양향교 창건에 관한 논의가 성숙해 지는 것은 1330년 후반기에 해당될 것이고, 통주수(通州守) 정랑(正郎) 진군(陣君)에게 향교 건축역사를 감독케 하고 양양의 수령인 정랑 박군(朴君)을 실제로 이 일에 진력케하여 향교가 완성되는 것은 빨라도 1331년 이후가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 역사적 사료를 정밀 검토하여 양양향교의 창건 연대를 확정시키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양양향교 건립에 대하여 안축은 「양양신학기」에서 수려한 산수와 맑고 깨끗한 영령(英靈)의 정기를 받은 양양에서 백여 년이 지나도록 재덕(才德)을 갖춘 선비들이 나와



인륜을 드높였다는 소문을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은, 이곳 산수의 탓도 아니고 이곳 사람들의 성품이 불선(不善)해서도 아니고, 예부터 변경(藩境)에 인접하여 변란이 자주 일어나 학교의 도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향교를 지을 장소에 대해서도 이곳에 이르러 동네 노인들한테 구읍(舊邑) 북쪽에 예로부터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이 터는 틀림없이 옛날에 학교가 있던 곳으로 폐허가 된지 오래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 이 터를 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문선왕은 공자(孔子)를 가리킨다. 그리고 안축이 「양양신학기」라 한 것은 양양에 구학(舊學)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성왕묘(文聖王廟)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자를 제사지내는 사당의 역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간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축의 ‘양양신학기’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학교향교(學校鄉校)편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축의 명에 의하여 향교가 지어진 것은 틀림없으나 그 이전에 문선왕동(文宣王洞)이라 불린 곳에 향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100여 년 전 거란군과 몽골군의 침략으로 이 고장이 폐허화한 기사를 보아 그 후 복원하지 않고 학교없는 지역이 되지 않았겠는가?

양양향교는 성종 21년(1490년)에 양양읍 구교리(舊校里)에 이건(移建)되었다. 이 사적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0년 발간된 『양주지(襄州誌)』503페이지 양양향교 유래를 보면 “조선조 성종 21년(1489년) 강원도 존무사 안축이 양양면 구교리에 창건함”이라 적혀있다. 이 기록내용 부분에 대하여 1992년 발간된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171페이지에는 양양향교건치연혁에 1490년 강원도존무사 안축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기록은 오기(誤記)이며, 또한 1954년 수복 후 양양향교 교장 이종하(李鍾夏)가 지은 「양양향교중건기」의 향교 연혁에, 안축이 창건한 뒤 110년인 황명(皇明) 장종(章宗) 천계(天啓) 6년에 중수(重修)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도 명(明)에는 장종이 없으므로 잘못된 기록으로 여겨지고, 중수의 실제 연대는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421페이지 양양향교 연혁에는 “1329년 고려 충숙왕 16년에 강릉도존무사 안축선생께서 문성왕동에 창건하였다.”하고 “중간에 구교리에 이 건하였으나 사적(史蹟) 불명(不明)”이라 적혀 있다. 1999년 발간된 『양양향교지』432페

이지 이종하 근지로 되어있는 「양양향교중건기」에는 “안축이 창건한 후 110년인 황명(皇命) 장종(章宗) 운운”이란 구절은 현재 빠져 있다.

양양향교 창건은 충숙왕 17년(1330년) 9월 이후에 안축에 의해 계획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여기서는 성종 21년(1490년)에 부동일리(府東一里) 성외(城外)로 이 건한 것에 대하여 일별해 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자료에는 최상익(崔商翼)의 「양양향교이건기(襄陽鄉校移建記)」가 있다.

숙종 8년(1682년)에 부사(府使) 최상익이 기록한 「양양향교이건기」에는 “...홍치삼년 이건후백수십년이지천계병인시내중수(弘治三年移建後百數十年而至天啓丙寅始乃重修)...”라 적혀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홍치(弘治) 3년에 양양향교가 이 건(移建)되었고, 천계(天啓) 병인(丙寅)에 중수(重修)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치는 명(明) 효종(孝宗) 3년(戊庚)으로 1490년이고, 조선 성종(成宗) 21년이 되는 해이다. 천계는 명나라 가종(嘉宗) 6년(丙寅)으로, 1626년이고, 조선 인조 4년이다. 이로써 양양향교는 1490년 옮겨 중건되었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1626년에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양향교는 인조 4년(1626년) 확장 중수(重修)되었다.

숙종 8년(1682년) 부사 최상익(崔商翼), 진사 박호(朴灝), 최상은(崔相殷)에 의하여 옛 문성왕동(현 임천리)으로 이 건되었다. 이때 도유사(都有司) 1인, 장의(掌議) 2인, 유사(有司) 2인을 두었고 교생정원은 70명 전답은 7결(七結)을 지급하여 운영에 충당케 하였다. 이 시기의 양양향교는 대성전(大成殿) 9칸 동서(東西) 각 6칸, 신문(神門) 7칸, 전사청(奠祀廳) 3칸, 동서재(東西齋) 각 4칸, 명륜당(明倫堂) 14칸, 제기고(祭器庫) 1칸, 서적고(書籍庫) 1칸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정조 6년(1782년) 양양부사 이진항(李鎭恒)이 둔전동(屯田洞) 주철소(鑄鐵所)를 교궁(校宮)에 두었다.

1930년부터 장의는 각 면을 단위로 2인씩 보통선거로 선출하여 10인을 두었다. 8·15 광복 이후 1946년 토지개혁에 의해 향교의 모든 토지가 공산당에 몰수되었으며, 1949년에는 향교의 건물도 공산당에게 몰수당했다. 1950년 9월 30일에는 공산당의 방화로 건물 및 제복(祭服), 제기(祭器), 서적 등이 모두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1951년 수복과 동시에 향교의 재산을 회수하였으며, 1952년에는 향교의 대성전(大成殿)과 동서무(東西廡), 동서재(東西齋) 등을 중건하고 준공과 동시에 석전제(釋奠祭)를 봉행하

였다. 1954년에 명륜당(明倫堂)을 중건하여 건물전체를 완공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현 양양향교는 전학후묘형(前學後廟型)으로, 전면에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재·서재 그리고 내 삼문을 지나 동무(東廡)·서무(西廡) 그 위에 대성전(大成殿)이 있다.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동재·서재는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동서에 각각 4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식의 건물이다. 동재 뒤쪽에 평행으로 고직사가 있다. 동무·서무는 내삼문을 지나 대성전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마주보며 각각 9현을 모시고 있는 맞배지붕형식의 전면 3칸, 측면 2칸의 와가이다. 대성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익공형식이다.

양양향교는 경사진 면에 위치하고 있어 곳곳에 장대석 석축을 쌓아 기반을 만들어서 건물전체가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인다. 향교 입구에는 「부사조공종저흥학비(府使趙公宗著興學碑)」, 「부사안공경운흥학비(府使安公慶雲興學碑)」, 「부사이공구영거사비(府使李公龜榮去思碑)」, 「부사임공희교흥학비(府使任公希教興學碑)」, 「양양향교중건비」 공부자묘정비(孔夫子廟庭碑) 등이 배열되어 있다.

### 3. 동명서원(東溟書院)

#### 1) 서언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朝鮮)시대의 사상적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서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서원, 그중에서도 이른바 사림파(士林派)가 등장한 16세기 이후 정치·교육·철학·경제·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원이 담당했던 역할은 지대하고도 광범하여 조선시대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서원은 조선시대의 독창적인 제도는 아니고, 멀리 중국(中國)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학문을 가르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서원으로는 당(唐)나라 승원(昇元) 4년에 건립된 백록동학관(白鹿洞學館)이 처음인데, 그 이전에는 수서(修書)와 제사(祭祀), 은거(隱居)하여 독서하는 사람의 서재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송초(宋初)의

백록동(白鹿洞)·악록(嶽麓)·응천(應天)·숭양(崇陽)서원이 중국의 4대 서원으로 된 이후부터 서원은 성황을 이루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주자(朱子)에 의하여 중건(重建)된 백록동서원의 「서원게시(書院揭示)」는 조선시대 서원의 설립과 그 운영 및 교육내용의 준거(準據)가 되고 있다.

중종 37년(1542년) 풍기(豊基)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을 배향하는 백운동서원이 설립된 것을 효시로, 서원과 사우(祠宇)가 각 봉당에 의하여 다투어 설립되었던 숙종말에는 680여 개소의 서원이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하여도 327개가 되어, 조선시대에 서원이 얼마나 성황을 이루고 있었는지 이로써 알 수 있다. 영조 17년(1741년)에는 서원 19개소, 사우 154개소 등 173개소의 서원과 사우가 훼손된 적도 있었고, 또 1871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시에는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전부 훼손되는 대파란을 겪고 있는데, 서원과 사우에 대하여 이처럼 강경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에 도리어 서원이 조선조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현인을 배향하여 학덕을 기리는 기구에 서원 이외에도 서당(書堂)·서재(書齋)·정사(精舍)와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사우들, 이를 세분하면 향사(鄉祠)·사(祠)·리사(里祠)·영당(影堂)·별묘(別廟)·세덕사(世德祠)·유애사(遺愛祠)·생사당(生祠堂) 등이 향촌 사회별로 설립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양의 동명서원에 대해서는 그 설립 배경과 서원에 배향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유학적 성격에 대하여 일별해 보겠다.

## 2) 조선조 서원의 사상적 의미

중종 37년(1542년) 백운동서원 창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 곳곳에 자리잡게 된 조선조 서원은 「강명의리(講明義理)」[『주자문집(朱子文集)』권74,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 즉 경전에 쓰여진 의리를 궁구하여 밝히는 강학(講學)과 유덕한 선현을 제향(祭享)하는 상덕(尙德)의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이 창립되던 초창기에는 강학적인 면보다 선현에 대한 제향적인 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때도 있

었으나, 이른바 사림과 대두 이후에는 강학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서원의 구조도 이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상덕사(尙德祠)와 동재서재(東齋西齋), 강당(講堂), 그리고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조 서원 설립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퇴계는 서원의 설립목적은 “존현강도(尊賢講道)”에 두고 있다. 「강도(講道)」란 도의를 궁구하여 밝히는 것인데, 「강도(講道)」즉 「명도술(明道術)」이라는 말은 퇴계가 서원을 건립할 때에 모범으로 삼았던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에 적혀있는 「강명의리(講明義理)」와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러면 「강명의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자는 「백록동서원게시」에서 요순(堯舜) 이래로 전해 내려온 오륜(五倫)을 들고난 후, 이를 배우고 실천하는 순서를 둘로 나누어,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으로는 박학(博學)·심문(審問)·근사(謹思)·명변(明辯)의 넷을 들고, 독행지사(篤行之事)로서 수신지요(修身之要)·처사지요(處事之要)·접물지요(接物之要)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존현(尊賢)」이란 도의(道義)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만든 성현의 뜻에 따라 도의를 실천하고 산 선현들을 제향함으로써, 성현이 마치 옆에 계신 듯 모범으로 삼고, 사표(師表)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록동서원을 건립한 주세붕(周世鵬)도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가르침이란 반드시 성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러기에 묘(廟)를 세워서 덕(德)을 높이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배고픔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퇴계는 선현을 배향함에 있어서는 도의 즉 도통(道統)을 강조하여 “이같이 하면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다투어서 서로 본받아, 진실로 선정(先正)들이 남긴 자취와 뿌린 향기가 있는 땅으로서 최충(崔沖)·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 등이 거처하던 곳에도 다 서원을 세우되, 혹 조정의 명령으로 세우기도 하고 혹 사사로이 건립하기도 하여 책을 읽고 학문하는 곳이 되어 성조(聖朝)에서 문교를 숭상하는 교화와 인재 기르기를 즐겨하는 성대함이 아름답게 선양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동방의 문교가 크게 밝혀져 추로(鄒魯)·민월(閩越)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기리게 됨을 곧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도학자(道學者)를 배향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은근히 제시하고 있다. 퇴계가 이처럼 서원의 목적을 “존현강도(尊賢講道)”에 둔 이유는 유학

의 기본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강령(綱領)으로 삼고 있는 실천철학이다. 공자는 일찍이 수기안백성(修己安百姓)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고, 주자도 이 공자의 정신을 본받아 『대학장구(大學章句)』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의 집주(集注)에서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 즉 수기치인의 도리를 천명하고 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이 명덕을 밝혀 자기 혁신을 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추기급인(推己及人)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명덕을 밝혀 자기 혁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백성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으로 덕성을 함양한 사람은 반드시 명덕을 천하에 밝혀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정치적 경륜을 실현하는 이 수기치인의 정신은 유가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유가에서는 관직에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수양함이 아직 미달하여 학문이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을 경륜해서는 안되고, 또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때를 헤아림이 필요하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논어(論語)』에도 학문하여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대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유가는 수기를 치인의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시대가 험난하여 그 뜻을 펴서 도의를 실천할 수 없을 때에 유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유가의 출처진퇴(出處進退)문제 즉 도통(道統)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태평성대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도 도(道)가 장차 행하여지는 것도 명(命)이며, 도가 장차 폐하여지는 것도 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나라에서 발탁하여 써주면 도를 행하고, 나라에서 버리면 은둔한다. 수신하여 덕과 학문을 갖추고 있는데도 나라에서 써주지 않으면 숨어살면서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여 도를 달성한다는 것이 공자의 출처진퇴관(出處進退觀)이다.

이러한 공자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한 사람이 맹자(孟子)이다. 수신출세하여 뜻을 얻으면 천하백성과 더불어 이를 행하는 것이요,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불행히) 홀로 그 도를 행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다. 궁한 처지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였고, 영달해서는 천하 사람들까지 착한 일



을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를 풍미한 유학은 송학(宋學) 그 중에서도 주자학(朱子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송대 유학의 특징은 한·당의 호족·귀족과 같이 타고난 신분에 의하여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대부(士大夫)라 일컬어지는 성현이 기록한 경전을 공부하여, 경서에 적혀 있는 정신을 체득한 독서인(讀書人)들이 과거(科擧)라고 하는 관리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은 경서를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말하자면 학자인 동시에 정치인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처럼 학자가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는 제도하에서는 봉당(朋黨)을 이루고 심한 경우에는 당파(黨派)를 이루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많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같은 선생 아래에서 동문수학(同門修學)한 사람들이란 학문적 경향이나 정치적 이념문제에 있어서 동일노선을 취하게 되기 쉬우므로,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유가의 기본구조에서는 당연한 일로서,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을 “피비린내 나는 당쟁” 운운하던 일본학자의 발상은 식민지사관잔재로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당쟁이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일로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만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문관의 차이가 정치이념의 상이로 직결되어 있고, 원시유교가 바탕을 이루었던 삼국시대와 불교사상이 깊숙이 뿌리내린 고려의 학문적 토양 속에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문적 갈등과 충돌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와 이른바 당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기치인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유가에서는 숭덕광업(崇德廣業)의 양면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수신하여 뜻을 얻으면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그 경륜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설사 덕행과 학문을 쌓았다 하더라도 군주가 발탁해 주지 않거나, 또 위에서 불러준다고 하여도 도의를 실현할 상황이 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하는 것은 유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의 산림 속에서 홀로 그 도를 실천하면서 다시 뜻을 얻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대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은 도를 전하기 위하여 후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원은 처음 설립 당시에는 유가의 기본 사상인 수기치인 정신에 의하여 뜻을 얻지 못한 선비들이 은거하여 수신하면서 웅지(雄志)를 기르던 유학 본래의 긍정적인 사학(私學) 연구단체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학문한 사람이 과거를 통하여 정치가가 된다는 유학 본래의 특성이 중국의 원(元)·명(明) 교체기와 명(明)·청(淸) 교체기와 맞물려 현실 이해가 서로 다른 학자들의 학문적 상이가 정치적 정쟁으로까지 치달은 것이 이른바 당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서의 분당, 남북의 분당, 노소의 분당 그리고 남인과 노론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정치투쟁도, 이는 단순한 정권싸움이 아니라 조선왕도의 존립과 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삼강오상론(三綱五常論), 천리인욕론(天理人欲論), 성학론(聖學論),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출처진퇴관 등에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결과, 이것이 정권과 연계됨으로써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명서원의 설립 배경 및 연혁

동명서원은 조인벽(趙仁璧)을 주향(主享)으로 삼고 있는 서원이다.

동명서원을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인벽 선생 사후 200여 년이 지난 인조 6년(1628년)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이 쓴 「동명서원창건기(東溟書院創建記)」에 의하여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설립한 주체를 살펴보면 배향된 인물의 후손이 직접 세우거나, 또는 세인(世人)의 비난이 두려워 가까운 학자를 내세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문인이거나 제자들이 스승의 학덕(學德)을 기리기 위하여 스승을 배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배향된 인물이 선조도 아니고 사부(師傅)도 아닌 경우에는 향인(鄕人)들이 힘을 합쳐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동명서원도 후손인 조위한과 노경복(盧景福)·최정립(崔挺立)·이현일(李賢一) 등 향인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 서원임을 알 수 있다.

동명서원이 건립되는 것은 인조 6년(1628년)으로, 강릉에 오봉서원(五峰書院)이 건립된 것은 이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명조 11년(1556년)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사우(祠宇) 건립이 유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동명서원창건기」에 “열읍(列邑)에서도 모두 서원을 조

용하고 한적한 곳에 지어 많은 선비들이 수업하는 장소로 삼고 있는데, 유독 이 고을만 서원이 없으므로, 비분탄식하여 재물과 목공을 모아 백록동서원의 옛 제도를 본받기를 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동명서원창건기」에 의하면 서원 건립에 즈음하여 중국 백록동서원의 옛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 령밖[嶺外]의 거칠고 궁핍한 이 시골[양양]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아끼는 고장이 될 것이라 기원”하고 있다.

대포진(大浦鎭)에 있던 만호(萬戶)의 관사를 활용하여 구관(舊館)을 그대로 쓰고 동명서원이란 현판을 걸었는데 재방(齋房)과 강당(講堂)을 갖추고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터이라 서원의 건물규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충현사(忠賢祠)에 배향한 사람은 양렬공(襄烈公) 조인벽(趙仁璧 : 1328~1393년)이다. 서원운영의 재원은 양양부사 조위한이 소금가마 한자리와 어선 한 척, 그리고 둔전(屯田) 7석(七石)지기를 마련해 주어 춘추향사의 제수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쓸 양식에 충당하고 있다. 후일 조인벽의 넷째 아들인 조사가 배향되었다.

1680년 병란으로 인한 대화재로 동명서원이 소실되자 복구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정조 10년(1786년) 조인벽 선생과 그의 둘째 아들인 조연(趙涓)의 5세손인 조정(趙貞)에게서 수학한 제자의 후손들이 경상북도 와란(臥蘭) 또는 와단(臥丹)에 서원을 이건(移建)하여 다시 동명서원이라 하고 조인벽과 조사를 배향하였다. 와란의 동명서원 역시 조상과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라 할 것이다. 이 와란의 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와란의 동명서원도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폐철되었다.

고종 36년(1899년) 강원관찰사로 온 조종필(趙鍾弼)이 양양에 순찰차 왔다가 동명서원을 창건했던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조인벽의 절개를 기리고 후일을 기약하였다.

1974년 향론(鄉論)으로 동명서원 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중단되었고, 1979년 양양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이 복원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애쓴 결과 1982년 충현사와 강당을 복원하고 1982년 5월 2일 조인벽 선생과 조사선생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충현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양식이고, 강당은 정면 4

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형식의 건물로 복원되었다. 2005년 4월 5일 충현사는 대화재로 소실되었으나, 2010년 다시 복원되어 2010년 4월 30일 춘기 제례가 충현사에서 봉행되었다. 충현사 규모는 전과 같다. 충현사에 배향된 선현은 조인벽과 조사 두 분이다.

#### 4) 배향인물의 사상적 특색

동명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조인벽·조사이다. 서원 창건 당시인 인조 6년(1628년)에는 조인벽만 배향되었으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1680년대에 있었던 난리[병선(兵燹)]로 서원이 소실된 이후 100여년간 복원을 못하다가 1982년 양양지방의 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에 의해 복원하고 조인벽의 넷째 아들 조사를 같이 배향하게 되었다.

##### (1) 조인벽

조인벽은 고려말의 무신(武臣)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시호는 양렬공(襄烈公), 호는 우계(愚溪) 또는 해월정(海月亭)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와는 처남 매부지간이었다. 우왕 14년(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가담하여 그 공으로 2등 공신이 되었으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양양군 조산리로 은거하였다. 「5세양렬공사적(事蹟)」에 의하면 조인벽은 저작은 하지 않았고 만제잡영(謾題雜詠) 두 세편이 있을 뿐이라 한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로 태조 이성계의 여러 차례의 출사(出仕)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양양 조산리에 은거하여 그 마을 이름을 중국 동진(東晉)의 은일시인(隱逸詩人) 도연명(陶淵明)이 살던 중국 산서성 시상산을 모방하여 시상촌(紫桑村)이라 하고, 대포성(大浦城) 낮은 언덕위에 있는 큰 바위를 도취석(陶醉石)이라 하여 이곳에서 노닐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유유자적 산천을 소요유하며 술에 취하고 아름다운 산수(山水)에 취하고 시(詩)에 취하여 산 도연명의 삶을 연모하고 있다. 또한 남대천(南大川) 하류의 여울을 노련탄(魯連灘)이라 이름지은 것에서, 절개와 의리를 중시한 조인벽의 평상시의 심정을 알 수 있다. 평소 산천경계를 한가로이 노닐며 흰옷을 즐겨 입고 흰 도롱이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는 기록이라든가, 호를 도가(道家)나 불자(佛者)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계(愚溪)라고 한 것이라든가, 아호(雅號)를 해월정(海月亭)이라 한 것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강해(江海), 이장년(李長年)이 조인벽의 시를 논하여 “그의 시는 호탕하고 고매하여 세상살이의 때와 먼지가 틈탈 일 없다.” 하고, 시우(詩友)였던 혜선스님[慧禪上人]이 “조선생은 사바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그 절개가 높은 것으로 비견되는 사람은 진(晉)나라의 도연명[陶靖節] 뿐이라.”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그는 도가풍(道家風)의 만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조의 삼징칠벽(三徵七辟)에도 불구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킨 것은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야은 길재(吉再)에 나란히 비견될 충절로, 도덕과 의리를 중시한 충현(忠賢)이라 할 것이다. 후일 와란으로 서원을 옮길 때 쓴 서원이건문(書院移建文) 가운데 조인벽의 불사이군의 절의(節義)를 은나라 기자의 충의(忠義)와 백이숙제의 절개와 도연명의 정절(靖節)에 비유한 후, 태조 이성계도 그 절의를 꺾지 못하였으나, 조인벽이 그 자손들에게는 내 왕씨(고려) 섬기는 마음으로 이씨(조선)왕조에 출사(出仕)할 것을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로써 그의 많지 않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만년의 은둔한 자의 즐거움과 청풍명월과 벗 삼은 자득의 경지도 실은 충절의 리에서 나온 우국(憂國) 애민(愛民)의 정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기치인을 중시한 유학의 기본정신에서 볼 때 그의 만년의 은둔은 어디까지나 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맹자의 이른바 뜻을 얻으면 천하 백성과 더불어 이를 행하는 것이요, 뜻을 얻지 못할 때에는 홀로 그 도(道義)를 실천할 따름이라는 맹자의 기상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후일 동명서원이 건립되고 조인벽이 배향되는 이유도 유학이 중시하는 도덕과 의리에 의해 출퇴진퇴의 시중지도(時中之道)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2) 조사

조사(趙師) 호는 가천재(嘉川齋)이다. 조인벽의 넷째 아들로, 이태조의 친생질(親甥姪)의 관례에 의해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원사(中樞院事)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양양으로 돌아와 벼슬의 뜻을 버리고 양친(養親)과 수학(修學)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과 교분이 두터웠다.

양렬공이 작고한 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부근에 은거하고 있던 원천석과 오랫동안 같이 기거하며 수학하였는데 이때 호를 가천재라 하고, 노닐던 대를 와선대(臥仙臺)라 하였다. 임종할 때 자손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정몽주 선생 무덤 근처에 묻어서 지하에서라도 따라 노닐게 해 달라”고 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실행하였다 한다.

원천석, 자(字)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으로 26세 때 공민왕 4년(1355년)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신현(申賢)의 문적(文籍)이 강제로 소각당하는 화를 당하자 포은 정몽주가 신현의 서적들을 수집하여 밤중에 송경(松京)에서 치악산 중에 은거하고 있는 원천석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장(秘藏)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일화가 있다. 일찍이 태종은 어릴 적 원천석에게 글을 배운 적이 있으므로 즉위하자 수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고려말 조선초를 살면서 도의에 입각한 출처진퇴의 의리를 분명히 한 원천석과의 교유는 조사의 의리정신을 이해하고 동명서원에 배향된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는 조인벽의 아들이어서 배양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몽주·원천석과 같은 도학(道學) 계열로 비록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도의를 실현하고 산 도학자로 배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동명서원 운영을 위한 제언

현 동명서원은 서원의 입구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그 왼쪽 위에는 양렬공우계조선생신도비가 서있다. 솟을대문 앞 우측에는 1899년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이 쓴 동명서원유허비와 1982년 건립한 동명서원중건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강당이 있고 그 위에 충현사가 있다. 선현[先聖先師]의 제향과 장래 나라의 일군이 될 인재의 교육과 지역의 미풍양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원의 존재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서원의 구조도 선현을 모신 상덕사와 교육장소인 강당과 기숙사인 동서재와 서책을 보관하는 도서실을 구비하고 있다. 동명서원에는 현재 동서재와 도서실이 없다. 강당이 있다고는 하나 강당이라기보다는 재실에 가깝다.

상덕사만 있으면 사당이 된다. 강당과 동서재만 있으면 서당이 된다. 서원이 되기 위



해서는 이 두 기능이 같은 공간 안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향인물의 선정 역시 중요하다. 도의에 입각했다고는 하나, 향현인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선현선사인지, 아니면 공자와 맹자 그리고 주자와 같은 중국의 선성선사인지 배향인물에 따라 서원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명서원의 배향인물은 1628년 창건 당시에는 조인벽만 배향되었다. 넷째 아들인 조사의 사후 조사도 배향되었다. 그리고 1786년 외란의 이진된 후는 조인벽의 6세손 조정이 배향되었다. 그러나 1982년 양양유림과 한양조씨 후손들에 의하여 복원된 동명서원 충현사에는 조인벽과 조사만 배향되었다. 그리고 2005년 소실되어 2010년 복원된 충현사에도 조인벽과 조사만 배향되어 있다. 동명서원 복원에 즈음하여 동명서원이 서원의 이름으로 미래에도 살아 숨 쉬며 양양지역 사회에 산 역사교육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양양유림만이 아니라, 양양군 더 나아가 객관성 있는 유관전문기관의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맺음말

유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분명한 농경문화권에서 발달된 사상이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 되고 농업이 나라를 움직이는 주산업이 되었던 시대에는 나라의 기본정책이 유학의 근본정신과 기초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송나라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바로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았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성균관이나 향교나 서원은 바로 이러한 유학을 국가기본정책으로 삼았던 나라가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과 미풍양속 등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교화를 위해 만든 국립·사립의 교육기관이었다.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하여도 서당과는 달리 서원 설립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사상에도 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이 있는데, 한 시대를 주도한 사상이 시대가 바뀌면 다음 시대의 역기능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농경문화권을 주도해 온 유학 사상은 과학기술문명권에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 면이 많아 한동안

한국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어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과 정보문화가 주 산업을 이루고 농경인구가 20%로 줄어든 오늘날,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린 유학의 역할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그 사회적 역할이 끝나 유적과 유물로 변해 가고 있는 유교 유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경문화권의 특성은 첫째는 사계절성이다. 모든 생산품이 계절과 직결되어 있었고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풍습도 계절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 유통망의 활성화로 계절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두번째는 대가족제인데, 이 역시 핵가족제로 변화되었고,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던 효제개념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번째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인데, 평등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여아라 하여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다. 네번째가 토지를 매개로 한 협동성 지역성인데, 신 유목민 개념이 적용되는 산업사회로의 확산은 농촌의 협동성을 파괴해 가고 있다. 노인 촌락으로 바뀐 농촌마을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지방의 향교가 맡고 있던 교육적 역할은 지방국립대학이 그리고 서원이 맡고 있던 역할은 사립대학이 전담하고 있다. 이제 향교와 서원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은 봄가을의 석전제와 삭망분향례와 배향인물의 제의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배향인물의 제의가 지역문화축제의 콘텐츠의 하나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뿌리가 되는 제의의 생명성과 엄숙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사의례, 제사음식 등만이 부각되는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서원스테이가 추진되고 있어도 평소 인기척이란 없던 정돈되지 않은 서원 경내에서 하룻밤 머문다는 것은 편리한 일상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역이 되기 쉽다. 더욱 이미지만 나빠질 확률이 크다.

뿌리에 깃들여 있는 생명력 있는 유학의 정신들, 이를테면 공자의 인(仁) 맹자의 오륜(五倫),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증유의 성(誠), 주자(朱子)의 숙독정사(熟讀精思) 외경(畏敬), 퇴계의 경(敬), 율곡의 성(誠) 등, 500여 년간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학의 키워드를 쉽게 풀이하여 가르쳐 준다면 과학기술에 찌든 현대인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자가례의 관혼상제 중에서 현재에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인식과 전통혼례이다. 향교가 중심이 되어 여성유도회 남성유도회를 활

성화시켜 실생활에서 성인식과 전통혼례 의식을 살리고,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는 향교가 평소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다음 세대에 전통제의 의례를 계승시키는 가교 역할로서의 교육적인 시도는 유효하다고 본다.

유학은 나무를 기르는 마음으로 인간을 기르는 생명철학이다. 인간이 수렵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진출한 것은 인간이 자연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는 약점이 많지만 생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은 인간의 존재를 수이최령(秀而最靈)이라 하여 모든 자연가운데에서 뛰어나고 가장 영묘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서 인문(人文)이 창조되었다. 맹자는 인간과 동물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인간의 도의심이라고 한다.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떡잎이 나고, 줄기와 가지 사이로 잎사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1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오랜 세월 성장한다. 그러나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멈추는 시기도 있고 생명이 끝나는 시기도 있다.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손들의 비료가 된다. 이런 다년생 나무를 기르는 마음으로 인생을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유학사상이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착한 본성을 받았으므로 이 착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유학에서는 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감각의 집합체인 육체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는 필수적이다. 성장하는 것은 단번에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데에도 등급이 있다. 배우려면 먼저 배운 선배가 선생이 된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모두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범을 배운다. 그것들은 모두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은 익혀서 나의 마음에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배우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천을 해야만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다.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그 곳에는 자연히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논어』의 첫 장은 학이장(學而章)으로 시작한다. 공자처럼 배운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다.

공자가 인류의 스승이 된 이유는 인(仁)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논어』에는 인이란 글자

가 10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증자는 이 공자의 인을 충서(忠恕)라는 두 글자로 요약하였다. 충(忠)은 네 진심을 다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도 하도록 해 주라는 뜻이고, 서(恕)는 네 마음을 미루어 네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요즘 말로 남을 배려하고 살라는 말이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맹자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끼는 마음을 미루어 다른 집 노인들에게도 잘 해드리고, 자기 집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집 아이들도 잘 돌보라고 말한다. 추기급인(推己及人)의 정신, 나를 미루어서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이것이 유교의 기본 정신이다. 오늘날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필요한 마음이다.

맹자의 오류도 좋은 발상이다. 인간관계가 어찌 다섯 가지로 끝날까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부모자식간, 개인과 사회간, 부부간, 나이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간, 그리고 친구간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오류는 유교의 핵심사상인 수기치인의 실천 요령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개인으로만 살 수는 없다. 어려서는 혈연가족이 모인 가정의 일원으로, 성인이 되면 다른 집안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더 큰 사회의 일원이 된다. 사회의 일원이 되면 당연히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 이 관계는 후천적으로 모인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의리가 필요하게 된다. 유교는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서 같이 살고 공헌해야 하는 법을 중요시 한다. 유교가 가정을 중요시 하는 이유도 바로 사회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정에서 평소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임금께 충성을, 형에게 공손히 하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나보다 나이든 선배에게 공손히 하고, 내 아우를 보살피듯 후배들을 품어준다. 개성은 이기적이 되고, 사회성은 세계화로 변화하여 개인과 사회가 공손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개인과 건전한 가정과 공정한 사회의 공존을 중요시하는 유교의 수기치인 정신은, 오늘날에도 인간답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균형 잡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류의 부부유별은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유교에서 부부는 동등하나 남녀는 차별이다. 이 면은 재고를 요한다. 성과급이 판을 치는 오늘날에 장유유서가 웬말이냐고 할지 모르나, 유가에도 나이가 존중되는 부분이 있고, 능력이 존중되는 분야도 있었

다.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그 예이다. 봉우유신, 같은 선생에게 배운 친구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도 있지만 친구사이에 서로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 것인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가족 외에 평소 서로 믿고 아낀 몇 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오륜이 추구하는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 인생목표로 손색이 없다. 다만 그 실천 방법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암기식 성과위주 경쟁위주의 교육방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교와 서원이 주말교육이거나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연을 아끼고 공존하는 마음을 중시하는 예절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인에게도 흥미를 일으키는 전통놀이 체험들을 발굴하여 활성화 시킨다면, 오늘날도 산교육의 장으로 틀림 없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양양향교



대성전



향교전경

#### 동명서원



충현사



서원전경

## 참고문헌

『양주지』 양양군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10

『강원도향교서원사찰지』 강원도 1992. 2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4. 8

한국문집총간 제2집 근제집

『양양향교지』 양양향교 1999.

조인벽 양양문화원 2001.12.

### 〈중요참고자료〉

양양신학기 관동와주 조제서생집 권1

양양향교이건기 부사 최상익 1682.

양양향교중건기 양양향교교장 이종화 1954.

오세 五世 襄烈公事蹟

襄烈公墓碑銘 증손서嬭 나주목사 南平文

동명서원창건기 略 양양부사 趙緯韓 1628.

서원이건문 후학 성언근 成彦根

동명서원유허비명 관찰사 조종필, 1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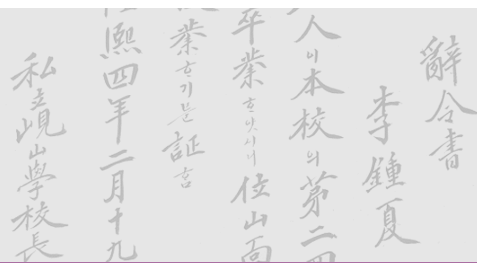
동명서원중건비문 이재서 1981.

박양자, “오봉서원의 설립배경과 그 유학적 성격”, 『인문학보제15집』,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박양자, “이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83집』, 퇴계학연구원, 1994.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 『동방학지 8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5.





## IV. 기독교

### 1. 본질(本質)

기독교는 1세기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메시아)로 믿는 종교이다. 원어(原語)는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기점과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그리스도교를 아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시대와 신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영원하고 참된 진리를 내포한 종교이며, 보편적인 구원의 종교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 아래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순전히 역사적 입장에서 밝히려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자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자존(自存)하는 신(神)으로서, 그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랑[愛 : agape]’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존재와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서 세상의 창조와 구원 사업을 이룩하는데, 그 사업은 바로 인류의 역사 속에 구현된다.

하느님은 인간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말씀[Logos]이 사람이 되셨다[요한복음 1장 14절]”고 표현하였는데, 이때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이 세상에 구현되는 원리로서, 이의 육화(肉化)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교를 알려면 가장 특징적인 신관(神觀)인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하느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인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신으로서, 그 자신이 3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곧 성부(聖父)·성자(聖子)·성령(聖靈)의 3위로서, 이 셋은 각기 독립적인 위격(位格)이면서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3위로서 하나의 하느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이다.

이같은 삼위일체의 신앙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종교가 곧 기독교인 것이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그의 본질은 역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인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구현하였으며, 그의 사랑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의(敎義)의 핵심이며 본질을 이루는 원리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1592년) 이후 로마가톨릭 교회와 별개의 교회전통을 갖게 된 개신 기독교(改新 基督教, Protentism)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파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교단 몇몇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하겠다.

## 2. 전래약사(傳來略史)

### 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전래되기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까지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심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파라는 순수하고 진정한 의미의 선교 활동으로 보는 것이겠다. 그 뒤 본격적인 개신 기독교의 전래는 1885년을 기점으로 한국 근대사에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元斗尤) : H. G. Underwood] 목사와 북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목사의 활동으로 선교시대의 문이 열렸다 할 수 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학당과 배재

학당을 세워 현대의 교육을 시작했고 스크랜틴 부인을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비로소 숭실학당 연희전문 등 신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를 교육사업 의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고종 24년(1887년) 9월 언더우드와 드디어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를 한 달 뒤인 10월에 아펜젤러가 한국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한국 전래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개신교는 수동적인 수용보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수용이라는 점이다.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한국사회에는 상당량의 성경이 유포되었고, 의주·소래[인천에 있는 어항]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개신교 신자가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 개신교는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의 힘입은 바가 크다. 기독교의 수용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개신교가 한국사회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는 외국 선교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크게 좌우하였다. 특히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한국으로 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오도록 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 개신교는 그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단순한 선교와 종교적 신앙면에 국한하여 뿌리를 내리고 발전했다기보다는 교육과 의료사업이 동반된 기독교의 봉사정신과 연결하여 발전했다는 점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들의 활동으로 한국사회에 비로소 근대적인 개념의 교육과 의료사업이 시작되었고 개신교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 2) 양양지방

강원도 땅은 높고 낮은 산과 그리 넓지도 좁지도 않은 들 그리고 시원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 심성 또한 매우 발달하였고 이로 인해 유(儒), 불(佛), 선(仙) 그리고 토착 신앙까지 꽤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뿌리를 내린 곳이다. 한편 자연조건으로 보아 세상의 변화에는 무딘 편이라 하겠으나 한번 받아드린 문화에 대한 보존능력은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보여주는 데 양양(襄陽)도 이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보아도 그리 틀리지 않으리라.

〈표4-1〉 양양의 교단별 현황

교 단	교회수	교역자	장 로	교 인			비 고
				계	남	여	
감리교	15	17	30	2,104	847	1,257	
장로교	19	19	13	779	325	454	
성결교	2	2	1	125	57	68	
순복음교	2	1	-	98	45	53	
안식일교	2	2	9	208	80	128	
통일교	1	1	3	90	40	50	
여호와증인	2	-	4	93	-	-	
기도원	2	2	-	8	5	3	
계	45	44	60	3,412	1,399	2,013	

이곳 양양지역에 개신교(감리교회)의 복음이 전래되기는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 1879년부터 원산(元山)이 개항(開港)의 장(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1892년 개신교의 선교대상의 지역이 된다. 이 때 1900년 원산지역이 선교구역 협정을 통해 미감리회에서 강원도 동남부지역(원주·강릉·삼척·울진) 양양을 포함 선교구역으로 이양 받아서 부터이다. 그해 12월 Robert A. Hadie[한국명 河鯉泳] 선교사가 원산으로 이주해 오게 된다. 교회개척을 위해 강원도 지역을 5번이나 순회하던 중 지경터(철원지방)를 발견하여 뚜렷한 희망을 본 지역이라 보고하게 되며, 1901년 3월 31일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첫 교회공동체를 탄생시킨다. 그 후 1901년 10월 5일 양양에 교회 창립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그때의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해안 영동에 비교적 교회가 일찍 들어서게 되는 까닭은 당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대포(大浦)에 기착하게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하고 최선의 길이였기에 자연히 교회개척과 복음전도를 위해 선교사도 이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미루어 짐작이 간다. 대포[지금의 대포항]에서 12km 남쪽 군청소재지인 양양에

서 하디 선교사가 1901년 10월 5일 양양읍 성내리 17번지에 위치한 이상엽(李相曄) 소유 기와집(8칸)에서 역사적 창립을 하게 된다. 아무튼 양양감리교회는 강원도 내에서는 현 위치에서 현존하는 교회로서 가장 유서 깊고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임을 겸해 소개해본다. 6·25한국전쟁 이후 많은 교회가 개척 설립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일람은 <표4-1>와 같다.

### 3. 양양의 교회 역사 및 현황

#### 1) 장로교회

장로교는 국내 개신교 중에서 가장 많은 성도와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파이다. 장로교는 장로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장로란 명칭상의 교회 장로만 가리키지 않는다. 장로교는 신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독, 목사, 장로를 같은 직책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장로를 가르치고(설교) 치리(治理)하는 장로와 치리(治理)만 하는 장로로 나누는데 전자는 목사이고, 후자가 교회 직제명인 장로이다. 장로교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중시한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등의 교회 중직을 임명에 의해 세우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심지어 장로교는 담임목사를 위임할 때도 먼저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들의 위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에는 공동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를 청빙(請聘)할 때도 먼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중시한다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교회정치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게 된 하나의 원인은 어쩌면 이러한 민주적 교회정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양양에 장로교회가 처음 들어선 때는 1953년 3월 1일 손양면 동호리 동상교회, 1956년 8월 13일에는 서면 장승리 철산교회를 각각 창립하였다. 그 이후 양양에는 양양중앙

교회, 양양장로교회, 양양사랑교회 등 읍·면에는 19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수는 남신도 325명, 여신도 454명이며 교회별 교인수는 <표4-2>와 같다.

<표4-2> 장로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중앙교회	양양.구교100	김병철	1972.12.10.	1	-	30	15	15
양양장로교회	양양.남문241-14	정대윤	1978. 3.20.	2	10	300	130	170
양양사랑교회	양양.거마141-9	황병구	2006. 4.	1	-	44	20	24
양양소명장로교회	양양.남문16-31	김관용	2006. 6.22.	1	-	16	6	10
서면교회	서.상평185	백주진	1983. 4. 1.	-	-	19	2	17
한남교회	서.용천261	김화선	1988.10.28.	1	-	9	1	8
수리교회	서.수216-1	강형선	1997. 3.20.	1	-	15	5	10
해오름교회	서.내현75	오영관	1998.10. 1.	1	-	28	14	14
철산교회	서.장승280	김성덕	1956. 8.13.	1	1	20	8	12
오색교회	서.오색424-6	박해민	1962. 8.	1	1	40	20	20
등신교회	서.오색308	김동훈	1992. 4.26.	1	-	25	13	12
평화교회	서.오색	고기순	2006. 4.16.	1	-	60	30	30
송전교회	손양.송전36	김주석	1987.	1	-	20	8	12
동상교회	손양.동호2-2	양근배	1953. 3. 1.	1	-	50	20	30
남애영광교회	현남.남애469-6	유종승	1997.12.31.	1	1	34	10	24
해광교회	현남.동산203-30	문덕주	2000.10.23.	1	-	11	4	7
인구장로교회	현남.인구25-1	유경술	1987.12. 1.	1	-	25	8	17
양현교회	현남.전포매293	윤사랑	2000.10.30.	1	-	8	3	5
천복교회	강현상복546-2	이환용	1984.10. 7.	1	-	25	8	17
계	19교회			19	13	779	325	454

## 2) 감리교회

감리교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파로서 장로교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감리교의 신학적, 교리적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보편적 구원, ② 완전한 성화(聖化), ③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도의 교제, ④ 그리스도



인의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 라 한다. 감리교는 장로교와 달리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교리를 말한다. 이처럼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그리고 감리교는 사회봉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로교보다 사회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보다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감리교는 감독제의 교회 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감독제는 감독이 다스리는 제도로서 그 체계가 계급적이다. 교회사적인 의미로 감독제는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된 교회의 통치 체제를 의미한다. 로마 가톨릭교와 성공회가 바로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 개신교에서는 일부 몇몇 교파만 감독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감리교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감리교는 다른 개신교와는 달리 목회자 그룹이 계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며, 총회장을 감독회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표4-3〉 감리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교회	양양.성내17	김한구	1901.10. 5.	2	12	1,030	450	580
낙산교회	양양.조산471-3	최규현	1973. 3.18.	1	1	60	20	40
양양중앙교회	양양.남문48-20	전인석	2002. 4.18.	1	-	33	18	15
상운수표교회	손양.상운367-3	이강석	1987.11.22.	1	1	12	6	6
손양교회	손양.하왕도323	유진국	1997.12.29.	1	-	60	25	35
어성전교회	현북.어성전463	김정환	1956. 3.23.	2	4	100	42	58
하조대교회	현북.하광정137	김승울	1975.10.31.	1	-	120	40	80
장리교회	현북.장리165-12	홍기송	1953. 5.23.	1	2	40	15	25
광정교회	현북.상광정527	박재성	1910. 9.24.	1	-	45	20	25
현남중앙교회	현남.인구41-11	김해수	1910. 3.10.	1	2	150	50	100
남애교회	현남.남애359-1	김 진	1979. 1. 7.	1	2	100	40	60
현남제일교회	현남.입암250	남기훈	1983. 8. 3.	1	-	22	7	15
물치교회	강현.물치155	김명국	1908. 9.23.	1	3	250	80	170
한서교회	강현.강선600	엄영삼	1985.11.18.	1	3	80	34	46
참빛교회(예·감)	현남.북분247	전만섭	1999. 5.14.	1	-	2	-	2
계	15교회			17	30	2,104	847	1,257

양양지방에는 1901년 10월 5일에 양양읍 성내리에 양양교회를 가장 먼저 창설하였다. 그 이후 1908년 9월에 강현면 물치리에 물치교회를, 한일합병 당시인 1910년 3월과 9월에는 현남중앙교회와 광정교회를 각각 창립하였다. 현재 양양지방에는 15개 교회가 있는데 교인수는 남신도 847명, 여신도 1,257명이며 교회별 자세한 현황은 <표 4-3>과 같다.

### 3) 침례교회

침례교는 세례를 행할 때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하지 않고 전신을 물속에 잠기게 해서 베풀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침례교는 교리나 신학적인 면에서는 다른 개신교와 같지만 교회 조직이나 치리 형태에 있어서는 개체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회중주의 성격이 강하다. 쉽게 설명하면 로마 가톨릭교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개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제’에 가깝다고 하겠다.

침례교는 특징적인 신학노선이 없다고 할 만큼 신학적인 바탕이 약하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추세이고 침례교만의 신학적 토대가 약하다는 것이다.

### 4) 성결교회

성결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는 미국에서 전래되었지만 성결교는 순수하게 한국인의 선교 활동으로 조직되었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교회사에 의하면 한국 성결교는 1907년에 도쿄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김상문·정빈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성결교는 선교단체에서 출발하여 한국인에 의한 포교를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생 교단’이라고도 한다.

성결교는 그 명칭이 주는 의미처럼 개인의 성결과 성화사상을 중시한다. 양양의 성결교회는 1981년도에 양양읍 연창리에, 아름다운교회는 2006년 4월에 양양읍 서문리에 각각 창립을 하였다. 총 2개 교회에 교인수는 125명이다.

〈표4-4〉 성결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성결교회	양양.연창318-3	박충우	1981.	1	-	50	20	30
아름다운교회	양양.서문186-6	신동철	2006.4.27.	1	1	75	37	38
계	2교회		19	2	1	125	57	68

### 5) 순복음교회(오순절 교단)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하는 순복음교회의 정식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이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19세기에 미국에서 형성된 근본주의적 개신교파인 ‘오순절교회’에 속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순절교회의 특성은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 등의 성령의 은사를 무척 강조한다. 순복음교회도 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령체험을 무척 중시한다. 장로교나 감리교의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을 그다지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지만 오순절교회는 성령론을 무척 비중 있게 다룬다. 그래서 오순절 계열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에 대한 강의가 많다고 하겠다.

양양지방에 순복음교회는 1986년 11월에 손양면 우암리에 우암교회를, 38교회는 서면 영덕리에 1990년 11월에 각각 창립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98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4-5〉와 같다.

〈표4-5〉 순복음 교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38교회	서.영덕424-1	-	1990.11.17.	-	-	68	33	35
우암교회	손양.우암199	김재호	1986.11.	1	-	30	12	18
계	2교회			1	-	98	45	53

## 4. 기타(其他)

### 1) 제7일안식일재림교회

‘안식교’로 알려진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eventh-day Adventists)는 1861년 미국 미시간 주 베를클릭에서 시작되어, 한 세기반 만에 전 세계 1천 6백만 명의 신자들과, 2천만 명의 안식일학교 학생들(2008년)로 구성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복음주의 개신교이다. UN이 집계한 세계 230개국 중 201개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교세가 매 12년마다 두 배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식교의 기원은 19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는 성경연구를 통해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는 약 200명 가량의 개신교 목사들과 5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개신교회에 10여만 명의 새 신자가 증가했다. 1844년 이후 재림신자들은 복음주의 재림교회(Evangelical Adventist), 재림기독교회(Advent Christians),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등으로 나누어졌다.

안식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실제적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받은 결과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안식교는 제칠일 곧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히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법이라고 믿는다. 또한 성경의 교훈에 따라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부정한 음식 등을 삼가야 한다고 믿고, 뉴스타트로 알려진 8가지 건강법칙을 실천한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 6월, 미국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다 서류미비로 귀국하던 손흥조와 하와이 개발공사 계몽원이었던 임기반(본명 해주, 독립운동가)에 의해 전래되었다. 그 해 8월과 9월, 임기반의 초청을 받은 일본 구니아 목사와 일본 선교부 책임자인 F. W. 필드(Field) 목사가 내한함으로 조직적 선교가 시작되었다. 1907년 미미 샤펜버그(Mimi scharffenburg) 선교사에 의해 순안에 소학교와 사역자 양성학교를 세운 것이 현재 30개의 삼육학교로 성장했고, 1908년에 R. 릿셀(Riley Russel) 의사가 순안

에 세운 진료소는 현재 5개의 병원(전 위생병원)으로 발전되었으며, 1957년에는 병원장 루(Rue)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되기도 했다. 1909년 순안에 있던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였고, 교세가 증가함에 따라 1917년 개척지(Mission)에서 대회(Conference)로, 1919년에는 연합회(Union Conference)로 승격되었다.

1998년 현재, 한국 내 교회수 906개, 신도수 209,883명이 있고, 51개의 외국어학원, 출판소, 식품공장, 자연탐사과학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수십 개의 복지시설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군에는 양양읍 남문1리에 양양교회, 연창리에 양양제일교회가 있다. 양양교회는 1938년 8월에 처음 창립하였고, 양양제일교회는 1995년 5월에 양양읍 연창리에 각각 창립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208명이며 자세한 현황은 <표4-6>과 같다.

<표4-6> 제7일안식일재림교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교회	양양.남문108	이종식	1938. 8.	1	5	105	45	60
양양제일교회	양양.연창140	권철순	1995. 5.31.	1	4	103	35	68
계	2교회			2	9	208	80	128

##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

통일교회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약칭이다. 통일교회는 1954년 5월 1일 문선명에 의해 서울에서 창립되었다. 그는 1920년 1월 6일(음)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해인 1935년 부활절에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류를 불행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달라는 계시에 따라 선교를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의 목적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고, 둘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신령과 진리로써 통일하여 하나님주의에 의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여 완성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승공이념을 확립함으로써 이 땅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근절하며, 다섯

째는 통일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와 과학, 종교와 사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새로운 통일문화를 창조하며, 여섯째는 이 땅위에 하나님의 주위에 의한 하나님나라 건설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선교활동을 비롯하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과 국제 승공운동으로 펼쳐지는 통일세계운동, 교회일치운동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예술, 학술활동도 병행하고 있겠다. 통일교의 현 교세는 한국에 약 100개 교회와 50만여 명의 신도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한국 신자를 포함하여 약 400만 명의 신도가 있다. 양양에는 통일교회가 한 교회뿐이며 1970년에 창립하였으며 남·여 교인 수는 90명이고, 자세한 내용은〈표4-7〉과 같다.

〈표4-7〉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통일교회	양양. 남문 187	오남주	1970.	1	3	90	40	50
계	1교회			1	3	90	40	50

### 3)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신흥 종파로서 1872년 찰스 러셀(C. Russell)이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설립한 국제성서연구회가 그 기원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1931년 조지프 리더퍼드(J. Rutherford)가 러셀의 뒤를 이으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러셀의 후임자인 네이션노어는 뉴욕 사우스 랜싱에 위치한 타워 질르아드 성서학교를 세워 선교사와 지도자를 양성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인교육 과정을 두었다. 그후 1977년 프레더릭 프랜즈가 뒤를 이었고, 1992년 밀턴 헤첼이 후임으로 선임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교단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모든 세속의 권력과 모임들이 무의식 중에 사탄을 돕는 동맹자라고 간주하여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이든 국기에 대한 경례나 병역 의무 수행을 거부하고, 공공 선거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신한적인 면에서 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신정국가의 하느님의 대리인이



며,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

왕국회관(王國會館)이라고 부르는 교회당에서 집회를 가지며 간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서적인 근거로 수혈을 거부한다. 회중들은 정해진 구역이 있으며, 증인마다 전도할 이웃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하여 호별 방문, 성서연구, 도서와 잡지 보급 상황을 기록하여 매일 보고한다. 대표적인 출판물인 격주간 발행지(파수대 : The Watchtower)와 깨어나 : Awake!)는 1990년대 초에 112개 언어로 1,500만 부 이상 보급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1884년 러셀이 세운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국제성서연구회이다.

1992년 현재 99개의 지부 아래 229개 국가와 지역에 447만여 명의 증인들이 있으며, 한국에는 1912년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 R.R. 홀리스터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양양왕국회관의 창립년대는 알 수 없으나 양양읍 연창2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남왕국회관은 1994년 10월에 현남 광진리에 창설하였는데 교인수는 모두 93명이다.

〈표4-8〉 여호와 증인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양양왕국회관	양양.구교204-7	오도웅	2003. 9. 8.	-	7	46	-	-
현남왕국회관	현남.광진144-3	김봉기	1994.10.18.	-	4	29	9	20
계	2회관		-	11	75	-	-	

〈표4-9〉 양양의 기도원 현황

교 회 명	소 재 지	대표자	창 립 일	교역 자	장 로	교 인 수		
						계	남	여
시온산기도원	손양.하양혈85	권영준	1989.	1	-	4	3	1
양양금식기도원	손양.하양혈209	이춘석	2006.	1	-	4	2	2
계				2	-	8	5	3



## V. 천주교

### 1. 천주교의 전래와 박해

천주교는 16세기 말엽 중국에 전래되었고, 17세기에는 북경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주교가 서학(西學)이라 하여 서양문물의 하나로 간주되었을 뿐 신앙을 위한 종교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은 불교의 교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져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극렬히 배척당하였다.

학문적 대상이던 천주교가 종교신앙으로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의 영조 말엽부터였다. 당시 정치·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실학자들의 일부가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운동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천주교가 그 근본에 있어서 유교의 우주관·사회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유교의 인륜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신분계급주의를 배격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조 7년(1783년)에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서 서양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온 이후로는 신앙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이벽(李穡)·이가환(李家煥)을 비롯하여 정약전·정약중·정약용 형제, 권철신(權哲身)·권일신(權日身) 형제 등 남인 학자와 김범우(金範禹) 등 중인, 그리고 상민·부녀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확산에 대하여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점차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자 이것이 현실세계를 부정하고 전통적인 유교윤리를 혼란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조 9년(1785년)에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금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정조 15년(1791년)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윤지충(尹持忠)이 모상(母喪)을 당하여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한 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정부는 천주교 탄압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정조대에는 아직 천주교를 불교나 도교와 같은 황당한 류의 학문이라 여겨 유교정치에 힘쓰면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생각하여 극단적인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

정조의 뒤를 이어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순조 1년(1801년)의 신유사옥(辛酉邪獄)이다. 이 때 이승훈·이가환·정약중·주문모 등 300여 명의 신자가 처형되고 정약전·정약용 등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다. 이 천주교 박해는 내부적으로는 정조대에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노론 벽파(僻派)가 남인·소론 및 노론 시파(時派)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일으킨 것이었고, 한편에서는 홍경래(洪景來)의 난 등 각종 민란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의 농민항쟁에 대처하여 공포정치를 감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천주교를 앞세운 서양세력의 침투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무렵 천주교신자 황사영(黃嗣永)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서의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달라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각된 소위 황사영백서(帛書)사건이 일어났는데, 천주교가 외세에 의존하려 했던 행위가 조선정부를 더욱 자극시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보다 가혹해지게 되었다.<sup>1)</sup>

## 2. 양양천주교회의 설립과 발전

강원도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는 기록상 정확히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대원군 박해시대(병인박해)에 프랑스 선교사 뮈텔신부[Mutel, 한국이름 민덕효 ; 閔德孝]의 일기를 토대로 영동지역에 교우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전에 의하면, 양양지방에 천주교 신자가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충청북도 제천의 배론 교우촌(현 충북 제천시 봉학면 구학리)에 거주하던 이베드로(성명 미상)란 사람이 병인박해(丙寅迫害)<sup>2)</sup> 때 모친이 순교한 뒤 가족과 함께 양양면 화일리 범뱅이골<sup>3)</sup>로 피신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후 이베드로의 아우 이바오로와 강릉 삼정평(三井坪, 강릉시 구정면 어천리)에서 살던 김덕수, 그리고 그의 숙부가 범뱅이골로 이주하여 옹기점을 운영하면

서 새로운 교우촌이 형성<sup>4)</sup>되었는데 이것이 양양지방 천주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거듭되자 전라남도 강진, 경기도 양평 등지로 나가  
옹기 만드는 기술을 익혀 돌아와 화일리 본동, 강현면 복골(현 상복리), 짜리재(현 속초  
시 도문동), 장승골(서면 장승리), 한재(현북면 대치리), 명지골(현북면 명지리), 장두골  
(현남면 건불리) 등지에서 옹기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1887년과 1889년에는 각각 원산과 안변에 성당이 설립되면서 원산성당의 초대 드게  
트[Deguette, 최동진 ; 崔東鎭]신부와 뮈텔 신부가 영동지역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  
다. 뮈텔신부는 1882~1883년에 영동지방에 8개의 공소를 설립하였는데, 이 때 양양  
화일리에 세워진 쉬일공소(신자수 47명)가 양양지방 최초의 공소이다. 또한 1922년 양  
양성당 설립 당시인 1921년부터 1922년에는 918명의 교우들로 설립되었는데 1921년  
4월 17일(음력)에 상도문천주당으로 시작되었으나 남으로는 강릉에서 북으로는 통천까  
지 사목활동을 하기에는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초대 최문식[崔文植, 베드로 :  
1881~1952년] 신부께서 상도문리의 신자들이 성당 이전에 완강히 반대 하였지만 당시  
7년간의 꽤 가옥으로 남아 있던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입하여 현 양양읍 서문리 282번  
지에 성당을 옮겨 신축 1922년 12월 24일 축복식을 거행하므로 영동지구의 최초 성당  
인 양양천주당이 설립되어 이 지역의 교우들을 돌보았으며 공소 수는 모두 15개소에  
신자 수는 918명으로 기록 되어 있다.<sup>5)</sup>



서문리성당(1922.12.22.~1940.)



성내리성당(1940. 2.28.~1950.)

〈표5-1〉 양양천주당 설립당시 관할공소 및 신자현황

공 소	소 재 지	신 자 수
학야골	양양군 土成面 鶴也里(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107명
싸리재	양양군 道川面 上道門里(현 속초시 도문동)	200명
장 승	양양군 西面 長承里(현 양양군 서면 장승리)	26명
거마리	양양군 襄陽面 車馬里(현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	58명
삽 존	양양군 巽陽面 挿存里(현 양양군 손양면 삽존리)	42명
명지골	양양군 縣北面 明池里(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53명
외 면	고성군 水洞面 外沔里(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16명
산 두	고성군 梧垞面 山北里(현 고성군 거진읍 산북리)	102명
가마골	고성군 杆城面 廣山里(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58명
보리골	통천군 鶴一面 下花里(현 북한지역)	25명
견 불	양양군 縣南面 見佛里(현 양양군 현남면 견불리)	28명
제비골	강릉군 邱井面 濟飛里(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9명
금광리	강릉군 邱井面 金光里(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149명
오일골	강릉군 玉溪面 南陽里(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20명
느 랫	정선군 臨溪面 盤川里(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11명
계	15개소	918명

## 양양성당 설립이후의 주요 연혁

- 1921. 4.17. (음) 영동지역 최초로 상도문 천주당 설립, 초대 최문식(베드로) 신부 파견
- 1922. 2.17. 상도문에서 서문리 282번지로 성당 이전
- 1922.12.22. 서문리 천주당(양양성당) 축복식
- 1927. 제2대 유재옥(방지거) 신부 부임
- 1930. 라리보 주교 양양성당 방문
- 1935. 도문공소 강당 신축(26평 8칸) 준공
- 1936. 병자년 수해로 성당이 침수되어 성당집기 등을 2일 동안 안전지대로 보관
- 1937. 8. 양양읍 성내리 8번지 1,140평 부지 매입
- 1939. 6.24. 명지골출신 김교명(분도)신부 사제 서품
- 1939. 7.25. 제3대 이광재(디모테오)신부 부임(풍수원본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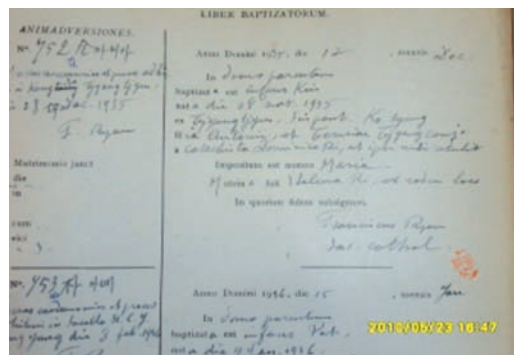
- 1940. 4.24. 현재의 성내리 8번지에 성당신축 축복식(춘천지목구 권란신부 집전)
- 1950.10. 8. 이광재신부 원산 와우동 방공호속에서 인민군에 의해 피살, 순교
- 1951. 1. 4. 1·4후퇴 당시 양양성당 전소
- 1954.11.30. 제4대 실리번(徐 토마. Thomas Sullivan) 신부 부임, 양양성당 신축 축복식 미사(주보 : 성녀 소화 데레사성당, 170명 세례성사)
- 1958. 1.20.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최초 레지오 마리아에 성모칠고꾸리아 설립
- 1958.10. 서토마스 설리반신부 미국 은인들의 도움 받아 수녀원 신축 (60평 2층 양옥)
- 1959.10. 현북공소 강당 신축 축복식 미사
- 1960. 물치공소 강당 신축(물치리 해변가)
- 1966.11. 3. 서토마스 설리반신부 이임, 제5대 힐리(玄 요셉. Patrick Joseph Healy) 신부 부임
- 1968. 9.15. 힐리신부 이임 제6대 스미스(千萬福. Patrick Christopher Smith)신부 부임 영원한 도움의 어머니 수녀회 철수
- 1972. 5. 7. 스미스신부 이임 제7대 머레이(咸 브렌다노. Brendan J. Murray)신부 부임
- 1973. 양양성당 내에 신자 중심으로 신용협동조합 설립 (초대이사장 : 김종길토마, 회원 약 60여 명)
- 1973.12. 7. 양양성당 출신 김택신(요셉)신부 사제서품(손양면 남양리 출생)
- 1976. 4.17. 양양성당 제8대 주임신부로 머피(全 고르넬리오, Cornelius Patrick Murphy)신부 부임
- 1977. 전 신부 이임, 제9대 올랭시(林 요한. Sean Prionsias O' Loingsigh)신부 부임
- 1981. 4.23. 올랭시신부 이임 제10대 스미스(千 말라키. Malachy Smith)신부 부임 양양본당 설립 60주년 기념미사 기획 추진
- 1983.10. 1. 이광재신부 순교각 제막 미사
- 1984. 5.29. 천 말라키신부 이임, 제11대 송병철(야고보)신부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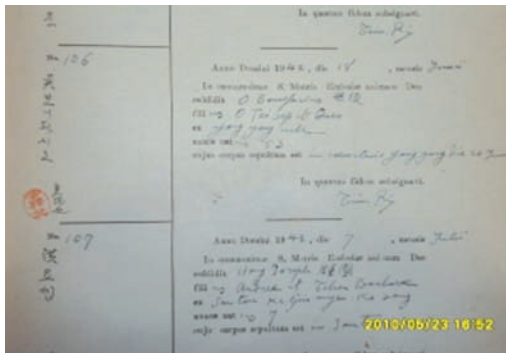
- 1988. 4. 6. 양양성당 수녀원 신축 축복 미사  
(부산 성 베네딕도수녀회 소속 최진현페트라, 박스바니아수녀 부임)
- 1990. 2.25. 송병철신부 이임, 제12대 김정식(토마)신부 부임
- 1994. 6. 5. 김정식신부 이임, 제13대 이태혁(요아킴)신부 부임
- 1994. 7. 5. 양양성당 출신 김길상(다니엘)신부 사제 서품
- 1996. 현북공소 가정간호의 집 축성식(장익주교 집전)
- 1998. 2. 이태혁신부 이임, 제14대 이동주(시몬)신부 부임
- 1999. 3.22. 디모테오어린이집 신축 축성식(장익주교 집전)
- 2000. 1. 1. 대희년 순례지성당으로 양양성당 지정
- 2000.10. 8. 이광재신부 순교 50주기 추모미사(양양초등학교 운동장) 영북지역 1,000여 명 신자 참석
- 2001. 1.12. 양양성당 출신 고봉연(요셉)신부 사제 서품
- 2001. 5.20. 본당신자 100여 명 38도보순례
- 2002. 9. 제15대 정원일(가브리엘)신부 부임
- 2004. 9. 제16대 김명식(가브리엘)신부 부임
- 2006. 3. 최효규(라우렌시오)신부 부임
- 2006. 9. 제17대 엄기주(요한 크리스소스토모)신부 부임
- 2006.12. 7. 양양본당 출신 김택신(요셉)신부 퇴임미사(춘천 죽림동성당)
- 2009. 9.24. 제18대 오상철(토마스 아퀴나스)신부 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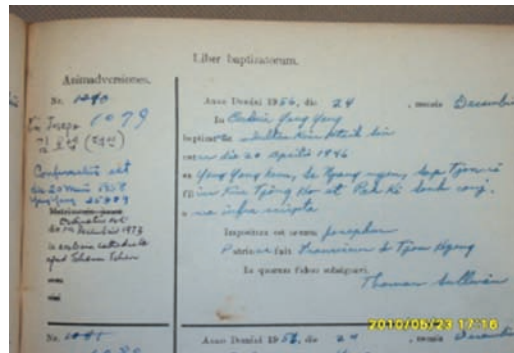
초대 최문식 베드로(충청도 공주군 출신)신부가 1925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2대 유재욱 프란시스코(경기도 화성군 출신)신부가 1935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3대 이광재 디모테오(강원도 이천군 출신)신부가  
1942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4대 설리반 徐 토마(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신부가  
1956년에 라틴어로 작성한 세례대장

### 3. 양양천주교회의 회고와 전망

양양천주교회 90년의 역사는 영동지역 교회사라 할 수 있고, 적어도 성당설립 초기부터 중반부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초까지는 바로 영북지역 교회사라 할 수 있다. 영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복음전파나 교회설립이 매우 늦은 지역이다. 지형적인 특성이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대의 박해인 동시에 마지막인 병인박해 당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교우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로 인해 천주교의 불모지였던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 이후로 천주교의 전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많은 지역에 교우촌이 생겨나고 이 교우촌을 바탕으로 공소가 설립되었으나, 본당이 설립될 때까지는 반세기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무엇보다 국내에는 사제들이 부족하여 이 지역을 전담할 사제를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경도 등지에서 1년에 두 번씩 순방하여 잠깐 성사를 집행하고 떠나는 선교사들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지역 신자들은 초대 교회 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중국 베이징의 주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시 영동지역을 관장하였던 사제와 주교들에게 끈질기게 본당 설정과 사제 파견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영동지역 신자들이 본당을 이룰 만큼 늘어난 데다 새 신부들이 여러 명 탄생되자 1921년 이 지역에도 본당이 설정되고, 사제가 연이어 두 명이나 파견되었다. 사제

들이 파견되면서 본당 신자들은 성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며 본당의 성당과 공소의 강당을 건립하는데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의 영동지역 신자들은 자신의 본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선교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본당이 설정되고 20년이 지나면서 일제 말기의 전시 체제와 광복 후의 사상적 혼란으로 양양본당은 연이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광복과 함께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본당이 38° 선 이북에 놓이게 되어 성당건물을 소련군과 인민군에게 빼앗겨 적산가옥으로 쫓겨났고, 이마저도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전소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본당 제3대 이광재 신부는 북한교회 사목을 위해 선교활동을 하던중 체포되어 순교하였으며, 제2대 주임신부였던 유재옥신부와 본당 출신 김교명 신부도 순교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후 양양본당은 전후(戰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군중사제의 도움으로 간헐적으로 성사와 미사의 혜택을 받으며 겨우 유지하게 되었다.

1954년에 성 골롬바노 외방선교회와 미군들의 도움으로 양양성당이 재건되고, 설리번신부가 제4대 주임신

부로 부임하면서 성당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설리번 신부는 양양 지역의 구제 사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설리번 신부는 본인의 고국인 미국의 친척, 친구, 사회단체 등에게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운 생활상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설리번 신부의 부탁을 받은 이들이 양곡, 의류, 유제품 등의 구호물품을 많이 보내와 이 구호물품들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자 각 면에 배정하여 면사무소 창고마다 물건들이 가득 찼다. 당시 우리나라에 보내진 구제 물품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일반인들에게도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구호사업이라



이광재 (디모테오)신부



양양성당 축성기념(1954.11.30.)

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설리번 신부는 당시 양양중학교에 진학을 포기한 현북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소 신자들과 협의하여 중학교 교재를 구입하여 공소건물(현북면 상광정리 542-1)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 춘천교구와 성 골롬바노 외방 선교회 보조금, 설리번신부의 개인자금 등으로 교실 4칸과 교무실 및 기숙사 각1동을 건립하여 현북농업전수학원을 설립 1963년 2월 40명의 남녀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196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67년 10월 28일 교육부(당시 문교부)로 부터 공립학교로 인가(3학급)되어 1968년 3월 5일에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늘의 현북중학교로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설리번 신부가 양양을 떠난 후부터는 다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농어촌 붕괴, 도시빈민 양산 등과 함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농어촌 본당들이 쇠락해지는 우리나라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휩싸이게 되었다.

양양본당을 한국인 사제들이 맡으면서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사제와 신자 모두가 불편하였던 문제들이 해소되자, 사제와 신자들은 성당 증축이나 어린이집 건립 등 외형적인 사업 외에도 자신의 성화와 복음화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2000년 대희년과 함께 이광재 사제 순교 50주년과 본당설립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화해와 용서와 나눔의 복음정신과 이광재 신부의 순교정신을 본당 신자들 모두가 생활화함은 물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성화와 지역 복음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sup>6)</sup>

양양본당은 교구 사목방침에 따라 복음화에 총력하여 신자들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 확립과 양양성당 성지화, 이광재 신부 유해 모셔오기, 성당주변 정비, 38도보순례길 정



현재의 양양성당

비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하여 양양성당 성지화를 통한 38°선 도보순례길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례객 및 성직자, 수도자가 머무를 수 있는 회관 건립과 본당 설립 100주년(2021년)을 향한 기본계획수립, 이광재 신부 순교100주년(2050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영동 지역 모본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양양천주교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양본당은 양양군 1읍 4면에 94개리를 관할하며 1,000여 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비록 관할구역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신자수 또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신자 개개인이 자신이 서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모든 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양양본당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참된 본당의 전형으로 발전할 것이다.<sup>7)</sup>

집필 : 전유길

## 각주

- 1)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2, 353~354쪽.
- 2) 고종 3년(1866년)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규모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 3) 지금의 양양읍 화일리에 있는 자연지명으로 일명 '범방굴'이라고도 하며, 신배나무굴 북쪽에 있다.
- 4)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양양본당 80년사』, 2001, 기쁜소식, 39쪽.
- 5)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42쪽, 66쪽, 70쪽.
- 6)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268~269쪽.
- 7)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01, 268~269쪽.

## 참고문헌

양주지편찬위원회, 1990, 『양주지』, 강원일보사 출판국.  
 춘천교구 양양본당 80년사편찬위원회, 2001, 『양양본당 80년사』, 기쁜소식.  
 변태섭, 2002, 『한국사통론』, 삼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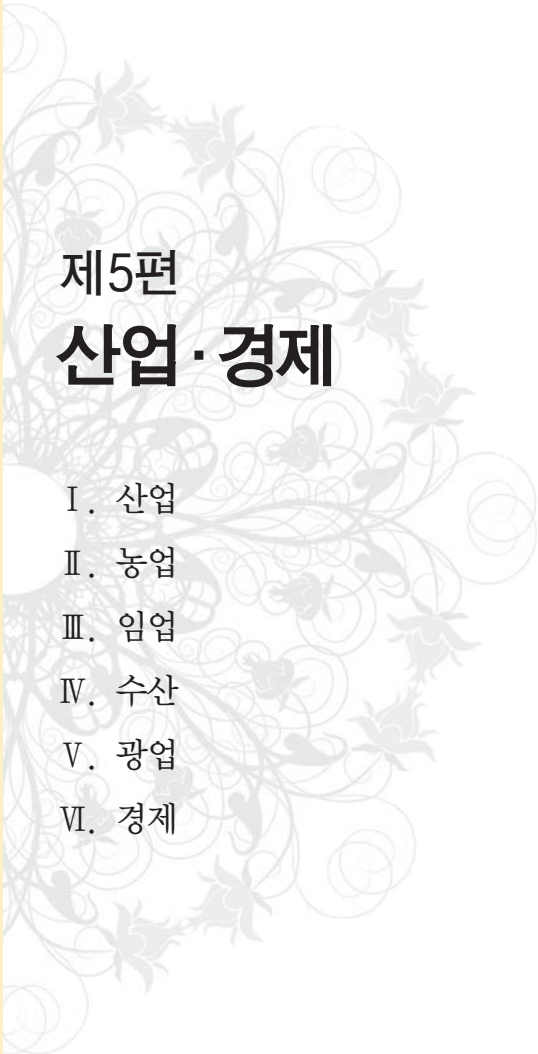


# 제 5 편

## 산업 경제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wirling vines and stylized flowers, positioned behind the main title and list.

## 제5편 산업·경제

- I. 산업
- II. 농업
- III. 임업
- IV. 수산
- V. 광업
- VI. 경제



## I. 산업

### 1. 개황(概況)

양양군은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뻗어 설악산(1,708m), 응봉산(1,360m), 오대산(1,565m) 등이 이어져 높고 험준하며, 동해안 쪽은 산지가 급경사를 이루며 해안에 약간의 평지가 있어 농경지로 이용된다. 평지는 해안을 따라 2~4km너비로 길게 발달되어 있다.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농업이 활발하였다. 총 경지면적 3,711ha 중 논이 2,462ha, 밭이 1,249ha로 논이 밭보다 약간 넓다.

2008년 현재 농가는 2,965가구, 농가인구 7,722명으로 농가인구는 2003년보다 6%가 줄어들었다. 식량작물은 미곡(米穀) 9,955t, 서류(薯類) 4,620t, 잡곡 893t 등을 생산하며 식량작물 중에서 미곡과 서류의 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참깨·들깨 등의 특용작물은 생산이 미미하며 사과·배·복숭아·감 등을 조금씩 재배한다.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가 5,658대 보급되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축 사육은 한우 5,419마리, 토끼 3,334마리, 돼지 25,401마리, 닭 5,244마리이다. 임야면적은 2008년 말 기준 5만 2,451ha로서 전체 면적의 84%정도이다. 이중 국유림이 36,008ha, 사유림이 14,736ha, 공유림이 1,707ha를 차지한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17,802ha, 활엽수가 20,846ha, 혼효림이 12,712ha이다. 주요 임산물은 송이버섯, 밤·대추·버섯·산나물 등으로 연간 임산소득은 103억 원이다.

어가 수는 2005년 현재 300가구로, 전업 가구가 123가구 겸업 어가가 177가구이며, 어가인구는 968명으로 대부분이 겸업에 종사한다. 근해(近海)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이 풍부하다. 연안(沿岸)앞바다에서는 오징어·가자미·대구 등이 많이 잡히고 있으며, 대표적 한류성 어종이던 명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차

참 개체(個體)수가 줄어 지금은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수산물 어획고는 2,159t이며 이 가운데 오징어가 345t으로 가장 많고 임연수어 225t, 방어 221t, 가자미 133t 등으로 어획되었다. 어선 수는 2008년 말 현재 총 321척 가운데 동력선이 314척, 무동력선이 7척이며, 5t미만의 소형어선이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남대천으로 회유하는 연어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이다. 손양면 송현리에 위치한 국립수산물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는 매년 회귀하는 연어를 포획하여 수정란을 부화한 후 건강한 치어를 이듬해 봄 남대천에 방류하여 바다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모천인 남대천으로 회귀해 연어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우리군은 연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 가치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남대천하구 및 연어 소상로 주변일원에 200,000㎡의 면적을 연어특구로 지정해 연어 테마파크, 연어아트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연어와 관련한 산업을 집산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약 462.4만t 자철광(磁鐵鑛)이 매장되어 있어서 양양철광산의 경우 한때 국내 제1의 철산지를 이루었으나 철광의 고갈과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폐광하였다. 이 철광석은 과거 거의가 포항종합제철소에 공급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15개 광구 중 현재 가행 광구는 비금속광물 3개 광구이며,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채굴하고 있는 규사는 2008년도에는 연간 24,168t으로 급락하였다.

생산단지로는 양양읍 포월리 261번지 일원에 11만 6,727㎡ 부지 위에 포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2002년 현재 32개 업체가 입주해 100%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추가로 10만 1,210㎡ 규모의 제2그린농공단지를 양양읍 포월리 산 49번지 일원에 2012년 준공목표를 조성 중에 있다. 이 농공단지에는 송이가공, 청정식품개발, 친환경벤처기업이 들어서게 된다.

## 2.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왕조의 집단과정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큼 토지제도는 매우 중요하였다. 고려는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 국유의 원칙을 표방하고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대장에 등록시킨 후 필요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하여 토지 자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만을 위양하되 대체로 일대(一代)에만 국한하였다. 따라서 관리 처분권은 국가에게만 있었다.

국초에 태조는 구세력을 포섭하기 위하여 귀부자(歸附者)에게 식읍(食邑) 사전(賜田) 등의 형식을 빌려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기반을 유지케 하였으며, 태조 23년(940년)에는 건국에 공로가 있는 신하와 군사에게 그 본래 소유지의 다소와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役分田)이란 것이 있었다. 그리고 외방의 향리에게 지급된 직전 또는 외역전(外役田)이라는 것이 있었고 군인도 군역의 대가로서 군인전을 받았다.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그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해전(公廩田)이 지급되어 공해전자(公廩田紫)라 하였다. 왕실 직할시인 내장전과 왕자 비빈의 궁원의 소속인 궁원전(宮院田)도 있었다. 그리고 국경이나 연해 요지의 방위를 위한 주둔 군마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둔전이 설치되었으며 그 밖에 학교의 경비를 위한 학전, 왕의 친경(親耕)을 위한 직전(籍田), 외족(外族), 내투자(來投者)에 준 투화전(投化田), 사원(寺院)에 사여(賜與)·기진(寄進)되는 사원전(寺院田) 등이 있었다. 모든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려중기의 무신정권 이후 권문세가에 의한 장원이 확장되어 토지제도는 문란해지고 농민들은 전호(佃戶 : 소작인)로 전락되었다. 고려 말 이성계 등 신진세력은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신흥 세력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제를 개혁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였다.

### 3. 조선의 토지제도

#### 1) 전제(田制)

고려 때 균전법(均田法)을 만들어 일반 전지(田地)를 공전(公田)으로 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3년마다 일차식 증감을 조사하였다. 대신(大臣)이하 하급관리에게까지 녹전(祿田)이 있고, 그 외에 사원토지(寺院土地)가 있었다.

1392년 태조는 과전제도(科田制度)를 만들어 사패지(賜牌地), 궁토(宮土), 관전(官田), 위토(位土), 둔전(屯田), 역전(驛田), 사전(寺田), 군전(軍田) 등을 규정하였고, 일부 토지는 개인에게 분배하여 개인제(個人制)를 시행하였다. 개인제란 개주와 개호가 있어 개호가 개주의 일부 토지를 경작 수입하는 대상으로 개호(個戶)가 합력(合力)하여 개주의 토지를 경작 수확하여 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관전, 역둔전, 학위전, 제위전 등의 공토와 입안 매매를 할 수 있는 사전(私田)이 있었다.

성종 21년 경술년(1490년)에 낙산사에 전(田), 답(畓), 노비(奴婢) 등을 하사하고, 와현(臥峴 : 당시 사현, 즉 적은, 방축리)이하 전부를 하사하니 이것이 곧 이 지방의 사패지(賜牌地)이다. 인조 6년 무진년(1628년)에 부사 조위한(趙緯韓)이 동명서원을 신설하고, 학전과 분반(盆般)을 두고 숙종 8년 임술년(1682년)에는 부사 최상익(崔商翼)이 향교를 이건하고, 현남면 동산리 소재, 답 세곳을 이속하였다. 이것이 곧 조선시대 학위전인 것이다. 지금도 그 문헌이 남아 있다. 숙종 23년 정축(1697년)에 이 고장 향교 유림 15인이 연명으로 현북면 면록치(綿鹿峙 : 현 면옥치)를 향교 입안지로 청원하여 부사 김연(金演)이 허락하였다. 이것이 군(郡)의 입안문서로서는 최고 문헌이다. 입안이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여 또는 불하제도와 같은 내용이다. 일반 주민이 황무지를 개간코자 할 때는 그 토지에 사표(四標)를 기록(현 측량과 같은 것)하고, 입안서(立案書)를 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개간한 후 결세(結稅)를 납부하고 사유로 만든다.

숙종 28년 임오(1702년) 향교에서 조곡 10석, 현금 5량으로 양양 정손리(현 기정리) 앞 뜰 득운평(得雲坪) 답(畓) 7두락(斗落)을 매수한 일이 있다. 이것이 매매문(賣買文)으로는 가장 정확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사실상 매매는 이루어졌다.

효종, 현종, 양조(兩朝) 이후 특기할 것은 각종 계(契)와 계답(契畓) 또는 계재산(契財産)이란 것이 있었다. 이 지방에 있었던 계를 분류하여 보면 대략 3종이 있었다. 실리(實利), 상조(相助), 사교(社交)로서 생산, 식리(殖利), 저축, 수리, 양림(養林) 등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보존, 종족, 교육, 혼상(婚喪) 등이며, 셋째로 기구(耆舊), 보인(輔仁), 동경(同庚), 신앙 등이 있다. 누구나 출자하여 이식(利息)을 취하고, 재산을 적립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사회, 경제의 양방면으로 큰 세력이 되는 동시 소유면적이 관둔전(官屯田) 등 공토(公土) 이상에 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고종 33년(건양 1년) 병신(1896년)에 농부(農部)훈령으로 각종 공토를 둔토로 편입시켰다. 고종 40년(광무 7년) 계묘(1902년)에는 지방에서도 양지(量地 : 측량)를 시행하고, 구문권을 토지아문(土地衙門)에 납입하고 신관권(新官券)을 받게 하였다. 1916년 토지 세부(稅賦)측량을 실시하고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동 12년 임야구분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임야의 소유권을 확립하였고 1923년 역둔토(驛屯土)를 10년 년부(年賦) 상환으로 민간에게 불하하였다.

## 2) 소작관계(小作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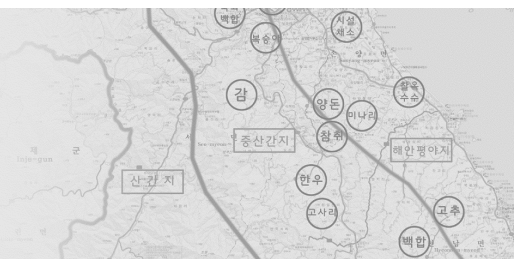
토지 매매제도가 시행된 후 간평(看坪 : 즉 답험제(踏驗制))제와 타조반분제(打租半分制)가 실시되었다. 고종 연대에도 대개 동일하게 정도인납제(定租粃納制)가 시행되었으며 1937년 정조인납제가 정조작미제(定租作米制)로 바뀐 후부터 소작료가 4~5할 인상되었다.

집필 : 이규환

## 참고문헌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2009  
 양양군, 「양주지」, 1990  
 양양군경제도시과, 농공단지현황2008, (내부자료)  
 양양군산림농지과, 산림현황2008, (내부자료)  
 양양군해양수산과, 어업현황2008, (내부자료)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현황2008, (내부자료)





## II. 농업

### 1. 개설(概說)

농업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키우는 유기적 생산업이라고 정의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임업도 포함시켜 이른다. 농업은 우리들 삶에 생명유지를 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며, 생활에 필요한 많고 다양한 일용품들의 원료를 조달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그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농업생산이 자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과거 보다 크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온도, 습도, 강수량 등의 자연조건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므로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2차, 3차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에도 연계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부각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들어 산업의 복합화나 융합화라고 하는 것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어 농업이 농업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2차, 3차 산업과 연계시키며 1, 2, 3차를 합친 6차 산업화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양양군의 경우에는 산과 바다, 호수와 하천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다양한 1차 산물들이 생산되므로, 이러한 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과 이들 산물과 가공품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과 접목시켜 6차 산업화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일부 산물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산업의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큰 것이어서 앞으로 더 폭 넓게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양양군은 남북으로는 한반도 중심부에 있으며, 동서로는 동편에 자리 잡고 있다. 북위 38° 선이 군지역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있다. 군의 서편은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는 태백산맥이 있어 군 전체 74%가 표고 100~1,360m를 나타내는 산악지형이며, 군의 동

편은 43.6km의 동해안을 끼고 있어 대부분 100m 이하의 표고로서 시가지와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면적은 628.8km<sup>2</sup>로서 서울(605.4km<sup>2</sup>)보다 조금 크며, 북쪽으로 이웃하고 있는 속초(105.3km<sup>2</sup>)의 5.7배에 이르고, 1개 읍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의 세대는 점차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12,122세대 28,699명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5,310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은 연 평균기온 13°C, 연 강수량은 1,200~1,800mm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작물생산에 적절하며, 최근에 들어 확대되고 있는 기후온난화의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양양군은 영동지역에 속하는 6개 시군 가운데 하나로서 북으로는 속초시와 접하고 있고, 남으로는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4개 시군은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인데 이들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춘천을 연결한 경춘고속도로의 연장으로 홍천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15년경에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들과는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업의 모습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 2. 농업생산기반

### 1) 토지지목별 현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지목(地目)이라고 하고, 이는 지적법상의 토지의 분류로서 28개로 나누어져 있다.

양양군의 총면적 628.90km<sup>2</sup>의 지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1〉 토지지목별 현황

(단위 : 천㎡)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지 목	면 적
전	23,854	대 지	5,666	철도용지	866	공 원	33
답	29,724	공장용지	323	하 천	12,108	체육용지	14
과 수 원	423	학교용지	325	제 방	968	유 원 지	-
목장용지	837	주 차 장	98	구 거	6,393	종교용지	120
임 야	530,130	주유소용지	27	유 지	1,139	사 적 지	0.7
광 천 지	-	창고용지	132	양 어 장	26	묘 지	186
염 전	-	도 로	11,221	수도용지	11	잡 종 지	4,280

자료 : 양양군, 「양양군 통계연보」 2009

28개 지목 가운데 가장 큰 용도는 임야로서 84.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의 지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다. 지목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답이 4.7%로 전의 3.8%보다 크고, 목장용지가 0.13%로 과수원 0.07%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들의 합이 8.7%로서 임야까지 합치면 넓은 의미의 농업용지가 9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광천지와 염전과 유원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면이 42.6%로 가장 크고, 다음이 현북면으로 26.1% 이어서 이들 두 개면이 군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2)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는 2,965호로 군 전체 가구수 12,227호의 24.2%를 나타냈다.

2004년 2,817호까지 감소하던 농가수가 2005년에는 3,404호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는 총 7,722명이며, 남자는 47.6%인 3,673명으로 여자의 52.4%인 4,049명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도 농가수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9,395명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인 후 다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인구가 군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5%를 나타냈다.

농가호수로나 농가인구로나 군 전체의 구성비가 1/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농가

호수 8.0%, 농가인구 7.3%)과 강원도(농가호수 13.0%, 농가인구 14.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구성비임을 알 수 있다.

〈표2-2〉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호, 명)

연 별	농 가	농 가 인 구		
		계	남 자	여 자
2002	2,935	8,646	4,267	4,379
2003	2,875	8,199	4,004	4,195
2004	2,871	8,152	3,914	4,238
2005	3,404	9,395	4,673	4,722
2006	3,188	8,248	3,891	4,357
2007	3,116	8,163	3,906	4,258
2008	2,965	7,722	3,673	4,04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

농가호당 인구는 2.6명으로 양양군 세대당 인구인 2.3명에 비해 조금 높았다.

세대당 인구는 1965년 5.7명에서 1975년 5.0명, 1985년 4.1명, 1995년 3.3명, 2005년에는 2.5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왔다. 이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뀌는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수도 1950년대의 네 자녀에서 점차 두 자녀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한 자녀만 낳거나 아예 무자녀를 표방하는 가정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촌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도시로 유출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농가에는 고령화된 노부부만 남아 농사를 짓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3) 경지면적

#### (1) 경지면적

농업에 있어서 토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양양군은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바짝 붙어 서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못한 편이다.

2008년 말 현재 논밭을 합친 면적이 3,711ha로서 이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위를 나타내는 크기이다. 그 가운데 논이 66.3%를 차지하였고, 밭이 33.7%를 구성하고 있다. 양양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바, 1983년의 5,332ha 규모이던 것이 24년 동안 1,608ha인 30.2% 나 감소하였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유흥지,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경지면적

(단위: ha, a)

연 별	총 계	논	밭	가구당 경지 면적		
				계	논	밭
2002	3,854	2,638	1,216	131.3	89.9	41.4
2003	3,818	2,611	1,207	132.8	90.8	42.0
2004	3,802	2,570	1,232	132.4	89.5	42.9
2005	3,798	2,567	1,231	111.6	75.4	36.2
2006	3,768	2,573	1,195	118.2	80.7	37.5
2007	3,724	2,563	1,161	119.5	82.3	37.3
2008	3,711	2,462	1,249	125.2	83.0	42.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

## (2) 가구당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은 125.2a로서 논이 68.9%, 밭이 31.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강원도의 가구당 경지면적인 148a보다 19.3%나 작은 규모이다. 이는 양양군의 농업이 경영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계속 감소하던 규모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 (3) 경지이용률

경지이용률이란 주어진 경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경지이용률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 1965년의 165.3%까지 높았던 것이 매년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03.0%로 떨어졌다. 강원도의 경우

1965년 141.3%에서 점차 떨어져 2008년에는 93.2%까지 낮아졌다. 10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경지면적에서 쉬고 놀리는 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국에 비하여 강원도의 경지이용률은 늘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이것은 산악지역이 많고 위도가 높아 동절기가 빨리 오며 긴 탓으로 농지의 이용도가 영호남의 남부지역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양군도 산악지형과 위도가 높으므로 경지이용률이 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최근에 들어 온난화 등의 영향과 시설농업을 위한 자재의 개선이나 농법의 개발로 경지이용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농업의 재산성 악화 등의 영향에 밀려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표2-4〉 경지이용률(전국 : 강원)

(단위 : ha, %)

연 도	전 국			강 원		
	경지면적	이용면적	이용률	경지면적	이용면적	이용률
1965	2,256,396	3,587,719	165.3	158,261	203,533	141.3
2008	1,758,795	1,834,243	103.0	113,101	106,762	93.2

자료 :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20년간 강원지역 경지 및 재배농작물의 변화」, kostat.go.kr

#### (4)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이른다. 1992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정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표2-5〉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 천㎡)

용도구역별	합계	농 지									비 농 지
		계	답	경지 정리	전	경지 정리	과수원	경지 정리	기타 농지	경지 정리	
농업진흥지역	16,905	15,189	12,157	8,171	1,344	237	99	2	1,591	1,083	1,715
- 진흥구역	16,632	14,932	11,946	8,003	1,338	235	99	2	1,550	1,064	1,700
- 보호구역	273	257	211	168	6	2	0	0	41	19	15

자료 : 양양군 산림농지과 내부자료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2008년 현재 16,904,464㎡로 군 면적의 2.7%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은 16,631,906㎡로 전체 농지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1.6%로 나타났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논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밭은 8.0%, 과수원은 0.6%, 기타농지가 9.3% 그리고 비농지가 10.2%로 나타났다.

한편 진흥구역 내 논·밭의 경지정리율은 67.0%이었으며, 밭의 경지정리율은 17.6%로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를 보였다.

## (5) 수리답

경지 가운데 논·밭의 경우 작물 생산과정에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끌어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밭의 속성상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필요한 농업용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리안전답은 농업경영자가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양양군의 수리안전답은 2,563.0ha로서 수리안전답률이 77.3%로 나타났다.

〈표2-6〉 수리답 현황

(단위 : ha, %)

수리답	수리안전답	기타수리답	수리안전답률
3,145.9	2,563.0	582.9	77.3

자료 : 양양군, 앞의 책

#### 4) 농업수리시설

농업수리시설로는 설악저수지, 연창양수장, 손양양수장 세 곳이 있다. 각 시설의 제원과 수리안전담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각 시설들은 한발빈도 10년과 홍수빈도 20-200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서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10여 개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물치천과 남대천 그리고 화상천이 조금 큰 하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북쪽을 흐르고 있는 물치천은 설악산의 대청봉(1,708m)과 화채봉(1,077m) 사이골, 둔전골에서 모여진 물을 둔전리의 설악저수지에 가두어졌다가 물치리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

〈표2-7〉 농업수리시설 현황

제 원 \ 시설명	설악 저수지	연창 양수장	손양 양수장
수 계 명	물 치 천	남 대 천	남 대 천
위 치	강현면 둔전리	양양읍 연창리	손양면 송현리
착공일자	1976. 1. 1.	1998. 3.23.	1999. 1. 1.
준공일자	1980.12.30.	1999.12.30.	2002.12.20.
총저수량	1,438천㎥		
제당높이/제방표고	41.1m(포고:215EL.m)	10.5EL.m	5.8EL.m
수리안전담 면적	225.6ha	130ha	79ha
취수능력/최대양수량	1.84㎥/sec	0.56㎥/sec	0.4㎥/sec

자료 :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 내부자료에서 정리

남대천은 오대산 두로봉(1,422m)과 응복산(1,360m)에서 발원한 물이 합류하여 법수치리와 어성전을 거쳐 양지말에서 북으로 흘러 용천리와 월리 사이에서 오색령(920m)과 약수산(1,306m)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양양읍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그 하천길이가 37.1km에 이르는 매우 긴 하천이다. 남쪽을 흐르는 화상천은 삼형제봉(618m)에서 발원하여 입암리를 거쳐 동해로 들고 있는 하천이다.

양양군은 높은 산들을 경계에 두고 있어 골이 깊은 지역이 많아 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5) 농업용 기구·기계

농업생산에 있어 토지와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요소가 중요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낫보다는 콤바인이, 삽보다는 포크레인 이, 손보다는 이앙기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표2-8〉 농업용 기계 보유

(단위 : 대)

연별	총 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2007	5,417	2,133	582	1,263	386	192	360	180
2008	5,658	2,044	627	1,237	416	210	377	206

자료 : 양양군, 앞의 책에서 정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농기계 보급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경운기 수준에 머물던 것이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농업용 관정과 양수기도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정은 1,102개소가 있으며, 양수기는 454대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농기계의 대형화, 다양화와 함께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6) 비료 공급 실적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농기계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비료생산과 공급의 확대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원래 땅의 힘인 지력은 그 토양이 지니고 있는 성분에 의해 결정되지만, 농작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을 포함한 유기질 비료가 퇴비의 형태로 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학비료가 대량생산되게 되었고 공급확대와 종류의 다양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화학비료의 사용증대로 영농비가 상승하는 문제점과 병충해 발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약사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표2-9〉 비료 공급

(단위 : M/T)

연별	성 분 별				종 류 별						
	계	질소질	인산질	가리질	계	유안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	복합비료	용과린
2007	994	558	202	234	2,239	32	480	6	12	1,706	3
2008	1,124	589	275	260	2,695	29	564	1	11	2,088	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성분별로 보면 총 1,124M/T를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질소질 비료가 가장 많아 52.4%를 차지하였고,加里질이 23.1%, 인산질이 24.5%를 나타냈다.

종류별로 보면 총 2,695M/T를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복합비료가 77.5%로 3/4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요소가 20.9%, 나머지 종류들은 적은 양들을 나타냈다.

### 3. 농업생산

#### 1) 식량작물

식량작물의 총면적은 2,918ha이며, 이 가운데 주식작물인 미곡이 77.2%의 2,254ha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두류가 8.4%의 245ha, 잡곡이 7.2%의 210ha, 서류가 6.2%의 180ha 순이었고, 맥류가 1.0%인 29ha로서 가장 낮았다.

한편 식량작물의 총생산량은 15,908.8M/T이며, 이 가운데 역시 주식작물인 미곡이 62.6%의 9,955M/T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류가 29.0%의 4,620M/T를 나타내 강원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잡곡이 5.6%의 892.4M/T, 두류가 2.4%의 388.2M/T 순이었고, 맥류가 0.3%의 53.2M/T로서 가장 작았다.

식량작물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순으로 살펴보았다.

## (1) 미곡

### 가. 생산

우리 농업의 상징이며, 민족의 주식인 쌀은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소비량과 전체 소비량이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맑고 깨끗한 남대천 물이 흐르는 양양에서 재배한 쌀은 색택이 투명하고 충실도가 있어 모양과 크기가 균일하다.

재배면적은 2,254ha이며, 재배 농가수는 3,000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량은 9,955M/T 이다. 주재배 품종은 오대, 운광, 오대1호, 호반, 상주찰, 조생흑찰 등이고, 재배되는 벼는 모두 논벼이며, 밭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2-10〉 미곡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논 벼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2005	2,218.0	10,184.0	2,218.0	10,184.0
2006	2,214.0	9,447.0	2,214.0	9,477.0
2007	2,265.0	9,785.0	2,265.0	9,785.0
2008	2,254.0	9,955.0	2,254.0	9,955.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나.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과 보관

전국적으로 볼 때, 쌀의 생산량 즉 공급량이 소비량 보다 많아, 매년 공급초과로 수확기의 미곡시장에서의 쌀값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농가의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는 생산농가의 경제안정화를 위하여 추곡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미곡은 1,191M/T이었으며, 이 가운데 1등급이 79.7%의 949M/T로 가장 많았고, 특등급이 17.9%의 213M/T, 2등급이 2.4%의 29M/T 그리고 3등급은 없었다.

〈표2-11〉 공공비축 미곡 매입

(단위 : 1,000kg)

연 별	실 적	등 급 별				종 류 별 일반매입
		특 등	1등	2등	3등	
2005	1,773	56	1,536	179	2	-
2006	1,572	190	1,231	150	1	1,572
2007	1,365	81	1,052	230	2	1,365
2008	1,191	213	949	29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이렇게 매입한 미곡은 정부관리양곡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대한통운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을 정미하거나 제분하는 가공공장은 없는 실정이다.

〈표2-12〉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단위 : 개소, m<sup>2</sup>, M/T)

연 별	대 한 통 운 창 고		
	동 수	면 적	보 관 능 력
2005	1	1,150	1,825
2006	1	1,150	1,825
2007	1	1,152	1,825
2008	-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맥류

보리는 쌀과 함께 주식을 이루는 곡물이다. 과거의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우리들의 식량사정이나 삶의 모습을 함축하여 담고 있듯이, 추수기에 거둔 수확량으로는 늦가을과 겨울을 지나 봄을 넘기기도 쉽지 않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곡식이다.

〈표2-13〉 맥류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겉 보 리		쌀 보 리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8.0	43.7	15.0	6.7	3.0	7.0
2006	22.0	54.7	19.0	47.6	3.0	7.1
2007	22.0	53.2	20.0	48.0	2.0	5.2
2008	29.0	72.9	27.0	67.7	2.0	5.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늘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쌀의 다수확품종이 개발되면서 주곡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었고, 보리는 외면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리는 다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농가에서의 생산면적과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양양군의 보리생산은 겉보리가 면적에서나 생산량에서 92.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를 쌀보리가 채우고 있다.

대량의 수입산 밀가루가 국내시장을 점차 장악하면서 국내에서의 자급도가 거의 0%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밀도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국산 밀 살리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으나 양양군에서의 생산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 (3)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의 잡곡도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이를 보충하던 역할을 해 낸 중요한 곡물자원이다.

〈표2-14〉 잡곡

(단위 : ha, M/T)

연별	합 계		조		수 수		옥 수 수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187.9	1,153.3	11.2	13.5	13.0	13.7	148.0	1,100.0	15.7	16.1
2006	177.0	680.4	12.0	14.0	14.0	15.5	135.0	635.0	16.0	16.0
2007	200.0	818.1	10.0	12.0	10.0	12.0	168.0	782.9	12.0	11.2
2008	210.0	892.4	6.5	7.2	6.0	6.6	180.0	864.0	17.5	14.6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던 오곡밥은 찰쌀에 기장·찰수수·검정콩·붉은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 농업으로 삶을 영위하던 시대에 올 해에도 모든 곡식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건강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선식(禪食)은 여러 가지 곡류를 날 것으로 빵거나 갈아서 섞어 놓은 가루음식이다.

양양군의 잡곡생산은 면적이 210ha, 생산량이 892.4M/T이다. 이 가운데 옥수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면적의 85.7%, 생산량의 96.8%에 이른다. 다음은 조, 수수, 메밀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잡곡은 역시 옥수수다. 강원도 옥수수는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다. 옛 시절에는 부족한 주식량을 대신하던 곡물이기도 하다. 4°C 정도의 냉장저장이나 삶은 후 진공포장 상태로 냉동하여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연중 소비되고 있는 기호식품이기도 하다.

옥수수는 단백질, 비타민, 섬유소 등이 풍부하여 노화예방, 정장작용, 체력증강, 신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180ha 면적에 1,200여 농가가 864M/T를 생산하였다. 주 재배품종으로는 미백, 미백2호, 미흑찰, 일미찰 등이 있다.

#### (4) 두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우수한 식품이다. 우리네 식탁에서 된장, 청국장, 두부, 간장 등은 콩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이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류는 콩의 재배 면적의 89.8%인 220ha, 생산량의 92.7%인 360M/T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팔과 녹두 등도 조금씩 생산되고 있다. 콩의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콩이 시장에 큰 점유율을 나타내 식탁에 올라온 식품이 늘 국산콩이 원료인지가 의심을 받는 상태까지 되었다.

〈표2-15〉 두류

(단위 : ha, M/T)

연별	합 계		콩		팔		녹 두		기 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84.2	471.7	241.0	422.0	20.1	24.5	1.8	1.8	21.3	23.4
2006	276.0	474.9	243.0	437.0	20.0	24.0	2.0	2.0	11.0	11.0
2007	270.0	463.0	227.0	408.0	20.0	26.1	-	-	23.0	28.3
2008	245.0	388.2	220.0	360.0	15.0	17.4	-	-	10.0	10.8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5) 서류

서류는 감자와 고구마로 구성되며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작물이다.

감자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 및 건강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과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감자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식품이기도 하다. 감자는 냉장하지 않아도 비교적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맛이 좋으며, 만복감을 주기 때문에 주식 대용으로 먹기도 하며 다양한 요리법으로 각광 받는 농산물이다.

과거에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화전으로 일군 밭에 감자를 재배하여 주식용으로 삼았던 시절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전국에 씨감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자 주산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감자는 160ha에서 4,288M/T를 생산해 서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구마는 색깔이 붉고 선명하며 비타민, 펙틴을 함유하여 지방간, 대장암, 비만 등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성인들과 아이들의 영양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식품이다. 고구마는 20ha에서 332M/T를 생산하여 서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표2-16〉 서류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고 구 마		감 자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89.0	4,820.0	12.0	168.0	177.0	4,652.0
2006	173.0	4,120.0	17.0	297.5	156.0	3,822.0
2007	177.0	4,581.0	17.0	302.6	160.0	4,278.4
2008	180.0	4,620.0	20.0	332.0	160.0	4,288.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채소

채소는 주식과 함께 들게 되는 반찬을 이르는 부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그리고 조미채소류인데 면적으로는 조미채소류가 65.3%인 128ha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엽채류가 14.6%, 과

채류가 12.5%이고, 근채류가 가장 적은 7.6%를 차지하였다.

한편 생산량으로는 엽채류가 36.1%인 1,138.7M/T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과채류가 24.8%, 조미채소류가 23.1%이고, 근채류가 가장 작아 16.1%를 나타내었다.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순서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 (1) 과채류

과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열매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과채류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재배되는 주종은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과 토마토가 있다. 총 재배면적은 24.5ha, 총생산량은 782.9M/T로 면적으로는 채소 가운데 3위이며, 생산량으로는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과채류 가운데 면적으로는 호박 46.1%, 오이 35.1%, 토마토 9.8%, 딸기와 참외가 각각 4.5%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호박 42.5%, 오이 41.2%, 토마토 9.8%, 참외 2.6%, 딸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오이는 동해안 근처에서 재배해 아삭한 맛과 향이 살아 있고 신선하여 토마토와 같이 6~9월 사이에 수확체험을 할 수 있으며 현지구입도 가능하다.

오이는 수분은 많아 이노제 역할을 하는데다 칼로리는 낮고 알파에라테린 성분이 많아 신선한 맛이 나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다. 양양군에서는 39여 농가가 전문적인 원예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주 재배 품종은 조은백다다기이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항암, 항노화, 비만 예방에 탁월하고 기름기 있는 식품과 곁들여 먹으면 위의 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 당도가 4~5배 높고, 유기산, 비타민C, 미네랄이 풍부하며, 과실 크기가 작아 생식이나 샐러드용으로 인기가 높은 작물이다.

2006년도에 손양면 학포리는 양양관광과채류 마을로 지정되어 수확체험관광을 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는 숙성 후 수확하기 때문에 광택이 좋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은 상품이다.

재배농가는 32개 농가이며 시설재배를 주재배품종은 텐텐과 섬머킹이다.

〈표2-17〉 채소류(과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별	과 채 류		수 박		참 외		딸 기		오 이		호 박		토 마 토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27.1	829.1	0.6	13.6	0.9	16.5	5.0	38.8	8.3	381.1	10.6	306.5	1.7	72.6
2006	29.4	844.9	0.7	17.8	1.0	19.6	4.8	38.4	9.0	336.9	10.7	317.5	2.5	88.3
2007	27.9	796.0	0.7	15.6	0.8	15.9	4.3	37.7	9.4	331.7	10.4	312.4	2.3	82.7
2008	24.5	782.9	-	-	1.1	20.6	1.1	9.6	8.6	322.8	11.3	332.8	2.4	97.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2) 엽채류

엽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잎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엽채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재배되는 엽채류로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등이 있다. 총재배면적은 28.7ha, 총생산량은 1,138.7M/T로 면적으로는 채소 가운데 2위이며, 생산량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엽채류 가운데 면적으로는 배추가 가장 많아 55.7%, 다음은 상추가 21.6%, 시금치 17.4%, 양배추 5.2%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배추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추 14.0%, 시금치 7.9%, 양배추 5.8% 순으로 나타났다.

〈표2-18〉 채소류(엽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별	엽 채 류		배 추		양 배 추		시 금 치		상 추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30.2	1,157.9	15.5	814.4	1.5	61.4	5.6	94.9	7.6	186.3
2006	31.6	1,163.0	15.3	798.2	1.6	64.2	5.8	98.9	6.4	138.2
2007	28.7	1,083.4	15.1	794.6	1.5	56.0	5.5	94.5	6.6	138.3
2008	28.7	1,138.7	16.0	822.5	1.5	66.5	5.0	90.5	6.2	159.2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3) 근채류

근채류란 채소 가운데 그 작물의 뿌리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른다. 근채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재배되는 주요작물은 무와 당근이다. 총재배면적은 14.8ha, 총생산

량은 507.2M/T이고 이 가운데 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면적의 92.6%, 생산량의 93.6%를 나타내었다.

〈표2-19〉 채소류(근채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근 채 류		무		당 근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3.5	363.0	12.4	329.9	1.1	33.1
2006	13.5	379.5	12.4	345.5	1.1	34.1
2007	13.7	378.4	12.4	344.1	1.3	34.3
2008	14.8	507.2	13.7	474.7	1.1	32.5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4) 조미채소류

조미채소류는 채소 가운데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미용 채소를 이르며, 고추, 파, 마늘, 양파, 생강 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추, 파, 마늘이 재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미채소류의 총재배면적은 128ha, 총생산량은 728.7M/T이며, 이 가운데 면적으로는 고추가 76.6%를 차지하여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파 15.1%, 마늘 8.4% 순이었고, 생산량으로는 파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추 24.7%, 마늘 11.0% 순이었다.

〈표2-20〉 채소류(조미채소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조미채소류		고추		파		마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128.3	724.7	96.4	159.8	22.6	496.3	9.3	68.6
2006	128.5	730.0	95.6	156.7	23.3	501.6	9.6	71.9
2007	127.1	722.2	95.2	154.8	22.4	505.2	9.5	62.2
2008	128.0	728.7	98.0	180.2	19.3	468.6	10.7	79.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고추는 1,600여 농가가 재배하며, 주재배품종은 부촌과 대촌이며, 일명 아삭이고추, 오이고추로 불리는 길상은 유기농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양양고추는 진한 빛깔의 선홍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매운맛이 적당하고 당도가 높은



편이다. 과피가 두껍고 고추씨가 적어 고춧가루로 뺀았을 때 색깔이 좋아 김치, 매운탕, 고추장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고추에는 비타민A, C와 캡사이신이 풍부하여 식욕을 돋우면서 체액분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여,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식품이기도 하다.

### 3) 특용작물

전국적으로 특용작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배되는 주종으로는 참깨와 들깨 그리고 땅콩이 있다. 조금씩 재배되던 땅콩도 수입산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용작물은 들깨가 대부분으로 면적 89.4ha에서 생산량 63.5M/T를 나타내고 있다. 참깨는 아주 적어 2.0ha의 1.2M/T이었다.

〈표2-21〉 특용작물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참 깨		들 깨		땅 콩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5	3.8	2.1	82.0	47.4	0.1	0.2
2006	2.1	1.2	81.4	56.8	-	-
2007	2.4	1.5	78.7	53.3	-	-
2008	2.0	1.2	89.4	63.5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4) 과수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이 있다. 총재배면적은 315.1ha에 총생산량은 2,275.0M/T이다. 이 가운데 면적으로는 감이 52.4%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배가 19.0%, 복숭아 16.8%로 세 가지 품목이 8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1.9%, 포도는 0.7%에 그치고 있어 아직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량에서는 배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복숭아 30.5%, 감 14.9%로 세 가지 품목이 91.1%를 차지하여 3대 과일임을 드러내었다. 사과는 3.0%, 포도는 0.6%에 그쳐 아주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과의 경우 위도상 대구권 주변에서 생

산되던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북방한계가 점차 올라와 양양권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2-22〉 과실류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사 과		배		복 송 아		포 도		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5	192.9	1,291.8	8.0	68.0	75.0	639.9	48.0	381.0	1.0	7.7	61.0	195.2
2006	200.4	1,389.2	9.2	110.4	79.8	664.1	48.0	401.1	1.9	16.8	61.5	196.8
2007	189.0	1,904.1	7.0	79.0	67.0	849.0	48.0	644.1	2.0	16.8	65.0	315.2
2008	315.1	2,275.0	6.0	69.0	60.0	1,040.0	53.0	693.0	2.1	13.0	165.0	340.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예부터 과일하면 ‘낙산배’를 떠올리는데, 이는 조선 중엽에 재래종 황실리 품종이 낙산사 주변에서 재배되면서 주요 과수로 지정되어 나라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낙산배’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설악의 신선한 계곡, 남대천의 맑은 물로 재배된 ‘낙산배’는 색깔이 곱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고, 열이 있는 아이들에게 배즙을 내어 죽을 쑂어 먹이면 해열이 되기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배는 음식 조리시에 많이 사용되는데 육류 조리시 배즙이나 배를 채 썰어 양념을 하게 되면 육질이 연해지고 고기의 고유의 맛을 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9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주재배품종으로는 원황, 화산, 신고 등이 있다.

또한 복숭아는 알맞은 토양 산도와 충분한 일조량의 유리한 조건으로 재배하여 과육이 연하고 향기가 좋으며 당도가 높다. 복숭아는 비타민 A, 펙틴, 유기산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돋우어주며 껍질은 해독작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종자는 한방에서 도인(桃仁)이라고 하여 약재로도 사용된다. 특히 ‘곰마울’로 불리는 용천리 복숭아 마을이 있는데 해마다 복사꽃 축제가 열려 꽃향기 가득한 소박한 마을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 98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월봉, 일천, 선골드, 유명, 홍이도, 미백 등이다.

또한 감은 비타민 A, B가 풍부하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고혈압, 중풍, 설사, 위장염 등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은 탐스러운 색깔과 감칠맛 나는 과일로

껍질을 깎아 말려서 꽃감으로 만들어 겨울을 나면서 즐기는 간식거리이기도 하다. 57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대봉시, 고동시 등이다.

## 5) 화훼

지역적 특성으로 북의 찬 기운과 남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는 곳이며, 산악적 요소와 해양성 요소가 만나는 곳이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훼류가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는 환경이다. 총 재배면적이 5.8ha, 생산량은 1,566천본이다. 면적으로는 절화류가 77.6%, 분화류, 초화류, 화목류 순이었으며, 생산량으로는 절화류가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화류, 분화류, 화목류 순이었다.

고아한 자태와 품격 높은 향기로 사랑 받는 백합은 발효액비, 목초액 등의 사용으로 환경친화적 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품종별 단지화, 공동출하, 연구모임회 결성,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억제재배와 겨울철 온난화 해양성 기후로 축성재배를 활용하고 있다. 13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재배품종은 어라연, 오거스타, 시베리아, 소르본느, 옐로윈, 메두사 등이다.

타 지방에서 생산되는 국화에 비해 화색이 선명하고 절화 수명이 긴 아름다운 꽃 국화는 해양성 기후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겨울은 온난하고 여름은 서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가별 품종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수출전략 작목화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병충해 및 철저한 차광관리로 고품질 국화생산을 하고 있으며, 자연농법, 유기농법을 절충한 토양관리로 연작에 따른 재해도 방지하고 있다. 8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주 재배품종으로는 신마, 아르거스, 포드, 백선 등이다.

〈표2-23〉 화훼류 재배현황

(단위 : ha, 천본)

연별	합 계		절 화 류		분 화 류		초 화 류		화 목 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6	10.1	2,918.0	7.5	2,852.0	0.8	45.0	0.1	10.0	1.7	11.0
2007	13.1	2,204.0	5.2	1,874.0	0.5	15.0	7.1	240.0	0.3	75.0
2008	5.8	1,566.0	4.5	1,315.0	0.5	12.0	0.1	20.0	0.1	10.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산업화와 도시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나아지긴 했지만 대가로 잃게 된 것들도 있는데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오염된 것이 그 하나다.

우리들 삶의 환경의 전반적인 악화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대응책으로 친환경 농산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요 급증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는 사실과 다른 농산물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유통되기도 하면서 인증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17건, 132개 농가, 58ha, 인증량은 219M/T이다. 이 가운데 무농약농산물이 가장 많아 12건, 103개 농가, 45ha, 154M/T이었으며, 그 다음을 유기 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청정환경을 지니고 있어 이들 관련 농산물들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표2-24〉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건 수	농 가 수	면 적	인 증 량
2005	5	31	14	66	-	-	-	-	1	17	15	53	4	14	14	66	-	-	-	-
2006	7	35	30	93	-	-	-	-	2	20	15	51	5	15	15	42	-	-	-	-
2007	10	59	35	136	2	20	14	26	-	-	-	-	7	32	19	87	1	7	2	23
2008	17	132	58	219	2	8	9	25	-	-	-	-	12	103	45	154	3	21	4	40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 7) 축산

대표적인 축산물로는 소와 돼지가 있다. 이는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조금 더 확대시키면 닭과 개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 (1) 소

사육되는 소에는 한육우와 젃소가 있다. 대부분은 한육우로서 2008년에 사육가구 634호에, 사육 마리수가 5,419마리로 나와 있다. 한편 젃소는 점차 감소하여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 한우는 푸른 산, 맑은 물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품질 한우 개량단지의 명성을 얻고 있으며, 차별화 된 사양관리, 특히 사료 개발로 특색 있는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다.

〈표2-25〉 가축(소) 사육

(단위 : 마리)

연 별	한 육 우		젃 소	
	면 적	생 산 량	면 적	생 산 량
2005	633	4,148	6	423
2006	718	4,280	3	127
2007	711	4,782	-	-
2008	634	5,419	-	-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영동지방의 한우 브랜드 ‘한우령’은 7개 시·군과 4개 축협이 연합하여 만든 한우 광역 브랜드로서 영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한우’와 영동지역을 상징하는 백두대간의 중축이 되는 ‘고개’를 결합한 합성어로 우리나라 국토의 젃줄인 백두대간의 기백을 받으며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맛있는 한우를 뜻한다.

## (2) 돼지 및 기타

소 다음은 돼지를 포함하여 닭과 개 등 여러 가지의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사육농가로는 개가 가장 많아 1,202호로 소를 키우는 농가보다도 많다. 사육 마리수로는 돼지가 월등히 많아 25,401마리나 된다. 닭도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조류독감 파동이 있을 후 크게 감소하였다가 조금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산양과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좀 있고,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밀원이

풍부하여 꿀벌 사육농가도 158호에 이른다.

〈표2-26〉 가축(돼지등 기타) 사육

(단위 : 마리)

연 별	돼 지		사슴		개		산 양		닭		오 리		꿀 벌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사육가구	마리수
2005	30	28,066	22	277	1,286	3,945	40	277	433	7,405	54	1,238	133	4,737
2006	21	25,671	16	276	1,451	3,804	48	472	463	6,421	48	448	128	7,212
2007	21	29,895	15	245	1,341	3,429	40	466	416	5,839	32	484	110	7,704
2008	21	25,401	13	210	1,202	3,020	46	540	391	5,244	43	585	158	6,849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표2-27〉 축산물위생 관계업소

(단위 : 개소)

연 별	합 계	식육포장 처 리 업	축산물 운반업	식 육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 판 매 업
2005	58	-	1	51	5	1
2006	51	1	1	44	5	-
2007	55	2	1	47	5	1
2008	55	2	-	33	5	1

자료 : 양양군, 위의 책에서 정리

돼지고기는 인간이 섭취하는 육류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육류로서 도축한지 3~4일 지난 것이 가장 맛이 있다고 한다. 고기의 빛깔은 쇠고기보다 연한 분홍색이고, 지방이 희고 견고하며 방향이 있는 것이 우량품이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1, 함량이 월등히 높고, 뇌졸중 예방 및 감염증에 강한 체질을 만들어준다 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갈비와 경합되지 않는 등심, 안심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사육농가는 21호이며 주사육품종은 랜드레이스이다.

축산물위생 관계업소는 총 55개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이 대부분으로 식육판매업이 33개, 축산물수입판매업이 1개, 우유류 판매업이 5개로 모두 53개이며, 축산물 가공업인 식육포장처리업은 2개가 있을 뿐이다. 한편 양양군에 수의사는 1명뿐이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illegible]

지대별	논밭별	작부유형	작부체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안평야지	논	벼 단 작				○.....X			벼					
		벼 - 청 애 호 밀				○.....X			벼					
	밭	감자-김장채소				○	감자			○	채소			
		고 추 단 작		○.....		X	고추							
중산간지	논	벼 - 청 애 호 밀				○.....X			벼					
		미 나 리 단 작										○	호밀	
	밭	감자-김장채소				○	감자			○	채소			
		고 추 단 작		○.....		X	고추							
산간지	논	벼 단 작				○.....X			벼					
		감자-김장채소				○	감자			○	채소			
	밭	콩 단 작				○	콩							
		감자-김장채소				○	감자			○	채소			

작부 체계도

### (1) 작목입식도

산간지는 토종꿀과 장뇌로서 품목수가 적다. 중산간지는 국화, 백합, 복숭아, 감, 한우, 참취, 고사리, 음나무 등이 포함되어 많은 품목이 입식되어 있다. 해안평야지는 노지채소, 찰옥수수, 배, 시설채소, 양돈, 미나리, 고추, 감자로서 1년생 작물들이 많이 입식되어 있다.

### (2) 작부체계도

산간지 보다는 중산간지와 해안평야지가 더 다양한 작부유형을 갖추고 있다.

## 9) 품목별 연구모임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교육은 전략 주력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18개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한 주요 영농시기별로 연중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경영능력 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2-28〉 품목별 연구모임회 현황

연구모임명	회원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설립년도
낙 산 배	51	3	120	'97. 4.10.
복 송 아	40	1	40	'00. 6.30.
감	40	1	28	'05. 2.22.
화 훼	20	1	20	'99. 1.15.
시설채소	25	1	22	'05. 2.15.
송 이	23	-	-	'02. 3. 8.
표고버섯	27	-	-	'99. 2.25.
쌀전업농	58	1	58	'00. 1. 1.
친환경농업	29	2	46	'04.11.15.
사 이 버	20	-	-	'09. 2.12.
전통음식	20	10	180	'99. 3.10.

연구모임명	회원수	교육횟수	참여인원	설립년도
전통규방	25	32	800	'09. 5.27.
천연염색	20	33	600	'00. 3. 7.
꽃 누 림	20	33	600	'00. 3. 7.
분 재	26	-	-	'99.10.20.
농촌관광	32	-	-	'97.10.26.
한 우	32	-	-	'01. 3.10.
양 봉	42	-	-	'94. 3.15.

## 4. 농업 관련 조직

농업 관련 조직은 행정조직과 지원기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행정조직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과거에는 군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통합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모여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래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가 있고, 농업정책과 안에는 농업정책, 농촌개발, 생활자원, 농업마케팅, 축산위생계가 있으며, 기술지원과 안에는 작물환경, 인력육성, 원예경영, 특화작목, 기술연구계가 있다. 총 15명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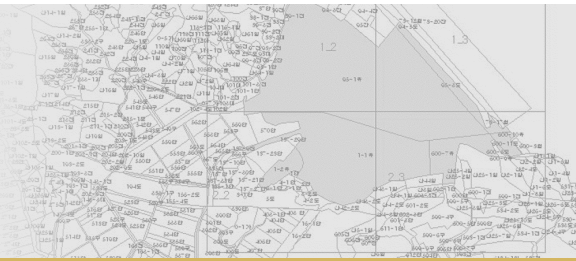
### 2) 지원 조직

농업관련 지원 조직으로는 농업협동조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다

농협조직은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시설을 담당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원농수산포럼, 「2009년도 강원농정산립 역점시책」, 2009. 2.
- 동북지방통계청, 「최근 20년간 강원지역 경지 및 재배농작물의 변화」, 2009.
- 송미령 외,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2008.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양양군의 농업현황, 2009(내부자료).
- 양양군, 『2009년 양양군 통계연보』, 2009.
- 양양군 산립과, 농업진흥지역 현황, 2009(내부자료)
-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 농업수리시설현황, 2009(내부자료).
- 한국은행 강원본부, 『2008년도 강원지역 경제연보』, 2009.



### Ⅲ. 임업

#### 1. 총설

임업은 임지를 조성·유지하고 임목을 무육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산림경영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산림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용은 지대하며 인류문명발달에 따라 그 이용 형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고대 봉건군주시대에는 산림의 주관이 일부 왕족이나 귀족에 귀속되었으며 평민은 다만 연료채취나 혹은 목축지로 이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화전(火田)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다.

신라 문무왕 8년에 처음으로 공전제도(公田制度)가 시행되어 산림을 국유화하고 국가공로자에게 녹봉(祿俸) 또는 식양지(食糧地)로 분봉(分奉)함에 따라 785년 이 지역 명주 관할 9군(郡) 25현(縣)이 명주군왕(溟州郡王)에게 식량지로 분봉되어 사양림(私養林)으로 성장해오다가 고려 충숙왕(忠肅王)때는 1326년에 사점(私占)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산림은 국민의 공용(共用)에만 이용하게 되었으며 태조 4년(1395년)에는 사점을 강력히 금하고 태종 4년(1404년)에는 산림내의 개간행위를 일체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산림내에 조성되는 분묘의 면적도 양반과 서민의 품등(品等)에 따라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선조들은 사양림(私養林)또는 금송계(禁松契)를 만들어 지방향약(地方鄉約)에 따라 조림의 평가를 엄격히 실시 조림사상을 고취(鼓吹)시킴으로써, 풍부한 임상(林相)이 유지되었다.



## 2. 양양지역 산림 사업의 변천

### 1) 조선시대

조선시대 말기인 1905년 11월 17일 일제와의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 통감부 하에 산림이 산업화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식산국(植産局)에 산림과가 설치됨에 따라 산림을 제도적으로 관리경영하게 되었다.

### 2) 일제시대

일제는 1919년에 금송계림(禁松契林), 사찰림, 묘지 등을 사유림(私有林)으로 정하고 세금 부과를 위한 세부측량(稅賦測量)과 아울러 국유림(國有林)과 사유림(私有林), 공유림(公有林)과 공유림(共有林)으로 구분하고 국유림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였으며 불요존국유림은 또다시 갑종(甲種)과 을종(乙種)으로 나누었다. 요존국유림은 영구 국유림으로 하고 영동지역에는 강릉에 총독부 식산국 산림과 출장소가 주재 관할하였으며 갑종 불요존국유림은 부분림 또는 조림대부림으로 일본인에게 대여하였고 을종 불요존국유림은 연고자에게 매각예정지로 정하여 공사유림과 같이 지방장관이 관리하였다.

1934년 4월 1일 영림관서 설치법 개정으로 강릉영림서가 설치됨에 따라 총독부 산림과 출장소 관할의 국유림 경영이 강릉영림서로 이관되었으며 본서 산하에 삼림보호구를 두어 산림보호에 전념하게 하는 한편 지방 주민에게는 산채, 약초, 고지, 수실 등을 양여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국유림 보호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자율적으로 국유림 보호에 임하게 하였다. 또 본서 산하에 목재 공급을 위한 작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국유림 조림사업을 위하여 조림사업소를 두어 자체묘목생산을 실시하였다.

1919년부터 요존림의 불요존국유림과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조장정책을 실시하였고 각도의 산업과 내에 임무계를 군에 산업계를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특히 벌채를 억제하고 나지를 조사하여 산지사방을 실시했다.(1924년 임야조사사업 완료, 1925

년 보조 조림사업 완료, 1933년 8월 조선사방사업령 공포) 그리고 보안림 제도를 두어 풍치림, 사찰림, 수원함양림, 어부림을 지정하여 사업제한을 하였다.

일제의 한반도 영구지배 야심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임정을 전환하게 된다. 즉 민유림지도방침을 제정 공포하여 황폐림 복구를 지향하는 한편 벌채지도 지침으로 벌채를 규제하고 조림장려로 육림에 힘썼다. 또 산림보호 사업으로는 임야세를 부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보호직원을 채용 등 산림보호업무를 강화하였다.

1942년 6월 18일 목재통제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는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왕의 용재공급은 국유림, 연료공급은 민유림이라는 원칙의 전환, 민유림에서도 입목(立木)이 난벌되고 국유림에서도 입목매각 전(前)에 벌채허가가 나는 등 파행임정이 자행되었다. 동시에 조선목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땔감 이외의 모든 목재를 취급케 하였으며 군에 원목생산조합이 조직되었다.

### 3) 광복 후 산림사업

광복 후 일제시대 법령인 삼림령이 그대로 적용 시행되었으며 그 후 각종법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6·25한국전쟁을 겪었으며 1951년 9월에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1961년 6월 2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고 1961년 12월에 비로소 산림관계 모법인 산림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또 극도로 황폐된 산림복구를 위하여 1962년 1월에는 사방사업법이, 1963년 2월에는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한 시법으로 시행하고 1972년에는 산림개발법이 1977년에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야생조수를 보호 증식하고 있다.

#### (1) 국유림 경영

광복 직후부터 강릉영림서가 양양지역 국유림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기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 외에 일본인 소유였던 적산임야도 접수하여 준국유림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광복 전후의 혼란기를 통한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산림보호 위주 정책을 펴 보호

직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 조직된 국유림 보호조합을 활성화 도남벌 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개간 방지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산림병충해와 국유림내 화전 정리사업도 병행하였으며 이외에서는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였다. 국유림 시업에 있어서는 국유임야 시업안 조사와 조림사업 강화를 위해 자체묘포를 확장 산지조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또 임야관리에산 확보를 위해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 입목벌채도 강화하였다.

1961년부터는 국유림시업을 절대녹화 위주로 하여 벌채를 지양하였으며 국유림보호조합을 해체하는 대신 부락산림제로 하여금 연대보호를 꾀하였다.

1970년대 초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기왕의 분산조림 대신 집단조림을 실시하였고 목재수급을 위해 용재림 조성과 산벌정책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용재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임도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79년 시작된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서는 산림의 합리적 경영관리 목표로 보호생산적인 시업을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휴양림 조성도 실시하였다.

## (2) 민유림 경영

민유림은 그 소유 목적이 산림경영이라기 보다는 묘지, 광산, 채탄, 가보적인 것으로 다양한 임상을 이루고 있다. 또 소유건수 당 면적이 극히 적은 관계로 임목축적이 국유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경영면에서도 장기투자를 요하고 수익성이 낮은 특수성에 기인된 산주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벌채를 허가하고 산지육성을 도모케 하였다. 또 자율적 산림보호를 위해 마을단위로 산림계, 시군별로 산림조합을 조직하였다. 산지조림은 산주에게 조림을 권장하고 당초 연료림 조성을 시행해 왔으나 현재는 연료림 조성을 지양하고 무육, 간벌, 조림 등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묘목대금, 작업비, 시비, 조림비, 전액을 보조하고 산주가 작업 불이행시는 산림조합이 대행하고 있다.

황폐된 임지는 사방사업의 대폭적인 강화로 1, 2차 치산녹화기간 중 완료하였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로는 최근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만연되면서 수간주사 및 항공방제등 대대적인 방제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보호와 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동계 적설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는 식이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 3. 임업의 개황

#### 1) 소유별 임야면적

총 임야면적은 52,480ha이며 소유별로는 국유림이 36,004ha로 전체 임야면적의 68.6%이며 공유림이 1,707ha로 3.3%이고 사유림이 14,769ha로 28.1%에 해당된다. 국유림 중에는 산림청 소관이 35,922ha로 68.4%이며 나머지 31.6%는 정부의 타 부처 소관이다. 공유림 중 군유림이 1,688ha로 전체의 대부분인 98.9%를 차지하였으며 도유림은 19ha로 1.1%에 불과하였다.

또 과거 5년간 임야면적의 변동을 보면 2002년 52,528ha에서 52,451ha로 77ha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소 늘어난 것에 비해 사유림이 14,804ha에서 14,736ha로 68ha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표3-1〉

〈표3-1〉 양양군의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연별	합 계 Total	국유림 Mational forest			공유림 Public forest			사유림 Privates forest
			산림청소관 Under Forestry Adiministration	타부처소관 Under other national govern- ment authorities		도유림 Provin- ceowned	군유림 Gun- owned	
2002	52,528	36,000	35,933	67	1,706	19	1,687	14,822
2003	52,513	36,003	35,936	67	1,706	19	1,687	14,804
2004	52,510	35,983	35,916	67	1,716	19	1,697	14,811
2005	52,498	35,985	35,915	70	1,720	19	1,701	14,793
2006	52,484	35,988	35,909	79	1,713	19	1,694	14,183
2007	52,480	36,004	35,922	82	1,707	19	1,688	14,769
2008	52,451	36,008	35,925	83	1,707	19	1,688	14,736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임상별 산림면적

임상별 산림면적은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임야면적 중 임목지가 51,353ha로 97.8%이고 무임목지가 2.2%인 1,127ha를 점하고 있다.

임목지 중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그리고 혼효림 비율은 34.9%, 40.4%, 24.7%로서 활엽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의 임상변화의 특이사항으로 침엽수림이 2003년 18,270ha에서 2008년 17,802ha로 468ha 감소한 반면 활엽수림은 2003년 20,481ha에서 365ha 증가한 20,846ha로 집계된 것이다. 주된 원인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소나무의 쇠퇴 외에도 양양산불로 인한 소나무 숲의 피해와 피해지 복구에 소나무의 다양한 활엽수림 조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3-2〉

〈표3-2〉 양양군의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연별	합계 Total	임목지 Forest land with trees					무임목지 Forest land with trees				
		계 Sub total	침엽 수림 Conifer	활엽 수림 Non- conifer	혼효림 mixed	죽림 Bam- boo	계 Sub total	미입 목지 Un- stocked	황폐지 Denu- ded	개간지 Recl- aimed	제 지 Miscel- laneous
2002	52,528	51,396	18,288	20,436	12,732	-	1,132	23	217	-	892
2003	52,513	51,466	18,270	20,481	12,715	-	1,047	47	69	-	931
2004	52,510	51,450	18,248	20,494	12,708	-	1,060	58	57	-	945
2005	52,498	51,278	18,074	20,500	12,704	-	1,220	218	23	-	979
2006	52,484	51,124	17,672	20,731	12,721	-	1,360	329	31	-	1,000
2007	52,480	51,353	17,906	20,737	12,710	-	1,127	79	23	-	1,025
2008	52,451	51,360	17,802	20,846	12,712	-	1,091	52	11	-	1,028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3) 임상별 임목축적

총 임목축적량은 2008년 현재 8,087,187m³로써 2003년 임목축적량 5,970,115m³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엽수림의 임목축적량이 2003년 1,427,777m³에서 2008년 2,274,124m³로 6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혼효림의 79%, 활엽수의 75% 순이었다.

양양군의 ha당 임목축적량은 148m³로 전국의 평균임목축적량 82m³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양군의 지리기상학적 여건과 백두대간의 동사면에 금강송과 같은 우량한 소나무 임분이 다량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표3-3〉

〈표3-3〉 양양군의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³)

연 별	합계 Total	침엽수 Conifer	활엽수 Non-conifer	혼효림 mixed	죽림(속) Bamboo
2002	5,812,896	1,382,764	2,944,818	1,485,314	-
2003	5,970,115	1,427,777	3,019,743	1,522,595	-
2004	6,132,405	1,473,950	3,096,625	1,561,830	-
2005	6,283,368	1,507,252	3,173,886	1,602,203	-
2006	6,427,052	1,539,628	3,242,862	1,644,562	-
2007	7,768,993	2,152,361	3,687,556	1,929,076	-
2008	8,087,187	2,274,124	3,806,164	2,006,899	-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4. 임산자원

### 1) 생산임지

임산자원은 임지에서 생산되는 산림 주산물인 목재와 수실·수액·버섯류·산채류·약재류 등 산림 부산물을 말하며 이러한 주부산물 산지를 생산임지라고 한다. 생산임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임산물 생산관리를 위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림 등을 공익임지라고 하며 공익임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전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며 산림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효능 특히 산림의 대기정화기능, 수자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삼림휴양 등의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에 관여하는 중차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 (1) 목재생산

목재 생산량은 2008년 기준 18,121m³로 연도별 벌채계획 등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안선을 끼고 있는 양양군의 해변지역에 입지한 수림은 대부분 인공림으로 방풍림 내지 방사림 어부림 등의 풍치 보안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주요목재생산은 내륙부의 백두대간 동사면에 위치한 양호한 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2) 부산물 생산

### 가. 버섯

송이의 고장으로 버섯생산량은 2008년 기준 139,398kg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도별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2004년 213,775kg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송림면적 감소와 기상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산나물

산나물 채취량은 버섯과 함께 농산촌의 주요소득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양양군의 산나물 생산량은 2008년 기준 203,300kg이며 이는 2003년 기준 207,440kg의 절반 이하로 매년 그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불피해와 산나물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그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다. 기타부산물

종실생산량은 2004년 46,466kg에서 매년 현격히 저하되어 2008년 현재 종실생산량이 34,807kg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약용재료 채취량도 2004년 87,184kg에서 2008년 69,169kg로 증가하였다.〈표3-4〉

### 라. 보호수 지정 현황

지정보호수는 모두 20개소의 26본이다. 수종으로는 소나무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갈참나무, 느티나무 순이었으며 보호수 유형으로는 당자목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풍치목이었다. 지정보호수의 최고 수령은 현북면 말곡리에 소재하는 소나무로 550년이며 흉고둘레가 460cm이며 수고는 25m에 이르고 있다.〈표3-5〉

〈표3-4〉 양양군의 임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 : m³)

연 별 읍면별	용재(m³) Timber	연료(M/T) Fuel	농 · 용자재(t) Agricultural material	종실(Kg) Wild fruit and nut	버섯(Kg) Mushroom
2002	5,104	1,300	9	52,009	184,710
2003	-	-	-	-	-
2004	3,191	2,950	-	46,466	213,775
2005	12,906	3,105	17,240	-	198,041
2006	23,454	3,193	3,700	35,773	160,574
2007	16,022	2,563	3,500	34,315	145,824
2008	18,121	2,563	3,500	34,807	139,398

연 별 읍면별	섬유연료(Kg) Fiber material	수지(Kg) Resin	약용(Kg) Medical use	토석류(m³) Soil & stones	산나물(Kg) Wild vegetable
2002	-	-	6,350	761,515	282,950
2003	-	-	59	2,621,610	207,440
2004	-	-	87,184	812	176,400
2005	-	-	86,405	831	183,420
2006	-	-	76,964	983	155,976
2007	-	-	62,713	862	127,740
2008	-	-	68,169	858	203,300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표3-5〉 양양군의 보호수 지정현황

지정번호	보호수 소재지		지 정 년월일	수 종	유 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cm)
	읍면동	리 · 번지							
합 계	16개소		-	-	-	21	-	-	-
양양소계	18개소		-	-	-	26	-	-	-
강원-양양-1 (03.2.8임해)	현북면	말곡리 72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550	25	460
강원-양양-2	서 면	상평리 340	82.11.13.	은행나무	풍치목	1	380	35	700
강원-양양-3	서 면	북평리 182	82.11.13.	느티나무	풍치목	1	350	18	500
강원-양양-4	강현면	중북리 산52	82.11.13.	굴참나무	풍치목	1	350	15	320
강원-양양-5 (05.5.21임해)	강현면	용호리 59	82.11.13.	향 나 무	풍치목	1	350	18	150
강원-양양-6	서 면	범부리 41	82.11.13.	옴 나 무	풍치목	1	300	35	640
강원-양양-7	양양읍	군행리 8	82.11.13.	느티나무	풍치목	1	200	15	520

지정번호	보호수 소재지		지 정 년월일	수 종	유 형	본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둘레 (cm)
	읍면동	리·번지							
강원-양양-8	서 면	범부리 산61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250	13	300
강원-양양-9	서 면	오가2리 380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250	15	390
강원-양양-10	현북면	하광정리 3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200	9	150
강원-양양-11	강현면	사교리 38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250	20	250
강원-양양-12	강현면	적온리 86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250	15	270
강원-양양-13	양양읍	조산리 353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120	15	210
강원-양양-14	손양면	금강리 110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150	15	200
강원-양양-15	현남면	인구 2리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150	20	150
강원-양양-16	현남면	죽정자리 46	82.11.13.	소 나 무	풍치목	1	180	20	320
강원-양양-17	현남면	견불리 184	82.11.13.	갈참나무	풍치목	1	150	18	250
강원-양양-18	현북면	상광정리 561	06.02.03.	소 나 무	풍치목	6	400	18	250
강원-양양-19	서 면	용소리 55	09.05.22.	소 나 무, 상수리나무	당자목	4	500	15	350
강원-양양-20	서 면	감천리산29-3	09.05.22.	소 나 무	풍치목	1	350	15	340

자료 : 양양군청, 2009

## 5. 조림 및 사방사업

### 1) 조림

조림면적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8~75ha 정도였으나 2006년 약 10배 정도 증가한 375ha였고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 그 두 배 이상인 831ha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182ha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 식재본수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조림실적의 급격한 변화는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식재수종은 대부분이 장기수인 소묘위주로 식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실수와 조경수는 식재 실적에 나타나지 않았다. <표3-6>

〈표3-6〉 양양군의 조림사업

(단위 : ha, 천본)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장기수 Long rotation species		유실수 Fruit&nut species		속성수 Fast- growing species		대묘수 Large trees		조경수 landscape trees		기 타 Others	
	면적 Area	본수 Seedlings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2002	66.0	168.7	57.0	163.0	-	-	-	-	-	-	-	-	9.0	5.7
2003	75.5	212.8	75.5	212.8	-	-	-	-	-	-	-	-	-	-
2004	28.0	68.0	23.0	65.0	-	-	-	-	-	-	-	-	5.0	3.0
2005	34.0	84.3	31.0	81.0	-	-	-	-	-	-	-	-	3.0	3.3
2006	375.0	442.0	76.0	176.0	-	-	-	-	-	-	-	-	299.0	266.0
2007	831.0	1975.8	749.0	1918.0	-	-	28.0	30.8	-	-	-	-	50.0	25.0
2008	182.0	451.0	11.0	5.0	-	-	-	-	13.0	17.0	-	-	158.0	429.0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2005년과 2007년 2차례 실시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9.3ha에 10만주가 식재되었고 2007년에는 1ha에 3,000주가 식재된 바 있다. 기간 중 해안사방이나 야계사방은 공사실적이 없었으며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은 연간차이는 있지만 매년 1~8개소씩 꾸준히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7〉

〈표3-7〉 양양군의 사방사업

(단위 : ha, 천본, 천원, km)

연 별 읍면별	산지 및 해안 사방 Hillside and coastal erosion control			야계사방 Stream channel improvement		사방댐 <sup>1)</sup> Erosion control dam	
	면적 Area	식재본수 Seedlings	공사비 Cost	연장 Length	공사비 Cost	개소 Place	공사비 Cost
2002	-	-	-	-	-	-	-
2003	-	-	-	-	-	-	-
2004	-	-	-	-	-	1	214,596
2005	29.3	100.0	2,199,898	-	-	8	1,600,250
2006	-	-	-	-	-	1	232,269
2007	1.0	3.0	46,671	-	-	3	519,248
2008	1.0	4.0	51,523	1.0	381,641	1	263,132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6. 임산자원 보호

### 1) 산림피해

산림피해는 그 유형에 따라 도벌, 무허가벌채, 불법산림형질변경, 산불 등이 있으나 산불은 별도 항에서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산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유형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5년간 도벌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무허가 벌채는 모두 4건이 발생했으나 그 규모가 0.67ha로 경미 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산림형질변경은 2002년 2건에서 2003년에는 20건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12건, 2005년에 5건, 2006년에 3건, 2007년에 8건, 2008년에 18건 등 지속적으로 산림훼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5년간 총 피해면적은 7.01ha로 나타났다.〈표3-8〉

〈표3-8〉 양양군의 산림피해 상황

(단위 : ha, 천원)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도벌 De- forestation			무허가벌채 Unauthorized tree-cutting			불법산림형질변경 Forest exploitation			기 타 other		
	건 수 cases	면적 area	피해액 Amount damaged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건 수	면 적	피 해 액
2002	2	0.16	3,595	-	-	-	-	-	-	2	0.160	3,595	12	-	-
2003	32	58.130	624,629	-	-	-	-	-	-	20	58.130	624,629	12	-	-
2004	14	3.7	91,736	-	-	-	1	0.670	2,160	12	3.230	78,734	1	-	10,842
2005	12	1.3	79,454	-	-	-	2	-	887	5	0.830	70,447	5	0.470	8,120
2006	5	0.530	16,265	-	-	-	1	-	-	3	0.530	14,765	1	-	1,500
2007	11	1.160	62,377	-	-	-	-	-	-	8	0.700	28,532	3	0.5	33,845
2008	20	1.930	170,055	-	-	-	1	-	35	18	1.720	150,322	1	0.2	19,698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2) 산림병충해 방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양양군내 산림병충해 발생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07년부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였다.

발생병충해 내역으로는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3,700ha로 전체의 84%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흰불나방 발생면적 130ha, 오리나무잎벌레 60ha, 기타해충 490ha로 집계 되었다. 전체 병충해 발생면적 4,380ha 중 2,113ha에 대해 방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발생면적 3,700ha 중 1,874ha, 흰불나방 피해발생면적 130ha 중 90ha, 오리나무잎벌레 피해 발생면적 60ha 중 32ha, 기타해충피해 발생면적 490ha 중 117ha에 대해 방제활동을 하였다.

기상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서식환경 변화 외에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종류의 병충해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예찰활동과 적절한 방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3-9〉

〈표3-9〉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

(단위 : ha)

연 별 읍면별	합 계 Total		솔잎혹파리 Pine gall midge		소나무 재선충 Pine wood nemate		잣나무 넓적잎벌 Black-tipped Sawfly	
	발생면적 Occurrence	방제면적 Prevention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2002	-	-	-	-	-	-	-	-
2003	-	-	-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	-	-	-	-	-	-	-
2007	1,750	876	1,450	752	-	-	-	-
2008	2,630	1,237	2,250	1,122	-	-	-	-

연 별 읍면별	연별흰불나방 Fall wedworm		오리나무 잎벌레 Japanese alder leaf beetle		밤나무해충 Chestnut insect pests		기타해충 Others	
	발생면적 Occurrence	방제면적 Prevention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발생면적	방제면적
2002	-	-	-	-	-	-	-	-
2003	-	-	-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	-	-	-	-	-	-	-
2007	40	30	30	20	-	-	230	74
2008	90	60	30	12	-	-	260	43

자료 : 양양군통계연보, 2009



### 3) 임도시설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관리를 하여 1988년부터 임도를 개설해 오고 있다. 공사비는 1994년까지는 일부 수혜자의 자부담을 포함한 국비와 도비, 군비로 공사비가 충당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임업경영자의 자부담 없이 사업이 수행되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임도개설 거리는 총 75.14km이며 총공사비는 약 37억 7천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km당 약 5,000만원이 투입되었다.〈표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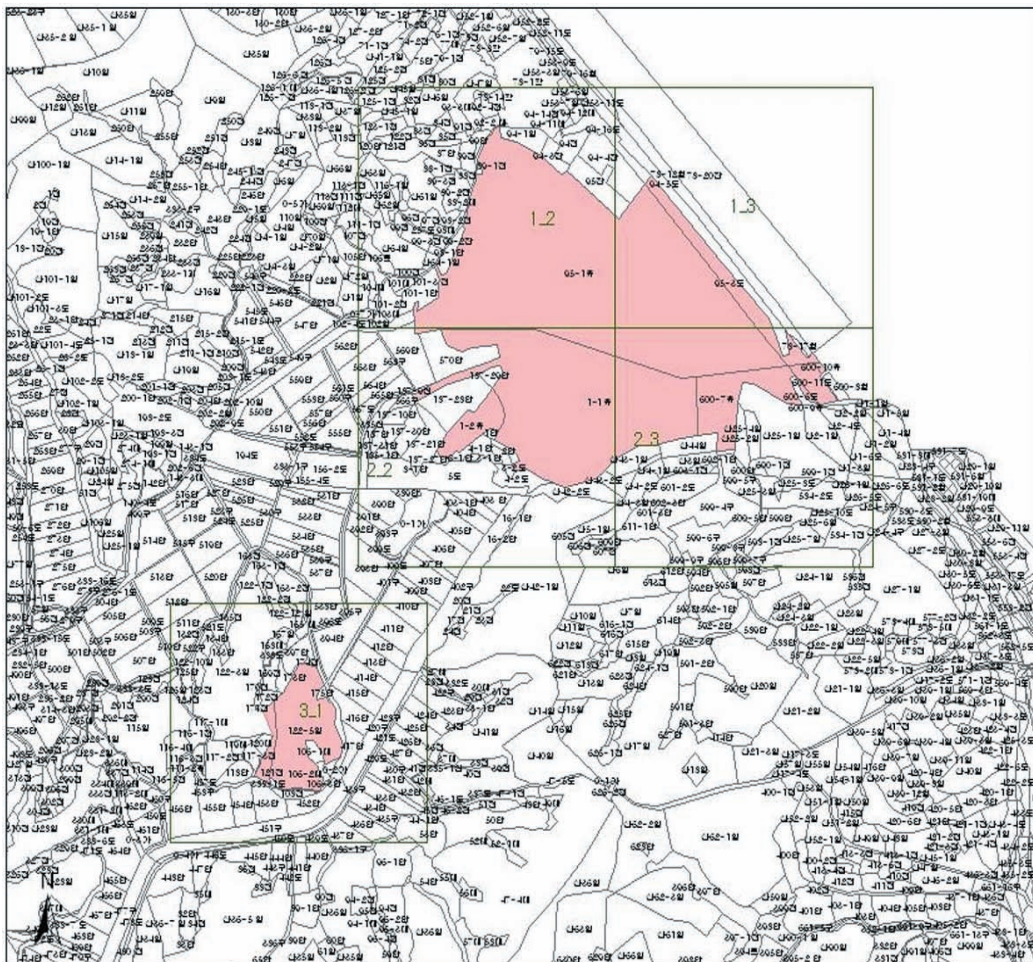
〈표3-10〉 임도시설 현황

연별	구 간	거리 (km)	공 사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자부담
1988	현남 견불리	2.10	41,500	17,020	2,451	13,888	8,141
1989	현남 견불리-하월천리	2.03	44,250	17,700	2,655	15,045	8,850
1990	현남 주리 입암-하월천리	5.00	117,915	47,166	7,075	40,091	23,583
1991	현남 주리 현북 잔교리	5.00	123,278	61,048	9,157	51,891	1,182
1992	현남 정자리 현북 잔교리	6.10	171,760	68,704	10,306	58,398	34,352
1993	현북 잔교리 명지리-대치리	3.00	116,394	46,558	6,984	39,574	23,278
1994	현북 잔교리 명지-원일전리	8.00	392,023	156,809	23,521	133,288	78,405
1995	현북 장리-손양 주리 손양 남양리-우암리 현남 주리	13.00	610,350	291,850	254,800	63,700	-
1996	손양 상왕도리-양양 월리 손양 주리- 현북말곡리	12.16	690,222	337,997	281,780	70,445	-
1997	현남 북분리 손양 삼존리-장리 현북대치리-어성전리	8.50	540,494	258,859	225,306	56,329	-
1998	현북 대치리-상광정리	2.00	120,110	57,289	50,257	12,564	-
1999	현북 대치리-잔교리 상광정리-하광정리	2.03	183,007	88,737	75,416	18,854	-
2000	손양 상왕도리-서면 수리	2.07	156,000	78,000	62,400	15,600	-
2001	현남 하월천리-상월천리	4.15	463,708	231,854	185,483	46,371	-

자료 : 양양군청, 2009

#### 4) 야생조수보호

야생조수 보호 구역은 전체 지정면적이 226,276m<sup>2</sup> 이며, 현남면 전포매리에 4개소 현남면 광진리에 6개소 등 총 10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이중 해안지역이 8개소 내륙지역에 2개소이다. 토지 소유자는 국유지가 6개소, 공유지가 2개소 사유지가 2개소이며 야생조수보호구역의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 양양군청, 2009

야생조수 보호구역 지정도

〈표3-11〉 양양군의 야생조수 보호구역 지정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	-	288,311	262,276	-	-
현남면 전포매리	1-1	유지	71,976	71,976	-	공유(강원도)
현남면 전포매리	1-2	유지	5,382	5,382	-	공유(강원도)
현남면 전포매리	122-3	임야	26,733	698	현남면 전포매리 106	김선래
현남면 전포매리	122-5	임야	18,091	18,091	현남면 전포매리 106	김선래
현남면 광진리	95-1	유지	141,010	141,010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95-3	유지	9,399	9,399	-	국유(국토해양부)
현남면 광진리	600-7	유지	12,333	12,333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9	유지	362	362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10	유지	230	230	-	국유(기획재정부)
현남면 광진리	600-11	유지	2,795	2,795	-	국유(국토해양부)

자료 : 양양군청, 2009

## 7. 임정기관 및 조합

### 1) 양양국유림관리소

#### (1) 연혁

1929년 11월 1일 강릉영림서 양양보호구가 설치되었고 1991년 6월 12일 강릉영림서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1999년 5월 24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연곡국유림관리소에 통합되었다가 2006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로 다시 개칭하게 됨으로 양양지역은 물론 양양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임무

주요임무는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유 임산자원의 산업화, 국유림의 공익기능 확대, 국유림 경영의 선진화 등이다.

### (3) 기구 및 정원

기구는 서무계 외에 보호관리, 경영계획, 자원조성, 고성경영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을 포함하여 정원은 22명이다.〈표3-12〉

〈표3-12〉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직원현황

구 분	계(명)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22	1	5	3	4	4	5
현 원	21	1	5	4	2	4	5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청원직 3명 별도

### (4) 관할면적

관할행정구역면적은 131,309ha이며 그중 양양군의 국유림은 57,917ha로 약 44%를 차지하며 산림은 총 106,991ha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표3-13〉

〈표3-13〉 양양국유림관리소의 관할면적

시 · 군별	행정구역면적 (ha)	산림이용(ha)			인구수 (천명)
		계	국유림	사유림	
계	131,309	106,991 (100%)	63,591 (59%)	43,400 (41%)	158
양양군	57,917	52,484	35,909	16,575	35
속초시	10,524	8,081	1,679	6,402	88
고성군	62,868	46,426	26,003	20,423	34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 (5) 백두대간 현황

백두대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3필지, 14,216ha가 백두대간과 접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구역이 46필지, 11,703ha이고 완충구역이 7필지에 2,513ha이다.

또 양양관리소 관내 임도현황은 1975년부터 2002년 사이에 248.99km가 조성되어 밀도 (m/ha)는 6.93m이다. 이는 전국 2.33m보다 높으나 독일이나 미국의 40.0m, 10.0m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3-14〉

〈표3-14〉 양양국유림 관할내의 백두대간 임도현황

구 분	합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거 리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양양	53	14,216	46	11,703	7	2,513	164.6km (88.3) 진부령→58.4km, 샘터→49.1km, 쇠나드리→57.1km, 1,201고지

자료 : 양양국유림관리소, 2009

## 2) 국립공원

### (1) 설악산 국립공원 연혁

1965년 11월 5일 천연보호구역 163.4km<sup>2</sup>,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후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 지정(174km<sup>2</sup> 건설부고시 28호)되었다.

또 1982년 8월 12일 생물권 보호구역 (유네스코 지정 393.49km<sup>2</sup>)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557호로 공원 면적이 174km<sup>2</sup>에서 373km<sup>2</sup>로 확대되었다.

19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인 발족된 직후인 1987년 8월 5일 설악산관리사무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오색, 백담, 장수대분소가 설치되었다.

1993년 9월 13일 설악산관리사무소 대청분소가 개소하였으며 2001년 10월 8일 환경부고시 제2001-129호로 2003년 8월 30일 환경부고시 제2003-139호로 공원면적이 398,593km<sup>2</sup>로 확대 지정되었으나 2009년 7월 15일 공원면적이 398,222km<sup>2</sup>로 다소 축소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09-107호)

### (2) 국립공원 현황

#### 가. 공원의 특성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1,708m)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라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으로 구분되어지며 수많은 기암과 계곡, 폭포, 산봉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형 공원이다. 또한 천연보호구역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서 학술적으로도 중요성이 큰 지역이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중 인지도 1위 공원이며,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인증한 “국제적 수준”의 국립공원이다.

## 나. 용도 및 소유별 현황

### 가) 공원면적

〈표3-15〉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

(단위 : km<sup>2</sup>)

구 분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사 찰 지	비 고
면 적	398.222 (100%)	332.634 (83.5%)	3.029 (0.8%)	21.829 (5.5%)	40.730 (10.2%)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 나) 용도지구별 면적

〈표3-16〉 설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별 면적

구 분	면 적(km <sup>2</sup> )	비 율(%)	비 고
계	398.222	100.0	
자연보존지구	313.774	78.8	
자연환경지구	81.087	20.4	
자연마을지구	0.433	0.1	
밀집마을지구	0.540	0.1	
집단시설지구	2.388	0.6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 다) 행정구역별 면적

〈표3-17〉 설악산국립공원 행정구역별 면적

구 분	읍 · 면 · 동	면 적
계	1개 시 3개 군 9개 읍 · 면 · 동	398.222(100%)
속 초 시	설악동, 도문동, 노학동	6.686(17%)
양 양 군	강현면, 서면	75.688(19%)
인 제 군	인제읍, 기린면, 북면	234.283(59%)
고 성 군	토성면	21.565( 5%)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 다. 관리기구 및 조직체계

## 가) 조직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자원보전과, 탐방시설과, 행정과, 외설악팀 등 3과 1팀 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오색분소, 백담분소, 장수대분소, 대청분소, 신성봉분소 등 5개 분소로 조직되어 있다.

## 나) 관리인력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원 91명이며 일반직과 기능직, 운영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92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표3-18〉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정원현황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운 영 직
		1,2 급	3급	4급				5급				6급				운 전	특 정	
				행정	레인저	조사	기술	행정	레인저	조사	기술	행정	레인저	조사	기술			
정 원	91	1	2	2	2	1	1	2	5	2	1	9	24	8	5	2	1	23
현 원	78	1	3	2	6	-	-	1	4	-	2	5	26	2	3	2	3	18
파부족	-13	-	1	-	4	-1	-1	-1	-1	-2	1	-4	2	-6	-2	-	2	-5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 92명

안전관리(4), 자연환경안내원(19), 수역시설물관리(7), 탐방안내(3), 환경미화(7), 영선(3), 보호단(6), 녹색순찰대(34), 재난구조대(8), 인턴(1)

## 라. 탐방객 현황

탐방객 현황은 〈표3-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사기간 중 2007년이 3,463천명으로 가장 탐방객수가 많았으며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19〉 설악산 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3년 대비
탐방객	2,884	2,970	3,300	3,125	2,677	3,463	3,267	△6%

자료 : 설악산국립공원, 2009

※ 2009년 10월 31일 기준 탐방객 : 3,208천명(전년대비 12.8%증가)

### 3) 낙산도립공원

#### (1) 일반현황

##### 가. 주요연혁

1979년 6월 22일 동해도립공원 지정(9.1km<sup>2</sup>)된 후 1988년 12월 17일 공원 명칭을 동해도립공원에서 낙산도립공원으로 변경하였다.

1989년 10월 17일 낙산도립공원구획을 재검토하여 수산포지구를 폐지하고 오산포지구를 신설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을 통해 당초면적 9.1km<sup>2</sup>를 8.67km<sup>2</sup>로 조정하였다.

또 2007년 1월 26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8.67km<sup>2</sup>→8.66km<sup>2</sup>)이 있었으며 2008년 5월 30일 공원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8.658km<sup>2</sup>→8.659km<sup>2</sup>)이 있었다.

2008년 12월 5일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과 2009년 5월 1일 낙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통해 동호리항구, 하항정리 일부변경이 있었다.

#### (2) 낙산도립공원 현황

##### 가. 용도지구 현황

낙산도립공원은 총 8,658,922m<sup>2</sup>로 용도지구별로 살펴보면 공원지역보전지구가 6.7%인 580,000m<sup>2</sup>이고 공원자연환경지구가 52.3%인 4,525,387m<sup>2</sup>이며 공원자연마을지구가 10.5%인 913,698m<sup>2</sup>이고 공원밀집마을지구가 9.4%인 812,590m<sup>2</sup>이며 공원집단시설지구가 21.1%인 1,827,247m<sup>2</sup>이다.

##### 나. 집단시설지구 현황

집단시설지구현황는 전체 1,827,247m<sup>2</sup> 중 숙박시설지 26.56%, 상업시설지 11.02%, 공공시설지 0.45%, 녹지 24.39%, 기타시설지 34.11% 등으로 나타났다.〈표3-20〉

〈표3-20〉 낙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현황

(단위 : m<sup>2</sup>)

구 분	계	숙박시설비	상업시설지	공공시설지	녹 지	기타시설	유보지
계	1,827,247	485,299	201,367	8,157	445,620	623,234	63,570
낙 산 (79. 6.22)	846,258	120,025	108,641	6,797	305,410	305,385	-
하조대 (79. 6.22)	528,978	229,836	59,367	1,360	56,223	182,192	-
오산포 (89.10.17)	452,011	135,438	33,359	0	83,987	135,657	63,570

자료 : 낙산도립공원, 2009

○ 단독시설 현황 : 15개소 172,122km<sup>2</sup>

#### 다. 탐방객수

탐방객수는 2005년 990,447명이었으나 그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8,667,272명으로 875%증가하였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2/4분기와 3/4분기에 탐방객이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여름철 휴가집중현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3-21〉

〈표3-21〉 낙산도립공원 탐방객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분 기 별			
		1/4	2/4	3/4	4/4
2005	990,447	123,065	452,574	176,935	237,873
2006	4,025,550	160,609	515,695	3,104,292	244,954
2007	4,612,671	128,484	415,539	3,834,150	234,498
2008	8,667,272	164,043	417,104	7,973,001	113,124
총 계	18,295,940	576,201	1,800,912	15,088,378	830,449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9

#### 라. 관리조직 현황

낙산도립공원 관리조직의 정원은 15명이며 도립공원관리소장1, 관리담당1 그 외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산림조합

과거의 산림계를 승계하는 조직으로 1961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1980년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춘 협동조직체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산림시책을 수행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1) 일반현황

양양산림조합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91-13에 위치하며 551㎡ 대지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건평 1130.08㎡로 1994년에 신축되었다.

양양산림조합은 1955년 사단법인 양양산림조합 조직(산림보호 임시조치법)으로 시작하여 1962년에 양양산림조합으로 설립되어 유지하다 1993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양양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되었고 1996년도에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0년도에 양양산림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양양읍에 소재하는 지역조합으로서 속초시와 양양군 지역의 업무를 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총 조합원은 1,194명이고 임업기술지도, 사유림 경영지도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을 통해 조합자립기반 구축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임업 노동력의 확보와 선진 임업기술지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업무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의 산림을 산림조합이 대신하여 경영해드리는 대리경영사업, 산림경영에 대한 임업기술지도사업, 조림·육림·숲가꾸기사업·산림보호 등 산림자원조성사업, 자연휴양림조성·산촌종합개발 등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 임산물의 생산·판매·알선을 위한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 임업기반 구축을 위한 임업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조합 관할지역의 산림은 60,560ha 중 국유림 37,991ha, 사유림 20,620ha, 공유림 1,959ha이 있다.

### (3) 주요업적

47년 역사를 갖는 양양산림조합은 지역 내 산림의 복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임업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04년도 태풍 루사, 매미 산사태복구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성실히 시공하여 지역 산림분야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FTA 등에 따른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변모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엔환경개발 회의,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고조로 인한 산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거래 등으로 새로운 산림에 대한 가치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림조합은 전망이 매우 밝다.

양양산림조합은 전 임직원 및 조합원과 협동정신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08년도 회원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경영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양양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양양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은 예대비율 77.6%의 구조로 건실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가입 및 출자금 확대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금융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로 산주중심의 조합으로 거듭나고 건실한 재무구조실현으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높임과 상호금융사업의 활성화로 조합원의 생산활동과 가계자금 적기지원으로 상호금융의 조기정착과 고객서비스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5) 국유림대부

황폐한 국토를 조기녹화하기 위하여 1950년대 후반에 조림대부제가 시행되었으며 양양군 관내의 국유림 대부현황은 포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부사용허가 건수는 27이며 총 27필지에 면적은 35,128,660㎡이며 수대부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이다. 대부림의 용도는 실습림이며 대부허가 시작일은 1993년 12월 28일 이고 허가 만료기간은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표3-22>

〈표3-22〉 국유림 대부 현황

번호	대부 사용허가	개소	지번	용도별	지적 (㎡)	면적 (㎡)	수 대부자	기간 갱신 허가일	(최초) 허가 시작일	허가 만료 기간
		2건	27필지	실습림	49,885,080	35,128,660				
1	사용허가	현남주	산1	실습림	785,081	785,00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산1-1	실습림	770	770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12	실습림	45	4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15	실습림	166	16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주	120-5	실습림	337	337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산1-1	실습림	11,779,726	10,921,65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633-1	실습림	446	44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하월천	산198-3	실습림	1,098	1,09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1-1	실습림	3,763,192	1,929,03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8-1	실습림	659	65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274	실습림	463	46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5	실습림	36	3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7-1	실습림	2,688	2,688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3	실습림	935	935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8	실습림	313	31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152-10	실습림	283	28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1-1	실습림	1,963	1,963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번호	대 부 사용허가	개 소	지 번	용도별	지 적 (㎡)	면 적 (㎡)	수 대부자	기간 갱신 허가일	(최초) 허가 시작일	허가 만료 기간
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9-1	실습림	814	814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상월천	산33-1	실습림	1,851	1,851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1	실습림	3,102,459	3,060,686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2	실습림	204,791	204,791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2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3	실습림	2,129	2,129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남정자	산58-4	실습림	1,332	1,332	산림조합 중앙회	2008. 12.30.	1993. 12.28.	2013. 12.31.
	사용허가	현북대치	산1	실습림	3,960,793	3,957,084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명지	산92	실습림	366,843	366,84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어성전	산2	실습림	25,642,264	13,623,62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사용허가	현북어성전	산3	실습림	263,603	263,603	산림조합 중앙회	2007. 06.01.	1997. 01.22.	2012. 06.30.

자료 : 양양군청, 2009

집필 : 박용진

## 각주

1) 수해복구사업 시설은 제외

## 참고문헌

양양군, 양양군통계연보, 2008.  
 산림청, 산불예방과 진화, 1996.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양양군, 襄州誌, 199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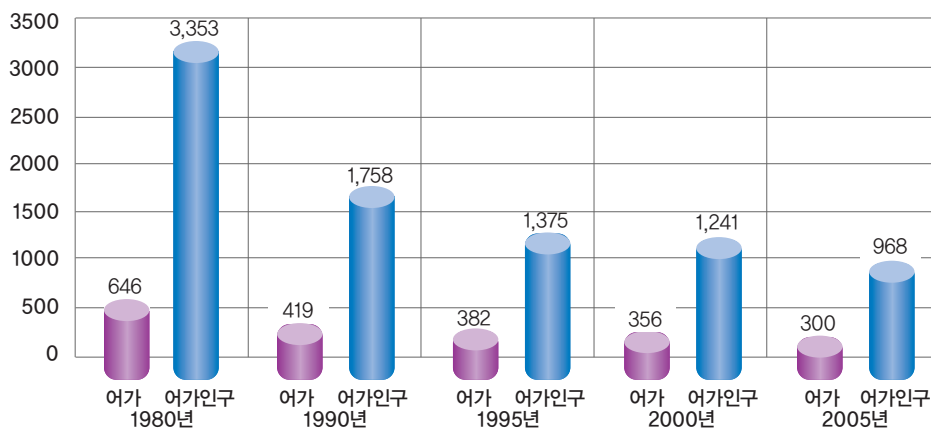
## IV. 수산

## 1. 어가 및 어가인구수

지형적으로 해안선 가까이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해안선은 약 44.54km 정도로 강원도 전체 해안선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관할 수면적은 716,302km<sup>2</sup>(양양군 면적의 114%), 해안 직선길이는 32,231m이다.

또한 크고 작은 어항이 12개 있으나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어항은 없다. 따라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은 1980년대 646여 가구 3,353여 명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 300여 가구이며, 어가인구는 968여 명에 달한다. 현재 13개의 어촌계(복지7, 자립4, 성장2)가 있으며, 총 378명이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520여 명에 달한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어가 및 어가인구수를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 2. 수산물 어획량

주요 어종은 가자미, 꽁치, 학꽁치, 넙치, 도루묵, 대구, 감성돔, 멸치류, 명태, 방어, 복어, 송어류, 연어, 임연수어, 쥐치류, 청어, 새우, 골뱅이, 문어, 오징어이며 그중에서 가자미, 방어, 임연수어, 오징어는 기타 다른 어종에 비하여 많은 어획량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어종이다.

2009년 수산물 생산실적은 2,159톤으로 위판가격으로는 9,125백만원이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어획고는 <표4-1>에 표시하였다. 명태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현재 급격히 줄어든 실정이다.

<표4-1> 양양군의 어획고(2004~2008년)

(단위 : kg)

어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2,047,358	1,781,226	1,402,712	1,767,316	2,158,654
가자미	150,477	157,000	186,822	167,479	132,732
꽁 치	6,973	6,366	466	1,625	30,256
학꽁치	2,394	3	-	444	363
넙 치	12,455	21,106	13,423	13,200	26,859
도루묵	70,988	63,224	46,950	107,474	41,792
대 구	64,559	106,455	103,677	146,863	32,759
감성돔	17,387	19,778	12,946	10,992	30,971
멸치류	74,638	21,950	140	647	225
명 태	150	34	48	10	11
방 어	100,446	62,988	35,012	143,328	221,219
복 어	1,177	3,321	4,483	6,253	27,472
송어류	125,433	165,881	241,864	83,047	2,297
연 어	8,903	5,102	5,870	18,165	19,644
임연수어	141,046	73,131	62,599	235,379	224,477
쥐치류	10,745	11,113	5,963	43,059	52,042
청 어	11,684	9,745	8,788	3,963	1,535
새 우	12,312	6,341	6,604	6,291	5,744
골뱅이	14,582	14,016	21,663	18,028	16,478

어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문 어	101,562	84,269	88,519	85,944	83,796
오징어	165,365	202,457	186,151	299,732	244,877
기 타	954,082	746,946	370,724	375,393	863,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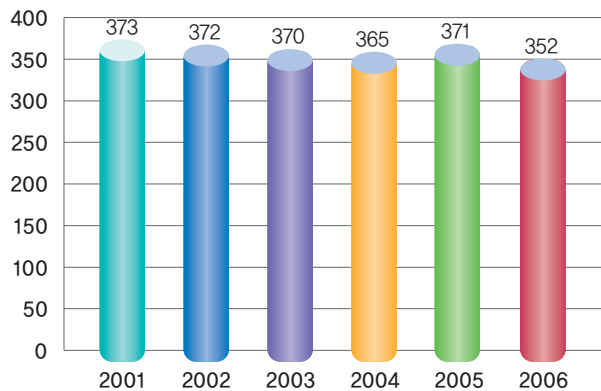
상기의 어류 중에서도 연어는 양양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매년 남대천을 중심으로 회귀한 연어가 14,000마리 정도 포획되고 있다.

### 3. 어선 보유 현황

어선의 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1척 1,040톤(평균 3.2톤)이며, 그 중에 동력이 314척 1,037톤이며 무동력이 7척 3.85톤이다.

어선세력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척사업과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어선세력 현황그래프와 <표4-2>에 나타난 것처럼 2004년 남해2리의 경우 84척의 어선이 있었으나, 현재 14척이 감소하여 70척의 어선이 남아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어선이 감소하였다.

가장 많은 어선이 감소한 곳은 현남면으로 2004년 169척에서 2008년 말 현재 135척으로 34척의 어선이 감소하였



양양군 어선 척수

고, 현북면에서는 58척에서 48척으로 10척이 손양면에서는 57척에서 54척으로 강현면에서는 95척에서 84척으로 감소하였다. 전체로 보면 2004년 379척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말 321척으로 58척의 어선이 감소하였다.

〈표4-2〉 양양군 어선 세력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총 계		379	1158.21	381	1187.07	361	1167.39	348	1120.81	321	1040.90
현 남 면	소 계	169	564.36	169	587.50	154	579.15	148	574.83	135	522.95
	남애1	15	33.78	14	32.74	13	30.41	11	25.34	11	27.68
	남애2	84	371.30	88	391.18	79	376.63	77	374.26	70	339.17
	광진	9	3.77	10	4.03	9	3.77	9	4.34	8	3.75
	인구	33	67.39	31	66.59	30	75.53	27	75.31	25	66.31
	동산	28	88.14	26	92.96	23	92.81	24	95.58	21	86.04
현 북 면	소 계	58	247.27	60	244.53	57	225.97	51	198.22	48	194.06
	기사문	52	240.26	53	236.97	51	218.96	48	194.82	45	189.77
	하광정	6	7.01	7	7.56	6	7.01	3	3.40	3	4.29
손 양 면	소 계	57	159.86	58	170.37	56	174.01	58	166.35	54	148.65
	동호	4	18.56	5	22.92	4	22.21	4	22.21	3	20.01
	수산	36	107.10	36	113.25	36	117.15	37	108.81	35	93.96
	오산	17	34.20	17	34.20	16	34.65	17	35.33	16	34.68
강 현 면	소 계	95	186.72	94	184.67	94	188.26	91	181.41	84	175.24
	낙산	32	63.40	33	64.41	38	75.32	34	70.51	31	71.80
	전진2	24	26.56	23	24.36	22	24.64	23	26.84	20	22.59
	물치	39	96.76	38	95.90	34	88.30	34	84.06	33	80.85

#### 4. 어업기반 시설 현황

영동 북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전체가 바다에 접하고 국도 7호선과 접하고 있어 교통이 좋은 편이고 어항 기본 시설도 대체로 양호한 실정이다.

해안선은 동해안 특성의 단조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약 44.54km에 걸쳐 총 12개의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어항이 위치하고 있다.

국가어항은 〈표4-3〉과 같이 수산항과 남애항으로 2개항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고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관할의 지방어항은 동산항과 물치항으로 2개

항이며, 양양군 관할의 어촌정주어항은 후진항, 낙산항, 오산항, 기사문항, 인구항으로 5개 어항이 있고, 소규모 어항으로 동호항, 하광정항, 광진항의 3개항이 있다.

〈표4-3〉 인근항과의 거리 및 위치 (수산항 기준)

항 명	해상 거리(km)	위 치	항 종	관할 부서
수 산 항	0	손남면 오산리	국가어항	국토해양부
남 애 항	18.0	현남면 남애리	국가어항	국토해양부
동 산 항	13.0	강현면 동산리	지방어항	강원도
물 치 항	11.0	강현면 물치리	지방어항	강원도
후 진 항	8.0	강현면 전진2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낙 산 항	6.5	강현면 전진1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오 산 항	2.0	손양면 오산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인 구 항	14.5	현남면 인구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기사문항	10.2	현북면 기사문리	어촌정주어항	양양군
동 호 항	2.5	손양면 동호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하광정항	9.8	현북면 하광정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광 진 항	16.5	현남면 광진리	소규모어항	양양군

또한 위판시설로는 남애항에 3개동 동산항에 1개동 기사문항에 3개동 물치항에 1개동 총 8개동 2,276.05㎡가 마련되어 있으며 남해항에 1,000D/M 규모의 급유시설이 있다.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인구항, 기사문항, 물치항에 어업인 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남애항에는 어업정보센터를 두어 어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4-4〉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 m, 백만원)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양양군	계	5,153	52,186	3,523	34,090	1,630	18,096	68.40%
	방파제	1,930	38,611	1,292	24,478	638	14,133	-
	방사제	1,353	6,566	966	4,424	387	2,142	-
	물양장	815	2,789	285	1,315	530	1,474	-
	선양장	-	-	-	-	-	-	-
	호 안	1,055	4,220	980	3,873	75	347	-
	준 설	-	-	-	-	-	-	-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후진항	계	699	5,870	699	5,870	-	-	100%
	방파제	289	4,121	289	4,121	-	-	-
	방사제	165	741	165	741	-	-	-
	물양장	30	128	30	128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15	880	215	880	-	-	-
	준 설	-	-	-	-	-	-	-
낙산항	계	745	6,143	745	6,143	-	-	100%
	방파제	189	3,749	189	3,749	-	-	-
	방사제	290	1,136	290	1,136	-	-	-
	물양장	60	257	60	257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06	1,001	206	1,001	-	-	-
	준 설	-	-	-	-	-	-	-
오산항	계	505	7,360	281	6,046	224	1,314	55.60%
	방파제	270	6,116	253	5,916	17	200	-
	방사제	130	758	-	-	130	758	-
	물양장	30	139	28	130	2	9	-
	선양장	-	-	-	-	-	-	-
	호 안	75	347	-	-	75	347	-
	준 설	-	-	-	-	-	-	-
동호항	계	572	7,290	100	956	472	6,334	17.50%
	방파제	312	6,240	100	956	212	5,284	-
	방사제	90	540	-	-	90	540	-
	물양장	170	510	-	-	170	510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하광정항	계	869	8,899	27	200	842	8,699	3.10%
	방파제	360	7,000	-	-	360	7,000	-
	방사제	124	744	-	-	124	744	-
	물양장	385	1,155	27	200	358	955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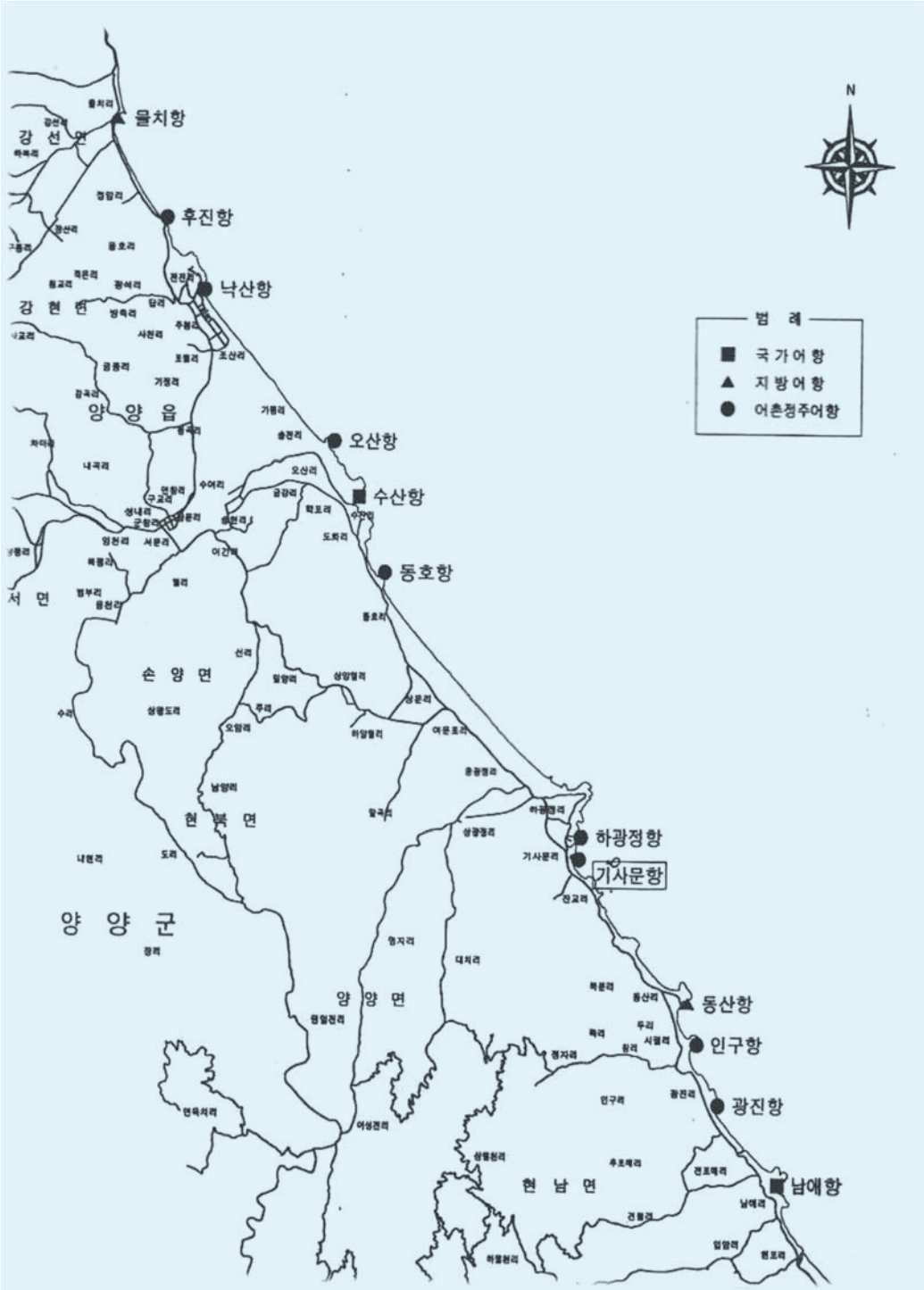
항 별	시설명	총계획		2008년까지 실적		잔 량		개발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기사문항	계	857	7,402	857	7,402	-	-	100%
	방파제	260	5,240	260	5,240	-	-	-
	방사제	180	930	180	930	-	-	-
	물양장	90	386	90	386	-	-	-
	선양장	-	-	-	-	-	-	-
	호 안	327	846	327	846	-	-	-
	준 설	-	-	-	-	-	-	-
인구항	계	756	8,622	707	6,973	49	1,649	93.50%
	방파제	250	6,145	201	4,496	49	1,649	-
	방사제	224	1,117	224	1,117	-	-	-
	물양장	50	214	50	214	-	-	-
	선양장	-	-	-	-	-	-	-
	호 안	232	1,146	232	1,146	-	-	-
	준 설	-	-	-	-	-	-	-
광진항	계	150	600	107	500	43	100	71.30%
	방파제	-	-	-	-	-	-	-
	방사제	150	600	107	500	43	100	-
	물양장	-	-	-	-	-	-	-
	선양장	-	-	-	-	-	-	-
	호 안	-	-	-	-	-	-	-
	준 설	-	-	-	-	-	-	-

자료 : 2008.12.31. 현재

어항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어촌정주어항의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등의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을 <표4-4>에 나타내었다.

## 5. 어항의 위치 및 특징

어항에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8개소와 소규모 어항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데 총 12개의 어항이 있다. 연안어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양양군 12개 어항 위치

## 1) 수산항

읍내 터미널에서 시내버스가 1시간여 간격으로 운행하며 7번국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것이 수산항의 특징이며 1종 어항(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항구 내에 모텔과 횃집 민박시설이 있는 양양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항이다.

수산리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에 먼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진 남평 문씨가 7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2백년은 넘은 듯하다. 앞에는 동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 수산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수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이름의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설악산의 줄기와 동해의 남대천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수산항은 양양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며 세력권 어선의 어업 근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에 착수한 후 1996년 수치모형실험(항내 매몰방지 대책)을 실시하면서 항으로 더욱 발전을 거듭했다.



수산항의 모습

특히 수산항은 길게 뻗은 방파제가 있어 주말이 되면 각지에서 온 낚시꾼들로 붐빈다. 방파제 낚시로는 우럭과 노래미 등이 주로 잡히며 낚은 고기를 즉석에서 회로 썰어 먹는 맛도 수산리에서 만나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또한 선사문화를 간직한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둘러 볼 수 있으며 바다의 축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대천 연어축제에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다.

일제시대에는 정어리가 많이 잡혀 당시의 주 소득원이었다고 한다. 마을 근처에 정어리 공장 세 곳이 있어 수요·공급이 맞았기 때문이다. 이 정어리 공장은 기름을 짜서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 무거리는 비료로 사용했다. 정어리를 잡는 배는 12척이 있었다. 정어리 공장이 없어진 지는 50년이 되었고 약 30년간 공장이 운영되었다. 6·25 한국전쟁 이후는 오징어가 많이 잡혔고 풍선(목선)으로 잡았다. 이 풍경이 모두 없어진 지는 20년이 된다.

현재 수산항에는 국제규모의 요트 선착장이 마련되어있으며 제9회, 제10회 해양경찰 청장배 전국 요트 대회 등 전국 단위 요트 대회를 개최하는 레저·레포츠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 2) 남애항

양양은 오를 양(襄), 해 양(陽)으로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해돋이 고장이다. 남애는 매화가 결실을 맺은 후 떨어지는 모양이라 하여 ‘낙매’라고 불러오다가 남쪽 바다라는 뜻의 ‘남애’로 개칭되었다.



남애항의 모습

산과 바다가 함께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항으로 수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담당하는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로, 1979년 기본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 어항 시설 정비계획을 진행한 양양군의 1종 국가어항이다.

남애항은 남애2리에 자리잡고 있으나 항구를 중심으로 남애1·4리 4개의 포구 마을이 길게 늘어서 있는 항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고깃배에서 펄떡 뛰어오르는 생선들은 바다의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민들의 손끝에서 잡아 올린 가자미와 넙치는 남애항 사람들의 부지런한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남애항은 해수욕장, 방파제와 등대, 호수, 바위섬, 고깃배와 횃집 등 바다의 정취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집약형 바닷가이다.

특히 동해시의 추암(湫岩) 일출과 함께 동해안 일출의 최고 명소로 꼽히며, 특히 그림 같은 해변과 아담한 항구를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해돋이가 장관이다.

항구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돋보인다. 이 두 개의 섬에는 각각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가 서 있어 마치 쌍둥이 형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하고, 섬마다 각기 한 그루의 커다란 해송이 가지를 펴고 나무 그림자를 드리워 운치를 더한다.

양양군의 남쪽 끝머리에 항아리처럼 움푹 팬 모습으로 자리잡고 앉아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영화「고래사냥」의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장소로도 유명하며, 바로 인근에 남해해수욕장, 남해1·3리 해수욕장, 광진해수욕장이 있고,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면 주문진이 나온다. 주요 해산물로는 전복·미역·가리비·멸치·넙치 등이 있다.

### 3) 물치항

물치항은 2종 어항(지방어항)으로 양양군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시와 경계지역의 항구로 항구 내의 현대식 횃집상가단지가 형성되고 주변마을에도 규모가 큰 모텔 등이 들어서 분위기가 좋



물치항의 모습

다. 어촌계 활어센터 안에는 사계절 관광객을 모시기에 적합하게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층과 2층은 지역 어촌계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횃집단지를 형성하였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청결하고 실내에 화장실을 갖추어 놓고 호객행위는 하지 않는다. 물치항은 횃집마다 손님들의 좌석을 해안가 창문 쪽으로 배치 실내에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의 횃집들은 모두가 자체적으로 배를 갖고 있는 어촌계 가족들로서 중간상을 거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물치리’ 내에는 ‘댁말’ (택촌이라 해서 댁말), ‘떡정 거리’ (옛날 떡을 많이 해서 팔았다고 떡정 거리), ‘우정거리’ (우시장 서는 곳이라서 우정거리), ‘진고개’ (진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서)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마을들이 모여서 한 개 리(里)를 이룬 마을이다.

‘물치’ 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물가에 밭이 있다 해서 물치라 하기도 하고 남쪽 북쪽 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강이 내린다고 하여 물치라 하기도 한다. 물치는 옛부터 강릉 위의 이북에서 원산 이하로는 동대문 밖의 제일이라 할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선 마을이다. 장이 섰던 시기는 일제시대로 1937년 철로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어 속초가 번영하면서 반대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다가 1985년경에 물치장이



없어졌다. 우시장의 경우는 1950년대 초반에 없어졌다. 속초가 생긴 이후로 마을이 쇠퇴해 과거에 비해 가구가 많이 줄고, 시장도 속초에 나가 보며, 자녀의 진학도 속초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실정이다.

#### 4) 동산항

동산항은 2종 항구(지방어항)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지 않고 주민들도 외지인에 대해 친절하며 주위의 다른 항구보다 한적하여 조용한 피서·배낚시·바다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동산항의 모습

찾는다. 특히 이곳과 주변의 해수욕장들은 항포구 안쪽이나 내륙 쪽으로 오목하게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어 파도가 높지 않고 수심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동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마을 모양이 장구 모양이라는 데서 나왔다는 설과 구리 동(銅)자를 쓰는데서 나왔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동산리는 행정구역상 5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2반을 합쳐 '말쪽'이라 부르고 3·4·5반은 '새쪽'이라 부른다. 또 1반은 따로 '새새끼불'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 마을의 주를 이루는 성씨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씨와 조씨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5) 후진항

후진항은 7번국도변에 위치하며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경계로 북쪽에 위치하는 항구로 설악 해수욕장으로 더 알려진 곳이며 최근에는 작은 어선들 몇 척 정도 뿐이나 조선 숙종 35년(1709년) 이해조(李海朝) 양양부사가 현산삼십경(峴山



후진항의 모습

三十景)을 읊은 시문을 보면 “낙산사에 들리 일출을 보고는 꼭 후진에 와서 고기구경을 한다.”라 하고 “고기 실은 배가 후진에 모여며, 고기 잡는 그물이 구름같이 쌓인다 하였고, 또한 한자 남짓한 고기는 거두지 않고 놓아 준다.”라 읊었으니 지금 보다는 꽤 큰 어항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6) 낙산항

낙산항은 소규모 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래 명칭은 전진항이었으나 2008년 3월부터 낙산항으로 바뀌었다. 낙산사 의상대 아래의 바다 쪽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낙산해수욕장과 백사장이 연결된다.



낙산항의 모습

해안가로 바위들이 많고 낚싯대를 빌려(유료)주는 곳도 있어서 측석에서 바다낚시도 할 수 있는 재미를 준다.

전진1리는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던 마을로 옛날엔 앞 나루라고 불리던 곳이다. 전진1리는 또한 낙산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피서철 해수욕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낙산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절이다. 세조가 이 절에서 피부병을 고친 후 낙산사를 중심으로 바다를 포함해 사방 10리를 낙산사의 땅으로 하사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주민들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도 낙산사에 일정량을 바치고 생활하였으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수산조합을 만들어 낙산사의 바다에 대한 권리를 없애고 땅도 많은 부분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도 도로는 대부분 낙산사 땅이어서 주민들은 세를 내고 있다.

## 7) 오산항

항구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며 가을철 바다연어가 많이 잡히는 항구 중 한 곳이며 남쪽해변에 썰비치 리조트·호텔이 있고, 해변을 따라 군 휴양소 및 문화마을·오산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다. 또한 수산항과 동호리 해수욕장까지 해변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오산항은 6만 5,577m<sup>2</sup> 면적으로 20척 40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돼 2008년까지 253m의 방파제 축조와 28m의 물양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 8) 기사문항

기사문항은 하조대 남쪽의 항구로서, 항구는 안기사문항과 밖기사문항으로 구분되며 안기사문항은 군사지역이므로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구는 밖 기사문항을 말한다.



기사문항의 모습

이 항구는 비교적 큰편에 속하나 소규모 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항구 남쪽편 7번국도변에 38° 선 휴게소가 있고 휴게소 뒤편 해안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개장한다. 기사문 마을 안쪽의 항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풍경을 볼 수 있으며, 갯 잡아올린 수산물들은 물론 어민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항에는 수협 직매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에 횃집도 많이 형성되어있다.

기사문항의 자랑거리는 단연 ‘명사(鳴沙)’를 꼽는다. 명사는 모래사장을 걸으면 ‘뽕드득’ 하고 모래에서 소리가 난다해서 붙여진 것으로 유난히 모래가 고와 눈을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백사장에서 즐길 수 있다.

## 9) 인구항

인구항은 항포구에 속하며 마을은 동산항 주변보다 크나 항구는 동산항 보다 작다. 항구 주변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항포구 내를 순환하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항구 내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구항의 모습

동산항과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인구항 북쪽으로 동산 해수욕장, 죽도 해수욕장이 있고 남쪽으로는 광진리 해수욕장이 이어져 있다.

인구항은 다이빙리조트가 있어 스킨스쿠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운이 좋으면 간혹 멸치떼가 몰려들어 보기 힘든 진풍경을 접할 수도 있다.

과거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접해 사계절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죽도봉에 오르는 코스는 인구항만이 갖고 있는 볼거리다. 띄엄띄엄 놓인 벤치에 등을 기대 잠깐씩 쉬어가며 좁은 오솔길을 따라 죽도정에 닿으면 동해안 경관을 관망하기에 딱이다.

## 6. 양식 사업 현황 및 증·양식업 등록 수

2008년 12월 31일 현재 마을어업이 13건 1,490ha, 협동양식이 5건 428ha, 정치망어업이 28건 519.5ha, 양식어업이 18건 168.9ha이다. 양식어업 중에서는 가두리 양식이 1건 1ha, 패류양식이 5건 76.5ha, 복합양식이 12건 91.4ha이다. 양식어업권 현황은 <표 4-5>에 표시하였다.

또한 해상종묘생산이 8건 32ha이며, 연안허가어업이 462건(자망 246, 복합 130, 통발 42, 양조망 5, 선인망 2, 이동성구획 37)이며 신고어업이 65건, 해수양식어업이 2건 273㎡, 육상종묘생산이 3건 2,324㎡, 내수면 양식이 1건 1,092㎡, 재첩허가가 39건이다.

양식 사업은 복합양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양식하는 어종은 가리비와 우렁챙이로 양양군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의 90%정도를 차지한다. 그 외 다른 품종의 양식은 현남면 인구어촌계에서 가두리 양식을 통한 어류의 양식을 하고 있으며 손양면 오산리에서 다시마와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3곳에서 가리비양식을 하였으나 집단폐사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양식 사업을 포기하였다.

## 7.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후계자

양양군에서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유능한 수산업경영인력을 육성하는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선어업과 증·양식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87명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총 21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어선어업과 증·양식업에 종사하는 17가구를 전업어가로 선정하여 총 9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수산업 경영인 현황은 <표4-5>에, 전업 어가 현황은 <표4-6>에 나타내었다.

<표4-5> 수산업경영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수산업경영인	87	80	6	1

<표4-6> 전업어가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계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전업어가	17	15	2	-

## 8. 종묘 방류사업 현황

어족 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가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어족자원을 증가시키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방류 어종 및 수량은 <표4-7>과 같으며, 2004년 넙치, 북방대합, 전복, 해삼을 방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5년과 2006년에는 넙치, 전복, 해삼, 재첩을 방류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뚝지, 넙치, 볼락, 조피볼락, 강도다리, 개랑조개, 북방대합, 전복, 해삼, 재첩을 방류하였으며, 2009년도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규모는 총 11품종, 3억5천만원이며 전복, 해삼, 북방대합, 개랑조개 등 8종의 해양어종과 뱀장어, 은어, 메기 등 3종의 향토 내수면어종을 방류하고 있다.

〈표4-7〉 연도별 방류 어종 및 방류 실적

(수량 : 금액 : 원)

품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568,383	209,941	768,000	372,060	1,725,825	560,478	3,214,459	566,000	1,391,974	360,000
뚝 지	-	-	-	-	-	-	-	-	25,900	10,000
넙 치	253,000	112,148	60,000	30,000	-	-	262,321	97,398	185,568	70,000
볼 락	-	-	-	-	-	-	-	-	55,114	30,000
조피볼락	-	-	-	-	-	-	446,475	87,908	141,140	20,000
강도다리	-	-	-	-	-	-	-	-	16,542	20,000
개랑조개	-	-	-	-	-	-	65,450	17,671	110,700	20,000
북방대합	-	-	-	-	-	-	-	-	83,780	20,000
전 복	110,000	100,000	508,000	313,460	569,856	472,766	300,114	210,000	104,638	90,000
해 삼	99,000	28,793	200,000	28,600	114,280	37,712	219,804	64,623	251,922	60,000
재 첩	-	-	-	-	1,041,689	50,000	1,920,295	88,400	416,670	20,000

특히 겨울철 대표어종인 뚝지는 양양 인근 해안에서만 서식하는 향토, 정착성 어종이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장 1cm 이상의 뚝지 치어 125,000미를 구입하여 동산리 이남 해역에 방류하였다. 건강한 종묘방류와 어족자원 형성을 위하여 방류해역 어촌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묘질병여부, 활력상태, 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량종묘만을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묘 방류사업을 통한 어족자원원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 9. 수산물 가공 공장 및 주요 가공품 현황

수산물 가공 공장은 오징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조미 가공 공장이 4곳, 홍게살을 이용하여 게맛살을 만드는 업체가 6곳, 명태를 가공하여 코다리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명태 가공 공장이 3곳 그리고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각종 젓갈류를 가공하는 절임 식품 가공 공장이 2곳 등 총 16개의 가공 공장이 있다.



## 10. 어업인 단체 현황

양양군의 어업인 단체로는 지구별 수협이 1개소(13개 어촌계), 자생단체가 12개소(수산경영인 연합회 외 13), 영어조합법인이 2개소(진보 5인, 오광영어법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양군은 수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공무원 3, 수협 1, 학계 1, 수산업경영인 2, 어촌계장 2, 어업인 6)으로 구성되어 있다.

## 11. 어촌 체험 마을

### 1) 입지조건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선정된 남애항을 중심으로 어촌체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꾸준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2003년 8월 18일 어촌마을 종합 안내센터를 착공하여 2004년 6월 29일 완공함과 동시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완료하였다.

어촌체험 마을로 선정된 남애리는 남애항과 방파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7번국도와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고자하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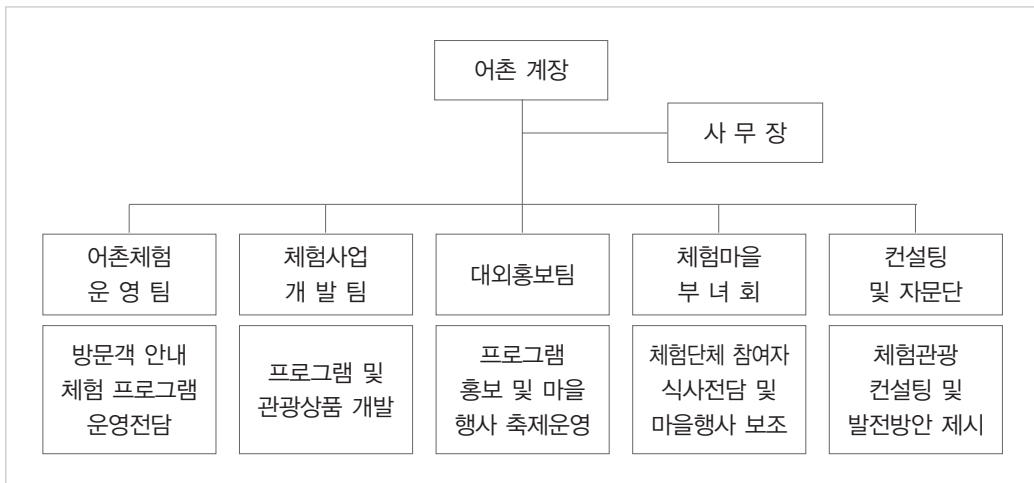
또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해맞이 축제, 그리고 남애2리 해수욕장 및 갯마을 해수욕장, 성황당공원, 영화 고래사냥 촬영장, 방파제 및 항포구 소공원, 해안도로 드라이브코스 등 많은 마을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양양송이축제, 양양연어축제,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번식지, 낙산의상대, 대청봉, 오색령, 하조대, 설악산, 오산리 선사유적지,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 등이 갖추어져있어 4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다.



설팅 및 자문단은 체험 관광 컨설팅 및 체험단의 체험 후기 및 의견들을 반영하여 어촌 체험마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보고 있다.

〈표4-9〉 남해 어촌 체험 마을 조직도



#### 4) 어촌 체험 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

어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자들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다.

2008년도 마을 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용은 〈표4-10〉에, 남해 어촌 마을 컨설팅 및 자문단은 〈표4-11〉에 표시하였다.

〈표4-10〉 마을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역(2008년)

교 육 명	교 육 기 관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2008년)
어촌 관광 리더 가이드과정	국립수산물과학원	1명(어촌계장)	3. 5.
어촌 관광 리더 가이드과정	국립수산물과학원	1명(사무장)	3. 7.
북한 농수산업 실태 및 현황교육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4.25.
일본 북해도 체험 마을 견학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5.11.~5.15.
어촌체험 마을 사업 활성화 워크숍	농림수산식품부	1명(사무장)	6.18.
어촌계장 협의회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1명(사무장)	6.27.

〈표4-10〉 마을리더 및 주민의 체험 관광 관련 교육 이수 내역(2008년)

교 육 명	교 육 기 관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2008년)
춘천내수면연구소 및 체험마을 견학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2명(어촌계장, 사무장)	6.30.
일본 동경 일대 체험 마을 견학	농림수산식품부	1명(어촌계장)	8.25.~8.29.
제주도 견학	환동해출장소	1명(사무장)	9.19.~9.21.

〈표4-11〉 남해 어촌마을 컨설팅 및 자문단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활동기간	도움내용 등
환동해정책연구소	박영철	해양수산연구	2008. 5.~11.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강원도립대학	김진동	관 광	2008. 9.	남해 마을 발전방안제시
강릉원주대학교	박흥기	해양자원육성	2008. 7.~ 9.	자매 결연을 통한 어촌 체험 공동 학습 운영
양양군 해양수산과	김종기	해양수산	2008. 1.~12.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	전민지	해양수산	2008. 1.~12.	체험 마을 컨설팅 및 지도

## 5) 남해 어촌체험마을 실적

남해 어촌체험마을은 2005년부터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표4-12〉에서와 같이 대표적으로 2005년 동부건설 물류팀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2008년에는 강릉대학교 해양생물교육센터, KT&G 원주제조창,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경기도 안성교육청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해안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해 갯마을해수욕장이 2008년 바다여행 추천 전국 해수욕장 BEST10에 지정되고, 지역의 교육연수기관 및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어촌체험 공동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체험객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종축제장 내에 남해 어촌체험마을 홍보 부스 설치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어촌 체험 마을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표4-12〉 자매 결연 교류 실적

단체(업체명)	교류 일자	교 류 내 용
한국 어촌어항 협의회	2008.1.12.~13.	수도권 체험객 80명 대상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추진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2008. 6.11.	강릉원주대학교 학부생 45명 어촌체험
	2008. 7.21.	수원교육청 소속 초·중등학생 110명 어촌체험
	2008. 8. 2.	경기도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45명 어촌체험
	2008. 8. 6.	성남 교육청 소속 초·중등학생 200명 어촌체험
KT&G원주제조창	2008. 8. 3.~6.	직원 및 가족 하계휴양소 설치
	2008. 8. 4.	어촌체험 행사
	2008. 8. 5.	갯마을 해변 가요축제
서울대학교 해양 연구소	2008. 8.13.	어촌체험 및 식사
	2008. 9.30.	어촌계에 디지털 카메라 증정
경기도 안성교육청	2008. 8.12.	초·중등학생 200명 어촌체험

## 12. 회 센터

양양군에는 물치항, 후진항, 낙산항, 하광정항, 남애항에 각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5개의 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횃집이 등록된 물치항의 경우, 3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마련해 놓고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어항에 위치한 회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여 회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 13.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성공사례

물치어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물치항의 주변을 둘러싼 난전에 회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생선 잔여물과 냄새로 인해 비위생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한 곳이었다. 그러나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을 통해 활어회 센터를 조성하면서 물치 어촌은 어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계원들 간의 협동심과 조직력 강화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치어촌의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1998년에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36개의 횃집을 조성하였으며, 횃집센터는 3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층에는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었고, 2층과 3층에 현재 총 35개 횃집이 운영 중에 있다. 물치항은 7번국도변에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트인 조망과 횃집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활어회 센터를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는 물치항과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어회 센터의 각 점포들은 어선어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직접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어항이나 근처 바다경관이 좋은 곳에서 회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는 소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판매 전략을 쓰고 있다.

## 14. 대표 회귀 어종 연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회귀해 오는 연어류의 대부분은 연어(*Oncorhynchus keta*, Chum salmon)이며, 분류학적으로 청어목(Clupeida) 연어과(Salmonidae) 연어속(*Oncorhynchus ssp.*)의 냉수성 고급어종으로 수산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어종 중의 하나이다. 국내로 회귀하는 연어는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서 포획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양양 남대천, 강릉 연곡천, 고성 북천, 명파천 등에서 포획되고 있지만, 특히 양양 남대천은 물이 맑고, 양정이 길어 수량이 풍부하며, 수온이 낮아 연어가 회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 포획량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남대천으로 회유하는 연어는 전국 연어 회귀율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귀율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채란 부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포획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07년도 포획량은 1906년도 포획량보다 45% 이상이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는 연어가 살고 있는 지역 중 가장 남쪽에 위치



하고 있어 생태학적 또는 생리학적 연구를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종 중의 하나이다. 연어의 회유는 북해도 수역을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2~5년간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귀 본능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회귀어종이다. 뿐만 아니라, 연어는 일생에 한번만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잘 관리된 연어자원은 교육적, 심미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양군의 홍보 및 관광 콘텐츠사업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수온상승 및 인간의 활동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연어와 산천어의 서식지 및 산란장의 파괴로 인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연어의 경우, 연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치어를 부화시켜 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1984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냉수성어류연구센터가 건립되면서 1985년부터 남대천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며, 연어 및 산천어를 포함한 냉수성 고급어종에 대한 자원증강과 자원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방류하고 있는 연어의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연어에 대한 체계적인 생리, 생태학적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류를 위한 어린 치어의 수를 늘리는 연구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연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한정된 연구 인력으로 인한 과학적 연구의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연어의 경우 현재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수온상승은 우리나라 연어서식지인 양양연근해 역시 일어나고 있어 연어의 회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어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연어의 이름

연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연어과 어류의 일반명(Salmon)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연어 가족 중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으로 돌아오는 *Oncorhynchus Keta*의 표준명이다. 일생을 통해 강과 바다에서 생활하며 몇 번이 형태 변화를 거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이름은 다양하지 않다. 반면 구미 각국에선 성장 단계마다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다.

갓 태어난 후 난황(卵黃)을 갖고 있는 시기는 ‘alevin(앨리번)’ 또는 ‘fry(프라이)’, 그 후 난황을 흡수하고 체측에 막대모양의 무늬(parr)가 나타나면 ‘parr(파)’라고 부른다. 그 후 무늬가 없어지고 몸이 은색을 띠면서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를 “smolt(스몰트)”라 부르게 된다. 바다에 내려간 후에도 나이에 따라 smelt, sprod, mort, for-tail, half-fish, salmon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속명인 Oncorhynchus는 그리스어인 Onkos(갈고리모양)와 rhynchos(코)의 합성어로 ‘갈고리모양의 코를 가진 물고기’란 뜻이다. 이것은 산란기에 이른 수컷의 코가 휘어져 튀어나오는 형태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미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에서는 연어를 chum salmon(참연어) 또는 dog salmon(개연어)로 부르는데 chum이란 ‘단짠’, ‘사이좋은 친구’를 뜻하는 말로, 오래 전부터 인간과 연어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dog salmon이란 연어가 연어과 어류 중 맛이 없는 편으로 개밖에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예부터 연어가 중요한 식량이었던 아이누족들은 연어를 ‘진짜식량(시삐)’, ‘진짜고기(시재뿌)’, ‘신(?)의 고기(카무이째뿌)’, ‘연어신(시삐카무이)’ 등의 의미로 매우 소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에선 사케(サケ)로 부르며 어조에 따라 시로사케(ツロサケ), 아끼사케(アキサケ)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일본명인 사케(サケ)는 열(裂)이란 한자어의 뜻을 가지며(サケる : 찢어지다, 갈라지다의 뜻), 이것은 요리할 때 근육이 곁에 따라 갈라지기 쉬운 특징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명은 대마합어(大麻合魚) 등이다.

## 2) 연어의 특징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연어는 방추형으로 채색이 등은 청록색, 배는 은백색으로 전형적인 표층 회유성 어종의 형태와 빛깔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기록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어는 산란을 위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돌아오는 성어(成魚)로 몸빛이 검게 변하면서 체측에 붉은색, 초록색, 검은색의 구름무늬가 나타나 있고[혼인색(婚姻色)], 수컷의 주둥이는 돌출하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연어는 1회 산란 후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의 크기는 대개 40~90cm(우리나라 연어)이다. 그러나 연어과 어류 중에는 왕연어(King salmon)와 같이 체중이 25kg급이 흔한 종류도 있다.

산란기에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은백색이 없어지고 몸 전체가 거무스름해지며 검정·노랑·분홍·보라가 섞인 불규칙한 줄무늬가 몸옆에 나타난다. 성숙함에 따라서 머리가 길어지고 특히 수컷의 주둥이 끝은 아래쪽으로, 아래턱은 위쪽으로 굽고 양턱의 이가 강대해진다. 성숙한 알은 지름이 7~8mm, 빛깔은 붉은빛이 도는 오렌지색이고, 한 배에 약 3,000개의 알을 품고 강의 중류역에 산란한다.

### 3)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전문연구소로서 연어의 고향인 남대천에 위치하며, 1984년 양양어류종묘배양장으로 시작하여 2009년 5월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개칭되었으며, 연어자원 증강을 위한 연어치어 생산 방류를 비롯하여 무지개송어, 산천어, 시마연어 및 열목어를 대상으로 종묘생산과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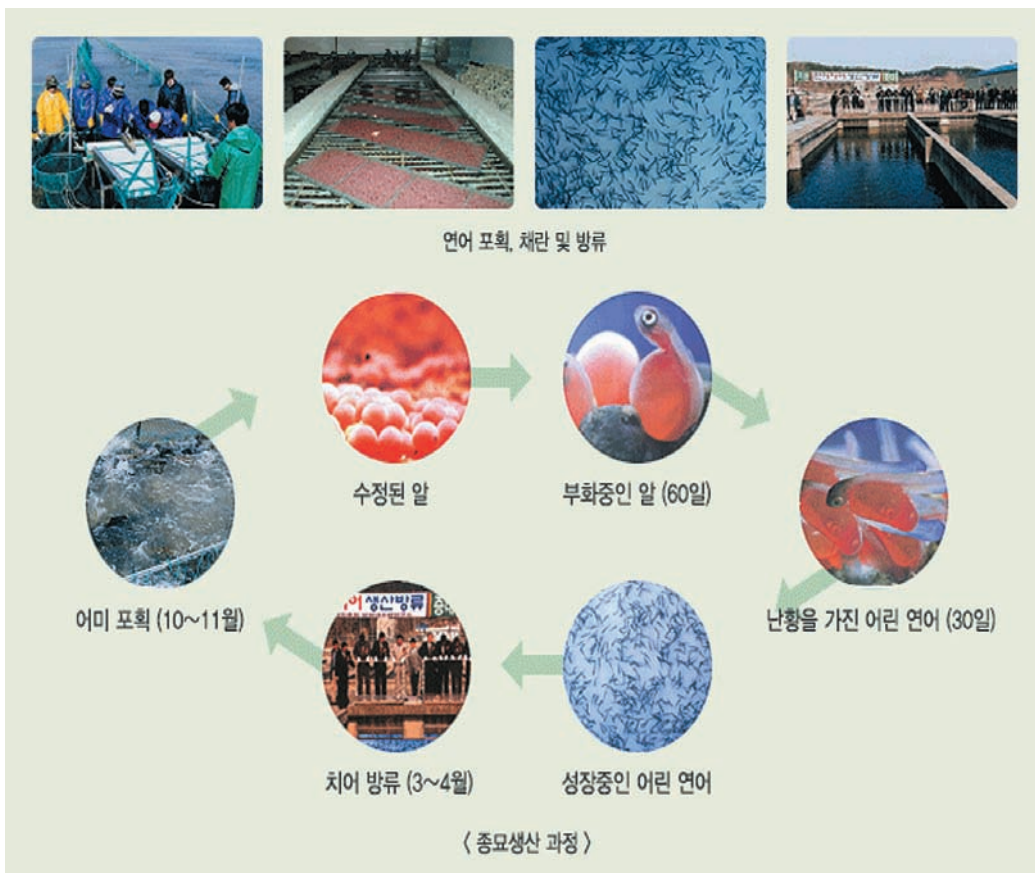
특히 북태평양에서 살다가 산란 시기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는 “모천회귀성”인 연어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미연어 포획과 채란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연어가 방류되는 3~4월에는 방류체험을 통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시 연어 전시관 및 사육시설을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남대천 방류 사업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회귀하는 곳으로 남대천을 “연어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이 회귀된 것은 아니고 198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연어 인공종묘생산 및 방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회귀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류량 역시 많아지게 된 것이다. 남대천은 물이 맑고, 양정(약 60km)이 길어 수량이 풍부하며, 수온이 낮아 연어가 회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여건을 지니고 있어 방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연어의 회귀는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 방류하는 방법에는 비닐봉지식, 수문개방식, 차량수송에 따른 호스 방류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남대천에는 방류량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던 사육수조의 배출부 수문을 열면 어린연어들이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수문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류의 홍보를 위해 비닐봉지에 수백 마리씩을 담아 산소를 공급한 후 고무줄로 묶어 차량으로 수송하여 남대천 둔치에서 학생, 지역주민 등이 직접 한 봉지씩 방류를 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 한 다른 지역 방류시에는 어린연어를 활어수송 차량에 담아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송하여 현지에서 비닐호스로 연결하여 차량 내에 있는 어린연어를 호스로 뽑아내어 방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남대천의 연어 포획, 채란 및 방류, 종묘 생산 과정은 다음 그림에 표시하였다.



양양 남대천의 연어 포획, 채란 및 방류, 종묘 생산 과정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 연어의 방류량 및 어획실적은 <표4-13>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의 연도별 연어 포획량은 <표4-14>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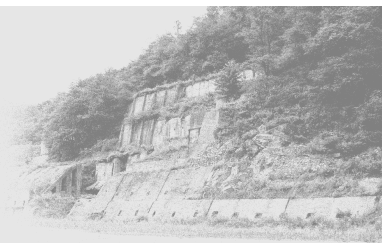
<표4-13> 연간 연어의 방류량 및 어획실적 (단위 : 1,000마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방류량	19,000	5,320	10,450	14,735	12,930	11,250	7,350
어획량	17,000	44,000	60,000	36,000	29,000	23,000	45,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표4-14> 전국의 연도별 연어 포획량

연 도	포 획 량 (마리)		
	전 국	양 양	삼 척
2003	14,750	9,162	3,006
2004	12,925	8,299	3,350
2005	13,275	9,902	2,660



## V. 광업

### 1. 광종별 광구 현황

1982년만 하더라도 <표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76개의 광구가 등록되어 있었다. 광종별로는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70개 광구가 금속광구였으며 나머지는 비금속광구 4개와 석탄광구 2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면서 광구 수는 198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개로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되어 2007년 현재 등록된 광구 수는 겨우 10개에 불과하다. 이들 10개 광구를 광종별로 보면 금속광과 비금속광이 각각 5개로서 1982년 이후 금속광이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6-1> 광종별 광구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합 계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1982	76	9	67	70	7	63	4	2	2	2	0	2
1985	32	11	21	28	10	18	3	1	2	1	0	1
1990	36	14	22	25	13	12	10	1	9	1	0	1
1991	37	14	23	23	13	10	13	1	12	1	0	1
1992	37	15	22	23	13	10	13	2	11	1	0	1
1993	30	15	15	18	13	5	12	2	10	0	0	0
1994	29	3	27	18	0	18	11	2	9	0	0	0
1995	28	2	26	18	0	18	10	2	8	0	0	0
1996	25	3	22	18	0	18	7	3	4	0	0	0
1997	23	2	21	17	0	17	6	2	4	0	0	0
1998	20	3	17	15	0	15	5	3	2	0	0	0
1999	16	3	13	10	0	10	6	3	3	0	0	0
2000	16	3	13	10	0	10	6	3	3	0	0	0



연 도	합 계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계	가행	미가행
2001	15	3	12	10	0	10	5	3	2	0	0	0
2002	12	2	10	9	0	0	3	2	1	0	0	0
2003	17	3	14	13	0	13	4	3	1	0	0	0
2004	17	2	15	13	0	13	4	2	2	0	0	0
2005	17	3	14	13	0	13	4	3	1	0	0	0
2006	19	3	16	14	0	14	5	3	2	0	0	0
2007	10	3	7	5	0	5	5	3	2	0	0	0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등

2007년 현재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가행(稼行) 광구(鑛口)는 3개뿐이며 모두 비금속 광구이다. 1990년대 초까지 13개의 금속광구가 가행되고 있었으나 값싼 외국산 금속광물의 수입과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채산성의 악화로 1994년 이후 모두 가행이 중단되었다. 이밖에 석탄광은 1960년대 중반 이후 통계자료상의 생산실적이 전무하여 1960년대에 이미 가행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 2. 광산물 생산실적

현재 생산되는 광물은 규사 뿐으로서 2007년의 생산실적은 43,547톤이다. 규사 이외의 광물로서 과거에는 철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었으나 199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밖에 중석, 장석, 규석 등의 광물이 일시적으로 소량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이것 역시 생산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표6-2〉 광산물 생산실적

(단위 : 톤)

연 도	철	규 석	규 사	중 석	장 석
1965	285,700	-	-	-	-
1970	320,943	-	-	-	-
1975	291,300	-	-	-	-
1980	347,910	-	12,000	176	-
1985	343,795	-	14,459	-	-

연 도	철	규 석	규 사	중 석	장 석
1990	188,267	-	34,213	-	-
1991	122,338	-	37,263	-	5,565
1992	155,477	-	55,933	-	600
1993	96,572	-	54,351	-	-
1994	32,324	-	54,203	-	-
1995	-	-	65,507	-	-
1996	-	-	74,253	-	-
1997	-	-	74,952	-	-
1998	-	-	63,156	-	-
1999	-	-	56,142	-	-
2000	-	-	62,217	-	-
2001	-	-	61,504	-	-
2002	-	-	67,866	-	-
2003	-	2,700	54,778	-	-
2004	-	-	58,246	-	-
2005	-	-	49,773	-	-
2006	-	-	53,086	-	-
2007	-	-	43,547	-	-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 3. 광업사업체

광업사업체 수는 1962년의 단일 업체에서 1990년에는 5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이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을 보이면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반면에 광업 종사자수는 1962년의 월평균 1,239명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여 1990년에는 월평균 36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998년에는 월평균 55명의 최저점을 보였다. 그 후 월평균 종사자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 104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07년에는 그 수가 월평균 84명을 기록하였다.

〈표6-3〉 광업사업체의 추이

(단위 : 개,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고정자산연말액
1962	1	1,239	-	-	-	-
1970	2	971	-	-	-	-
1980	3	840	-	-	-	-
1990	5	366	8,380	8,292	7,010	2,796
1991	7	333	5,680	6,867	4,661	2,240
1992	5	295	6,039	7,117	5,285	2,215
1993	8	287	8,184	8,265	6,950	3,890
1994	7	139	8,395	8,356	7,259	4,286
1995	8	109	8,225	7,917	6,962	3,643
1996	8	111	7,334	7,605	6,063	3,613
1997	8	97	11,370	11,227	9,551	2,369
1998	6	55	5,942	6,010	5,107	1,330
1999	7	62	8,248	8,077	7,000	1,799
2000	7	64	7,302	7,405	5,987	2,159
2001	8	83	10,159	9,893	8,338	1,525
2002	9	103	12,581	12,331	10,624	4,360
2003	7	104	17,609	17,611	14,110	6,171
2004	8	104	16,813	16,503	11,786	5,009
2005	8	95	16,249	15,979	12,779	4,125
2006	6	68	14,626	14,443	12,449	4,391
2007	8	84	19,122	19,524	14,985	7,327

주 : 금액은 경당가격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1990년 이후 2007년에 이르기까지 양양군의 광업 생산액은 8,380백만원에서 19,122백만원으로 2.3배, 출하액은 8,292백만원에서 19,524백만원으로 2.4배, 부가가치는 7,010백만원에서 14,985백만원으로 2.1배, 그리고 고정자산액은 2,796백만원에서 7,327백만원으로 2.6배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모두 경당가격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업 생산액과 출하액,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표6-2〉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철광생산이 급감하여 1995년에는 중단이 된 반면에 규사의 생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과 규사가격 상승에 의해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정자산연말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기간 동안에 시설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양양 철광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철광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다. 철광 생산은 매우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특산물편에 “쇠돌이 부(府)의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철굴산에서 난다.[석철산부서십리철굴산(石鐵産府西十里鐵掘山)]”라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토산편에도 “철이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난다.[철출서선사동봉하(鐵出西禪寺東峯下)]”라고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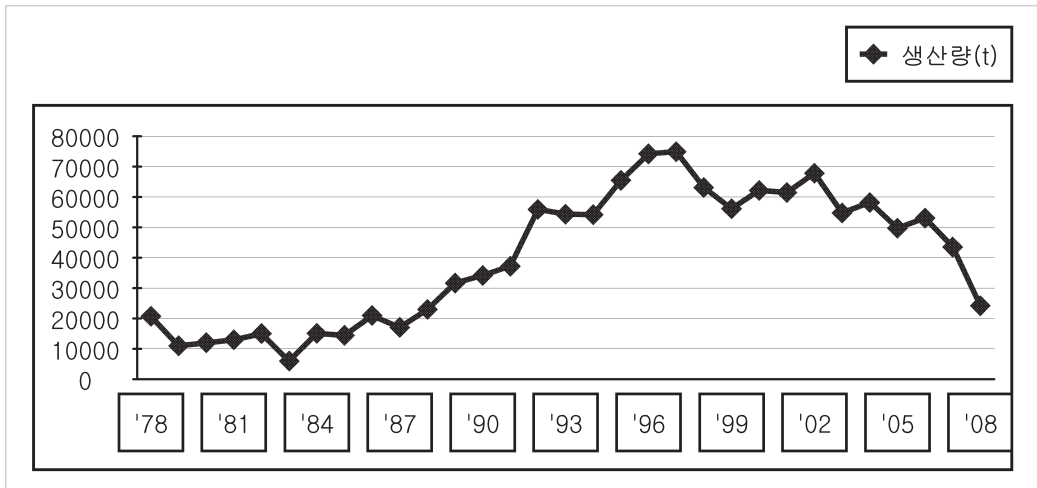
철광은 서면 장승리와 서면 갈천리에 각각 위치한 양양광산과 구룡광산 두 곳에서 생산되었으며 전자는 생산량이나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의 철광산이었다.

지질은 광구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편마암류와 변성퇴적암류를 주로 하여 이를 후기에 관입한 섬강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체(鑛體)는 변성퇴적암류 내에 좁게 발달하고 있으며 지표면에 가까운 상부 광체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광상(鑛床)은 접촉광상으로서 길이는 약 7km이고, 광구면적은 5,534km<sup>2</sup>, 추정매장량은 462.4만 톤이다.

양양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일제는 1933년부터 시험 채광을 하여 오던 중에 이곳에 자철 함유량이 50~80%인 양질의 철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었음을 발견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본격적인 채광에 착수하여, 매일 평균 210톤 규모의 철광을 속초항을 통해 일본 아하타(八幡) 제철소로 반출하였다.(강원문물 편찬실, 『강원문물(江原文物)』, 大京출판사, 1973, 142쪽)

그러나 8·15광복과 더불어 폐광되었으며, 남북분단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한국동란 이후 행정수복이 되자 국유화되어 1956년부터 다시 가동되었다. 그 후 1955년 말에 설립된 양양철광공사가 경영하다가 1964년에 대한철광회사에 합병되었으나, 1967년

에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고 1987년에는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의 양양사업소로 이관되었다.



자료: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양양군의 철 생산실적의 추이

1961년에 자력 선광장이 준공되고 1962년에는 대형의 발전기 및 컴프레서가 도입되는 등, 기계설비가 크게 확충되자 생산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철광 생산량은 광복 후 처음으로 생산이 시작된 1956년에는 8,914톤, 그 다음해인 1957년에는 74,842톤에 불과하였으나 1963년에는 319,06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강원도기획관리실편, 『강원총람(江原總攬)』, 1975, 572쪽) 양양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은 1973년에 포항제철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모두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1965년에 양양군의 철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를 점하는 등, 1960년대에는 주요 외화획득 원이었다.(권혁재, 『한국지리 지방편(韓國地理 地方編)』, 법문사, 1995, 136쪽)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광생산은 1963년 이후에도 1차 국제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30만톤대 전후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특히 1982년에는 362,000톤을 생산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러나 값싼 외국산 광물의 수입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생산량이 1987년부터 현저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어 1990년에는 188,267톤, 1993년에는 96,572톤, 1994년에 32,324톤으로 급감하고, 결국 1995년에는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데 2008년 7월 강원도는 금산개발(주)이 과거에 갱도가 지나지 않아 철광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양양사업소 작업권 내 210ha에 대해 신청한 채광계획을 광해방지 의무의 충족과 산림조성 지원비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금산개발(주)은 이 지역에 최소 500만톤 이상의 철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에 조사를 의뢰 중에 있다. 또 2007년 6월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철광석의 품위가 49.08%로 질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양광산 선광장 엠티

금산개발(주)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한전산업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가 철광석의 채굴과 더불어 발생하는 폐석은 도로포장 골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산개발 정병화 이사와의 담화에 의함)

## 5. 구룡광산

서면 갈천리에 위치한 구룡광산은 광구의 범위가 약 90ha이고 철 함유량이 약 52%인 양질의 자철광산으로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에 일제에 의해 채굴이 시작되었으나, 광복 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3년 이후에 채굴이 재개되어 월간 300톤 규모의 철광을 생산하고 있었다.(양양군, 『양주지(襄州誌)』, 1990, 460쪽) 그러나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도로가 좁아 수송이 불편한데다가 석유파동 등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 6. 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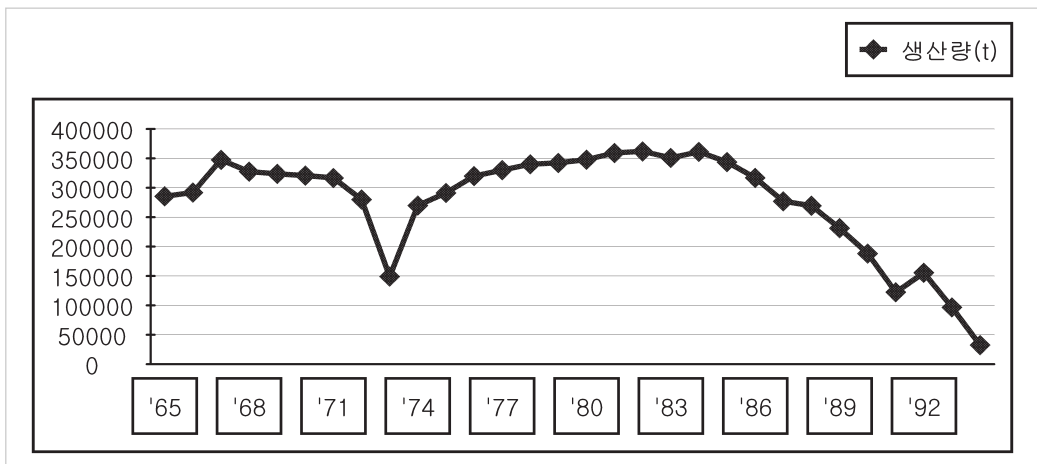
현재 양양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은 규사이다. 규사는 현남면 지리의 7번국도변 좌우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 지역의 규사는 화강암류, 화강편마암류 등 석영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산지의 암석이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 분해되면서 모암에서 떨어져 나



현남면 지리의 규사생산

온 석영 알갱이가 하천수에 의해 동해안으로 운반,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현남면 지리의 규사가 언제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지역의 규사 광업권 등록서류에 기재된 최초의 광업권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생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며, 광복 후에는 우리 정부 및 민간인들로 수차 광업권자가 바뀌면서 소규모의 생산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7년 12월에 대호광업(주)이 설립되어 기존업체의 규사광업권(제46730호, 제59765호)을 인수함과 동시에 선별기, 건조기, 샌드펌프 등의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증설하고, 1995년 1월에는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대호광업(주)에서 분사한 동호광업(주)이 새로이 광업권(제27755호)을 설정하고 생산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규사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양양군의 규사 생산의 추이

즉, 규사생산추이를 보면 1978년에 20,700톤이었던 연간 규사 생산량은 이후 15,000톤대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대호광업(주)의 설립 직후인 1988년에는 20,000톤대를 회복하고 1989년부터는 30,000톤대, 1992년부터는 50,000톤대에 진입하였고, 동호광업(주) 설립 직후인 1997년에는 74,952톤을 기록하여 피크를 이루었다. 그 이후 규사생산은 수익성의 변화 등에 의해 감소세로 반전하여 2007년에는 43,547톤까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08년에는 세계경제의 악화 및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생산량이 전년의 55.5%에 불과한 24,168톤으로 급락하였다.

2009년 현재 양양군의 규사 생산업체로는 대호광업(주)과 동호광업(주)의 2개만이 존재하며 각각「금호광산」과 「동호규사」로 등록된 규사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물업계의 조형용 주물사, 유동층 소각로의 유동사, 수돗물 정수장의 여과용 여과사 및 여과사리, 그리고 골프장의 벙커사 등 고부가가치 규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이 좋아 포항제철, 현대건설, 삼성물산과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기도 하였다.(대호광업 김기정 부장과의 담화에 의함)

집필 : 김건석

## 참고문헌

- 강원도기획관리실편, 『江原總覽』, 1975  
 강원문물편찬실, 『江原文物』, 大京출판사, 1973.  
 고전간행회, 『(新增)東國與地勝覽』 제44권, 東國文化社, 196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153권, 탐구당, 1970.  
 권혁재, 『韓國地理 地方編』, 법문사, 1995  
 양양군, 『襄州誌』, 1990



## VI. 경제

### 1. 조세제도

#### 1) 고려의 조세제도

세제(稅制)는 당의 조(租)·용(庸)·조(調)제도를 본따 공물(貢物) 요역(徭役 : 부역賦役)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이 밖에도 잡세도 있었다.

##### (1) 조세(租稅)

토지 경작자(개호 : 個戶)로부터 거둬들이는 현물지대(現物地代)로서 태조 때에는 십일제(什一制)를 써서 수확고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성종 때에는 4분의 1로 올려 받고, 그 후 점차 세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전(私田)의 경우 수확고의 2분의 1을 받은 때도 있었다.

##### (2) 공물(貢物)

각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매년 세공(歲貢)으로 바치는 것으로 공(貢)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 두 가지가 있었다. 상공은 쌀·황금·은·포(布)·천 등을 현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는 간혹 포(布)로서 절가대납(折價代納)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별공은 특수생산 장소인 각 소(所)에서 특산물 등 철·자기·종이·먹 등을 꼭 바쳐야 하는 것이다.

##### (3) 요역(徭役)

부역(賦役)이라고도 하며 16~60세의 남자(정년자 : 丁年者)가 매년 국가에 노동을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점심도 자기가 부담하는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것이었다.

## 2)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세부고 : 稅賦考)

인조 원년 계해(1623년) 영동지방에서도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동법이란 각종 세의 현품물납(現品物納)하는 것으로 포일건(布一件)으로 환산 납부하는 제도이다. 순조 17년 정축(1817년)에 부사 홍백순(洪百淳)이 삼막(蔘瘼)을 깊이 살펴서 영문(營門)에 보고했다. 감사 남하익(南廈翼)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어전(御前)에 진공(進貢)할 것을 진언하였더니 특별히 허가되어 경공(京貢)하라는 명(命)을 받고 관민(官民)이 다같이 축하연을 베푼 일도 있다.

〈표5-1〉 지목결수액명세표(地目結數額明細表)

(1912년 11월 1일)

군명	결 수					세액(稅額)
	수전(水田)	화전(火田)	택지(宅地)	잡지(雜地)	계	원전(圓錢)
	결부속(結負束)	결부속	결부속		결부속	
춘천	606,979	1,475,870	60,933	-	2,143,782	13,416,232
홍천	539,452	898,932	48,537	-	1,486,921	8,856,980
횡성	530,302	481,510	60,840	-	1,027,652	6,704,832
원주	833,886	1,049,045	52,446	-	1,936,377	12,621,153
평창	174,258	471,575	37,947	153	682,933	2,839,889
영월	245,812	900,336	64,108	-	1,210,256	5,825,817
정선	77,450	397,538	19,147	-	60,153	2,812,603
평해	468,524	261,718	22,804	-	753,100	4,959,839
정진	449,843	341,985	51,736	27	843,591	5,538,340
삼척	321,637	699,272	57,458	283	1,078,651	6,852,650
강릉	1,205,948	455,727	55,009	-	1,716,684	11,324,760
양양	726,206	326,408	42,510	-	1,085,124	6,823,018
간성	615,863	329,412	43,950	-	889,225	5,812,290
고성	260,020	236,296	24,452	-	530,768	3,465,427
통천	613,187	778,970	23,501	40,946	1,456,604	7,385,520
회양	66,248	276,106	11,031	1,022	354,407	2,250,906
금성	76,126	410,546	26,240	294	513,206	3,374,515
평강	84,479	485,708	42,436	-	612,623	3,955,781
이천	128,154	990,531	60,927	8,550	1,188,162	6,366,346
안협	43,026	274,864	18,521	274	336,685	2,220,828
철원	403,590	692,453	60,727	1,734	1,158,504	7,575,640
금화	140,821	323,091	19,822	-	483,734	3,072,661

군명	결 수					세액(稅額)
	수전(水田)	화전(火田)	택지(宅地)	잡지(雜地)	계	
	결부속(結負束)	결부속	결부속		결부속	원전(圓錢)
화천	139,457	148,726	23,918	2,893	414,994	2,690,321
양구	319,660	536,848	36,037	-	893,344	5,593,253
인제	242,071	270,913	74,822	-	587,804	3,393,350
계	9,313,053	13,614,380	1,051,659	56,176	24,035,268	145,737,950

자료 : 춘천현병수본부편찬, 강원도상황경계, 1912, 333~335쪽.

주 : 답(畓) : 9천3백13결5부3속 전(田) : 1만4천6백14결38부 택지(宅地) : 1천51결65부 9속  
잡지(잡지) : 65결17부6속 계(計) : 2만4천35결26부8속 세액(稅額) : 14화5천7백27원95전

고려 세제는 중국, 당(唐)나라 때의 조용조(租庸調)와 흡사하고 조선시대 세제는 전부(田賦), 군포(軍布), 공물(貢物)로 하였고 전조(田租)는 세종 21년 기미(1439년) 전분제(田分制)로 3등분하고 연분으로 9등분하여 결(結) 부(負) 속(束)으로 전부(田賦)를 정하였다. 군포(軍布)는 조선조 태조의 사대정책(事大政策)과 부수하여 고려의 징병제도를 폐하고 지원제를 채용함과 동시 백성들은 군포세(軍布稅)를 납부하여 군자(軍資)로 이용했고 공물(貢物)은 지방토산물로 공납(貢納)토록 하였다.

삼공(蔘貢 : 인삼을 납부하는 것)은 그 공물이 특수품으로 철령(鐵嶺)이남 태백산 이북을 산삼의 명승지라 하여 다액의 삼공을 하라는 명이 내려 주민들은 이 지방산으로 부족하여 부득 타지방에서 매입하여 상납하였다. 그리하여 인삼이 품귀현상을 빚자 가격이 치솟고 또 구하기는 어려워하는 수 없이 주민 각호에 보삼전(補蔘錢)을 부과하여 수납하는 한편 공세외(貢稅外)에 삼전세(蔘錢稅)를 납입하는 악폐(惡弊)도 있었다. 헌종 2년 병신(1836년) 나라에 바치는 삼공(蔘貢)과 춘추납(臘) 등(等) 합계 41양 7전 5푼중을 작전(作錢) 상납(上納)하게 되어 작공전(作貢錢)이 110양이라 주민 부담이 과중하였다.

〈표5-2〉 지방비

(단위 : 원)

경 상 부				임 시 부			
세입과목	금액	세출과목	금액	세입과목	금액	세출과목	금액
지세부가세	7,286	토목비	1,936	전년도조월금	5,000	권업비	1,580
시장세	7,050	위생급병원비	2,700	국고보조금	66,311	보조비	44,719
도헌세	14,634	구휼비	300	잡수입	50	잡수출	30
잡수입	4,618	권업비	25,684				
		교육학예비	4,256				

고종 3년 병인(1866년) 호포세(戶布稅)문제로 소요가 일어나 상두유생(狀頭儒生 : 선봉자) 4인은 횡성·삼척 감옥으로 이관하고 그 후유증이 심하다가 정묘 정월(1867년)에 부사 조진호(趙縉鎬)가 전근되고 신관 조병화(趙秉和)가 부임하여 호포세 문제를 주민들과 상의, 완전 해결했다.

호포세란 군포세를 개정한 것으로 대원군 집정시에 공포 시행한 것이다. 군포세는 군출정이 없는 가호만 납부하고 귀족, 공리(公吏), 유림(儒林) 등은 면제했고 그것을 다시 호포세로 개정하여 귀족, 유림(儒林), 평민(平民) 등 구분없이 납입하게 하였더니 소요까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고종 20년 계미(1883년)에 대동삼세포(大同三稅布)의 정도를 만들어 작전(作錢) 상납하게 하였다.

고종 25년 무자(1888년) 세공 상납액 만여량을 삼척부매탄소(三陟府煤炭所)에 이송하라는 관문(關文)이 도래하였다가 미기(未幾)에 혁파(革罷) 중지하였다. 학부제록(學府除錄)에 의하면 삼척부(三陟府)에 탄탄광(呑炭鑛)을 세과(細果)붙여 고노(古老)에게 상전(相傳)하고 목초상문(牧樵相聞)으로 세간(世間)에 발포(發布)되었으나 채굴법을 몰라 방치하였다. 그 후 양추축지미인(洋醜詛指米人 : 서양, 미국인)이 이를 잘 알아 정부에 무소(誣訴)하여 특허를 냈고 열읍(列邑)에서 상납되는 호포세를 이송받아 채굴비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조야(朝野)의 반대가 극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 상업

상업은 농산, 축산, 수산, 임산물 등 토산품과 가공상품 매매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지방 생산물인 곡물, 가축, 어류, 산채, 버섯, 약초류 등 원시상품과 가공상품인 의류, 잡화, 식료품, 농기구 등 일상용품의 매매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방의 상업관계업체로서는 대규모 업체는 없고 중급업체로 종합상점(슈퍼마켓) 4~5개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6년 9월 1일에는 양양읍 남문4리에 현대식 시장 건물을 준공하고 전 군민과 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그 규모를 보면 3층 콘크리트 양열건물로 총 길이는 100m이고



내부 점포수는 100개 점포이다. 2층과 3층은 상품의 적치장과 점주(店主) 가족들이 거처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장건물 건축재원은 점주들이 부담한 전액과 국가보조금 등 총 12억원이 소요되었다.

### 1) 한말의 시장제도와 현재

시장이란 원래 물물교환 또는 일용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매매가 성립되는 장소이다. 매일 시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일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곧 그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들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지방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양양시장은 영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규모가 컸다. 또한 양양시장을 중심으로 군관내 북방에 3개소, 남방에 2개소, 서방에 1개소가 있었다. 그중 서림(西林)시장과 기사문(其士門)시장은 1945년에 폐지되었고 나머지 5개 시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정된 일자에 개설되는 시장은 다음과 같다.

- 양양시장(양양읍 남문4리) : 매월 4, 9, 14, 19, 24, 29일(현재는 상설시장을 겸함)
- 물치시장(경현면 물치리) : 매월 3, 8, 13, 18, 23, 28일
- 인구시장(현남면 인구리) : 매월 5, 10, 15, 20, 25, 30일
- 속초시장(속초시 중앙동) : 매월 2, 7, 12, 17, 22, 27일(현재는 상설시장)
- 교암시장(죽왕면 교암리) : 매월 1, 6, 11, 16, 21, 26일(현재 고성군)
- 서림시장 : 1945년 폐지
- 기사문시장 : 1945년 폐지

### 2) 양양시장의 변천

구한말부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양양에도 시장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양양시장은 점포수가 100여 개 안팎으로, 한때에는 127개의 점포수가 성업

하였으며 영동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규모가 컸다. 그러나 1945~1980년까지 명맥(命脈)을 이어온 시장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현재는 양양시장과 우시장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양양시장은 1919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각 면과 마을에서 장꾼으로 가장하여 물결치듯 모여들어 만세운동을 벌인 곳으로 그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 후 만세운동의 기점지로 기념하기 위하여 양양장날을 4일과 9일로 정하고 현산문화제도 4월 4일에 개최한 때도 있어 양양문화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정기적인 시장으로 우시장이 있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영동지역에서는 거래규모가 크다. 양양장날이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등에 맞추어 개장되며 강릉, 태백, 인제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도 이곳을 통해 매매됨으로써 영동지방의 가축(소)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하겠다. 하절기 개장시간은 오전 5시이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영동권에서 집결한 한우의 매매가 이루어진다.

1960~1970년대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던 양양시장, 인구시장, 물치시장은 난장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79년에 처음으로 슈퍼마켓이 등장하면서 크고 작은 점포들이 생겨났다. 1979년 2개에 불과하던 슈퍼마켓은 1986년에 75개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양양군의 유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또한 강릉시, 속초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대형할인마트가 생겨남에 따라 이들 중소형 도매업을 비롯한 재래시장에서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 3) 활성화 방안

양양전통시장은 영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개장되는 시장으로 지역특산물의 매매 등 상업적 공간이면서 인근시군 및 전국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커지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의 기호와 재래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골풍경을 재현하고 상설무대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상인, 관광객,

주민 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방문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극심한 재래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남문4리 일원에 33억원을 투자하여 2,229m<sup>2</sup> 규모로 자동차 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통대장간을 유치하고 농기구, 생활용품 등을 전통적 방법으로 제조·전시·판매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소도읍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전통이 함께하는 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3. 금융업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 자금 거래를 하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며 직접 거래에는 커다란 위험이 수반된다. 즉,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자금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 후에도 신뢰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여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의 발달은 기업의 자금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소비, 저축,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해 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금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생산 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금융 부문은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발달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양양군의 금융기관은 2005년까지 시중은행으로서 조흥은행이 운영되었고, 2006년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합병하면서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수은행으로서는 농협중앙회가 2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의 예금, 대출 및 어음 현황은 다음 <표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금융업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는 예금과 대출규모이다. 양양군의 경우 2006년에 1,126억원으로 예금이 급증하였으며, 대출 규모도 1,300억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예금과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기업들에 의한 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표5-3>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단위 : 억원)

연별	예금 총계	저 축 성 예 금							요구불 예금	대출
		계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저축 예금	상호 부금	기업 자유예금	기타		
2002	50.6	55.4	27.7	5.4	19.7	1.3	-	1.3	28.2	139.9
2003	84.9	52.7	27.7	4.3	19.5	1.6	-	2.5	30.4	134.5
2004	82.9	75.6	24.8	4.7	18.8	1.1	-	4.3	23.1	120.6
2005	80.8	58.7	46.7	4.7	18.1	0.8	-	3.0	22.1	123.3
2006	1,126.0	890.0	297.0	37.0	181.0	4.0	335.0	35.0	236.0	1,300.0
2007	976.0	674.0	305.0	29.0	165.0	2.0	140.0	31.0	302.0	1,255.0
2008	1,152.0	879.0	464.0	30.0	162.0	2.0	189.0	19.0	273.0	1,239.0

주 : 1) 예금 취급점포 기준 2) 외화예금 및 동업자예금 제외 3) 자유저축예금 포함('97.6월부터)

## 1) 금융기관 현황

### (1) 신한은행 양양지점

신한은행은 1897년 2월 한성은행(구 조흥은행)으로 창립하였다가, 1982년 7월 신한은행으로 창립하였다. 1999년 4월에는 충북은행과 합병한 후 동년 9월에는 강원은행과 합병하여 조흥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01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4월 3일 신한은행 양양지점으로 점명을 변경하였다. 2008년 1월 금융감독원 선정,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기관 마크를 취득하고 동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수상하였다. 또한 은행권 최초, 신한 PB 원격거래서비스를 시행, 동년 2월 국내최초 [글로벌 FNA외화예금] 출시, 프리미엄브랜드지수, PB부문 1위 브랜드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은행부문 1위로 5년 연속 선정되었다. 신한은행 양양지점은 2009년 7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업무, 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농업협동조합은 자조·자립·협동을 그 이념으로 하는 농민조직단체로서,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같은 설립목적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생산 및 소득사업과 지역농업의 개발사업, 농산물유통 현대화를 위한 개선사업, 농업기계화 실현을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 농업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농업생산을 위해 비료와 농약 농기계 일반농자재 등의 농업생산자재를 공급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과 같이 금융업무 전반을 취급하며, 농촌발전 투자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방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의 설립과 변천과정은 1961년 8월 15일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여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발족하였다. 설립 당시 본소와 속초지소를 두었으며, 관내에 114개의 이동조합을 조직하였다. 1980년 12월 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양양군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사 사무소화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속초지소는 1984년 8월 14일 속초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월 1일에는 속초시지부로 승격되어 업무관할이 양양군지부에서 분리되었다. 관내 4개 지역농협을 관할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 농·축협의 합병으로 관내 1개 지역축산농협을 두었다. 또한 1993년 4월 1일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고

2005년 9월 15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와 같은 선진금융 점포로 사무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조직은 1974년 5월 1일 설악동 간이예금취급소를 1974년 9월 20일 청학동 간이예금취급소를 각각 개점하였으나 사업실적 저조로 청학동 간이예금취급소는 1976년 6월 23일 폐쇄되었다. 설악동 간이예금취급소는 1980년 2월 29일에 설악농협으로 이관되었으며 양양군청출장소는 1997년 8월 18일 군청 내에 개점하였다. 지역농협으로는 1969년 10월 1일 양양농협을 시작으로 손양, 서광, 하조대, 현북, 강현농협이 각각 설립되었다. 1981년 9월 25일 경영 및 지리적 여건이 취약한 손양농협이 양양농협에 흡수 합병되었고, 1999년 4월 15일에는 하조대농협과 현북농협이 신설·합병되었다.

### (3) 양양농업협동조합

양양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9월 15일 양양리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2년 12월 13일에는 종합시설(사무실, 연쇄점)신축하고 1974년 1월 15일 양주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9년 9월 30일 자립조합으로 승격되면서 1981년 9월 30일 손양단위농업협동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하였다. 1982년 2월 7일 양양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3년 12월 10일 농기구수리센터를 준공하고 1995년 12월 21일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 8월 30일 하나로마트를 증개축하고 2000년 6월 8일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준공을 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는 1,760명에 총자산은 848억원이고, 본점 1개소에 하나로마트 1개소, 농개계수리센터 1개소, 주유소 1개소, 영농자재백화점 1개소, 농산물건조 저장처리시설(DSC)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4) 서광농업협동조합

서광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0월 1일 서면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出帆)하여 1971년 7월 1일 건물 50평을 신축하였다. 1983년 5월 27일에는 서광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명



청변경하고 1989년 12월 31일 신청사 준공하였다. 1990년 2월 27일부터는 조합장 직 선제를 도입하고 1990년 6월 7일에는 오색예금취급소, 1992년 6월 23일에는 서울직 판장, 1994년 11월 28일에는 인진쑈 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1998년 12월 7일에는 농기계서비스센터 준공하고 1999년 8월 7일에는 제2가공공장을 준공하였다. 2000년 9월 15일에는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 2002년 4월 20일에는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조합원은 1,021명으로 대의원수 57명, 준조합원 1,691명에 임원 9명이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총 수신은 353억원이며 총 여신은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 (5) 하조대농업협동조합

하조대농업협동조합은 1965년 3월 31일 현남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여 1989년 4월 1일 현남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고 1998년 2월 20일에 현남농협 신청사를 준공하였다. 효율적인 농협운영 일환책으로 1998년 12월 21일 현북농협과 합병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여 다음해 4월에 합병등기를 하고 현남에는 본점, 현북은 현북지점으로 개원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시설은 경제사업장 1개소, 주유소 1개소, 하나로마트 2개소, 농기계서비스센터 2개소의 시설이 있다. 주요사업실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수신은 374억원이며 총 자산은 532억원이다. 조합원수는 1,300명이며 임원 8명이다.

#### (6) 강현농업협동조합

강현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10월 1일 강현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출범하여 1970년 10월 1일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고 1974년 1월 1일부터 단기농사, 비료, 농약, 판매업무를 시작하였다. 1994년 4월 18일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7년 7월 1일 전진1리에 낙산지소를 개소하였다. 2005년 12월 6일에는 2,000톤 규모의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을 건립하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도정공장 준공 등으로 현재의 종합

농협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주요사업 실적으로 예수금은 420억원이며 대출금은 360억원이다. 자기자본은 4,141백만원이며 출자금은 1,482백만원이다. 조합원 평균출자금은 1,331천원으로 연체비율이 5.18%에 불과하여 불건전여신비율 0.04%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농협 총화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상호금융 여신 클린뱅크를 수상하여 5년 연속 깨끗하고 건전한 농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부조직은 조합원 1,113명 대의원 59명 이사 7명, 감사 2명, 조합장 1명, 전무 1명, 상무 3명 등이다.

#### (7)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축산진흥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조합으로 운영해왔다. 축협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면서 조직을 구성하였다.

1981년 2월 1일 설립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다음해 3월에는 양양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2년 10월 1일에는 강릉축협으로부터 한우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인수하였다. 1988년 3월 24일에 양양군으로부터 가축시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년 4월 22일에 상호금융 업무개시를 하였다. 1995년 5월 4일에는 현 청사를 신축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장 및 생활물자 판매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가축시장은 양양읍 성내리에서 월리 산 32번지로 이전하였다. 시설규모로는 2,500㎡정도의 전천후 계류장 1동(660㎡ : 150두 규모), 축사 1동(330㎡ : 80두 규모) 그 외 관리사 1동, 사무실 1동, 구비장 2동과 주차장(9,051㎡)이 갖추어져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1월 24일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속초, 양양축협과 찬반투표로 합병하였다. 2009년 12월 7일에는 식육처리 판매 HACCP인증(본점 하나로마트, 속초점)을 받았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총 자산은 973억원이며 총 수신 715억원, 총여신 580억원으로 나타났다.

### (8)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민주적 협동운동을 통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수산업 생산력증진, 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어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여신·수신·상호금융 등 신용사업과 공제사업·공동판매·가격안정·이용가공 등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어촌지도 교육홍보 조사연구 경영지도 등 지도사업과 어촌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다.

본 조합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 2월 1일 현남면 어업조합으로 발족하여 1934년 8월에 현북면어업조합과 합병하면서 현남면인구어업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4월 1일 속초어업조합에 합병되었으나 1946년 11월에 남북분단으로 인해 현남인구어업조합으로 독립되었다. 1961년 7월 명주군 주문진어업조합으로 합병되었다가 1965년 12월 양양군 어업조합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상호금융업무개점은 1975년 7월부터이며 동년 12월 31일에는 현재의 명칭인 양양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고 13개 어촌에 조합원수는 499명이다. 낙산과 남애지점을 개설하고 상호금융 업무를 개점하였다. 그리고 낙산에는 수산물 백화점을 물치에는 사업소를 각각 개설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자산은 394억원이며 총 수신 253억원, 총여신 24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9)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새마을금고는 1975년 3월에 남문3리 돼지새마을금고로 설립한 것이 효시이다. 1985년 6월에 남문3리 돼지새마을금고와 남문4리 황소새마을금고를 통합하여 양양새마을금고로 임의 발족하였다. 1986년 9월에 양양새마을금고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7년 3월에 1억원, 그로부터 6년 후인 1993년 12월 31일에는 50억원이 조성되었다. 1994년 4월에는 자체회관을 준공하였으며 1996년 12월말에는 자산 102억원 조성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서광새마을금고와 합병하고 2001년에 금융결제원 가입을 하는 등 자산이 증대되어 2002년 12월말에는 231억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총 자산은 511억원이 조성되었고 회원은 5,554명이다.

### (10) 양양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으로,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공동이익의 증대를 기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필요한 임업 기술지도와 정부의 산림시책사업의 대행, 임업경영을 위한 장기저리 산림개방 자금의 융자 등으로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용·판매·구매·이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양양산림조합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산림조합 및 각 리 145계를 공법 인화 하였고, 1984년 4월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3년 12월에는 산림조합명칭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1996년 1월부터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하였다. 조합명칭은 임업협동조합법개정으로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11) 낙산신용협동조합

낙산신용협동조합은 공공유대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합의 본점은 강현면 전진리 50번지에 소재하며 지점은 양양읍 남문리 99-16에 두고 있다. 1992년 9월에 창립되어, 당시 총 자산은 1억 1천만원에 조합원은 124명이었다. 1993년 2월 재무부장관 인가 취득(제04-098호)이 되어 동년 3월에 법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당시의 총 자산액은 12억원으로 조합원수는 461명이었다.

수상실적으로는 중앙회장 표창(2007. 2.12.), 금융감독원장 표창(2008. 2.28.), 경영 우수조합 표창(2009. 2.17.) 등 3회를 수상하였으며 2009년 말 기준 총 자산은 263억원이며 조합원수는 3,472명이다.

## 4. 제조업

양양군의 제조업은 2008년 말 기준 31개 사업체에 722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식료품 제조업이 18개 업체 475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개 업체 126명, 비금속 광물업의 6개 업체 76명 등 원료 중심형의 제조업이 주업종이다.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4〉 제조업 중 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합 계	식료품 제조업	코르크스 및 연한 제조	의료용물질· 의약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조업
2009.12월 기준	31/772	18/475	3/60	16/126	6/76	3/15	15/20

자료 : 『통계연보』, 양양군, 2009, 145~146쪽.

### 1) 양양포월농공단지

양양읍 포월리 261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월농공단지는 국·도비 및 군비 등 총사업비 68억 3,400만원을 들여 1992년 12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여 1994년 5월 9일까지 1년여 기간을 거쳐 완공하였다. 단지 총 면적은 11만 6,727㎡이며 산업시설구역 8만



양양 포월농공단지 전경

5,000㎡와 공공시설구역 3만 1,727㎡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음식료 13개 업체, 석유화학 3개 업체를 비롯, 섬유·의복, 비금속 2개 업체, 조립금속 2개 업체, 전기·전자 2개 업종과 기타 6개 업종 등 모두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0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단지 내에는 남자 178명, 여자 201명, 외국인 노동자 21명 등 모두 401여 명이 종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배전반, 화장품, 농수산물가공제품, 송이가공식품 등이 꼽힌

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20억원이었으며, 같은 해 수출액은 380만 달러에 달한다. 1일 평균 900m<sup>3</sup>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수질 오염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으며 벤처타운과 장애인보호작업장도 1곳씩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입주업체에게는 폐수처리원인자부담금의 50%를 월 1,500만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지원된다. 또 지방계약법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납품계약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1) 주요 입주업체

#### 가. 일송영농조합법인

일송영농조합법인(대표 : 김춘호)은 지난 2001년 4월 포월리에서 설립됐으며 2007년 6월 농공단지로 입주한 송이 및 기타 버섯류 등의 가공, 생산, 판매업체이다. 장기보관식품인 ‘송이장조림’을 개발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외에도 송이명품 찬세트, 송이찬세트, 송이차세트, 송이다과세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일송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6년 일본시장개척단과의 바이어초청상담회,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에 양양송이제품을 상당량 수출,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해 무역의 날에는 우수중소기업 표창을 받았다. 2007년 지역특화기술 혁신선도기업지원사업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푸드 재팬(Food Japan) 2009에 참가하는 등 황금송이 알리기에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2009년 11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 나. 송이산영조합법인

송이산영조합법인(대표 : 박영학)은 자연송이 유통 및 수출과 자연송이 가공 식품 제조 회사다. 특히 자연송이 장기보관방법 및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수년간 전문기관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터득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을



일본 등지로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신지식인 및 자연송이 전문벤처기업으로서의 면모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산 자연송이세트, 북한산 자연송이세트, 산꿀자연송이세트, 송이수 세트, 자연송이과자세트, 산삼배양근 꿀세트 등과 함께 황태·오징어 세트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유명백화점과 호텔, 골프장, 공항, 홈쇼핑 센터 등을 주요 납품처로 하고 있으며 2009년 6억 6,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 다. 명진수산

명진수산(대표 : 김영수)은 동해 연근해에서 어획된 홍게살을 가공·생산해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다.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명진수산은 2000년 8월 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냉동 홍게살을 생산해 오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제정한 제9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진수산은 그간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과 14001 인증에 이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예방을 위한 해썬(HACCP) 인증도 받는 등 현재 일류 수산물 가공 제품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32억 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187만 5,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 라. (주)스피어테크

기초 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스피어테크(대표 : 이의형)는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ODM(원천개발제조 방식) 제조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완제품과 원료를 생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호주, 대만, 일본 등지를 판매시장으로 하는 등 국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유망 중소기업이다. 1997년 (주)오네스라는 향토기업을 설립하여 그해 LG C&C 대리점 매출 우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

2000년에는 (주)코오롱 정보통신과 AGENT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2001년 (주)스피어테크로 법인전환했으며, 2002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됐다. 2005년에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중

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실용과제 대상업체로도 선정되는 등 연구개발능력과 의지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도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제12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64억 6,0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으며, 101만 7,000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 마. 한신인더스트리(주)

한신인더스트리(주)(대표 : 이권발)는 PE 파이프, PE KP형 수도관, PE 이중벽관, PE 삼중복층벽관, PE유공관, PE관련 이음관 등을 생산한다. 2000년 10월 법인을 설립해 그해 11월 생산을 개시했고, 2001년 1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과 이중벽 폴리에틸렌관 등에서 Q마크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 표시인증을 취득했으며, ISO 9001 인증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KPS(PL)인증을 얻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는 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31억 1,2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2)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양양읍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에 제2그린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면적은 10만 1,210㎡로 국·도비 및 군비 등 모두 80억 9,800만원이 투입된다. 2012년까지 본 공단이 조성되며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쳤으며, 도(道)로부터는 타당성 심사를 받은 상태이다.



제2그린농공단지 조감도

2010년도에는 올해 1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 토지 43필지(8만 645m<sup>2</sup>)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본 농공단지에는 송이가공, 청정식품 개발, 친환경 벤처기업 등 환경 친화적인 그린(Green) 제조업체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발굴조사, 농공단지조성 승인 및 지정,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제2그린농공단지 위치도

### 3) 해양심층수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래 성장 분야인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기활성화 및 토지·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해양심층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남애1리 일원에 154,690m<sup>2</sup>규모로 사업비 127억원(국비 33, 국비융자 9, 도비 5, 군비 80)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해양심층수 관련 청정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 4월~7월까지 입지 타당성 등 관련 사항의 사전 검토를 완료하고 2011년 6월~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주)위터비스의 해양심층수 기업과 클러스터화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심층수 전용기업들이 들어서게 된다.

#### 4) (주)워터비스

(주)워터비스(대표이사 : 추용식)는 한국해양연구원 창업기업으로 해양생명, 식음료, 의약분야 연구현장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R&D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해양심층수 정제·가공 기술’ 및 각종 응용 제품의 개발 기술을 확보하였다. 현재 현남면 원포리 청정해역에서 고품질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미네랄워터, 스킨케어, 미네랄 솔트 등 각종 제품을 국내최초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양양군에서 투자 유치하여 창업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행정지원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의 기업이다.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현남면 원포리 해변에서 18km 떨어진 해저 1,032m에서 취수하기 위한 해수관로 및 생산플랜트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에서는 국내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이 주야로 새로운 기술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 수출입 현황

양양군의 수출입은 2007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수출입 총액은 12,058천 달러로 수출이 1,050천 달러, 수입이 2,008천 달러로 수출이 수입에 비하여 8,042천 달러를 초과하여 바람직한 무역교역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송이 등 농림 수산 임산물과 관련된 농식품 및 산동물의 수출이 7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수입통관실적, 수출 및 수입실적, 농수산물 수출입 실적은 <표5-5>, <표5-6>, <표5-7>, <표5-8>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표5-5〉 수출입 통관 실적

(단위 : 천불)

연별	총액(A+B)	수출(A)	수입(B)	수출입초과(A-B)
2006	13,442	10,407	3,035	7,372
2007	12,058	10,050	2,008	8,042
2008	14,790	12,796	1,994	10,802

〈표5-6〉 수출실적

(단위 : 천불)

연별	합계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연료 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 성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수 장비	기타 제조 제품	달리분류 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2006	10,407	7,511	-	298	-	-	2,444	3	24	127	-
2007	10,050	7,177	-	302	-	-	2,528	10	-	30	3
2008	12,796	8,928	13	579	-	-	3,059	9	179	29	-

〈표5-7〉 수입실적

(단위 : 천불)

연별	합계	식품 및 산동물	음료 및 담배	비식용 원재료 (연료 제외)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동식물 성유지 및 왁스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 제품	기계 및 운수 장비	기타 제조 제품	달리분류 되지 않는 상품 및 취급물
2006	3,035	2,107	-	23	62	-	386	179	163	115	-
2007	2,008	1,154	-	5	91	-	326	307	72	53	-
2008	1,994	686	-	11	124	-	442	493	70	168	-

〈표5-8〉 농림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연별	수 출					수 입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02	5,586	125	-	10	4,201	-	-	-	-	-
2003	5,640	135	-	50	4,105	-	-	-	-	-
2004	11,807	344	-	-	10,071	-	-	-	-	-
2005	1,095	-	-	-	1,095	-	-	-	-	-
2006	7,609	100	23	-	7,476	2,178	169	1	1	2,007
2007	7,232	141	-	-	7,091	1,207	57	1	3	1,146
2008	9,259	71	30	-	9,158	777	84	2	11	680

집필 : 김영식

## 참고문헌

- 양양문화원, 1976, 『향토지』  
 양양군, 1990, 『양주지』 467~498쪽  
 양양군, (각 년도). 『양양군통계연보』  
 강현농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낙산신협 및 양양지점, 2010, (내부자료)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2010, (내부자료)  
 신한양양지점, 2010, (내부자료)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양양군경제도시과 농공단지현황, 2010, (내부자료)  
 양양새마을금고, 2010, (내부자료)  
 하조대농업협동조합, 2010, (내부자료)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 2010. 4. 9.  
<http://www.ganghyunnonghyup.com>.  
<http://www.seokwangnh.com>  
<http://www.yyhanu.co.kr>  
<http://www.yyangnh.com>.  
<http://www.yang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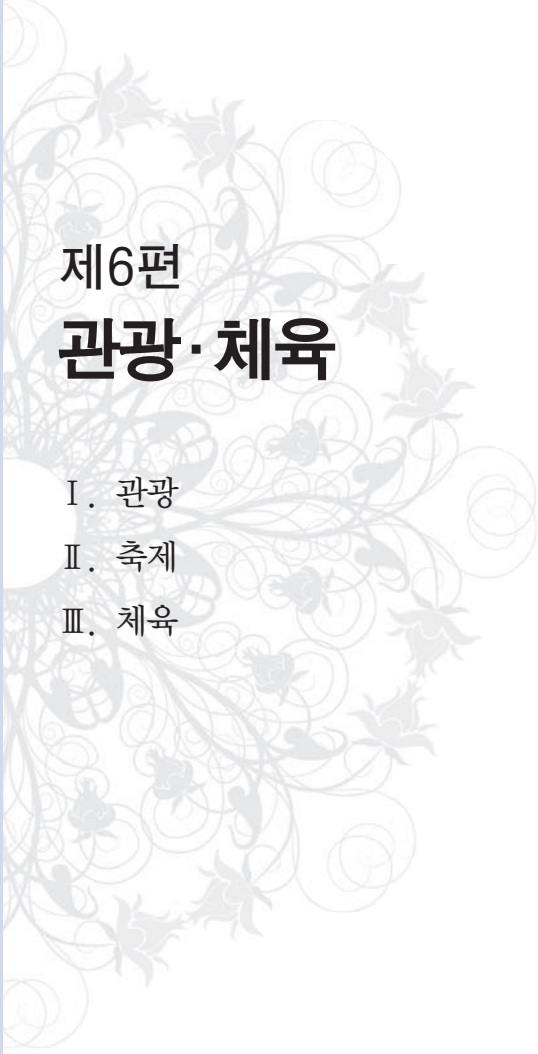




제 6 편

# 관광 체육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wirling vines and stylized flower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 제6편 관광·체육

Ⅰ. 관광

Ⅱ. 축제

Ⅲ. 체육



## I. 관 광

### 1. 관광의 특성 및 개황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류가 당면한 자원고갈을 극복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래는 소득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자기실현 욕구가 증시되고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 등 관광여건의 기반이 형성되고 개선되어 관광행동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발전될 것이다.

관광개발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시설 개선은 관광객 증가를 촉진시키고 지역 생산물이나 일반 소비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산업의 입지조건 개선이나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가져온다. 관광개발은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도는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의료관광이 선정되어 지역발전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분야는 강원지역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양양군은 자연 및 지역산업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해돋이의 고장이라 하여 ‘양양’(襄陽)(오를 “양”, 해 “양”)이라 불리고 있으며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인위적 자원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관광과 녹색관광을 중심으로 관광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과 낙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계곡, 온천, 약수 등 자연관광자원

과 낙산사, 양양송이축제, 현산문화제, 연어축제, 송천 떡마을 등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동서·동해고속도의 개통예정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골든비치골프장, 오색로프웨이 설치, 연어테마콘텐츠 개발 및 산업클러스터사업, 해양테마파크, 해양심층수 특화사업, 송이벨리 조성사업,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매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따라서 천연림 설악준령과 맑고 푸른 동해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8천년의 역사를 가진 오산선사유적지 등 산재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정 지역이든 국가든 간에 지금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경제적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 발전기반과 함께 그 지역이 간직해 온 과거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료화하여 그 토대 위에서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인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 명품양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구축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관광가치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 및 세계정세의 빠른 변화를 직감하고 가치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관광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2.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광지 지정현황

### 1)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수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관광진흥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에는 관광사업을 더욱 세분화하여 ‘여행업’을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고,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며, 그 외에도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골든비치 콘도텔



오색그린아드호텔

2009년 12월말 현재 양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3개 업종에 5개소이며, 여행업에서는 일반여행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2개 업종 5개 업소, 유원시설업은 1개 업소,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펜션업에 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표1-1〉 관광사업체 현황

연별	여 행 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일반	국외	국내	호 텔 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일반유원 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2003		3	4	1	1	1		
2004		3	4	1	1	1		
2005		3	4	1	1	1		
2006		2	3	1	1	1		3
2007		2	4	2		3		4
2008		3	5	2	1	3	1	5
2009		2	3	2	1	2	1	5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 2) 관광지 지정현황

관광지는 설악산이 양양, 속초, 인제, 고성군에 걸쳐 있는 398,539km<sup>2</sup>가 1970년 8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낙산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 8,659km<sup>2</sup>를 낙산도립공원으로 1979년 6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지정되었다.

〈표1-2〉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지별	관광지명	위 치	지정일자	면적(km <sup>2</sup> )	특 색
국립공원	설악산	양양, 속초,인제, 고성	1970. 8.24.	398,539	외설악, 내설악, 기암절벽 등
도립공원	낙산	양양	1979. 6.22.	8,659	해수욕장 및 송림 등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제47회

## 3. 주요관광권역 및 테마별 관광·레저

주요 관광권역 및 테마별 관광·레저는 설악·오색권, 양양·낙산권, 해안권, 숲·계곡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표1-3〉 관광권역별·테마별 관광·레저

권역	특 성	볼 거리
양양·오색권	백두대간 중에 가장 높은 산(대청봉 : 해발1,708m)인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그 중 남쪽의 주전골과 점봉산은 봄 철쭉,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오색지구는 옛날부터 오색약수와 온천이 유명하며, 산행 후 맛보는 씩씩향긋한 더덕과 푸른 약수밥, 산채나물 등 오색의 별미도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오색약수, 온천, 오색석사, 오색리 삼층석탑, 주전골, 흘림골, 점봉산, 대청봉, 백암·독주·설악·용소·치마·여심·12·옥녀폭포, 허브농원 오색령
양양·낙산권	양양읍은 설악산에서 발원된 계곡물이 남대천을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남대천은 연어가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고향이며, 그 일대는 8천 년 전 신석기 유물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지닌 낙산사와 의상대 일출이 장관이며, 읍내에 5일장을 둘러보고 동호리의 섭국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이다.	현산공원, 남대천, 5일장체험, 낙산사(사찰체험), 의상대일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수산항, 동호해수욕장, 골든비치리조트, 쉼비치리조트, 용천곰마을, 낙산·오산해수욕장

권역	특성	볼거리
해안권	7번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해안마다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송림과 어우러진 하얀 파도가 파란 수평선과 어울려져 무척 아름답다. 영화촬영지인 남애항의 빨간 등대, 하얀 등대와 천연기념물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는 포매호가 둘러볼만하다.	하조대, 38°선 휴게소, 죽도정, 남애항, 왜가리서식지, 전포매리 백로·가옥, 마을단위해수욕장, 해안도로
숲·계곡권	50년 된 천연림이 뽕뽕이 들어찬 숲과 계곡이 잘 보존돼 있어 여름철 삼림욕과 계곡놀이에 좋은 곳이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미천골휴양림은 심산 오지대로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계곡이 대·소폭포를 이루며 길게 뻗어 있다. 천연림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로 삼림욕을 즐기고 몸에 좋은 불바라기 약수 한 잔, 그리고 물 반 고기 반 전설의 어성전계곡에서 발을 담가보자, 여름에도 땀 속까지 차가움을 느끼게 한다.	송천리떡마을, 공수전계곡, 양양양수발전소, 서림리 3층 석탑, 서림리마을관리 휴양지, 갈천계곡약수, 구룡령옛길, 미천골자연휴양림, 불바라기약수, 법수치계곡, 면옥치리, 어성전계곡, 탁장사마을, 명주사

## 1) 양양팔경

### (1) 남대천

남대천은 총 길이가 70여 km 되는 하천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갈대가 무성하고 백로가 이따금씩 쉬어 가는 여유로움이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잡는다. 봄에는 황어, 7~8월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 떼가



양양남대천 하구

돌아오는 어머니의 강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뚜거리, 민물참게 등 희귀종 민물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 중 토착어종 뚜거리로 만든 뚜거리탕은 별미종의 별미로 손꼽힌다. 남대천 둔치에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다양한 체험 축제가 열려 흥미를 더한다.

## (2) 대청봉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설악산 대청봉은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공룡릉, 화채릉, 서북릉 등 설악산의 주요 능선의 출발점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또한 천불동 계곡, 가야동 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계곡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대청봉 주위에는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잣나무 군락이 융단처럼 낮게 자라며, 정상에서는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설악산 대청봉 전경

## (3) 오색령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는 애환과 동고동락한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지는 장관은 오색령에서만 볼 수 있는 특혜이다. 오색령은 사시사철



오색령 전경

설악의 비경을 뿔어내 관광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원도지역에서 여섯 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이라 했다.

## (4) 오색주전골

오색약수 인근에 자리한 풍치절경의 계곡이다.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내의 점봉산(1,424m) 북쪽 기슭에 뻗은 주전골은 옛날에 엽전을 주조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설악 지구대에서 가장 빼어난 계곡미를 자랑하는 주전골은 선녀탕, 용소폭포, 만물상, 흔들바위 등을 비롯하여 술한 명소를 품고 있다. 크고 작은 폭포와 기암절벽으로 이

루어진 주전골은 피서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 있는 오색약수는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병에 탁월하며, 평탄한 산길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등산객의 발걸음을 잡게 한다.

#### (5) 하조대

원래 대(臺)의 정의는 ‘사방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이다. 그런데 ‘대’ 위에 정자를 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마치 ‘대’가 정자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었다.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위치한 이곳 ‘하조대’도 정자가 하륜과 조준 시절보다 한참 후인 정종 때 세워진 것으로 보아 그저 동해 바닷가 전망 좋은 터 한 곳을 하륜과 조준이 찾아 즐겼다가 하여 ‘하조대’란 이름을 먼저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오색주전골 전경

하조대에 있는 정자는 조선 정종 때 지어졌으나 퇴락과 철폐, 증수를 거듭하여 1940년 팔각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6·25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1955년과 1968년에 재건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8년 해체·복원된 것으로 초익공(새 날개처럼 만들어진 공포 형식) 굴도리(남성적) 양식의 육모정이다. 지붕에 절병통을 얹어 소나무와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고 있으며, 정자각 앞에는 조선 숙종 때 참판 벼슬을 지낸 이세근이 쓴 ‘하조대’ 3자가 암각된 바위가 있다.



하조대 전경

하조대는 하륜과 조준이 머물렀다는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하씨 집안 총각과 조씨 집안 두 처녀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했던 사연이 그것이다. 이곳은 또한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하조대 맞은편에는 하얀 등대가 서 있는데 하조대와 더불어 연중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다.

- 초익공 : 익공형식은 포작계와 비포작계에 관계없이 살미 부재가 새 날개처럼 만들어진 공포 형식을 말한다. 이때 보 방향의 익공이라는 부재가 2개인 경우이다. 물익공이란 익공개수와는 관계없이 익공의 끝 모양이 새 날개와 같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조각한 것을 말한다. 대채 출목이 있는 포작계 익공은 이익공형식이 많고, 비포작계의 익공 형식은 초익공 형식이 많다. 초익공형식은 기둥머리를 ‘+’자로 파낸 곳에 창방과 익공이 ‘+’자로 짜여있고 그 위에 주두를 올리고 주두 위에서 보와 도리가 올라가는 형식이다.
- 굴도리 양식 : 도리는 단면의 모양에 따라 원형도리를 굴도리라고 부르고 방형도리를 납도리라고 부른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에 따라 원을 남성, 양성으로 보았고 방형을 여성, 음성으로 보았다. 그래서 창덕궁의 연경당의 경우 남성이 사는 건물에는 굴도리를 사용했고, 여성이 사는 건물에는 납도리를 썼다.

#### (6) 죽도정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한 죽도는 둘레 1km, 높이 53m로 예전에는 섬이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으며 송죽이 울창해 죽도라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난 장죽을 진상하기도 했다. 정상에 죽도정이 있는데 전망이 훌륭하며 산책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기도 하며 죽도 해수욕장은 길이 2km, 면적이 1,400㎡이며 모래가 곱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피서지로 적당하다.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동산리에서 바라다본 죽도전경

#### (7) 남애항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영화 ‘고래사냥’의 촬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고래사냥 노래의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 뿐...”이라는 가사가 입가를 맴돈다.



남해항은 강원도 3대 미항 중 하나로, 과거에는 바닷가에 핀 매화가 이 마을에 떨어져 낙매(落梅)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해안가의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일출의 황홀경을 맞으며 새벽을 깨우는 어촌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만나게 되어 어선에서 바로 내린 싱싱한 회맛으로 찾는 이의 미각을 즐겁게 한다.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해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싯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남해항 전경

#### (8)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내에 있는 ‘의상대’는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낙산사 의상대 일출

파도소리와 풍경소리 그리고 목탁소리와 산새소리가 지평선 끝에서 들려오는 곳, 일출의 장관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기도 하다.



## 2) 휴양림

### (1) 서림계곡휴양지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룡령을 넘어 달리다 보면 차를 멈춰 쉬고 싶은 곳,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가까운 곳에 있고 넓은 시냇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산자수려한 곳이다. 마을관리휴양지내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이벤트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서림계곡 전경

### (2) 미천골자연휴양림

양양군 서면 황이리에 위치하고 있다. 미천골은 백두대간 동편 오지로 원시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과 계곡에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휴양림 입구에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었다가 고려 말에 폐사된 불교 수도원 터인 선림원지가 있고, 홍각선사탑비와 부도 등 신라시대 보물급 문화재가 있다.



미천골자연휴양림 가는길

수령 50년 이상의 박달나무, 참나무, 피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활엽수가 울창하며, 기묘한 형상의 암반 사이로 흐르는 맑고 긴 계곡이 장관이다. 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불바라기 약수터가 있다. 야생동식물과 버섯, 나물 등의 산림부산물도 풍부하다.

### 3) 체험마을

#### (1) 탁장사마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주변경관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 수 십 만평이 마을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봉산으로 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2) 해담마을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깊은 계곡과 푸른 숲을 끼고 있는 농촌마을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인진숙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양양군 최초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서림리 마을휴양지에서는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모여 즐겁고 건강한 여름 피서를 보내는 곳, 바로 자연 속 건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짚풀공예 만들기, 돌담쌓기, 뗏목타기, 은어, 산천어 맨손잡기, 아르고[ARGRO] 등 고향의 향기와 해담마을만의 이색적인 체험이 있다.

#### (3) 금풀애마을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연어가 소상하는 남대천의 상류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이다. 이 마을은 송이가 나고 은어, 산천어가 노니는 자연이 숨쉬는 농촌마을로 여름이면



금풀애마을 축제

계곡물이, 가을이면 송이체험이 이뤄지는 농촌생활 체험마을이다. 양양송이는 산림청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될 만큼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송이의 주생산지가 바로 원일전리가 위치한 현북면 일대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송이는 매년 국내외 송이 애호가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다리가 끊어지고 논두렁이 쓸려나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나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교각을 복구하는 등 최선을 다 한 결과 마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처음으로 마을축제인 제1회 금풀애마을 들꽃축제를 개최하였다.

#### (4) 석교리마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설악산 대청봉 아래 첫 마을로 넓은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마을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는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설악산 자락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마을 앞로는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며, 계곡과 마을 주변으로 송림이 우거져 아름답다. 송림과 송림사이 한옥과 새로 지은 아담하고 예쁜 별장 같은 집들이 나즈막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뤄 설악산 아래 아름다운 농촌마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 입구에는 효성 지극한 현모양처의 정신을 기리는 ‘경주이씨효열각’이 있다. 마을에서 좀 더 오르면 진전사지 등이 있어 전통문화와 정신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상류에는 둔전저수지가 있으며, 300여 년 전부터 대문터라 칭하다가 조선후기 행정구역 개정시 노고천에 큰 돌다리가 있어 석교리라 하였다.

#### (5) 남애어촌체험마을

양양군 현남면 남애2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며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하얀색 등대가 명물이 되어 항구의 운치를 더해주는 마을이다. 해안에 즐비하게 놓여진 바위섬과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 섬마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해송, 섬 안으로 크고 적은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는 모습과 항구 밖으로는 3개의 해수욕장이 멀리서 보면 지중해의 어느 해변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이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추억의 영화 <고래사냥>, <호텔리어>, <그 여자> 등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과 귀항을 서두르는 어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이며 영동고속도로 현남 인터체인지와 가장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선상일출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일출명소이다.

### (6) 동호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양양국제공항이 있으며 청정 하천인 남대천과 인접하여 휴양과 교통의 중심마을로 7번국도와 인접해 있다. 해수욕장이 유명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동호리멸치후리기체험

와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관광객유입 및 마을 홍보를 위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멸치후리기를 포함한 다양한 마을축제를 양양송이축제와 연계(漣繫)하여 개최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는 해산물과 섭을 이용한 횃집이 들어서 있고 낙산 및 양양의 배후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에 맞춰 펜션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마을이다.

### (7) 학포리마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바다에서 1km 안쪽으로 들어서있는 곳으로 흰 학이 많이 모여드는 강어귀[개]라는 뜻을 지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 고즈넉한 갈대숲의 쌍호, 마을을 감싸는 울창한 송림과 대나무 숲, 야트막한 골짜기를 따라 웅기종기 들어선 마을, 학이 날개로 품은 마을처럼 아늑한 농촌이다. 마을에는 상업적인 숙박 시설이나 위락시설, 유원지, 음식점이 없다. 도시화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청정한 자연환경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농촌마을이다. 학이 모여든다는 뜻을 지닌 학포리 마을의 남쪽에 지명의 뜻과 상통하듯 영동지역의 항공 관문인 양양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어귀에 해당하는 쌍호(동해안 석호의 하나) 일대는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발굴된 오산리선사유적으로 8천 년 전인 신석기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오산리선사박물관에서 남한 최고의 신석기 유적을 만날 수 있다.

### (8) 포매리마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로와 왜가리가 머무는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로 『양양 해뜨미(米)』 등 친환경 유기농쌀을 재배하는 최고의 자연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포매리마을 친환경농법연구회에서는 청정 환경을 밑거름삼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여 생산된 친환경쌀은 전환기유기농 품질인증(제11-18-2-01호)까지 받았으며 한살림과 농협 등에 납품하고 있다. 친환경 3無농법(무농약·무제초제·무화학비료) 실천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농업환경을 지켜가고 있다.

## 4) 해변(해수욕장)

양양군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자연환경의 여건에 맞추어 크게 농촌권역 산촌권역 해안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활행태 및 문화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해 왔다. 특성상 해안선이 크게 발달하여 육지부와 도서부를 포함 총 44.5km에 이르는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해안선을 따라 어촌이 형성되고 어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어촌과 어촌사이에 형성된 해안선을 따라 청정한 백사장이 형성되어있다. 초창기 단순한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던 어민들은 교통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자 해안 백사장을 이용한 해변(해수욕장)을 지정·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말 현재 시범해수욕장 1개소, 일반해수욕장 5개소, 마을단위해수욕장 13개소 등 총 19개소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운영 해안선은 8,395m, 운영면적은 653,200㎡, 수용인원은 245,000명에 이른다.

〈표1-4〉 해변(해수욕장) 현황

구 분	해 변 명	위 치	해안선(m)	면적(㎡)	수용인원(명)
계	19개소		8,395	653,200	245,000
시범(1)	낙 산	조산, 전진1, 주청, 조산	1,810	162,900	100,000
일반(5)	설 악	전진2리, 용호리	445	35,600	10,000
	하 조 대	현북 하광정리	450	31,500	20,000
	오 산	손양면 오산리	700	70,000	18,000
	남 애 3	현남면 남애3리	340	24,500	6,000
	지 경	현남면 지경리	500	50,000	13,000



구 분	해 변 명	위 치	해안선(m)	면적(m <sup>2</sup> )	수용인원(명)
마을(13)	물 치	강현면 물치리	200	10,000	3,000
	정 암	강현면 정암1리	400	24,000	6,000
	동 호	손양면 동호리	400	27,000	7,000
	38(구 기사문)	현북면 기사문리	150	10,000	3,000
	잔 교	현북면 잔교리	500	30,000	8,000
	동 산	현남면 동산리	150	9,000	3,000
	동 산 포	현남면 동산리	190	11,400	3,000
	죽 도	현남면 두창시변	200	14,000	8,000
	인 구	현남면 인구1리	300	24,000	6,000
	광 진	현남면 광진리	560	65,300	16,000
	갯 마 을	현남면 남애3리	250	10,000	3,000
	남 애 1	현남면 남애1리	600	30,000	8,000
	원 포	현남면 원포리	250	14,000	4,000

자료 :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 (1) 낙산 해변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주청리,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매년 여름 전국 각지에서 100만 인파가 다녀가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에 하나로 백사장의 길이가 1,810m에 달하며 수심은 70m 앞바다까지 1.5m 내외이므로 안전하여 1963년 개장한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는 뽕뽕이 들어선 송림이 많고 편의시설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으로 바나나보트, 수상오토바이, 파라세일(Parasail)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천년고찰 낙산사가 인근에 있어 문화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낙산사 의상대에서 맞이하는 일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낙산해변의 피서인파



### (2) 하조대 해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난히 바다 빛깔이 파란 하조대해수욕장은 인근에 어성전, 범수치계곡 등이 있어 바다와 산간계곡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기잡이배를 보며 싱싱한 활어회도 맛 볼 수



하조대해변 전경

있다. 또한 20분 정도 거리에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어성전 탁장사마율이 수려한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텐트 야영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하조대정자각, 기사문향, 어성전계곡, 범수치계곡 등이 있다.

### (3) 설악해변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전진2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에서 북쪽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번국도와 접해있어 연중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설악산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활어판매장이 있어 연중 싱싱한 활어회를 먹을 수 있으며, 해안선 길이와 폭이 적당하여 가족단위 해수욕장으로 제격이다. 텐트야영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진전사, 둔전계곡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관광 코스로도 좋다.

### (4) 오산리 해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드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숲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백사장 내 텐트야영이 가능해 가족단위 여행지로 좋으며, 인근에는 오산리 신석기시대 유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2006년 개관해 운영되고 있고, 썰비치 콘도·호텔, 골든비치, 낙산비치 등 중·대형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사철 자연산회를 맛보기 위해 찾는 일반 해변이다.

### (5) 지경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 현남IC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강릉시와 경계지역으로 최근 남해~지경간 해안도로 개설로 주변경관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되어 해안가 드라이브코스로 좋으며, 울창한 송림이 있어 따가운 여름철 햇빛도 피하고, 야영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다.

### (6) 남해3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해3리에 위치하고 있다. 희고 깨끗한 백사장과 마을 내 민박이 많아 가족단위 피서객이 애용하는 곳으로 남해항과 접하고 있어 싱싱한 활어회와 배낚시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최근 신축한 민박촌이 형성되어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남해3리해변 전경

### (7) 물치리 해변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군의 북쪽 끝 물치리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7번국도에 접해있으며, 활어센터가 접해 있어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고, 방파제에는 최근 여러 방송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양양군의 명품인 송이를 형상화한 등대가 예쁜 모습으로 서 있어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물치어촌계와 마을회 주관으로 도루묵을 테마로 한 제1회 도루묵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 (8) 동호리 해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민박요금예고제를 실시하는 마을로 민박요금에 대해 일정한 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날씨가 좋은 날은 옛 조상들이 고기 잡던 방식인 멸치후리기에도 무료로 참가하여 잡은 생선을 가져갈 수 있어 맛있는 매운탕도 직접 해먹을 수 있다. 동네에서는 감자채

힘도 가능해 학생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며, 인근에는 양양오산리선사유적 박물관, 낙산사, 하조대 등이 있다.

#### (9) 정암리 해변

양양군 강현면 정암1리에 위치하고 있다. 설악해수욕장을 막 지나면 시원스러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면적이 작아 야영은 불가능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워 지나는 이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한 곳이다. 인근에 2009년 개관한 코레일연수원과 숙박시설, 카페 등이 들어서 있어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암리해변 전경

#### (10) 기사문리 해변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위치하고 있다. 38° 선 휴게소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경계철조망이 없어 시원스런 바다를 구경할 수 있고 연접한 기사문항의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는 하조대, 어성전계곡, 법수치계곡 등이 있다.

#### (11) 잔교리 해변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아담하고 주변에 숙박업소 및 상가가 없어서 심하게 북적이지 않는 곳이다. 물이 맑고 백사장 뒤로는 송림이 발달되어 소나무 숲 속에서 피서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12) 동산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산항이 연접해 있어 활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 7번국도상에 접해 있어 맑은 물과 백사장을 좋아하는 피서객들이 주로 찾고 있다.

### (13) 동산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경관조성 및 휴게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해안철조망이 없어져 탁트인 바다와 정면으로는 죽도를 바라 볼 수 있어 경관이 좋다. 항구 내에 횃집이 있어 싱싱한 회도 먹을 수 있고 죽도까지 산책코스로도 좋다.

### (14) 죽도 해변

양양군 현남면 두창시변리에 위치하고 있다. 죽도해수욕장 옆에는 예전에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둘레 1km, 높이 53m의 죽도가 있는데 정상에는 죽도정이 있어서 바다풍경을 둘러보기에 좋고 일출 또한 아름답다. 피서철에 맞추어 마을주민 모두가 ‘죽도의 연인 여린 모래톱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피서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 (15) 인구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 단위 피서지로 유명한 곳으로 백사장이 넓고 조용하며, 해안 철조망이 없고 해안 포장도로가 나 있어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또한 죽도 및 동산항과 연접해 있어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죽도봉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바다는 장관이다.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아 이용에 편리하며 백사장 내에서 야영도 가능하다.

### (16) 광진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해수욕장이다. 인근에 휴휴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부처형상을 한 바위가 있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으로 죽도가 바라보이며, 인근에는 동산항, 남애항, 포매호가 위치하고 있다. 포매호 주변은 백로, 왜가리 서식지으로도 유명하다.

### (17) 갯마을 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애3리와 광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민박요금에

고제를 운영하는 해수욕장으로 최근 신축한 민박가구가 밀집해있어 깨끗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해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다. 인근에는 남애항, 포매호, 죽도 등이 있다.

#### (18) 남애1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지경~남애간 해안도로가 신설되면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해 해안철조망이 없어 시원하고 탁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한 남애항의 활어, 해안도로의 드라이브 등이 좋다.

#### (19) 원포리 해변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설된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해안철조망 없이 시원하고 탁트인 바다와 깨끗하고 맑은 물이 좋다. 특히 해저 1,032m에서 취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심층수 전문제조업체인 (주)워터비스가 위치해 있다. 송림이 있어 피서에 제격이며, 인근에는 맛집과 남애항 등이 있어 먹거리를 해결하기도 좋으며, 남애1리, 지경해수욕장 등도 볼 수 있어 좋다. 피서철에 마을단위 축제도 열린다.

### 5) 항구·하천·계곡·폭포

양양군은 백두대간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형성됨으로써 산지가 많고 형성된 하천은 우리나라의 내륙보다 하천연장이 짧고 급경사를 이룬다. 따라서 양양군의 대표적 하천인 남대천의 경우 본류와 지류를 따라 계곡과 폭포가 잘 발달하고 형성돼 있다. 또한 남대천 상류의 어성전 측과 구룡령방면 오색방면의 하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과 폭포는 너무나 아름답고 경관이 수려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휴식과 관광을 즐기고 있다. 아울러 잘 발달된 해안선을 따라서는 크고 작은 항구가 마을을 따라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어 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 (1) 기사문항

양양군 현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 내외부락이었는데 내부락의 이름은 초진, 외부락의 이름은 기사진(奇沙津)이므로 기사라 명칭하였다. 마을해변 모래사장을 걸으면 뽕드득하고 걷는 소리가 들려 세칭 명사라고도 불렀는데 근래 행정구획 변경시 기사문리라 개칭되었다. 깨끗한 백사장과 파란 바닷물이 유혹하는 이곳에 항포구가 있어 갯잡아 올린 수산물은 물론 어민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어촌체험과 낚싯배를 타고 나가는 배낚시, 방파제에서의 바다낚시 체험이 가능하다.

### (2) 물치항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항구로써 해안선을 눈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인근 물치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활어회 맛을 느낄 수 있는 회센타가 있으며 물치항을 알리는 쌍둥이 등대가 물치항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한다.



물치항 전경

### (3) 수산항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1992년 방파제공사가 시작되어 2002년 완공된 이후 양양지역의 거점 어항 역할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큰 방파제와 작은 방파제로 넓게 둘러싸여져 있는 어촌어항이다.

큰 방파제의 길이는 약 585m로 영문자 Y를 우측으로 눕혀놓은 모양이며 작은 방파제의 길이는 약 240m이다. 양양권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방파제이다. 주요어종으로는 가자미, 넙치, 도루묵이 주로 많고 계절에 따라 봄철에는 감성돔과 임연수어, 여름철에는 가자미, 가을철에는 노래미와 학꽂치,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서식한다.

이곳이 길고 긴 방파제와 등대를 배경으로 한 일출장소로 양양의 포구 중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양양의 포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최근에는 수산항내에 요트마리나 계류시설(폰툰)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2010년도에는 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하였다. 요트대회 당시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관계자들로부터 설악산과 백두대간 등 아름다운 주변 자연경관과 알맞은 바람 등 최적의 요트대회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기대해도 좋다.

#### (4) 어성전리계곡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한 계곡물은 강릉시 부연동과 양양군 법수치리를 지난 다음 어성전리로 모인다. 이 물은 남대천의 상류로서 양양읍내를 거쳐 동해로 흘러든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경치, 깨끗한 물을 구비한 어성전계곡은 한여름에도 발을 담그면 뼈 속까지 시릴 정도이며, 시냇물과 계곡을 타고 오르면 양편으로 쉼과 다래냉쿨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 (5) 법수치리계곡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에 위치하고 있다. 어성전계곡에서 조금 더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법수치계곡이 나온다. 어성전계곡에 비해 폭이 좁아지고 물도 깊은 구간이 많아진다. 불가의 법문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여 법수치리라 불리며, 황어, 은어 등 맑은 물에 사는 어류들이 서식한다. 근래 이 마을에 경관과 어우러진 예쁜 펜션이 많이 생겨 아름다운 산골마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 (6) 둔전리계곡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둔전리를 거쳐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맑은 물줄기가 일품이다. 설악산 깊은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물줄기가 깨끗하고 푸른빛을 띠고 있다.

#### (7) 갈천리계곡

구룡령 아래 첫마을 갈천, 맑은 물과 푸른 숲, 갈천약수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갈천은 약초, 장뇌삼, 산삼 등을 캐는 순박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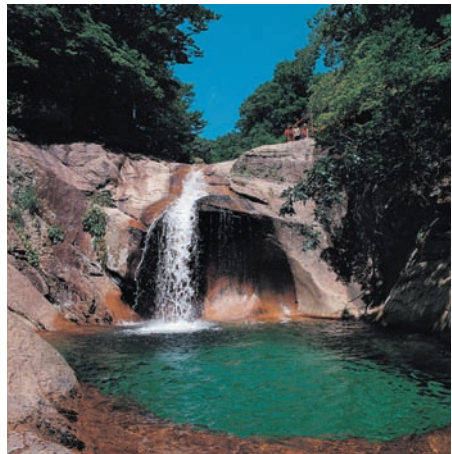
물놀이, 고기물이하기에 좋으며, 주민들 또한 친절하여 다시 꼭 찾게 되는 곳이다. 특히 갈천약수는 부정탄 사람들이 약수터 가까이 가면 뱀이 나타나거나 약수물이 흐려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전설과 함께 약수의 약효가 뛰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 약수터 주위에는 수많은 돌탑들이 있어 갈천계곡의 물소리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구룡령 옛길걷기 코스가 시작된다.

#### (8) 공수전리계곡

조선시대 때 출장을 떠나는 관리들이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수전이라는 기관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공수전계곡으로 불린다. 좁은 골짜기를 따라 급하게 달려온 물줄기가 잠시 쉬어 가는 듯 탁 트인 자갈밭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며 넓고 평평한 소를 이룬다.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소를 품고 있는 절벽엔 노송 사이로 툭툭 빠져나온 기암괴석들이 절경을 빚어낸다. 더운 여름 쉼 곳을 찾는 이들에게 일상의 피로를 말끔하게 없애준다.

#### (9) 용소폭포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위치하고 있다. 용이 되려다 못된 암늪 이무기는 폭포 옆에 붙은 용머리와 용발자국 모양이 생긴 바위가 되었고 용꼬리는 폭포가 되었다고 한다. 이 폭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웅장한 물줄기가 낙하하여 만들어진 용궁이 장관이다.



용소폭포

#### (10) 백암폭포

백암폭포는 말 그대로 백색의 기암 사이로 흐르는 계곡이 절경을 이룬다. 폭포의 높이는 30m이고 폭포 바위 밑에 20여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굴이 있어 그 백암폭포 안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끼며 맑은 날 오전에는 무지개 현상을 볼 수 있다. 근처 백암골에 너런 바위, 너런바위폭포, 뗏돌바위 등이 있다.

### (11) 옥녀폭포

점봉산에서 시작되어 내려오고 있다. 약수터에서는 3km 거리에 있다. 폭포는 상·하단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약 40m이며 여성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정도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이 폭포는 400여 년 전 이지역의 유명한 옥녀라는 효녀미인의 자태를 닮았다하여 옥녀폭포라 불렸고, 특징은 2단 폭포로 약 42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아담한 폭포다.

### (12) 치마폭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건너편 주차장 쪽으로 500m 정도 가면 두 줄기의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탕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양과 같아 발폭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선녀들이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한 선관이 숨졌다던 치마가 이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 6)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 (1) 양양 5일장

영북지방의 가장 큰 시골 전통장으로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장터 구석구석은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들이 선보이며, 가끔은 희귀한 특산물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양양 5일장 전경

주요품목으로는 각종채소, 해산물, 농산물, 버섯류, 농기구류 등이며, 인기품목으로는 무공해 채소류, 산나물, 더덕, 돌김, 미역, 농기구류 등이 있다. 장터토속음식으로는 가시리묵, 장칼국수, 뚜거리탕, 섭국, 송천떡 등이 있다.

## (2) 송천떡마을

설악산과 점봉산 자락에 묻혀 있는 고향 내음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은 한쪽으로는 송천계곡 물줄기가 길게 흐르고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로 전체 30여 가구 중 15가구가 떡을 만든다. 기계떡이 아니라 찹쌀을 시



송천떡마을 체험

루에 얹어 장작불로 찌고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빻어내는 떡이다. 떡메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떡이 쫄깃하고 말랑말랑하다. 쌀은 마을에서 농사지은 것을 사용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오색약수에서 흘러내린 물을 논물로 이용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다. 떡을 반죽할 때는 기름이나 물을 쓰지 않고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사용한다. 떡은 인절미와 계피떡, 바람떡, 송편, 백설기, 호박고지, 찹쌀떡, 가래떡, 경단 등 다양하게 만든다. 가장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절미인데, 반은 흰색 인절미로, 나머지 반은 취나물과 쑥을 섞어 만든다. 20여 년 전부터 떡을 빻어온 마을에서는 떡만드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떡빻기 행사도 개최한다. 겨울 설경이 아름다우며 까치구멍이 그대로 보존된 옛날 부엌도 볼 수 있다.

주변에 낙산사, 낙산도립공원, 신흥사, 미천골자연휴양림, 오색약수, 선림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시 현지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3) 양양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의 한곳이다. 유적지는 동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석호'라고 불리는 호숫가의 모래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언덕을 파서 이 호수를 매립하던 중 발견되어, 19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하여 14기의 원형집터와 소할석 및 돌무지 유구, 다양한 석기와 토기를 발굴하였다. 특히 흙으로 만든 인면상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상징한 예술품으로

희귀한 예로 일컬어진다. 또한 출토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유적지가 B.C.6000년경의 유적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 중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어 사적 394호로 지정되었다. 양양군에서는 오산리 신석기 유적들을 소개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건축면적 3,194㎡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크게 도입부와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소개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에는 종합안내소와 PC를 통하여 박물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로비의 전망창을 통하여 야외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및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선사시대 유적 관람을 준비하며 현실에서 선사시대로 시간 이동을 유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에는 쌍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신석기시대 사람들, 그들의 어로생활, 토기를 만드는 모습, 움집 주변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사냥한 멧돼지와 어패류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롯한 주거생활 등이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강원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담은 전시실은 각종 어로기구와 돌칼, 돌화살, 돌도끼, 토기와 청동기 제작법 등 오산리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변에 오산해수욕장·동호리해수욕장·수산항·연어생태학교[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일현미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 (4) 탁장사마을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산나물로 밥을 하고, 고기 잡아 배불리 먹으며, 천년의 송이향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눈썰매도 타볼 수 있는 전통테마마을이다.

조선말, 커다란 나무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있었다. 강릉의 권장사가 실패하고 양양의 탁장사가 이겼다고 한다. 양양으로 나무를 지고 온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잔치가 열린다하여 탁장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통나무 자르기놀이, 지게지기, 목도놀이, 강강술래 등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주변관광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수십 만 평이 마을 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매년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5) 곤충생태관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으로 건물외벽에 커다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모형이 걸려있어 관광객들 특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곳이다. 2층 내부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희귀한 곤충의 표본과 색색의 나비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잡아끈다. 1,200여 종의 곤충과 나비표본, 수서곤충, 갑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의 성장과정과 생태도 관찰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생명체로서의 곤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이다. 1층은 양양관광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낙산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연중무휴이며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소인 700원을 받고 있다. 주차는 무료이다.

2008년 10월 1일 개관이후 2009년 12월말 현재 총 관람객수는 43,478명이며 이중 유료관람객 33,853명, 무료관광객은 9,625명이다.

##### (6) 국립수산물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국립수산물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24-1번지에 소재한 연어생태학교이다. 남대천가에 위치해 있어 태평양에서 돌아온 연어를 직접 포획하기도 하고 알을 채란하여 인공수정 및 부화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며, 성어가 된 연어를 방류하는 곳이다. 전시관에는 연어의 일생과 생태 등이 사진과 그래픽 패널, 연어 표본 등을 관람할 수 있고, 10월~11월 연어축제가 개최 될 때에는 인공수정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무지개송어, 산천어 등 일반담수어양식장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연현장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 연어전시실은 연중 견학이 가능하다.



### (7) 양양양수발전소(양양에너지월드)

‘양양양수발전소’는 2006년 9월 12일에 준공되었다. 양양양수발전소 1~4호기는 국내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100만kw(25만kw, 4기)로 연간 약 7억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 (주)삼안이 설계를 두산중공업(주)가 기자재공급, 삼환기업(주), 삼성물산(주)가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1996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 공사비 1조 1,000억원과 연인원 170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0년 만에 완공하였다.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한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며 하부댐에는 대형댐으로는 처음으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설기간 중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을 종합회관 건립,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관 건립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약 26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양수발전의 원리와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리를 체험 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1일 ‘양양에너지월드’를 개관하게 되었다. 양양에너지월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양양양수발전소의 홍보 전시관으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Zone(양수발전소 소개)’, ‘빛의 놀이터 Zone(에너지 체험)’, ‘빛의 중심 Zone(중부발전 소개)’ 등의 전시관과 60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갖춘 3D입체 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밖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갖춰져 있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양양양수발전소’ 및 ‘양양에너지월드’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8) 멕시코문물전시관

서면 오색리에 위치한 오색그린야드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멕시코문물전시관’은 2009년 12월 3일 문을 열었다. 멕시코의 다양한 문물이 전시된 박물관은 아메리카 문명의 시원인 올멕(OLMEC),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야(MAYA), 아메리카 인디언의 고대문명인 아즈텍(AZTEC) 등 크게 3가지 문물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아메리

카 고대 문명 중 가장 오래된 올멕 문물 전시관에는 톨텍 사포텍토문화 문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마야문물 전시관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숭배하는 등 다양한 마야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한 아즈텍 제국의 전시관에는 아즈텍인들의 성 생활관과 성모 발현지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는 등 멕시코문물의 이색적인 향기를 설악 오색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3번째로 큰 나라로 이 문화들은 AD 100~900년에 올멕·톨텍·마야·아즈텍문화로 꽃피었다. 화려하게 수놓인 면으로 만든 의상, 면이나 모로 만든 술(rebozos)과 겹옷(serapes), 색색가지의 바구니와 깔개 등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 올멕(OLMEC)문명(B.C.1200~400년) : 약 3천년전, 중미 해안지방에서 존재했다. 올멕의 뛰어난 문명은 엄청난 예술적 수준의 거석 조각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문명은 수백년간 번성하다 기원전 400년경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고대 폐허로 남아 거대한 의혹을 던지고 있다.
- 마야(MAYA)문명(A.D.100~600년) : 중앙아메리카 케추아족이 세운 고대문명으로 신정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하고 태양신과 달의 신을 숭배했다. 천체관측법과 역법이 매우 발달하였고, 마야숫자가 유명하다.
- 아즈텍(AZTEC)문명(A.D.1200~1522년) :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하였다. 아즈텍인들은 현재의 세계 이전에 4개의 세계가 있었으며 이번 5번째 세계에서는 태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피와 심장을 부단히 공양해야 한다고 믿었다.

## 7) 레저

### (1) 대청봉 등산

설악산 대청봉은 우리나라에서 셋째로 높은 봉으로 천불동 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 대부분의 계곡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대청봉은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한 야간산행과 겨울 눈산행으로 인기가 있다.

※ 등산코스

○ 오색 산행기점 코스

- 1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희운각 → 천불동계곡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봉정암 → 구곡담계곡 → 수렴동대피소 → 영시암 → 백담사 → 백담사 경내버스 승차장

○ 오색령

- 1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청 → 중청 → 대청봉 → 희운각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청 → 중청 → 대청봉 → 설악폭포 → 오색약수터

### (2) 점봉산 등산

점봉산은 설악산국립공원 중 남설악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등산로는 약수터와 온천이 있는 오색에서 시작하고 정상에 오르면 대청봉·가리봉 등 설악산의 영봉과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행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3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등선폭포 → 흘림골 → 차도
- 3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 4코스(12시간 소요) : 오색약수 → 망대암산 → 점봉산 → 단목령 → 오색국교
- 5코스(5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십이폭포 → 주전폭포 → 등선폭포 → 여신폭포 → 흘림골

※ 점봉산 높이 1,424m 인제군과 양양군 서면에 걸쳐있는 산, 오색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보고 있다. 북동쪽에 대청봉(1,708m)이 있고, 북서쪽에 가리봉 (1,519m), 남서쪽에 가칠봉(1,165m) 등이 솟아 있다. 산의 동쪽 비탈면을 흘러내리는 물은 주전골을 이루어 오색약수를 지나 백암천에 합류한 뒤 양양의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산자락에 12담계 · 큰고래골 · 오색약수터 · 망월사 · 오색석사터 등 명소가 많으며, 오색약수를 거쳐 오르는 주전골은 단풍 명소로써 흰 암반 위를 흐르는 계곡물과 단풍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낸다. 산일대에 펼쳐진 원시림에는 젓나무가 울창하고, 모데미풀 등 갖가지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참나무 · 곰취 · 곤드레 · 고비 · 참취 등 10여 가지 산나물이 자생한다. 특히 한반도 자생식물의 남북방한계선이 맞닿은 곳으로써 한반도 자생종의 20%에 해당하는 8백 54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 (3) 망대암산 등산

인제와 양양군 서면과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234m, 북동쪽의 대청봉, 남쪽의 점봉산, 남서쪽의 시선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청봉 서남쪽의 오색령은 남쪽 대관령과 함께 영동 · 영서간 교통의 요로이며, 북동쪽에는 오색약수 · 오색온천이 있어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산은 정상이 침봉이고 망대암과 금표암 등 기암괴석으로 덮여 있다.

####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 (4) 구룡령옛길 걷기

이 길은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옛길로 산세가 험한 진부령, 미시령, 오색령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양양,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상품 교역로였고 양양, 고성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한양으로 갈 때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라 하며, 구룡령이라는 이름은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 가다가 지쳐서 갈천리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다. 옛길 입구에는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길의 중간 중간에 길의 위치를 표시하는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이 자리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옛길 걷기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구룡령옛길에는 옛 철기시대 양양지역에 공급되던 철을 캐던 동굴과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어 일대 주민들이 강제 징집되었던 애환의 역사가 서린 철광소, 케이블카가 남아있고, 옛길 길가에는 1989년 경복궁 복원 당시 사용되어 밑동만 남아 있는 소나무 거목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조선시대와 근현대사의 역사가 함께 잔존하여 역사적 가치가 큰 소중한 명승지이다. 옛길 따라 펼쳐진 200~300년 된 희귀한 금강소 나무가 장관이며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정할 때 양양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려고 달리다가 숨진 청년이 묻혔다는 전설의 묘(명승 제29호)도 있다.

※ 옛길 5km 걷기

－ 옛길 들머리 입구(구 갈천분교) → 계곡 → 금강소나무길 → 서림철광소 → 케이블카 → 구룡령정상  
→ 홍천군 내면 명개리

### (5) 드라이브 · 하이킹

마의태자의 피눈물이 어린 오색령과 바닷가를 따라가는 7번국도는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색령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때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김취려 장군이 뒤쫓아 이 골짜기에서 섬멸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오색령은 험하지만 깊고, 아찔하지만 수려하다. 서울에서 국도로 오면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면서 좌우로 내설악과 남설악의 진풍을 만날 수 있다. 동해안 드라이브는 산길 드라이브와 해안가 드라이브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의 절경이 펼쳐지고 작은 어촌마을의 소박한 운치, 넘실대는 파도가 정겹다. 왼쪽으로는 멀리 병풍처럼 둘러싼 설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굽이굽이 고개를 돌 때마다 달리보이는 설악산을 보는 재미가 있다.

양양은 자연계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동안 육성한 사이클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커다란 족적을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양양의 수려한 산 · 계곡 · 하천 · 해안은 자연스럽게 하이킹하기에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생활여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드라이브 ·

하이킹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코스

○ 드라이브 코스

- 남쪽 현남IC부터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 해수욕장 → 남애해수욕장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 낙산해수욕장 → 낙산사 → 물치항

○ 자전거 하이킹 코스

- 1코스(해안도로) :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해수욕장 → 남애해수욕장
- 2코스(해안도로)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연어생태박물관
- 3코스(56번국도) : 양양 시내 → 송천떡마을 → 양수발전소 → 서림사지 → 선림원지 → 미천골자연휴양림 → 불바라기약수 → 법수치계곡(면옥치리) → 여성전계곡(명주사입구) → 하조대

## (6) 배낚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와 맞물려 휴식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면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양양군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가 바다낚시이다. 바다낚시의 매력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에 몸을 맡긴 채 고기가 입질하는 순간의 짜릿함과 출렁이는 파도와 짹짹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펄 뛰는 물고기를 즉석에서 손질해 보고 회를 맛보는 것이다. 배낚시로 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은 우럭 · 가자미 · 광어 · 꽁치 · 방어 · 대구 · 노래미 · 조피볼락 등이며, 배낚시가 가능한 양양의 항구는 기사문항 · 남애항 · 물치항 · 수산항 · 오산항 · 인구항 · 낙산항(전진항) 등이다.

배낚시는 1회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계절별로 잡히는 어종은, 봄에는 송어 · 우럭 · 돔, 여름에는 고등어 · 돔, 가을에는 우럭 · 이면수 · 학꽁치, 겨울에는 돔 · 황어 · 놀래미 정도다. 최근에는 배낚시 이외에도 계절별로 갯바위 및 방파제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 4. 연도별 관광객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이 전국적인 유명축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양양의 관광브랜드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양양군의 관광객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매력물 창출이 부족하고 타 시군들의 공격적인 관광마케팅과 관광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광객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표1-5〉연도별 관광객 현황

연 별	집계 관광지수	방 문 객 수		
		계	내 국 인	외 국 인
1998	1	1,389,626	1,371,274	18,352
1999	1	2,709,324	2,572,929	136,395
2000	1	3,260,813	3,245,595	15,218
2001	1	4,158,098	4,119,495	38,603
2002	1	5,790,240	5,738,755	51,485
2003	1	7,298,178	7,181,061	117,117
2004	1	7,840,907	7,722,939	117,968
2005	1	7,951,812	7,902,066	49,746
2006	21	1,818,634	1,777,532	41,102
2007	21	1,666,418	1,628,686	37,732
2008	22	5,503,566	5,351,623	151,943

자료 : 양양군 통계연보, 2009년 제47회

#### 5. 특산품

양양은 산과 바다에 접해 있고 기후가 좋아 품질 좋고 맛있는 임해산물이 풍부하다. 송이를 비롯해 낙산배, 한우, 토종꿀은 양양의 자랑거리이다. 이러한 특산품은 관광 상품화 등 지역의 소득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1-6〉 특산품 현황

품명	설명	비고
양양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지리적 표시 제1호 등록</li> <li>- 백두대간 수 십 년 된 소나무(적송) 아래에서만 자라는 양양황금송이는 타지역에 비해 육질이 두텁고 수분함량이 낮아 단단하다. 고유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에서 세계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li> <li>- 양양송이협회</li> </ul>
표고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혜의 지형을 이용한 표고버섯</li> <li>- 영동지방의 독특한 기후의 영향으로 수확철에 부는 해풍과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어 우수한 화고 형성율을 자랑한다. 육질이 두껍고 맛과 향이 뛰어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군표고버섯연구모임회</li> </ul>
양양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청정지역 설악산 자락에서 사육되는 한우</li> <li>-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양양한우사육프로그램에 의한 차별화된 품질개량으로 불포화지방산이 높은 명품제품이다. 동해안의 해양성 기후로 인해 육질에서 감칠맛이 느껴지며,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와 곁들이면 그 맛이 더욱 일품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초양양축협</li> </ul>
느타리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색의 정기와 맑은 물로 자란 설악느타리버섯</li> <li>- 육질이 두껍고 풍미가 강하며 비만 및 골다공증 예방과 고혈압 개선효과,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악산느타리버섯영농조합법인</li> </ul>
복숭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콤 아삭 당도 높은 복숭아</li> <li>- 해양성 기후로 인해 수확기 일교차가 커서 복숭아의 당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용천리 복숭아마을에서는 복숭아 따는 철이면 “은어야 복숭아 따라가자 ~” 축제가 열려 복숭아도 직접 따고 은어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군복숭아연구모임회</li> </ul>
양양쌀 (해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 아침해살과 해풍을 맞고 자란 쌀 해뜨미</li> <li>- 양양에서 저농약재배에 남대천 맑은 물과 동해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우수한 미질로 밥이 찰지고 구수한 친환경 명품 쌀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지역농협</li> </ul>
토종·양봉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지역의 다양한 밀원식물에서 생산된 토종, 양봉꿀</li> <li>- 전국 제일의 원시림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꿀은 양양군에서 입회하여 밀봉하고 군에서 봉인하는 품질이 보증된 제품으로 맛이 진하고 몸에 좋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군재래양봉영농조합법인</li> </ul>
송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송이 그윽한 술, 송이 발효주</li> <li>- 송이주는 자연산 송이를 배합, 저온 자기발효 숙성시켜 저도수에 숙취가 없는 깨끗한 술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양민속도가</li> </ul>
송이찬·다과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개발</li> <li>- 질 좋은 원재료 사용으로 인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송이 식품을 수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송영농조합법인</li> </ul>

품 명	설 명	비 고
송이 고추장 · 된장	- 100% 국산원료와 오색의 맑은 물로 담근 오색옹기장식품 - 제품에 송이, 초피 등 양양지역 자생하는 특산품을 첨가한 제품 이다.	- 오색옹기장식품
양양 오색한과	- 설악산의 맑은 물과 옛 조산들의 전통방식을 고수한 10년 역사 의 전통 한과 전문업체이다.	- 양양오색한과
인진숙	- 남설악 등지에서 캐내어 가공한 제품으로 간에 이롭고 여성에 좋아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다.	- 서광농협
송천떡	- 고향내음으로 발길이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 - 전통 떡매 방식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이며, 직접 방문하여 떡만 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 송천민속떡마을

## 6. 양양군의 향토음식

### 1) 생선회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생선회는 요즘 고단백 저칼로리이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선에는 인체 구성성분으로 가장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예방 효과가 있는 EPA, 지능개발과 치매에 좋은 DHA를 가지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생선회

### 2) 메기매운탕

보양식으로 자주 찾는 메기매운탕은 속에 부담이 없는 음식이다. 메기는 생김새처럼 먹성도 좋고 그만큼 영양가도 뛰어나며 겉은 겹지만 속은 부드러우며 담백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부터 민간요법에서는 부기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메기를 먹었다고 한다. 주로 봄철부터 가을까지 제철이며, 특히 3~5월에는 메기가 최상급이다.

### 3) 메밀국수

메밀은 영양가가 높으며 단백질이 다른 곡식에 비해 12~14% 많이 포함되어 있다. EH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신의 함유량도 많아서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음식이 또한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고혈압증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루틴의 함유량이 높다.



메밀국수

### 4) 산채

설악의 깊은 숲속에서 자생하는 두릅, 원추리, 취나물, 고비, 흡잎나물, 참나물, 칼나물, 곰치, 얼레지 등의 무공해 자연식품을 양념하여 그 산나물의 특유한 향을 살린 산채는 계절에 따라 채취되는 나물이 다르므로 계절별로 색다른 산채 맛을 즐길 수 있다. 설악영봉의 길목에 자리 잡은 오색지구에는 산채요리 전문점이 많은데 집집마다 전통이 매우 깊은 음식점들이 즐비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 5) 뚜거리탕

‘뚜거리’는 남대천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로 이 지역의 방언이다. 뚜거리탕은 뚜거리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손질하여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푹배기에 넣고 끓이는 영양이 많은 보양식이다. 남대천 둔치 인근에서 판매하며 구수하고 얼큰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6) 섭국

섭국은 영동북부지방의 어부들이 즐겨 먹던 토종음식이다. 칼칼한 고추장 국물에 각종 채소와 섭(홍합)을 넣고 끓인 얼큰하고 시원한 종류의 탕이다.

### 7) 송이라면, 송이칼국수

라면이나 칼국수에 송이를 넣어 끓인 음식으로 송이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게 한다.

8) 버섯전골

양양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여러 가지 버섯으로 끓인 전골음식으로 양양읍내에서 먹을 수 있다.

9) 송이영양돌솥밥

돌솥에 쌀과 송이, 대추를 넣고 지은 영양밥으로 된장찌개와 곁들여 먹으면 일품이다.

10) 송이불백

한우 불고기에 양양송이를 첨가하여 살짝 끓인 샤브샤브식 음식으로 송이 향을 한껏 즐길 수 있다.

11) 송이삼계탕

삼계탕에 송이를 넣고 끓인 음식으로 닭과 송이의 궁합이 일품이다.

## 7. 관광개발계획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과 여가의 꾸준한 증가 및 건강을 중요시하는 국민생활패턴의 변화, 특히 국제 및 국내관광의 질·양적 변화추세에 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관광개발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원의 보호와 같이 개발대상지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과의 관계,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관광개발은 관광지의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으나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효과 이외에 사회적 측면도 생각해야 되며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관광자의 수요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해서 관광자원의 보호 및 그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광역 교통망 및 역

내 교통체계를 활성화하여 환동해권 및 국내의 중추적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세계 관광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관광 상품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으나 양양지역은 세계적인 명산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개발하고 이에 21세기 관광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설악~금강권의 효율적인 연계개발과 환동해권의 관광거점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 국제회의 시설과 관광호텔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계획 시 우선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관점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테마형 관광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양식·가치관의 다원화, 국민소득의 증대 등으로 인한 관광휴양활동의 증가가 예상되고 해양휴양지, 역사·문화관광지 및 산림휴양지 등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관광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해 해양리조트타운 조성계획

지역자원의 잠재력과 다양한 휴양시설 접목을 통해 동해안 최고의 해양형 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호, 철새도래지, 해변 등 천연 생태환경을 정비하여 다양한 자연체험과 체류가 가능한 가족형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성수기(여름 바캉스철, 가을 단풍철)를 지원하고 비수기에 효과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휴양형 집객시설을 조성한다.

조성방법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관광휴양’이라는 지역친화형 성장 동력을 육성·추진함으로써 지역소득 창출 및 지역인프라 확충하고 나아가 민·관의 상생 모델 수립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1-7〉 남해해양리조트타운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산20번지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남해 해양리조트타운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5년(7년간)
- 면 적 : 5,040,000㎡(약 152만평)
- 사업내용
  - 고품격 생태자연형 레저·휴양단지 조성
  - 지역친화적인 친환경 체류형 복합 휴양단지 조성
- 주요시설
  - 핵심리조트지구 : 리조트호텔, 스파파크, 컨벤션호텔, 콘도미니엄 등
  - 교육문화시설지구 : 유스호스텔, 아트센터, 조각공원, 풍력발전소 등
  - 자연환경보존지구 :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유기농재배단지, 버드파크 등
  - 주거시설지구 :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레이크, 프라이빗비치 등
  - 체육시설지구 : 골프코스(18홀), 마인레스토랑, 클럽하우스 등

## 2)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 7호선과 인접한 양양군 관문으로 개발 사업을 통한 관광양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양심층수 집적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민자사업)으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1-8〉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해양심층수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0년
- 면 적 : 46,704㎡
- 사업내용
  - 편익 및 관리시설 :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 휴양시설 : 휴게소, 해양박물관, 민속전시관, 분수대
  - 숙박시설 : 민숙촌(3층 이하)

### 3) 연어산업 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

남대천은 국내 회귀연어의 70%가 돌아오는 최대의 연어 회귀지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교육적 가치 제고(국내 유일의 연어연구센터, 연어축제)하고 인근 레저·문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로 다양한 문화 욕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향토자원을 체계화하여 산업화가 절실하다. 남대천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국토해양부·환경부)과 연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동해안의 랜드마크화하고 연어를 중심으로 1·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 〈표1-9〉 연어산업 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사업 개요

- 연어자원 증강사업
  - 연어회귀경로 파악을 위한 연구, 자원보존
  - 바다연어 수협위판, 위판액의 10%는 연어자원조성기금으로 활용
  - 어미 연어 포획 방법(유도시설, 염분침입방지)의 과학화
  - 북태평양 연어잡이 쿼터 확보 추진
  - 연어자원 확보를 위한 수출입산업 육성
- 연구사업
  - 오메가3 추출, 기능성 건강식품 연구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양식연구, 식품연구
- 연어자원 가공산업
  - 식품사업(Seafood of Salmon)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운영
  - 연어 정소사업(RNA, DNA industry) : 건강식품, 화장품, 세정제 등
  - 패션사업(Fashion of Salmon) : 패션잡화, 신발, 의류, 판촉물 등
  - 유기비료사업(Organatic fertilizer industry) : 비료, 사료 등
  - 각 사업의 일본과 비교
- 콘텐츠 사업
  - 연어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발굴·제작·활용
  - 양양군의 다른 콘텐츠와 연계하여 융합콘텐츠로 발전
  - 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 양양군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CT : culture technology) 육성
- 특구지정
  - 연어를 활용한 산업의 직접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특구조성
  - 관련 산업을 조성하는데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을 완화하는 구역
  - 연어를 원천자료로 1, 2, 3 차 산업이 융·복합하는 장소적 거점 조성
  - 위치 : 손양면 가평리~송전리(남대천 하류~냉수성어류연구센터)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소도읍 사업 : 연어소상로 및 시장활성화와 연계
- 남대천 우안제방사업 : 친환경적 제방정비로 연어생태환경 조성
- 어도설치 사업 : 남대천 상류진출을 어로 확보
- 연어 산소길 조성사업 : 사람과 연어가 교감할 수 있는 산소길 조성
- 현성권역 종합개발계획 : 남대천 스토리텔링 박물관 조성

〈표1-10〉 주요사업 및 연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합계(49,271)		8,201			5,625			35,445		
합 계		10,212	550	2,005	2,480	650	2,495	17,680	8,250	9,515
자원 증강 사업	방류사업	80			80			80		
	쿼터 확대 사업	200			200			200		
	원료 확보	300		300	400		300	500		300
연구 사업	기능성제품 연구	100		100	100		100	100		100
	회귀 연구	200			200			200		
가공 사업	식품 가공	500	250	250	500	250	250	500	250	250
	가죽 가공	200	50	50	200	50	50	200	50	50
	기타 가공	300	100	200	300	150	250	300	150	250
콘텐츠 사업	공모전			30			30			50
	콘텐츠개발·유통	200	50	150	200	100	100	300	200	200
	콘텐츠 활용	300	100	100	300	100	100	300	100	100
	재산권 등록			50			50			50
	아트센터 건립						600	15,000	7,500	7,500
협력 네트 워크 사업	T/F운영			5			5			5
	자료수집			80			50			50
	기업유치			10			10			10
	포럼개최			30			30			30
	연어해설사 양성			50			50			50
특구지정, 국가사업 신청				100			20			20
연어축제				500			500			500

자료 : 양양군, 연어산업콘텐츠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2009

#### 4)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사업

급격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등산로 및 대청봉을 복원하고 국제적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소득 및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및 모든 국민이 설악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색·설악권 경기침체로 인한 오색·설악권의 공동화를 해소하는데 있다.

##### 〈표1-11〉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사업 개요

- 구 간 : 서면 오색리~관모능선(4.71km, 중간지주 4개)
- 삭도형식 : 자동2선식 곤돌라(8인승 이하)
- 수송능력 : 시간당 1,400명(소요 : 편도 14분 예정)
- 사업비 : 460억원(추정)
- 사업내용
  - 하부정류장 : 오색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인근 나대지
  - 상부정류장 : 국방부 지하벙커 또는 불법 야영으로 인한 기 훼손지
- ※ 상부정류장에서 전망대까지 탐방로는 환경친화형 고가마루를 시설하여 전혀 땅을 밟지 않고 탐방토록 조치(상부에는 환경오염요인 원천 배제)

#### 5)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조성사업

동해안권 광역개발계획(동해안관광벨트)과 관현 동산향 및 죽도해수욕장 등의 공간특성을 반영하여 해양레저활동 중심공간으로 개발한다. 다양한 해양활동 체험 및 해양 레크리에이션 문화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확대 및 변화하는 관광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2〉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동산향 일원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동산향 해양레저기반시설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9~2018년(10년차)
- 사업규모 : 2km
- 사업비 : 11,620백만원(국비 4,910, 지방비 5,210, 민자 1,500)
- 사업내용
  - 시설확충 : 호안정비, 인공어초 투입,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
  - 프로그램 개발 :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바다수영대회, 교육프로그램 등

## 6) 소도읍 육성사업

쇠퇴화된 양양읍 시가지를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현대 감각에 걸맞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참여하였다. 전국단위 전문가들이 심사한 사업계획에 우리군이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사업의 위치는 양양읍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중심테마가로 조성, 현산 열 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71백만원(국비5,000, 지방비7,371)이며 2009~2012년 12월(4년간)까지 추진하게 된다.

## 7)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남북통일·환동해권시대의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까지 1시간대 생활권이 형성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양양지방은 지역개발의 일대 혁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3〉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개요

- 총 구 간 : 150km(서울~춘천~양양)
  - ※ 민간투자 : 서울 ⇄ 춘천(61.4km), 정부투자 : 춘천 ⇄ 양양(88.8km)
- 사 업 비 : 9,501억원(인제~양양 : 22,26km)
- 주요시설 : 서림IC 1개소
- 사업기간 : 2008.12.~2015.12.(7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서울~춘천 구간(61.4km) : 2009. 7.15. 개통
  - 춘천~동홍천 구간(17.1km) : 2009.10.30. 개통
  - 동홍천~양양 구간(71.5km) : 2015년 준공예정

## 8)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여름피서·단풍철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양양국제공항·동서고속도로 등을 연결하는 물류 산업도로 역할을 담당하고자 건설하게 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맞물려 시너지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1-14〉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국책사업) 개요

- 총연장(삼척~고성) : 146.6km (주문진~속초 : 44.32km)  
※ 44.32km = 35.3km(관내구간) + 9.02km(속초일부구간)
- 사업비 : 1조 324억원(주문진~속초간)
- 주요시설 : IC 3개소(하조대, 양양, 북양양), JCT 1개소(양양)
- 사업기간 : 2004.12.~2015.1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남~하조대IC 구간(1~2공구) : 2009.11.27. 개통  
※ 하조대IC 이후 일부 구간 : 2012. 12월 준공 예정
  - 4공구~5공구 : 2015.12. 준공 예정

## 9)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송이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특색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산림휴양 수요가 다양화되고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의 증대추세에 맞추어 가족중심의 체제형 및 체험형 산림휴양림을 조성한다.

### 〈표1-15〉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개요

- 사업장 위치 :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8필지
  - 개발구역내 포함여부 : 포함
  - 개발구역 명칭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개발구역
- 사업기간 : 2008. 5.~2011.12월(설계 1년, 조성 2년, 보완 1년)
- 면적 : 42.75ha(427,500㎡)
- 사업비 : 5,541백만원(신활력 817, 국비 2,272, 도비 578, 군비 1,874)
- 사업량 : 산림문화휴양관의 4개 시설 17종
- 사업내용 :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송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체험형 자연휴양림 조성



## 1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역사·문화 및 지역특성에 부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녹색체험과 교육이 병행된 특성화된 시설설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다.

사업장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일원(506~3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량은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1식이 된다. 사업비로는 총 106억원(국비53, 도비15, 군비38)이 투자된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백두대간 최고의 생태교육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 1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국산 목재문화 변천사를 알리고 지역정서에 특화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국산목재 조성으로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체험활동(DIY) 가능한 오감(五感) 만족 코어존을 형성하게 된다.

사업장 위치로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야외전시시설 등 관람시설 외 부대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5,196백만원(국비 2,598, 도비 779, 군비 1,819)이 2010~2012년까지 투자된다.

집필 : 함석중, 이재섭, 정석중, 김진하



## II. 축제

선사시대인 (B.C.6000~4500년경) 신석기인들이 손양면 오산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석기 문화를 형성하며 당대의 산업과 문화를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문화를 토대로 근세에는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와 함께 동해바다의 신을 위무하기위해 동해 제1의 성소(聖所) ‘동해신묘’에서 국가주관으로 제사를 봉행하던 ‘동해신묘 제례’와 진 전사지, 선림원지 등 불교의 근원이 있는 불교문화의 발상지, 불교문화를 꽃피운 동해안 문화중심으로 자리 매김 해왔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인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하천 남 대천과 백두대간은 독특한 전통문화를 형성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현대에 이르러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1979년 현산문화제위원회를 구성 ‘제1회 현산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후로 현산문화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제31회 현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흩어져 있던 양양의 전통 문화들이 표현되고 발전되어 전국에 그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리적 여건상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대문화예술진흥의 토대가 되었다. 2009년 현재 양양문화예술발전의 기반이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향후 양양의 전통문화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 주민소득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 제1회 ‘해맞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1997년에는 제1회 ‘송이축제’를 개최하였다. 2009년에는 제13회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해맞이축제’는 14회째 행사를 개최하였다. 축제를 거듭 개최해 오는 동안 송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축제평가에서 육성축제 2회, 우수축제 9회, 최우수축제 2회를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연어축제와 더

불어 일본, 동남아, 호주, 유럽 등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축제이다.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교통·관광산업의 발달로 각 자치단체마다 독특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양양의 축제는 그 명품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축제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현산문화제

고려 목종 10년(1007년) 현재의 양양읍 성내리를 중심으로 양주성을 축성, 외적의 침입을 수호하는 기지로 삼고 순국영령 위로와国泰민안, 풍년을 기원하는 장군성황제를 지냈는데 그 제례의식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양양에서는 매년 단오를 전후하여 ‘현산문화제’를 개최



현산문화제

하고 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례행사와 전야제, 각종 민속놀이 등으로 온 군민이 참여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을 전승하는 뜻 깊은 문화행사인 ‘양양현산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양양군민의 신명나는 화합의 축제이기도 하다.

### 〈표2-1〉 현산문화제 행사개요

- 개최일시 : 매년 단오 전후 3일간
- 축제장소 :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문화복지회관 등)
- 참여인원 : 연인원 80,000여 명
- 주 최 : 현산문화제위원회
- 주 관 : 양양문화원
- 후 원 : 속초경찰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릉보훈지청, 충무부대, 일출부대, 해군108전대, 강릉 MBC, GTB, YBS,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설악신문
- 행사내용
  - 장군성황제 : 고치물제, 성황제
  - 전야제행사 : 양고밴드행렬, 영신농악행렬, 가장행렬(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청성 풍물패, 어린이농악, siaa밴드, 제등행렬, 사회단체 시가행진, 전통무용, 여성회관 과목시연, 장

- 수대학 공연, 한가람풍물패 공연, 군민노래 자랑, 인기가수 초청 공연, 불꽃놀이
- 식전행사 : 기미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가장행렬(양주방어사행차, 대포수군만호행차), 궁도대회, 통배경기, 청소년국악사물놀이 경연
  - 개 막 식 : 대회사, 격려사, 축사, 군민문화상 시상, 축포
  - 식후행사 : 조산·강현·손양초교 농악시연, 양양초교 고적대시범, 어린이유도 시범, 통일 염원 풍선날리기
  - 민속시연 : 수동골상여소리 시연, 동호리멀치후리 시연
  - 민속놀이 : 그네뛰기, 바둑대회, 목침뽑기, 단체줄넘기, 투호놀이, 씨름, 단체줄넘기, 어린이굴렁쇠 굴리기, 물동이이고달리기, 목발달고 달리기, 어린이세발 자전거대회, 옷놀이(남, 녀), 노인 공굴리기, 널뛰기, 줄다리기, 장기대회, 탁장사놀이
  - 경축문화행사 : 한시백일장, 회화대회, 상평초교 기악합주, 시낭송 및 각종댄스 공연, 문화원민요·클래식기타 연주회, 추성판소리 공연, MBC가요베스트 공연

자료 : 현산문화제위원회, 2009년도 제31회 현산문화제 결과보고서

## 2. 송이축제

### 1) 개최배경

송이는 대부분의 다른 버섯과는 달리 죽은 나무에서 발아하지 않고, 살아있는 20~60년생의 소나무 뿌리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사신에게 선물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으며, 현재에도 송이는 최고의 정성을 담은 귀중한 선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양송이축제’는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소재로 하여 각종의 현장체험을 통해 송이의 생육환경을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으로써 청정지역인 양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의



송이축제 행사장 및 외국인 현장체험

소중함을 동시에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매년 팔목할 만큼의 성장을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2009년도에 제13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축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신활력 지역으로 송이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송이가 양양의 중심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 〈표2-2〉 양양송이축제 행사개요

- 명 칭 : 양양송이축제(YANGYANG SONG-I FESTIVAL)
  - 부명칭 : 천년의 향! 양양송이축제
- 주 제 : 자연과 인간의 조화
- 부 제 : 양양송이와 사랑에 빠진다.
- 슬 로 건 : 재미있게, 신나게, 실속있게!(재미있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실속있게 구입하자)
- 기 간 : 매년 추석전후(5일간)
  - 외국인 현장체험 : 30일간 / 관내호텔 송이요리페스티벌 : 30일간
- 장 소 :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송이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양양주재 언론사
- 관광객수 : 매년 40~50만명
- 예 산 액 : 8억원 내외(국비·도비·군비)
- 추정 경제파급(관광소비) 총 파급효과 : 130억원 내·외
- 행사내용
  - 개막행사 : 산신제, 개막식(식전행사-퓨전타악공연 등), 개막축하공연
  - 현장체험행사 : 외국인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생태견학, 송이보물찾기, 동호리멸치후리기, 송천리떡마을체험, 어성전탁장사체험 및 홈스테이, 낙산배따기체험, 밤줍기체험
  - 문화예술행사 : 탁상자 놀이, 전통혼례 재현, 현대무용공연, 청소년댄스공연, 국악공연 및 전통예술포럼, 레크레이션, 야간무대공연, 군민화합 문화예술제
  - 맛체험행사 : 송천떡만들기, 송이요리전문점, 송이요리페스티벌, 송이요리시식
  - 기타행사 : 양양송이알아맞히기 및 낙산배깎기 대회, 송이마라톤대회, 송이배배드민턴대회, 송이배축구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 상설행사 : 송이주제관, 분재전시, 전통민예품만들기, 낙산배 판매·품평회 및 전시, 특산품 판매점운영, 꽃누름·천연염색 전시 및 체험, 양양송이직거래장터운영, 양양관광기념품 판매, 로봇전시 및 체험, 킷체험, 민속놀이마당, 페이스페인팅, 송이돌이만들기 및 도자기체험, 사진전, 시화전, 야생화·허브전시회, 송이홍보관운영, 송이조각공원운영, 무선함운영, 소달구지체험, 축제종합안내소 운영, 셀프송이볼링장, 송이생태산책로 및 송이주막 운영
  - 거리행사 : 송이홍보단 퍼레이드, 길놀이

## 2) 송이의 우수성

송이의 효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성덕왕 3년(704년)에 송이를 왕에게 진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원년에 명나라에 송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송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술 냄새가 난다. 이것은 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서 술 기운을 받으면서 돋는 것으로 버섯 가운데서 제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억제효과, 혈액순환증진,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성인병 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송이버섯의 단백질과 비타민 성분은 편도선, 유선염, 탈하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성분 중 유리 지방산에는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매우 높게 존재하고 있으며, 무기질 함량은 일반 버섯류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칼륨의 경우는 느타리의 10배, 양송이의 약 40배 정도, 목이버섯의 약 3배 정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철분 또한 타 버섯류의 10배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산림청 지리적표시제등록 제1호 ‘양양송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송이! 송이는 매년 그 해 기온, 습도의 여부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만큼 환경에 민감하여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100% 자연산이다. 날씨, 토양 등 최적의 자연환경 백두대간에서 자라난 ‘양양송이’는 국·내외 타 지역 송이에 비해 수분함량이 낮아 육질이 두텁고 단단하며 영양도 풍부하다. 특히 송이 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연구팀에 의해 증명되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 ○ ‘산림청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연어축제

#### 1) 개최배경

양양지방의 하천은 우리나라의 영서 및 내륙지방과는 달리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하천들이 대부분 연장이 짧고 급경사를 이룬다. 또한 타지역과는 달리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그 청정성 또한 잘 유지되고 있다. 특히 양양을 끼고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은 하구의 강폭 유역이 넓고 강물이 깨끗하여 토착어종 및 회유어종이 모천으로 살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연어축제장 전경(탁본뜨기 및 외국인 맨손잡이체험)

남대천에서 부화되어 바다로 나간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 및 베링해를 거친 후 자라서 알을 낳기 위해 되돌아오는 데는 약 3~5년 정도가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하천이 18개정도이며 이중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전체의 약 70%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년 대청봉과 백두대간의 산봉우리들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남대천으로 연어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연간 약 18,000마리 정도의 연어가 남대천으로 올라온다.

남대천에 어도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알을 낳기 위해 남대천 상류인 어성전, 범수치까지 올라왔다고 전해지지만, 최근에는 홍수가 잦고 인적·물적 피해 늘어나면서 하천 치수차원에서 ‘보’를 설치함에 따라 서면 용천리 상류로는 연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연어자원 증강을 위해 손양면 송현리에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

터'를 세우고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강 중간에 그물막을 쳐 포획한 후 인위적으로 인공채란·수정·방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연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연어를 통해 양양을 대·내외에 알리고 양양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남대천을 중심으로 1996년 제1회 연어축제를 개최한 이후 2009년 제13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축제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여왔으나, 2002년도에는 양양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준 '태풍루사'로 인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 〈표2-3〉 양양연어축제 행사개요

- 명 칭 : 양양연어축제(YANGYANG SALMON FESTIVAL)
- 주 제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명의 물
- 부 제 : 인간을 닮은 연어의 삶을 배우며.....
- 슬 로 건 : 생명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체험여행의1번지
- 기 간 : 매년 10월 중순경(2일간)
- 장 소 : 양양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송이축제위원회
- 후 원 : 강원도, 국립수산물자원연구소수성어류연구센터, 한국관광공사, 방송사, 언론사
- 관광객수 : 매년 20만 명 내외
- 예 산 액 : 1억 5천만원 내외(군비)
- 행사내용
  - 개막행사 : 용왕제, 개막식
  - 체험행사 : 연어맨손잡이 체험, 연어뜨기체험, 연어몰이 체험, 재첩 체험, 양양연어OX퀴즈, 자전거 천천히 타기 대회
  - 문화행사 : 농악놀이, 전통소리 재현, 댄스 공연, 지역문화단체 공연, 연어일대기, 전자현악, 경기 민요, 사랑댄스, 파워댄스
  - 상설행사 : 연어탁본뜨기, 냉수성어류연구센터 견학, 연어홍보·교육관, 신종플루확산 방지센터, 허브활용 체험, 공예체험, 페이스페인팅, 허브공예 만들기, 예쁜손 글씨, 비누방울 체험, 나만의 손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꽃누름 전시, 전통규방 체험, 장난감 전시, 양양사진 전시, 국화차 시음 및 판매, 연어요리시식코너, 농·특산품판매코너, 감품종전시, 양양미나리 홍보, 화훼꽃 전시 및 판매, 낙산배 홍보 및 판매, 양양 양봉꿀 판매, 해뜨미 시식 및 판매, 오마니 전갈 판매, 송천떡 체험, 연어판매 및 포장, 연어요리전문음식점, 아이스박스 및 얼음 판매, 재첩요리시식 및 판매

자료 : 양양군, 2009년도 양양연어축제 결과보고서

## 2) 어머니의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생태이야기와 우리의 노력

연어는 3년이면 60cm 정도까지 성장하여 번식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북미, 러시아 등 북반구에 널리 분포하며 산란기는 9~11월경이고, 이때 특유의 혼인색을 띠며 수컷은 위·아래턱이 튀어 나와 구부러진다. 산란절식(産卵節食)하며 험난했던 여정 끝에 모친인 남대천으로 무사히 도달한 연어는 얇은 수심의 모래나 자갈바닥을 수컷이 꼬리로 후두둑 파서 직경 1m 정도의 산란장을 만들어 평균 500~3,000개나 되는 알을 낳는다. 산란을 마치고 자갈 등으로 알을 덮고 나면 암·수 모두 죽는다. 수정된 알은 수온이 12℃ 정도에서 46일 정도면 부화하여 바다로 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묻혀진 연어 알의 부화는 인간에 의해 오염된 환경이나 다른 생물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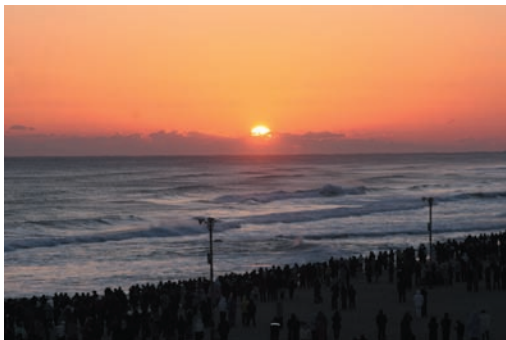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에서는 전문가를 두고 연어의 채포, 수정과 산란, 부화의 과정을 통해 해마다 산란 및 어린연어 방류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하천을 찾는 연어 70% 이상이 모친인 남대천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어린 연어도 70% 이상이 남대천에서 바다로 가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연어산업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촌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차원에서 연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연어를 중심으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연어를 원료로 하는 식품(요리, 2차 가공), 기념품 제작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육성, 기술개발, 원료조달(자체생산, 수출입), 인력·정보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연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북태평양 연어잡이 쿼터 확대, 연어특구 지정 지원, 연어자원 증대, 자원보호, 연어테마 콘텐츠 사업,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 내수면 관리, 연어축제 명품화, 연어관련 기업 유치, 연어콘텐츠 발굴 활용지원, 해외(일본) 연어산업 연구, 연어생태 연구, 연어식품 생산·유통, 연어 부산물 가공 등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브랜드 향상, 연어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고용창출, 관광객 유입 그리고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양양공항 활성화’ 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4. 해맞이축제

양양군이 동해안 중에서도 일출의 고장이라고 손꼽히는 이유는 낙산 의상대 해변가에서 맞이하는 일출이 어느 지역보다 장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뜻 깊은 역사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양양이란 襄(오를 양)자와 陽(해 양)자를 사용하는 곳이라는 뜻이며, 고려시대(1260년)부터 이곳 양양의 동쪽 해안가 낙산에 동해신을 모시는 동해신묘를 건립하여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을 내려 국태민안,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일출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해오름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낙산에서 새해 일을 보며 소원을 빌면 그 해에는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올 만큼 일출의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일출맞이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옛조상의 얼을 기리기 위해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해맞이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 2009년 12월 31일 ‘제14회 해맞이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낙산해수욕장 해맞이 전경



낙산사 범종타종식

#### 〈표2-4〉 양양해맞이축제 행사개요

- ▶ 명 칭 : 양양해맞이축제(The New Year Festival , YANGYANG)
- ▶ 기 간 : 매년 12월 31일 - 1월 1일
- 장 소 : 낙산해수욕장, 낙산사, 오색령정상, 동호리·원포·지경·하조대해수욕장, 기사문항, 인구항, 남애항, 쓸비치, 골든비치리조트 등
- 주 최 : 양양군
- 후 원 : 각 지방 언론사

- 협 조 : 관내 각급 기관단체
- 관광객수 : 매년 20만명 내외
- 예 산 액 : 1억원 이내(군비)
- 행사내용
  - 낙산해수욕장 : 모닥불 밝히기, 락 공연 및 국악 공연, 불꽃 공연, 군수신년인사 방영, 사랑의 떡국 나누기, 동해신묘제례,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송이식품 시식, 연날리기시연
  - 오색령 정상 : 산신제,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떡국 및 커피나누기
  - 동호리 해수욕장 : 모닥불피우기,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감자·고구마 구워먹기
  - 하조대 해수욕장 : 용왕제제례 봉행, 모닥불 밝히기, 촛불 밝히기, 떡·커피 나누기
  - 남애항 : 모닥불 피우기, 불꽃 공연, 떡국 나누기
  - 인구항 : 모닥불 피우기, 송구영신한마당, 촛불 밝히기
  - 지경해수욕장 : 모닥불 피우기, 농악놀이, 불꽃공연 등
  - 원포해수욕장 : 모닥불 피우기, 떡국 나누기, 차 나눔의 시간
  - 낙산사 : 범종 타종식

〈표2-5〉 기상개황(제10회~제14회)

구 분	일 자	날 씨	기 온			평균풍속	일조시간	비 고
			평 균	최 저	최 고			
제14회	2009.12.31.	맑음	-6.5℃	-8.7℃	-3.9℃	6.1m/s	8.6hr	일 출 관 략
	2010. 1. 1.	맑음	-7.6℃	-12.7℃	-3.6℃	7.0m/s	8.3hr	
제13회	2008.12.31.	맑음	-3.5℃	-7.1℃	1.4℃	6.1m/s	8.36hr	일 출 관 략
	2009. 1. 1.	맑음	-1.6℃	-6.4℃	3.9℃	7.0m/s	8.3hr	
제12회	2007.12.31.	맑음	-4.0℃	-6.5℃	0.6℃	4.6m/s	7.5hr	일 출 관 략
	2008. 1. 1.	맑음	-3.7℃	-7.1℃	1.1℃	2.2m/s	8.3hr	
제11회	2006.12.31.	맑음	1.3℃	-1.7℃	6.0℃	2.0m/s	7.2hr	일 출 못 봄
	2007. 1. 1.	약간흐림	4.5℃	-0.3℃	8.9℃	1.6m/s	6.0hr	
제10회	2005.12.31.	눈후흐림	0.5℃	-0.6℃	2.8℃	2.2m/s	0.5hr	일 출 못 봄
	2006. 1. 1.	흐림	2.1℃	-2.2℃	5.7℃	2.4m/s	1.4hr	
제9회	2004.12.31.	눈	-2.7℃	-5.7℃	1.1℃	4.0m/s	1.8hr	일 출 관 략
	2005. 1. 1.	맑음	-2.4℃	-7.6℃	2.8℃	4.3m/s	7.5hr	

자료 : 양양군, 2009년도 양양해맞이축제 결과보고서

## 5. 마을단위축제

마을단위축제는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활기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말을 이용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자연친화적 농산어촌의 생활과 체험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마을 단위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2009년도 마을단위 축제로는 갈천리 치래마을 산나물 축제, 서림리 해담마을 돌탑쌓기 축제, 황이리 황룡마을 축제, 동호리 멸치후리기 체험, 하광정리 바캉스를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어성전2리 탁장사 마당놀이 축제, 원일전리 금풀애 옥수수 축제, 두창시변리 어린 모래톱 축제, 원포리 순백의 해변 한여름 축제, 인구1리 어울림 체험 이벤트, 지경리 여름해변 축제 등 총 11개이다.

〈표2-6〉마을단위 축제 현황

읍면	축 제 명	기 간	행 사 장 소	행 사 내 용
계	11개			
서면	갈천리치래마을 산나물 축제	5월중순	갈천리 산촌체험장	· 산나물채취 체험행사, 구룡령 옛길 등산 · 갈천약수 마시기 대회
	서림리 “해담마을 돌탑쌓기 축제”	7월중순	서림마을 휴양지 일원	· 돌탑쌓기체험, 은어맨손잡기 · 수륙양용차 체험 등
	황이리 “황룡마을 축제”	10월초순	황이리 일원	· 얼음굴 등산, 부엉이 만들기 · 불바라기 약수체험
손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9월중순	동호해수욕장	· 전통 그물후리기방식의 멸치잡기체험
현북	바캉스를 하조대해수욕장에서	7~8월	하조대 해수욕장	· 맨손조개잡이, 오징어잡이 · 미니축구, 후리그물 당기기
	탁장사마당놀이	8월중순	어성전2리 탁장사마을	· 탁장사 마당놀이 · 전통떡만들기
	금풀애 옥수수 축제	8월초순	원일전리 일원	· 옥수수따기, 옥수수 떡만들기 체험 등
현남	어린모래톱 축제	7~8월	죽도해수욕장	· 선상배낚시, 뗏목놀이, 백사장 썰매끌기 등
	순백의 해변 한여름 축제	7~8월	원포해수욕장	· 후리그물당기기, 오징어맨손잡기
	어울림체험이벤트	8월중	인구해수욕장	· 낚싯배 체험, 선상바다 관광체험
	지경리 여름해변 축제	7~8월	지경해수욕장	· 감자케기, 옥수수따기 · 발우봉 등산, 모래성 쌓기 등

자료 : 양양군, 2009 마을단위 축제개최 현황





### Ⅲ. 체 육

#### 1. 체육의 발자취

양양군의 체육은 1920년대부터 “단양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단오절을 기하여 대제전으로 발전하여 왔다. 당시 남대천변에서는 군민의 안녕을 비는 별신굿을 5~6일씩하고 관동축구대회를 비롯한 민속행사를 개최한 것이 양양체육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8·15광복을 계기로 신체 단련을 위한 무예와 군사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현대적 체육으로 전환되었다.

6·25한국전쟁을 거치고 수복이후인 1955년 4월 군체육회가 창립되어 양양공설운동장(현재의 충용APT부지)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규모가 커지면서 운동장이 협소하여 양양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개최하였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각종체육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1989년에 남대천 둔치일원에 9,600㎡규모의 운동장시설을 조성하고 1990년도부터 제22회 군민체육대회와 제12회 현산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한편 1960년대 초부터는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팀이 창단되어 사이클의 고장으로서의 초석을 다져오던 중 1983년에는 양양여자고등학교, 1991년도에는 양양군청 여자사이클팀을 창단하였다. 특히 양양군청 여자사이클팀은 1996년도에 해체하고 남자사이클팀을 재창단하여 사이클의 고장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그동안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한 결과 국내외의 유수한 각종대회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등 국가대표선수 등을 다수 배출하여 국위선양에도 일조하였다.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사회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체육이 강조되면서 1991년 7월 양양군생활체육협

의회가 창립되었다. 산하의 종목별연합회에서는 각종대회를 유치하는 등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91년도에는 양양읍 서문리 146번지에 양양실내체육관을 준공하여 각종행사나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양양군은 계속하여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오다가 2009년 양양국제공항 입구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에 양양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전용 벨로드롬 등)을 조성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양양체육의 발자취와 체육단체 활동상황 및 체육시설을 살펴보고 군내 17개 체육 가맹단체 중에 특히 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사이클연맹의 활동상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2. 양양군체육회

### 1) 개황

본 체육회 설립목적은 체육진흥법에 따라 범 군민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총괄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지도 육성하여 군민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양군체육회는 1955년 4월 7일 발족되어 초대회장으로 박태송 씨가 선임되어 선출직 회장제로 운영되었으며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양양과 속초와 고성군의 토성면 일대를 포함하는 넓은 구역으로 되어있었다.

1961년 3월 5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강원도지부 양양군체육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회장에 심호은(沈湖殷)군수가 선임되어 활동하여 오면서 역대회장<표3-1>은 1965년부터 군수가 당연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매년 추절기(秋節期)에 정기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열고 각 면은 춘추기(春秋期)를 택해 매년 정기적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회 업무는 영동권투체육관(1960년 개관)초대 관장을 지낸 최은환 씨가 1978년부

터 양양군청 체육회 간사로 임명되어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양군 체육발전에 공헌 하였으며, 1990년 2월 12일자로 정명시 군수 재임시 이광형 씨가 간사로 임명되어 새마을과 건전생활계에서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1월 21일자로 양양군청에서 관장하던 체육회 업무를 양양군체육회로 이관되어 체육회사무국 사무국장에 이광형씨가 임명되면서 부터 체육업무 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양양읍 남문 4리 양양문화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에 1966년 제1회 대회부터 매년 참가하여 왔으나, 출전성적 <표3-4>은 1960년부터 1979년까지 도내 17~19위권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부진을 보였으나, 1980년부터 종합순위 채점방식이 변경되어 참가시군을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대회를 운영하면서 양양군은 2부에서 1996년과 1997년 연속 4위를 기록한바 있으며 이후 7~8위권으로 하위 수준으로 있었으나 최근 부진 종목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2008년도에 5위 2010년도에는 6위를 하는 등 성적향상을 이룬바 있다

<표3-1> 체육회 역대회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대	이 건 웅	1965. 3.27.~1967.12. 1.	
2대	최 해 규	1967.12. 2.~1971. 8.20.	
3대	지 원 용	1971. 8.21.~1973. 8. 3.	
4대	원 락 희	1973. 8. 4.~1976.12.25.	
5대	최 계 명	1976.12.26.~1979. 4. 3.	
6대	조 성 운	1979. 8. 4.~1979. 7.31.	
7대	정 준 시	1979. 8. 1.~1981. 6.30.	
8대	장 재 현	1981. 7. 1.~1982. 9.17.	
9대	이 종 남	1982. 9.18.~1986. 4. 7.	
10대	권 영 일	1986. 4. 8.~1986.12.23.	
11대	권 혁 신	1986.12.24.~1988. 2.21.	
12대	이 종 호	1988. 2.22.~1989. 3. 7.	
13대	정 명 시	1989. 3. 8.~1993. 3.28.	
14대	김 창 수	1993. 3.29.~1994. 6. 2.	
15대	은 희 성	1994. 6. 3.~1995. 6.3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6대	오 인 택	1995. 7. 1.~1998. 6.30.	
17대	오 인 택	1998. 7. 1.~2002. 6.30.	
18대	이 진 호	2002. 7. 1.~2006. 6.30.	
19대	이 진 호	2006. 7. 1.~ 현 재	

&lt;표3-2&gt; 체육회 이사회 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	구 분	성 명	직 위
회 장	이진호	양양군수	이 사	강재봉	배구협회장
상임부회장	임용식	전강원도의회 의원	이 사	이응관	탁구협회장
부 회 장	이계동	양양군 부군수	이 사	정준영	핸드볼협회장
부 회 장	이상집	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이 사	방양호	사이클연맹회장
부 회 장	김일수	양양군의회 의원	이 사	신재석	복싱연맹회장
상임이사	오한석	양양군 문화관광과장	이 사	박용갑	씨름협회장
이 사	박필용	강원일보 양양지사장	이 사	이상구	유도협회장
이 사	김준영	도민일보 양양지사장	이 사	최화길	검도협회장
이 사	정준화	양양생활체육회 회장	이 사	안태현	궁도협회장
이 사	한기인	양양읍 성내리 11	이 사	윤강희	사격연맹회장
이 사	김형식	양양중 · 고등학교장	이 사	임원규	역도협회장
이 사	박순원	양양중 · 고등학교체육부장	이 사	박하영	태권도협회장
이 사	윤무진	양양여자중 · 고등학교장	이 사	김준식	볼링협회장
이 사	조길현	양양여자중 · 고등학교체육부장	이 사	이석천	골프협회장
이 사	선창영	육상연맹 회장	이 사	최익순	우슈협회장
이 사	장명진	수영연맹 회장	이 사	김순교	요트협회장
이 사	김태호	축구협회장	이 사	최선남	인라인협회장
이 사	정병추	야구협회장	이 사	김시범	배드민턴협회장
이 사	주현식	테니스협회장	감 사	이태우	양양임협대표
이 사	노송현	정구협회장	감 사	진한초	체육진흥담당
이 사	백종호	농구협회장			

## 2)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1) 육상연맹

양양군 육상은 1980년 5월 선창영 초대회장을 주축으로 차지성씨 등 이사 18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대 이상형 회장, 3대 김시범 회장을 거쳐 1995년 4대 회장으로 선창영 회장에 이르러 육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울산시청 소속 지도자로 활동 중인 한국기록 보유자 최종범을 발굴하였고, 양양출신으로 발군(拔群)의 실력을 보유한 정만용 육상코치를 설득 영입하여 관내 초, 중학교 순회 교육을 하여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9년도에는 양양군체육회장기 초, 중학교 육상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육상 꿈나무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 (2) 수영연맹

1990년 초등학교 수영을 가르치던 한기인 선생을 중심으로 1993년 창립하여 1996년 장명진 씨를 초대회장으로 하고 한기인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수영연맹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양양초등학교 출신인 박정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한국 수영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3) 축구협회

1981년 이강원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여 정규 운동장 부재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89년 남대천 둔치에 축구장을 마련 현재 동호회 성격의 7개 클럽이 활동중이다. 축구 동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8년도에 군 지원하에 양양중고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고, 2009년도에는 남대천 둔치에 천연잔디 운동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이클 벨로드롬 옆에 인조잔디 운동장 건립계획이 있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4) 야구협회

2002년 5월 초대회장으로 이주호 씨를 추대하여 송ैया구단 창단과 함께 야구협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연ैया구단을 창단하여 양대 구단체제로 운영되었다. 2005년 제2대 야구협회장에 취임한 정준화씨는 2006년에 둔치에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건립하고, 옆에 보조경기장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미래의 꿈나무 육성의 중요함을 실감하고 2007년 5월에는 강원도 최초로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양양군청야구팀인 오래오래야구단을 창단 양양군 홍보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 (5) 탁구협회

1983년 초대회장으로 박문수 씨를 추대하여 출범한 탁구협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군에 수차례 탁구장 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양양읍 서문리에 250㎡ 규모의 탁구장을 2005년 5월에 완공하게 되었다. 그 이후 군민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제6회 강원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6) 핸드볼협회

1975년 박광준 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출범한 핸드볼협회는 당시 양양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양양명륜기술중학교, 3개 학교에 핸드볼을 지원하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8년 제2대 이종영 회장이 취임하면서 양양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양양여중, 양양중, 양양여고에 핸드볼 종목 확대 편성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제6대 정준영 회장이 취임하여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 하는 등 핸드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7) 사이클연맹

1960년대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팀 창단으로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며 사이클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 하는 등 양양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힘썼으며 좀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996년 7월 박충규 씨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현재 제5대 방양호 회장에 이르는 동안 양양여자중·고등학교 및 양양중·고등학교 지원, 그리고 양양 사이클인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벨로드롬 경기장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지성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에 엄인영 선수가 출전하는 등 한국 사이클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8) 유도협회

양양군 유도협회는 1996년 초대 임원규 회장을 추대하였으며 2001년 진순조(백호유도관 관장)가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유도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현산문화제 및 어린이날 유도시범으로 유도 대중화 및 부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9) 양양군 궁도협회

1976년 5월 10일 양양군궁도협회가 현산정이라는 명칭으로 초대회장에 박춘섭 씨를 추대하여 창립하였다. 당시 고노골 궁도장을 이용하다가 1989년 남대천둔치로 이전, 확장 신축하며 많은 궁도인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현산문화제기념 양양군 궁도협회장기 강원도남·여궁도대회를 2009년부터 제1회 양양군수기 강원도남·여궁도대회로 승격시켜 2010년 2회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본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양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섰으며, 2010년 현재는 제14대 안태현 협회장이 궁도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10) 사격연맹

1996년 1월 초대회장에 최무사를 추대하여 클레이사격 분과 위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02년 제 3대 회장 정연창이 취임하며, 양양상평초교에 꼬마사격단 창단하여 꿈나무 사격인 양성에 노력하였고, 2003년에는 양양군 실내사격장건립 사격인들이 마음놓고 연습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2010년 3월 전국마스커즈 사격대회를 유치하는 등 사격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1) 역도협회

양양군 역도협회는 2008년 5월 초대 임원규 회장을 추대 창단 첫째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비록 열악한 시설인 현 남중학교 5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 연습장이지만 초·중·고 학생 11명이 양양역도의 명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역도협회는 전 역도선수 출신 김주원 코치를 새로 영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12) 태권도협회

1990년 박용길 초대회장을 추대하여 창립한 태권도 협회는 10여년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현재는 제3대 박하영회장이 관내 4개 도장 관원들을 중심으로 태권도 발전은 물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3) 골프협회

1994년 임병철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출범한 양양군 골프협회는 2010년 6월 현재 양양골프회, 그린골프회, 현산골프회, 서면골프회, 손양골프회, 현북골프회, 현남골프회, 강현골프회, 잔디골프회, 한마음골프회 등 10개 동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동해안 최고의 시설인 골든비치 골프장에서 정기전을 갖는 등 군민들의 체력단련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4) 요트협회

2004년 김순교를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출범한 요트협회는 군에 수차례 요트마리나 시설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손양면 수산항에 동해안 최대의 요트마리나 시설을 2009년 6월 완공하였다. 2009년 완공기념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와 2010년 제 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성공리 개최하여 전국의 요트인들에게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최신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앞으로 전문요트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15)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양양군 인라인스케이트 협회는 2007년 최선남 초대회장을 추대하며 결성되었다. 설립해에 양양군과 협의하여 기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확장하였으며, 인라인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10년 현재 45명의 유망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연합회장기 강원도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 300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16) 배드민턴 협회

1993년 3월30일 김승주 회장을 추대하여 창립한 협회는 양양군 실내체육관과 양양 초등학교 다목적실을 훈련장소로 이용하며, 각종 대회에 참여하면서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매년 송이축제행사시 도단위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양양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다.

이상의 양양군체육회 산하단체 외에도 테니스협회(회장 : 주현식), 정구협회(회장 : 노송현), 농구협회(회장 : 백중호), 배구협회(회장 : 강재봉) 복싱협회(회장 : 신재석), 씨름협회(회장 : 박용갑), 검도협회(회장 : 최화길), 볼링협회(회장 : 김준식), 우슈협회(회장 : 최익순), 등이 산하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경기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3-3〉 역대도민체육대회전적

시군별/회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7회	18회	19회	24회	25회
춘천시	1	1	1	1	2	1	1	1	1	1	1	1	2	1	1	1	2	1	2
원주시	2	2	3	3	1	2	2	3	4	3	3	4	3	4	3	3	3	3	1
강릉시	7	6	5	6	6	7	3	2	2	2	2	3	5	3	2	2	1	2	3
동해시	-	-	-	-	-	-	-	-	-	-	-	-	-	-	5	5	4	6	5
태백시	-	-	-	-	-	-	-	-	-	-	-	-	-	-	9	9	10	8	12
속초시	4	4	6	5	5	9	9	9	6	6	8	9	9	15	10	7	9	9	14
삼척시	-	-	-	-	-	-	-	-	-	-	-	-	-	-	-	-	-	10	21
홍천군	6	5	4	5	4	4	4	8	7	8	7	6	4	-	7	10	8	5	11
철원군	13	12	17	19	17	16	19	12	13	14	1	18	19	16	3	2	2	6	18
명주군	7	8	13	16	7	3	7	7	5	5	5	5	8	6	7 (2부)	8 (2부)	3	7	19
삼척군	3	3	2	2	3	6	6	4	3	4	6	2	1	2	4	4		11	20
춘성군	9	9	11	9	15	9	5	5	10	11	11	7	6	5	1	1	1	3	7
횡성군	10	17	13	15	9	15	15	13	15	12	15	14	13	13	5	3	6	7	9
원성군	12	15	10	7	11	11	16	16	19	10	12	8	14	18	4	4	4	1	4
영월군	5	7	8	13	8	10	8	6	9	7	4	10	7	7	6 (2부)	8 (2부)	7 (2부)	2	8
평창군	18	11	15	8	19	17	13	15	11	8	16	11	12	11	9	7	5	5	6
정선군	15	17	19	17	14	13	12	11	14	17	9	13	11	8	8	6	6	4	15
화천군	11	14	7	10	12	8	10	10	12	15	13	12	10	10	2	6	8	8	17
양구군	8	10	9	18	16	14	11	14	8	13	14	16	16	12	6	5	7	4	10
인제군	17	19	18	11	10	12	17	17	16	19	10	17	15	14	10	11	9	11	13
고성군	14	15	16	14	18	19	14	18	18	18	19	19	17	19	8	10	11	9	16
양양군	16	13	12	12	12	18	18	19	17	16	17	15	18	17	11	9	10	10	22

〈표3-3〉 역대도민체육대회전적

시군별 회별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	43회	44회	45회
춘천시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2	2	2	2
원주시	3	3	3	4	2	3	3	2	3	2	2	3	3	4	3	3	3	4	4
강릉시	2	2	2	2	3	2	2	3	2	3	3	2	1	2	2	1	1	1	1
동해시	4	7	5	6	8	5	5	5	4	6	8	4	6	5	6	5	5	5	3
태백시	8	9	9	7	5	8	8	7	8	7	6	6	4	6	5	6	7	3	6
속초시	9	5	4	3	4	4	4	4	6	4	4	8	7	7	7	7	8	8	7
삼척시	11	6	8	11	7	7	7	9	9	9	7	7	9	9	9	4	4	7	5
홍천군	5	4	6	5	5	6	6	6	5	5	5	5	5	3	4	8	6	6	8
철원군	6	5	6	11	3	2	2	2	2	1	9	9	8	8	8	9	9	9	9
명주군	7	10	7	8	-	-	-	-	-	-	-	-	-	-	-	-	-	-	-
삼척군	10	11	11	9	-	-	-	-	-	-	-	-	-	-	-	-	-	-	-
춘성군	1	1	1	1	-	-	-	-	-	-	-	-	-	-	-	-	-	-	-
횡성군	2	3	4	8	4	5	7	6	8	4	2	2	1	1	2	1	2	1	1
원성군	4	4	5	5	-	-	-	-	-	-	-	-	-	-	-	-	-	-	-
영월군	3	2	3	3	2	3	3	3	4	5	6	9	4	7	6	6	7	6	8
평창군	7	7	7	10	7	8	8	8	5	6	4	7	9	6	7	3	9	8	9
정선군	6	8	10	10	9	9	9	8	7	8	9	6	6	8	8	5	6	4	4
화천군	8	9	11	9	9	7	6	4	3	3	3	3	3	2	5	8	8	7	5
양구군	5	6	2	2	1	1	1	1	1	2	1	1	2	3	1	4	4	2	2
인제군	11	8	9	6	6	9	9	9	9	9	5	8	5	4	3	2	3	5	7
고성군	10	11	10	4	5	6	5	7	6	8	7	4	8	5	4	7	1	3	3
양양군	9	10	8	7	8	4	4	5	7	7	8	5	7	9	8	9	5	9	6

### 3. 양양군생활체육회

#### 1) 개황

우리나라 체육의 추세는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중심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도 접어들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

간의 증대는 생활체육 욕구의 확대를 가지고 왔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1991년 1월 8일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는 임시사무국을 1991년 4월 29일 개설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 창립총회 및 시군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도 동일일에 창립하여 2010년도에 축구, 배구 등 총 22개 종목에 1,663명의 회원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다.

양양군생활체육회는 2009년 12월 16일 양양군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 생활체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명칭을 생활체육회로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3-4〉 생활체육회 역대회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대	한 재 덕	1991. 7. 1.~1993. 2. 1.	
2대	김 철 용	1993. 2. 2.~1995. 2. 1.	
3대	김 철 용	1995. 2. 2.~1997. 2. 1.	
4대	김 철 용	1997. 2. 2.~1999. 2. 1.	
5대	한 재 덕	1999. 2. 2.~2001. 2.28.	
6대	박 응 길	2001. 3. 1.~2007. 6.30.	
7대	정 준 화	2007. 7. 1.~ 현재	

## 2) 생활체육회 주요기능

생활체육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전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및 종목별 연합회 관리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동호인활동의 지원과 육성,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생활체육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3) 생활체육회 주요사업 현황

〈표3-5〉 생활체육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경기종목	직 위	성 명	경기종목
고 문	한재덕	-	당연직이사	강 재 봉	배 구
회 장	정준화	-	"	신 혜 정	생활체조
부 회 장	김시범	-	"	전 인 원	게이트볼
선임이사	최화길	-	"	이 응 관	탁 구
선임이사	이영록	-	"	박 하 영	태 권 도
선임이사	이태우	-	"	윤 강 희	사 격
당연직이사	김태호	축 구	"	주 현 식	테 니 스
"	김익환	수 영	"	김 시 범	배드민턴
"	김동일	스킨스쿠버	"	최 선 남	인라인롤러
"	김운수	풋 살	"	장 용 구	등 산
"	방양호	자 전 거	"	정 병 찬	국학기공
"	정병추	야 구	"	박 광 수	검 도
"	김영기	마 라 톤	감 사	김 익 환	-
"	김동월	댄스스포츠	"	진 한 초	-
"	안태현	궁 도	사무국장	전 형 준	-
"	이정섭	족 구			

## (1) 생활체육교실

○ 기 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간 유대강화

○ 사업종목 : 수영, 에어로빅, 건강체조, 어린이발리댄스, 축구, 탁구,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요가

○ 참여인원 : 18,000명

## (2) 어린이체능교실

○ 기 간 : 3월~12월

○ 사업목적 : 체육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체 및 체력발달 도모

- 사업종목 : 수영(문화복지회관), 배드민턴(관내 초등학교 출장 지도)
- 참여인원 : 1,400명

### (3) 청소년 체련교실

- 기 간 : 5월~10월
- 사업목적 :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유대 강화
- 사업종목 : 길거리농구대회, 클럽대항축구대회
- 참여인원 : 200명

### (4) 여성생활체육강좌

- 기 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집단일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소홀한 수 있는 여성의 건강 제고
- 사업종목 : 수영, 요가
- 참여인원 : 1,300명

### (5) 장수노인체육대학

- 기 간 : 5월~11월
-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유도
- 사업종목 : 게이트볼
- 참여인원 : 500명

### (6)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 기 간 : 9월~10월
- 사업목적 : 청소년의 건전하고 밝은 여가생활 기회제공
- 사업종목 : 풋살경기 등
- 참여인원 : 200명

### (7) 각종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기 간 : 1월~12월
- 사업목적 : 우리군 개최 생활체육대회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 사업종목 : 30여개 대회
- 참여인원 : 15,000명

## 4. 양양군장애인체육회

### 1) 개황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대회 개최로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관심부족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소수의 인원만을 출전시켜 대중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7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2005년 11월 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7년 5월 30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계기로 시·군 지부 설치를 중용하였으나 강원도에서는 2009년 3월 속초시 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게 설립되었다.



곰두리배구단 창단 당시 연습(2007년)

양양군에서는 2007년 6월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부회장이었던 전인원 씨를 중심으로 장애인곰두리게이트볼단이 결성되어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해 10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이던 고정순 씨를 중심으로 곰두리좌식배구단을 결성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활동이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 장애인협회는 2008년부터 수영, 파크골프, 보치아 등 9개 종목의 동아리를 구성 활동해 오다가, 장애인체육회 설

립을 위해 양양군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김장호 씨 등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3월 16일 창립이사회를 거쳐 군수 이진호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 곰두리좌식배구단】

- 창단일시 : 2007. 10.
- 연습장소 : 양양군 실내체육관
- 인 원 : 11(감독1, 선수10)
- 연습일시 : 매주 화, 목

## 2) 장애인체육회 기능

양양군장애인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 육성발굴 및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표3-6〉 장애인체육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직 위	직 위	성 명	직 위
회 장	이진호	군 수	이 사	강영원	고려당대표
수석부회장	김장호	지체장애인지회장	이 사	이정섭	족구연합회장
부 회 장	정준화	생활체육회장	이 사	김영화	라이온스클럽회장
부 회 장	김재경	농아인지부장	이 사	이봉섭	탁구전무이사
부 회 장	강경수	시작장애인지회장	이 사	진영철	좌식배구회장
상임이사	오한석	문화관광과장	이 사	박원대	보치아회장
이 사	전인원	게이트볼회장	이 사	김윤식	바둑회장
이 사	백인현	수영회장	이 사	홍윤표	정다운마을 대표
이 사	김삼호	파크골프회장	이 사	이종석	동우대검임교수
이 사	함흥영	실내조정회장	감 사	진한초	체육진흥담당
이 사	이상도	탠덤사이클회장	감 사	엄상태	태웅건축설계대표
이 사	조대형	탁구회장	사무국장	고정순	

## 5. 양양군체육시설

### 1) 양양종합경기장 건설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경기장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양양종합경기장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93,623㎡)에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말 현재 부지확보실적은 70,233㎡(74.8%)이며, 2010년에는 경기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 추진은 잔여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1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종합경기장이 건설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체육시설을 집중관리하게 됨으로서 군민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과학적인 선수관리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에서 보다 발전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2) 양양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벨로드롬) 건설

양양군은 지난 2009년 2월 24일에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본 시설의 조성목적은 군민의 체위향상과 사이클 고장의 전통을 이어가며 사이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양양종합스포츠타운 및 사이클 전용벨로드롬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위치는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 일원에 건설되며,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3월까지 3년간 280억원이 투입된다. 총면적은 104,991㎡이며, 축구장 1면(100m×68m), 육상트랙 8레인, 부대시설로 주차장, 광장, 체육공원 등이다.

사이클 전용벨로드롬은 관람석 1,500석, 트랙길이 333.33m 정규트랙경기장으로 건설되며 향후 본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하게 되면 사이클 고장의 위상정립과 선진형 전문스포츠 육성체제가 구축되어, 각종 국내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양 사이클은 창단 이래 훈련환경의 개선에 대해 열망하여 오던 차에 반세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소망이 이뤄지게 되었다. 국내 사이클 전용경기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인천벨로드롬경기장(333.33m)이 준공되었으며, 우리 군은 전국에서 15번째로 공인 사이클경기전용벨로드롬을 건설하게 되었다.

#### 〈표3-7〉 양양 사이클 벨로드롬 사업개요

- 위 치 : 손양면 학포리 산 13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2.~2011. 3.(3년간)
- 사업면적 : 부지면적 104,991㎡(31,759평) / 건축연면적 3,993.11㎡
- 시설내용
  - ▶ 사이클 경기장 : 관람석 1,500석, 트랙길이 333.33m
  - ▶ 축구장 : 1면(105m×68m), 육상트랙 8레인
  - ▶ 부대시설 : 주차장(170대수용), 광장, 체육공원, 옥외화장실 1동 등
  - ▶ 사업비 : 280억 원(국비 84, 도비 59, 군비 137)



양양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경기장)



양양 스포츠타운 기공식 발파 광경

### 3)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건설

양양군은 지난 2006년 4월 2일 요트마리나 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49억원을 투입하여 16,063㎡(기존 8,653㎡, 공유수면매립 7,410㎡)부지내 2007년 1차 푼툰시설(요트 17척 계류가능)을 완공하고, 2009년 6월 클럽하우스 준공, 그해 10월 2차 푼툰시설(요트 43척계류 가능)을 완공하여 명실공히 동해안 최고의 요트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에서 제9회 및 제1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동해안 수상레포츠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4) 공공체육시설 현황

양양군의 공공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표3-9>과 같이 총 25개소이다. 시설별로는 실내체육관은 1991년도 양양읍 서문리 146번지에 건립하였는데 농구·배구·배드민턴 등 경기장으로 활용되며, 양양중고교생들의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남대천 둔치에는 1989년도에 9,600㎡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였는데 현재는 궁도장·야구장·농구장·배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소공원 등이 있으며, 2009년도에는 6,534㎡ 규모의 천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매년 군민체육대회 및 각종축제행사를 치루며 평상시에는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또 양양읍 조산리에 2004년 클레이코드 테니스장 1면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 추가로 하드코드 1면을 추가로 조성 완료 하였다.

실내게이트볼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여가 선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총 4개소(양양읍 1, 서면 1, 손양면 1, 현북면 1)있으며, 2010년내 현남면과 강현면에 조성 예정이다. 풋살구장은 총 5개소(양양읍 1, 손양면 1, 현북면 1, 현남면 1, 강현면 1)가 설치되었으며, 서면풋살구장 역시 2010년내 조성 예정이다. 그 외 실내사격장과 탁구장은 양양읍 서문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과 강현면에 체육공원 및 소규모 운동장을 조성하여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3-8〉 양양군 공공체육시설현황

(단위 : m²)

소 재 지	시 설 명	시설면적	설치년도	비 고
계	25개소	67,016		
양양읍서문리146-1	실내체육관	2,668	1991	2,390석
양양읍남문리226-9	둔치공설운동장	9,600	1989	2,000명
양양읍남문리362	궁도장(현산정)	6,600	1993	21사대
양양읍조산리390-8	해오름테니스장(Ⅰ)	2,442	2004	클레이코드
양양읍조산리390-8	해오름테니스장(Ⅱ)	2,442	2008	하드코드
양양읍서문리248	양양실내게이트볼장	499	2008	인조잔디
서면상평리43	서면실내게이트볼장	539	2004	인조잔디
손양면하왕도리145-3	손양실내게이트볼장	598	2007	인조잔디
현북면하광정리124-11	현북실내게이트볼장	1,102	2009	인조잔디
양양읍서문리146-3	양양군사격장	199	2003	12사대
양양읍연창리203-19	문화복지회관수영장	731	2004	6레인
양양읍연창리203-19	문화복지회관에어로빅	153	2004	대나무후로링
양양읍서문리8-1	양양군탁구장	251	2005	탁구대 8대
서면상평리	서면인라인스케이트장	2,230	2006	시멘트
양양읍남문리226-2	둔치인라인스케이트장	3,520	2007	아크릴
양양읍연창리197	둔치야구장	10,466	2006	200명
현남면시변리11-1	현남풋살구장	1,056	2007	인조잔디
손양면학포리168	손양풋살구장	1,056	2003	인조잔디
현북면중광정리504	현북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강현면정암리565	강현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양양읍조산리733-13	양양풋살구장	1,100	2008	인조잔디
강현면상북리415-5	상북리체육공원	3,000	2009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강현면하북리680-23	하북리체육공원	869	2009	축구장, 농구장
강현면정암리565	강현운동장	5,742	2009	축구장
양양읍연창리32	둔치천연잔디축구장	6,534	2009	150명

## 6. 양양 사이클의 반세기

### 1) 사이클 도입배경

#### (1) 자전거는 통학수단

양양지역에서 자전거가 언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1960년대에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못한 시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읍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부분 먼 거리를 도보로 통학하였으나, 형편에 따라 점차로 통학교통수단으로 자전거통학학생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 (2) 교내 체육대회 자전거 등장

당초 양양중학교와 양양고등학교는 각각 단위학교별로 분리 운영해 오다가, 1959년도에 양양중고등학교는 새로운 교명으로 통합하면서 고등학교는 군행리(현 군청뒤편)에서 서문리 현재 중학교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새로 통합한 교명으로 시작한 양양중고등학교는 단일 교장(당시 이종세 교장) 운영 체제로 통



교내자전거대회(1961년)

합된 학사일정에 따라 교내체육대회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교내 체육대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대회로 구분하여 년 2회로 실시해 왔었는데, 전교생을 청백으로 나누거나 또는 읍 면단위로 통학 거주지별 팀을 구성하여 주로 배구·축구·육상경기 등 종목으로 진행하였는데 자전거 통학학생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1961년 10월 12일 개교기념행사로 추계교내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자전거종목을 추가하게 되었다.

자전거종목의 경기진행은 자전거타고 천천히 가는 경주와 운동장 50바퀴 경주 등 두 종목으로 진행하였다. 천천히 자전거타기종목은 10m직선주로를 동시에 출발하여 단위

시간 안에 경기규정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선수가 우승하게 된다. 50바퀴 경주는 당시 학교운동장이 넓지 못하여 학교에 근접한 공설운동장(현 충용아파트단지 일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당시 공설운동장에서는 잡초가 많고 지면이 고르지는 못하였으나 자전거경주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원을 넓게 하여 헛가루를 뿌리고 임의 트랙에서 50바퀴 경주를 하였다.

## 2) 양양중고 사이클 팀의 창단

1962년경에는 시대적으로 5·16이후 정부의 체육시책에 힘입어 이용 강원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도민 배 체육(道民 杯 體育)”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원도체육회를 새롭게 조직개편하고 강력한 체육시책을 실천하는 등 강원체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제1회 도내중고등학교 학생체육대회를 196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원주에서 개최하였는데 야구·탁구·자전거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양양중고등학교는 본 대회에 자전거경기를 출전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춘계교내체육대회 자전거경기에 입상한 성적을 기초하여 출전선수를 선발하였다. 단장에 이종세 교장, 감독에 신현택 체육교사, 선수에는 중학교에 전성국(2년), 고창주(2년), 신창오(2년) 3명과 양양고등학교 심기연(3년), 김근우(2년), 최원섭(2년) 3명으로 6명의 선수를 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공식적인 창단형식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의 창단 계기가 되었다.



양양중고사이클 창단멤버(1962년)  
신창오, 고창주, 심기연, 김근우, 최원섭, 전성국



양양사이클 초대지도교사와 창단선수(2009년)  
김근우 신현택 교사 심기연

### 3) 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 (1) 제1회 도내중고등학교 학생체육대회 출전(1962년)

양양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경기종목을 출전하기로 하고 고등학교에 심기연(3년), 김근우(2년), 최원섭(2)선수와 중학교 전성국(2), 고창주(2), 신창오(2)선수를 출전하였다. 자전거 트랙경기는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고 대회시작 2일째(6월8일)자전거 도로경기는 원주시청 앞에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여 횡성군 공근면 왕복 50km도로경기였다.

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나친 상호견제로 게임을 운영하다가 양양중학교 전성국 선수가 고등부선수보다 6분이나 단축하여 결승선에 있던 많은 관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표3-9〉 단체 종합전적(사이클)

부별	중 등 부		고 등 부	
	등 위	소 속	점 수	소 속 점 수
우 승	양양중	38점	양양고	23점
2 위	고성중	10점	원주고	23점
3 위	교대병설중	8점	춘천농고	10점

〈표3-10〉 50km 도로경기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전성국	양양중	1.39' 19"00	송익현	원주고	1.45' 17"2
2위	윤성찬	고성중	1.40' 14"5	심기연	양양고	1.45' 22"3
3위	고창주	양양중	1.46' 20"00	김근우	양양고	1.45' 46"3
4위	최일정	교대병중	1.50' 55"8	송익현	원주고	1.45' 54"00
5위	신창오	양양중	1.51' 18"4	박민우	춘농고	1.46' 26"00
6위	최수길	고성중	1.56' 17"00	최원섭	양양고	1.47' 25"00

〈표3-11〉 5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이주신	고대병중		정용섭	춘농고	
2위	고창주	양양중		송익현	원주고	
3위	최남수	소양중		이재수	고성고	

〈표3-12〉 1,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윤성찬	고성중		지용림	춘농고	
2위	고창주	양양중		김근우	양양고	
3위	이주신	교대병중		박민우	춘농고	

〈표3-13〉 3,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신창오	양양중		심기연	양양고	
2위	고창주	양양중		송익현	원주고	
3위	이주신	교대병설		김경순	고성고	

〈표3-14〉 5,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위	전성국	양양중	9' 04" 8	송익현	원주고	10' 41" 8
2위	윤성찬	고성중		심기연	양양고	
3위	신창오	양양중		이재수	고성고	

\* 위의 경기종목별 개인기록은 기록 자료가 없음.



## (2) 제2회 학생종합 체육대회 (1963년)

## 가. 학생종합 체육대회 출전전적

전년도 제1회 원주대회에 이어 1963년 제2회 도내학생체육대회가 7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춘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고등학교 김근우(3년), 최원섭(3년), 김봉수(1년), 손철갑(1년) 선수와 중학교에 전성국(3년), 고창주(3년), 신창오(3년) 선수가 출전하고 작년도 제1회 대회(1962년)에 출전하여 종합우승에 기여하였던 심기연 선수는 그해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동계훈련에 참가하게 되었고, 중앙대학 진학으로 사이클 일반선수로 활약하게 되었다.

이번 제2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3년)는 고등학교 김근우 선수와 중학교 전성국 선수 등의 활약으로 제1회 대회에 이어 전 종목을 석권하여 종합우승함으로 오늘의 전국 사이클 명문학교가 되는데 초석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 〈표3-15〉 5,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9' 04" 2(대회신)	김근우	양양고	8' 29" F(대회신)
2 위	이상열	주문중	9' 22" F	김봉수	양양고	8' 29" 1(대회신)
※ 전년도 기록9' 04" 8 전성국(양양중)				※ 전년도 기록10' 41" 8 송익현(원주교)		

## 〈표3-16〉 1,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1' 42" 8	김봉수	양양고	1' 45" 9
2 위	이상열	주문중	1' 43" F	김종완	양양고	1' 47" 5

## 〈표3-17〉 10,000m 결승

부별 등위	중 등 부			고 등 부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전성국	양양중	19' 11" F	김근우	양양고	19' 08" F
2 위	고창주	양양중	19' 54" F	신규섭	원주농고	19' 08" 2

### (3) 제3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4년)

#### 가.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출전

전년도에 이어 제3회 학생체육대회가 1964년 5월14일~16일까지 3일간 춘천에서 23개 종목에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당일 14일 오전 9시20분에 출전임원선수들은 도청광장을 출발하여 춘천고 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으로 춘천종합경기장 대회장에 입장하여 박경원 대회장의 대회사를 통하여 학생체육 향상으로 체육 강원을 전국 상위권진입을 굳게 결의하였다.

양양 사이클은 중학교는 출전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김봉수, 손철갑, 전성국, 김종완 선수 4명만 출전하게 되었다. 양양 사이클은 제1회 대회부터 출전하여 2연패한 팀으로 본 대회 첫날부터 양양고 전성국 선수는 5천미터경기와 1만미터책임선두경기에서 기록을 단축하였고 5천미터경기에서 27초8, 1만미터경기에서 1분24초로 각각 단축하여 대회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사이클 트랙 장거리경주에서 경기주행 시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박진감 있는 경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트랙의 홈 센터라인(본부석 방향)과 백 센터라인(본부석 반대편)을 선두로 통과하는 주자에게 책임선두를 부여하여 책임선두를 완료한 선수에게만 골인 등위순위가 인정된다. (위의 1만m 책임선두경기에서 2위 김봉수선수는 3위 서성경 선수보다 마지막 결승선에 3위로 골인하여 기록은 뒤졌지만 책임선두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2위가 되었다.)

〈표3-18〉 자전거경기 출전 실적

종목 등위	5,000m 경 기			10,000m 책임선두경기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전성국	양양고	8' 21" 3(대회신)	전성국	양양고	19' 08" F
2 위	김봉수	양양고	9' 12" 8	김봉수	양양고	19' 39" 9(책임선두)
3 위	정만화	원농고	9' 16" F	서성경	동광농	19' 39" 8

#### (4)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1965년)와 양양 사이클 해체

제4회 학생종합대회는 1965년 5월16일~18일까지 3일간 춘천종합운동장에서 대회 첫째 날 트랙경기를 진행하였고, 대회 3일째 마지막 날에 자전거도로경기가 있었다.

이 대회에 양양고등학교는 전성국 선수가 재학 중 군에 입대하게 되어 출전하지 못하였고,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선수 3명만 출전하게 되었으나, 전년도에 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팀은 1962년 창단 이래 매년 우수한 경기력으로 연속하여 종합 우승을 유지해 왔었으나, 김봉수, 손철갑 선수 등이 졸업하고 후진 양성이 이어지지 못하여 1965년 제4회 대회출전을 마지막으로 창단 4년 만에 사이클 팀이 해체하게 되었다.

〈표3-19〉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 자전거경기실적(1965 양양고)

종목 등위	1000m 경기 결 승			5000m 경기 결 승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김봉수	양양고	1' 41" F	김봉수	양양고	9' 13" 8
2 위	황학구	춘천농	1' 49" 6	손철갑	양양고	9' 15" F
3 위	김종완	양양고	1' 51" 8	연재수	홍농고	9' 16" 7

종목 등위	1km 경기 결승			도로경기 결 승		
	성 명	소 속	기 록	성 명	소 속	기 록
1 위	손철갑	양양고	20' 37" 8	손철갑	양양고	1.23' 25" F
2 위	연재수	홍농고	20' 37" 8	김봉수	양양고	1.32' 35" 2
3 위	김종완	양양고	21' 27" 8			

#### (5) 전국체전 입문한 양양 사이클(1963년)

##### 가. 양양고 출신 전국체전 첫 출전

1963년에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심기연 선수는 일반부 강원도대표선수로 제44회 전국체전(전주)에 출전하여 40,000m 선두경기 2위, 10,000m속도경기 3위, 4,000m단체경기 4위 등 양양 사이클 체전사상 처음으로 일반부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어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인천)에 강원도대표선수로 출전한 양양 사이클 출신 심기연, 전성국선수가 4,000m단체경기에 출전하여 경주운영에 주축이 되어 3위의 성적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성국 선수는 112km 개인도로경기에서 체전사상 핑크 난 사이클을 타고 50km나 독주하여 1위의 영광을 얻었다.

1965년 제46회 전국체육대회(광주)에서 양양출신 심기연 선수는 1,000m 경기에서 3위, 10,000m경기에서 2위에 입상하였다.

#### 나. 제45회 인천체전의 주인공이 된 양양 사이클(1964년)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2년 만에 심기연, 전성국 선수는 제45회 인천체전에 강원도 일반부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체전 사이클경기 마지막 개인도로경기(112km)에서 각 시·도 출전선수 70여명은 인천시를 출발하여 수원을 왕복하는 경기에서 전성국 선수는 결승선 약 50km지점을 남겨놓고 타이어펑크로 고장 난 사이클을 타고 1위로 골인하여 우승하게 되었다. 강원도체육회는 물론 제45회 인천체전 스포츠 톱기사로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 다. 양양군민의 성원으로 경주용 사이클 지원

1964년 제45회 인천체전에 강원도대표선수로 112km 개인도로경기에 출전한 전성국 선수가 핑크 난 사이클을 타고 50km를 사력을 다하여 1위로 골인한 소식을 전해들은 양양군민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양양군체육회부회장으로 봉직하던 이흥경 양양면장은 읍내 몇몇 유지들과 뜻을 모아 전성국 선수에게 경기용 사이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내에 개인 업체와 기관 단체를 통하여 모금하게 되었다. 경기용 사이클이 고가품이라 당시 황소 한 마리를 팔아야 구입할 정도였으니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선수들은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양양군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군민의 후원으로 프랑스에서 제작한 보라색 참피온 경기용 사이클을 구입하게 되어 사이클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군민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 4) 양양 사이클 팀 수난기(1965~1968년)

1962년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멤버였던 심기연, 김근우, 최원섭 선수 등이 졸업한 후, 이어서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전성국 선수 등이 사이클 전통을 이어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해 왔었다. 당시 중학교 창단멤버였던 고창주 선수는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신창오 선수는 삼척공업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전성국 선수만 양양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양 사이클은 수난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사이클 창단 초대지도교사였던 신현택 교사는 배구전공출신으로 중학교 배구팀을 육성해 오다가 1964년 타 학교로 전보발령 되었으며, 1965년 양양중 배구팀은 제4회 도내학생종합대회에서 옥계중학교를 2:1로 물리친 전적도 있었으나 추후 어려운 여건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양양고등학교에 새로 임명된 김관옥 교사는 농구출신으로 사이클 명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1968년까지 핸드볼 팀을 육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양 사이클은 적극적인 팀 관리부실과 그동안 신인발굴이 이어가지 못하고 1964년부터 중학교는 사이클 선수고 갈로 인하여 중학교 사이클은 출전전적이 전무하였다.

1965년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팀 또한 제4회 학생종합체육대회에 김봉수, 손철갑, 김종완 등 3명의 선수를 마지막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양 사이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1965년 힘겨운 수난기로 결국 창단 4년 만에 해체되게 되었다.

#### 5) 양양 사이클 재 창단 배경(1969~1971년)

1962년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초창기 창단 선수로 양양 사이클 명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김근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당해 연도에 모교에 체육교사로 발령되었다. 그간 사이클 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체되었고, 농구출신 체육교사가 부임하면서 사이클 명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핸드볼 팀을 육성하였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사이클 전통 명문고장에 모교출신 전공 교사가 부임하였으니 사이클을 육성하여 다시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주변 인사들과 동문들의 권유로 김근우 교사는 부임 1년 만에 1969년 3월에 사이클 팀을



양양 사이클 재 창단 멤버(1969년)  
김근우감독, 장충남, 김동일, 정형교, 유우영선수

재 창단하여 사이클 해체된 지 4년 만에 양양 사이클을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재 창단팀 구성은 단장에 이규택 교장, 지도교사 감독 겸 코치에 김근우 지도교사, 선수에 장충남(3년), 김동일(2년), 유우영(2년), 정형교(1년), 김규화(1년) 등 5명의 선수로 창단하게 되었다.

#### (1)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처녀출전(1969년)

1967년 제48회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고등부 사이클 종목이 채택 된지 2년 후, 그동안 해체되었던 양양고 사이클이 1969년에 재창단하여 열악한 훈련조건과 짧은 훈련기간이었지만 지도자와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4년 만에 재 창단한 양양 사이클은 1962년 창단초기에 도내 전 종목을 4년 연속 석권하였던 양양 사이클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하였다.

양양고 사이클은 1969년 재(再) 창단하던 그해 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체육대회에 처녀출전하게 되었다. 강원도대표 팀 구성은 감독 겸 코치에 김근우 교사, 출전선수에 장충남(3년), 김동일(2년), 유우영(2년), 정형교(1년)선수(이상 양양고), 조희열(강릉상고), 김영일(춘천) 등 고등부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게 되었다.

대회 2일째인 11월1일 서울육상경기장(동대문운동장)에서 고등부 1,600m 속도경기에 출전한 김동일(2년) 선수는 전국규모대회 시합경험도 전혀 없는 우리 팀으로서는 기록 같은 3위의 성적을 거두어 양양고 재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양양고 사이클 역사상 체전 첫 입상기록이었다.



〈표3-20〉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전적(1969년)

고등부 1,600m 결승		
등 위	선 수 명	기 록
1위	한성일(경북)	2' 34" F
2위	김승일(경북)	2' 34" 1
3위	김동일(강원) 양양고	2' 34" 3

※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양양고 창단 최초 입상전적(1969 김동일)

※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종목 채택(1967 제48회 체전 정식종목 채택)

## (2)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양양 사이클 출전(1970년)

지난 대회에 이어 전국체전 강원도 고등부 사이클 대표선수로 양양고등학교가 선발되어 김근우 감독교사 김동일, (정형교), 유우영, 김규하, 문상묵 선수 등이 출전하게 되었다. 이번 전국체전도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사이클 트랙경기는 동대문육상경기장 400m트랙에서 진행되었다. 양양 사이클은 트랙경기 첫날(10월9일) 4,000m단체경기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강원도 팀은 양양고 김동일 선수의 활약으로 전북 팀과 공동3위를 하였고, 일반부 1,600m속도경기에서 양양고 출신 전성국선수가 3위를, 이어서 고등부 1,600m속도경기에서 양양고 김동일 선수가 2' 38" 7의 기록으로 3위를 하였다.

다음날(10월10일) 4,800m속도경기에 출전한 김동일 선수는 8' 03" 6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2위에 입상하였다. (제48회 전국체전 황보연 선수 기록 8' 07" 1을 갱신)

〈표3-21〉 제51회 전국체전 강원도 대표 양양 사이클 출전전적(1970년)

등 위	고등부 4,000m 단체경기 (10월 9일)		일반부 1,600m 속도경기 (10월 9일)	
1 위	충남		김광선(서울)	2' 38" 7
2 위	경기		김명남(경기)	2' 38" 9
3 위	강원(양양고), 전북 공동		전성국(강원) 양양사이클	2' 39" 2
등 위	고등부 1,600m속도경기(10월9일)		고등부 4,800m속도경기(10월10일)	
1 위	노해수(경북)	2' 37" 8	노해수	8' 03" 2 대회신
2 위	김인용(경북)	2' 38" F	김동일(강원) 양양고	8' 03" 5 대회신
3 위	김동일(강원) 양양고	2' 38" 7	최현일	8' 03" 6

이와 같이 전국체전에 강원도대표로 출전한 양양 사이클은 제51회 체전부터 강원 사이클이 5년 연속 전국제패의 강원 사이클 신화를 이룩하는데 주축이 되었다.

전국체전 5연패의 강원 사이클의 기록은 1970년 제51회 체전부터 1974년 제54회 체전까지의 종합우승의 주역은 양양 사이클이었다.

### (3) 전국사이클경기대회 출전(1971년)

1971년 5월2일~3일까지 양일간에 전국사이클경기대회가 속초시 공설운동장과 주변 도로에서 트랙경기와 80km개인도로경기가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각 팀 소속으로 고등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출전하였다.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사이클 종합우승을 배경으로 강원도사이클경기연맹 이인중, 이춘봉, 박광평 이사 등 임원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특별히 속초시 사이클 대부로 양양 사이클 창단초기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해 온 함흥냉면 이석봉 사장의 각별한 유치활동의 결실이었다.

전국규모 속초사이클경기대회는 대회인지도가 낮고 대회유치지역이 먼 관계로 참가 규모가 적었다. 대회 첫날에는 트랙경기에 이어 다음날 도로경기가 진행되었다.

〈표3-22〉 일반부트랙경기(5월2일)

종목 등위	1600m속도경기		4800m속도경기		10000m속도경기		80km도로경기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1위	석춘봉(경희)	2' 57" 4	석춘봉(경희)	7' 13" 3	차용산(경기)	15' 02" 4	전성국(삼양)	2.12' 06" 5
2위	김광선(칠성)	2' 57" 5	전성국(삼양)	7' 13" 6	전성국(삼양)	15' 06" F	권중현(부산)	2.12' 06" 6
3위	전성국(삼양)	2' 57" 8	김창림(춘천)	7' 14" F	노해수(대구)	15' 14" 1	이영규(경기)	2.15' 12" 8

〈표3-23〉 고등부트랙경기

종목 등위	800m속도경기		1600m속도경기		4800m속도경기		600m속도경기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선수명	기록
1위	김동일(양양고)	1' 17" 6	김동일(양양고)	2' 39" 4	유우영(양양고)	9' 20" 1	김동일(양양고)	11' 01" 1
2위	임일봉(대전공)	1' 18" F	임일봉(대전공)	2' 39" 8	김동일(양양고)	9' 20" 3	임일봉(대전공)	11' 01" 4
3위	유우영(양양고)	1' 18" 4	정형교(양양고)	2' 40" 5	정형교(양양고)	9' 20" 7	유우영(양양고)	11' 01" 8

※ 일반부 전성국선수 (양양사이클 출신으로 삼양항해 소속)

## 6) 전문지도자 영입 새 활로 모색(1972~1982)

제52회 전국체전에서 참패한 양양 사이클은 전문지도자가 없으면 결코 경기력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 당국은 지도코치를 선임하기로 하고 당시 속초실고 사이클을 지도하던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출신 심기연 코치를 1972년 3월 1일자로 영입하게 되었다. 전문지도자를 영입한 양양 사이클은 1972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게 되었다. 활기를 다시 찾게 된 양양 사이클은 1973년부터 1979년 7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면서 고등부 7연패의 사이클의 신화를 기록하였다.

〈표3-24〉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경기실적(1973년~1982년)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 위	선 수 명	기 록	비 고
1973	제54회 전국체전	부 산	800m	1위	방양호	1' 11" 7	
			4000m단체	2위	방양호	7' 39" 2	
1974	제55회 전국체전	서 울	800m	2위	방양호	1' 06" 7	
			4800m	2위	방양호	7' 32" 7	
			20000m선두	2위	석대희	56점	
1975	제56회 전국체전	대구	10000m	1위	김창주	15' 04" 8	
			20000m선두	2위	김창주	-	
			4000m단체	1위	김창주	7' 31" 3	
1976	제57회 전국체전	부산	4000m단체	1위		5' 36" F	
1977	제58회 전국체전	광주	10000m	1위	강원남	-	
				2위	노승준	-	
			4800m	3위	김남호	-	
			20000m선두	2위	심종석	71점	
			4000m단체	1위	심종석, 강원남 노승준, 김남호	5' 32" 2	
1978	제59회 전국체전	인천	800m	1위	장윤희	1' 07" 4	
			10000m	1위	심종석	15' 57" 3	
			20000m	3위	강원남	-	
			4000m단체	1위		5' 30" F	대회신기록
1979	제60회 전국체전	대전	800m	1위	김형국	1' 04" 7	
			4800m	1위	장윤희	31' 31" 7	
			4000m단체	1위	강원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 위	선 수 명	기 록	비 고
1980	제61회 전국체전	전북	* 전 종목 입상실적 없음				
1981	제62회 전국체전	서울	1600m속도	2위	이인형	2' 53" 39	대회신기록
			1000m독주	3위	이인형	1' 20" 72	
			4800m속도	3위	안우혁	7' 10" 54	
			4000m단체	3위	이인형 안우혁	5' 37" 73	
1982	제63회 전국체전		* 전 종목 입상실적 없음				

## 7) 전성기를 맞이한 양양고 사이클(1993년~2002년)

### (1) 모교 사이클 출신 감독코치의 지도열정

전성기 초기에 지도감독인 박순원 감독교사는 1991. 3. 1일자로 양양고에 임명되어 1996년 3월 1일자로 타고로 전출되었다가 1998년 3월에 부임하면서 다시 사이클 지도 감독을 맡게 되었다. 1996년 박순원 감독 후임으로 박선규 지도교사와 이상균 선생이 각각 1년 지도교사로 임직 후, 1998년 박순원 선생의 모교발령으로 다시 사이클 지도 교사를 맡게 되었고, 허용봉 코치는 1992년 12월 1일자로 임명되어 1999년 7월까지 양양 사이클 전성기에 최선의 열정을 다하였다. 10년간 양양고 사이클 전성기를 통하여 전국을 제패한 지도공적으로 박순원 감독교사는 2001년~2002년도 2회에 걸쳐 최우수 감독상을 받게 되었다.



제4회 아시아주니어사이클대회(1995년)



제75회 전국체전 개인도로경기(1994년)

〈표3-25〉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경기실적(1973년~198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93. 6.	제10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경기 대회		3km개인추발	3위	윤양석	-	
			4,000m단체추발	1위	황남식 윤양석 정동석 박수환	-	
			제외경기	2위	황남식	-	
			1,000m일제경기	1위	정동석	1' 21" 43	
			30km포인트	1위	윤양석	-	
1993. 10.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4,000m단체추발	1위	황남식 윤양석 정동석 박수환	4 '45" 01	
			3km개인추발	3위	윤양석	-	
			30km포인트경기	1위	황남식	-	
			89,1km개인도로	1위	정동석	-	
1994. 7.	제11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경기 대회	전주	스프린트	1위	정동석	-	
			1km독주	1위	윤양석	1' 11" 49	
			3,000m책임선두	1위	박수환	-	
			4,000m단체추발	1위	정동석 윤양석 박수환 김정영	4 '42" 40	
			20km포인트경기	1위	정동석	23' 42" 12	18점+2
			제외경기	1위	정동석	-	
			개인도로경기	3위	정동석	-	
1994. 10.	제75회 전국체육대회	대전	1,000m일제경기	3위	강경화	1' 47" 07	
			94km개인도로	1위	양윤석	3.01' 50" 33	
				2위	박수환	3.01' 50" 45	
				3위	김정영	3.08' 18" 45	
			제외경기	1위	정동석	12' 17" 57	
			1km독주	3위	양윤석	1' 12" 624	
			km포인트경기	3위	양윤석	16점	
1995. 4.	제4회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선수권대회	마닐라	4,000m단체추발	1위	박수환	-	
			94,8km개인도로	1위	박수환	2.41' 39" 90	
			제외경기	2위	김정영	-	
			3km개인추발	3위	박수환	-	
1995. 10.	제76회전국체육대회 양양고 종합우승	대전	30km포인트	1위	박수환	39점	
				2위	김정영	25점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95. 10.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양양고 종합우승	대전	110,4km개인도로	1위	김정영	2.44' 02" 77	
			3km개인추발	1위	박수환	3' 51" 94	
			4,000m단체추발	2위	박수환 김정영 이길섭 고병수 장일남	4' 48" 572	
			제외경기	3위	김정영	-	
1996. 6.	제13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음성	1km독주	3위	고병수	1' 10" 978	
			제외경기	3위	이길섭	-	
			30km포인트	1위	장일남	43점	
1996. 10.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춘천	4,000단체추발	3위	고병수 장일남 이길섭 신창호	-	
			30km포인트	2위	장일남	43점	1위 42점
1987. 6.	제1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대항 사이클경기대회	서울	개인도로단체	2위	이인섭 김현승 김영철 신경섭	-	
1998.9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제외경기	3위	김시국	-	
1999. 5.	제1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서울	제외경기	2위	김시국	-	
			개인도로단체	3위	신경섭 김영철 노도엽 김현승	10.00' 53" 14	
1999. 8.	8·15경축 전국거제 도로사이클경기대회	거제도	개인종합	우승	신경섭	-	
			단체종합	우승	양양고	-	
2000. 5.	제2회 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도로경기대회	가평 ~양양	도로단체종합 총 475,3km	우승	양양고	38.26' 40" 16	고성
2000. 6.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121,2km개인도로	3위	김현승	2.56' 17" 80	
			개인도로단체	3위	김현승 김경록 노도엽 신경섭	8.52' 01" 09	
2000. 7.	제29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대전	4,000m단체추발	2위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주윤호	4' 45" 157	
			메디슨경기	1위	김현승 신경섭	26점	
			55,2km크리테리움 단체경기	3위	김현승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4.09' 00" 00	
			116km개인도로	1위	김현승	2.42' 49" 00	우수상
			116km개인도로 단체	1위	김현승 신경섭 김영철 김경록	8.09' 59" 00	
			단체종합	준우승	양양고	34점	
2001. 6.	제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책임선두경기	1위	김경록	-	
			메디슨경기	1위	노도엽 주윤호	-	
			24km포인트	1위	김동영	29점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2001. 6.	제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사이클경기대회	나주	96km크리테리움	2위	노도엽	-	
				3위	주윤호	1.59' 19" 35	
			96km크리테리움 단체	1위	노도엽 김경록 주윤호 김동영	5.58' 15" 00	
			단체종합 준우승	양양고	-		
2002. 6.	제1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나주	메디슨경기	1위	주윤호 김동영	26점	
2002. 11.	제83회 전국체전	제주	메디슨경기	2위	주윤호 김동영	46점	
			도로독주	3위	김도영	33' 33" 14	

## 8) 양양여자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1983년)

한국 사이클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사이클경기연맹(UCI)으로부터 제23회 LA올림픽대회(1984년)에 여자 사이클 종목이 채택되자 국내에서도 여자 사이클 종목을 신설하여 1983년 제64회 인천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사이클 종목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에 양양여자고등학교는 1983년 2월에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사이클 육성학교로 지정받고, 3월 15일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이클의 고장 양양’에 여고 사이클 팀을 창단하게 되었다. 양양여고 사이클 팀은 단장에 권덕명 교장, 감독 김철홍 교감, 지도교사 전윤섭 체육교사, 지도자 노승준 코치(양양고 사이클 선수출신이며 한국체육대학을 졸업) 선수 김정임(주장), 박선미, 김난희, 박춘심, 박미경, 김미자(이상 2년), 정순옥, 이춘희, 김미옥, 김명숙(이상 1년) 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3-26〉 양양여고 사이클 주요대회출전 전적(1983~199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83. 9.	주니어도로선발	통일로	48km개인도로	1위	김정임	1.20' 55" 62	창단첫출전
				5위	박선미	1.20' 55" 87	
1983.10.	제12회회장배 국제파견선발		3,000m단체추발	2위	박선미 김난희 정순옥 김정임	4 '35" 09	한국신기록
1983.11.	국제대회파견 여자선수선발	통일로	50k개인도로	3위	김정임	1.28' 02" 89	
				5위	박선미	1.28' 03" 24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84. 10.	제65회전국체전	대구	1,000m개인독주	3위	박선미	1' 23" 82	대회신기록
			70km개인도로	1위	김난희	2.14" 01	
				3위	김정임	2.14' 02"	
1985. 5.	제2회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의정부	제외경기	1위	정순옥	-	
1987. 3.	제15회 회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서울	3km개인추발경기	1위	최미화	4' 22" 12	대회신기록
1988. 5.	제5회대통령기 제69회 전국체전	서울	3000m단체추발	3위	정미경 고진숙 김옥선 장경아	3' 59" 36	
1989. 5.	제6회대통령기	서울	제외경기	1위	김옥선	3' 40" 37	
1989. 9.	제18회 체육부장관기검 제15회 전국학생종별	춘천	1km독주	1위	장경아	1' 22" 07	종합우승
			3km개인추발	1위	장경아	4' 19" 23	
			3,000m단체추발	1위	김옥선 장경아 이미숙 노선실	4' 05" 09	
			54,3km개인도로 종합단체	3위	김옥선 이미숙 노선실 김금미	5.28' 09" 04	도로종합 1위(32점)
1989. 9.	제70회전국체전	의정부	스프린트	3위	김옥선	14" 34 14" 80	
			3km개인추발	2위	장경아	4' 24" 20	
			3000m단체추발	3위	김옥선 노선실 이미숙 장경아	-	추월승
1990. 10.	제19회 체육부장관기 전국사이클 경기대회	서울	스프린트	1위	노선실	13" 43 13" 44	종합우승
			1km독주	2위	노선실	1' 20" 780	(42점)
			3km개인추발	1위	김금미	4 '27" 05	
				2위	이미숙	-	
			3000m단체추발	1위	김금미 노선실 이미숙	4' 04" 56	대회신
			제외경기	1위	이미숙	5' 54" 23	
1990. 5.	제20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사이클 경기대회		스프린트	2위	노선실	12" 70(예선)	대회신
			3km개인추발	3위	이미숙	4' 26" 47	종합준우승
			3,000m단체추발	2위	노선실 이미숙 김명자 조한희	4' 02" 81	대회신
1991. 7.	제8회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서울	스프린트	2위	노선실	-	
			1km독주	3위	노선실	1' 20" 606	단체종합 3위(42점)
			제외경기	3위	이미숙	9' 45" 77	
1991. 10.	제72회전국체전	전주	스프린트	1위	노선실	14" 03 13" 93	시도종합 강원2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 수 명	기 록	비고
1991.10.	제72회전국체전	전주	1km독주	3위	노선실	1' 20" 758	1883점
			3km개인추발	3위	이미숙	4' 27" 35	
			3,000m단체추발	3위	김명자 노선실 이미숙 조한희	4' 07" 43	
			597km개인도로	3위	이미숙	1.44' 13" 62	
1992. 6.	제9회대통령기		1km독주	3위	김명자	1' 22" 026	
			3km개인추발	3위	박영미	4' 21" 34	
1992.10.	제73회전국체전	대구	3km개인추발	3위	박영미	4' 25" 43	종합 3위 1441점
			3000m단체추발	2위	김명자 박영미 조한희	4' 09" 80	
			57,2km개인도로	2위	김명자	2.07' 25" 13	
1994. 8.	제23회 문체부장관기		스프린트	2위	김미건	-	
			1,000m일제경기	3위	신승희	-	
			3,000m단체추발	2위	김미건 신승희 김명희 최명순	-	
1995.10.	제76회전국체전	서울	3,000m단체추발	3위	김미건 신승희 김명희 최명순	4' 09" 08	
1997.10.	제78회전국체전	창원	2,000m 포인트	2위	양은주	29점	
1998. 9.	제79회전국체전			1위	양은주	-	
				2위	양은주	-	
				3위	양은주	-	

## 9) 양양군청 여자 사이클 팀 창단

강원도체육회의 실업팀 육성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강원 사이클 메카인 양양’에 양양군청 여자실업 팀이 1991년 1월17일 창단하였다. 양양군청 여자사이클 팀은 이영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감독 겸 코치에 방양호(당시 35세)코치, 선수에 장경아(18세), 고진숙(21세), 김복림(20세) 등 3명으로 구성하였다.

양양군청은 창단초기 코치에 양양고 사이클 출신(전 국가대표)으로 양양여고 사이클 팀을 지도하던 방양호 코치를 영입하면서 양양여고 출신 우수선수 3명을 창단선수로 입단하게 되었다.

〈표3-27〉 양양군청 사이클 주요대회 출전전적(1991년~199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비 고
'91. 9.16.	제15회아시아 사이클경기대회	중국	3,000m추발단체	2위	장경아	국제시합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1.10. 8.	제72회 전국체전	전주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2.10.11.	제73회 전국체전		3km개인추발	3위	장경아	
'94. 7.11.	제11회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		35.7km	3위	김옥선 김경자 이행연	
			15km	3위	김옥선 김경자 이행연	

## 10) 양양군청 남자 사이클 팀 재 창단(1996년~2002년)

양양군청 여자 사이클 팀은 창단 6년 만에 해체하고 1996년 12월 31일 양양군청 팀은 남자일반부로 재 창단하여 팀을 한층 강화하였다. 팀 구성은 1992년에 양양군청 팀 코치에 임명된 박상택 코치를 유임하고, 1km 독주 전국최우수선수 지성환 선수를 비롯하여 양양고 출신 우수선수인 엄인영 · 김정영 · 고봉수 · 이길섭 등 선수 5명을 영입하여 재창단 하였다.

〈표3-28〉 양양군청 전국주요대회 출전전적(1996년~2002년)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기 록
1998. 5.11.	제7회청주MBC배 사이클대회	음성	1km독주	1위	지성환	1' 05" 06 한국신
1998. 7. 6.	제15회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4.000m 단체추발	1위	지성환 엄인영 김정영 고병수	-
			올림픽 스프린트	1위	고병수	-
1998. 9.21.	제79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1998.12. 6.	제13회 아시안게임	태국	1km독주	1위	지성환	-
1999. 5.10.	제16회대통령기 전국사이클		개인도로단체	1위	박수환 엄인영 지성환 고병수	-
			메드슨경기	1위	고병수	-
1999. 6. 6.	제1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1km독주	1위	지성환	1' 03" 895

년월일	대 회 명	개최지	종 목	등위	선수명	기 록
1999. 9. 13.	제80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2000. 4. 9.	제9회청주MBC사이클	음성	올림픽 스프린트	1위	고병수 엄인영	-
			포인트경기	1위	박수환	-
2000. 5. 15.	제2회 국민체육 이사장	서울	개인으로	1위	박수환	-
			4,000m단체추발	2위	박수환 엄인영 고병수	
2000.10.13.	제81회전국체전		1km독주	1위	지성환	-
2001. 4. 9.	제10회 청주 MBC사이클	음성	스프린트	2위	현병철	-
			경륜경기	1위	엄인영	-
2001. 5. 3.	제3회 국민체육이사장	서울	스프린트	2위	현병철	-
2001.10.10.	제82회전국체전		경륜경기	3위	엄인영	-
2002. 4. 9.	제11회 청주MBC사이클	음성	경륜경기	1위	현병철	-
2002. 5. 5.	제4회 국민체육이사장	서울	경륜경기	1위	엄인영	-
			1,000m경기	1위	현병철	-

### 11)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1962년에 창단한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과 1983년 양양여자고등학교와 1991년에 창단한 양양군청 실업 사이클 팀을 통하여 배출한 양양 사이클이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양양중고등학교 사이클은 1962년도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등 6명의 선수로 창단하여 2009년 현재 47년간에 걸쳐 총 134명의 사이클 선수를 배출하면서 국가대표 18명, 주니어대표 17명으로 전국 최다수 선수를 배출한 양양고 사이클과 양양여고와 양양군청팀과 더불어 한국 사이클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3-29〉 양양고 사이클 선수배출현황(1962년~2009년)

구 분	성 명	졸업년도	비 고
9회	심기연(국가대표)	1963	
10회	김근우 최원섭	1964	
12회	손철갑 김봉수	1966	
13회	전성국(국가대표) 김종완(양양중 창단선수)	1967	고창주 신창오
17회	장충남	1971	
18회	김동일 유우영	1972	
19회	정형교 김규화 문상묵	1973	

구 분	성 명	졸업년도	비 고
20회	김영화 이상균	1974	
21회	방양호 석대해(이상 국가대표) 박순원 고평석 남승희	1975	
22회	김창주 이상익	1976	
23회	김종백 김영학	1977	
24회	김남호 노승준 송순호 박상만	1978	
25회	강원남 심종석	1979	
26회	장윤희(국가대표) 박상택 김남수	1980	
27회	김형국 김규근(이상 국가대표) 황윤근	1981	
28회	안우혁 (국가대표) 이인형	1982	
29회	김규성 김영철 용장순	1983	
30회	김종석 박춘웅(이상 주니어대표)허용봉 김대식 최근덕	1984	
31회	추성호 김상규 김형정 김동현 허윤영	1985	
32회	김명종 심상천	1986	
33회	박선규 장양식 천병관 지용운	1987	
34회	박낙현 용창화 이광은 김지형	1988	
35회	장석삼 김영철 임태우 강종철 이교덕	1989	
36회	엄인영(주니어 · 국가대표) 김주철 이인덕 박상선 이호식	1990	
37회	박계준(주니어 · 국가대표) 박종표 박병천 김동학 최기혁	1991	
38회	최희동(주니어 · 국가대표) 김성윤 정익수 송세진 김성영 김용수 정진화	1992	
39회	김기남 박춘복 김규연	1993	
40회	이형우 황남석 박인원 최진호	1994	
41회	윤양석(주니어 · 국가대표) 정동석 강경화	1995	
42회	박수환(주니어 · 국가대표) 김정영(주니어대표) 이천환	1996	
43회	김충환 김광한	1997	
44회	장일남(주니어 · 국가대표) 고병수(주니어대표) 이길섭 차호열	1998	
45회	장배규	1999	
46회	김시국 이인섭 김성수 고승모	2000	
47회	김현승 김영철 신경섭	2001	
48회	노도엽 김경록	2002	
49회	김동영(주니어 · 국가대표) 주윤호(주니어대표) 노승용	2003	
50회	정영교(주니어대표) 백창무	2004	
51회	김철수(주니어 · 국가대표) 전영재 이법석	2005	
52회	김성태(국가대표) 심원규(주니어대표) 이기호 박용학	2006	
53회	김영식 라정욱 임기동 김성규 이주권	2007	
54회	정종교(주니어 · 국가대표) 이경호(주니어대표)	2008	
55회	이상규 김동석 김대건	2009	

선수배출 총 인원 : 134명 대표선수:18명 주니어대표선수 17명



## 7. 양양 사이클 국제대회 출전전적

〈표3-30〉 양양고 사이클 출신 경기실적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선수명	종 목	등 위	기 록	비 고
1970	제6회 아시안게임	방콕	전성국	100km 도로단체	동메달		
1972	제7회 아시아선수권		전성국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1982	제9회 아시아선수권	방콕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1982	제9회 아시안게임	뉴델리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금메달		아시아 신기록
1983	제10회 아시아선수권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은메달		
1984	"84 LA올림픽대회	LA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출전		
1986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장윤희	100km 도로단체	은메달		
1986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안우혁	4km 개인추발	은메달		
1994	제13회 아시아선수권		엄인영		동메달		
※ 1995	제 4회 아시아주니어	마닐라	박수환	4000m 단체	금메달		종합우승
			김정영	4000m 단체	금메달		
			박수환	개인도로(98km)	금메달		
			김정영	제외경기	은메달		
1999	제14회 아시아선수권		엄인영	경륜경기	동메달		
2000	시드니 올림픽대회		엄인영	경륜경기	출전		올림픽최초채택

※ 1995년 제4회 아시아주니어 사이클경기대회는 양양고 재학 사이클 선수 경기실적임.

〈표3-31〉 양양군청 사이클 출전전적

년도	대 회 명	개최지	선수명	종 목	등 위	기 록	비 고
1991	제15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	북경	장경아	4,000m단체추발	은메달		
			장경아	4km개인추발	동메달		
1998	제13회 방콕아시아경기	태국	지성환	1km독주	금메달		
1999	제19회 아시아사이클 선수권		지성환	1km독주	금메달	1'03"895	아시아신기록
2006	홋카이도 국제도로사이클	북해도	심완규외4명	4구간단체	동메달		
2007	투르드 코리아 국제도로사이클	한국	김성태외4명	도로단체	동메달		

## 8.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표3-32〉 한국스포츠발전에 기여한 양양 사이클

구 분	성 명	지도경력/ 학문 스포츠 단체 기여
양양고 9회	심기연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1962) 전국체전 일반부 사이클 양양 사이클 최초입상자(1963) 국가대표(1963)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코치(1972~1985) 전국체전 7년 패 지도공적(1973~1979) “86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사이클 코치(1984)
양양고 10회	김근우	양양고 사이클 창단선수(1962)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감독(코치)(1969~1971) 한국체육대학교 사이클 지도교수(1984~2003) 한국체육발전공로표창(대한체육회장 김종하 1988) 한국교육발전(체육)공로표창(대통령 1991) 대한사이클연맹 이사(1985~1988) · 총무이사(1994~1996)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경기행정담당관(1986) “87 서울국제사이클경기대회 경기행정담당관(1987) 제24회 “88서울올림픽 경기행정담당관(1988)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본단 임원(한국 종합2위)(1998)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지도실적(개인도로 김경숙, 신대철 금메달 한체대(1986) 문교부(체육고등학교 1종도서) 사이클경기(1994) 외 체육도서 저서 4편 스포츠관련 논문 : 학위논문 외 19편
양양고 13회	전성국	양양중학교 사이클 창단선수(1962) 국가대표(1968~1976) 제6회 “70 방콕아시아경기대회출전 100km도로단체 동메달(대통령 체육포창 1970)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금메달(1972)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운영담당관(1986) 제24회 “88서울올림픽 경기심판(1988) 강원 도청 사이클 감독(1979~1982) · 한국통신공사 사이클 감독(1982~1996) 대한사이클연맹 시설 · 심판 · 경기이사(1982~1995) · 전무이사(1995~1996) 한국실업사이클연맹 부회장(1996~1997) 제11회 “90북경아시아경기대회 사이클 총감독(대통령체육포창)(1990)
양양고 18회	김동일	양양고 사이클 팀 재 창단 선수(1969) 전국체전 고등부 사이클 양양고 최초입상자(1969) 양양고 사이클 동문회 초대회장(1997~2003) 강원도사이클연맹 상임부회장(2000~2009현)
양양고 21회	박순원	양양고 사이클 감독(1998~2003), (2008~2009현) 강원도체육상 수상(1993) 제75회 대전 전국체전 고등부 개인도로(94km) 1~4위 양양고 석권(1994) 제4회 마닐라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대회 감독(종합우승)(1995) 양양군체육문화상 수상(1997) 최우수 감독상 수상(대한사이클연맹) (2001~2002)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 · 부회장(2009~현)

구 분	성 명	지도경력/ 학문 스포츠 단체 기여
양양고 21회	방양호	국가대표(1974) 양양여고 사이클 코치(1989~1990) 양양군청 사이클 감독(1991~1992)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1991~1994) 양양군사이클연맹 회장(2008~현)
양양고 26회	장윤호	국가대표(1980~1988) 제10회 방콕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금메달(1980) 제9회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 100km도로단체경기 금메달(아시아신기록)(1982)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km도로단체 은메달(1983) LA 올림픽대회 출전(1984) 제10회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100km도로단체경기 은메달(1986) 기아자동차 사이클 코치(1988) 대한지적공사 코치, 감독(현) (2006~2009 현) 제13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대표감독실적 장선재 3관왕 · 한국우수선수상 수상(2006) 국가대표 사이클 중장거리 감독상 수상(청용장 2006 · 백마장 2008)
양양고 26회	박상택	양양고 사이클 코치(1990) · 양양군청 사이클 감독(2009 현) 제3회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감독(종합우승)(1991) 제7회 청주MBC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지도감독 1km독주 지성환 1위(1'05"6) 한국 신기록(양양군청)(1998) 제13회 "98방콕아시아경기대회 1km독주 지성환 금메달(양양군청) (1998) 제19회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1km독주 금메달(아시아신기록 1'03"895)(양양군청) (1999) 강원도사이클연맹 전무이사(2009~현)
양양고 28회	안우혁	국가대표(1982) 5000m속도경기 한국 신기록(6' 58"61) (1983) "86서울아시아게임 4km단체경기 은메달(한체대, 국군체육부대) (1986) 제11회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4km단체추발 금메달(1983)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사이클 팀 창단 감독교사(1991)
양양고 30회	허용봉	사이클 코치(양양고, 서울체고, (1992~2002) 국가대표 코치(주니어 · 시니어대표) 제75회 전국체전 금메달 3, 개인도로경기 1~4위 양양고 석권 지도코치(1994) 제11회 대통령배 전국사이클경기대회 금메달 9개 입상(11개 종목) 지도코치(1994) 제10회 방콕 아시아주니어 사이클 선수권대회 지도코치(2002) 제23회 창원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지도코치(2003)
양양고 36회	엄인영	국가대표 (1997) 서울체육고등학교 사이클 전임코치(2006~2009 현) 제12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동메달 (대통령 표창) (1994) 전국체육대회 금 7, 은 3, 동메달 6개 입상(스프린트 3연패) 제19회 아시아 사이클 선수권대회 올림픽 스프린트 은메달 · 경륜경기 동메달(1999)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륜경기 최초출전(2000)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편(2008)

# 襄陽郡誌

## 襄陽郡誌編纂委員會

### ■ 편찬위원회

위원장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부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장
위원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이상집 속초양양 교육장
	김양수 강원도의회 의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최종덕 한국예총양양군지부 회장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감사	김양식 전 강원도 관광협회 부회장
간사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서기	이정미

### ■ 집필

위원장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민속문화)
위원	이상수 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선사시대)
	전유길 양양군청 학예연구사(오산리선사유적, 천주교)
	박도식 관동대학교 사학과 교수(삼국 · 고려 · 조선)
	이철휘 고등학교 교사(3 · 1운동과 근 · 현대사)
	엄경선 설악신문 프리랜서기자(근 · 현대 인물사)
	홍문표 경동대학교 외래교수(기후환경)
	김형섭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동 · 식물)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양양산불, 산업)
	김성영 전 양양남대천보존회장(남대천)
	박홍식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
	사득환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행정)
	윤경호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과 교수(농업)
	박용진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임업)
	진덕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명공학부 교수(수산)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
	김건석 강릉원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광업)
	김무림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언어)
	이한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민속신앙)
	최혜정 강릉영동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의생활)
	황재희 강릉영동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식생활)
	정재국 관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주생활)

엄창섭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문학)  
 양언석 강원도립대학 교양학부 교수(한문학)  
 함영문 (사)아시아 지역문화 연구원(사진)  
 최영철 경동대학교 건축과 교수(유형문화재)  
 고경재 전 양양문화원장(지명유래)  
 김진하 현남면장(금석문, 재난·재해)  
 최창섭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  
 정영호 단국대학교 박물관장(불교)  
 박양자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유교)  
 이재풍 양양문화원향토사연구원(기독교, 성씨·인물)  
 정석중 관동대학교 관광과 교수(관광)  
 함석중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축제)  
 이재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관광자원)  
 김근우 전 한국체육대학 교수(체육)  
 박상덕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과 교수(사회기반시설)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교통)  
 이태교 동우대학 복지행정과 교수(보건복지)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성씨·인물)  
 이상규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추종삼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이상범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김준영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원(성씨·인물)

## ■지원

### 위 원

김원래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장  
 한덕복 양양군청 민원봉사과장  
 이재철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장  
 문종수 양양군청 경제도시과장  
 오한석 양양군청 문화관광과장  
 김호열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장  
 이상부 양양군청 산림농지과장  
 박상길 양양군청 환경관리과장  
 이한빈 양양군청 건설방재과장  
 조규백 양양군청 해양수산과장  
 장금자 보건소장

김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현 농업정책과장  
홍봉기 기술보급과장  
윤 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학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현 양양군청 의회사무과장  
한흥빈 전문위원  
박원표 양양읍장  
전도영 서면장  
윤종덕 손양면장  
이향란 현북면장  
김진하 현남면장  
최근상 강현면장

#### ■ 편집

위원장 이종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  
위 원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진하 현남면장  
김재환 전 양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장  
김광영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 ■ 감수

임효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 교정 · 교열

여진호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권석순 강릉원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 ■ 사진

양양군청 강원일보사 최낙민 김재환

#### ■ 고문헌 자료제공

고석우 김돈일 박상형 이건주 이근만  
이동철 이병률 이준석 최진영



# 襄陽郡誌

인쇄일	2010년 11월 15일
발행일	2010년 11월 30일
편찬	양양군지편찬위원회
발행	양양문화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82-1 (☎ 671-6269)
기획편집	양양군지 편집실
인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